평 택 시

평택마을기록사업 ❽

2021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
·
·

진위면
진위테크노밸리 개발구역 및 인근지역

야막리

하북리

견산리

신 리

·
·
·

平澤文化의 中心 –
평택문화원

제 출 문

평택시장 귀하

"2021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평택문화원 원장 **이 보 선**

목 차

Ⅰ. 사업개요 7

1. 개요 9
2. 사업대상지역 9
3. 조사지역 10
4. 화보 12

Ⅱ. 진위면의 공간현황 및 공간조직(장수아) 37

1. 진위면의 공간현황과 마을 40
2. 진위면의 공간변화 62
3. 진위면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88
   1) 야막리 90
   2) 하북1, 4리 96
   3) 하북3리 102
   4) 하북2리 108
   5) 견산리 114
   6) 신리 124

Ⅲ. 진위면 견산리 마을조사(김해규) 133

1. 조사 배경과 목적 135
2. 지리적 환경과 지명 138
3. 역사와 마을 155
4. 경제생활 162
5. 사회생활 180
6. 교육과 문화 188
7. 견산리 구술조사 198
   · 김광수(남, 1951년생, 견산1리) 198
   · 김만영(남, 1943년생, 견산1리) 209
   · 이광섭(남, 1941년생, 견산1리) 216
   · 김영회(남, 1945년생, 견산2리) 229
   · 김문규(남, 1940년생, 부인(여, 1944년생, 견산2리) 241

목 차

Ⅳ. 진위면 신리 마을조사(김해규) 249
1. 지리적 환경과 지명 251
2. 역사와 마을 266
3. 경제생활 271
4. 사회생활 289
5. 교육 · 종교 · 문화 299
6. 신리 구술조사 306
· 김장영(남, 1953년생), 이종영(남, 1954년생) 306
· 김종식(남, 1942년생) 320
· 김춘자(여, 1945년생) 335
· 우제강(남, 1940년생) 344
· 유인원(남, 1938년생) 355

Ⅴ. 진위면 하북리 마을조사(장연환) 369
1. 지리적 환경 371
2. 역사적 환경 389
3. 경제생활 409
4. 사회생활 436
5. 문화생활 452
6. 하북리 구술조사 466
· 이길수(남, 1952년생, 하북1리) 466
· 이정재(남, 1939년생, 하북1리) 479
· 조영신(여, 1952년생, 하북1리) 488
· 한승권(남, 1961년생, 하북1리) 499
· 권병덕(남, 1948년생, 하북2리) 509
· 이세영(남, 1958년생, 하북2리) 523
· 윤증순(여, 1957년생, 하북3리) 539
· 이순님(여, 1943년생, 하북3리) 553
· 권오일(남, 1961년생, 에바다학교) 563
· 유윤근(남, 1957년생, 하북4리) 574

Ⅵ. 진위면 야막리 마을조사(장연환) 587

목 차

1. 지리적 환경 589

2. 역사적 환경 600

3. 경제생활 611

4. 사회생활 629

5. 문화생활 634

6. 야막리 구술조사 638

· 김형주(남, 1942년생, 야막리) 638

· 박정숙(여, 1967년생, 야막리) 650

· 이부순(남, 1941년생, 야막리) 663

· 임성남(남, 1969년생, 야막리) 686

Ⅶ. 토지대장을 통한 변화양상 분석과 해석(윤한택) 703

1. 20세기 초 진위군 견산리 · 하북리 · 신리 · 야막리의 토지 소유 양상을 통해서 본 사회 구성 변화의 일단 705

1) 들어가며 705

2) 자연동별 현황 705

3) 주요 성씨별, 호주(법인)별 현황 717

4) 나가며 720

부록) 표1. 이북면 견산리 · 하북리 · 신리(동별) 721

표2. 이북면 견산리 · 하북리 · 신리(성별) 750

표3. 이서면 야막리(동별) 780

표4. 이서면 야막리(성별) 785

2021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I.

사업개요

- 화보

여 백

Ⅰ. 사업개요

1. 개요

- 사 업 명 : ‘2021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 기　　간 : 2021년 1월 ~ 12월
- 주　　최 : 평택시
- 주　　관 : 평택문화원
- 대상지역 : 진위면 진위테크노밸리(진위4산업단지) 개발구역 및 인근지역 (야막리, 하북리, 견산리, 신리)

- 내　　용
  - 인문지리, 구술조사, 사진자료 확보 등 마을조사 진행
  - 역사적 사건 및 일상생활의 기억과 증언을 녹취 및 촬영
  - 항공사진, 지도 및 도면으로 마을공간조직 분석
  - 토지대장을 통한 시대적 변화 양상 분석과 해석
  - 자료 분류 및 업로드를 통한 기초 아카이브 구축

2. 사업대상지역

3. 조사지역

<table>
<tr><th>조사지역</th></tr>
<tr><td>견산리(조사자 김해규)</td></tr>
<tr><td>
</td></tr>
<tr><td>①벌미 ②산직촌, 경원아파트 ③청도아파트 ④서원아파트
⑤서울아트빌리외 ⑥한승아파트</td></tr>
<tr><td>신리(조사자 김해규)</td></tr>
<tr><td>
</td></tr>
<tr><td></td></tr>
<tr><td>하북리(조사자 장연환)</td></tr>
<tr><td>
</td></tr>
<tr><td>①아랫성뒤 ②대정촌 ③새마을촌 ④하북4리</td></tr>
</table>

조사지역
야막리(조사자 장연환)

-진위면의 공간현황 및 공간조직(조사자 장수아)

-토지대장을 통한 변화양상 분석과 해석(조사자 윤한택)

사라지기전 그리움을 남기다

야막리와 진위테크노밸리 개발 예정지 전경

견산리

진위천에서 본 견산리들판

봉남리에서 본 견산리들판

하북리에서 본 견산리들판

진위하수처리장과 체육공원

견산1,3,4,5리와 하북리 전경

견산2리 산직촌

견산2리 산직촌 입구

견산2리 산직촌과 경원아파트 뒤로 견산6리 한승아파트 전경

견산2리와 6리 한승아파트 전경

견산3리 청도아파트(왼쪽)와 견산4리 서원아파트(오른쪽) 뒤는 가곡리 매일유업

견산3리 마을쉼터

견산3리 청도아파트 마을조사중

견산4리 서원아파트

견산4리 서원아파트

견산6리 한승아파트

매일유업(가곡리)

영풍제지

한국야쿠르트

신리

신리 파노라마

진위천을 가로지르는 경부선철도와 1번국도변에 위치한 신리

신리의 가을

신리 전경

진위천

진위천

신리 마을 풍경

세아FS(한국번디)

서석환

신리 사람들

송종배

오영애

우제강

신리 배추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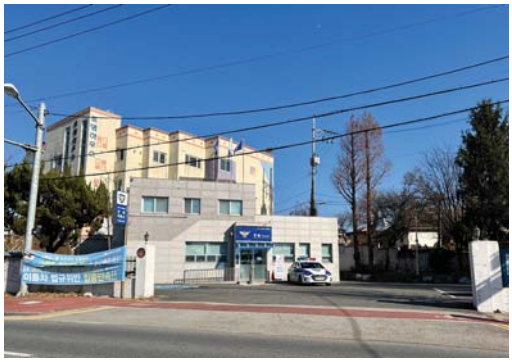
신리 포도하우스

신리 화훼하우스

하북리

진위역

하북1리 4리 파노라마



진위파출소

진위파출소 버드나무

진위중고 입구

하북감리교회

88이용원

88이용원

하북2리 대정촌 파노라마

하북2리 대정촌 전경

하북2리 대정촌 풍경

국가유공자 가족 이영선

송탄농협시설채소출하회장 정병헌

하북3리 새마을촌 파노라마

오산천을 가로질러 금암리(왼쪽)와 하북리(오른쪽)를 이어주는 금암교

대파하우스

하북4리 전경

에바다학교

하북4리 마을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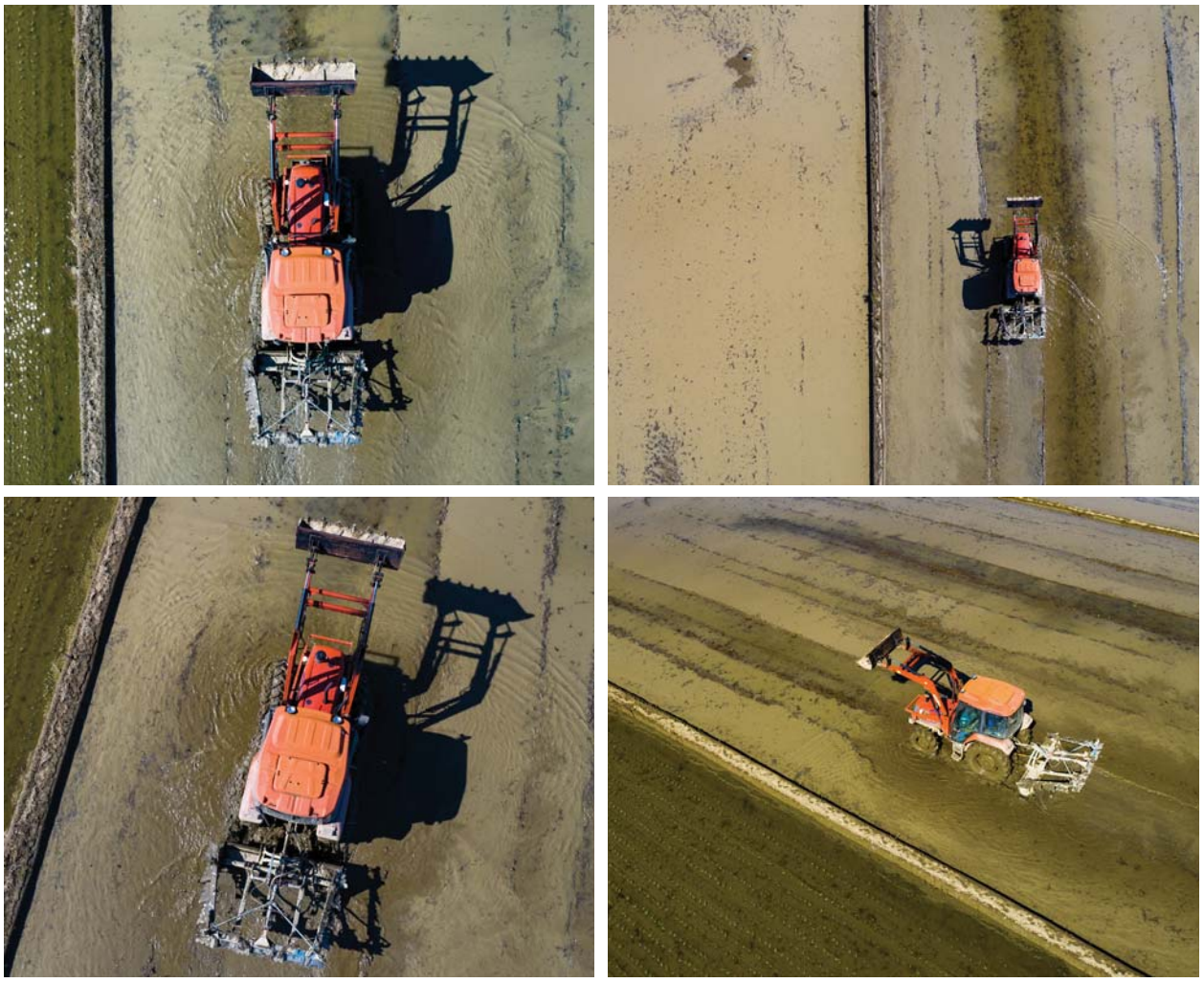
홍원제지

야막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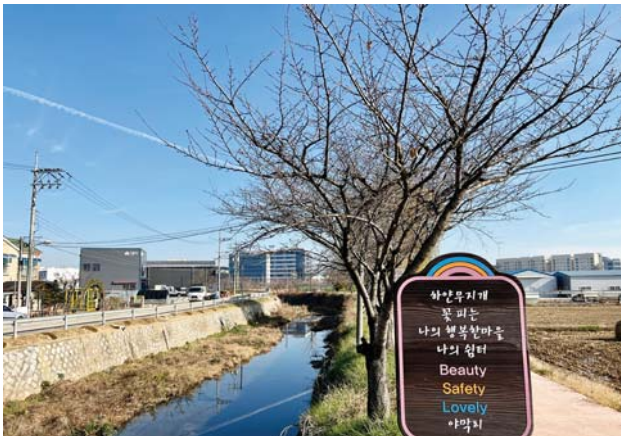
야막리 파노라마

야막리와 진위테크노밸리 개발 예정지 전경

오산천을 가로질러 오산시 탑동(상단)과 진위면 야막리(하단)를 이어주는 야막리 세월교



야막리 봄풍경



야막리 마을풍경

야막리 마을풍경

야막고가교

야막리이장 임성남

연구자회의(좌로부터 장수아, 장연환. 윤한택, 최치선, 김해규)

연구조사 중 견산리 장호들에서(좌로부터 윤한택, 김해규, 장연환, 최치선)

2021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II.

진위면의 공간현황 및 공간조직

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장수아

여 백

목차

1. 진위면의 공간현황과 마을
2. 진위면의 공간변화
3. 진위면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DIRACE
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장수아

1. 진위면 공간현황과 마을

평택시 진위면

면적 : 34.02 km^2

법정리 : 12 개소

가곡리(佳谷里), 견산리(見山里), 동천리(東泉里), 마산리(馬山里)

봉남리(鳳南里), 신리(新里), 고현리(高峴里), , 갈곶리(葛串里), 야막리(野幕里), 청호리(靑湖里), 은산리(銀山里), 하북리(下北里)

행정리 : 37개소 114반

인구 : 11,418 명

인구밀도 : 352명/ km^2

세대수 : 6,082 세대

[출처: 2021년, 평택시 진위면 일반현황,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contents.do?mId=2001050200]

남양만

아산만

당진시

©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 배경 항공사진 출처 : 2018년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오산시
진위면
평 택 시
안성시
평택호
천안시
아산시

평택시 행정구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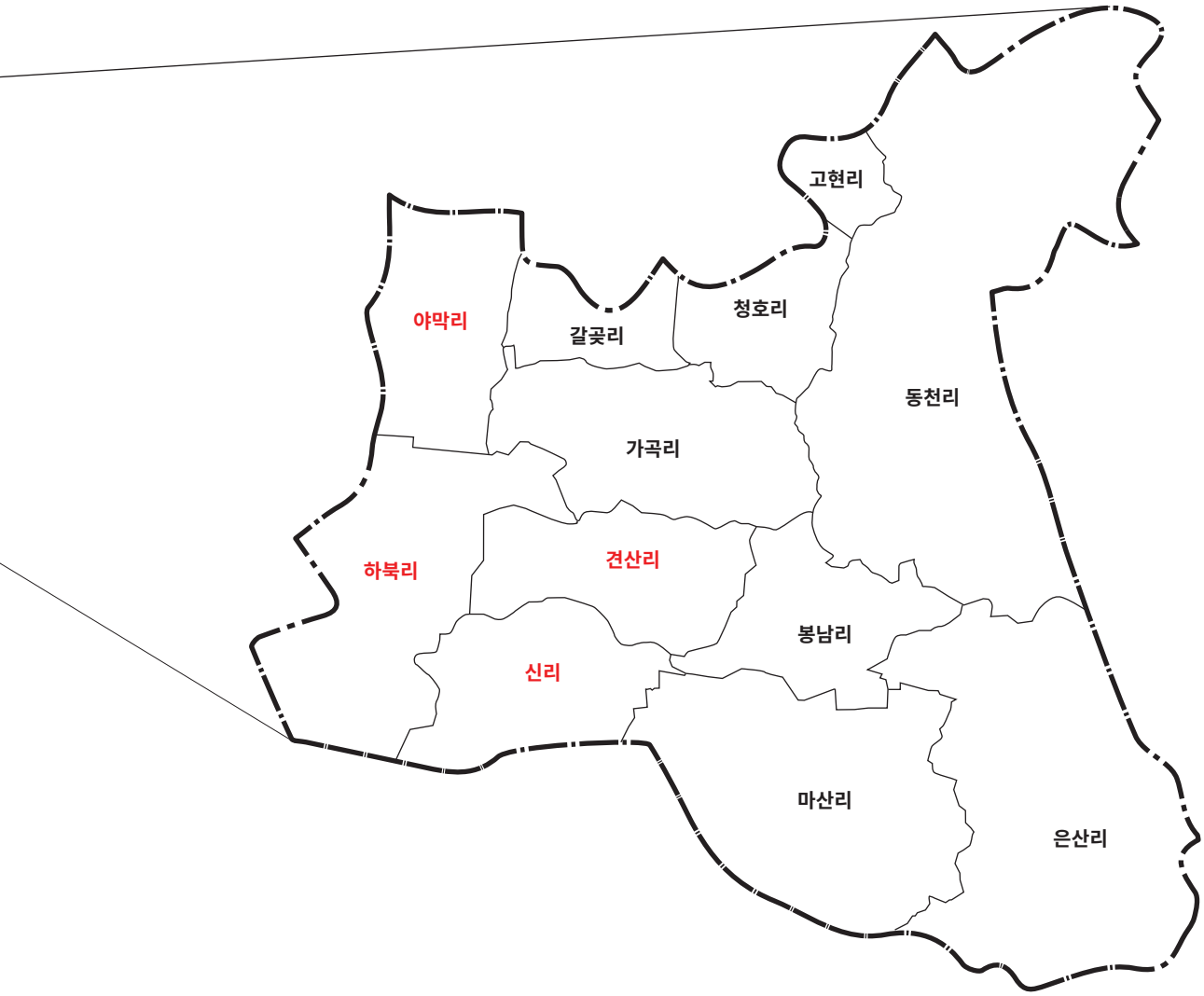
4개 읍, 5개 면, 16개 동으로 구성되어있는 평택시의 행정구역에서 진위면은 동북 측 끝 부분에 위치하여 오산시, 안성시, 용인시 경계와 인접하여 면 단위로서는 가장 많은 자치단체와 인접하고 있다. 진위면 남서 측으로 서탄면, 신장동, 송북동과 인접하고 있다.

진위면 행정구역 및 마을 현황

진위면은 조선 말기까지의 진위군의 중심지로 1914년까지 진위군의 군청 소재지였으며 1938년 진위군에서 평택군으로 변경되었고 1986년 평택시로 승격되었다. 1995년 북측의 오산시와 인접한 갈곶리, 청호리, 고현리 일부가 오산시에 편입되었다.

진위면의 면적은 약 34.02㎢로 인구 11,41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6,085세대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37개 행정리 114반으로 구성되어있다. 진위면의 법정동 - 리의 구성은 봉남리, 마산리, 은산리, 동천리, 청호리, 갈곶리, 야막리, 가곡리, 견산리, 하북리, 신리, 고현리 등 12개 법정리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에서 사라지는 마을 조사 대상은 산업단지 시설의 확장 및 점유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야막리, 하북리, 견산리, 신리등 4개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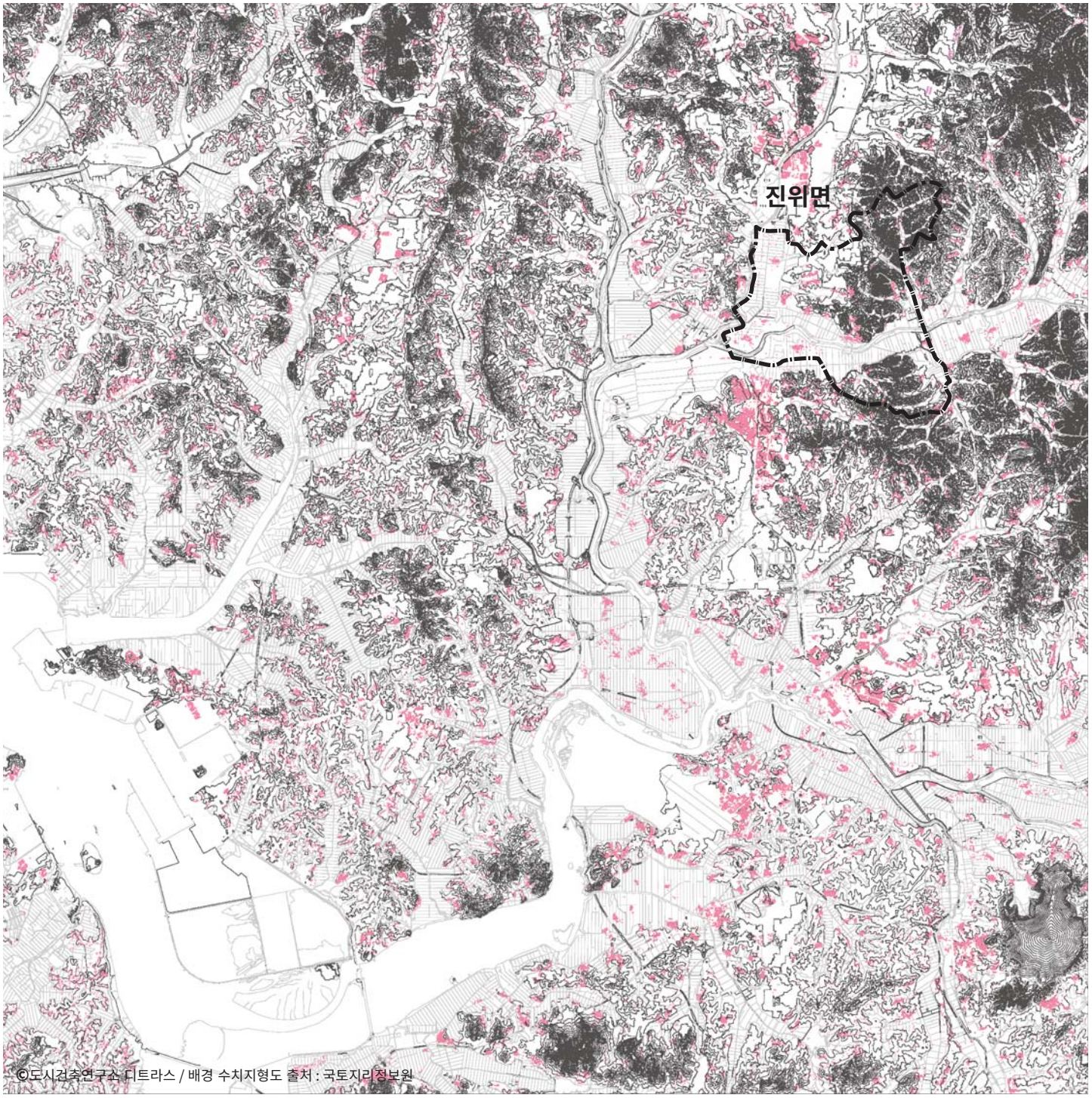


©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1. 진위면 공간현황과 마을

진위면 - 지형과 마을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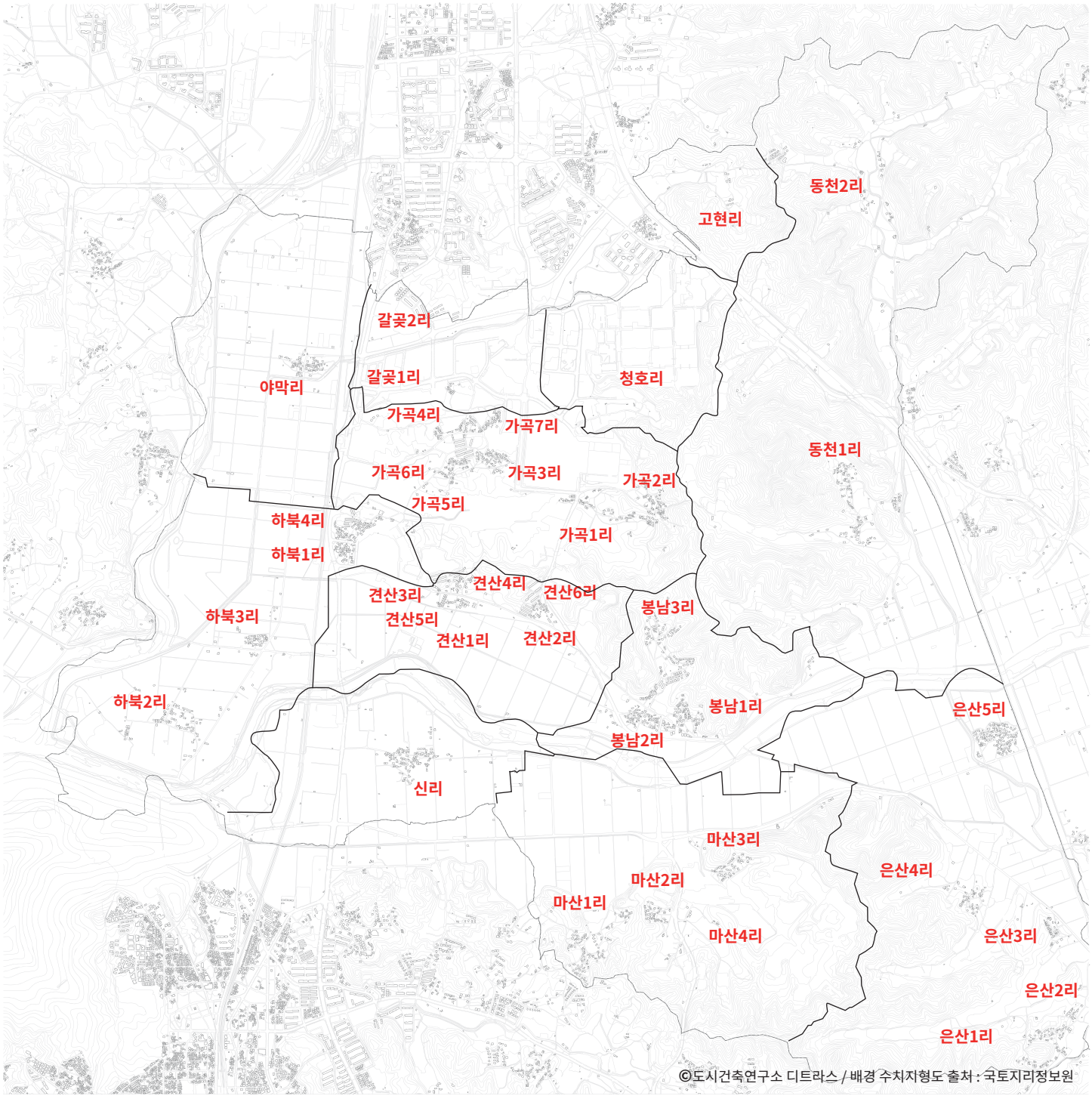
평택시에서 진위면은 북동 측 끝에 위치하면서 북측의 오산시 화성시와 인접하고, 동쪽으로 용인시, 안성시와 인접하고 있다. 용인시로부터 남서 측 방향으로 내려오는 산맥 줄기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마등산과 무봉산이 진위천을 만나는 지점에 진위면이 위치하여 진위천 북동 측으로는 경사가 비교적 급한 산지형이 분포하며 진위면 봉남리 서 측으로는 오산천이 남북방향으로, 남 측에는 진위천이 동서 방향으로 형성되어있고, 이 두 개의 하천이 진위면 남서 측 끝에서 만나면서 넓은 경작지가 남북축 - 동서축으로 형성되어있다. 진위면의 마을들은 두 하천변의 논 경작지의 평야 지대에 위치한 마을과 무봉산과 마등산 끝자락의 구릉지에 위치한 마을들이 분포하고 있다.



©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 배경 수치지형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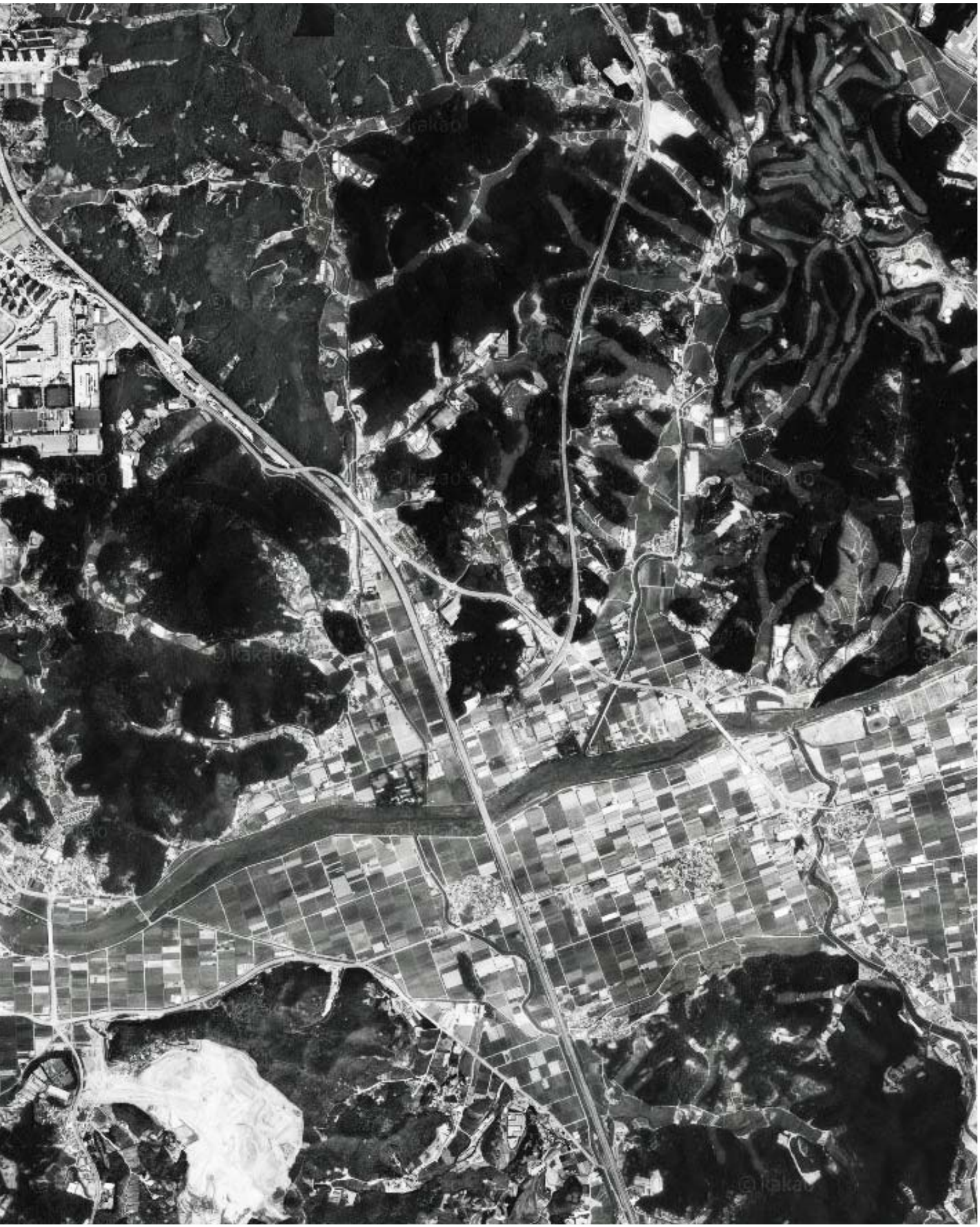
진위면 마을 - 12개 법정리 37개 행정리

진위면은 가곡리(佳谷里), 견산리(見山里), 동천리(東泉里), 마산리(馬山里), 봉남리(鳳南里), 신리(新里)-고현리(高峴里), 갈곶리(葛串里)-야막리(野幕里)-청호리(靑湖里), 은산리(銀山里), 하북리(下北里) 등의 마을은 12개의 법정리와 37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대상인 야막리, 하북리, 견산리, 가곡리, 견산리, 신리 등은 진위면 면사무소 소재지인 봉남리 서쪽에 분포하며 하북리, 견산리, 가곡리는 산 경사 지형 내에 위치하고, 하북2리, 야막리, 신리 등은 하천에 근접한 논 경작지대 한가운데 있다.



1. 진위면 공간현황과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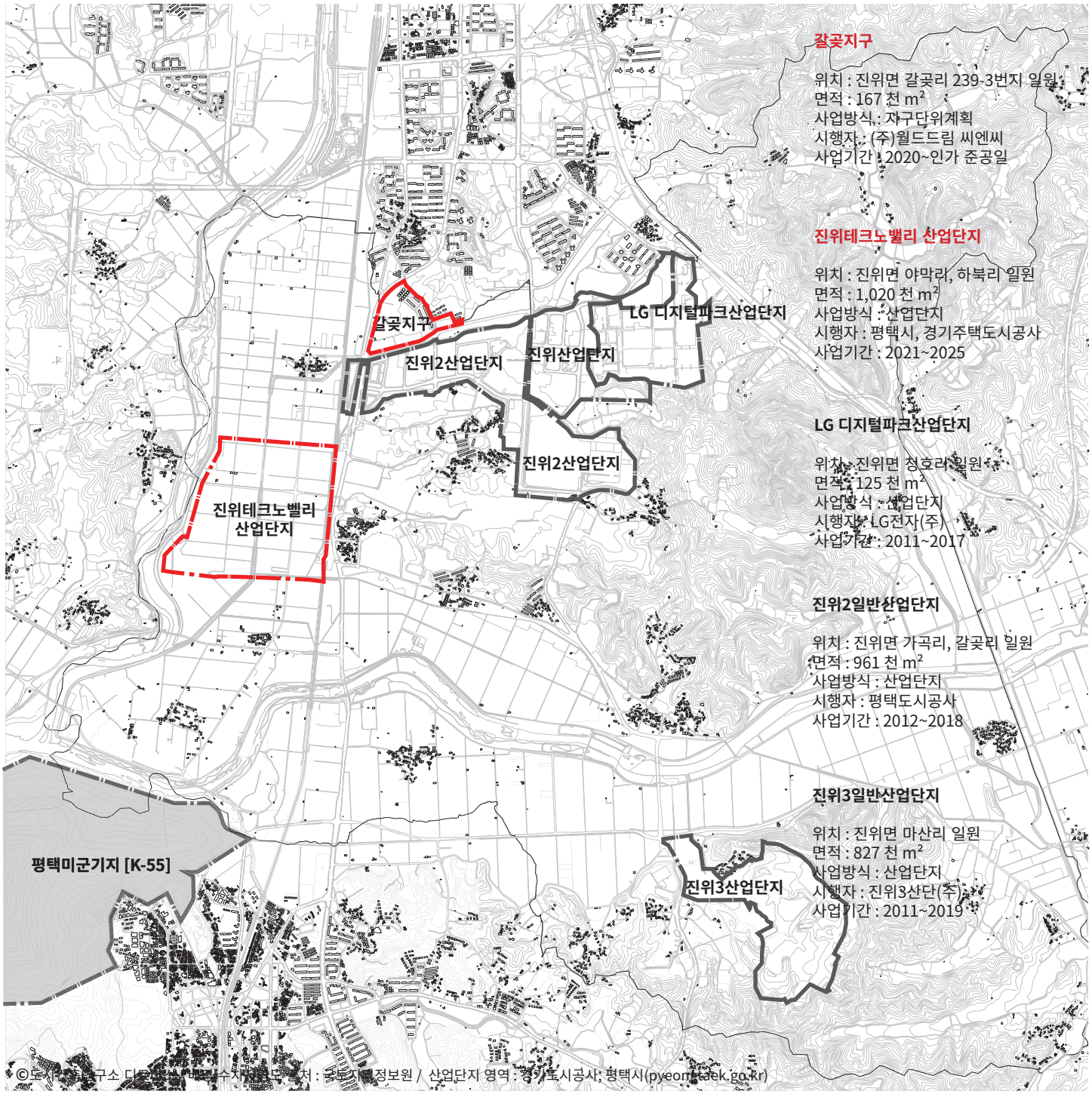
진위면 2018년 항공사진



1. 진위면 공간현황과 마을

진위면 산업단지 분포 현황

진위면은 청호리와 가곡리 일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있어 대규모 공장들이 분포하고 있고, 경부선 서 측 오산천변의 논 경작지대에 새로이 조성계획이 발표된 LG 산업단지 조성계획으로 산업단지 주변의 마을들은 단절 분리 고립되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산업단지 관련 시설들이 점차 마을 곳곳을 점유하고 있고, 도로구조 또한 급격한 변화를 진행하고 있어 자연마을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들의 점유로 마을들의 관계는 단절 고립되고 있으며 자연마을의 경관도 공장과의 모순된 구조로 점차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평택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마을 조사는 매우 긴박한 것으로 여겨진다.



경부선 철로로 인한 동서 단절

경부선-1호선 국철 철로가 진위면 중심을 남북방향으로 관통하고 있어 서측의 오산천 주변의 야막리와 하북리 일대와는 물리적 단절이 발생하고 있고, 가곡리, 견산리 하북1리 신리등은 경부선 철로 동측에 위치하고 있다.
고가도로, 진위역, 하천변 보행로, 육교의 형태로 7곳의 연결 지점들이 형성되어있지만 경부선 철로, 경부고속도로, 산업 단지들의 점유로 인해 진위면의 마을은 공간적 분리, 고립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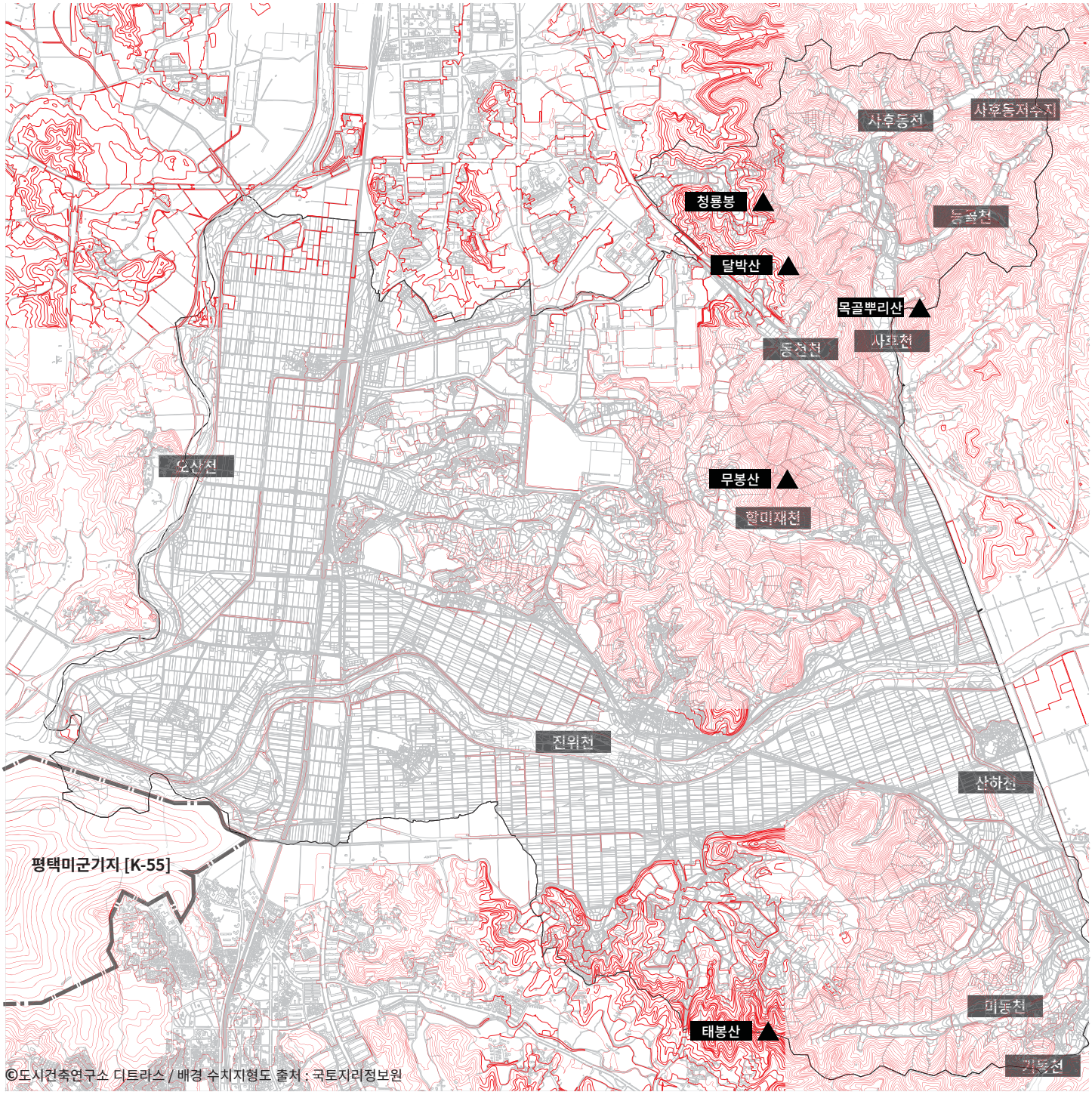
©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배경 수치지형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1. 진위면 공간현황과 마을

진위면 지형과 마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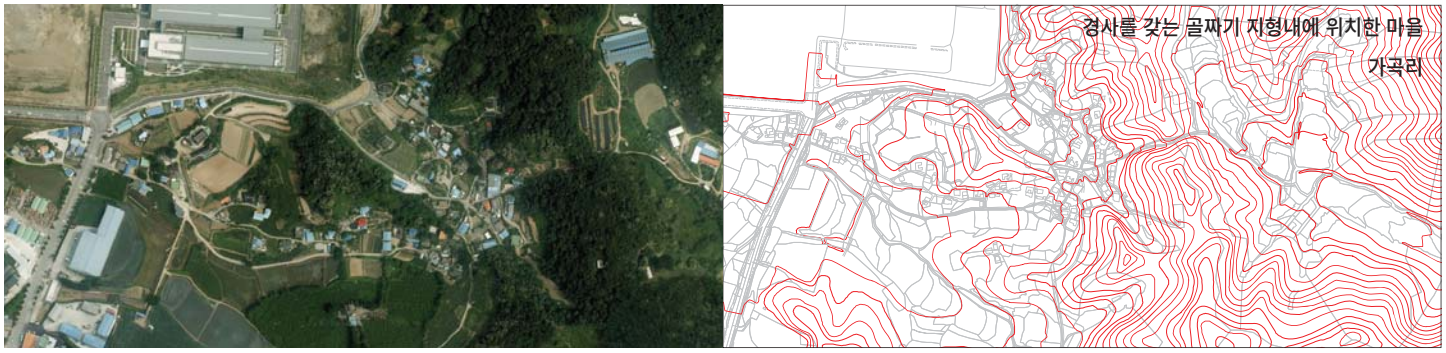
진위면 서북 측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등산과 무봉산이 서측의 오산천과 남측의 진위천을 경계로 끝나면서 경사지형을 만들고, 마을들은 산 경사 지형과 논 경작 지형의 평야 지대가 만나는 경계부에 가곡리 하북리 견산리 봉남리 등이 분포하고 있다. 이 외에 야막리 신리 하북리 등은 하천변의 논 경작지대 한가운데 분포하고 있다.

서측의 무봉산 자락의 산 경사 지형은 해발고도 200m 내외의 높이가 굴곡진 골짜기 지형을 만들고 있고, 서측으로 길게 형성되어있는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골짜기 지형에는 가곡리, (청호리) 등이 분포하고, 남측의 진위천을 바라보며 짧지만 비교적 경사가 급한 골짜기 지형에는 봉남리와 견산리가 위치하고 있다.



평택시에서 진위면은 북동 측 끝에 위치하면서 북측의 오산시와 인접하고, 동측으로 용인시, 안성시와 인접하고 있다. 용인시로부터 남서 측 방향으로 내려오는 산맥 줄기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마등산과 무봉산이 진위천을 만나는 지점에 진위면이 위치하여 진위천 북동 측으로는 경사가 비교적 급한 산지형이 분포하며 진위면 봉남리서 측으로는 오산천이 남북방향으로, 남측에는 진위천이 동서방향으로 형성되어있고, 이 두 개의 하천이 진위면 남서 측 끝에서 만나면서 넓은 경작지가 남북축 - 동서축으로 형성되어있다. 진위면의 마을들은 두 하천변의 논 경작지의 평야 지대에 위치한 마을과 무봉산과 마등산 끝자락의 구릉지에 위치한 마을들이 분포하고 있다.

[항공사진 출처: 카카오맵 스트리트뷰,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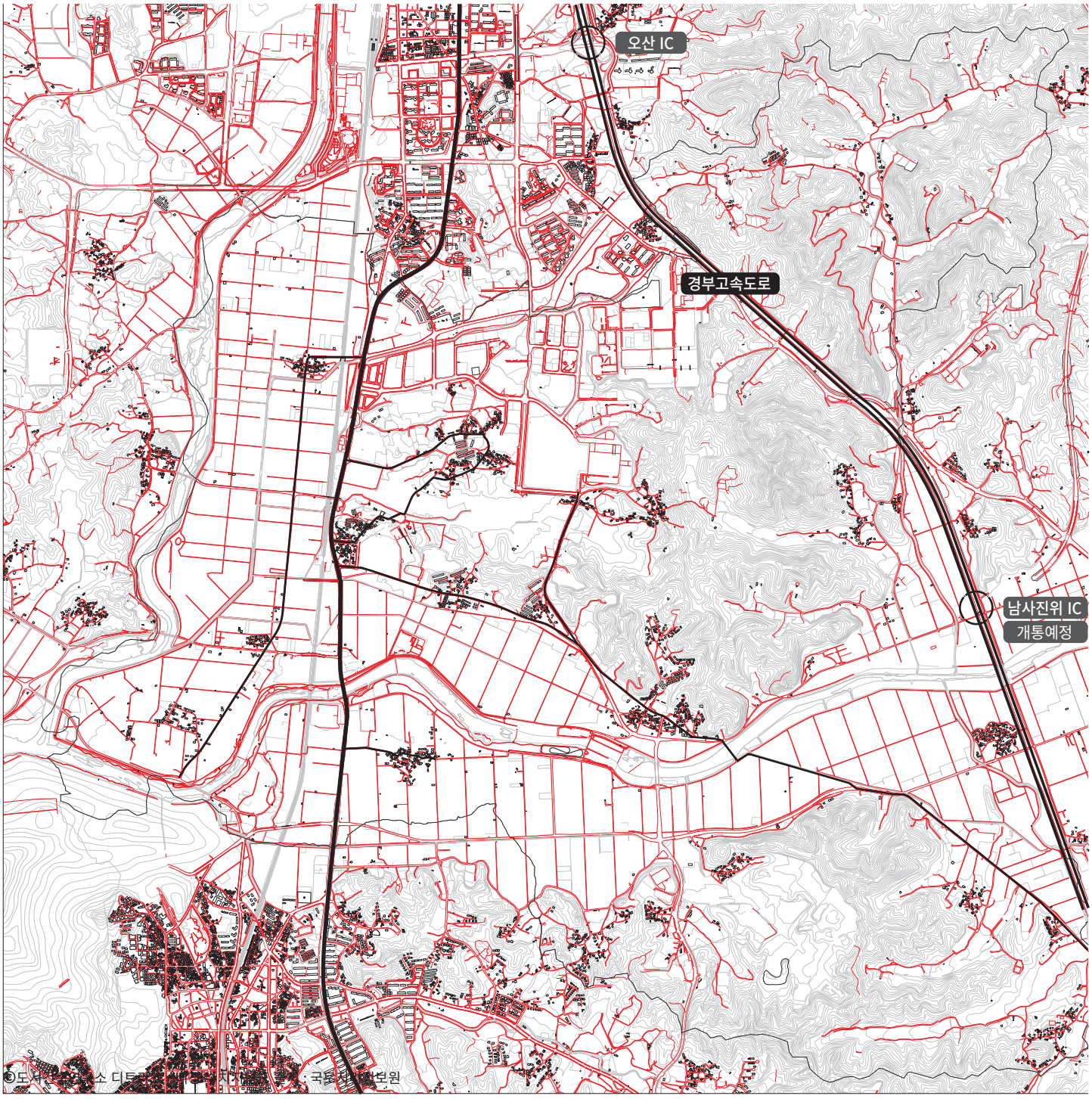


1. 진위면 공간현황과 마을

진위면 도로 구조와 마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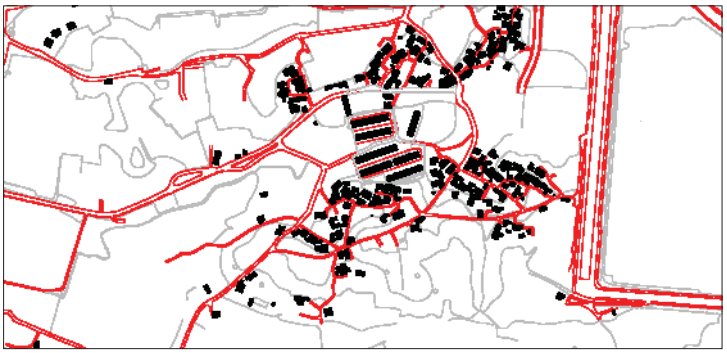
진위면 일대의 도로 구조는 기본적으로 지형과 경부선 철로를 따라 구조화되어있다. 오산천과 진위천 주변은 경작지가 질서있는 격자형으로 구조화 되어있으며, 산 주변의 경사 지형 지역은 지형에 순응하고 과거로부터 형성되어왔던 소로들이 불규칙하게 분포하면서 마을들을 연결하고 있다.
경부선 철로와 나란히 남북을 관통하는 1번 국도는 진위면 일대의 중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진위면 동북 측의 경부선과 연결되고 있는 310번 국도, 그리고 진위역에서 동측으로 연결되는 314번 국도가 기본 도로 구조로 형성되어있다.

마을들은 주요한 도로로부터 골짜기나 구릉능선을 따라 하위 위계를 갖는 도로로 이격된 위치에 이격되어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소로의 불규칙 도로구조를 갖는 마을

사례, 가곡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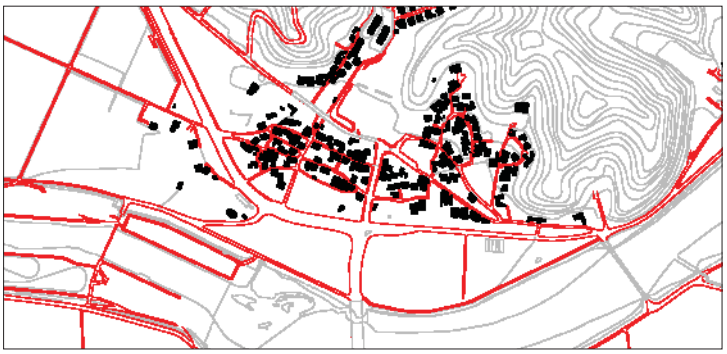


격자형 논 경작지에 **소로의 불규칙 도로구조**를 갖는 마을

사례, 야막리 / 하북리 / 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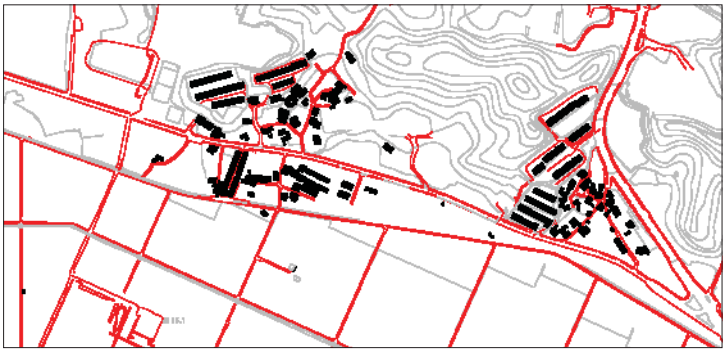
경사지에 계단형 도로구조를 갖는 마을

사례, 봉남리



주 도로 축을 중심으로 불규칙한 도로구조를 갖는 마을

사례, 견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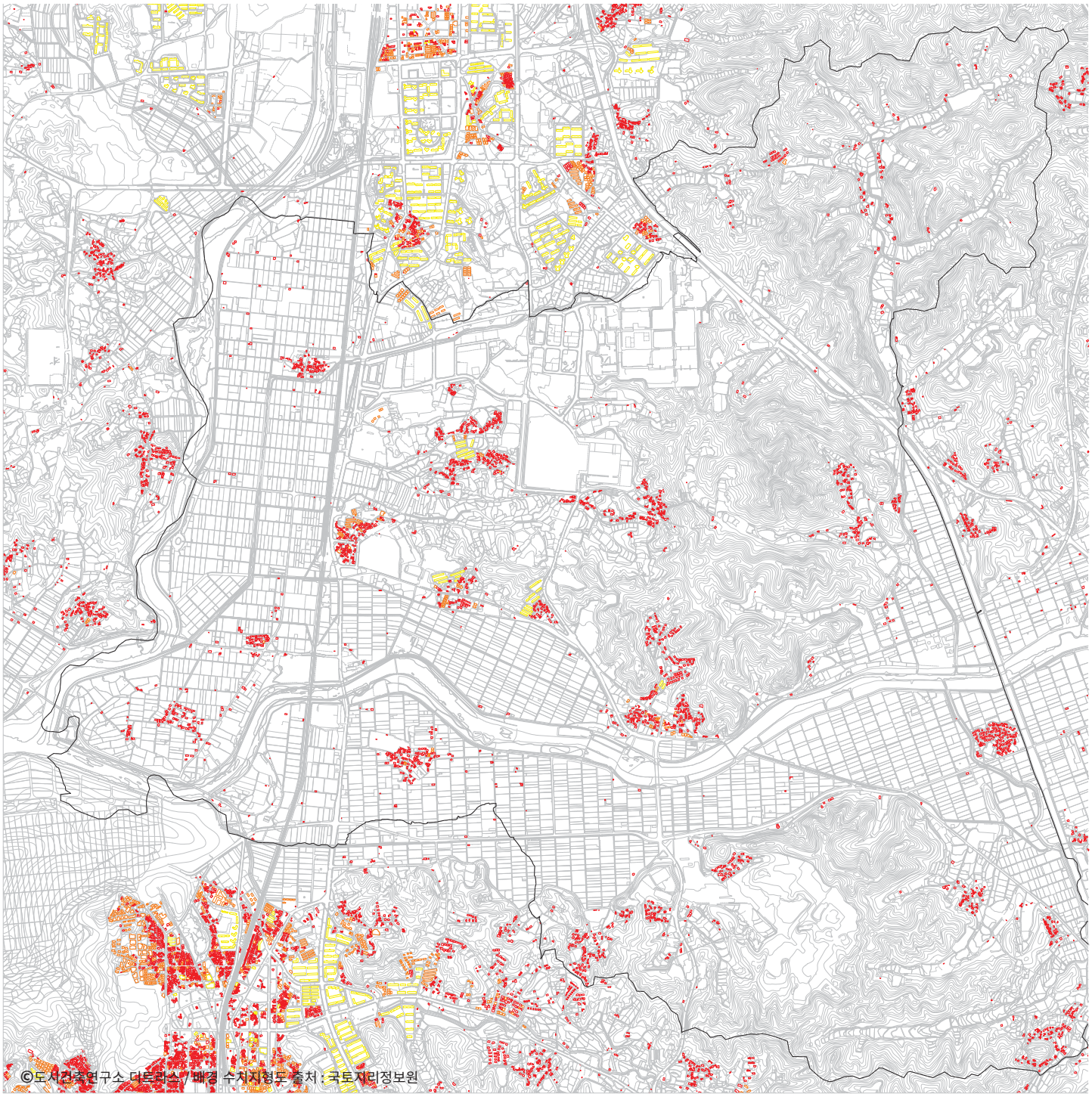


1. 진위면 공간현황과 마을

진위면 건축물 현황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에서 주택과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트만을 선별하여 분포를 확인할때, 대부분의 마을들이 1960-70년대에 형성된 민가 주거유형의 건축물 중심으로 분포되어있으나, 1980년대 초반 공장주변으로 맨숀, 연립주택과 같은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이 나타나고 1990년대 이후로 10층 이상의 아파트 건축물이 나타난다.
또한, 오산천과 경부선 철로 사이에 위치한 논 경작지와 진위천 남측 논 경작지에는 비닐하우스 형태의 농업 시설물들이 점차 확산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마을은 1960-70년대 민가유형의 개별 주택과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혼재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장 등의 산업시설들은 마을에 인접하여 분포하는 경우가 많고 부분적으로는 마을조직을 침범 및 점유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 범례 -

진위면 행정구역 경계

개별 주거 건축물 - 단독주택중심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맨숀, 연립주택

대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아파트

산업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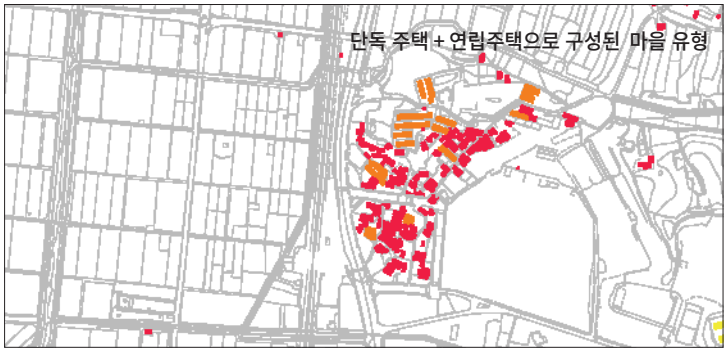
[사진 출처: 카카오맵 스트리트뷰, 2021]

[수치지형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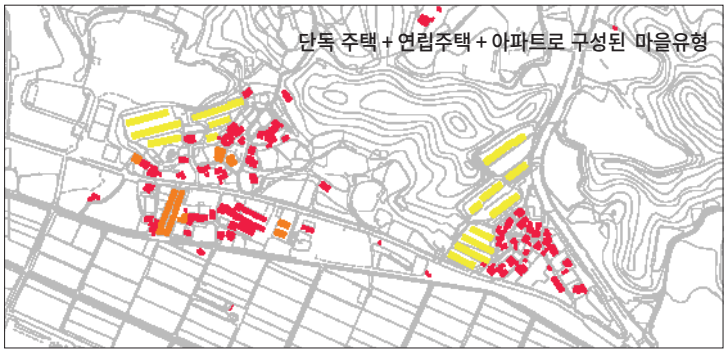
하북3리 비닐하우스 전경[사진 최차선]

야막리 단독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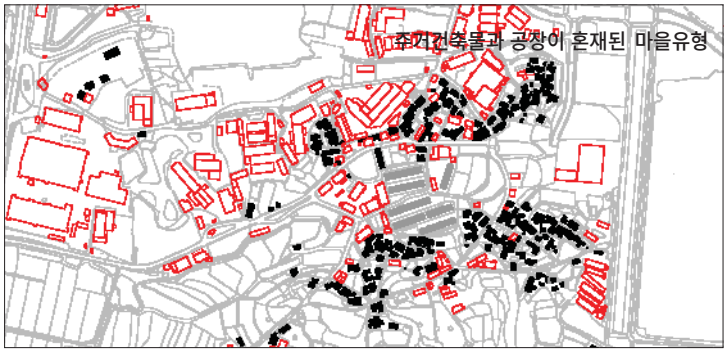
가곡리 화영아파트[연립주택]



견산리 한승 아파트[사진 최차선]



하북리 흥원제지 공장[사진 최차선]



1. 진위면 공간현황과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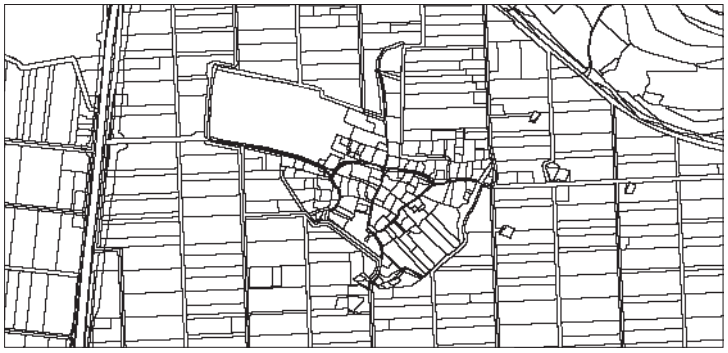
진위면 지적(필지) 현황

진위면의 필지의 구성은 두 하천을 중심으로하는 경작지역은 규칙성을 갖는 직사각형의 구성으로 일정한 배열을 갖고 있으며, 경사지형이 시작되는 산지나 구릉지에서는 다양한 불규칙성을 갖는 필지들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마을지역의 필지구성은 부분적으로 독특한 형태를 갖는 필지들이 구성되어있고, 필지의 방향은 도로와의 관계와 필지들의 군집성을 볼때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논경작지의 규칙성을 갖는 필지는 1960년대 후반 경지정리를 통해 형성되었으나 정방형 형태의 필지나, 불규칙 형태를 갖는 필지들로 구성된 마을의 필지유형은 조선시대 말기 또는 일제강점기의 필지들의 흔적들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것으로 추정된다.

©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 연속지적도 출처 : 국가공간정보포털GIS 파일 그래픽 파일로 변환

세장형 필지로 구성된 마을

정방형 필지와 세장형 필지가 혼재된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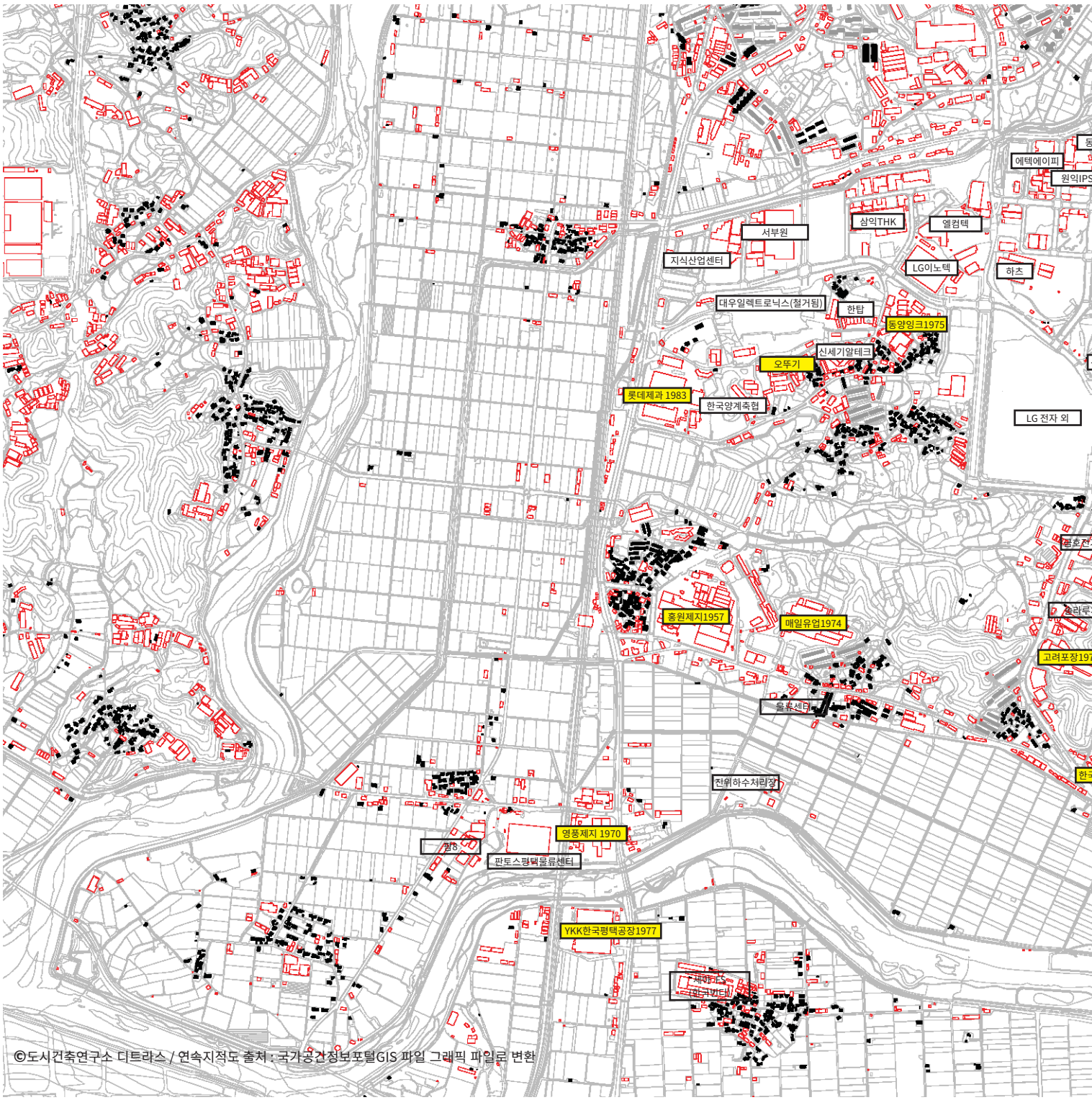
정방형 필지와 불규칙 형태의 필지가 혼합된 마을

불규칙한 형태의 필지로 구성된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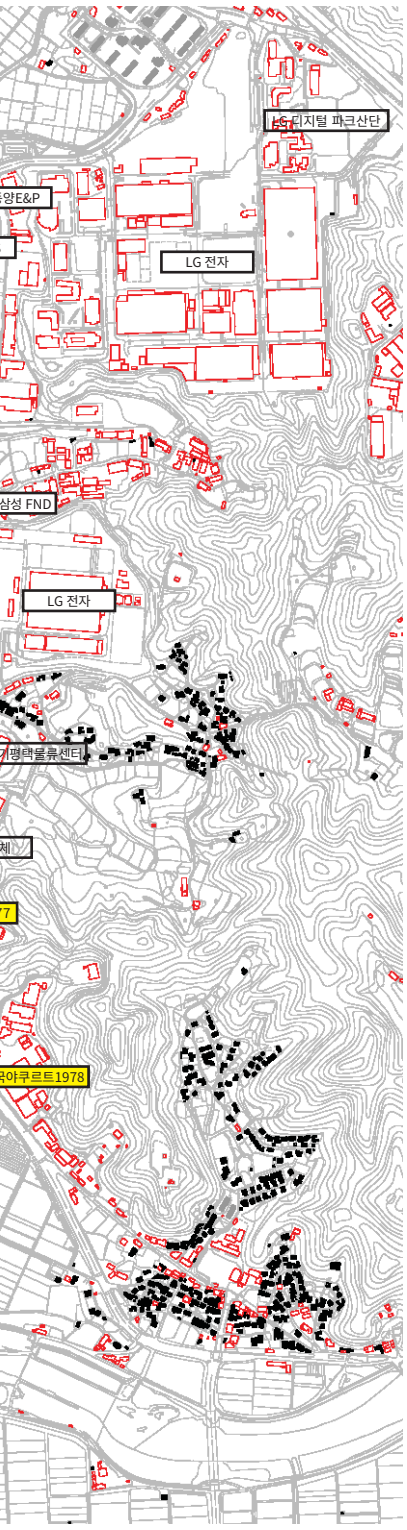
1. 진위면 공간현황과 마을

진위면 주요 산업시설 분포 현황

시설명 - 준공년도 진위면 일대 주요 산업시설 및 1980년 이전에 설립된 산업시설



[사진 출처: 카카오맵 스트리트뷰, 2021]



대우 일렉트로닉스
진입로 수목 및 정문
이외의 공장 및 대부분 공장터는 철거됨

롯데제과 공장 1983년 준공
[현, 신축추정]

동양잉크 공장 1975년 준공
[현, 부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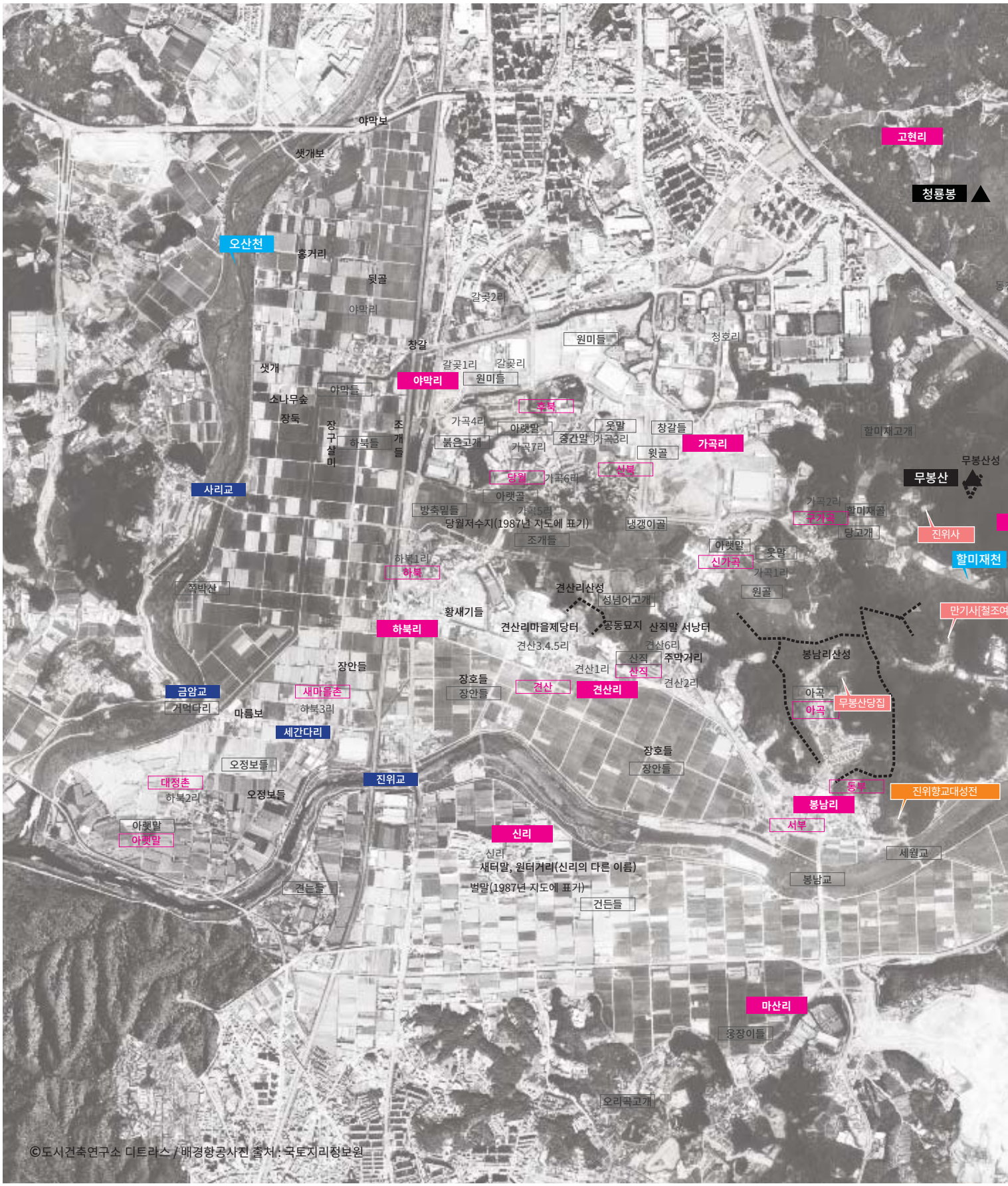
오뚜기 공장, 준공년도 미상
[현, 부분 존재]

홍원제지 공장 1957년 준공
[현, 80년대(추정) 건물 부분 존재]

매일유업 공장 1974년 준공
[현, 신축 추정]

1. 진위면 공간현황과 마을

진위면 일대 지명 현황



©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 배경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범례]

가곡리	1960~70년대 지도에 나타난 마을명
동천	1960~70년대 지도에 나타난 지명
소나무숲	마을주민 인터뷰 조사를 통한 지명(장연환 조사)
장안들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07-9, 문화유적분포지도 -평택시편-. 2007년" 보고서 지도에 나타나는 지명 및 산성
가곡리	현재 지명
사후동천	하천명
진위사	주요지정 문화재 및 역사 유적지
무봉산	주요 산 명칭
진위교	교량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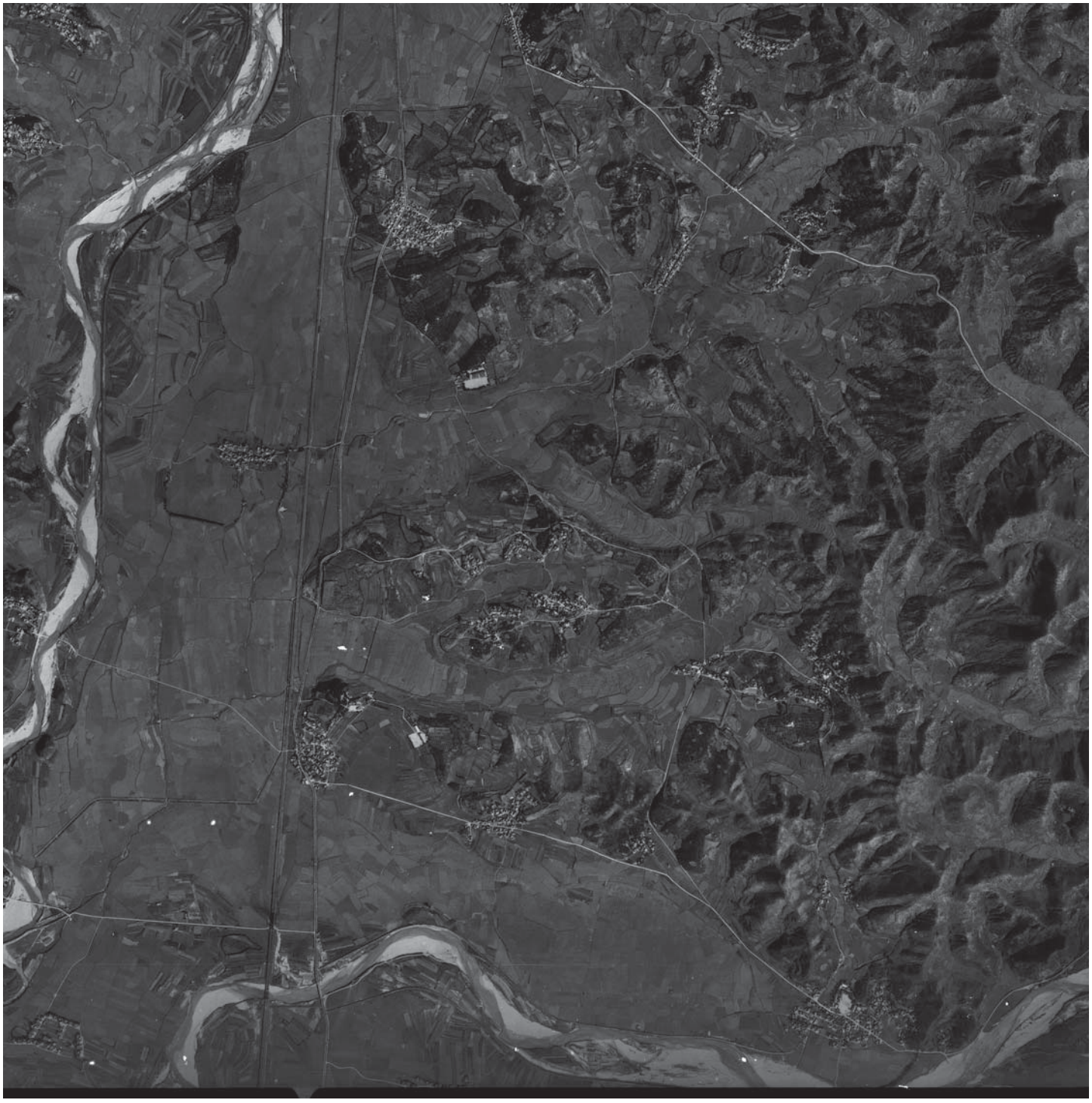
항공사진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2018년

2. 진위면의 공간변화

진위면-항공사진 196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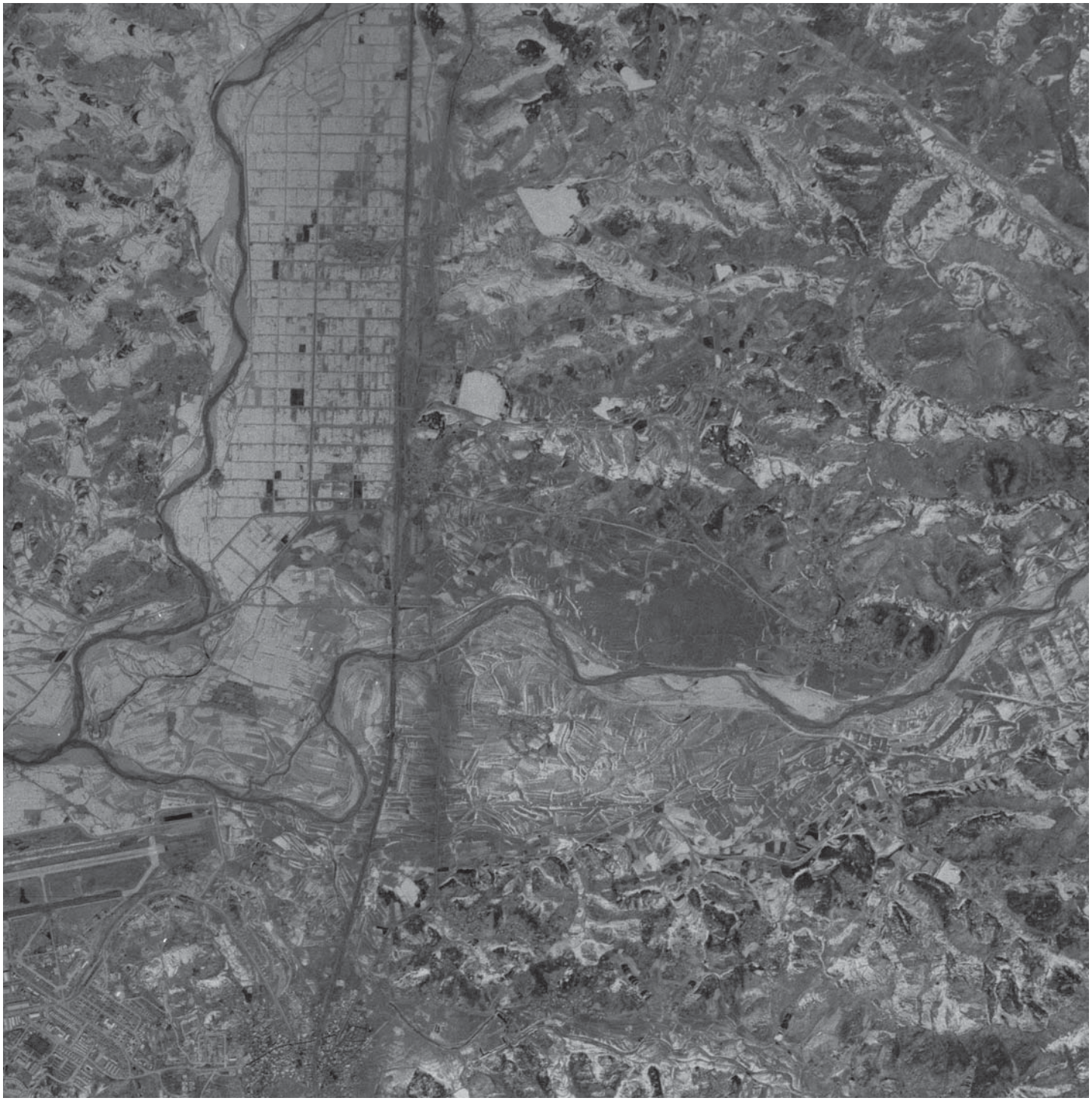
마을의 정확한 공간적 원형 파악을 위한 자료로서 항공사진을 활용할 수 있다. 진위면 일대의 초기 항공사진은 1967년, 1969년, 1974년에 제작된 항공사진이다. 1960년대 후반~1970년대의 경지정리, 도로 변화, 산업 시설(공장)의 출현 이전을 진위면 마을의 원형으로 가정할때, 1967년 항공사진은 자연발생마을의 원형으로서의 공간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1969년 항공사진은 마을의 위치 및 개략적인 건축물 분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 해상도가 낮아 세세한 마을 공간을 확인하기 어렵고, 74년 항공사진은 진위면 야막리 마을만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 공간 원형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1967년 항공사진을 마을별로 확대하였다.

1967년 항공사진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진위면-항공사진 1969년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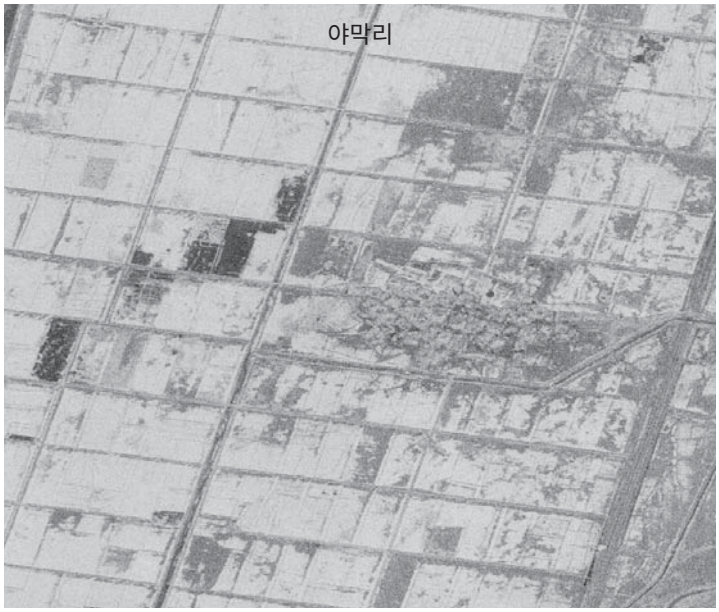
1969년 항공사진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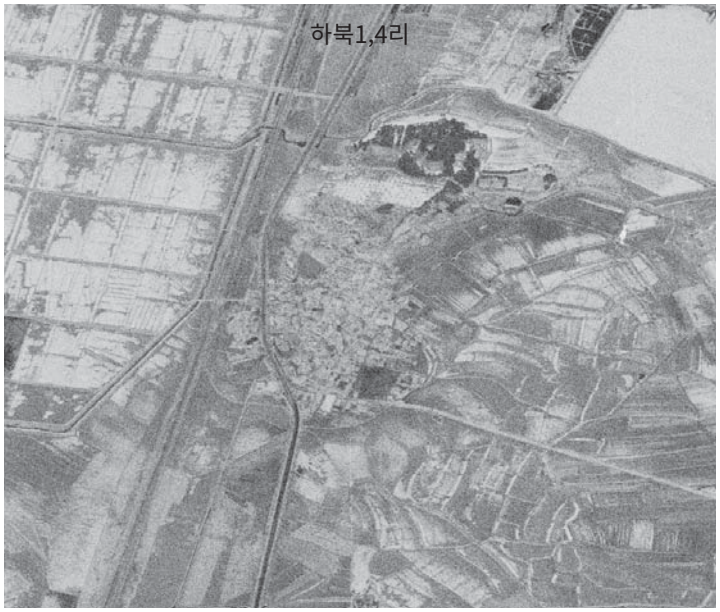


진위면-항공사진 1969년 B

1969년 항공사진 [(B040)항공사진_196902055400010249]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969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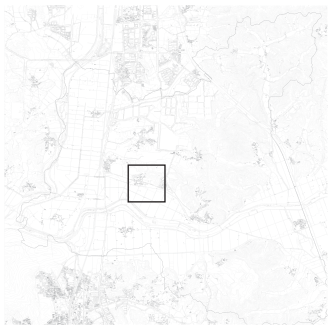




1967년 - 하북1,4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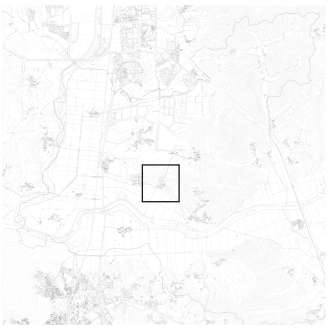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967년 - 견산 1,3,4,5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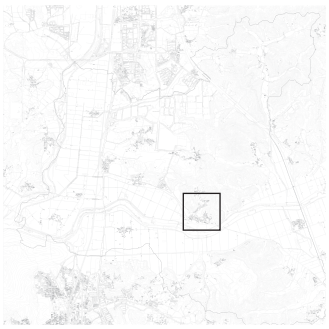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967년 - 견산 2, 6리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967년 - 봉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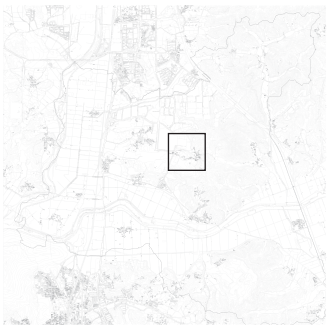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967년 - 갈곶리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967년 - 가곡 3리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967년 - 가곡 6-7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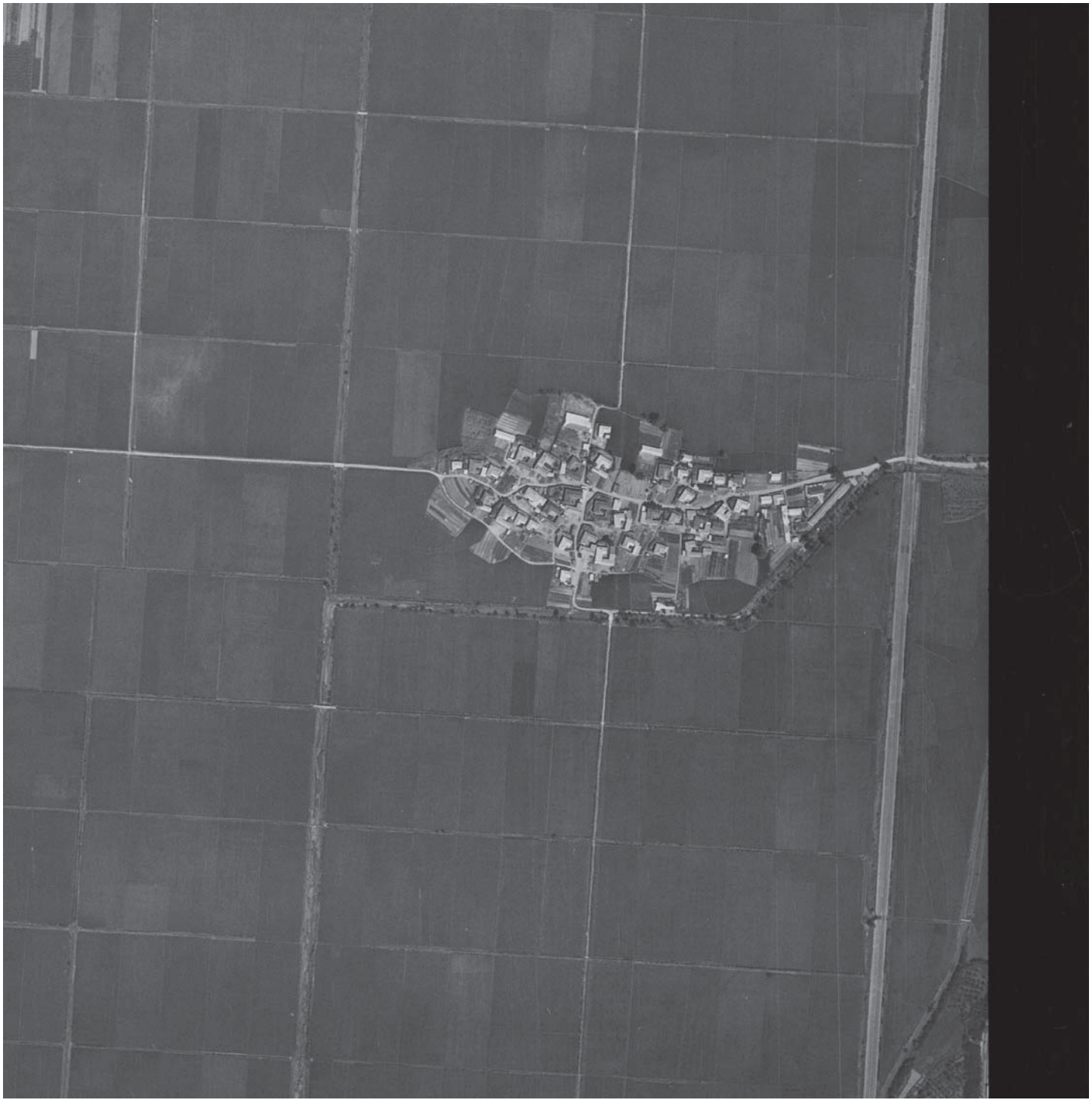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967년 - 야막리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974년 - 야막리

1974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967년 - 하북 2리(대정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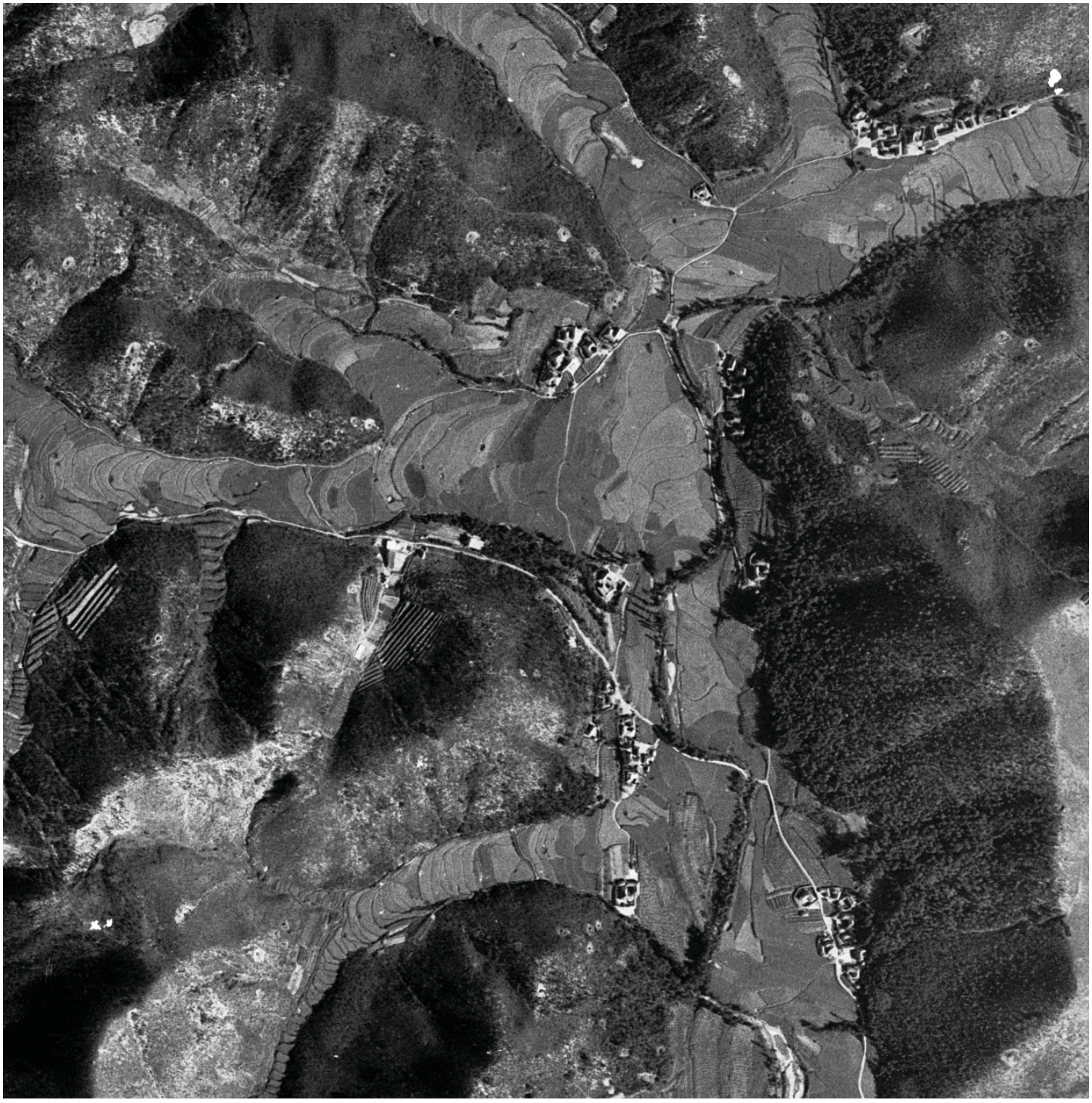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967년 - 동천 1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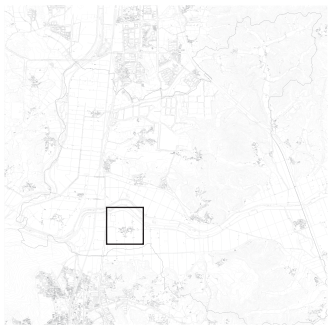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967년- 동천 2리(북측)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967년 - 신리



1967년 항공사진에 신리의 마을은 북측 일부분만 나타나며
좀더 세세한 마을공간 분석을 위한 1960~70년대 항공사진 자료 없음.

1967년 항공사진 부분확대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2. 진위면의 공간변화

진위면 1910년대 지도

1914년 지도
(일제강점기 제작지도 - 오산 / 충주14 / 측도연도 1914년 / 수정측도 1919 제1회)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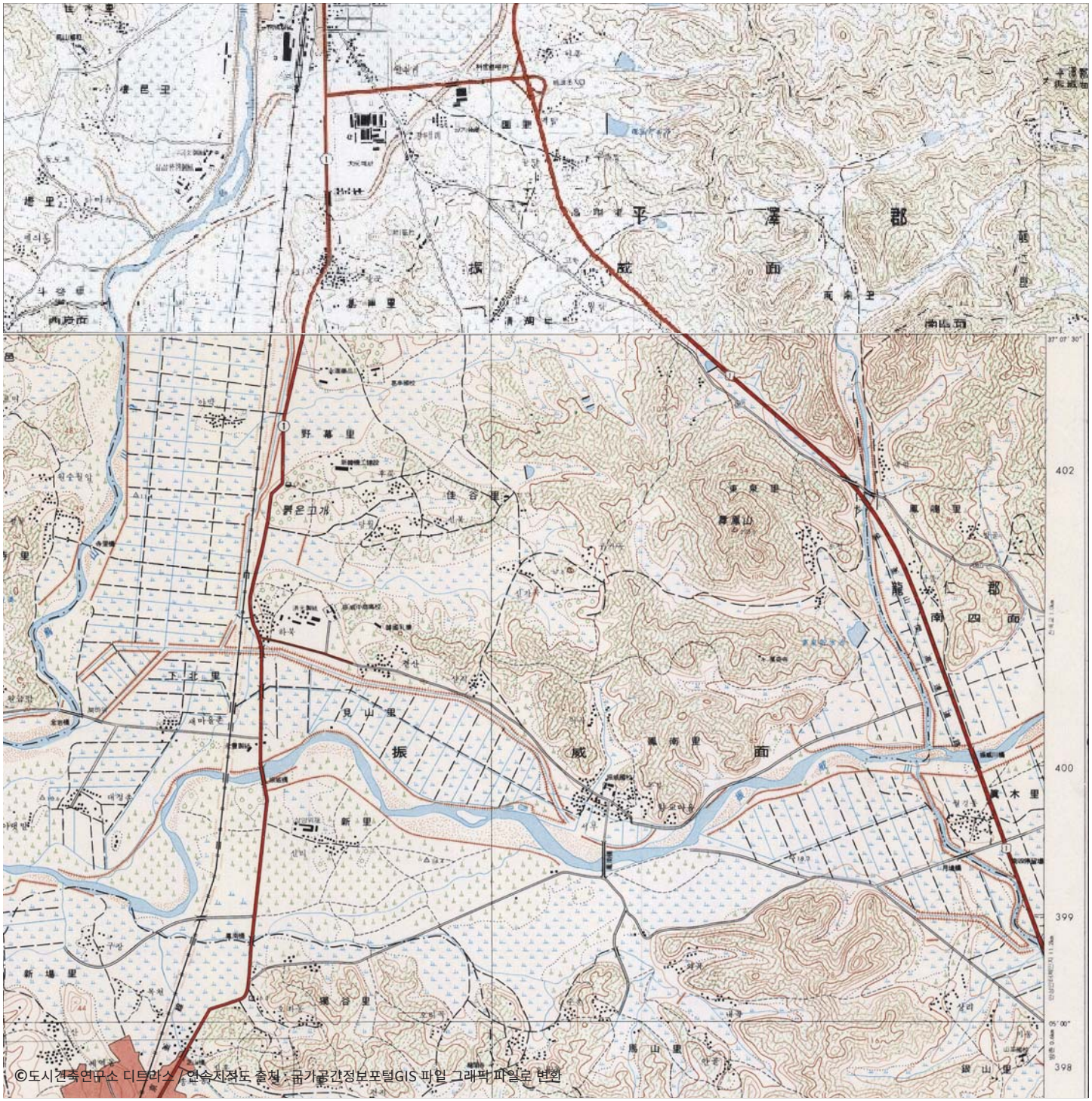
진위면 1960년대 지도

1963년 편집
1969년 11월 추가복제 저작권 소유 및 발행자 : 국립건설연구소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2. 진위면의 공간변화

진위면 1970년대 지도

1969년 편집 1977년 수정
항공사진촬영 1974년 / 지리조사 1976년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 연속지적도 출처 : 굽가공간정보포털GIS 파일 그래픽 파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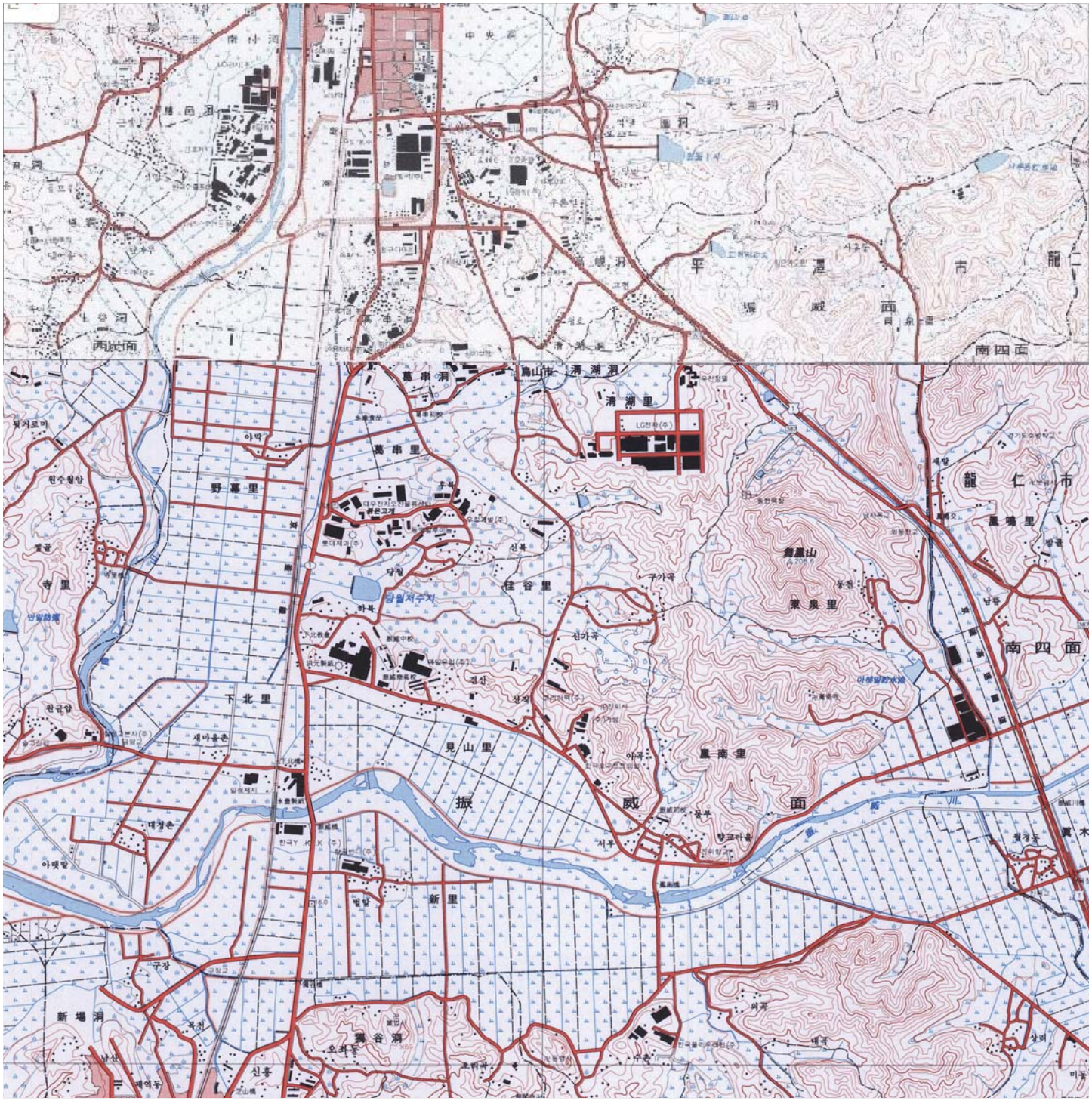
진위면 1980년대 지도

1987년 편집
항공사진촬영 1987년 / 지리조사 1987년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2. 진위면의 공간변화

진위면 1990년대 지도

1999년 편집
항공사진촬영 1995년 / 지리조사 1995년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진위면 2000년대 지도

2001년 편집 2007년 수정 2008년 인쇄
2006년 촬영, 2007년 조사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2. 진위면의 공간변화

진위면 2010년대 지도

2015년 제작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여 백

진위면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마을 공간조직
앞서 살펴본 공간 현황과 마을 분포 현황 조사가 진위면 전체의 거시적 스케일 관점의 조사였다면, 이제는 마을 단위 스케일로 축소하여 구체적인 마을의 공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형태유형학"의 방법론을 마을 단위에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마을은 도시형성의 초기 또는 원형적 형태로 간주하는데, 이때의 질문은 '마을의 공간 형태'에 있다. '마을의 공간적 형태를 결정짓는 요소'와 이 요소들 간의 유기적 관계의 단위를 "공간조직"이라고 본다. 이러한 '공간조직'의 요소를 '지형', '필지', '도로', '건축물' 등 4가지로 두고, 이들 요소의 구성 관계의 특징을 "공간조직의 특징"으로 본다.
이러한 도시 또는 마을 공간의 특징을 살펴보는 관점은 생물의 단위를 세포조직과 세포조직의 총체적 결합을 개체로 보는 방식과 유사한 관점으로 단위요소와 이 단위요소들의 결합 양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통해 "마을의 공간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물론 요소와 요소들 간의 결합 양상은 일정한 사회, 경제, 문화적 특징에 따라 달라지고, 이러한 특징을 담고 있는 '축적 체로서의 공간'의 관점을 갖고 있다.

마을 공간조직 요소
마을 공간 조직의 요소는 '지형', '도로', '필지', 건축물'로 설정한다. '지형'은 등고선을 통해 나타나며 주로 산, 구릉 및 경사지, 하천 등의 형태로 표현되며, '도로'는 도로의 위계, 도로 구성의 형태 등으로 표현되고, '필지'는 크기, 형태, 용도, 그리고 도로와의 관계 등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건축물'은 용도, 필지의 점유 방법,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마을 공간조직의 변화
마을은 시간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의 모습을 나타낸다. 경지정리, 기반시설, 토지매매를 통한 필지의 변화, 건축물의 증축 또는 철거와 신축 등 시간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 영향에 따라 공간의 변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정한 변화유형이 발견되는지에 대한 조사는 공시적 관점에서의 마을 형태 특징을 살펴보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마을의 형태는 '시간'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통시적 관점으로 한 시기를 기준으로 공간의 특징을 조사하는 방법이며, 이러한 경우 요소, 요소들의 관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된다. 다른 하나는 공시적 관점으로 여러시기를 나누어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는 방법이다. 공시적 관점의 경우 공간 현황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항공사진, 지도, 사진 등의 자료가 시기별로 확보 가능할 때 분석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공시적 관점에서 '자연 발생 마을의 공간적 원형'으로서 1967년 항공사진을 공간조직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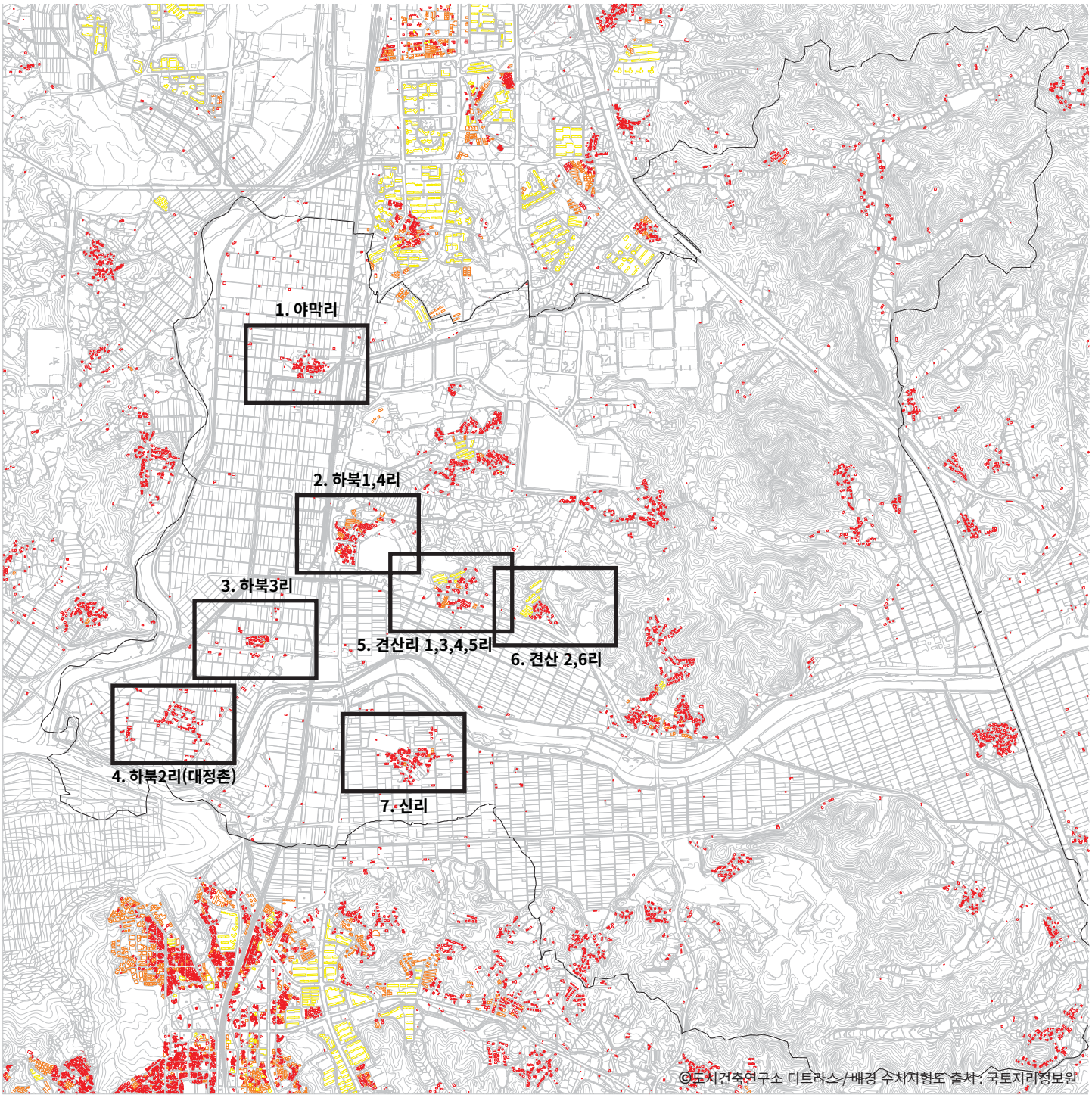
진위면 7개 마을
먼저 마을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매우 다양하게 설정 가능하나, 본 조사에서는 '주거 건축물의 군집'으로 한정하고, 이러한 주거건축물의 군집을 9개소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9개소 마을은 조사대상 마을인 "하북리, 견산리, 야막리, 신리" 등 4개의 법정리 마을의 범위 내에 분포하며, 37개 행정리에 해당하는 7개 마을은 야막리, 하북1,4리, 하북2리, 하북3리, 견산 1-3-4-5리, 견산 2-6리, 신리 등이다.

마을 공간조직 분석 자료
마을 공간조직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로서 항공사진, 수치지형도, 지도 등 세 가지 자료를 이용하며, 수치지형도의 지형을 표현하는 등고선과 하천, 도로, 건축물, 필지 등의 4가지 요소를 분리 및 재구성을 통해 건축물-지형, 건축물-필지, 건축물-도로, 필지-지형, 필지-도로, 도로-지형 등 6가지의 2가지 요소별 재구성 지도를 작성하였다.

'항공사진'은 비교적 마을의 형태와 경작지의 형태가 명확하게 표현되고, 2018년 항공사진과 비교할 때 마을 원형에 있어 변화가 적어 2010년 항공사진을 이용하였다.
'수치지형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디지털(DXF) 파일의 지도 레이어를 재구성하였다.
'지도'는 마을의 세세한 공간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나 개략적인 마을 공간변화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변화에 초점을 두어 자료를 구성하였다.
이 외에도, 부분적으로 '3D 모델'링 작업을 통하여 공간의 요소들이 결합하는 원리를 분석 및 표현하였으며, 일부 마을의 남아있는 자연 발생 마을의 원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는 민가를 중심으로 "필지-주거 건축물-도로"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마을공간조직의 단위 요소의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마을의 공간형태를 결정짓는 "도로-필지-건축물"의 관계를 단위필지 사례 일부를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필지는 현재(2018년 수치지형도 기준) 시점에서 전통민가유형, 필지의 보편성과 특이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담장유무, 대문 및 진입동선, 건물종류 및 배치에 따른 마당 또는 밭등의 외부공간 유형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래 수치지형도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하북1리와 견산리는 하천과 경사지형이 만나는 구릉지 위쪽에 마을이 입지하고 있으며, 야막리, 하북2리, 하북3리(대정촌), 신리 등 4개의 마을은 진위천과 오산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논경작지의 평야지형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 공간 조직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구릉지의 입지한 마을들의 공간조직과 평지형에 입지한 마을들간의 공간들을 비교할 수 있다.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야막리

야막리는 경부선 서측, 논 경작지 한가운데 위치하며, 동서방향의 도로가 남측, 북측으로 벌어진 두 개의 도로 위아래로 주택들이 분포하는 형태의 마을이다. 야막리 남측으로는 수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마을 주변의 논 경작지는 비닐하우스 형태의 경작지로 점유되고 있다.
마을 동측의 경부선과 1번 국도가 중첩되고 있어 물리적인 동서 연결은 고가도로와 육교뿐이고 남측의 수로에 의해 동남 측이 시각적 물리적 정서적인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야막리의 건축물은 목구조와 기와지붕을 갖는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된 'ㅁ'자형의 전통 민가 형태 주거 건축물이 상당 부분 남아있고, 1970-80년대 조성된 근대식 주거건축물도 상당 부분 남아있다. 이외에도 창고 또는 소규모 산업시설물들이 분포하고 있지만, 진위면 다른 마을처럼 대규모 공업시설이 아직까지는 점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2025년 완공 예정으로 진행되는 야막리 남측의 'LG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야막리 마을 공간구조가 상당 부분 변형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2010년 항공사진
[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 범례 -

개별 주거 건축물 - 단독주택중심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맨숀, 연립주택

대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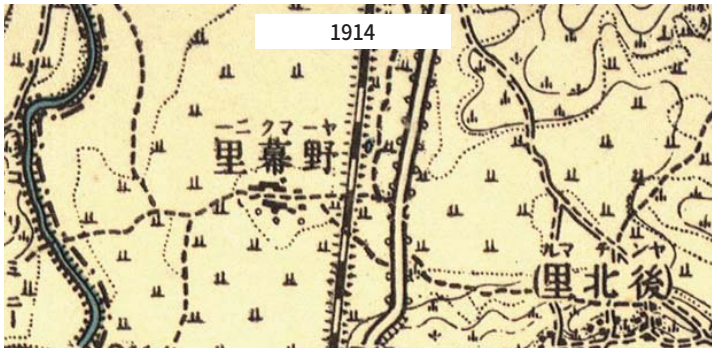
산업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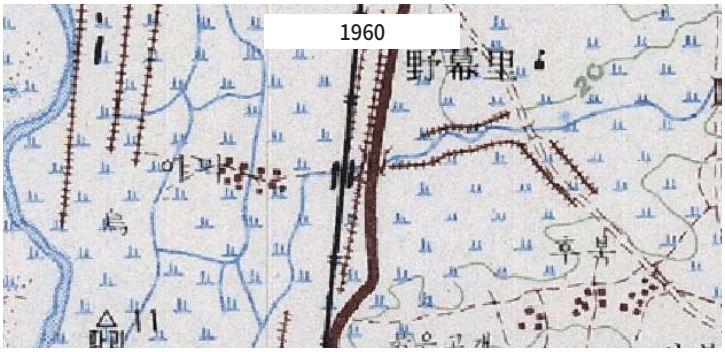
2018년 수치지형도 재구성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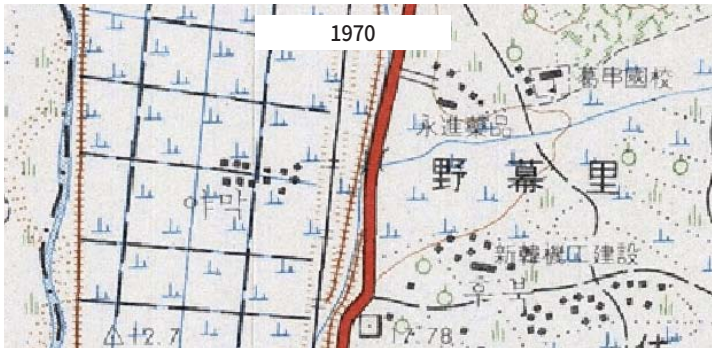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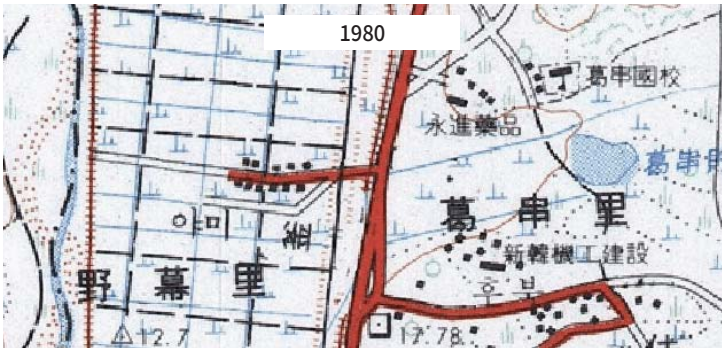
야막리 마을공간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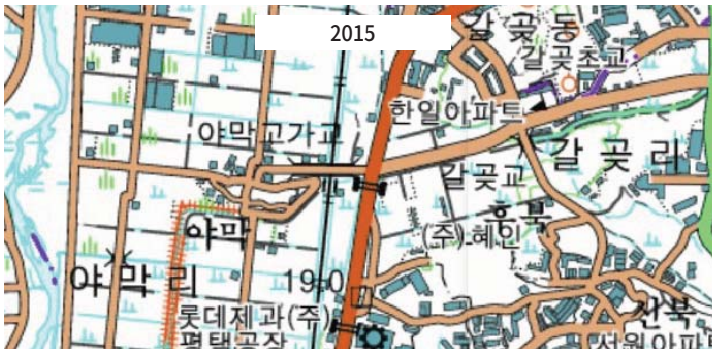
야막리의 마을은 경부선과 1번 국도에 의해 남북축 공간구조를 동서로 연결하는 단일 소규모 도로 남북으로 주거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동서 구조는 69년 논 경작지의 경지정리 사업이 진행되고, 1980년대 이르러 두 개의 위아래 도로 구조의 모습으로 변화한다. 이후 논 경작지 내에 위치하는 도로들의 위계 변화가 나타나지만 마을 내의 공간구조는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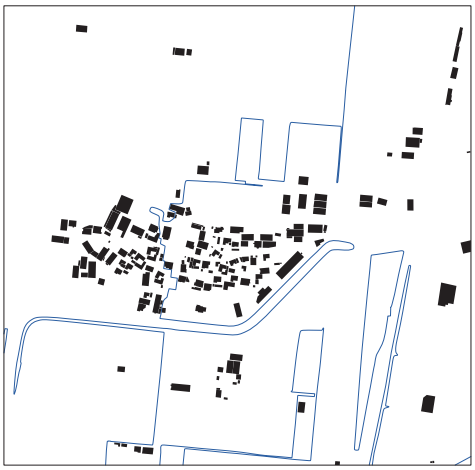
건축물 지형 필지 도로 관계

건축물-지형은 특별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야막리의 지형은 전체적으로 논 경작지 한가운데로 평지형을 이루고 있다.
필지-지형 또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필지-도로와의 관계에 있어 남북 측으로 벌어진 두 도로 사이에 정방형과 세로형(남북축) 필지들이 도로를 인접하여 분포하고, 전체적으로 세로축으로 필지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변의 논 경작지는 규칙적인 긴 직사각형 형태로 남북방향으로 구성되고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마을의 필지는 형태가 다소 불규칙하지만 남서향으로 살짝 틀어진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건축물-필지는 세로형의 필지에서 대부분의 건축물은 북측으로 두어 남측의 마당 또는 밭을 두는 형태로 나타난다.
건축물-도로는 도로 남측의 필지에서는 북측 도로에 인접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도로 북측의 필지에서는 도로와 이격된 북측 끝에 배치된 형태를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도로와의 관계보다는 남향의 일조권 중심으로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다.

필지 - 지형

필지 - 도로

도로 - 지형



건축물 -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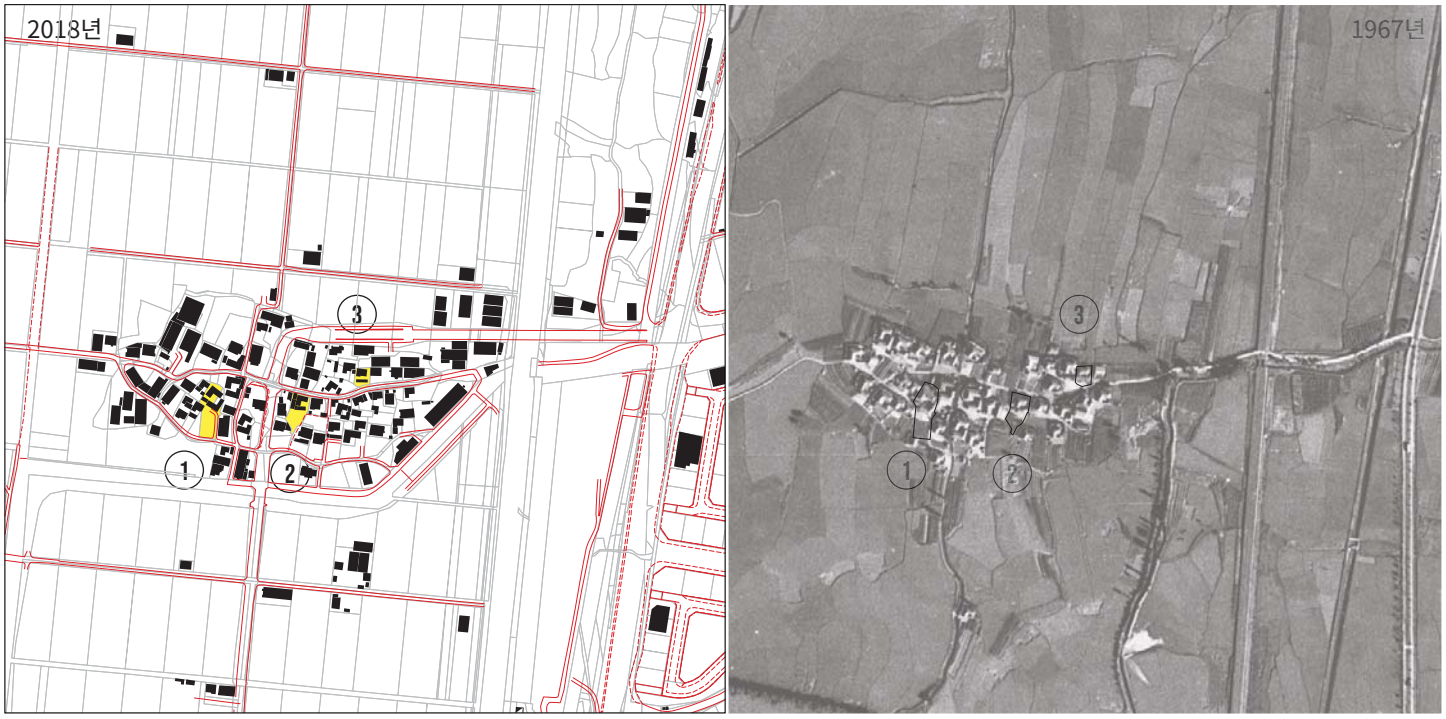
건축물 - 필지

건축물 -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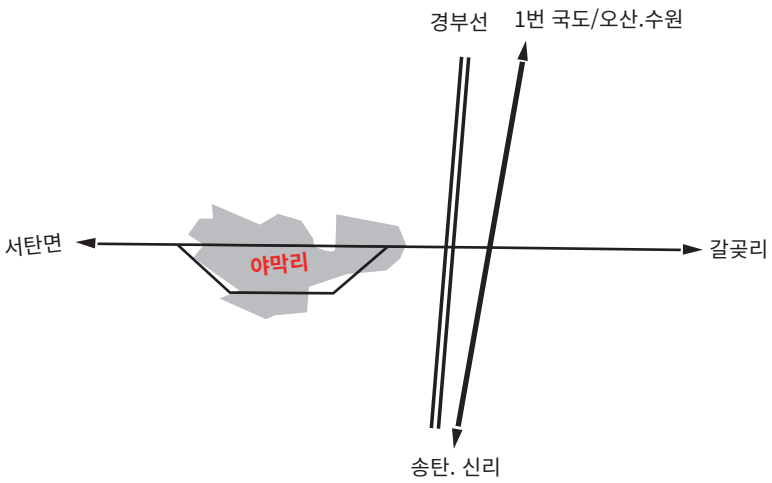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야막리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평지형에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가 두개로 벌어지고 그 사이의 필지들은 세로방향으로 구성되고, 건축물은 남향 일조권을 확보하는 배치 형태로 마을 공간 조직이 형성되었다. 1969년 진행된 농경지 정리 사업 외 1967년에 나타나는 마을 초기의 형태가 비교적 잘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 DIAGRAM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 64-3

야막리 마을에서 비교적 큰 필지로 999m2 면적의 세로형 배치에 남측 도로와 인접하고 있다. 약 30m 길이의 막다른 골목길과 인접한다.
`ㄱ`자형 건물 두 채가 튼 `ㅁ`자형의 전통 민가 배치를 나타내는데, 이곳 외에도 두 곳이 남아있다. 세로형 긴 필지로 남측은 마당보다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2010년 항공사진 기준)
위 대상지의 건축물은 현재 전면 철거 및 샌드위치 패널의 건물로 신축되어있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 63-3

세로형 필지로 북측에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출입구 및 진입 동선은 북측의 건물을 통해 이루어진다. 건물을 통해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서측의 세로형 공간을 통해 밭과 중정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남측 도로와 인접한 필지의 공간구성 방식과는 반대되는 동선 구조를 나타낸다.
역 'ㄱ' 자형 안채와 'ㅡ'형 사랑채(추정)의 결합으로 'ㄷ'자형의 공간 구성을 나타내지만 공간의 공적 성격과 사적 성격의 구분이 도로-필지의 관계를 따라 나타난 게 아니라 전통적인 공간구성 유형이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 5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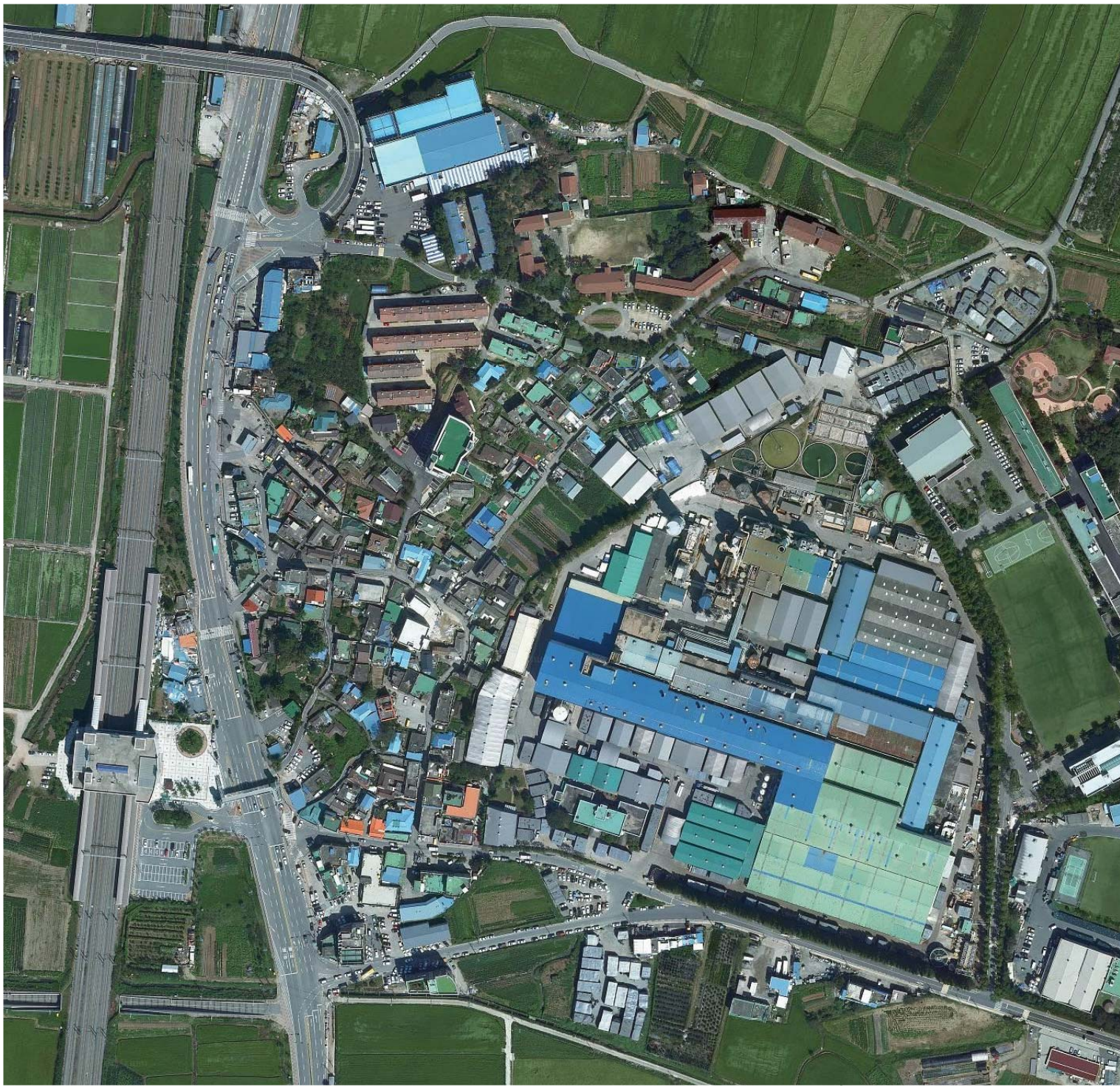
야막리의 필지 중에서 긴 세로형 필지가 아닌 비교적 길이가 짧은 필지 형태를 나타내며 304m2의 면적으로 남측도로와 인접하고 있다.
건축물은 전통 민가의 형태가 아닌 1960-70년대 근대식 주거로 추정되며 남측 도로 측 전면에 'ㅡ'자형 건물을 두어 'ㄷ'자형 공간 구성을 나타낸다.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하북리(1,4리)

하북리는 경부선과 1번 국도 동측에 위치하고, 무봉산 지형이 서측으로 골과 능선을 만들며 진행되다 평지형을 만나면서 끝이 나는 역 'C' 형태의 구릉지의 끝부분에 위치한다. 마을은 구릉지 위 완만한 남측 및 남동 측 경사지면에 입지하며 중간에 동서방향의 도로를 기준으로 북측은 윗말, 남측은 아랫말로 불린다.
현재 동측의 평지형에는 흥원제지 공장 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며, 서측으로는 진위역이 위치하고 있다. 이로써 하북 1리와 4리 마을은 실제적으로 서측의 경부선과 1번 국도, 동측의 대규모 흥원제지 공장 건물에 의해 고립되어 있으며 주거건축물 바로 인접한 위치에서 공장이 가동되는 매우 모순된 마을 환경이 되어있다. 북측 경사면은 1980년대 형성된 저층 공동주거와 중소규모 공업시설들이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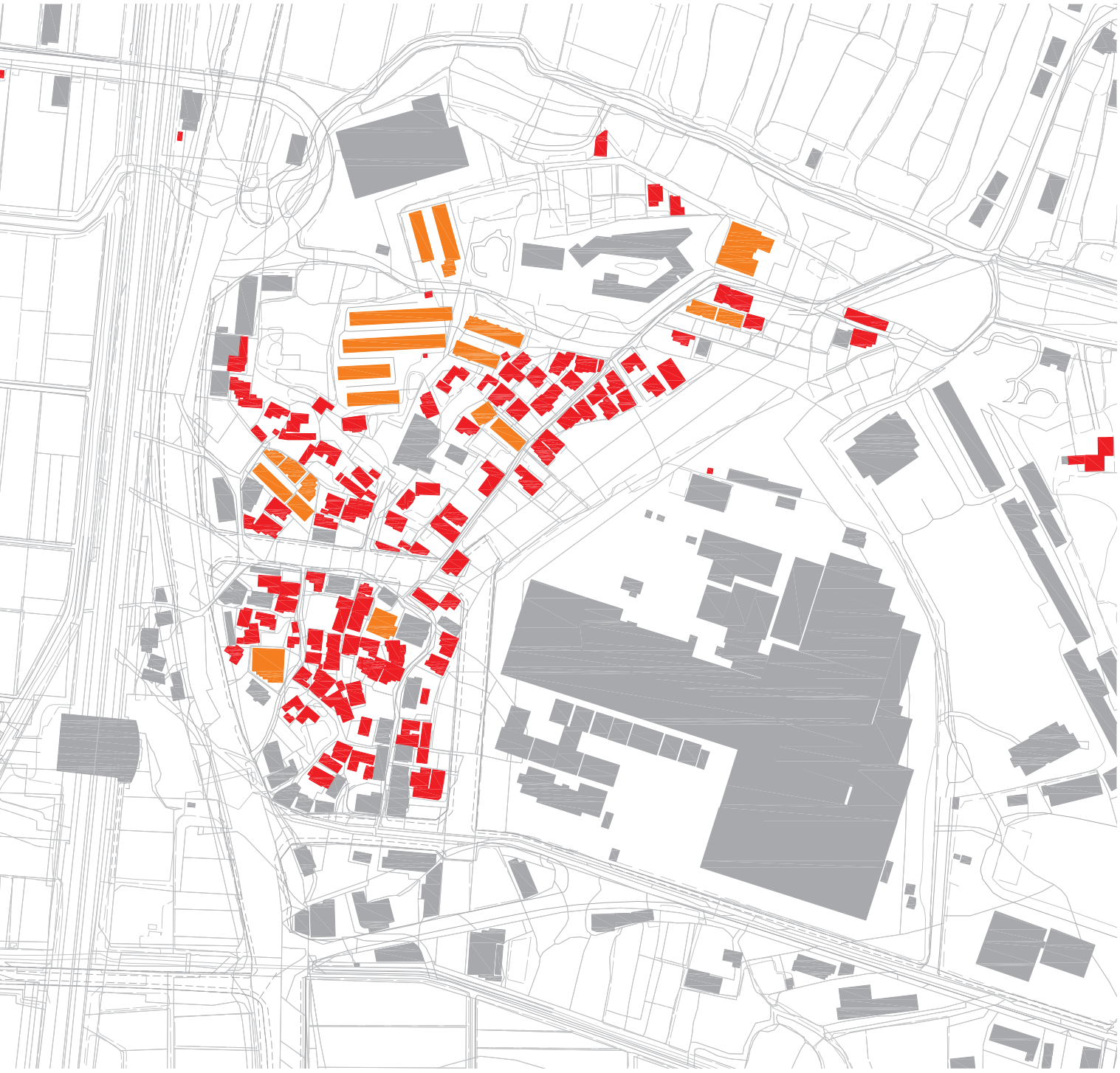
2010년 항공사진
[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 범례 -

개별 주거 건축물 - 단독주택중심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맨숀, 연립주택
대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아파트
산업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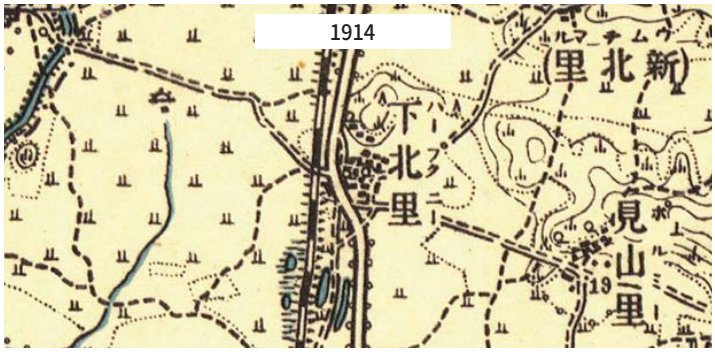
2018년 수치지형도 재구성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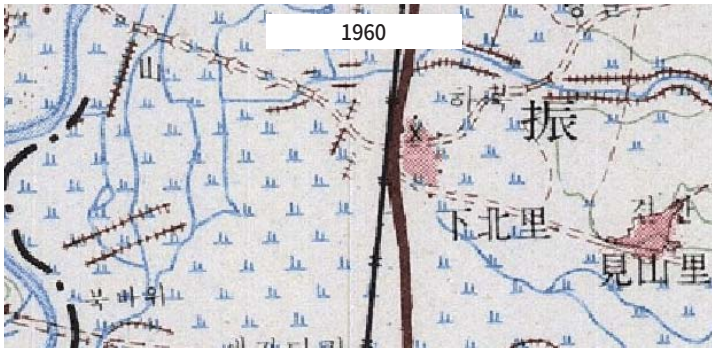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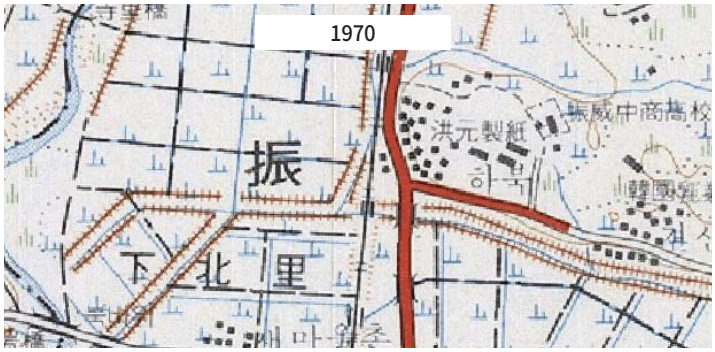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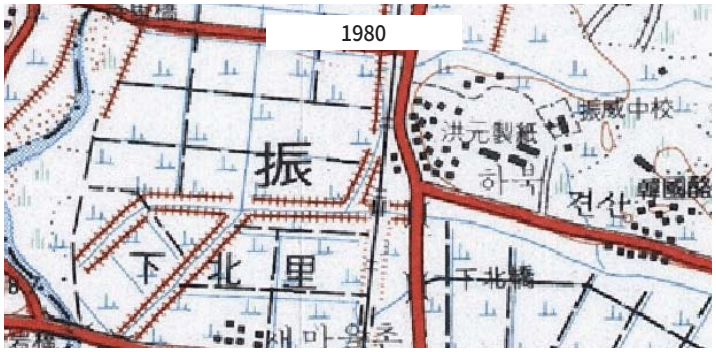
하북리(1,4리) 마을공간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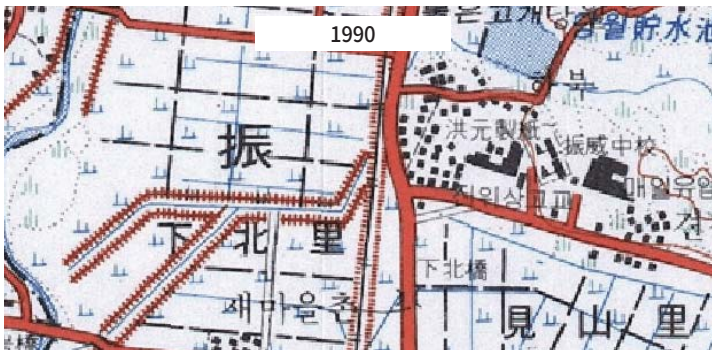
하북 1,4리 마을은 경부선과 나란한 남북 축의 1번 국도에 인접하고, 동측의 가곡리와 견산리 그리고 서측의 서탄면 방향(사리)와 연결되는 옆으로 누운 'Y'형 도로가 만나는 결절부에 형성되어있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서측의 농경지 정리뿐만 아니라 도로구조도'ㅏ' 형태의 위계로 변화되고 'ㄱㄴ'이 결합된 형태의 도로 위계로 변화된다. 전체적인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구조는 격자형 체계로 변화되고 있으나 마을 내의 공간구조는 초기 마을 형태의 소로들이 유지되고 있고, 전통 민가들도 이 소로들을 중심으로 주 도로에서 이격된 곳에 군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측의 경부선과 1번 국도의 중첩으로 도시의 전체적인 확장은 견산리 방향으로 도시공간구조화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도시화의 확장은 314번 국도를 중심으로 남측 논 경작지 방향으로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공간의 변화는 314번 국도 위쪽으로 공간밀도가 높아지고 남측 논 경작지 방향으로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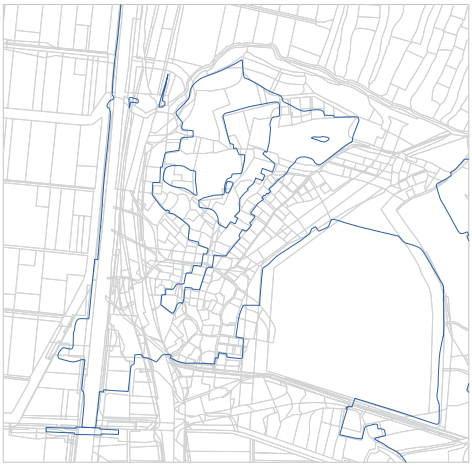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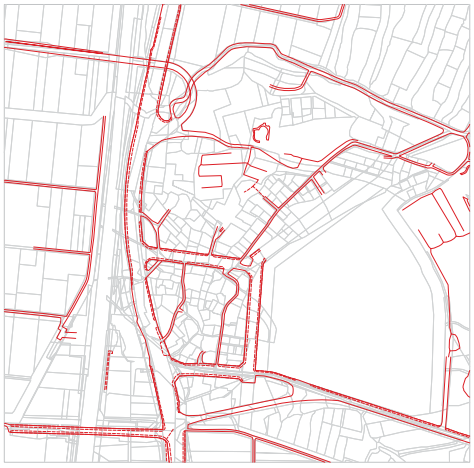


건축물 지형 필지 도로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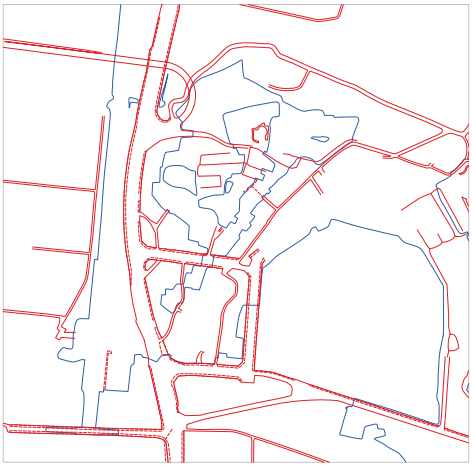
필지-지형에 있어서 필지는 전체적으로 불규칙 형태를 갖으나 정방형 형태에 가까운 직사각형 형태로 구성되고, 필지의 방향은 남측을 배열이 불규칙하게 지형에 순응하며 나타나고 북동 측은 비교적 규칙적인 필지가 나란하게 동남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는 형태에 있어서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지는 않으나 남북 축의 1번 도로에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가 견산리 방향과 가곡리 방향으로 나타나지만 규칙성을 보이지는 않고 여전히 등고선에 나란한 지형에 순응하는 형태로 소로들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아랫말의 경우 두 개의 작은 소로가 동서 방향이 아닌 남북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역'C'형의 지형 안쪽으로 순응하는 도로들이 경사면 위쪽 아래쪽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필지에 있어서 필지 자체가 소규모 불규칙 분포를 나타내고 건축물 또한 일정한 규칙성을 분석하기 쉽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전통 민가의 배치를 볼 때 여전히 남향 배치로 일조권 중심으로 건축물이 필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1970-80년대 조성된 필지와 건축물에서는 도로 측에 담장과 전면 마당을 두고 필지를 점유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남북 축의 1 번 도로가 구릉지 서측으로 위치할 때 마을은 주 도로로부터 일정 부분 동측으로 이격된 소로들과 함께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지 - 지형



필지 - 도로



도로 - 지형

건축물 - 지형

건축물 - 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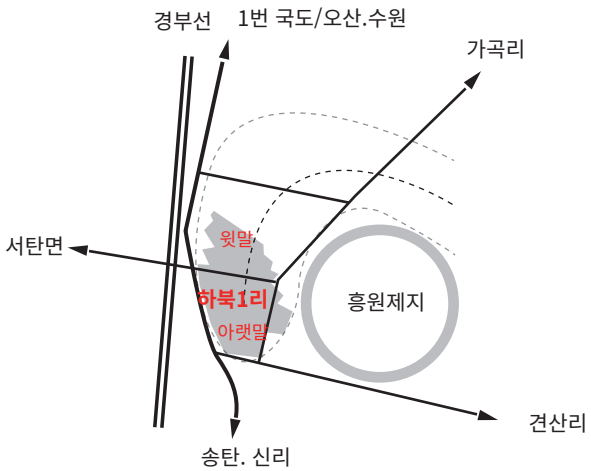
건축물 - 도로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하북리(1,4리) 마을공간조직의 특징

경부선과 나란한 남북 축의 1번 국도와 인접하여 동서방향으로 3개의 도로가 북측, 중간, 남측에 위치하여 두 개의 마을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지형은 역'C'형으로 동 측은 흥원제지 공장건물이 점유하고 있고, 1967년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마을의 공간조직은 경사지형을 따라 남동향으로 틀어진 동서방향으로 여러 층위를 만들면서 주거가 분포하는 공간조직을 나타내고 있다.

-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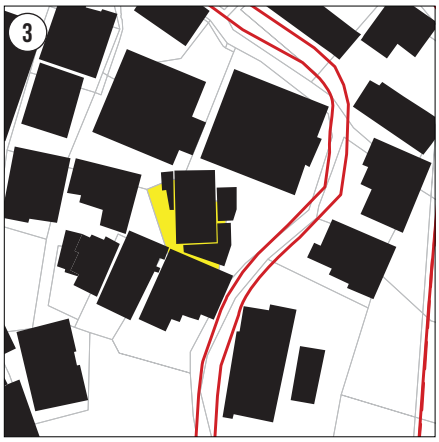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126

1967년 이전에 건립된 민가 형식을 갖는 주거건축물로 추정된다. 13m 길이의 막다른 골목길 끝에 위치하며 859m2 면적의 불규칙 형태의 필지를 갖고, 3 개의 주요 건물 중에서 두 동의 건물(안채 추정)이 역'ㄱ' 자형과 'ㅡ' 자형의 건물(사랑채 추정)과 함께 'ㄷ'자형 배치 구조를 나타내고, 나머지 한 개의 건물(헛간채 또는 창고 추정)은 바깥마당 우측부에 위치하고 있다.
'ㄷ'자형 배치를 통해 '전정, 중정, 후정'을 모두 갖는 형태로 하북리 일대에서는 규모가 비교적 큰 주거 형태로 나타난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70-4

1967년 항공사진에는 나타나지 않는 주거 건축물로 1986년 01월 01일(건축물대장)에 준공된 70년대부터 나타나는 근대식 주거건축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258m2 면적의 직사각형 형태의 필지 중앙에 건물을 배치하고, 중정이 사라지고, 담장이 나타나며 도로 측 대문 방향으로 작은 마당을 두고, 뒤쪽으로는 협소한 공간의 여유가 나타나기도 한다.
대문 우측에 외부 화장실을 두었고 화장실 옥상을 통해 건물 옥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나타나는데 전형적인 70-80년대 콘크리트 구조에 조적 벽체 형태의 주거형태로 보여진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130-10



1960년대 전후로 형성된 주거 건축물로 추정되며, 179m2 의 작은 면적의 필지로, 초기부터 작은 필지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ㅡ'자형의 단일 건물이 우측의 도로를 향해 동향 배치를 하고 있으며 우측의 도로와는 일정한 여유공간이 있는 점으로 보아 바깥마당(현, 텃밭 및 주차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하북리(3리)

하북 3리는 경부선 서측 야막리 남측 논 경작지 한가운데 위치한다.
동서축으로 흐르는 진위천과 남북축으로 흐르는 오산천이 곡류천의 형태로 결합되는 지역 북측에 위치하고, 이 오산천과 진위천을 동서방향으로 연결하는 도로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기울어진 십자형 도로구조 북서 측에 주거건축물 약 25~30채가 모여있는 마을이다.
주변 논 경작지는 남서 측의 하북 2리(대정촌)와 함께 비닐하우스 경작 시설로 대부분 이용되고 있으며 남동 측으로는 클린코리아, LX 판토스, 영풍제지 등의 대규모 산업시설들이 점유하고 있다.
동서방향의 도로와 직교하는 직사각형 형태의 논 경작 시설 필지로 배열되고 있으나 기울어진 남북방향의 도로에 순응하지 않는 배열을 갖고 있고, 1969년 경지정리를 통해 자연발생 논 필지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아 보인다.

마을은 1970년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4개의 정방형 필지와 정방형 도로구조 3칸으로 결합된 독특한 공간구조를 나타내고 있고, 자연발생 마을보다는 계획된 마을로 추정된다.

2010년 항공사진
[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 범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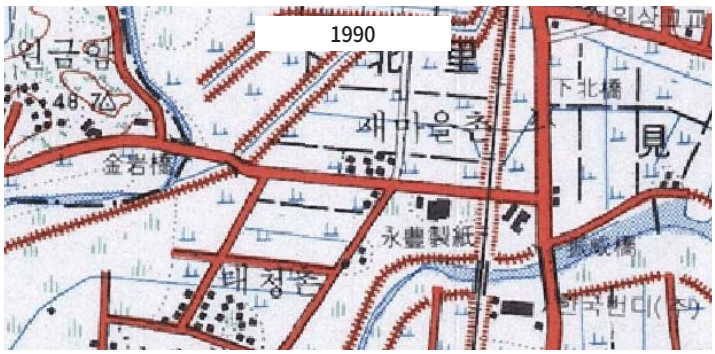
개별 주거 건축물 - 단독주택중심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맨숀, 연립주택
대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아파트
산업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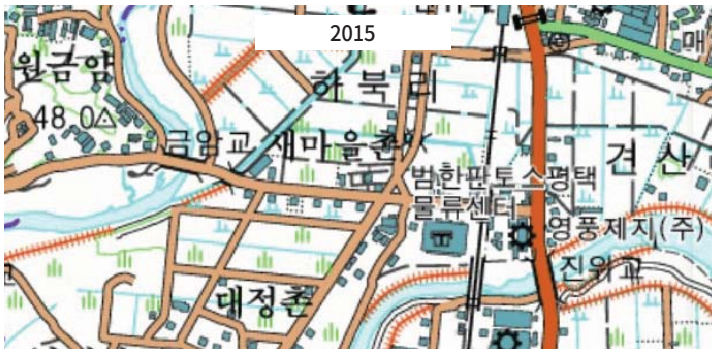
2018년 수치지형도 재구성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하북리(3리) 마을공간구조의 변화

하북 3리 마을은 경부선과 나란한 남북 축의 1번 국도에서 서측에 위치하며 동서방향의 진위천과 남북방향의 오산천의 곡류 지점을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 북서 측에 위치하는 작은 마을이다.
1960년대까지 마을이 형성되지 않은 논 경작지였으나 1970년대에 이르러서 도로 북측에 7채의 건물과 도로 남측에 3채의 건물이 등장한다.
기본 도로 구조는 '一'형태에서 우측의 1번 국도와 수직으로 결합하면서 'ㅓ'형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기울어진 남북 축의 도로와 함께 기울어진 십자형 도로구조를 나타낸다.
이 십자형 도로구조에서 북서 측은 주거 중심, 남동 측은 산업시설 중심, 남서 측 및 동북 측은 경작지 및 비닐하우스가 점유되고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을의 공간구조는 하북 2리(대정촌)와의 관계에 따라 점차 기울어진 격자형 도로 구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 분화는 경부선의 단절로 인해 동측보다는 남측의 대정촌과 북측에 새로 점유되는 LG 산업단지에 의해 남북방향의 도로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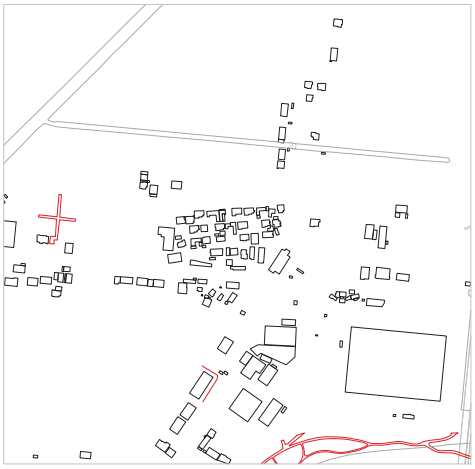
건축물 지형 필지 도로 관계

하북 3리의 필지는 경지정리 사업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방형의 격자형 구조로 4개 필지가 'ㅁ' 도로에 의해 하나의 블록 형태로 한정되고, 이러한 4개의 필지가 동서방향으로 3곳에 연속되는 필지 구성과 북측 도로에 나란한 9개의 정방형 필지가 결합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논 경작지의 평 지형으로 지형이 건축물 배치나 도로 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동서방향 도로 북측에 비스듬히 축이 틀어진 배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울어진 남북 축의 도로와 동서방향의 도로를 따라 창고 및 산업시설들이 점차 점유하고 있다.

필지 - 지형

필지 - 도로

도로 - 지형



건축물 -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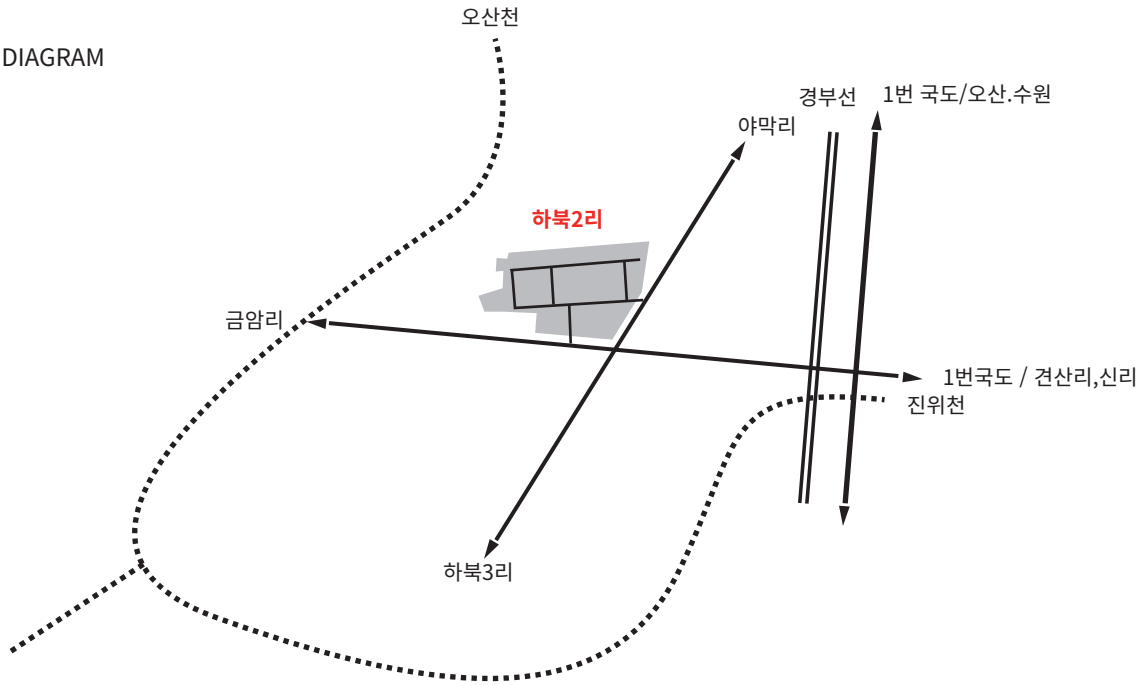
건축물 - 필지

건축물 - 도로

하북리(3리) 마을공간조직의 특징

4개의 정방형 필지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있고, 각각의 필지의 북측으로 주거 건축물이 배치하고 있어 남측에 전면 마당을 두어 일조권을 확보하는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4개의 필지를 정방형 또는 직사각형의 형태의 도로가 순환하며 필지와 인접하고 있다. 도로가 필지 북측에 인접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진입 동선은 주로 남측에서 진입하는 형태를 나타내며 서측에 위치하는 필지 일부는 측면에서 진입하는 동선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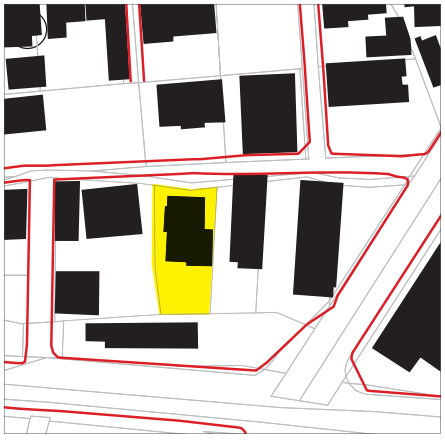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3길 293-18, 19, 20, 21

정사각형 형태의 필지 4개가 그룹화되어 있으며, 주변을 `ㅁ`자형으로 도로가 순환되는 공간 조직을 나타낸다. 1967년 항공사진에는 마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며, 동서방향의 도로 주변에 약 4채의 건물이 존재했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 실질적인 마을의 형태를 나타낸다. 마을은 필지의 구성과 도로의 구조와 형태를 볼 때 자연발생적인 형성보다는 계획 조성된 마을로 추정된다.
필지-도로-건물의 구성 관계를 볼 때, 남측 필지는 전면 도로- 담장 및 앞마당을 두고, 건축물을 북측 끝에 배치하였으며, 북측의 필지에도 같은 방식으로 배치되어, 도로에서 나타나는 공적-사적 영역의 관계보다는 남향 배치가 우선 작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3길 293-18, 19, 20, 21

북측 끝에 위치하는 필지들은 정사각형 형태로 남북 측 도로에 인접하고 있다. 건축물들은 대부분 주거 건축물이며 1980년대 콘크리트 주거와 목구조에 경사 지붕을 갖는 주거 형태도 나타난다.
북측에 도로가 필지에 인접함에도, 전체적인 배치는 남향이며, 대문 및 주출입구는 남측 도로와 인접하며, 남측 전면에 마당을 두고 있다.
전통 민가의 형태는 역 'ㄱ'자형의 배치를 나타낸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3길 293-18, 19, 20, 21



새마을촌의 필지들은 전체적으로 정사각형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반해, 남동 측의 필지는 세로로 긴 세장형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필지에서 나타나는 구성과 마찬가지로 남측에 마당을 두고, 건물은 북측 도로에 인접 배치하여 전체적인 남향 배치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세로형 세장형 필지에서는 남측의 마당이 면적 비율이 높고, 부분적으로는 세장형 필지와 나란한 긴 건축물도 나타나지만 이러한 건축물은 주거 외 시설로 추정된다.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하북리 (2리-대정촌)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하북 2리의 마을은 사다리꼴 형태의 순환도로구조를 기본으로 긴 세장형 필지와 정방형의 필지가 혼합되어 구성된 매우 독특한 마을 공간조직을 나타내고 있다.
세장형 필지는 남북방향이 아닌 기울어진 동서방향을 나태내고 있으며 북측 도로 위쪽과 남측 도로 위쪽에 분포하는 정방형 필지는 도로에 나란하게 배열되어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마을의 공간구조가 처음부터 사다리꼴의 순환 형태를 나타낸 것은 아니며 초기에는 동서방향의 도로를 따라 2열의 주거가 분포하였고, 남서 측 끝부분에 세로축의 도로를 따라 분포한 주거지 등 3곳에 주거건축물이 분포하며 마을을 형성하였으나 이후 사다리꼴 형태의 순환도로 구조를 따라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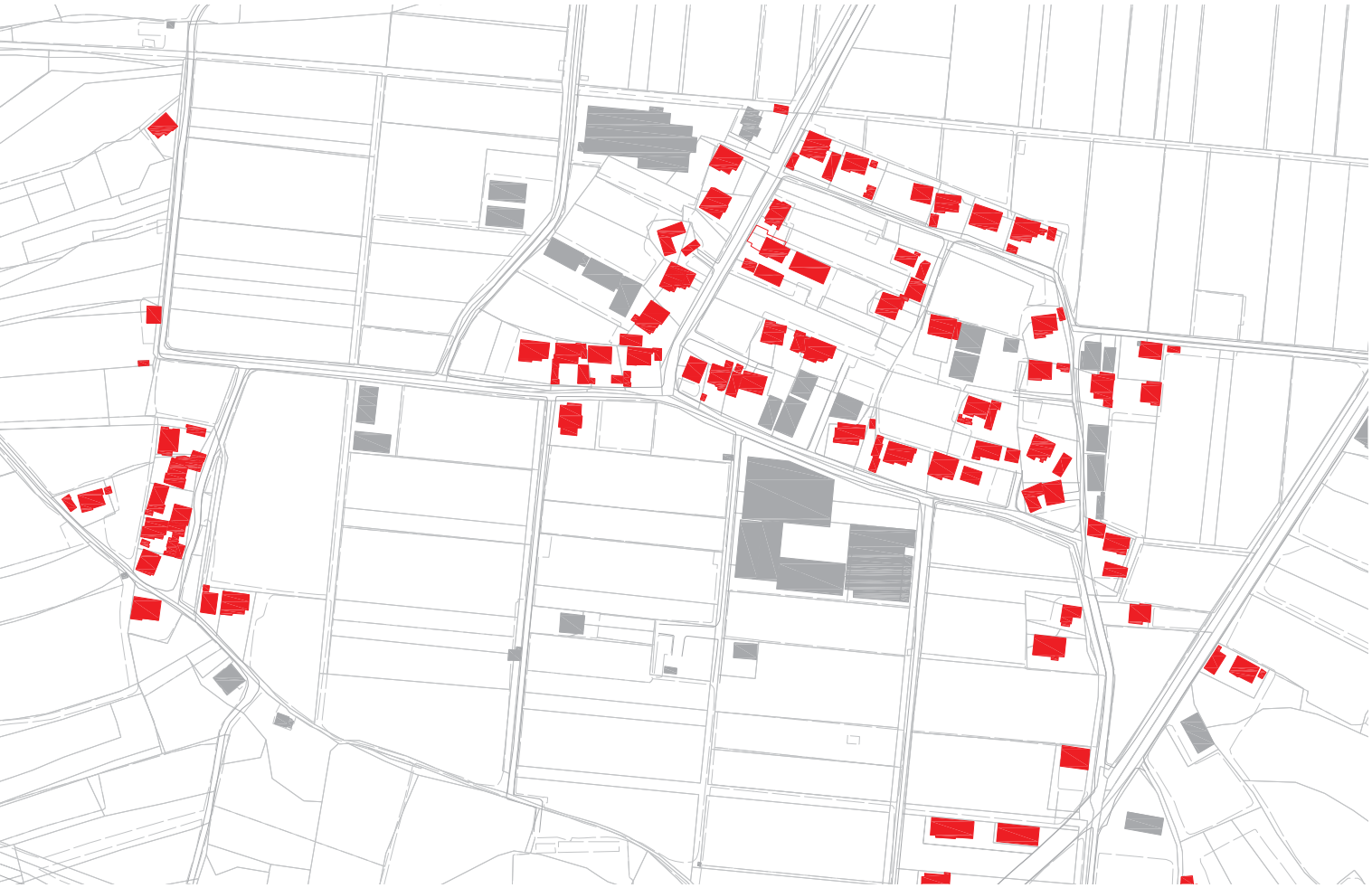
마을 주변 논 경작지를 중심으로 야막리, 새마을촌과 같이 비닐하우스 경작 시설로 대부분 이용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산업시설들이 마을 서측과 남측에 나타나고 있다.

2010년 항공사진
[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 범례 -

개별 주거 건축물 - 단독주택중심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맨숀, 연립주택
대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아파트
산업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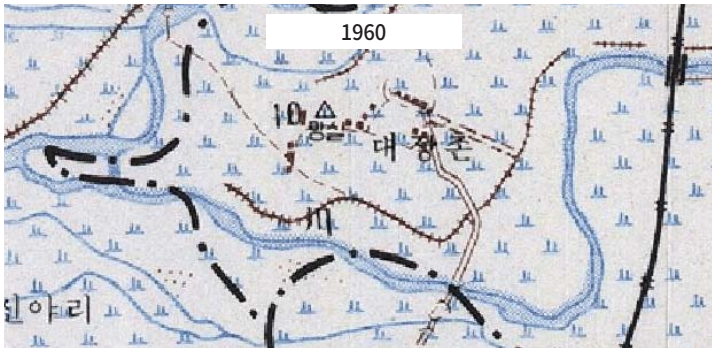
2018년 수치지형도 재구성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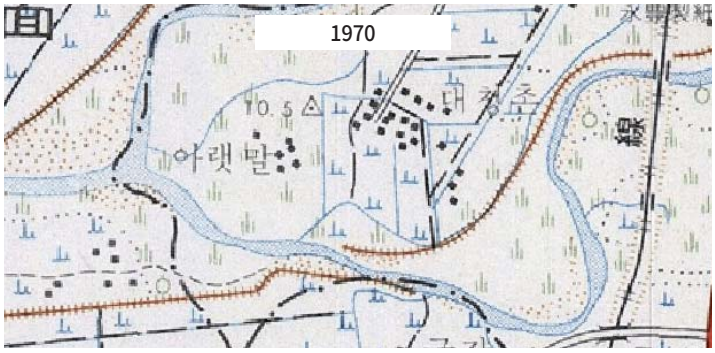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하북리(2리-대정촌) 마을공간구조의 변화

1914년 지도에서 나타나는 마을 구조는 진위천과 오산천을 동서방향으로 연결하는 도로와 남북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도로들이 나타나지만 마을 공간의 모습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1960~70년 지도에서 공간의 기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제방을 쌓고, 제방에서 동서방향으로 도로와 나란한 주거 건물들이 나타난다. 1960년 지도에 나타나는 주거 건축물의 분포는 북 측 도로 위쪽과 마을 서측에 나타나고, 남서 측 아랫말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좀 더 자세하게 1967년 항공사진을 보면 남측의 'ㅗ' 도로와 북측의 'ㅜ' 도로, 그리고 동측의 'ㅣ' 형 도로가 결합되어 사다리꼴 형태의 도로구조를 나타낸다.





건축물 지형 필지 도로 관계

하북 2리의 필지는 정방형 필지와 세장형 필지가 결합된 독특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세장형 필지의 경우 마을 건립 초기부터 세장형이었는지 아니면 논 경작지로 이용되는 필지가 현재 주거 및 밭 경작지로 사용되게 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유럽 도시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러한 세장형 필지에 주거건축물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독특한 경우라 여겨진다.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한 북측 논 경작지의 필지는 긴 직사각형의 세로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하북 3리의 세장형 필지는 주로 동서방향으로 구성되어 나타난다. 하북 3리를 중심으로 남서 측의 논 경작지의 필지 구성은 동서방향으로 변환된 것을 볼 수 있다.
도로는 사다리꼴 형태의 순환구조에서 내측으로 막다른 골목길이 4곳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막다른 골목길을 따라 내측에 주거건축물이 분포하고 있다. 건축물-필지의 관계에서는 건축물이 필지 북측에 위치하여 남측의 마당 또는 밭 경작지를 두었고, 진입 동선은 대부분 남측 도로에서 북측으로 진입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나, 남북 축의 도로에서는 동서방향으로 진입하는 동선 구조를 나타내기도 한다.

필지 - 지형

필지 - 도로

도로 - 지형

건축물 -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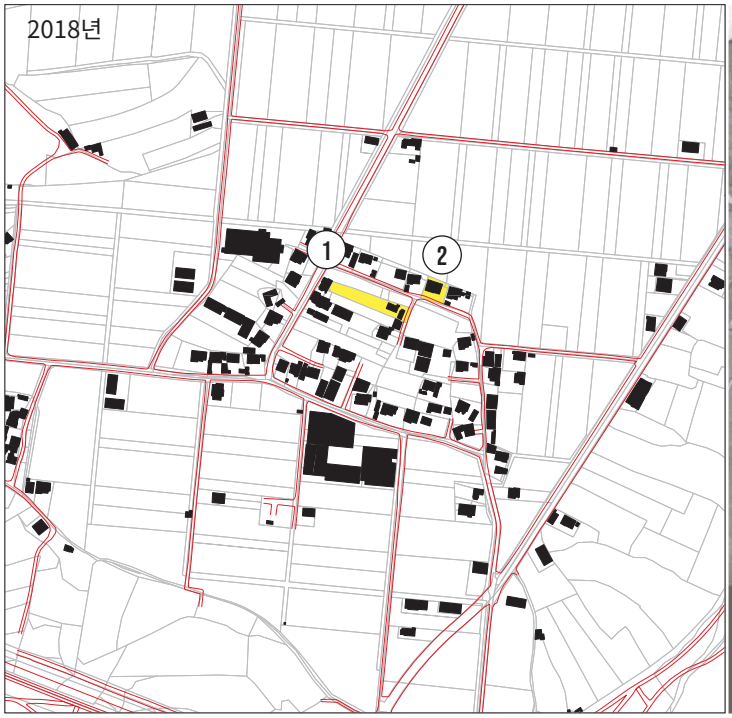
건축물 - 필지

건축물 -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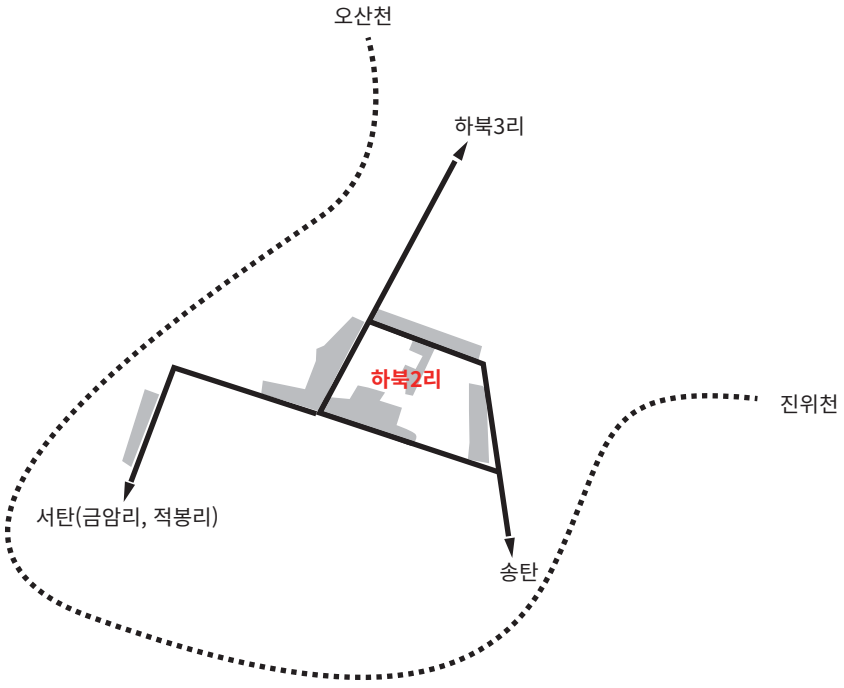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하북리(2리-대정촌) 마을공간조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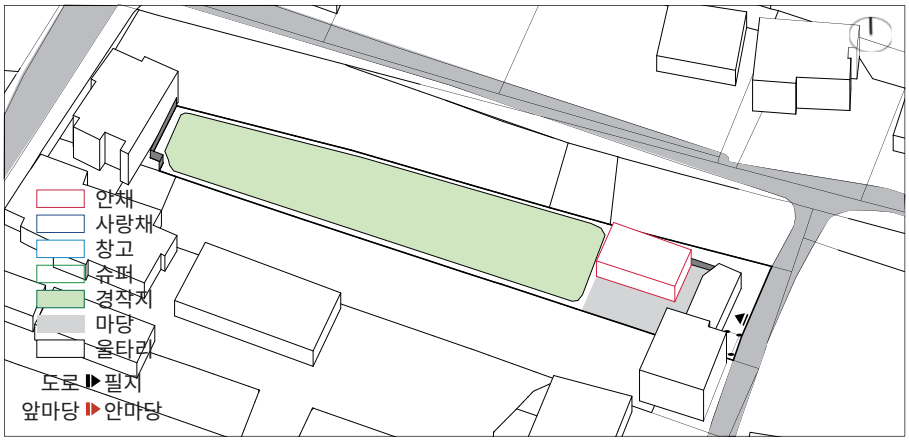
1967년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마을을 통해 초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대로 남측의 'ㅗ' 도로와 북측의 'ㅜ' 도로, 그리고 동측의 'ㅣ' 형 도로가 결합되어 사다리꼴 형태의 도로구조를 나타내는데, 도로 북측과 서측에 위치한 필지는 대부분 정방형이며 건축물의 점유 또한 도로의 북측과 서측에 같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중앙부의 막다른 길의 경우 서측으로 동서방향의 세장형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곳의 건축물은 길과 인접하여 'ㄱ'자형으로 위치하고 뒤쪽으로 밭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전형적으로 근대 유럽 도시 필지 구성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 DIAGRAM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2길 49-14



동서방향의 긴 필지는 세로축의 두 도로 사이에 나타나는데, 한쪽은 짧고 작은 정방형 형태의 필지를 다른 한쪽은 긴 세장형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
세장형 필지의 경우, 크기는 길이 60~102m X 폭 9m, 12m, 15m의 규모를 갖는다.
정방형 필지는 가로 18~24m x 세로 18m~20m의 크기의 규모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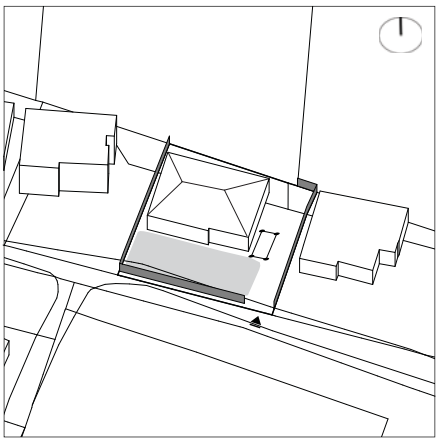
긴 세장형 필지에서 도로와 인접한 측에 필지 수직 방향의 건물이 가로막고, 필지 종축 방향으로 주거 건물이 나란히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필지의 수직 방향으로 건물들이 점유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나타나며 남향의 배치를 우선하였음이 나타난다. 필지 나머지 공간은 긴 밭의 형태로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다.

필지의 일부는 위와 같은 세장형, 일부는 정방형의 필지 구성을 나타내지만 초기는 세장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필지의 구성과 건축물 및 도로도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마을 건립 당시의 건물로 추정되는 건물은 3곳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필지의 구성도 필지분할 및 합필을 통한 매매 과정에서 점차 초기 모습이 변형되고 있어 대정촌에 대한 초기 모습 조사는 "계획된 마을"조사에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2길 49-11



긴 세장형이 아닌 정방형의 필지 형태의 경우, 남측 도로에 인접하며, 남측 전면에 마당을 두고 건물은 북측에 배치하였다.
건축물이 동서방향으로 필지 전체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1970-80년대 전형적인 근대식 주거 형태를 나타내며 이로 인한 필지의 여유 공간은 비닐하우스나 마당으로 이용되는데, 좌측 주택의 경우, 남측에 마당과 우측에 비닐하우스를 두었다.
이 외의 다른 정방형의 필지도 남측에 전면 마당을 두는 유사한 배치 구조를 나타낸다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견산리 (2,6리)

산직촌의 지명을 갖는 견산리 동측의 마을이다. 봉남리에서 하북리와 가곡리로 가는 길들이 나뉘는 지점의 서측 구릉지에 위치하며 마을은 전체적으로 남동향 배치를 나타내고 있다. 논 경작지와 만나는 경계를 따라 형성된 남측의 314번 도로와 가곡리로 연결되는 고개를 넘어가는 동부대로가 벌어지는 지점에서 남동향 경사면을 따라 층을 갖는 두 개의 마을 도로를 따라 주거 건축물들이 분포하면서 마을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마을은 '견산1' 교차로에서 도로가 분기되고 마을까지는 긴 삼각형의 밭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고, 마을은 이 남동 측의 밭 경작지를 바라보는 형국으로 배치되어 있다. 더 멀리는 안산으로서 태봉산을 바라보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서남 측의 경원아파트와 서북 측의 한승아파트가 구릉지 뒤쪽을 전체 점유하고 있으며, 동부대로 북측으로 신한 로지스, 한국 야쿠르트 의 공장 건물이 대규모로 점유하고 있고, 314번 도로 남측 논 경작지 방향으로 새로운 시설들이 점유하고 있다.

2010년 항공사진
[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 범례 -

개별 주거 건축물 - 단독주택중심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맨숀, 연립주택
대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아파트
산업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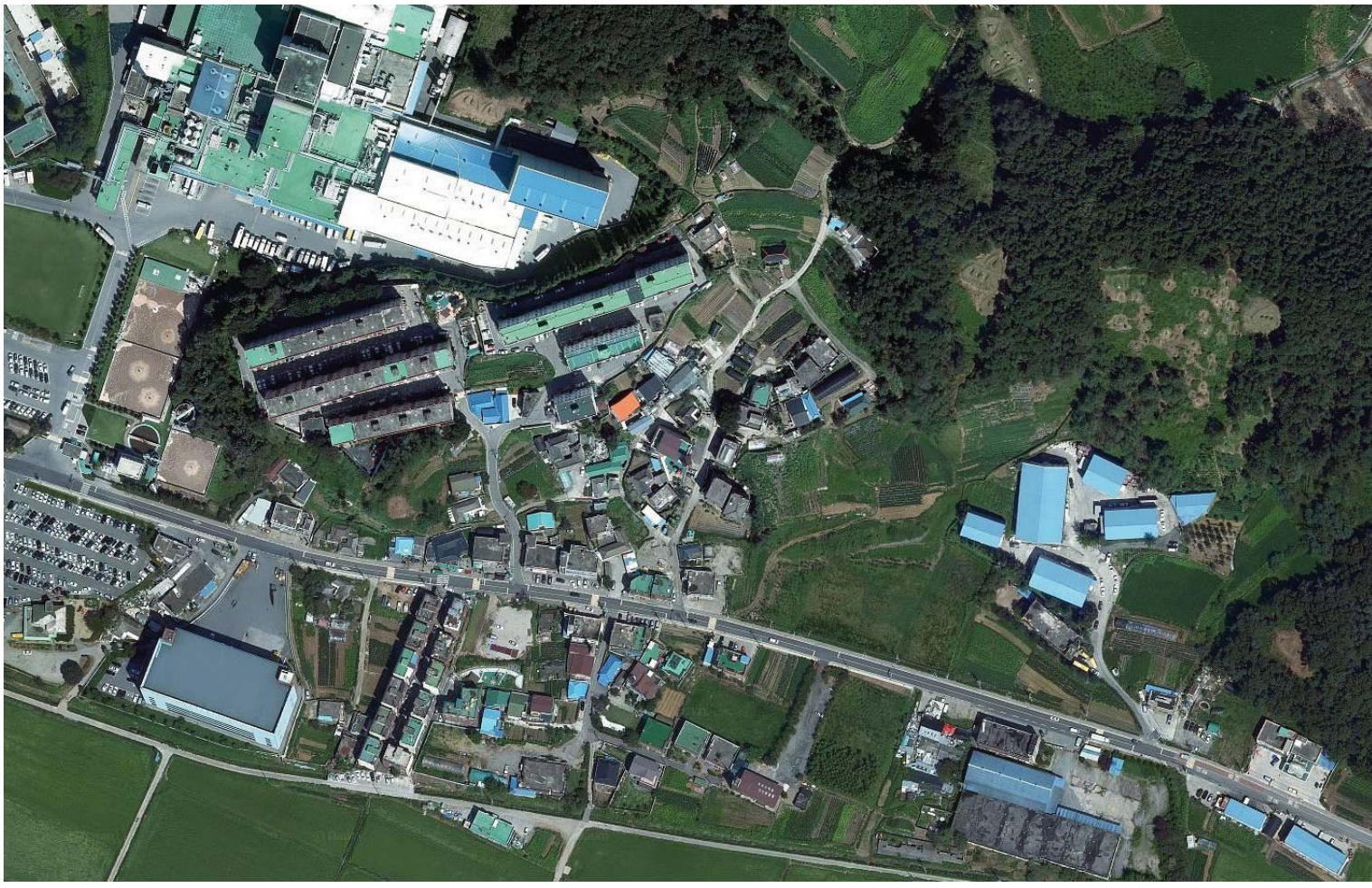
2018년 수치지형도 재구성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견산리 (1,3,4,5리)

서측의 하북 1리 흥원제지 공장 동측에 위치하고, 동측의 산직촌 서측에 위치한다. 314번 도로 북측 구릉지 경사면에 위치하며 'ㄷ'자형의 견산리 토성 내측에 위치하는 마을이다. 마을의 서북측의 구릉지 위쪽은 청도아파트와 서원 아파트가 과거 견산리 토성의 자리를 점유하고 있으며, 마을은 가곡리와 연결되는 남북 축의 도로를 따라 주거건축물들이 분포하면서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마을의 배치는 전체적으로 정남향보다는 동측으로 살짝 틀어진 남동 측을 향하고 있는데, 안산으로서 부락산을 바라보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항공사진
[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 범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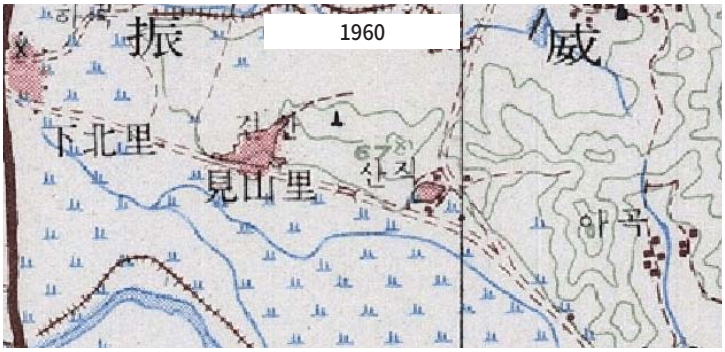
개별 주거 건축물 - 단독주택중심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맨숀, 연립주택
대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아파트
산업시설

2018년 수치지형도 재구성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견산리 마을공간구조의 변화

견산리는 남측의 314번 도로와 봉남리에서 가곡리로 연결되는 동부대로 서남 측에 2곳의 마을로 분포한다. 동측은 두 도로의 분기 지점 서측에 위치하고, 서측의 견산리는 하북 1리 동측에 위치한다. 공간구조는 기본적으로 지형의 영향을 받아 동서축의 구릉지형 남측의 도로를 기본 축으로 작용하며, 남북방향으로 움푹 들어간 골지형에 마을이 입지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진위천의 하천 정비에 따라 314번 도로와 나란한 소로가 남측에 추가로 형성되고, 이 두 도로 사이에 건축물들이 추가로 형성되면서 하북 1리- 견산 1, 3, 4, 5리 - 견산 2, 6리 등 동서방향으로 마을이 점차 확장 및 도시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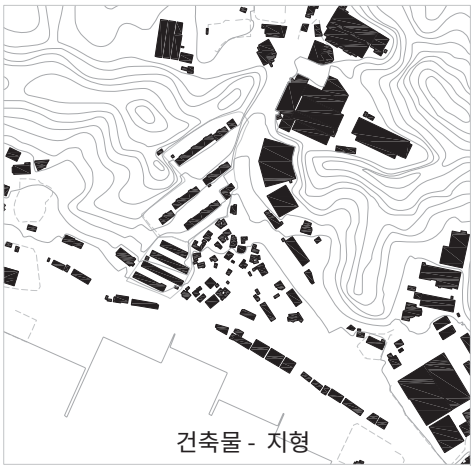


건축물 지형 필지 도로 관계

필지 - 지형

필지 -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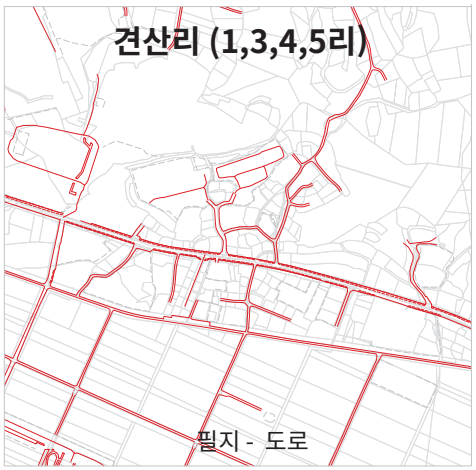
도로 - 지형


건축물 - 지형

건축물 - 필지

건축물 - 도로

필지 - 지형



필지 - 도로

도로 - 지형

건축물 -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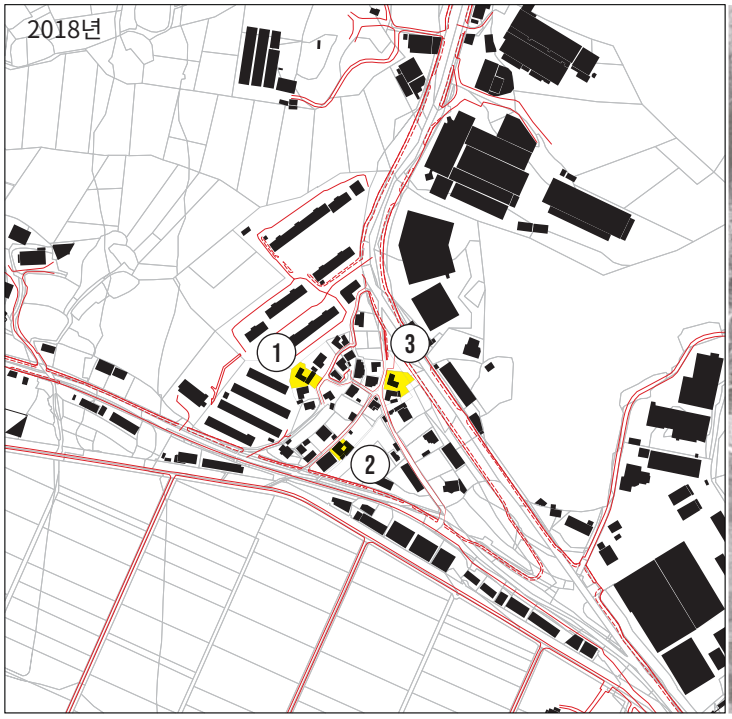
건축물 - 필지

건축물 -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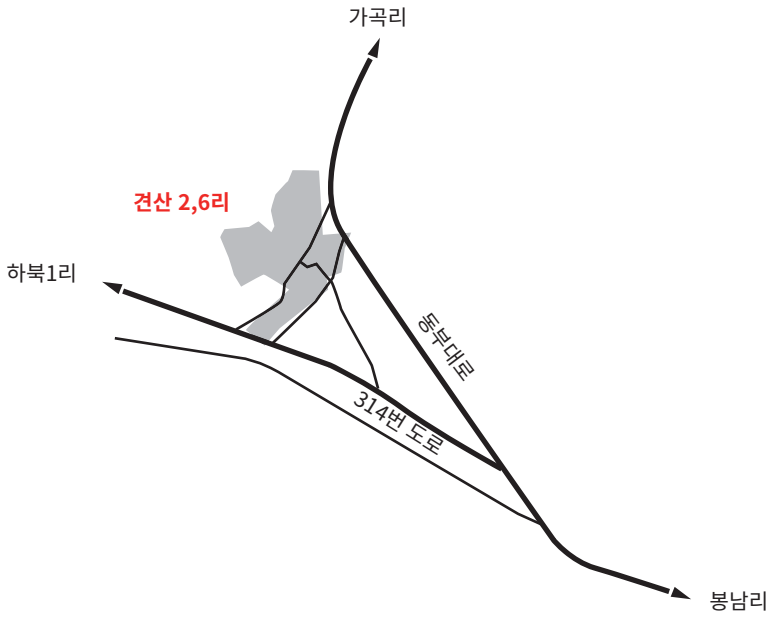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견산리 (2,6리) 마을공간조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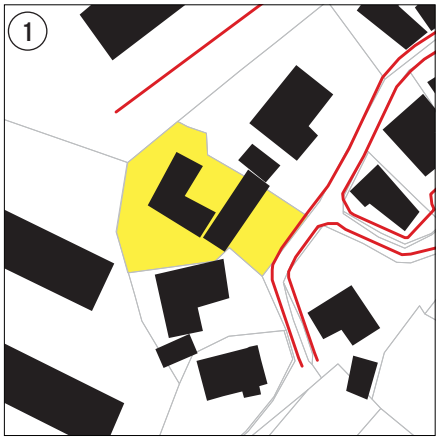
남측의 314번 도로와 가곡리로 연결되는 고개를 넘어가는 동부대로가 벌어지는 지점에서 남동향 경사면을 따라 층을 갖는 두 개의 마을 도로를 따라 주거 건축물들이 분포하면서 마을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두 도로 사이를 있는 두 개의 작은 소로가 경사지형을 따라 경사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란하고 그 두 도로를 중심으로 주거건축물이 동남향의 배치로 분포하고 있다.
필지의 특별한 유형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정방형의 크기와 불규칙 형태의 필지들이 혼합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위쪽 도로 너머의 필지는 아파트 점유로 인해 초기 필지 형태 파악이 어려우나 아래 지도의 1번과 유사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두 도로 사이의 필지는 정방형 필지가, 아래쪽 도로 남동 측의 필지는 도로와 나란하게 긴 필지로 추정된다. 반면에 동부대로 남서 측으로 인접한 필지들은 도로와 수직 방향으로 길이가 긴 필지들이 나타나고 건축물은 도로 측으로 인접하여 배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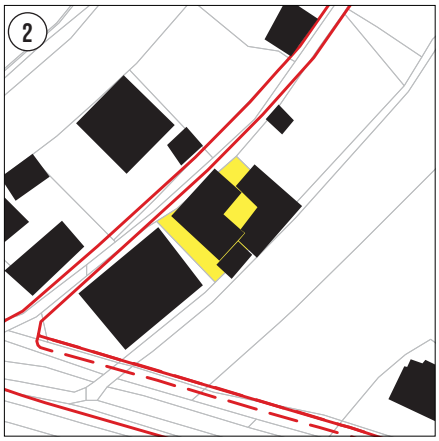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27-19



마을 북서 측에 위치하며 구릉지 위쪽에 위치하며 불규칙한 형태의 필지로 남동 측 도로에 인접하고 남동향으로 길게 위치하고 있다. 역'ㄱ'자형의 안채와 'ㅡ'자형의 사랑채가 남동향 배치를 하고 있으며 남동 측 도로 쪽으로는 전명에 바깥마당을 두어 "후정(뒷마당)-안채-중정(안마당)-사랑채-바깥마당-도로"의 전형적인 배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견산리 27-19 번지의 가옥은 남아있는 10여 채의 전통 민가 중에서 가장 북서 측 위쪽에 위치한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28-1



산직촌의 마을에서 가장 남쪽 구릉지 아래쪽에 위치한 가옥으로 역'ㄱ'자형의 안채와 역'ㄴ'자형의 사랑채가 결합된 'ㅁ'형의 남동향 배치를 하고 있으며 필지 규모에 비해 건축물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어 바깥마당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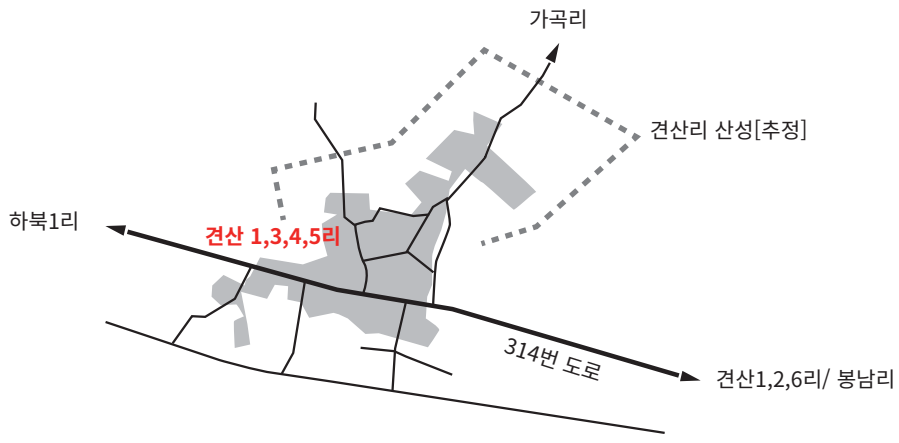
봉남리-가곡리로 연결되는 도로 측에 위치한 가옥으로 마을 내에서는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다.
불 규칙 형태의 필지에 경사가 높은 서측 도로에 인접하며, `ㄴ`자형 남동향 배치를 나타내고 있다. 별도의 사랑채는 보이지 않으나, 안채의 규모로 볼 때 초기 비교적 큰 규모의 가옥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마을에서 가옥들은 총 10여 채의 전통 민가 중에서 `ㄴ`자형의 단독 채 가옥들이 발견된다.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견산리 (1,3,4,5리) 마을공간조직의 특징

1967년 항공사진을 토대로 마을의 모습을 볼 때 견산리 산성이 'ㄷ'자형으로 지형을 따라 마을의 경계를 한정하고 남측의 314 도로 주변으로 건축물들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14번 도로와 가곡리 방향으로 골짜기를 따라 북측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ㅗ'자형의 기본 도로구조를 통해 마을의 공간 조직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70~90년대를 거치면서 서측은 흥원제지 공장이 들어서고 견산리 산성터를 따라 청도, 서원 아파트가 남동향 배치로 들어서고 314번 도로 남측으로 새로운 건물들이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14번 도로 남측에서 규칙 형태를 갖는 필지들이 나타나고, 314번 도로와 남측의 나란한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들이 분화되면서 마을의 공간조직은 314번 도로 북측보다는 남측에서 동서방향으로 점차 확장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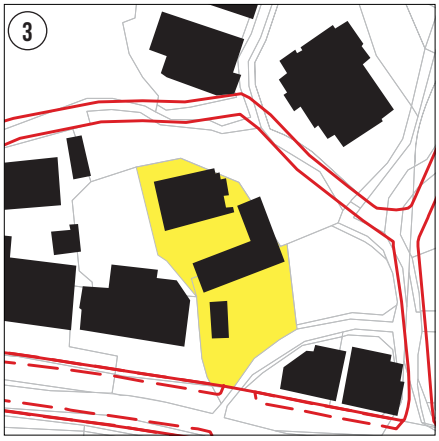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442-2

봉남리-하북 1리로 연결되는 도로 남측 북측에 각각 전통 민가 형태의 건물이 존재하며, 'ㄱ'자형 안채와 사랑채의 결합으로 튼'ㅁ'자형 배치를 나타낸다. 북측의 주거는 도로와 인접하나 도로가 확장되기 이전에는 바깥마당의 형태로 여유 공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달리, 도로 남측의 주거는 튼'ㅁ'자형의 배치로 남서방향으로 틀어진 배치를 하고 있으며, 바깥마당이 남측이 아닌 서측에 위치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441-2

도로 남측은 1990년대까지 초기 모습을 비교적 유지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는 산업시설들과 더불어 규칙 형태의 필지와 빌라 형태의 건물들이 나타나는데, 314번 국도에 나란한 남측의 동서방향 도로가 형성되고 이 두 도로를 남북축으로 연결하는 도로들이 추가로 형성되면서 이 도로 주변으로 필지 구성과 새로운 건축물들이 등장한다.
2000년대 나타나는 주거 건축물들은 필지 구성 및 도로에 최대 용적 확보를 위한 배치로 보여지며, 남향의 배치를 통한 일조나 남측의 논 경작지의 조망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406-2



314번 국도를 남측으로 두고 북측 세로 방향으로 위치하는 필지에 북측에 건물을 두고, 남측은 전면 마당을 두었다. 북측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콘크리트 구조에 조작 벽체를 갖는 건축물이나 초기 모습은 역`ㄱ`자형의 안채와 `ㄱ`자형의 사랑채가 결합하여 튼`ㅁ`자의 전형적인 민가 배치 구조를 나타낸다. (1967년 항공사진)
현재 필지는 남북 두 개로 나누어져 있으나, 초기 모습은 단일 필지로 추정되며, 남측 도로 쪽의 "바깥마당-사랑채-중정(안마당)-안채-후정(뒷마당)"의 전형적인 공간구성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신리

진위천 남측 논 경작지 한가운데 위치하며 1번 도로 동측에 근접하여 위치하는 마을로 전체적으로 남서향의 배치를 하고 있다.
현재 도로의 구조는 1번 국도(경기대로)와 수직으로 만나면서 동측 봉남리와 마산리 방향으로 연결된 동서방향의 도로가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을 주변의 논 경작지는 초기 자연발생 논 흔적은 사리지고 경지정리를 통해 직사각형의 규칙적인 필지 구성을 나타내고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마을의 필지와 공간구성이 남서향으로 틀어진 형국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평지형 마을과 마찬가지로 신리 주변도 비닐하우스 경작 시설이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마을 북서 측에는 '세아FS(한국번디)'라는 대규모 산업시설이 마을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마을 북쪽으로 진위천의 완만한 곡류의 형태로 위치하고, 남측으로는 306번 도로가 동서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어 신리의 도시 확장은 점차 'ㅁ'자형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항공사진
[지도 출처 : 카카오맵 / 국토지리정보원]

- 범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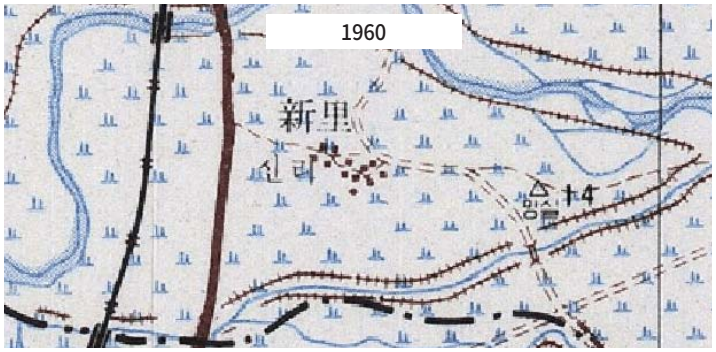
개별 주거 건축물 - 단독주택중심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맨숀, 연립주택
대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 아파트
산업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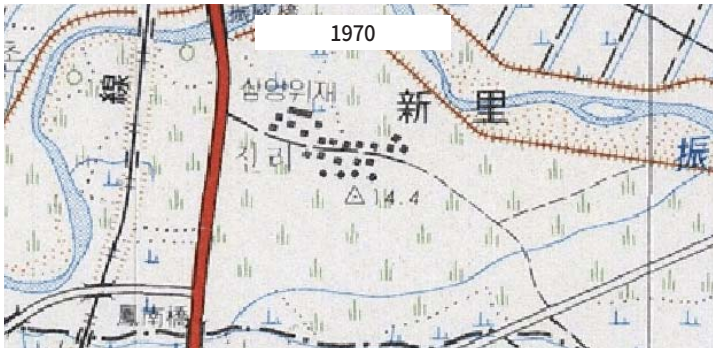
2018년 수치지형도 재구성
[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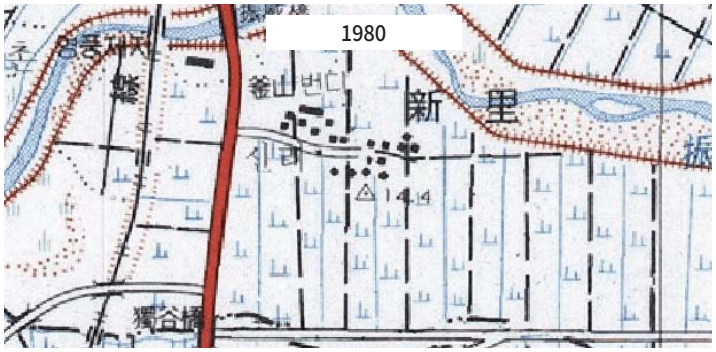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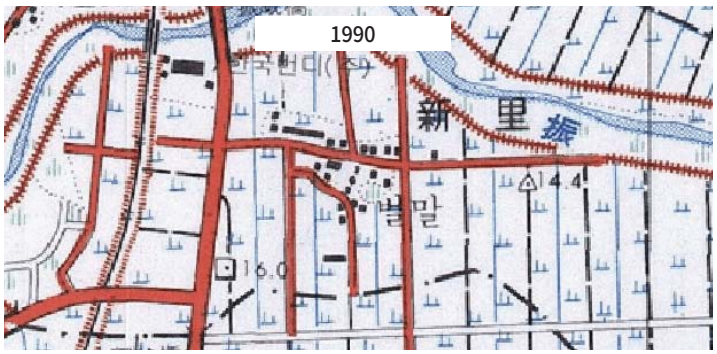
신리 마을공간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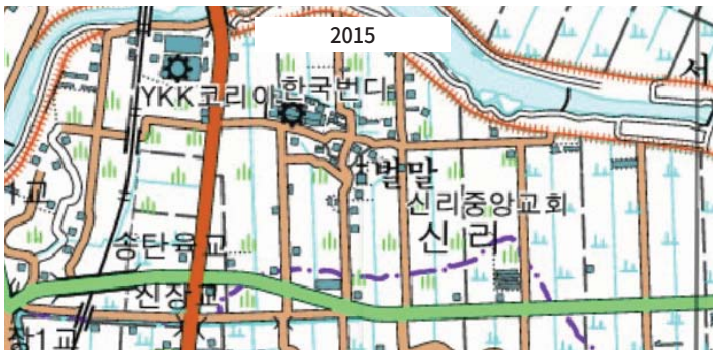
진위면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마을들을 관통하는 도로의 위계가 1914년 지도에서는 남북축 방향으로 나타난다. 신리 또한 마찬가지로 남북방향의 도로가 서측의 1번 국도(경기대로)와 나란한 남북 축의 도로가 동서축의 도로보다 위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지도에서는 견산리 방면에서 신리를 거쳐 마산리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위계가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1970년대 지도에서는 다시 동서방향의 도로 위계가 나타나고 남북 축의 도로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980년대 이후 현재의 마을 모습은 동서방향의 도로 위계가 주된 공간 위계로 남아 있으며 남북 축의 도로 위계는 찾아보기 힘들다.
신리 일대의 공간구조는 남북 축의 경부선과 경기대로가 중심으로 신리- 306번 도로가 연결되는 'ㅁ'자형으로 점차 도시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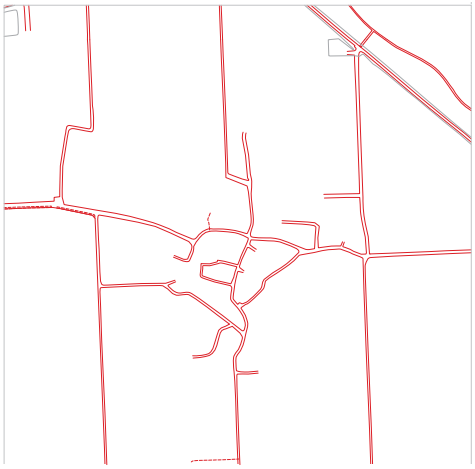


건축물 지형 필지 도로 관계

평지형으로써 지형과 필지의 관계가 특별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야막리와 새마을촌의 경우 남북축으로 직사각형 논 필지들이 구성되었고, 대정촌은 동서방향의 필지 구성과 남북방향의 필지 구성이 함께 나타난다. 신리의 경우 전체적으로 동서방향으로 구성된 필지로 둘러싸여 있다. 마을의 분포는 야막리, 새마을촌, 대정촌과 마찬가지로 동서방향의 도로를 주축으로 남향의 일조권을 확보하는 배치로 건물들이 분포하고 있다. 도로구조와 필지의 분포를 볼 때 전체적으로 나비가 날개를 펼친 형태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필지의 분화 형태를 볼 때 동서방향의 도로 북측보다는 남측에 분화된 필지들의 수량이 훨씬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초기 마을의 형태는 1914년 지도에 나타나는 것처럼 동서방향보다는 남북방향의 도로 위계를 따라 마을 공간 조직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동서방향의 도로가 중심이 될 때 필지는 필연적으로 동서방향으로 분화될 수밖에 없지만 신리는 동서방향으로 통과하는 작은 소로들을 두어 남북방향의 필지로 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비주거 건축물의 경우, 이러한 필지 구성과는 무관하게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필지 -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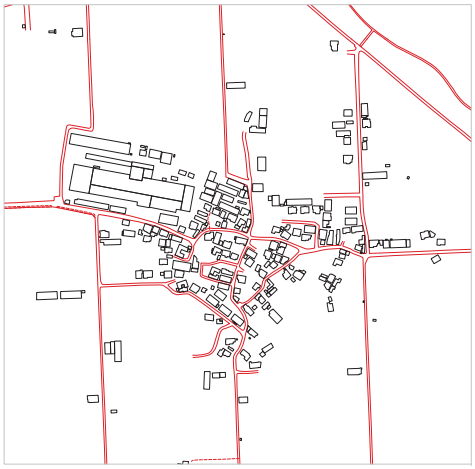
필지 - 도로



도로 - 지형

건축물 - 지형

건축물 - 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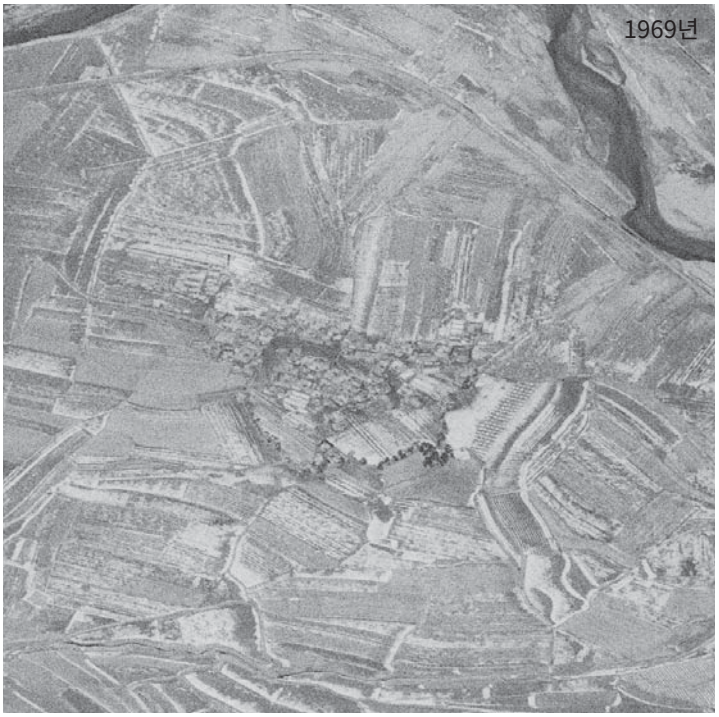


건축물 -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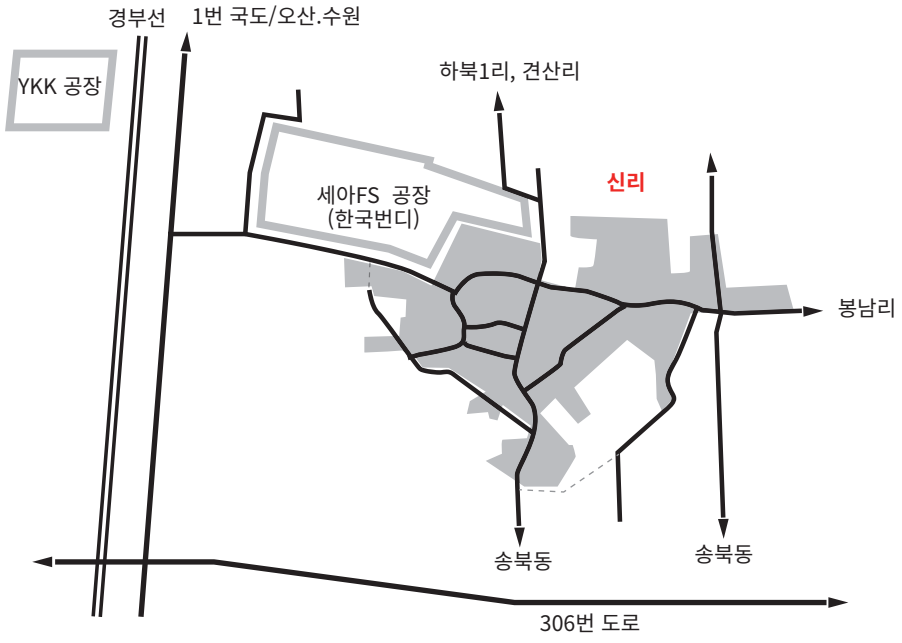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신리

1969년 항공사진을 통해 신리의 마을 초기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사진의 해상도가 낮아 정확한 공간 형태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마을을 중심으로 논 경작지의 필지가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연발생 논필지의 구성은 대부분 지형의 물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우가 많은데, 신리의 경우 아래 항공사진에서는 규칙성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하천 범람에 따른 물 흐름이 다양하게 변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래 사진에서 북측 진위천 방향으로 동서방향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나타나는 도로가 보이며 이는 현재의 진위천 경계에 해당하는 도로로 추정된다. 또한 남동 측으로 불규칙 도로에 나타나는 수목의 모습도 보인다.
필지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정방형 형태와 불규칙 형태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필지의 방향은 전체적으로 남북방향이 동서방향보다 많이 나타나며 동남 측에는 대정촌에서 나타나는 세장형 필지의 모습도 나타난다.
신리에서도 대부분의 건축물(주거)은 필지의 북측에 위치하여 남측으로 마당 또는 작은 밭 경작지를 두고 있다.
목구조의 경사지붕을 갖는 민가 형태의 가옥은 약 22채가량으로 나타난다.(2020년 항공사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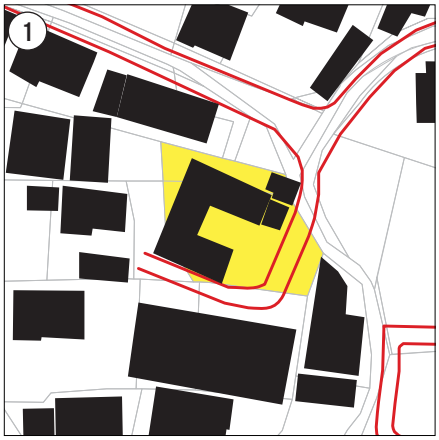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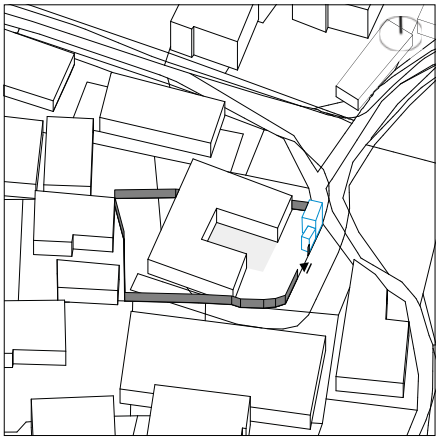
- DIAGRAM



안채
사랑채
창고
슈퍼
경작지
마당
울타리
도로▶필지
앞마당▶안마당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 2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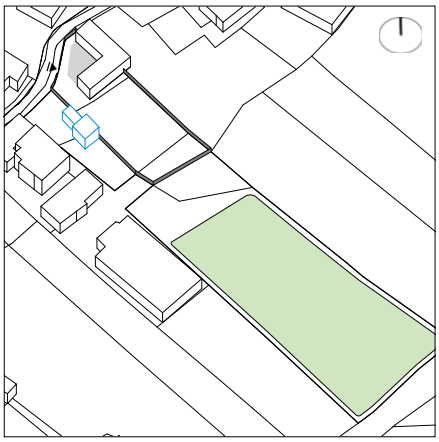


'ㄷ'자형으로 일체화된 가옥구조 및 배치로 동측의 대문 및 도로 측으로 열려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필지는 기울어진 사각형의 형태로 동남 측으로 열려있고, 담장은 해당 필지 밖에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필지의 분할 및 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 2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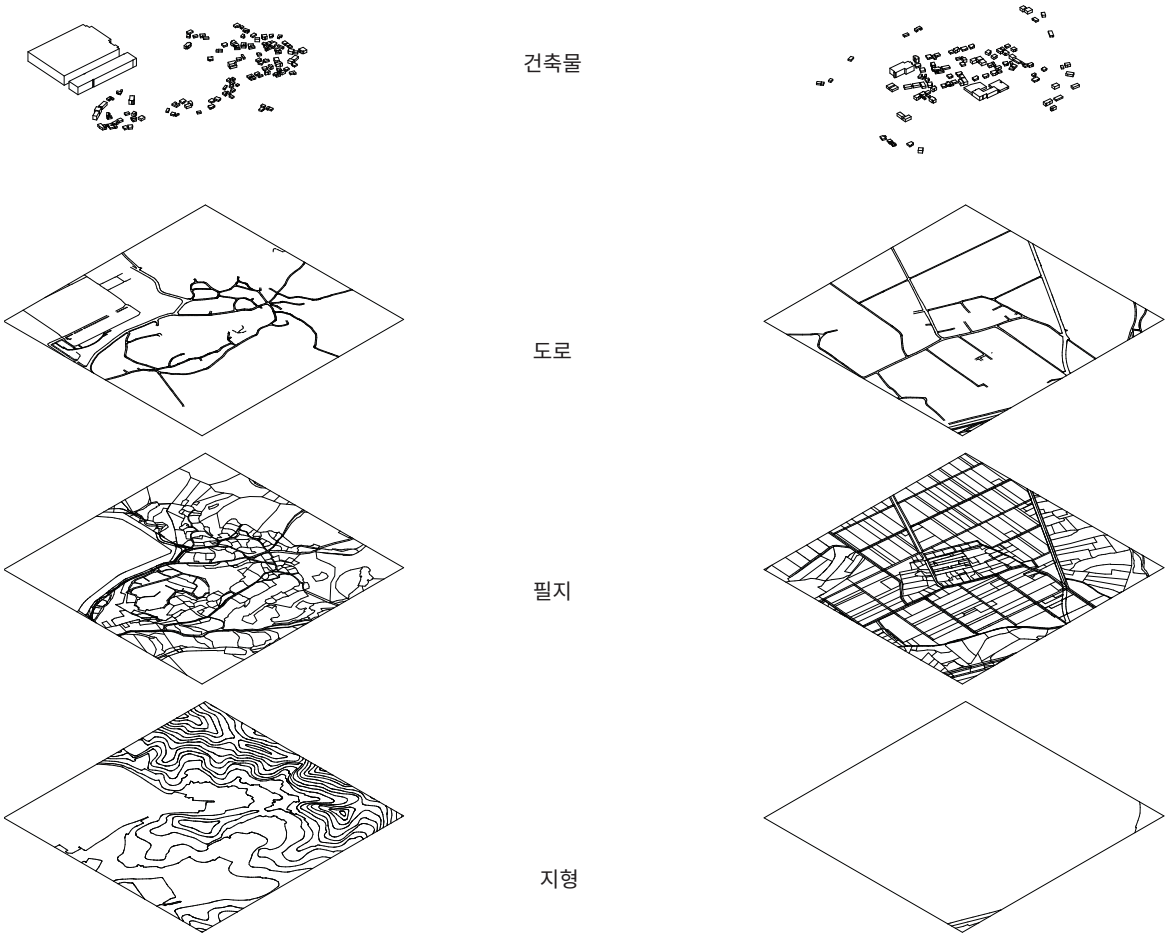
216-2 번지의 가옥은 역'ㄱ'형의 안채와 'ㅣ'자형의 사랑채가 결합된 형태로 추정되며 현재 남동측 도로 모서리에 위치한 건물은 신축되었거나 기존 건물 멸실 후 재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측 도로에 면한 두 개의 건물은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로 1970년대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필지는 단일 필지이지만 건축물은 동측 도로변의 건물과 내측 역'ㄱ' 자형 건물은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의 배치가 살짝 남동 방향의 'ㅁ'배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인접한 동측 도로가 남측의 도로보다 초기에는 더 중심이었다가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남측 도로의 위계가 높아지면서 건물이 신축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 1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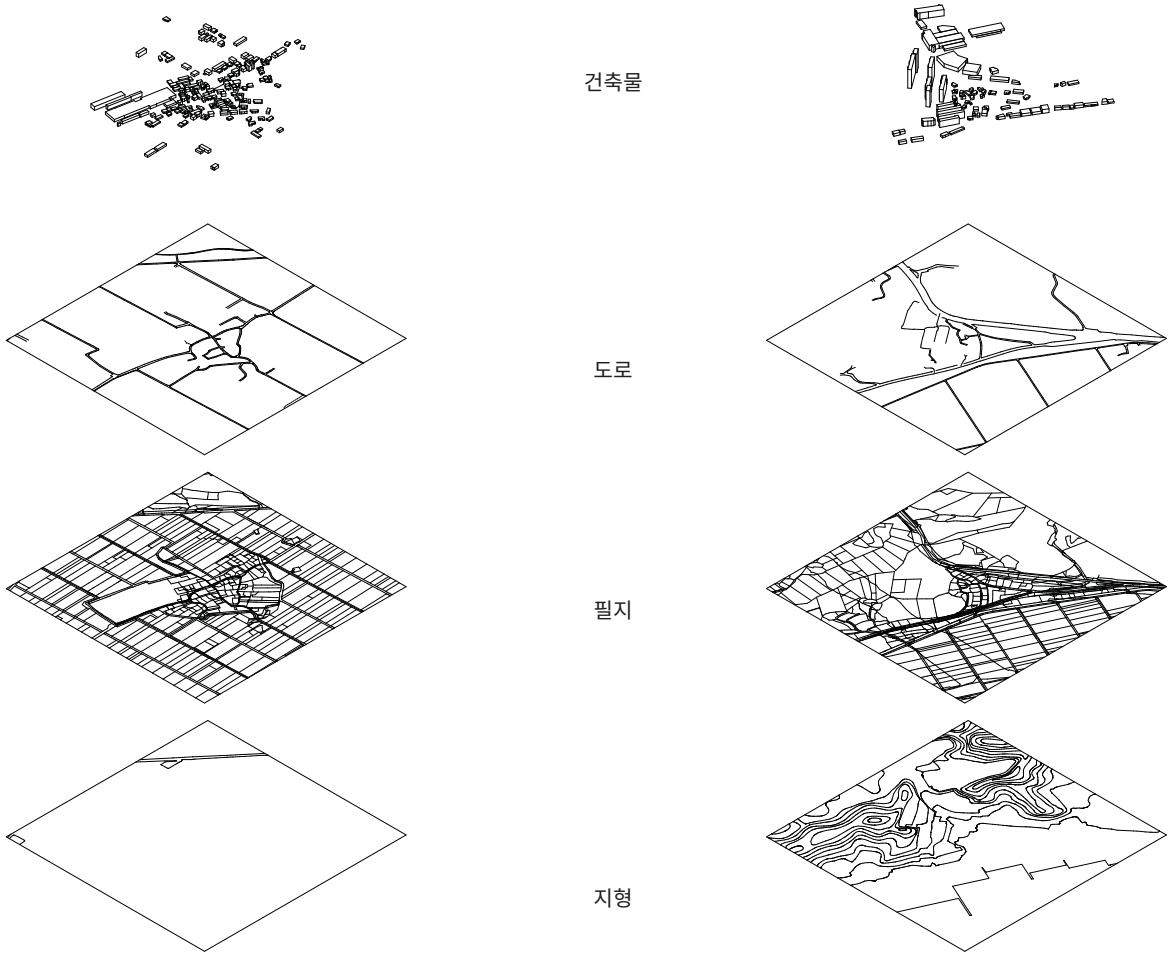
대정촌에서 발견되는 길이 약 100~110m 세장형 필지의 형상을 하고 있다. 필지는 서북 측의 도로에 인접하여 소규모 필지로 분화되어 있고 남동 측의 긴 필지는 밭 경작지로 인접하여 있다. 이러한 유형의 필지 구성은 7곳에 나란히 나타나는데 '대지+전'의 형태로 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동 측 도로변에 담장을 두고 도로 측에 전면 마당을 두었으며 건물은 'ㄱ'자형으로 남서향 배치를 하고 남동 측은 긴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3. 진위면의 마을 공간조직의 특징



가곡리(2리)

하북리(2리-대정촌)



신리

견산리(2,6리)

여 백

2021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III.

진위면 견산리 마을조사

김해규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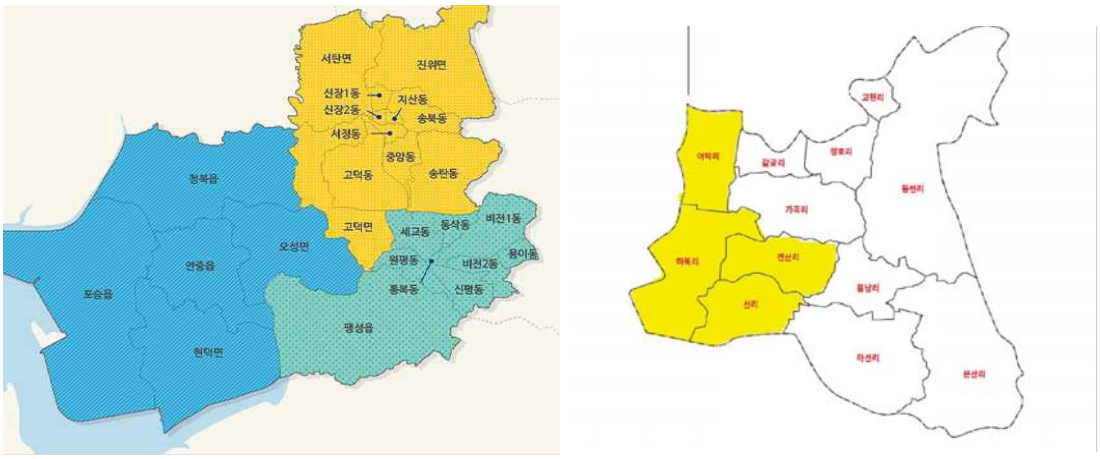
Ⅲ. 견산리 마을조사

1. 조사 배경과 목적

1) 조사 배경

평택지역은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북쪽의 진위현, 안성천 남쪽의 평택현을 중심으로 여러 고을의 월경지, 견아상입지(두입지)가 혼재되었던 지역이었다. 그러다가 근대 이후 진위현(군)을 중심으로 충청도 평택현이 통합되었고, 갑오개혁 이후 수원군으로 통합되었던 서평택지역이 편입되면서 현재와 같은 공간을 갖게 되었다.

근대 이전 진위현은 평택지역 2천 년 역사의 중심이었다. 실제로 평택지역은 진위현의 확장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봉남리는 진위현의 읍치(邑治)였고, 견산리, 가곡리, 하북리, 신리, 야막리, 동천리는 읍치(邑治) 주변의 근간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통합과정에서도 ‘진위(振威)’는 평택지역의 대표 지명이었다. 하지만 근대 이후 철도와 신작로가 가설되는 과정에서 소외되었고 철도역을 중심으로 근대도시가 발달하면서 전통적 중심 기능을 상실했다. 1914년에는 봉남리의 진위군청까지 이전하고 정치, 행정, 경제, 문화적 공공기관들이 평택 역전에 설치되었다. 더구나 한국전쟁 뒤로는 적봉리, 장등리 일대에 K-55오산공군기지가 주둔했으며 신장동 일대에 미군기지촌이 발달하면서 북부지역의 중심 역할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



조사 대상 지역[1)]

근대 이후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던 진위면은 1970년대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견산리, 하북리, 신리 일대에는 홍원제지, 매일유업, ㈜hy평택공장(한국야쿠르트), 세아FA(구 한국번디), YKK한국, 영풍제지같은 중견기업들이 들어오고, 1980년대 초 청호리에 LG전자 평택공장이 들어오면서 도농복합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2000년 전후에는 각종 중소기업들이 들어왔으며, 2010년 전후 진위면 청호리, 갈곶리, 가곡리 일대에 평택하이테크협동화공단, 진위일반산업단지, 진위2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마산3, 4리에는 진위3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1) 평택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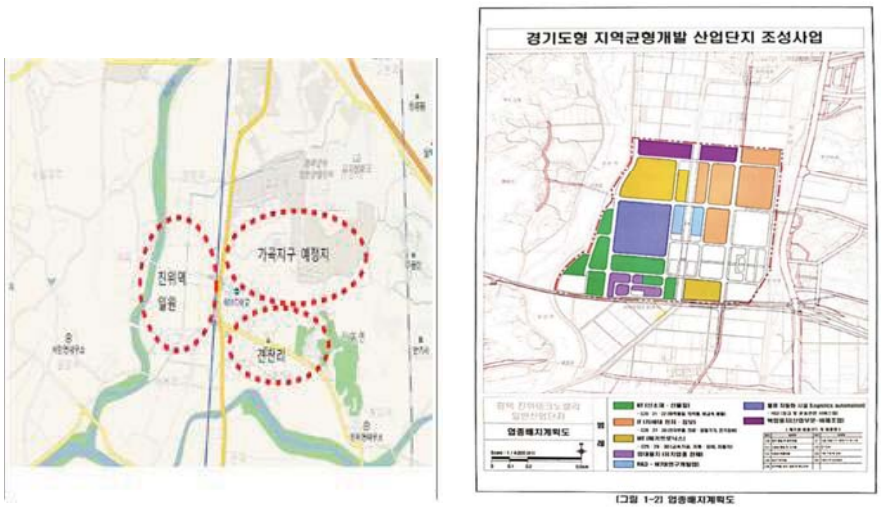
이밖에 가곡3, 4리에도 대단위 택지개발이 예정되었으며, 야막리와 하북1리 지역에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진위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이 같은 개발사업은 전통적인 농업지대였던 진위면에 공업화, 도시화, 인구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공업화, 도시화, 인구증가는 필연적으로 전통의 경관을 변화시키고 주민들의 삶과 문화유산의 변용과 유실을 가져올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은 진위면의 중심에 해당하는 견산리, 신리, 하북리, 야막리다. 이들 지역은 조선시대 내내 진위현에 속했으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마을이다. 조선시대 견산리와 신리 지역로는 제6대로였던 삼남대로가 지났으며, 신리에는 장호원이라는 역원이 설치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견산2리를 비롯해서 곳곳에 사설 점막(주막)도 있었다. 근대 이후에는 하북1리 서쪽으로 경부선 철도가 건설되고 잠시 진위역이 설치되었으며 철로 옆으로는 국도 1호선이 건설되었다. 이에 따라 하북리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여 교통뿐 아니라 상업이 발달하였다. 일제 초기에는 철도 건너편 황무지가 개간되면서 하북2리가 형성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하북3리에 새마을촌이 조성되었다. 들판에 형성된 야막리는 근대 전후 천도교가 발달했다. 천도교 진위교구도 야막리에 있었으며 1919년에는 천도교인들이 진위지역 3.1운동을 주도했다.

경제적으로 조사지역은 1960, 70년대 참외재배와 1980년대 비닐하우스시설재배를 통한 수도권 채소재배로도 유명하다. 특히 진위면 신리와 하북2, 3리에서 생산되는 오이, 애호박, 토마토와 같은 작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산물로 각광 받았다. 견산리, 신리 일대의 문화 유씨, 안성 이씨, 하북리 광주 이씨와 같은 주요 성씨의 문중 활동, 마을제, 줄다리기, 거북놀이, 두레와 같은 민속놀이나 가정신앙도 빼놓을 수 없는 문화유산이다. 평택문화원은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한 위 지역의 문화유산을 수집, 연구하고, 아카이브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조사목적과 범위

이번 조사지역인 견산리, 신리, 하북리, 야막리는 개발지역에 일부 포함됐나 대부분 비껴갔지만 급속한 개발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은 피할 수 없는 지역이다. 특히 2025년 완공 예정인 ‘진위테크노벨리 조성사업’ 은 하북2, 3리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견산리, 하북리 일대 개발 및 진위테크노벨리 조성사업 위치[2)]

이번 조사연구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첫째, 문헌조사 및 구술조사를 통한 인문지리를 연구하고 구술 사료를 수집하여 아카이브 하는 것이다. 둘째, 해당 지역의 근대 지도, 항공지도를 활용 분석하여 마을의 분포와 변화과정, 집단의 생활양식 변화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셋째, 사회 경제사 연구에 필요한『광무양안』을 번역 연구, 해제하여 근대 전후 경제적 변화과정과 지주-소작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인문 지리 목차이다.

1. 지리와 지명 : 자연환경, 인구, 성씨, 교통, 지명유래
2. 역사와 마을 : 행정구역의 변화, 자연마을
3. 경제생활 : 농업, 공업, 장시와 유통
4. 사회생활 : 공동시설, 마을조직과 운영, 문중 생활, 혼례와 상례, 의 · 식 · 주
5. 문화생활 : 교육, 종교, 문화재, 마을신앙, 전통 놀이, 구전설화

구술 조사는 토박이들을 대상으로 하되 이주민이라고 할지라도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특정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도 포함시켰다. 구술 조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생애사(生涯史)를 중심으로 하지만 마을 경영이나 생산활동, 공동체 활동, 민속 관련 경험이나 기억이 있는 사람, 특정 직업을 경험한 사람, 특정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의 구술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다음은 분야별 연구참여자이다.

이름	소속	역할
최치선	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	기획, 총괄, 사진
김해규	평택인문연구소장	인문지리, 구술(견산리, 신리)
장연환	효명고 교사, 평택인문연구소 연구위원	인문지리, 구술(하북리, 야막리)
윤한택	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 연구위원	『광무양안』 번역 및 연구
장수아	디트라스 건축사무소 대표	공간분석 및 연구

조사위원(좌측에서 윤한택, 김해규, 장연환, 최치선) 및 회의 장면(좌측 장수아)

평택지역은 변화가 매우 빠른 지역이다. 변화에 따라 전통의 경관과 민중들의 삶의 기억, 문화유산은 급속히 유실, 파괴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문헌조사와 구술 조사, 인문적 연구는 지역사 연구 사료 축적이나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전, 지역문화를 토대로 한 각종 콘텐츠 계발의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또 지역적 정체성 확립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도 매우 중요한 가치와 의미

2) 평택시청 제공

를 갖는다.

2. 지리적 환경과 지명

1) 지리적 환경

진위면 견산리는 동쪽으로는 진위서로를 경계로 봉남리, 가곡1리와 경계를 이루고, 서쪽으로는 국도1호선을 경계로 하북리와 경계를 이룬다. 북쪽으로는 진위서로와 견산리성을 경계로 하북4리, 가곡3, 4리와 경계를 이루며, 남쪽으로는 진위천을 경계로 신리와 경계를 이룬다. 북쪽으로는 진위면 봉남리의 부산(釜山)에서 흘러 내려온 구릉이 마을을 비보하고, 남쪽으로는 장호평, 장안들이 넓게 펼쳐졌다.

이 지역은 일찍부터 마을이 형성되었고 오래된 성씨가 많다. 구릉 사이에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지었으며, 조선 후기 장호들, 장안들이 간척되면서부터 논농사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토지는 척박하고 농업용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가뭄을 많이 탔고 농업생산력도 높지 않았다. 그러다가 1972년 이동저수지가 준공되고 1977년부터 경지정리사업이 전개되면서 농업생산력이 증가하고 생활 수준도 향상되었다.

견산리와 장호들(좌), 진위천과 장호들(우)

마을 남쪽으로 흐르는 진위천은 조선시대 장호천이라고 하였다. 1757년(영조33)년경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현 남쪽 1리 지점에 있다. 물의 근원이 둘인데 하나는 용인 속현으로 되어 있는 처인(處仁) 동쪽에서 나오고, 하나는 옛 양지현 서편에서 나와서 합류한다. 객관(客館) 남쪽을 지나 다시 서편으로 흘러 수원부 다라고비진(多羅高飛津)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였다. 1843년 편찬된 『진위현 읍지』, 1899년 『진위군 읍지』에도 발원지를 용인의 처인과 양지라고 했다. 『두산백과』에는 “안성천의 제1지류로 발원지를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라고 했으며, 발원지에서부터 서탄면 회화리 오산천과 합류하는 32㎞지점까지는 지방2급 하천이었다가 이후 국가하천으로 바뀌어 18㎞를 더 흘러 오성면 창내리에서 안성천과 합류한다고 했다. 총길이는 50㎞이며, 유역면적은 936.57㎢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진위천으로는 아산만으로부터 바닷물이 유입되었다.

견산2리 노인회장 김영회(남, 1941년생)도 여름철 백중사리나 큰 사리 때 바닷물이 역류하면 견산리와 신리 앞까지 들어왔다고 말했다.[3)]

진위천을 중심으로 견산리 방향에는 장호들(장안들)이라는 충청평야가 발달했고, 신리 쪽에는 건넌들(건는들)이 발달했다. 장호들은 조선후기 간척된 것으로 판단된다. 간척 이전 견산리는 구릉 경사면에 밭을 일구거나 견사리성 북쪽의 조개들을 경작하는 사람이 많았다. 농업용수도 부족해서 진위면 은산5리 부근에 보(洑)를 축조하여 공급받기도 했고 용두레로 진위천의 물을 퍼 올려 모내기를 할 때가 많았다.

견산리 일대는 교통의 요지다. 조선시대에는 한양에서 충청도와 전라도를 거쳐 경상도 통영에 이르는 삼남대로가 견산2리 동쪽을 지났다. 대로(大路)가 지나면서 조선 후기에는 견산2리에 ‘밖술막’ 또는 ‘견산점’이라는 주막이 발달했으며 좋은 우물도 있었다. 하지만 근대 이후 진위면 하북1리 서쪽으로 경부선 철도와 국도 1호선이 건설되면서 삼남대로는 쇠퇴하면서 견산리 일대는 낙후되었다.

견산리가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은 1970년대 중·후반 매일유업, hy평택공장(한국야쿠르트)과 같은 중견기업이 들어오고 1990년대에도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1980~90년대 사이에는 경원아파트, 청도아파트, 서원아파트가 건설되었고 견산1리 남쪽에는 서울아트빌라를 비롯한 빌라와 다세대주택이 자리를 잡으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1970년대 봉남리-견산리-하북리를 연결하는 ‘진위서로’의 확장과, 2000년대 중반 ‘동부대로’의 건설은 교통의 낙후성까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견산리는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

2) 인구

견산리는 삼국시대 부산현, 신라 경덕왕 때 진위현에 속했으며, 고려 말까지 수성군(수원)의 관할을 받았다.[4)] 그러나 이 시기 인구는 문헌으로 확인할 수 없다. 대략의 인구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은 조선 초 작성된 『세종실록지리지』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진위현에 221호(戶) 535명이 거주한다고 했다. 이 가운데 견산리와 관련된 인구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진위현의 범위가 진위면과 서탄면, 독곡동과 지산동 일대였으므로 전체 인구의 1/10 수준, 즉 50여 명쯤은 거주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의 문헌보다 좀 더 상세한 기록은 1789년 편찬된 『호구총수』다. 『호구총수』에는 견산리가 이북면에 속했음을 말하며, 이북면의 가야곡리, 후북리, 하북리, 견산리의 인구가 157호(戶) 548명임을 밝히고 있다. 성별 인구에서는 남자 242명에 여자 306명이었다. 『호구총수』가 편찬되고 약 100년이 지난 1891년 『진위현 읍지』의 인구는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143호(戶) 264명으로 나오며, 1899년 『진위군 읍지』에도 153호(戶)로 나오고 있다. 19세기 인구 감소 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이 시기에는 큰 전쟁이 없었고 오히려 견산리 앞 장호들이 간척되어 경지면적이 확대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더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전염병과 같은 천재지변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은 좀 더 세심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마을별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기는 해방 후 1963~1985년 사이다. 평택군에서는 1963년부터 『통계연보』를 발행했다. 1963년 12월 31일 기준 진위면의 인구는 1,375호(戶) 8,404

3) 김영회(남, 1941년생), 2021년 9월 14일 신리 비닐하우스시설재배단지에서 인터뷰
4) 『고려사』 제1편, 진위현

명(名)이었고, 견산1, 2리의 인구는 86호(戶) 540명이었다. 성별 인구는 남자가 265명, 여자가 275명으로 비슷했다. 이것은 신리(48호, 310명)이나 야막리(38호, 229명)보다 두 배가 많지만, 가곡리(193호, 1,209명)나 봉남리(218호, 1253명)에 비해서는 크게 적은 수치다.

1976년『평택군 통계연보』의 인구는 95호(戶) 754명으로 증가했다. 성별 인구는 남자가 376명, 여자가 378명이었고, 직업 별로는 농가(農家) 58호 비농가(非農家) 37호였다. 이 시기 비농가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마을 주변에 홍원제지, 매일유업 중부공장, ㈜hy평택공장(한국야쿠르트)같은 중견기업들이 들어오면서 회사원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985년『평택군 통계연보』의 견산리 인구는 214호(戶) 1,019명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자연증가와 함께 공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견산리의 인구는 1990년대 이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은 견산1리에 1991년 12월, 서원아파트 3개동 134세대, 1992년 1월 청도아파트 3개 동 214세대가 분양되고, 견산2리에는 1986년 1월 경원아파트 4개 동 160세대가 분양되었기 때문이다. 또 2000년 9월에는 견산2리에 한승아파트 606세대가 신축되고, 견산1리 진위서로 남쪽에 서울아트빌라, 대산빌라, 노블빌리지가 분양되면서 자연마을은 견산1리~6리까지 모두 6개로 증가했으며 인구도 크게 늘었다. 다음은 2021년 8월 현재 진위면 견산리의 인구다.

진위면 견산리 인구(2021년 8월 말)[5)]

마을	호	인구	남자	여자
견산1리(벌미)	221	486	250	236
견산2리(산직촌, 경원아파트)	178	360	177	183
견산3리(청도아파트)	195	424	213	211
견산4리(서원아파트)	122	280	139	141
견산5리(서울아트빌라 외)	122	235	112	123
견산6리(한승아파트)	506	881	515	366

3) 성씨

조선시대 견산리 일대 성씨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조선 전기에 쓰여진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조선 후기의 『여지도서』를 비롯한 『읍지』를 통해서 대강을 추론할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토성(土姓)으로 이(李), 김(金), 최(崔)씨를 언급하며, 망성(望姓)으로 유(柳), 송(松)씨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李)·김(金)·최(崔)씨의 본관이나 가계(家系)에 관한 내용은 없어 추론에 한계가 있다.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김(金), 이(李), 유(柳), 최(崔), 송(宋) 등 다섯 성씨가 언급되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세종실록지리지』에서 망성(望姓)이라고 했던 유(柳), 송(松)씨가 다시 토성(土姓)으로 등장한 점이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언급된 토성(土姓)들은 현재 세거하지 않는다. 견산리와 관련된 성씨도 없다. 이것은 조선전기의 혼인관계나 재산 상속이 남녀의 구별을 두지 않았고 남자가 처가살이 하던 풍습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집성촌이 형성되거나 성씨 별 계보

5) 진위면행정복지센터 제공, 진위면 주민등록인구

(系譜)가 정리되지 않았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진위현의 대표 성씨로 김(金), 이(李), 유(柳), 최(崔), 송(松)을 꼽고 있다. 이것은 200년 전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내용이 같고, 『여지도서』보다 100여 년 뒤에 편찬된 『진위현 읍지』(1843)와도 동일하다. 진위현은 『승람』과 200년 동안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심하게 겪었으며, 1728년(영조4) 무신 난(이인좌의 난)으로 사족층의 변화가 많았던 지역인데도 토성(土姓)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매우 의아하다. 조선후기 입향하여 명문(名文)을 이룬 경주 이씨 상서공파 백사공 계열과, 무신 난에 적극 참여했다가 멸문지화를 당한 안동 권씨와 진주 소씨와 관련된 언급도 전혀 없다. 이것은 어쩌면 『여지도서』 편찬 과정에서 『승람』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것은 1843년 『진위현읍지』도 마찬가지다. 『진위현읍지』에도 주요 성씨로 김(金)·이(李)·유(柳)·최(崔)·송(宋)을 꼽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2021년 현재 진위면의 주요 성씨는 봉남3리와 마산2리의 경주 이씨 상서공파, 은산리의 봉화 정씨 문헌공파, 마산3, 4리의 순흥 안씨 문성공파, 마산1리, 독곡동 오리골의 단양 우씨 안정공파, 견산1,2리와 신리의 문화 유씨 하정공파, 하북리 광주 이씨 광릉부원군파, 가곡2리 안동 권씨, 가곡1리 제주 고씨, 야막리와 가곡5리의 밀양 박씨 등이다.[6] 이 가운데 견산리와 관련이 깊은 성씨는 문화 유씨 하정공파와 안성 이씨다. 주민 이광섭(남, 1941년생)[7]은 과거에는 안성 이씨가 대성(大姓)이었다고 말했다.

견산1리는 안성 이씨, 문화 유씨, 영월 엄씨가 많다. 성씨마다 5~7호쯤 된다. 이 가운데 대성(大姓)은 문화 유씨 하정공파였고 안성 이씨도 많은 편이었다. 문화유씨 하정공파 33대손 유재용(남, 1947년생)에 따르면 문화유씨는 400여 년 전에 입향했다고 말한다. 종중 묘역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할아버지가 400년쯤 전에 입향했다는 것이다. 많이 거주할 때는 견산1리가 60호쯤 될 때 20호 이상은 문화 유씨였다. 하지만 젊은층의 도시이주와 노년층의 사망으로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7~8호가 남았다.[8]

견산1리 경주 김씨 김광수, 성주 이씨 이광섭, 견산2리 안동 김씨 김영회

6)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2014
7) 이광섭(남, 1941년생), 견산1리 거주, 2021년 9월 15일 인터뷰
8) 유재용(남, 1947년생), 견산1리 거주, 2021년 12월 19일 전화인터뷰

이장 김광수(남, 1951년생)는 경주 김씨 계림군파의 후손이다. 본래는 견산2리에 살았다가 견산1리에서 방앗간을 경영했던 아버지를 따라 견산1리로 이사 왔다. 견산1리에는 경주 김씨가 5호쯤 살고 있다. 김광수의 선조들은 고조부 때 입향한 뒤 5대째 거주한다. 입향 이유는 알 수 없다. 선대(先代)들은 농사를 지으며 지금껏 살았다. 부모님은 방앗간을 운영했고 본인은 방앗간도 운영했고 회사에도 다녔다.

견산1리 노인회 도우미 이광섭(남, 1941년생)[9]은 본관이 성주이다. 성주 이씨는 이광섭의 고조부 때 화성시 정남면에서 입향했다. 입향 당시 마을에는 성주 이씨가 한 집도 없었다. 현재 4호(戶)가 거주하는데 모두 사촌 아니면 형제들이다.

노인회장 김만영(남, 1943년생)[10]은 1970년대 중반 전북 고창에서 입향했다.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가 고향이다. 부모님과 1녀 3남의 형제들이 논 1천 평을 농사지어 먹고 살았다. 도저히 가망이 없어 군대에서 전역한 뒤 서울로 올라갔다가 인연이 닿아 평택으로 내려와 정착했다. 평택에서 처음 한 일은 모내기 품팔이였다. 서탄면에서 모내기를 해줬는데 일꾼들에게 쌀밥을 주기에 평택지역의 풍요로움에 반해 정착하게 되었다. 그 뒤로 품삯을 받아 간장 행상을 했고, 돈을 모아서 고물 장사도 했으며 이것으로 기반을 잡아 하북에서 철물점과 잡화점을 하다가 1970년대 중반 매입유업 앞으로 이사했다.

견산2리 김영회(남, 1945년생)[11]는 안동 김씨 이원공파 16대손이다. 안동 김씨는 진위면 봉남1리, 은산리, 마산리, 동천리 일대에 거주한다. 마을별로 서너 집씩 살고 있어 진위면 종친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현재 견산2리에는 4~5호(戶)쯤 거주한다. 견산2리 안동 김씨는 김영회의 조부 때 입향했다. 조부는 충북 증평에 거주했는데 역모에 몰려 증조할머니가 간난아이를 업고 보은으로 도망갔고 나중에 견산리로 이거했다고 한다. 조부는 한학을 공부했고 부친은 일제강점기 공무원이었다. 진위군 북면(진위면) 산업계장까지 했다가 공무원 전력 때문에 한국전쟁 때 큰 고초를 겪었다.

4) 교통

(1) 문헌으로 살펴본 방리(坊里)

견산리는 진위현의 읍치(邑治) 봉남리와 가장 인접한 마을이다. 견산2리 동쪽으로는 삼남대로가 지났고 과거에는 진위천을 통한 수로 교통도 발달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봉남리에서 양성현 경계까지 4리, 수원부 바안내(所內川)까지 7리, 영신현까지 7리, 수원부 송족(松足)까지 6리라고 했다. 여기에서 양성현 경계는 은산리와 마주 보고 있는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까지 거리를 말하고, 영신현은 세종 때 진위현과 통폐합된 고을로 덕암산에서 안성천 사이에 있었다.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양성현 경계까지 13리, 직산현 경계까지 37리, 수원부 경계까지 12리, 용인현 경계까지 33리, 서울까지 118리라고 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과 사뭇 다른 기록인데, 이것은 태종~세종 사이의 행정구역개편을 반영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종 6년 송장부곡을 편입하고 세종 때는 영신현을 진위현에 통폐합시켰는데 이것을 반영한 거리

9) 이광섭(남, 1941년생), 견산1리 거주, 2021년 9월 15일 인터뷰
10) 김만영(남, 1943년생), 견산1리 거주, 노인회장, 2021년 9월 14일 인터뷰
11) 김영회(남, 1945년생), 견산2리 거주, 노인회장, 2021년 9월 14일 인터뷰

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시대 진위현은 교통의 요지였다. 서울과도 118리에 불과하고 삼남대로가 지나서 하루 반나절이면 서울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18세기 중엽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진위현 객사(客舍)에 대한 하륜(河崙)의 중수기와 서거정(徐居正)의 기문이 실려 있다. 먼저 하륜(河崙)의 중수기를 살펴보면, “진위는 한길 옆이어서 노력과 비용이 다른 고을보다 갑절이나 된다. 원이 된 자가 진실로 마음을 지극히 쓰지 아니하면 민생(民生)을 편하게 하여 사공(事功)을 이룰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서거정의 기문(記文)에도 “진위는 작은 고을로 3도의 요충에 위치하였다. 사신과 빈객의 왕래로 말발굽과 수레바퀴가 서로 엇갈렸다. 빈잔(貧殘)한 백성과 궁폐(窮弊)한 아전이 번거로운 영접과 전송에 곤란을 받고 수령된 자는 대접하기에 고달픈데 또 무슨 다른 일을 할 겨를이 있으랴”라고 하였다. 이것은 조선 전기 진위현이 고을은 작고 삼남대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여서 왕과 고관들의 통행이 잦아 수령과 아전, 백성들의 고통이 심했다는 것을 말한다.

조선 후기 견산리는 진위현 성북면에 속했다. 성북면은 19세기 일북면과 이북면으로 나뉘었는데 이때 이북면에 편재되었다. 『문헌비고(文獻備考)』에 성북면은 북쪽으로 “처음이 5리 끝이 10리”라고 했다. 이것은 다시 해석하면 봉남리에서 성북면의 시작점까지 5리이며 면(面)의 북쪽 경계까지 10리라는 말이다. 여기에서 성북면의 시작점은 견산리이고, 조선 후기 진위현 읍치(邑治)에서 5리였던 것을 알 수 있다.

1843년 『진위현 읍지』 강계(疆界) 편에는, 양성현 경계까지 13리, 수원부 경계까지 12리, 직산현 경계까지 37리, 용인현 경계까지 10리라고 했다. 양성현의 경계는 평택시 도일동 남쪽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원부 경계는 봉남리-오산까지의 거리, 용인현 경계는 봉남리-남사면 봉명리까지의 거리, 직산현 경계는 봉남리-안성천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또 수원부 읍치(邑治)까지의 거리를 “과거에는 30리였는데 지금은 50리이다”라고 한 것은 수원도호부의 읍치(邑治)가 화산에서 팔달산 아래 수원화성으로 옮긴 것을 반영한 것이다. 1843년 『진위현 읍지』 장면(掌面)조에는 견산리가 속한 성북면(城北面)까지의 거리를 10리라고 했다. 또 19세기 전반에 성북면이 일북면과 이북면으로 나뉘었다는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

1891년 『진위현 읍지』의 거리는 이전과 다르다. 예컨대 서울까지의 거리를 120리라고 한 것은 큰 차이가 없지만, 용인현까지 70리, 평택현까지 40리, 남양부까지 70리, 수원부까지 50리, 양성현까지 20리라고 한 것은 이전의 기록과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이것은 이전의 읍지(邑誌)·지리지(地理誌)가 진위현 읍치(邑治)에서 인근 고을의 경계까지를 거리로 한 것에 비해 1891년 『진위현 읍지』는 읍치(邑治)와 읍치(邑治)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2) 삼남대로

가. 조선시대 이전의 육로교통

평택지역은 고대로부터 육로 및 수로 교통이 발달한 지역이다. 삼국시대 초기에는 백제의 지배를 받았지만 5세기 후반 고구려가 남하하면서 한강 이남 지역은 삼국 쟁패의 중요한 교두보가 되었다. 고구려는 직산의 사산성을 교두보로 삼았으며, 신라는 직산지역을 사산현이라고 하여 한강 유역 진출의 교두보로 삼았다. 이 시기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교통로는 추풍령로로 판단된다. 추풍령로는 경북 상주에서 보은, 청주, 진천, 직산을 거쳐 당항성으로 연결

된 교통로를 말한다[12]. 평택지역은 직산과 당항성[13] 사이에 위치하여 고대 교통로가 지나는 길목이었다. 이 구간에서는 서기 661년 신라의 고승 원효가 의상과 함께 도당 유학을 가다가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견성오도(見性悟道)[14]했다는 전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포승읍 수도사 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과 봉선 홍경사 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추풍령로는 활용도가 떨어졌다. 대중국 교통로도 당항성 외에 전라도 영암이나 울산항의 역할이 커졌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뒤에는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로가 만들어졌다. 이때의 육로교통은 조선시대 삼남대로나 영남대로와 비슷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15] 이 같은 추론을 입증하는 근거가 천안시 성환읍 국도 1호선 변의 '봉선 홍경사'다. 홍경사는 고려 현종(1009~1031)이 선친(왕욱, 안종)의 유훈을 받들어 1016년(고려 현종7)창건했다고 전한다. 왕욱[16]은 남도에서 개경으로 올라가는 길에 '홍경사 터가 교통의 요지(要地)이며 삼남의 요충(要衝)인데도 인가(人家)와 멀리 떨어졌고 갈대숲이 무성해서 강도(强盜)가 자주 출몰하여 교통의 안전과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 사찰 건립을 유언' 했다는 것이다. 현종은 선친의 뜻이 숭고함을 알고 성환읍 홍경리 일대에 '봉선(奉先) 홍경사'를 창건하고 광연통화원이라는 역원(驛院)까지 부설하여 백성을 위무하고 교통의 안정을 꾀했다. 봉선 홍경사의 창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홍경사 터가 고려 전기부터 삼남을 오가는 주요 교통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경사는 1176년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 난이 일어났을 때 개경으로 진격하는 북진로로도 사용되었다.[17] 공주 명학소는 지금의 대전시 유성구로 대전에서 홍경사까지 올라오려면 공주-천안-홍경사를 거쳐야 했다. 이 경로를 충청주도[18]라고 했는데, 충청주도는 전공주도와 함께 조선시대 삼남대로와 제주로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19]

12) 평택시, 단국대학교매장문화연구소, 『평택 원효대사 오도성지 학술조사보고서』, 매장문화연구소 학술조사총서 제40책, 2006
13) 당항성의 위치는 여러 학설이 존재하지만 이곳에서는 '화성시 서신면의 당은포'라는 전제하에서 서술했다.
14) 평택시, 단국대학교매장문화연구소, 위의 책 64쪽
15) 삼남대로는 삼국시대에도 교통로로서 역할 했을 것이다. 예컨대 5세기 후반 고구려의 남하정책으로 한성을 빼앗긴 백제의 문주왕이 웅진(공주)로 피난하며 갔던 경로도 한성-수원-평택-천안-공주였을 것이며, 개로왕이 웅진방면으로 도망가다가 잡힌 곳도 같은 경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명할 사료가 분명치 않아서 본문에서는 제외했다.
16) 고려 전기 왕족으로 이름은 왕욱이었다. 왕욱은 아들이 현종으로 즉위하면서 안종으로 추증되었다.
17) 『고려사』 세가, 명종 6년(1176) 1월
18) 한국도로공사, 『한국 도로사』, 1981
19) 김해규, 「평택지역의 옛길 원형」, 『삼남길 · 의주길 연구-경기옛길 삼남길 · 의주길 개발 및 활용 연구보고서』 1,

나. 조선시대 삼남대로의 형성

조선은 건국 후 중앙집권과 국방 강화를 위해 교통, 통신망을 정비했다. 태종, 세종 때는 도로의 건설과 관리, 도로 폭에 대한 규정을 법제화했고 도로의 크기를 대(大)·중(中)·소로 구분했으며 성종 때는 경국대전을 통해 확정했다. 평택지역의 도로들도 조선 초를 거치며 정비되었다. 고려 후기 개경에서 양광도, 전라도로 내려가던 청호역(진위면 청호리)-가천역(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소사원(평택시 소사1동) 경로는 역로(驛路)로 정비되었으며, 이방원(진위면 갈곶리)-장호원(진위면 신리)-백현원(지산동 동막마을)-대백치-갈원(칠원1동)-소사원(소사1동) 구간이 신설되었다.[20] 조선 전기 삼남대로 평택구간은 다음과 같다.

조선 전기 삼남대로 평택구간

①도로(道路)
오산시→이방원(진위면 갈곶1리)→백토고개(청호리 아래청이 부근)→가곡사거리→서낭고개→견산2리 산직말→장호원(진위면 신리)→독곡동 오리골→소백치→백현원(동막부근)→대백치→도일동 서낭→도일천→갈원(칠원1동)→재빼기(죽백3동)→배다리(비전2동)→소초원(소사원, 소사1동)→소사교→양성유천(유천1동)→안성천 아교→홍경원(성환읍 대홍리)→성환역
②역로(驛路) : 청호역(진위면 청호리)→가천역(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소사원→천안

조선 전기 삼남대로 견산리-마산리 구간(좌) 삼남대로 견산2리에서 가곡리 방향(우)

조선은 도로의 안전과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15~30리마다 역(驛)과 원(院)을 설치했다. 평택지역에서는 진위면 청호리에 '청호역' 이 설치되었고, 충청수영로가 지나는 팽성읍 추팔1리에도 화천역이 설치되었다. 보행자들을 위한 원(院)은 이방원, 장호원, 백현원, 갈원, 소초원과 문헌에만 기록된 팽성읍의 상원이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중앙집권과 국방강화 목적 외에 상업적 목적이 추가되었으며 저습지가 간척되면서 교통로의 변화도 나타났고, 읍치(邑治)의 이동과 군영(軍營)의 변화에 따라 신설된 대로(大路)들도 있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신경준의 『도로고』에는 전국의 대로(大路)를 6대로(大路)로 구

경기도·경기문화재단, 2014

20) 김종혁, 「조선후기의 대로」, 『역사비평』 69호, 역사비평사, 2004

분했다. 평택지역에는 제5로였던 '제주로'가 지났다. 제주로(濟州路)는 한양-과천-수원-진위(평택)-천안-공주-삼례-정읍-해남을 거쳐 제주도에 이르는 구간으로 '호남로', '해남로'라고도 불렀다.[21] 제주로 평택 구간은 위의 삼남대로 구간과 동일한데 안성천을 건너던 '아교'만큼은 '아주교'라고 표기하여 아교가 '아주교'의 줄임말임을 짐작하게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축적 지도인 정상기의 『동국지도』[22]는 전국의 도로를 7대로로 구분했다. 여기에서는 신경준이 5대로(제주로)라고 했던 것을 통영로(제5대로)와 제주로(제6대로)로 구분했다. 여기에서 통영로는 한양에서 전주까지는 제주로와 같이 가다가 삼례에서 분기하여 남원-함양-삼랑진-통영까지 연결되었던 도로다. 1770년(영조 46)에 왕명으로 편찬된 『증보문헌비고』에서는 아홉 개 간선로로 구분했다. 여기에서 한양에서 통영까지 연결된 제6로를 삼남대로, 진위현 갈원과 소사원에서 분기하여 충청도 보령의 충청수영까지 연결된 제8로를 충청수영로라고 표기했다. 1866년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는 전국을 10대로로 구분했지만 삼남대로와 충청수영로의 구간은 『증보문헌비고』와 동일하다.

충청수영로 평택구간

①도로

► 제1로 : 갈원(칠원1동)→통복점(통복동)→군문포(군문1동)→원봉나루(팽성읍 석봉2리)→신호리→객사리→탁천점(팽성읍 석근리)→둔포→요로원(아산시 음봉면)

► 제2로 : 소사원→안성천

아교→안궁리(성환읍)→맹간교(성환천)→신가리→추팔리→남산리→석근리→둔포

충청수영로가 두 개의 구간을 갖게 된 것은 도보여행자와 가마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의 편의가 각기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컨대 걸어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갈원에서 동삭동 서재와 통복점을 거쳐 군문포에서 배를 타고 안성천을 건너면 최단거리로 평택현(팽성읍)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가마를 탔을 경우에는 부득이 교량(橋梁)이 있는 소사1동 소사교와 성환읍 안궁리의 아교, 성환읍 신가리의 맹간교를 통과하여 평택현(팽성읍)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충청수영로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의 충청수영까지 간 뒤 지로(支路)로 비인현(충남 서천군 비인면)까지 연결되었다.[23]

다. 삼남대로 평택구간 노선변화와 견산리

평택지역은 조선 후기 간척으로 지형의 변화가 많았다. 그것은 진위천 중상류에 속하는 진위면 일대도 마찬가지다. 간척에 따른 지형의 변화는 삼남대로의 노선(路線)에도 영향을 주었다. 먼저 문헌을 통해 고증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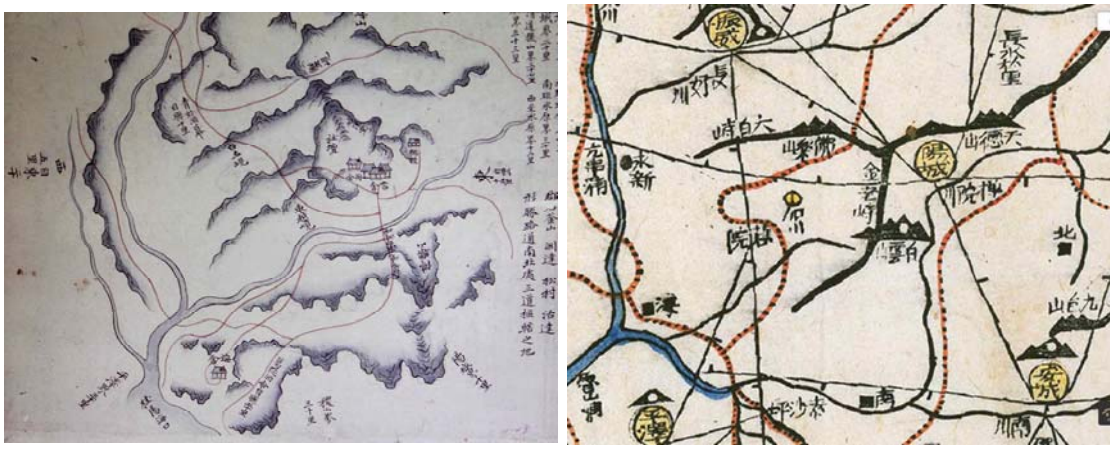
『여지도서』는 1757년(영조 33)~1765년(영조 41) 기간에 만들어진 지리서이다. 『여지도서』 수원부조에는 삼남대로의 역참으로 동화역과 청호역이 나타나며, 진위현 조에는 이방원, 장호원, 백현원, 갈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진위면 신리에 있었던 장호원의 존재다. 삼남대로는 진위면 견산2리에서 진위천을 건너 신리 장호원으로 연결되었고, 마산1리 오룡동에서

21) 한국도로공사, 『한국 도로사』, 1981년
22) 이찬,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1997
23) 한국도로공사, 앞의 책 129쪽

소백치를 넘어 백현원으로 이어졌다. 『여지도서』에 장호원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최소한 18세기 중엽까지 삼남대로 진위구간에서 노선(路線)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1843년,

1872년 지방도 진위현(좌), 18세기 후반 팔도군현도 진위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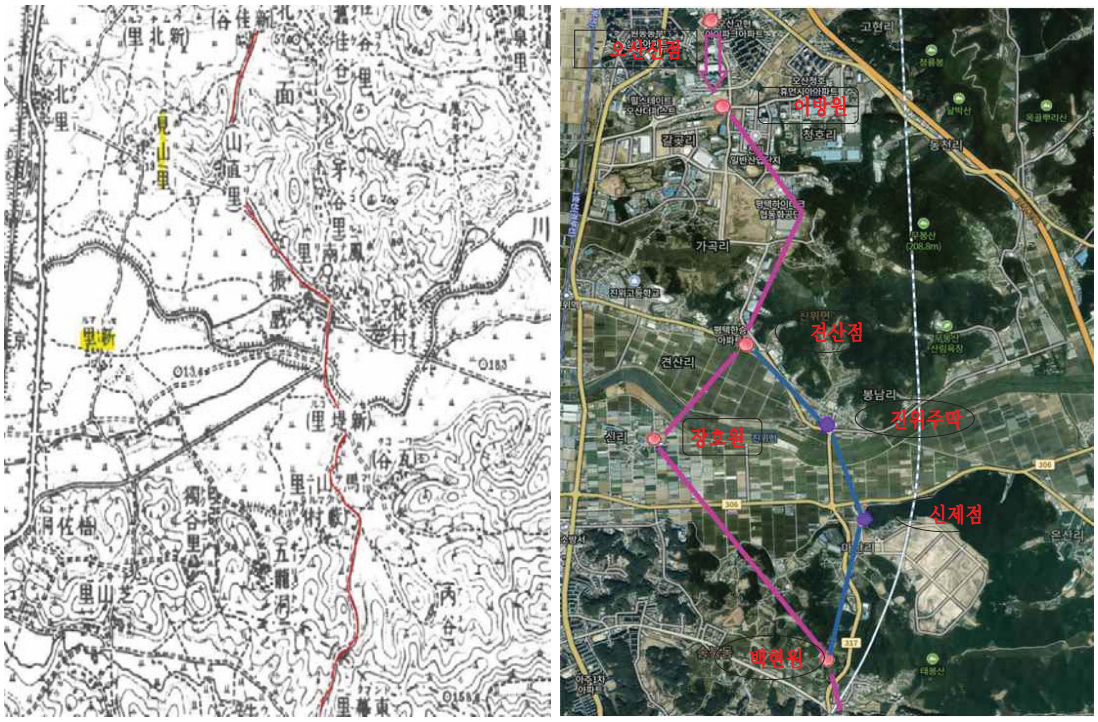
1891년, 1899년에 편찬된 『진위현 읍지』에서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당시 『진위현 읍지』에서는 “승람에는 실려 있으나 없어진지 오래되어 터만 남았다”[24]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19세기 초 역원제(驛院制)가 붕괴되고 상공업이 발달하여 인마(人馬)의 통행이 잦아지면서 사설 주막인 점막(店幕)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같은 책에는 ‘밖술막(견산점)’, 진위주막’, ‘신제점’, ‘우곡점’, ‘감주거리주막’과 같은 사설 점막(店幕)이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밖술막은 진위면 견산2리에 있었던 주막이고, 진위주막은 봉남리에 있었으며, 신제점은 마산3리 새둑거리에 있었다. 우곡점은 지산동 동막사거리의 주막이며, 감주거리주막은 대백치(큰흰치고개) 너머 도일동 입구에 있었다. 이같은 내용대로라면 삼남대로 진위구간의 변화는 1765~1843년 사이에 이뤄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지도가 18세기 중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동지도』이다.



18세기 중엽 해동지도 진위현(좌), 19세기 중엽의 대동여지도(우)

24) 『진위현 읍지』, 도광23년 정월(1843)

『해동지도』는 18세기 중엽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위 지도를 살펴보면 18세기 중엽 삼남대로는 견산2리 차월령(동월령으로도 알려짐)을 넘어 진위현 관아(官衙)가 있었던 봉남리를 경유하도록 되었다. 또 이전에는 없었던 가곡사거리에서 가곡1리-봉남3리 아곡을 거쳐 봉남1리로 넘어오는 우회로도 있었음을 알게 한다. 봉남1리에서 합쳐진 삼남대로는 진위목교로 진위천(장호천)을 건너 마산3리 신제점을 지나 소백치와 대백치를 넘었다.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여지도서』와 『해동지도』의 내용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두 문헌이 작성되던 시기에 삼남대로의 경로가 바뀌었는데, 『여지도서』는 이전의 도로망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고 『해동지도』는 바뀐 도로망을 근거로 작성됐다고 해석된다. 1872년 『지방도』와 19세기 중반에 작성된 『대동여지도』에는 18세기 중엽 이후 바뀐 도로망을 잘 보여준다. 18세기 후반에 오면 삼남대로는 견산2리에서 봉남리로 방향을 바꾼 뒤 진위목교를 건너 소백치와 대백치를 넘었다.



1922년 지도의 삼남대로 구간(좌), 2021년 현재 삼남대로 진위지역 추정구간(우)

1914년에 조사되어 1922년에 작성된 1:5만 근대 지도에서도 삼남대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당시만 해도 1번 국도(신작로)라는 근대도로가 완성되기 전이어서 삼남대로는 진위면 사람들이 외부로 통하는 중요한 도로였다.

1922년 1:5만 근대 지도는 당시까지 남아 있던 삼남대로 구간을 표시한 것이다. 당시 삼남대로는 견산2리에서 봉남리-신제점-마산2리 수촌을 지나 소백치를 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측 지도는 2021년 항공지도에 삼남대로 진위구간의 원형과 18세기 후반 변형된 내용을 표기하였다. 위 지도에서 보라색 선이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구간이라면, 청색 선은 19세기 전후 바뀐 구간이다. 『도도로키의 삼남대로 답사기』[25]를 썼던 일본인 지리학자 도도로키 히로시는 김정호의 『대동

25) 도도로키 히로시, 『도도로키의 삼남대로 답사기』, (주)성지문화사, 2002

지지』를 토대로 삼남대로 전 구간을 답사했다. 도도로키는 삼남대로 진위구간이 오산시 신원동 오산신점에서 진위현의 읍치(邑治) 봉남리 방향으로 곧장 내려간다고 말하고 있다[26]. 도도로키 히로시가 제시한 길을 따라 내려가면 진위면 청호리와 갈곶리 사이로 난 길을 지나가게 된다. 이 지점에 ‘이방원(李方院)’이 있었다. 1843년 ‘진위현 읍지’에는 이방원에서 진위현 읍치(邑治)까지 10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곳은 갈곶천의 상류지점이어서 하천을 건너기가 용이했다.

삼남대로는 이방원에서 백토고개와 차월령을 넘어 견산리 방향으로 내려갔다. 백토고개는 진위일반산업단지 동쪽이고, 차월령은 견산2리 북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일명 서낭재)이므로 대략의 경로를 짐작할 수 있다.

서낭재를 넘어오면 견산점이다. 견산점은 밖술막(外酒幕)이라고도 했다[27]. 19세기 후반 삼남대로는 견산점에서 좌측으로 돌아 진위면 봉남리(19세기 지명으로 읍내리)로 들어갔다. 봉남리에는 진위읍내장과 진위주막이 있었다. 진위주막은 진위여객 남쪽 골목(봉남4길)에 있었다. 지금도 주민들은 이곳을 ‘주막거리’라고 부른다.

삼남대로는 봉남1리에서 진위목교(봉남교)를 건넜다. 혹자는 진위향교 앞의 세월교를 건넜던 것으로 주장하지만 세월교를 건너가는 길은 진위면 은산리나 용인 남사면, 안성시 양성면과 원곡면 방면으로 나가는 길이었다. 진위목교를 건너면 진위면 마산2리 새둑거리다. 새둑거리는 조선후기 간척과정에서 ‘새로 제언(堤堰)을 쌓았기 때문’에 유래된 지명이다. 그래서 한자로는 ‘신제(新堤)’라고 표기했고 자연지명으로는 ‘새둑거리’, 마을지명으로는 ‘신제리’라고 했다. 신제리는 1914년 행정구역개편 과정에서 마산3리와 통합되었다.

19세기 후반에는 신제리에 ‘신제점’이라는 주막이 있었다. 현재도 신제점에는 민가(民家) 서너 집과 통막걸리를 파는 주막 두 집이 남아 있다. 삼남대로는 신제점에서 마산2리 수촌마을을 지나 소백치를 넘었다. 소백치 반대편 중턱에는 백현원이 있었고 그 아래 우곡사거리에는 우곡점이 있었다.

다. 삼남대로에 대한 기억과 근대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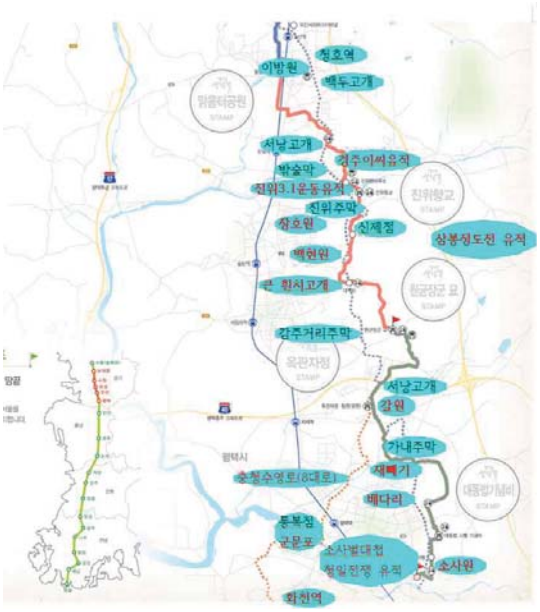
조선 후기 견산2리에는 견삼점이라는 점막이 있었다. 견산점은 통상 ‘밖술막’으로 불렀다. 진위관아의 바깥쪽에 있는 주막이라는 뜻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이전에도 밖술막은 진위천 건너 신리 장호원으로 넘어가기 전 여행자들의 쉼터였을 것이다. 18세기 중반~19세기 장호들과 건넌들이 간척되면서 장호원이 폐원(閉院)되고 봉남리-새둑거리-소백치를 넘는 새 길이 생기면서 삼남대로는 밖술막에서 좌회전하여 봉남리(읍내리)로 들어갔다.

교통의 요지에 주막을 운영하려면 좋은 우물과 좋은 술이 있어야 한다. 밖술막이 있었던 견산2리 산직말에는 윗우물, 아래우물, 관자우물 등 세 개의 우물이 있었다.[28] 삼남대로는 한승아파트 정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 아파트 담벼락 옆으로 난 골목길로 우회전하도록 되었다. 그 우회전하는 지점에 윗우물이 있었다. 윗우물을 지나 마을회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동쪽으로 작은 어린이놀이터가 보이고 놀이터 남쪽에는 작은 정자가 있다. 이 자리가 견산점 다시 말해서 밖술막이었다. 밖술막 앞은 지금도 주막거리로 부른다.

---

26) 도도로키 히로시, 위의 책 59쪽
27) 도도로키 히로시, 위의 책 61쪽
28) 김해규, 『평택사람들의 길』, 평택문화원, 2019

마을주민 김간난(가명, 여, 1925년생)[29]은 '시할머니가 주막집 주모였다' 고 말했다. 하지만 주막을 운영했다는 말만 들었지 본 적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견산리 밖술막은 최소한 해방 전에 없어졌다는 말이 되지만 마을주민 김영회(남, 1945년생)는 어릴 때 할아버지 술심부름을 다녔다고 하므로 실제로는 1950년대 중후반까지는 존재했다고 봐야 한다. 동네사람들에게 주막은 카페이며 유흥의 장소였다. 넓은 마당을 갖추고 있어 정월이면 마을사람들이 윷놀이를 하며 술추렴을 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때는 후퇴하던 국군들이나 밀려 올라가던 인민군들도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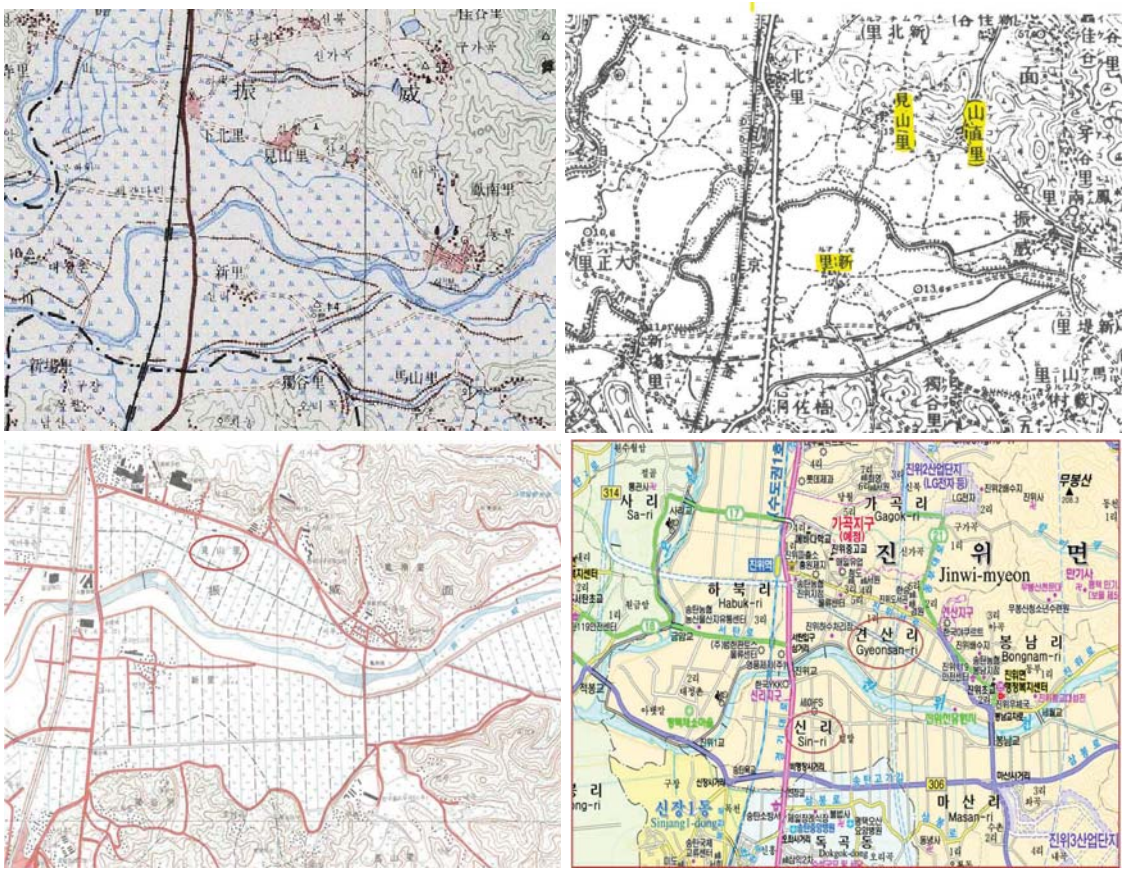
경기문화재단 『삼남길』 복원사업의 삼남길 평택 구간[30]

김간난(여, 1925년생)은 오산장을 갈 때 삼남대로를 걸어 다녔다고 말했다. 견산리에서 오산장까지는 10리였는데 가곡사거리 개실주막을 지나서 진위일반산업단지 방향으로 걷다가 백토고개(백두고개)를 넘어가면 오산이 나왔다. 이 길은 과거 삼남대로와 동일한 국간이다. 청호리를 지나 고현리 근방에는 고분다리주막도 있었다. 길목마다 주막이 있었지만 여자들은 좀처럼 주막집에서 쉬어가지 않았다. 남자들은 오산장에 소 팔러 갈 때 많이 오갔다. 평택장에도 우시장이 있었지만 너무 멀었고 서정리장도 한 때 우시장을 운영했지만 규모가 작아서 잘 가지 않았다.

견산2리 노인회장 김영회(남, 1945년생)[31]도 삼남길은 서낭재로 넘어 다녔다고 말했다. 삼남대로는 서낭재를 넘어 마을 쪽으로 지나갔고 한승아파트 담장 모퉁이에 샘터가 있었는데 오산을 오가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쉬어갔다고 했다. 샘터에서 마을회관 방향으로 내려오면 주막거리가 있었고, 아랫거리 쪽으로 좀 더 내려오면 건설인부동산이 있는데 그곳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다. 느티나무는 건설인부동산 건물주가 건물을 지으면서 베어버렸다. 김영회는 마을의 상징과도 같았는데 베어버렸다며 속상해했다. 견산리 주막은 주막거리 위쪽 어린이놀이터의 정자가 있는 자리에

29) 김간난(가명, 여, 1925년생), 견산2리 거주, 2014년 1월 17일 견산2리 노인정에서 인터뷰
30) 2013년 경기문화재단 삼남길 복원사업에서 작성한 평택 구간 지도를 2021년 김해규가 수정 보완하고 재작성한 것이다.
31) 김영회(남, 1945년생), 견산2리 거주, 견산2리 노인회장, 2021년 9월 14일 인터뷰

있었다. 김영회는 어릴 때 할아버지 술심부름을 가면 과부처럼 여겨지는 할머니가 막걸리를 팔았다고 했다. 하지만 마을주민 김문규(남, 1940년생)는 어릴 때에도 주막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혼란스럽다. 1911년경 편찬된 『조선지지자료』에도 사가리주막(하북리)과 개실주막(가곡1리 입구)는 나오지만 견산점(밖술막)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은 조선후기에 등장하는 밖술막은 근대 이후 문을 닫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후의 주막들은 마을 내 막걸리집 정도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막집은 문을 닫았는데도 마을주민들은 오랫동안 그 집을 주막집이라고 불렀다. 지금도 토박이들은 주막거리, 주막집으로 통용하고 있었다. 서낭재 윗우물 위쪽에는 서낭이 있었다. 서낭은 아카시나무 두 그루와 벚나무였다. 나무 아래에는 돌무더기가 수북했다. 마을사람들이 정월에 섬기기도 했는데 한승아파트를 지을 때 베어버렸다.



1963년 지도(좌), 1922년 지도(우), 1987년 지도(아래), 2020년 평택시 지도(아래)

김영회는 마을 동쪽으로 지나는 동부대로는 2002년 경 평택시에서 삼남로 복원사업을 한다며 새로 냈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 김문규(남, 1940년생)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새로 낸 도로라고 주장했다. 2006년 인터뷰한 견산1리 이기찬(남, 1940년생)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예로부터 서낭고개에는 난세에 애기장수가 나와서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다는 설화가 전해왔는데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맥을 끊으려고 일부러 길을 냈다는 것이다.[32] 실제로 2002년 전후 삼남로 복원사업으로 동부대로를 내기 전 마을 동쪽에는 비포장도로가 있었으므로 김문규나 이기찬의 주장이 맞을 것이다. 1922년 일제가 작성한 근대지도에도 동부대로는 존재했다. 그렇다면 이 도로

32)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 3, 평택문화원, 2008

는 1917년 이전 일제가 제1차 치도사업을 하면서 신설했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당시에는 신작로가 아니었고 마차가 지날 정도의 좁은 비포장 길이었다.

견산2리 삼남대로와 진위서로 갈림길, 삼남대로 견산점(밖술막 터), 국도 1호선 영풍제지 부근, 동부대로 견산리-봉남리 구간

마을 남쪽을 지나는 도로는 21호선 시도로(진위서로)다. 21호선 시도로는 진위면사무소에서 출발해서 하북리 야막고가교까지 4.7km 길이다. 이 도로는 1905년 1월 1일 진위역이 설치되면서 1910년대 가설한 도로망을 연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1922년 근대 지도에는 도로는 표시되었지만 점선으로 연결되어 비포장도로라는 것을 알게 한다. 우측 지도를 보면 이 같은 상황은 1970년도에도 도로 폭은 넓혀졌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주민 김문규(남, 1940년생)도 어릴 적부터 있었던 것을 새마을운동 뒤에 넓혀지고 포장되었다고 말했다. 1922년 지도에는 견산1리에서 장호들과 진위천을 건너 신리와 독곡동 오리골로 내려가는 직선도로도 존재했음을 알게 한다. 이 도로는 견산1리 뒤쪽 견산리성을 넘어 가곡1리 입구 가곡삼거리의 개실주막과 연결되어 있어 삼남대로가 처음에는 이 구간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위 1987년에 편집된 1:50,000지도는 1997년 수정 인쇄되었다. 당시 견산리 일대의 동부대로와 진위서로는 2차선으로 정비되어 포장되었다. 견산2리를 가로질렀던 옛 삼남대로도 포장되어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평택시 행정지도에는 4차선으로 확장된 동부대로의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동부대로가 확장되면서 견산1리는 여전히 국도 1호선을 이용하여 오산이나 송탄을 오갔지만 견산2리의 경우에는 오산을 갈 때 이 길을 이용했다. 진위면 봉남리에서 평택시가지까지는 2002년 삼남로가 개통되면서 훨씬 빠르고 편리해졌다. 삼남로는 도일동에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송탄I.C와도 연결되었다.

행정사무나 등하교를 할 때는 진위면의 중심 봉남리를 오갔다. 봉남리는 견산1리에서는 2km, 견산2리에서는 1.2km 떨어졌다. 봉남1리에는 진위면행정복지센터, 진위소방서가 있고, 1899년 개교한 진위초등학교가 있으며, 매월 1일과 6일 등 5일 간격으로 진위읍내장이 개장했다.

견산리 주민들의 철도이용은 주로 오산역을 이용했다. 견산리에서 오산역까지는 5km였고 남쪽의 서정리역까지는 6km였다. 2006년 6월에는 지하철 1호선 진위역이 개통되었다. 견산1리에서 진위역까지는 약 900m이고, 견산2리에서는 1.6km로 매우 가까운 거리다. 진위역이 개통되면서 가까운 오산이나 송탄, 서정리, 평택은 물론이고 서울에 갈 때도 열차보다는 전철을 많이 이용한다.

4) 지명유래

지역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견산리	자연마을	견산리	조선후기에는 단일마을이었다가 앞거리(산직촌)의 주막거리가 커지면서 견산리(벌미)와 산직리(앞거리)로 나눠졌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을 하면서 견산리와 산직리를 통합하여 ‘견산리’라고 했다. 1990년대 이후 견산1, 2리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1리~6리까지 6개 마을로 분동(分洞)되었다.
		벌미	견산1리의 자연지명. 볼미, 벌말이라고도 부른다. 장호들을 바라보이는 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유래되었다.
		산직말	견산2리의 자연지명. 산직리, 산직촌이라고도 한다.
		산거리 (앞거리)	견산2리의 자연지명. 조선후기 삼남대로가 지나고 주막거리가 형성되었는데 그 앞쪽에 삼거리가 있어 유래되었다.
		경원아파트	견산2리에 속했다. 1986년 1월 4개 동 160세대로 분양되었다.
		청도아파트	1992년 1월 3개 동 214세대로 분양되었다. 견산3리로 분동되었다.
		서원아파트	1991년 12월 견산1리에 3개동 134세대로 분양된 아파트다. 견산4리로 분동(分洞)되었다.
		견산5리	견산1리 남쪽에 건설된 빌라들로 서울아트빌라, 대산빌라, 노블빌리지가 있다.
		한승아파트	2000년 9월 견산2리 북쪽에 분양된 606세대의 아파트다. 견산6리로 분동(分洞)되었다.
	들 · 골짜기 · 공동시설	장호들	봉남리 서쪽 끝에서 견산2리 앞쪽으로 형성된 들판이다. 진위면의 가장 큰 곡창지대로 장호천(진위천)변에 형성된 들판에서 유래되었다.
		장안들	견산1리 서쪽에 펼쳐진 들판이름이다. 장아들이라고도 부른다.
		견산리 마을숲	견산1리 남쪽 도로 건너편에 있었던 마을숲이다. 1970년대 경지정리사업과 주택건설 등으로 베어졌다.

지역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성골	견산1리 뒤 견산리성 북벽 안쪽의 골짜기이다.
		토교평	1911년경 편찬된 『조선지지자료』에 나오는 지명이다. '흙다리들' 이라고도 부른다. 견산1리에서 신리 사이 진위천 변의 들판으로 추정된다.
		견산리 전평	『광무양안』에 나오는 지명으로 견산1리 앞들을 말한다.
		관자우물	㈜hy(구 한국야쿠르트) 안에 있었던 견산2리 공동우물이다. 공장을 확장하면서 없어졌다.
		윗우물	견산2리의 공동우물이다. 삼남대로 변 견산점 부근에 있었고 윗마을 주민들의 식수터였지만 한승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없어졌다.
		아래우물	견산2리 경원아파트 입구 쪽에 있었다. 아랫말 사람들의 식수였다.
		윗우물	견산1리 윗말에 있던 우물이다. 지금도 정월 대보름 전에 우물고사를 지낸다.
		중앙우물	견산1리 가운데에 있었던 우물이다. 메워졌다.
		아래우물	큰 길 옆에 있던 우물이다. 메워졌다.
		태봉터	견산1리 동쪽에 있는 지명이다. 옛날 활터였다고 전한다.
	산 · 하천 · 민속 · 문화재	진위천	용인에서 발원하여 오성면 창내리에서 안성천과 합류하여 아산만으로 흐르는 하천이다. 조선시대에는 장호천이라고 했으며,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진위천' 이라고 했다.
		삼남대로	조선시대 견산2리를 지나 한양까지 연결되었던 대로(大路)다. 춘향전에도 언급되어 '춘향이길' 이라고도 부른다. 일제강점기 일제가 마을 동쪽에서 서낭재를 넘어가는 신작로를 새로 건설했다. 이것을 2006년 평택시가 확포장하여 '삼남길' 이라고 명명했고, 현재는 도로명에 따라 '동부대로' 라고 부른다.
		주막거리 (밖술막 터)	조선 후기 삼남대로 견산점 또는 밖술막이 있어 유래되었다. 현재 위치는 견산2리 어린이공원 내 정자가 서 있는 위치다.
		견산리 마을제당 터	견산4리 서원아파트 자리에 있었던 견산1리 마을제당. 참나무 당목과 당숲이 조성되었지만 1990년경 아파트를 지으면서 없앴다.
		산직말 서낭	삼남대로 견산2리 서낭고개 정상부에 있었던 서낭. 아카시아나무 두 그루와 벚나무가 있었지만 1999년

지역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한승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베어졌다.
		산직말 느티나무	견산2리 마을 입구에 있었던 느티나무다. 지금은 베어지고 없다.
		견산1리 줄다리기	음력 정월 대보름 견산1리에서 행해졌던 공동체놀이다. 1980년대 초 중단되었다.
		평택시립 진위도서관	2017년 진위면 진위서로 137에 개관했다.
		견산리성	견산1리 서북쪽에서 동북쪽까지 연결된 산성으로 ㄷ자 형태로 축성된 토성(土城)이다.
		고종민 송덕비	견산2리 동쪽 동부대로 길옆에 세운 고종민의 송덕비다. 1940년(소화15)에 건립했다.
		사형장	진위아이다움유치원 뒤쪽 움푹 들어간 골짜기다. 일제강점기 사형장이 있었다고 전한다. 옛날에는 여우도 많이 나오고 해서 마을주민들이 무서워했다.
		공동묘지	견산1리 뒤쪽 견산리성 성벽을 따라 견산2리 방향으로 가는 중간쯤에 있다. 현재도 20기 내외의 묘가 산재한다.
		진위공원	견산1리 견산리성을 따라 만든 근린공원이다.
		견산공원	견산2리 서쪽에 만든 근린공원이다.

3. 역사와 마을

1) 행정 구역의 변화

견산리는 백제 때 연달부곡, 금산현 지역이었다. 5세기 후반 고구려가 지배하면서 부산현이 되었고, 757년(신라 경덕왕 16년) 진위현을 설치하면서 조선 말까지 진위현에 속했다.[33] 조선시대에는 면리제(面里制) 실시에 따라 진위현 성북면이었는데 18세기 성북면이 일북면과 이북면으로 나눠지면서 이북면 견산리가 되었다.

1789년 편찬된 『호구총수』에 이북면에는 견산리 한 마을뿐이며 견산2리를 지칭하는 산직촌이나 산직말 같은 마을지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당시 이북면의 자연마을은 가야곡리, 후북리, 하북리, 견산리 등 4개마을이 있었고 전체 호(戶)는 157, 구(口)는 548명이었다. 호구총수』가 작성될 당시 견산리의 인구는 대략 40~50호, 120~30명 내외로 추정된다. 이 같은 마을 규모는 1891년 『진위현읍지』나 1899년 『진위군읍지』에서도 비슷했다.

1911년경 편찬된 『조선지지자료』에는 이북면에 후북리, 하북리, 견산리, 신리, 신가곡리, 구가곡리, 신북리, 산거리와 같은 마을이 있었다. 후북리는 가곡리 후북마을이며 ‘성뒤’라는 자연지명으로도 불렀다. 하북리는 ‘아래성뒤’였으며, 견산리는 견산1리 볼미(벌미), 신가곡리는 가곡1리 개실 또는 가오실, 구가곡리는 가곡2리 안개실, 신북리는 가곡4리 신북마을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마을지명이 산거리다. 산거리는 앞거리라고도 부르는데 견산2리 산직촌(말)의 다른 이

33) 『고려사』 제1편

름이다. 본래는 앞거리라고 부르다가 조선후기 산직촌으로 지정되면서 그 이후부터 산직촌, 산직말 등으로 부른 것 같다.

1891년 진위현 지도(좌), 1922년 1:5만 지도(우)

1914년 행정구역개편 자료인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에는 산직리, 견산리, 군내면 만촌 일부가 통폐합되어 '견산리'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을 보면 견산리라는 지명은 견산1리 견산(볼미, 벌미)에서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된 마을에 '산직리'가 있는데 '산거리(앞거리)'는 없다. 1891년 『진위현 지도』, 1914년 행정구역개편 내용을 반영한 1922년 근대지도에도 산거리나 앞거리는 없지만 '산직리'는 존재한다. 산거리는 조선후기 삼남대로 구간이 기존의 견산2리-신리 장호원 구간에서 견산2리-봉남리 경로로 바뀌면서 삼거리가 형성되어 '삼거리'라고 부르던 것이 변음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앞거리도 삼남대로 앞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견산2리 노인회장 김영회(남, 1945년생)[34]도 산직촌보다 '앞거리'로 더 많이 부른다고 했다.

34) 김영회(남, 1945년생), 견산2리 거주, 견산2리 노인회장, 2021년 9월 14일 인터뷰

2) 자연마을

(1) 견산리

견산리 일대

견산리는 견산리성 남쪽에 형성된 마을이다. 조선시대 견산2리 동쪽으로는 삼남대로가 지났고 마을 남쪽으로는 진위천이 흘렀다. 마을과 진위천 사이에는 장호들이 펼쳐졌다. 동쪽으로는 진위면의 중심 봉남1리가 있다. 봉남리는 조선시대 진위현 읍내리로 관아(官衙)와 객사(客舍), 향교(鄕校)가 있었다. 동쪽으로는 하북1, 4리와 인접했다. 하북리는 견산리성의 아래쪽에 위치하여 ‘아랫성뒤’ 라고 불렀다. 근대 이후 진위역이 설치되었고 국도 1호선이 통과하면서 교통의 요지로 부상하여 해방 전후에는 하북장과 상업이 발달했으며 경찰지서도 설치되었다. 북쪽은 가곡3, 4리다. 이 마을들은 견산리성의 뒤쪽에 위치하여 후북 또는 뒷성지라고 불렀다. 남쪽으로는 진위천 건너 신리가 있다.

견산리라는 지명은 견산1리 볼미(벌미)에서 왔다. 볼미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견산(見山)이다. ‘견산리’ 라는 지명은 1789년 『호구총수』에서부터 나온다. 『호구총수』에는 진위면 이북면 지역에 4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견산리다. 『호구총수』가 편찬되었던 18세기 후반에는 견산2리 산직촌이라는 독립된 마을이 없었다. 다만 1911년 『조선지지자료』에 견산2리를 ‘산거리’ 또는 ‘앞거리’로 표기한 것을 볼 때 삼남대로가 기존의 견산리-신리 구간에서 견산리-봉남리 구간으로 바뀌면서 삼거리가 형성되었고 견산점(밖술막)이라는 주막도 발달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에는 견산리와 산직촌(앞거리)이 통폐합되어 ‘견산리’ 가 되었다. 통

폐합 당시 기존의 견산리에 산직리가 따로 있었고 봉남리에 속한 만촌 일부가 통합된 것으로 봐서 견산2리가 독립된 마을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견산리는 1990년 전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1986년 1월 견산2리 서쪽에 경원아파트 160세대가 분양되고 1991년 12월에는 견산1리에 서원아파트 134세대, 이듬 해 1월에는 청도아파트 214세대, 1993년 서울아트빌라 128세대가 분양되었기 때문이다. 또 2000년 9월에는 견산2리 서낭고개에 한승아파트 606세대가 입주하고 견산1리 길 건너편으로 대산빌라, 노블빌리지를 비롯한 빌라들이 들어서면서 견산리의 인구는 급증했다. 이에 따라 청도아파트가 견산3리, 서원아파트가 견산4리, 서울아트빌라가 견산5리로 분동되었으며, 2000년 분양된 한승아파트도 견산6리가 되었다. 현재 견산리에는 모두 6개의 자연마을이 있다. 전체 인구[35]도 급증하여 2021년 7월 말 현재 1,344세대 2,666명이 거주한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의 수가 많다. 구분하자면 토착민 중에는 농업인구가 많은 반면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는 인구는 회사원이 많다. 농민들은 마을 앞 장호들이나 마을 뒤편, 신리 주변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 예로부터 장호들은 전형적인 논농사, 밭농사지대였다. 하지만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곤란을 겪다가 은산5리 월경 부근에 장안보, 신리 부근에 신리보를 축조하여 농업용수를 공급받으면서 조금 나아졌고, 1977년 이래 경지정리가 이뤄지고 용인 이동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으면서 농업생산력이 높은 수리안전답으로 바뀌었다.

① 견산1리 벌미

견산1리 벌미와 견산5리 서울아트빌라 전경

견산1리는 볼미 또는 벌미다. 벌판을 마주하고 마을이 형성되어 유래되었다. 벌미는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80호가 넘는 큰 마을이었다.[36] 양성 이씨가 대성(大姓)이었고 공동체의식도 강했으며 민속문화도 발달했다. 그러다가 농촌고령화와 이농현상, 1990년대 서원아파트, 청도아파트와 빌라가 건축되면서 민가들이 철거되어 2006년경에는 60세대로 줄었고 지금은 토박이들만 40~50호(戶)가 되었다.[37]

1990년대 이후 토박이 인구는 줄었지만 세대 수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서원아파트와 청도아파

35) 진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한 주민등록 인구다.
36)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 3, 평택문화원, 2008
37) 김광수(남, 1951년생), 진위면 견산1리 이장, 2021년 9월 14일 인터뷰

트가 견산3, 4리로 분동(分洞)된 뒤에도 진위서로 건너편에 빌라와 단독주택,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2021년 7월 말 현재 221세대 486명이 거주한다. 세대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빌라나 상가주택의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정체성이나 정주의식, 공동체의식은 약한 편이다. 그래서 마을 운영은 토박이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직업 별로도 토박이들은 농사를 짓거나 일부가 회사원인데 반해, 빌라나 상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회사원이거나 상공업 종사자들이다.

견산1리 김광수(남, 1951년생) 이장은 외부 이주민들의 공동체성 결여를 매우 염려한다.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마을주민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며 견산리를 베드타운삼아 직장을 오갈 뿐이라는 것이다. 인구가 증가의 영향으로 상업이 발달하는 것도 아니다. 옛날에는 이웃끼리 나눠 먹고 만나면 인사라도 했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얼굴도 모른 채 지낸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마을 임원을 선출하고 한 해 동안의 살림을 보고하는 연말 대동회(주민총회)를 개최해도 토박이들만 30~40명 참여할 뿐 외부 유입인구들은 거의 오지 않는다. 그래서 토박이들은 개발에 회의적이었다. 마을발전이나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견산1리는 과거에는 두레도 발달했고 연반계를 조직하여 상례에 대비했다. 지금도 60대 이하는 향우회를 조직하여 상례를 서로 돕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다. 정월에는 당제와 정제(우물고사), 줄다리기도 했다. 아이들은 정월대보름이면 쥐불을 놓고 거북놀이도 했다. 공동체의식도 단단하고 서로 나누고 배려하며 넉넉하게 살았던 마을이 이주민들이 유입되고 노령화가 촉진되면서 당제와 줄다리기는 중단되고 이제는 우물고사만 겨우 명맥을 잇고 있다.

② 견산2리 산직촌과 경원아파트

견산2리의 자연 지명은 산직촌이다. 마을은 산직촌(앞거리)과 경원아파트로 구성되었다. 본래 산직촌은 삼남대로 변에 위치해서 주막이 발달했다. 19세기 읍지(邑誌)에도 견산점 또는 밖술막이라는 주막이 언급된다. 1789년에 편찬된 『호구총수』에는 ‘산직촌’이나 ‘앞거리’ 같은 마을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1911년에 편찬된 『조선지지자료』와 1914년 작성되어 1922년에 간행된 1:5만 근대지도에 산직리 또는 사가리(앞거리)라는 지명이 나타난다. 이것은 견산2리가 19세기까지만 해도 주막거리였다가 19세기 말 마을로 발전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산직촌(산직리)는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견산리와 통폐합되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견산2리나 산직촌보다는 앞거리라는 자연 지명으로 더 많이 부른다.

견산2리도 1970년대 공업화의 영향을 받았다. 1978년 마을 동쪽에 ㈜hy(구 한국야쿠르트), 나드리화장품 평택공장 기술연구소, 1974년 견산1리 서쪽에 매일유업 중부공장, 서낭재 정상부근에 신한로지스, 고려포장 같은 공장들이 들어서고, 마을 서쪽에 경원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경관이 크게 바뀌고 주민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견산2리 산직촌과 경원아파트(북쪽의 한승아파트 제외)

견산리의 마을 규모는 1950년대 전후까지만 해도 20~30호 수준이었다. 토박이 김문규(남, 1940년생)도 어릴 때 30호가 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다가 공장들이 들어서고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생기면서 70세대로 크게 증가했지만 오히려 토박이는 줄었다고 말한다. 2021년 7월 말 현재 견산2리의 인구는 178세대 360명이다. 성씨는 경주 김씨와 남양 홍씨가 많았다. 외부 유입인구는 회사원이 많지만 토박이들은 여전히 농사를 짓는다. 농사짓는 토박이들 대부분 고령인 것도 특징이다.

견산2리는 서낭제를 지냈다. 서낭제는 마을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치성을 드리고 소원을 비는 형태였다. 마을에서 큰 행사를 할 때도 서낭에게 먼저 기원했다. 30, 40년 전에는 집집마다 가신(家神)도 섬겼다. 기록에서만 볼 수 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성공회 산직말교회도 설립되었다. 하지만 서낭은 한승아파트 건설로 베어지고 공동체 활동도 모두 중단되었으며 산직말교회의 존재는 기억에서조차 없다.

③ 견산3리~6리

견산3리는 청도아파트다. 청도아파트는 1992년 1월 입주했다. 전체 214세대인데 당시 마을주민은 몇 집 안 되었고 홍원제지,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에 다니는 회사원이 많았다. 출신 지역도 다양했다. 손예섬(여, 1957년생) 이장도 인천이 고향인데 남편 직장 따라서 청도아파트에 입주했다고 한다. 분양 초기에는 한국야쿠르트 다니는 회사원들이 인기가 많았다. 한국야쿠르트에서는 화장품도 생산해서 싼값에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청도아파트는 195세대 424명이 거주한다. 아파트가 낡아서 초기 입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람이 많고 현재 거주자들 중에는 세입자가 많다.

견산4리는 서원아파트다. 서원아파트는 1991년 12월 134세대가 입주했다. 서원아파트도 초기 입주자들은 회사원들이 많았다. 김요숙(여, 1962년생) 이장은 서울에서 살다가 분양 초기에 입주

하여 30여 년을 거주했다. 이곳으로 이사한 이유를 물었더니 당시 분양가가 매우 쌌고 주변 환경이 깨끗했으며 구로공단까지 갈 수 있는 직통버스가 운행되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정옥희(여, 1941년생)도 화성시 정남면에 살다가 2001년에 입주했으며, 박숙자(여, 1941년생)도 2013년 경북 영주에서 이거했다고 말했다. 아파트가 낡아지면서 초기 입주자들 중에는 떠난 사람이 많고 지금은 본래 주인들보다 세입자들이 많다. 근래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거주한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의견 결집이 쉽지 않고 마을 관련 사안 처리하기가 어렵다.

청도아파트와 서원아파트(좌), 한승아파트(우)

견산5리는 서울아트빌라다. 서울아트빌라는 1993년 128세대가 분양되었다. 주민들은 주변의 공장에 다니는 회사원들이나 상인들이 많았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같은 마을조직은 운영되지만 마을회관은 없다. 노인회장 윤수천(남, 1950년생)은 건물이 오래되고 집값이 싸다 보니 노령인구가 많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많다고 한다. 견산1리 주민들도 저소득층 주민들이 월세로 입주하여 잠시 거주하다가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견산6리는 한승아파트다. 한승아파트는 2000년 606세대가 입주했다. 주민들은 견산리를 비롯해서 주변 마을 사람들도 있었고 회사원도 많았다. 한국야쿠르트나 매일유업, 고려포장과 같은 기업들과 가깝고 진위일반산업단지나 오산과도 가까워서 아파트 몇 채를 매입하여 회사 기숙사로 사용되기도 했다. 마을조직은 이장, 노인회장은 동일하지만 아파트라는 특성 때문에 ‘동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마을지도자도 없고 청년회나 부녀회도 있었지만 지금은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4. 경제생활

1) 농업

(1) 문헌으로 살펴본 진위현의 경지면적

견산리 장호들과 장안들

견산리는 견산리성 남쪽의 마을이다. 뒤로는 구릉이고 앞으로는 진위천이 흐르며 마을과 하천 사이에는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었다. 견산리의 농경은 구릉지대에서 밭농사를 짓다가 조선 후기 진위천 변의 충적지가 간척되면서 점차 평야 지대로 내려와 벼농사 위주의 농경으로 전환했다.

『세종실록지리지』 진위현 조에는 진위현의 간전(墾田)[38]이 2,841결(結)이며 논과 밭이 반반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토지 1결(結)은 세종 26년(1444)에 개정된 전분6등법[39]에 따르면 1등전 기준 주척 477.5척(9,859.7㎡)이었다. 또 땅이 메마르지만 토의(土宜), 다시 말해서 토질이 사람이 살거나 곡식이나 과실을 심는데 알맞다고 말했다.

1843년 편찬된 『진위현읍지』에는 징세(徵稅)하는 경작지가 2,493결(結) 92부(負) 3속(束)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밭이 1,275결(結) 27부(負)이며, 논이 1,218결(結) 65부(負) 3속(束)인데, 잡경(雜頃) 1,393결(結) 87부(負) 5속(束)은 제외한 것으로 실제 결수(結數)는 1,100결(結) 4부(負) 8속(束)라고 했다. 이것은 19세기 실제 징세(徵稅) 토지가 1,100결(結)에 불과했다는 것으로, 세종 때 논밭의 비율이 반반이라고 했던 것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징세 토지의 감소는 두 가지 원인 때문으로 짐작된다. 하나는 양난(兩難)과 만성적인 가뭄 따라 경작지가 감소하고 땅이 메말라 논농사를 밭농사로 전환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면세전(免稅田)의 증가 때문으로 판단된다.

1891년에 편찬된 『진위현읍지』에는 면세전(免稅田)과 관련된 내용도 수록되었다. "궁방(宮房)의 면세전(免稅田)이 729결(結) 97부(負) 5속(束)이고, 면세답(面稅畓)이 377결(結) 13부(負)이다" 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여기에 아록전(衙祿田)을 비롯해서 관아의 둔전(屯田) 228결(結)까지 포함하면 면세전(免稅田)의 규모는 조세를 징수하는 2,493결(結)의 절반이 넘는 1,335결(結)에 이른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면세전답(免稅田畓)이다. 면세전(免稅田)이 많았던 것은 진위현에 폭넓

38) 현재 경작하고 있는 전지(田地)를 말한다.

39) 토지를 토질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는 전분6등법은 세종 때 만들어졌고, 임진왜란 후 개정되었다. 인조12년(1634)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1등전 1결의 넓이는 10,809㎡가 되었고, 대한제국시기인 광무6년(1902)에는 1결을 1ha로 일정하게 규정했다.

게 분포한 궁방전(宮房田)이나 둔전(屯田) 때문이다. 규장각 소장 19세기 말의 추수기(秋收記)를 살펴보면 명례궁(明禮宮), 수어영(守禦營), 장용영(壯勇營), 명혜공주방(明惠公主房)[40], 수진궁(壽進宮), 명혜궁(明惠宮), 내수사(內需司)의 궁방전과 둔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견산리와 관련된 것은 명혜공주방(明惠公主房)이다. 추수기(秋收記)[41]에는 진위현 서면과 이북면에 명혜공주방에서 매득(買得)한 면세전(免稅田)이 있다고 기록했다. 대체로 조선 후기 궁방전(宮房田)이나 역둔토(驛屯土)는 간척이나 개간을 통해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혜공주방에서는 매득(買得)하는 방법으로 궁방전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면 명혜공주방에서 매득한 궁방전의 위치는 어디일까? 필자는 견산리 남쪽의 장호들과 장안들이라고 추정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궁방전이 진위천 중류나 안성천 중류에 분포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하며, 『광무양안』의 내수사 토지도 본래는 궁방전이었을 것이라는 추정 때문이다. 명혜공주방(明惠公主房)의 궁방전의 존재는 이 지역의 간척이 조선 현종 때 시작되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번에는 특산물을 살펴보자.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진위현의 특산물로 오곡(五穀)과 조, 팥, 메밀, 녹두, 참깨, 뽕나무, 삼(麻) 그리고 황금(黃芩)이라는 약재를 언급했다. 앞서 진위현의 ‘논밭이 반반’ 이라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오곡(五穀) 중에서는 쌀의 생산량이 절반은 되었을 것이다. 19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진위현의 특산물로 붕어, 게, 지황을 꼽았다. 다시 말해서 조선 전기까지는 미곡이나 곡물이 주요 생산품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이 같은 현상은 조선 후기도 마찬가지다. 평택지역이 유망한 미곡생산지로 널리 홍보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다. 그 이전에는 하천부지가 간척되어도 땅이 메마르고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논으로 경작하기가 힘들었다.[42]

견산리 일대가 땅이 메말랐던 이유는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한데다 진위천에 바닷물이 역류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주민들이나 현 노인회장 김영회(남, 1945년생)도 어렸을 때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던 것을 기억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이보다 상류 지역까지 바닷물이 역류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 후기에는 만성적인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진위천 곳곳에 보(洑)를 축조했다. 1843년 『진위현 읍지』에는 성북면에 있었던 진가리(眞加理) 제언과 눌리제언(訥理堤堰)을 소개하고 있다. 성북면은 진위면 견산리에서 가곡리, 갈곶리 일대이다. 진가리와 눌리라는 지명을 알 수 없어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제언(堤堰)들은 갈곶천을 막아 축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갈곶천의 물은 수량이 적어 쉽게 말라버리기 일쑤였다. 그래서 진가리제언은 1664년(인조 22) 이것을 숙휘공주방에 주었지만 물이 말라서 쓸 수 없게 되자 둑을 헐었고, 눌리제언은 같은 해 숭선군방에 주었지만 물이 말라버리자 논으로 만들었다.

1891년 『진위현 읍지』에는 진위천에 축조한 신보(新洑)와 장호평보(長好坪洑)가 소개되었다. 신보(新洑)에 대해서는 “현 서쪽 0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이 장호천에서 나온다. 이북면(二北面)에 관개한다”고 하였고, 장호평보(長好坪洑)는 “현 동쪽 3리 지점에 있다. 물 근원은 장호천에서 나온다. 현내면(縣內面)에 관개(灌溉)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신보(新洑)는 견산리와 신리 사이에 있던 것으로 주민들이 ‘신리보’라고 부르며, 장호평보(長好坪洑)는 은산5리 월경마을과 동천1리 사이에 쌓았던 일명 ‘장안들보’를 말한다. 진위천에 축조한 두 개의 보(洑)는 1970년대 후반 용인 이동저수지(송전저수지)의 농업용수가 공급되기 전까지 사용했다.

---

40) 명혜공주는 현종과 명성왕후의 둘째 딸로 혼례 직전에 사망했다.
41) 振威縣西面 二北兩面 明惠公主房買得免稅田畓縣錄成册 / 진위현 18762-奎 1672 KOR
42) 『진위현 읍지』, 1943년

진위천 신보(新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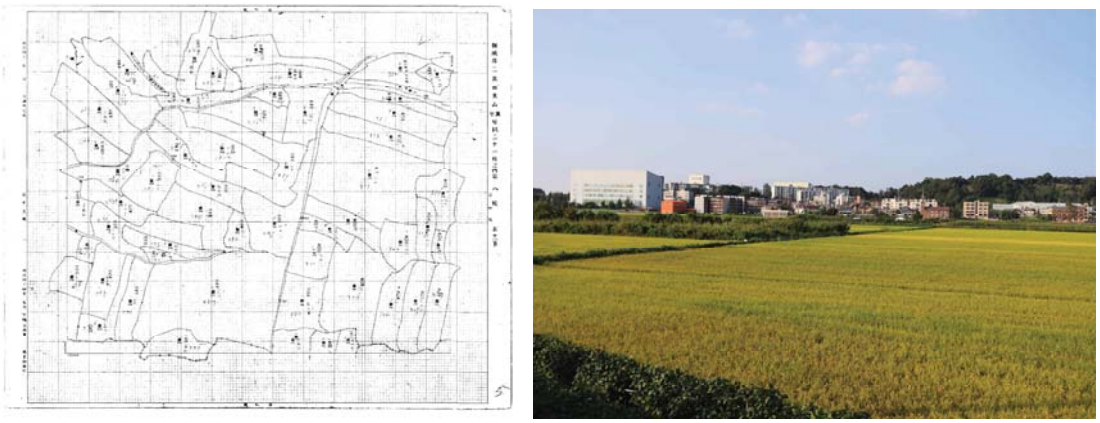
견산2리 김문규(남, 1940년생)는 장호들 일대는 물이 귀했다고 말한다. 경지정리를 하기 전에도 논은 많았지만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농사짓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문규는 신리보는 기억하지 못했고 '장안들보' 만 기억했다. 장안들보는 동천1리 학농원 부근에 쌓았는데 해마다 2월이나 3월쯤 이 보(洑)의 혜택을 입는 신리, 견산리, 하북리 사람들이 나와서 축조했다고 했다. 보(洑)는 매년 쌓았다. 하천을 막아 놓으면 장마철에 물이 불어나서 수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아서 모내기가 끝나면 터트려버렸다. '보주' 라고 해서 보(洑)를 감독하는 사람도 있었다. '보주' 에게는 추수가 끝나면 봇물을 사용한 사람들이 얼마간의 곡식을 걷어서 급료를 지급했다.

(2)『광무양안』과 『토지조사부』에 나타난 지주(地主) 현황

『광무양안』[43]은 1899년~1904년 사이 양지아문에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이다. 광무정권은 외국인 측량기사를 고용하고 한국인 측량기사를 양성하여 전국적인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양안(量案)을 작성했다. 매 필지마다 현장에 나가 민간의 두락(斗落)이나 구(舊) 결부(結負)도 조사했으며, 농지의 모양을 본떠서 전답 도형을 그린 뒤 실적 수를 정밀하게 표기했다. 이와 함께 토지소유자 뿐 아니라 작인(作人)까지도 조사하여 당시 경제관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광무양안』에서 견산리와 관련된 지역은 '견산리 전평, 견산리, 장호평, 장안평' 네 곳이다. 이 지역은 진위천 북쪽 하북리에서 견산2리 사이에 동서방향으로 길게 펼쳐진 충적평야다. 『광무양안』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견산리 전평은 대부분 답(畓)으로 이뤄졌으나, 견산리의 토지는 대부분 전(田)이라는 사실이다. 또 장호평은 논이 많은 반면 장안평은 논보다 밭의 비율이 많다. '견산리 전평(前坪)' 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주는 이흥대(李興大), 정도학(鄭道學), 이만흥(李萬興), 강창성(姜昌成), 고업례(高業禮) 등이다. 이들은 밭보다 논을 소유했다. 견산리지역의 경작지는 대부분 밭이다. 지주로 보이는 인물은 남복흥(南卜興), 이상준(李上俊), 이준복(李俊卜)이며, 하북리와 견산리 전평에도 농지를 소유한 정도학이 이곳에도 농지를 갖고 있다. 논이 많은 장호평의 지주는 견산리 전평에도 다량의 논을 소유했던 강창성(姜昌成), 김봉돌(金奉乭), 양점손(梁占孫), 이계손(李季孫), 조순득(趙順得)과 하북리, 견산리 일대에 농지를 소유한 정도학(鄭道學)이 있다. 이밖에 특이한 점은 역둔토(驛屯土)의 존재다. 장호평에는 내수사

43) 윤한택 역, 『광무양안』, 평택문화원, 2021

(內需司)의 전답과 둔전답(屯田畓), 관둔전답(官屯田畓), 그리고 수원 건릉의 둔전(屯田)인 건릉향탄전답(健陵香炭田畓)이 존재했다. 지주(地主)들이 소유한 전답(田畓)은 작인(作人) 표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현지 주민들에게 소작을 주지 않고 별도로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농지(農地)들은 거의 대부분 순소작보다는 자작이나 자소작이 많았다.



『광무양안』의 견산리 부재지주 천긍식의 토지와 견산리 전평

1912년 토지조사사업 때 작성된 『토지조사부』[44]에는 견산리의 토지는 대지(垈地) 8,948평, 전(田) 133,022평, 답(畓) 309,476평으로 밭보다 논이 약 3배 가까이 많았다. 대지와 임야를 포함한 토지 가운데 대토지 소유자는 천긍식, 고제항, 박승달, 조동순, 엄석경, 김석명, 안형식 등이며, 일본인 암기구미라는 인물도 있었고, 국유지도 상당히 넓게 분포했다. 『토지조사부』가 『광무양안』과 다른 점은 지주층(地主層)의 변동이다. 예컨대 『토지조사부』에는 『광무양안』에서 언급된 강창성(姜昌成), 김봉돌(金奉乭), 양점손(梁占孫), 이계손(李季孫), 조순득(趙順得), 이흥대(李興大), 정도학(鄭道學), 이만흥(李萬興), 고업례(高業禮)와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고제항과 이병묵, 조동순, 천긍식, 박승달, 안형식, 암기구미와 같은 인물이 자주 언급되는데, 고제항은 가곡1리의 제주 고씨로 고업례의 아들로 보이고, 이병묵, 조동순, 천긍식, 박승달, 안형식은 서울(경성)에 거주하는 부재지주다. 일본인 암기구미도 거주지가 도쿄(동경)로 되어 있어 부재지주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광무양안』이 작성되었던 1900년도 초까지만 해도 일부 지주들을 제외하고는 자작 및 자소작이 많았던 견산리 일대가, 토지조사사업을 거치며 대지주 및 부재지주의 수가 증가하고 자작 및 자소작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3) 경지면적 증가와 영농경험

견산리에서 인터뷰한 주민들 가운데는 지주-소작관계나 농지개혁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견산1리 이광섭(남, 1939년생)이나 견산2리 김영회(남, 1945년생)와 같은 토박이들도 당대에는 살았지만 나이가 어려 잘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했다.

44)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 『토지조사부』 진위군 북면 견산리, 1912, 국가기록원

김영회와 견산2리 앞 장호들

견산2리 김영회(남, 1945년생)는 토박이다. 어릴 때 진위천은 백사장과 하천부지가 매우 넓었다. 하천부지는 국공유지여서 주민들이 개간을 하여 농사를 지었다. 백중사리나 장마철에는 진위천으로 바닷물이 역류했다. 바닷물이 역류했다가 빠지면 모랫벌에는 큰 웅덩이들이 생겼는데 잉어, 장어, 붕어 같은 물고기들이 우글거렸다. 주민들은 그걸 건져다가 탕을 끓여 몸보신을 했다.

하천부지와 백사장은 1952년 송탄에 오산공군기지가 주둔하면서 개간을 해줬다. 미군공병대가 불도저 같은 중장비를 동원하여 하천의 모랫벌을 밀어버리고 논을 만들어주었다. 정부에서는 새로 조성된 논에 입찰을 붙여 농민들에게 불하했다. 땅값은 중장비 사용료밖에 안될 정도로 쌌다. 김영회(남, 1945년생)는 거저 주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하천부지 불하는 세금도 내지 않고 국공유지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에게는 불리했지만 대다수 농민들에게는 농지확대에 기여했다. 특히 돈이 많았던 사람들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땅까지 차지하는 바람에 대농(大農)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김영회(남, 1945년생)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농지와 하천부지 불하 때 분배받은 농지로 보유 농지가 50~60마지기로 늘었다.

진위천은 자주 범람했다. 범람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마을은 신리였지만 진위천 변에 농지를 갖고 있던 견산리 주민들의 피해도 무척 컸다. 하천제방은 을960년에도 쌓았지만 본격적으로는 1970년 전후부터 쌓았다. 견산2리 김문규의 부인(여, 1944년생)도 자신이 결혼해서 왔을 때 제방을 쌓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방 안쪽에도 논과 밭이 많아서 피해는 크게 줄지 않았다. 하천제방을 지금처럼 높게 축조한 것은 2005년경이다. 정부가 하천 안쪽의 논밭을 매입하고 제방을 높게 축조하면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범람하지 않게 되었다. 하천 범람은 막았지만 제방 안쪽에 논밭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큰 손해를 봤다.

(4) 농업경영

견산1리 주민들은 벼농사를 짓는다.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는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 관정으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농사짓기도 했지만 과거 바닷물이 드나들었던 지역이어서 땅을 파면 짠물이 나오거나 녹조현상으로 퍼렇게 변한 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45)]

참외농사는 진위천 건너 신리들판까지 가서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신리 주민들처럼 생업으로 하지 못하고 부업 수준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많았다. 참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1960, 70년대 진위천 변에 원두막을 짓고 직접 팔기도 하고, 지게나 리어커에 싣고 아침장(송북시장)까지 가서 팔고 왔다. 때로는 서울에서 도매상인들이 와서 매집하여 트럭에 싣고 갔다. 김광수(남, 1951년생)의 부모도 신리들에서 참외농사를 지어 아침장(송북시장)에 가서 팔았다. 당시 참외는 잘 팔렸지만 가격이 낮아서 수익률은 높지 않았다. 김영회(남, 1945년생)도 참외 농사를 지어 숯고개 좌동 마을에 가서 팔았다. 좌동 일대에는 기지촌여성들이 많아서 소비가 잘 되었다.

1970년대에는 견산리 주변에 홍원제지(1973년), 매일유업(1974년), hy평택공장(1978)이 들어왔다. 견산리 주민들 중에는 농지가 거의 없는 가난한 사람이나 젊은층들은 입사를 했지만 자기 농지를 갖고 자작하는 사람들은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었다. 더구나 주민들 대부분이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었고 특별한 기술도 없어 취업이 쉽지 않았다.

견산리 주민들의 경작지는 마을 남쪽 장호들에 많았다. 주민들은 장호들을 장안들, 장아들이라고 불렀다. 장호들은 대부분 논이었다. 견산2리 김문규(남, 1940년생)도 밭농사는 신리 사람들이 많이 지었지 견산2리에서는 거의 지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견산2리 김영회(남, 1945년생)[46]는 진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줄곧 고향에서 살았다. 어릴 때는 농사일을 돕고 보리갈이도 도와주다가 군대 다녀오면서 전업농이 되었다. 김문규(남, 1940년생)는 한국전쟁 전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소작농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서 지주의 이름이나 소작 관계,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지금도 견산리에는 소작 짓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농기계를 구비하고 자기 땅 얼마에다 남의 땅 수만 평씩 소작을 짓는 기업농들이다.

옛날에는 호(戶) 당 논 15~20마지기 농사지으면 살만하다고 했다. 옛날에야 아이들도 초등학교만 졸업시키면 알아서 먹고살았기 때문에 먹는 것만 빼면 큰돈이 들지 않았다. 그래도 농사지어서 먹고사는 일은 언제나 힘들었다. 가뭄도 잦았고 진위천이 자주 범람해서 피해가 많았다. 보통 1호(戶)에 10여 명의 식구가 있었는데 먹을 것이 흔치 않다 보니 아이들이 밥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성실하게 일해도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것은 늘 버거웠다.

견산2리 이광섭(남, 1941년생)은 어려서 잘 살았다. 조부님이 물려준 농지가 제법 많았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노름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면서 가난이 시작됐다. 초등학교 졸업반까지 다녔는데 졸업장을 못 받고 남의 집 머슴을 살았다. 당시 머슴은 애기머슴, 중머슴, 상머슴으로 구분했다. 성년이 되기 전의 아이들은 애기머슴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자신은 중머슴부터 시작했다. 세경은 애기머슴이 쌀 6가마, 중머슴이 8가마, 상머슴이 12가마를 받았다. 상머슴은 소로 논밭 갈기부터 농사에 관해서 못 하는 것이 없어야 했다. 심지어 멍석이나 메꾸리(멱둥구미)를 짜는 일도 할 줄 알아야 했다. 머슴 생활을 하다가 22세에 홍원제지에 취직했다. 홍원제지에 취직하면서 비로소 살림이 폈다.

(5) 영농구조의 변화

1963년 12월 31일 현재 진위면 상주인구는 1,375호, 4,206명이었다.[47] 이 가운데 남자는

45) 김광수(남, 1951년생), 진위면 견산1리 이장, 2021년 9월 14일 인터뷰
46) 김영회(남, 1945년생), 진위면 견산2리 노인회장. 2021년 9월 14일 인터뷰
47) 1963년 당시 서탄면 3,807명, 평택읍 11036명, 송탄읍 12,726명으로 가장 적은 인구수였다.

4,198명, 여자는 4,206명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가 많았다. 농업인구는 3,125명이었고, 제조업 종사자 14명, 광업 및 채굴업 24명, 건설업 4명, 상업 34명, 운송 및 통신 17명, 전기 및 수도 3명, 서비스업 236명, 기타 27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민이었다. 농업인구 가운데는 논농사가 1,028호, 밭농사 3호, 기타 3호로 벼농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것은 진위면 뿐 아니라 평택시 전역이 비슷한 양상이었다. 대부분 벼농사를 했지만 곡물 수확량은 주변의 고덕면이나 송탄읍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채소재배에서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것은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진위면의 농업생산력이 높지 않았으며, 원예나 채소와 같은 특용작물 재배도 거의 없었다는 말이다. 1963년 12월 말 현재 견산리의 인구는 86호 540명(남 265명, 여 275명)이었다.[48] 86호 중 농가는 73호였고 비농가는 13호였다. 다음은 1963년 진위면의 채소재배상황이다.[49]

진위면의 채소 수확고[50]

행정구역	무(kg)	배추(kg)	고추(kg)	비고
진위면	182,313	205,587	11,720	
서탄면	156,090	203,030	41,134	
고덕면	184,041	179,032	31,640	
송탄면	905,200	1,290,700	101,700	

위 표를 살펴보면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진위면의 채소재배면적은 타 읍·면과 다르지 않다. 현재 진위면 신리, 하북2,3리, 야막리 일대에서 많이 재배하는 배추조차 고덕면보다 조금 앞설 뿐 서탄면과 비슷하고 송탄읍과는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

1969년(좌), 1992년(우) 견산리 일대 마을 및 농지분포 변화

하지만 1970년대로 접어들면 사정이 달라진다. 1970년대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이 두드러졌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농업에서도 축산업, 과수재배, 비닐하우스시설재배가 활발했던 시기다. 1977년 통계연보를 보면 진위면은 전체 면적이 34,732반(反)[51]이었다. 이 가운데 전(田)은 6,163반

48) 견산1,2리를 포함한 인구다.
49) 『평택군통계연보』, 평택군, 1964
50) 『평택군통계연보』, 평택군, 1964
51) 반(反)은 반보를 의미한다. 1반보는 1정보(町步)의 10분의 1, 곧 300평(坪)이며, 991.74㎡에 해당한다.

(反)이며, 답(畓)은 11,270반(反)으로 밭에 비해 논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토지 면적은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이 비슷했지만 논(畓의) 면적은 고덕면(15,995반(反))이 진위면이나 서탄면에 비해 월등히 앞섰다. 인구는 1,898호(戶) 9,759명(名)이었다. 이것은 서탄면 1,342호 7,212명보다 2,500여 명 앞선 수치이고, 고덕면의 1,981호 10,697명보다 조금 적은 수치다.[52)]

당시 견산리는 95호 754명이 거주했다. 95호 가운데 농가는 58호였으며 비농가는 37호였다. 농가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은 1960, 70년대 견산리 일대에 홍원제지, 매일유업, ㈜hy와 같은 중견기업들이 들어오면서 회사원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교통의 중심인 하북리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해서 전체 194호 중 91호가 비농가였다. 하지만 전형적인 농업지대인 신리는 전체 75호 중 10호만이 비농가였다. 위의 수치는 1970년대 중후반부터 견산리의 인구가 증가하고 직업별 인구 변동이 나타났음을 말해준다. 1970년대 중반 진위면의 변화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점차 밭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1976년 12월 31일 기준 진위면의 경지면적은 다음과 같다.

진위면 경지면적 1976.12.31. 현재

행정구역	전체경지면적(ha)	답(ha)	전(ha)	비고
진위면	1,610	980	630	
서탄면	1,403	1,101	302	
고덕면	2,203	1,567	636	
송탄읍	2,291	1,143	1,148	

표를 보면 진위면의 경지면적은 송탄읍이나 고덕면에 비해 크게 적지만 서탄면에 비해서는 약 200ha정도 많다. 그런데도 논의 비율은 적고 밭의 비율이 두 배나 많다. 이것은 본래 밭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1970년대 수도권 채소재배와 비닐하우스시설재배 면적이 크게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1960, 70년대 진위면 신리, 하북리 일대에서는 여름철 참외재배와 가을철 김장배추와 무 재배가 크게 발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산리는 위와 같은 통계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것은 장호들에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비닐하우스시설재배나 채소재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1970년대 평택지역에서 성행했던 축산업도 진위면은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 1976년 말 진위면의 한우 사육은 669두, 젖소 213두, 돼지 848두인데 이것은 오성면, 고덕면보다 월등히 뒤지고 서탄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견산1리는 축산업이 거의 없었으며, 2리에서만 서너 집이 시도했다가 IMF 금융위기 이후 폐업했다.

1984년으로 접어들면 견산리의 인구는 214호 1,019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주변 마을인 하북리(538호, 2,304명), 가곡리(369호, 1630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느렸다. 진위면을 기준으로 할 때는 농가 1,113호, 비농가 1,609호로 비농가가 농가를 크게 앞질렀다. 이것은 농가 비율이 훨씬 높은 서탄면이나 고덕면과 다른 양상으로 1970년대 이후 진위면 일대에 영풍제지, 홍원제지,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주)같은 중견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53)]

경지면적은 1984년 12월 31일 기준 1,697ha였다. 이것은 서탄면(1,556ha)보다는 조금 많았지만 팽성읍(3,566ha), 고덕면(2,302ha), 오성면(3,169ha)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은 면적이다. 미곡 생산에서도 진위면(1,249ha, 5,670톤)은 서탄면보다는 조금 많지만 고덕면(1,635ha, 7,423

52) 『평택군통계연보』, 평택군, 1977
53) 『평택군통계연보』, 평택군, 1985

톤), 오성면(2,692ha, 12,222톤)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적다. 반면 배추재배는 파종면적이 125.5ha로 다른 지역의 3배에 달하고 수확량도 10,887톤으로 역시 다른 지역의 세 배에 가깝다. 이것은 진위면의 원예작물 재배가 1980년대 초·중반을 거치며 급속히 성장했음을 말해준다. 반면 1960, 70년대 대규모 재배가 이뤄졌던 참외는 31ha 544톤으로 크게 줄었으며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크게 앞서지 않는 상태였다. 오이 재배면적은 38ha 944톤으로 다른 지역보다 두 배 이상 생산량이 증가했으며, 호박수확량도 226톤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는 많았다. 과수재배는 진위면 전체의 배 재배면적이 44ha 319톤이었는데 조사대상지역인 견산리, 신리는 관련이 없었다.

1995년 진위면의 농지 면적은 1,063.2ha로 줄었다. 이것은 서탄면보다 약 100ha가 적은 수치이며, 고덕면에 비해서는 500ha가량 적은 면적이다. 당시 주목되는 것은 진위면의 참외 생산량은 0.3ha 4.5톤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비닐하우스시설재배로 생산하는 오이와 토마토 생산량은 다른 지역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1년 7월 말 현재 진위면의 경지면적은 1,498ha다. 이 가운데 전(田)이 421ha(28%)이고 답(畓)은 1,030ha(68.9%)로 밭에 비해 논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 과수재배는 30ha이고 목장은 6.5ha가 있지만 견산리와는 관련 없다.

(6) 주민들의 농사 경험

견산1리의 논농사지대

견산리는 전형적인 논농사지대다. 김광수(남, 1951년생) 이장은 주민들이 과거에는 대부분 논농사를 지었고 밭은 조금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 들판인데도 밭이 적었던 이유는 농업용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리 쪽에서는 참외재배나 배추재배, 비닐하우스시설재배가 성행했지만 견산리 쪽에서는 논농사 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견산리는 이동저수지에서 공급해주는 농업용수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 김광수(남, 1951년생) 이장은 '이동저수지에서 물을 안 내려보내면 굶어 죽는다' 며 웃었다.

2021년 현재 견산1리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20호(戶)쯤 된다. 하지만 농사짓는 방식은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 옛날에는 품을 사서 손으로 모심고, 두레패를 조직해서 논매기를 하고, 품을 사서 추수를 했지만, 지금은 모도 육묘장이나 농협에서 사오고, 모내기는 이앙기를 가진 사람에게 삯을 주고 시키며, 논매기는 제초제 한 번 뿌리고 하지 않는다. 가을 추수도 콤바인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다 보니 농지가 적은 사람은 논갈이하고 물꼬 보는 것 정도만 해주고 농기계 가진 사람에게 모두 맡기는 경우가 많다. 김광수(남, 1951년생) 이장은 견산1리에서 직접 못자

리를 못하는 이유를 ‘비싼 인건비’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람 구하기 힘들고 인건비가 비싸서 모판을 만들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견산1리 이광섭(남, 1941년생)은 옛날에는 마을에 부자 소리 듣는 사람들이 몇 안 됐다고 했다. 견산리에서 잘산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논 40~50마지기는 소유해야만 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평균 15~20마지기를 소유했다. 1960년대 말 경지정리 하기 전 수확량은 장호들 논 1마지기에 1가마 정도 나왔다. 매년 한 가마만 생산해도 농사 잘 지었다고 말했다. 지금은 이동저수지 물이 내려오고 농업용수가 풍부해지면서 3배출 이상씩 수확한다.

견산2리 김영회(남, 1945년생) 노인회장도 견산리에서는 논농사를 많이 지었다고 말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성행한 비닐하우스시설재배도 자금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어서 가난한 사람은 엄두는 내지 못했다. 김영회(남, 1945년생)는 장호들에서 벼농사 30마지기를 지으면서 신리에서 비닐하우스시설재배하고 있다. 논은 봄에 논갈이만 해주면 농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내기해주고 베어주고 해서 농사짓기 편하다. 모도 농협이나 육묘장에서 사다가 쓴다. 그래서 편하기는 하지만 농기계를 갖고 스스로 농사짓지 않으면 남는 게 없다고 한탄한다. 올봄에도 논 갈아서 써래질해주는 데 150평 논 한 마지기에 45,000원씩 주었다고 했다. 30마지기를 모두 하면 135만원인데, 거기에 비료값과 농약값, 모내기, 벼 베기 한 품삯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했다.

근래에는 농협에서 슈퍼오닝쌀 계약재배를 한다. 추청벼나 고시히까리 계약재배인데 생산력이 떨어져서 많이 수확해야 3배출을 넘기기 힘들다. 근래에는 어지간하면 위탁영농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버린다. 자작농이 다수였던 시절도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2) 채소재배와 하우스시설재배

진위면에서는 7개 작목반에 181 농가가 비닐하우스시설 채소재배를 하고 있다. 재배면적만도 142ha에 이른다. 화훼농가는 36호(戶)이고 재배면적은 5.9ha이다.[54)]

견산리는 원예작물재배를 거의 하지 않는다. 1960~70년대에는 진위천 변에 참외재배가 많았지만 견산리에서는 거의 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참외재배나 원예작물을 재배하지 못했던 이유를 ‘농업용수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에서 재배되었던 참외는 감참외였다. 감참외는 달고 맛이 있어 인기가 있었다. 서울의 용산청과물시장 상인들도 미리 내려와서 참외를 수집하고 트럭을 불러 서울로 싣고 가고는 했다. 하지만 견산리에서 참외 농사는 어디까지나 부업이었다고 한다. 견산2리 김문규(남, 1940년생)도 신리들판이 참외곶이였고 견산리와 하북리 쪽에서도 조금씩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업이었다고 말했다. 참외재배는 1980년대 비닐하우스 시설재배가 성행하면서 점점 사라졌다. 견산2리에서 참외 농사짓던 사람들도 대부분 그만두었다.

견산2리 김영회(남, 1945년생)는 비닐하우스시설재배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1986년 아시안게임 전부터 조금씩 하다가 점점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견산리 주민들은 신리에 가서 비닐하우스를 한다. 김영회(남, 1945년생)도 신리에서 하우스재배를 하고 있다. 1970년대만 해도 배추, 무와 같은 채소를 노지에 재배했다. 그러다가 비닐하우스를 하게 되면서 노지에서도 하고 하우스 안에서도 채소재배를 하게 되었다. 1990년대 식생활이 바뀌면서 애호박이나 오이, 토마토로 품종을 바꾸는 사람이 많았다. 쌈 채소는 하북리에서는 많이 했지만 신리들판에서는 많

54) 2021년 7월 31일 현재 기준. 진위면행정복지센터 제공 ‘농가현황’

이 하지 않았다. 애호박을 심게 된 것은 수확량 때문이다. 1990년 전후 애호박 20개에 250원, 300원씩 할 때도 수확량이 많아서 이익을 봤다.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자재도 쌌다. 비닐도 5~6만 원이면 하우스 한 동을 만들었고 쇠파이프도 1자에 7백 원, 8백 원밖에 안 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올랐다. 인건비도 올랐고 자재값도 말할 수 없이 올랐다.

김영회의 배추 비닐하우스시설재배와 각종 농기구들

1990년 전후까지는 견산리나 신리에서도 한국인 품꾼을 구할 수 있었다. 일하려는 사람도 많았고 임금도 쌌다. 결혼 전의 처녀, 총각들도 하우스로 일하러 나왔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임금이 폭등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을 썼다.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숙소도 제공하고 밥도 챙겨줘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었지만 임금이 싸서 많이 고용했다. 그런데 2년 전 코로나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신규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에 남아 있던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이 폭등했다.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그래서 품종을 바꾸거나 하우스의 수를 줄이고 있다. 김영회(남, 1945년생)도 가족 노동으로 하우스를 운영한다. 자재 값 상승으로 지금은 비닐하우스 한 동을 만드는데 3백만 원 가까이 든다. 물론 비닐이나 파이프의 재질이 좋아져서 옛날보다 오래 사용하기는 하지만 너무 비싸다.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하우스 1동에 1년에 6백만 원 전후의 매출을 올린다. 매출에서 인건비, 모종값, 비료와 농약값 등을 빼고 나면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 김영회(남, 1945년생)는 올해 새로 만든 비닐하우스를 가리키며 “길이 95m, 폭 45m 비닐 한 마끼에 48만 원씩 줬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영회(남, 1945년생)는 견산리 주민이 신리 들판에서 비닐하우스시설재배를 하게 된 이유를 정부의 농지분양 때문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오산공군기지 미군공병대의 도움을 받아서 1970년 전후 진위천 습지를 개간한 뒤 농민들에게 분양했는데 지금 농사짓는 땅이 그때 분양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개간한 땅이다 보니 지금도 바닥을 30cm만 파면 모래가 나온다고 했다. 모래땅은 배수가 잘되는 데다 농업용수가 풍부해서 비닐하우스시설재배에 적합하다.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했을 때도 배추나 애호박, 토마토, 딸기, 백합 같은 작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했다.

김영회(남, 1945년생)는 1990년대 초반부터 비닐하우스시설재배를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에는 15동, 16동쯤 농사를 지었다. 재배 기술은 다른 사람들 하우스에 가서 일해주면서 습득했다. 하우스 농사 잘 짓는 사람이라고 소문나면 찾아가서 관찰도 했다. 그렇게 30여 년을 농사짓다 보니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다.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제공한다. 젊을 때는 의욕

적으로 비닐하우스를 늘리려고 노력했다. 품꾼들 두세 명을 두고 비닐하우스 15동을 농사지어도 충분히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도 먹고 품값이 비싸서 지금은 7~8동으로 줄였다. 비닐하우스시설재배는 1년 내내 일해야 하고 품이 많이 든데다 힘들어서 버티기 힘들었다. 인건비 때문에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수익률이 낮아 할 수가 없다. 그래도 김영회 부부가 봄·가을로 열심히 일하면 년 5~6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 그 정도면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다며 웃었다.

근래에는 비닐하우스시설재배 경기가 나빠지면서 재배품종이 다양해졌다. 농가들마다 오이도 심다 호박도 심고,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왕 토마토도 심는다. 진위천 둑방 근처의 하우스는 사과대추를 재배한다. 수익은 적어도 인건비가 적게 들고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을 찾아가는 추세다. 최근에는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피해도 크고 수익률도 떨어진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면 진위애호박과 배추, 무는 최고품질이라고 알아준다. 그래서 양질의 채소를 생산하면 유통은 문제없다.

근래 하우스시설재배의 수확물들은 농협에서 수매한다. 농협에서 APC라는 수매와 유통을 전담하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농협에서 유통을 담당하면서 계약재배가 일반화되었다. 애호박도 농협의 요구에 따라 봉지를 씌워서 재배한다. 유통이 편리한 만큼 일손도 많이 든다. 옛날에는 생산자들이 직접 유통까지 담당했다. 1990년대에는 수원청과물시장에 농산물을 운송해주는 사업자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농산물을 운반해주고 운반비를 받았다. 당시에는 호박 한 상자 운반비가 150원, 200원씩 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 농협이 유통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훨씬 편해졌지만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3) 축산업

견산1리는 1970, 80년대에도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전부 논농사만 지었다. 2000년 전후에는 한 사람이 돈사(豚舍)를 운영했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 견산2리는 1970, 80년대 4~5호(戶)가 축산업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 IMF를 겪으며 모두 폐업했다.[55]

4) 도정 시설과 부업

견산1리 김광수(남, 1951년생) 이장은 견산2리가 고향이다. 부모님은 견산1리에서 견산리방앗간을 운영했다. 그래서 결혼 후 견산1리에 집을 짓고 이사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직접 방앗간 운영도 했다. 당시에는 봉남1리에도 방앗간이 있었고 견산리도 1리, 2리에 모두 방앗간이 있었다. 견산리방앗간은 1960~70년대 운영했다. 주로 쌀과 보리, 밀을 도정했다. 삯은 벼 한 가마니 도정하면 쌀 3되를 받았다. 당시에는 방앗간이 많아서 경쟁도 치열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 논에서 벼 타작을 했다고 하면 소달구지로 물벼를 실어다 말려 도정 해주기도 했다.

견산2리 김영회(남, 1945년생)는 견산2리 방앗간은 김흥수가 운영했다고 기억했다. 옛날 방앗간은 상당히 위험했다. 발동기에 걸린 피댓줄이 밖으로 노출되어서 걸려 올라가면 크게 다쳤다.

55) 김영회(남, 1945년생), 진위면 견산2리 노인회장. 2021년 9월 14일 인터뷰

견산2리 방앗간은 모터를 돌려 방아를 찧었는데 김흥수가 피댓줄에 걸려 올라가는 바람에 사망했다. 그래서 방앗간도 문을 닫았다. 삯은 2.5%였다.

요즘에는 농협에서 슈퍼오닝 쌀을 계약 재배한다. 슈퍼오닝 계약재배는 논에서 콤바인으로 벼를 베면 물벼 상태에서 도정공장으로 실어간다. 도정공장에는 벼 말리는 기계가 있어 직접 말린 뒤 도정한다. 농민들은 자신들이 먹을 양식만 남겼다가 조금씩 건조해서 야막리 도정공장에 가서 찧어온다. 트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양감면에 가서 찧기도 한다. 신리 들판에도 도정공장이 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정부미만 도정하고 개인 것은 받지 않는다.

농가부업으로는 농한기에 새끼꼬기나 가마니치기를 많이 했다. 견산2리 김문규의 부인(여, 1944년생)은 처녀시절 부모님을 도와 가마니를 쳤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가마니는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바디질을 해야만 했다. 보통은 하루에 8장, 9장을 짰는데 밤늦게까지 일하면 12장까지 짤 수 있었다. 가마니는 장날에 오산장에 내다 팔았다. 시집와서는 하북장에도 가마니장이 섰다는 말은 들었지만 보지는 못했다. 1960년대 후반 견산2리는 가마니를 치지 않았다. 옷도 기성품을 사서 입었지 길쌈하는 사람도 없었다.

5) 상공업

견산리 일대는 1970년대부터 공업화가 시작되었다. 기업들은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며 이동저수지 준공으로 공업용수가 풍부한 견산리, 신리, 하북리 일대에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견산리 일대에 들어선 중견기업들은 매일유업(주) 중부공장, hy(주)평택공장, 영풍제지(주) 등이다. 이밖에 여러 개의 중소기업들이 들어왔다. 교통이 편리하고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하북리 일대를 중심으로 상업도 발달했다. 하북1리 경계에는 송탄농협 진위지점과 같은 금융기관도 생겼다.

(1) 산업시설

가. (주)hy(구 한국야쿠르트) 평택공장

► 위치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2

► 창립 시기 : 1979년

▸ 생산품 : 액상시유 및 각종 낙농제품

(주)hy는 1971년 7월 19일 윤덕병이 한일합작회사로 창립하였다. 1969년 삼호유업에서 시작했으며 초기 상호는 한국야쿠르트유업(주)이었다. 1971년 6월 안양공장을 세웠고, 평택공장은 1979년에 세웠다. 평택공장 준공 뒤 화장품업체 호중화학(주)를 설립하여 운영했다. 1982년에는 일본의 이찌방식품과 기술제휴를 맺어 팔도라면을 출시하고 이천공장, 논산공장, 천안공장을 세워 사세를 확장했으며 2004년에는 파스퇴르유업, 2009년에는 능률교육도 인수했다. 현재는 평택, 논산, 천안 등 세 곳에 공장이 있으며 평택공장에서는 윌을 비롯한 각종 유산균제품을 생산한다. 2021년 3월 29일 회사 이름을 'hy'로 변경하였다.

나. 매일유업(주) 중부공장[56)]

▸ 위치 : 평택시 진위면 진위서로 63
▸ 창립 시기 : 1974년
▸ 생산품 : 백색우유, 분유, 커피음료

매일유업(주)는 1969년 농어촌개발공사와 김복용의 50:50 출자로 설립한 민관합동투자회사다. 당시 정부는 박정희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을 기회로 뉴질랜드 정부와 협정을 맺고 농어촌개발공사가 ‘한국낙농가공’ 을 세웠다. 같은 해 민간인 주주로 김복용을 공동주주로 연입하면서 민관합작투자회사로 바뀌었다. 1971년에는 김복용이 사장으로 취임하여 본격적인 경영을 시작했다. 김복용은 국제개발협회(IDA)로부터 차관을 받아 3년 동안 5천 두의 젖소를 도입하고 중부지역 낙농개발사업을 통한 낙농지도사업, 젖소공제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73년에는 광주공장, 1974년 진위면 견산리에 유아식전문공장인 평택공장(중부공장)을 설립하여 조제분유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백색우유, 커피음료로 제품을 다양화했다. 1980년에는 회사 이름을 매일유업(주)로 바꿨다. 1986년에는 중앙연구소를 설립했으며, 현재까지 전국에 7개의 공장을 만들었다. 1981년부터는 수출에도 눈을 돌려 세계 중동지역을 비롯한 10개국에 분유, 두유, 커피음료, 요구르트 등 연간 400억 원을 수출했다.1999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등록했다. 이로서 중부출자 민관합작회사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했다. 2001년 매일유업은 와인 전문 회사인 레뱅드매일

56) 매일유업(주) 홈페이지(http://www.maeil.com)

을 세웠다. 같은 해 7월 이탈리아의 아트사나와 판매 계약을 맺고 출산·유아용품 판매 사업에 진출했다. 당시 매일유업이 수입해 판매하던 유아용품 브랜드는 '치코'였다. 2002년 5월 농협 목우촌으로부터 청양공장을 인수했다. 2004년 11월 자회사인 매일뉴질랜드치즈의 이름을 (주)상하로 바꿨다. 2006년 1월 창업자 김복용 회장이 타계했다. 2008년에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정완 씨가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주요 사업은 맘마밀 등 분유와 매일우유, 상하이목장, 퓨어, 매일바이오, 카페라떼, 와인, 썬업, 두유, 치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다. 영풍제지(주)

► 위치 : 평택시 진위면 서탄로9
► 창립 시기 : 1970년
► 생산품 : 골판지 제조

1970년 7월 18일 창립했다. 주요 생산품은 화섬, 섬유봉, 지관용원지, 골판지상자용 라이나원지 등이다. 1988년 공업진흥청 품질관리등급 '품(2등급)'을 획득했으며 1989년에는 세도제지(주)를 인수했다. 1995년 영풍제지 부설연구소를 설립했으며, 1996년 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됐다.

라. 성우운수 하북영업소

► 위치 :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782

▸ 업종 : 버스운수업

2002년 용일여객을 삼경운수가 인수하여 설립되었다. 수원시 면허를 갖고 있는 버스회사로 하북리에서 범계역을 오가는 301번 시내버스를 운영한다.

마. 신한 로지스

▸ 위치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50
▸ 창립 시기 : 2008년
▸ 업종 : 서비스업, 창고보관업, 화물물류

2008년 10월 1일에 창업한 물류전문기업이다. 창고보관업이나 화물 물류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 송탄농협 진위지점[57]

▸ 위치 :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840
▸ 생산품 : 금융기관

송탄농협은 1970년 송탄지역 12개 리동농업협동조합을 합병하여 출범했다. 1971년에는 평택시 중앙동에 종합시설을 준공했고, 1979년에는 평택 북부지역 4개 면(面) 단위농업협동조합을 통합하였다. 진위지점도 1970년 진위면단위농협으로 출범했다가 1979년 통합되었다. 1980년에는 농기구서비스센터를 운영했으며, 1988년에는 농협슈퍼를 열었고, 1996년에는 미곡종합처리장을 준공했다. 1999년에는 지점의 명칭을 중앙지점, 진위지점, 봉남지점, 서탄지점으로 바꿨다. 2000년대에는 지장, 이충, 칠원에 지점을 설치했으며, 2010년대에는 농기계수리센터 개소 및 슈퍼오닝 쌀 해외수출, 로컬푸드 이충직매장 개점 등 굵직한 사업을 전개했다.

(2) 산업시설과 삶

견산1리 진위서로 변의 상가들

57) 송탄농협 홈페이지(https://stac.nonghyup.com)

1970년대 견산리 일대에 산업체들이 들어왔다. 제3공화국시절에는 굴뚝에서 연기를 뿜는 산업체는 국력의 상징이며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서 주민들도 환영했다. 견산1리 김광수(남, 1951년생) 이장도 '지역이 발전하고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며 좋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해기업의 문제점이 불거졌고 마을 주민들이나 청년들 일부가 취업에 성공했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별다른 기대를 않게 되었다.

견산1리 이광섭(남, 1941년생)은 홍원제지(주)가 들어오면서 취업에 성공했다. 이광섭은 공장이 들어오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취업 기회가 주어져 살기가 나아졌다고 생각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 좋은 일자리는 얻지 못했지만 회사에 기대서 살아갔던 사람이 많았다는 주장이다.

견산1리 서쪽 중소기업과 견산2리 앞 카센터

이광섭은 6남 1녀의 차남이었다. 청소년기에 부친이 재산을 다 날리는 바람에 집안이 무척 가난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남의 집 머슴을 살다가 22세(1962년)에 홍원제지에 취업했다. 당시 홍원제지에 입사한 마을 사람은 본인뿐이었다. 홍원제지 경비를 보던 사람이 옆 동네 선배였는데 이씨를 소개해줬다. 처음에는 학력도 낮고 기술도 없어 기계설비를 보조하는 일을 했다. 기술자들은 일본인과 독일인들이었는데 주로 연장을 집어주고 심부름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다. 그러다가 도비기술을 배웠다. 도비는 기계처럼 무겁고 큰 물건을 운반하여 설치할 때 트롤리나 롤러, 자키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반하는 기술을 말한다. 도비기술자로 십몇 년을 일하다가 나중에는 생산직에서도 잠깐 일했다. 징병검사도 을종을 받아 현역에서 제외되어 산업체 특례를 받았다. 산업체 특례는 낮에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1년 6개월을 일하고 병역을 마쳤다. 홍원제지는 주변의 매일유업이나 한국야쿠르트(주)보다 처우가 좋았다. 월급도 많다고 소문났다.

이광섭은 회사에서 벌은 돈으로 결혼하고 가족을 부양했으며, 6형제를 결혼시켰다. 집이 낡아서 지붕에서 비가 샜던 집도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슬레이트로 바꿨다. 회사생활로 돈을 벌어 자식들도 키웠다. 그렇게 60세까지 일하고 정년퇴직했다. 퇴직금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신축했다.

6) 장시(場市)와 유통

견산리는 송탄과 오산, 그리고 봉남리를 생활권으로 한다. 장시(場市)는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오산장, 서정리장, 하북장이 있었다. 견산1리에서 하북1리까지는 1km가 조금 안 되었고, 견산2리에서는 1.5km쯤 되었다. 오산까지는 10리(4km)가 조금 넘었다. 송탄 아침장(송북시장)까지는 3km가 조금 안 됐고, 봉남리는 1km 내외였다. 서정리장까지는 5km가 조금 넘었다. 견산리 사람들은 주로 오산장을 봤다. 견산2리에서 가곡삼거리와 백토고개를 넘으면 오산이었다. 1960년대부터는 송탄 아침장(송북시장)을 많이 다녔다. 아침장 주변은 기지촌이어서 농산물들이 순식간에 팔렸다. 서정리장은 특별하지 않으면 가지 않았다. 우선 오산장보다 멀었고 물건도 특별하지 않았다. 해방 전후에 장이 섰다는 하북장이나 1960년대 중반까지 문헌에 나타나는 진위읍내장에 대한 기억은 없었다.

견산2리 김문규의 부인(여, 1944년생)은 결혼 후 오산장을 봤다. 1970년 전후 오산장에 갈 때는 삼남길 따라 걸어 다녔다. 그러다가 송탄에 아침장(송북시장)이 커지면서 주로 송탄으로 다녔다. 오산장에는 농산물을 이고 가서 생필품을 사왔다. 1970년대 참외재배를 할 때는 송탄 아침장에 가서 팔았다. 아침장에 파는 농산물 값으로는 가용(家用)에 썼다. 버스가 다니면서는 버스를 타고 장을 보러 다녔다. 지금도 장을 볼 때는 진위여객을 타고 다닌다. 하북에 농협 하나로 마트가 있어 기본적인 식료품이나 생필품은 이곳에서 구입한다.

견산1리 노인회장 김만영(남, 1943년생)[58]은 전라북도 고창이 고향이다. 군대에서 전역한 뒤 1, 2년 농사를 짓다가 적은 농지(農地)로 농사지어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서울로 상경했다. 하지만 서울에서도 직장을 얻지 못하다가 친구의 권유로 서탄면에 모내기 품을 팔러 왔다.

1970년대 초 김만영이 서탄면에서 모내기 품을 팔 때는 하루 품삯이 300원이었다. 숙식도 제공했다. 11일을 모내기해주고 벌은 돈 3,300원 중 3,000원으로 자전거를 사서 간장장사를 시작했다. 숙식은 간장을 도매로 파는 집에서 해결했다. 숙식하는 집에서 막간장을 도매로 사서 자전거에 싣고 돌아다니며 팔았는데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큰돈이 모이지 않았다.

1969년 4월에서 12월까지 6개월쯤 간장장사를 하다가 리어커를 구입하여 도매상에서 양은그릇을 싣고 고물장사를 시작했다. 당시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놋그릇이나 사기그릇을 버리고 양은이나 스테인레스로 바꾸는 시기였는데 양은 그릇을 놋그릇과 물물교환을 했다. 고물 장사는 3년쯤 했다. 장사가 잘되어서 제법 돈도 벌었고 결혼도 했다.

58) 김만영(남, 1943년생), 견산1리 거주, 2021년 9월 14일 인터뷰

견산1리 김만영과 매일유업 정문 앞 가게

결혼 후에는 하북에서 철물점을 열었다. 철물점을 하면서 연탄장사도 함께 하고 구멍가게도 병행했다. 가게에 소금을 가져다 놓고 도매로 판매하기도 했다. 장사를 할 때 김만영은 '절대 빚지지 말자, 저녁거리가 없으면 굶자' 라는 신조로 살았다고 말했다. 굶을지언정 신용은 않으려고 노력했다. 1970년대에는 은행 이자도 비쌌고 사채도 비쌌다. 사채는 3부, 4부 이자를 줬고 은행 이자도 만만치 않았다. 당시 1천만 원만 은행에 예치하면 한 달 이자가 16,000원이었다. 회사원들이나 공무원 월급이 5,000원, 6,000원이던 시절이었고 견산리나 하북리 땅 1평에 300원이었던 시절이라 장사의 목표를 '1천만 원 모으는 것' 으로 잡았다.

하북에서 장사해서 벌은 돈으로 1975년 경 매일유업 앞에 420만 원을 주고 신축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했다. 건물을 구입했을 때는 꿈만 같았다. 당시 매일유업은 한창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다. 하북에서 철물점을 운영할 때 매일유업에 철물을 납품했다. 그렇게 매일유업과 인연을 맺던 중 매일유업공장이 준공되면서 좀 더 장사에 유리한 매일유업 정문 앞에 건물을 사서 이사한 것이다.

매입한 건물은 1973년에 신축한 기와집이었다. 주인은 100만 원을 주고 신축했는데 방이 모두 5개였다. 이 가운데 방 3개를 월 3,000원씩 월세를 주었다. 견산리에서도 철물점과 구멍가게를 함께 운영했다. 매일유업에 청소도구 같은 것도 납품하고 소금도 납품했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나중에는 집을 헐고 3층 집을 지었다. 집 옆에 있는 땅 370평도 매입했다. 주변의 땅은 평당 3만 원이고 집 옆의 것은 10만 원이었는데도 가게를 넓힐 욕심에 10만 원짜리를 샀다. 그것이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 초까지 10년 사이에 이뤄진 일이었다. 김만영은 지금 견산1리에서도 앞선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1969년 맨주먹으로 상경하여 눈물겹게 이뤄낸 성과다.

5. 사회생활

1) 공동시설과 근대시설

(1) 공동시설

견산1리의 공동시설은 마을회관과 공동우물, 상여집이 있다. 1970년대 이전에는 마을 사랑방이 모임방 구실을 했다. 주막은 없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유차열(현, 서울 거주)씨가 벽돌로 마을회관을 건축했다. 초기 마을회관에서는 견산리유치원도 운영했다. 김광수(남, 1951년생) 이장도 자녀들이 성장할 때 새마을유치원에 다녔노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마을회관이 작고 비좁아서 1980년대 임용순이 이장을 할 때 공공용지였던 현재 위치의 연못을 메우고 평택시로부터 땅을 불하받아 회관을 신축했다. 앞서 두 번의 마을회관은 한옥 형태였고 규모가 크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농촌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경로당의 역할이 커지면서 유재용(남, 1947년생)이 이장을 보던 2011년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신축했다.[59]

견산리 마을회관과 마을풍경

전기는 1960년대 중반쯤 들어왔다. 김광수(남, 1951년생) 이장도 젊은 시절 견산2리는 등잔을 켰는데 견산1리로 이사 왔더니 전기를 켰다고 했고, 이광섭(남, 1941년생)도 20대쯤에 들어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전기는 일정한 보증금을 내야 들어올 수 있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을은 전기 도입이 늦었다.

공동우물은 세 개가 있었다. 윗우물은 마을 위쪽에 있었고 중앙우물은 마을 가운데 있었으며, 아래 우물은 큰길가에 있었는데 수량이 적었다. 두 우물은 20여 년 전 메워졌고 현재 윗 우물만 남아 뚜껑을 덮어 놨다. 윗우물은 수량도 많고 수질도 괜찮은 편이어서 식수가 짰던 하북 사람들도 길어다 먹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대부분 공동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었다. 빨래도 우물가에서 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관정을 박거나 울안에 우물을 파서 모터를 놓고 자가 수도를 놨다. 그러다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했다. 간이상수도는 우물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집수정에 물을 모은 뒤 각 가정으로 보내는 방식이었다. 2000년경에는 송탄에서 상수도가 들어왔다. 이것이 나중에 광역상수도로 바뀌었다. 지금 사용하는 광역상수도는 팔당에서 내려오는 물과 진위천에서 집수한 물을 송탄취수장에서 섞어 내보낸다. 상하수도 시설을 하면서 편리해지기는 했는데 수도세나 하수도 요금이 너무 비싼 것이 흠이다. 1995년 평택시가 통합될 때 농촌지역은 세금을 깎아준다고 했는데 차등 없이 징수하고 있어 불만이 많다. 더구나 견산

59) 유재용(남, 1947년생), 견산1리 거주, 2021년 12월 19일 전화인터뷰

리에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있어 마땅히 혜택을 줘야 하지만 다른 마을과 동등하게 징수하는 것도 불만이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수돗물로는 텃밭에 물도 주지 못한다.

견산리 공동묘지와 상여집(컨테이너)

전화는 1970년대 초에 들어왔다. 견산1리에서는 1972년 김광수(남, 1951년생) 이장이 방앗간을 운영하기 위해 처음 설치했다. 전화번호가 216번이었는데 전화기 옆의 손잡이를 돌리면 교환수가 나오는 완전 수동식이었다. 일반 가정에서 전화를 놓은 것은 1980년대 넘어서였다. 도시가스도 빨리 들어왔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우제항씨가 적극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상여집은 공동묘지 아래 진위아이다움유치원 뒤쪽에 있다. 본래는 벽돌집이었는데 나중에 컨테이너를 놓고 보관하고 있다. 상여는 1990년대 후반 마을에서 새로 구입했다. 하지만 그 뒤로 장례식장 중심으로 장례문화가 바뀌면서 거의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사실 상여를 사용하려고 해도 앞소리를 해줄 상쇠도 없고 상여 멜 사람도 구하기 어렵다. 견산1리 주민 이광섭(남, 1941년생)은 '우리 친구들이 젊었을 때 항상 상여를 메고 대소사도 앞장서서 처리했는데 다 죽고 흩어져서 아쉽다' 고 말했다.

마을 뒤편의 공동묘지는 이광섭(남, 1941년생)의 아버지 세대에서 만들었다.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 각 지역에 공동묘지를 만들도록 강요했는데 그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다. 견산1리 유재용도 공동묘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광섭은 공동묘지 아래가 옛날 사형터였다고 말했다. 본인들은 사형시키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옛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사형터에는 여우들이 자주 출몰했고 귀신이 많다는 소문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공동묘지는 견산1, 2리와 신리 사람들이 사용했다. 하북1리는 따로 공동묘지를 갖고 있었다. 공동묘지는 종중 묘나 가족묘가 있는 사람들은 가지 않았고 주로 가난한 사람들만 사용했다. 지금도 20~30기 정도의 묘가 이곳에 있다.

견산2리 공동우물은 세 개가 있었다. 윗우물은 한승아파트 담벼락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옛 삼남대로변에 있었다. 수량이 많고 수질도 좋아서 마을사람들 대부분이 길어 먹었다. 아래우물은 견산2리 서남쪽 경원아파트 앞에 있었고, 봉남리 방면으로 내려가는 도로 옆에도 하나 더 있었다. 이 우물을 관자우물이라고 했다. 윗동네 사람들은 윗우물을 먹었고 아랫말 사람들은 경원아파트 앞의 우물물을 먹었다. 우물의 수량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여자들은 아침 일찍 물지게를 지고 우물가로 종종걸음을 쳤다.

김문규(남, 1940년생)의 부인(여, 1944년생)은 1965년에 결혼하여 견산2리로 들어왔다. 1965년

에도 견산2리는 물을 길어 먹었다. 물지게를 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물동이를 이고 물을 깃기도 했다. 물동이는 오지그릇(옹기)으로 만든 것을 사용했다. 아이를 업고 물동이를 이고 오면 물이 애기한테 뚝뚝 떨어지곤 했다. 물지게는 중심을 잡지 못하면 애써 길은 물을 더 흘려버렸다. 그렇게 집에 까지 오면 물이 반통만 남았다. 물깃는 일은 대부분 여자들이 했다. 간혹 우물과의 거리가 멀면 남자들이 길어주기도 했다.

견산2리는 전기가 늦게 들어왔다. 김영회(남, 1945년생)은 1980년대 전반에 들어온 것으로 기억했다. 하북이나 견산리는 1960년대 중반이면 전깃불을 켰는데 견산2리만큼은 등잔불을 켰다. 전깃불이 없다보니 가로등도 설치할 수 없어 견산1리나 하북을 오가려면 호야등을 들고 다녔다.

새마을운동 때는 간이상수도를 놨다. 봉남리 산 위에 커다란 물탱크를 설치하고 그걸 다시 내려 받아서 마을 입구 취수장에 내려오게 한 뒤에 집집마다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가 15년쯤 전에 상수도가 들어왔다. 상수도 물도 취수장에 모았다가 공급한다.

견산1리 앞 진위천 변(견산리 342-2번지)에는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이 있다.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5년 4월 10일에 가동되었다. 시설용량은 하루 7,000㎥이고 하수관거는 11.926km이며, 처리구역 면적은 526.3ha이다. 이밖에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에는 축구장을 비롯한 사회체육시설이 함께 구비되어 있다.

견산2리 서쪽에는 평택시립 진위도서관이 있다. 평택시립 진위도서관은 2017년 3월 개관했다. 연면적 1,209㎡의 공간에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건축됐으며, 시청각실,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및 서고로 구성되었다. 2021년 현재 38,000여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연속간행물과 비도서들도 함께 소장하고 있다.

견산2리 마을 표석(좌), 평택시립진위도서관(우)

2) 마을조직과 활동

마을조직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면서 정비되었다. 견산1리 김광수(남, 1951년생) 이장은 마을조직이 대동회(총회)와 개발위원회,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했다. 마을운영은 이장과 반장이 주도하지만 주요 사안은 운영위원회격인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동회는 연말에 1회 개최한다. 이장을 비롯한 임원을 선출하고 예결산이나 주요 사안을 보고하고 처리한다. 개발위원은 모두 9명이다. 이장은 당연직 위원이다. 견산1리 개발위원회는 김광수(남, 1951년생)가 이장을 맡기 전에는 유명무실했다. 그러다가 이장

을 맡은 뒤 자주 모여 점심도 먹고 마을 일을 상의하면서 활성화되었다.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할 때 역할이 컸다. 지금은 고령자들이 많아서 부녀회의 운영이 어렵다. 1970, 80년대만 해도 청년회 조직이 탄탄했다. 마을의 대소사에도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지금은 청년들 자체가 없다. 김광수(남, 1951년생) 이장은 마을에서 자신이 젊은 축에 속한다며 웃었다.

견산1리 이장 김광수와 노인회장 김만영, 견산3리 이장 손예섬, 견산4리 이장 김요숙

이장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할 때 역할이 많았다. 면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자주 출장을 나왔는데 그 사람들 접대도 이장이 도맡았다. 1960, 70년대에는 전 출입을 할 때도 반드시 이장이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했는데 지금은 사후관리만 한다. 지금도 이장은 마을 관련 사무나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면사무소에서 내려오는 공문이나 각종 협조 사항을 처리하기도 하며, 당연직

영농회장으로 농협과 관련된 사무도 처리한다. 영농회장으로 역할은 농약 지급이나 고추 모종, 배추 모종을 분배하는 것이라든가 농협에서 지급하는 것을 받아다가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처리한다. 요즘에는 마을에 독거노인도 많다. LH와 정부에서 안심주택이라는 것을 만들어 저소득층에게 월 15만 원~25만 원에 살도록 하면서 가난한 독거노인들이 서울아트빌라와 연립주택으로 많이 들어왔다. 이분들을 살피고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라도 나오면 나눠줘야 한다. 반(班)은 4개다. 그래서 반장도 4명이다. 반장들은 이장의 역할을 반별로 나눠 분담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장이 마을을 대표하지만 반장들의 역할도 많다.

견산리도 오랫동안 리세(里稅)를 거뒀다. 리세(里稅)는 마을 주민들에게 1년에 쌀 한 말씩 걷어 이장과 반장의 수고비를 지급하는 제도였다. 그래서 1980, 90년대에는 진위면행정복지센터에서 활동비 조로 지급되는 20여만 원과 리세(里稅)로 걷은 쌀을 이장과 반장에게 지급했다. 리세(里稅)는 토착민들에게는 한 말씩 걷었지만 임차인들은 반말만 내도록 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중단시켰다. 현재 이장은 진위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는 활동비 30만 원만 받는다. 하지만 이장의 역할을 생각할 때 30만 원은 너무 적다.

견산4리 경로당과 노인들

부녀회도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는 활발하게 활동했다. 2021년 현재 부녀회장은 김한순이 맡고 있다. 전에는 마을 행사나 상례를 치를 때 부녀회를 중심으로 일을 도왔다. 새마을운동을 할 때도 부녀회 역할이 컸다. 요즘에는 부녀회원들이 대부분 고령이다. 젊다고 해도 60대여서 동력이 떨어지고 활동에 지장이 많다.

청년회는 마을에 청년들이 없는 데다 활동도 거의 없다. 다만 마을 출신의 청년들이 향우회를 조직하여 두 달에 한 번씩 모임도 갖고 회비를 거출하여 마을 대소사에 참여한다. 노인회는 52명의 회원을 자랑한다. 노인회는 평택시지부가 창립하기 전부터 존재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는 매일 경로당에 모여 공동식사도 하고 1년에 두 번씩 관광도 갔다. 노인회 기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했다.

견산1, 2리는 1960년대 이동농업협동조합도 운영했다. 유재용(남, 1947년생)[60]은 견산1, 2리가 따로 조합을 조직했던 것으로 기억했지만 이광섭(남, 1941년생)[61]은 함께 운영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초대 조합장은 견산1리 엄주순이 맡았다. 조합원들에게는 공판 벼 1가마씩을 출자받아 운영

60) 유재용(남, 1947년생), 견산1리 전 이장, 2021년 12월 6일 인터뷰
61) 이광섭(남, 1941년생), 견산1리 거주, 2021년 9월 15일 인터뷰

자금을 마련했다. 이동조합은 이 기금으로 조합원에 대한 출자와 공동구판장을 운영했다. 구판장은 큰길가에 있었는데 한명성이 운영했다. 견산1리 이동협동조합은 1970년 진위면농협으로 통폐합되었고, 1979년 진위면, 서탄면, 송탄읍 농협이 '송탄농협'으로 통합될 때 함께 통합되었다.[62]

연반계, 상계와 같은 사적인 조직도 운영되었다. 상계는 80대 이상의 노인들이 젊었을 때 운영되었다. 상(喪)이 발생하면 부조하고 돕는 것은 물론이고 종종 함께 관광도 다녔다. 연반계는 부모가 생존해계시고 결혼하면 대부분 가입했다. 연반계를 처음 조직할 때 쌀 한 가마씩 거뒀다. 여기에 계원 중에 상(喪)이 발생하면 쌀 한 말씩을 더 낸 뒤 대소사를 도와줬다. 그러다 보니 연반계가 오래되면서 자산이 증가했다.

활발하게 운영되던 연반계는 30여 년 전전 중단되었다. 장례 방식도 바뀌어서 연반계나 상계의 필요성도 거의 없어졌다. 적립된 연반계 기금은 노인회로 넘어와 사용되고 있다. 상례(喪禮)는 이광섭(남, 1941년생)의 친구들이 청년회를 이끌 협조가 잘 되었다. 그때는 상여 멜 사람도 많아서 상(喪)을 당해도 걱정이 없었다.

견산2리 회관과 노인회장 김영회

견산2리의 마을조직도 이장과 반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으로 구성되었고, 의결조직은 총회(대동회)와 개발위원회로 조직되었다. 마을조직의 기능과 역할은 1리와 다르지 않다.

견산2리는 15, 6년 전까지 마을회관이 없었다. 주민들은 농한기에 마을 사랑방이나 마실방에 모여 화투를 치거나 술추렴을 했다. 연말 대동회는 이장 댁에서 열었다. 그러다가 2005년경 대한노인회 평택시지부가 결성되고 노령인구가 증가하자 경로당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2007년 2월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신축 등록했다.[63]

견산2리에서도 1980년대까지는 리세(里稅)를 거뒀다.[64] 리세(里稅)는 봄에는 보리쌀 1말, 가을에는 쌀 한 말이었다. 반(班)은 1987년 경원아파트가 입주하고서 4개로 늘어났다. 반장들에게는 보리쌀 한 말을 지급했고 면사무소에서 1년에 한 번씩 흰고무신을 줬다. 1980년대 중반 김영회

62) 유재용(남, 1947년생), 견산1리 거주, 2021년 12월 19일 전화인터뷰
63) 김문규(남, 1940년생), 진위면 견산2리 거주, 전 이장, 2021년 12월 19일 전화 인터뷰
64) 김영회(남, 1945년생), 진위면 견산2리 노인회장. 2021년 9월 14일 인터뷰

(남, 1945년생)가 이장을 맡았을 때는 면사무소에서 한 달에 7만 원씩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리세(里稅)가 없어지고 면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수당만 받는다. 요즘 지급하는 수당은 월 30만 원이다.

견산2리 경원아파트를 비롯해서 청도아파트, 서원아파트, 한승아파트는 아파트 내 경로당을 마을회관처럼 사용한다. 그나마 견산5리 서울아트빌라는 마을회관조차 없다. 아파트도 마을조직이나 역할은 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대표가 반장의 역할을 한다.

3) 혼례

전통사회에서 관혼상제(冠婚喪祭)는 가장 중요한 의례였다. 견산1리 노인회장 김만영(남, 1943년생)은 전라북도 고창이 고향이다. 군대에서 전역한 1967년 극심한 가뭄 속에서 큰형님과 논 1천 평을 농사지었는데 그것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 홀로 서울로 상경했다. 하지만 서울에서도 직장을 얻지 못했는데 서탄면에 모내기 품을 팔러 왔다가 평택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 김만영은 송탄과 하북, 견산리를 거치며 장사해서 자수성가했다. 매일유업 중부공장 정문 건너편에 3층 빌딩과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결혼은 1971년에 했다. 고향에서는 김만영이 29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하자 안달했다. 4촌, 6촌들은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데 객지에서 결혼도 못하고 살고 있으니 부모와 형제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번은 고향에서 선보러 오라고 해서 내려갔다. 선을 보고 다시 평택으로 올라왔는데 여자 쪽에서 연락이 없었다. 중매쟁이는 ‘신랑은 착하고 야무져 맘에 드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농짝 하나 들어갈 공간도 없어 딸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 말을 듣고는 무척 서러웠다. 돈을 벌어 성공해야겠다는 다짐을 그때 하게 되었다. 그 뒤로도 고향에서 선보러 오라고 했지만 내려가지 않았다.

부인은 친정이 백령도다. 고물장사를 할 때 같이 일하던 사람이 소개했다. 백령도까지는 배 타고 11시간이나 걸려서 가지 못하고 평택에 살던 처형 집에서 맞선을 봤다. 부인은 초등학교만 졸업했지만 첫눈에도 마음씨가 착하고 변함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맞선 자리에서 결혼 승낙까지 받아 냈다. 고향집에는 처형과 함께 내려가 승낙을 받았고, 양가의 허락이 떨어진 뒤에는 처형 집에서 약혼반지만 주고받는 것으로 간단하게 약혼식을 했다. 약혼 후 결혼까지 3개월을 사귀었다. 부인은 처형댁에 머물렀기 때문에 만나기가 쉬웠다.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신식으로 했다. 고향의 사촌들은 구식으로 성대하게 예식을 올렸고 김만영도 형편만 되면 구식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예식장에서 신식으로 치렀다. 결혼식은 송탄의 삼보예식장에서 했다. 삼보극장이 예식장으로 바뀐 뒤 첫 번째 결혼식이었다. 신식으로 하려니 주례가 필요했는데 주변에 할 만한 사람들에게 부탁했지만 양복도 없고 말 주변도 없다며 사양했다. 할 수 없이 삼보예식장 사장 한민수에게 부탁했더니 이런 주례는 처음 해본다며 웃었다. 결혼식에 장인, 장모, 처남은 참석하지 못하고 처형만 참석했다. 고향에서도 형제들과 가까운 친척 몇 명만 참석했을 뿐 거의 올라오지 못했다. 피로연은 삼보예식장 근처의 중국집 홍태루에서 자장면으로 대신했다. 당시에도 일반 사람들은 식당을 통째로 빌려서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잔치를 했지만 김만영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다. 김만영은 하객들에게 ‘형편이 못돼서 결혼식을 조촐하게 되어서 미안하다. 앞으로 잘 사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인사했다. 그때의 설움을 자식들에게는 물려주기 싫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 젊을 때의 가난이 지금과

같은 넉넉한 삶의 동기부여가 되었다. 자식은 3남매를 두었다.

견산1리 이광섭(남, 1941년생)은 29세에 결혼했다. 친구들은 26, 7세에 결혼했지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보다 늦었다. 부인과는 11살 차이다. 중매는 친구 부인이 친정 동네 처녀를 소개했다. 나이 차이는 많았지만 처가에서 반대하지는 않았다. 처가는 전라남도 곡성이었다. 처가에서도 이광섭이 성실하고 직장도 탄탄하니까 만족스러워했다. 나이가 부담스러웠지만 친구 부인이 중매를 설 때 두 살 줄여서 소개하는 바람에 그냥 넘어갔다.

맞선은 견산1리의 친구 집에서 봤다. 처형이 진위면 동천리에 살고 있어서 잠시 다니러 왔다가 같은 동네 출신의 언니가 사는 견산1리로 놀러왔는데 그때 맞선이 이뤄진 것이다. 맞선 후 데이트도 몇 번 못하고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혼례는 이광섭의 집에서 구식으로 치렀다. 부인은 친정집이 너무 멀어서 약혼 후 처형댁에서 계속 머물다가 결혼식까지 치렀다. 혼례식 때는 전남 곡성의 장인, 장모가 올라왔다. 처가가 너무 멀어서 재행도 생략했다. 혼인 후 견산리 이광섭의 집에서 첫날밤을 보내고 지금껏 자식들 낳아 살고 있다. 장인, 장모가 연로한 뒤에는 평택으로 모셔 함께 살았다.

6. 교육과 문화

1) 문화재

① 견산리 산성(山城)

견산1리 북쪽 해발 40~50m의 구릉에 토축으로 쌓은 평산성이다. 산성(山城)은 견산1리 벌미마을을 동·북·서로 감싸는 형태다. 성곽의 북벽은 아직 남아 있지만 서원아파트, 청도아파트 부근의 서벽 굴절부는 아파트 공사로 훼손되었다. 동쪽 굴절부는 일부 훼손되었으나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성(城)의 안쪽은 민가와 공동묘지 조성으로 건물지나 다른 시설물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계측된 성벽의 길이는 427.6m이며 성벽의 높이는 5m 내외다. 축성방식은 성토법으로 축성되었지만 일부 구간은 판축법이 사용되었다.[65]

65) 경기도박물관, 『평택 관방유적(Ⅱ)-경기도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17책』, 2004

견산리산성 전경, 북문지, 서쪽 성벽, 동쪽 성벽(순서대로)

일제 때 간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1942)에는 "고려시대 부산현의 읍성지이다. 토축으로 주위 250칸이다. 남문지라 부르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 붕괴되었다. 성안에 견산리 부락이 있다" 고 하였다.[66] 하지만 위 자료에는 모순이 있다. 견산리 일대는 5세기 후반 고구려가 남하하면서 부산현을 설치했고, 신라 경덕왕 16년(757)에는 진위현으로 고쳤기 때문에 '고려시대 부산현의 읍성지' 라는 비정은 잘못이다. 또 '부산(釜山)' 은 봉남리 뒷산으로 견산리와는 관련이 적은 점도 의문점을 갖게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문화유적총람』(1995~7)에도 "이 유적은 마을을 중심으로 동·서·북 삼면으로 쌓았으며 토성(土城)으로 축성되었고 규모나 형태로 봐서 마을의 안전을 위해 쌓은 것으로 추측된다" 고 하였다. 견산리 산성은 오랫동안 '견산리 부성(府城)' 으로 불렀다. 그것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1942)에서 '부산현의 읍성(釜城)' 이라고 비정한 것을 해방 후 오기(誤記)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견산1리에서 가곡리 방면으로 넘어가는 지점에는 개구부(開口部)가 있는데 너비 9m, 높이 2m 내외로 북문지로 추정된다. 북벽 토루는 외벽 높이 4~6m, 내벽 2~3m이고, 하단 너비 7~8m, 상단 너비 1~1.5m이다. 성벽은 개구부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다가 공동묘지를 지나서 남쪽으로 굴절한다. 동쪽 굴절부에는 2열의 토루가 동벽과 함께 전개된다. 이것은 동쪽의 산세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방어에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67]

주요 시설물은 북문지, 서치성, 북치성1, 북치성2, 동치성1, 동치성2, 회곽도, 외황, 부가토루

66) 평택시·경기도박물관,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67) 경기도박물관, 『평택 관방유적(Ⅱ)-경기도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17책』, 2004

등이다. 수습된 유물은 사선문 암키와편과 어골문 암키와편, 사선문 수키와편과 직선문 수키와편 등 와편(瓦片)이 많으며, 회흑색 연질토기, 회색 경질토기, 회청색 경질토기, 회청색 연질토기, 적갈색 경질토기 등 다수의 토기편(土器片)도 수습되었다. 자기류는 청자 편이 다수 수습되었으며, 분청사기와 백자편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것으로 볼 때 견산리산성은 삼국시대 축성 후 고려와 조선 전기까지 오랜 기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견산1리 유재용(남, 1947년생)은 성곽의 모양은 거꾸로 세운 ㄷ자 형태였다고 말했다. 북쪽으로는 성벽이 높았고 서쪽으로는 서원아파트 옆에서 꺾여 조금 아래로 내려갔으며, 동쪽은 공동묘지 동쪽에서 꺾여 남쪽으로 굴절되었다고 말했다. 마을주민들은 견산리산성을 그냥 '성(城)'이라고 불렀다고 했다. 그리고 성(城)을 기준으로 북쪽을 '뒷성지(가곡3~5리), 아래쪽을 '아랫성지(하북1, 4리)'라고 불렀다.[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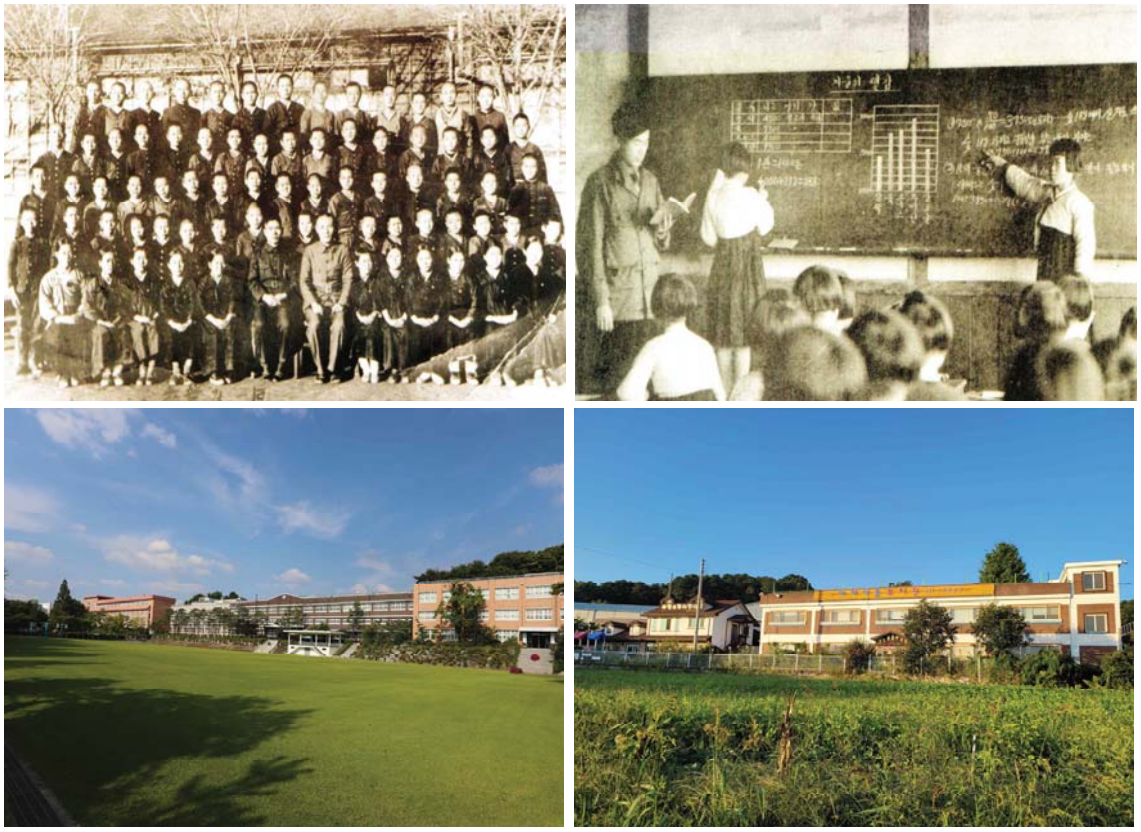
2) 교육

견산리는 봉남리와 구 송탄지역, 오산시가 주요 생활권이다. 초등교육은 진위면 봉남리의 진위초등학교를 다녔고, 중·고등학교는 한국전쟁 이전에는 수원이나 서울로 유학했고, 이후에는 1953년에 설립된 진위중·고등학교나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오산중·고등학교, 송탄에 설립된 태광중·고등학교, 효명중·고등학교를 다녔으며, 성적이 우수하면 평택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견산리에서 70~80세 사이의 토박이 중에는 대학 진학자가 거의 없었다. 견산1리 김광수 이장은 오산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집안이 가난했던 견산1리 이광섭이나 2리 김영회 등은 초등학교를 중퇴했거나 졸업했을 뿐이었다.

견산1리 김광수(남, 1951년생) 이장은 진위면 봉남리 진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진위면 견산리, 봉남리, 하북리, 갈곶리, 청호리는 오산시까지 4km에 불과해서 대부분 오산으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오산중학교는 1950년에 개교했고, 오산고등학교는 1948년 성호고등공민학교로 개교했다가 1954년 고등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1970년대 초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진로는 불분명했다. 김광수도 입대 전에는 안성의 운수업체에서 일했고 전역 후에는 7, 8년 동안 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견산1리 이광섭(남, 1941년생)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4학년을 두 번 다녔고 6학년까지 진급은 했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끝내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 아버지는 집안 재산과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돌아가신 삼촌의 보상비까지 노름으로 날린 뒤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광섭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남의 집 머슴을 살면서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다.

68) 유재용(남, 1947년생), 견산1리 거주, 2021년 12월 19일 전화인터뷰



진위공립보통학교 졸업사진, 진위초등학교 수업장면, 진위중고등학교, 아이다움유치원

견산2리 김영회(남, 1945년생)도 진위초등학교 47회 졸업생이다. 집안에 남동생도 많고 여동생들도 있어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는 농사를 지었다. 아버지는 완고해서 여자들은 배워야 소용없다며 딸들은 아예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그래도 손아래 남동생은 중학교까지 진학시켰고 막내 동생은 김영회가 우겨서 대학교에 진학시켰다. 하지만 못 배운 한을 풀고 싶어 막내 동생을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시키는 바람에 큰 고생을 했다. 학비도 비싸고 하숙비, 용돈도 만만치 않아서 농사지은 것 팔아서 학비 대고 소를 길러 팔아서 등록금 대느라 무척 고생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막내 동생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막내동생은 대학을 졸업한 뒤 무역진흥공사에 취직했고 외국을 돌아다니며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현대백화점 책임자로 재직 중이다.

김영회가 어릴 때 진위향교에서 한문서당을 열었다. 당시 한문서당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녔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거였다. 김영회는 형님뻘 되는 사람들과 함께 배웠다. 당시만 해도 한문을 배워야 면사무소에 가서 문서를 읽을 수 있었고 하다못해 동네 이장(里長)이라도 할 수 있었다. 서당에서는 천자문까지 배우고 그만두었다. 당시에는 1년에 한 번 면(面) 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진위면 육상대표선수로 뽑혀서 연습하다가 영양실조로 황달에 걸려 한동안 요양했기 때문이다. 황달을 치료하고 나서는 장티푸스에도 걸렸다. 장티푸스는 고열에 설사를 동반하고 전염성이 강해서 한 사람이 걸리면 가족 전체가 감염되었다. 하지만 장티푸스에 걸렸을 때도 돈이 없어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민간요법으로 겨우 치료받았다. 당시 1950년대 초반 장티푸스 특효약으로 널리 알려진 민간요법은 참외꼭지를 불에 태워서 코에 넣는 방법이 유행했다. 신기하게도 참외꼭지 가루가 들어가면 열이 가라앉고 치료가 잘 되었다. 김영회도

참외꼭치 태운 것으로 병이 나았다.

김만영(남, 1943년생)은 전라북도 고창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당에 다녔다. 옛날식 서당이었는데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떼고 사서(四書)를 읽다가 중단했다. 좀 더 배우고 싶었지만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또 가난 때문에 중학교 진학도 포기해야만 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뒤에는 자녀교육에 열성으로 매달렸다. 김만영은 1남 2녀를 두었다. 견산리에서 초등학교를 졸업시키고 중학교 때부터는 아예 수원에 집을 장만하고 아이들을 전학시켰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교육열을 따라오지 못했다. 법무사를 하는 6촌 형님 자녀들은 3남 1녀가 모두 서울대, 고려대를 나와서 정부 부처의 차관도 지내고 감사원에도 근무하고, 대학교수, 대기업 중역도 하는데 자신의 자녀들은 부족함 없이 지원해줬는데도 결과가 신통치 않아서 무척 아쉽다.

견산리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역사는 제법 오래되었다. 견산1리 김광수(남, 1951년생) 이장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마을회관을 빌려 운영했던 새마을유치원에 다녔다고 했다. 지금은 공립유치원은 없고 견산1리 동쪽에 사립 '진위아이다움유치원(진위서로 121-5)'이 운영되고 있다. 견산1리 서쪽에는 '연꽃 어린이집(진위서로 74-12)'이 있다. 연꽃어린이집은 만기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봉남리, 동천리, 견산리, 하북리 일대의 어린이들이 다닌다.

3) 종교

견산리는 종교성이 강한 편이 아니다. 천주교나 개신교, 불교의 영향도 적은 편이다. 견산1리 유재용(남, 1947년생)은 견산1리에는 작은 교회들이 많지만 다니는 사람은 적다고 말했다. 견산2리 김영회(남, 1945년생)와 김문규(남, 1940년생)도 40~50년 전까지만 해도 진위면 동천리 만기사에 다니는 사람 2~3집, 대한기독교장로회 진위교회와 하북교회에 다니는 사람 서너 집뿐이었고 천주교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지금도 견산2리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2~3집, 절에 다니는 사람 1~2집이 있을 뿐이다. 마을 동쪽 은혜와 진리교회에 다녔던 교인들도 있었지만 몇 년 전 이충동으로 이전하면서 현재는 교인 수가 크게 줄었다.

견산리 개신교의 효시는 1908년 견산2리에 창립한 대한성공회 성 베드로교회이다. 성공회는 1534년 영국 국교회로 출발했다. 영국 국왕 헨리 8세가 재혼 문제로 로마교황청과 갈등을 빚자 영국교회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시작된 것이 성공회(영국 국교회)다. 우리나라에는 1889년 코프 주교가 입국하면서 선교가 시작되었다. 코프주교는 강화도와 인천을 발판으로 서울까지 영역을 확대했고 1904년부터는 경기남부지역 선교에 돌입했다. 경기남부에 처음 세워진 교회는 수원의 성 스테판 교회다. 성 스테판 교회의 책임자 브라이들 신부는 김우일, 박사라, 강희선(베드로), 구세실 신부에게 경기남부지역 선교를 맡게 했는데 이로 인한 결실이 1906년 김인순전도사가 팽성읍 객사리에 세운 '대한성공회 성 요한교회'였다. 1908년에는 칠원 2동에 '성 바나바교회'가 설립되었다. 1909년에는 진위면 봉남리에 '성모마리아교회', 청북면 덕우리에 '덕우리교회', 1934년에는 '안중교회', 1936년에는 박병무 신부에 의해 '구진교회(현 대안리교회)', 같은 해에는 구세실 신부에 의해 서탄면 사리교회가 설립되면서 성공회 교세는 더욱 확대되었다.

진위지역 선교에서 주목할 인물은 김현석(아타나시우스)이다. 안성시 미양면 출신의 김현석은 신앙에 감동되어 스스로 작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경기남부 안성과 평택지역을 돌며 열정적으로 선교활동을 했다. 김현석의 선교활동에 따라 1908년 견산2리 산직촌에 '산직말 성 베드로교회'

가 설립되었다. 산직말 성 베드로교회의 존재는 일제강점기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21)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듬해에는 진위면 봉남리에 '성모마리아교회' 도 설립되었다.

성공회 산직말 성베드로교회와 김현석 전도사, 봉남리 성모마리아교회[69], 주향교회, 진위중앙교회, 하늘문교회, 21세기 교회

대한성공회는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건축양식이 한옥과 바실리카양식을 혼합했다. 둘째, 신명강습소와 유아원을 설립하여 문맹퇴치와 근대교육에 힘썼다. 평택지역 최초의 성공회 교회인 객사리 성 요한교회도 신명강습소와 부용유아원을 운영했고, 덕우리교회와 안중교회, 칠원교회에도 신명강습소가 운영되었다. 산직말 성베드로교회는 신명강습소나 유아원을 운영하지는 않은 것 같다. 1920년대 후반에 태어난 노인들, 1945년 태어난 김영회(남, 1945년생) 노인회장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오래되지 않아 문을 닫았을 것으로 보인다.

69) 『안성시사신문』 봉원학 기자 제공

김영회(남, 1945년생)는 청소년기에 진위면 봉남리 진위교회를 다녔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의 진위교회는 일제 말에 창립되었고 교인들도 많았다. 견산2리에서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진위교회를 나갔고 아이들도 제법 많이 다녔다. 김영회는 진위교회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었다. 하루는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아이들을 모아 놓고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개구쟁이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는 '나는 목사님이 따라주는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싶다' 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더니 그 아이를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 그 뒤로 친구와 함께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

견산1리에는 소규모 교회가 많다. 주향교회(견산1길 24), 진위중앙교회(진위서로 121-15), 하늘문교회(진위서로 102), 21세기 교회, 진위사랑교회, 광염교회, 평강교회, 은혜와 진리교회가 그것이다. 주향교회와 은혜와 진리교회만 규모가 있을 뿐 대부분의 교회는 규모도 작고 교인 수도 많지 않다. 담임목사의 잦은 이동, 교회 간의 이동도 잦은 편이다. 더구나 견산2리 동쪽에 있었던 은혜와 진리교회는 큰 교회 건물을 지어 놓고 교인 수가 줄어들자 몇 년 전 이충동으로 옮겨버렸다. 견산1리의 주향교회도 주민들 중에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것은 하늘문교회, 21세기 교회를 비롯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역자의 잦은 이동도 빈번하다고 한다.

4) 마을신앙

견산2리 서낭 터(노란 버스 서 있는 곳), 견산2리 윗우물 터(현수막 아래)

견산리에는 견산1리 벌미마을에 당제와 우물고사(정제)가 있다.[70] 마을제당은 서원아파트 자리에 있었다. 당목은 아름드리 참나무 고목이었다. 당제는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대보름 사이에 길일을 잡아 지냈다. 제일(祭日)은 무당에게 가서 길을 따져 잡았고, 제관(祭官)도 옛날에는 생기복덕을 따져서 흠 없는 사람을 선택했다. 제관은 제일(祭日) 2~3일 전부터 금기를 엄격하게 지켰다. 마을주민들도 외부 출입을 삼가는 등 각별히 조심했다. 제물(祭物)은 제관(祭官) 부부가 당샘의 물로 준비했다. 옛날에는 깨끗한 황소를 잡아 머리와 각 부위를 올렸다가 나중에는 소머리로 축소되었고 맨 나중에는 깨끗한 흑돼지 한 마리를 잡았다. 그 밖에도 시루떡과 삼색과일, 포, 술을 올렸다. 제일(祭日)에는 공동우물과 마을 제당을 청소하고 제관부부도 당샘의 물을 떠서 목욕했다. 당제는 한낮에 지냈다. 제당에 제관(祭官)과 축관(祝官), 유사 몇 명이 제물을 지고 올라가서 제를 지냈다. 제의 순서는 유교식으로 헌작, 독축, 배례, 소지를 올리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70) 이기찬(67세) : 2006년 7월 9일 견산1리 마을회관에서 인터뷰

당제가 끝나면 마을로 내려와 윗우물에서 우물고사(정제)를 지냈다. 견산1리는 옛부터 식수가 귀해서 진위천 냇가 물을 길어 먹거나 견산2리 산직촌까지 가서 물을 길어왔다. 그래서 곳곳에 우물을 여러 개 팠지만 쓸 만한 우물이 없었는데 1970년대 관정을 파면서 물이 흔해졌다. 물이 흔해지자 이번에는 하북사람들이 물을 길러 왔다. 우물고사는 정월 초에 지낸다. 옛날에는 돼지를 잡아서 지냈는데 지금은 이장이 제관이 되어 돼지머리와 백설기, 포 등으로 간단하게 지낸다.[71] 그것도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2년째 지내지 못하고 있다.

견산1리 당제는 1980년경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당제가 중단되면서 마을에 흉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자 1988년 견산리산성 앞에 참나무 당목을 다시 심고 제(祭)를 지냈다. 그러다가 당산에 서원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당목이 없어지자 완전히 중단되었고 지금은 마을 이장단에서 우물고사만 지낸다.

견산2리 산직촌은 서낭고개의 서낭목에 제를 지냈다. 삼남대로가 지났던 서낭고개는 예로부터 ‘애기장수’ 설화가 전해왔다. 외적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산의 정기를 받은 애기장수가 나타나 외적을 물리치고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다는 설화였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서낭고개를 넘어가는 도로를 건설하며 산맥을 끊었다. 주민들은 애기장수설화가 무서워 일부러 산을 정기를 훼손한 것으로 믿고 있다.

서낭제는 개인 신앙이었다. 집안이나 개인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간절히 기원해야 할 때면 떡과 제물을 준비해서 기원을 했다. 정월에도 새해의 발복과 제액을 기원했다. 서낭제는 2000년 한승아파트 공사를 할 때 서낭목이 베어지면서 중단되었다. 주민들은 당목을 건드리면 큰 화를 입는다며 경고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베어버렸다고 한다.

“견산2리에서도 우물고사[72]를 지냈다. 우물고사는 정월에 길일(吉日)을 잡아 윗우물에 지냈다. 제일(祭日)은 정월 초하루 무당에게 가서 잡았다. 이때 생기복덕을 따져서 가장 정결한 사람으로 제주(祭主)도 뽑았다. 제일(祭日)과 제주(祭主)가 선출되면 집 앞에 금줄을 치고 금기를 지켰다. 전날에는 마을 청년들이 우물도 청소했다. 제물(祭物)은 제주(祭主)가 마련했다. 제물(祭物)은 옛날에는 소를 잡아 소머리와 각 부위를 올렸다가 나중에는 비용 문제로 소머리로 바꾸었다. 떡은 백설기로 준비했고 그밖에도 오색실과와 포, 술을 준비했다. 술은 막걸리였다. 제일(祭日) 새벽이면 제주(祭主)는 윗우물의 물을 길어 찬물로 목욕했다. 추운 겨울 찬물로 목욕했어도 제주(祭主)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신령님이 보호해서라고 믿었다. 제(祭)는 제주(祭主)와 유사 몇 명이 지냈다. 진행은 유교식이었다. 제(祭)가 끝나면 제주(祭主)의 집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눴고 제물(祭物)은 액막이 음식이라고 해서 집집마다 골고루 나눴다. 이 음식을 먹어야 1년 동안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다.[73] 산직촌 우물고사도 2000년 한승아파트 건설로 윗우물이 메워지면서 중단되었다.”

김문규(남, 1940년생)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祭)를 지냈던 것으로 기억했지만, 현 노인회장 김영회(남, 1945년생)는 서낭목에 산신제를 지냈고 우물에는 떡만 가져다 놓았을 뿐 제(祭)를 지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문규나 김영회 모두 3대 이상 거주한 토박이인데 기억이 서로 상이하

71) 김광수(남, 1951년생), 진위면 견산1리 이장, 2021년 9월 14일 인터뷰

72) 우물고사와 관련해서는 전 이장 김문규(남, 1940년생)와 현 노인회장 김영회(남, 1945년생)의 기억이 다른다. 김문규는 서낭제는 개인이 지냈고 우물고사만 마을에서 지냈다고 주장하며, 김영회는 서낭에 산신제를 지냈고 우물에는 제물(祭物)만 가져다 놓았다고 기억했다.

73) 김문규(남, 1940년생), 견산2리 거주, 전 이장, 2021년 12월 19일 전화인터뷰

여 김영회의 주장도 함께 소개한다.

“마을에서는 서낭목에 지내는 제사를 산지사(산신제)라고 했다. 제일(祭日)은 정월 14일 밤 12시를 넘겨(실제로는 음력 정월 15일) 지냈다. 제주(祭主)는 마을에서 사주를 잘 봤던 노인이 생기복덕을 따져서 가장 깨끗한 사람으로 선출했다. 제주(祭主)로 선출되면 금기를 엄격하게 지켰다. 제물(祭物)은 흑돼지 한 마리를 잡고, 백설기와 곶감, 대추, 사과 등 삼색실과와, 포를 준비했고 술은 막걸리리를 사용했으며 윗우물 당샘의 물로 제물을 만들었다. 제의(祭儀)는 제주(祭主)와 축관, 유사 한 두 명이 올라가 지냈다. 제의 방식은 유교식이었다. 배례(拜禮)와 헌작(獻爵)을 하고 축문(祝文)을 읽고, 소지를 올리며 제액과 복을 기원하는 방식이었다. 축문은 마을에 거주하던 지제손씨가 썼다. 산지사가 끝나면 윗우물과 아래우물에도 제물을 놓아두었다. 여기에 놓인 제물은 액(厄)을 물리치고 복(福)을 준다고 믿어 입시나 입사시험을 앞 둔 사람이나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몰래 떼어다 먹었다.[74]”

김영회(남, 1945년생)에 따르면 서낭나무는 벚나무였다고 한다. 벚나무 옆에는 무덤이 하나 있었다. 무덤은 주인은 마을에 살았던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후손이 끊긴 채 혼자 살았는데 죽으면서 마을에 남은 재산을 기부하고 4월 초파일에 송편을 빚어 제를 지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매년 4월 초파일 제를 지냈는데 1960년대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때 이 땅을 마을재산으로 돌려놨고, 이것을 전에 이장 보던 사람이 팔아서 마을 기금을 만들었다. 그 뒤로 묘 주위에 한승아파트가 건설되었고 서낭목과 묘는 사라졌다.

견산1리 마을제당이 있었던 서원아파트, 줄다리기를 했던 마을 앞 큰길

진위면 일대에서 가장 성행한 공동체놀이는 줄다리기와 쥐불놀이, 투석이다. 그 가운데 줄다리기는 정월 대보름에 행한 대표적인 공동체놀이였다. 견산1리 벌미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 줄다리기를 했다. 줄다리기는 풍농을 기원하는 공동체놀이로 정월 대보름에 행했다. 벌미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이 가까워 오면 집집 마다 짚을 걷었다. 그러면 마을 장정들이 대보름 전날 모여 새끼를 꼬아서 전년도에 사용했던 줄에 덧씌웠다. 줄은 암줄과 숫줄을 따로 꼬았다. 대보름 아침에는 마을에서나 부잣집에서 낸 음식과 술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겼다. 두레풍물패는 풍물을 치며 공동우물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지신을 밟았다. 아이들은 연날리기와 쥐불놀이로 액(厄)을 날려버렸으며 여인들은 보름달이 떠오르면 성너머고개에 올라가 망월(望月)을 했다.

줄다리기는 3년에 한 번씩 했다. 어둠이 밀려들면 먼저 풍물패가 풍악을 울리며 흥을 돋웠다.

74) 김영회(남, 1945년생), 견산2리 거주, 현 노인회장, 2021년 12월 19일 전화인터뷰

마을 남자들이 줄을 메고 동네를 한 바퀴 돌은 뒤 마을 앞 도로에 줄을 늘어뜨리면 주민들이 줄을 잡았다. 줄은 장정 남자들만 숫줄을 잡고, 암줄에는 여자와 노인, 아이들이 잡았다. 줄다리기는 암줄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생각했다. 여성은 풍농과 다산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암줄과 숫줄이 어우러지다가 암줄이 이기면 풍물패가 다시 한바탕 놀았다. 줄다리기를 마친 줄은 잘게 잘라서 진위천 둑방으로 가져가서 묻었다. 그래야만 액(厄)을 물리치고 둑이 터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아이들은 진위천 변 신리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에서 투석도 했다. 투석은 막대기와 돌멩이를 던져가며 서로의 완력을 자랑했는데 잘못하면 크게 다치기도 했다. 크게 성행했던 줄다리기, 거북놀이, 투석, 망월과 같은 정월대보름 놀이는 해방 후 마을환경이 변하면서 하나둘씩 중단되었다. 줄다리기도 해방 후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955년경 다시 부활했지만 3년에 1회씩 두 번 개최하고는 다시 중단되었다. 지금은 투석이나 쥐불놀이, 망월도 하지 않는다.[75]

5) 가정신앙과 무속신앙

40, 50년 전까지만 해도 견산리의 농가에서는 가신(家神)을 섬겼다. 가신(家神)으로는 성주, 제석, 터주, 조왕, 측신 등을 모셨다. 김문규(남, 1940년생)의 부인(여, 1944년생)은 “옛날에는 제석주머니, 터주가리, 대감독 같은 거 다 있었죠”라고 말했다. 성주는 견산리 집집마다 모셨다. 성주는 집안을 지키는 가신(家神)으로 대주나 집 자체와 동일시되었다. 보통 성주대에 한지로 술을 달고 쌀을 담아 매달아 두는 형태였다. 성주는 집을 새로 지을 때 모시지만 우환이 있을 때도 새로 만들어 매달았다. 제석은 건강과 복,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기 위해 섬겼다. 제석은 한지에 쌀을 담아 안방에 모셨다. 터주는 집 뒤꼍에 두었다. 한지에 쌀을 담고 짚을 엮어 고깔을 씌운 형태다. 집 안에 대감독을 모시기도 했다. 대감은 재물과 재복을 주관하는 가신(家神)이다. 대감독은 항아리에 쌀을 담아 두는데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크기에 차이가 났다. 제석주머니의 쌀은 칠월 칠석에 꺼내 미역국과 함께 먹었다. 나머지는 가을에 햇곡식을 거두면 가장 먼저 교체했다. 조왕신은 부엌을 주관하는 가신이고 측신은 화장실을 담당하는 신이었다.

김문규(남, 1940년생)의 부인(여, 1944년생)은 시어머니가 가신(家神)을 정성껏 섬겼다고 말했다. 추수가 끝나고 나면 집집마다 굿을 했고 대감독의 쌀을 교체했으며 터줏가리를 새로 하느라 바빴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새마을운동 때 가신(家神)은 미신이라는 계몽교육을 받으면서 대부분 없앴고 다른 사람들도 1990년대 이후 집을 고치거나 신축하면서 없앴다.

옛날에는 굿도 많이 했다. 주민들은 기독교와 같은 종교보다 무당에게 더 의지했다. 그래서 마을마다 무당이 있었지만 굿을 할 때는 다른 마을의 무당을 데려왔다. 같은 마을 무당은 집안의 우환이나 문제들을 속속들이 다 알아서 신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견산2리는 진위천 건너 신리나 오룡동에서 데려왔다. 굿은 천차만별이었다. 큰 굿은 몇백만 원씩 했다. 가난한 집안에서는 큰 굿을 할 수가 없어 쌀 한 두말을 주고 재수굿을 하거나 신점을 쳤다. 민간요법으로 질병을 치료하다가 낫지 않으면 무당에게 가서 점도치고 굿도 했다. 그렇게 푸닥거리를 하면 질병이 치료되기도 했다. 세습무에게 매년 쌀 한 말과 보리 한 말을 주면 매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굿을 해주기도 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쯤 되면서 점점 줄어들더니 2000년 전후에는 굿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 지금도 굿하는 사람은 줄었지만 용하다는 무당이 있으면 점을 치는 사람은 많다.

75) 이광섭(남, 1941년생), 견산1리 거주, 2021년 9월 15일 인터뷰

김광수(남, 1951년생, 견산1리 이장)

일시	2021년 9월 14일	
장소	견산1리 마을회관	
구술자	진위면 견산1리 이장이다. 견산2리에서 태어나 자랐고, 결혼 후 부친이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었던 견산2리로 이주했다. 방앗간도 운영하고 회사도 다니면서 농사도 지었다. 2010년 퇴직하고 농사를 지으며 마을 이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면담자	김해규	

이장님은 견산1리가 고향인가요?

본래 견산2리에서 살았어요. 결혼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이 마을에 정미소를 운영했는데, 견산리 방앗간이라고. 그래서 집을 짓고 이사 왔죠.

방앗간에서는 어떤 곡물을 도정했어요?

방앗간이야 쌀, 보리 같은 거죠. 옛날에는 밀도 찧었네.

본관이 어디예요?

경주 김씨 계림군파. 이 동네에는 5집쯤 살아요.

방앗간 운영 시기가 언제 쯤이예요?

1960~70년대죠. 그때는 마을마다 방앗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제가 직접 운영했고요.

견산2리로 입향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고조부 때 들어왔다고 해요. 우리가 5대쯤 살았나.

선대들은 입향 후 뭐 하셨어요?

여기야 농사짓고 그렇죠. 우리 부모님은 방앗간을 운영했고.

이장님은 여기에서 초 · 중 · 고를 모두 졸업했나요?

진위초등학교 나와서 오산 중 · 고등학교 나왔어요. 여기가 생활권이 오산이고 그때만 해도 진위중학교는 고등공민학교였어요. 우리 때 중학교로 승격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뭐 하셨어요?

방앗간은 아버지가 운영했고 나는 군대 가기 전에는 안성 운수업체에서 일했죠. 군대 갔다 와서는 운동도 좀 했고. 한 7~8년은 (운동)했을 거예요.

견산1리에 이주한 뒤에는 뭐 하셨어요?

아까 말했듯이 방앗간 일도 조금 했는데 주로 직장 다니며 농사지었어요. 2012년까지는 농사짓고 직장 다녔지. 퇴직하고는 농사만 짓고, 마을 일도 하고.

견산1리 전경, 견산1리와 서원아파트

견산리 마을 주민들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야 대부분 농사죠. 주로 벼농사를 많이 짓지.

하우스농사는 안 해요?

여기는 하우스가 안 돼요. 하우스재배라는 게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여기는 관정을 박아도 짠물이 나와서 농사에 쓸 수가 없어요. 녹조라고 퍼런 물들도 나오고. 그래서 안 돼요.

그래도 옛날에는 진위천 변에서 수박 농사, 참외 농사 지었잖아요?

그것도 우리 마을은 물 때문에 많이 못했어요. 저 건너 신리 사람들이 많이 했지. 우리 아버지나 형은 신리 진위천 큰 둑 안쪽에서 참외 농사지었죠. 그거 지게에다 지고 송탄 아침장(송북시장)에 팔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살았던 사람들 고생 무척 많이 했어요. 그때는 여기 사람들 장사하러 많이 다녔어요.

마을 주민들 중에서 홍원제지, 매일유업 다니는 사람은 없었나요?

우리 마을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지금도 근처 직장 다니는 사람은 몇 안 돼요. 그게 대개가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배운 것도 없고, 단순 작업을 하면 힘들고 하니까 잘 안 다니지. 요즘 주변에 공장 들어온다고 해도 여기 원주민들한테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있으면 뭐 해,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하다못해 경비도 못 가요.

지역개발은 주민들보다 평택시 세금 증대에만 도움 되는 거 같죠?

그러니까 지금 공단이 두 개 생겼고 진위역 너머로 또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하등 혜택

이 없는 거야. 내가 이장 보면서 회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장에게 시정 소식 들으러 가고 하면 삼성전자 자랑 뭐하고 자랑하는데 실상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거든... 내가 생각하기는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시장 같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우리하고 상관있는 거만 말하고 돌아가라고 그런다고.

사실 개발은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큰 자본이 들어와 빌딩이라도 지으면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살아남기가 어렵죠?

개발되어서 외지인들이 들어오면 마을 분위기만 나빠져요. 우리가 첨에 여기 와서 정착할 때만 해도 뭐라도 생기면 서로 노나먹고 그랬는데 아파트 들어오고 빌라 들어오고 하면서 인심이 완전히 이반해 버렸어요. 지금은 우리 일반 단위 부락, 자연부락 사람들이 아니면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해도, 같은 견산 1리라고 해도 지금 빌라하고 자연부락하고는 소통이 전혀 안 돼. 우리는 진짜 많이 손해 보는 거야. 개발로 이익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엊그제 4리 분들하고 인터뷰했는데 정서 자체가 이 동네에 산다는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요. 지금도 자연부락 사람들만 여기(회관)에 모여서 놀기도 하고 그렇죠 이주한 사람들하고는 친근감이라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요 앞에 구멍가게도 있었는데 지금은 25시 우짜고 그러는 편의점만 있는,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동네 이야기 좀 물어 볼께요. 이 마을은 벌미, 볼미 그랬잖아요. 벌미는 이장님 젊을 때 몇 호나 됐어요?

여기는 벌미라고 그랬지. 여기가 한 4, 50호 됐어요.

지금은?

지금도 자연부락은 40~50호는 되는데 빌라가 엄청 많이 들어왔지. 빌라까지 합하면 한 200세대가 넘지. 견산1리만 해도.

세대는 엄청 늘었는데 실제 마을 주민은 아니네요?

우리가 대동회라고 주민총회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30명, 40명씩 모여요. 그 사람들만 실제 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지. 나머지는 마을 저거에 관심도 없어요.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마을에 살 뿐 관련은 전혀 없네요?

그 사람들에게는 베드타운이라고 할 수 있지. 직장은 다 딴 데 있고 퇴근하면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가게도 안 돼요. 다들 밖에서 먹고 들어오니까. 여기는 유동 인구가 없으니까 다들 나가서 회식도 하고 가게도 보고 그렇다니까.

지역사회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되었네요?

하나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기 가곡리 쪽에 공장들도 생기고 그런다지만 우리 동네에는 진짜 뭐 아무것도 없지.

완전히 딴 동네네요. 교류도 안 되고?

그렇죠. 그 사람들도 세대 차이도 나고 하니까 우리와 어울리기도 힘들고.

벌미는 논밭 비율이 어떻게 되요?

과거에는 대부분 논농사 지었고 밭농사가 조금 있었는데...

신리는 밭이 많던데요?

거기는 물이 좋으니까 밭을 많이 했지.

물 문제가 가장 컸네요?

물 문제가 크죠. 농사에 물이 중요하니까. 여기는 이동저수지에서 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 못 지어요. 이동저수지 막기 전에는 비 많이 오면 저기 장둑이 넘쳤어요. 내가 여기 살면서 서너 번 넘쳤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저수지 막으면서 아주 없어지고. 지금은 (진위천에)물 없어요.

견산1리 버스정거장과 진위서로 큰길

1970, 80년대 축산업 붐이 일이 날 때 축산업 했던 사람은 있었나요?

여기는 축산도 없었어요. 한 사람이 하다가, 젊은 사람이 했었는데 그 사람이 잘 됐어야 했는데, 돼지농장을 하다가 잘 안돼서 다른 데로 이사 갔지. 돈사(豚舍)는 여적까지 있다가 얼마 전에 딴 사람이 땅을 사서 싹 없앴어요. 그거라도 있으면 여기가 돈사(豚舍)가 있었다고 알 수 있었을 텐데...허허

채소 농사나 하우스시설농사도 잘 안 했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젤 없이 사는 동네가 되었다니까요.

견산리 성씨는 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씨, 유씨... 가 많지.

본관은?

여기는 광주 이씨지...

광주 이씨가 하북에도 많잖아요?

그렇지. 여기는 안성 이씨인가? 여기도 안성 이씨가 많지. 문화 유씨, 엄씨... 한 세 파 정도는 되지.

성씨 규모는?

비슷비슷해. 다들 5호, 6호, 많으면 7, 8호.

많다고 해도 아주 많은 건 아니네요?

그렇지. 많아도 10집이 안 넘으니까.

마을 조직은 어떻게 돼요?

진위면은 다 같아요. 대동회, 개발위원회,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이렇게 있지. 우리 마을은 새마을지도자도 있어요.

연반계, 상계는 없었어요?

상계(喪契)는 있었다가 없어졌지. 여기 상계(喪契) 좋았어요. 나이가 좀 되시는 분들이 상계 만들어서 잘 운영됐었는데 이제는 다 돌아가셨지. 한 80대 넘는 분들이 했었지. 함께 놀러도 다니고 아주 잘 됐었어요. 다 돌아가시고 몇 명 남지 않았지.

장례 방식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장례식장 영향도 있고요?

그렇죠. 상계(喪契)는 장례식장과 상관없는데 장례문화가 바뀌었죠. 옛날에는 상(喪) 나면 차일 치고 돼지 잡고 음식도 다 하고 술치고 참 잘했었는데 지금은 다 장례식장으로 가버리니 할 일이 없죠.

대동회는 마을 총회인 거죠?

그렇죠, 마을 총회지. 1년에 한 번 연말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도 한 번씩 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고 연말에 개최하지.

대동회에서는 어떤 일을 처리해요?

마을 예산, 결산 보고하고, 한 해 동안 일했던 거 보고하고 그렇지 뭐. 2년에 한 번 이장도 뽑고, 임원들도 임명하고.

개발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됐어요?

우리는 9명. 이장이 중심으로 아홉 명으로 구성되었어요.

운영위원회 성격인가요?

그렇죠, 개발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같은 건데 동네 뭔 일이 있을 때 모두 부르기가 뭐 하니까 개발위원들만 보여서 상의하는 거죠.

이게 새마을운동 때 생겼다고 해요?

우리는 개발위원회가 내가 이장보기 전까지는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내가 이장 맡으면서 활성화해서 가끔 점심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하기 전에는 거의 없었어.

반은 몇 개죠?

4개 반. 반장이 4명이지.

견산리도 리세(里稅)라는 것을 걷었나요?

옛날에는 걷었지.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어.

언제까지 유지됐어요?

내가 이장하면서 없어졌는데 2010년경에는 없어졌을 거여.

얼마씩 거뒀어요?

쌀 한 말씩인가 거뒀지 아마. 그거로 반장들도 수고비 주고 그랬는데 내가 이장하면서 없어져 버렸지. 그때 이장 월급으로 십몇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나왔어. 리세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내고 임차인들은 절반만 내고 그랬지. 쌀 한 말씩 냈어. 지금은 면사무소에서 주는 활동비만 받고 있지.

지금도 30만 원씩 주는 거죠?

그렇지. 그것도 10만 원 올려준 거여. 솔직히 이장들 하는 일 보면 50만 원 줘도 너무 적어. 내가 이장이라서가 아니라 이장도 준공무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잔일들이 점점 늘어나서 힘들다고.

이장의 역할은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전입, 전출할 때 확인 도장도 찍어주고 호적신고, 사망신고 같은 것도 대신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입하는 사람들 사후 확인과 관리만 해주지. 마을운영과 관련된 일도 많고, 면사무소에서도 이것저것 일들이 많이 와요. 농협과 관련된 일도 많고. 이장이 영농회장을 겸임하거든.

비료 지급 같은 것도 하죠?

비료는 구매는 농협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농약 같은 거, 고추 모종, 배추 모종. 농협에서 이것저것 주는 것 있으면 심부름해주는 거지. 오늘도 농협에서 쌀을 나눠줘서 노나주고 왔는데 허허.

마을에 독거노인들도 많죠.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점점 많아지죠. 면(面)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거 있으니까 하는 일은 많지 않고. 우리는 분기별로 쓰레기봉투 나오면 가져다주고 잘 지내나 들여다보고 하는 거밖에 안 하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주가 많아. LH에서 구입한 빌라(안심주택)에서 많이 사는데 얼마 안 있다 이사 가고 얼마 안 있다가 이사 가고 그러더라고. 동네 원주민은 별로 없고 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지. 내가 봉투 나오는 거 나눠 주는 사람들 열 몇 명쯤 되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많군요. 빌라 이름은 어떻게 돼요?

빌라 이름도 없어. LH에서 사서 싸게 임대하는 건데 영세민들이 들어와서 살고 그래요. 월세가 아주 싸요. 한 달에 25만 원한다던가 15만 원인가, 하여튼 아주 싸요.

LH에서 안심아파트로 사용하는 서울아트빌라와 길가의 상가들

부녀회는 어떻게 운영돼요?

부녀회도 활성화됐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니까 거기도... 어렵지 허허.

부녀회장님 이름은?

김한순. 마을 행사도 있고 동네서 상 치르고 할 때는 부녀회에서 일을 다 했지. 지금은...

부녀회원들 나이도 많고 해서 활동이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나이 들면 둔해져요.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래야 하는데 시골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부녀회원들도 60, 70대가 하니까 힘들지. 회원들이 다 나이가 많아 가지고 허허허.

청년회는 어때요?

청년회는 거의 활동이 없고, 동네에 청년이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동네는 청년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회의도 하고 그래요. 자기들이 회비도 내고, 마을 내 애경사를 돕기도 하고.

노인회는?

우리는 52명.

그 전부터 노인회가 있었어요, 아니면 평택시에 노인회 지부가 생기면서 시작됐나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마을에 경로당이 있어서 운영이 되었죠.

코로나 전 노인회 활동은?

큰 행사는 없었는디, 여기서 함께 식사도 하고, 1년에 두 번씩 놀러도 가고 그래요.

어려운 사람 돕는 일도 해요?

지금은 어려운 사람은 없고 옛날에는 도와주기도 했어요.

마을의 공동시설에 대해 여쭐께요?

마을회관 겸 노인정 있고.

전에는 마을회관이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가 맞아요. 새로 지은 거예요. 전에는 한식 건물이었고 이것은 9년째 됐어요. 2011년에 건축했죠.

전 회관은 언제 지은 거예요?

여기가 본래 연못이었어요. 연못을 메워서 지은 거지. 한 10년 되었나.

마을회관 없을 때는 어디에서 모였어요?

그때는 마을 사랑방이죠. 사랑방이래야 개인 집에 있는 것인데 모여서 민화투도 치고 그랬지. 그러다가 새마을운동하면서 마을회관 지었지. 우리 회관이 벌써 세 번째 지었어요. 저 아래에 회관이 한 번 있다가 팔고 여기 연못 메워서 지었고. 새로 또 짓고.

그럼 새마을운동 전에도 마을회관이 있었네요?

있었죠, 우리 동네는. 우리 애가 나서 마을회관 자리에 있던 유치원에 다니고 그랬으니까.

마을공동창고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고 송탄농협 거 있었고.

전기는 언제 들어왔어요?

전기는 일찍 들어왔어요. 내가 이 마을로 왔을 때도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2리는 늦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등잔불 켰어요. 2리는 마을이 작고, 20호 정도 됐으니까. 그때는 돈을 내야 전기가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신리는 1963년경에 들어왔다고 해요?

여기도 그때쯤 들어왔을 거예요.

수도는 언제?

전에는 간이수도 섰었지. 우물을 하나 깊이 파 가지고 모터 놓고 동네가 모두 썼지.

우물은?

여기는 동네 우물이 세 개가 있었어요. 일반 가정에도 우물을 팠었어. 돈 있는 사람들은 모터 놓고 썼었고. 새마을운동 하면서 간이상수도 놨지.

광역상수도는?

여기는 꽤 빨리 들어왔어요. 여기는 일찍 들어왔어요.

그럼 2010년쯤 되겠네요?

아뇨, 그보다 빨리 들어왔어요. 2000년대쯤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광역수도로 바뀌었지. 송탄에서 들어오는 수도였는데 그게 나중에 광역수도로 바뀌었지. 거기(송탄)는 물이 부족하니까. 지금 여기 물은 팔당물인데 진위천 물하고 섞어서 써요. 저기 송탄 취수장 거기로 가서 분배되는 것 같더라고.

전화는?

전화는 1970년도인가 조금 뒤엔가 들어왔을 거예요. 내가 방앗간 한다고 1972년인가 놨으니까. 그때 우리 집 전화번호가 216번이었어.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어. 옆에 손잡이 돌려가지고 교환 나오면 연결해주는 거.

완전 수동전화기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다른 동네보다는 빠른 거지. 도시가스도 빨리 들어온 편이고. 우제항 국회의원이 해 준 거니까 꽤 됐지. 우제항씨 국회의원 할 때 그거 하나 해줬어.

상하수도 시설하니까 편리하겠네요?

편리한데 돈이 비싸. 하수도 요금을 처음 평택이 통합시가 될 때 시골은 세금을 깎아준다고 했는데 지금 똑같이 받아. 평택시 전체가 다 똑같다고. 하수도 요금도 견산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겼단 말야, 그러면 견산리라도 뭔가 혜택을 줘야 하는데 하수도 요금의 80%나 내요. 내년에는 100%가 된데요. 시골에는 솔직한 얘기로 수도로 텃밭에 물이라도 줘야 하는데 지금은 비싸서 그걸 못해요.

주변에 공장들 들어올 때 주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좋았죠. 그래도 일자리 좀 많이 생겨서 돈 좀 벌 것 같아서 좋았는데...

1970년대에는 공장 들어오면 발전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랬죠. 지금이야 소음이다 공해다 해서 반발도 많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랬지.

그럼 주변 공장들이 준 혜택이 많지 않네요?

우리 동네 아이들 중에는 한 10명쯤 취직했는데 그 애들도 직장 다니면서 마을에서 안 살아. 다 나가서 살지. 여기도 연령대로 봐서 내가 젤 젊은 축에 속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젊은 사람 몇 있고. 여기 견산리 전체가 그래요. 이 동네 저기한 사람들이 다들 80세 조금 넘어요. 나하고 10살쯤 차이가 나잖아요. 그분들하고 나하고 그러는데 그다음이 없어요. 중간이 붕 떴지.

이 마을도 금방 도시화 되겠네요?

여기는 될 게 없어.

도시화 되면 마을에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할 텐데 그 부분은 어때요?

개발되면 외려 손해 봐요. 지금도 그래요. 여기 이쪽에 공장을 하나 짓는다고 장비 들여놓고 흙 털고 콘크리트 치더라고. 공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 여기에 살아야 동네도 발전되고 그러는데 다 나가서 사니 전혀 도움이 안 되지. 공장 들어온다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없어요.

마을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한 20집은 되죠.

농사짓는 방법들이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던데요?

지금은 전부 기계화가 돼서.

모종도 가져오죠?

모종도 농협에서 제공해주고, 벼 못자리도 일부는 개인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들 농협에서 사 오고. 모종들도 다 사 오고. 다 사서 써요.

그럼 농민들은 논갈이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네요?

못자리하는 사람이 3집밖에 안 돼요. 힘들게 할 필요도 없고.

그분들은 왜 직접 못자리를 해요?

사다 쓰면 비싸지.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좋지. 인건비 때문에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못 하는 거지.

기계화 영농하면서 몇만 평씩 위탁영농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졌나요?

여기는 안 그래요. 자기들이 직접 농사짓고 논 갈 놓으면 모심기 같은 거만 기계가 해주면 나머지 물 관리는 직접 하다가 벼 벨 때만 기계 빌려서 베니까 남한테 맡길 필요가 없죠. 나머지는 할 게 없어요. 물 대는 것은 연세 드신 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자기 논이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지.

요즘에는 계약재배도 많이 하고 도정 방식도 바뀌었던데요?

우리는 벼 수확한 거 거진 농협에서 수매해요. 우리 동네 농사짓는 것은 거의 전부. 본인들 양식할 거만 조금씩 건조해서 방앗간에서 찧어오지. 옛날에는 마을마다 정미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기 야막리까지 가서 찧어오고 그러지.

평택시 슈퍼오닝 쌀 계약재배인가요?

그렇지 여기는 슈퍼오닝 쌀 계약이고 자기가 먹을 쌀만 말려서 야막리로 가서 찧어오고 그러죠.

신리 앞에도 도정공장이 있던데요?

거기는 개인이 운영하는 덴데 정부 수매 받고 개인 것은 안 받아. 그래서 우리는 야막리로 가는데 일부는 양감면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정미소도 멀어져 버렸지. 야막리 것은 그게 은산리에 있었던 게 거기로 옮겼다고.

계약재배는 어떻게 도정해요?

슈퍼오닝 계약재배는 논에서 벼를 베고 난 뒤 물벼로 넘기면 그거로 끝이예요. 농사 끝이예요. 우리한테는 참 편하죠. 먹을 것만 말려 도정 공장에 가서 찧으니까 얼마 안 되지.

당제는 지내나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구정 지나면 우물고사라고 지내지. 크게는 안 하고... 허허. 그것도 없애자는 사람도 있고 위태 위태 해요.

어디에다 지내요?

저기 공동우물 있어. 깊 옆에 있는데 덮어놔서 잘 안 보일 거여.

우물 이름은?

우물 이름은 없어요? 웃우물이라고 했나?

언제 지내요?

정월 초에 길일이라고 책 보고 날 잡아서 지내요. 제주는 이장이 하고.

제물은 뭘로 올려요?

떡하고, 백설기. 돼지머리 하고, 실과하고 포, 술하고 올리고.

기본은 하네요?

딱 기본만 해.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 지내고 있지.

당제는?

당은 없어서 안 지내지.

김만영(남, 1943년생, 견산1리 노인회장)

일시	2021년 9월 14일	
장소	견산1리 마을회관	
구술자	전북 고창이 고향이다.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짓다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무작정 상경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평택으로 내려와 모내기 품꾼으로 일을 시작했다. 간장 장사, 양은그릇 장사, 철물점, 구멍가게, 소금장수 등 여러 가지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절약하여 돈을 모았고, 1977년 매일유업 앞에 집을 매입하여 견산리에 정착했다. 자수성가하여 현재 3층짜리 집과 재산을 일구고 1남 2녀를 키웠다.	
면담자	김해규	

회장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전북 고창예요. 전북 고창.

고향 어디세요?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 흥덕 지나서 고창 다음에 대산 못 가서. 어떻게 고창 잘 아시네.

고향에서 언제 올라오셨어요?

군대 생활 마치고 고향에서 나왔습니다. 1969년도에. 학교는 여기에서 안 다녔습니다.

학교는요?

고창에서 나왔지. 성송초등학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고향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나는 형님 밑에서 한학 공부를 했어요. 한 2년 정도 논어, 맹자를 배웠지. 농사지으며. 직접 배운 건 아니고 형님은 농사짓고 나는 글방 다니며 한학 공부를 했어요. 사서(四書) 중에서 중용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배웠어요.

한문을 잘하시겠네요?

옛날에는 많이 알았는데, 한 3천 자 정도 알았는데 지금은 많이 잊었어요. 뜻은 알고 읽기는 읽겠는데 쓰려고 하면 잘 모르겠어.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4남매, 1녀 3남. 큰 누님은 91살로 살아 계시는데 큰형과 둘째 형님은 작고하시고.

그럼 군대 가기 전까지는 고향에 계셨네요?

고향에서 한학도 하고 농사지으며 지내다가 군대를 갔죠. 1964년 10월 20일에 갔나. 군대 생활도 편하게 잘했어요. 대구 제1 수사본부에 있어가지고 좋은 디 있어서.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그때 대구 제1 수사대라고 하면 대단했는데 들어가니까 그러데. '너 돈 얼마 쓰고 왔어' 그러더라고. '돈 안 쓰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안 믿더라고. 군대에서 운전을 배워가지고 운전학교를 나와서 운전병으로 들어갔었는데, 헌병 병과는 아니고, 운전 배울 때는 배고파서 설움도 많이 받았는데 회식도 많이 하고. 군대 생활은 편하게 잘 있었습니다.

평택은 전역해서 올라오신 건가요?

전역은 1967년도 4월 15일 자로 전역했는데 그 해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1967년도 1968년도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엄청 가뭄이 있어가지고 우리 작고하신 형님하고 60일 동안 물을 퍼 올려서, 우리 집이 논이 1천 평 있었는데 용두레로 물을 퍼 올려서 모를 심는데, 다른 논들이 벼가 팰 때 우리는 모내기를 했어요.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수확하니까 쌀 3가마인가 네 가마쯤 나왔어요. 다음 해에도 연거푸 흉년이 들어서 그때 박정희대통령이 관정 파라고 해서 관정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형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아무래도 농사 가지고는 먹고살 수 없으니 객지에 나갈래요' 라고 했더니, '연줄도 없이 어떻게 객지에 나가려고 하냐' 라고 하기에, '객지 생활해야지 이 땅 가지고 두 형제가 농사지어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했더니, 돼지 한 마리 팔아서 4,500원 받은 것을 주기에 받아들고 무조건 서울로 갔어요. 그때 하루 품삯이 200원, 300원 했었어요. 내가 서울역에 도착했더니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그때는 4월 15일이면 밤에 으슬으슬 춥고 그랬어요. 연고도 없고요. 서울역에서 있으려니까 어떤 부인네가 와서 '잠을 안 잘 거냐' 라고 물어봐요. 아가씨하고 자는 게 아니고 숙식을 할 거냐고 물어봐. 그래서 얼마냐고 했더니 400원이래요. 400원이면 이틀 품삯이지. 선뜻 가지 못하고 주변을 돌아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의자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지 않고 날밤을 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안 갈랍니다' 하고 나도 의자에 앉아 하룻밤을 잤지. 그다음 날부터 일거리를 찾아다니는데 '밥 먹여주고 재워주면 어떤 일이라도 할랍니다' 라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때는 그만큼 취업난이 심하고 일자리가 없었지요. 나 밥만 먹여달라는데도, 숙식만 제공해주면 어떤 일이라고 하겠다고 하는데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내가 체격이 왜소해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 그래도 일은 잘했거든요. 막일이라도 하겠다고 하는데도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에 정착을 못해가지고 평택 땅을 밟았어요.

평택에는 일자리가 있었나요?

평택에서는 모내기를 했는데.... 평택에는 고향 친구가 있어가지고 거기 와서 일을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서탄면 마두리라는 곳에 가서 모내기를 했습니다. 모내기를 했는데 그때는 동전이 없어가지고 100원짜리 파란 돈(지폐)을 하루 일하면 그걸 300원을 그 자리서 줘요. 기분은 좋더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여튼 갈 데가 없으면 여기서 숙식을 제공할 테니까 한 열흘쯤 모내기를 해 줄 수 있냐' 고 그래요. 마두리가 잘 사는 동네예요. 모를 심으러 갔는데도 우리 고향에서는 모내기철에도 쌀밥을 못 먹었어요. 보리 반절 섞어서 먹었는데 하얀 쌀밥이 나와요. 어릴 때는 하도 조밥을 먹고 쌀밥은 제사 때나 먹었는데 일꾼들에게 쌀밥을 주니 눈이 휘둥그래졌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잘 사는 데가 있냐. 모심는 사람들한테 하얀 쌀밥을 주고' 하며 놀랬죠. 더구나 따끈따끈한 방에다 재워주지 쌀밥을 주지. 그래서 열흘 동안 일했는데 열하루인가 품

을 팔았어요. 그러고 품값으로 3,300원을 받아서 3,000원을 주고 자전거를 사서 간장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것도 중고 자전거인데 3,000원을 줬어요. 그 뒤로 내가 안 해본 장사가 없어요.

간장 장사해서 돈 좀 벌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뿐이죠.

숙식은 어디서 하고요?

숙식은 간장 배달해주는 집에서 … 간장을 도매로 사다가 자전거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팔아오라고 줘요. 간장도매점에서 그러는 거죠. 니가 팔은 만큼 돈 벌어 먹어라는 거죠.

어떤 간장을 취급했어요?

샘표 간장 같은 것은 비싸니까 못하고, 막간장이죠. 큰 통에다 담아다가 나눠서 자전거에 싣고 팔러 다니는 거죠. 그게 장사가 잘 안 돼요.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은 없는데.

그걸 얼마나 했어요?

6개월쯤 했어요. 1969년도 4월에 왔으니까 12월까지 해가지고. 그랬는데 먹고 살기는 했지만 큰돈은 못 벌었죠.

간장 장사 다음으로는 뭐 하셨어요?

그 다음으로는 리어커를 사서 양은 그릇 싣고 고물행상을 했어요. 동네마다 다니며 고물행상을 했습니다. 어렵게 살았어요. 지금은 … 재난지원금 신청하러 가니까 ‘어르신은 해당이 안 되네요’ 하더라고. 원래 20만 원 이상은 안 되는데… 농어촌에 사니까 50% 감면 해가지고 의료보험비 24만 원을 낸다고 해당이 안 된데요.

양은 장사는 몇 년 했어요?

한 3년 했죠. 양은 그릇 싣고 다니며 물물교환했죠. 그때가 놋그릇하고 스텐그릇하고 교환하던 시기예요. 놋그릇 같은 것은 닦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들 폐기처분 했어요. 스텐그릇 같은 걸로 바꾸고 그랬거든요. 그때가 1971년도쯤인가.

그래서 돈 좀 벌었어요?

돈 좀 벌었죠. 돈이 되어서 요거만 한 건 아니고 그때 우리 집사람 만나고…

교환한 놋그릇은 어디에 가져다줬어요?

그건 고물상에다 갔다주는 거죠 뭐. 놋그릇하고 양은그릇은 교환을 해줘요, 도매상에서. 도매상에다 가져다주는 거죠.

사모님과 결혼은 언제 했어요?

1970년도 했지요.

그때는 살림이 폈을 때가 아닌데요?

1971년에 했나...(갸웃). 1971년도가 맞아.

어떻게 만났어요?

남남북녀라고 우리 집사람은 백령도 사람이예요. 평택에서 처형되는 사람이 살았는데 고물상에서 일하던 분이 내가 악착같이 일하니까 좋게 보고 소개시켜서 (결혼)한 거지. 그때 우리 집에서 전라도로 선보러 오라고 해서 갔었어요. 29살 때였으니까. 우리 고향 사촌들 6촌들은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데 내가 결혼도 못하고 사니까 청혼이 들어왔던 가 봐요.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이죠. 선보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중매쟁이한테 들은 얘긴데 '신랑은 착해 보이고 야무져 보이는데, 맘에도 드는데, 사는 집이 농짝이라도 해주면 들어갈 공간이라도 있어야 딸을 주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딸을 주기가 뭐하다고. 우리 형님이 살던 집도 작은 오두막집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는 가슴을 쳤죠.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되겠구나' 굳게 결심했어요. 그 뒤로는 고향에서 선보러 오라고 해도 안 갔어요. 그러고는 우리 집사람 만났지. 백령도 사람인데.

그 당시는 선보면 어디서 만났어요?

그때 만나면 처음에는 다방에서 만나고 나중에 결혼 승낙을 양쪽에서 받아가지고... 신부집은 안 갔어요. 백령도가 그때는 인천에서 배 타고 11시간 걸렸어요. 처형이 사는 집에서 만나가지고 승낙받았지요.

만난 뒤 얼마 만에 결혼했어요?

어 그래도 약혼식까지.... 처형 집에 가서 인사하고, 시골집은 처형하고 나하고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와서 처형 집에서 간단하게 약혼식 했죠. 한 3개월 사귀었어요. 형식적으로 반지 하나 교환하고 약혼했는데 사진도 없이 형식적으로 간단하게 했어요. 반지만 주고받고 형식적으로 했지요.

사모님은 맘에 들었어요?

딱 보니까 마음씨가 변함이 없고 착해요. 배운 것이 없어 초등학교만 나왔는데. 결혼식은 우습게 했어요. 우리 사촌들이나 집안 내 사람들은 구식으로 성대하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결혼식장에서 신식으로 했어요. 형편 되면 구식으로 하고 싶었는데.

어디서 했어요?

삼보예식장. 한성예식장도 있었는데 삼보예식장에서 했어요. 극장에서 예식장으로 바뀌고 첫 번째로 했어요. 결혼을 하려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주례를 부탁했더니 다들 거절해요. 양복도 없고 그렇다면서. 그래서 삼보예식장 주인으로 한민수라고 국회의원도 나가고 한 사람, 지금은 작고했는지 모르겠어, 그 양반한테 사정사정 부탁해서 그 양반이 주례를 서는데, 주례사를 할 때 이런 주례는 처음 한다면서 말하길래 몸둘 바를 몰랐죠. 그리고 홍태루 거기서 자장면을 시켜서 손님들 대접하고. 그때는 식당을 빌려서 해도 음식을 집에서 해가서 대접하는데 나는 그럴 형편도 못 되고 해서.... 그때 내가 그랬어요. '내가 형편이 못돼서 결혼식을 조촐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인사를 하고 앞으로 잘 살겠다’ 고 다짐했어요. 우리 결혼할 때 백령도라 처부모님도 못 나오고, 처남도 못 나오고, 처형만 참석했어요. 우리 집에서도 몇 명 못 오고 해서 양가 합쳐서 20명도 못 왔어요. 그렇게 조촐하게 결혼을 하고서 그 뒤로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돈 10원짜리를 벌 수 있다면 10리를 걸어가서 장사를 했고. 여튼 없는 설움 당해 가지고 굉장히 지독하게 돈을 벌었어요.

견산1리에서 견산리 산성으로 오르는 마을길, 견산1리 상가들

결혼 후에는 어떤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계속했죠. 철물점도 하고.

철물점도 하셨어요. 어디에서요?

하북에다가. 구멍가게도 하고, 연탄장사도 하고. 아무튼 안 해본 장사 없이 다 해봤습니다. 소금 장사는 우리 가게에 소금을 가져다 놓고 파는 것으로.

그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장사는 뭐예요?

그래도 고물 장사할 때가 젤 많이 벌었죠.

고물 할 때 재산이 쌓였네요?

야튼 내 생활 수칙이 ‘빚지지 말자, 저녁거리가 없으면 굶자’ 라고 해서 절약절약 또 절약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절대 헛돈을 안 쓰고 절약해서. 쌀 거리가 없으면 굶자 해서 절대 신용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없어도 신용을 잃지 않으니까 ‘내가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금방 줬어요. 그 당시 사채를 빌려 쓰면 이자가 무척 비쌌어요. 3부 4부였어요. 딸라빚을 빌려 쓰고 할 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돈 1천만 원만 은행에 넣으면 먹고산다고 했어요. 천만 원만 넣으면 한 달 이자가 16,000원이었어요. 회사원들 월급이 5,000원, 6,000원일 때. 그때 이 동네 땅값이 한 평에 300원이었으니까. 1천만 원만 모으자 목표를 세웠어요. 지금 땅값이 60만 원이 넘으니까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어떻게든 천만 원만 모으면 된다고 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100만 원, 200만 원은 돈도 아닌데.

장사하기는 하북이나 송탄이 나은데 돈을 벌었을 때 왜 시내로 진출하지 않았어요?

시내로 나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안 나간 거예요.

이 동네에는 언제 정착했어요?

송탄에서 조금 있다가 이 동네는 1975년도인가 1976년도에 집을 사가지고 왔어요. 420만 원인가. 그때 집을 구했을 때는 꿈만 같았지.

왜 이 마을로 왔어요?

그 당시 (견산리에) 매일유업을 짓고 있었어요. 우리가 철물점할 때인데 매일유업에 납품을 했어요. 당시에 철물 납품을 해서 현장 소장에게 못 같은 거 등등 납품하고, 함바에 두부 콩나물 부식 같은 것도 납품을 하고. 그러다가 매일유업이 준공되니까 하북은 거래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매일유업 정문 앞에 마땅한 집이 나와 그걸 사가지고 이사한 거죠.

그 집은 어떤 집이었어요?

1973년에 지은 기와집인데 주인 말로는 100만 원을 주고 지었다고 했어요. 그 집이 가겟방까지 모두 6개인데 방 하나에 3천 원씩 방 3개를 세를 줬어요. 아 방이 5개였구나.... 여섯 개인가. 우리가 두 개 쓰고 나머지 세를 주고. 기사들도 살고 경비들도 살고 그랬어요. 가게에서는 구멍가게와 철물점을 같이 하면서 매일유업에 청소도구 같은 것도 납품하고 소금도 납품하고. 한주소금이었어요. 매일유업에서는 한 달에 소금을 1톤씩 썼어요. 그 집을 헐고 나중에 3층 집을 다시 지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게 그거죠.

이때 돈 벌은 것은 어디에 투자했어요?

집 옆에 땅도 사고. 370평인가 하는 것을 평당 10만 원씩 샀어요. 다른 땅은 평당 3만 원이었는데 그건 안 사고 가게를 짓는다며 우리 가게 옆의 땅을 샀어요. 너무 비싸게 샀죠. 땅은 주인이 따로 있는가 봐요. 따로 있어요.

그럼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에는 살림이 폈네요?

그렇죠. 결혼한 지 10년도 안 돼서 집도 사고 땅도 샀으니까. 수원에도 집 사서 1억쯤 남겼고. 지금 거기가 어디예요, 원균장군 묘 있는데. 도일동 거기에 9만 원 달라는 땅 안 사고 여기를 샀는데 지금 거기는 브레인시티 짓는다고 엄청나게 오르고.... 땅은 다 제 주인이 있는 가 봐요.

자녀는 몇 명을 두었어요?

1남 2녀.

아들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아무래도 아들이 낫죠. 내가 못 배워서 애들은 잘 가르치려고 수원에다 집을 샀어요. 그런데 머리가 못 따라오더라고. 우리 6촌 형님은 나보다 5개월에 빠른데 3남 1녀가 전부 다 서울대, 고려대 나와서 한 사람은 차관까지 하고, 한 사람은 감사원 근무하고, 또 한 사람은 대학교수고, 또 하나는 ㈜대상 중역이고 그렇게 사는데. 나는 돈 없어서 안 가르친 것 아닌데 애들이 못 따라와

서 출세를 못했어요. 수원에 집을 사서 그곳에서 교육시켰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6촌 형님은 무슨 일 하세요?

형님은 사법고시 보다가 여러 번 떨어졌고 3급 공무원(행정고시) 시험에 합격해서 계속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나와서 전관예우를 받아 법무사로 일했어요.

자녀분들은 무슨 일 하세요?

아들은 외국 나가 있고... 지금 코로나로 들어오지도 못해요. 사위는 사업하고 있고.

공부 좀 못해도 잘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창들은 아들들이 서울대 다니는 사람이 6명인데....

지금까지 살았던 것 돌아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약해야죠. 절약하지 않으면 돈을 못 모아요. 우리 동네도 같이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도 맨날 술만 먹고 하는 사람은 그저 그런데 다른 사람은 땅 10마지기씩 사고 그러잖아요.

이광섭(남, 1941년생, 견산1리)

일시	2021년 9월 15일	
장소	견산1리 마을회관	
구술자	본관은 성주이다. 고조부 때 화성시 정남면에서 입향했다. 어려서는 비교적 넉넉했지만 부친이 가산을 탕진하면서 어렵게 살았다. 홍원제지가 설립될 때 입사하여 평생을 회사원으로 지내다가 정년퇴직했다. 마을 토박이로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민속신앙이나 놀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억을 갖고 있다.	
면담자	김해규	

어르신 본관은?

성주예요.

견산리에 입향한 것은?

고조 때 들어왔지.

고조부는 어디에서 이곳으로 이주했어요?

화성 정남에서 왔다고 해.

견산1리에는 성주 이씨가 몇 명이죠?

이 동네에는 우리 형제하고 사촌들밖에 없어요.

몇 집이나 돼요?

4집이지.

옛날에는 여러 집 살았어요?

옛날에는 성주 이씨는 별로 없고 안성 이씨들이 많았지.

마을 규모가 옛날에는 몇 호였어요?

한 60여 호는 됐었지.

마을회관 주위에 집들이 많았어요, 길 건너편에 많은 편이었어요?

길 위쪽에 많았는데 많이 없어졌죠. 폐가들도 많고 헐어버린 집들도 있고.

도로 좌우의 집들은 나중에 생겼나요?

그렇지. 그건 나중에 생긴 거지.

어르신 학력은?

나는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집안이 어렵게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남의 집에서도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진위초등학교는 몇 학년까지 다녔어요?

제가 6.25사변 때문에 4학년을 두 번 다녔어요. 6학년까지 다니기는 했는데 졸업장은 못 받았지.

집안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노름을 좋아했어요. 그 전에는 살만치 살았어요. 그런디 땅 있는 것 다 팔아 잡수면서 어려워졌지. 우리에게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이 왜정 때 일본으로 징용을 갔었어요. 징용으로 가서 계시다가 탄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저기에 나왔었지, 저기 뭐여 보상이 나왔어. 그때 말로다가는 장안들 논을 다 살 수 있는 돈이었대요. 그 돈이 200원이라나 2,000원이라나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거까지 다 조지고, 집에 있는 거 다 조지고 돌아가셨어요.

곧바로 돌아가셨어요?

내가 둘째인데 내가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형님은 형님대로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시지도 않고 그냥... 아주 집에 보탬이 없었어요. 내가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식구들을 다 건사했죠.

형제들이 어떻게 됐어요?

형제가 6형제여. 딸이 하나고. 그 저기(뒷바라지)를 다 내가 했어요. 형님이 안 한 걸 내가 다 한 거여. 그렇게 살다가 동생들 다 결혼시켜서 나가 살게 하고. 지금은 다들 괜찮게 살아요. 나도 밥 먹고 살게 되었고.

어르신은 재산도 없었을 거 아니예요?

집도 초가지붕이 낡아서 하늘이 보였는데. 집은 컸는데 돈이 없으니께 지붕을 못 해서 비가 새고 하늘이 보였어요. 그걸 헐고서 나중에 슬레이트집을 내가 지었어요.

슬레이트 지붕을 지은 것은 새마을운동 때인가요?

한참 정부에서 지붕개량 할 때 그때 했죠.

어르신은 어떻게 먹고살았어요?

(머슴으로) 남의 집 살다가 그거 안 되는 바람에 회사에 들어갔어요. 홍원제지 그거 처음 생길 때부터 입사해서 기계 놓고 그랬죠. 우리는 일본 놈들, 독일 놈들하고 같이 일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퇴하고 머슴 살다가 회사 다닌 거네요. 머슴할 때 애기머슴이었어요 상머슴이

었어요?

나는 거시기해서 중간 머슴쯤 대우받았죠. 애기머슴이 쌀 6가마고 상머슴이 12가마를 받았는데 나는 8가마를 받았어요. 군대 갈 때까지 회사 다녔어요.

군대는?

징병검사도 내가 을종을 맞아서 군대도 안 나갔어요. 지원하면 받아줬는데 … 회사에 다니면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보초를 서고 그거 했죠.

산업체 특례를 받은 거네요?

그렇죠. 낮에 일하고 밤에 보초서고… 그것을 1년 6개월을 했어요.

1년 6개월이 끝나고 홍원제지 들어간 건가요?

아니 홍원제지 다니면서 군대 마친 거지.

홍원제지

홍원제지는 몇 살 때 들어갔어요?

22살 때.

그럼 몇 년 도죠. 어르신이 1941년생이니까 1962년이네요. 그때 함께 홍원제지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어르신은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나는 경비를 잘 알고 지내서, 그분이 나한테 친구면 친구고 형이기도 한데 그분 소개로 들어갔죠.

입사해도 배운 것 많지 않고 기술도 없고 한데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일이지 뭐. 기계 놓는데 보조로 심부름해주고 무슨 연장 달라면 주고 그랬지. 그러

다가 도비를 배웠어요. 기계 옮기고 설치해주는 거.

도비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렇죠. 기계 올리고 들어서 앉혀주는 일을 하는 기계죠. 도비기술자를 하다가 생산직은 아주 나중에 했어요.

몇 살까지 일했어요?
저기 했으니께 정년까지.

60살요?
그렇죠.

홍원제지 월급이나 처우 조건은 어땠어요?
거기가 많이 준다고 그랬죠. 퇴직금 타갔고 지금 사는 집을 지은 거예요. 슬레트집을 없애버리고. 집을 지으니까 뿌듯했죠. 나는 거거로다 만족하고 일에서 손을 놨어요.

홍원제지는 뭘 생산하는 회사예요?
백지, 백지 만들어요.

먼지 같은 거 많이 나겠네요?
아니 그건 부서마다 다르죠. 나는 뭐를 했냐면은 기계 돌리고 하면서는 공무관에 저기 되갔고 돌아다니며 기계 살피고 기름이 없으면 채워주고 그런 거 했죠.

설비 쪽 일을 했네요?
그렇죠. 힘들지는 않았어요.

홍원제지가 먹고 살고 자녀들 키우는데 큰 혜택을 준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자녀들은 몇 명을 뒀어요?
3남매요. 아들 둘 딸 하나.

자녀들은 잘됐어요?
잘 됐어요. 잘 있는데 막내 하나가 여자한테 돈을 뜯기는 바람에 결혼도 안 하고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직장은 다니고요?
다니죠.

동네 이야기 좀 여쭐께요. 견산리 부성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냥 성(城)이라고 불렀죠. 옛날 이 동네는 벌미라고 불렀고.

성 뒤쪽은 '성뒤'라고 불렀고요?

하북은 아랫성지, 가곡리는 뒷성지라고 불렀죠.

성벽의 높이는 옛날하고 지금 하고 같아요?

그건 모르는데 이 앞이 옛날에는 바다였데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옛날에 우물 파러 다녔어요. 우물을 파는데 20자 들어가니께 천지개벽했다고 들었어. 나무가 자빠져서 나오더라고, 20미터를 파는데. 그래서 옛날에 천지개벽했나보다 했지. 그것도 그렇고 여기 뒤쪽에 가서 파보면 조개껍질 나오고 그랬어요.

신리 사람들은 백중사리 때 물 많이 들어오면 바닷물이 요 앞까지 들어오는 것을 봤다고 하던데요?

바닷물이 요 앞까지 온 게 아니라 냇갈 물이 둑이 터져가지고 신리 쪽으로 하북 쪽으로 물이 끼었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견산리는 물난리 영향이 있었나요?

여기는 없어요. 미군 헬기가 수몰민들 싣고 와서 여기로 피신했는데요 뭐.

견산리에서 신리 쪽으로 넘어갈 일은 많이 없었나요?

없었어요. 우리는 봉남리나 요 뒤쪽(가곡리)하고 왕래했죠.

견산1리는 우물이 세 개라면서요?

윗우물은 마을 위에 있고, 가운데는 중앙우물이고, 하나는 아래 길옆 떡방앗간 뒤에 있었는데 그건 얕았어요. 다른 건 다 메웠고 윗우물만 뚜껑 덮어 놨어요. 하북사람들도 길어다 먹었어요. 하북은 물이 짜서 먹기가 힘들었지.

우물고사 지내는 우물이 윗우물인가요?

그렇지

우물고사는 어떻게 지냈어요?

어릴 때는 야구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놀았지 뭐.

아뇨, 놀았던 거 말고 우물고사 지낸 거요?

우물고사 말고도 우리 마을도 당제사를 지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들은 건데 처음에는 소를 잡아서 지냈데요. 그런데 자꾸 줄어가지고 돼지를 잡다가...

우물고사와 당제사를 함께 지냈네요?

그렇죠.

당은 어디 있었어요?
당집은 집을 짓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무였죠.

무슨 나무였어요?
참나무. 옛날에는 사람 둘이서 해도 손이 안 닿을 만큼 아름드리였는데 위쪽은 다 썩었어요.

그게 지금도 남아 있나요?
아이 남아 있기는. 저기 아파트(서원아파트) 들어서면서 없어진 거지.

언제 지냈어요?
정월에 지냈지. 좋은 날 잡아서. 우리 또래 아니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 1980년대까지는 지냈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하도 오래되어서 뭐.

성우운수와 영풍제지

우물고사는 어떻게 지냈어요?
지금도 (마을에서) 해요.

우물고사는 옛날부터 돼지 잡아서 지냈고요?
돼지 잡았는데 지금은 돼지머리로만 하고 허허.

당제사는 정월에 소 잡아 지내다가 나중에 소머리로 줄어들었다가 1991년 아파트 들어서면서 중단됐고, 우물고사는 돼지 잡아 지냈는데 지금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장이 자꾸 바뀌고 하면서 그것도 변해가요.

대보름에 깡통돌리고 투석도 하고 그랬어요?
깡통에 불 담아서 돌리고 신리 사람들하고 싸움 붙어서 하고 그랬어요.

투석은 안 했어요?
아이 그건, 아니지.

지금은 추석과 설 명절만 귀하게 여기는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우리 때도 마찬가지지 뭐.

단오나 백중에도 놀지 않았어요?
백중 때도 놀았어요.

백중날은 '머슴날'이라고 해서 주인이 머슴들에게 돈을 주고 맘껏 놀라고 했다는데 그것은 경험해봤어요?
그렇게도 하고 했지만 나는 경험이 없죠. 옛날에 뭘로 돌아가신지 모르고 하는 분들은 절에다 패(위패)를 모시고 백중 날 제를 올리고 그랬죠.

견산1리는 상여집이 있었나요?
있었죠, 지금도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공동묘지 아래에 있어요. 지금은 네모반듯한 뭐라고 해 컨테이너에 넣어뒀는데 안 쓰고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요즘에는 안 쓰기 땜에... 그것도 상여를 새로 샀는데 한 번도 안 쓰고 넣어뒀는데 그대로 있는 거지 뭐.

언제 구입했어요?
20년 넘었지 아마.

1990년대 후반쯤 되겠네요.
그렇지.

장례식장 많아지면서 상여를 안 쓰게 된 거죠. 상여 멜 사람이 없어서도 안 쓴다고 하던데요?
멜 사람도 없고 앞에서 요령 흔드는 사람도 없고. 우리 친구들이 상여소리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상여도 항상 멨고. 동네에 우리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상여도 메고 마을 대소사도 잘 도와주고. 다 죽었어요.

친구들이 동네에 많았고 그분들 계실 때는 마을 운영이 잘됐네요. 그때는 청년회도 잘 됐겠네요?
청년회도 잘 됐죠.

향우회같은 조직은요?
향우회는 우리 후배들이 했고 우리는 계를 묶었었지. 부락이 전체.

연반계인가요?
연반계죠. 연반계를 묶어서 했지.

향우회는 지금도 해요?
해요, 지금도 하더라고.

어떻게 해요?
견산1리, 하북1리, 산직리 이렇게 해서 초상이 나면 가서 일을 도와주고 해. 상 났을 때 가서 일을 도와준다고.

지금은 상조회에서 다 해주잖아요?
지금은 예식장에서 다 하기 땜에 별로 할 일이 없지.

연반계가 없어진 시기는?
한 30년 전에 없어졌을 거여.

연반계 자격은?
나이가 결혼하고 하면 가입했지.

가입조건은?
처음에는 자금을 만들려고 쌀 한 가마씩 걷었지. 그러다가 상(喪)그이 터지면 일을 도와주고. 또 다달이 쌀로 한 말씩 회비를 내니까 자산이 많았어요. 그 자금이 지금도 남아서 노인정에서 쓰고 있지. 상(喪) 나도 장례식장 가니까 쓸 일이 없다고.

결혼은 몇 살에 했어요?
29살에.

늦은 편이네요?
늦었어, 가정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친구분들은 몇 살에 결혼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27살 전후에 했죠. 내가 가장 늦은 편이여.

사모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나요. 지금 (아내가) 70살이요 70살. 11살 차이예요.

나이 차이가 많네요. 29살 노총각이 18살 처녀를 데려온 거잖아요?
허허 그래서 오래 사는지도 몰라요. 친구들은 다 갔는데. 친한 친구들은 다 갔어.

사모님이 젊으면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글쎄 그런 거같아요. 맞춰 살다 보면 맘도 그렇고.

사모님은 누구에게 소개받았어요?
친구 안 식구. 자기 동네 처녀를 소개한 거지.

처가에서 안 주겠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모님 친정은?
전남 곡성요.

곡성 아가씨를 어떻게 만났어요?
친구하고 부인이 곡성 사람이었어요.

전라도 친구인데 자기 고향 처녀를 소개한 거군요?
아주 만족한다고 했죠. 내가 동네서는 인심도 안 잃고 살아서. 내가 직장 잡고 하니까 소개해 준 거지.

나이 많다고 싫다고는 안 했어요?
그것도 친구 부인이 나이를 속였어요. 두 살 줄였어요. 허허

어디에서 만났어요?
부락에서 만난 거죠.

사모님이 곡성에서 올라온 거네요?
큰 처형이 동천리에 살았어요. 언니네 집에 왔다가 우리 친구네 집에 놀러 왔는데 혼인 이야기가 나와서 된 거지.

직장도 확실하고 하니까 마음이 움직였겠죠?
불만이 없었어요.

만난 지 얼마 만에 결혼했어요?
한 달 만에.

데이트할 시간도 없었네요?
그렇죠.

결혼식은 어디에서 했어요?
집에서 했어요. 신부가 멀어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있다가 결혼식을 올린 거죠.

구식결혼을 했네요?
그렇죠, 구식으로 한 거죠. 장인 장모가 여기로 와서 결혼식을 한 거죠.

그럼 재행이라고 처가에 가는 행사도 안 했네요?
못 갔지. 결혼하고 금방 장인 장모를 이사 오게 했어요. 여기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지.

장인 장모를 평택으로 모신 거네요?
그렇죠. 그 전에 곡성에서는 구장을 했데요. 그런디 남의 보증을 잘못 서서 땅을 다 날리고 어려워진 거죠.

보증 섰다가 재산 날린 거네요?
그렇죠. 그래도 막내 사위가 젤 맘에 든다고 그랬어요.

그럼 동서나 처형도 나이가 많았겠네요?
나이가 많았죠. 우리 집사람이 막내니까.

견산1리 사람들은 뭘 해서 먹고살았어요?
다들 농사지었죠.

벼농사 중심인가요?
그렇죠.

견산2리에서 물어봐도 오직 벼농사만 지었더라고요?
신리는 하우스도 해 먹고 하지만 여기는 밭이 없어요.

축산업은?
축산업 하는 사람도 없고.

공장들이 들어오고는 얼마나 다녔어요?
여기는 공장을 많이 다녔죠. 아무래도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죠.

마을은 아파트나 연립 생기고 동네가 커졌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은 동네 주민들과 교류하지 않

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외지 사람들이고 우리와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집집마다 농지 소유는?
많지는 않고 잘 산다는 집이 몇 집 되었어요.

잘 사는 집은 몇 마지기 소유했어요?
40마지기나 50마지기 가졌고 보통은 20마지기, 15마지기 정도였죠.

어르신은 농사는 안 지었나요?
아버지가 땅을 날리기 전에는 조금 지었죠. 그 뒤로는...

어르신은 회사 다니며 땅을 구입하지 않았어요?
갠신히 먹고 살았죠. 퇴직하면서 집 하나 지은 게 전부죠.

그거면 성공이죠?
나는 만족했어요. 지금은 밥 굶는 사람이 없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 못 먹고 살어.

옛날에 농지개혁 했던 것은 기억해요?
농지정리...

농지정리 아니고 분배농지요?
그건 기억이...

이동조합 했던 건 기억나요?
그건 기억나죠.

어떻게 했어요?
1리, 2리가 같이 했어요.

조합장은 누가 했어요?
오래되어서 기억도 안 나요.

어느 마을 사람이었어요?
2리 사람.

조합에서 방앗간도 운영했어요?
그건 아녀요.

이장님 아버님이 운영한 방앗간은?
그건 개인 방앗간이죠.

마을 앞에는 장안들이 있고 여러 지명들이 있잖아요. 기억나는 것은?
우리 장인도 장안들 쌀이라면 젤 고급이라고 했어요. 전라도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옛날에 농사지으면 소출이 얼마나 나왔어요?
한 마지기에 한 가마니 나오면 잘 지었다고 하고. 점점 기술이 발전하다가 지금은 세 가마 이상 나오죠.

이동저수지 물이 들어오면서 늘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들판은 장안들 하나밖에 없어요?
일제 때 여기 ‘사형장’ 이라고 마을 옆에 있었지. 어린이집 뒤에. 거기 말도 못했어요. 그 근처는 문제가 많았어. 사람을 많이 죽여서... 건물은 보지 못했는데 여우가 많고 (시체) 파먹고. 시체를 묻어 둬서 그런지 음산했어요.

공동묘지는 언제 만들었어요?
공동묘지는 아버님 젊을 적에 했으니까 우리는 생각이 안 나죠.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상여집은?
공장 뒤에 컨테이너로.

성벽을 따라 다른 지명은 없어요?
그건 몰라요. 성벽 있는 산은 앞산, 앞성이라고 했어요. 성 뒤에서 놀자, 뭐 좀 하자 그랬지.

견산리는 줄다리기를 했어요?
우리는 했죠. 줄다리기를 하면 진위면 사람들 다 모이고 그랬어요. 줄다리기는 많이는 하지 않고 두 번 하고 그만뒀어요.

언제요?
우리 15살 때인가... 진위면 사람들 다 왔어요. 음식 먹고 술 먹고.

언제 했어요?

대보름에요.

줄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집집마다 짚을 걷어서 새끼 동아줄을 틀어 엄청 두껍게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했죠. 계속 감아서 두껍게 다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메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암줄 숫줄 있었죠?

그렇죠. 암줄과 숫줄에 빗장을 지르고 줄다리기했죠.

저녁에 시작했죠?

그렇죠. 어두워지면 동네 한 바퀴 돌아서 도로에서. 여기 차 다니는 도로가 그 때는 비포장도로였지. 거기에서 했죠.

음식도 했어요?

음식도 해서 끝나고 먹고 마시죠.

비용은?

동네서 냈죠.

술도 빚었어요?

그렇죠. 모인 사람들 다 먹고 마시고.

줄다리기가 끝나면?

줄다리기 끝나면 그걸 잘라서 냇가에 메고 가서 둑에다 버렸어요. 그러면 둑이 터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줄다리기 방식은?

총각들은 여자 편이고, 장정 남자들은 한 편이고 이렇게 나눠요.

줄다리기는 반드시 여자 줄에게 져줘야 한다고 하던데요?

져줘야 풍년든다고 했어요.

끝나고 둑에다 버렸고요?

버린 게 아니라 잘라서 묻었어요.

왜 두 번만 했어요?

3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시작했는데 두 번 하고 끝났죠.

김영회(남, 1945년생, 견산2리 노인회장)

일시	2021년 9월 14일	
장소	신리 김영회씨 소유 비닐하우스	
구술자	안동 김씨 이원공파 16대손으로 조부 때 충북 증평에서 입향하여 3대째 거주하고 있다. 조부는 조선 말 과거에 응시하다가 낙방했고 부친은 해방 전후 공무원을 했다. 진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지키며 농사를 지었고, 지금도 벼농사와 하우스시설재배를 겸하고 있다. 견산2리 이장과 노인회장을 지냈다.	
면담자	김해규	

회장님 성씨와 본관은 어떻게 되요?

우리는 안동 김씨 이원공파.

몇 대손이세요?

16대 손인가봐.

마을에는 안동 김씨가 얼마나 살아요?

우리 마을에는 별로 없어요. 진위면에는 많아요. 진위면 안동 김가 종친회가 있어요. 면소재지, 은산리, 마산리, 동천리 일대에 서너, 너댓 집씩 살아요. ‘진위면 안동 김씨 종친회’ 라고. 서탄에도 있어요. 우리 마을에는 너댓 집쯤 사나.

종친회나 시제도 지내나요?

10월 그믐날 모여요. 그때 총회를 하지.

시제도 그때 지내나요?

그렇죠. 시제를 지내면서 총회를 하죠.

묘역은 어디 있어요?

묘역은 양평에 있거든요. 그런데 각파가 퍼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보은으로 가요. 왜냐면 웃대조 할아버지는 양평에 있는데 손이 퍼지다보니까 보은에 묘역이 있게 된 거죠.

회장님 댁은 견산2리에서 몇 대를 살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지금 3대째 사는 거요.

할아버지는 어디에서 오셨어요?

우리는 증평에서, 증평에서 왔죠. 증평에서 역적으로 몰려서 도망왔데나. 왜냐면 그 나라 임금이 3천 궁녀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충주를 지나갔는데, 우리 선조들이 양반으로 중앙탑 주변하고

증평 일대에 세력을 갖고 있었데나 봐. 그래서 부여로 가는 3천 궁녀를 집에서 재워줬다고 해요. 그런데 간신 한놈이 임금에게 잘못 말해가지고 우리가 역적으로 몰렸대요. 역적으로 몰려서 조상 할아버지는 붙들려 가서 사약을 먹고 죽고 우리 증조할머니가 100일도 안 된 간난쟁이를 업고 보은으로 도망을 갔다고 해요. 거기서부터 손이 퍼지기 시작한 거지. 보은에 가면 안동 김가가 많아요. 경주 김씨네 하고 안동 김씨네 하고.

조부와 부친께서는 견산리로 와서는 무슨 일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옛날에 과거시험 보러 가고 했었는데, 아버지는 공무원 생활하셨지. 왜정 때 하다가 6.25사변 나서 고생을 많이 했지.

어떤 공무원 했어요?

일반공무원 했겠지. 북면(진위면)사무소 산업계장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공무원들 했던 사람들 잡아갔잖아요. 다 잡아가는 바람에 거기서 파탄이 난 거여.

6.25 후에는요?

6.25 후에도 조금 하다가 힘을 못 쓰고 (한국전쟁 때) 붙들려 가고. 우리 작은아버지도 동탄 화성경창서장까지 했는데 그분도 붙들려 가서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이 됐으니까 생사를 모르죠. 큰아버지는 면사무소 총무계장으로 있었는데 왜정 때 그만두고 보은에 가서 농회장을 했어요. 지금으로는 농협조합장 같은 거지. 그걸 군수가 시킨 거여. 큰아버지는 그때 농회장을 한 거지.

집안이 괜찮았네요?

괜찮았는데 6.25 나서 풍비박산 난 거지.

큰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6.25 직후에 돌아가셨지. 우리 아버지도 병이 나서 돌아가셨고, 작은아버지는 행방불명되었고.

회장님은 형제가 몇이세요?

3형제. 3남 4녀.

몇 째세요?

내 위에 형이 있었는데 환갑도 못 넘기고 돌아가셨어. 실질적으로 내가 장남이 되버렸어. 제사도 내가 모시고.

형제들 교육 상황은?

많이 배우지를 못했죠. 나는 초등학교 나오고, 동생들은 중학교 나오고, 막냇동생은 대학교까지 나오고.

집안이 많이 어려웠네요?

어려웠죠. 누이들이 있으니까.

누이들 교육상태는?

옛날에는 여자들은 안 가르쳤어. 초등학교도 안가르쳤으니까.

그래도 막내는 대학을 보냈네요?

막내라도 제대로 가르쳐야한다고 내가 주장하는 바람에 큰고생했어. 1년 동안 농사지어서 다 주고, 소 길러서 등록금 대주고, 서울 가서 다니게 하느라 아주 힘들었지.

막냇동생은 대학 졸업해서 출세했어요?

출세는 했어. 서울 무역진흥공사에 들어가서 외국에 가서 무역 저기를 해갔고 그 애는 출세했어. 지금은 현대백화점 책임자로 있어. 나이가 많아서 그것도 그만둬야지만. 나만 여기서 농사짓는 거지.

어르신은 진위초등학교 다녔어요?

47회. 진위초등학교가 100주년도 했어요. 동문회가 나서서 찬조금도 내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무슨 일을 했어요?

아이 옛날에는 다들 어려우니까 농사도 짓고, 이것저것 하고 중구난방이지 뭐. 외지로는 안 나가고 집에서 보리 가는 데 도와주고 지냈지.

견산2리 버스정거장과 진위서로

농지는 있었어요?

농지는 조금 있었어요. 옛날에 여기 진위천 하천부지가 백사장이었어요. 신리, 견산리 이쪽은 장마지고 그럴 때는 아산만에서 바닷물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우리 어릴 적에. 장마 끝나고 물이 빠지면 깊은 웅덩이가 생기는데 거기에 잉어, 뱀장어 같은 게 우글우글거렸어. 그걸 건져다 먹고 그랬다고.

배는 안 올라왔어요?

배는 못 올라왔어. 여기는 수심이 낮잖어.

하천부지는 대부분 모래땅이었다는 말이죠?

하천부지는 전부 백사장이었는데, 미군부대가 본래 오산에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오산비행장이라고 하잖어. 여기가 비도 많이 안 오고 눈도 많이 안 오고 북한 레이더망에 걸리지도 않는데요. 지역적으로도 폭우가 많이 온데요. 그래서 여기가 적합해가지고 오산에서 여기로 옮겼잖어.

비행기소음도 심하죠?

소음 방음벽 해준다고 했는데 처음할 때는 여기는(신리) 해당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좌동, 지산동 거기는 되는데 하천 건너 견산2리 이쪽으로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요. 해달라고 했더니 고작 방충망을 해준다는 거여. 허허

농지는 얼마나 갖고 있었어요?

그 전에 논이 한 50마지기는 있었어요.

밭도 있었잖아요?

여기는 밭이 없어요. 여기가 하천부지고 모래땅이었는데 미군부대가 오산에서 송탄으로 오면서 불도저로 밀어서 절대농지로 만들어준 거여. 꽁땅이었었는데 하천부지로 해 먹은 거여. 미군부대가 송탄으로 오는 바람에 절대농지로 밀어서 해 준 거라니께. 그때 정부가 입찰을 붙였어. 얼마씩 내고 도자(불도저) 비만 내고 너희가 붙여먹어라 그거였지. 우리한테 혜택을 준 거여.

하천부지를 논으로 만들어 혜택을 준 거네요?

혜택을 준 거지. 농민들이 돈을 조금씩 내고 불하받은 거지. 미군 공병대가 도자(불도저) 가져와서 밀어주고 논으로 만들어줬다니까.

땅값은요?

쌌지요. 거져주다시피 헐값이었지. 그것으로 부자된 사람도 있었어. 그중에서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기계 값을 못 내서 포기한 사람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 땅을 돈 많은 사람이 차지해서 부자된 사람이 있지. 그 땅들 사가지고 한 5년쯤 붙여먹다가 팔아버리고 가버렸어. 우리 젊었을 때에.

언제 쯤이예요?

오래됐죠. 40~50년은 됐을 거여. 그것도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것 땜에 농지는 많이 늘었지.

진위천 둑방은요?

둑방은 옛날부터 하천 옆에 있었는데 지금처럼 된 것은 15년쯤 됐을 거여. 이렇게 높아진 것은 둑방 공사하기 전에는 안쪽에도 논이 있었어요. 논도 해 먹고 밭도 해 먹고 했었는데 하천이 자

꾸 터져서 물난리가 났어.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주고 싸게 매입해서 높게 쌓아 버렸지. 지금은 하천이 안 터져요. 넓어졌고. 지금은 많이 넓어졌잖아.

정부 혜택이 크네요?

정부에서 그거 하나는 잘해놨는데 손해도 크지. 왜냐면 거기서(하천부지) 논농사 쌀농사 한 것이 어마어마했는데 엄청줄었지. (진위천에서) 물 퍼서 다 농사지었거든. 저 위에 저수지가 있으니까 하천부지에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손해가 어마어마한 거지.

장호들과 김영회의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하우스재배는 언제부터 했어요?

벼농사만 짓다가 하우스 시작한지가 30년쯤 됐어요.(비행기 소음이 심각함). 비행기가 지나갈 때는 처음에는 깜짝깜짝 놀랐어. 지금은 가거나 말거나.

신리 일대 보니까 하우스재배는 1980년대부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1980년대 후반부터 하우스가 생겼어요. 아시안게임 전부터 하우스를 조금씩 시작한 거여. 가락동시장에 가면 지금도 진위 애호박하고 배추는 역사가 있어서 알아준다고.

쌈채소는 안 해요?

쌈채소는 심기는 심는데 많이 하지는 않아. 딴 것은 유명하지는 않았어. 처음에는 노지에다 배추, 무수(무우)를 많이 심었지. 그러다가 하우스재배로 돌아섰지. 지금도 노지도 하고 하우스도 하고 그래.

왜 애호박을 하게 됐어요?

딴 거 농사하는 것보다 애호박이 수확량이 많이 났어요. 옛날에 호박 20개에 250원, 300원 할 때, 값이 쌀 때도 딴 것 보다는 수확량이 많았으니까. 그전에는 비닐도 쌌었고. 비닐도 5~ 6만 원이면 하우스 한 동 했는데, 파이프도 그까짓 것 7~8백 원이면 샀는데 지금은 몇만 원씩하고... 지금은 3백만 원 들여서 하우스 한 동하면 5, 6백만 원 매출을 해도 본전 뽑기도 힘들지.

옛날에는 초기자본이 적게 들었네요?

여기 우리 하우스도 비닐 씌웠지만 한 마끼에 95미터짜리, 폭이 45미터 하는데 48만 원 들었어.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지.

처음 시작할 때는 몇 동 했어요?

젊을 때는 많이 했다고. 열다섯 동, 열여섯 동 했지. 지금은 7~8동밖에 안 해. 인건비가 높아져서 많이 할 수도 없어. 우리 두 내외가 이것 봄가을로 하면 5~6천만 원 버니까 애들한테 손 안 내밀고 살만하다고. 어지간한 사람 회사 다닌 것보다는 낫지만 이거 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하우스는 1년 내내 하나요?

이건 1년 내내 하는 거여. 안 해본 사람은 못하는 거여 하우스가. 힘도 들고 인내력도 필요하고.

기술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자기 나름의 노하우도 있지.

기술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처음에는 남 농사 짓는데 가서 일해주기도 하고 구경도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습득이 된 거지.

그전에는 하우스 하는 땅들이 논이었나요?

논이 아니라 밭이었지.

밭에다 하우스 한 거네요?

그렇지, 정부가 농사지어 먹으라고 논으로 만들어 준 건데 밭으로 썼지. 지금도 여기 땅 30센티만 파면 모래가 나와요. 그래서 물도 많고 배수가 잘되지. 하우스재배에는 아주 적합하지.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서 토양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여기는 배추나 호박이나 토마도나 딸기나 백합 같은 걸 재배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어. 첫째는 물이 많고 배수가 잘되어서 적합하다고 그래서 하우스가 많이 들어섰지.

재배작물은 뭘 심어요?

지금 경기가 나빠서 오이도 심다, 호박도 심고, 딸기도 하고, 토마토도 하고, 방울토마토, 왕토마토, 사과대추도 심고. 자꾸 바뀌어요.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손이 덜 가고 쉬운 걸로 자꾸 바뀌는 거요. 날씨가 자꾸 더워지니까, 기후가 변해버리니까 피해도많고. 옛날만큼 못 맞추지.

유통은 어떻게 해요?

농협에 유통센터가 있어요. APC라고 수매를 해서 유통을 해줘요. 호박 같은 것도 봉지를 씌워서 계약재배해요, 슈퍼오닝이라고. 쌀도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유통했어요?

그때는 농협이 없었고 수원과 용산에 청과물 시장이 있었는데 가져가는 호송인이 있어. 중간에서 실어다 팔아다 주고 운반비 따 먹는 사람이 있었어. 호박 한 짝에 150원, 200원 받는 사람이었지. 농협이 (유통)한 지는 20년쯤 됐어요.

농협이 관여하니까 훨씬 낫네요?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많아요.

논농사는 안 하세요?

논농사도 해요. 한 30마지기.

30마지기면 자영하기도 힘들잖아요?

지금은 기계가 있으니께 논만 갈아주면 심는 사람 따로 있고, 베는 사람 따로 있고. 돈만 주면 다 돼요. 모도 사다 쓰고.

이것저것 제하면 수익도 많지 않겠어요?

논농사 지어가지고는 기계 없으면 하나 마나야 비싸서. 논 갈아서 써래질 해가지고 모 심게 해주는데 한 마지기 150평에 45,000원씩이여. 그걸 30마지기 해봐요. 거기다 비료 줘야지, 심는 거 줘야지, 가을에 베는 거 줘야지, 약 줘야지. 계산 따지면 논농사 지어서는 계산 안 맞아요. 많이 먹어봐야 추청벼, 고시히까리 심는데 3배출 이상 못 먹어. 3가마니 먹는데 한 가마니 도지 줘야지, 심고 베고 농약 주는 거에 한 가마니 줘야지. 그러고 나면 한 가마니밖에 안 남아. 그것도 풀베고 물꼬 보고 뭐하고 나면 실제로는 쌀 댓 말이나 먹는 거라고. 남는 게 없어요. 차라리 남 주는 게 나아. 정부에서도 나이 먹고 농사 잘 안 하니까 기계 있는 사람 몰아줘라 그러는 거여.

마을에 대해서 여쭤볼 께요. 옛날에 견산2리는 몇 호나 됐어요?

옛날에는 70세대가 넘었어요.

성씨는?

경주 김씨하고 남양 홍씨네가 좀 살았어요.

마을이 컸네요?

컸죠, 우물이 동네에 두 개나 됐으니까.

우물은 어디에 있었어요?

한승아파트 조금 못 가서, 지금 말하자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어. 놀이터 바로 위에 하나 큰 게 있었고, 이(마을) 밑으로 내려오면 산내들이라고 도로 옆에 식당이 있는데, 그 집에서 나무를 베어버려서 대나무만 있는 집이 있어. 그 집 옆에 경원아파트 앞에도 샘이 있었어. 야쿠르트 안에도 지하수를 파서 펌프로 샘이 하나 있어서 모두 세 개가 있었다고.

마을주민들은 어떤 샘물을 먹었어요?

위에(윗동네) 사람들은 한승아파트 아래 거, 아랫마을 사람들은 경원아파트 입구에 있는 거 먹었어. 두 개로 다 먹었지.

마을 이름이 산직말, 산직촌 그렇잖아요?

산직이라고 하지. 옛날부터 산직말, 산직이라고 하지.

마을 내에서는 구분이 되나요?

윗말 사냐, 아랫마을 사냐 구분은 하지. 옛날에는 4반까지 있었는데 뭘.

마을 규모가 컸네요?

많았죠. 옛날에는 이장은 세(稅)도 줬다고. 이장은 1년에 보리(추수) 때는 호(戶)마다 보리 한 말씩 걷어 주고, 가을에 쌀 한 말 주고, 반장은 보리 한 말 주고 그랬다고. 반장들은 면사무소에서 1년에 한 번씩 흰 고무신도 줬어.

리세(里稅)라는 것도 있죠?

이거 없어진 지가 오래됐을 거여. 1980년대까지는 리세를 받다가 후로는 없어졌을 거여. 내가 이장할 때는 7만 원씩 면(面)에서 수당을 탔는데.

경원아파트와 견산2리 옆으로 지나는 삼남로(동부대로)

언제 이장을 봤어요?

새마을운동 할 때부터 경원아파트 준공할 때까지 내가 이장을 봤거든.

경원아파트가 1991년에 입주했나요?

경원아파트는 1985년에 시작했다가 한 번 부도가 나서 1년 동안 중단됐다가 1987년도에 준공했지. 이때 이장을 한 거여.

활동비 7만 원은 면사무소에서 나오고 따로 리세를 받은 건가요. 이장하실 때 주민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나요?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주변에 공장들, 야쿠르트도 있고 나드리화장품도 있고, 일성제지도 있고 그런 곳으로도 많이 빠졌지. 1980년대 후에.

주민들은 논농사가 많았어요, 밭농사가 많았어요. 하우스재배는요?

논농사가 많았지. 하우스재배도 돈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은 시작하기 힘들고. 지금 우리 마을에서 하우스농사는 나만 하고 있지.

1970년대 축산업은?

너댓 집 했는데 1990년대, 2000년대에는 없어져 버렸어. 사람들 먹고살기가 나아졌잖아. 전두환, 노태우 때 먹고 살기가 나았다가 김영삼 때부터 나빠졌지.

견산2리에서 수박, 참외재배도 했나요?

조금씩 했어요. 조금씩 해 가지고 지게에다 져서 미군부대에다 팔았다고. 거기 양색시들 많았잖아요, 쑥고개 쪽에. 신리, 마산리, 하북리 사람들이 하천 변에다 많이 했어. 견산리도 조금 하기는 했는데 땅이 없었어. 견산리는 ‘장안들 내기’ 라고 해서 평택에서 장안들이라고 하면 알아줬어. 거기는 고래실 논이여. 농사도 잘되고 그래서 땅값이 비쌌어.

주민들 생활 수준은?

옛날에다 대면 지금은 영세민이여. 옛날에는 부촌이었는데 지금은 영세민인 셈이지.

농지도 많고 자작농도 많았네요?

개인 사업한다 어쩌고 하다가 실패해서 다들 수준이 많이 내려갔어.

삼남길이 서낭재 너머로 넘어갔다는데?

마을 쪽으로 그 길이 나있었거든요. 쉬었다 가는 샘터도 있었는데 한승아파트 만들면서 우물 앞으로 축대 쌓았잖아요. 우물 옆으로 해서 마을로 내려오는 길이 있었다구요. 거기가 원래 길이었어요. 그 길로 쭉 나오면 건설인부동산이라고 있어. 거기에 느티나무가 있었는디 그놈의 새끼가(건설인부동산 주인) 나무를 타 캐 버리고 집을 지은 거 아녀.

주막거리는 어디예요?

김문규네 집에서 보면 아래로 가는 길 있고 옆으로 가는 길 있고 위로 가는 길 있고 거기여. 그 위로 놀이터에 정자 있잖어. 거기가 주막이 있던 곳이고.

어릴 때 주막을 보셨어요?

어릴 때 과부인가 뭔가 할머니가 막걸리를 팔았지. 할아버지가 막걸리 사오라고 하면 거기 가서 막걸리 사오고 그랬지. 심부름 댕겼어.

그럼 1950년대까지는 있었네요?

그렇지, 그렇다고 봐야지.

한승아파트 옆으로 난 넓은 길은 언제 만들었어요?

그건 한 십몇 년밖에 안 됐을 거여. 길을 내면서 측량해서 새로 낸 거여. 원래 길은 아래로 내려와 있잖어. 거기서 고개 넘어서면 고려포장이라고 거기가 고바위가 져서 또아리가 생기는데 거기에 서낭당이 있었어. 벚나무가 있었는데 거기 아래에다 돌멩이를 내버려가지고 돌무더기가 컸다구. 그랬었는데 공사(아파트)하면서 다 없애버렸어.

서낭당을 섬기기도 했어요?

그랬지. 옛날 할아버지들한테 거기에 왜 돌멩이가 있냐고 했더니 싸움이 벌어지면 그걸 무기로 썼대요. 돌멩이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죽이고 싸웠대나봐. 그래서 서낭당이래.

왜 없어지도록 나눴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보존해야겠다고 생각을 안 한 거지.

산직말에 성공회교회 있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 성공회. 그건 모르겠고 저기 봉남리에 교회 있잖아요, 그게 왜정 때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함석지붕이었어.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던 철부지일 때 교회를 다녔어. 거기 목사님이 우리한테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준다고 하니까 내 친구놈이 손을 번쩍 들고는 '나는 목사님이 따라주는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라고 하는 바람에 (교회에서) 쫓겨났잖어.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 그때부터 안 다녔지.

교회 다닌 사람들 많아요?

많이 다녔어.

주민들 가운데 절반은 다녀요?

절반인지는 잘 모르겠고 봉남리로 다니는 사람들은 있어.

절에 다니는 사람은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옛날에 야학이나 강습소는 있었어요?

야학 배우는 것은 향교에서 했지. 야학이라고도 하고 서당이라고도 하고. 거기서 한문도 가르치고. 우리도 다녔어. 초등학교 다니면서 같이 댕겼어. 형님뻘 되는 사람들 하고 다녔지. 여자들도 다녔고.

회장님은 어디까지 배웠어요?

천자문까지 배우다가 그때 면(面) 대항 육상선수로 나간다고 연습하다가 못 먹어서 황달이 걸

렸어. 그 덕분에 교회고 천자문이고 다 때려치웠지. 황달 고치고 나서는 장티푸스에 걸려서 머리가 다 빠지고 그랬어. 피똥 싸고 죽다 살았지. 그거 걸리면 참외 꼭지 말려서 불에 태워 코에 넣으면 나았다고. 나도 그거로 고쳤어.

마을에 전기는 언제 들어왔어요?

1980년도 전반기 때 들어왔어.

많이 늦었네요?

우리는 늦게 들어왔어, 엄청 늦게 들어온 셈이지. 동네에 가로등도 없었어. 우리 고향(증평)보다도 더 늦게 들어왔어. 우리 마을에 전기 들어온 지는 역사가 짧아요. 하북에는 전기가 들어 왔는디, 하북에서 여기(견산2리)까지는 농로 길이잖어. 거기에 가로등이 없었어. 호롱불 켜고 다녔어. 호야라고 그런 것도 켰었지. 우리는 전기 들어온 역사가 짧아요.

수돗물은요?

수돗물은 옛날에 봉남리 산 위에 올라가면 물탱크가 있었다고. 그걸 여기 입구 다리 있는데(봉남교) 양수장에서 받아 공급했어. 우리는 그걸 먹었어. 그러다가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지금도 상수도 물을 거기에다(집수정) 집어넣고 먹는 거여. 그런 담에 개인적으로 집집마다 들어가게 해 놓은 거지.

상수도는 언제 들어왔어요?

그건 15년이나 됐을 거여.

동네에 방앗간은 있었어요?

방앗간 있었죠, 봉남리에. 1리에도 있었고 2리에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동네마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고로 죽고 어쩌고 하면서 봉남리만 남았지.

견산2리는 누가 운영했어요?

김흥수라고 그 사람 방앗간 피대에 걸려서 죽었어. 그 사람 죽고서 봉남리로 간 거지. 봉남리는 모타(터)를 돌려서 방아를 찧지.

방아 삯은 얼마였어요?

한 가마니에 2.5%.

동네에 당제도 지냈어요?

산신제 지냈지. 우리 그거 하면 떡 얻어먹으러 가고 그랬다고.

언제까지 지냈어요?

1980년대 중반까지는 지냈을 거여. 그러다가 그거 필요 없다고 안 지낸 거지.

어디에서 지냈어요?

저기 서낭당 있는디.

몇 월에 지냈어요?

정월에 지내더라고. 그것도(제주) 아무나 시키는 거 아녀. 택일 보고 생기복덕 따져가지고 지낼 만한 사람을 뽑았다고. 지금은 이장이 좋은 날 잡아가지고 하지.

제물은 무엇을 준비했어요?

돼지를 잡았지 1마리씩. 그거 잡아서 동네잔치를 했다고. 나중에는 이장이 다 해버렸고. 이장도 하기 힘드니까 내놓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할 사람도 없고 하니 중단됐지.

두레 같은 건 했나요?

어릴 때는 있었지. 1970년대 이전까지는 했다고. 우리는 신경도 안 썼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없어졌더라고.

김문규(남, 1940년생, 부인, 1944년생, 견산2리)

일시	2021년 9월 12일	
장소	김문규씨 댁 앞	
구술자	김문규는 견산2리 토박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었고 이장을 비롯한 마을 임원을 지냈다. 부인은 오산에서 살다가 1965년 김문규와 혼인하여 견산리에 살게 되었다. 삼남대로와 주막의 존재 여부, 농업과 민간신앙, 부업 등을 인터뷰했지만 도중에 인터뷰 거부로 중단했다.	
면담자	김해규	

마을 동쪽으로 지나는 길이 옛날 춘향이길인가요?

위에 길은 일본 놈들이 만든 거여. 왜정 때 일본 놈들이 만들었어.

본래 길은요?

여기 우리 집 앞으로 지나는 길이 옛날 길여. 저기 한성아파트 앞으로 해서 우리 집 옆으로 지나잖어. 그 길이 본래 길여.

주막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요 앞(김문규씨 댁 앞)이 주막거리였데.

10여 년 전 인터뷰한 할머니는 주막을 봤다는데 기억나지 않으세요?

우리 때는 없었어. 그냥 주막거리 하니까 있었구나 생각하지.

마을 규모는 어땠어요?

우리 어릴 때는 한 30호 됐나. 지금은 많이 줄었지. 아파트하고 연립에 사는 사람들 빼면 얼마 안 돼야.

주민들 생업은?

농사지었지 뭐.

농지는 주로 어디에 많았어요?

요 앞에 장아들(장호들)에 많았지.

논농사와 밭농사 비율은?

여기는 순전히 논농사여. 밭농사는 많이 지었나. 여기는 밭은 많지 않았어. 신리 사람들이 밭농사 많이 지었지. 채소나 심어 먹는 것들은 조금 있었고.

기록을 보면 진위면 일대가 참외 농사를 많이 지었다고 하던데요?

신리 장안들이 참외곶이였지. 우리 쪽에도 많이 심었고. (부인)오산에서 장사꾼들이 사러 오기도 했어요.

오산에서도 많이 왔어요?

우리 처녀 때는, 우리 친정이 오산 두곡리인데 어릴 적에는 엄마들이 오산에서 참외 사러 여기 와서 쌓아 놓고 먹고는 했죠.

참외의 유통구조는?

(부인) 원두막에서 팔기도 하고 장사꾼들이 사가기도 하다가 송탄에 아침장이 생기면서 거기로 지게나 리어커로 실어다 팔기도 하고, 도매꾼들이 사러 오기도 하고 그랬죠.

참외 농사로 돈 좀 벌었나요?

(김문규) 참외 농사로 어떻게 돈 벌어. 용돈 쓰려고 부업으로 하는 거지. 그거 용돈 쓰려고 여름 한 철 잠깐 하는 거여. (부인) 참외밭 할 때는 참외 서리하면 밭을 죄다 망쳐 놓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물어내라고도 못하고 하니까....

그럼 견산2리 일대는 밭농사보다 논농사가 많았네요?

여기는 경지정리 전에도 논이 많았어요. 물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농업용수가 귀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위천 물이 있었잖어. 거기에 보(洑)를 막아서 농사지었지.

바닷물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 때는 들어오는 것 거의 못 봤고 우리 아버지 세대는 많이 봤지. 지금도 논바닥으로 한 자만 파면 꺼먼 개흙이 나와. (부인) 우물을 파도 개흙이 나와요.

보(洑)는 어디에 쌓았어요?

저기 동천리(1리).

어린이농장을 하던 학농원 앞이요?

그렇지. 그쪽 어디였지.

누가 쌓았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쌓았지. 신리, 견산리, 하북리 사람들.

언제 쌓았어요?

농사짓기 전에 쌓았어. 2월이나 3월쯤. (부인) 냇가둑은 내가 시집왔을 때 쌓은 거 같았는디.

(김문규) 그거 말하는 거 아녀.

한승아파트 옆 서낭고개, 주막거리 삼남대로 갈림길, 견산2리 골목길, 새로난 길과 삼남길

옛날에는 집안에 터주가리, 제석주머니, 대감독 같은 게 있었잖아요.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있었지. (부인) 우리 집에도 터주가리, 제석주머니 다 있었죠.

대감독이나 조왕신 같은 거는요?

(부인) 대감독도 있었죠. 항아리에다 쌀 담아서 놓아뒀지.

얼마나 담아뒀어요?

(부인)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 시어머니가 담아 뒀어요.

제석주머니에 쌀을 얼마나 넣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언제까지 섬겼어요?

(부인)한 30, 40년 되었나. (김문규) 새마을운동하고 난 뒤에 없어졌어.

추수 뒤에 굿하고 점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부인) 그런 것도 했죠. 추수하고 나면 굿하고 집안에 대감독 채우고 하느라 바빴죠.

굿할 때는 무당은 어디에서 데려왔어요?
(부인) 딴 동네서 데려와요. 저 건너말 동네에서.

굿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부인) 큰굿은 몇백만 원씩 했어요.

일반 가정에서 하는 작은 굿은요?
(부인) 우리야 쌀 한두 말 주고 재수굿하고 점이나 치고 그러죠.

집안 남자들이 굿하는 거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부인)집안 잘되라고 하는 건데 반대는 안 하죠.

옛날에는 아파도 무당한테 가지 않았어요?
(부인) 낫지 않으면 무당한테도 가죠. 점도치고 굿도 하고. 푸닥거리하면 낫기도 하고 그랬어요.

무당에게 매년 얼마씩 주면 돌아다니며 굿도 해주던데요?
(부인) 쌀 한 말, 보리 한 말 주면 해주기도 하죠.

마을제는 없었나요? 당제나 산신제, 우물고사 같은 거?
동네에서는 한 거 같지 않은데.

서낭고개 서낭나무에 제사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동네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섬겼지. 동네 무슨 행사 있을 때도 제일 먼저 빌고.

마을에 우물은 몇 개였어요. 야쿠르트 공장 안에도 있었다던데요?
야쿠르트 안에 '관자우물.' 그거 공장(야쿠르트) 안에 있었는데 공장 지으면서 없어졌지.

우물이 그거뿐이었나요?
여기 한승아파트 담벼락 아래에도 있었지. 이쪽 동네(윗동네) 사람들은 다 거기 우물 길어 먹었지. 아파트 공사하면서 없어졌지. 두레박으로 퍼서 먹었는디 거기서 물도 깃고 빨래도 하고 다 했지.

수량은요?
물이 많지는 않았어.

두 분은 언제 혼인하셨어요?
1965년.

시집왔을 때도 물 길어 먹었나요?
(부인) 그렇죠. 물 길어서 먹었죠. 물동이도 이고 물지게도 지고.

물동이를 이었어요?
(부인) 오지그릇 있잖아요. 애를 업고 거기다 물을 담아서 이고 오면 물이 뚝뚝 애한테 떨어져서 다 젖고 그랬어요. 에이구(한숨).

물지게도 졌네요?
(부인) 물지게는 잘 못 지면 물을 다 흘려요. 양쪽이 안 맞으면 흔들흔들하잖아요. 집에 오면 물통이 반통 되죠.

물은 누가 길었어요?
(부인) 여자들이 다 했죠. 남자들이 그런 것 해줬나. (김문규) 남자들이 해주는 사람도 있었지.

농가 부업으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때는 좀 가마니를 쳤었지.

직접 가마니치기를 했어요?
6.25 뒤에는 많이 쳤지. 가마니 팔아서 용돈 쓰고 그랬지. (부인) 우리 처녀 때도 가마니치는 거 도와줬어요. 시집와서는 안 했고. 그거 치려면 두 사람이 손발을 맞춰서 바디질을 해야잖아요. 나는 새끼 꽈서 주기는 했는디 바디질은 많이 안 했어.

하루 종일 짜면 몇 개나 해요?
(부인) 잘하는 사람이 밤늦게까지 하면 12개는 했죠. 보통은 8장, 9장.

가마니는 내다 팔았어요?
(부인) 친정에 있을 때는 오산장에다 팔았죠. 겨울철에 하니께 그거로 용돈하고 그랬죠.

장(場)은 어디 장을 봤어요?
(부인) 친정에 있을 때는 오산장을 봤죠.

시집와서는요?
(부인) 여기 와서도 오산장을 보다가 송탄에 장이 생기니께 거기를 보더라고요.

서정리장은 안 봤어요?

(부인) 서정리장은 오산장하고 거리가 비슷한디 오산장들을 가더라고요.

오산장까지는 얼마나 되요?
(부인) 10리라고들 했죠.

서정리장은요?
거기도 10리인데, 조금 가까웠나...

오산장 갈 때는 어디로 걸어갔어요?
여기서는 가곡리 지나서 (청호리) 백두(토)고개 넘어갔지. 오래되서 잘 기억나지 않지 뭐.

서정리장까지는?
거기는 잘 안 봐서 기억나지 않네. (부인) 장사할 때도 오산장, 송탄장(아침장)을 걸어 다녔어요.

마을의 큰 지주라든가 농지개혁은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않지. 우리 어릴 때니까. 다들 소작 지었지. 지금도 소작하는 사람들 많어.

소작을 짓는다고요?
농기계를 가지고 남의 땅 부쳐 먹는 사람들 많지.

그건 위탁영농이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소작이지.

옛날에 농사만 지어서 먹고살 때는 몇 마지기면 가족부양이 가능했어요?
15~20마지기면 먹고 살만하다고 했지.

가족들은 보통 몇 명이었는데요?
옛날에는 애들을 많이 낳았지. 5명이면 적다고 했고 보통은 7~8명씩 낳았지.

자녀를 많이 낳으면 어려운 점은?
밥을 많이 먹는 거지 뭐. (부인) 옛날에는 밥도 얼마나 많이 먹어요. 반찬도 변변찮은데 밥들을 참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 쌀이 많이 들어가지.

농사가 잘되지도 않았잖아요?
가뭄이 많았지. 걸핏하면 둑 넘치고 가뭄이었지. 우리 부모 세대는 더 많았고. 요즘에야 물도 많고 걱정될 게 없지.

소출도 변변찮았겠네요?

물도 없고 나는 게 시원찮았지. 우리 부모 세대들이나 우리도 먹고살려고 죽도록 일만 다녔지 뭐. 하루하루 먹고살기가 그때는 힘들었어.

마을에 성공회 교회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100여 년 전쯤 성공회 산직말교회가 있었다는 기록을 봤는데요?

금시초문여. 그런 건 보지 못했어.

야학이나 강습소는?

그런 것도 본적이 없고.

아이 낳고, 자식 키우던 이야기, 밥해 먹었던 이야기 좀 여쭙고 갈께요?

아이구 귀찮아. 그만 해. 그만하자고.

여 백

2021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IV.

진위면 신리 마을조사

김해규

여 백

Ⅳ. 신리 마을조사

1. 지리적 환경과 지명

1) 자연환경

신리 전경

신리는 진위천변 충적평야인 건는들에 형성된 들판마을이다. 조선시대에는 삼남대로 장호원이 설치되었던 주막거리였으며 해방 후에는 배수가 잘되는 넓은 밭과 풍부한 농업용수로 참외재배와 수도권 채소재배가 발달했다.

신리는 장호원이 있었던 주막거리였지만 1789년에 작성된 『호구총수』나 18세기 중엽의 『여지도서』에는 마을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신리라는 마을지명은 1891년 편찬된『진위현 읍지』부터다. 이것으로 볼 때 신리는 18세기까지만 해도 장호원(주막) 외에 마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891년 지도에서 신리는 진위천(장호천)의 북쪽에 위치했지만 그보다 30년쯤 뒤에 작성된 1922년 근대 지도에는 진위천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하천은 홍수로 인해 물줄기의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진위천 중상류에서 30년 사이에 갑작스런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1891년 지도의 마을 표기는 오류일 가능성이 많다. 1922년 지도에도 신리는 진위천 아래에 또렷하게 표기되었으며 현재 마을도 동일하게 위치했다. 1911년경 편찬된『조선지지자료』에도 진위군 이북면에 신리(새터말)이라는 마을이 나온다. 이것이 1914년 행정구역개편 과정에서 단일마을로 ‘진위군 북면 신리’가 되었다.[1)]

1) 오치다다시치,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중앙시장, 1917

1891년『진위현 읍지』지도(좌), 1922년 근대 지도의 신리(우)

진위천과 신리

신리의 북쪽과 서쪽 경계에는 진위천이 흐른다. 또 서쪽지역으로는 1905년 개통된 경부선 철도와 1910년대 건설된 국도 1호선이 지난다. 진위천은 안성천의 제1지류로 국가하천 구간과 지방 2급 하천 구간으로 구분된다. 총연장은 50㎞이며 유역면적은 732.22㎢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진위천으로는 바닷물이 유입되었다. 장마철이나 백중사리 때는 신리 북쪽까지 올라와 하천을 범람시켰다.

광무 연간에 작성된『광무양안』에 따르면 진위면 신리 주위에는 신리전후평, 신리동, 장안평과 같은 평야가 나온다. 이 들판들은 현재 건는들로 통칭되고 있다. 건는들은 충적평야다. 토질에 모래가 많아서 배수가 잘되어 논보다는 밭으로 경작하는 경우가 많다. 태풍과 강수량의 변화에 따라 수해(水害)도 심했다. 특히 1946년 병술년 물난리와 1959년 사라호 태풍, 1972년 수해, 1991년 수해의 피해를 많이 입었다.

신리는 단일마을로 이뤄졌다. 성씨는 문화 유씨, 은진 송씨 등이 많았지만 1970, 80년대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성씨 분포를 보인다. 토박이들은 대부분 농민층이지만 일부는 송탄의 K-55오산공군기지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있다. 1970년대 이후 이주한 사람들은 채소 노지재배나 비닐하우스시설재배를 많이 하지만, 1980, 90년대 마을 주변에 ㈜한국번디(현, 세아FS), YKK한국 평택공장과 같은 중견기업들이 들어온 뒤로는 회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1인 세대들도 많다.

신리는 북쪽으로 견산1, 2리와 경계를 이루고, 남쪽으로는 송탄고가로를 중심으로 마산리, 독

곡동 오리골과 오좌동, 신장1동 등과 경계를 이룬다. 서쪽으로는 진위천을 중심으로 하북2리, 동쪽으로는 마산2, 3리와 경계다. 행정적으로는 약 2.5km 거리의 진위면 봉남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경제, 문화 활동은 약 2~5km 거리의 송탄지역과 관계가 깊다.

2) 인구

신리(新里)의 형성 시기는 19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1791년 『호구총수』에는 나타나지 않던 마을지명이 1891년 『진위현 읍지도』에는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이전의 사료에는 리(里) 별 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신리(新里)' 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한 1891년 『진위현 읍지』의 이북면 인구는 143호(戶) 264명이다. 또 1899년에는 153호(戶)인데 아무래도 인구의 소폭 증가는 진위천 변 충적지의 간척과 관련 있으리라 생각된다.

신리의 마을별 인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문헌은 1963년부터 1985년 사이에 작성된 『평택군 통계연보』 밖에는 없다. 1964년 『평택군 통계연보』에는 1963년 12월 31일 현재 진위면 인구를 1,375호(戶) 8,404명(名)이라고 하였다. 이 가운데 신리의 인구는 48호(戶) 310명(名)인데 남자는 158명이었고 여자는 152명이었다.

신리 사람들 : 송종배(1955), 서석환(1959), 오영애(1933), 우제강(1940)

1977년 『평택군 통계연보』에는 75호(戶) 535명(名)으로 크게 증가한 수치를 보인다. 또 남녀별로는 남자 281명(名), 여자 254명(名)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다. 75호(戶) 가운데 농가(農

家)는 65호(戶), 비농가는 10호(戶)다. 당시까지만 해도 주민들 중 농민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을 볼 수 있다. 농업인구의 증가는 건는들 일대의 개간으로 인한 농지 확대, 수도권 채소재배에 따른 농업이주민의 증가가 큰 영향을 끼쳤다.

1985년 『평택군 통계연보』의 신리(新里) 인구는 142호(戶) 598명(名)으로 8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남녀별로는 남자 381명(名), 여자 207명(名)으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 가운데 농가(農家)는 69호(戶)에 불과한데 비농가(非農家)가 73호(戶)에 달한다. 이 시기의 인구변동은 신리를 비롯한 하북리, 견산리 일대의 비닐하우스시설재배와 공업화의 영향이 크다. 다시 말해서 건는들 일대에 대규모 비닐하우스시설재배가 성행하면서 주변 지역뿐 아니라 멀리는 전라도 지역에서 농업 이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번디(현 세아FS) 평택공장, YKK한국 평택공장과, 인근의 영풍제지, 매일유업, 홍원제지 같은 중견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마을 안에 공동주택이 건축되고 회사원의 거주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신리 노인회장 김종식(남, 1942년생)도 1960년대까지는 인구변동이 적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갑자기 증가했다고 말한다.[2] 또 같은 마을의 이종영(남, 1954년생)은 '전라도 사람들의 농업이민'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신리는 농지가 넓은데다 채소재배에 적합해서 전라도에서 농사지으러 많이 올라와 정착했다는 것이다.[3]

2021년 7월 말 현재 진위면 신리의 세대 수는 236세대이고 인구는 492명(名)이다. 남녀 별 인구는 남자264명, 여자 228명으로 여전히 남자가 많다. 1985년에 비해 세대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인구는 약 100명 정도 감소한 수치다. 주민들은 이 같은 현상을 회사에 다니는 1인 세대가 많고 노령인구 가운데도 1~2인 세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K-55오산공군기지 전투기 착륙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노리고 주소지만 옮겨 놓는 사람들도 세대 수 증가에 일조한다는 주장이다.

3) 성씨(姓氏)

조선 전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진위현의 토성(土姓)은 이(李),김(金),최(崔)이며, 망성(亡姓)은 유(柳), 송(松)이고, 직산에서 이거한 성씨로 조(趙)씨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16세기 전반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김(金), 이(李), 유(柳), 최(崔), 송(松)씨가 대표 성씨라고 했으며, 18세기 중엽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김(金), 이(李), 유(柳), 최(崔), 송(松), 오(吳), 황(黃)을 대표적인 토성(土姓)으로 언급했다. 1843년 편찬된 『진위현 읍지』, 1891년, 1899년 읍지(邑誌)에도 승람과 마찬가지로 김(金), 이(李), 유(柳), 최(崔), 송(松) 등 다섯 성씨를 대표적인 성씨로 언급했다. 위의 사료를 살펴보면 조선 전기의 기록이나 후기의 기록에서 큰 차이가 없다.

위의 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 하나는『세종실록지리지』가 편찬되던 시기 진위현은 현재의 진위면과 서탄면 일원에 한정되는 작은 고을이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조선시대 진위현에는 봉화 정씨, 단양 우씨, 안동 권씨, 진주 소씨, 경주 이씨, 원주 원씨, 수성 최씨, 청주 한씨, 전주 이씨, 광산 김씨와 같은 유력 성씨들이 입향하여 집성촌을 이루고 세거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

2) 김종식(남, 1942년생), 진위면 신리 거주, 노인회장, 2021년 9월 13일 인터뷰
3) 이종영(남, 1954년생), 진위면 신리 거주, 개발위원, 2021년 9월 15일 인터뷰

문화 유씨 유인원과 김해 김씨 김종식

2006년 인터뷰한 유인숙(남, 1932년생)은 신리는 본래 온양 방씨 마을이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새말, 벌말이라고도 했지만 ‘방촌말’ 이라고도 불렀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문화 유씨가 많아졌고, 여산 송씨, 김해 김씨가 대성(大姓)을 이뤘다고 주장했다.[4] 이 같은 사실은 20세기 초에 작성된 『광무양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무양안』에는 신리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두 11호(戶) 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방씨 2호(戶), 유씨 3호(戶), 송씨 3호(戶), 김씨 2호(戶), 최씨 1호(戶)이기 때문이다.

노인회장 김종식(남, 1942년생)은 신리는 예로부터 유(柳)씨, 김(金)씨, 이(李)씨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토성(土姓)은 유(柳)씨라고 하였다. 김종식은 김해 김씨 횡성공파 72대손인데 조부 때 입향했다. 조부는 3남 1녀를 두었고, 둘째였던 부친은 아들 넷, 딸 넷을 두었는데 마을에는 형님과 본인 두 명만 살고 있다.

유인원(남, 1938년생)은 문화 유씨 하정공파 35대손이다. 1960년대만 해도 문화 유씨는 마을의 대성(大姓)이었다. 전체 50~60호(戶)이었을 때도 12~3호는 문화 유씨였다. 지금은 6호(戶)로 줄었다. 유인원의 가계(家系)도 3대를 거주했는데 후손이 번창해서 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마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김장영(남, 1953년생) 이장은 연안김씨 내자시원공파 13대손이다. 신리에는 고조부 때 입향했다. 고조부는 오산에 거주했는데 신리들이 개간되면서 농지가 확대되자 농지가 넓은 이 마을로 이주했다고 하였다. 후손들도 번창하여 한 때는 10여 호(戶)가 거주했는데 지금은 노인층의 사망과 젊은층의 도시 정착으로 5호(戶)만 남았다.

이종영(남, 1954년생)은 안성 이씨다. 신리에는 부친 때 입향했다. 조부께서 일찍 돌아가시자 큰아버지가 7, 8세 되던 조카(이종영의 부친)를 데리고 신리에 들어왔다. 현재 신리의 안성 이씨는 이종영의 형과 본인 두 집 뿐이다.

우제강(남, 1940년생)은 단양 우씨 안정공파 30대손이다. 단양 우씨는 600여 년 전 진위면에 입향하여 독곡동 오리골, 마산1리 오룡동, 은산4리 미동 등에 분포한다. 우제강도 독곡동 오리골에 살다가 35세에 신리로 분가(分家)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리(新里) 토박이들의 이주는 대체로 3~4대를 넘지 않는다. 아들과 손자까지 포함해도 5대 이내다. 이것은 입향 시기가 100~150년 사이라는 말이다. 100~150년 사이는 신리마을의 형성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리(新里)’ 라는 지명도 ‘새로 형성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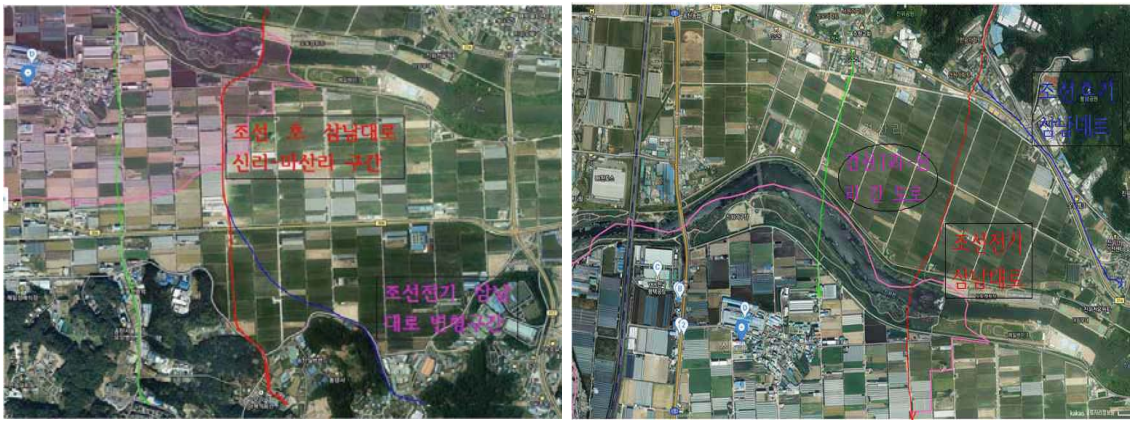
4) 유인숙(남, 1932년생), 진위면 신리 거주, 2006년 7월 14일 인터뷰

마을’ 이라는 의미이고, ‘벌말’ 도 ‘벌판에 형성된 마을’ 이 되므로 신리는 조선 말 건는들에 형성된 마을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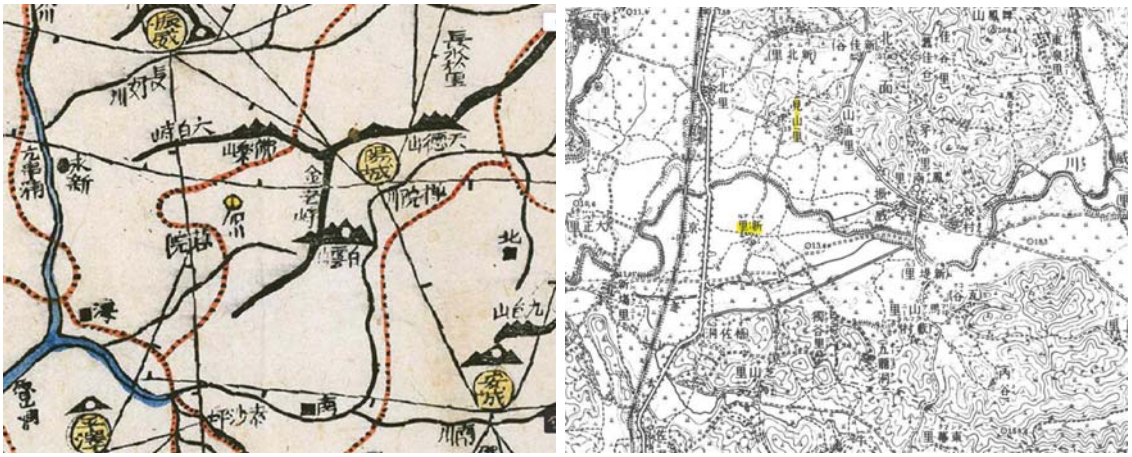
4) 교통

(1) 삼남대로 신리 구간과 장호원(長湖院)

신리는 조선시대 삼남대로의 역원(驛院)이었던 장호원(長湖院)이 있던 마을이다. 삼남대로의 원형은 고려 전기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조선 건국 후 중앙집권과 국방 강화를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조선 후기 간척 등 지형의 변화와 상공업 발달의 영향으로 일정한 노선변화가 나타났다.



조선 전기 삼남대로와 변형구간(좌), 조선 후기 삼남대로 변형구간(우)


대동여지도 신리 부근(좌), 1922년 근대 지도(우)

조선은 도로의 안전과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10리~30리마다 역(驛)과 원(院)을 설치했다. 평택 지역에서 역(驛)으로는 진위면 청호리의 ‘청호역’ , 충청수영로가 지나는 팽성읍 추팔1리의 화천역이 있었다. 원(院)은 이방원, 장호원, 백현원, 갈원, 소초원 그리고 문헌에만 나타나는 팽성읍의 상원이 있었다.

조선 후기 신경준은 『도로고』에서 전국의 대로(大路)를 6대로(大路)로 구분했는데 평택지역에는 제5로였던 '제주로'가 지났다. 제주로(濟州路)는 삼남대로와 같은 노정으로 내려가다가 전라북도 삼례에서 갈라져 정읍-해남-제주도까지 연결된 도로로 '호남로', '해남로'라고도 불렀다.[5)]

1770년(영조 46)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에서는 아홉 개 간선로로 구분했고, 1866년 고산자 김정호는 이것을 10대로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제6로가 삼남대로이고, 제8로가 충청수영로였다.

삼남대로 평택 구간은 18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서울-과천-수원-오산에서 진위면 갈곶리 이방원-진위면 견산리-진위면 신리 장호원-마산1리 오룡동-소백치 백현원-대백치-칠원1동 갈원-소사1동 소사원을 지났다. 그러다가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진위면 견산리-신리 장호원-마산1리 오룡동 구간은 폐지되고 대신 진위면 밖술막(견산리)-읍내리(봉남리)-신제리 신제점(마산3리)-소백치(염봉재)-우곡점(지산동 우곡마을)-대백치로 넘어가는 구간이 신설되었다. 이 과정에서 진위면 신리의 장호원은 폐원(閉院)된 것으로 보인다. 1843년에 편찬된 『진위현 읍지』에도 "승람에는 실려 있으나 없어진지 오래되어 터만 남았다"[6)]라고 하여 19세기가 되면 '장호원길'이 폐지되었음을 말해준다.

『대동여지도』(1864)에는 삼남대로가 진위면 봉남리에서 대백치와 갈원을 거쳐 소사평(원)으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을 반영하여 1922년 인쇄된 근대 지도에도 견산리를 통과한 삼남대로가 진위면 봉남리-마산3리를 거쳐 소백치를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삼남대로는 19세기 후반이 되면 진위면 견산리-봉남리-마산3리-소백치-대백치 구간이 확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장호원은 폐원(閉院)되었다.

(2) 삼남대로 장호원의 위치와 인침담

신리 장호원의 위치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18세기 후반에 폐원(閉院)된데다 삼남대로 구간이 봉남리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록 역원(驛院)은 사라졌지만 흔적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신리 장호원 터(좌)와 김장영이 제시한 삼남대로 신리 구간(우)

5) 한국도로공사, 『한국 도로사』, 1981년
6) 『진위현 읍지』, 도광23년 정월(1843)

신리 동쪽에는 원터거리라는 지명이 있다. ‘원터’라는 지명은 이곳에 역원(驛院)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신리 노인회장 김종식(남, 1942년생)은 필자와 답사를 하며 원터거리에서 마산1리 오룡동 방향의 직선도로가 옛날 ‘과거 보러 다녔던 길’이며 진위천 둑방 근처가 주막거리였다고 말했다. 김종식의 기억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구술에서 비롯된 것인데 옛날에는 마을의 다른 어른들도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김장영(남, 1953년생) 이장은 어릴 때 견산리나 하북리 사람들이 신리를 ‘원터거리’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신리 아이들을 보고 ‘원터거리 아이들’이라고 했으며, 어디서 왔냐고 물어 신리에서 왔다고 말하면 ‘원터거리 사는구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판단할 때 신리(新里)는 새로 마을이 형성되어 ‘새말’, 벌판에 형성되어 ‘벌말’이라고 부르기 전부터 ‘원터거리(장호원)’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터거리 장호원 터와 삼남대로 신리 부근

장호원의 위치는 신리마을 송탄상회 사거리에서 신리길을 따라 동쪽으로 300미터쯤 직진하다가 진위천 둑방(큰둑)으로 올라가기 전에 있었다. 지금은 개간과 경지정리, 진위천 제방 축조로 옛 도로나 건물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지만 견산2리 산직촌(앞거리)과 사선 방향으로 일직선상에 있어 대로(大路)가 지났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장호원 너머 진위천 변에는 징검다리도 있었다. 1974년 아산만방조제가 막히고 1972년 용인 이동저수지가 축조되기 전 진위천은 썰물이면 수심이 매우 낮았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는 마차를 타고 건너기도 했고 얕은 곳에 가마니에 모래를 담아 징검다리를 놓고 건너다니기도 했다.

그런데 신리 김장영(남, 1953년생) 이장과 이종영(남, 1954년생) 개발위원은 다른 주장을 했다. 삼남대로가 원터거리로만 지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 옆에서 신리슈퍼를 거쳐 신리 50번길을 지났다는 것이다. 김장영이 제시한 삼남대로는 1922년 근대 지도를 보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 지도에는 김장영이 말한 길이 삼남대로가 아니라 견산1리에서 신리로 건너오는 일종의 생활도로였다. 신리를 지난 이 도로는 근대 이후 독곡동 오좌동 마을을 지나 서정리역으로 연결되었고, 한국전쟁 뒤 신장동과 지산동에 기지촌에 건설될 뒤로는 숯고개나 아침장(송북시장)을 오가는 주요 도로로 활용되었다.

한양에서 삼남지방을 오가는 대로(大路)와 역원(驛院)에는 수많은 사연이 남기 마련이다. 장호원(長湖院)에도 다양한 사연들이 남아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가 조선 세종 때 의재상 고불(古佛) 맹사성과 관련된 고사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이다.

“맹사성(孟思誠, 1360~1438)의 집은 아산시 배방면의 맹씨행단이었다. 이 집은 본래 고려

말 최영장군의 것이었는데, 장군께서 맹사성의 비범함을 보고 손주사위로 삼으면서 물려줬다고 한다. 맹정승은 소탈하고 청렴한 재상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양을 오갈 때면 충청대로를 거쳐 삼남대로를 이용했다. 전해오기로는 축지법에도 능하여 한양을 하루 만에 오갔다고 한다. 맹사성이 고향을 오갈 때는 검은 소를 타고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녔다. 조선 세종 때 만해도 삼남대로 진위구간은 견산2리 서낭고개를 넘어 신리 장호원-독곡동 오리골-소백치 백현원을 지났다.
당시 오리골의 토호(土豪)는 조선 초에 입향한 단양 우씨였다. 단양 우씨 집안에서는 매일 아침 소를 탄 해괴한 노인이 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불길하게 여겼다. 그래서 며칠 뒤 맹정승이 검은 소를 타고 오리골을 지나가자 얼른 하인을 시켜 쫓아가게 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쫓아가도 축지법을 쓰는 맹정승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던 맹정승은 뒤에 누가 쫓아오는 것을 느끼고는 멈춰 서서 왜 쫓아오는지 물었다. 그러자 하인은 숨을 헐떡이며 ‘단양 우씨 집안에서 매일 아침 불길하게 검은 소를 타고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해서 왔다’고 말했다. 맹정승은 단양 우씨의 오만함에 화가 나서 ‘맹골 맹정승이 까막소를 타고 한양 좀 다녔기로 웬 참견이냐’고 호통을 쳐서 돌려보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니 자신 때문에 백성들이 불편함을 겪은 것은 관인(官人)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오리골을 지나는 길을 버리고 옆 동네인 오룡동길로 다니기 시작했다.[7]”

위의 이야기는 조선 세종 때 삼남대로가 독곡동 오리골과 소백치를 지나 대백치를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그러다가 삼남대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장호원-오룡동-소백치 길을 개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삼남대로 변화 과정에서 맹사성을 개입시킨 것은 그가 평택지역을 자주 오갔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평택, 아산 일대에 맹사성 고사가 파다할 만큼 유명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맹사성 관련 고사는 옛 장호원 부근에 있었다는 ‘인침담’에도 전해왔다.

“맹사성(孟思誠, 1360~1438)은 온양이 고향이다. 그는 이름난 효자였다. 관직에 나간 뒤에도 자주 아산 배방면으로 낙향한 아버지 맹희도를 찾아 문안했다. 맹사성은 아산을 오갈 때 삼남대로와 충청수영로를 이용하였다. 한양에서 삼남대로를 따라 소사1동 소사원에 도착한 뒤에는 길을 바꿔 충청수영로를 따라 평택(팽성읍)과 아산에 이르렀다. 왕의 총애를 받는 재상이 진위, 평택 고을을 오르내리자 주변 고을 수령들은 안달이 났다. 재상을 잘 대접하여 출세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도 중요했지만 행여 잘못 접대라도 하면 파직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어느 봄날 맹사성이 아산의 맹씨행단을 갔다가 한양으로 올라간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러자 진위, 양성, 평택 고을 수령들은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관복(官服)을 갖춰 입고 관인(官印)을 든 채 삼남대로의 길목 장호원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다려도 맹사성은 오지 않고 허름한 행색의 노인이 검은소에 올라탄 채 먼지를 피우며 지나갔다. 화가 난 수령들은 쫓아가서 ‘맹정승이 지나갈 길에 네깟 놈이 먼지를 피우며 지나가느냐’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소에 탄 노인이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내가 맹고불(맹사성의 호)이다.’ 그 말을 들은 수령들은 깜짝 놀라 도망치다 손에 들고 있던 관인을 놓쳐 연못에 빠뜨렸다.[8] 그 뒤로 이 연못을 ‘인침담(印沈潭)’이라고 하였다.”

인침담 전설은 조선후기 선비들 사회에서 유명한 일화였다. 선비들은 인침담 전설을 떠올리며 맹사성의 청렴함과 아첨을 일삼던 고을수령들의 행태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조선 후기 실학자 성

7) 경기도, 『경기옛길 삼남길 · 의주길 개발 및 활용보고서 1권–삼남길 · 의주길 연구』,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2014
8) 김해규, 『평택사람들의 길』, 평택문화원, 2019

호 이익(1681~1763)도 경기 남부를 여행하다가 인침담을 지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때 지은 시(詩)가 '관인을 떨어뜨린 노래(墜印行)[9]'다.

정승의 풍채가 흑모단에 가렸는데 / 台文掩映黑牡丹
재상의 서울 길은 내내 곧기만 하네 / 大相朝天一路直
하인은 오지 않고 소 탄 이만 지나가니 / 前驅不來角者過
두 태수 인끈을 늘이고 기다리는구나 / 二太守候綬若若
길에 먼지 난다 비키라고 큰소리치자 / 呼聲叱開行道塵
내 소를 내가 타니 꾸짖지 말라 하네 / 吾跨吾牛莫相嗔
나귀 타서 법 범한 어사가 아니거늘 / 不是騎驢犯御史
참으로 허둥대다 위의 잃은 자로구나 / 眞同倒板威儀錯
당황하고 놀라서 관인을 간수 못해 / 蒼黃不見左顧龜
벌벌 떨다 연못에 떨어뜨려 버렸네 / 戰兢臨淵求不得
사람은 간 지 오래이나 연못은 남아 있어 / 其人已遠其水在
이 이름 영원토록 공의 청렴을 드러내네 / 此名終古表淸約
어찌 끝이 있으랴 세상에 아첨하는 이들이 / 何限世上夸毗子
교만 떨고 뽐내며 시위소찬만 하는 것이야 / 驕淫矜伐徒素食
금곡의 서쪽이 맹 승상의 마을이라 / 金谷之西孟公閭
행인이 지금까지도 지나가며 꼭 경례하네 / 行人至今過必式(『성호전집』 제8권)

인침담의 고사는 조선 후기까지 전승되었다. 19세기 세 차례 편찬된 『진위현 읍지』에도 인침담(印沈潭) 전설은 빠지지 않고 소개되었다. 인침담의 위치에 대한 고증도 비슷하다.

▷1843년 『진위현 읍지』 : 인침담(印沈潭)은 현 남쪽 5리 지점에 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논으로 만들었다.
▷1891년 『진위현 읍지』 : 인침담(印沈潭)은 현 남쪽 10리 일탄면에 있다. 지금은 없어져 논으로 되었다.
▷1899년 『진위군 읍지』 : 인침담(印沈潭)은 현 남쪽 10리 일탄면에 있다.(중략) 지금은 없어지고 논으로 만들었다.

19세기 편찬된 『진위현 읍지』에는 진위현 읍치(邑治)와의 거리를 1843년 『읍지』에서는 5리라고 하였던 반면 이후에는 10리라고 했다. 조선 후기 진위현의 읍치(邑治)가 이동하지 않았는데도 차이가 나는 것은 삼남대로의 변화에 따른 거리상의 차이 때문으로 짐작된다. 또 기록대로라면 인침담(印沈潭)은 최소한 19세기 초에는 메워져 논으로 개간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김장영(남, 1953년생) 이장과 이종영(남, 1954년생) 개발위원은 흥미로운 사실을 이야기했다. 자신들이 어렸을 때 독곡동과 신장동 경계 부근의 연못에서 고기잡이를 많이 했는데 그곳을 '맹승이 연못'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독곡동 경계라면 조선 후기에는 일탄면 지역이다. 1891년과 1899년 읍지(邑誌)에도 '인침담은 일탄면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논으로 되었다'고 했으므로 위치는 비슷하다. 더구나 '맹승이'는 '맹정승'의 변음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곳이 '인침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19세기 읍지(邑誌)에서는 '메워져 논으로 만들었다'고 했을까?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9) 이익, 『성호전집』 제8권

필요하다.

(3) 국도 1호선 건설과 근대교통의 발달

경부선 철도와 국도 1호선(좌), 신리 남쪽의 306지방도(우)

일제는 한일병탄 전후 근대교통망 구축에 열을 올렸다. 근대교통은 일제의 식민통치와 수탈에 가장 중요한 기간시설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05년 1월 1일에는 경부선이 전면 개통되었고, 철도 노선과 철도역을 중심으로 국도 1호선을 비롯하여 동서와 남북을 잇는 간선도로(신작로)가 건설되었다.

대한제국은 1906년 치도국(治道局)을 설치하고 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1911년에는 조선총독부가 부령 제51호 '도로 규칙'을 발표하면서 거리와 넓이의 표준이 만들어졌다.[10] 일제는 평택지역에 평택역과 철도를 중심으로 국도 1호선, 국도 38호선, 국도 45호선, 국도 39호선을 건설하고 1등~3등, 등외도로로 등급을 매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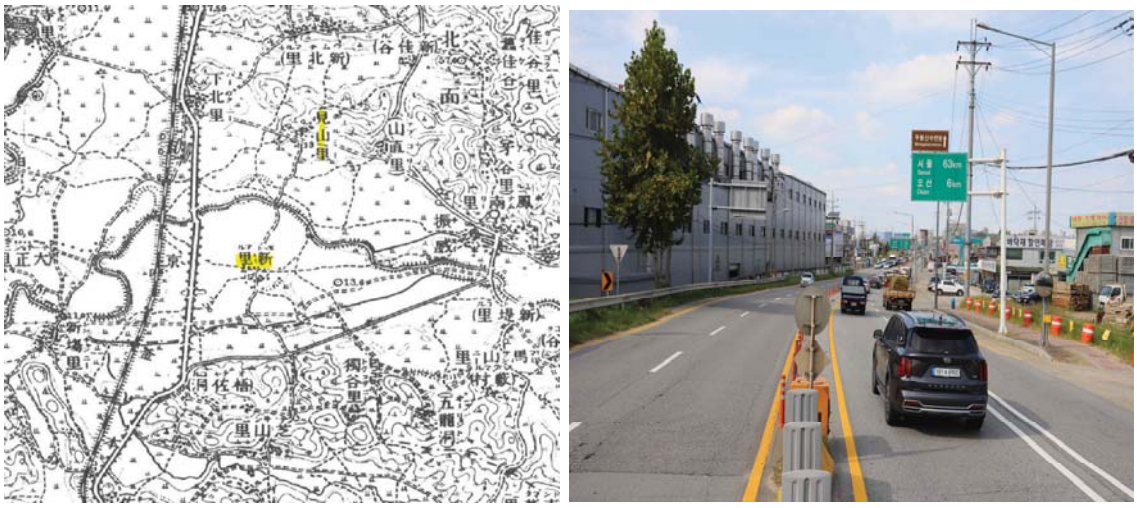
국도 1호선은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전라남도 목포까지 총연장 939.10km의 간선도로였다. 이 도로는 서울에서 오산시까지는 삼남대로와 거의 비슷하게 건설되었지만 평택지역에서 충청도, 전라도로 내려가는 길은 기존의 대로(大路)와 다른 노선으로 건설되었다. 그것은 이들 지역이 일제의 토지수탈이나 곡물수탈, 일본인 이민자들의 정착 및 상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 있었기 때문이다.[11]

국도 1호선은 경부선 전면 개통 이듬해인 1906년에 착공했다. 1906년 통감부가 작성한 『충주수원 평택 천안 지방세도』라는 지도에도 조선 후기 삼남대로가 주요 교통로로 표시되었을 뿐 국도 1호선은 건설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11년이 되면 안성천처럼 교량 문제로 건너가지 못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략적인 완공을 봤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을 토대로 작성된 1922년 근대 지도에도 평택역에서 오산까지 국도 1호선이 경부선 철도와 함께 건설되었음을 알게 한다. 하지만 완전한 개통은 아니어서 교량 건설 등 여러 차례의 보수 및 보완공사가 진행되었고 1930년대쯤에야 실질적으로 완공되었다.

조선시대부터 삼남대로와 밀접하게 관련 있던 신리(新里)는 근대 이후 마을 서쪽으로 경부선 철도와 국도 1호선이 지나면서 근대교통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되었다. 하지만 철도역과 10리

10)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관보』, 1911
11) 평택문화원, 『2019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보고서』, 2019

이상 떨어져 있었고 국도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해 근본적인 혜택을 받기는 힘들었다. 주민들도 국도변에 간간이 버스가 다녔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어지간해서는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 다녔다고 말했다.



1922년 국도 1호선 신리 구간(좌), 2021년 국도 1호선 신리-견산 구간(우)

초기 국도1호선 신리구간은 2차선 도로였다. 1970년대 초 협진여객의 미니버스가 운행되기는 했지만 자동차 통행이 많지는 않았다.[12] 주민들은 걸어서 송탄이나 오산, 진위면 봉남리를 오갔다.

신리는 송탄생활권에 속했다. 금융기관이나 시장의 이용, 각종 생필품 구입을 대부분 송탄에서 해결했다. 신리에서 지산동 송북시장(아침장)과 신장동 중앙시장(저녁장)까지는 2km 내외였고, 서정리역과 서정리 시장까지는 4~5km였다. 아침장이나 저녁장은 참외, 배추, 무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을 판매하러 많이 다녔다. 생필품 구입도 이곳에서 했다. 아침장으로 가는 길은 신리에서 306지방도변 S-OIL주유소 방향으로 구불구불하게 나 있었다. 철도를 이용할 때는 서정리역으로 갔다. 서정리역과 오산역은 거리가 비슷했지만 주민들의 생활권이 송탄이었기 때문에 서정리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다.

신리에서 오산까지는 5km쯤 되었다. 하북리나 견산리 주민들은 오산역에서 열차를 타기도 했지만 신리는 오산장을 이용할 때만 오갔다. 오산장은 장(場)의 규모도 크고 상품도 다양해서 필요한 것을 구입할 때는 이곳을 이용했다. 약 2~2.5km 떨어진 봉남리는 행정사무를 볼 때나 진위초등학교에 등교할 때, 해방 전후에는 진위읍내장을 보러 갈 때 오갔다. 봉남리에 가려면 마을 동쪽으로 난 길(신리길)을 따라 걷다가 진위천 둑방 아랫길로 바꿔 걸은 뒤 진위천유원지 못 미쳐 징검다리를 건넜다. 봉남교는 징검다리에 아나방이라고 불렀던 구멍 뚫린 철판을 깔아서 건너다녔다. 때론 우마차도 아나방 다리로 건넜다. 아나방은 홍수에 잘 떠내려갔다. 그래서 자주 길이 끊겼는데 나중에 봉남교가 건설되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봉남교가 건설되고 자가용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지금은 봉남교로만 건너다닌다.[13]

12) 김장영(남, 1953년생), 진위면 신리 거주, 신리 이장, 2021년 9월 13일 인터뷰
13) 김장영(남, 1953년생), 진위면 신리 거주, 신리 이장, 2021년 12월 20일 인터뷰

신리-송탄길(좌), 신리-봉남리길(우)

신리에서 신장동 방향(좌), 신리에서 오산 방향(우), 진위천 징검다리 위치(아래)

김종식(남, 1942년생)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국도 1호선을 운행하는 버스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차비를 아끼려고 오산장이나 서정리장까지 걸어 다녔다. 당시 1번 국도에는 용남여객 시외버스가 지나다녔다. 하지만 도로 사정이 나빠서 시외버스는 시간에 맞춰 오지 않았다. 그래서 부득이 버스를 타려면 국도변에 나가서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려야만 했다. 오산장까지 걸어 다닐 때는 국도 1호선을 따라 갈곶리 붉은고개를 넘어 다녔다. 서정리장을 갈 때는 지산동 숯고개를 넘어 점촌을 지났다. 양쪽의 거리가 비슷했지만 서정리장은 규모가 작아서 상품이 많지 않아 오산장을 많이 다녔다. 한국전쟁 뒤 신장동과 지산동에 기지촌이 만들어지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오산이나 서정리를 오가던 사람들이 신장동 저녁장(국제중앙시장)이나 지산동 아

침장(송북시장)을 많이 봤다. 아침장까지는 1.2km쯤 되어서 손쉽게 걸어 다녔다. 농산물을 판매할 때도 주로 아침장을 이용했다. 저녁장은 아침장에서 철도건널목을 넘어 400~500미터쯤 걸어갔다.

버스 운행이 원활해진 것은 1970, 80년대가 넘어서면서부터다. 1990년대부터는 자가용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2015년부터는 진위여객 마을버스가 아침 8시, 오후 2시, 4시 하루 세 번 마을까지 들어온다. 마을버스는 송탄시외버스터미널과 병원사거리를 한 바퀴 돌아서 진위면까지 순회하기 때문에 운전을 못 하는 노인층에서 많이 이용한다.

5) 지명유래

마을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신리	마을	신리	삼남대로 장호원이 있었던 곳으로 19세기경 독립된 마을이 형성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 과정에서 진위군 북면 신리로 편재되었다.
		새터말	신리의 다른 이름. 19세기쯤 건는들에 새로 형성되어 유래된 것으로 추정한다.
		벌말	신리의 다른 이름. 건는들에 마을이 형성되어 유래되었다.
		원터거리	신리의 다른 이름. 조선시대 삼남대로 장호원이 있어 '원터', '원터거리' 라고 했다. 작은 원터거리 큰 원터거리로 구분한다.
		신리맨션	신리마을에 건축된 빌라형 공동주택이다.
		신리맨션 2차	신리마을에 건축된 빌라형 공동주택이다.
		매화빌라	신리마을에 건축된 빌라형 공동주택이다.
	산 · 하천 · 들	삼남대로	김정호의 『대동지지』에 제6대로라고 했다. 한양에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삼남지방을 모두 지나간다고 해서 '삼남대로' 라고도 부른다.
		장호원	조선시대 삼남대로가 지났던 진위면 신리에 설치했던 역원(驛院)이다. 18세기 중반까지 운영되다가 삼남대로의 경로가 봉남리 방향으로 바뀌면서 폐원(閉院)된 것으로 추정한다.
		경부선 철도	1902년부터 착공하여 1904년 완공하고 1905년 1월 1일 개통된 철도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연결되었다.
		국도 1호선 (경기대로)	경부선 철도건설과 함께 건설되기 시작하여 1911년 1차 완공했고 지속적인 보수공사로 1930년대 초 완공된 도로다. 신의주에서 목포까지 연결되었다.
		진위천	진위면 견산리와 신리 사이에 흐르는 하천이다.

마을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조선시대에는 장호천이라고 했다가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진위군 일대를 가로질러 흐른다고 해서 ‘진위천’이라고 개칭했다.
		진위교	국도 1호선 신리에서 견산1리 방향으로 진위천을 건너가는 다리이다.
		장둑(큰둑)	진위천 제방을 말한다. 1960년 1차 공사를 했고 1960년대 말까지 지속적인 보수공사를 했지만 제방이 낮아 수해 방지에 어려움을 겪다가 2004년 이후 체계적인 보강공사를 하였다.
		그네둑 (숲둑)	신리 동쪽을 빙 둘러 조성했던 수해방지용 숲으로 ‘숲둑’이라고도 불렀다. 소나무와 기름나무로 형성된 숲이었으며 1977년경 경지정리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베어서 팔아 마을 기금을 조성했다.
		보둑	신리 동쪽 원터거리 부근에 수해방지를 위해 축조한 둑이다.
		신장사거리	신리와 신장1동의 경계로 목천로, 송탄고가길, 구장교와 목천1교가 갈리지는 사거리다.
		목천1교	신리와 신장1동의 경계의 신장사거리에서 목천마을 방향으로 나아가는 다리이다.
		구장교	신리와 신장1동의 경계의 신장사거리에서 건지천을 건너는 다리이다.
		송탄고가길 (306지방도)	신리 남쪽 마산사거리에서 신장1동까지 연결된 도로이다. 306지방도이기도 하다.
		송탄육교	송탄고가길 비행장사거리를 넘어 신장1동까지 연결된 고가교이다.
		경부선 철도	1905년 1월 1일 개통한 경부선 철도이다. 신리 서쪽으로 지난다.
		신장교	국도 1호선 신리와 독곡동이 만나는 지점에 건설된 다리이다.
		비행장사거리	국도 1호선과 송탄고가길이 교차하는 지점의 사거리다. K-55오산공군기지로 건너가는 사거리다.
		신리삼거리	국도 1호선(경기대로)에서 신리길이마을로 들오오는 삼거리이다.
		신리길	신리삼거리에서 신리마을을 지나 봉남교까지 연결된 도로이다.
		건는(넌)들	신리 일대의 들판으로 주 경작지다. 『광무양안』에는 신리전후평, 신리동, 장안들 등으로 구분하였지만 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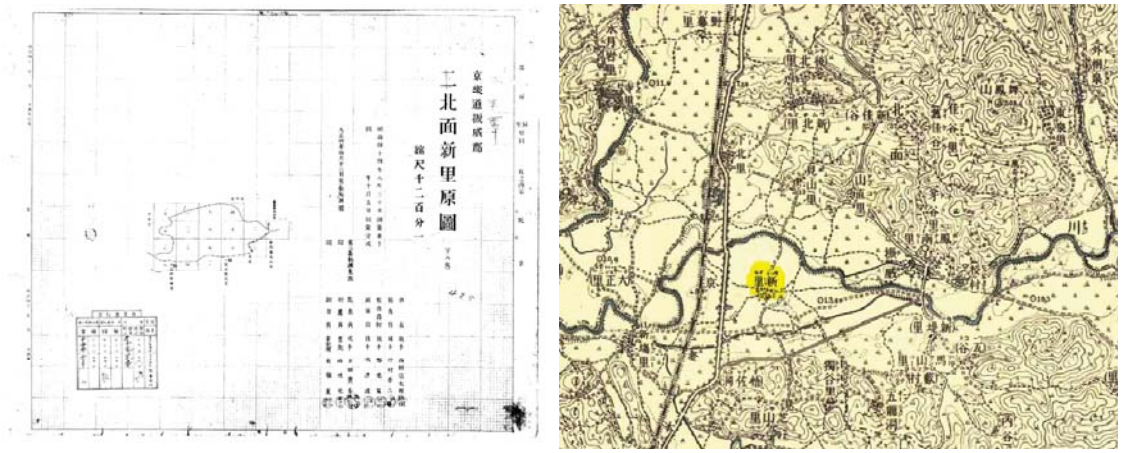
마을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후 '건는들'로 통합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참외재배, 1980년대부터 비닐하우스시설재배가 성행한다.
		원들	1911년경 편찬된 『조선지지자료』에 나오는 지명이다. 신리 동쪽 원터거리 주변의 들판이다.
		신보(新洑)	1911년경 편찬된 『조선지지자료』에 나온다. 신리 북쪽 진위천에 만들었던 보(洑)다.
		맹승이 연못	신리와 독곡동 경계 부근에 있었던 연못이다. 조선 전기 맹사성과 관련된 '인침담' 전설이 전해오는 연못으로 추정된다.
		조가비웅덩이	원터 근처 작은둑 옆에 있었던 웅덩이. 맑고 차가웠으며 조개가 서식하여 유래되었다.
		도깨비웅덩이	마을 근처에 있는 웅덩이로 도깨비가 나타났다고 하여 유래되었다. 명절 때 소와 돼지를 잡아 해체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다.
		신리 제방	신리 동쪽 원터거리에 쌓은 수해 방지용 제방이다. 본 제방과 보조제방 두 개가 있었다.
	기타	세아FS	진위면 신리마을 서쪽의 공장이다. 1979년 ㈜부산번디에서 출발했다. 1981년에는 삼성전자의 냉장고용 강관을 전량 공급했다. 1988년 한국번디(주)로 상호를 바꿨다. 2014년 세아FS(주)로 사명을 다시 바꾸었다.
		YKK한국 평택공장	신리 서쪽 국도 1호선 변에 위치한 공장으로 1977년 9월 한일합작으로 설립되었다. 현 공장은 1977년 12월에 건설했다. 1984년 12월 1차 증축과 증설을 했으며, 1999년 6월에는 YKK서울과 합병하여 YKK한국(주)로 사명을 바꾸었다.
		신리중앙교회	2000년 2월 21일 신리마을 안에 창립한 개신교회다. 예장 보수 교단 소속이며 교인은 15~20명이다.
		진위야구장	진위천 신리 북쪽 둔치에 조성된 사회인야구장이다.

2. 역사와 마을

1) 행정구역의 변화

신리(新里)는 19세기에 형성된 마을이다. 1789년에 편찬된 『호구총수』 이북면[14]에도 신리(新里)라는 마을은 없다. 신리(新里)라는 마을이 나오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1899년에 편찬된

『진위현 읍지』 지도이다. 이곳에는 진위현 이북면에 ‘신리(新里)’라는 지명이 또렷하게 표시되었다.



『광무양안』의 신리 지적도(좌), 1922년 근대 지도의 신리(우)

1911년경 편찬된 『조선지지자료』에는 이북면에 후북리, 하북리, 견산리, 신리, 신가곡리, 구가곡리, 신북리, 산거리(앞거리)같은 마을이 나온다. 『조선지지자료』는 신리(新里)라는 마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문헌이다. 또 같은 책에서는 가곡리가 신가곡과 구가곡으로 나뉘며, 견산2리(산거리), 가곡4리(신북)같은 마을이 새롭게 등장한다. 이것은 19세기를 거치며 진위천, 오산천 일대가 간척되고 경작지가 확대되면서 인구와 마을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신리(新里)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기존의 ‘신리’를 단일마을로 하여 진위군 북면에 포함시켰다. 1904년경 작성된『광무양안』에 따르면 당시 신리의 호(戶)는 약 11호로 추정된다. 1949년 북면이 ‘진위면’으로 개칭되었다. 이에 따라 신리(新里)도 ‘진위면 신리’가 되었다.

2) 자연마을

신리(新里)는 건넌들과 원들에 형성된 단일마을이다. 북쪽과 서쪽으로는 진위천, 서쪽으로는 경부선철도와 국도 1호선이 지난다. 조선시대에는 삼남대로가 지났고 장호원이 설치되었다. 그래서 원(院)이 있다고 해서 주막거리, ‘원터거리라고 불렀고, 큰 하천을 끼고 들판에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벌말, 새로 형성되었다고 해서 새말, 온양 방씨 마을이라고 해서 방촌말로 불렀다.

토박이 유인숙(남, 1932년생)은 1959년 전후 이장(里長)을 봤다. 리(里) 형성 시기에는 10여 호(戶)였지만 점차 증가하여 1959년 마을 규모는 29호(戶)로 증가했다. 그러던 것이 1960년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제2공화국이 진위천에 임시제방을 축조하고 경지면적이 확대되자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마을에 유입된 인구는 주변 지역에서도 들어왔지만 대부분 전라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1963년에는 48호(戶) 310명(名)으로 증가했다. 1970년대에는 농업인구의 증가와 함께 마을 주변에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회사원들이 정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1977년 『평택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1976년 12월 말 현재 신리의 인구는 75호(戶) 535명(名)이었다.[15]

14) 『호구총수』 이북면에는 가곡리, 후북리, 하북리, 견산리 4개의 마을만 언급되었다. 가곡리는 가곡1,2리 가오곡(개실)을 의미하며 후북리는 가곡3리이다. 일서면의 신리는 서탄면 금암3리 새말이다.

1985년경에는 142호(戶) 598명(名)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다가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토박이 고령층이 증가하고 젊은층이 도시로 이주한데다 마을 안에 빌라가 신축되어 회사원들이 거주하면서 세대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인구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2021년 7월 말 현재 신리의 인구는 236세대 492명이다.[16)]

신리 전경

성씨는 마을형성 초기까지만 해도 온양 방씨가 대성(大姓)이었다. '방촌' 이라는 지명도 온양 방씨의 마을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문화 유씨가 수적으로 우세를 보였다. 그밖에 여산 송씨, 김해 김씨도 많아졌다. 하지만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외지인의 정착이 많아지고 세대 수가 증가하면서 토성(土姓)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고 있다.

신리는 농촌 마을이다. 진위천 변의 충적토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지층에 모래가 두껍게 깔리고 배수가 잘되어서 논농사보다는 밭농사에 유리했다. 마을 뒤쪽에 '신보(新洑)' 와 같은 보(洑)를 축조하여 농업용수도 풍부했다. 이 같은 조건을 이용하여 해방 전후에는 보리나 밀 농사가 발달했고 1960년대 이후에는 채소와 참외 농사가 성행했다. 특히 참외 농사는 1960, 70년대를 거치며 대단히 발달하여 한 때 신리를 상징하는 특산품으로 인정받았다. 1970, 80년대에는 배추와 무같은 채소재배가 발달하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비닐하우스시설재배가 본격화되었다. 비닐하우스시설재배로는 배추 농사도 지었지만 애호박과 오이 재배를 더 많이 했고 근래에는 토마토 농사도 많이 짓는다.

15) 평택군, 『평택군 통계연보』, 1977
16) 진위면행정복지센터 제공 '진위면 주민등록 인구.'

신리는 1970, 80년대 ㈜세아FS, YKK한국 평택공장, 영풍제지 같은 중견기업들이 마을 주변에 들어오면서 경관이 바뀌고 인구도 증가했으며 마을구성원의 성격도 바뀌었다. 회사원들로 구성된 주민들은 마을 안의 빌라에 거주하는데 마을주민들과 소통과 교류도 거의 하지 않는다. 근래에는 노령층의 증가와 주변 기업들의 부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구도 감소한다.

신리는 들판에 형성되어 수해(水害)를 많이 겪었다. 그러다가 1960년 진위천 임시제방공사와 이후 지속적인 보강 공사하면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1991년까지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수해가 발생하면 비닐하우스시설도 크게 훼손되었고 농작물이 망가지지만 무엇보다 마을이 침수되어 생명이 위협받았다. 신리 사람들은 수해가 발생하면 하북리의 진위중학교나 진위천 건너편 마을의 주요 공공시설로 대피했다. 재산상의 피해도 막대했다. 주민들이 수해의 공포에서 벗어난 것은 2000년대 이후 진위천 제방을 더 높이고 하천 둔치에 공공시설을 확충하면서부터다.

신리는 두레와 거북놀이, 마을제 등이 발달했다. 두레는 논매기를 위해 조직된 공동노동조직이었다. 좌상과 상쇠를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논매기 뿐 아니라 마을의 각종 행사에서도 중심 역할을 했다. 하지만 1960년대 제초제가 보급되고 1980년대 전후 기계화영농이 보편화되면서 두레는 중단되었다. 음력 정월과 10월에는 마을 숲에 제(祭)도 지냈다. 마을제는 주민들 전체가 참여하다가 해방 후에는 개인 신앙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월대보름 행사를 비롯한 공동체 제의나 행사가 대부분 중단되었지만 지금도 신리노인회를 중심으로 단체관광이나 마을잔치가 개최되곤 한다.

3) 한국전쟁과 새마을운동 경험

신리(新里)는 국도 1호선 옆에 마을이 위치하여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유인원(남, 1938년생)[17]은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다. 유인원에 따르면 신리(新里)는 전쟁 폭격으로 가옥이 파괴되는 피해는 입지 않았는데 인민군들이 내려올 때나 올라갈 때 주둔하면서 밥해주거나 부역 동원되어 방공호를 파는 수고를 당했다. 지방 좌익들의 활동으로 피해를 입기도 했다.

당시 유인원의 집에서 머슴 살던 청년이 있었다. 머슴은 인민군들이 내려와 선전 선동을 하자 이에 경도되어 집안일은 하지 않고 내무서와 인민위원회에 들어가서 발간 완장을 차고 마을을 휘젓고 다녔다. 참다못한 유인원의 아버지가 ‘남의 집에 있으면 일을 해줘야지 돌아만 다니면 되느냐’ 고 혼을 냈다. 그 일이 있은 뒤 아버지가 인민위원회 사무실에 끌려갔다. 인민위원회 사무실은 유인원의 집 뒤에 있었다. 유인원은 부친의 안위가 궁금해서 몰래 그곳으로 가봤는데 아버지가 인민위원회 사무실에 무릎 꿇고 앉아 머슴에게 취조를 받고 있었다. 머슴은 아버지에게 ‘내가 의용군에 다녀오면 너희 집 재산은 모두 내 것이 된다. 그러니 잘 보관해 둬라’ 라고 말하며 재산포기각서를 쓰게 했다. 그것을 본 유인원은 속에서 피가 거꾸로 치솟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유인원의 고종아저씨도 부자였다. 그 집 머슴도 유씨네 머슴처럼 똑같이 행동하다가 의용군으로 나갔다. 그런데 유엔군에 밀려 인민군이 후퇴한 뒤 유인원의 머슴은 돌아오지 않았고 고종 아저씨댁 머슴만 돌아왔다. 아버지를 해코지한 머슴이 돌아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이를 갈던 유인원은 허탈했다. 고종아저씨 댁 머슴이 돌아오자 친척 중에 경찰을 했던 사람이 잡아서 유엔군(미군)에게 넘겼다. 하지만 미군은 조사를 하더니 대부분 강제로 한 것이고 자발적인 악행은 거의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풀어주었다. 하지만 인민군 치하에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

17) 유인원(남, 1938년생), 신리 거주, 전 이장, 2021년 9월 15일 자택에서 인터뷰

들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하북1리 은행나무 뒤로 데리고 가서 총살했다.

유인원(남, 1938년생)에 따르면 머슴을 하던 사람들이 지방좌익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주민들 중에 사회주의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유인원은 그 원인을 '천주교인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민위원장도 서로 맡지 않으려고 사양했는데 그렇게 되면 마을 전체가 위험해진다며 마을 사람 중에 대표를 뽑아 억지로 맡겼다. 인천상륙장전 성공 뒤 인민군이 패퇴하던 어느 날 마을 동쪽 장둑이 있는 곳에서 인민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그래서 '왜 파고 있느냐?' 고 물었더니 '인민군 켈로부대가 천안까지 내려갔다가 국군 소령 계급의 포로를 한 명 잡았는데 그 사람을 잡아다가 신리 인민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맡기며 다음 날까지 잘 지키라고 했는데 불쌍해서 몰래 풀어줬다는 것'이다. 화가 난 인민군은 '너희가 놓쳤으니 대신 죽어야 한다' 며 구덩이를 파게 하게 하고 그 속에 서 있게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인민군들은 구덩이에 세워두고 하늘을 향해 공포를 몇 발 쏘면서 두 사람에게 엄포만 주었지 죽이지는 않았다. 유인원은 두 사람이 풀어준 국군 소령이 살아 있기만 했으면 감사하다며 찾아왔을 텐데 오지 않은 걸 보니 풀려난 뒤에 전사했을 거라고 말했다.

인민군 켈로부대가 물러난 뒤 일주일 만에 유엔군(미군)이 올라왔다. 인민군이 후퇴할 때는 비가 많이 내렸다. 인민군들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엄청나게 몰려왔다가 진위천을 건너 무봉산 방향으로 후퇴했다. 무봉산 줄기를 따라 북쪽으로 후퇴하기 위해서였다. 후퇴하던 인민군들은 유인원의 집에 들어와 배고파 죽겠으니 밥 좀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밥도 해줬고 개를 잡아 달라고 해서 개를 잡아 보신탕도 끓여주었다. 그와 같은 요구를 했지만 인민군들이 민간인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군기도 엄정해서 사적인 요구나 물건을 함부로 손대지도 않았다. 좌우익의 갈등이나 민간인을 해코지한 것은 지방빨갱이(지방좌익)들이었다.

국도 1호선과 신리(좌), 유인원(남, 1938년생)씨

유인원은 인민군이 후퇴할 때 피해도 입었다. 당시 경부철도 건너편에는 유인원 댁 소유의 밭과 작은아버지 밭이 있었다. 밭에는 참외를 심었는데 인민군들이 후퇴하자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일꾼들을 데리고 나가 참외를 따서 길가에서 팔았다. 그때 하북1리 쪽에서 유엔군 전투기가 나타나 K-3기관총으로 국도 1호선 변을 기총소사하며 흩고 지나갔다. 갑작스런 사격에 길 옆에 있던 사람들 15명 내외가 사망했고 작은아버지와 많은 사람들이 유탄에 맞거나 돌이 튀어서 크게 다쳤다. 그러자 국군과 함께 따라온 의무대의 간호사들이 다친 사람들을 인민위원회가 있었던 유인원의 뒷집에 데려와 치료를 했다. 당시는 전쟁 중이라 치료약이 넉넉하지 않았다. 유인원이 지켜보니 간호사도 환자들의 환부에 일명 빨간약을 발라줬을 뿐 별다른 치룔르 하지 못했다. 그러

다가 부상병들이 죽으면 밤에 조용히 묻어버렸다. 유인원은 그런 모습에서 전쟁의 비참함을 목도했다.

한국전쟁 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신축한 뒤에 아버지가 작고했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작고에 재산관리가 잘되지 않아서 농지개혁 때는 상속된 땅을 많이 잃었다. 농사를 3년쯤 짓다가 17세에 미군기지에 취업했다. 당시 미군기지 취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의 나이였다. 취업 초기에는 하우스 보이로 심부름하고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미군기지에 다니다가 25세에 입대를 했다. 입영을 미루다가 병역기피로 몰려 늦게 입대하게 되었다. 전역 후 입대 전 일했던 곳에 취업을 의뢰했더니 대구 팔공산 사이트에 근무할 의향이 있으면 다시 오라고 해서 재취업에 성공했다. 팔공산 사이트에서는 10년 근무했다. 미군기지에서는 레스토랑에서 근무했다. 음식 조리도 하고 청소도 하는 일이었다. 당시 미군기지 급료는 일반 회사보다 많았다. 저녁에 영화 상영을 해주고 부수입을 얻기도 했다. 휴가 나올 때도 미군열차에 타고 다녔다. 미군기지에 근무할 때 가족들은 신리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마침 미군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자고 권했다. 자신의 부모에게 말해서 초청장까지 보내왔는데 고향에 와서 가족들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중히 거절하고 퇴직을 결심했다.

퇴직 후 축사(畜舍)도 운영하고 농사는 소작을 주며 마을과 지역 일을 많이 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할 때는 이장을 봤고 지역방범위원장도 맡았다. 1970년 정부에서 새마을교육을 가라고 지시를 했다. 그래서 수원의 농촌진흥청에 가서 교육받았다. 정부에서 지급한 시멘트 330포로는 주민들을 부역 동원하여 마을 길 넓히기 사업을 했다. 확장된 도로 부지는 거의 반강제로 수용했다. 당시에는 정부 시책에 반하면 역적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주민들은 부역 동원에도 군말 없이 나왔다. 마을 발전은 개인의 삶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의식도 컸다. 퇴비증산을 위해 1년에 두 번 풀을 깎으러 나오라고 해도 잘 나왔다. 마을 길 넓히기 뒤에는 지붕개량을 했다. 당시 슬레이트는 정부가 값싸게 공급하고 비용은 개인이 부담했다. 퇴비증산운동도 열심을 냈다. 신리(新里)는 국도 1호선 옆이어서 평택군수가 자주 들렀다. 퇴비 증산을 잘하면 평택군수가 요소비료 같은 것을 부상으로 지급했다. 새마을운동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전개되었다.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고 강제로 부역동원하는 폐해도 있었지만 덕분에 마을 안까지 버스나 자가용, 농기계들이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3. 경제생활

1) 농업

(1) 경지면적과 변화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진위현의 간전(墾田[18])이 2,841결(結)이며 논과 밭이 반반이라고 하였다. 또 토질이 사람이 살거나 곡식이나 과실을 심는데 알맞다고 말했다. 1843년 『진위현 읍지』

18) 현재 경작하고 있는 전지(田地)를 말한다.

에는 징세(徵稅)하는 경작지가 2,493결(結) 92부(負) 3속(束)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밭이 1,275결(結) 27부(負)이며, 논이 1,218결(結) 65부(負) 3속(束)로 논밭 비율이 반반이었다. 1891년 『진위현 읍지』에는 "궁방(宮房)의 면세전(免稅田)이 729결(結) 97부(負) 5속(束)이고, 면세답(面稅畓)이 377결(結) 13부(負), 둔전(屯田) 228결(結)"이라고 해서 궁방전이나 역둔토의 비율이 높았음을 알게 한다.

신리 들판

진위면 일대는 만성적 가뭄과 홍수로 고통을 받았다. 진위천으로는 바닷물이 역류해서 농업용수로 부적합했고 장마 때는 범람하기 일쑤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 후기에는 진위천과 각종 소하천에 보(洑)를 축조했다. 1843년 『진위현 읍지』에는 성북면에 진가리(眞加理) 제언과 눌리제언(訥理堤堰)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진가리제언은 1664년(인조 22) 숙휘공주방에 주었지만 물이 말라서 쓸 수 없게 되자 둑을 헐었고, 눌리제언은 같은 해 숭선군방에 주었지만 물이 말라버리자 논으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1891년 『진위현 읍지』에는 진위천에 축조한 신보(新洑)와 장호평보(長好坪洑)를 말하고 있다. 신보(新洑)는 "현 서쪽에 있었으며 이북면에 관개한다"고 했으므로 신리 북쪽 진위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주민들도 1970년대 초 이동저수지에서 농업용수가 공급되기 전까지는 마을 북쪽 진위천에 모래주머니로 신리보(新里洑)를 축조했다고 하므로 앞의 기록은 신리보(新里洑)를 의미할 것이다. 장호평보(長好坪洑)는 "현(縣) 동쪽 3리 지점에 있다"고 했다. 진위면 주민들이 동천1리 남쪽 진위천에 쌓았다는 '장안보'가 이것으로 판단된다. 신리보(新里洑)와 장안보는 음력 2월~3월경 축조했다. 하천이므로 늦게 축조해도 농업용수가 넉넉하게 고였다. 이것을 용두레나 양수기로 퍼 올린 뒤 도랑을 이용해서 논에 물을 댔다. 보(洑)는 장마가 지기 전에 터트렸다. 큰물을 감당할 만큼 튼튼하지 않아서 그냥 놔두면 하천이 범람했기 때문이다.

진위천 신리부근(좌), 신보(新洑)(우)

위 두 개의 보(洑)는 1970년대 초까지 사용했다. 그러다가 1964년에 착공하여 1972년 준공한 이동저수지(송전지)가 완공되면서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1977년 경지정리사업이 이뤄지면서 중단했다. 이동저수지는 관개 면적 3,152㏊, 유효 저수량 17,200,000t, 제방 길이 666m, 제방 높이 18m이다.

신리 주민 김종식(남, 1942년생)[19]은 보(洑)나 저수지(貯水池)에 대해 ‘마을 뒤에 보(洑)가 있었는데 모래로 쌓았다가 장마 때 흘러나가면 다시 쌓았다’ 고 대답했다.[20] 김종식이 말하는 보(洑)는 통상 신리보(新里洑)라고 부르는 신보(新洑)를 말한다. 신보(新洑)는 신리 북쪽 진위천을 가로질러 쌓았다. 매년 3월 초 봇물을 사용하는 신리, 마산1리 오룡동, 독곡동 오좌동 사람들이 함께 쌓았다. 보(洑)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인을 두었다. 관리인을 ‘보주(洑主, 봇주)라고 불렀다. 보주(洑主)에게는 매년 추수를 한 뒤 일정량의 곡식을 걷어 댓가를 지불했다. 지급한 금액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김종식(남, 1942년생)도 청소년기의 일이라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종식(남, 1942년생)은 용인의 이동저수지(송전지, 어비리저수지)를 만든 시기를 1968년경으로 기억했다.[21] 하지만 김종식이 기억하는 1968년은 완공보다는 물막이를 성공한 시기로 판단된다. 이동저수지를 축조하기 전까지는 수해가 심했다. 1960년에 쌓은 진위천 제방은 임시제방이어서 장마 때 조금만 물이 불어나도 터져버리기 일쑤였다. 제방이 터지면 마을과 들판이 물에 잠겨서 참외와 각종 농작물이 둥둥 떠내려갔다.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을회관 앞에 불종(쇠로 만든 기다란 종)을 걸어두고 둑이 터질 때마다 두드려 위급함을 알리는 것밖에 없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해는 1959년 사라호 태풍과 1972년의 태풍 베티, 1990년의 수해가 가장 컸다. 수해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진위천 건너편 하북리나 견산리로 피난을 갔다. 김장영(남, 1953년생) 이장은 1972년 수해 때는 하북으로 피난 갔고, 1990년 수해 때는 진위고등학교로 피난 갔었다고 말했다. 마을에서는 수해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방을 축조하기도 했다. 원터거리 송어양식장에서 남북으로 길게 쌓은 제방이 그것이다. 김종식(남, 1942년생)은 그것이 수해 방지를 위한 대응댐이라고 말했다. 마을 동쪽에는 소나무로 제림(堤林)도 했다. 신리가 수해(水害)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2000년대 중후반 진위천 제방을 높이면서부터다.

19) 김종식(남, 1942년생), 신리 거주, 신리 개발위원, 2021년 9월 13일 인터뷰
20) 김종식(남, 1942년생), 신리 거주, 신리 개발위원, 2021년 9월 13일 인터뷰
21) 이동저수지는 1964년 착공하여 1972년 완공했다.

1970년대 후반 경지정리 된 신리 건는들

1972년 이동저수지가 완공되면서 경지정리가 시작되었다. 김종식(남, 1942년생)은 자신이 군대 갔다 전역할 때 시작했으니 1977~78년경이라고 주장했다. 김장영(남, 1953년생) 이장도 신리 들판의 경지정리는 1970년대 후반부터라고 또렷하게 기억했다. 경지정리를 하면서 논들이 네모반듯해졌고 농로가 넓혀졌으며 농수로가 완비되어 수리안전답으로 바뀌었다. 신리에서 풍부한 농업용수를 이용해 비닐하우스시설재배와 노지 채소재배 면적이 크게 확대된 것도 이때부터다. 논농사에서 농업생산력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때부터다. 경지정리 전에는 200평 한 마지기에 벼 한 가마, 물을 대서 농사 잘 지어야 두 가마를 생산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경지정리 뒤에는 세 가마 또는 세 가마 반이 생산되고 있다.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논들도 없어졌다.

김장영(남, 1953년생)[22] 이장은 신리에는 논보다 밭이 많았다고 말했다. 1977년 경지정리를 하기 전까지는 밭농사가 대부분이었고 밀과 보리, 참외, 밭벼 같은 작물을 재배했다. 1903~4년경에 작성된 『광무양안』에도 신리동과 신리전후평 대부분의 농지는 밭이었다. 김장영이 아주 어릴 때는 진위천에 제방이 없었다. 그러다가 1960~61년 사이 제방을 축조했다. 앞서 김종식(남, 1942년생)이 주장했던 진위천 임시제방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작물은 수확을 해도 큰돈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보통 2모작 3모작을 했다. 예컨대 늦가을에 보리나 밀을 파종하고 봄에 수확한 뒤 참외를 심었다. 장마가 지기 전에 참외를 걷어내고는 콩이나 배추, 무 등을 심어 가을에 수확하는 방식이다.

밭농사에도 농업용수가 많이 필요했다. 신리는 진위천 변에 위치하여 지하수가 풍부했다. 땅을 7~8자만 파도 지하수가 펑펑 솟아올랐다. 1960년대 후반에는 관정을 박는 기술을 이용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설령 관정을 박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반 우물도 고개를 푹

22) 김장영(남, 1953년생), 신리 이장, 2021년 9월 15일 인터뷰

숙이면 바가지로 물을 퍼 올릴 수 있었다. 들판 곳곳에는 조가비웅덩이, 맹숭이 웅덩이를 비롯해 여러 개의 웅덩이가 있어서 조개를 잡거나 농업용수도 퍼 올릴 수 있었다.

(2) 농업인구의 변화

신리의 농업인구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1959년 신리는 29호(戶)가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었다. 그러다가 1960년 정부가 진위천 임시제방을 축조하여 개간지가 늘어나고 수해가 줄어들자 인구가 증가했다. 1960, 70년대 신리로 이주한 사람들은 전라도 농민들이 많았다. 이들은 신리에 품을 팔러 왔다가 정착한 사람도 있고, 정착한 사람이 고향 사람들을 데려오는 경우도 많았다. 1963년 12월 말 신리에는 48호(戶) 310명(名)이 거주했다. 1976년 12월 말에는 75호(戶) 535명(名)으로 증가했으며[23], 1985년경에는 142호(戶) 598명(名)으로 크게 증가했다.

1963년 진위면의 산업별 인구는 전체 3,730명(名) 중 농업인구가 3,125명(名)으로 농업인구가 절대적이었다. 그밖에 광업 24명, 제조업 14명, 건설업 4명이었다. 신리는 전체 48호(戶) 중 농가 40호(戶) 비농가 8호(戶)로 농가(農家) 비율이 매우 높았다. 논보다 밭농사 비율이 많아서 곡물 및 미곡 수확고가 서탄면에는 조금 앞섰지만 송탄읍, 고덕면 등 주변 지역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었다. 과수도 가곡1, 2리에서 약간 재배했을 뿐이고 축산업의 비율도 매우 낮았다. 오늘날 신리의 대표적인 작물인 무(182,313kg)와 배추(205,587kg)는 송탄읍이나 평택읍에 비해 월등하게 적었으며 고덕면과 비슷하고 서탄면에 비해서는 약간 높았다.

1977년 『평택군 통계연보』의 진위면 인구는 9,759명(名)이다. 신리는 75호(戶) 535명(名)이었는데 이 가운데 농업인구는 65호(戶)였고 비농가는 10호(戶)였다. 경지는 전체 면적이 1,610ha였는데 이 가운데 논이 980ha, 밭이 630ha였다. 밭농사에서는 배추재배가 210ha에 3,262.4톤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참외도 15.7ha로 여전히 많았으며, 호박도 8.1ha에 109.2톤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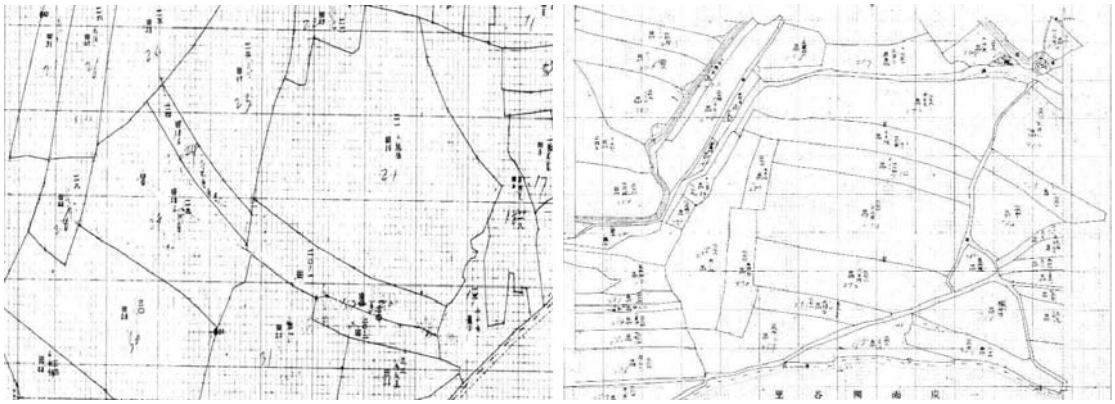
1985년이 되면 진위면의 농가는 1,113호(戶) 5,606명(名), 비농가 1,609호(戶) 6,792명(名)으로 비농가의 수가 농가보다 훨씬 많아졌다. 이것은 1970~80년대 공업화에 따른 상공업 인구의 증가 때문이다. 경지면적은 1,697ha로 1977년과 큰 차이가 없다. 미곡 수확량도 5,670톤으로 서탄면보다 조금 앞설 뿐 다른 읍(邑)·면(面)에 비해 낮았다. 반면 배추수확량은 10,887톤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3배 이상(서탄면 3,644톤, 고덕면 3,210톤) 많다. 참외는 31ha 544톤으로 다른 읍(邑)·면(面) 보다 많지만 이전보다는 크게 줄었다. 오이는 38ha 944톤, 호박은 12ha 226톤으로 다른 지역보다 크게 앞섰다. 농기계도 1980년대 중반이 되면 기존의 경운기를 비롯하여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가 모두 보급되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보급률이 낮은 편이다. 이것은 논농사의 비율이 적고 밭농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앙기나 콤바인의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위면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농업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벼농사와 맥류 생산, 두류 위주로 농사를 지었지만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밭농사에서 배추, 참외, 호박과 같은 특용작물 재배를 통한 소득증대사업이 이뤄졌다. 이 같은 현상은 1980년대 중반 채소재배가 특화되고 비닐하우스시설재배가 본격화되면서 다른 읍(邑)·면(面)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23) 평택군, 『평택군 통계연보』, 1977

1985년 이후 『평택군 통계연보』 및 『평택시 통계연보』에는 리(里) 별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신리(新里)의 농업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하지만 견산리, 하북1리는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벼농사 위주로 농사를 지었던 반면, 신리는 벼농사와 함께 밭농사 그중에서도 수도권 채소재배와 비닐하우스시설재배를 통한 참외와 배추, 애호박, 오이재배가 많았던 사실은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영(남, 1953년생) 이장은 신리 주민들은 거의 다 시설재배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규모의 크고 작음의 차이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2021년 현재 주민들 가운데 농사짓는 사람은 약 30호인데 전업으로 벼농사만 짓는 사람은 몇 집 안 되고 대부분 벼농사와 배추 농사 2모작을 한다고 말했다.

(3) 토지 관계와 지주(地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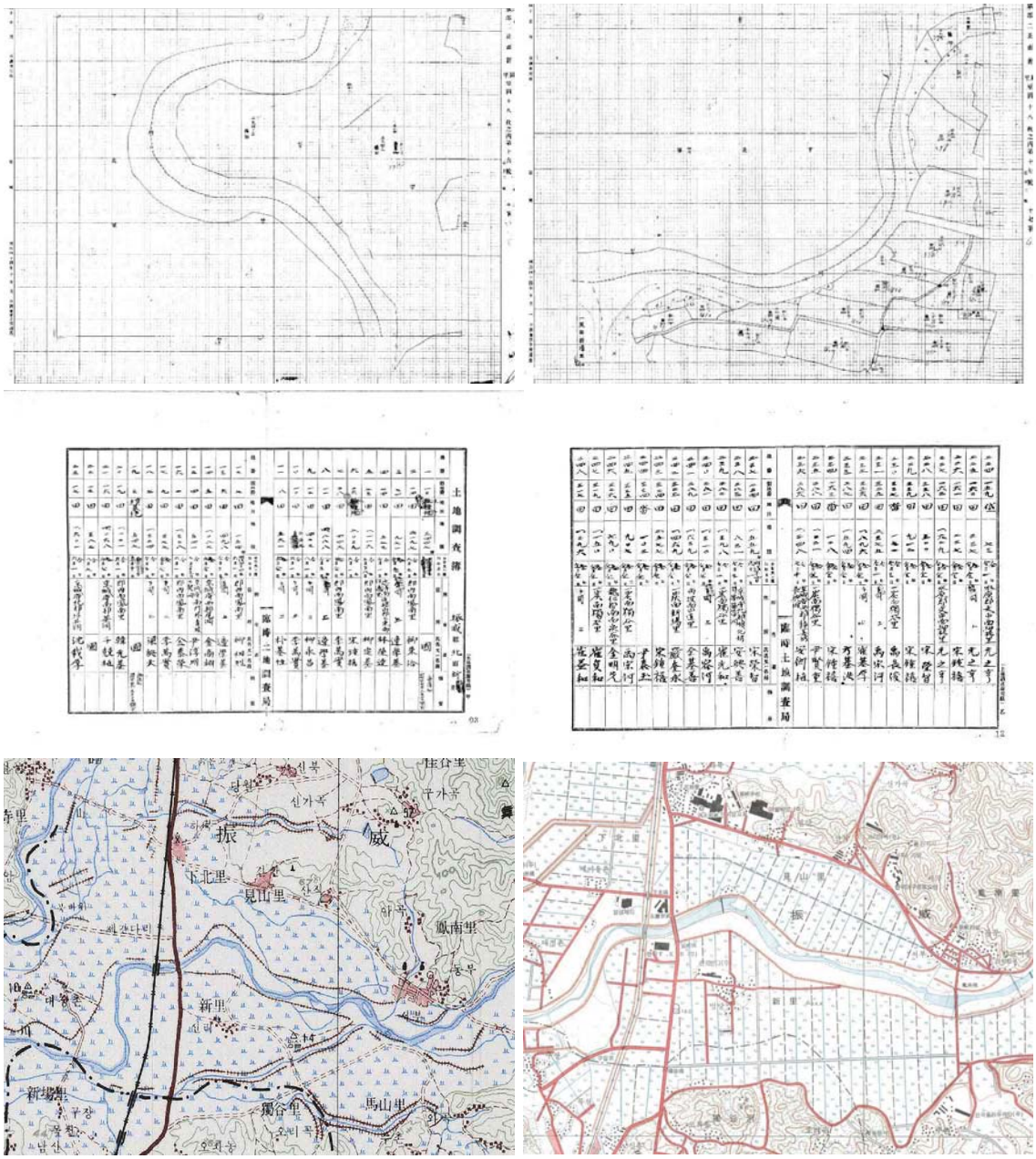


『광무양안』 신리전평, 신리동 일대 지적도

『광무양안』에 나타난 신리(新里)와 관련된 들판은 신리전후평(新里前後坪), 신리동(新里洞), 장안평(長安坪) 세 곳이다. 신리전후평은 현재 신리마을의 북쪽과 남쪽 들판을 말한다. 신리동은 동쪽과 서쪽 들판을 말하며, 장안평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국도 1호선 좌우 신리 구간, 다시 말해서 하북2, 3리와 신리 사이의 하천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지지자료에는』 '원들'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신리마을 동쪽 원터거리 일대의 논밭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무양안』에 따르면 신리전후평은 거의 전부 전(田)이었다. 신리전후평의 농지는 임원준(林元俊)이라는 인물만 약간 소유했을 뿐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地主)들은 눈에 띄지 않고 거의 모두 자작(自作)이었다. 신리동(新里洞)의 토지에서는 윤계손(尹季孫)이라는 지주가 눈에 띈다. 윤계손은 신리동(新里洞), 은야평(銀夜坪), 장호평(長澔坪) 일대에 전(田) 54.4부(負)[24], 답(畓) 160.6부(負)를 소유했다. 또 특정 인물에 초가 2간, 3간과 같은 가옥의 규모가 나온다. 이것은 신리(新里)에 집을 갖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김성돌, 김원팔, 송근필, 송만일, 송명선, 용성백, 유덕삼, 유성의, 유여홍, 유학녀, 최복만이 그들이다. 이들은 유성의처럼 초가 4간의 집에 53.6부(負)의 밭을 소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10부(負) 내외의 적은 농지를 자작하거나 자소작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24) 조선시대 토지면적의 기본단위다. 벼 한 뭇의 10배 다시 말해서 한 짐을 말한다. 광무양안을 작성할 때는 1부(負)를 100㎡(1a)로 했으며 평(坪)으로는 30.25평이다. 100부(負)는 1결(結)의 토지를 말한다.



『광무양안』의 일본인 심전여삼병위 소유 토지, 서울부재지주 천긍식의 토지,
『토지조사부』의 신리 일대 신고 토지, 1963년 및 1996년 지도

1912년에 작성된 진위군 북면 신리 『토지조사부』에는 신리(新里)의 전답은 전(田) 358,847평, 답(畓) 66,624평, 대지 2,745평이었다. 앞의 통계를 보면 1910년대까지만 해도 신리(新里) 일대의 들판은 대부분 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주(地主)는 마을에 거주하는 토착 지주는 없고 대부분 서울과 수원에 거주하는 부재지주였으며, 이웃한 봉남리, 견산리, 독곡리, 신장리 사람들이 소유한 땅들이 많았고 자작농도 보이지 않는다. 지주(地主)로는 국유지가 일부 있었고 서울에 거주하면서 봉남리에 별서(別墅)를 두고 있었던 심재후(沈在厚), 경남 울산시에 근거를 두었던 송태관(宋台觀), 서울의 윤순명(尹順明), 이근배(李根培), 천긍식(千兢植), 이병묵(李丙默), 이병권(李秉權), 김상우(金商羽), 권태환(權太換), 안흥선(安興善), 박순복(朴順福), 수원부재지주 김선일(金善

一), 용주사 땅, 그리고 고덕면 두릉2리의 한호석(韓浩錫), 율포리의 안상룡(安相龍), 양주의 이학순(李鶴淳), 독곡동의 우종철(禹鍾哲), 용인의 양영섭(梁永燮), 안성의 조희경(趙喜京) 등이 소유한 토지가 많았다. 이 가운데 1938년 작성된 『해방 전후 지주명부』에 나오는 부재지주(不在地主)는 이병묵(李丙默, 1900~1931)이고 평택지역에 거주하는 지주는 고덕면 두릉2리의 한호석(韓浩錫) 정도이다. 당시 이병묵(李丙默)은 경성부 낙원정에 살았는데 답(畓) 59정보(町步), 전(田) 15정보(町步)를 소유했고 소작인만 135명(名)에 달했다. 고덕면 두릉2리의 지주였던 한호석은 답(畓) 35정보(町步), 전(田) 2정보(町步)를 소유했다. 이들의 소유 농지는 1950년부터 실시된 농지개혁에 따라 5년 또는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소작농들에게 분배되었다. 하지만 현재 생존해 있는 주민들 가운데 1950년 농지개혁상황을 자세하게 기억하는 사람, 지주-소작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4) 영농방법과 농사 경험

밭갈이 풍경(좌), 추수 풍경(우), 벼농사(아래), 진위천 보리밭(아래)

1960, 7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농사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에 의존했다. 농가(農家)에서 농우(農牛)는 반드시 필요했다. 농우(農牛)가 있어야 논밭을 갈고 농산물을 실어 나를 수 있었다. 연자방아를 돌릴 때도 소가 필요했다. 농우(農牛)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를 빌려 썼다. 하루 소를 빌리면 며칠씩 일해줬다. 벼 모판은 곡우(穀雨) 때 만들었다. 모내기는 6월 초쯤에 시작하는데 모두 끝내면 7월 중순에 이르기도 했다. 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김매기였다. 들이 넓은 마을에서 김매기는 두레를 조직해서 해결했다. 신리에서도 두레가 조직되었지만 밭농사 위주여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고 일찍 중단되어 조직이나 운영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내기나

추수는 품을 사서 해결했다. 특히 모내기 철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올라와서 품을 많이 팔았다.

우제강(남, 1940년생)[25]은 신리(新里)는 논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농기계 도입이 늦었다고 말했다. 1980년대 초까지도 소로 논밭을 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농기계 가운데 가장 먼저 들여온 것은 경운기다. 경운기는 1977년 경지정리 전후부터 도입되었다. 우제강(남, 1940년생) 댁은 경지정리를 하던 시기에도 우마차로 농산물을 실어 날랐다. 논농사도 적은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농기계를 사려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농기계는 평택의 공업사에서 구입했다. 근래에는 마을 동쪽에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대여센터가 있다.

김장영(남, 1953년생)과 이종영(남, 1954년생)도 신리는 논농사가 적어서 이앙기는 늦게 도입되었고 밭농사 때문에 트랙터 위주로 구입했다고 말했다. 트랙터는 논밭을 갈고 농산물 운반까지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유용했다. 진위천 건너 견산리 앞 장호들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중에는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가 대략 1980년대 초쯤이다.

1970년대 후반 경지정리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신리에서는 참외 농사를 많이 지었다. 참외 농사는 논보다 밭이 많았던 영농조건 때문이기도 했지만 농업용수 공급이 가장 큰 문제였다. 농민들은 늦가을 보리를 심어 봄에 수확하고 참외 씨를 뿌려 장마 때까지 참외 농사를 지어서 원두막에서 팔거나 도매인들에게 넘겼다. 도매인들은 교통이 편리한 국도 1호선 변에 집산지를 마련하고 각 농가에서 생산한 참외를 구입하여 쌓아뒀다. 그러면 수원이나 서울에서 큰 트럭이 내려와 참외를 실어갔다. 지산동에 아침장(송북시장)이 생긴 뒤로는 손수레에 싣고 아침장까지 싣고가서 팔파는 사람이 많았다. 참외를 걷어낸 뒤에는 채소를 심거나 콩을 심어 가을에 수확했다. 그렇게 농사를 지어도 늘 보리밥을 먹었다. 김종식(남, 1942년생)은 이처럼 열심히 일해도 경지정리 전까지는 늘 보리밥을 먹었다고 말했다. 1970,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참외 원두막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였다. 아이들은 밤에 주인 몰래 참외 서리를 하다가 들키기도 했다.

참외 농사는 1970년대 후반부터 점점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비닐하우스시설재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비닐하우스에는 배추, 애호박, 오이 같은 것을 심었다가 근래에는 토마토를 많이 재배한다. 묘목은 신리에 있는 육묘장에서 구입한다. 미리 육묘장에 종류와 수량을 말해주면 길러서 배달해준다. 송탄육묘장은 독곡동 제일장례식장 앞에 있는데 1980년경 만들었다. 비닐하우스시설재배는 근래 사양길이다. 사시사철 힘든데다 인건비나 시설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랐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만둔 사람이 많다. 김종식(남, 1942년생)은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동남아시아 인력들이 입국하지 못해 기존 인력들의 품값이 매우 올랐다고 말했다. 모종도 한 개에 800원, 1,000원씩 해서 감당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널뛰기하는 데다 값이 폭락하는 현상 때문에 어려움도 많다. 수확한 농산물은 농협에서 위탁 유통해준다. 농협에서 농산물을 수매하여 각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2006년 7월 인터뷰한 김씨(여, 1936년생)[26]는 1970년대 초 이주했다. 고향과 시댁은 경북 문경이다. 시댁은 문경에서 양반 가문인데다 목재상까지 했다. 풍족한 삶을 누리던 김씨의 삶은 1971년 태풍과 홍수로 가산을 모두 잃으며 파탄 났다. 한숨 쉬며 하늘만 바라보다가 일가 동생의 황무지가 있었던 진위면 신리로 이사했다. 초기에는 신장동 미군기지 근처 여관에서 임시로 거처를 삼았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어 봄이 되어 날이 풀리면서 황무지 근처에 농막을 짓고 개간을 시작했다. 평생토록 글만 읽으며 유유자적하던 남편은 맨손으로 6천 평이 넘는 하천부지

25) 우제강(남, 1940년생), 진위면 신리 거주, 2021년 9월 13일 인터뷰
26)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 3, 평택문화원, 2008

를 개간했다. 개간을 마치고는 작물을 심었다. 농사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곡식의 파종 시기나 추수 시기도 몰라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당시 마을에는 전라도에서 올라와 정착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도와줬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첫해 수확을 마쳤는데 갑자기 남편이 시름시름 앓더니 사망했다. 김씨는 남편이 세상을 뜬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6천 평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도저히 힘에 부쳐 나중에는 일부는 소작을 주고 일부는 경작하며 날품을 팔았다. 그렇게 40여 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키웠고 농막에서 벗어나 주택도 마련했다.

(5) 채소재배와 비닐하우스시설재배

배추 노지재배(좌), 하우스 배추재배(우), 하우스 포도재배, 화훼농원(아래)

신리는 예로부터 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발달했다. 지층에 모래가 많아서 들이 넓고 물은 풍부하지만 논으로 일구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밭농사에서는 1960, 70년대 참외재배가 성행하다가 1980년대 이후부터는 수도권 채소재배와 비닐하우스시설재배를 많이 한다.

신리(新里) 이장 김장영(남, 1953년생)[27]에게는 참외재배의 기억이 생생하다. 신리에서 참외재배가 성행했던 시기는 1960~70년대다. 당시 진위천 변에는 참외 원두막이 주택들보다 많았다. 참외 농사는 신리 사람들도 재배했지만 독곡동 오리골이나 마산1리 오룡동, 견산리 사람들도 신리에 와서 농사를 지었다. 참외밭에서 수확한 참외는 서울의 도매상들이 매집을 해서 한데 쌓아놓고 지무시 트럭이나 맹꽁이차를 끌고 와서 싣고 갔다. 실려 간 참외는 용산청과물시장에서 전국에 매매되었다. 참외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가운데는 손수레에 참외를 싣고 지산동 아침장(송북

27) 김장영(남, 1953년생), 진위면 신리 이장, 2021년 9월 15일 인터뷰

시장)에 가서 팔기도 했다. 이종영(남, 1954년생)도 효명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참외를 실은 어머니의 리어커를 아침장까지 끌어주고 등교했던 기억을 말했다. 1970년대 후반에는 비닐하우스시설재배가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경운기가 보급되어 논밭을 갈고 수확한 참외와 각종 농산물의 운반까지 도맡았다.

신리들판의 농수로

김장영(남, 1953년생)과 이종영(남, 1954년생)은 비닐하우스시설재배는 신리가 가장 앞섰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초반에도 참외씨를 뿌리면 창호지에 기름을 먹여서 대나무 두 개에 고깔처럼 씌운 뒤 싹을 틔웠는데 그것이 비닐하우스재배의 효시라고 했다. 오늘날과 같은 비닐하우스 형태는 1980년대 초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씨앗을 직파하지 않고 텃밭에 씨를 심어 볏짚을 덮고 대나무를 세운 뒤 기름종이로 덮어서 며칠 놔두면 씨앗이 틔워졌는데 그때 숨구멍을 뚫어주어 모종을 길러냈다. 초기 비닐하우스에는 상추와 오이를 재배했다. 그러다가 신리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북2, 3리로 건너가서 하우스재배에 뛰어드는 바람에 오늘날 하북리가 비닐하우스재배의 중심 마을이 되었다고 했다.

유인원(남, 1938년생)은 1960, 70년대 이 지역에서 재배한 참외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다고 말했다. 노랑참외, 개구리참외, 열두 곶 참외가 대표적인 품종이었다. 참외재배가 시작된 것은 한국전쟁 뒤부터였다. 물론 해방 전후나 한국전쟁 전에도 유인원씨 댁도 조금씩 농사를 지었지만 본격적인 재배라고는 볼 수 없었다. 유씨는 참외재배를 하게 된 계기를 묻자 토질이 배수가 잘되는데다 2모작, 3모작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1950년대 신장동 일대에 미군기지촌이 발달하면서 판로가 생기자 재배 농가가 더욱 늘었다. 신리 참외가 소문이 나자 나중에는 서울의 도매상들이 밭떼기로 사서 서울로 직송하기 시작했다. 도매상들은 도로변에 참외 집하장을 만들어 놓고 참외를 사서 모은 뒤 트럭으로 실어 갔다. 하지만 그것도 1970년대 말이 되면서 시들해졌다. 비닐하우스시설재배라는 부가가치가 높은 농법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비닐하우스시설재배는 년 중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수익 면에서도 훨씬 나았다.

우제강(남, 1940년생)[28]은 독곡동 오리골이 고향이다. 하사관으로 장기복무를 마치고 24세에 전역한 뒤 농사를 지었다. 집안이 부유해서 농지(農地)가 3만 평이 넘었다. 29세에 결혼한 뒤 몇 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35세에 분가하면서 농지(農地)가 있는 신리로 이주했다. 부모님은 신리에 작은 집 한 채와 1,704평의 농지를 분배했다.

28) 우제강(남, 1940년생), 진위면 신리 거주, 2021년 9월 13일 인터뷰

채소재배는 분가(分家) 전부터 했지만 비닐하우스시설재배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작했다. 1977년 경지정리를 하기 전 신리 들판은 대부분 밭이었고 다랭이논이 일부 있었다. 비닐하우스에는 오이와 애호박을 재배했다. 재배농지(農地)도 3만 평이 넘었고 비닐하우스도 30여 동이 넘었으며 직원들도 17명이나 두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비닐하우스보다는 노지에 배추와 무 재배를 많이 했다. 비닐하우스재배가 고수익 농법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제강, 다솔화훼 정연섭, 대림육묘장, 평택시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아래)

1980년대 초반 비닐하우스는 대나무로 만들었다. 대나무를 둥글게 휘어서 땅에 박은 뒤 비닐을 씌우는 방식이었다. 당시에는 비닐의 질도 나빠서 1년을 사용하면 낡아서 버려야 했다. 요즘 비닐은 5년~10년을 사용해도 끄떡없다. 그래도 당시에는 비닐하우스재배의 여건이 좋았다. 우선 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넘쳐났고 1일 임금도 200원(쌀 2되 수준, 쌀 한 말 품삯이면 4일을 일해 줌)에 불과했다. 심지어 신리 주민들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도 하우스에 나와 일할 정도여서 인부 때문에 속을 썩이는 일은 없었다.

초기에는 하우스 수박을 재배했다. 수박은 4월에 씨를 심어서 6~7월에 수확했다. 수박을 걷어내면 배추를 심었다. 그렇게 몇 년을 하다가 오이 재배로 품종을 바꿨다. 수박과 배추를 생산할 때는 도매상인들이 밭떼기로 사서 수확물을 가져간 뒤 용산청과물시장(나중에는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 가져가서 팔았다. 당시 밭떼기로 팔아버리면 하우스관리를 도매상인들이 직접 했다. 그래서 일단 심어서 일정하게 자란 뒤에는 크게 할 일이 없었다. 앞선 기술과 대규모 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릴 때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당했다. 1978년경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쳐 서울의 큰 병원에 8개월쯤 입원한 것이다. 당시에는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기 전이어서 병원비로 농지 약 1만 평 값을 지출했다. 그렇게 죽다 살아는 뒤에도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를 계속했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신리 주민들이 너도나도 비닐하우스재배를 시작했다. 하지만 자본이 부족해서 우제강처럼 대규모로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근래에는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건비와 재료비가 급상승하면서 소규모 투자로는 타산이 맞지 않자 대농(大農)을 제외하고는 폐업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우제강(남, 1940년생)은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는 투기성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벼농사는 아무리 수확량이 적어도 매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데 반해 비닐하우스 농사는 가격 변동이 심해서 잘못하면 기본 투자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외 인력수급이 안 되고 있어 임금이 엄청나게 올랐다. 쇠파이프와 비닐 같은 자재 값도 덩달아 올라 진퇴양난이다.

신리 남쪽에는 육묘장(育苗場)도 있다. 육묘장은 1980년대 초반에 처음 만들어졌다. 지금 있는 것은 1990년대 중반 마산1리 오좌동의 최정근이 만든 것이다. 근래 농사는 대부분 육묘장에서 모종을 사다가 심는다. 모종은 육묘장에 주문해서 사 오기도 하지만 농협에서 운영하는 육묘장에서 가져오기도 한다.

(6) 축산업

신리 축사 풍경

축산업은 1980, 90년대에 몇 사람이 시작했다. 이종영(남, 1954년생)은 종수 형, 인원이 형, 영부씨, 혜순네 등 몇 사람을 거론했다. 사육 두수는 20두 내외였고 가장 많이 사육했던 혜순씨는 30두를 사육했다. 당시에는 젓소 1마리 가격이 5백만 원을 오르내렸고 젓소 10마리를 사육하면 논 20마지기 농사짓는 것보다 나았다고 했다.

유인원(남, 1938년생)은 미군기지에 근무하다 퇴직한 뒤 고향에 돌아와 1970년대 후반 축산업을 시작했다. 본인은 마을 일과 지역사업을 하느라 바빠서 직원을 두고 운영했다. 나이를 먹으면서부터는 운영하던 축사를 직원에게 넘기고 폐업했다.

이종영(남, 1954년생)은 유인원은 자녀들 초등학교 때 우유 먹여서 학교 보냈다고 말했다. 축산업은 침출수와 냄새 때문에 이웃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축사 운영은 직원을 두고 운영했지만 가족끼리 하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은 신리에는 박영부의 축사만 남았다. 수익 문제도 있었

지만 고령자들이 많아졌고 사료비나 인건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7) 도정(搗精)

해방 전후 신리에서 탈곡은 '그네' 라고 불렀던 홀치기로 했다. 그러다가 1950~60년대 초에는 발로 페달을 밟으면 둥근 통이 돌아가는 둥글레통 방식이 도입됐다. 전기가 가설되면서부터는 둥글레통에 전기를 연결해서 탈곡했다. 다른 마을에서는 발동기를 우마차에 싣고 다니며 탈곡해 주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탈곡기가 도입되었다. 지금은 콤바인을 사용해서 벼를 베면서 동시에 탈곡이 이뤄진다. 농민들은 탈곡된 벼를 말려서 방아를 찧거나, 평택시에서 지정 재배하는 슈퍼오닝 쌀의 경우에는 농협에서 탈곡한 물벼를 그대로 가져다가 말려서 도정한다.

농사에 있어 도정(搗精)은 매우 중요한 절차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1960, 7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마다 방앗간(정미소)이 있었다. 당시에는 운반수단도 우마차나 지게였다.

김종식(남, 1942년생)의 부친은 신리에서 방앗간을 운영했다. ' 신리방앗간 '이다. 규모는 작작았고 주로 벼와 보리만 도정했다. 방앗간에는 몇 마력인지 기억나지 않는데 발동기 한 대에 정미기계가 설치되었다. 1950년대 중반 신리에 전기가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전력이 부족해서 밤 11시면 전기공급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방앗간은 ' 특설 '로 분류되어 24시간 전기가 공급되었다. 덕분에 김종식 댁은 밤 11시가 넘어서도 전기를 켤 수 있었다.

아버지가 방앗간을 운영했던 김종식(남, 1942년생)은 청소년기부터 마차를 가지고 들에 나가서 농민들이 탈곡해서 말린 벼와 보리를 싣고 왔다. 일종의 방앗간에서 실시했던 고객우대 서비스였다. 당시에는 벼 1섬이 180근이었다. 그걸 우마차에 실으면 마차 바퀴가 휘청했다. 방앗간으로 실어온 벼는 도정(搗精)해서 다시 실어다 줬다. 도정료는 벼 1가마에 쌀 2~3되쯤 떼었다.

방앗간은 1년 내내 운영할 수 없었다. 대체로 추수하는 늦가을과 창고나 방안에 벼가 쌓여 있던 겨울철에만 바빴다. 그래서 방앗간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을과 겨울에만 도정(搗精)을 하고 봄~가을 사이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많았다.

김춘자(여, 1945년생)는 24살에 우제강(남, 1940년생)과 결혼했다. 친정은 용인시 남사면이다. 결혼 초기에는 시댁에서 살다가 서른 살 되던 해 분가했다. 분가 후에는 고추방아, 떡방아를 본인이 찧었다. 김춘자는 고추방아 떡방아는 송탄 아침장에 가서 찧었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자가용을 구입하면서부터는 적은 것은 송북시장에서도 찧었지만 대부분 차에 싣고 남사까지 가서 찧어왔다. 남사방앗간은 값도 쌌고 잘 찧었다. 그런데 몇 년 전 방앗간 주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망했다. 그래서 가지 못하고 있다.

2) 공업

신리는 전형적인 농업지대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 이동저수지 물이 공급되고 아산만 방조제가 준공되면서 수도권의 중견기업들이 공장을 세웠다. 1970년대 신리 일대에 건립된 공장으로는 부산번디(현, 세아FS), YKK한국 평택공장이 대표적이고 근래에는 성우여객 등이 있다. 주민 이종영(남, 1954년생)[29]에 따르면 1970년대 정부는 신리, 견산리 일대에 공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K-55오산공군기지의 비행기 소음이 너무 커서 취소됐는데 그 뒤로 크고

29) 이종영(남, 1954년생), 진위면 신리 개발위원, 2021년 9월 15일 인터뷰

작은 공장들이 많이 생겼다고 했다. 국도 1호선과 경부선 철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라는 점, 경부고속도로 오산I.C가 4~5km 거리에 있는 점도 공장건설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종영(남, 1954년생)은 ㈜세아FS 평택공장은 1967년경 백십자제약 공장으로 건축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준공을 보지 못한 상태로 오래 방치되다가 1970년대 초 한국피혁(주)이 인수하여 한동안 피혁공장으로 운영했다. 1976년경 부산파이프 계열회사였던 부산번디(주)가 다시 인수하였고 강관제조공장으로 바꾸어 회사명을 ㈜한국번디로 이름을 고쳤다. 이것을 2014년 세아FS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른다.

㈜세아FS 평택공장, YKK한국 평택공장과 신리

신리 이장 김장영(남, 1953년생)은 YKK한국 평택공장은 1970년대 중반(1977년) 자동차 노즐을 만드는 한일합작공장으로 건립되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상세히 설명하면 자동차 라지에이터에 연결하는 S자 동파이프를 만드는데 초기에는 일본인 경영자였고 20년 뒤에는 기술이전료만 내고 한국인이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YKK한국 평택공장이나 ㈜한국번디는 처우가 좋은 편이었다. 이종영(남, 1954년생)은 YKK한국은 기본처우가 좋았다면 ㈜한국번디는 잔업이 많아서 실질 급여가 많았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3D 업종이라며 입사를 기피하던 사람들도 잔업을 해서 기본급 외에 몇백만 원씩 수당을 타고 나면 인식이 달라지더라는 것이다.

2021년 현재 마을 주민들 중에서 YKK나 세아FS에 다니는 사람은 20여 명쯤 된다. 토박이는 적고 대부분 회사 때문에 마을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입주 공장들과 마을 사이에는 상호 협조가 잘 되었다. 마을 길 확 포장 공사나 노인회 행사가 있으면 몇십만 원씩 보조했다. 하지만 근래에는 그것마저도 뜸한 상태다. 세아FS의 경우 자동차 노즐의 S자 동파이프생산에서는 우리나라 독점기업이었는데 중국제 값싼 제품이 들어오고 경쟁회사들이 생기면서 운영이 어려워졌다.

표1) 진위면 신리 주요 기업체 현황[30)]

번호	회사명	위치	생산품	비고 (명)
1	세아FS 평택공장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19	강관	310
2	YKK한국 평택공장	평택시 경기대로 1733	단축 및 파스너	280
3	평택시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150	장비, 기기대여	
4	미래E&C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50번길 10		
5	㈜고려특수다이아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50번길 10-5	공업용 특수다이아몬드	5
6	PURITECH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50번길 10-12	방진의류, 장갑	
7	씨엔지코리아	평택시 진위면 40-14	건축, 토목	
8	KMB평택지점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40-14	콘크리트 혼화제	13
9	제이원진공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49-10	반도체, 부스터펌프 수리	
10	엔티이엔지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713-86	LED TV용 후레임 1차 가공, LED 조명 관련 부품 생산	20
11	태화정공	평택시 진위면 송탄고가길 5-24	철골공사	
12	DH산업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715	타이어 튜브제조	
13	태성중기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중장비업	
14	LG인테리어 필름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705	시트지, 띠벽지 제조	
15	농업회사법인 창화농산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705-6	곡물, 식량작물 재배	
16	중부시멘트	평택시 진위면 송탄고가길 5-43	시멘트, 레미탈 벽돌 대리점	
17	(자)평안환경	평택시 진위면 송탄고가길 1-15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18	한성자원	평택시 진위면 신리	철거, 고물	
19	신용자원	평택시 진위면 송탄고가길 7	재활용품, 철거전문	
20	준개발	평택시 진위면 송탄고가길 19-10	덤프트럭 전문	
21	대영자원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49-29	건물 및 구축물 해체	
22	진위천 야생화	평택시 진위면 69-38	원예, 화훼농원	
23	지와이 푸드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54	식료품	
24	태광CMB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49-5		
25	큐디엠테크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65-23	1차금속제조	
26	세원메탈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49-5		
27	상상농원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112-6	관광농원, 팜스테이	
28	대흥보강토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50번길 26	건축, 토목	
29	해찬솔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24	주방용품	
30	진위식품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 30-2번지 외 1필지	건채류	

① 세아FS 평택공장

► 위치 :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19

► 시기 : 031-662-3335

► 생산품 : 일중권 및 이중권 강관, 코팅, 가공

30) 평택시청홈페이지(https://www.pyeongtaek.go.kr), 네이버지도 참고

세아FS는 1979년 ㈜부산번디에서 출발했다. 1981년에는 삼성전자의 냉장고용 강관을 전량 공년 급했으며, 1984년에는 KSR 2028의 KS품목으로 지정받았다. 1987년에는 소재 국산화를 이뤘고 1988년 ㈜한국번디로 상호를 바꿨다. 1989년에는 KS마크를 획득했으며 1993년 3월 광주공장을 준공하고 현대자동차에도 납품하기 시작했다. 1997년 노사협력우량기업에 선정되었으며, 1999년 신경영혁신대상, 기업혁신상, 2001년 동탑산업훈장 등을 수상했다. 2003년 포산세아를 인수합병했으며, 2004년에는 타이세아를 설립했다. 2007년에는 청도세아를 설립했고, 2011년 인도세아를 설립했다. 2014년 세아FS(주)로 사명을 변경했다.

② YKK한국 평택공장

- ▸ 위치 : 평택시 경기대로 1733
- ▸ 시기 : 1977년
- ▸ 생산품 : 지퍼, 단추

YKK한국(주)는 1977년 9월에 설립되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평택시 진위면 신리(경기대로 1733)에 공장부지를 마련했고, 12월에는 준공했다. 1984년 12월에는 1차 증축과 증설을 했으며, 1999년 6월에는 YKK서울과 합병하여 YKK한국(주)로 사명을 바꾸었다. 2000년에는 신공장A, 2003년에는 신공장B를 완공하여 사세를 확장했다. 2008년에는 YKK SNAP FASTENERS KOREA와 합병 SNAP&BUTTON 판매를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고,

2019년에는 YKK FASTENERS PRODUCTS 판매(한국) 주식회사와 통합 Textile and Plastic Parts & Buttons 판매를 시작했다. 종업원 수는 280명이다.

3) 상업과 장시(場市)

서정리장과 송북시장(아침장)

진위면 신리는 생활권이 송탄과 밀접하다. 지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과 송북시장(아침장)까지는 1.2~1.5km에 불과하다. 서정리시장까지도 4km가 조금 넘고, 오산장까지도 4km밖에 안 된다.

김종식(남, 1942년생)은 서정리장이나 오산장까지의 거리가 비슷하지만 오산장 보다는 서정리장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오산장은 오가는 교통이 불편했다. 서정리장에서는 농산물 판매보다는 생필품을 구입할 때 많이 갔다. 농산물 판매는 아침장(송북시장)을 많이 이용했다. 아침장은 1950년대 신장동 일대에 미군기지촌이 발달하고 지산동 숯고개 아래에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서면서 형성되었다. 신리 주민들은 주로 배추, 무와 같은 채소와 참외를 많이 팔았다. 소비성향이 강하고 현금 보유량이 많았던 기지촌에서는 어떤 상품이든지 잘 팔렸다. 우시장은 오산장을 이용했지만 신리는 밭농사가 많고 소를 키우는 사람이 적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김춘자(여, 1945년생)는 1970년대 초 독곡동 오리골에서 신리로 이사했다. 친정은 용인시 남사면이다. 김춘자는 “옛날에는 오산장을 많이 봤지요. 나중에 송탄장(아침장)을 봤구요”라고 말했다. 김춘자는 신리에서 오산장까지 20리였다고 말했다. 그것은 친정에서 오산장까지의 거리와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결혼 전에는 걸어 다녔는데 오리골로 시집와서는 버스를 타고 다녔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리에서 오산장까지는 4km가 조금 넘는 거리다. 서정리장은 10리가 조금 넘는다. 서정리장에 가려면 신리 남서쪽 들판을 걸어 신장동 입구에서 숯고개를 넘어 다녔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시댁에서 시어른들과 함께 살 때는 아침장(송북시장)을 많이 봤다. 시어머니는 손수레에 채소를 싣고 아침장으로 팔러 다녔는데 김춘자가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다녔다는 것이다. 신리로 분가(分家)한 뒤에도 아침장은 자주 이용했다.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한 애호박이나 오이가 값이 내려 잘 안 팔리면 직접 아침장에 가져가서 팔았다. 신리로 이주한 뒤에는 오산장에는 가지 않았다. 근래에는 장(場)에 가는 일이 좀처럼 없다. 농산물은 농협에서 수매하고 생필품은 차를 타고 마트에서 사 온다. 간혹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장에 간다.

4. 사회생활

1) 공동시설과 근대시설

농촌 마을의 공동시설은 마을회관과 노인정, 공동창고, 우물, 상여집 등을 꼽을 수 있다. 신리 마을회관은 1976년 처음 신축했다. 마을회관이 없을 때는 석환씨 등 동네 사랑방에서 삼삼오오 모였다. 마을 회의도 이장 댁에서 하거나 규모가 큰 집에서 모였다. 현재 마을회관은 네 번째 증축이다.[31]

신리 마을회관과 상수도 집수정, 신리야구장과 진위천 유원지

김종식(남, 1942년생)은 과거 20~30호가 거주할 때 신리(新里)의 공동우물은 1개였다고 말한다. 우물 1개로 마을주민들이 모두 사용했다. 수량과 수질은 좋은 편이었다. 마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공동우물을 청소하고 떡과 술로 제사를 지냈다. 우물의 깊이는 얕았다. 그래서 두레박을 얼마 넣지 않고도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었다. 물은 주로 여자들이 길었다. 거리가 멀어서 힘든 경우에는 남자들도 물을 길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자들의 몫이었다. 여자들은 물동이나 물지게로 물을 길었다. 가정(家庭)에는 부엌에 큰 물항아리를 두어 물을 저장했다.

김장영(남, 1953년생) 이장은 과거 우물이 몇 개였냐는 질문에 공동우물 3개와 개인 우물 두 개였다고 말했다.[32] 김장영 이장의 기억은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반 개인 우물을 갖게 되

31) 김장영(남, 1953년생), 신리 이장, 2021년 9월 15일 인터뷰

면서 나타난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간이상수도는 1974년 견산리에 매일유업 중부공장이 들어오면서 회사 측에서 설치해줬다. 광역상수도는 2005년 국회의원 우제항의 노력으로 도시가스와 함께 들어왔다.

유인원(남, 1938년생)의 집 안에는 개인 우물이 있었다. 개인 우물은 잘 사는 집에서만 소유했다. 1960년대 말에는 우물에 펌프를 설치했다. 1970년대에는 각 가정에서 관정을 박아 펌프를 설치하기도 했다. 1970년대에는 우물에 전기모터를 달아서 자가 수도를 설치했다. 새마을운동을 전개할 때는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었다. 개인 우물이 있는 유인원(남, 1938년생)은 간이상수도를 설치할 때도 신청하지 않았다. 본인 소유의 자가 수도가 수량이나 수질에서 앞섰기 때문이다. 광역상수도를 설치할 때도 자가 수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지금도 상수도와 자가 수도를 함께 사용한다. 유인원은 "우리 우물이 얼마나 좋은데 '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들판에 위치한 신리는 땔감이 부족했다. 김종식(남, 1942년생)은 어린 시절 신리 사람들은 땔깜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김장영(남, 1953년생) 이장도 동일하게 증언했다. 마을이 들판에 위치하여 땔감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땔감은 오룡동 뒤 달보는산이나 염봉에서 해왔다. 하지만 산마다 주인이 있어 들키면 나뭇짐을 빼앗기거나 크게 혼났다. 그래서 콩껍질, 왕겨, 잔디뿌리처럼 불에 탈만한 것들은 모두 땔감으로 사용했다. 보리농사오하 콩농사를 지을 때는 보릿짚이나 콩대도 땔감이 되었다. 하지만 볏짚은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볏짚으로는 새끼도 꽈야 했고 가마니도 치고 지붕에 이엉을 얹어야 했기 때문이다. 연탄은 값이 비싸서 일부 부유층들만 사용했다. 그러다가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사이에 연탄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궁이 개량사업을 전개했다. 땔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주민들은 아궁이 개량과 연탄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연탄 사용은 땔감을 절약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했지만 연탄가스 사고를 발생시켰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보일러가 보급되지 않아서 연탄 아궁이로 난방했는데 재래식 방바닥의 갈라진 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 나와 목숨을 잃는 사태가 빈번했다. 김종식(남, 1942년생)은 "아이구 연탄이 사람 많이 죽였어" 라며 한숨 쉬었다. 연탄가스 사고를 줄이려면 한밤중에 연탄을 갈지 않는 지혜가 필요했다. 새 연탄에서는 가스가 많이 새어 나와 위험했다. 때론 부엌으로 난 봉창 사이로도 가스가 새어 들어왔다. 그래서 일부 가정에서는 잠을 잘 때 창문을 살짝 열어 놓고 자기도 했다. 김춘자(여, 1945년생)도 오리골 시댁에 살 때는 땔감만 사용하다가 신리로 이사한 뒤로는 연탄만 사용했다. 그러다가 연탄가스 사고를 여러 번 겪었다. 몇 번은 죽을 뻔하기도 했다. 연탄가스를 마시고 비실대면 흙냄새를 맡게 하거나 동치미 국물을 마시면 한결 나았다.

연탄가스 사고는 새마을 연탄보일러 사용으로 많이 줄었다. 김춘자(여, 1945년생)도 1970년대 중반 새마을 보일러를 놨다. 1980년대부터 기름보일러와 심야전기보일러가 널리 보급되면서부터는 아예 사라졌다. 김장영(남, 1954년생)은 신리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기름보일러가 보급되었다고 말했다. 1990년대 초에는 주택을 입식으로 수리하면서 기름보일러를 놓는 사람이 많았다. 김춘자도 1990년 입식으로 집을 고치면서 기름보일러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이것이 심야전기보일러로 바뀌었고 전기세가 많이 오르고 도시가스가 보급되면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한 사람이 많다. 가정에서는 가스랜지도 사용도 보편화되었다. 전자랜지나 전기밥솥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김종식(남, 1942년생)은 "요즘은 얼마나 살기 좋아. 우리 세대가 고생한 세대야, 밥도 많이

32) 김장영(남, 1953년생), 이종영(남, 1954년생), 2021년 9월 15일 인터뷰. "우물은 인제 형네 하나, 우영이네 뒤에 하나. 개인적으로는 현숙이네 하고 똥꼬네. 동네우물은 세 개에 개인 것까지 네댓 개는 되는데"

굶고" 라고 말했다.

유인원(남, 1938년생)은 신리(新里)는 일제 말 전기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당시 적봉리에는 일본인이 운영하던 규석공장이 있어 신리 마을로 전신주가 지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신리에 전기가 들어왔다는 주장이다. 김장영(남, 1953년생) 이장도 "우리는 전깃불 아래서 태어난 것 아녀. 마산리는 그때까지 등잔불 켰는데 말여" 라며 웃었다.

전기 도입은 빨랐지만 텔레비전이나 가전제품은 1970~80년대를 거치며 사용했다. 이종영(남, 1954년생)도 1970년대 초 몇몇 집에서 텔레비전을 구입하며 동네 아이들이 텔레비전 마실을 다녔다고 말했다. 김춘자(여, 1945년생)는 1968년 결혼 후 독곡동 오리골에 왔더니 등잔을 켰다고 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 신리로 분가(分家)했더니 전기를 켜고 있었다.

전화는 우제강, 김춘자의 집에서 가장 먼저 설치했다. 김춘자(여, 1945년생)는 당시 전화번호가 666-5307이었다며 웃었다. 당시에는 전화를 놓을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냈다. 텔레비전은 마을에서 두세 번째 구입했다. 텔레비전을 구비하자 텔레비전이 없는 아이들이 밤마다 찾아와서 귀찮았던 기억도 있다. 남편은 전축도 구입했다. 전축은 인켈을 구입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

2) 마을조직과 활동

마을 표석, 신리 이장 김장영과 개발위원 이종영

신리(新里)의 마을조직은 이장-새마을지도자-반장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조직이 있고,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와 같은 자치조직이 있다. 또 최고의결기구로 대동회(총회)가 있으며 운영기구로는 개발위원회가 있다.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는 각 1명이고 반장도 1명이다.

대동회는 1년에 1회 연말에 개최한다. 대동회의 의장은 이장이고 1년 동안의 사업과 예결산을 보고하며 임기 2년의 이장을 선출하기도 한다. 이장은 임기가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개발위원회는 1970년대 후반에 조직되었다. 당시 이장을 지냈던 유인원(남, 1938년생)도 1970년대 말에 조직된 것으로 기억했다. 개발위원회는 이장을 비롯해 약 10~12명의 개발위원으로 구성된다. 역할은 분기 별 모임을 갖고 마을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다.

이장은 선출직으로 마을을 대표하며 운영을 책임진다. 이장의 권한과 역할이 가장 컸을 때는 일제 말과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다. 당시에는 퇴거를 하거나 이사를 오면 반드시 이장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 했다. 진위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평택시나 면(面)에서 지급하는 물품을 받아와 지급하는 것도 이장이다.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일, 연말

대동회나 개발위원회를 주관하는 일도 이장이 한다. 1970년대에는 벼 공판이나 비료 지급, 주민들의 호적신고나 사망신고도 이장이 대행해주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옛날에 비해 역할이 크게 줄었다. 새마을지도자의 역할도 거의 없다. 이장에게는 진위면행정복지센터에서 월 3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유인원(남, 1938년생)은 1970, 80년대를 거치며 15년 간 이장(里長)을 했다. 당시만 해도 면사무소에서 활동비도 지급하지 않아서 본인의 돈을 써가며 활동했다. 당시 신리(新里)에서도 리세(里稅)를 징수했다. 리세(里稅)는 호(戶) 당 쌀 한 말 가격을 현금으로 걷었다. 이것으로 이장과 반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 비록 활동비를 지급받았지만 이것으로 활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유인원은 새마을사업 때에는 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자주 방문했는데 그들을 접대하는 것도 이장의 몫이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장은 '할 일 없는 건달들이나 하고, 이장을 하고 나면 땅 팔아먹는다' 는 말이 나돌았다.

신리 전 이장 유인원, 노인회장 김종식과 전 노인회장 우제강

청년회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할 때는 활발하게 활동했다. 당시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면 일부만 외지로 나가고 대부분 마을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 청년층이 많았다. 그러다가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청년회가 유명무실해지면서 향우회가 조직되었다. 신리 향우회는 이종영(남, 1954년생)이 중심이 되었다. 청년들의 도시 이주와 대학 진학이 많아지면서 고향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외지로 나간 청년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조직이 필요했다. 향우회는 청년들 상호 간의 친목과 마을의 공공사업 지원, 애경사를 돕는 사업을 전개한다. 한때는 회원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창립회원들이 나이가 60~70대 전후가 되었고 젊은층들은 관심을 두지 않아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21년 현재 신리 향우회 회원은 28명이다. 40여 년의 역사가 흘렀는데도 상당히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우제강(남, 1940년생)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앞장섰다. 독곡동 오리골의 대표로 수원의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새마을교육을 2기로 수료했다. 당시 새마을교육은 15일 동안 받았다. 입소 전에는 고생이 많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숙소도 좋고 급식도 훌륭해서 힘들지는 않았다. 새마을교육을 다녀온 뒤로는 오리골의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했다. 오리골은 정부가 지급했던 시멘트 330포로 마을안길 넓히기 사업을 가장 먼저 실시했다. 지붕개량도 했고 퇴비증산도 앞장섰다.

신리(新里)의 새마을운동은 유인원과 정춘근이 앞장섰다. 정춘근은 수원의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새마을교육을 받고 돌아와 초대 새마을지도자가 되었다. 당시에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국민들이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새마을지도자의 권한이 막강했다. 새마을사업에서 괄목할만한 것은 도로포장과 지붕개량이었다. 정부에서 시멘트 330포를 지급하자 마을에서는 주민들을 부역 동원하여 진위천 냇가에서 모래를 퍼다가 마을안길을 시멘트로 포장했다.

노인회는 회원만 200명이 넘는다. 노인회장 김종식(남, 1942년생)은 근동에서 가장 많은 수라고 말했다. 노인회원은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한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70세가 넘어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70대 중후반은 넘어야 노인정으로 나온다. 평택시에서는 노인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공동식사를 위해 월 3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하기도 하고 쌀도 사준다. 근래에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노인정에 모이지 못한다. 공동식사도 중단되었다. 그러다 보니 독거노인들의 처지가 더욱 어려워졌다. 노인정에 모여 고스톱도 치고 이야기라도 나누면 덜 적적한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다.

우제강(남, 1940년생)은 노인회장을 12년 역임했다. 67세에 시작하여 79세까지 연임했다. 직전 회장은 송씨 였는데 활동이 거의 없었다. 그러던 차에 이장이 노인회 좀 맡아달라고 해서 맡게 되었다. 우제강은 노인회장으로 단체 영농활동, 공동식사, 연 2회 단체관광을 실시했다. 어버이날에는 전문 음악가들로 구성된 밴드를 불러와 잔치도 했고, 중복과 말복에도 함께 음식을 나눴다. 행사를 할 때는 주변 기업들로부터 후원금도 받았다. 그렇게 해서 노인회가 양적 질적으로 향상되었다. 처음 노인회를 인수받았을 때 보유 예산이 겨우 24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열배로 늘려놓기도 했다. 현재 신리 노인회는 다시 시들해졌다. 코로나19로 활동하지 못하는 영향이 크다.

3) 가문과 활동

마산리 단양 우씨 묘역과 재실 단진재

우제강(남, 1940년생)[33]은 단양 우씨 안정공파의 후손이다. 단양 우씨는 독곡동 오리골, 마산1

33) 우제강(남, 1940년생), 진위면 신리 거주, 2021년 9월 13일 인터뷰

리 오룡동, 은산4리 말미에 많이 거주한다. 현재 단양 우씨 평택종친회 회원은 약 400명가량 된다. 회원이 되려면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아이들과 청년들까지 합치면 700, 800명 가량은 거주한다고 볼 수 있다.

단양 우씨의 입향은 조선 초에 이뤄졌다. 평택지역 거주기간만 약 600년쯤 된다. 과거에는 오리골이나 오룡동에 집성촌을 이뤄 항렬을 엄격하게 따졌다. 종중 재산도 농지(農地)만 3만 평이 넘고 임야도 많다. 종중 묘는 마산2리와 3리 사이 삼남길이 지나는 곳에 있다. 이곳에는 입향조 우원유를 비롯한 종중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묘와 종중회관, 재실이 있다. 2000년 이후 마산리 일대가 개발되고 삼남길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종중토지가 많이 수용되었다. 이때 받은 보상금으로 중중회관과 재실을 건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종중 기금이 넉넉하다 보니 시제나 각종 모임에 종인(宗人)들이 잘 모인다. 종중 간의 결속도 단단하고 위계질서도 엄격하다.

시제는 음력 10월에 지낸다. 시제를 지낼 때는 종인(宗人) 50여 명이 회집한다. 안양공파를 비롯한 같은 성씨 다른 종파(宗派)에서 손님들도 참석한다. 시제는 과거에는 묘역을 옮겨 다니며 제를 올렸지만 지금은 제단에서 한꺼번에 지낸다. 만약 비가 내려 밖에서 지낼 수 없다면 재실에 제상을 차리고 지낸다.

4) 혼례(婚禮)와 상례(喪禮)

우제강(남, 1940년생)은 29세에 24세의 김춘자(여, 1945년생)와 혼인했다. 당시 만해도 남자는 26세 전후, 여자는 22, 3세면 결혼했다. 중매는 당숙모가 했다. 김춘자의 친정은 용인시 남사면인데 자주 드나들던 생선 장수가 당숙모에게 소개하여 만남이 성사되었다.

중매가 이뤄진 뒤 김춘자의 친정아버지가 먼저 시댁으로 와서 시부모와 우제강을 만났다. 친정아버지가 혼인 자리가 괜찮다고 판단을 내리자 이번에는 시부모와 우제강이 용인시 남사면으로 와서 김춘자와 맞선을 봤다. 맞선을 본 뒤 양가에서 혼인을 결정하자 음력 3월 친정집에서 약혼했다. 약혼 기간에는 딱 한 번 신랑이 친정에 다니러 와서 오산까지 함께 나가 다방에서 차도 마시며 데이트를 즐겼다.

김춘자의 친정은 남사면에서도 잘사는 집안이었다. 보유한 농지도 무척 많았고, 본인은 중학교만 졸업했지만 오빠와 남동생들은 대학을 졸업했다. 친정아버지는 용인지역의 유지였으며, 대학을 졸업한 남동생은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했다. 시댁도 농지가 많고 형제들도 많았다. 우제강은 시골에서는 드물게 서울사범을 중퇴한 지식인이었다. 두 사람의 혼인은 당사자의 결정이라기보다 격이 맞는 집안끼리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예물은 신부 김춘자는 금반지와 금목걸이 3돈, 시계를 받았고, 남편에게는 금반지 3돈과 시계, 양복, 코트를 해줬다. 결혼식은 송탄의 한성예식장에서 신식으로 했다. 예식순서는 지금하고 거의 같았다. 주례와 사회자가 있고 웨딩드레스 입고, 예식 후에는 폐백을 드렸다. 다만 식당을 따로 잡아서 집에서 장만한 음식으로 잔치를 한 것이 다를 뿐이다.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다. 우제강은 일찍 신식문물을 수용했지만 형제들도 많고 시부모님이 있다 보니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다.

결혼생활은 시댁에서 시작했다. 당시 풍습은 차남이나 막내라도 결혼 후 몇 년 동안은 시댁에서 함께 살다가 분가(分家)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결혼 후 첫날밤은 시댁에서 잤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친정으로 재행(再行)을 갔다. 통상 재행을 가면 친정 동네 청년들이 신랑달기 같은 것

을 했지만 우제강, 김춘자의 경우는 그냥 조용하게 지나갔다.

시댁은 열일곱 식구가 함께 살았다. 집도 큰 편이었고 방도 4개나 되었다. 분가(分家)한 셋째 시아주버니는 지산동 건지미에 살았는데 오리골 시댁의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거의 본가에서 살다시피 했다. 시댁의 농사는 셋째 시아주버니가 거의 다 지었다. 남편은 농사일을 잘하지 못했고 한편으로는 안 하기도 했다. 시부모님은 인품이 좋았다. 다른 며느리는 몰라도 김춘자에게는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았다. 첫 아이는 결혼 후 3년 만에 낳았다. 첫아이를 출산할 때 남편은 수원의 농촌진흥청에 새마을교육을 가고 없었다. 첫아이는 매우 힘들게 낳았다. 너무 산통이 심해서 아이를 낳고 난 뒤 시아버지 뵙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시댁에서 6년을 살다가 진위면 신리로 분가(分家)했다. 오리골이나 신리에서는 분가(分家)를 ‘세간난다’ 고 말했다. 시댁에서는 신리에 작은 집과 농지 1,700여 평을 나눠줬다.

우제강과 김춘자 부부

상례(喪禮)는 관혼상제(冠婚喪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례(儀禮)다. 상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한꺼번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각종 상계(喪契)를 조직하여 대응하거나 마을주민들이 함께 도와줘서 해결했다.

신리에는 상계(喪契)가 있었다. 명칭은 ‘신리상계’ 라고 불렀다.[34] 상계는 1957년에 조직되었다. 당시에는 마을 규모가 29호였는데 마을에 상(喪)이 나서 상여를 메야 하는데 누구는 열심히 참여하고 누구는 뒤로 빠지는 바람에 논란이 일었다. 그래서 상계(喪契)를 조직하여 기금과 규정을 정해서 운영하게 되었다. 초기 상계의 계비(契費)는 호(戶)마다 쌀 한 되였고 20명으로 출발했다. 그때 거둬들인 쌀로 장리쌀을 놓았다. 그리고 장리쌀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상(喪)이 나면 수원에서 꽃상여와 상여꾼을 사 왔다. 상여꾼들은 상여를 메는 것과 장지에서 매장하는 일체를 담

34) 김장영(남, 1953년생), 이종영(남, 1954년생), 2021년 9월 15일 인터뷰

당했다. 1970, 80년대 마을 규모가 커지면서 상계원도 80여 명으로 늘었다. 상계(喪契)는 2000년대 초반에 중단되었다. 장례문화가 장례식장 중심으로 바뀌고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사용한 계(契) 장부도 마을 사람이 불태워버려서 기록마저 사라졌다.

5)의 · 식 · 주

(1) 의(衣)

신리의 주택과 골목길

신리(新里) 사람들의 의생활은 다양했다. 우리나라의 옷은 근대 이후 서양식 옷이 유행하면서 크게 변모했고, 1920, 30년대 광목의 보급, 1950년대 후반 나일론의 보급으로 큰 변화가 나타났다. 농가(農家)에서는 옷을 지어서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다가 1950년대 후반 나일론이 등장하면서 기성복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과거에는 양복이나 양장들도 대부분 맞춰 입었다. 지금은 모든 옷을 사서 입는다. 양복도 맞춰 입는 사람이 없다. 신발도 마찬가지다. 1920~30년대 구두와 고무신이 보급되었지만 시골 농가(農家)에서는 여전히 짚신이나 나막신을 많이 신었으며 짚신을 일본식 게다처럼 만든 와라지도 많이 신었다. 해방 후에는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신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 1950년대에는 보편화되었다.

김춘자(여, 1945년생)은 어릴 때 광목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다. 광목은 오산장의 포목전에서 떠다가 집에서 바느질로 지어서 입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상복(喪服)을 광목으로 지었다. 신발은 어려서부터 지뱅이고무신을 신었다. 당시 주변의 가난한 집에서는 짚신이나 와라지를 신었다.

1950년대 말부터는 나일론 옷도 입었다. 나일론과 함께 구단이라는 옷감이 유행했다. 구단 옷감으로는 이불도 만들고 한복도 지어서 입었다. 나일론은 ‘나이아가라’ 라는 상표가 유명했다. 나일론이나 구단이 나올 때도 나이 든 사람들은 모시옷도 입었고 요강목이라는 하얀 광목옷도 해 입었다. 김춘자는 결혼할 때 혼수로 재봉틀과 화장대를 가져왔다. 신혼 때는 재봉틀로 시아버지 옷을 지어드리기도 했다. 1970년 전후에는 한복은 지어 입고 양복이나 특별한 옷은 맞춰 입었다. 김춘자도 1970년대 초반까지는 한복을 입고 생활했다.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한복 몇 벌과 버선 20켤레를 해주셨는데 그것으로 돌아가며 입었다. 그때 해왔던 앞치마와 모시옷은 아직도 입지 않은 채 보관 중이다.

남편 우제강(남, 1940년생)은 천하의 멋쟁이다. 지금도 외출할 때는 옷을 직접 다려서 빳빳하게 입고 나간다. 머리를 감지 않거나 옷이 다려지지 않았으면 외출을 하지 않는다. 맞선을 보러 왔을 때도 고등어 가운데 토막같이 작은 키에 깔끔한 외모, 양복바지에 태양고무신을 신었다. 그 뒤로도 한복보다는 주로 양복을 입었고 기성복도 많이 입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기성복만 입혔다. 배냇저고리만 순면으로 지어 입혔다. 1970년대 중반이 넘어서면 한복은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으로 변했다. 한복이 서양의 드레스처럼 치마폭이 넓어진 것도 이때쯤이다.

(2) 식(食)

김종식 노인회장 부부, 신리마을 사람들

조선시대 신리(新里) 사람들의 식생활은 알 수 없다. 다만 1891년 편찬된 『진위현 읍지』 관름각종작입(官廩各種作入) 조에 쌀, 기화(其花), 법유(法油, 들기름), 진유(眞油, 참기름), 청(淸), 호도(胡桃), 홍시(紅柿), 밤, 대추, 석어(石魚, 조기), 소어(蘇魚, 밴댕이), 민어(民魚), 소금, 간장(艮醬), 닭(鷄), 정육(正肉) 같은 식재료가 언급되어 대략적인 식생활을 유추할 수 있다.

주민 유인원(남, 1938년생)은 “옛날에는 끼니 거르지 않고 쌀밥에 국과 김치만 먹어도 잘 산다고 했다” 라고 말해 일반 서민들의 식생활을 짐작하게 한다.

김춘자(여, 1945년생)는 친정은 잘 살아서 쌀밥만 먹었는데 시댁에 와 보니 보리밥에 쌀을 조금씩 얹어 먹더라고 말했다. 당시에는 잘 산다고 해도 식구가 많아서 보리를 섞어 먹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었다. 시댁에는 식구가 최대 17명이나 되었다. 시어머니 친정은 딸만 넷이어서 시외할머니가 시댁에 와서 살았다. 식구가 하도 많다 보니 끼니때마다 밥상을 무려 일곱 상이나 차렸다. 시할머니와 시외할머니 밥상을 독상으로 따로 봐 드렸고, 시부모님은 겸상을 했으며, 아들들과 아이들, 일꾼(머슴)들 밥상까지 챙기면 모두 일곱 상이 되었다. 밥을 먹고 난 뒤 설거지꺼리도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하루종일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물깃고 나면 하루해가 저물

었다.

(3) 주(住)

1952년 신축 후 개수한 유인원의 집, 2001년 철도 침목으로 건축한 김장영의 집
1990년대 초 신축한 우제강의 집, 1970년대 후반 신축한 김종식의 집, 신리맨션

신리(新里)는 1960년대만 해도 기와집 한 채에 나머지는 모두 초가집이었다. 기와집은 진위면장을 지낸 정씨의 집이었다. 유인원(남, 1938년생)의 현재 집은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신축했다. 목수는 문화 유씨 집안에 목수를 하는 사람이 있어 데려왔다. 당시 집안이 경제적으로 괜찮은 편이어서 기둥으로 쓸 목재는 5치짜리 통나무를 사용했다. 집의 구조는 본래 ㄱ자 형태로 지으려고 했다. 그러다가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 이왕 짓는 거 사랑채까지 짓자고 하는 바람에 ㄷ자 형태로 바뀌면서 일부 건물은 목재가 부족해서 가는 목재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신축한 집

은 방이 4개였고, 마루가 두 개, 부엌 네 개, 행랑채 한 개 구조로 되었다. 이 집에서 할머니와 부모님, 5형제가 함께 살았다. 1980년대 중반에는 유인원이 바깥채를 직접 지었다.

1990년대 초에는 입식으로 집을 고쳤다. 아궁이와 바깥 화장실도 없애고 입식 부엌과 실내 화장실을 만들었다. 외벽과 실내에는 벽돌을 쌓아 보강했으며 문과 창문도 바꾸었다. 난방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연탄보일러를 놨다가 가스중독사고도 나고 하면서 1980년대 초반 태양열로 바꿨다. 그러다가 태양열도 시원찮아서 기름보일러로 바꿨으며, 나중에는 전기세가 적게 나온다는 말에 심야전기보일러로 바꾸었다. 지금은 15년 전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가스보일러를 사용한다. 사용해 보니 가스보일러가 가장 깨끗하고 좋다고 생각된다. 집을 입식으로 고친 뒤에도 사랑채는 아궁이 구들방으로 남겨두었다. 뜨뜻한 구들장이 그리울 때 사용하려고 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마당에는 1990년경 집을 입식으로 고칠 때 연못과 분수를 설치했다. 현재 모습은 그 때 고친 집의 모습이다.

우제강(1940년생), 김춘자(여, 1945년생)는 1970년대 중반 분가(分家)를 하면서 신리에 작은 집과 땅 1,700여 평을 분배받았다. 현금은 10원도 안 주었고 대야와 요강, 반상기, 그릇 두 벌씩만 가져왔다. 집은 시아버지가 500만 원을 주고 신축했다. 그 후 뒷집 사람과 돈거래를 하다가 갚지 않아서 대지가 넓고 집도 큰 뒷집과 집을 맞바꾸었다. 그런데 집을 바꾸고 나서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를 내서 8개월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 뒤로도 안 좋은 일이 반복되어 옛날 집 바로 옆에 집을 신축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그 집이다. 현재 집은 1990년대 전반에 신축했다. 집을 신축한 뒤에도 리모델링을 여러 번 했다. 남편 우제강(남, 1940년생)은 호기심이 많아서 집을 요모조모 고치는 걸 좋아했다.

6) 육아

김춘자(여, 1945년생)는 24세였던 1968년에 독곡동 오리골의 우제강(남, 1940년생)과 혼인했다. 아이는 결혼 3년째였던 1970년에 낳았다. 아이를 받아준 것은 시어머니였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친정에 가서 낳거나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았다. 출산 준비와 산바라지도 시어머니가 해줬다. 몸조리도 오래 하지 못하고 3일 만에 부엌으로 나왔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장(송북시장)에 채소를 팔러 다녔고 집안 식구들은 모두 바쁜데 혼자 방안에 누워 있기가 민망했다. 3일 만에 밖으로 나왔지만 젊었을 때라서 그런지 몸에 큰 지장이 없었다. 그 뒤로 아이 둘을 더 낳았다. 아이 셋을 낳은 뒤에도 두, 셋은 더 임신했지만 전부 낙태했다. 산아제한 정책도 있었지만 셋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아들 욕심이 많았다. 우제강이 장남이 아닌데도 아들만 낳기를 소망했다. 셋째 딸을 낳았을 때도 동네에 아들 낳았다고 소문낼 정도였다. 하지만 모두 뜻을 받들 수는 없었다.

5. 교육 · 종교 · 문화

1) 교육

신리(新里)는 교육환경이 좋은 편이다. 진위초등학교까지는 2km이고 초·중·고가 있는 하북리나 송탄, 오산과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김종식(남, 1942년생)은 1950년대 신리 아이들은 진위초등학교까지 걸어 다녔다고 말한다. 진위초등학교를 가려면 진위천 변을 따라 동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진위천유원지 초입의 징검다리로 진위천을 건넜다. 진위천을 건너는 다리는 국도 1호선의 진위1교와 진위향교 앞의 세월교뿐이었다. 양쪽의 다리를 건너가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해서 비가 내려 물이 불어나지 않으면 지름길인 징검다리를 건너다녔다. 징검다리는 마을 사람들이 가마니에 모래를 넣어 만들었다. 이것도 장마 때는 떠내려가는 일이 잦아서 매년 다시 만들어야만 했다. 김종식(남, 1942년생)은 아버지와 본인(44회), 아들(72회)과 손자까지 4대에 걸쳐 진위초등학교를 다녔다. 가족 모두가 동문인 셈이다.

진위중·고등학교와 아나방 다리였던 봉남교

김종식(남, 1942년생)과 비슷한 연배에서는 진위중학교에 진학하는 사람이 많았다. 진위중학교는 1953년 6월 진위고등공민학교로 출발했다. 1964년 11월에는 광염의숙 설립인가를 받아 1965년 3월 진위중학교로 개교했다. 그러므로 김종식이 입학한 학교는 진위고등공민학교인 셈이다. 하지만 고등학교부터는 상황이 달랐다. 당시 고등학교는 평택의 평택고등학교, 서정리 근처의 효명고등학교, 1954년 개교한 오산고등학교가 있었지만 통학 거리가 멀어서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면 진학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35]

김종식의 사촌 형님은 1952년 개교한 평택고등학교 2회 졸업생이다. 대학 진학자는 거의 없었다. 대학을 졸업하려면 소 팔고 논 팔아야 한다는 말이 나돌던 시절이다. 그러다 보니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출세한 사람도 거의 없다. 신리에서는 제2공화국 때 진위면장을 지낸 정재덕이 있는데 곧 5.16군사정변이 발생하면서 1년 만에 물러났다.

김종식(남, 1942년생)의 부친은 진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을에서 구장(이장)을 오래 봤다. 해방 전후 구장을 하려면 문서작성도 할 줄 알고 일본어나 한자도 많이 알아야만 했다. 김종식(남, 1942년생)은 진위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집에서 농사를 짓다가 1962년 입대했다. 전역 후에는 1965년부터 송탄 K-55오산공군기지에 입사하여 스낵바와 음료수 바에서 일했다. 스낵바에서는 스테이크를 굽는 쿡을 했다. 처음에는 군산, 전라도 광주에서 근무하다가 1971년 평택으로 올라왔다. 미군기지에서는 2006년 정년퇴직했다. 미군기지의 처우는 일반 회사원들보다 나았다. 퇴직할 때도 군속 6급이었는데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을 면제받

35) 신장동의 태광고등학교는 1962년 설립 인가를 받았고, 진위고등학교는 1974년 설립되었다.

았고 월급도 대기업 과장 이상은 되었다.

마을이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대학진학율이 높아진 것은 1980년 전후다. 당시 주민들 중에는 미군기지나 ㈜번디를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노지 채소재배나 비닐하우스시설재배를 통해 경제적으로 나아진 사람들이 많았다. 경지정리 뒤 농업용수가 풍부해지고 진위천 제방이 축조되면서 수해에서 해방된 것도 경제력과 진학률 향상에 영향을 줬다.

독곡동 오리골에서 태어난 우제강(남, 1940년생)은 서정리국민학교 28회 졸업생이다. 독곡동에서 서정리초등학교까지는 10리였다. 아침저녁으로 지산동 숯고개를 넘어 점촌을 넘어가야 초등학교까지 갈 수 있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아주 잘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사범학교에 입학했다. 1953년경 서울사범학교는 본과 3년제 학교였는데 우제강은 본과 2학년 때 중퇴했다. 큰형은 한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에는 미군기지에 취직했다. 둘째 형님은 서울대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대 경무대에서 경찰로 근무했다. 넷째 형님만 대학을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운수회사 사장을 지냈다. 여자 형제들은 중학교만 졸업시켰다. 우제강은 사범학교 중퇴 후 17세에 하사관으로 자원입대했다. 당시에는 군대 기피자들이 많아서 나이를 먹어 적발된 사람들이 하사관 자원입대를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 동기들과 많으면 열 살 넘게 차이가 났다. 병과는 포병을 지원했는데 운 좋게 군악대에 배속되었다. 당시에는 대부분 학력이 낮아서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우제강도 사범학교를 중퇴해서 풍금을 칠 줄 안다며 군악대장이 선발했다. 군대에서 7년 복무하고 전역했다. 전역 후에는 경찰이나 방범대를 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런 직업은 갖고 싶지 않아서 오리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마을 일을 봤다.

우제강(남, 1940년생)과 김춘자(여, 1945년생)의 자녀들은 진위초등학교와 진위중학교를 졸업한 뒤 큰딸은 평택의 한광여자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작은딸은 효명고등학교, 아들은 신한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당시만 해도 교육열이 높아져서 가능하면 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진학도 많이 했다. 아이들이 모두 평택이나 장당동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면서 통학하느라 무척 힘들었다. 당시 만해도 국도 1호선을 지나다녔던 시내버스는 2번 버스가 유일해서 매일 그걸 타느라 종종걸음을 쳤다.

김장영(남, 1953년생)과 이종영(남, 1954년생)도 진위초등학교와 진위중학교를 졸업했다. 1960년대 남학생들의 중학교 진학률은 90%를 상회했고 여학생 중에는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당시에도 진위초등학교는 걸어서 다녔다. 장마가 지면 1번 국도를 돌아서 학교에 갔고 물이 많지 않으면 신리 마을 뒤나 현재 봉남교가 있는 곳에 설치된 아나방 다리를 넘어 다녔다. 1960년대 말 아나방 다리는 섶다리였다. 섶다리는 나무로 교각을 세우고 위에 뗏장을 올려 다리를 만들었다. 그것도 장마 때 물이 불어나면 떠내려갔다. 고등학교 진학률은 50% 내외였다. 진학을 못했던 것은 입시 문제보다도 경제적 형편이 큰 영향을 끼쳤다. 중학교까지 졸업한 김장영(남, 1953년생) 이장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농사를 짓느라고 진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생들은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시켰다. 1990년대에는 경제적 문제로 대학 진학을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다. 상급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 마을로 돌아온 사람도 거의 없다.

유인원(남, 1938년생)은 어려서 유복하게 자랐다. 유인원도 진위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당시 가까운 하북리에 진위중학교가 고등공민학교로 개교했지만 오산중학교로 진학했다. 중학교 졸업할 때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유인원은 2남 3녀의 장남이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집안을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논밭을 합쳐 1만여 평이었다. 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시켰다. 여동생들은 한 명만 고등학교에 진

학하고 나머지는 중학교만 졸업했다.

현재는 세대 수는 몇 배로 늘었지만 마을에 젊은층이나 아이들이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마을에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보는 일이 거의 없다. 학생들이 넘쳤던 진위초등학교도 전교생이 60~70명으로 줄었다.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가 운행되어서 걸어 다닐 일이 없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하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능력만 있으면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을 졸업하면 도시에서 직장을 얻어 정착하는 것이 당연해졌다. 가정형편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을 못했던 시절에 비하면 상전벽해다.

2) 종교 생활

신리중앙교회 일대와 양창호 목사

신리는 천주교인이 많았다. 1940~50년대 전체 30호가 안 될 때도 5~6호(戶) 이상은 성당에 다녔다. 천주교인들은 서정리역 건너편의 서정리성당까지 걸어 다녔다. 당시에는 불교 신자도 많았다. 유인원(남, 1938년생)은 천주교신자 아니면 모두 불교신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 신자들은 동천리의 만기사, 마산리의 동령사에 많이 나갔다. 하지만 불교 신자들은 개신교나 천주교처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4월 초파일이나 동지 때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오는 게 전부였다.

김종식(남, 1942년생)은 한국전쟁 전에도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다. 당시에는 무속신앙은 기본이었고 불교 아니면 천주교회밖에 없던 시절이라 절에 나가지 않으면 성당에 다녔다. 천주교인이 증가한 것은 한국전쟁 뒤 천주교회를 통해 구호식량을 많이 나눠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구호양곡은 학교에서도 주었지만 천주교회를 통해 지급되는 것도 많았다는 것이다.

김춘자(여, 1945년생)는 시댁이 마산리의 동녕사에 다녔다. 당시 독곡동 오리골 사람들은 마을 근처 동녕사에 많이 다녔다. 그래서 본인도 오랫동안 절에 다녔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여 며느리를 얻었는데 기독교인이었다. 며느리가 교회를 나가자 아들과 손주들도 따라 나간다. 출가한 딸 두 명도 독실한 개신교인이다. 특히 한광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은 학교에 다니며 개신교를 받아들여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

신리 마을 안의 '신리중앙교회'는 2000년 2월 21일 양창호[36] 목사가 개척했다. 교단은 예장보수이다. 양창호 목사는 아는 분의 소개를 받아 교인 한 명 없는 마을에서 가족예배부터 드렸

36) 양창호 목사, 신리중앙교회, 2021년 9월 18일 인터뷰

다. 2001년에는 사비를 들여 교회를 건축했으며 교인 수도 30~40명으로 증가했다. 교인들은 신리 주민들이 대다수다. 개척 당시 마을에는 서정동성당에 다니는 천주교인들이 많았다. 일부는 서정리감리교회, 좌동교회, 송탄침례교회 등 송탄에 있는 개신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오산시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이 있었다. 동네 주민들 몇몇은 마을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다. 목회 여건이 나빠 고향인 전라도 담양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여의치 않았다.

갖은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벽돌을 쌓을 때는 비가 오지 않다가 다 쌓은 뒤 비가 내리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교회를 건축했더니 첫 교인이 출석했다. 현 신리부녀회장이 그 사람이다. 마을을 지나다니며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를 열심히 하고 친근하게 다가갔다. 주민들이 외출할 때를 차로 태워다주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교인 수가 조금씩 증가했다. 하지만 한계가 많았다. 마을의 기반 시설도 열악한데다 오산공군기지 전투기 소음피해도 심했다. 주민들도 가난할 때 마을로 들어와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음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주소지만 신리로 옮겨 놓은 사람들도 있다. 농촌의 고령화도 교회 운영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한때는 30~40명으로 증가했던 교인 수가 지금은 15~20명으로 줄었다. 노령인구가 많아서 활력도 적다. 그래서 근래에는 새로운 선교 방법으로 요양원 운영이나 재가노인복지단체 운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신리는 무속신앙도 발달했다. 주민들은 새해 신수점을 보고 가을 추수 후에는 굿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마을에는 무당도 살았다. 굿을 할 때는 동네 만신보다 다른 마을에서 무당을 데려왔다. 동네 만신은 각 집안의 일들을 속속들이 알아서 신통력을 기대할 수 없다며 각자의 사정을 잘 모르는 무당을 데려오려고 했다. 동네 만신에게는 점을 칠 때 많이 갔다. 지금은 만신도 사망하고 굿도 거의 하지 않으며 설령 하려고 해도 굿당에 가서 한다.

4) 마을신앙과 가정신앙

신리 마을제당이 있었던 숲둑(그네둑) 터의 현재와 송탄상회

신리는 마을제가 발달했다. 당숲은 '그네둑'이라고 부르는 마을 숲에 있었다. 마을 숲은 마을 동쪽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심은 숲으로 수종은 소나무와 기름나무에 아카시나무가 섞여 있었다. 이 가운데 마을주민들이 당목(堂木)으로 섬긴 것은 두 아름드리쯤 되는 기름나무였다. 2008년 평택문화원에서 편찬한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3』에서는 신리 마을 당제(堂祭)는 음력 정월 대보름과 음력 10월 상일(上日)에 지냈다고 하였다. 2006년 인터뷰한 유인숙(남, 1932년생)은 정월에 지내는 당제(堂祭)는 새해의 풍농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제였고, 10월 당제(堂祭)는 마을 숲에 지내는 산신제였다고 말했다. 당시 유인숙은 신리 당제(堂祭)는 마을공동으로 지내지

않고 김해 김씨들만 지냈다고 했다.

2021년 9월에 인터뷰한 유인원(남, 1938년생)도 마을 숲(그네둑)에 제당이 있었다고 했다. 당목(堂木)은 소나무와 기름나무로 기억했으며 그 옆에 터주가리를 해 놨다고 말했다. 유인원에 따르면 신리 마을제는 한국전쟁 뒤 중단되었다고 했다. 마을제를 섬기던 사람들이 사망하면서 자연스럽게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제의 방식이나 제물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다고 했다.

노인회장 김종식(남, 1942년생)은 김해 김씨 횡성공파 72대손이다. 김종식은 마을 숲에 있었던 제당을 '서낭당'으로 기억했다. 서낭당 당목에는 터주가리도 해 놓았다. 조모께서 살아 계실 때는 음력 정월하고 칠월 칠석이면 이곳에 떡을 해 놓고 빌었다. 하지만 김종식도 제의 절차나 제물(祭物)에 대한 자세한 기억은 없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할 때 신리 제당(祭堂)은 동쪽 마을 숲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제당의 형태는 소나무와 기름나무 당목이었고 그 옆에는 터주가리를 해 놓았다. 제의는 칠월 칠석과 정월에 두 차례 지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 뒤 마을제가 중단되었다. 그 뒤로는 김해 김씨 집안에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정월과 칠월 칠석에 떡을 해 놓고 간단하게 제(祭)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 유인숙(남, 1932년생)이 김해 김씨네가 섬겼다는 것은 김종식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섬겼던 사례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다가 1977년경 경지정리를 하면서 당숲이 사라지고 김종식의 조모도 사망하자 당제도 자연스럽게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신리 김장영(남, 1953년생) 이장과 이종영(남, 1954년생)은 당숲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몰랐다. 다만 마을 동쪽에 조성한 '숲둑(그네둑)'의 존재에 대해 말했는데, 이 둑은 수해 방지를 위해 마을 동쪽에 둑을 쌓고 소나무를 심은 것이라고 말했다. 소나무는 약 20그루가 있었는데 둘레가 1m 20cm쯤 되었다. 그밖에도 아카시나무와 기름나무가 있었다. 기름나무는 둘레가 2m가 넘었다. 마을 숲은 1920년대 전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마을 운영을 할 때 마을 기금을 만든다며 벌목업자들에게 팔았다.

5) 가정신앙과 놀이

농촌마을에서는 가정신앙도 발달했다. 가정신앙으로는 터주, 제석, 조왕, 측신 등 다양했다. 근대문물이나 의료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그저 기원하고 조심하며 사는 것이 생활의 지혜였다. 가신(家神)은 그런 척박한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신(神)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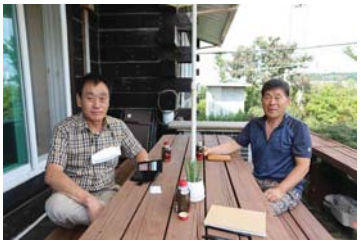
유인원(남, 1938년생)은 옛날 농가(農家)에는 터주가리, 제석주머니, 대감독 같은 것을 다 해놨었다고 말했다. 유인원의 집 대감독은 세 개가 있었다. 안방에 제석주머니도 달아뒀다. 유인원은 제석주머니를 칠월 칠석에 쌀밥을 먹기 위해 달아 놓았던 것으로 기억했다. 신리의 가신신앙(家神信仰)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대부분 없어졌다. 새마을운동 당시 강력하게 불어닥친 미신타파 운동의 영향이다.

김춘자(여, 1945년생)도 터주가리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었다. 결혼 후 독곡동 오리골의 시댁에 왔더니 터주가리, 대감독, 제석주머니 같은 것을 해 놓았더라는 것이다. 제석주머니나 대감독은 가을에 추수한 곡식으로 가장 먼저 만들었다. 특히 제석주머니는 칠월 칠석이면 내려서 밥해 먹었는데 보릿고개 때 보리밥만 먹다가 쌀밥을 먹으면 참 맛있었다고 말했다. 대감독은 쌀 몇 가마가 들어갈 만큼 큰 항아리에 담아두었다. 통상 대감독은 빈부의 격차가 있어서 부잣집은 더 큰 부자가 되라고 큰 대감독을 두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쌀 한 말쯤 들어가는 작은 대감독을 두었다.

신리 풍경 :신리슈퍼, 골목, 하수처리장, 신리맨션 골목, 송어양식장, 진위천 둑

신리는 1950년대만 해도 두레패가 있었다. 풍물도 잘 놀았다. 신리의 라이벌은 견산리였다. 두 마을은 정월대보름이 되면 진위천 냇가에 나가 쥐불도 놀고 두레싸움을 했다. 유인숙(남, 1932년생)은 두레에 대해 알았지만 이장 김장영(남, 1953년생)은 두레패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신리 주민들의 논은 대부분 견산리 앞 장호들에 있었다. 그래서 신리는 논보다 밭이 많았고 두레패가 김매기를 하려면 견산리까지 넘어가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두레패 운영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일찍 중단되었다. 김장영은 어릴 때 거북놀이를 했던 기억을 말했다. 거북놀이는 마을 아이들이 수숫대로 거적을 만들어 뒤집어쓰고 집집마다 돌면서 밥과 음식을 얻어먹는 놀이였다. 거북놀이는 오래 가지 못했다. 김장영도 몇 년 하다가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김장영(남, 1953년생, 신리 이장), 이종영(남, 1954년생, 신리 개발위원)

일시	2021년 9월 15일	
장소	신리 김장영 이장 자택	
구술자	김장영 이장은 신리 토박이다. 본관은 연안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뒤 마을에 거주하면서 평생 농사를 짓고 마을 임원으로 활동했다. 마을관련 역사와 문화에 소상하다. 이종영은 초 · 중 · 고를 졸업한 뒤 중장비 사업을 하면서 마을에서 거주했다. 신리 향우회, 이장 등 마을 임원을 맡아 활동했고 어릴 때의 기억이 매우 소상하다.	
면담자	김해규	

김장영 이장께서는 본관이 어디세요?

저는 연안 김씨 내자시원공파 13대손이예요.

신리에는 언제 들어오시고요?

우리는 고조부께서 들어왔다고 해요. 오산에 살다가 여기로 온 거죠.

지금 내리에는 연안 김씨가 몇 집이나 살아요?

옛날에는 많았죠. 가장 많았을 거예요. 10호는 됐을 텐데 지금은 다섯 집밖에 없어요.

줄어든 이유는요?

아무래도 노인네들은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들은 도시에 정착하니까 그렇죠. 이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종영선생님은요?

우리는 안성 이씨죠.

언제 입향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셨죠. 일곱 살인가 여덟 살 때 들어왔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작고하고 큰아버지를 따라 들어왔데나 봐요.

마을에는 몇 집이나 살아요?

신리에는 두 집 살죠. 우리 형하고 나하고 두 집뿐이죠.

마을 규모는?

1950년대 말에는 29호 정도였어요, 1980년대 초반에는 60호 정도였고.

마을 규모가 갑자기 늘었던 이유는?

일이 많으니까. 지금도 호남 이주민이 얼추 과반이 넘어요. 호남에서 품 팔러 오거나 소작지으러 왔다가 정착한 사람들이 많죠. 이 동네가 들이 넓어서 일이 많아요. 하우스재배도 크게 하고. 그러니까 일하러 왔다가 정착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품 팔러 오거나 소작 지으러 왔다가 정착하는 사람이 많으면서 인구가 급증했군요?

거의 더블로 늘은 거죠. 30세대가 됐다가 60세대 된 거여.

지금은 몇 세대예요?

250세대. 인구는 줄었어, 작년보다. 560명이지 아마. 노인인구는 늘었지. 노인인구는 250명이 넘어요.

신리 전경(좌), 진위천 신리부근 유채꽃밭(2017, 우)

인구증가의 원인은?

빌라 영향이 크고 도로 옆이라 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싸고, 비닐하우스 때문에 일이 많고. (이종영) 생각보다 비행가 소음 때문에 나오는 보상비 영향도 커요. 1달에 3만 원이 나오는데 몇 년이면 한 200만 원씩 나온다고. 그 영향도 무시 못 하죠. 하여튼 도로 옆이라 없는 사람 살기는 조건이 좋다고 봐야지.

주변 공장의 영향은 없어요?

그 영향도 없잖아 있겠지만 주민들이 나이가 많아서 크다고는 못하죠.

(이종영) 부산번디(현 세아FS) 때문에 조금은 늘었지. 번디가 처음에는 백십자 공장이었는데 공장 완공을 못했어. 나중에 피혁공장으로 오픈했고 나중에 부산번디가 인수했지. 여기가 부산파이프 계열이여. 그랬다가 한국 번디, 지금은 세아라고 하지.

언제 들어왔어요?

(이종영)피혁공장이 애들(번디)한테 팔았으니까. 번디가 1980년.... 내가 군대 갔다 왔더니 들어왔더라고. 1978년에 제대했으니까. (이장) 1975년 군대 갈 때는 피혁공장이었어.

백십자는?

(이장)백십자는 우리 초등학교 때 짓다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에 완공했는데 운영하지 않다가 피혁공장으로 넘어간 거지.

왜 신리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왔을까요?

여기가 냇갈이 있으니까 물이 많아서겠지. 본래 여기에 공단을 조성할 계획이었대요. 그런데 비행기 소음이 심하니까 취소되었다고 하더만.

신리 주변에 공장들이 참 많아요. YKK공장은 언제 들어왔어요?

1970년대 중반에는 들어왔겠지. 1979년 박통 서거할 때도 있었으니까. 1970년대 중반에는 들어왔을 거여.

YKK공장은 일본공장이었나요?

한일합작공장이었지. 처음에는 일본인이 오너였고 20년 지나면 한국한테 넘기기로 한 거 아녀. 기술료만 주기로 하고.

YKK는 처우가 괜찮았잖아요?

거기는 괜찮았지. 번디도 좋았어. 잔업이 많아가지고 한 달에 타가는 게 많았다고. 지금은 회사 사정이 나빠졌지만.

마을 주변에 공장이 들어오면 젊은 사람들 취업도 할 수 있고 혜택도 있지 않나요?

시골에 혜택 줘봤자 도로 포장할 때 몇십만 원 도와주고 하는 거 정도지.

젊은 사람들 취업시켜주고 그러잖아요?

여기 공장들이 3D업종이라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갔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잔업도 많고 괜찮은 거여. 한 달에 잔업만 300시간을 다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 봉급이 몇백만 원을 더 타는 사람도 있었다고. 봉급보다 잔업 수당이 더 많았다는 사람도 있었어. 거기가 분진도 많이 나고 주변 나무들도 시들어가는 걸 보면 공해도 심했다고 볼 수 있지.

마을에서는 몇 명쯤 다녔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외지에서 들어와 연립에 사는 사람들 중에 회사 다니는 사람들 해서 20명쯤.

그럼 마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네요?

크게 영향 주지는 않지. 노인회 행사할 때 몇십만 원 협조하는 것 말고는 없지 뭐.

(이장)번디는 그렇게 넉넉하지않는 회사여. 주자창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번디는 뭘 만드는 회사예요?

(이장)노즐, 자동차 노즐만드는 회사여.

(이종영)자동차 라지에이터에 동파이프로 S자로 있는 거 그 부속 만드는 거 독점이었다고. 독

점이었는데 중국제 들어오고 경쟁회사들이 생기고 하면서 어려워졌지. 여기도 하나 있고 서탄면에 하나, 평택공단에 하나, 광주에 하나 해서 넷이나 있어서 잘 됐었다고. 요즘에는 나이 많은 애들 잘랐다고 하더라고, 회사가 어려워서.

신리 주변의 중견기업들, 신리 비닐하우스시설재배

신리 마을의 산업은 어땠어요. 논이 많았어요 밭이 많았어요?

여기는 전(田)이 많았지, 경지정리하기 전에는 다 전(田)으로 되가지고 밀과 보리, 참외, 수박 같은 거를 재배했지.

하천부지였네요?

여기 제방이 1960년도에서 1961년에 제방을 쌓았다고. 그전에는 장마지면 다 물바다야. 동네가 다 물바다가 되었다고.

그러면 뭘 재배했어요?

수박, 참외, 밀, 보리, 밭벼. 밭벼도 많이 심었지. 그런데 그게 돈이 안 됐지. 밭에다 벼를 심으면 수확이 반도 안 됐어.

2모작 형태네요?

보리하고 밀은 겨울에서 초가을까지 가잖어. 그다음에 배추, 무 심고 그랬지.

채소재배도 그렇고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는 지하수는 풍족했죠. 옛날에는 지하수를 뭐로 했냐면 관정 박아서 펌프 설치해서 물을 퍼올리고 그랬다고. 그거 관정이라고도 할 수 없었지. 7~8자만 파면 물이 나왔으니까. 우물도 고개 숙여서 푸면 됐어.

그 정도예요. 물이 넉넉한 마을이었네요?

땅도 견산리하고 달라서 여기는 모래 부산물이 많다고. 여기는 2m만 퍼내면 좋은 모래가 나온다고. 사질토지. 옛날에는 비 오면 순전히 냇갈이었지. 제방 쌓으니까 논밭이 된 거지. 여기 제방 쌓을 때가 우리가 6살, 7살이었다고. 저쪽에서는 불도저로 밀고 잔디같은 거 날라주면 밀가루 주고 그랬어.

그럼 제방은 농업지원기금으로 쌓았군요?
미국 잉여농산물 같은 거 원조하고 그랬을 거여. 사방공사도 많이 하고.

마을에 큰둑, 작은 둑 그러더라고요?
(이장) 맞아요. 옛날에 큰 둑, 작은 둑 있었는데 우제강씨 집 앞쪽에 송어양식장 있는데 작은 둑이 있었고 조가비웅덩이도 있었어. 하천 합류지점이지 그곳이. 진위천 제방을 큰둑이라고 했고.

조가비 웅덩이라고 했어요?
조개가 있어갔고 조가비웅덩이라고 했지. 마름도 따 먹고 그랬어요. 조개지만 그때는 사투리가 있어서... 정씨를 증씨라고 했잖어.

어떤 조개였어요?
우리가 잠수해서 잡아 오는 게 말조개였어. 재첩보다 조금 큰 조개도 있었고.

평택에서는 그 조개를 부전조개라고 하더라고요?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틀리나 봐.

웅덩이는 어땠어요?
맑고 차가웠지. 학교 갔다 돌아오다 보면 웅덩이 바닥이 보였어.

혹 이 마을로 지났던 삼남대로에 대해 들어봤어요. 춘향이 길이라고도 했는데?
여기는 정원네 집 그 옆으로 지나갔어.

마을 어르신들은 저쪽 송어양식장 쪽이라고 하던데요?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어.

엣날 기록에 이 마을에 장호원이라고 있었거든요?
(이종영) 맞어, 옛날에 우리 마을을 장호원이라고 했어.

삼남대로가 간척 때문에 세 번 바뀌거든요?
(이장) 나도 이상했어. 분명히 정원네 옆으로 지났다고 들었는데 사람들은 마을 동쪽으로 지났다고 하더라고.

송어양식장 있는 데를 원터거리라고 했잖아요?
(이종영)아니 옛날에는 이 동네 전체를 원터거리라고 불렀다고. 우리가 하북리 사람들을 뒷성지 사람들이라고 했잖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원터거리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그러다가 새터라고 했고 나중에 벌말이라고 했고. 신리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잖어. 그런디 옛날 노인네들이 우리보고 '너희들 원터거리에서 왔냐?'라고 했다고.

이종영선생님 말씀이 맞는 게 진위천 옛 이름도 장호천, 들판 이름도 장호천 그랬거든요. 그것이 모두 장호원에서 비롯된 말인데, 옛 기록을 보면 장호원 옆에 큰 웅덩이가 있었다는데 알고 계세요?

웅덩이가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있었다고. 아까 말했던 조가비웅덩이, 또 하나는 도깨비웅덩이, 세 번째가 백 뭐라고 웅덩이라고 했는데. (이종영) 맹숭웅덩이. 저기 송탄 경계지점에 있었는데 거기는 마름이 많이 나고.

그럼 어릴 때 보셨네요?

그럼, 거기서 썰매 타고 어름 깨 먹고 그랬는데. 맹숭인지 맹승인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독곡동에 가까운 웅덩이였네요?

그렇지 독곡동에 가깝지. 거기가 옛날에는 송탄에 속했다고. 나중에 우리 마을로 들어왔지.

거기가 인침담이라는 웅덩이인 것 같네요. 맹정승 고사가 전해오는 인침담 전설이 있거든요?

(이종영) 인침담 그거 들어봤어. 맹숭이 아니라 맹승이네. 그거 유래가 있네.

길도 그쪽으로 오리골 넘어갈 수 있죠?

그렇지. 국도에서 두 구간, 한 200미터 떨어졌네.

항아리칼국수 근처인가요?

아니 거기 조금 못 가서. 거기 가기 전이지. 거기가 지금은 진위면인데 옛날에는 송탄이었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평지에 웅덩이가 많은 것은 그만큼 물이 풍부했다는 거여. (이종영) 거기가 맹숭웅덩이면 뭐… 웅덩이 세 개가 크기가 다 똑같았어. 우리가 거기서 썰매 타고 놀고. 그런디 조개비 웅덩이가 안 얼었어. 물이 많이 나갔고. 고기도 많고 조개도 많고. (이장) 옛날에는 도깨비웅덩이에서 명절 때 소 돼지도 잡아먹었다고. 명절 때 고기잡아서 나눠 먹고 그랬잖어. 돼지 오줌보로 축구 모냥 하고 놀고. (이종영)일 년에 한 번 물을 퍼내면 거기서 잡은 물고기로 동네 사람들이 다 먹었다고.

그럼 도깨비웅덩이가 깨끗했네요?

그렇지는 않지. 거기서 빨래하고 돼지 잡고 개 잡고 그랬으니까. 돼지 잡고 빨래하고 하니까 물고기가 엄청 많았어. 그래도 썰매 타고 겨울에는 얼음 깨 먹고 그랬다니까. 거기가 넓이가 300평 아니 400평은 됐을 거네. 다용도로 사용한 거지.

그래도 동네가 활기찼네요?

그럼, 이 동네가 근방에서는 제일 잘 살았을 거여. 수박보다는 참외가 많아서 종국이네 뒤에도 참외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으면 맹꽁차가 와 가지고 가져갔잖어.

수박, 참외 농사는 언제 재배한 거예요?

1960년대지. 1970년대는 초반까지여. 1972년에 물난리 나서 하북으로 피난 갈 때도 참외따먹

고 그랬잖어. 그때 원두막이 마을 집들보다 많았어. (이장) 내가 베트남 여행 가봤더니 수상가옥들이 원두막 같더라고. 멀리서 보면. 지금 그 사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종영) 왜냐면 여기 땅이 우리 마을이 30, 40호밖에 안 됐지만 오리곡, 오룡동 사람들도 여기 와서 참외하고 원두막 지었으니까 아주 많았지.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참외) 수매를 하는 거야. 집하장이었지. 그러면 맹꽁이차라고 앞에서 시동 거는 거, 지무시라고 했나 그걸 가져와서 싣고 갔다고.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지금도 산판에 가면 쓰는 데도 있다고. 그게 힘이 좋다고. (이장) 그때 참외들 용산 청과시장으로 갔을 거여. 용산 전자상가 있는데. 수원은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서울로만 갔어.

아침장으로도 팔러 다녔다면서요?

그건 1970년 전후지. (이종영) 내가 효명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눈도 안 떠지는데 엄마 리어커 끌어다 주고 학교 갔지. 내가 효명중·고등학교 다녔거든, 걸어서.

1970년대 초 수박 참외 농사가 끝난 뒤에는 무슨 농사를 했어요?

1970년대 중반에도 수박 참외 농사는 지었지. 그 뒤에는 하우스재배를 많이 했고 운반수단이 경운기로 바뀌었고.

그때도 수박 참외를 했어요?

그렇지. 그때 우리 마을에 경운기가 충식이 형하고 정일이 두 대뿐이었을 때여. 그거로 밭 갈고 논 갈고 시작된 거지.

트랙터, 이앙기는요?

1970년대는 나오지도 않았고 1980년대나 되어야 나왔지. 우리 동네는 논농사가 많지 않으니까 이앙기는 많지 않았고 밭이 많으니까 트랙터가 필요했지.

논농사가 적었으면 쌀밥 먹기가 힘들었겠네요?

사 먹기도 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 중에도 냇갈 건너 견산리 쪽에 논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게 구레논이라고 생전 물 안 푸고. 물도리논이어서 비만 내리면 벼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했던 논들인데 지금은 기계가 못 들어가서 농사짓기가 힘들지.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그걸 따지려면 옛날에 참외 심으려면 다른 동네는 밭에 참외씨를 뿌렸는데 우리 동네는 창호지에 기름먹여서 대다니 두 개에 고깔처럼 씌우고 재배했다고. 그게 1970년대 중후반인데 그게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 비닐하우스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작했고. 직파한 것이 아니라 텃밭에 씨를 심고 볏짚을 덮고 대나무를 세우고 기름종이를 덮어서 며칠 기르고 싹이 돋으면 숨구멍을 뚫어서 모종을 길렀다고. 우리 마을 스스로 기술을 개발한 거지. (이장) 1970년대 중후반이 맞나. (이종

영) 아녀,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그 집 하우스 가서 담배 피고 그랬잖어, 육백도 치고. 그러니까 1970년대 초반이여. 한기네 비닐하우스가 최초 아녀. 그 사람들 들어온 것은.

뭘 심었어요?

상추를 먼저 하고 오이를 심었지. 한기가 자기네 집에서 땄다고 먹어보라고 하고 그랬어.

하북보다 여기가 먼저네요?

여기가 먼저지. 그런데 기술은 거기가 앞섰어.

(이종영) 거기는 대나무 하우스는 안 했을 걸.

(이장) 여기서 하우스 하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농사지으면서 기술이 전수되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앞서고 있지. 농사지으면 일 년에 한 번 (돈을) 만지는 건데 하우스하면 일 년 내내 (돈을) 만지니까 그 사람들이 따라 한 거지.

지금은 그쪽이 왕 노릇 하잖아요?

지금은 그쪽과 비교할 수 없지.

1980년대 초반에 신리에 육묘장도 있었다면서요?

육묘장 있지.

운영하는 분 이름은?

최정근, 오좌동 사람이지. 그 사람이 1960년생인가 1961년생인가 되지. 그게 1980년대 초반은 아니고 1990년대 말쯤 되지. 그거 정부 보조받아서 지은 거 잖어. 몰라 어째든 그 사람이 지었어. 그게 30년은 넘었어. 우리 집이 2001년도에 지었으니까 육묘장은 30년은 된 거지. (이종영)근식이가 1980년 중반에 지었잖어. 그러니까 육묘장은 한참 늦지. 1990년대 중반은 된 거여. (이장) 맞어, 1990년대 중반은 되겠네.

마을에 축사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몇 집 있었어요. (이종영) 두 집이었지 두 집. 종수형네 하고 인원이 형네하고, 영부는 한참 늦게 들어왔고.

몇 두씩 길렀어요?

20두씩은 했지. (이종영) 혜순네는 컸지. 한 30두는 됐지. 일꾼 두고 20두 하면 타산이 맞나. (이장) 그때는 맞았지.

언제부터 했어요?

(이종영)1980년도... 내가 1978년도 제대했을 때 소 안 길렀잖어. (이장) 1970년대 말이여. 인원이 형님네 자식들 초등학교 다닐 때 우유 먹여서 학교 보내고 그랬어. 그 집 큰 애가 60세여. 그거 역으로 계산해봐. 1970년대 중반은 되지. 아이구 그 애들 우유 먹여서 학교 보냈다니까. (이

종영) 우리 작은어머니집이 내가 군대 있을 때 집을 지었거든. 그때만 해도 혜순네하고 트러블이 없었어, 냄새가 안 나가지고. 나중에 소 길러가지고 작은형네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1980년대 초반일 거여.

처음부터 일꾼 두고 했나요?

혜순네는 처음부터 일꾼 두고 했어. 요쪽 한 집은 가족들끼리 하고.

지금도 축산업을 하나요?

1집 남았어. 박영부라고 한 집이 남았어요. 한우 기르는 사람.

시설재배는 얼마나 해요?

이 동네 사람은 거의 다 시설재배하죠. 크고 작고의 차이지 다 하죠. 농사짓는 사람은 거의 다 하죠.

농사짓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작목반 보면 한 30호. (이종영) 300평, 500평 600평 하는 사람까지는 더 많지. (이장) 그 사람들이야 농협에서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지.

논농사도 하죠?

논농사도 하죠, 몇 집이. (이종영) 대부분 2모작이죠. 봄에 벼농사 시작해서 가을에는 배추 심고. 땅이 깊은 곳만 논농사를 짓고.

김장영, 이종영씨, 신리 배추 노지재배

중고등학교 진학률은?

1950년대 초반 출생 중에서 중학교 진학률은?

우리 때는 90%는 진학했다고 봐야죠.

초등학교는 진위초등학교 다녔겠네요. 걸어 다녔어요?

장마지면 1번 국도를 돌아 하북으로 돌아다니고, 비 안 오면 봉남리 근처에서 넘어가거나 우리

집(이장) 뒤 냇갈을 걸어 넘었고. 우리 집 뒤도 물이 안 깊었어. 하여튼 지정되어 있지 않고 넘어 다녔지. (이종영) 아나방으로 섶다리 놓은 다리도 있었고 장마에 떠내려가면 징검다리도 만들었고. (이장) 아나방 다리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나무로 하고 뗏장 올렸어. 저 사람(이종영) 누이가 우리 1년 선배거든. 학교 가다가 모래로 이빨도 닦고 그랬어. 지금 그 생각이 나네.

섶다리나 징검다리 있던 곳은?

(이장) 우리 집 뒤 송전탑 너머에 다리를 놨지. 나영환네 밭 끄트머리로 넘어 다녔는데 여기는 나영환네 집 앞이지. 저 윗동네는 둑방 따라서 봉남리 쪽으로 가다가 유원지 쪽에서 넘어가기도 하고.

견산리 사람들은 이 다리로 넘어오지는 않았어요?

견산리 사람들은 넘어올 일이 없지. 정월 대보름에 망우리(망월) 놀 때 저쪽 동네 애들도 백사장에 나와서 했다고. 우리는 이짝에서 놀고.

같은 연배에 중학교 진학률은 어땠어요?

1960년대 후반인데 남자들은 대부분 들어갔지. 여자들이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고등학교 진학률은?

고등학교는 반반쯤 된다고 봐야지.

입시 때문인가요?

그때는 부모님들도 일찍 돌아가시고 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돈이 없어서 못 갔어. 일도 많고. 중학교 3학년 때도 일 년에 35일을 결석했어. 생각하니까 거의 일 년 내내 학교 못 간 거네. 그때는 농기계도 없고 손으로 하니까 어머니가 일하자고 하면 거역도 못했지. 그때 일 안 하고 학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장남이셨어요?

내가 맏이라. 동생들은 다들 고등학교 대학 다녔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엄마 말을 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내가 바보짓을 한 거여. 동생들 다 소용없어. 결혼 전에 동생이지 결혼하고 나니까 제 형을 우습게 보는 것은 괜찮어. 내 얼굴에 침 뱉기지만.

부모가 있으면 장남을 잘 가르치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면 장남을 못 가르치더라고요?

내가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 동생들이 음료수라도 사 가지고 찾아오면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집에 있는 자식은 귀한 줄 몰라. 장남들 재산 많이 가져간 것만 불만이지.

요즘에는 젊은 사람이 많지 않죠. 마을에서 대학진학율이 높아진 것이 1990년대인가요?

그렇지 뭐. 노숙자들도 대학 나왔는데 뭐.

대학진학율 높아진 만큼 젊은 사람들 도시 이주도 많아졌겠네요?

우리 마을에서 농사짓는 사람 중에 젊다고 하면 62세여.

신리는 경지정리 언제 했어요?

여기는 1977년도 후반.

여기는 아산만 물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어비리저수지 물이 들어오지. (이장) 옛날에는 여기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어. 1960년대 후반에 여기까지 들어왔다니까. 어쩌다가 물 많이 들어오면 수해 나고.

수해도 심했죠?

장마 때 아산만 물이 들어오면 둑방이 없을 때는 넘쳐서 우리 마을에 고인 거야. 수해 때문에 피난도 두 번 갔어요. (이종영) 1972년에 하북으로 피난 가고, 1990년에 넘쳤을 때는 진위상고에 피난 가서 살았지.

1990년 수해는 저도 기억나요?

그때 북한에서 구호식량 주고 그랬다고.

유리광사 농원, 신리 장호원 터

마을 공공시설은 회관 하나뿐인가요. 마을회관 처음 건축한 것은 언제예요?

1976, 7년도에 처음 지었네. (이장) 1976년에 내가 10만 원 내서 마을회관 새로 짓고 현판 기증했어. 그다음에 한 번 또 짓고, 또 짓고 네 번째는 증축했지. 그건(증축) 지금도 진행 중이고.

마을회관 없을 때는 어디에서 모였어요?

사랑방에서 모였지. 석환네. 우리들이 모이는 사랑방도 있었잖어. 머리도 잘 안 감고 살 때라 벽에 기대면 벽지가 노랗게 변하고 그랬다고.

새마을운동은?

정춘근씨가 초대 새마을지도자로 주도했지.

이때 한 일은?

지붕개량, 도로포장. 포장은 정부에서 세면만 줘서 냇갈에서 모래 퍼다가 했다고.

주요 사업이 두 개뿐이었어요?

우리야 한 게 없지.

부엌 개량은?

부엌 개량은 각자 알아서 한 거고. 이 동네가 들판이다 보니까 나무가 무척 귀했다고. 그래서 딴 동네보다 연탄이 일찍 들어왔어요. 빨리 들어온 집들은 1960년대 말이면 들어왔지.

연탄아궁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보일러가 아니죠?

구들연탄이지. 그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났다고.

기름보일러는 언제?

그게 1980년대 초에 시작됐지. 나중에 심야전기하고. 요즘에는 전기세가 비싸서 가스보일러 쓰는 사람이 많어.

전기는 언제 들어왔어요?

여기 비행장, 일본놈들이 비행장 닦다가 도망간 것 아냐. (이종영) 마산리는 1970년대에 들어온 것 아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기불 아래서 태어난 거여.

그럼 옛날부터 텔레비전도 있었어요?

아니지 텔레비는 1970년대부터 썼지. 자바라 텔레비전. 여로라는 드라마 있잖어, 미군부대 다녔던 사람은 다들 텔레비전 있어서 돌아다니며 보러 다니고 그랬다고. 발 안 닦으면 안 들여보내주고, 텃세도 심하고.

마을에 우물고사나 당제는 없었어요?

그건 모르고 그네둑이라고 저기 우제강씨네 집 주변으로 조선소나무가 많았어요. 그걸 숲둑이라고 했다고. (이종영)숲둑이 만들어진 저거는 동네 제방이 없을 때 수해가 나면 동네 주변으로 물이 돌아서 들어오라고 동네 절반에 둑을 쌓아가지고 소나무를 심었는데 경지정리할 때 그 소나무가 둘레가 1m 20cm쯤 되었어. 그런 소나무가 한 20개는 안 됐지, 소나무 좋은 것은 20개는 안 됐는데... (이장) 그 소나무가 없어진 이유가 우리 아버지 연배들이 동네 기금을 만든다고 업자들한테 팔아먹은 거여. 지금 놔뒀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데.... 소나무가 그렇게 자라려면 몇백 년이 걸리는데 그걸 베어서.... 조선소나무 참 좋았는데... (이종영)우리 동네도 마을을 보호하려고 만든 것인데 참... 아카시나무, 기름나무라는 거. 기름나무는 당시에 둘레가 2m는 되었을 거여. (이장) 기름나무라고 꼭 벚나무 같이 생겼는데 열매가 달랐지.

숲에 제사 지내는 나무는 있었어요?

우리는 그건 못 봤고.

우물은?

인제 형네 하나, 우영이네 뒤에 하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현숙이네 하고 똥꼬네. 동네 우물은 세 개, 개인 것까지 네댓 개.

우물마다 이름은 있었어요?

없었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 우물가는 동네 여자들 사랑방이었어. 거기서 빨래도 하고 수다도 떨고 동네 소식은 거기 가면 다 들었다고.

간이상수도는?

그거 매일유업에서 해 준 건데. 매일유업이 언제 들어왔지. 1973년인가 74년인가 그때 해놨지.

광역은?

광역들어온 지 15년인가, 그때 도시가스하고 같이 들어왔지. 도시가스는 우제항이 국회의원 할 때 들어왔어.

마을은 이장님 한 분하고 반이 몇 개여요?

반(班)도 한 개.

새마을지도자는?

지도자 있어요.

청년회는요?

청년회 있어요. 우리는 향우회지. 이 사람(이종영)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는데 젤 오래되고 단합도 잘되요. 그때는 20, 30대 청년들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1960대 후반, 70대로 변했지. 현재 28명 회원. 어린애들하고도 같이 하려는데 그 애들은 관심도 없고 해서 안 됐어요.

향우회가 하는 일은요?

그냥 친목 단체고 동네 공사 같은 거 할 때 지원하고 그러는 거지 뭐. 우리가 젤 젊은 놈들인데 빠지면 아무 일도 안 되지.

상계나 연반계는 있었어요?

있었지. 신리 상계라고 했지. 그게 없어졌어요.

어떻게 운영되었어요?

(이종영) 그게 1957년도엔가 상여 메는데 누구는 메고 누구는 안 메고 그래서 쌀 한 되박씩

걷은 거야. 한 집에 한 되. 초창기에 스물 몇 명이 들어갔는데 그때 걷은 걸로 장리쌀을 놓았어. 그 돈으로 상(喪)이 나면 수원에서 상여하고 상여꾼을 사왔다고. 그 사람들에게 돈 주고 매장지까지 간 거야. 그게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80명도 넘게 되었어. 그런데 어떤 놈이 이장을 보면서 장부고 뭐고 싹 없애버렸어. 처음 우리 아버님 시절에 시작한 건데 ...(아쉬운 한숨)

언제 중단됐어요?

20년은 된 거 같어. 한 15년쯤 됐나. 지금 생각해도 아까워 죽겠어. 그 장부들을 왜 없앴는지 모르겠어. 옛날 어른들이 쓴 것을 보면 지금 봐도 명필여. 어쩌다가 없어져서.

대보름에 놀았던 것은?

우리 어릴 적에 거북아 거북아 잠깐 놀고 중단됐고. 정원이 아버지, 봉기 아버지 있을 때 두레는 놀았는데 논에 가서 일하는 건 다른 마을은 봤는데 우리는 없었어. 논들이 다들 장안들에 있어서 할 수도 없었고. 여기는 논에 물 대면 쑥 빠져버려서 논농사는 어렵지.

악기는?

장구, 꽹가리, 징, 상모돌리는 거.

아 소고요?

조그만 것 치면서 상모돌리는 거 있었어.

(이종영) 저기 견산리 한승아파트 뒤에 있는 성에 대해서 알어. 내가 그거 지을 때 포크레인을 했는데 거기 성(城)이 고운 흙으로 잘 쌓았더라고. 그런데 아파트 짓는다고 그걸 다 파헤쳐 버렸으니...

견산1리 뒤에는 아직도 잘 보존되고 있어요?

견산1리 뒤쪽에. 거기 서원아파트 지을 때도 내가 포그레인으로 일했는데 거기서 큰 석관이 나왔었어. 고추밭이었는데 아주 큰 석관이 나오길래 탄약박스인줄 알았다고. 그래서 겉에 있는 관을 깼더니 안에 관이 하나 더 나와. 그래서 일하는 아이들한테 열어보라고 했더니 시체도 없고 홍대라고 사람 죽으면 덮은 것만 나오더라고. 그때만 해도 문화재고 뭐고 생각이 없을 때라 그냥 포크레인으로 부숴서 차에 실었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거기가 우리 어릴 때 견산리에 놀러 가면 있었던 큰 무덤인 것 같아. 거기서 미끄럼 타고 놀고 그랬거든. 내가 그걸 파내고 밤에 꿈을 꾸는데 큰 관을 하관하는 꿈을 꿨어.

이종영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뭐 사업이나 조금 하고... (이장) 저 사람이 서울지하철 1호선 만들 때 일한 사람여. (이종영) 그거 일하다가 군대를 의장대로 가서 고생만 하다가 제대하고 지금도 사업 조그맣게 하지.

김종식(남, 1942년생, 신리 노인회장)

일시	2021년 9월 13일	
장소	김종식씨 자택	
구술자	신리에서 3대째 거주하는 토박이다. 김해 김씨이며 8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K-55오산공군기지를 비롯해 미군기지에서 정년까지 일했다. 퇴직 후 연장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약간의 농사와 노인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어린시절부터 마을의 변화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관계도 밀접하다.	
면담자	김해규	

회장님은 신리에서 몇 대를 거주했어요?

3대째.

조부는 어디에서 살다가 이 마을로 입향하셨어요?

그건 잘 모르지.

부친의 형제들은?

3남 1녀 중에서 둘째.

회장님 형제들은?

우리는 8남매. 아들 넷, 딸 넷. 세 분이 돌아가셨어.

몇 째세요?

나는 셋째.

본관은 어디세요?

김해 김씨 횡성공파 72대손.

형제들 중에서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없어.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둘 뿐이여.

이 마을에는 어떤 성씨가 많아요?

유씨, 김씨, 안성 이씨가 많지. 송씨도 많고.

지금은요?

지금은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서(부인).

가장 먼저 들어온 성씨는?

유씨가 먼저 들어왔다고 해. 우리 마을에서 젤 많다고 봐야지. 지금 열 집쯤 남았나.

이 마을의 역사가 오래되었잖아요. 마을 역사에 대해 들은 것 있으세요?

우리는 잘 모르지. 100세쯤 되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회장님 어릴 때 몇 호가 살았어요?

한 50호. 6.25 때 많이 탔어.

언제부터 마을 규모가 커졌어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비슷했는데 1970년대에 점점 커졌어.

어떤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꺼번에 들어온 건 아니고 각 지역에서 조금씩 들어왔어. 여기가 농사짓기 좋잖아. 내가 열 몇 살 되던 시기에는 참외밭이 많았지. 여기가 농지가 많잖아. 농사지으러 많이 왔지.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일손을 돕고 그러다 정착하고 했던 사람이 많아. 호남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지.

지금 호는 얼마나되요?

220호. 빌라 사는 사람들 포함해서.

빌라에 사는 사람들도 농사지어요?

그 사람들은 농사 안 짓지. 간혹 농사짓는 사람도 있어. 나머지는 대부분 회사 다니지.

이 동네는 큰 가문이 있어서 으스대고 그랬던 것은 아니네요?

여기 참 좋았던 거여. 경지정리하기 전에 숲이 있었어. 우리 집 앞으로 솔(소나무) 좋았지. 그거 지금 남았으면 보호받을 텐데. 동네 반은 하천, 말하자면 대응댐여. 저쪽(동쪽)에도 둑이 두 개가 있었어. 경지정리하면서 싹 밀어버렸지.

보(洑)나 저수지(貯水池)는?

옛날에는 요 마을 뒤에 보(洑, 新洑)가 있었어. 모래로 쌓았다가 비 오면 흘러나가고 다시 쌓고 그랬지.

언제 쌓아요?

3월에 쌓고. 보(洑) 이름은 없었고. 옛날에 신리 사람들하고 오룡동 사람들하고 요 지역 사람들 다 와서 쌓았어. 송탄 오좌동 사람들도 와서 쌓았지.

보(洑) 관리자도 있었어요?

수감이라고 했지. 수감인데 타 지역 사람이었지. '봇주' 라고 했네, 봇주. 그 사람이 관리하는 거지.

봇주의 급료는?

모르지. 농사짓고 쌀 몇 됫박 줬을 거여. 자세히는 몰라, 우리 어릴 때였으니까. 수리조합되기 전까지 했었지.

이동저수지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게 어비리가.... 1968년(실제는 1972년 준공), 그 정도 됐을 거여. 그때 그걸 하고서부터 물이 차는 게 없어졌지.

여기 수해가 심했나 봐요?

여기는 심했어요. 제방 터져가지고 참외고 뭐고 둥둥 떠내려가고 그랬어.

사라호 태풍 때는 피해가 컸겠네요?

그렇죠. 농수산물 같은 거 피해를 많이 보고.

경지정리는 언제 됐어요?

여기가 아산만 지역보다 일렀다고 봐야지.

그럼 언제쯤요?

내가 군대 갔다 와갔고 22살, 23살 그 정도 됐을 거여.

그럼 1977~8년경에 실시했네요. 경지정리하고 달라진 점은?

그때는 보(洑)를 쌓아갔고 물을 썼고 경지정리하고는 물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냐. 수리조합 물이 풍부해졌으니까.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는 말이네요?

그렇지. 많죠.

수리조합 만들고 얼마나 늘었어요?

한 마지기에 한 가마 나오면 많이 나온 거였지. 요즘은 경지정리하고 3배출 나잖어. 3.5배출도 나오고. 물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하늘바라기였지, 하늘바라기. 비가 안 오면 모내기도 못하고 그랬다고. 경지정리하고 쌀 질도 좋아지고.

마을 주민들에게는 천지개벽이네요?

그렇죠. 옛날에 많이 나와야 한 가마. 물을 대야 양석 나온다고 했는데 큰 변화지.

도일동 계곡 논들은 3배출까지 가능했다고 해요?

그럼 그쪽은 수렁논들이잖어. 물이 항시 있는디. 거기는 흉년에도 농사지었지. 쌀은 그런데가 좋은 거여.

신리 김종식의 집과 부부의 모습

이 동네는 논농사가 많았나요?

옛날에는 밭농사가 많았지 경지정리하기 전에는 밭이 많았지. 물이 없었으니까. 물이 없어서 밭농사를 지은 거여. 다 원두막 참외막이었어. 밭에 참외심고 보리심고.

견산리는 참외 농사가 부업이라고 하던데요?

여기는 주업이여, 거기하고는 다르지. 참외 농사 짓고 보리농사 짓고. 우리 어릴 때는 다들 보리밥 먹고 보리타작하고 그랬어 허허.

보리는 주식이고 참외는 팔아서 가용에 쓰고 그랬네요?

그렇지. 경지정리하고 쌀농사 짓고 쌀밥 먹기 시작했고.

보리하고 참외 농사 지었으면 2모작이네요?

보리는 겨울에 월동하는 거니까, 10월에 파종하고 6월에 베고. 참외는 보리 베고 참외 들어가나…

참외는 언제 심었어요?

참외는 봄에. 봄에 심고 그거 해 먹고 거기다가 장마철, 7월이면 걷어. 그리고 다른 거 파종하고…

참외는 여름 내내 따잖아요?

아니여, 7월이면 걷어버려. 걷어버리고 콩 심고, 콩 수확하면 보리 심고.

참외 유통구조는?

조금씩 하는 데는 아침장 같은데 파는데, 여기는 한 두 개가 아니고 천 평, 이천 평 대량으로

하니까 다르지. 우리는 동네에 장사꾼들이 왔어. 서울에서 트럭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 접(100개) 두 접씩 가져다주면 한 곳에 쌓아두잖어. 그렇게 해서 한 트럭이 되면 그걸 차 띠(떼)기로 싣고 서울로 가서 파는 거지.

어디에 파는지는 모르나요?
모르는 거지. 알아서 팔겠지 허허.

그럼 신리들판 전체가 참외밭, 원두막이었네요?
그렇지, 전체가 원두막, 참외밭이었으니까. 원두막 많았지.

여기 원두막이 근방 젊은 남녀들 데이트코스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냇갈에서 우리 미역감고 그랬어. 원두막 있을 때가 좋았어 허허. 여름에 거기서 세월 보내잖어.

서리도 많이 하고?
우리도 서리 많이 해 먹었어. 지금 하면 절도야.

외부에서도 서리하러 왔죠?
그럼.

경지정리 뒤에는?
논농사, 채소 같으거. 1970년대 후반부터. 원두막이 없어지면서 논으로 변하고 하우스가 많이 들어왔지.

이때부터 벼농사도 지었지만 특수작물 시작한 거네요?
그렇지. 하우스하고 배추, 호박, 오이 같은 거 심었지. 지금은 토마토도 많이 하고.

신리에 육묘장도 있다면서요?
육묘장, 있어요. 육묘장에다 맞주면 길러주잖아. 그러면 가져오는 거야.

육묘장 이름은?
송탄육묘장. 장례식장, 제일장례식장 앞에 있어. 여기 도로 건너면.

언제 만들었어요?
요것이 1980년도.

요즘 재배방식은 육묘장에서 묘목을 사다가 심네요?
그렇지. 내가 언제까지 얼마만큼 해달라고 주문했다가 가져다 심는 거지. 계약이야.

지금 마을에서 하우스시설재배는 몇 호나 해요?

농사짓는 사람, 하우스 하는 사람 별로 없어. 다들 힘들고 인건비 때문에 안 되고 노인들이 많아서 안 돼... 지금도 하기는 해.

그럼 얼마나 해요?

많을 때가 한 10호쯤 했나. 많지는 않았지. 하우스가 힘든 거여. 돈이 많이 들잖아.

시설재배 하는 사람들은 부자네요?

부자라기보다는 돈 놓고 돈 먹기여. 인건비도 비싸고 모종 하나가 800원, 1000원이야. 그거 단가 따져봐. 수확을 보려면 신경 써야지, 사람 써야지. 농사짓고 나면 얼마 남지 않어. 농산물 가격은 없고, 오르면 한없이 올라가고. 더구나 요즘에는 코로나 땜에 더 어렵지.

요즘에는 유통구조가 어떻게 돼요?

농협으로 다 나가지. 거기에서 수매하니까. 그래도 판로가 돼 있는 거지. 그런데 채소는 달러.

하우스 안 하는 사람들은?

노지 채소하지.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마을에서 농사짓는 호(戶)는 얼마나 돼요?

직접 짓는 사람은 30호나 되나. 세대 수로는 100세대는 될꺼야. 논농사 갖고 있는 사람하고 하우스하고 채소 재배하고. 나머지는 회사원이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살고.

다른 이야기 여쭤 볼 께요. 옛날에 당제 안 지냈어요?

당제... 없었어. 안 지낸 것 같은데.

옛날 어른들은 원터거리 쪽에 당집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당집... 요기 우리 할머니가 섬기던 서낭당이 있었어. 칠월 칠석이면 떡 해 놓고 빌고. 여기 숲자리가 당 자리여. 지금은 다들 집 짓고 사는디. 소나무 숲이 있었고 거기에 경지정리하기 전에 당이 있었어. 거기 조선솔이 참 좋았는디 다 잘라 버렸어. 지금 같으면 정부에서 보호해 주는디 경지정리하면서 다 잘라버린 거야.

할머니는 어떻게 섬겼어요?

소나무 숲인디 터주가리 해 놓고 정월달하고 칠월 칠석하고. 칠월 칠석에 많이 했지. 마을사람들은 안 하고 떡 해 놓고 할머니가 정성을 들였어. 그러면 며느님들, 우리 어머니가 도와주기도 하고. 어머니가 섬기지는 않고 시어머니니까 며느리가 다 하는 거 아냐 허허.

여기가 생활권이 송탄이잖아요. 송탄까지 거리는?

신장동은 한 1km. 서정리는 4km 10리 잡는 거여. 오산도 4km잡고, 오산은 잘 안가.

장은 어디를 많이 봤어요?
옛날에는 서정리장을 많이 봤지.

아침장은 많이 안 봤어요?
아침장은 뭘 팔러 갈 때 많이 갔어.

중앙시장은 잘 안 갔죠?
거기는 안 가. 아침에 배추하고 참외 같은 거 팔러만 갔지.

오산장은 안 갔어요?
안가. 장날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리가 멀고 교통편이 나빴잖아.

소 팔러는 안 갔어요?
거기 소전이 있었지. 소 키우는 사람들은 갔겠지만 잘 안가. 여기는 소를 많이 안 키웠어. 농사짓는 소는 키웠지만 목장 하는 사람은 없었어. 여기는 아예 없었지.

1970년대에도 없었나요?
없었어. 아예 없었어.

시설재배 영향인가요?
그렇지.

옛날에 소 키우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큰돈이 들어가는 거 아냐. 한두 푼이여. 없어서 못했지. 옛날 소 한 마리만 길러도 큰돈을 벌었지. 소가 큰 농사였지. 그거 소 한 마리가 큰 재산 아녀. 지금이야 목장을 하는 사람이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오산장에는?
농사용으로 쓸려고 간 거지. 한두 마리지.

버스는 어디에서 탔어요?
도로변(1번국도)에서 탔지. 돈이 없어서 오산장까지 걸어가고 나도 자전거 타고 갔어.

1번 국도도 버스가 많이 안 다녔어요?
버스 별로 없었어.

어디 버스가 다녔어요?
용남. 용남여객 시외버스.

시외버스가 다녔군요?

시외버스도 타기 힘들었어. 그거 시간 맞춰서 오는 게 아냐. 어떻게 나가. 지금처럼 버스가 다닌 거 아냐. 시간 맞춰 나가야는데 그거 어떻게 타. 걸어 다녔지. 그래서 서정리장 다닌 거야. 서정리가 오산보다 조금 가깝거든. 4km라도 오산은 조금 멀고 서정리는 조금 가까워요. 서정리장이 조금 작았지만.

오산까지는 어떻게 걸어 다녔어요?

저기 붉은고개 넘어서 큰길로 다닌 거지.

마을로는 버스가 안 들어왔어요?

마을 안으로는 안 들어왔죠.

지금은?

지금은 들어와. 진위여객.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 5년 됐나. 참 불편했어여 여기가.

버스 타면 어디까지 가요?

송탄터미널 한 바퀴 돌아. 병원 거기 사거리에서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거야.

노인들에게 시내버스 필요하잖아요?

그럼. 8시 차 있고 2시 있고, 4시 있고. 하루 세 번인가 네 번 있어. 8시 15분...

신리 숲둑 터, 송탄상회 앞

신리는 아이들 키우기도 힘들었겠네요?

아이 우리 학교 다닐 때 걸어 다녔어요.

마을 규모가 50호쯤일 때 마을 아이들은?

많았죠. 진위초등학교 걸어 다녔는데 얼마나 추워. 들판 걸어다녔는데.

다리는 어디를 넘었어요?

여기는 다리가 없어가지고... 다리는 저기 향교 앞에 있었어. 그래서 여기 진위천유원지 거기에 가마니에다 모래를 넣어가지고 뛰엄다리 만들었지. 그때는 가마니도 귀했잖아. 우리는 거기로 건너다녔지. 지금도 징검다리 있는데.

동네 사람들에게는 다리 놓는 게 숙원사업이었네요?

아 참 그때는 그렇지.

중고등학교 진학률은?

여기는 진위중학교.

회장님은 진위초등학교 다녔네요?

그렇지. 우리는 아버지, 나, 우리 아들, 손자 다 다녔지. 나는 44회, 우리 큰아들이 72회야

아버님은 몇 년 생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님이 초등학교를 다녔으면 집안이 살만 했네요?

괜찮았지. 우리 아버지가 구장이라고 있었지, 이장을 많이 했어. 어릴 때 면서기가 오면 집에서 난 것 삶아가지고 막걸리 대접하면 잘하는 거야, 허허.

그 당시는 활동비가 거의 없었잖아요?

없지.

그래도 집안이 배운 집안이네요?

그렇지 아버지가 구장 오래봤어.

할아버지는 1~2회쯤 되겠는데요. 그때 졸업장이나 성적표는 없어요?

없지. 6.25 때 다 탔어. 여기는 그때 족보까지 다 타버렸어.

회장님 연배에 중학교 진학률은?

그 때는 중학교는 제법 많이 갔지. 고등학교를 형편상 거기부터는 달라졌지.

회장님 당시에 고등학교는?

효명도 있었고 평고도 있었어. 우리 작은집 형님이 평고 2회니까. 그 양반이 87세인가 하거든. 평고가 제일 좋았잖아. 그 형님들이 2회 졸업생으로 알 고 있어.

대학진학자는 별로 없었네요?
힘들어. 없었어. 시골에서 대학은 없었어.

출세해서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은 많지 않겠네요.
없어. 면장 하나 나왔지. 그런데 5.16나고 나서 물러났지. 그때는 선거였어. 그러다 5.16 나면서 1년 해 먹고 물러났지.

성함은?
정재덕씨라고. 제대로 해 먹지도 못하고 재산 다 털어먹고.
그 양반들 돌아가셨죠?
그럼 돌아가셨지.

제가 놓친 것이 있는데 옛날 농사지을 때 일꾼은 어떻게 구했어요?
그때는 품앗이지. 옛날에는 동네 사람이 많았잖아. 인구가 많아서 다른 동네 사람들이 안 들어왔어. 마을 사람들끼리 다 했지.

지명에 대해 여쭐께요. 마을지명은?
여기가 처음에 새터말, 벌말 그리고 신리 그렇지.

그럼 새터말은 어디예요?
이 동네가 새터말이고 벌말이고 그랬어. 그래서 신리지. 여기를 부르는 이름이 두 개였다고. 벌판에 있다고 벌말이고 새로 생겼다고 새터말이야. 행정 리(里) 만들며 신리가 된 거지.

원터는 어디예요?
저기 둑 하나 있는 자리. 동쪽으로 가다 보면 송어장 있는데 둑이 하나 있어. 거기가 원터거리지.

원터에 장호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진위천 건너를 장아들이라고 하지. 저기가 대응댐이야. 물 내려오는 거 막으려고 대응댐으로 쌓은 거여, 부락에서.

둑을 마을에서 쌓은 거네요?
마을에서 쌓았지. 여기 마을 숲도 마을에서 만들었고.

들판이라?
둑도 예비둑이 있었어. 원터거리도 작은원터거리, 큰원터거리가 있었다고.

다른 지명들은 없었어요. 들판 지명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신리 들판이지 뭐.

새둑배미 같은 자잘한 지명은?

없어. 내가 알기로는 그거야. 대응댐 옛날에 수해 나서 물 들어오면 이장들이 불종 때렸잖아. 그러면 여기 숲둑. 그러면 진위천 건너 학교 같은 대로 피난 갔지. 나중에 방송 생겼잖아. 그러기 전에는 종을 쳤지. 그것도 버리지 않고 놔뒀어야 하는데.

전기는 언제 들어왔어요?

전기는 그때 내가 몇 살 때냐. 열한 살 때. 그때는 전기가 밤 11시면 나갔지. 우리가 정미소를 했었어. 그때 방앗간은 특설이야. 밤 11시가 넘어도 전기가 안 나가. 일반 가정은 나가는데.

그럼 1960년대 초에 들어왔네요?

그렇지. 그때는 일반 가정은 밤 11시면 전기가 나갔어.

아버님이 운영하던 방앗간 이름은?

이름은 없었어. 조그만했지. 이름은 없고, 그냥 신리방앗간이었지 허허. 내가 마차 가지고 들에 나가서 벼를 실어오고 그랬어.

어떤 걸 찧었어요?

쌀하고 보리지 뭐. 그때 마차로 내가 끌어오고 그랬어.

다른 방앗간 보면 고추방아도 찧고 그러던데?

우리는 보리하고 쌀만 했지.

수익은?

벼 한 가마 찧으면 두 되나 세 되 받았나 몰라. 수익이 박해. 전기세도 안 나와. 여기는 벼농사를 많이 안 하잖아. 그것도 내가 마차로 실어와요. 한 섬이 180근인데... 아. 찧어서 실어다 주지. 쌀 말려 놓았다고 연락오면 실러 가고 도정해서 실어다 주고. 그거 마진 먹으려고 아이고. 그러니께 지금처럼 계속 찧는 건 아니잖아. 한 번 하면 끝이야, 그거 ....

탈곡은 뭐로 했어요?

처음에는 그네였어. 홀치는 거. 그다음이 궁글레통. 궁글레통도 사람이 하다가 전기로 하고. 그다음에 탈곡기가 나왔어. 1970년대에.

우물은 몇 개였어요?

대동우물이 하나. 하나 가지고 다 먹었지.

수질은 어땠어요?

물은 좋았어. 1년에 한 번은 청소하고 떡 가져다 놓고 제사올리고 그랬어. 떡하고 술 놓고 동네사람들이 먹는 거지 뭐. 여기는 동네사람들이 물 퍼내고 먹는 거야. 물이 얕어. 위에서 보면 보여. 수량은 넉넉하고. 그래도 여자들은 힘들어. 옛날에는 연탄 때기 전에 땔나무로 땠고. 있는 사람만 연탄 땠어. 옛날에는 연탄도 귀했어. 있는 사람만 연탄 썼어.

나무하러는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오룡동 산으로 갔는데 남의 산이라 맘대로 할 수 있어. 논에 가서 콩 껍질, 잔디뿌리 같은 거 말려서 땠지. 요즘은 맨 풀 아녀. 우리 때는 논에 풀까지 긁었어. 여기는 땔감이 젤 힘들었지.

땔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언제부터예요?

새마을운동할 때, 지붕개량하고 아궁이 개량하고 그러면서 나아졌지. 그때 입산금지도 시켰잖어. 연탄 나오고서 입산금지시켰지. 산에 나무도 많아지고.

연탄 때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네요?

그렇지. 아이구 연탄 사람 많이 죽였어.

동네에서도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죠. 옛날에 방바닥 금가면 가스나와 죽는 거야. 그렇다고 안 땔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밤에 연탄 안 갈았잖아. 가스 많이 나올까봐. 아이고 많이 죽었어. 옛날에 방문 앞에 들창 있었잖아. 거기로 밥도 들어오고.

가정에서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예요?

처음에 기름보일러 썼지. 그것도 있는 사람이 쓰고 없는 사람은 연탄보일러 쓰고. 나무 때는 사람도 없어지고. 요즘에는 살기 얼마나 좋아. 우리 세대가 고생한 세대야. 밥도 굶고. 미국에서 양곡 그거 배급하고.

신리 남쪽 입구, 신리맨션 골목

양곡은 학교에서만 줬죠?

학교도 줬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 그래서 성당 다니는 사람들 많아졌다고. 학교에서 우윳가루, 옥수숫가루 같은 것도 줬고. 그때 서정리 천주교회가 젤 오래됐잖아. 거기 많이 다녔지.

회장님도 천주교회 다녔어요?
우리는 불교였지. 옆집에서 얻어먹었지 우리는.

마을에서 천주교 다니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죠?
내가 어릴 때도 천주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었어. 그때는 천주교회 외에는 교회가 없었잖어.

신리교회는 언제 들어왔어요?
얼마 안 됐어. 교인도 얼마 안 되고.

요즘에는 뭐하고 지내세요?
농사 조금 짓고 소일하는 거지 뭐.

무슨 농사지으세요?
밭농사. 2모작 하다시피 하는 거지 뭐. 힘들어, 사람이 없어. 인건비도 비싸지고 외국인 애들인데 불러도 오지도 않어. 7만 원짜리가 지금은 10만 원씩 주고 그래. 한국 사람들은 안 하잖아. 그래서 외국인 애들도 배짱이야.

개인사를 여쭐께요. 회장님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나요?
중학교, 진위(중학교).

그때는 학교 사정이 좋지 않을 때잖아요?
안 좋았지. 어쩔 수 없이 다녔다고.

졸업 후에는요?
농사짓다가 내가 군대 1962년에 갔지. 제대하고 미군부대에 1965년에 들어간 거야.

미군기지에서는 어떤 일을 했어요?
스낵바에 있었지. 거기 있다가 나중에 PX 음료수바로 빠졌지.

스낵바에서는 뭐 하셨어요?
고기 구웠지. 쿡이라고 하지.

얼마나 근무했어요?
내가 1965년에 들어가서 2006년에 나왔으니까 40년 근무한 거야.

정년하고 연장근무도 하던데요?
나도 연장했어.

처우는 어땠어요?
처우는 한국에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나았어. 내가 나올 때 6급 받았으니까.

그럼 군무원인가요?
군수, 그러니까 뭐냐면 미군 부대 군속이지. 군속은 모든 것이 면제지.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이 모두 면제야.

미군부대 다니면 괜찮게 살았잖아요?
회사원들보다 나았지. 지금은 아니지만.

이 집은 언제 지었어요?
46년 된 집이니까, 1977년, 8년쯤 되지.

그전에는 어떤 집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여기 없었지. 아버지가 지어줬어. 그전에는 셋방살이 했지. 내가 군산, 평택 다 돌아다녔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어. 전라도 광주에도 있었네. 거기서는 세 살았던 거야. 그러다가 1971년 송탄으로 올라오면서 아버지가 1978년경에 이 집을 지어준 거지.

형제들은 모두 마을에 사나요?
바로 위의 형은 여기서 목장하다 돌아가셨고, 동생은 송탄 살다가 안양으로 갔고, 큰형님은 송탄 미주아파트 사시고.

주변에 모두 사시네요?
그렇지.

마을 사람들 형편이 나아진 것은 언제 쯤이예요?
나아진 것은 1980년대 1990년대는 되어야 나아졌다고 봐야지. 수해도 없어지고.

그때부터 대학진학율도 많아졌겠네요?
그렇지, 그때부터 대학 다니는 사람 많아졌다고 봐야지. 자기들 직장들 잡고.

회장님 자녀들은?
우리 애들은 전문대학 나왔어.

마을 노인회는 몇 명이나 되요?

200명이 넘어. 이 근방에서 젤 많어.

마을 조직은요?

이장, 반장.

반은 몇 개예요?

반장은 둘, 새마을지도자 있고, 부녀회장 있고, 청년회장 있고. 여기는 청년회에서 모임 해. 부녀회도 모임 하고.

노인회가 엄청 많은데요.

인구가 600명이 넘어. 단일 부락 중에서는 젤 커. 65세 이상이 200명이 넘는 거지.

그래도 60대는 노인정에 안 나가잖아요?

그렇지. 70세가 되도 안 와.

개발위원회도 있죠?

있지. 그거 이장이 다 하는 거지.

대동회는요?

있지. 1년에 한 번 회의 하지. 우리(노인회)도 1년에 한 번 총회하잖아. 이장 뽑고 세입세출 보고하고.

노인회 지원은 괜찮죠?

겨울에 30만 원밖에 안 줘. 밥을 못 해 먹잖아. 코로나 땜에 모이면 안 돼.

요즘에는 현금보다 카드로 주더라고요?

그게 나아. 쌀로 주고 현물로 주면 바구미 나고 안 좋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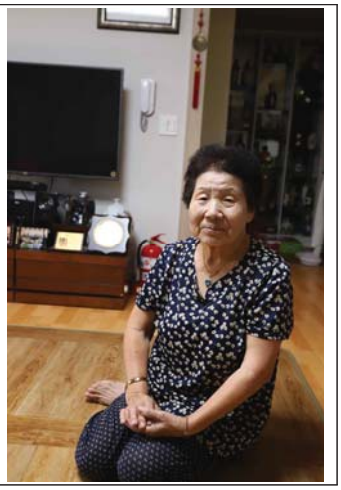
노인회 지원은 안성보다 평택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안성은 여기보다 못하나? 평택노인회 지부장이 잘 해.

건강은 어떠세요?

무릎 연골이 다 달아서 병원 다니잖아. 나이 먹으니까 부실해.

김춘자(여, 1945년생, 신리 우제강씨 부인)

일시	2021년 9월 13일	
장소	우제강씨 자택	
구술자	용인시 남사면이 친정이다. 1968년 우제강과 혼인하여 독곡동 오리골에서 신혼생활을 했다. 1973년 신리로 분가(分家)하여 지금까지 살았다. 남편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으로 마을을 위해 봉사할 때 비닐하우스시설재배를 대규모로 경영하며 집안 살림을 도맡았다. 혼례와 가정생활, 가정신앙, 육아 등 가정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뷰했다.	
면담자	김해규	

회장님 사회활동 하는데 부인들 역할이 크잖아요?

그럼요, 저 양반 회장할 때 맨날 가서 밥했어요. 남편 욕 안 먹이려고. 내가 1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 안 하는 분이예요.

칭찬도 직접 듣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둘러서 듣는 게 기분 좋아요?

마음은 깊은데 내색은 안 하는 양반이예요. 밖에 나가서 다른 분들한테는 자랑도 많이한데요. 그런데 대 놓고는 한 번도 안 해요. 집안끼리 놀러 가서 코로나 생기기 전에 딱 한 말씀 하더라고요. 그런 행사 있을 때 제가 음식이랑 다 해가거든요. 그랬더니 딱 한 번 칭찬하더라고요. 노인회장도 10년 넘어서 제가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친정은 남사였잖아요.

그래요.

학교는 중학교까지 나왔구요?

중학교가 아니고 고등공민학교예요. 지금은 정식 중학교가 됐지만.

평택에 있는 사립학교들도 고등공민학교에서 시작했어요?

우리 딸도 효명 나왔어요. 아들은 평택에 신한고등학교 나왔고. 딸은 지금은 대만 가서 살고. 학교 다닐 때 하도 남학생들이 쫓아다녀가지고 공부 잘했는데 성적이 떨어져서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오산전문대 가라니까 안성 한경대학교 갔죠.

결혼은 언제 한 거죠?

내가 24살에 저 양반 29살에 했으니까.

그럼 1968년도네요?

결혼하고 3년 있다가 바로 아이가 생기고. 우리 큰 애가 1970년생이니까.

결혼 후 첫날밤은 어디에서 주무셨어요?

우리는 큰 집에서 잤죠.

재행은?

3일 만에.

재행가면 신랑달기 같은 거 했어요?

재행은 조용히 지나갔어요. 혹시 구박 기자라고 알아요. 부산일보에 있었던. 그 동네가 구씨가 많아요. 저는 경주 이씨지.

경주 이씨면 상서공파인가요?

우리 집안은 본래 원곡이예요. 칠곡에 집안이 많이 살아요.

거기도 상서공파죠?

우리 오빠 산소도 거기 있어요. 우리 양반보다 한 살 아래인데 돌아가셨어요. 선생님 했는데.

교사들이 퇴직 후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죠?

우리 아버지하고 오빠, 막내 동생 다 키도 크고 잘 생겼어요. 우리 양반만 작지 막내 시동생도 크고 잘 생겼고요. 인물도 좋고 풍채도 좋으시고.

시집살이 시작할 때 식구는?

열일 곱 식구요.

집도 컸겠네요?

방이 4개나 됐죠.

방 4개라도 17명이 살기에는 좁았겠어요?

분가한 샛째 시아주버니도 넘어 동안마을이라고 아나 몰라, 거기 살았어요. 오리골에서 가까워요. 거기 살아서 내동 집에서 밥 먹고 다 했어요.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집안이 북적댔겠어요?

그래도 시아주버니 댁 사람들은 저녁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좁지는 않죠. 우리 시아주버니가 농사 다 지었어요. 이 양반은 논농사를 잘 못해요. 저 양반은 농사일도 잘 안하고.

시부모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인품이 좋으셨죠. 다른 며느리는 몰라도 나한테는 시집살이 안 시켰다는 소리 들었어요. 다 잘

해줬어요.

다른 며느리들이 질투하지 않았어요?

첫 아이 날 때도 저 양반 새마을교육 가느라 집에 없었어요. 교육받으러 가느라고. 그 때가 1970년이잖아요. 하도 힘들게 나서 아이가 안 나오니까 엄살을 떨어서 아버님 뵙기가 좀 민망했어요.

아이는 누가 받았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받았죠.

시어머니가 아이 받으면 좀 민망하지 않아요. 친정어머니가 받지 않아요?

옛날에는 안 그렇죠.

출산 준비는?

그것도 시어머니가 다 해주죠.

송탄상회 앞의 김춘자씨와 신리들 노지 채소재배

몸조리는?

저는 바로 나왔어요. 어머니가 맨날 시장가고 그러니까 방에 누워 있기가 그렇죠. 시어머니가 아침마다 송탄 아침장에 가시니까. 채소 팔아서 용돈 쓰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 방에 있기가 미안했어요.

구체적으로 며칠 몸조리 했어요?

3일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음력으로 4월 아흐렛날 낳았는데 며칠 안 돼서 나온 거죠. 궁시렁거리면서. 그때는 한참 때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봄이라 다행이네요?

그렇죠.

아이는 몇을 뒀어요?

3남매요. 딸 둘 아들 하나.

그때는 산아제한 할 때잖아요?

우리도 아이 둘인가 셋인가 지웠어요.

그런데 왜 셋을 낳았어요?

그냥 셋을 낳아도 되었던 가 봐요 그 때는. 둘은 조금 적었고.

둘만 낳으라나는 것은 권장사항이죠?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막내딸 낳을 때는 동네에 아들 낳았다고 소문냈어요. 막내딸은 이 동네 와서 낳았거든요. 옆의 가게 집이 우리가 분가해서 처음 살던 집인데 그 뒤로 갔다가 이사를 잘못 간 거예요. 뒷집으로는 이사하는 거 아니라는데 거기로 이사 가는 바람에 우리 양반 사고 나서 큰 곤욕 치렀죠. 살은게 살은 게 아니죠. 다리에 염증이 생겨서 동네사람이 발칵 뒤집혀서 송탄 성신병원에 입원했는데 면회 사절 붙이고 그랬어요. 친구들이 와서... 저 양반이 술도 많이 마시고 사람 좋아하시고 친구들이 말도 못했어요. 서울 을지병원까지 가서 고쳤어요.

회장님이 밖으로 많이 돌았네요?

제가 힘들었죠.

참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사람들이 그랬어요. 평생에 같이 있는 것이 지금이 제일 길다고. 우리가 하우스 많이 할 때도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면 일하다 말고 싹 차려 있고 나갔어요. 친구들 만나 술 잡수시고 놀고 그랬다니까요. 열심히 일하던 양반도 아니었어요. 술값을 따지면 큰 트럭으로 하나 되고 진위면 땅은 다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사람 좋고 주변 사람들 다 챙기면 사모님이 힘들기는 하죠?

아유 힘든 거 따지면, 칭찬받는 거 바라지는 않지만 지금은 손주들한테 아주 잘해요. 우리 손녀딸이 두 명인데 모두 서울 건축과에 갔어요. 하나는 국민대학교 가고 하나는 인하공전 가고. 한 달에 20만 원씩 용돈도 꼬박꼬박 주고. 우리 손주가 그래요. 손주하고 젤 친한 친구 아버지가 쌍용 다니는데 얼마 전 사고가 나서 죽었데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우리 손주가 그래요. 제가 너무 가슴 아파서 부조를 조금 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했어요.

그분이 저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분이예요?

교회 다녀요. 저는 옛날부터 절에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며느리는 교회 다녀요. 권사 됐어요. 딸 둘도 말도 못해요. 딸도 한광 다니던 딸은 열심히 해요.

며느리나 손주들이 교회 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동녕사 나가니까 그러지는 않았어요.

동녕사는 단양 우씨 집안에서 많이 다녔나요?
오리골 옆이니까 많이 다니죠.

자녀들 키울 때 학교 다니는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학교가 멀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초등학교는 진위초등학교, 중학교는 진위학교(중학교). 고등학교는 큰딸은 한광 가고 작은딸은 효명고등학교 가고. 아들은 신한고등학교 가고.

저도 한광중고등학교 선생이었는데 너무 먼 데로 다녔네요?
여기서도 2번 버스 타고 아침 일찍 다녔으니까 힘들었죠.

옷은 뭐부터 입었어요?
저는 광목부터 입었어요. 제가 해방둥이예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칠월 칠석 다음날인데 그때도 광목 적삼 입고. 상복을요.

신발은요?
신발은 고무신을 신었죠. 지뱅이 고무신이라고 있었어요. 고무신 신었어요.

와라지나 짚신은 안 신었어요?
나는 안 신고 다른 사람들은 와라지 신고 그랬죠.

나일론 옷도 입었죠?
나일론 기억나죠. 우리도 나일론 입었고. 나일론 있고 구단이란 것 있었는데 그 당시 구단이 유행이었어요.

구단으로는 뭘 만들었어요?
구단으로는 이불도 만들고 한복도 만들어 입었죠. 나일론은 나이아가라 같은 거 있었어요.

옷이 흔해진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모시옷도 입고 요강목이라고 하얀 광목 있어요. 그거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시집 올 때 재봉틀하고 화장대도 가져왔어요. 시집와서도 시아버지 옷을 만들어드리고 했는데요. 특별한 것 만 맞춰 입고 다 만들어 입었어요. 저도 한복 입었는데요. 시집올 때 한복 몇 벌하고 버선도 20켤레나 가져왔는데요. 앞치마도 해오고. 모시옷은 한 번도 입지 않은 거 지금도 있어요.

친정어머니가 잘 챙겨줬네요. 분가할 때는 뭘 가져왔어요?
제가 시집올 때 가져온 거, 대야하고 요강, 반상기, 그릇같은 거 두 벌씩 줘서 가져오고. 주전

자도 없어서 친구들이 사오기도 하고. 돈은 10원도 안 가져왔어요, 땅을 많이 줬다고.

땅은 얼마나 받았어요?

1,700평이니까 많이 받은 거죠.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면 많이 받은 거죠.

집은?

우리 어버님이 500만 원인가 얼마를 주고 지은 건데 뒷집 사람이 돈을 안 갚아서 바꾼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우리 친정아버지 돌아가실 때 지은 건데 밭에다 지은 거예요. (한참 생각하다가) 이거 지은 지 30년이 안 됐어요. 한 25년 조금 넘었나. 집 짓다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가고 왔더니 문 같은 거 다 달았더라고.

리모델링은?

몇 번 했어요. 그때가 더 좋았어요. 우리 양반이 뭘 가만 놔두는 성격이 아니고 돈을 쓰는 양반이라. 지금도 새로 나온 거나 신기한 것 있으면 다 사들여, 지저분하게 말도 못해요. 호기심도 많고. 이쁜 여자도 얼마나 챙기는데.

엄청 질투나겠네요?

그럼요. 저 양반이 끼가 좀 있어요.

잘못했으면 한량 됐겠네요?

저 양반이 받들기만 바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반말을 안 해요. 나이 먹으면 장난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도 꼬박 존댓말을 하고 받들어요.

처음 봤을 때도 멋쟁이 신사더라고요?

지금도 외출할 때 옷도 본인이 다려 입어요. 다려 입지 않으면 외출을 안 해요. 머리 감지 않아도 안 나가고. 갈끔해요. 우리 친정아버님이 선보러 갔다 와가지고 더도 덜도 말고 '고등어 토막 가운데 똑 잘라 놓은 거 같다' 고 그러더라고요. 키가 작고 통통했으니까. 거기다 옛날에 태양고무신 싹 신고 양복 쓰봉 차려 입고 깔끔했죠. 우리 어머니가 좀 수다스러웠죠. 키가 작고. 우리 양반은 어머니를 닮았나봐요. 우리 양반이 (단양 우씨)소종가 일도 30년을 봤나 봐요. 옛날에는 우씨들 모여서 소머리 삶아서 밥해 먹고 납골당도 잘 해 놓고 그랬어요. 우리 양반이 6년째 회장도 맡고 있어요. 내년 6월 달에 끝나요.

이 마을 사람들은 어디 장을 많이 봐요?

옛날에는 오산장을 많이 봤지요. 나중에는 송탄장을 많이 봤구요. 아침장.

오산장까지는 얼마나 멀어요?

우리 친정에서는 20리, 여기서도 20리예요. 친정에서는 걸어 다녔는데 여기는 버스 타고 다녔어요. 우리 친정에서 오산이 20리예요, 걸어 다녔죠.

서정리는?

우리 양반은 서정리학교(초등학교) 다녔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걸어 다녔다고 하더라고. 학교 다니다가 부스럼 나서 한 해 걸렀다고 하더라고.

서정리장까지는 얼마나 돼요?

거기는 10리 조금 넘을 거예요. 20리는 안 가고.

아침장은 가깝죠?

가깝죠, 걸어 다녀도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 리어커 끌고 아침장으로 팔러 가면 걸어가고 그랬죠. 저도 세간 나가지고 호박, 오이 같은 거 싸서 안 팔리면 리어커로 끌고 가서 팔아서 찬장 장만하고 그랬어요.

오산장은?

오산장은 안 갔어요. 멀어서.

시어머니하고요?

아뇨, 혼자 갔죠. 세간났으니까 혼자가야죠. 살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신리 골목길과 옛 송어양식장

고추방아, 떡방아는 어디에서 찧었어요?

남사까지 가요. 거기가 싸고 잘하니까. 조그만 것은 송탄에서도 하는데 거기가 싸니까.

그렇게 멀리 가요?

차 갖고 가니까 갔죠. 그런데 방앗간 주인이 젊은 사람인데 죽었다잖아요. 애기도 안 낳았는데 벌써 죽었어요. 술 먹고 운전하다 그랬데요. 그 사람은 죽고 옆에 있던 사람은 인사불성 되고. 아쉬워요, 참 잘했는데. 거기가 우리 동창 동생네 집이여. 젊은 사람이 동창 동생 아들이고.

옛날에도 남사로 갔어요?

옛날에는 멀어서 안 갔죠. 요즘이나 그렇죠. 옛날에는 송탄에서 다 했죠.

쌀과 보리는 김종식 회장님 방앗간에서 찧었나요?

이 동네 방앗간이 어디 있어요. 아~ 저 이사 왔을 때는 없었어요.

엣날 집안에 터주같은 거 있었어요?

우리 시댁(오리골)에는 있었어요. 터주가리 만들어 놓고 그랬죠. 타작하면 쌀 갖고 만들어 놓고. 칠월 칠석 날 내려서 먹고.

대감독도 있었어요?

있었죠.

크기는?

쌀 몇 가마 들어가죠.

아주 큰 대감독이었네요?

그럼요. 우리 친정에서는 쌀밥만 먹었는데 여기서는 보리밥에 쌀 조금씩 얹어서 먹었어요. 잘 살지는 않았지.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딴 거 하다가 많이 날렸죠. 그래도 나머지 재산 남긴 것만 해도 다행이죠. 우리 시어머니 친정이 딸만 넷이라 시댁에 시외할머니까지 와서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식구가 많아서 밥하면 일곱 상이나 차렸어요. 시할머니 따로 봐 드려, 아버지 어머니하고 겸상, 일꾼들, 아들들, 애들 상... 하여큰 일곱 상은 봐야 돼. 그렇게 힘들어도 세간나자고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죠. 어른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살았지.

땔감은 풍부했나요?

땔감은 흔하지도 않았지. 우리 양반이 나무같은 거 하게 생겼어요? 시아버지가 해다 주고 셋째 시아주버니가 많이 해다 주고. 우리 시댁이 불 때는 데가 많잖아요. 시어머니는 알뜰해서 불 한 번 때면 소금 굽는 날이에요. 안방에는 솥 세 개나 걸었지, 방 네 개에 다 때지.

분가해서는?

세간나서는 나무 안 땠죠. 그때는 아궁이 없애고 연탄 땔 때라 우리는 불을 한 번도 안 땠어요. 연탄 땔 때는 연탄가스 사고가 많았죠. 죽을 뻔도 많았어요. 저 양반도 죽을 뻔 했대요. 저도 20살 때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는 오빠네 갔어요. 친정 고모네서 다녔걸랑. 만리동에서 살았는데 연탄가스를 잘 모르는데 마셨다가 죽을 뻔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가스 먹고 죽을 뻔 했어요?

연탄가스 마시면 땅 냄새 맡고 동치미 국물 먹고 그랬죠.

연탄아궁이 하다가 보일러 놓은 것은 언제죠?

연탄 땔 때 새마을보일러 놨죠. 여기 와서는 나무하지는 않았어요. 그 뒤로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놓고 그랬죠.

기름보일러 놓은 게 1990년대부터인가요?

그렇죠. 그때나 되어서 보일러 놓았죠. 그 뒤로 가스보일러, 심야전기 했다가 지금은 도시가스 들어오고.

전기는 언제 들어왔어요?

제가 결혼할 때 오리골은 등잔불 켰어요. 여기(신리)로 세간나고서 전깃불 켰죠. 여기는 전깃불이더라고요.

전화는?

전화는 우리 집이 가장 먼저 놨어요. 전화번호가 666-5307이었는데. 그때는 전화 놓을 때 보증금도 있고 그랬어요.

텔레비전은?

우리가 동네에서 두세 번째는 될 거예요. 옛날에는 텔레비 없는 집에서 보러 오고 그랬잖아요.

전축이나 다른 가전제품은?

세간나고서 우리 집 양반이 전축도 샀어요. 하여튼 신기한 것 있으면 못 참는 성격이었어요. 우리 집이 그런 것들은 다 빨랐어요.

우제강(남, 1940년생, 신리, 단양 우씨 안정공파)

일시	2021년 9월 13일	
장소	우제강씨 자택	
구술자	독곡동 오좌동 마을이다. 서정리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사범에 합격하여 본과 2학년 때 중퇴했다. 17세에 하사관을 지원하여 24세에 전역했고, 이후 새마을지도자를 하며 농사를 지었다. 1973년 신리로 분가하여 비닐하우스시설재배를 하여 성공했다. 신리노인회장, 단양 우씨 종중에서 주요 임원을 지내며 다양한 사회활동을 전개했다.	
면담자	김해규	

본관은 어디세요?

우리는 단양 우씨 안정공파

몇 대손이세요?

나는 30대손이지.

신리에서는 몇 대를 거주했어요?

나는 본래 오리골에 살았어요. 농사지으려고 서른다섯 살에 여기로 온 거지.

그럼 신리토박이가 아니라 오리골 토박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지.

학력은 어떻게 되세요?

내가 서정리국민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지, 거기 28회야. 거기 졸업하고 서울사범에 다니다가 그만뒀지.

서울사범이면 수재신데요 얼마나 다녔어요?

본과 2학년 때 중퇴했어요.

집안의 경제사정은 어땠어요?

우리 부친은 잘사는 편이었지. 중농이상은 되었다고 봐야지. 논 70~80마지기는 있었으니까.

부자였네요.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우리는 10남매. 내가 그중에 다섯째.

몇 남 몇 녀였어요?

7남 3녀. 7형제에 딸 셋.

형제들은 상급학교 진학을 했나요?
우리 큰형님은 한양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당시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괜찮았잖아요?
졸업하고 미군기지에 다녔지. 둘째 형님은 서울 대신고등학교 다녔고 경무대에서 경찰로 근무했어요. 이승만정권 때. 경찰을 제법 오래하셨지. 넷째 형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운수회사 사장을 했고, 셋째 형님은 농사짓고. 딸들은 중학교까지 다녔고.

직접 사업한 것이 아니라 사장직을 맡으셨던 거군요?
그렇지, 버스회사 고용사장이지.

어르신은 사범학교 중퇴하고는 어떤 일을 했어요?
열일곱 살에 지원해서 군대를 갔어요.

17세에 군입대가 가능한가요?
그때는 가능했어요. 가능하니까 갔지.

일반 사병으로요?
아니 하사관을 했지.

당시에는 군대를 기피하던 때가 아닌가요?
내가 시험보고나서 얼마 있다가 그때 서울에서 군대 기피 해서 늦게 가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30대 넘는 사람도 많았고 전부 지원병이었으니까 대부분 기피 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나이 차이가 많았지.

지원할 때 병과도 선택이 가능해요?
지원할 때는 포병을 지원했는데 군대서는 포병을 안 가고 군악대에 있었지.

원래 음악을 하셨어요?
하긴 뭘해. 내가 사범학교를 다녔다고 하니까 풍금을 칠 줄 아는 줄 알았던 거지. 군악대장이 신병들을 쓱 보고 좀 할만하니까 뽑은 거지.

몇 년 근무했어요?
군대는 7년 했어요.

사병으로 오래할 수 있나요?
장기복무했지.

중사까지는 했네요?

중사했다가 나올 때는 하사로 계급이 강등됐지. 우리가 아는 부관이 변산 사람인데 나한테 못할 짓을 많이 시켰어. 그것 따라 하다가 전역당한 거지.

전역할 때도 나이가 많지는 않았겠네요?

그렇지, 24살인가. 남들 군대 갈 때 전역한 거지.

전역 후에는 뭘 하셨어요?

집에 있으면서 농사지었지. 군대서 나와보니까 취직이 경찰서, 방범대 이런 자리가 나와서 안 가고, 시원찮게 그런 자리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농사나 짓자 생각했지.

그 당시만 해도 경찰이나 공무원 처우가 좋지는 않았죠?

농사도 많이 지었어요.

직접 농사지을 때는 얼마나 지었어요?

몇만 평이지 뭐. 3만 평쯤 지었나. 채소시설재배를 한 거지. 오이 농사 짓고. 우리 집사람이 고생 많았지. 일꾼들 밥해 줄랴 뭐하랴 힘들었지. 사람을 17명씩 두고 일했으니까. 시골에 살면 고생이야.

신리 우제강의 집과 비닐하우스 채소재배

신리로 이주하게 된 동기는?

농사짓는 이 땅이 우리 아버지 땅이었는데 내가 논농사를 안 하고 밭농사를 하니까 여기다 조그 많게 집을 지어가지고 밭농사하며 살라고 해줬지. 여기가 1,704평인가 그랬어.

(부인)시댁어르신하고 5년을 살았어요. 시댁 식구가 16명인가 17명인가 되가지고. 아들이 일곱이나 되니까. 나는 시집와서 하루종일 일만 했어요. 밥할 때 보리쌀을 한 말씩 했다니까.

분가는 몇 살에 했어요?

35살.

시설재배는 언제부터 했어요?

분가 전부터도 했고 여기 와서도 쭉 하고.

지금도 하시나요?

그렇지. 지금이야 옛날에 비하면 농사짓는다고 볼 수 없지.

그 당시 신리 쪽 산업이 논이 많았던 것은 아닌가 봐요?

밭이 많았어. 지금은 논도 많은데 당시에는 경지정리가 된 게 아니고 논들도 다랭이논이고 그래서 밭이 많았지.

채소재배는 뭘 많이 심었어요?

오이, 호박을 많이 심었지.

이것이 몇 년도 이야기예요?

내 나이 40세 정도에 시설재배가 시작됐다고 봐야지. 당시만 해도 하우스재배는 별로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노지에다 재배를 많이 했지.

시설재배가 적은 것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돈이 많이 드니까.

처음 시작할 때 한 동 만드는 데 얼마나 들었어요?

그때가 1970년대 말, 80년대 초쯤인데 처음에는 대나무로 만들었다고. 대나무를 박아서 비닐 씌우고 그랬지.

비닐도 지금과 달랐죠?

그렇지. 그때는 1년 쓰면 그만여. 지금은 5년~10년씩 쓰거든.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 사람도 많았고, 임금도 싸고. 내가 처음 할 때는 하루 임금이 200원이었으니까.

200원이면 쌀 한 말 값은 되나요?

무슨 쌀 한 말. 그때는 쌀 한 말 받으면 장정들이 4일씩 일해줬어. 옛날에는 아가씨들도 하우스에서 일을 많이 했어.

회장님 생산했던 품종은?

수박도 많이 했지.

수박은 언제 심어서 수확해요?

수박은 4월 달에 심어서 6~7월에 따지. 수박 끝나면 거기다 배추 심는 건데... 그 후로는 그렇게 하다가 오이로 바꿨지.

수박과 배추 생산할 때는 유통구조가?

그때는 상인들이 와서 밭떼기로 사서 가락동으로 유통시켰지. 가락동 전에는 용산으로 가져갔고.

시세만 잘 맞으면 이윤이 많았겠네요?

그때는 편한 게 밭떼기를 하면 관리를 장사꾼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편하지. 지금이야 농사짓는 사람이 관리까지 하니까 힘이 많이 들지.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냥 애들하고 밥 먹고 살고 그렇지 뭐. 중간에 사고가 나가지고 돈을 많이 버렸지. 내가 오토바이 타다 차하고 부딪쳐 사고가 나가지고 서울에 8개월인가 입원해서 돈을 많이 버렸지. 지금으로 따지면 1만 평 정도의 땅값을 버렸으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1978년이니까 보험도 없었지. 보험이 없으니까 병원비도 자비로 다 내야하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었지. 또 다리에 염증이 심하게 났는데 그때 염증 제거를 위한 주사가 한 대에 5만 원이었어. 너무 비싸니까 의사가 밖에서 사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친척이 중외제약을 다니는데 거기서 사와가지고 맞고 그랬지. 그때가 1978년도 그 때여.

혼인은 언제 했어요?

29살 때.

결혼이 빠른 거예요 적당한 거예요?

그때로는 좀 늦은 거지.

사모님 나이는?

우리 집사람은 24살.

회장님은 어떻게 만났어요?

중매지. 우리 당숙모가 소개한 거지.

당숙모는 사모님을 어떻게 아시고요?

(부인)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던 생선 장수가 당숙모에게 말해서 이뤄진 거예요. 우리 친정이 남사인데 거기는 순 시골이예요.

신리로 시집온다니까 도회지로 오는 기분이었겠네요?

도시는 무슨 도시.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지.

맞선은 어디에서 봤어요?

내가 어디서 봤더라…

(부인)우리 친정아버님이 시댁으로 먼저 오셔서 봤어요. 그리고 시부모가 저 양반하고 우리 친정으로 와서 맞선보고 그랬죠.

맞선보고 데이트한 뒤 결혼했어요?

(부인) 맞선 보고 한 번 오셨죠. 어른들이 결혼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한 거죠. 3월에 약혼하고 시댁에 한 번 와서 만나고 결혼했죠.

(회장님) 오산으로 데려가서 다방에서 차도 마시고 그랬지.

친정에서는 잘 사는 집에 시집간다고 좋아했겠네요?

(부인)우리 친정은 더 잘 살았어요. 우리 오빠도 대학 나오고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데요. 우리 아버님은 남사면의 유지였고, 남동생도 대학 나오고 교장선생님 하고. 나는 딸이니까 덜 가르친 거지.

사모님은 어디까지 학교 다녔어요?

나는 중학교까지 나왔어요.

잘 사는 집끼리 결혼했는데 예물은 뭘 주고받았어요?

(부인) 나는 금반지 받고 목걸이 3돈 받고, 시계 받고. 그 때 받은 목걸이 4돈으로 하우스 시작할 때 팔아서 썼어요.

남편에게는 뭘 해줬어요?

우리 양반은 반지 세 돈 해줬죠. 양복도 해주고 코트도 해주고, 시계, 반지도 해주고.

신혼여행은?

신혼여행 안 갔어요.

회장님은 신식인데 안 가셨어요?

우리는 여유가 있어도 형제들이 많으니까. 잘 살아도 부모님이 보내줘야 가는 거니까.

(부인)우리는 약혼식도 집(친정)에서 했어요.

결혼식은 어디에서 했어요?

(부인)결혼식은 신식으로 했어요.

어떤 예식장요?

송탄에 있는 한성예식장. 그 양반 아버님이 옛날 자유당인가 뭔가 국회의원 출마하고.

예식순서는?

똑같지 뭐. 주례 있고 사회자 있고. 형식은 바뀐 것이 없이. 식당만 따로 잡아서 식사하고 집에서 음식해서 잔치를 하고 그랬어.

(부인) 우리 딸 수원에서 결혼할 때는 음식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혼례 올렸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우제강의 사진과 상패들

마을 일은 안 하셨어요?

노인회장요.

새마을운동 같은 것은?

내가 새마을교육 2기예요. 우리는 수원에서 받았는데 15일을 받았어. 나는 보름을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고생하나 걱정했는데 대접이 얼마나 좋은지. 신문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렇게 좋더라고. 아침마다 팔달산에도 오르고.

교육 다녀와서 새마을지도자가 된 거네요?

그렇지. 내가 2기니까 그 때 지도자 제도가 처음 생긴 거지. 오리골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운동은 무슨 일을 했어요?

마을안길 넓히기를 처음 했지. 정부에서 나오는 시멘트 가져다가. 큰 사업은 없었어. 슬레이트 지붕 한 것도 있고. 지금은 새마을사업이라는 것도 없고, 없잖아.

새마을사업이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그렇기는 하지.

이장의 역할도 크게 줄었죠?

그렇지. 옛날에는 퇴거해도 이장한테 신고하고 도장 받고 그랬잖아. 지금은 없어. 이장역할도 옛날 같지 않지.

마을의 농업기계화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경운기가 언제부터 사용했나. 1980년대인가....

다른 마을은 1970년대 중반이면 경운기 사용하고 이앙기는 1970년대 말이나 1980년대 초면 사용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경운기도 늦게 들어온 편이고. 마을 적으로도 1980년대 초까지 소로 밭 갈고 그랬으니까 그 이후부터 사용했던 거 같어.

마을의 경제구조로 볼 때 농기계가 꼭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요?

필요 없었던 것은 아니고 경운기 도입하고 신뢰가 높았지. 기계가 일하니까.

(6촌 동생)여기는 경지정리하고서 경운기가 들어온 거 같아.

(우제강)경지정리 전에도 경운기가 있긴 했지.

경지정리는 언제 했어요?

잘 모르겠네. 1978년인가 9년인가.

(부인)우리는 경지정리할 때도 소마차로 실어 나르고 그랬어요.

그럼 1970년대 말 경운기 들어오고 그 다음으로 이앙기 들어오고 그랬네요. 여기가 논농사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논농사가 많지 않으니까 농기계가 꼭 필요했던 것이 아니지. 논이 적고 필요성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늦게 들어온 거지.

농기계는 어디에서 구입했어요?

평택에서 많이 가져왔지. 지금은 우리 마을 동쪽에 농기계 대여해주는 데가 있잖어.

가문과 친족관계 여쭐께요. 지금도 집안 내에서 항렬이나 서열을 많이 따지나요?

우리 종중이 옛날부터 재산이 많았다고. 땅이 3만 평이고 산도 많았잖아.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땅값이 오르고 하니 지금도 종중 재산이 많아. 종중이 넉넉하니까 모임도 잘 되고 시제 지낼 때도 많이 모이지. 거기서 모이면 대부, 할아버지, 조카하며 항렬 따지지.

은산리 우종갑 어르신도 삼남길 뚫리면서 보상받은 돈이 몇 십억 되고 하니까 종중 일에 많이 모이고 활성화되었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종중에 자금이 없으면 모임에 안와. 거의 관심이 없는데 그나마 자금이 있으니까 잘 모이지.

시제는 언제 지내요?

10월에 지내지.

참석율은?

한 50명은 모이지. 외부에서 손님도 많이 오고. 안양공파에서.

종중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젊은 사람들 참여도 적고?

종중이 모이면 젊은 사람도 촌수가 높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어른 대접을 해야 하니까 힘들지.

시제 지낼 때는 묘역을 옮기며 제를 지내나요?

아녀, 재실도 있고 재산도 있고 하니까 평소에는 제단에서 지내고 우천시에는 재실에서 지내고 그러지. 옛날이나 산소마다 옮겨 다니며 제를 지냈지만 지금이야 훨씬 편해졌지.

신리는 연반계나 상계가 있었나요?

옛날에는 상조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지. 그전에는 장례식장이 없어서 집에서 다 했는데 장례식장 생기면서 없어진 거지.

없어진 시기는?

20년쯤 봐야 하나.

상여집은 있었어요?

상여는 없었고 빌려왔지.

상(喪)나면 어디서 빌려와요?

오리골은 있었고 이 동네는 상여집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우리동네(오리골)은 수원에서 꽃상여를 사고 상여꾼까지 데려왔어. 지금은 친구들이나 자손들이 메기도 하는데 우리(단양 우씨)는 집안 내에서 다 했다고.

단양 우씨는 얼마나 돼요?

회원이 380명인가 400명인가 되지. 30세 이상이 회원이고. 젊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해서 잘 안 오지.

오리골에서 볼 때 신리를 높게 보지는 않았겠네요?

그렇게 본 건 아니고 옛날에는 골짜기에 양반들이 살았잖어. 높여 부르지는 않았지. 들판은 본래 어중이떠중이도 모여들고... (부인)옛날에는 '벌말놈들'이라고 부리기도 했다고.

노인회는 어떻게 운영되요?

내가 노인회장을 67세부터 시작해서 79세까지 했다고. 빨리하고 오래하고. 12년은 한 거지.

처음에는 비공식적으로 모이다가 2005년도인가 노인회가 공식조직되던데 이 동네도 그렇게 운영됐

나요?

내 직전 노인회장이 송기원씨라고 있었는데 그 때는 노인회가 있는지 없는지 유야무야했던 거야. 그래서 이장이 노인회장 한 번 맡아달라고 해서 맡게 되었지. 내가 맡고 1년에 단체관광 두 번 가고, 단체로 농사도 짓고, 공동식사도 하고 하면서 체계가 잡혔지. 어버이날에는 밴드 불러다가 잔치도 하고, 중복, 말복에도 행사하고. 내가 그만두고 없어졌어.

밴드도 아는 사람이 불러올 수 있죠?

내가 인수받을 때 240만 원 이월 받았는데 임기 마치고 넘겨줄 때 2,400만 원쯤 넘겨 줬지. 그 전에는 밥도 안 먹고 행사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내가 맡아서 주변 기업들한테 스폰도 받고 많이 성장해놨지. 그런데 코로나 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지.

코로나 끝나고 어떻게 운영되나 봐야죠?

예전에는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지금은 기업들도 힘드니까 어려운 거 아냐. 코로나 끝나고도 나 할 때처럼 전성기가 올지 모르겠어.

㈜번디는 많이 도와줬나요?

번디는 아주 짠데야. 조그만 회사도 그보다는 더 많이 줘. 번디는 기업이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은 돈 달라고 하지 못하지. 지금은 있던 회사원들도 내보내고 나 할 때는 1년에 한 50만 원씩은 줬는데 지금은 많이 어렵지. 회사 이름도 바꾸고.

주민들과도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네요?

나쁜 관계도 아니었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달라고도 안 하고.

YKK나 영풍제지는?

행정구역만 이쪽이지 거의 상관없지. 다른 작은 기업도 50만 원씩은 줬는데 지금은 하는 일이 없으니...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것이 정상적일 수는 없죠?

안 주는 데는 별로 없는데 다들 어려우니까 돈을 주고 싶은 기업도 많아. 다들 어렵지.

요즘 시설재배는 몇 호나 돼요?

그건 잘 모르고.

축산업은?

축산업은 한 집이 하나.

이 마을은 시설재배 외에는 다른 농업이 없네요?

시설재배도 옛날에는 집집마다 조금씩은 다 했지. 지금은 소농들이 없어지고 기업농 형태로 크

게 하는 사람이 있지. 몇만 평도 하고 10만 평 넘게도 하고 두서너 명이 크게 한다고.

논농사하고 비슷하네요?

논농사는 절대 밑지는 법이 없잖아요. 여기 누구는 이건(시설재배) 파 심어서 동(하우스 한 동) 당 200만 원씩 준다는데 파 값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돈도 하나 못 받고 폭삭 망했지. 배추 심었다가 폭락해서 팔지도 못하고 갈아엎고.

투기성이 강하네요?

투기성이 강해서 한 번에 밑지는 일이 많다고. 꾸준하면 돈을 벌지.

유인원(남, 1938년생, 전 신리 이장)

일시	2021년 9월 18일
장소	유인원씨 자택
구술자	조부 때 입향하여 3대(4대)째 거주하고 있다. 오산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다가 1970년대 고향으로 돌아와 이장을 비롯해 마을과 지역사회일을 오랫동안 했다. 한국전쟁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 소상하고 마을운영과 관련된 경험과 기억이 풍부하다.
면담자	김해규

어르신은 본관이 어디세요?

문화 유씨

계파는요?

우리가 하정공파 35대인가...

이 마을에 문화 유씨는?

5집,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살았지. 6집이로구나. 많을 때는 12호(戶) 전후.

몇 대를 거주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으니까 나까지 3대, 아들까지 4대를 살았지.

다른 유씨도 있나요?

한 집이 살고 있나. 나머지 유씨는 우리 할아버지 후손들이지.

어디에서 입향했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유씨들의 경제력은?

다들 비슷하지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아주 못살지는 않았지.

어르신 학력은?

여기는 진위초등학교 나오고 오산중학교 다니고.

여기가 오산권이군요. 어르신은 3년제 중학교 다닌 거죠?
고등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가정형편 때문에 안 간 거지.

집안을 보면 제법 부유했을 것 같은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집안이 어려워진 거지.

아버님이 작고하는 사람에 어려워진 거군요. 어렸을 때 논밭은 얼마나 갖고 계셨어요?
땅이 많았어요. 밭이 3천여 평, 논이 7천여 평.

그럼 마을에서는 잘 살았네요?
우리가 마을에서는 두 번째는 살았지.

부유함이 아버님 작고와 함께 기울어진 건가요?
그렇죠. 아버님이 57세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내가 땅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땅들이 많았어요?
잃어버리지는 않았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싸게 팔고 해서 줄었지.

어르신 형제는?
5남매, 2남 3녀인데 내가 장남이지.

어르신이 집안 대소사를 해야 하는데 사정을 몰랐군요. 동생들 교육은?
동생은 고등학교까지 가고....

여동생들은 진학시키지 않았죠?
여동생 하나는 고등학교까지 보내고.

그 당시에 어르신 집안에서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그러면 다른 집안들은 더 힘들었겠네요?
그런 면이 있었어요. 어려워가지고. 그 때가 6.25사변 나고 다들 먹고살기 힘들고 하니까 공부하는 건 신경 쓸 수 없었지.

마을에 6.25 관련 이야기가 많던데요?
6.25 때 집은 파괴된 것은 없는데 인민군들이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잠시 주둔하면서 밥해 달라 뭐 해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하느라 힘들었지.

그래도 죽이지만 않았으면 다행이잖아요?

그때 우리 집에 머슴이 한 명 있었는데 일은 하지 않고 맨날 치안 본부인가 내무서인가 가서 빨간 완장 주머니 넣고 다녔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남의 집 있으면 일을 해야지 돌아만 다니면 돼냐?’ 고 꾸중하자 아버지를 잡아가더라고. 우리 집 뒤가 인민위원회 사무실이었는데 내가 가만히 가서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무릎 꿇고 앉았더라고. 머슴 살던 사람이 그래. “너희 집 재산은 다 내꺼다. 지금 내가 의용군에 가는데 갔다가 돌아오면 네 것은 다 내꺼가 된다. 그러니 잘 보관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각서를 쓰게 했어. 수복 후 우리 고종 아저씨네도 잘 살았어요. 그 집 머슴도 똑같이 했는데 우리 집 머슴은 안 돌아오고 그 집은 수복되고 돌아왔어요. 우리 머슴이 돌아오면 내가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돌아왔는데 지네들 한 짓을 아니까 그 전에 경찰 출신이 친척 간인데 그 사람이 잡아서 미군한테 넘겼어요. 그런데 미군이 조사하니까 큰 죄가 없거든, 그때는 강제로 한 거니까. 그래서 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풀어줬더니 여기 마을에서 압박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잡아와서 하북 은행나무 뒤에 데려다가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우리 집 머슴이 돌아왔으면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아마 전쟁에 나가서 죽었으니까 안 왔겠지. 내가 그때 중학교 들어갔으니 우리 집 머슴이 돌아오면 내가 죽이려 했는데...

그때는 좌우익 갈등이 심했잖아요?

여기는 천주교인들이 많아서 빨갱이들이 없었어요. 인민위원장도 서로 안 보려고 해서 안 보면 마을 전체가 위험하니까 네가 봐라 해서 마을 분이 억지로 맡았아요. 하루는 옛날 장둑이 있던 곳에 갔더니 그 양반(인민위원장 맡은 사람) 둘이서 구덩이를 파고 있어요. 인민군이 북쪽으로 밀려갈 때인데 장둑 아래에 구덩이를 파고 있어서 ‘왜 파냐’ 고 했어. 그랬더니 인민군 켈로부대가 천안까지 갔다가 우리나라 국군 포로를 한 명 잡았는데 물어보니까 소령이라고 하더래요. 인민군 켈로부대는 유명해요. 그 포로를 두 양반에게 ‘내일 아침까지 잘 지키고 있어라’ 며 맡겼다고 해. 그런데 두 양반이 몰래 풀어줬데요. 그랬더니 인민군이 ‘너희들이 놓쳤으니 대신 죽어야 한다’ 며 구덩이를 파게 하고 구덩이에 세워 놓더니 총을 갈기는 거야. 사람에게는 쏘지 않고 머리 위에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한 거지. 그때 살아난 국군이 계속 살았으면 은공을 잊지 않고 찾아왔을 텐데 안 오더라고. 켈로부대가 밀려 올라가고 일주일 뒤에 미군이 올라왔어요.

유인원의 집 대문간, 마당의 감나무

국군과 인민군이 교차하던 시절이군요?

그때 당시에 탱크도 철로 위로 가다가 폭격받아서 주저앉고. 우리도 국도 1호선 너머에 밭이 있었어요. 거기에 참외를 심어가지고 아버지가 작은아버지하고 일꾼들 몇을 데리고 가서 사촌하고 참외를 따서 팔았어요. 1번 국도 길가에서. 그쪽은 전부 우리 사촌 땅이고 우리 땅 있고 그랬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는 참외를 팔았고. 거기 길이 꼬불꼬불한 곳이었는데 하북 쪽에서 비행기가 K-3인가 그것이 날아오더니 국도 쪽에다 막 갈기는데 작은아버지는 돌이 튀어서 맞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죽고, 그때 15명인가 죽었어요. 그러자 간호원들이 다친 사람들을 우리 뒷집 사랑방에 데려와서 치료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겨우 옥도정기나 발라주고 붕대만 감았다가 죽으면 밤에 갖다가 묻어버리더라고. 그렇게 다들 비참하게 죽었지. 수복 당시에 인민군들 후퇴할 때도 비가 내리는데 수도 없이 우리 동네로 밀려드는 거야. 진위천 따라서 무봉산으로 후퇴하려고. 그러면서는 우리 집에 와서 밥해달라는데 어떻게 안 해줘. 개를 잡아달라고 해서 개도 잡아주고 그랬다고. 그래도 인민군들은 절대 해코지를 안 했어요. 지방 빨갱이들이 그랬지. 그런데 우리 동네는 지방 빨갱이도 그렇고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봉남리 다리에서도 대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여기는 머슴들 두어 명이 설쳤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인민군들 후퇴할 때 교인들, 천주교인들은 다 죽인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수수밭으로 도망갔었지.

이 마을에 천주교인이 많았어요?

많았지.

얼마나 됐는데요?

대여섯 집은 됐을 거여.

어르신은요?

나는 불교였지.

불교 신자는?

천주교 안 다니면 불교라고 봐야지.

불교 신자들은 어디로 가요?

여기는 만기사. 동령사가 생기고 나서 동령사로도 가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언제 절에 가요?

초파일에도 가고, 팥죽 쑤는 날, 동짓날도 가고.

신리중앙교회 전에 임마누엘교회가 있었다면서요?

이거 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천주교 밖에는.

옛날에는 무당도 있었잖아요?
그건 있었어요. 만신이라고 동네에 한 명 있었어요.

동네 만신이 동네 굿을 다 했어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단 데서 데려오고 여기 만신은 점을 치러 가고 뭐 물어보러 가고 그랬지. 새해 되면 점 보고.

옛날에는 굿을 많이 했나봐요. 가을에 추수 끝나고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추석날 거북놀이를 한 기억은 나요. 우리 어릴 때. 거적 쓰고 남의 집에 가서 뭐 얻어먹고 했던 생각이 나요. 수수 같은 거 가져다가 엮어서 뒤집어쓰고.

줄다리기는?
줄다리기는 안 했어요.

당제사는 지냈어요?
그건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 쭉 둘러서 숲이 있었는데 거기에 당이 있었어요.

당이 나무였나요?
소나무였어요. 소나무하고 기름나무라고. 그 옆에 터주가리 있고.

당은 언제까지?
6.25 때까지 있었고 수복되고 없어졌지.

왜요?
섬기던 노인네들이 돌아가시고 하면서 자연히 중단됐어요.

제물은 뭘로 했어요. 돼지 잡거나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어릴 때라.

제사가 끝나면 잔치하지 않았어요. 음식 나눠 먹는 거?
그것도 하는 사람들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눠 먹고. 구경하러 간 사람들도 먹고.

옛날에는 마을 집들이 초가집이었나요?
초가집뿐이지. 아 기와집 한 집 있었네. 그 양반네가 정... 면장까지 한 사람인데 그 집이 기와집이었어.

어르신 집은 언제?
6.25 수복 직후에 지었죠.

집의 규모가 큰데요?

아버지가 짓고 8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집을 신축하면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집이 기울어지고 그랬지.

목수는 어디에서 데려왔어요?

우리 집안네에 이씨라고 하는 목수가 있었어요.

마을에 사시던 분인가요?

타 동네 사람이었어요. 동네에서도 좀 살았지. 잘 기억이 안나.

자재는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 기둥이 5치 기둥인데 기억자로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디귿 자로 지으면서 목재가 좀 가늘지. 한데 지은 건데 이왕 짓는 거 사랑채까지 짓자고 늘려 지은 거지.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그건 우리가 어려서 잘 모르죠.

유인원의 집과 사랑채 아궁이 부엌

지금 사는 집도 수리했네요?

옛날에 마루하고 아궁이 있던 것을 고친 거죠. 입식으로. 창고로 썼던 것도 나중에 방을 들였고.

모두 방이 세 개네요?

방이 네 개지. 마루가 두 개고, 방마다 부엌 있고. 행랑채는 머슴방이고.

그럼 식구가 몇 명이었어요?

우리 5남매하고 할머니... 8식구.

8식구가 살기에는 넉넉한 편이었네요?
넉넉한 편이었죠.

이 앞의 집(행랑채)은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어요. 1980년대에 내가 지었지.

집을 고쳤네요?
고친 것은 30여 년 됐어요. 여기가 다 흙으로 지은 건데, 저기 하나 있는 하얗게 지은 거. 나중에 브로꾸(블럭)로 쌓아서 바꾼 거지.

부엌도 입식으로 했나요?
그럼 현대식으로 바꿨지.

그전에는 아궁이였나요?
전부 아궁이였지. 다 불 땠지.

연탄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연탄도 사용했어요.
30여 년 전 바꿀 때 연탄보일러하고 태양광도 하고 그것이 시원찮아서 기름보일러, 기름보일러가 비싸서 그다음은 심야전기보일러,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지금은 가스보일러로 바꿨지.

보일러 바꾸시다가 돈 많이 들었네요?
그럼 태양광 할 때도 400만 원인가 들었고 그다음에도 많이 들었지. 지금도 사랑채는 솥이 있어요. 아궁이도 있고 구들방이고.

구들방은?
쓰지는 않고 그냥 놔두는 거지.

정원에 연못은?
그건 1990년경에 집을 고칠 때 내가 만든 거여.

우물은?
우리는 집짓기 전에도 집은 크지 않았는데 울안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펌프를 쓰다가...

펌프는 1960년대 말이죠?
그쯤은 될 거여. 그다음에 모다(모터)를 달아서 모다로 물을 퍼내고.

자가 수도를 놨었군요?

그렇지.

간이상수도 놨을 때도 안 썼겠네요?
우리는 수도가 있으니까 안 쓰지.

광역상수도 들어온 뒤에 옛날 우물은?
같이 쓰지. 우리 우물이 얼마나 물이 좋은데.

어르신 댁은 물지게나 물동이를 이었던 기억은 없네요?
우리 집사람이 참 고생 많았어요. 옛날에 논에서 일하면 일꾼들 밥하고 소죽을 이고 가져다주고.

소죽도 가져다줬잖아요?
그럼 농사일하는데 소도 먹여야지. 얼마나 힘든데. 우리 논이 하북 쪽에 많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이고 오려고 해봐. 나중에 리어커가 생기면서 많이 나아졌지. 리어커 못 들어가면 머리로 이고 다니고.

옛날에는 여성들의 역할이 많았네요?
그렇지 불 때서 밥하고, 추울 때 재를 치워서 일하고, 참 내다주고, 밥 해주고...

옛날에 마을에 디딜방아가 있었나요?
디딜방아는 못 봤어요. 여기는 왜정 시절부터 전기가 들어왔기 땜에.

어떻게 빨리 들어왔어요?
여기에 적봉리로 가는 전신주가 지나가서 빨리 들어온 거죠. 그때 전기방앗간이 없었던지 우리도 방앗간을 운영했어요.

언제부터요?
6.25 전부터. 자동차 엔진인데 목탄으로 돌리다가 기름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6.25 때 인민군들이 오일을 빼앗아 가고 그랬죠. 엔진도 빼앗아 갔어요. 미제라고. 수복 후에 다시 찾아왔죠.

6.25 후에 왜 그만뒀어요?
동네에도 방앗간이 한 개 있으니까 같이 하기가 그래서인지 안 한 것 같아요.

누가 했어요?
김씨라고. 그 양반 이름이 김금배인가 ...

어떤 방아를 찧었어요?

보리방아하고 쌀 방아를 찧었지.

밀방아는?

밀은 많이 안 했고 보리를 많이 했으니까.

떡방아는?

그런 건 없었고. 물레방아는 없었고. 여기가 참외곶이였어요. 들판이. 여름에는 길가에 참외를 쌓아놔서 트럭으로 실어 갔지요. 수박은 안 하고 참외만. 벼라별 참외가 다 있었어요. 노랑참외, 개구리참외, 열두 곶 참외라나 뭐도 있었고.

참외재배를 언제부터 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6.25 수복 뒤부터 많이 했죠. 그전에도 많이 심었으니까는.

왜 참외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딴 거 할 거 없고 참외, 콩, 보리 먹는 거 위주로 심었으니까. 보리하고 참외하고는 2모작, 3모작이 가능했으니까. 그러다가 미군기지가 생기고 판로가 생기니까 여자들이 이고 가서 송탄 아침장에다 팔고 하면서 점점 커진 거지. 나중에 서울 장사꾼들이 밭떼기하면서 더 커지고.

어르신은 무엇을 했어요?

나는 농사 안 했어요. 3년을 지었는데 힘들어가지고 실패도 많이 하고 해서 직장생활했어요.

어디에 다녔어요?

미군부대 다녔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고.

몇 살에 시작했어요?

17살.

하우스보이부터 시작했네요?

그때는 다들 그 나이에 시작했지.

미군부대에서 뭘 하셨어요?

가서 일하고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그것부터 시작하지.

그걸 하우스보이라고 하던데요?

그런가.

이 마을에서 미군기지 다닌 분이 몇 사람이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고, 내가 군대를 늦게 갔어요. 5.16혁명 나 가지고 군대

기피자로 몰려서 자수해서 늦게 군대 갔어요. 25살에 늦게 간 거죠.

군대 갔다 와서도 미군기지에 다녔나요?

집에 있다가 다시 취직해야겠다 생각해서 옛날에 일했던 데다 말했더니 대구 팔공산사이트에 자리가 났는데 힘들다고 잘 안가려고 한다. 거기라도 가겠느냐 라고 해서 거기서 10년을 근무했어요.

미군기지에서 했던 보직은 뭐였어요?

식당에서도 근무하고 뭐 음식 만드는 거.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진급은 안했어요?

종업원이 셋인가 넷이었고 그런 것 없었어요.

보수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 과장급 정도는 됐죠.

옛날 미군기지 다니는 사람들은 햄이나 치즈를 반출해서 밖에다 팔고 그랬다는데요?

아니에요. 나올 때 책임자가 딱 검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럼 부수입은 없었네요?

저녁에 영화 상영해주고 부수입 얻고. 사이트는 최전방으로 생각해서 보수가 괜찮았어요. 한 달에 한 번 휴가 나올 때도 미군들 타는 칸에 타고 왔어요.

왜 10년 만에 그만뒀어요?

가정이 있잖아요. 허허. 거기서 친한 미군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 가자고 권해요. 그 애가 자기 부모에게 말해서 초청장까지 보내왔는데 집에 와서 집사람 보니까 도저히 …허허.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고 포기했어요.

미군기지 그만두고는?

동네 와서 이장 보고, 지역 방범위원장 하고.

그걸로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농사는 남 주고.

소작료로 먹고 살고 마을일을 한 거네요?

내가 15년 동안 이장 봤지.

그때가 언제죠?

1970년대지.

그럼 새마을운동을 주도했네요?

그렇지.

맷돌, 쌀 말, 돌절구통

새마을운동을 주도한 분은?

내가 했지.

새마을교육도 어르신이 가시고요?

그렇지. 수원 농진청에 가서 받았지.

정부에서 시멘트 330포를 지급했는데 무슨 일을 했어요?

마을 길 넓히기를 했지.

도로 부지는?

그때는 강제로 수용한 거지. 주민들 부역 동원해서 길을 조금 넓히고 시멘트 포장한 거지. 그때는 일 나오라고 하면 꼼짝없이 나왔어. 풀 깎으러 1년에 한두 번씩 나와서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모내기 시범을 여기서 했다는 말이 있던데요?

천북 어디에 왔다는 말은 들었는데 여기는 안 왔어.

지붕개량은 어떻게 했어요. 슬레이트는 공짜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정부가 공짜로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조는 조금씩 해주고. 마을에서는 도로포장을 하고 그런 일만 했죠.

도로포장이 농기계나 자동차 운행이 가능해졌네요/

그렇죠.

퇴비증산은?

그것도 많이 했죠. 여기는 길옆이라 평택군수가 자주 들러서 잘하면 요소비료 같은 상으로 지

급하고 그랬어요.

토비증산으로 상을 받기는 했어요?
여기는 상으로 요소비료 받은 거죠.

동네에 하우스재배를 많이 해요. 하우스에 배추도 많이 하지만 애호박을 많이 해요?
애호박을 심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돼요. 철규가 심다가... 배추는 대부분 노지재배 많이 했고. 토마토나 오이 많이 하고 요즘에는 애호박 하는 사람도 있고. 다 하는 사람만 하고.

마을 규모가 60호 넘을 때 얼마나 했어요?
그때는 한 20호.

지금도?
지금도 많지는 않아요.

다른 동네 사람들도 여기에서 하우스 하던데요?
품팔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땅을 조금 사서 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집에는 터주가리, 제석주머니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있었어요?
옛날에는 다 해놨죠. 칠석날 쌀밥 해 먹는 다고 제석주머니 달아 놓고. 새마을운동하면서 다들 없어졌지.

대감독은 얼마만 한 것 있었어요?
그전에 나무로 뒤주가 있었지.

아니 그것 말고요 대감독이라고 쌀 담아둔 독?
세 개쯤 있었어요. 지금도 두 개가 있는데.

지금도 대감독 섬겨요?
아니 섬기지는 않고 빈 항아리 엎어 놓고 있는 거지 뭐.

자녀는 몇을 뒀어요?
5남매

모두 나가 사나요?
다 나가 살죠.

몇남 몇 녀인가요?

4녀 1남. 다 대학 보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애들 다 대학 보내기 힘들었잖아요. 다 대학 보내고.

1970, 80년대에 딸들까지 대학 보내기 힘들었을 텐데?

도지 받고 직장생활 하면서 모은 돈이 있고. 그래도 이장 볼 때도 내 돈 써가면서 일했지.

면사무소에서 활동비도 안 나왔잖아요. 이세는 받았어요?

이세는 받았죠.

얼마씩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쌀 한 말 가격을 돈으로 환산해서 걷었죠. 그것도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반장도 나눠 줘야 하고.

개발위원회나 새마을지도자도 새마을운동 때 만든 거죠?

내가 진위면 추진위원, 방범위원 다 했어요.

개발위원회는?

그건 다 나중에 생긴 거예요. 1970년대 말이나 생겼나. 지도자는 새마을운동 하면서 생기고.

옛날에 이장이 하는 일은?

다 잊어먹었지 뭐. 호적신고도 다 해주고.

비료도 이장이 나눠줬나요?

그것도 다 나눠주고. 건달이나 이장한다고 했어요.

벼 수매도 이장이 관여했어요?

공판이라고 했지. 이장이 관여하고.

전입신고도?

그렇지.

그러면 이장일 15년 했다는 것은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장하면 땅 팔아먹는다고 했다니까 허허.

여 백

2021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V.

진위면 하북리 마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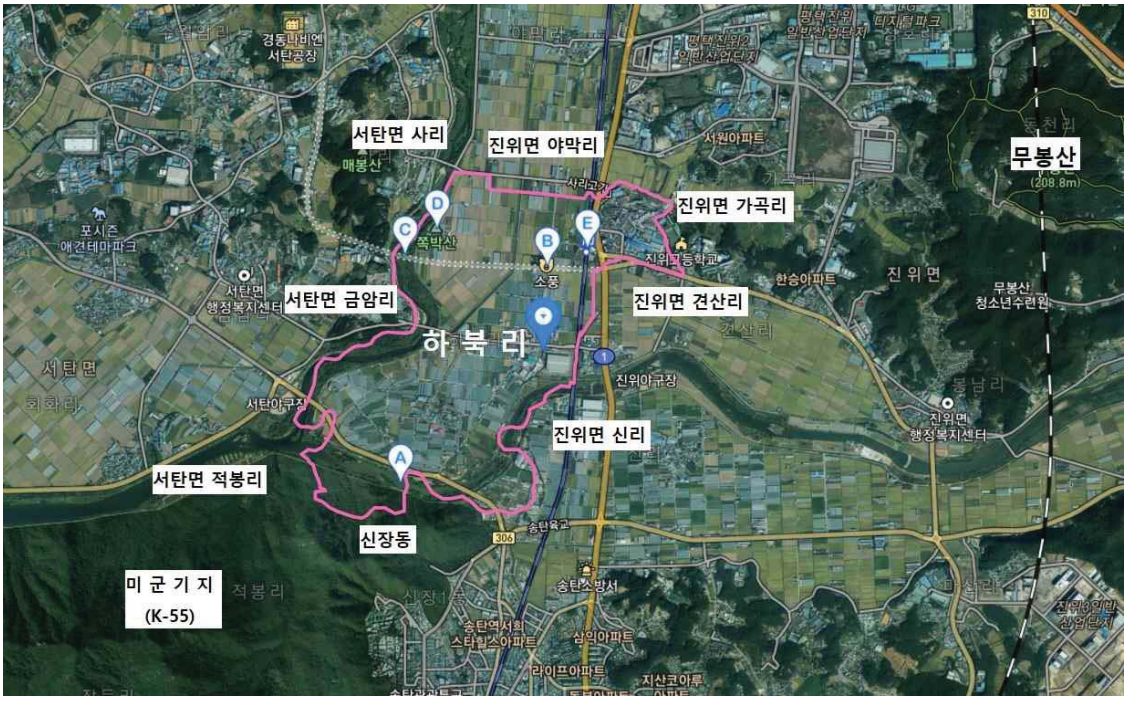
장연환

여 백

Ⅴ. 진위면 하북리 마을조사

1. 지리적 환경

1) 자연환경



하북리의 지리적 위치

하북리는 무봉산(208.6m) 줄기의 서쪽 능선 끝자락에서 마을이 시작되어 진위천과 오산천의 합류 지점까지 남서쪽으로 펼쳐져 있다. 동쪽으로는 가곡리, 견산리, 서쪽으로는 서탄면 사리와 금암리, 남쪽으로는 서탄면 적봉리 및 신장동, 진위면 신리, 북쪽으로는 야막리와 접하고 있다.

용인시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진위천과 오산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오산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자리 잡은 하북리는 하천의 중·하류를 끼고 있는 만큼 넓은 하천 부지가 펼쳐진 곳이다. 과거에 황무지였던 하천 부지가 간척·개간되어 남서쪽으로는 경작지가 펼쳐져 있다. 하북리의 남쪽은 원래 신리, 신장동, 서탄면 적봉리 등과 오산천과 진위천을 경계로 구역이 나뉘었는데, 물길이 변하고 하천이 정비되면서 현재는 경계선이 하천 양쪽으로 들쑥날쑥한 모양을 하고 있다.

하북리의 4개 마을 중 가장 오래된 중심 마을은 하북1리 아랫성뒤 마을이다.[1] 이 마을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농촌 마을의 전형적인 입지의 형태를 보여준다. 즉 무봉산 자락의 끝 부분 남쪽 사면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산을 뒤로하고 진위천과 장호들을 마주한 모습이다. 하북1리 아랫성재에서 12대째 거주하고 있는 이정재(남, 1938년생)씨는 마을 뒤에 토성이 있었고 토성 아래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아랫성지라고 이름지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그는 어렸을 때 토성의 흔적을 직접 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1) 토박이들은 ‘아랫성지’ 또는 ‘아랫성재’라고 발음한다. 한편, 평택시에서 발간된 문헌에는 하북1리를 ‘성뒤’로 잘못 표기한 내용들이 있다.(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2, 2014, 424쪽.)

1911년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조선지지자료』에는 하북리를 '아래셩뒤'로, 북쪽 현재 가곡 3리인 후북리는 '셩뒤'로 표기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당시 '견산리산성 뒤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후북리(後北里)라고 불렀고, 후북리 마을 남쪽에 새로이 생겨난 마을을 '성뒤[後北里]의 아래쪽 마을'이라는 의미로 아랫성뒤[下北里]로 불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문헌에도 후북리가 먼저 나타난 뒤에 하북리가 등장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추정은 실제일 가능성이 높다. 하북1리를 가리키는 아랫성뒤의 발음이 점차 바뀌어 지금은 '아랫성지' 또는 '아랫성재'라고도 불린다.

하북1·4리 전경

하북리는 근대 교통로가 지나는 입지적 여건이 바뀌어 마을이 확장되었다. 또한 오산천과 진위천 사이의 넓은 배후습지가 경작지로 바뀌면서 농업 기반도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점기에는 2리인 대정촌이 새로이 형성되었다. 대정촌이 형성된 연원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현재 마을 토박이들은 대정1년인 1912년을 마을의 시작으로 알고 있다. 1922년 발행 지도에 의하면 진위천과 오산천에 제방이 있고, 대정촌과 그 주변은 아직 배후습지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1912년 지적도에는 대정촌 토지 대부분의 지목이 밭으로 나타나 있다. 지적도가 작성된 1912년과 1922년 발행 지도가 실측되었던 시기인 1914년 까지만 해도 대정촌 일대는 주로 밭농사 지역이고 잡종지가 많았던 것이다. 1930년대 중반 마을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ㅁ'자형 길을 닦으면서 대정촌은 지금과 같은 모습을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

1970년대 초반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정부 시책에 의해 무허가 집들이 헐리면서 이주민들이 발생하였다. 진위천과 오산천의 배후습지에 조성된 넓은 경작지는 이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당시 평택군에서는 하북3리에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지어서 이주민들을 정착시켰다. 이렇게 들어선 마을이 하북3리 새마을촌이다.

1970년대 초부터 홍원제지, 영풍제지, YKK,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들이 하북리, 견산리, 신리에 들어서면서 이주민이 증가하였다. 이들 회사원들이 하북1리에 거주하면서 마을의 규모가 급속하게 커져갔고, 1987년 하북1리에서 4리가 분리되었다.

하북리는 진위천과 오산천이 만나는 지점 동북쪽으로 펼쳐져 있다. 진위천은 용인시 이동면 천리 무넘이 고개[2]에서 발원하여 오성면 창내리에서 안성천에 합류된다. 『대동여지도』, 『팔도군현지도』 등 대부분 고지도에는 진위천이 장호천(長好川)으로 표기되었으나, 『진위현읍지』(1899) 에는 귀천(龜川)으로 표기되었다. 그런데 『여지도서』 및 1843년 『진위현읍지』의 본문에는 장호천과 귀천을 나누어 보다 정확 설명하고 있다. 즉, 귀천은 “물의 근원이 장호천에서 나와서 갈라져 북쪽으로 몇 리를 흐르다가 다시 본천(本川)으로 흘러 들어간다.” 고 기록되었다. 따라서 귀천은 장호천에 딸린 하나의 지류(支流)로 볼 수 있다. 또한 1899년 지도에는 진위향교 앞에서부터 대정촌까지 진위천 북쪽으로 관방제림이 표시되어 있다. 오산천은 용인시 동백동 보개산에서 발원하여 기흥과 오산을 거쳐 하북2리에서 진위천에 합류된다. 옛 문헌에는 토현천(兎峴川)으로 표기되었다.[3]

팔도군현지도

1899년 진위현읍지 지도

4개 마을 중 1·4리가 산자락에 위치하고 2·3리가 평지인 들판에 자리하고 있지만, 마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넓게 경작지가 펼쳐진 평지가 많고, 가곡리 및 견산리와 접한 산쪽으로는 마을이 확장되면서 경작지가 거의 사라졌다. 1923년 인쇄된 지도에 표시된 하북리 들판의 해발고도는 10.6m로 매우 낮다. 하천변으로 제방이 쌓여졌지만, 장마와 태풍으로 폭우가 내리면 하천이 넘쳐서 들판뿐만 아니라 대정촌과 새마을촌은 마을 전체가 침수되곤 했다. 침수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피난을 갔던 기억을 갖고 있다. 새마을촌의 현재 이장인 윤증순씨(1957년생)은 1980년 이 마을로 이주해 온 후로도 1987년, 1991년, 1992년 등 세 번에 걸쳐 수해를 경험했다. 그녀는 수해를 당한 마을 사람들이 인근 공장인 일성제지, 하북1리에 있는 태권도장, 진위학교 등으로 피난 갔던 기억을 갖고 있다. 대정촌의 권병덕씨(남, 1948년생)는 수해로 인해 한 해 시설 농사를 모두 망쳐버리기도 했다.

대부분이 평지인 하북리는 1·4리의 민가가 들어선 자리 외에는 산이 없고, 평지의 대부분은 경작지로 조성되어 산 이외의 숲도 없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나무 땔감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마을 토박이들은 가곡리의 무봉산 기슭으로 나무하러 갔던 기억을 갖고 있다.

진위천과 오산천은 계곡이 없는 이 마을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봉남리 앞에서 진위천을 막아 보를 만들어서 봇도랑으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봉남리 보에

2) 예전에 ‘무네미 고개’ 로 표기하였는데, ‘물이 넘친다’ 는 뜻을 가지고 있어 용인시에서 무넘이 고개로 표기를 변경하였다.(『중부일보』, 2017.03.27.)
3) 『여지도서』, 『대동여지도』, 『팔도군현지도』, 『진위현읍지』(1843) 등

서 내려오는 봇물은 현재의 하북3리 북쪽 들판에만 관개할 수 있었고, 하북3리 남쪽은 대부분 밭으로 사용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발동기가 도입되면서 진위천과 오산천의 물을 퍼올려 하북2리 대정촌 주변에도 관개를 할 수 있었다. 대정촌의 권병덕씨(1948년생)는 '예전에는 다 논이었고, 밭은 별로 없었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대정촌 마을 북쪽에 도랑을 만들고 오산천과 진위천 물을 발동기로 퍼올려 들판에 물을 대서 논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지대가 퍼올리는 물이 흐르는 도랑보다 높은 곳은 여전히 밭으로 이용되었다 이런 곳에는 밭벼를 심었다. 1972년 경지정리가 된 후로 북쪽 들판은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기흥호수 물을, 남쪽 들판은 이동저수지 물을 이용하였다. 논의 비율이 늘었으나, 1972년 이후 시설 재배가 보편화되면서 다시 많은 논들이 밭으로 전환되었다.

하북리 들판(북쪽에서 남쪽으로)

하북2리 대정촌 남쪽을 흐르는 진위천

예전에는 진위천과 오산천은 물이 맑고 물고기가 많았다. 마을에서는 진위천이 가까웠기 때문에 아이들은 주로 진위천에서 놀았다. 이곳은 여름에는 물놀이 장소였으며, 겨울에는 좋은 썰매장이었다. 권병덕씨는 주로 마을 동쪽의 진위천에서 물놀이를 하고, 철도 다리 위에서 다이빙을 하며 놀았던 기억을 갖고 있다. 그는 대정촌 사람들은 대부분 마을 동쪽 진위천변에 놀았다고 자신의 기억을 말하였다. 1922년 제작된 지도에는 마을에서 그가 주로 물놀이를 했다는 냇갈로 가는 길이 표시되어 있다. 물이 맑았던 진위천과 오산천에는 참기름치(기름종개), 피라미, 잉어 등 민물고기가 많았다. 전통적인 고기잡이 도구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었고, 족대(반두)나 투망 정도를 들을 수 있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논에서 물이 내려오는 도랑에서 어레미를 이용하여 송사리를 잡았다. 물고기 뿐 아니라 말조개나 부단조개 같은 조개류도 많아서, 아이들은 조개를 잡아 냇가에서 불을 피우고 구워먹기도 하였다. 뒷성재(하북1리) 마을의 이정재(1939년생)씨는 ‘바닷물이 올라온 한계였던 황구지리에는 뱀장어가 많았고, 대정촌 앞쪽으로는 조개류가 많았다.’고 하였다.

2) 성씨와 인구

하북 1~4리 중 근대 이전에 형성되었던 마을은 하북1리이다. 하북 1리는 광주 이씨 집성촌이었다. 이 마을에 거주하는 광주 이씨 집안사람들은 ‘예전에는 광주 이씨가 대성을 이루었으며, 이외의 성씨들은 이 집안에 딸린 종 또는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 뿐이었다.’고 전한다. 광주 이씨 문경공파인 이길수(남, 1952년생) 이장은 ‘예전에 30~40가구 정도 살았는데, 타성은 10가구 이하였다.’고 하였다. 이렇듯 오랫동안 세거해온 토박이들은 대부분 주로 하북1리에 거주하는 광주 이씨 집안이다. 광주 이씨 가운데 광릉부원군파가 13대째 거주하며 다수를 차지한다. 또 다른 분파인 문경공파는 훨씬 후대에 입향하였고 숫자도 적다. 이렇게 본다면 광주 이씨가 하북리로 입향한 것은 대략 300여 년 전으로 추정된다.

전통적인 농촌 마을인 아랫성뒤 주변으로 1970년대 초반부터 홍원제지, 영풍제지,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 등 산업 시설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유입되었다. 이 회사들 중 일성제지가 하북3리에 홍원제지가 하북1리에 들어섰다. 인구가 유입되자 하북1리 마을 북쪽에 1981년 꽃동산아파트를 시작으로 새동

산, 새꽃동산 아파트가 차례로 들어서고, 다른 소규모의 다세대 주택들이 건축되면서 북서쪽으로 마을이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에 하북4리가 분동되었다. 하북4리 주민들은 1970~80년대 이후 새로 이주 해온 사람들이 많다. 하북감리교회 주자창 옆에 거주하는 이정재(남, 1939년생)씨는 '예전에는 교회 아래쪽(남쪽)으로만 집들이 있었다.' 고 하였다.

하북2리인 대정촌은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마을로 전해진다. 이 마을 이장을 역임했던 이세영(1958년생)씨는 그의 할아버지께서 입향한 이래 3대째 거주하고 있다. 그는 이 마을의 주민들의 성씨가 32개에 이를 정도라고 하였다. 그만큼 다양한 집안들이 모여든 결과였다. 하북3리 새마을촌 역시 1973년에 새로이 형성된 이후 이주해 온 사람들이 거주하여 성씨 또한 다양하다.

진위면 인구 통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조선 영조 때 편찬된『여지도서』이다. 여기에서는 진위현의 10개 면의 각 마을별 호수(戶數)와 남녀별 인구수가 기록되었다. 당시 하북리가 속했던 성북면에는 동천리, 청호리, 갈곶리, 가곡리, 후북리, 견산리만 있을 뿐 하북리는 언급이 없다. 이때까지는 하북리가 독립된 마을로 인정받지 못할 만큼 인구수가 적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데 후북리가 '성뒤' 마을이고 하북리가 '아랫성뒤' 마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북리의 통계치는 후북리에 포함하여 기록되었을 것이다.『여지도서』에는 후북리에 '30호(戶)에 남자가 54명, 여자가 49명' 이다. 그 시기의 인구 규모를 대강 파악할 수 있다. 하북리가 등장한 것은 정조 때인 1789년에 편찬된『호구총수』이다. 여기에는 성북면이 일북면과 이북면으로 나뉘었는데 이 두개 면의 통계치를 합하여『여지도서』와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여지도서』와『호구총수』의 호수와 인구 통계 비교

구분	호수	남	여	계
여지도서	287	360	324	684
호구총서	268	442	523	965
증감(%)	-6.62	+22.78	+61.42	+41.08

두 기록의 호수와 인구 통계의 증감율을 적용하면『호구총수』의 후북리와 하북리를 합한 호수는 28호, 남자는 66명, 여자는 79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마을의 인구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정은 불가능하다.

1891년『진위현읍지』의 일북면과 이북면을 합한 인구 통계는 호수 299, 남자 300명, 여자 295명이다. 위의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후북리와 하북리을 합한 통계치를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여지도서』와 1891년『진위현읍지』의 호수와 인구 통계 비교

구분	호수	남	여	계
여지도서	287	360	324	684
진위현읍지	299	300	295	595
증감(%)	4.18	-16.67	-8.95	-13.01

『여지도서』의 인구를 기준으로 두 마을을 합한 호수는 31호, 남자 45명, 45명이 된다.

1963~1984년의『평택군통계연보』에서는 마을별 통계치를 제시하였으나, 이후로는 면별 인구 통계만 나와 있어 마을별 통계치를 산출할 수 없다. 진위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06년도 이후의 전산화 자료만 있다. 그 내용을 다음 표로 정리하였다.

하북리의 호(戶)와 인구 변화[4)]

연도 (12/31기준)	호 수 (戶 數)			인 구 수			진위면 합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호수	인구수
1963	107	37	144	459	451	910	1,375	8,404
1971	101	75	176	536	531	1,067	1,421	8,011
1976	103	91	194	829	884	1,713	1,898	9.757
1984	105	433	538	1,201	1,103	2,304	2,722	12,398
2006			693	872	813	1,685	5,476	13,805
2010			675	838	747	1,585	5,934	13,773
2014			663	791	678	1,469	5,652	12,699
2018			649	671	587	1,258	5,840	11,944
2019			630	635	557	1,192	5,757	11,464
2020			636	604	548	1,152	5,927	11,401

위의 표에 의하면 2006년에는 1984년에 비해 호수(戶數)는 28.81%가 늘었고, 인구는 26.87%가 감소하였다. 이 시기에 진위면 전체로는 호수와 인구가 각각 101.18%와 11.35%가 늘어났다. 1980년대 급격하게 높아진 증가율이 조정 국면을 맞았다.

2008년 이후 하북리 각 마을별 인구 통계는 아래 표와 같다.

하북리 각 마을별 인구 통계

연도	법정마을	세대수	인구수			
			남자	여자	계	
2008	1리	304	346	275	621	
	2리	109	155	136	291	
	3리	87	110	86	196	
	4리	180	250	228	478	
2010	1리	277	303	290	593	
	2리	123	167	140	307	
	3리	90	116	94	210	
	4리	185	252	223	475	
2012	1리	274	290	258	548	
	2리	122	162	137	299	
	3리	95	115	102	217	
	4리	175	232	193	425	
2014	1리	267	277	250	527	
	2리	128	157	133	290	
	3리	95	113	101	214	
	4리	172	244	193	437	
2016	1리	253	255	234	489	
	2리	125	156	126	282	
	3리	97	109	93	202	
	4리	168	221	187	408	

4) 1963~1984년은 평택군 통계연보 / 2006년 이후는 진위면행정복지센터 제공 마을별 인구 통계

연도	법정마을	세대수	인구수			
			남자	여자	계	
2018	1리	230	217	202	419	
	2리	129	153	119	272	
	3리	99	99	87	186	
	4리	191	202	179	381	
2020	1리	225	192	187	379	
	2리	132	142	116	258	
	3리	89	84	77	161	
	4리	190	186	168	354	

3) 교통

(1) 근대 이전의 교통로

경부선 철도와 1번 국도가 개설되기 이전에 하북리는 가곡리나 견산리를 지나는 삼남대로에서 약간 비켜 있는 마을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교통 여건상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크게 주목할 만한 점이 없었다. 소로(小路)를 통하여 주변 마을과 연결되었던 정도이며, 수원 또는 평택 방향으로 나갈 때는 이웃한 가곡리나 견산리를 지나는 삼남대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하북리와 그 주변 주민들의 대부분은 농민으로 자급자족적인 경제 체제였기 때문에 먼 곳에 갈 일이 많지 않았다. 따라 삼남대로가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았을 것이다. 농기구와, 소금, 새우젓 등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하러 장에 가는 일을 제외한다면 주변 마을과의 소통과 농산물을 경작지에서 집으로 운반 등이 길의 중요한 기능이 되었을 것이다.

『대동여지도』에는 봉남리에서 견산리-하북1리-금암리-내천리를 거쳐 남양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길이 표시되어 있다. 조선시대 하북리 주변의 길은 진위현 읍치였으며, 삼남대로가 지나는 봉남리가 중심이었다. 이곳에서 살짝 비켜 있는 하북리는 봉남리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길목의 초입에 있었을 뿐이다. 이 길은 행정 또는 상업적인 이용이 주된 기능이었을 것으로 마을 주민들에 의한 이용은 많지 않았다.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교통로 (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22년 지도의 교통로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하북리와 주변 마을을 연결하는 소로(小路)는 1922년 일제가 발행한 지도에서 확인된다. 이 지도는 국도 1호선이 개통된 직후로, 아직은 이전에 다니던 길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지도에서는 대정촌(대정리) 아래 신장리가 주변의 중심적인 모습이다. 신장리는 19세기 말 일탄면의 중심지였다고 전해지는데, 나루가 있었고 시장이 열렸던 곳이다.[5] 이후 시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구장터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 하북리를 비롯하여 서탄면 금암리나 마두리, 신리 사람들로 신장리의 구장터로 장을 보러 다녔을 것이며, 배를 이용하여 항곶포를 거쳐 들어온 소금, 새우젓 등 서해안의 물산이 구장터를 통해 주변으로 유통되었다. 장이 폐쇄된 후에도 이곳은 북쪽의 대정촌 뿐만 아니라 금암리나 야막리 사람들이 송탄쪽으로 오갈 때 지나는 중요한 길목이 되었다. 현재는 미군부대로 편입되어 옛 길의 흔적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2) 경부선 철도의 부설과 진위역의 치폐

하북리가 진위면의 교통 중심으로 부상된 첫 계기는 경부선 철도의 개설이었다. 일제는 조선 침략을 목적으로 경부선 철도를 계획하여 부설하였다. 철도 부설을 위해 1885년 일본인 마쓰다는 4년에 걸쳐 전국의 시세, 교통, 민정, 경제상황을 면밀히 조사했다. 이후 1892년부터 1903년 동안 5차 걸쳐 답사를 시행한 끝에 철도 노선을 확정지었다. 3차 답사 결과 진위가 노선에 처음으로 포함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서울-용산-안양-수원-병점-오산-진위-서정리-평택-성환-천안-……-부산’ 으로 결정되었다. 진위는 안양 명학동에서 진위군까지 총 22마일에 이르는 경부철도 제2착공 구간에 포함되었다. 평택을 지나는 경부선 철도가 부설 계획에 따라 경작지 13만 9,570평의 사유지가 수용되었다.[6] 땅의 소유주는 730명에 달하였다. 이때 하북리에서는 17,889평이, 야막리에서는 1,588평이 철도용지로 수용되었다.[7] 부설 공사는 이완용이 사장으로 있던 대한운수회사, 대한경부철도부역회사 등 5개의 한국계 회사와 한일공업조, 아가와구미 등 일본 회사가 맡았다. 그 중 오산에서 진위군 사이는 야마구찌라는 일본 회사가 담당하였다. 야마구찌사는 조선인 90% 고용 규정에 따라 철도 노선 해당 지역 주민들을 공사에 참여시켰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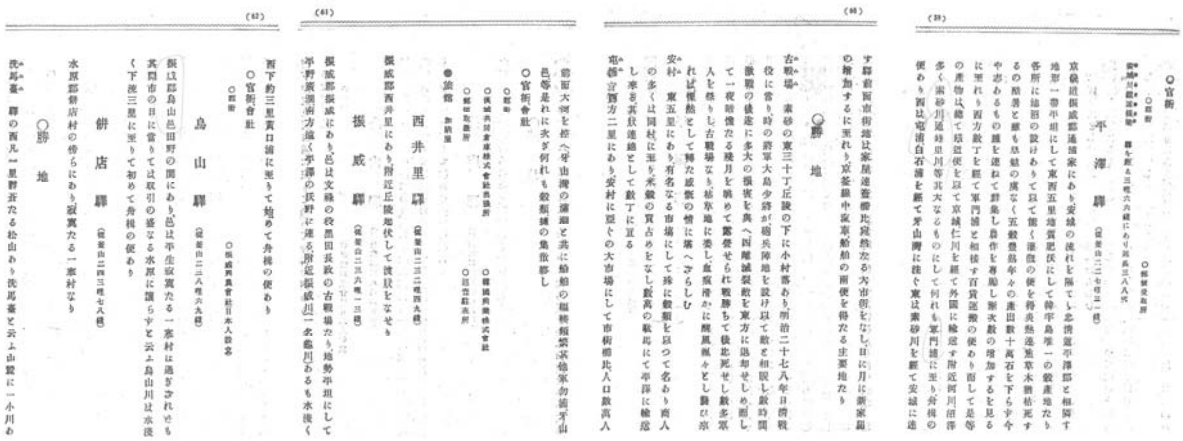
1912년 작성된 지적도상의 진위역 부지

철도 용지 수용과 인부들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지역 수민들의 저항이 적지 않았다. 토지 수용이 강압적으로 진행되면서 철도 주변의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이 이어졌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저항이 적지 않았다. 1904년 4월 18일 진위군 이북면 하북리에서 일본인 인부와 주변 마을 주민간의 갈등으로 싸움이 일

5)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 I , 평택문화원, 2005, 143쪽.
6) 『평택시사신문』, 2015. 11. 25. ‘경부선 110년 평택역 110년, 평택을 변화시키다’
7)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토지조사부」
8) 평택문화원, 『2019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2019. 480~481쪽.

어났다. 이어 5월 1일에는 진위군 군속이 역부 십장 이학수를 구타했다는 이유로 일본인 인부 10여 명이 한국인 인부 67명을 이끌고 관아를 습격하여 옥에 갇힌 죄수를 풀어주고 길가는 주민들을 구타하였다. 또한 8월에는 인부 모집일로 일제가 진위군수에게 호(戶)마다 1명씩 뽑아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방이 이를 기회로 중간에서 협잡하여 인부의 임금을 갈취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군민들이 봉기하여 이서배(吏胥輩)의 집 7호(戶)를 부숴버렸다. 경부선 철도가 개통된 후에도 저항은 계속되었다. 즉 1907년 9월 10일자 『대한매일신보』에는 병점역에서 동북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오산역과 진위역을 습격하기 위해 의병 700명이 집결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여러 갈등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1905년 1월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었고 평택 지역에는 진위역, 서정리역, 평택역이 설치되었다. 1908년 조선통감부철도관리국이 편찬한 『한국철도노선안내』 책자 59~62쪽에는 평택역, 서정리역, 진위역이 소개되어 있다.



『한국철도노선안내』 책자에 소개된 진위역

이 중 진위역 주변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 振威驛(부산으로부터 236哩 13鎖)
> 진위군 진위에 있고 文祿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의 古戰場이다. 지세가 평탄하고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다. 남쪽으로 멀리 평택의 비옥한 들판이 이어진다. 부근에 진위천(일명 龜川)이 있으나 수심이 얕고, 서쪽으로 약 3里 아래인 黃口浦에 이르러 비로소 배가 다니기에 편리하다.

진위역을 소개하는 이 글에서는 철도 외의 교통로로 황구포(黃口浦)가 등장하고 있다. 황구포는 대동여지도에 항곶포(亢串浦)로 표시되었다. 이 나루는 지금의 안성시 양성면에서 화성시 향남면으로 이어지는 길목이었으며, 서해안의 어물이 내륙으로 유통되는 관문역할을 하였다. '바닷물이 황구지까지 올라왔다.' 는 아랫성뒤 마을 이재정(1939년생)씨의 기억은 위의 기록 내용과 일치된다. 항곶포는 대동여지도 이전의 기록인 『여지도서』, 『진위현읍지』(1843), 『양성군읍지』(1843), 『진위군읍지』(1899) 등에도 기록될 정도로 교통과 물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황구포(항곶포)는 아산만의 어물이 내륙으로 유통되는 중요 경로가 되었으나 진위역과는 거리가 멀어 물류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위역 개설이 계획된 것은 무엇보다 당시 봉남리가 진위현의 읍치였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위역이 세워지고 이후 1번 국도가 닦이면서 진위현 관아가 있었던 봉남리와 하북리 사이의

도로도 정비되었다. 또한 하북리에서 사리 쪽으로 이어지는 마차길도 이무렵이 었을 것으로 보인다. 진위역이 설치되면서 하북리는 인근 지역의 교통 중심지로 새로이 부각되었으나 진위역은 곧 폐쇄되었다.

진위역의 폐쇄 시점은 정확하지 않다. 앞서 살핀『대한매일신보』의 기사를 참고하면 1907년 9월까지는 진위역이 운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위소학교 직원이었던 인물이 쓴『진교일기』의 1908년 12월 22일자(음력)에는 '구(舊) 진위역'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9] 이에 앞서 9월 3일(음력)에는 학생들의 모자를 구하러 서울을 가기 위해 오산역에 가서 기차를 타는 장면이 있다.[10] 그렇다면 1907년 9월~1908년 12월 사이에 진위역이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크다. 1912년에 작성된 지적도에 의하면 진위역의 전제 부지가 현재 진위역의 남쪽으로 길게 있었다.

(2) 전철 1호선 진위역

진위역 전경

진위역 준공식(사진출저: 이길수)

① 진위역 유치 과정

진위역 준공식에 참여한 내빈 (사진출처: 이길수)

진위역 준공식에 참여한 주민들 (사진출처: 이길수)

1974년 8월 15일 최초로 개통된 지하철은 수원까지 운행되었다. 2005년 12월에 전철 1호선이 천안까지 연장되었으나 진위역은 2006년에 60월 30일에 개통되었다. 진위역이 이렇게 늦게 개통된 이유는 처음 천안까지 연장 계획이 세워질 때 진위역 설치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9) 평택문화원,『진교일기』, 2020, 99쪽. "오전 10시에 학도(學徒)들을 인솔하고 진위 구 정거장에서 가서 지영(祗迎)하였다. "

10) 평택문화원,『진교일기』, 2020, 57쪽. "학도들의 모자를 사거 가려고 오전 11시에 오산 정거장에서 차를 탔더니 …… "

1992~3년 무렵 진위면민들이 진위역 유치를 위한 서명 작업을 벌였다. 이 서명 작업은 당시 진위면 이장협의회장인 이용익씨와 새마을지도자회 회장인 우종갑(남, 1938년생)씨 등이 주도하여 서명 받은 결과물을 철도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남쪽의 송탄역이 가깝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두 번을 반려 받았다. 그러던 중 1994년 무렵 허남훈씨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평택에 왔고 우종갑씨는 허남훈의 선거를 돕기로 했다. 그 해 6~7월쯤 하북4리에 행사가 있어 진위면이 주요 인사들과 허남훈씨가 참석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우종갑씨는 허남훈씨를 모시고 철도청을 방문하자는 제한을 하여 당시 하북4리 새마을지도자인 이용춘과 함께 허남훈씨를 모시고 철도청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래서 세 명이서 진위면민들이 서명한 결과물을 갖고 철도청을 직접 방문하여 진위역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철도청 차장의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왔다. 이후 진위역 설치가 확정되었다.

수원~천안구간 5개역 신설

99년 전철복복선 개통…역세권 형성

경기도는 99년말 개통돼는 수원~천안 복복선 전철구간에 5개 전철역을 신설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그림>

경기도는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이 개통되면 주변 개발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역세권 형성을 위해 이같이 신설키로 했다.

새로 생기는 역은 ▲세류역(수원~병점역 사이) ▲죽미역(병점~오산역 사이) ▲하북역(오산~송탄역 사이) ▲지제역(서정리~평택역 사이) ▲두정역(평택~천안역 사이)등이다.

도는 이들 5개 신설역 가운데 99년 개통 이전까지 세류역·두정역 등 2개역을 신설하고 나머지 죽미역·하북역·지제역 등 3개역은 개통 이후에 건설키로 했다.

<權純億기자>

진위역 신설 보도(『경향신문』,1995.7.26.)

그리고 이듬해 4월 11일 총선에서 허남훈씨가 평택 을구에 자민련으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996년 7월에 우종갑씨는 허남훈씨에게 진위역 설치 결정만 해놓고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을 했다. 이에 허남훈씨가 서두르게 되었고, 결국 예산이 확보되어 진위역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

진위역 공사가 진행되어 완공될 무렵 진위역 유치에 대한 표창 수여 문제가 거론되었다. 당시 여기에 관여한 인물들이 모여 논의를 한 끝에 우종갑씨를 진위역 유치에 대한 공로 표창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개통식이 열리는 날 표창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진위면사무소 측에서 공적조서를 올리지 않아 표창 수여는 시행되지 않았다.

② 진위역의 규모와 이용객

진위역

진위역삼거리

2006년 6월 30일 개통된 진위역사는 같은날 개통된 지제역과 더불어 평택시와 한국철도공사가 2002년 11월부터 사업비 354억원을 투입해 각각 지상 2층 연면적 2천여㎡(600여평) 규모로 공사에 착수하여 3년여 만에 완공했다. 진위역사는 에스컬레이터 6대와 승강기 4대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진위역 앞 육교를 설치하는 데는 15억원이 들었다.[11]

2006~2020년 동안 진위역의 일 평균 이용객은 아래와 같다.

진위역 일 평균 이용객(자료출처 :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 수송통계 자료실)

연도	이용객(명)	연도	이용객(명)	연도	이용객(명)
2006	1,445	2011	2,766	2016	3,196
2007	1,832	2012	2,827	2017	3,282
2008	2,239	2013	2,926	2018	3,243
2009	2,450	2014	3,095	2019	3,233
2010	2,498	2015	3,101	2020	2,288

(3) 국도 1호선

하북리의 교통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것은 철도역에 뒤이어 개설된 국도 1호선의 개설이다. 곧 폐지가 되었지만, 경부선 철도 부설 초기에 설치된 진위역이 기존 도로의 1차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봉남리에서 진위역까지의 길이 새로 닦였고, 이어 하북리에서 사리로 이어지는 길[12]도 이때 마차가 다닐 정도로 확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후 일제는 식민지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 사업으로 한국시정개선사업(韓國施政改善事業)을 추진하였으며, 그들 본국과의 교통 편의를 위한 도로개수사업(道路改修事業)을 가장 우선하였다.[13] 당시의 도로 개수는 주로 내륙과 항구를 연결하여 장차 침략과 수탈을 위한 예비 작업이었다. 1906년 도로개수 업무를 담당할 치도국(治道局)이 신설되었고[14] 도로공사비 1,496,000원을 1차로 투입하여 7개년 계속사업으로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였다.[15] 1911년에는 조선총독부가 ‘도로규칙’을 발표하면서 도로의 표준이 제시되었다.[16] 도로규칙에 의하면 전국의 도로가 1등, 2등, 3등, 등외 도로로 나뉘었다. 1등도로는 폭 7m, 부지 폭 10m, 기울기 1/30 이하이며, 수도에서 지방 최고 행정청 소재지, 긴요한 개항장 등을 연결한 도로이다. 2등 도로는 폭 5m, 부지 폭 7m이며, 인접하는 지방 최고 행정청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3등 도로는 3m, 부지 폭 4m로 부(府), 군(郡), 도(島) 청사 사이와 중요지점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이다.[17] 평택 지역을 통과하는 간선 도로는 국도 1호선과 38호선, 45호선 및 서평택을 남북으로 지나는 39호선이었는데, 하북리는 국도 1호선이 통과하게 되었다. 이로

11) 『연합뉴스』, 2006. 6. 27.
12) 이 길은 진위역 서쪽에서 사리쪽으로 연결되었으며 마차가 지나다닐 정도의 넓이였는데, 경지정리가 되면서 사라졌다.(하북1리 이정재씨 인터뷰)
13) 한국시정개선사업의 주된 내용은 금융기관 정리, 도로 및 관개시설의 확충, 궁방전 정리, 항만 개설 등이었다.(소두영, 「한말·일제초기(1904~1919) 도로건설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10쪽.)
14) 『대한매일신보』 1906.4.25.
15) 한국도록공사, 『한국도로사』, 181쪽.
16)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관보』제187호, 1911.4.17.
17) 도도로키 히로시, 「20세기 전반 한반도 도로교통체계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45쪽.

써 조선시대까지의 간선 도로인 삼남대로에서 비켜 있던 하북리는 인근 마을 중에 교통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917년까지 마무리된 1차 치도 사업 구간에 하북리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1922년 지도에 표시된 점으로 보아 1920년 전후하여 도로가 개설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진위역과 아랫성뒤 마을 사이를 지나는 현재의 국도1호선

국도 1호선이 개설되자 하북리는 급격하게 확장되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 국도 1호선은 서울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그래서 수원이나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들이 1번 국도변인 하북리를 지났다. 하북리에 시외버스가 정차하여 봉남리나 가곡리 뿐만 아니라 서탄면 사람들도 하북리까지 와서 버스를 탔다. 서탄면 금암리 및 사리 쪽과 봉남리 방향에서 국도 1호선과 만나는 지점이 하북리 일원이 됨으로써 이곳은 인근 지역에서 도로교통의 중심으로 부각되었다.

(3) 도로망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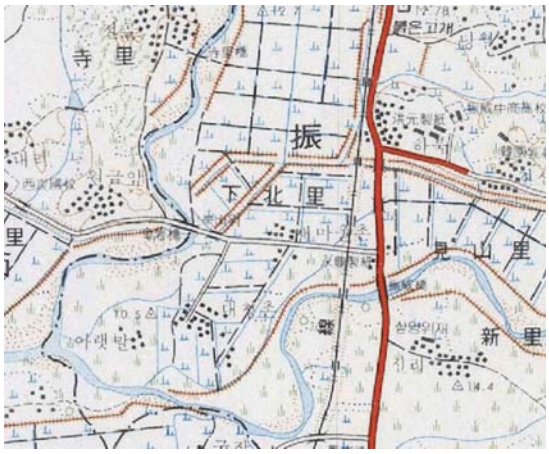
1922년 하북리 주변의 교통로

6차선 확장(신리~하북리)
공사 안내판

일제 강점기에 개설되었던 근대 도로는 1970년대 초반까지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 1973년 국도 1호선의 확장과 포장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도로 보수를 위하여 국도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동원되었다. 은산 4리에 사는 우종갑(1939년생)씨는 6·25 전쟁 직후인 13세 때 형님과 함께 은산리에서 국도 1호선까지 3∽4km를 걸어가 지게로 자갈을 날라다 도로에 까는 작업을 했다. 당시 구장이 보수할 구간을 정하여 집집마다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위면 29개 마을 주민 전체가 도로 보수에 동원되었다. 자갈은 견산리 한승아파트 옆 채석장이나 진위천에서 가져갔다. 1973년 길을 넓히고 구부러진 구간은 가급적 반듯하게 하면서 포장을 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때 하북리 앞 국도변에 지어진 집들이 헐리고 이곳 주민들의 일부는 새마을촌으로 이주하였다. 국도 1호선은 1990년대 초반 4차선으로 넓혀지고, 2006년 진위역이 개설되면서 역 앞이 6차선으로 확장되었다. 현재는 송탄 쪽에서부터 하북리까지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 공사는 진위역 남쪽까지만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하북1리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 하북4리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이 마을 이장인 이길수씨는 주민들의 청원으로 이 육교가 설치되면서 15억원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도로 확장으로 다시 헐리게 되었다고 하였다.

1970년대부터 국도 1호선 뿐만 아니라 하북리 각 마을과 인근 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망의 체계도 크게 바뀌게 되었다. 진위역 북쪽에서 서탄면 사리로 이어졌던 길은 1972년 농지정리가 되면서 현재의 사리입구삼거리 쪽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후 2차선으로 확장되었고, 2000년 하북리에서 국도와 철길을 넘어 방꼬지길로 이어지는 사리고가교가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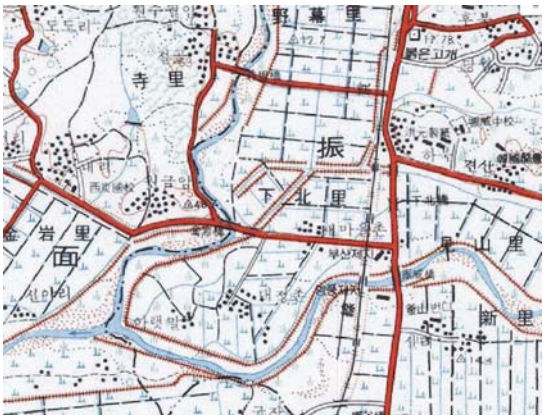
서탄면 금암리로 이어지는 서탄로는 1978년에 포장되면서 2차선 도로가 되었다. 오산천을 넘어 금암리로 이어지는 다리는 일제 강점기에 놓인 목교(木橋)였다. 이 다리는 오산천의 물이 흐르는 40∽50m 길이였고 양쪽 하천변은 다리 높이의 흙길이었다. 다리의 색깔이 검어서 ‘거먹다리(까막다리, 꺼먹다리)’로 불렸고, 상판(上板)은 시멘트였다. 다리는 홍수에도 견뎠지만 양쪽의 길이 낮아 자주 유실되었기 때문에 1970년대 초반에는 흙을 쌓아 제방 형태로 높여서 다리와 연결하였다. 1978년 도로가 포장되면서 지금의 금암교가 놓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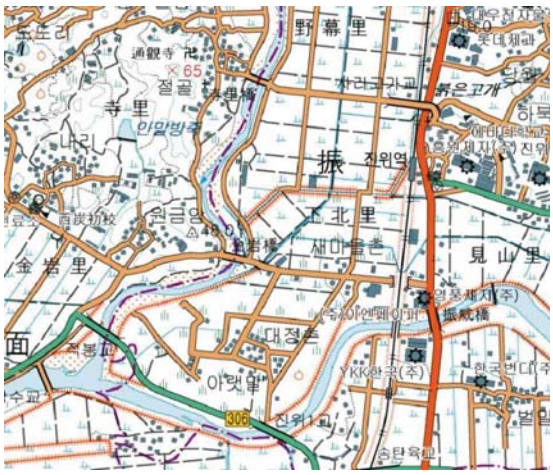
1960년대 도로망

1970년대 도로망

1980년대 도로망



1990년대 도로망



2000년대 도로망

2015년도 도로망

봉남리쪽으로 이어지는 진위서로는 당시 합승버스 1대가 겨우 다닐만한 정도의 넓이였다. 도로 옆에서 이발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승권(1961년생)씨는 이 길이 1970년대 후반에 길을 넓히고 포장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7~8년 전에 4차선으로 확장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01년에는 야막리에 국도 1호선과 연결되는 육교가 만들어지면서 야막리에서 대정촌까지 이어지는

2차선 도로가 완성되었다. 이후 2006년에는 대정촌에서 신장동으로 연결되는 진위1교가 놓여졌으며, 이 마을 남쪽 제방을 따라 오산천 건너 서탄면으로 통하는 적봉교가 건설되었다.

4) 지명

하북리의 지명은 전해지는 것이 몇 개 되지 않는다. 하북1리인 뒷성재 정도가 오래된 이름이며, 일제 강점기 이후 분동된 마을명 정도가 있을 뿐이다. 『조선지지자료』에도 하북리의 지명은 거의 기록이 없다. 다만 1902년데 작성된 광무양안에 마을과 들판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 이름이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아서 정확한 장소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지역 명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하북리 옛지명	자연마을	아랫성뒤 [下北]	아랫성뒤는 하북1리를 가리키는 마을명이다. 가곡3리인 후북리를 '성뒤' 라고 하는데, 이는 '견산리산성 뒤 북쪽 마을' 이라는 의미이다. 하북리는 『호구총수』에 비로소 기록에 등장하는데, 아랫성뒤는 성뒤의 아랫마을이라는 뜻으로 파악된다.
		대정촌 (大正村)	'대정(大正)' 은 1912~1926년 사이에 재위했던 일본 국왕 요시히토[嘉仁] 재위 시기의 연호이다. 일본 국왕의 연호가 그대로 마을 이름이 되었다면 여기에는 일본인들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 마을에는 1920∽30년대부터 일본인 3명이 거주하였다.
		새마을촌	원래 하북2리 대정촌에 속했던 지역인데, 1973년 마을이 조성되면서 새마을촌이라고 이름지었다. 늦게 형성된 만큼 이주민이 많은 마을이다.
	들	황새기들	현재 홍원제지가 있는 터의 옛 이름이다. 이곳은 큰 웅덩이가 있고 그 가운데 향나무가 있었다. 마을에 구전으로 전승되는 이야기에는 옛날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이곳에서 황새기 젓갈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황새기들로 이름지어졌다고 한다. 1972년 홍원제지 회사가 들어섰고 이 회사 마당 서쪽에 수령이 오래 된 향나무가 있다.
		마름웅덩이	지금의 송탄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 자리에 있었던 큰 웅덩이 이름이다. 1970년대 초반까지 대정촌 들판에 물을 대는 역할을 하였다.
		장호들 [長好坪]	견산리와 진위천 사이의 넓은 들판이다. 지금은 장안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광무양안에는 장호들과 장안들이 구분되어 있다. 장호들 서쪽 국도 1호선 부근이 장안들로 추정된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견산리에 속한다.
		오정보들	대정촌 동쪽 들판 이름이다. 일제 강점기 5정보에 해당하는

지역 명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간척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깊은데	대정촌 남쪽 들판 이름이다. 이곳의 지대가 좀 낮아서 도랑을 통해 물을 댈 수 있어서 논농사를 지었다.
	산	쪽박산	하북리 들판의 서쪽 끝 오산천 옆에 있다. 옛날에 큰 홍수가 났을 때 물에 떠내려오다가 이곳에서 멈추었다는 전설이 있다. 지금은 산을 깎아내고 임대를 주는 조립식 주택이 여러 채 있다.
	하천	앞냇갈	대정촌 주민들이 이 마을 남쪽 진위천을 부르는 이름이었다.
	보	마름웅덩이뒷보	현재 송탄농협산지유통센터 북쪽의 창갈천을 막아 마름웅덩이로 물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 초반에 시설농업이 본격화 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연못	마름웅덩이	마름웅덩이뒷보에서 물을 끌어들여 대정촌의 논에 관개를 위해 조성된 웅덩이로 200평 정도의 넓이였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도랑을 파서 대정촌북쪽, 오정보들 서쪽 논과 대정촌 남쪽 깊은데 논에 관개를 했다.
	다리	거먹다리	현재 금암교가 놓인 자리에 있었던 다리이다. 일제 강점기에 놓여진 목교(木橋)인데, 표면이 검은 색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까막다리 또는 꺼먹다리로도 불리었다.
		세간다리	새마을촌 동쪽에 관개를 위한 도랑이 있었는데 이 도랑을 건너는 작은 나무다리이다.
	광무양안에 등장하는 하북리 들판 지명들		방평(防坪), 선가리(先加里), 건달수평(乾達水坪), 금심평(金尋坪), 두남리평(斗南里坪), 목장동(木長洞), 은야평(銀夜坪), 녹장평(鹿場坪). 서전평(西田坪), 장호평(長澔坪), 장안평(長安坪), 신장리월천성북전평(新場里後越川城北前坪), 궁평(宮坪), 석교평(石橋坪), 선산평(善山坪), 통미하평(通味下坪)
하북리 현대지명	도로	경기대로	하북리를 지나는 국도 1호선 도로명이다. 경기대로는 경기도 평택시 유천동 안성천교와 화성시 반정동 비상활주로 구간을 이르는 이름이다. 전 구간 국도 제1호선에 속한다.
		진위서로	봉남리 진위면 행정복지타운 남쪽 4거리에서 하북리 진위역삼거리 사이의 길이다.
		망꼬지길	하북4리 사리교차로부터 오산천을 건너가는 사리교까지의 길이다.
		서탄로	서탄입구삼거리에서부터 서탄면 내천리에서 발안로와

지역 명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만나는 지점까지의 길이다. 하북3리 새마을촌의 남쪽을 지난다.
		하북2길	새마을촌 4거리에서 대정촌 남쪽을 돌아 마을회관 앞을 통과하여 서탄로에 이르는 길 전부를 가리킨다.
	교차로	하북삼거리	하북리에서 국도 1호선과 봉남리로 이어지는 길이 만나는 남쪽 삼거리이다.
		진위역삼거리	진위역앞에서 봉남리로 이어지는 삼거리로 하북삼거리 바로 북쪽에 있다.
		서탄입구삼거리	국도 1호선과 서탄로가 만나는 지점이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견산리에 속한다.
		사리교차로	국도1호선에서 에바다학교로 들어가는 길이 만나는 지점이다. 사리육교 밑으로 가곡리 들어가는 길이 있다.

2. 역사적 환경

1) 행정구역의 변화

하북리는 진위현 관내의 작은 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대로에서 벗어나 있었고, 규모 또한 작았기 때문에 조선 후기 이전의 문헌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이전의 역사에서 하북리를 보려면 진위현에 대한 내력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진위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의 “본래 고구려(高句麗) 부산현(釜山縣)이었는데 경덕왕(景德王)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까지 그대로 따른다.”의 내용이다.[18] 또한 『고려사』에는 좀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 진위현(振威縣)은 본래 고구려(高句麗)의 부산현(釜山縣)[옛 연달부곡(淵達部曲)으로, 금산현(金山縣)이라고도 하고, 또한 송촌활달(松村活達)이라고도 한다.]으로,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 때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수성군(水城郡)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고려(高麗)에 이르러 그대로 수주(水州)에 소속시켰다. 명종(明宗) 2년(1172)에 감무(監務)를 두었고, 뒤에 승격하여 현령관(縣令官)이 되었다.[19]

이 기록은 조선 중종 때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조선 후기의 읍지(邑誌)까지 ‘진위현’ 연혁의 기본 내용이 되었다. 이 기록과 같이 진위현은 수주의 영현(領縣)이며 양광도에 속하였다. 진위현 주변으로는 천장부곡(현 서탄면), 송장부곡(현 서정동, 이충동 일대), 종덕장(현 고덕면) 등 특수 행정구역이 설치되었다.

조선 건국 후 본래 충청도에 속했던 진위현을 태조 7년(1398)에 경기좌도로 옮겼다가 경기좌·우도

18) 『삼국사기』권 제35, 잡지 제4, 지리
19) 『고려사』권56, 지 권제10, 지리

가 경기도로 개편된 뒤에는 경기도에 속하여 현재에 이른다. 세종 6년(1424)에는 수원 관내의 송장부곡 87호(戶), 부산(釜山)과 청호역의 59호, 용인현과 의신현의 6호를 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라 하여 진위현에 붙였다.[20] 그리고 세종 15년(1433)에는 수원부의 속현인 영신현을 같은 이유로 진위현에 편입시켰다.[21] 이렇게 하여 전체적인 골격이 갖추어진 진위현은 1914년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고려시대와는 달리 조선에서는 면리제(面里制)가 실시되어 각 군현은 읍치를 중심에 두고 여러 개의 면(面)을 편성하였다. 진위현의 면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영조 때 편찬된『여지도서』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마산면(馬山面), 성북면(城北面), 서면(西面), 탄현면(炭峴面), 송장면(松庄面), 여방면(餘方面), 병파면(丙坡面), 성남면(城南面), 고두면(古頭面), 현내면(縣內面) 등 10개의 면이 있다. 이때 하북리는 성북면에 속하였으나 이 마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규모가 아직은 독립된 마을로 파악될 정도는 아니라는 당시의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이후 정조 때인 1789년에 편찬된『호구총수』에는 성북면이 일북면과 이북면으로, 서면이 일서면과 이서면으로, 탄현면이 일탄면과 이탄면으로 각각 나뉘어져 13개의 면으로 기록되었다.『호구총수』에 비로소 하북리가 등장하고 있는데, 가곡리, 후북리, 견산리와 더불어 이북면에 편성되었다.

1895년 23부제가 실시되면서 기존의 부·목·군·현이 모두 군으로 통일되는데, 이때 진위현도 진위군이 되었고 현내면이 군내면으로 바뀌는 등 일부 면 명칭의 변화가 있었다. 1914년에는 지방 행정구역이 대폭 통폐합되면서 지금의 진위면 골격이 갖춰졌다. 이때 진위군 전체와 양성군 및 수원군의 일부가 진위군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군내면(현내면), 일북면과 이북면 전체와 이서면·이서면·마산리의 일부 지역이 합쳐져서 북면(北面)이 되었다. 1949년 지역 주민들의 발의로 북면의 명칭이 진위면으로 바뀌게 되어 지금까지 이어진다.

토박이들에게 아랫성뒤라고 불리는 하북리는 조선 시대까지는 단일 마을이었다. 1910~20년대 대정촌이 형성되었고, 1973년 새마을촌, 1987년에 아랫성뒤인 1리에서 4리가 분동된 이후 현재의 4개 마을 체제가 갖추어졌다.

2) 역사적 경험

(1) 6·25 전쟁과 1970년대 반공연맹위원 활동에 대한 기억

아랫성뒤 마을의 이정재(남, 1938년생)씨는 이 마을 광주 이씨 입향조의 12대손이다. 해방되던 해 만 6세였던 그는 일본군이 국도 1호선을 따라 말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고, 말 타고 내려가는 일본인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가 진위국민학교 4학년 재학 중에 6·25 전쟁이 났다. 전쟁이 나던 날 그의 집안에서는 모내기를 하고 있었다. 하북 3리 새마을촌 쪽에 있는 논에 일꾼들이 잔뜩 모여 모내기를 시작하고 어린 그는 못단을 나르는 심부름을 하고 있었다. 막 일을 시작할 무렵에 동네 사람이 와서 전쟁이 났으니 다들 나오라고 해서 모내기는 중단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모침을 풀러서 논에다 어린 모를 뿌렸다. 곧이어 비행기 폭격으로 하북다리가 끊기고 했는데도 그 또래 아이들은 무서운 것도 모르고 들판 참외밭으로 참

20)『세종실록』24권, 세종 6년 4월 21일.
21)『세종실록』60권, 세종 15년 6월 23일.

외를 따먹으러 다니곤 했다.

이정재(남, 1939년생)

인민군이 마을에 들어오기 직전에 그의 집안은 할아버지를 포함하여 다섯 식구가 우선 필요한 짐을 싸서 서탄면 황구지 마을로 피난을 갔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마구 밀려들어 아무 집이나 막 들이닥쳤다. 이정재씨 가족은 방을 얻을 수가 없어 소 외양간을 겨우 얻어 소 배설물을 모두 치우고 바닥에 멍석을 깔고 지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내다가 돌아왔다.

돌아와서는 인민공화국 치하에서 생활했다. 어른들은 인민군들의 제지를 받아 맘대로 다니지 못하고 숨어서 다니기도 했지만, 북에서 내려온 인민군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이른바 ‘동네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였다. 어린 이정재씨와 그 또래들은 인민군들을 보고도 겁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인민군들은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노래를 가르쳤다. 그는 그때 들었던 노래의 한 대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가사는 다음과 같다.

>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국, 오날도 자유 조선 꽃다발 위에, 역력히 비춰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유독 이 노래를 기억하는 것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아이들끼리 장난삼아 가끔씩 부르곤 했기 때문이다.

나이가 어렸던 그는 인민군 치하에서의 다른 상세한 일까지 잘 알지는 못하였다. 다만 가족끼리 피난을 갔던 일들은 그가 직접 경험했던 일이라 상세히 기억하였다. 1·4후퇴 때는 그의 큰아버지 댁이 있는 천안시 직산면 자은가리[22]로 피난을 갔다. 당시 이 마을에서 연세 많은 노인분들이나 환자인 경우인 몇몇 사람은 피난을 갈 수가 없었다. 이정재씨 집안에서도 연세 많은 할아버지를 두고 마차에 짐을 싣고 피난을 떠났다. 그의 가족은 마차에다 짐을 싣고 갔는데, 마차가 없는 마을 사람들 7~8명이 함께 하였다. 국도 1호선 쪽으로는 무서워서 못 가고 은산리-도일리-동삭동 쪽으로 이어진 길을 이용하였다. 당시 길 사정이 나빠서 마차가 넘어져 땅바닥에 떨어진 피난짐을 다시 실어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하루를 꼬박 갔는데도 평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느 민가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다. 피난민이 방에 꽉 차서 나이가 어려 체구가 작은 이정재씨는 방안에 있는 재봉틀 밑에서 잠을 자며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에야 큰아버지 댁에 도착할 수 있었다.

피난가서 며칠 안 되어 집에 홀로 계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께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안 오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어린 이정재씨를 데리고 하북리로 왔다. 평택까지는 걸어서 왔고, 평택에서부터는 무슨 차를 타고 온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국도쪽은 경비가 삼엄하여 엄두를 못 내고 피난 갔던 길을 다시 그대로 이용하였다. 공교롭게 같은 마을에 살았던 서주사라는 노인도 이 때 할아버지와 며칠 차이로 돌아가셨다. 서주사네는 국도 1호선 옆에 살았고, 집 옆에는 밭이 있었다. 전쟁통이라 정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서주사네 옆 밭에다 관도 하지 못하고 가매장을 하였다. 완전히 수복된 후에 다시 장례를 치르고

22) 현재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자은가리’이다.

마을 뒤 산에다 안장하였다.

이정재씨는 그의 나이 30대 초반인 1970년 무렵에 반공연맹에서 활동하였으면서 진위면 위원장을 지냈다. 당시 진위면에는 50명 정도의 반공연맹위원이 있었다. 반공연맹 위원들은 양주군 구리면에 소재한 교육장에서 1주일씩 반공 교육을 받았다. 전국에서 모여든 반공연맹위원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맑스, 레닌 등이 주장한 공산주의 사상을 비판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정재씨도 이곳에서 반공 강사 교육을 받은 후 반공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당시 평택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판문점 등 전방 견학을 인솔하는 일이 많았다. 1976년 8월 18일 이른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 발생한 날, 사건 직후에도 견학을 했다. 판문각 가운데가 경계인데, 건물 안에서도 남북 경계선을 넘을 수가 없었다. 그가 자주 인솔을 했기 때문에 혹 사진촬영을 하다가 잠시 경계선을 넘어도 낯익은 북한 경비병이 이것을 눈감아 주기도 했다. 또한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공 교육 강사 활동도 하였다.

그는 반공연맹 활동을 여러 해 했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2) 매일유업 회사원

이길수(남, 1952년생)

하북1리 아랫성뒤 현 이장인 이길수(남, 1952년생)은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논이 60~70마지기, 밭이 3~4천평 이상 되는 중농이었다. 그러나 그가 진위국민학교 재학 중에 아버지께서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전 재산을 잃었고, 어머니께서 두부를 만들어 팔아 가계를 유지했다. 두부는 하북리 뿐만 아니라 견산리, 가곡리까지 배달로 팔았다. 그런데도 장남인 그는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친 후 대학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하였다. 제대 후 모형 비행기를 파는 가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2년쯤 다니다가 매일유업에 취업하여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때 나이가 28세였다.

처음 입사할 때 전체 직원이 400~500명 정도 되었는데, 그는 낙농과에서 일했다. 당시에는 젖소 가격이 매우 높아 개인은 구입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회사가 뉴질랜드 같은 곳에서 젖소를 수입하여 낙농을 희망하는 농가에 담보를 잡고 분양하였다. 송아지는 인근 지역 뿐만 아니라 멀리 서산, 예산, 음성 등 먼 지역까지 분양되었다. 낙농과는 젖소 송아지를 분양받은 민가에서 소를 잘 키우고 있는지 파악해서 회사에 보고하는 업무와 우유를 잘 내게 하는 일종의 기술지도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그는 낙농과의 업무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평소에 기계 쪽에 관심이 많아 통사정을 하여 공무과로 업무를 옮겼다. 공무과에서는 지금과 똑같은 종이 우유팩에 우유를 담는 기계인 충진기를 정비하는 일을 하였다. 충진기는 길이가 4~5m 정도 되고 구조도 매우 복잡하였다. 공고가 아닌 인문계고 출신인데도 기계를 고치는 그의 능력은 회사에서 인정할 정도가 되었다. 그는 이 기계를 완전히 분해하여 조립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충진기는 외국산이어서 고장이 나면 부품을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부품 가격이 만만치 않게 비쌌다. 그는 부품의 열처리 정도나 수치를 잘 관리하여 국내 업체에서 부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많은 비용 절감을 하게 되었다.

그는 기계에 이상이 생기면 기계를 놓고 여러모로 관찰하면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냈다. 1980년대 낙농 농가에 냉장 탱크를 설치하고 수거용 차량의 탱크로 우유를 호스로 옮길 때 계량하는 기계가 도입되었다. 차량에 설치한 이 기계는 당시 가격으로 1,500만원으로 매우 비쌌다. 그는 겁도 없이 그 기계를 뜯어보았다. 작은 톱니바퀴가 수없이 많아 도저히 재조립이 불가능하였다. 그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그 부품들을 바닥에 깔아놓고 팔장을 낀채 보름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조립에 성공하였다.

당시 근무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는데, 보통 2~3시간 정도는 연장 근무를 했다. 아주 바쁠 때는 집에도 못 가기도 하는데, 언젠가는 보름 동안 집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9년 동안 매일유업에서 근무하다가 1988년에 퇴직을 하고 서울 학동에 가서 모형비행기 가게를 열었다. 그러나 장사가 안 되어 10개월 쯤 하다가 접고 다시 매일유업으로 왔다. 회사측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는 퇴직시 봉급에서 10호봉 인상을 요구했다. 당시 1호봉 차이가 5~6천원 정도 했는데, 그의 기술을 인정한 회사측에서 그의 요구를 수락하였다.

그는 기계뿐만 아니라 영어도 좋아해서 평소 꾸준히 공부하였다. 그러다가 회사원들이 함께 응시했던 토익 시험에서 회사 전체에서 4등을 할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당시 매일유업에서는 이유식을 제조하는 기계를 도입할 계획이 있어서 외국어를 잘하는 기술자가 필요했다. 영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그는 다른 기계 운전 기술자들과 함께 독일에 파견되었다. 당시 매일유업이 일루파라는 독일회사와 기술제휴를 맺고 있었다. 독일로 건너가 약 6개월 정도 있으면서 유럽 각국을 돌며 이유식 제조 기계 장치를 직접 보고 선정하고 독일의 설치 기술자들과 함께 귀국하였다. 이 기계 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시키는 일명 ‘일루파 프로젝트’를 마친 후 그는 스텐레스 탱크 만드는 부서로 옮겼다. 회사에서는 ‘당신을 위한 부서를 하나 만들어줄테니 가지마라.’고 말렸지만, 그는 원래 계획대로 충남 영인면에 있는 탱크만드는 부서의 생산과장으로 갔다. 그러나 탱크 만드는 일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여 1993년도에 퇴직을 하였다.

(3) 점원에서 자영업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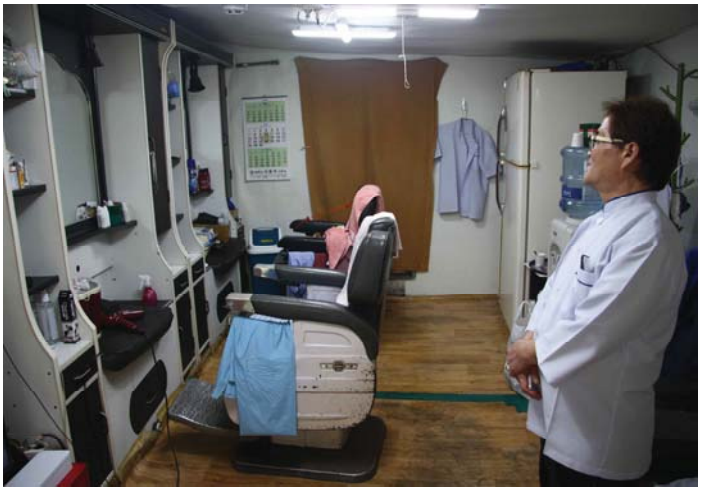
한승권(남, 1961년생)

한승권(남, 1961년생)씨는 가곡리에서 5형제 중 셋째로 태어나 진위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이용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북이 고향인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 전에 18세의 나이로 월남을 했다. 북한에서 군인으로 끌려가려 해서 그의 할아버지가 서둘러 월남시켰다. 북한에서 꽤 부유했던 그의 할아버지는 소를 팔아 마련한 돈을 손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월남했던 그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사기꾼을 만나 투자를 했다가 돈을 몽땅 날리고, 6·25 전쟁 후 8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가곡리에 정착하였다. 그러나 어떤 연유로 가곡리에 왔는지는 자식들에게 일러주지 않았다. 뒤늦은 30대에 이발을 배우신 그의 아버지는 이발소 종업원으로 평생을 일했다.

형 두 명이 있지만 모두 객지로 떠났기 때문에 한승권씨는 장남을 대신해야 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머리깎는 기술 배우기를 권하였고, 그 역시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였다. 진위초등학교 졸업식이 1974년 2월인데, 그는 졸업식 전인 1973년 11월부터 종업원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6학년 2학기 마지막 1달 정도는

학교를 가지 못했다. 그 당시 이발소는 지금의 하북농협 자리에 있었던 협동이발관이었다. 협동이발관 주인은 종업원 때부터 계속 일했던 한승권씨에게 자신의 이발관을 물려줬다. 그가 처음 이발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이발 요금은 어른이 120원, 아동이 60원이었다.

가곡리에서 논길 사이를 걸어서 이발소까지는 30분 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매일 아침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7시까지 도착해서 난로를 피우고 현재 마을회관 앞 두레박 우물에서 물을 떠다 채워놔야 했다. 당시 난로는 조개탄을 연료로 썼다. 당시 이발소에는 면도사 여자 1명, 남자 기술자 1명, 사장님 1명, 그리고 잔심부름 하는 한승권씨 이렇게 4명이 근무하였다. 이발소 영업 시간에 그의 주된 업무는 머리를 감기는 일이었다. 하루 종일 일하고 9시가 되어야 퇴근했다.


용문이발관 내부

이발 기술은 공식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 어깨너머로 배워야 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머리만 감긴 후 면도칼 가는 것을 배웠다. 칼을 어느 정도 갈 줄 알면 면도를 배운다. 면도만 1년 정도 하고 나면 드라이를 하며 머리 다듬는 법을 가르쳐 준다. 면도를 배우기 시작한 후 3년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바리캉으로 머리 깎는 것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과정으로 가위를 잡기까지 걸린 시간이 6년이 걸렸다. 즉 종업원으로 들어간 후 6년만에 처음으로 가위를 잡은 것이다. 그의 실습 대상은 학생들이었다. 당시 학생들은 빡빡머리가 원칙인데, 이따금 머리가 길어서 오는 학생들이 있으면, 바리캉으로 스포츠머리, 상고머리 등을 시도해 보았다. 학생들이 많아서 실습할 기회가 많았다. 이발을 모두 배운 후 서울 한양공업고등학교에서 필기시험을 보려고 하루 전인 1979년 10월 25일 서울 신당동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시험 당일 1979년 10월 26일 10·26 사태가 일어나 시험이 연기되었다. 11월에 다시 필기시험을 치르고 남산동 정화고등기술학교에서 실시한 실기시험에도 합격하였다.

종업원으로 들어가 처음 1년은 월급이 없었고, 이듬해부터 1달에 2,500원씩 받기 시작했다. 이 돈이면 그 당시 보리쌀 1가마 값이었다. 그는 월급을 받는 날이면 250원 나가는 진로나 금복주 소주를 댓병으로 1병을 사서 아버지께 갖다드렸다. 당시 막걸리는 한 주전자에 100원이었는데, 가끔 아버님께 100원을 드리면 한 주전자씩 드시고 오시기도 했다. 당시 라면땅 하나에 100원, 눈깔 사탕 같은 거는 10원을 주면 5개를 줬다. 자격증을 딴 후인 1980년부터는 그의 봉급도 꽤 많이 올라서 1달에 7만 몇 천원씩 받았다. 이 정도의 봉급이면 웬만한 회사원보다 높았다. 당시 홍원제지에 다니는 회사원들이 야간까지 다 해야 10만원 남짓 되는 월급을 받았다.

그 당시 하북리에는 그가 근무했던 협동이발소와 하북리 진위파출소 앞에 하나, 홍원제지 서북쪽 담장 모퉁이 쯤 되는 곳에 하나, 모두 3개가 있었다. 은산리나 봉남리에도 각각 이발소가 하나씩 있었으나 하북리에는 버스가 다녔기 때문에 멀리 있는 마을에서도 손님들이 하북으로 많이 몰렸다. 하루에 평균 30∽40명 정도의 손님이 있었고, 주변에 회사들이 많아 주말에는 무척이나 붐볐다.

자격을을 취득한 이듬해 그는 견산리 매일유업 앞에다 이발소를 개업했다. 그러나 개인적 사정으로 문을 닫고 다시 협동이발관으로 왔다. 1982년 하북농협이 증축하는 바람에 협동이발이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1998년 그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던 이발관을 물려받아 인수하였다. 그 당시 이발료는 2,500원 정도로 쌌지만 손님이 많아서 수입은 좋았다. 직원 한사람을 고용하여 둘이서 운영을 했다. 당시까지도 학생들 포함해서 하루 30~40명의 손님이 있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쯤 학생들의 두발이 자율화 되고 남자들도 미용실로 가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젊은층 손님이 급격하게 줄었다. 그 이후로 나이 40대 아래인 사람은 거의 오지 않았다. 손님이 줄어들자 같이 있던 직원을 내보내고 지금까지 15년 정도는 혼자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이발료가 1만 3천원인데, 손님이 하루 10명 정도이다.

지금은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1남 2녀의 자녀가 모두 장성여 여유로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손님은 적어도 송탄에서 아침 6시에 출근하여 하루 종일 이발소를 지킨다. 이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의 이발소는 친구들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다. 언제가 정년이냐고 묻는 말에 손 떨릴 때가 정년이라고 답했다.

3) 자연마을

하북리는 진위면의 12개 법정리 중 서남쪽 끝에 있으며, 현재는 1~4리로 네 개의 마을이다, 처음에는 무봉산에서 서남쪽으로 뻗은 능선 자락의 끝의 남사면에서 시작되었다. 조선시대 진위현의 마을명이 처음 정리된 문헌은 영조때 편찬된『여지도서』이다.『여지도서』에는 진위현 전체를 10개의 면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 성북면에는 동천리, 청호리, 갈곶리, 가곡리, 후북리[23], 견산리가 언급되고 있다.『여지도서』가 편찬된 후 20~30년 지난 1789년에 편찬된『호구총수』에 비로소 하북리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1911년 무렵에 발간된『조선지지자료』에는 이북면의 마을로 후북리(현 가곡3리), 하북리, 견산리, 신리, 신가곡리(현 가곡1리), 구가곡리(현 가곡2리), 신북리(현 가곡4리), 산거리(현 견산2리) 등 8개 마을이 있고 후북리를 ‘셩뒤’, 하북리를 ‘아래셩뒤’로 한글표기를 하고 있다. ‘성뒤’가 먼저 생기고 나중에 그 남쪽으로 생긴 마을을 ‘성뒤’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래성뒤’로 불렀던 것이다. 한자 표기도 ‘후북(後北)’의 아래 마을이라는 의미로 ‘하북(下北)’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하북리는 후북리보다 늦게 생겨났고 처음에는 후북리에 딸린 마을로 인식되었다가 나중에 독립된 마을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3) 2001년에 편찬된『평택시사』의 ‘역사관련 자료’에는 후북리의 ‘후(後)’자를 오독하여 ‘준북리(浚北里)’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평택시사편찬위원회,『평택시사』하, 2001, 1239쪽.

(1) 하북1리 아랫성뒤

하북1리 아랫성뒤 전경

하북1리는 하북리 4개 마을 중 가장 먼저 형성된 마을로 동쪽 무봉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산줄기 끝의 남사면에 있다. 북쪽으로는 하북4리가 있고 남쪽으로는 견산리와 신리를 접하고 있다. 마을 남쪽의 경작지인 장호들은 행정구역상 견산리에 속하고 하북리에 딸린 경작지는 주로 국도 1호선과 경부선 철도 서쪽 건너편에 있다.

1910~20년대에 형성된 하북2리 대정촌이 들어서기 전까지 하북리는 이 마을 하나였다. 아랫성뒤 마을의 역사는 광주이씨 광릉부원군파로부터 시작한다. 이 마을 광주이씨 토박이인 이정재(남, 1939년생)씨에 의하면 수군절도사를 지냈던 그의 12대조 묘가 원래 지산동에 있었는데, 현재 이 집안의 선산인 마산리로 이장을 하였다. 마산리 선산에는 7분 조상의 묘가 있는데, 이정재씨는 지산동에서 마산리로 이장한 12대조가 여기서는 가장 윗대 조상이라고 하였다. 최근에는 13대조 묘를 포천에서 마산리로 이장하였다. 그의 말을 종합하면 그의 12대조가 하북리 입향조라고 볼 수 있으며 대략 300여 년 전쯤 입향한 것으로 판단된다.[24] 이 마을에는 오래된 회나무가 2그루 있다. 원래는 5그루가 있었는데 3그루는 죽고 1그루는 마을 안쪽에 있고 1그루는 진위역 앞에 있다. 진위역 앞에 있던 나무는 원래 역 북쪽 진입로에 있었는데, 진입로가 만들어지면서 역 앞으로 옮겼다. 이 나무는 평택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데, 설명문에 수령이 200년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나무의 식재와 관련되어 전해지는 이야기가 맞다면 광주 이씨의 입향은 200여 년으로 볼 수도 있겠다.

24) 김해규가 2006년 이 마을에서 만난 이용익씨는 그의 6대조인 이병규가 약 200년 전에 입향했다고 하였다. 이는 이정재씨의 얘기와 매우 큰 차이가 있어서 보다 실증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김해규, 『평택의 지명과 마을 이야기』Ⅲ, 평택문화원, 2008, 100쪽.

진위역 앞 광장 북쪽의 회화나무

마을 안에 있는 회화나무

한편 이 마을 현 이장인 이길수(남, 1952년생)씨는 광릉부원군파가 아닌 문경공파 23대손이다. 가곡리 선산에 문경공파 15대손의 묘가 있으니 그의 8대조가 처음 하북리로 입향하여 현재까지 200여 년을 살아왔다. 그는 현재 광릉부원군파는 20가구 정도 살고 있으며, 문경공파 4~5가구가 거주한다고 하였다. 이정재씨는 '옛날에는 모두 광주 이씨 외에 타성이라고는 종들밖에 없었다.' 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다는 얘기를 하였다. 이길수씨가 어렸을 때는 이 마을에 30~40가구 정도 거주하였는데, 타성은 모두 꼽아도 10집 이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마을 단위의 종계 같은 모임을 없고 매년 마산리 선산의 묘에서 시제를 모시고 있다.

하북리는 원래 홍원제지 서쪽과 국도 1호선 동쪽 언덕에 30여 가구가 모여 살았던 마을이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설되었지만, 곧 진위역이 폐쇄어 마을의 큰 변화는 없었다. 『조선지지자료』에는 하북리에 '사거리[四街里]' 라는 주막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언급하는 사거리가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1911년 무렵에도 하북리가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마을이었다는 추정은 가능하다. 아마도 봉남리에서 사리 또는 금암리 쪽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이 주막을 이용했을 것이다. 1912년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마을 전체 토지 가운데 27필지가 대지(垈地)로 등록되어 당시 마을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1914년 행정구역이 통합되면서 새롭게 출발한 진위군의 군청이 평택역 근처로 이전하면서 봉남리가 읍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게다가 1920년 전후해서 국도 1호선이 하북리 앞으로 개설되었다. 이에 따라 하북리가 갑자기 번창한 것은 아니지만, 인근 마을에서 중심적인 마을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국도의 개설로 국도 선상에 있으면서 조선시대까지 중심지였던 봉남리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봉남리가 가졌던 기능을 나눠 갖기 시작하였다. 즉 봉남리에 있었던 경찰지서가 하북리로 이전하였다. 원래 봉남리에 있던 하북지서가 언제쯤 이곳 하북리로 이전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이정재씨는 해방 직후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25] 또한 일제 강점기 가마니 수매도 하북리에서 이루어졌다. 야막리에 거주하는 임계춘(여,1929년생)씨는 일제 말기 하북리에서 가마니수매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가마니수매는 진위역 앞 육교 밑에서 했는데 이곳에 가마니를 쌓아놓는 창고가 있었다. 이곳에서는 가마니뿐 아니라 공출로 거두어들인 곡식도 집적하였다. 공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이곳에 하북장이 개설되었다. 일제 강점기 말에 번성했던 하북장은 해방 후 강제 공출이 중단되면서 시들해졌지만, 6·25 전쟁 전까지는 유지되었다.[26] 국도 1호선의 개설로 하북장이 생길 정도까지 되었지

25) 은산4리 말미 마을에 거주하며 하북리 사정에도 밝은 우종구(1939년생)씨도 진위파출소가 해방 직후에 하북리로 이전했다는 말을 어른들에게 전해들었다고 했다.

만, 당시에 인구가 대폭 늘어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정재씨에 의하면 6·25 전쟁 때 피난 왔던 사람들 일부가 새로 정착했다고는 하지만, 1952년생인 이길수씨가 어렸을 때 30~40가구 정도였다면 1912년 토지조사부에 나타난 27가구 정도에서 대폭 늘어난 수치는 아니다.

1967년 항공지도에 나타난 아랫성뒤 마을 모습
(현재의 하북1리 마을과 거의 일치한다)

1970년대 초부터 주변으로 홍원제지,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 영풍제지 같은 큼직한 회사들이 들어서서 이주민과 오가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다. 1973년 13살 되던 해부터 하북리 이발소에 일했고 지금까지 이발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승권(남, 1961년생)씨는 홍원제지,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 같이 큰 회사의 회사원들이 대거 하북리에 살았다고 했다. 마을에는 세입자들이 늘었고 마을 뒤편에는 1981년부터 순차적으로 꽃동산, 새동산, 새꽃동산 아파트도 들어섰다. 이주민이 많아지고 가구수가 늘어나자 1987년 하북4리가 분동되었다. 이후에도 마을 안으로는 하북빌라 5동, 남경빌라 2동, 로뎀하우스 1동, 하늘마루 1동 등 계속해서 다세대 주택 또는 원룸 주택이 들어섰다. 2020년 현재 주민등록상 225세대가 있는데, 이길수 이장에 의하면 본토박이는 30가구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승용차와 통근버스가 없던 시절 회사원들은 회사 근처 마을에서 생활했어야 했기 때문에 인구가 점차 늘었다. 또한 하북1리가 국도 1호선상에 있어서 오산과 평택을 오가는 시내버스 뿐만 아니라 시외버스도 정차하는 등 교통도 매우 편리한 편리하였다. 자연히 길가를 따라 많은 식당과 가게들이 들어섰다. 음식점과 가게는 주로 국도 1호선에서 봉남리쪽으로 들어가는 길 양쪽으로 들어섰다.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때 참 경기가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다가 1980년대 통근버스가 등장하고 2000년대 전후하여 승용차 문화가 보편화 되면서 원거리 출근자가 늘어났다. 2005년 수원에서 천안으로 이어지는 전철 개설에 이어 2006년 6월에는 진위역이 개통되었다. 진위역이 들어서면서 하북리는 인근지역에서 교통의 중심으로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송탄이나 오산 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 마을 가구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26)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Ⅲ, 평택문화원, 2008, 102쪽. 현재 마을 주민들 중 하북장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처녀 시절 이곳에 가마니 수매를 하러 다녔다는 야막리의 임계춘씨도 하북장에 대해서는 모르고 봉남리장은 기억을 하였다.

하북1리와 4리의 경계

교통 여건이 좋아진데다 옛날 재래식 주택이 많아 방세가 비교적 저렴하다보니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은 편이다. 이길수 이장에 의하면 진위면 전체의 1/10 정도로 16~17가구가 기초생활수급을 받는데, 이것은 진위면의 마을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숫자이다. 하북1리 다음이 진위면 신리이다.

하북리 마을 안 길은 새마을사업을 할 때 조금씩 넓혔다. 진위역삼거리에서 봉남리로 이어지는 진위서로로 이어지는 길은 1970년대까지 합승버스 1대가 겨우 다닐 만한 정도의 넓이였다. 197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되었다. 이후 이 길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양쪽에 주택과 상가가 많아 넓힐 수가 없어서 남쪽 하북삼거리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새로 냈다.

진위역삼거리에서 봉남리로 이어지는 진위서로의 확장 전 모습 (출처: 이길수)

4차선으로 확장된 현재 모습

2017년에는 마을회관 앞 길을 4차선으로 확장하였다. 이 길은 동쪽으로 하북감리교회 앞 고개를 넘어 홍원세지 서북쪽 끝까지 이어진다. 이 길을 낸 직후 다시 홍원제지 서쪽 담장을 끼고 남쪽으로 진위서로까지 4차선 도로가 개설되었다. 이 무렵 진위역삼거리에서 시작되는 진위서로도 4차선으로 확장된 것이다.

마을회관 앞 옛 길(출처: 이길수)

새로 조성된 4차선

(2) 하북2리 대정촌

하북2리 대정촌 원경

'대정(大正)' 은 1912~1926년 사이에 재위했던 일본 국왕 요시히토[嘉仁] 시기의 연호이다. 일본의 연호가 그대로 마을 이름이 되었다면 여기에는 일본인들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12년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등본미차랑(藤本美次郎), 산기원차랑(山崎源次郎), 산전현의(山田顯義), 서정융흥(西淨隆興), 심전여삼병위(深田與三兵衛), 암기구미(岩奇久彌), 전구마차랑(田口馬次郎), 평생팔삼랑(平生釟三郎) 등 8명과 한국흥업주식회사가 하북리 전체에 101필지, 413,079평이라는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다. 이들 중 등본미차랑과 산전현의는 주소가 오산천 건너에 있는 서탄면 금암리로 되어 있다. 토지 조사부에 있는 8명 모두 대정촌에 거주한 것은 아니나 그들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이 마을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이 마을에 거주했던 일본인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마을명의 결정과 마을 운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100여년 전인 1910~1920년대에는 하북2리 대정촌이 들어섰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산천과 진위천의 배후습지에 자리잡은 이 마을이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일본의 연호를 따라 이름지어졌고, 1922년 발행된 지도에 '대정리' 로 기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 마을 이장인 송명규(남, 1964년생)씨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1910년생인데 이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이는 '대정' 이라는 일본의 연호가 정해지기 이전부터 민가가 형성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1912년 이전에 살았던 주민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1960년대까지 남아 있었던 적산가옥 위치

마을은 아랫말, 중간말, 윗말로 나뉘었는데, 현재는 중간말과 윗말이 붙어 있어서 두 지역을 나누기 어렵다. 정병헌(남, 1958년생)씨에 의하면 1970~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윗말과 중간말이 각각 ‘ㄱ’자, ‘ㄴ’자 형태로 주택들이 있었다. 윗말과 중간말을 합치면 전체적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길을 따라 ‘ㅁ’자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마을 모습이 갖추어진 것은 1935년 전후가 된다. 1931년 당시 이 마을에 살았던 26가구는 곡식을 모아 기금을 만들어 청호리 산12번지에 공동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5,600평을 마련하였다. 이어서 마을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ㅁ’자 길을 내기 위하여 26명의 주민이 1935년부터 1937년까지 공동명의로 길로 편입된 토지 12필지를 매입하였다.[27] 여기에는 2명의 일본인 ‘택야태신(澤野泰信)’, ‘고교충태랑(高橋忠太郎)’이 포함되어 있다. 1960년대까지도 일본인이 살았던 적산가옥 2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두 일본인이 건축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정촌에서는 마을 공동소유인 청호리의 묘지 소유권 문제로 1931년 당시 살았던 호주(戶主)의 명단을 작성하였는데, 이들의 구체적인 명단[28]은 아래와 같다.

김민규, 장팔남, 김덕규, 홍태산, 홍부산, 라명국, 전갑쇠, 김창식, 이원호, 이오성, 송귀동, 권창식, 김영준, 서병규, 정종건, 한유석, 유원룡, 한태석, 김성룡, 권명식, 홍순영, 최문호, 김시정, 김영진, 택야태신, 고교충태랑

정병헌씨는 이중 김씨들은 사리에서 이주해온 사람들로 윗말에 살았으며, 비교적 부유한 경제력을 가졌다고 하였다. 부유한 경제력에 기반하여 예전부터 그 집안 사람들의 교육 수준도 높은 편이었다고 한다. 1967년의 항공사진에는 대정촌의 옛 모습이 담겨 있다.

1967년 항공지도에 담긴 대정촌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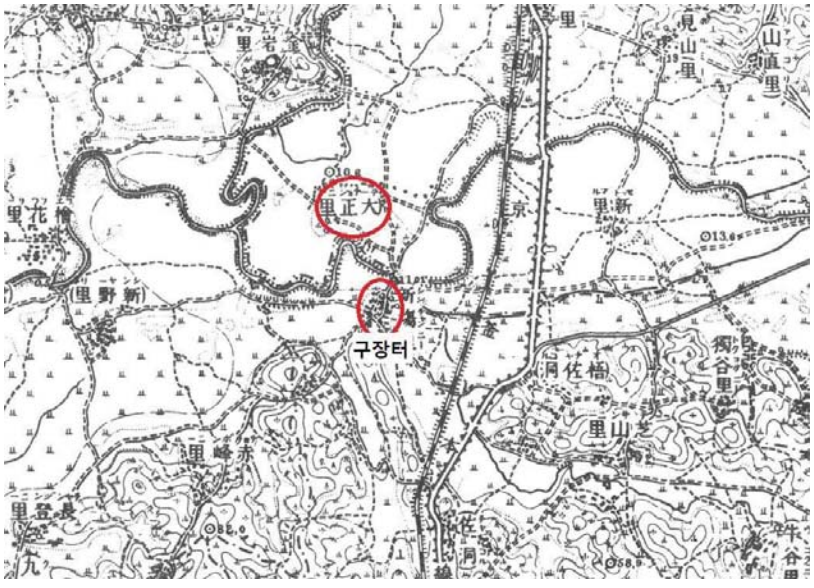
대정촌의 현재 모습

27) 등기부등본에는 이때 일본인 2명을 포함한 26명의 이름이 남아있으며, 이주민 수가 늘어 마을이 확장되었음에도 ‘ㅁ’자 모양의 길과 마을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8) 마을에서 작성된 호주는 25명으로 ‘장팔남’이 누락되었다. 그런데 마을길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장팔남이 들어 있어서 필자가 그를 이 명단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마을은 1960~1970년대에 45가구 정도가 거주하였는데[29], 2020년 12월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132가구로 거주민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이 마을 이장인 송명규(남, 1964년생)씨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은 70여 가구가 되며 이 수치는 자신이 어렸을 때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였다.

대정촌은 하북리의 남쪽 끝에 있는 마을로, 진위천과 오산천이 양 옆으로 흘러 이 마을 서남쪽 끝에서 합류된다. 이 마을은 해발 고도 10m 전후로 매우 낮은 편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수해를 많이 입었다. 마을의 동쪽과 서쪽은 비교적 제방이 높았지만, 남쪽의 제방은 대략 2m 정도로 낮아서 폭우가 내리면 남쪽부터 침수가 시작되었다. 1972년 장마 때에는 남쪽의 둑이 터져 마을 대부분이 침수되었고, 주민들은 진위중학교로 피난을 가기도 했다. 이후 하천을 정비하고 두 번에 걸쳐 제방을 높게 다시 쌓아 현재처럼 높였다. 1차는 영풍제지 있는 데서부터 중간말에 이르기까지 쌓았고, 그 뒤에 2차로 남쪽의 둑을 쌓아 현재처럼 높였다. 원래 남쪽에 있던 둑은 현재의 진위1교 다리 앞에서 중간말로 이어지는 길이었으나, 이때 둑을 하천 쪽으로 내어 현재의 위치에 쌓았다.

진위천이나 오산천은 마을에 수해를 입히기도 했지만 옛날에는 서해안의 어물이 유통되는 교통로 역할도 하였다. 진위천 너머 신장동 구장터에 나루가 있었다는 얘기는 인근 마을의 토박이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다. 다만 그 내용이 고문헌에는 없고 구전으로만 전해질 뿐이다.[30] 이곳에 장이 섰던 이유는 구장터 앞 진위천변에 배가 닿는 나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나루를 통해 서해안의 어물이 주변 마을로 유통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1922년 지도를 보면 근대 교통이 발달되기 전에는 장이 열렸다고 전해지는 이곳에서 길이 방사형으로 주변 마을과 연결되어 있다. 남쪽으로는 지금의 신장동 쪽이나 고덕면의 여러 마을, 서탄면 금각리 등과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서탄면 금암리 및 하북리, 견산리, 신리 등과 통했음을 알 수 있다. 정병헌씨에 의하면 본격적으로 자동차 문화가 보급되기 전까지 금암리나 회화리 사람들이 주로 대정촌을 걸쳐서 진위천을 건너 송탄쪽으로 통행하였다.



대정촌과 구장터 및 1920년대 교통망: 구장터의 나루에서 방사형으로 난 길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정촌은 진위천을 사이에 두고 구장터와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두 마을 사이에는 다리를 놓았다. 이 다리는 2006년에 놓인 현재의 '진위1교'에서 진위천 하류 쪽으로 약 200m 정도 떨어져 구장터 마을과 바로 연결되었다. 권병덕(남, 1948년생)씨는 돌다리도 놓았지만 장마에 떠내려가기 일쑤였고, 그래서 다리가 없을 때는 바지를 걷고 걸어서 건넜다고 했다. 나무로 기둥을 세

29) 정병헌(남, 1958년생)씨와의 인터뷰

30) 일찍이 구장터를 답사했던 김해규는 마을과 골목의 형태 및 주택들의 모양에서 옛 장터의 흔적을 발견했음을 밝히고 있다.(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 I , 평택문화원, 2005, 143쪽.) 구장터는 현재 미군부대로 수용되어 사라진 마을이 되었다.

우고 섶다리를 놓기도 하고 최영희[31]씨가 국회의원을 지낼 때 천공 강철판(일명 아나방)으로 다리를 놓아주었지만 역시 장마에 유실되곤 하였다. 정병헌(남, 1958년생)씨는 이 다리가 강철판을 두 개 놓아서 리어카가 지나다닐 정도의 넓이였는데 매년 유실되면 다시 놓곤 하여 대략 10년 정도 유지되었다고 했다. 또한 돌다리는 물이 차가운 겨울에 건너다녔고 보통은 바지를 걷고 물을 건너다녔다.

송탄에 미군부대가 들어서고 신장동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자 마을 사람들은 이 길을 따라 마을에서 생산되는 참외나 열무 같은 채소를 송북시장이나 신장동 부대 앞으로 팔러 다녔다. 진위천을 건너면 길은 구장터에서 목천동을 거쳐 신장동의 시장까지 바로 이어졌으며 마차가 다닐 정도로 넓었다. 19세 때 이 마을로 시집온 전인순(여, 1936년생)씨는 시어머니가 송탄에서 달러 장사를 하다전 재산을 날리자 생계를 위해 송탄에서 떡장사를 했다. 여름에는 계피떡, 겨울에는 인절미를 주로 만들어 팔았는데, 떡이 일찍 팔리면 다시 집에 와서 얼른 만들어서 다시 나가기도 했다.

대정촌은 인근 마을에 부자 동네로 알려져 있다. 이 마을 농민들은 일찍이 배추재배와 시설농업을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권병덕씨는 예전에 이 마을 토박이들은 보통 1,200평 이상의 농토를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마을 주민의 상당수가 현재 시설 재배를 하고 있거나 그 경험을 갖고 있다. 정병헌씨는 한때 마을 주민 45가구 중 30여 가구가 시설 농업에 종사했다고 하였다. 하북리의 시설채소는 한때 서울 가락동의 시세를 쥐락펴락 할 정도로 유명했다. 하북리의 시설채소는 곧 대정촌의 시설채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년대 중후반 이 마을에서 배추를 대량으로 재배하여 서울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에서 시작된 시설 재배는 대정촌 농지의 대부분을 시설농업으로 전환시켰다.[32] 원래는 관개가 가능한 농지는 논으로 이용했고, 관개가 불가능한 농지만 밭농사를 지었으나 현재는 이동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농업용수가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대부분 밭농사로 바뀌었다. 1990년대에는 강원도 사람들한테 시설재배 기술을 전수하여 지금은 오히려 그 지역과 경쟁 관계가 되었다.

대정촌 마을의 하우스 단지

대정촌은 2006~2016년 ‘시설채소 정보화 마을’로 선정되었다. 당시 정보화 마을은 평택시에서 대정촌이 유일했다. 정보화 마을 지정을 계기로 인터넷 판매와 농촌 체험을 주로 목적으로 하였으나 큰

31) 최영희는 1967년 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1971년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평택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3, 2014, 35~36쪽.

32) 시설 채소 재배는 대정촌과 야막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마을이 먼저라고 단정하기는 불분명한 점이 있다.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오이, 호박, 토마토가 일반적으로 널리 생산되는 채소여서 희소성이 부족하여 인터넷 판매가 저조했다. 또한 체험객들이 오이나 토마토를 따면서 넝쿨을 망가뜨리는 일이 잦아 농민들이 외지인의 내왕을 반기지 않았던 것도 정보화 마을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 주요 이유가 되었다.

(3) 하북3리 새마을촌

하북3리 새마을촌

하북3리 새마을촌은 1973년에 새로 조성된 마을이다. 대정촌의 이세영(남, 1958년생)씨에 의하면 새마을촌이 조성되기 전에는 4집 정도가 거주했다고 한다. 이 마을이 형성된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억과 기록이 있다. 하북1리에서 만난 이정재씨는 1973년 하북1리 국도 1호선 도로 옆에 무허가로 지었던 집들이 헐리면서 새마을촌으로 이주하였다고 했다. 서정리에서 광천 마을로 넘어가는 육교 밑 대장간 옆에서 구멍 가게를 운영하다 막내 아이를 낳던 해인 1973년 무허가 집이 헐리면서 이 마을로 이주한 이순님(여, 1943년생)씨는 이 마을의 조성과 더불어 이주하였다. 그녀에 의하면 이 마을에는 서정동, 하북, 장당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었다. 그들도 이순님씨네처럼 집이 철거되어 이주하게 되었다. 아래 처음 새마을촌이 조성된 당시의 내용은 이순님씨의 기억을 토대로 서술한 것이다.

새마을촌 마을 입구

현재까지 남아있는 초창기 주택 5채와 골목

초창기에 건축된 주택

마을 조성 당시에 만들어진 골목

이순님씨는 1973년 이 마을에 이사 왔을 때 3가구가 거주했다고 기억하고 있다.[33] 서쪽 서탄면으로 가는 길에도 집이 드문드문 있었다. 그녀가 이사 올 무렵에는 그녀의 집을 포함하여 13가구가 거주하게 되었다. 마을에는 동서로 길게 길을 두 개 냈고, 북쪽 길 뒤로 6가구, 두 길 사이로는 7가구가 이주한 것이다. 당시 대지 100평 전후의 넓이로 택지를 나누고 주택은 보루꾸(구멍 있는 큰 블록)로 지었다. 주택에 따라 방은 2~3개가 있었고, 부엌은 하나였다. 처음 집의 크기는 12평 정도로 매우 작았다. 살면서 건물을 덧대서 면적이 늘어나는 집이 많았다. 주택은 평택군에서 무료로 공급하였고, 입주한 뒤 10여 년 전후의 시간이 지난 후 각자 대지를 매입하였다. 처음에는 마을회관이 없었으나, 이후 마을회관도 지었다. 식수는 지하수를 끌어서 공동 급수를 하였다.

1970년대 이후 일성제지, 영풍제지, 서탄면 금암리에 칠성고분자 같은 회사들이 들어서면서 이주민도 늘어갔다. 전라도 사람이 제일 많고, 강원도와 경상도 등 다양한 곳에서 이주해왔다. 새로이 이주해 와서 주택을 마련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세를 살았다. 1982년 36세의 나이로 이 마을에 이주해 온 윤증순(여, 1957년생) 이장은 당시 보증금 없이 만원~만 오천 원 정도의 월세를 내며 살았다.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마을 주변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통 주택 하나에 5~6세대가 살고 있었다. 그래서 세대수는 지금보다 많았다. 2020년 현재는 9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새마을촌 마을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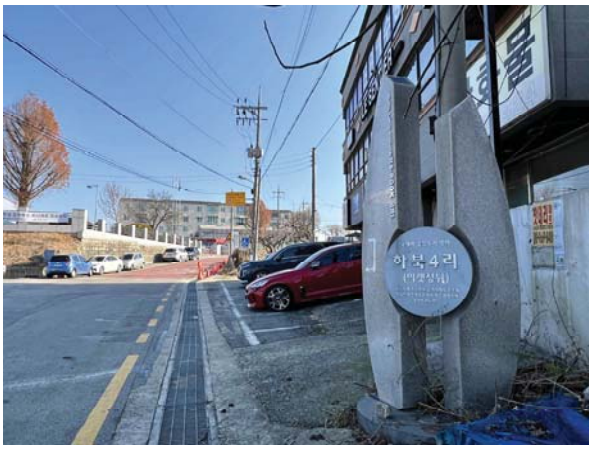
33) 대정촌의 이세영씨는 새마을촌이 조성되기 전에 4가구가 있었다고 하였으나 이순임씨는 3가구로 기억하였다.

(4) 하북4리

하북4리

하북4리는 하북1리 북쪽에 있다. 1970년대 이후 마을 주변으로 여러 회사들이 들어서면서 아랫성뒤 마을이 지속적으로 팽창되었다. 더욱이 1981년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섰던 꽃동산, 새동산, 새꽃동산 아파트는 유입 인구를 크게 늘렸다. 게다가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면서 이주민은 더욱 늘었다. 이에 따라 하북감리교회 뒤 북쪽 지역이 1987년에 하북4리로 분동되었다.

하북 4리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곳은 꽃동산[34]아파트, 새동산아파트, 새꽃동산아파트이다. 이 마을 출신이면서 2020년에 작고한 이성재(남, 1950년생, 2020년 작고)씨 배우자 조영신(여, 1952년생)에 의하면 이 아파트는 이성재씨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위에 1981년부터 꽃동산아파트, 새동산아파트, 새꽃동산아파트를 순차적으로 건축했다. 세 아파트는 각각 30세대, 27세대, 72세대 총 129세대로 도시가 아닌 전통마을임을 감안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이다. 이성재씨가 이 세 아파트를 건축하게 된 것은 이 마을 주변으로 많은 회사들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하북리와 그 주변으로는 홍원제지, 영풍제지,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 일성제지 등이 들어섰고, 가곡리쪽으로 동양잉크, 동영알미늄, 광성정밀, 신아교육, 대우전자 물류센터 등 회사와 공장들이 많았다. 익산이 원래 고향이었던 한영국(1951년생)씨는 멀리서 직장 따라 근방에서 남의 집 세를 살던 사람들이



하북4리 마을 입구

34) 꽃동산아파트 바로 동편의 에바다학교 자리에는 1982년 이전에 '꽃동산보육원'이 있었다. '꽃동산'이라는 이 아파트 이름은 이 보육원의 이름을 본따서 지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분양받아 입주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입주민들은 대부분 회사원들이었고, 농민들은 없었다. 이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마을의 규모가 급격하게 커졌기 때문에 아랫성뒤 마을이 둘로 나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1988년 12월 새동산아파트에 최초로 입주한 주민의 기억에 의하면 분양된 새동산아파트는 1·2·3층의 분양가가 각각 달랐는데, 18평 3층의 분양가는 당시 700만원 선이었다. 매달 분양가의 원금과 이자를 20년 분할로 납부하였는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할부금이 내려갔다고 한다. 27~8년 전에 입주한 한영국씨는 당시 일시금으로 3,050만원을 전주인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부금을 납부하였다. 2021년 8월 현재는 8,000~9,0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맞벌이로 직장을 다니다가 지금은 퇴직한 경우가 많았으며, 직장 생활하고 자녀들 키우는 것 외에는 다른 여념이 없이 열심히 살아왔다. 직장에서 퇴직한 현재는 일거리를 찾고자 하나 특별한 일이 없이 아파트 주변 빈 땅에다 채소 등을 심고 가꾸며 생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손주들을 키우며 보내기도 하지만 할 일이 없어 답답해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작년부터 확산된 코로나 때문에 노인정에도 못 나가는 형편이다.

이 마을 북동쪽으로는 에바다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는 6·25 전쟁 직후에 '꽃동산 보육원'이 있었는데, 1982년 에바다 복지재단이 부지를 인수하여 1986년 에바다학교가 설립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마을 이장인 유윤근(남, 1947년생)에 의하면 현재 이 마을에 오래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오래 거주해 온 주민들이다. 하지만 그들도 대부분 30~40년 전에 외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며, 원래 본토박이는 2가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30여 가구가 주로 마을총회에 참여하는 등 이 마을 일을 해나가는 데 주축을 이루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세 아파트와 마을회관 근처에 있는 민영맨션이라는 다세대 주택에는 집주인 보다는 세입자들의 비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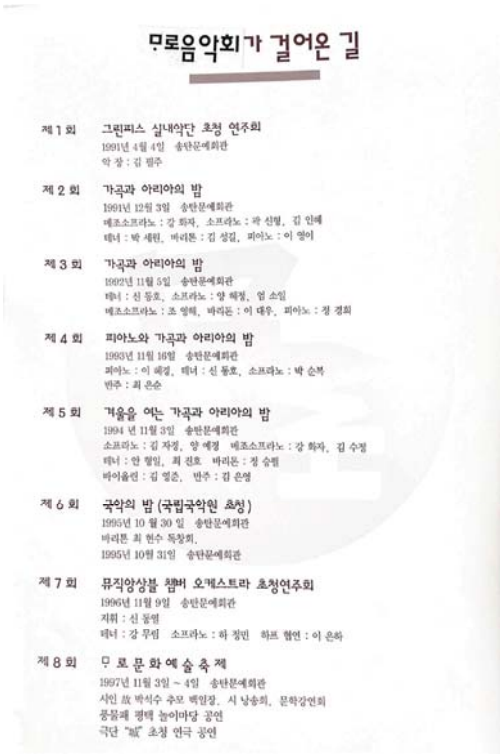
가곡4리 도로 계획

하북1리 이장인 이길수씨는 이 마을의 동북쪽인 가곡리 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라고 했다. 하북4리 이장인 유윤근씨에 의하면 하북1리를 돌아나가는 4차선 도록가 홍원제지 서북쪽 담장 끝에서 'ㄱ' 자로 꺾이는데, 꺾이는 지점에서 하북 4리를 지나 가곡리쪽으로 4차선 도로 계획이 있고, 일부 토지는 보상도 이루어졌다

4) 인물

(1) 이성재(1950-2020)

하북1리 아랫성뒤 마을 출신이다. 그는 하북감리교회 장로이면서 하북농협 초대 조합장을 역임한 이



무로음악회가 걸어온 길

제 1 회 그린피스 실내악단 초청 연주회
1991년 4월 4일 송탄문예회관
악 장 : 김 필주

제 2 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91년 12월 3일 송탄문예회관
메조소프라노 : 강 화자, 소프라노 : 곽 신월, 김 인혜
테너 : 박 세원, 바리톤 : 김 성집, 피아노 : 이 영이

제 3 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92년 11월 5일 송탄문예회관
테너 : 신 동호, 소프라노 : 양 혜정, 엄 소일
메조소프라노 : 조 영혜, 바리톤 : 이 대우, 피아노 : 정 경희

제 4 회 피아노와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93년 11월 16일 송탄문예회관
피아노 : 이 혜경, 테너 : 신 동호, 소프라노 : 박 순복
반주 : 최 은순

제 5 회 겨울을 여는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94 년 11월 3일 송탄문예회관
소프라노 : 김 자경, 양 예경 메조소프라노 : 강 화자, 김 수정
테너 : 안 형일, 최 진호 바리톤 : 정 승원
바이올린 : 김 영준, 반주 : 김 은성

제 6 회 국악의 밤 (국립국악원 초청)
1995년 10 월 30 일 송탄문예회관
바리톤 최 현수 독창회.
1995년 10월 31일 송탄문예회관

제 7 회 뮤직앙상블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1996년 11월 9일 송탄문예회관
지휘 : 신 동명
테너 : 강 무림 소프라노 : 하 정민 하프 협연 : 이 은하

제 8 회 무 로 문 화 예 술 축 제
1997년 11월 3일 ~ 4일 송탄문예회관
시인 故 박석수 추모 백일장, 시 낭송회, 문학강연회
풍물패 평택 놀이마당 공연
극단 "뫼" 초청 연극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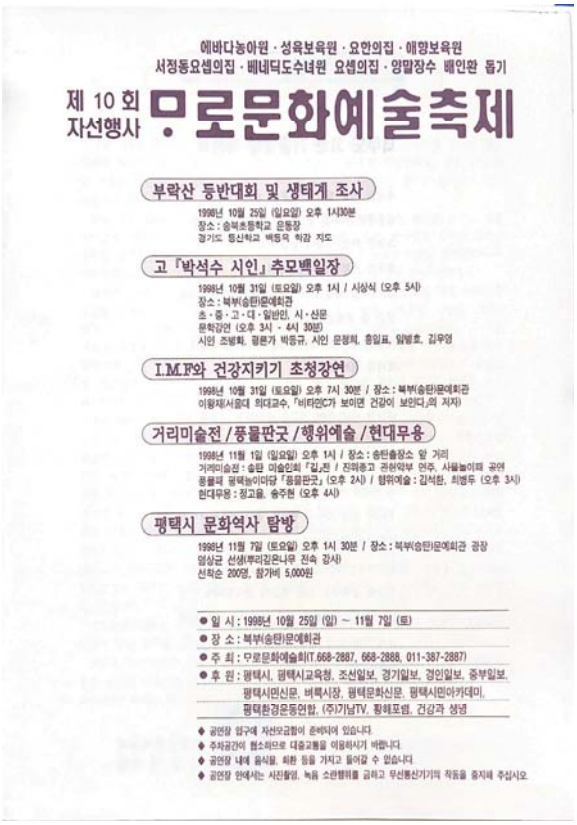
1~8회 마로음악회

영춘의 장남으로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고향인 하북1리에 살면서 토목·건축 사업을 했다. 선친께 상속받은 토지에 꽃동산아파트 건축을 한 것을 계기로 '마로산업'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맡은 공사가 거듭될수록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며 사업을 번창시켰다. 그러나 1997년 IMF 사태를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그만두었다. 이후 실의에 빠져 지내다가 다시 일어섰지만 2020년에 70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그는 사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수원의 와이하우스라는 레스토랑에 출입하면서 문학, 미술, 음악 분야의 인물들과 교류하였다. 와이하우스는 소설가이기도 한 백도기 목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었다. 이곳에 출입하면서 평택시 지산동 출신의 시인 박석수도 만났던 것이다.

국문학과 출신으로 문화계 인사들과 오랜 친분을 쌓았던 그는 송탄 지역의 문화적 토양을 다지고자 '마로문화예술회'를 결성하고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마로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였다. 1991년 제1회부터 1996년 제7회까지는 음악회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1997년부터는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축제를 기획하여 이 해 11월에는 박석수 시인 추모 백일장, 시낭송회, 마당놀이, 연극 등을 진행하였다. 이듬해 4월에는 평택시민과 주한 미군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위천에서 민속연날리기대회를 열었다. 나아가 1998년에는 10월31일-11월1일에 걸쳐 동안 박석수 추모 백일장, 건강 지키기 강의, 거리 미술전, 관현악 연주, 사물놀이 공연, 행위예술제, 모던댄스, 역사탐방, 생태계 조사 등 인문, 생태, 에술 분야로 확대되었다.

모든 행사 진행에는 평택시 등 관청의 지원 없이 본인의 노력과 지인들의 도움만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행사 참여는 무료였으며 자발적 모금의 형식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모금된 돈은 에바다농아원, 요한의 집, 애향보육원, 요셉의 집 등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였다. 그러나 IMF 사태로 그의 사업이 기울었기 때문에 1998년 행사를 끝으로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였다. 마로문화예술축제는 이성재를 중심으로 한 마로문화예술회 회원들이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의미 깊은 노력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에바다농아원 · 성육보육원 · 요한의집 · 애향보육원
서정동요셉의집 · 배네딕도수녀원 요셉의집 · 양말장수 배인환 돕기

제 10 회 자선행사 무로문화예술축제

부락산 등반대회 및 생태계 조사
1998년 10월 25일 (일요일) 오후 1시30분
장소 : 송북초등학교 운동장
경기도 청신학교 백동묵 학감 지도

고 「박석수 시인」 추모백일장
1998년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 / 시상식 (오후 5시)
장소 : 북부(송탄)문예회관
초 · 중 · 고 · 대 · 일반인, 시 · 산문
문학강연 (오후 3시 ~ 4시 30분)
시인 조병화, 평론가 박동규, 시인 문정희, 홍일표, 임병호, 김우영

I.M.F와 건강지키기 초청강연
1998년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 북부(송탄)문예회관
이왕재(서울대 의대교수, 「비타민C가 보이면 건강이 보인다」의 저자)

거리미술전 / 풍물판굿 / 행위예술 / 현대무용
1998년 11월 1일 (일요일) 오후 1시 / 장소 : 송탄출장소 앞 거리
거리미술전 : 송탄 미술인회 「길_전 / 전혁종고 관현악부 연주, 사물놀이패 공연
풍물패 평택놀이마당 「풍물판굿」 (오후 2시) / 행위예술 : 김석환, 최병두 (오후 3시)
현대무용 : 정고을, 송주현 (오후 4시)

평택시 문화역사 탐방
1998년 11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북부(송탄)문예회관 광장
염상균 선생(부리깊은나무 전속 강사)
선착순 200명, 참가비 5,000원

● 일 시 : 1998년 10월 25일 (일) ~ 11월 7일 (토)
● 장 소 : 북부(송탄)문예회관
● 주 최 : 무로문화예술회(T.668-2887, 668-2888, 011-387-2887)
● 후 원 : 평택시, 평택시교육청, 조선일보,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평택시민신문, 버팩시장, 평택문화신문, 평택시민아카데미,
평택환경운동연합, (주)기남TV, 황해포럼, 건강과 생명

◆ 공연장 입구에 자선모금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 내에 음식물, 화환 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 공연장 안에서는 사진촬영, 녹음 소란행위를 금하고 무선통신기기의 작동을 중지해 주십시오.

마로문화예술축제 광고지

3. 경제생활

1) 농업

(1) 경작지 분포와 관개

하북리는 1970년대 주변 지역으로 회사와 공장들이 들어서기 전까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통계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북리의 농가와 비농가 비교

연도	호 수 (戶 數)		
	농가	비농가	계
1963	30	8	38
1971	41	5	46
1976	43	4	47
1984	49	18	67

1963~1976년도까지는 농가 비율이 79~91% 정도 유지되다가 1984년 통계에서는 71%로 하락되었다. 이는 마을 주민들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82년 당시 하북3리로 이주했던 이증순(여, 1957년생)씨는 이주 당시 이 마을에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들이 주로 직장을 따라 이사 온 사람들이라고 했다. 1981년부터 하북 4리 아파트를 건축했던 이성재(1950년생)씨의 부인인 조영신(여, 1952년생)씨 역시 꽃동산 아파트 건축을 시작할 당시 주변 회사들이 많아서 마을에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다. 마을 토박이들은 점차 타지로 이주하거나, 연로하게 되었고, 새로운 이주민들이 유입되면서 농가 비율은 지금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예전에 농사를 지었던 토박이 노인들은 토지는 소유하고 있되,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음은 4개 마을 이장들을 통하여 파악한 농가 숫자이다.[35)]

하북리 마을별 거주 세대수와 농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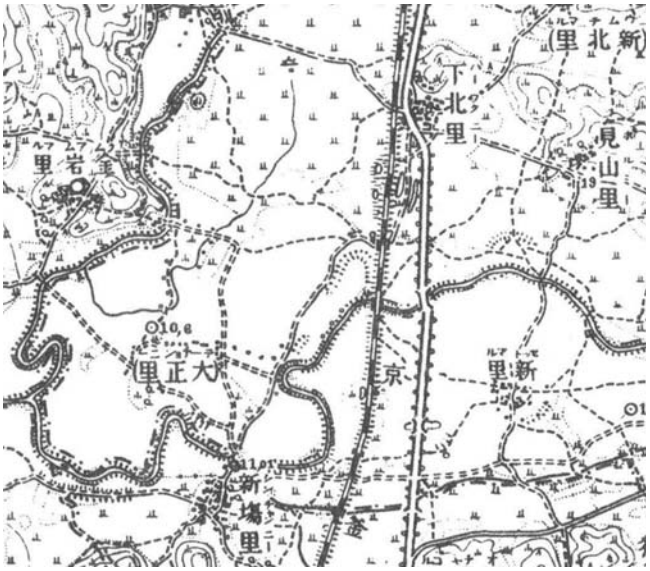
마 을	주민등록상 세대수	실제 거주 세대수	전업농 세대수	전업농 중 시설농
하북1리	225	220	5	·
하북2리	132	90	70	20
하북3리	89	70	10	5
하북4리	190	190	6	·

농지 1,000m^2 이상의 소유자는 농협 조합원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상의 농민은 실제 농민보다 그 숫자가 많다. 그래서 실제 거주자 및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수는 이장들의 기억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하북1·4리는 마을 경관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로 볼 때 농촌에서 도시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하북리에서 농가의 비율이 가장 많은 마을은 대정촌이다. 이 마을 이장인 송명규(남, 1964년생)씨에 의하면 실제 거주하는 70여 세대 중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며, 그 중에 30명 이상이 시설농업을 하고 있다.

현재 하북리의 주요 경작지는 대부분 국도 1호선과 경부선 철로의 서쪽에 있는 하북2리 대정촌과 하북3리 새마을촌 주변으로 펼쳐져 있다. 또한 행정구역상으로는 견산리에 속하는 남쪽의 장호들이나 장안들에도 하북리 농민들 소유지가 많았다. 하북 4리 쪽으로 마을이 확대되기 전에는 야산인 이곳도 주로 밭으로 경작되었다. 현재 홍원제지가 들어서 있는 황새기들도 밭과 논으로 이용되었던 곳이다.

35) 주민등록상 세대수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실제 거주 세대수 및 전업농 세대수는 마을 이장과의 인터뷰에서 파악한 숫자이다. 그래서 실제 거주 세대수 및 전업농 세대수는 정확한 숫자라기 보다는 대략 그 정도의 수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12년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당시 하북리 전체 면적이 937,461평 중에 경작지로 이용되는 면적은 720,980평이었다. 그중 논이 295,424평, 밭이 425,556평으로 논밭 비율이 대략 4:6 정도 되었다. 황무지라 할 수 있는 잡종지(雜種地)는 159,815평으로 적은 규모가 아니었다. 잡종지는 주로 오산천이나 진위천을 접하는 곳에 있었다.



1922년 지도에 표시된 경작지

지금은 하북리 들판이 편평하게 펼쳐져 있지만, 경지정리 이전까지는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았다. 주변보다 조금 높거나 하천 근처 물이 잘 스미는 곳은 밭으로 이용되었다. 1911년 서탄 입구 삼거리에서 금암리로 이어지는 길 북쪽은 논이 많았고, 남쪽은 대부분 밭이었다. 1922년 발행된 지도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지도에서는 대정촌 주변이 거의 황무지 수준으로 표시되었다.

1912년에 작성된 지적도 및 토지조사부에도 하북리 들판의 북동쪽은 주로 논으로 이용되고, 남쪽인 대정촌 부근은 대부분 밭이거나 잡종지로 기록되었다. 특히 잡종지는 지금의 대정촌 주변인 남쪽으로 많이 분포하는데, 남쪽에 분포하는 잡종지는 일본인 심전여삼병위(深田與三兵衛)가 19필지 154,613평을 모두 차지하고 있다. 심전여삼병위는 황무지 개간을 목적으로 이러한 토지를 차지했다. 그는 잡종지가 많은 지역의 전(田) 32필지 196,673평도 소유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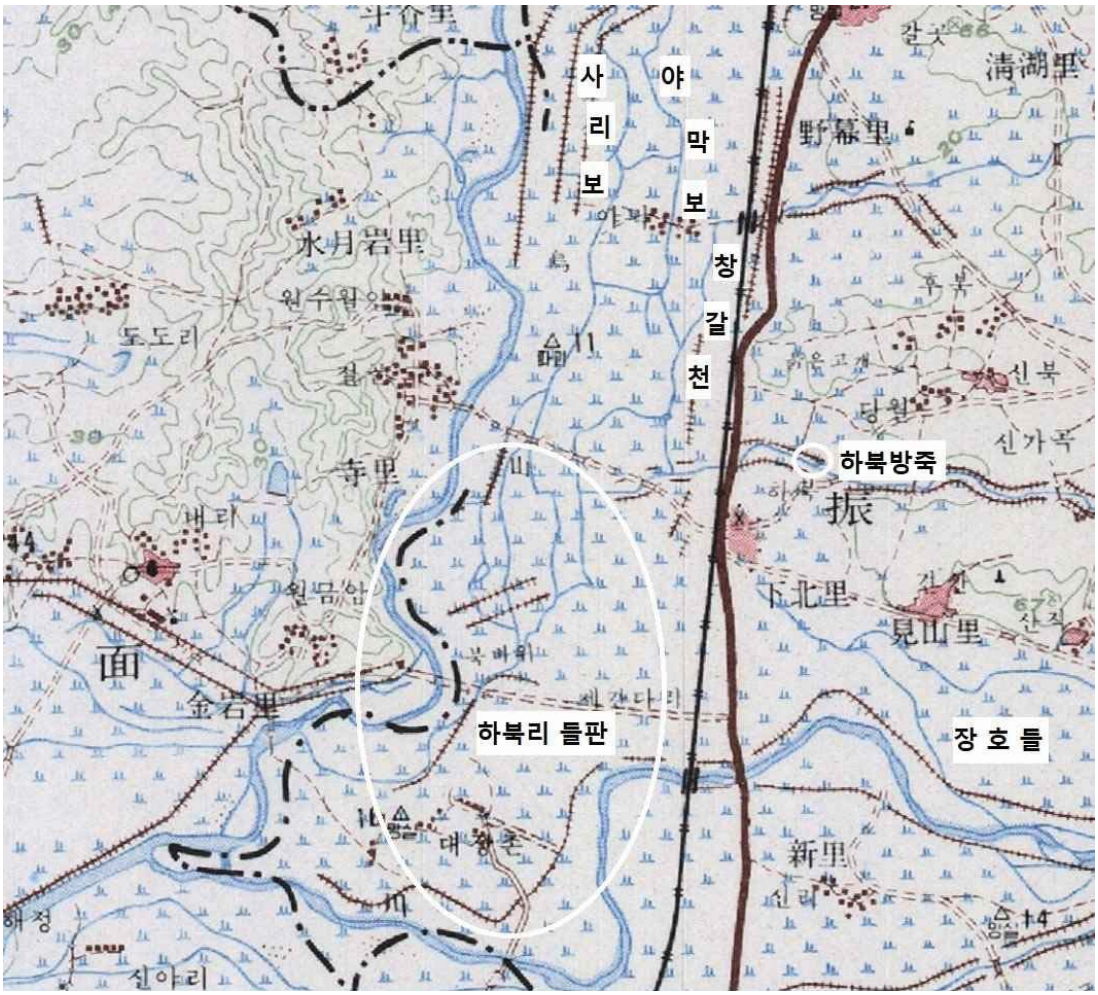
1912년 지적도에 표시된 경작지의 모양 : 세장형(細長型)을 띤 논밭이 많다

1912년에 작성된 지적도에 의하면 하북리 논이나 밭들은 길죽한 모양을 띠고 있다. 논의 경우는 개간 당시 물을 대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모양을 갖게 되었다고 추정될 수 있지만 밭도 논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1970년대 초반 경지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경작지의 모양이 유

지되었을 것이다.

경지정리가 되기 전까지 하북리 들판의 농지에 물을 대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보의 조성이다. 보는 세 군데가 있었다. 봉남리 향교앞에 있었던 장호보[36]가 있다. 장호보는 진위향교에서 동쪽 위의 진위천을 막아 조성한 것으로 장호들을 지나 하북리까지 물을 댈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진위천유원지 근처에도 신리보를 막아 장호들 남쪽으로부터 서쪽으로 흘러 장호보와 합류되어 서쪽 들판까지 물을 댈 수 있게 하였다. 이 두 보는 1970년대 초반 장호들이 경지정리 된 후 이동저수지에서 농업용수가 공급되면서 폐기되었다.

두 번째는 하북4리 북쪽 골짜기를 막은 ‘하북방죽’이다. 이길수(1952년생)은 이 방죽에 물을 가둔 겨울에는 족히 2천 평이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물은 가곡리에서 발원되어 하북리 들판의 북쪽에서 창갈천과 합류된다. 또한 고현리에서 발원하여 청호리와 야막리를 지나 남쪽 하북리로 흐르다가 오산천과 합류되는 창갈천도 농업용수 확보에 중요한 기능을 했다.



하북리 들판의 관개

셋째는 야막리 북쪽에서 물을 막아 야막리 들판에 관개를 했던 야막보와 사리보도 남쪽으로 흘러 창갈천과 연결되는 만큼 하북리 들판의 관개에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야막보 및 사리보에

36) 평택문화원, 『2019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2019, 82쪽 참조.

서 흘러내린 물은 모두 창갈천에 합류된다. 농지정리를 하면서 창갈천이 금암교 부근에서 오산천과 합류되도록 새로 물길을 냈지만, 원래는 물의 일부가 계속 남쪽으로 흘러 대정촌 서쪽까지 흘렀다. 1912년 지적도에서 대정촌 서쪽으로 논이 분포할 수 있었던 것도 창갈천 하류에서 흘러내린 물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러한 창갈천 군데군데로 보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만날 수 없었다.

넷째는 1912년 지적도에는 지목이 지소(池沼)로 되어 있는 토지가 모두 4필지이다. 그 넓이도 각각 861평, 2,813평, 167평, 883평으로 상당히 넓은 편이다. 이 정도면 작은 저수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소 역시 논에 물을 대기 위한 관개시설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작은 샘에서 나는 샘물을 논에 대는 방식이다. 물이 나는 곳에 샘을 파고 그 샘물을 논으로 퍼올리는 방식의 관개는 골짜기가 발달되지 않은 평택 지역에서 보편적인 관개 방식이었다.

하북1리의 이정재씨는 6·25 때 포탄이 떨어진 곳에 물이 고이면서 자연스럽게 샘이 조성되었고, 여기에 고인 물을 두 명이 고리두레로 논으로 퍼 올렸다고 했다. 그는 당시에는 굴삭기 같은 중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땅을 파서 인공으로 샘을 만드는 일은 엄두를 못 냈다고 했다. 그러나 배후습지가 발달했던 하북리 역시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인공으로 샘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인공샘을 파지 않았던 이유가 도랑을 따라 흐르는 물을 댈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북리 북쪽은 하천과 봇물이 여러 갈래로 지나가기 때문에 남쪽 들판에 비해 벼농사에 유리하였다. 관개에 불리했던 남쪽 지역은 창갈천의 하류 물을 끌어서 농사를 지었다. 1912년도의 지적도에 의하면 창갈천 하류에서부터 남쪽으로 물길이 표시되어 있다. 이 도랑을 따라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만 가능하였다. 그런데 1970년대 초반 경지정리가 되면서 창갈천과 오산천의 합류지점이 금암교 바로 남쪽 지점으로 바뀌었다. 이때부터는 창갈천 하류 끝에 보를 막아 대정촌 서남쪽 논에 물을 댔다. 다음은 정병헌씨의 기억을 글로 옮긴 것이다.

금암교 바로 위 창갈천의 하류를 막고 물을 끌어들여 큰 웅덩이에 물을 가두었다. 이 웅덩이는 대략 2천 평 정도 되었는데, 마름이 많아 ‘마름웅덩이’로 불렀다. 이 웅덩이의 이름을 따라 창갈천을 막은 보를 ‘마름웅뎅이 뒷보’라고 했다. 보는 보통 봄에 한 번 쌓고, 장마 후에 또 한 번 해서 1년에 2회를 쌓았다. 또한 웅덩이 주변은 ‘보들’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다시 마름웅덩이에서 남쪽으로 도랑을 파서 논에 물을 대고 벼농사를 지었다. 내려오는 물은 다시 마을 서북쪽에 있는 웅덩이로 모이게 했다. 이 웅덩이는 약 1천 평 정도 되었다. 이 웅덩이의 물은 마을 서남쪽 들판에 있는 들판의 논농사에 이용되었다. 이 물로 논농사를 짓는 들판을 ‘깊은데’라고 불렀다. 깊은데 서쪽 지역은 지대가 높아 논농사를 지을 수 없어 밭으로 이용되었는데, 쌀이 귀했던 옛날에는 밭벼를 심었다.

대정촌 동쪽 끝 들판의 진위천변으로 ‘오정보들’이라는 데가 있다. 지금 오정보들의 윤곽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마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들판이다. 대정촌에서 만난 주민들에 의하면 오정보, 즉 1만 5천 평 정도가 되는 경작지가 있었는데,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고 있던 들판 이름이었다. 아마 5정보 쯤 되는 땅이 같은 시기에 개간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들판 이름일 것이다. 정병헌(남, 1958년생)씨에 의하면 오정보들에 물을 대기 위해 오산천에서부터 이곳까지 수로를 만들고, 오산천에서 발동기로 물을 퍼서 이곳으로 흐르게 했다. 이 수로를 ‘물갯간’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같은 마을의 노인회장인 권병덕(남, 1948년생)씨는 서쪽 오산천과 동쪽 오정보들 사이에 장둑을 쌓고 장둑 위에 물길을 내어 양쪽에서 물을 퍼올려서 장둑 남쪽에 농업용수를 공급했다고 하였다. 또한 장둑에는 아주 큰 나무들이 있었다고도 했다. 어느 기억이 맞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장둑을 쌓아 발동기로 물을 퍼 올려서 오산천과 진위천의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했던 사실과 그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있다.

1970년대 대정촌 농지 관개 시설

대정촌의 동쪽 진위천이나 서쪽의 오산천으로는 예전부터 수해 방지를 위한 비교적 높고 튼튼하게 쌓여졌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앞냇갈이라고 불렀던 남쪽의 제방(장둑)은 지금보다 약간 안쪽에 낮게 있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 물이 남쪽 제방을 넘어 마을로 침수되었다. 지대가 낮은 아랫말 같은 경우는 농경지뿐 아니라 마을에도 1m~1.5m가 침수되곤 하였다. 지대가 약간 높은 웃말은 마당까지만 침수되었다. 그런데 1972년 여름 홍수가 크게 나면서 마을 전체가 침수되는 일이 일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의 'Lx판토스' 자리에 있었던 일성제지나 진위중학교로 피신하였다. 이때의 홍수를 계기로 하상(河床)을 정리하고 바깥쪽인 지금의 제방 위치에 2회에 걸쳐 둑을 쌓으면서 그 안쪽의 농경지가 홍수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게 되었다.

1969년 야막리 지구가 농지정리 되었고 1970년대 초반에 하북리 들판도 농지정리가 되었다. 하북1리의 이정재(남, 1939년생)씨는 하북리 들판 농지정리 때 환지위원장을 맡았다. 야막지구 경지정리 때 하북리 환지위원장을 했던 이종봉씨가 논 배정에 불만을 품은 사리 사람에게 맞았던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그를 환지위원장으로 추천했다. 그에 의하면 하북리 들판의 농지는 1960년대 말 야막리 들판의 경지정리에 이어 1972년에 실시되었다. 당시 논은 1,210평씩으로 나누었고, 500평 미만의 농지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고 환지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경지정리가 되면서 들판의 대부분이 논으로 바뀌었고, 동시에 이동저수지에서 농업용수가 공급되면서 수리안전답이 되었다. 그러나 하북2리 대정촌의 동·남·서쪽에 있는 경작지는 지주들의 반대로 농지정리가 되지 않아 지금도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대정촌 들판 중 경지정리가 안 된 경작지 분포 지역

(2) 토지 소유 관계

1912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부(이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하북리 일원의 토지는 하북리와 주변 마을 거주민 뿐만 아니라 일본인 및 타지역의 인물들이 다수 있다. 토지조사부의 내용을 지역별로 재구성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거주지	소유자	지목	필지수	소유면적
하북리	김덕영	전	2	1,304
하북리	김명순	답	1	213
		전	2	1,110
하북리	김연호	답	1	338
하북리	김점석	전	5	1,334
하북리	박상현	전	4	1,273
하북리	박원백	전	1	444
하북리	박원심	전	2	629
하북리	박창실	전	4	1,328
하북리	박춘엽	전	3	2,640
하북리	박희천	전	2	655
하북리	윤경분	답	5	4,660
		대	5	1,333
		전	3	5,445
하북리	이경재	답	11	16,979
		대	1	338
		전	8	5,945
		지소	1	861
하북리	이극재	대	5	1,157
		잡종지	1	828
		전	7	3,834
		지소	1	2,813
하북리	이긍재	답	1	715

거주지	소유자	지목	필지수	소유면적
하북리	이대래	답	1	1,051
		전	1	142
하북리	이대래 이붕래	임야	1	3,411
하북리	이동순	전	1	172
하북리	이두재	답	3	2,414
		전	3	2,959
하북리	이래숙	전	1	403
하북리	이민래	전	4	1,158
하북리	이백래	대	1	581
		잡종지	1	108
		전	2	1,535
		지소	2	1,050
하북리	이백래외3인	답	2	1,209
하북리	이병규	전	1	723
하북리	이병덕	전	2	919
하북리	이병륜	전	3	1,236
하북리	이병순(淳)	답	1	548
		전	4	1,542
하북리	이병철	전	4	1,027
하북리	이병홍	전	5	1,314
하북리	이붕래	답	1	195
하북리	이석래	답	1	268
		전	3	1,106
하북리	이선경	답	1	78
		대	1	71
		전	1	157
하북리	이영운	전	2	954
하북리	이용구	답	2	837
		전	4	2,421
하북리	이용국	전	5	5,252
하북리	이용기	답	8	3,003
		대	1	328
		잡종지	1	112
		전	6	3,121
하북리	이용대	잡종지	1	84
		전	1	725
하북리	이용범	답	7	2,984
		전	2	1,315
하북리	이용설	답	1	750
		잡종지	1	1,239
		전	1	1,444
하북리	이용섭	전	1	756
하북리	이용은	답	4	3,402
		전	3	1,096
하북리	이용일	답	1	448
하북리	이용준	답	8	9,476
		대	4	1,747
		임야	1	4,047

거주지	소유자	지목	필지수	소유면적
		전	11	9,210
하북리	이용직	답	1	1,196
		전	2	1,386
하북리	이용하	답	14	10,789
		잡종지	1	617
		전	5	3,028
하북리	이용후	답	1	2,159
하북리	이우래	답	3	950
		대	5	1,786
		잡종지	2	1,784
		전	4	5,043
하북리	이특래	전	3	1,536
하북리	이형래	답	1	162
		전	7	3180
하북리	임서학	전	1	198
하북리	최상근	답	1	745
		전	1	229
하북리	하북리	임야	2	1,787
하북리	한만수	전	1	111
하북리	황봉현	답	2	368
		대	1	98
가곡리	고제항	전	1	1,131
		답	1	677
가곡리	권남규외2인	답	1	204
가곡리	권영수	답	1	878
		전	1	217
가곡리	서봉기	답	1	497
		전	1	454
가곡리	양건수	답	2	881
		전	3	1,496
가곡리	양귀환	답	1	561
		전	3	1,021
가곡리	양필수	전	1	1,402
		전	1	1,281
가곡리	정성실	전	1	760
가곡리	최대성	답	1	335
견산리	백진성	답	1	464
견산리	엄관규	답	2	743
		전	2	4,498
견산리	유지천	답	2	736
견산리	유춘삼	압	1	609
견산리	이선영	전	1	1,454
견산리	이용희	잡종지	1	274
견산리	이흥기	전	2	1,024
경성부	김상익	답	4	2,922
경성부	김인제	답	2	716
경성부	박대혁	답	2	1,756
		전	3	6,138
경성부	신홍식	답	3	5,355
		전	1	379

거주지	소유자	지목	필지수	소유면적
경성부	안흥선	답	8	11,086
		잡종지	1	156
		전	2	2,165
경성부	오정옥	답	1	795
경성부	윤용구	답	14	19,794
		전	1	409
경성부	윤용래	답	1	338
경성부	윤헌영	답	4	7,919
경성부	이해승	전	1	4,240
경성부	조봉천	답	1	948
경성부	천극식	답	1	1,037
경성부	한규설	답	8	8,929
		대	2	335
		전	1	156
금암리	강한봉	전	1	1,161
금암리	강한승	전	3	2,426
금암리	김문경	전	1	129
금암리	김병준	전	1	740
금암리	백남준	답	1	189
금암리	양계국	전	1	551
금암리	유춘기	답	1	887
금암리	이보필	전	1	2,808
금암리	이영휘	전	1	1,335
금암리	이용고	답	1	1,076
		전	4	4,171
금암리	이유덕	전	1	126
금암리	장봉구	전	1	3,053
금암리	장세록	전	1	2,427
금암리	장세윤	임야	1	562
		전	2	1,623
금암리	장세태	전	1	495
금암리	장세풍	전	1	2,033
금암리	최근성	답	2	1,219
		전	1	1,402
금암리	최장화	전	2	1,475
금암리	한종석	전	1	4,010
수원군	박성행	전	1	1,296
수원군	용주사	답	16	23,565
		전	3	6,393
수원군	윤교덕	답	1	1,735
		전	1	2,720
수원군	이동호	임야	1	3,832
		전	1	196
수원군	이성규	전	1	312
수월암리	윤재청	답	2	1,647
신리	송종희	답	1	551
신리	이규철	답	1	460
신장리	박계훈	전	1	1,003
신장리	박극보	전	2	2,502
신장리	박동훈	임야	1	985

거주지	소유자	지목	필지수	소유면적
		전	2	3,499
신장리	박문훈	전	1	1,429
신장리	박상준	전	1	539
신장리	박상훈	전	1	711
신장리	박승익	전	1	629
신장리	박영익	전	2	2,283
신장리	박태훈	임야	1	855
		전	2	2,292
신장리	엄규영	전	4	2,361
신장리	유도원	전	3	3,900
신장리	이규학	전	2	3,863
신장리	이순룡	전	1	484
신장리	이준영	전	1	360
		전	1	282
신장리	조재정	전	1	1,032
신장리	진협	전	1	1,408
안성군	이하용	답	3	1,704
야막리	간학모	전	2	697
야막리	김경호(중중재산)	답	1	235
야막리	김대희	전	1	1,783
야막리	김만희	답	1	796
		임야	1	678
		전	2	530
야막리	김명희	전	1	1,413
야막리	김상국	답	2	1,485
야막리	김상록	임야	1	904
		전	1	1,128
야막리	김상주	전	1	547
야막리	김석희	답	2	1,700
		전	3	792
야막리	김연호	전	1	347
야막리	김영희	답	2	1,086
야막리	김인희	임야	1	1,350
야막리	김인희	전	1	1,105
야막리	김재규	답	3	4,054
		전	2	2,025
야막리	김재원	답	3	2,225
		전	1	709
야막리	김준희	전	2	1,423
야막리	김춘희	답	2	2,363
야막리	김태흥	답	1	544
야막리	마복룡	답	1	265
야막리	박경재	답	3	1,815
야막리	윤교석	답	5	11,554
		임야	1	2,464
야막리	윤교영	전	2	2,160
야막리	윤교원	답	1	1,389
		전	1	548
야막리	윤교일	답	1	1,209
야막리	윤대선	답	5	3,332

거주지	소유자	지목	필지수	소유면적
		전	1	466
야막리	윤명교	답	1	636
야막리	윤명흠	답	6	9,180
야막리	윤명흠	전	1	126
야막리	윤양선	답	1	1,285
야막리	윤영달	전	1	895
야막리	윤영상	전	1	1,271
야막리	윤영수	답	1	686
야막리	윤영오	답	2	1,653
		임야	1	256
야막리	윤영오	전	1	135
야막리	윤영우	답	1	1,139
야막리	장덕건	답	2	2,910
야막리	장석주	답	2	3,243
		전	1	1,178
야막리	장재근	답	7	8,247
		전	5	5,639
야막리	한교선	답	1	656
은산리	이병순(純)	전	1	1,311
인천부	평생팔삼랑	답	1	1,865
장등리	장등리	임야	1	1,567
		전	1	595
죽산군	유진규	답	2	2,039
지산리	이종구	전	1	1,115
지제리	이면규	전	1	1,675
천안군	이덕래	전	3	2,344
충남 청양군	이충래	전	2	2,701
회화리	회화리	임야	1	2,091
국유지	국유지	철도용지	3	17,889
		답	6	12,359
		임야	1	534
		전	4	7,119
금암리	등본미차랑	답	5	4,426
금암리	산전현의	답	1	872
		전	2	2,406
동경시	암기구미	답	13	19,366
		전	2	2,006
동경시	한국흥업주식회사	답	2	16,907
서정리	산기원차랑	답	2	527
		전	1	806
수원군	서정융흥	답	4	864
		전	4	1,382
자하현	심전여삼병위	답	7	6,424
		대	1	504
		임야	1	468
		잡종지	19	154,613
		전	32	196,673
충남 회덕군	전구마차랑	답	2	1,626
		전	2	1,344
인천부	평생팔삼랑	답	1	1865

각 소유주 거주지별 토지 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1912년 토지조사부의 거주지별 토지 소유 현황[37]

	전			답			잡종지			임야			대지		
	인원	필지	면적	인원	필지	면적	인원	필지	면적	인원	필지	면적	인원	필지	면적
하북리	44	39	81,339	26	83	65,937	7	8	4,772	3	4	9,245	8	24	7,439
가곡리	7	12	6,481	7	9	4,033									
견산리	4	5	6,976	4	6	2,552	1	1	274						
금암리	17	24	28,804	4	5	3,371				1	1	562			
수월암				2	2	1,647									
신리				2	2	1,011									
신장리	16	27	28,577							2	2	1,840			
야막리	20	32	24,917	25	57	63,687				5	5	5,652			
은산리	1	1	1,311												
장등리	1	1	595							1	1	1,567			
지산리	1	1	1,115												
지제리	1	1	1,675												
회화리										1	1	2,091			
경성부	6	9	13,487	11	49	61,595	1	1	156						
용주사	1	3	6,393	1	16	23,565									
수원군	4	4	4,524	1	1	1,735				1	1	3,832			
안성군				1	3	1,704									
죽산군				1	2	2,039									
천안군	1	3	2,344												
청양군	1	2	2,701												
일본인	6	43	204,617	8	36	5,877	1	19	154,613	1	1	468	1	1	504
합계	131	207	415,856	93	271	238,753	10	29	159,815	15	16	25,257	9	25	7,943

장등리와 회화리 토지는 모두 소유자가 마을명으로 되어 있고, 하북리의 임야 중 2필지 1,887평 역시 마을명이다. 전체 토지 중 하북리 거주민, 인근 마을 거주민, 일본인, 서울 거주민, 원거리 거주민 및 용주사의 토지 소유 비율은 아래와 같다.

하북리 주민이 소유한 토지의 비율

지목	전	답	잡종지	임야	대지
비율(%)	19.56	27.62	2.99	36.60	93.65

인근 마을 주민이 소유한 토지의 비율

지목	전	답	잡종지	임야	대지
비율(%)	24.16	31.96	0.17	46.37	·

37) 공동명의로 소유하였거나 소유자가 마을명으로 기재된 경우도 인원수를 각각 1로 계산하였으며, 합계는 국유지를 제외한 수치이다.

서울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의 비율

지목	전	답	잡종지	임야	대지
비율(%)	3.24	25.80	0.10	·	·

서울 이외의 원거리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의 비율

지목	전	답	잡종지	임야	대지
비율(%)	2.30	2.46	·	15.17	·

용주사가 소유한 토지의 비율

지목	전	답	잡종지	임야	대지
비율(%)	1.54	9.87	·	·	·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비율

지목	전	답	잡종지	임야	대지
비율(%)	49.20	2.46	96.74	1.85	6.35

1912년 작성된 토지조사부의 내용을 1902년 작성된 광무양안과 비교하면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호수(戶數)의 차이이다. 광무양안에는 하북리에 총 32호로 정리되었다. 이에 비하여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대지(垈地)는 25필지로 토지의 지목만으로만 본다면 25호가 있었다. 모두 7호로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하북리 지적 측량을 1910년(명치 44)에 실시하였으니 농촌 마을에 큰 변화가 없는 시기에 10년도 안 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적은 수치도 아니다.

둘째, 토지 소유주 명단의 차이이다. 하북리 토지조사부에는 국유지 외에 한국인 소유주가 166명이다. 토지조사부의 토지소유주 중 광무양안과 겹치는 명단은 용주사를 제외하고 5명[38]이다. 용주사를 포함한 이들의 토지 소유 현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인물	광무양안				토지조사부			
	전		답		전		답	
	필지 수	면적 (평)	필지 수	면적 (평)	필지 수	면적 (평)	필지 수	면적 (평)
김명순	1	23.83	1	93.78	2	1,110	1	213
박경재	2	435.61	1	317.63			3	1,815
박창실	4	205.71			4	1,328		
박희천	2	214.78	1	51.43	2	655		
이영운					2	954		
용주사	3	1,092.05	20	7,057.50	3	6,393	16	23,565

광무양안과 토지조사부의 이름이 겹친 5명 모두 토지조사부의 토지가 광무양안에 기재된 넓이보다 월등히 넓다. 이영운 같은 경우는 소작을 하다가 농지를 새로 매입했을 것으로 쉽게 추정이 되지만, 나머지 4명도 일제히 농지 면적이 대폭 증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서울에 거주하는 박대혁(朴

38) 토지조사부에 朴喜天으로 표기된 인물을 광무양안의 朴喜千(喜天)과 광무양안에는 朴京才로 나왔으나 토지조사서에는 朴敬在로 되어 있는 인물도 한글 발음이 같은 이유로 동일한 인물로 간주한 것을 감안한 숫자이다.

大赫)은 양주군, 수원군, 진위군에 총 94정보(町步)이며 소작인 수만 해도 135명에 이른다.[39] 그의 전체 보유 농지 중 42.55%인 40정보가 진위군에 소재하였다. 하북리에는 전 3필지 6,138평과 답 2필지 1,756평으로 총 7,894평이 있다. 박대혁을 포함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지주는 총 11명에 이르며 그 중 안흥선, 윤용구, 한규설은 1만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명단이 광무양안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하여 광무양안상에는 많은 토지를 소유했던 인물들이 토지조사부에는 모두 누락되었다. 앞서 언급한 5명의 인물은 모두 소작농이었거나 중소농민 수준이다. 어떤 연유와 과정으로 10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주요 토지 소유주가 대폭 변동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용주사 또한 광무양안에 비해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토지가 세 배 넘게 증가하였다. 용주사는 1938년 기준으로 수원군과 진위군에 총 117정보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 중 85.47%인 100정보가 진위군 농지였다. 하북리 토지조사부에는 전답을 합하여 29,958평인데, 광무양안에는 토지조사부의 27.20%에 지나지 않는 8,149.55평이다. 용주사 소유의 농지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인 한국흥업주식회사를 제외한 일본인 8명이 하북리 일대에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특히 전(田)의 소유는 49.2%로 절반 정도이며 잡종지는 무려 96.74%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심전여삼병위가 소유한 잡종지154,613평은 대정촌 근처의 진위천과 오산천변의 배후습지였다. 그는 대정촌 주변의 잡종지를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전 전체의 36.33%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전여삼병위가 '조선인 지주명단' 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이들 일본인들의 진출 과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3) 시설 농업[40]

1912년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하북리의 밭과 논의 비율은 6:4 정도로 밭이 많았다. 지형의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아 비교적 지대가 높고 관개가 어려운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반 경지정리가 되고 이동저수지에서 농업용수가 공급되면서 대부분 논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경지정리가 될 무렵에 시설 채소 농업이 시작되어 지금은 논농사보다 오히려 시설 채소 재배 지역이 넓다. 아래 지도와 같이 시설재배는 하북3리 마을 남쪽으로는 확대되었다. 그래서 대정촌의 경우에는 주로 밭작물을 재배하면서 이동저수지에서 공급되는 농업용수도 필요하지 않아 끊긴 상태이다.

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시 피분배 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 1985, 97쪽

40) 시설농업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현재 진위시설채소출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병헌(1958년생)씨 및 10년 동안 대정촌의 이장을 지냈으며 현재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 이세영(1958년생)씨, 하우스 짓는 사업을 하고 있는 대정촌 노인회장 권병덕(1948년생)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하북리 시설채소 재배 지역 : 대정촌과 새마을촌 일원으로 넓게 펼쳐져 있다.

채소 농사를 지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다. 첫째는 지하수에서 염기가 없어야 하며 철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도 문제가 있다. 둘째는 모래가 적절히 섞인 토양이어야 하며 점토질 토양은 부적절하다. 셋째는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넓은 들판이 펼쳐진 오성면 지역은 점토질 토양이고 지하수에 염기가 있어서 채소농사가 어렵다. 위 지도에서 진위역 서쪽으로 비닐하우스가 많지 않고 새마을촌의 창갈천 서쪽도 이 조건에 미달하여 논농사를 많이 짓는다.

하북2리 대정촌 주변의 시설채소 재배 단지

하북리 시설채소 재배는 대정촌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하북2리 농지의 대부분과 하북3리 중 창갈천 동쪽 농지로 확산되었다. 비닐하우스 시설이 나오기 전인 1960년대 중반에 하북2리의 대정촌에서 노지 배추 재배가 시작되었다. 정병헌씨에 의하면 대구에서 대정촌으로 이주한 이삼용씨가 처음 대량으로 노지에서 배추 재배를 시작하였다. 그 당시 대부분 재래종 배추[41]를 재배하였는데, 이삼용씨가 통배추

41) 정병헌씨는 재래종 배추를 호배추라고 했는데, 호배추가 곧 결구배추이다.[문화연연합회 홈페이지 (https://ncms.nculture.org/) 참조] 그가 언급한 호배추가 반결구종인 재래종 배추를 의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구배추)를 잘 재배하는 기술이 있어 노지에서 통배추를 길러 도시로 출하를 했다. 그래서 정병헌씨는 이삼용씨의 대구농장이 노지 배추의 원조라고 했다. 당시 이삼용씨가 배추 한차를 싣고 나가면 쌀 한차를 싣고 들어올 정도로 배추금이 좋았다. 이삼용씨는 하우스시설을 하여 배추를 재배하기 7~8년 전부터 노지배추만 재배했으나, 그의 배추 재배가 당시에 유명세를 타서 그런지 하북리 일원에서는 그가 시설재배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42] 또는 그보다 조금 늦게 이 마을에서 배추농사를 시작한 전라도 쪽에서 이주해 온 인물을 시설농의 원조로 얘기하기도 한다.[43] 다른 한편으로 당시에 대정촌 마을에서 최하 15~20명 정도는 열무, 애호박, 고구마 순, 참외 등 송탄쪽 신장동 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야채을 재배하였다. 이들은 대정촌 남쪽의 진위천을 건너거나 물이 많을 때는 장둑위로 난 길을 따라 하북다리를 건너 송탄 쪽에 가서 재배한 야채들을 팔았다. 처음에는 우마차를 이용하여 싣고 가다가 1973년에 이영상씨가 대동경운기 8마력짜리를 샀다. 또한 권병덕씨는 하우스 재배 전에도 배추를 비롯하여 가지, 오이 같은 채소를 노지에서 재배하는 농민들이 많았다고 했다.

이삼용씨가 배추 재배로 수익을 많이 올리자 마을 사람들이 따라서 노지에서 배추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점차 배추 재배 면적이 확대되었고, 농사짓는 인원도 6~7명으로 늘어났다. 무는 배추만큼 소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배추를 재배했던 것이다. 그렇게 노지에서 7~8년 정도 배추 재배하다가 1972~3년에 무렵에 터널식으로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사를 지었던 것이 시설재배의 시작이었다.[44] 하우스 재배는 당시 5명이 함께 시작하였다. 5명은 팔당댐 조성으로 마을이 수몰되어 광주분원에서 대정촌으로 이주한 안선양씨와 김○섭씨, 진천에서 이주한 장○○씨, 그리고 이 마을 출신이며 정병헌씨의 부친인 정함순씨와 그의 친구였던 이영상(1927년생)씨이다. 이들 중 4명은 연배가 비슷했고, 광주에서 이주한 김○섭씨만 10년 정도 위였다. 그러니 4명은 40대 중반이고, 나머지 1명은 50대 중반이었다. 이들은 전남 담양산 대나무와 대만산 대나무를 구입하여 하우스를 지었다. 대만산 대나무는 마디와 마디 사이가 길고 위와 아래의 굵기가 비슷하며 좀 약하여 잘 휘어졌다. 반면에 담양의 대나무는 밑동이 굵고 마디가 가까워서 단단한 대신 휘다가 잘못하면 잘 꺾여서 부러지곤 하였다. 하우스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더러 겁을 내고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다가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농사짓는 것을 보고 조금씩 늘어갔다. 그래서 나중에는 30명 넘는 주민들이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었다. 그렇게 해서 대정촌은 1970년대 '진위 애호박'의 원조 마을이 되었다.

비닐하우스는 통대나무를 양쪽에 세우고 서로 맞대게 휘어서 가운데 세 군데를 지푸라기로 묶고 위에다 비닐을 씌워서 터널형으로 지었다. 11월에 하우스를 짓고 겨울 상추나 봄배추를 심어 수확한 후 하우스를 뜯는다. 하우스는 뜯고 난 후 하우스 없이 노지에 가을배추를 길러서 출하 한다. 가을배추를 수확한 후 다시 하우스 짓는 일을 반복한다. 하우스 농사를 처음 지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주로 상추나 배추를 재배하였다.

1974년 무렵에는 아연도금이 안 되어서 녹이 스는 파이프가 생산되었는데, 이것을 흑관이라고 불렀다. 이때부터 대나무 대신 쇠파이프로 하우스를 지었다. 그런데 파이프 값이 비싸서 대나무와 쇠파이프를 벌갈아 설치하기도 하였다. 1977~8년 무렵에는 도금된 쇠파이프가 나왔다. 정병헌씨는 당시 8m 길이의 쇠파이프로 폭 5~5.2m의 터널형 비닐하우스를 지었다고 했다. 하우스 1동의 넓이는 150평 정도이며 길이가 90~95m이다. 이렇게 하면 논 1,200평짜리 한 구간에 6동의 터널형 비닐하우스를 짓게

42) 대정촌의 이세영(1958년생)씨와의 인터뷰
43) 대정촌의 권병덕(1948년생)씨와의 인터뷰
44) 이 내용은 정병헌씨와의 인터뷰 내용인데, 이세영씨는 통대나무 하우스를 짓기 전인 1960년대 후반에 평택의 죽제사라는 곳에서 쪼갠 대나무를 공급받아 작은 형태의 비닐하우스를 했다고 하였다.

된다.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는 보통 60∽80cm 간격이다. 대정촌 출신으로 현재 비닐하우스 짓는 사업을 하고 있는 권병덕(남, 1948년생)씨는 현재 생산되는 파이프의 직경이 22mm, 25mm, 32mm, 48mm 이며, 두께는 1,5mm로 길이는 모두 10m라고 하였다. 하우스의 규모가 클수록 파이프의 직경도 큰 것을 써야 한다. 그는 파이프를 100cm 또는 50cm 간격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하였다. 넓이를 4.5m 정도이고 5m로 하면 높이가 약간 낮다고 한다. 또한 하우스를 좀 높게 지으려면 한쪽에 1m짜리 파이프를 연결하여 짓는다. 터널형으로 짓는 소형 하우스는 가는 파이프를 써도 되지만 대형하우스는 48mm짜리를 이용하여 사각으로 지어야 한다.

대정촌 이세영씨 소유의 토마토 재배 시설

대정촌 정병헌씨의 토마토 수확

처음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농사지을 때는 비닐이 한 겹이었으며, 별도의 난방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그래서 겨울에는 다시 안에 대나무 활대로 작은 논농사에서 못자리를 하는 것처럼 터널형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비닐을 씌우고 그 위에 짚으로 짠 섶을 덮었다. 1982~3년 무렵에 이중하우스 시설이 시작되었다. 즉 비닐하우스를 2중으로 설치하고 안에 작물을 기르는 형태이다. 바깥쪽 하우스 가운데에 물을 분사하는 시설을 하고 지하수를 뽑아 올려 안쪽 하우스 위로 뿌려준다. 지하수를 막 뽑아 올릴 때 수온이 14~5℃쯤 되는데 하우스 위에서 뿌려질 때는 물의 온도가 8℃ 정도이다. 이렇게 하는 방식을 수막재배라고 부르는데, 수막재배를 하면 바깥 기온이 영하 12~13℃에서도 작물을 키울 수 있다. 약 25년 전에는 정부에서 정한 표준화 하우스가 들어섰다. 이것은 연동형 하우스로 천정에 커튼을 설치하고 열풍기로 난방을 하는데, 1,000평 크기에 열풍기 2대를 설치한다. 열풍기 연료로는 경유를 사용하였으나 3∽4년 전부터는 석유로 전환되었다. 연탄을 때면 일산화탄소 때문에 파이프가 삭고 작물에 해가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연탄난방은 시작하지 않았다.

정병헌씨에 의하면 현재 하우스 짓는 비용은 현재 2중 구조의 터널형 단동하우스 1동에 최하 1,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45] 그의 기억으로 23년 전에는 6동을 지으면서 하우스 짓는데 1,300만 원, 전기 시설 200만 원으로 2,500만 원 정도 들었다. 그러니 당시에는 1동 짓는데 470만 원꼴이었다. 이세영씨는 10여년 전에 32mm 파이프로 1,400평 정도의 3중 연동하우스 지었다. 비닐하우스는 2중으로 하고 안쪽 하우스 지붕에 커튼을 설치하였다. 커튼은 날이 추우면 내리고 날이 좀 풀리면 올려서 하우스 안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 1억 4,000만원이 소요되었다. 5,000만원은 융자를 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였다. 하우스를 짓는 데는 정부나 시의 보조가 없고 비닐을 갈아 씌우는 데만 시・도의 보조가 60%이다. 3년 전인 2018년 태풍으로 이세영씨의 1,000평짜리 하우스가 완

45) 하우스 짓는 비용은 파이프의 굵기와 파이프 간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권병덕씨 인터뷰)

전히 찌그러져버린 적이 있었다. 당시 농어민 보험으로 5,000만원이 나왔는데, 하우스를 짓는 데는 1억 6,0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올해(2021년) 같은 경우는 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그 정도 규모로 지으려면 2억 원이 넘게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정병헌씨는 대정촌에서 처음 비닐하우스를 시작할 때 비닐의 수명은 6개월 정도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권병덕씨는 옛날 배추 농사 때는 비닐을 1년에 한번씩 벗겨버렸는데, 관리만 잘 하면 3년까지 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조금 두꺼운 비닐이 생산되었는데, 오래 되면 때가 껴서 햇빛이 통과하기 어려워 3년 정도 쓰고 갈았다. 지금은 바깥쪽 하우스에는 먼지가 앉지 않는 일제 비닐을 씌운다. 정병헌씨는 150평 크기의 하우스 1동에 150만원 정도 하는 일제 비닐의 수명이 8년이라고 했고, 권병덕씨는 10년을 무난히 쓸수 있다고 했다. 2중 하우스 안쪽은 여전히 국산 비닐을 쓰는데, 가격이 40만원 정도 나간다.

대정촌에서 노지 배추를 처음 대량으로 재배할 때는 8월 10일에서 8월 15일 사이에 김장김치 모종을 하였다. 이때 일명 '떡배추' 라는 방식으로 모종을 키웠다. 가로 1.5m, 세로 1.2m 크기의 각목으로 된 나무틀을 밭에 놓고 밑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재와 흙을 섞어 물에 갠 것을 채워 넣은 다음 흙벽돌을 만들 듯이 나무틀을 뽑아내면 모판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모판을 밭에다 길게 40∽50개 뽑아서 늘어놓는다. 모판에 수분이 좀 빠져서 구덕구덕해졌을 때 칼로 인절미를 썰 듯이 나무를 칼처럼 만들어 가로 5cm, 세로 5cm 크기로 자른다. 이 작은 판을 떡판이라고 했다. 떡판의 가운데를 씨앗을 심을 깊이만큼 눈금을 새긴 원통형 대롱으로 찍어서 돌려 파내고 구멍에다 배추씨앗 하나씩 넣은 다음 모래를 덮고 물을 살짝 주었다. 그러면 떡판에 수분이 있어 발아가 된다. 발아된 모종은 조루로 물을 줘가면서 모판에서 30일 정도를 기른 후 하나씩 떼어서 밭에 옮겨 심었다. 모판이 떡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떡배추라고 한 것이다. 씨앗을 심은 뒤 비가 내리면 떡판이 풀어져서 모종을 망치기 때문에 비닐로 덮어야 했다. 또 밭에 물이 차면 안 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높은 곳으로 옮기기도 했다. 8월말에 태풍으로 폭우가 내려 잘못하면 배추모가 물위로 떠버리기도 했다. 이러한 떡배추 모종을 누가 시작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우나 정병헌씨는 당시 배추 기르는 기술은 대구농장 이삼용씨가 앞섰기 때문에 그가 이 방식으로 모종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떡배추 모종을 하다가 비닐이 보편화 되면서 5∽10년 정도는 작은 비닐봉지에 흙을 담고 씨앗을 심어 모종을 길렀다. 다시 25∽30여 년 전에 플라스틱 포트 트레이가 등장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플라스틱 포트 트레이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 구멍의 갯수가 다르다. 배추는 128구, 파는 160구 이상, 오이와 호박 및 토마토는 49구의 포트 트레이를 사용한다.

배추 농사에서 시작된 시설재배는 다른 열매채소 재배로 확대되었다. 처음에는 봄배추를 수확한 후 5월 20일~5월 31일 사이에 마디 애호박을 심었다. 배추는 하우스 안에다 심었지만, 배추 수확 후에 심는 호박은 하우스 파이프를 타고 올라가도록 바깥쪽 하우스 대 옆에다 심었다. 이후 호박과 오이 등을 주로 재배하다가 지금은 주로 호박과 방울토마토를 많이 재배하고 있다.

대정촌에 3대째 거주하며 최초로 시설농사를 시작했던 5명 중 이영상씨의 아들로 현재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이세영씨는 자신의 경험에 의한 농사 과정을 얘기했다.

우선 배추와 호박을 번갈아 짓는 과정이다. 배추 모종을 부어놨다가 2월 20일에서 3월 2일 사이에 배추 모종을 심었다. 배추는 25cm 간격으로 심어서 비닐하우스 한 동에 2,200 포기 정도를 심는다. 오이 같은 경우는 700포기 정도 심는다. 배추가 어느 정도 자라면 비닐에 구멍을 뚫었다. 5월 5일까지는 배추 출하를 끝내고 호박을 심는다. 예전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파이프 옆에 심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우스 안에 골을 치고 5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호박을 심은 다음 20여 일이 지나면 비닐을 걷어냈

다. 호박 수확은 6월 15일부터 시작되어 8월 20일까지 이루어진다. 9월 15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가을 배추 모종을 심는다. 요즘은 대부분 김장배추 보다는 얼갈이 배추 농사를 짓는데 이것은 10월 20일 경이면 거의 출하가 끝난다. 하지만 배추는 위에 비닐을 덮어놓으면 1월에도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세를 봐가면서 출하 시기를 조절하기도 한다. 가을에 배추 출하가 끝나면 2월 중순까지는 휴경기를 갖는다.

이세영씨는 현재 오이와 방울토마토를 번갈아 가며 농사를 짓고 있다. 2021년도의 경우 오이를 1월 19일에 심었다. 이 날짜는 다른 사람들이 오이를 심은 날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이는 3월 20일 경에 따기 시작하여 7월 8일까지 대략 4개월 정도 출하를 했고, 7월 23일에 방울토마토를 심었다. 이때 심으면 9월 20일 경에 따기 시작하여 1월 5일까지 수확한다.

채소를 심고 가꾸는 데에는 주로 인근 지역의 여자들이 일을 했다. 1973년 막내 아들을 낳은 해에 하북3리 새마을촌에 이주한 이순님(여, 1943년생)씨는 그 아들이 세 살 먹도록 키운 1976년부터는 인근지역에 농사일을 다녔다. 그녀의 나이는 33세 무렵이었다. 모내기나 김매기를 했으며 겨울에는 하우스 안에 거적(짚으로 짠 섶)을 덮는 등 남의 일을 다녔다. 이러한 일들은 주로 여자들 일이었는데, 처음 일을 시작할 무렵에 하루 품삯이 1,500원 정도였고, 그 후에 2,500원, 3,000원으로 조금씩 올랐다. 이순님씨처럼 당시에는 젊은 여자들도 밭일을 많이 다녔다. 인근 마을뿐 아니라 송탄쪽에서도 일을 하러오는 여자들이 많았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그들의 보수는 1달에 6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달에 200만원을 줘야 한다. 이들을 위해 농장주는 판넬로 숙소를 지어서 제공하고 전기요금과 쌀값을 부담한다.

권병덕씨에 의하면 배추농사를 짓던 초기에는 서울에서 상인들이 밭에 자라고 있는 배추 포기를 헤아려서 밭떼기로 매입을 했다. 그리고 중간에 밭 주인한테 전화로 필요한 요구를 하곤 했다. 수확 때가 되면 상인들이 일꾼을 데리고 오거나 마을 사람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해서 가락동으로 싣고 갔다. 배추는 이런 방식으로 팔았지만, 오이나 호박은 비닐 봉지에 100개씩 담는 포장을 해서 출하했다.

정병헌씨는 시설재배 초기인 1970∽1980년대 비닐하우스 1동이면 배추값이 70~80만원, 호박 15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당시 하우스 1동에 1년 매출액이 290~310만원이 된다. 이때 하우스를 많이 하는 집은 20동까지도 했으니[46], 그런 집에서는 1년 매출액이 5,800~6,200만원까지 올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세영씨는 2021년 오이를 심어서 자신의 연동형 비닐하우스 2,200평에서 7,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 중에서 수수료와 운임 및 적립금을 제하고 6,400만원이 들어왔다. 그는 2,200평을 단동형 7동 정도로 환산했는데, 하우스 1동당 914만원 정도의 수익을 본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비료 대금, 박스 값, 품삯, 비닐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제외해야 하니 순익은 그보다 훨씬 적다고 할 것이다.

하북리 북쪽의 야막리에서 시설농사를 짓는 임성남(1969년생)씨는 매출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 우선 하우스 재배는 흙에다 심는 '토경 재배'과 배양액을 이용하는 '양액 재배'가 있다. 오이를 토경 재배 할 경우에 비닐하우스 1동에 1,500 포기를 심어서 50개 들이 1,000박스를 생산한다. 옛날에는 100개 들이 박스로 포장을 했으나 요즘은 소포장 추세라 50개 들이 포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시세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1,5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 방울토마토의 경우에는 하우스 1동에 1,500포기를 심어 3kg 들이 700박스를 생산해서 7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 만일 양액 재배를 하게 되면 하우스 1동에 2,000포기를 심어 3kg들이 1,700박스를 생산하여 1,200만

46) 서울에서 사업과 직장 생활을 하다가 40대에 고향인 대정촌으로 돌아온 권병덕씨는 다른 사람의 농지를 임대하여 최고 49동까지 농사를 지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토마토의 시세가 가장 좋을 때는 8월 말∽9월 초 사이인데, 이때가 무더위로 착과가 잘 안되어 수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용으로는 비료대, 농약값, 인건비, 박스비 등이 있고 공적 수수료로 오이는 매출액의 10%, 토마토는 25%를 부담한다. 이렇게 비용과 공적 수수료를 제하면 순익은 대략 총 매출액의 35%가량 된다.

하북리에서 시설채소 재배를 하고 있는 농민은 대정촌에서 20명, 새마을촌에 5명 정도가 된다. 대정촌의 경우 많을 때는 35명까지 시설채소를 재배하였으나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에서 은퇴한 노인들이 늘고, 2가구 정도는 샤인머스캣 포도나 사과대추로 작목 전환을 하기도 했다.[47]

송탄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채소 출하회장 정병헌

시설채소 출하회 조직도

'송탄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채소 출하회(이하 출하회)' 는 이전에 있었던 작목반연합회가 개편되면서 2006년에 조직되었다. 출하회에서는 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영양제 구입이나 토양 개량 등의 각종 사업, 납품 거래처 섭외 등의 시장관리, 회원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진위면, 서탄면, 송탄, 고덕면에서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 농민 184명이 가입하고 있는데, 이중 80%는 진위면과 서탄면의 농민이다. 시설채소를 재배하고 있으나 현재 가입하고 있지 않은 농민도 10명 정도 된다. 회원인 농민들은 평균 2,500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다. 생산된 채소는 개인 출하와 공동선별 출하가 6:4의 비율이다. 출하회 회원들의 총 매출액은 연간 200억원에 이른다

47) 이러한 모습은 야막리에서도 확인된다.

2) 상업과 유통 및 자영업

일제 강점기에는 진위역 앞에서 하북장이 열렸다. 가마니 공출과 미곡 공출이 시작되자 진위면의 가마니와 미곡의 집적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장이 열렸는데, 해방 후 공출이 중단되면서 장도 시들해졌지만 6·25전쟁 전까지는 유지가 되었다.[48] 그러나 토박이 노인들 중에서도 하북장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고, 봉남리장을 기억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정촌 너머 구장터 마을에 장이 열렸고, 마을 이름도 신장리(新場里)가 되었다. 구장터 마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알고는 있으나 그 실상에 대해서는 이 마을 북쪽 진위천변에 나루가 있었고 배가 들어왔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할 뿐이다.

현재 하북리에서 가장 번화한 곳은 하북1리 진위역 맞은 편이다. 하북1리 이장인 이길수(1952년생)씨에 의하면 그가 어렸을 때의 모습은 지금과는 조금 다르다. 옛날에 가게는 현재 진위역 광장 위쪽에 하나가 있었고, 후에는 다시 길 건너에 또 하나가 생겼다. 우편취급소 앞에는 막걸리를 파는 술집이 있었다. 버스정류장이 이곳에 있었고, 또 사리로 넘어가는 철길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통행이 다른 곳보다 많았기 때문이었다.

1972년 홍원제지 공장이 들어선 것을 비롯하여 영풍제지, 일성제지,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 등의 회사들이 생기면서 번화하게 되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음식점과 술집들이 번성하였다. 그 당시를 경험했던 마을 사람들은 ‘그때 장사 잘 됐어요 여기’라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했다.

1970~1980년대 하북1리의 식당과 가게 밀집 지역

1980년대 중반부터 통근 버스가 등장하고, 자가용 승용차 문화가 보급되면서 번성했던 음식점들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2018년 무렵에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많은 음식점들이 헐리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갔다. 더욱이 최근에는 마을 주민들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큰 변화가 없는 한 그 당시의 경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21년 현재 이곳 하북1리 일원의 가게 및 자영업 업체들은 아래와 같다.

48)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Ⅲ, 평택문화원, 2008, 102쪽.

하북1리 주변의 가게 및 자영업체

[가 지역]

하북4리 입구 사리 고가 남쪽에 3층 건물에 입주한 가게 및 업체

상 호	업 종	비 고
LE SENTIER	프랑스 요리 레스토랑	
유진푸드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점	
보영건설(주)	상·하수도 전문	
대광화물	화물 운송	

[나 지역]

하북4리 입구로부터 남쪽으로 국도 1호선변의 가게 및 업체

상 호	업 종	비 고
태산주방 냉동 그릇 도매센터	주방 기구 제작 판매	
타이어 프로 진위점	금호 타이어	
대우자동차 부품점	자동차 부품 업체	
송탄수퍼	반찬, 식품 등	마을 골목 안쪽
동경나루	호프집	
오산돼지국밥	식당	
㈜홈스틸	목조주택, 스틸하우스	
하북 손 세차장	세차	
금강 누수 방수	설비 및 방수	
종합 에어컨 냉동기	냉동기 설치 보수	

[다 지역]

국도 1호선에서 마을회관 앞 4차선 도로를 따라 홍원제지 북서쪽까지의 가게 및 업체

상 호	업 종	비 고
휴먼종합건설	종합건설업	
하나푸드	식품	
세진엔진니어링	기계	
디에이 건설	건축업	
㈜형제로지스	트럭매매, 물류 알선	
동아전기	전기공사	
한일전기	전파사, 전기 재료	
MEC(Mahani Electronic co. Ltd)	자동차 산업분야 제조	
STEADY	토목, 건축	

[라 지역]

진위역삼거리에서 봉남이로 이어지는 진위서로(314번 지방도)가 만나는 지점의 북동쪽 모퉁이다. 국도 1호선을 건너 진위역과 연결되는 육교가 있어 현재 하북리에서는 사람들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상 호	업 종	비 고
스마일테크	생산 인력 아웃소싱	진위파출소 남쪽 옆
총각네 폰가게	핸드폰 가게	
카페 꽃잎하나	카페	
복권판매점	복권 판매	
가족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	
하북다방	다방	
파란들 건축사무소	건축 설계	
신 미용실	미용	
김밥천국	식당	
시골 정육 식당	정육점 및 식당	
진위 공인중계사	부동산 중개업	
성희 정육점 식당	식당	과거에는 정육점도 겸했음.

[마 지역]

진위삼거리에서 홍원제지쪽으로 들어서면 북쪽에 성희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회상하였다. 1번 국도를 오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가곡리 사람들도 이 골목으로 마을을 오갔기 때문이다. 이 골목에는 현재 폐업한 가게들이 많아 옛날과 지금의 경기 차이가 느껴진다.

상 호	업 종	비 고
용문이발관	이용업	
꼬시네	주점	
페리카나	치킨점	
린스 크리닝	세탁소	
용해수 식품	과일, 야채, 생선, 건어물	
88이용원	이용업	
홍콩반점	중국집	현재 폐업
얄개분식	분식점	
엘리트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	현재 폐업
피아노 학원	학원	2층 가정집 형태, 현재 폐업

[바 지역]

314번 지방도(진위서로) 남쪽, 하북농협 북쪽[진위삼거리 남동쪽]

이곳은 하북농협 북쪽을 경계로 북쪽의 하북리와 남쪽의 견산리가 나뉘는 지점이다. 진위삼거리를 끼고 있어 진위역과 가깝고 봉남리를 오가는 버스 정거장이 있으며, 가장 많은 가게 및 자영업체가 있는 곳이다.

상 호	업 종	비 고
LEE 끌림 HAIR	미용업	
코미니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꼬마 김밥	식당	
진위여관	숙박업	
형제축산	정육점	
황제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	
동부식당	식당	
고기장군	식당	
新 도도 헤어	미용업	
emart24	편의점	
명당리부동산	부동산 중개업	
한사랑 의원	병원(내과, 피부과, 소아과,이비인후과, 정형외과)	
평택화물터미널	물류	
삼보약국	약국	
한솔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	
엠에스 시스템	인력 아웃소싱	
초이노래홀	노래방	
농민마트	중형 마트	견산리
하북치과	치과의원	견산리
정네집 부대찌개	식당	견산리
㈜유원전자	제조업	견산리
우당건설	토목, 건축	견산리
태양한의원	한의원	견산리
휴대폰할인점	휴대폰	견산리
논가마	식당	견산리
땡큐치킨	치킨점	견산리
타요관광	관광업	견산리
좋은 빵 만들기	제빵업	견산리
진위역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	견산리
약손 아로마	맛사지	견산리
GS25	편의점	견산리
당구박사	당구점	견산리
커피 & 떡볶이	카페	견산리

3) 제조업

1970년대부터 하북리와 그 주변에 회사들이 들어섰다. 즉 1970년 영풍제지(견산리)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1973년 홍원제지(하북리), 1973년 일성제지(하북리), 1974년 매일유업(가곡리), 1977년 YKK(신리), 1978년 한국야쿠르트(견산리) 등의 기업들이 차례로 자리 잡았고, 오산천 너머 서탄면 금암리

로도 1979년 칠성고분자 같은 큰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마을의 경관 변화와 인구 변동에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 영풍제지, 홍원제지, 일성제지 같은 큰 제지사(製紙社)들이 이곳에 자리한 배경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도 단정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아마도 제지(製紙)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위천에서 쉽게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과 수도권 주변에 있으면서 도로 및 철도 교통의 편의성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대 하북리 인근에 들어서 주요 회사

① 홍원제지주식회사[49)]

홍원제지주식회사

홍원제지가 있는 자리는 옛날 마을에서 '황새기들' 이라고 불렸으며, 논과 밭이 섞여서 경작되고

49) 홍원제지주식회사에 대한 주요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 및 필자의 질문 메일에 대한 회사측의 답변을 근거로 서술하였음.

있던 곳이다. 하북1리의 토박이인 이정재(1939년생)씨는 이곳 바닥에서는 뻘흙과 더불어 조개껍질 같은 것이 나왔다고 했다. 지금은 홍원제지 안으로 들어간 황새기들에는 100평쯤 되는 연못이 있었고, 연못 가운데 수백 년 된 향나무가 있었다. 이길수(1952년생)씨는 어렸을 때 이 나무에 올라가 놀았던 기억이 많았다. 또한 겨울에 이 연못은 아이들에게 좋은 썰매장이 되었다.

홍원제지 회사 내 향나무

홍원제지주식회사(이하 홍원제지)는 1957년에 전북 남원에서 설립된 동양제사주식회사에서 1966년에 설립한 제지회사이다. 진위면 하북리 황새기들을 매입하고 1968년 12월 제1호 초지기를 착공하여 1973년 7월에 제1호 초지기를 완공하여 백상지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1975년 12월에는 도공기 설치를 마치고 아트지 생산을 개시하였다. 1957년에 설립된 동양제사주식회사가 1984년 홍원산업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1990년 10월에 이 회사를 홍원제지가 흡수합병하였다. 1994년 3월 동탑산업훈장 수상에 이어 1995년 11월에는 '5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다.

현재 회사 부지의 전체 넓이는 91,224m^{2}이며, 건축 연면적은 64,510.29m2로 백상지, 아트지, 서적지, 정보산업지, 기타 특수지 등을 생산하고 있다. 종업수는 200명이다. 연간 생산 초지능력은 350,000 MT이고, 도공능력은 150,000 MT이다.

하북4리 마을 주민들이 수여한 감사패

현재 홍원제지의 서북쪽에는 1987년 하북1리에서 분동된 하북4리가 있다. 이 마을에 변변한 마을회관이 없었는데 1997년 2월 이 마을의 주택을 매입하여 마을회관으로 기증하였다. 2009년 마을회관이 재건축으로 건립되자 그해 12월에 TV를 설치해주는 등 지역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매년 하북4리 마을 행사에 후원을 아끼지 않으며, 12월 마을 대동회가 열릴 때는 하북4리뿐만 아니라 1리에도 마을민을 위한 찬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② 일성제지

일성제지는 1973년 4월에 '진위면 서탄로 33'에 설립된 제지회사로 하북리와 그 주변에 들어선 큰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큰 회사였다. 그만큼 일성제지 회사에 취업하여 하북3리 새마을촌이나 하북1리 아랫성뒤 마을로 이주해 온 사람들도 많았다.

이 회사가 있던 자리는 서쪽 대정촌이나 새마을촌보다 1~1.5m가 높다.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이 두 마을 사람들이 홍수를 피해 일성제지로 피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회사는 1998년 신호제지에 인수합병[50]되었다가 신호제지의 회사 사정 악화로 문을 닫게 되었다. 일성제지가 있던 회사는 2013년

종합물류회사인 ‘Lx판토스’가 들어서 있다.

③ 기타 제조업체

2021년 현재 하북리에 자리잡은 산업체들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농촌 마을에는 창고형 건물에 회사들이 입주하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파악된 것 보다는 실제 더 많은 업체들이 있다.

하북리에 위치한 기업체

회사명(상호)	주 소	품 목	비 고
홍원제지	진위서로 23	인쇄용지, 아트지, 기타용지	
Lx판토스	서탄로 33	화물운송	
농업회사법인 미성	하북2길 76	피클, 절임 식품	대정촌 마을 남쪽
농업회사법인 우듬지	하북2길 76	과일류 도매업	대정촌 마을 남쪽
WT&S	하북2길 64-14	산업용 정수 설비	대정촌 마을 안
고려신소재유한회사	하북2길 64-14	전자제품부품, 세라믹 부품	대정촌 마을 안
㈜계림식품	하북2길 64-123	가공 계육	대정촌 마을 서쪽
성진	하북2길 87-19	농업용 온수기, 온풍기	대정촌 마을 안
㈜기남테크	하북2길 48-2	반도체 장비 부품	대정촌 마을 안
농업회사법인 팜에이트	하북2길 178	새싹채소,베이비채소,특수야채	
㈜엠아이텍	하북2길 174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바쎈	서탄로 50	콘텍트렌즈	
㈜크린코리아	서탄로 43-6	정제유(산업용 연료)	
㈜유라코퍼레이션	하북4길 129-7	와이어하네스	
농업회사법인 플랜티팜	서탄로 43-19	농산물 재배 및 스마트 팜	
정우기술	서탄로 70	전기, 전자, 제어	새마을촌 마을 안
감동하우징	하북2길 160	이동식 주택 제작	
미래원	하북2릴 176	식품 가공 제조	

하북리의 서탄로 및 하북2로 지역의 제조업체 및 자영업체

50) 『문화일보』, 1998.02.04.

서탄로는 하북리와 서탄면과 연결된 도로로 통행량이 많아 제조업 외 다른 자영업체 들도 아래 [표]와 같이 자리잡고 있다.

서탄로에 있는 자영업체

상 호	업 종	비 고
cu	편의점	
간판 가게	간판 제작	
배터리할인매장	자도차 배터리 판매	
현대지게차	지게차 매매	
오일테크	금속 가공류 윤활유	
하북마트	마트	
성지비니루 농자재	비닐 등 농자재 판매	
대한 장갑	포장자재, 장갑, 마대, 안전용품, 청소용품	
가나공업	농업용 전기 온풍기	
타일 아울렛	타일판매	
제일천막공업사	천막 제작 판매	

4. 사회생활

1) 공공시설

(1) 진위파출소

진위파출소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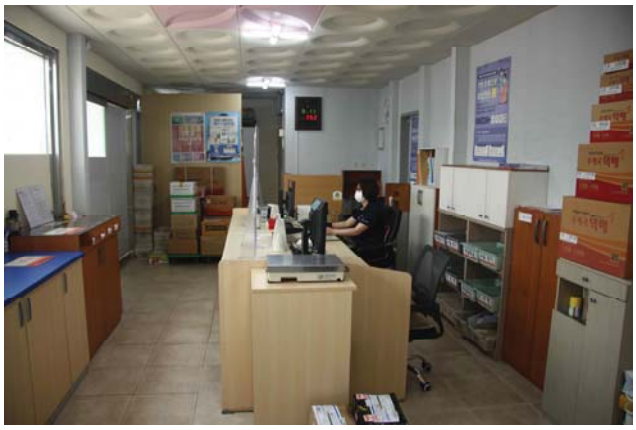
진위파출소 전경

진위파출소는 원래 진위면 봉남리 진위행정복지타운 자리에 있었다. 언제 하북으로 옮겨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자료나 전해지는 얘기는 없다. 하북1리의 이정재(1939년생)씨는 선대로부터 해방 직후 옮겼다는 얘기를 선대로부터 들었다고 했다.[51] 현재는 진위역 동편 국도 1호선변에 있다.

51) 은산4리 말미 마을에 거주하는 우종갑(남, 1939년생)씨도 해방 직후에 봉남리에서 하북리로 옮겼다고 했다.

(2) 평택하북우편취급국

평택하북우편취급국 위치



평택하북우편취급국 내부

평택하북우편취급국은 1987년 12월 31일 하북1길 6-10(진위면 하북리 144-5)에서 개설되었다. 우편취급국은 우체국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우체국보다는 작은 규모이다. 평택시 관내에는 현재 하북우편취급소를 비롯하여 서정동 취급국, LG취급국, 평택대취급국, 안정취급국, 세교취급국, 이충취급국 등 7군데의 우편취급국이 있다. 하북우편취급국은 하북리에서 40~50년째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우편취급국장인 김갑순(1954년생)씨 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1978년부터 홍원제지에 다니다가 퇴직하였는데, 주변의 권유로 우편취급국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7년 원래 있던 자리를 매각하고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실내 전체 평수가 12평으로 규모가 작다. 직원으로는 우편취급국장과 직원 1명이 전부이다.

2) 마을조직

하북리의 전통적인 마을조직은 아주 미약한 편이다. 심지어 오랜 역사를 지닌 하북1리에서조차도 상포계 같은 조직에 대한 구체적 기억을 갖고 있는 토박이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최근 들어서 하북1리 및 2리에서 향우회 및 상조회가 조직되어 마을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현재 마을의 여러 행정은 이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마을 주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조직이 대동회이다. 대동회는 매년 12월 모든 마을에서 개최되며 1년 동안 마을 공동체 운영을 결산하는 마을 총회 성격을 갖는다.

(1) 이장

이장은 마을 행정의 중심으로 2년 임기이며, 마을 대동회에서 선출된다. 투표를 통한 선출이 원칙이나 추대 형식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에는 젊은층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한 번 맡으면 오래 연임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하북1리의 이길수(1952년생) 이장은 2021년 현재 14년째 연임하고 있는데, 투표와 추대의 형식을 모두 거쳤다. 반면에 하북4리 같은 경우에는 매 임기가 끝날 때마다 선거를 통하여 이장을 선출하고 있다. 이장은 마을 주민과 관계되는 전반적인 일들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이장은 그동안 20만원을 받다가 2019년부터 매월 30만원을 받고 있다.

하북4리의 유윤근(1947년생) 이장은 이장의 주요 임무로 면사무소와 마을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이라고 하였다. 즉 면사무소에서 매달 열리는 이장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마을의 여러 민원 사항을 수합하여 면사무소 측에 전하는 역할을 한다. 하북1리 이길수 이장은 현재 이 마을 이장의 가장 번거로운 업무로 평택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하는 물품을 전달하는 일을 꼽았다. 하북1리에는 진위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의 1/10에 해당되는 16~17가구가 있는데, 옛날보다는 줄어든 수치라고 했다. 이장은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에 3개월에 한 번씩 쓰레기봉투를 갖다 주고 있다. 또한 새마을부녀회 등에서 봉사 차원에서 김치 등 반찬을 만들어 면사무소에 주면 다시 이장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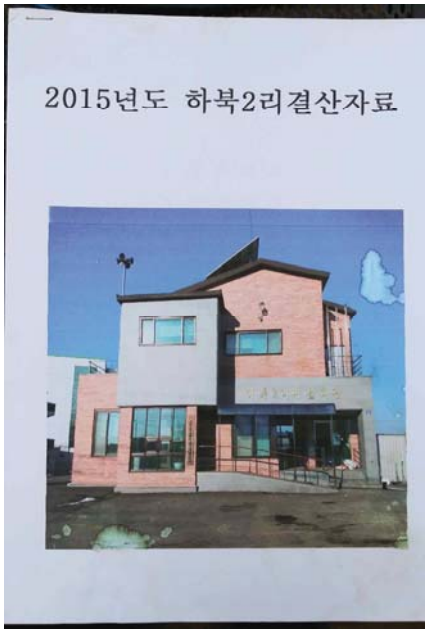
하북2리에서 10여 년 동안 이장을 엮임했던 이세영(1958년생)씨는 마을 기금 조성에 힘썼고, 전통놀이인 줄다리기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줄다리기는 평택시의 지원을 받아 행사의 규모를 키웠다. 하북3리의 윤증순(여, 1957년생)씨 역시 5년째 이장을 맡아 마을일을 하면서 마을 기금의 조성과 주민들의 단합을 위해 힘쓰고 있다.

(2) 대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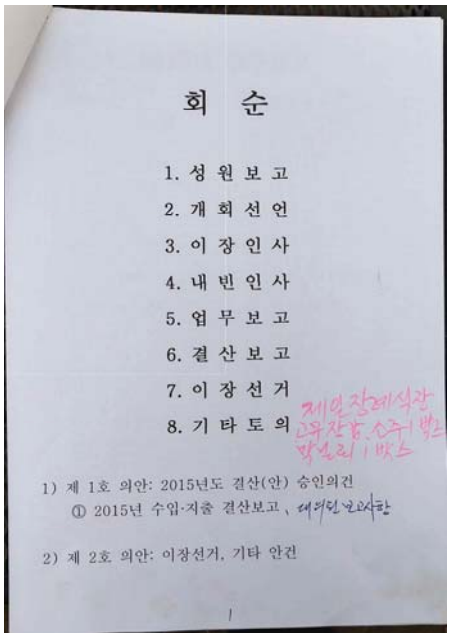
대동회는 보통 임기 2년인 이장이 주관하여 진행되며, 매년 12월 1년에 한 번 열리고 있다. 1년 동안 마을 단위의 여러 활동을 결산하고 다음 해의 주요 사업을 계획하며, 2년에 한 번씩 이장을 선출하는 마을 총회 성격을 갖는다. 보통 대동회는 마을회관에서 개최되고 있다. 대동회 때는 마을 기금으로 식사를 하며 식사를 하며 식사준비는 부녀회에서 담당해 왔다.

하북1리는 매년 35~40가구 정도가 대동회에 참여한다. 마을회관이 있던 자리가 4차선 도로를 내면서 수용되어 그 보상으로 2억 2~3천만원을 받아 마을 기금으로 운영해 왔다. 예전에는 마을회관에서 대동회를 개최하였으나, 이렇게 할 경우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 많이 번거롭기 때문에 최근에는 식당을 잡아 회의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음식값으로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마을 기금으로 충당한다.

하북2리는 실제 거주하는 70여 세대 중 40가구 정도가 대동회에 참여하여 1년 동안 마을의 여러 활동에 대한 결산을 보고 있다. 아래 자료는 2015년도 대동회 결산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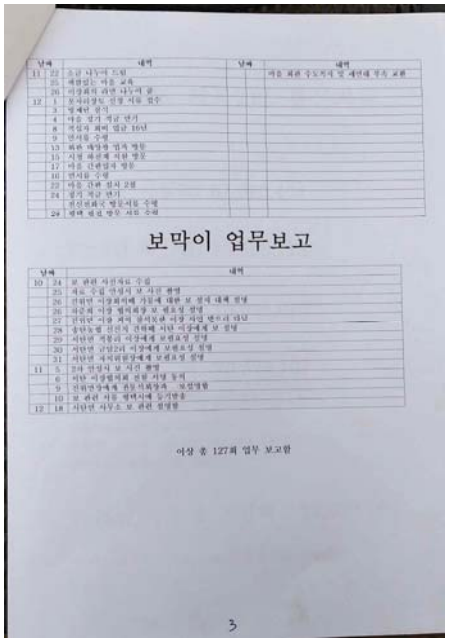


2015년도 하북2리 결산자료_1



2015년도 하북2리 결산자료_2

2015년도 하북2리 결산자료_3



2015년도 하북2리 결산자료_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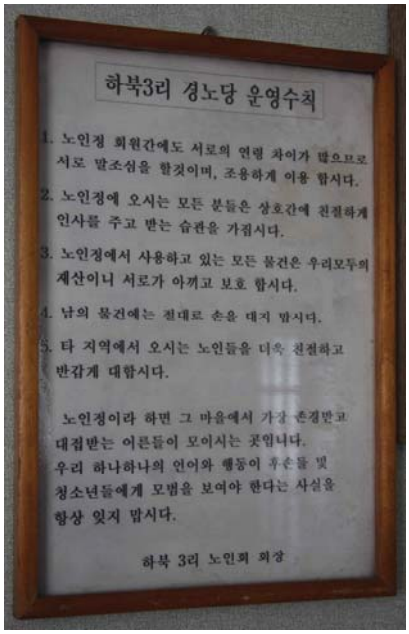
하북3리 새마을촌은 대략 40가구 정도가 대동회에 참여한다. 현재 이장을 맡고 있는 윤증순(여, 1957년생)씨는 하북3리가 이주민 마을로 출발했지만, 마을 주민들의 단합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였다. 현재 이 마을에는 7~8천만 원의 마을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기금은 마을회관 옥상 위에 이동통신 3개 회사 안테나가 있는 대신 해당 회사들이 연간 450만원 정도를 마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내놓는다, 또한 마을회관 2층을 월세로 임대해서 월 30만원, 마을 주변의 회사들에서 희사하는 마을발전기금 등을 적립한 것이다. 마을의 주요 현안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이장, 개발위원 등이 모여 의논

을 해서 그 결과를 마을 회의에 붙여서 결정한다.

하북4리 같은 경우는 대략 30가구 정도가 대동회에 꾸준히 참여한다. 나머지 주민들은 세입자 등 최근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고, 마을 총회인 대동회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2) 노인회

하북리는 4개 마을 모두 노인회가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노인회원으로는 1리 58명, 2리 50여 명, 3리가 42명, 4리가 25명이 된다. 평택시에서는 노인회 앞으로 연료비 6개월치와 여름 에어컨 가동비 3개월치를 보조한다. 보통 마을회관에서 매일 점심을 먹는데, 평택시에서는 20~30명을 기준으로 월 24만원을 보조한다. 이보다 회원수가 많으면 10명 단위로 2만원씩 상향된다.



하북3리 경노당 운영수칙

하북3리 새마을촌의 경우 마을 기금에서 매년 150만원을 보조받고 노인회에서 박스를 모아 팔아 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2회 정도 야유회를 갖는다. 이 마을에서는 노인정(마을회관)에서 1년 내내 점심뿐만 아니라 저녁까지도 식사를 한다. 한 여름 농사철에도 농사짓다가 노인정에 와서 식사를 하고 다시 일을 하러 가기도 한다. 노인회 자체 기금을 사용하여 매년 2회 정도로 야유회를 갖는다. 현재 3년째 이장을 맡고 있는 윤증순(여, 1957년생)씨는 이전에 10여 년 동안 부녀회장을 지냈는데, 그녀의 '노인회 돈은 아끼지 말고 돌아가시기 전에 쓰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새마을촌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마을 노인정이 폐쇄된 상태이다.

(3) 부녀회

1970년대에 조직된 부녀회는 결성 직후에는 활발한 활동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이주민의 비율이 높아지고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부녀회가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못하는 추세이다. 가령 대정촌의 경우는 콩을 심어 수확해서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정기적으로 마을 청소도 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부녀회장이 공석이다. 하북4리 같은 경우에 부녀회는 운영되지 않으나, 부녀회장이 있어 면 단위로 운영되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활동을 한다.

그나마 1리와 3리에서 부녀회는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1리에서는 부녀회원들이 매월 2회 노인정을 청소하고 대동회 때는 음식을 준비하여 대동회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또한 면민체육대회 때도 음식을 장만하는 등 궂을 일을 담당한다. 회원수는 15명 정도로 상주 인구에 비하여 매우 적으며, 회비는 연간 2만원을 내고 있다. 친목 활동으로 매년 야유회를 가는데, 이때는 마을 기금에서 200만원을 보조받고 있다.

새마을촌은 25명의 부녀회원이 있다. 회원수는 적지만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부녀회에서는 추석이나 설 때 김이나 액젓 판매 등의 방식으로 부녀회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52] 적립된 기금은 어버이날 때 경로잔치, 여름 복날 노인들게 음식 대접, 야유회 등의 비용으로 쓰인다. 2021년에는 코로

나로 인하여 모임이 어려워 한여름에 삼계탕 2마리씩을 포장하여 집집마다 돌렸다.

(4) 상조회

하북3·4리는 각각 1973년과 1987년에 형성되거나 분동된 마을이어서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과는 관계가 없다. 하북1·2리는 그 연원으로 보아 상포계 같은 마을 조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이번 조사에서 그 실제적 상황을 전해 듣지는 못하였다. 상포계가 운영되었던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이 조직이 장례식장 문화가 일반화 되기 전인 1990년대 까지 유지되었거나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하북 1·2리에서는 토박이들도 그 존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

하북1리 아랫성뒤의 이정재(1939년생)씨는 초상이 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상가의 일을 도와주었다고 했다. 마을 이장이 오산 등지에 가서 상포를 외상으로 해오고 장례식을 마친 후 부의금을 정산하고 상포값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초상을 대비한 계조직이 운영된 적은 없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길수(1952년생)씨는 2006년 이장을 하면서 다른 마을들에서 ‘향우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조직들을 보고 ‘하북1리 향우회(이하 향우회)’를 조직하였다. 향우회는 회원 공통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을 합치고, 초상 등 대소사 때 서로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50여 가구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규약상 65세 이상이 되면 그만두고 자식이 승계하게 하였는데, 현재는 30명 정도의 회원이 있다.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대정촌에서도 전통적인 상조회 같은 모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옛날에는 초상이 나면 집집마다 자발적으로 초상집에 가서 도와주었지만, 상조회 같은 조직은 없었다. 그래서 이세영(1958년)씨가 이장을 보던 2006~2007년 무렵 대정촌에서 처음으로 상조회를 조직하였다. 젊은 사람들이 점차 마을을 떠나는 것을 보고 상조회를 묶었다. 회비를 모아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상조회원들이 장례식을 돕는 일을 하였다. 회비는 정기적인 형태가 아닌 초상이 났을 때만 각출하였다. 처음에는 9만 몇 천원씩 내다가 3년에 한번씩 5천원을 올려 현재는 13만원을 낸다. 회원들이 한 번에 낸 회비를 모아 상가에 500만원을 주면, 상가에서는 다시 상조회에 100만원을 내는 형태로 기금이 조성되어 현재는 총기금이 대략 5,000만원 정도 된다.

(5) 하북리 묘지관리위원회

1931년 당시 하북리의 주민들이 곡식을 출연하여 기금을 모아 동천리 산12번지에 묘지로 쓰기 위해 5,600평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이때는 현재의 하북1·2리가 단일 마을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여기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명단은 양쪽 마을이 따로 갖고 있었다. 2리인 대정촌의 경우 김문기씨 외 25인으로 문서가 작성되어 있었다. 2리와 마찬가지로 1리에서도 유사한 문서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마을 공동으로 묘지를 마련하였지만 대정촌 사람들은 그곳 보다는 금암리 쪽에 있는 공동묘지에 많이 묘를 썼다. 자연스럽게 아랫성뒤 사람들의 묘가 많이 조성되었고, 1985년에 ‘하북1리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2000년 무렵 대정촌 사람들이 토지의 명의가 ‘하북1리’로 되어 있는

52) 새마을촌에서 10년간 부녀회장을 맡았던 윤증순 이장은 이러한 부녀회의 판매활동이 농협과 연계되어 대부분 마을 부녀회에서 기금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되자 새로 규약을 만들고 '하북1·2리묘지관리위원회'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규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북1,2리 마을 묘지관리 위원회]

제 1장

제1조(명칭) 본회는 하북1,2리 묘지관리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위원회는 평택군 진위면 청호리 산 12번지의 1 임야
일정八단 四부보의 묘지관리를 하며 임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음

"주" 상기 임야는 1931년 6월 10일 당시 공동매입한 임야로서
(당시 부유층 사람은 많이 거출하고, 하류층 처지에 있는 사람은 적게 거출했다고 함) 등기 명의자 공유자 이상래, 권윤수, 김민규씨로 하였던 것을 1985년 6월 11일 법률 제3562호에 의거 소유자를 하북리 새마을회로 명의 변경을 하였는 바 앞으로 오랜 세월이 가면 소유권 표시가 명확하게 1리, 2리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차후 관리상 기타 제반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본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제3조 본관리 위원회의 사무실은 진위면 하북1리와 2리에 둔다.

제 2 장 회원및 임원

제 4 조 : 회원 : 본회는 1931년 임야 매입 당시 하북1,2리(당시 대정촌) 거주자로 한다.
* 승계권의 범위 : 당시 <u>거주자 자손 중 1명으로 한다.</u>
* 기 타 : 추후로 발생하는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5 조 :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명
3. 총무 ---------- 2명
4. 감사 ---------- 2명

제 6 조 : 임원의 선출및 임기
임원은 하북1리 3명, 하북2리 3명으로 하고(단, 회장은 제외)
각 리 단위로
임원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7 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무를 총괄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서무와 회계를 관리한다.
4. 감사는 본회운영및 재정집행에 관한 감사에 임하며 년 1회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

제 8 조 회의구분

본회는 다음과 같이 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1. 총회는 매년 1회 년초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회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3.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9조 회의의 기능

1. 총회
가. 임원 선출에 관한사항
나. 예산 결산에 관한사항
다. 회칙제정및 개정에 관한사항
라. 기타

2. 임시총회
가. 상부상조에 관한사항
나. 긴급사항
다. 기타 회의소집 목적에 관한 사항

3. 임원회
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4 장

제10조 회계관리

본회의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제11조 사업

가) 본 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본 임야에 묘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묘지관리 위원회 任員會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있으며, 1분묘당 2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부부합장일 경우 동일, 부부 별도의 봉분을 만들 경우에는 추가 징수)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사업수익금 : 임야관리를 위한 경계측량 및 환경미화를 위한 조경사업 등 기타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회원의 공용 발전을 위한 사업

제12조 회원의 구성 자격

山 구입당시 거주자로서 현재 그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자로하고, 추후 확인되는 자가 발생시(증빙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등을 참고로 거주 사실이 확인될 때)는 추가로 가입시킬 수 있다.

*묘지의 설치

(1) 봉분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묘지의 설치는 승계자-직계손으로 한다.

제6장 회원명단 작성및 관리

제13조 1931년 평택군 진위면 하북리 및 대정촌 거주자 명단 작성관리

제7장 임야 소재지 및 면적 소유자 표시

제14조 가) 임야소재지: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청호리 산 12번지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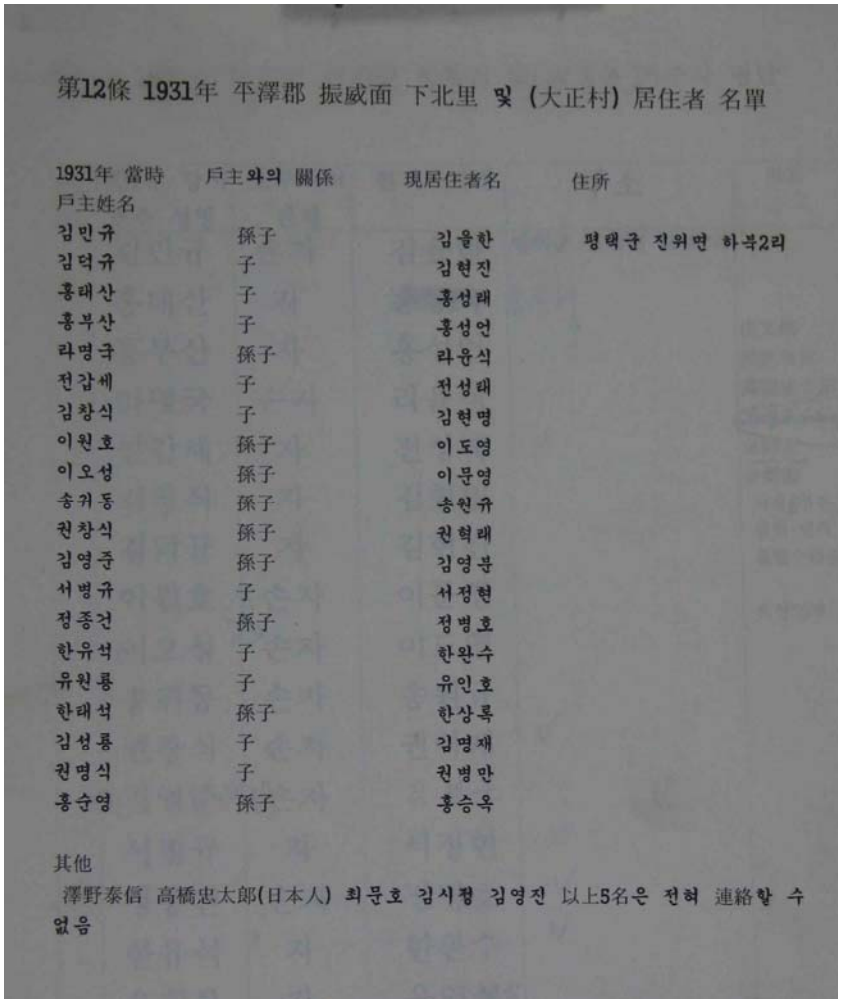
나) 면 적: 일정8단 4부보(5,600평)

다) 현소유자의 등기ㅛ시: 하북리 새마을회

라) 참조: 등기부등본 사본 1부

제8장 본 위원회 구성

제15조 본위원회 임원 명단



第12條 1931年 平澤郡 振威面 下北里 및 (大正村) 居住者 名單

1931年 當時 戶主姓名	戶主와의 關係	現居住者名	住所
김민규	孫子	김을한	평택군 진위면 하북2리
김덕규	子	김현진	
홍태산	子	홍성래	
홍부산	子	홍성언	
라명극	孫子	라윤식	
전갑세	子	전성래	
김창식	子	김현명	
이원호	孫子	이도영	
이오성	孫子	이문영	
송귀동	孫子	송원규	
권창식	孫子	권혁래	
김영준	孫子	김영분	
서병규	子	서정현	
정종건	孫子	정병호	
한유석	子	한완수	
유원룡	子	유인호	
한태석	孫子	한상록	
김성룡	子	김명재	
권명식	子	권병만	
홍순영	孫子	홍승옥	

其他

澤野泰信 高橋忠太郎(日本人) 최문호 김시정 김영진 以上5名은 전혀 連絡할 수 없음

2008.7.8개정

임원중 고문1명을 둔다

2) 공동시설과 근대시설

(1) 꽃동산보육원

꽃동산보육원 위치

하북4리 지금의 에바다학교 자리에는 꽃동산보육원이 있었다. 아랫성뒤 마을의 이정재(1939년생)씨에 의하면 6·25 전쟁 직후 북한 출신으로 월남한 이용복씨[53]가 설립하여 운영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기억과는 달이 이 보육원은 재미교포 사업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김형순이 설립하였는데[54] 아마도 이용복씨에게 위탁하여 운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에는 10여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점차 그 수가 늘어났다. 이정재씨는 원장이던 이용복씨가 보육원을 잘 운영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 보육원을 떠난 아이들도 잘 살게 되는 등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다고 했다. 이길수(1952년생)씨는 진위국민학교를 다닐 때 이 보육원에 같이 학교에 다니던 친구가 3명 있었다. 그의 3살 위인 누님도 이 보육원에 친구가 있었다. 이길수씨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기에 어렴풋이 기억하는 고아원 아이들 숫자는 15~20명 정도이다. 그런데 에바다복지회가 이 보육원의 부지를 인수할 당시에 등기했던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김경수 재단에서 운영했던 보육원 시설로 나타나 있다. 이용복 장로가 설립하고 원장으로 재직했던 보육원이 어떻게 김경수 재단으로 넘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없다.

(2) 방앗간

대정촌 연자방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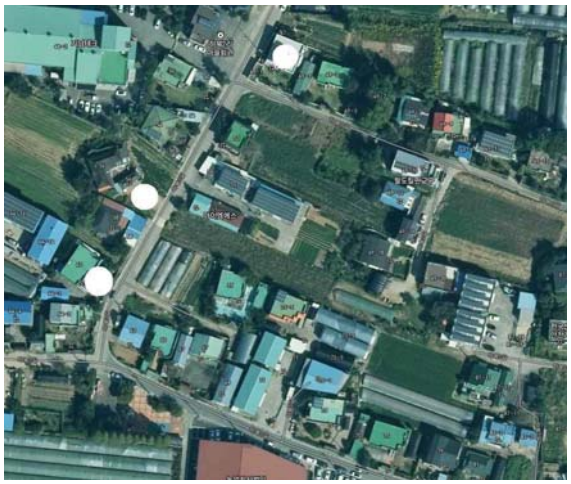
1922년 발행된 지도에는 하북리 들판에 '수차방(水車房)' 으로 방앗간 표시를 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록이나 마을 사람들의 기억은 찾을 수 없다. 또한 재래식 디딜방아에 대한 기억도 없다. 다만 하북2리 대정촌의 경우 남쪽 길가에 마을 공원을 조성하였고, 공원 한 켠에 연자방아로 썼던 돌이 놓여 있다. 이것은 이세영(1958년생)씨가

53) 이길수씨의 진위국민학교 시절 친구가 이 보육원 출신인데, 그에 의하면 이용복씨는 교회 장로였다고 한다.
54) 『한려투데이』, 2020.09.15.(http://www.hanryeo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68)

이장을 볼 때 이전에 들었던 기억으로 공원 앞 길과 북쪽 회관으로 가는 길의 오른쪽 모퉁이에서 약 3m를 파고 캐낸 것이다. 그는 연자방아가 폐기되자 이 돌을 도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기 위해 쌓았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방앗간은 하북1리에 1곳, 하북2리에 3곳이 있었다. 1리 방앗간은 지금의 진위역 자리에 있었다. 방앗간은 진위파출소 뒤 공터가 된 자리의 기와집에 살았던 이완재씨네가 운영했다. 그런데 6·25 전쟁 직후 이완재씨가 망했고 방앗간은 1960년대 후반에 문을 닫았다.[55] 이후에는 봉남리 방앗간을 이용하였다. 또한 지금의 하북1리 마을회관 앞 마당 자리에 떡방앗간이 있었다. 이길수씨 부부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봤던 이 방앗간을 2002년도에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이 방앗간에서는 떡가루와 고춧가루를 빻고, 기름을 짰다. 당시에는 인근에서 견산리 1곳과 이곳 방앗간만 있었다. 그래서 멀리 은산리 사람들까지 이곳 방앗간을 이용했다.

아랫성뒤 마을 방앗간


대정촌의 방앗간 자리

2리 대정촌에는 방앗간 자리가 세 군데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세 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두 개의 방앗간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남은 방앗간은 마을회관 앞 2층집 자리였는데, 1972∽3년 무렵에 문을 닫았다. 채소 재배 면적이 늘어나 타산이 안 맞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정촌의 마지막 방앗간 자리(2층 주택)

55) 이정재(1939년생)씨는 이 방앗간이 6·25 전쟁 후 이완재씨가 망하게 되면서 폐쇄되었다고 했으나, 이길수(1952년생)씨는 자신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 방앗간을 봤다고 했다.

(3) 마을회관

하북리 4개 마을은 모두 마을회관 시설을 갖추었으며, 평소에는 노인정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북1리 아랫성뒤 마을회관은 현재의 우편취급소 자리에 있었으며, 대지가 56평이었다. 이곳에 1980년대 초반 마을회관이 건축되었다. 건물의 바닥 면적이 30평 정도로 2층 건물이었다. 그런데 당시 평택군에서 건축비를 보조받아 지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1층을 군청 소유로 생각하여 무료로 시립어린이집에 임대를 해줬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규모가 커지자 2층 임대를 요구하여 2층도 임대를 주고 3층을 올려 노인정으로 사용하였다. 이때 2층만 12만원의 월세를 받았다. 이렇게 2005년까지 무려 25년가까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길수씨가 이장에 선출되면서 이것을 문제 삼고 시청에 항의를 해서 어린이집이 가곡리에 건물을 신축하여 옮겨 갔다. 그런데 4차선 도로가 나면서 17평이 수용되어 마을회관 건물이 헐리고39평의 대지만 남게 되었다. 그러자 현재 마을회관 자리 토지 소유주가 당시 맹지였던 79평 땅을 마을의 수용되고 남은 땅 39평과 바꾸자고 제안을 해서 서로 교환하였다. 새로 교환한 땅이 맹지였기 때문에 교환 후 다시 회관 앞 땅을 매입하여 현재 마을회관 부지가 100여 평이 된다. 이곳에 새로 마을회관을 건축해서 2016년에 준공을 하였다. 당시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된 3억 8천만원으로 1층 30평, 2층 27평 정도의 규모로 신축을 한 것이다. 이 마을회관을 지을 당시 건축비를 시에서 마을에다 직접 지급하지 않고 시청과 마을 측에서 각각 인감도장을 날인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하였다. 지출이 발생할 때는 양측이 합의가 되어 도장을 찍을 때만 가능하였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모든 업자선정과 지출을 주관했었는데, 금전 사고가 발생하곤 하여 건축 과정과 지출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평당 약 600만원이 넘는 건축비를 들여 마을회관을 완공하였다. 마을회관을 2층으로 지으면 1층은 노인정,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마을회의는 대동회를 포함하여 1년에 1~2회 정도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1층을 평소에는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필요할 때는 역시 1층에서 마을회의를 하고 있다. 2층에는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이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북1리 마을회관

하북1리 마을회관 위치

하북2리 마을회관

하북2리 마을회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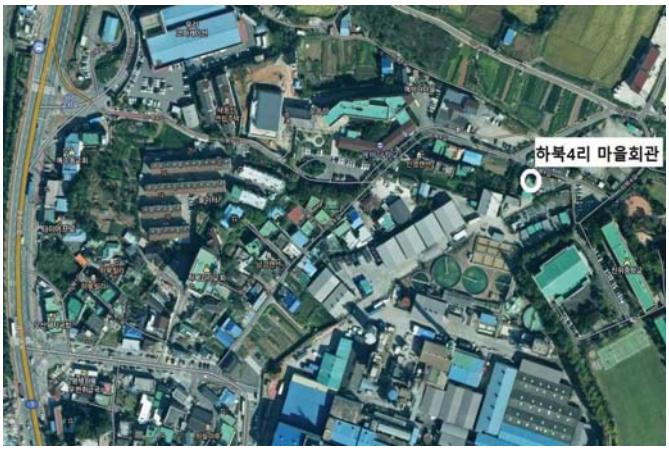
하북2리의 마을회관은 장소만 두 차례 옮겼고, 네 번째로 건축된 건물이다. 원래는 마을 안쪽에 있었다가 현재의 마을 남쪽으로 옮겼고,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대정촌 이장을 10여 년 역임했던 이세영(1958년생)씨는 이전의 마을회관이 15평 정도로 작아서 현재의 자리로 옮겼고, 2011년 무렵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사업' 의 일환으로 건축비를 지원받아 27평 규모로 지었다고 하였다. 새로 지으면서 회관 앞에 앞마당을 넓게 하였고, 이곳에서 마을의 야외 행사를 하는데 줄다리기가 대표적이다. 마을 남쪽에는 마을 공원을 조성하여 벤치와 정자를 배치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공원 동쪽으로 연자방아가 있다.

3리 새마을촌은 새마을운동이 한창인 시기에 조성된 마을이었으므로, 마을의 구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지금의 자리에 위치를 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마을회관은 2000년 무렵에 건축되었다. 처음에 지을 때는 1층은 방 2개를 만들고 2층은 창고형 회의실로 했다. 2층은 혹 마을 아이들의 공부방 같은 용도로 이용할 의도를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마을에 어린 아이들이 없어 별다른 쓰임이 없었다. 그래서 몇 년 전 평택시에서 5,500만원을 보조받아 리모델링을 하였다. 2층에 살림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해서 월세 임대를 주고 있다. 월세로 받은 돈은 마을 기금으로 쓰인다.

하북3리 마을회관

하북3리 마을회관 위치

하북4리 마을회관



하북4리 마을회관

4리는 1987년 아랫성뒤 마을에서 분동되었다. 현재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유윤근(1957년생)씨는 옛날에 작은 창고를 마을회관으로 썼는데, 홍원제지에서 단독주택 하나를 마을회관용으로 기증하여 제대로 된 마을회관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가 언급한 창고는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곳이 홍원제지 안에 있다. 분동되는 초기부터 하북4리의 마을회관을 홍원제지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유윤근 이장의 언급대로 1997년 홍원제지에서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 건물과 부지를 마을에 기증하였다. 현재의 마을회관은 2009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사업’으로 건축되었다. 1층은 30평, 2층은 27평 규모이다.

3) 의식주

(1) 식수 사용

현재는 하북리 4개 마을에 모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다. 식수는 ‘우물 →펌프 우물→간이상수도→광역상수도’ 순으로 바뀌어 왔다. 다만 1973년에 형성된 새마을촌과 1987년에 분동된 하북4리는 전통 우물이 없다.

하북 1리 마을의 우물은 현재 평택하북우편취급소와 마을회관 서쪽 길가에 있었다. 이 마을에는 이 우물이 유일하였다. 다른 곳은 비롯 물이 난다 해도 짠물이 올라와 식수로는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도 다른 우물은 사용될 수가 없었다. 어렸을 때 우물 옆에 살았다는 이정재(1939년생)씨는 ‘원래는 물이 넘쳐서 바가지로 물을 뜰 수 있었는데, 세대수가 늘면서 우물의 수위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두레박을 사용

하북1리 마을 공동 우물

하북2리 마을 공동 우물

하게 되었다.' 는 말을 어른들한테 전해들었다고 했다. 우물 아래로는 큰 돌이 있어서 우물 가에서 빨래도 할 수 있었고, 그 아래로는 작은 연못 같은 것이 조성되어 있었다. 연못은 15~20평 정도의 크기였다.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미나리를 심어 미나리꽝을 만들어서 뜯어다가 반찬을 해먹었다. 다른 마을에서는 1960년대 이후에는 관정을 설치하여 펌프 우물을 집안에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랫성뒤 마을은 짠물이 나와서 그런 시설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새마을운동을 할 때 300만원의 정부 보조로 하북감리교회 뒤쪽 지대가 높은 곳에다 물탱크를 설치하고 집집마다 상수도를 설치하였다. 현재는 모두 광역상수도를 쓰고 있다.

2리 대정촌은 아랫말, 중간말, 윗말 세 군데 우물이 있어서 식수를 쓰는 데 큰 불편함이 없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 펌프를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최근에 광역상수도로 대체되었다.

3리 새마을촌 1973년에 조성되어 처음부터 지하수를 식수로 썼다. 마을회관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했다가 나중에는 회관앞 마당 동쪽에 설치했고,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면서 폐기되었다.

하북4리는 꽃동산, 새동산, 새꽃동산 세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분동되기 전부터 써오던 간이상수도를 1리와 함께 사용하였다. 현재는 모두 광역상수도로 전환되었는데, 새꽃동산아파트 72가구는 건축 당시 관정을 뚫어서 썼던 지하수를 여전이 쓰고 있다.

(2) 식생활

하북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토박이들은 과거 가난했던 시기를 경험은 했지만, 자신이 직접 가난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에 끼니를 건너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기억들이 없었다. 하북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집안이 극도로 가난한 사람이 드물었고, 일제 강점기 등 어려운 시기를 경험한 세대가 없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꽁보리밥이나 겨울에 무밥, 호박푸레기 등을 먹기는 했지만, 굶주림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반찬으로 봄에는 냉이나 씀바귀 같은 나물을 뜯어다 나물 반찬 해먹고, 여름이면 열무, 오이, 호박 등의 반찬을 해먹고, 겨울에는 김장김치와 짠지를 담가먹었다는 정도의 기억을 갖고 있다. 옛날에는 진위천과 오산천에 물고기가 많아 양쪽에 두 하천을 끼고 있는 대정촌에서는 여름에 물고기 반찬을 많이 해먹었다. 권병덕씨는 여름 물고기를 '주식이었다' 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3리 새마을촌의 경우는 이주민이 많아 당장 농업에 종사하기 보다는 품삯을 받고 일을 하러 다니는 여자들이 많았는데, 하우스 일을 하고 상품성이 떨어진 채소를 가져다 반찬을 해먹는 경우가 많았다.

(3) 연료

하북리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연료 확보의 문제였다. 대정촌 남쪽 하천부지에서 토탄이 나오기도

했지만, 흙이 많이 섞여 있어서 연료로 부적절했다. 주변에 산이 없었기 때문에 산에서 나는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기도 쉽지 않았다. 더러 가곡리나 서탄면 금암리 쪽으로 나무를 하러 가기도 했지만, 정병헌(남, 1958년생)씨는 나무하러 가는 것은 아버지께 들은 얘기라고 했다. 연료는 주로 지푸라기나 콩대, 옥수수대, 수숫대 같은 것을 사용했다. 대정촌의 권병덕씨는 연료 1위가 논에서 나온 검불(북대기), 2위가 초가지붕 벗겨낸 것, 3위가 수수깡 뿌리라고 했다. 추수가 끝난 논에서 검불을 긁어다가 땠는데, 1,200평 한 구간을 긁으면 지게로 두 짐 정도 나왔다. 이엉을 엮어서 지붕을 다시 얹을 때 가서 일을 해주면 지게로 20짐 정도 되는 한 무더기를 수고료 대신 주었다. 또한 당시에 수수를 많이 심었는데, 밭에 남은 수수 뿌리를 캐서 바수걸이에 지고 왔다. 보통 3포기씩 엉켜있는 수수 뿌리는 열십자로 쪼개고 말려서 때면 좋은 연료가 되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중·후반에 연탄이 보급되었다. 아랫성뒤 마을에는 지금 파출소가 있는 자리 뒤에 연탄가게가 두 군데 있었다. 하나는 하북리 사람, 하나는 사리 사람이 운영했다. 대정촌은 서탄면 금암리에 있는 연탄 가게를 이용했다. 연탄은 배달을 해줬는데 처음에는 리어카로, 나중에는 경운기로 배달했다.

이후 기름보일러와 LPG 가스 보급되었고, 2010년을 전후하여 하북 1·4리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었다. 당시에는 평택시의 보조금이 없어서 가구당 400만원 정도를 부담하였다. 3리 새마을촌은 2016년부터 시작하여 2019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었다. 가스관이 마을까지 오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윤증순 이장의 노력으로 경기도에서 2억원의 보조를 받아 마을 동쪽 길 건너에 가스 공급 설비를 설치했다. 이 공사를 마치는 데만 1년이 걸렸다. 그리고 집집마다 평균 430만원 정도를 부담하였고, 2년에 걸쳐 도시가스 시설을 완비하게 되었다. 대정촌은 아직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데 가장 큰 문제는 가스관이 마을까지 들어오는 일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을길이 1930년대 26명의 공동지분으로 12필지가 있기 때문에 가스관이 들어오려면 그들의 후손을 찾아 승낙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마을 이장인 송명규(남, 1964년생)씨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지분을 가진 사람들의 후손들을 찾아 승낙받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4) 주택, 기타

1970년대 이전 마을에는 대부분 초가집이었다. 광무양안에는 하북리에 기와집이 1호(戶)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초가집이었다. 이정재씨는 아랫성뒤 마을에 기와집이 2채가 있었다고 했다. 모두 광주 이씨 집안이었다. 초가집들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대부분 슬레이트로 지붕을 얹었다. 1981년에 꽃동산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다세대 주택들이 들어섰다.

2리 대정촌에는 기와집이 10채 정도 있었는데, 주로 윗말에 있었다. 새마을운동 할 때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꿨다. 그런데 이 마을 주민들 중 시설채소 재배로 수입이 높았기 때문에 농촌 마을로서는 아주 이른 시기인 1980년대 중반에는 지붕이 슬라브 지붕을 한 현대식 주택을 짓기 시작했다.

이길수씨가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 아랫성뒤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으니, 1960년대 초반이 된다. 대정촌은 1972년에 전기가 들어왔다. 당시에는 대부분 전압이 100V였는데, 정병헌씨는 이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정촌에 200V로 전기가 들어왔다고 하였다.

5. 문화생활

1) 교육

(1) 진위중·고등학교

진위중고등학교 전경

① 금릉학원에서 진위중고등학교로[56]

조선 말기 영의정을 지낸 심순택의 부인 구택희(具澤喜)는 진위군 봉남리에 '구씨학원'을 설립했다. 2년제 학교로 출발한 구씨학원은 1930년 4년제로 전환하면서 금릉학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심순택의 증손자 심재후(당시 22세)가 학교경영을 담당하게 된다. 한 학년 당 1학급을 두어 총 4개 학급으로 운영되었다. 금릉학원이 있던 자리는 현재 동부 마을회관과 그 주변이다. 금릉학원은 가난하거나 진위초등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이 입학하였다. 이 학교는 해방 후 의무교육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진위초등학교에 합쳐지고 학교 부지도 교육청으로 넘어갔다.

가곡리 출신으로 당시 진위면장이었던 양재현이 설립을 주도하여 1953년 금릉학원 자리에 진위고등공민학교가 설립되었다. 초대 교장으로는 은산리 출신인 정보순이 부임하였다. 이후 학교 재정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홍남에서 교편을 잡아 영어와 수학을 가르쳤던 김응열이 교장으로 부임하였으나, 결국 재정상의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곡리 출신의 권오겸이 설립한 광염의숙(光鹽義塾)이라는 재단에서 인수하였다.

한때 서울에서 활동하였던 권오겸은 집안의 농토가 많아 소작을 많이 주기도 했는데, 자신의 재산을 모두 털어서 학교 부지 17,907평을 마련하고 새로 교사(校舍)를 건축했다. 1964년 11월 재단 설립 인가를 받고, 12월에는 중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다. 1965년 3월 5일 진위중학교가 개교했고, 이어 1974년

56) 평택문화원, 『진교일기』, 2020, 158~159쪽.

1월 5일에 진위상업고등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다. 1998년 8월에는 고등학교의 명칭을 진위종합고등학교로 변경하고, 2003년 3월에 진위고등학교로 바뀌었다.

② 진위중학교 현황[57]

교직원 현황

교 원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		합계
교장	교감	수석교사	부장교사	교사	기간제교사	원어민강사	소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행정실무사	소계	
								행정실장	행정직					
1	1	0	3	6	10	1	22	1	2	1	4	2	2	26

학생 현황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학급수	1	3	3	8
학생수	56	65	66	187

③ 진위고등학교 현황[58]

교직원 현황

교 원												학교회계직							총계
교장	교감	수석교사	부장교사	교사	기간제	원어민강사	소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행정실무사	영양사	사서	조리사	조리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소계	
								행정실장	행정직										
1	1	0	12	18	17	1	50	1	1	2	4	1	0	1	1	6	0	9	63

학생 현황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학교	학급	남	여	학급	남	여	학급	남	여	학급	남	여
사무자동화과	2	33	6	2	16	13	1	13	1	5	62	20
정보처리과	2	27	16	2	18	9	2	19	12	6	64	37
보통과	3	43	29	4	39	43	4	42	31	11	124	103
계	7	103	51	8	73	65	7	74	44	22	250	160

57) 진위중학교 홈페이지(https://jinwee-m.goept.kr)
58) 진위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jinwee-h.goept.kr)

(2) 에바다학교[59]

에바다학교

① 설립 과정

에바다[60]학교는 에바다복지회 법인 소속의 특수학교이다. 에바다복지회는 1964년 한국에서 활동 중이던 미국인 선교사 더글라스 크래이머에 의해 지금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현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에 아동보육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보육원'이라는 이름으로 최초 설립되었던 데서 비롯되었다.[61] 설립 당시의 취지는 전쟁의 후유증과 산업화의 과정에서 급증한 빈곤층에 대한 구호활동의 일환으로 고아 또는 부모가 부양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보호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1982년 설립 주체였던 맥신 스트로빗지 등 외국인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당시 이사로 참여하고 있던 전 대표이사 최성창 목사에게 법인의 운영권을 넘겨주었다. 최성창 목사는 1982년 어린이보육원을 지금의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현 에바다학교 위치)의 꽃동산보육원이 있던 자리로 이전하였다. 법인 명칭을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농아복지회'로 바꾼 후 본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이후 1985년 9월 2일 문교부 인가를 받아 1986년 3월 1일 초등부 12학급, 중등부 3학급으로 '에바다농아학교'가 개교를 하였다. 1987년 9월에 '에바다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이어 1995년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설립되면서 법인 명칭을 '에바다복지회'로 바꾸어 오늘날과 같은 법인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② 학내 문제 발생 배경 및 전개와 정상화 과정

맥신 스트로비치 등 미국 선교사들이 1982년 미국으로 귀국하면서 '에바다 농아선교회(이하 선교회)' 측에 이 시설의 운영을 맡겼다. 이 선교회는 대부분의 목사들이 농아인들인데, 학교법인 설립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는 법인 설립에 대한 업무를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소속이면서 에바다복지회 이사였던 최성창 목사에게 일임을 하였다. 최성창은 포항시 기계면 출신으로

59) 에바다학교 홈페이지 및 이 학교 교사 권오일 선생과의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하여 서술하였다.
60) '에바다'라는 말은 '(눈과 귀가) 열려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농아 관련 시설이나 단체의 이름을 지을 때 많이 들어가는 용어이다.
61) 이 내용은 에바다학교 홈페이지에 게제된 것으로, 2014년 편찬된 『평택시사』에는 1970년 12월 1일 맥신 스트로빗지 선교사가 에바다 농아인 시설을 설립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여기서는 에바다학교 홈페이지의 내용을 따른다.(평택시사편찬위원회,『평택시사』4, 2014, 245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에바다농아교회 소속의 목사였다. 선교회의 일임으로 최성창 목사가 1982년 학교법인 설립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설립자 겸 대표이사로 둔갑시켰다. 그리고 선교회측에는 계속 거짓 보고를 하였다. 가령 총회 할 때 농아인 목사들이 이사로 들어오려고 하면 ‘법적으로 농아는 이사가 안 된다.’ 다는가, ‘자신은 학교의 교장이지만 봉급을 받지 않고 봉사활동 하고 있다.’ 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최성창 전 대표이사가 법인 운영을 맡은 이후 복지회와 산하 시설의 주요 요직을 차지한 최씨 일가에 의해 에바다복지회는 비리와 전횡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대부분 에바다농아원에서 거주했던 에바다학교 학생들은 최씨 일가의 비리와 횡포, 비인간적인 대우로 인해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강제노동에까지 동원되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다. 1996년 학생들의 농성이 시작되자 그때서야 자신들이 속은 것을 알게 되어 전국의 에바다 농아선교회 목사들이 학교로 몰려왔다.

1996년 11월 27일 당시 126명의 학생 중 26명의 학생들이 농성을 시작[62]하여 무려 7년 동안 재단측의 비리에 맞선 싸움이 이어졌다. 농성의 배경에는 최성창 일가의 비리가 있었다. 권오일 선생님[63]은 2003년 정상화 이전 에바다학교는 비리의 백화점이었다고 표현하였다. 비리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정부 지원금이나 후원금을 빼돌린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심지어 학생들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숫자를 늘렸다. 가령 설병석이라는 아이에 대해해 이호영이라는 가명으로 또 다른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파악된 인원만 86명에 이르렀다. 또한 책 제본 공장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새벽까지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한 것처럼 해서 학생들 명의 통장과 도장을 따로 관리하면서 실제로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통장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세 번째는 아이들 70여 명을 1인당 1만 달러씩 받고 미국에 입양을 보냈다.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 보좌관이 이걸 미국 정부차원에서 조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미국 NBC 방송에서 보도한 적도 있었다. 이 외에 사망, 실종, 변사체 발견 등이 6건 정도 있었다. 최미선이란 학생은 1996년 학생들 농성 사태 이후에 진위천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그 아이를 단순 익사 처리를 해버리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실종 학생 중에는 아직도 찾지 못한 학생이 있다.

1996년 11월 학생들의 농성이 시작되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즉각 출동한 평택경찰은 농성하던 아이들에게 권총을 들이대며 두들겨 패고 노끈으로 줄줄이 묶어 파출소까지 약 400미터를 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26명 중 23명이 다치고 3명이 크게 부상을 당하여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농성 시작 4일째인 1996년 12월 31일, 농성 장소로 사용하던 농아원 휴게실의 보일러 가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엄동설한에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재단의 구사대 역할을 하던 농아원생들을 사주하여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은 선배들을 시켜 각목으로 구타하고 담뱃불로 손목을 지지게 하였다.

당시 이를 목격한 이 학교 교사 21명 가운데 11명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였다. 11명의 교사들은 교사의 양심상 재단측의 비리와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서 파면과 해임을 각오하고 만장일치로 학생들의 농성에 개입하기를 결정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정의로운 요구를 지지한다’ 라는 제목으로 대자보를 써서 붙이는 것을 시작으로 재단측과의 싸움을 시작하였다.

그러자 상상을 초월한 재단측의 폭력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이른바 구사대로 지칭되는 사람들을 고

62) 이때 시작된 학생들의 농성이 여섯 번째였다. 이전에도 학생들의 농성이 3회, 교사들이 1회, 보육사 선생님들이 1회의 농성을 했다. 최성창 일가 사람들은 농아인들의 심리를 잘 움직여서 항상 주동했던 사람을 통하여 농성을 깨곤 하였다.

63) 권오일 선생님은 7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싸움에 앞장섰고, 2011년~2016년에는 에바다학교 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교사로 재직중이다.

용해서 폭력을 휘둘렀다. 집단 폭행을 비롯하여 다양한 폭력들이 이어졌다. 한번은 권오일 선생이 1번 국도 옆에서 15명한테 20여 분간 맞아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다. 교실 뒤 칠판에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들을 가득 써놓기도 했고, 어떤 풀을 쑤어 바케스에 담아와서 남녀 교사 가릴 것 없이 얼굴과 온 몸에 쏟아 부었다. 심지어 한 여선생님한테는 교무실 커피포트에서 끓는 물을 목덜미에 그대로 붓기도 했다. 그당시 남편과 같이 이 학교에 근무했던 권오일 선생의 부인은 임신 6개월 째 되었을 때 최성창의 처남에게 팔꿈치로 배와 가슴을 맞아 20여 분 동안 실신을 했다. 이렇게 교사들에게 폭력을 위두르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그동안 학교에서 교육비로 들어간 4~5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든가, 교사들이 잘 못 가르쳐서 학생들이 저렇게 반발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학생들에게는 북한의 5호 담당제처럼 서로 감시를 하면서 교사들을 배척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이러한 싸움 과정에서 권오일 선생님은 파면과 해임만 여섯 번 당했었고, 테러를 당해 일곱 번을 119에 실려갔다.

자신들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대가로 학생들은 생활의 터전이었던 농아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농성하는 교사들은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제자들을 거두었다. 매달 정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여 학교 가까이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이곳에서 아이들의 숙식은 물론 교육까지 담당하였다. 학생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해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뜻에서 '해아래집'이라 명명하였고, 이후 해아래집은 비리재단 퇴진 및 민주화 운동의 거점으로써 아이들에게는 믿고 의지하는 따뜻한 가정이 되었고, 학부모와 교사 및 연대하는 단체에게는 비리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의 원천이자 오랜 투쟁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훌륭한 휴식처였다.

2001년 8월 7일, 드디어 이사진의 과반수를 민주적인 이사들로 교체하는 데 성공했고, 지역사회 인권운동가이자 치과의사인 윤귀성 대표이사가 취임하여 에바다의 민주화에 막바지 박차를 가했다.

2003년 5월 28일, 새로 구성된 민주적인 이사진과 새로 선출된 학교장, 농아원장, 행정실장, 법인 사무국장, 그리고 에바다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권오일 선생 등 연대세력 100여명이 최씨 일가가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던 농아원 진입에 성공했고, 2003년 6월 7일, 드디어 최씨 일가를 비롯한 구재단의 불법 점거자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마침내 법인과 학교, 농아원의 완전정상화를 이루었다.

7년 동안 에바다학교 재단측의 비리와 폭력에 대해서는 KBS, MBC, SBS 등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뤄졌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2회 연속 다뤄졌고, 1999년도 무렵에는 국회의원이었던 김홍신, 이성재, 김명섭 세 명이 에바다학교 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33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및 전국 대학생들로 구성된 '에바다전국대학생연대회의' 등 전국적인 양심 세력의 지원이 있었다. 또한 평택지역의 13개 단체가 '에바다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사와 학생들의 싸움을 뒷받침하였다. 시민 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재단 비리에 맞섰던 싸움 기간 동안 싸움에 나선 교사와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구사대의 난입에 대비하여 밤새 교문을 지키기도 했다. 당시 재단측과의 치열하게 싸웠던 권오일 선생은 정상화가 가능했던 것은 '11명 교사들이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굳건하게 버텨주고, 전국의 양심 세력들이 연대한 결과'라고 말하였다.

해누리관(체육관)

해아래집(기숙사)

재단 비리에 맞서 싸워 결국 학교를 정상적 궤도에 올려놓았던 학생과 교사들의 굳건한 노력을 잊지 않도록 교내에 기념물을 세우고 정상화 과정을 기록해 놓았다.

에바다학교 정상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기념물

인권 회복 그 역사의 시작

1996년 11월 27일 새벽, 이린 농아학생들이 비리재단의 인권 유린과 비인간적인 대우에 항거하는 농성을 시작하여 교사와 학부모가 동참하게 되었다.

양심의 결합, 연대의, 물결

이어서 33개의 중앙단체로 구성된 '에바다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평택지역의 13개 단체로 구성된 '에바다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에바다전국대학생연대회의' 등 수많은 자생적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활동하였다.

고난의 세월

비리재단은 농성에 참여한 학생들을 농아원에서 쫓아내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폭려과 테러를 자행했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해아래집'을 마련하여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해아래집'은 생활과 교육의 공간이자 토쟁과 연대의 거점으로 정상화의 기반이 되었다.

희망의 이름 에바다

2003년 6월 7일, 마침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완전 정상화를 이루었다. 에바다민주화투쟁은 이후 장애인 인권문제를 한국사회의 전면에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우리 에바다는 모든 이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특수교육기관이 되기를 꿈꾸며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③ 학교 현황[64)]

교직원 현황

구분	교장	교감	교 사							행 정 실													총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소계	행정직	기능직	운전원	조리사	기계원	생활지도사	조리보조원	특수교육지도사	통학지도사	행정실무사	전임코치	간호조무사	소계	
남			2	1	4	1			8	1	1	2		1	3	1	1			1		11	19
여	1	1	7	5	3		1	1	19	2	1		1		3	1	2	2	1		1	14	33
계	1	1	9	6	7	1	1	1	27	3	2	2	1	1	6	2	3	2	1	1	1	25	52

64) 에바다학교 홈페이지(http://www.ebada.sc.kr)

학생 현황

구분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등학교				총계
학년	1	2	3	4	5	6	계	1	2	3	계	1	2	3	계	
학급편성	1	1	1	1	1	1	6	1	1	1	3	1	1	1	3	12
남	3	8	3	5	4	6	29	4	4	7	15	4	4	6	14	58
여			4		1		5	2	2	1	5	2	1		3	13
계	3	8	7	5	5	6	34	6	6	8	20	6	5	6	17	71

시설 현황

구분	관리실			교실 및 특별실																			기숙사						체육관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교실	컴퓨터실	진로활동실	시청각실	상담실	도서실	보건실	회의실	급식실	음악실	미술실	도자기실	체력단련실	실내체육실	VR스포츠실	행동발달치료실	제과제방실	방과후교실	탈의실	휴게실	화장실	생활실	사감실	거실	샤워실	화장실	다용도실	
실수	1	1	1	1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2	10	8	1	2	2	2	1	1

2) 종교

(1) 개신교

① 하북감리교회

하북감리교회는 이용찬 장로[65]의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즉 1956년 8월 7일 그의 집에 6명이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용찬 장로의 맏며느리인 조영신(1952년생)씨에 의하면 2대 독자인 이용찬 장로가 두 아들을 잃었고, 다시 아들을 얻었을 때 어느 전도사가 물건을 팔러와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하였다. 이것이 그가 신앙을 갖게 된 계기였다.

하북리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갈곶리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하북

하북감리교회

65) 이용찬 장로는 하북1리 아랫성뒤 마을 토박이 출신으로 하북농협 초대 조합장을 역임하였다.

리 사람들은 가곡리에 있는 장로교회인 가곡제일교회를 다녔다. 1956년 8월 13일 진위면 하북리 산73번지 362평을 오산읍 산청리 이강래씨로부터 기증을 받아 교회 터를 마련하였다. 그래 8월 27일에는 개척교회 설립 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교회 당을 처음 건축한 것은 1959년 4월로, 이때 흙벽돌로 35평을 건축한 것이다. 그렇다면 1956년 8월에는 건물이 없이 개척교회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영신씨는 천막교회 얘기를 했다. 이용찬 장로의 장모님 되시는 분이 이기붕씨의 부인 박마리아가 하북리 집에 방문을 했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 이때 그녀가 박마리아에게 '하북리에도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내비쳤다. 그러자 박마리아가 미군부대에 얘기해서 큰 천막을 얻어와 천막교회를 만들었다. 그러니 1956년 8월에 개척교회를 신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천막교회를 세웠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977년 건축된 하북감리교회 건물과 교인들

이길수(1952년생)씨는 흙으로 지은 조그마한 교회가 장마 때 큰 비가 내려 무너져 내리자 새로 건축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1959년의 흙벽돌 교회 건물로 추정된다.

1977년에는 적벽돌 건물로 90평을 신축하였고 2009년 12월에 818평에 달하는 현재의 건물이 완공되었다.

주일학교 학생을 제외한 신도 수는 380명 정도이며, 주일학교는는 유치부 6~7명, 초등부 25명, 중고등부 15명, 청년부 20명이다.

역대 교역자 명단

순서	부임연도	이름	순서	부임연도	이름
1대	1956	유덕종 전도사	6대	1968	최종혁 목사
2대	1958	이봉희 전도사	7대	1974	김연수 목사
3대	1961	최동관 전도사	8대	1980	장시천 목사
4대	1963	김상기 목사	9대	1984	이병능 목사
5대	1965	김사복 목사	10대	2004	진인문 목사

② 진위예수중심교회

진위 예수중심교회는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진위면 하북4길 129-420(진위면 하북리 95)' 에 있는 건물의 맨 윗층인 3층에 위치한다. 이 교회는 이초석 목사를 따르는 교파로 담임 목사가 따로 없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스크린 예배를 보고 있다. 신도수가 많지 않아 현재 3~4명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진위예수중심교회

③ 예수동교회

예수동교회

예수동교회는 하북4리 입구인 ‘진위면 경기대로 1884(진위면 하북리 96-3)’ 국도 1호선 옆에 위치하며 1986년에 설립되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이다. 교회 건물은 기다란 1층 건물과 그 위에 판넬로 다시 지은 모습의 2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2층은 예배를 보고 1층은 교회 유지에 필요한 여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신도 수는 200여 명이다.

④ 선민교회

선민교회

하북2리 대정촌 마을 동쪽인 ‘하북2길 87-10(위면 하북리 590-30)’ 있으며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이다. 1990년 무렵에 설립되었고, 주홍식 목사가 담임목회자로 재직중이다. 교회 바로 앞 주택에 거주하는 인금순(여, 1948년생)씨는 3리에 있는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자신의 토지 100평을 희사하여 교회를 건축하였다. 이 교회의 신도는 20여 명 남짓으로 마을 사람보다 외지인이 많다.

⑤ 하북예성교회

하북예성교회

하북3리 마을 입구인 ‘진위면 하북3길 4(진위면 하북리 259-2)’에 있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이다. 이 교회는 주택의 한쪽 건물로 규모가 매우 작다.

(2) 이슬람교

하북3리 새마을촌 동편 ‘진위면 하북3길 25-5(진위면 하북리 288-2)’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 이슬람 센터가 있다. 이 센터는 2010년 무렵에 단독주택을 임대한 것이다. 이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평택 인근에 거주하는 이슬람 신도들이며, 이슬람 신자들이 서로 개인적인 소개를 받아 예배를 하러 온다고 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15분에 예배를 시작한다. 대개는 20~25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다.

하북3리 새마을촌의 이슬람센터

이슬람교도들의 기도장면

3) 마을신앙

하북리에서 당제나 정제 등 마을신앙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사된 내용도 없었고, 현재 마을 주민들에게 전해진 내용도 없다. 마을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었고, 광주 이씨가 입향 할 때 심었다는 회화나무가 현재 2그루 남아있으나, 마을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4) 전통놀이

(1) 대정촌 줄다리기

줄다리기용 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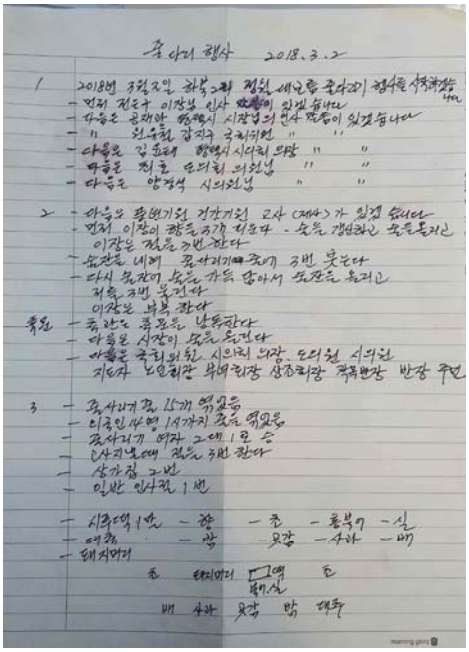
대정촌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정월 대보름에 줄다리기를 했다. 2005년부터 10년간 이장을 역임했던 이세영(1958년생)씨는 대정원년인 1912년부터 격년제로 줄다리기를 해왔다고 했으며, 권병덕(1947년생)씨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이세영씨가 이장을 보던 2005년 무렵부터는 400만원의 평택시 보조금을 받으면서 매년 행사를 열었다. 보조금은 처음에 400만원을 받았고, 이후 조금씩 올랐다.

줄다리기를 하기 위해 우선 볏짚을 모아야 했다. 옛날에는 그 집안의 형편에 맞게 잘 사는 집은 여러 단을, 생활이 어려운 집은 한두 단의 볏짚을 냈다. 이것을 마차로 실어다가 한 군데 모으고 새끼를 꼬아 줄다리기용 줄을 제작하였다. 이후 트랙터 1대분 정도의 짚을 사용한다. 줄은 양쪽에서 두 사람이 볏집을 대주면 가운데에서 나무막대를 돌려가며 새끼를 엮어 나간다. 이렇게 꼬아진 새끼를 또 2줄씩 합쳐 나가는 방식으로 새끼를 엮어나간다. 현재는 새끼를 사다가 엮는데, 두 개의 새끼를 합쳐 엮은 것 14줄이 소요되니, 새끼줄 수로 얘기하면 24줄이다. 이렇게 하면 지름이 거의 30cm 정도

되는 줄이 완성된다. 줄의 길이는 대략 35~40m가 된다. 줄이 완성되면 사람들이 줄을 잡기 편하도록 옆으로 늘어뜨리는 새끼줄을 큰 줄에 묶는다.

줄다리기 행사 장소는 현재 마을 앞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공터에서도 했고, 마을회관 앞 방앗간 앞마당에서도 하는 등 해마다 손 없는 곳을 택하여 옮겨 다녔다. 그러다가 현재는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고정적으로 시행된다.

대보름날 저녁 7시 무렵 달이 오르기 시작하면 마을사람이 모여 우선 고사를 지낸다. 제물로는 대추, 밤, 곶감 등 3색 과일과 떡, 돼지머리, 실을 맨 북어를 진설하고, 제상 양쪽에는 촛불을 켠다. 초헌관은 이장이 맡고 그 다음 외부 손님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차례대로 이어간다.



줄다리기 행사 진행을 위한 메모(2018년)

줄다리기를 위해 한쪽은 18세 이하 남자와 모든 여자, 다른 한쪽은 18세 이상 남자로 편을 짠다. 징소리와 더불어 줄다리기 시작된다. 처음에는 남자가 이기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여자측이 이긴다. 힘으로 하면 남자가 이기지만 보통은 여자쪽을 이기게 해준다.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는 전하지 않는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달집을 태운다. 달집을 태우는 동안 풍물을 치며 한바탕 놀고, 풍물치기를 마치면 막걸리를 마시며 음식을 먹는다. 예전에는 모든 행사를 마을 사람끼리 했으나, 최근에는 풍물치는 맥이 끊어져서 외부 팀을 초빙한다.

줄고사

달집태우기

줄다리기 끝나면 어르신들이 살 없는 곳을 선정하여 줄을 버리고 온다.[66] 옛날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하여 줄을 들고가서 버렸으나 최근에는 노인들이 많아 트럭이나 트랙터에 싣고 사물놀이패 4명이 길가락을 치면서 따라가는 모습으로 줄을 날라다 버린다. 이렇게 행사가 끝나면 줄을 버리기 때문에 매년 새로 제작한다.

행사 후 줄 버리기

66) 예전에는 번갈아 가며 진위천과 오산천 둑 위에 놓아두었다고 한다.(정병헌씨 인터뷰)

(2) 놀이

어렸을 때 여름 놀이로 많이 꼽는 것은 웅덩이나 하천에서 즐기는 물놀이였다. 아랫성뒤 마을에서 물놀이 장소는 하북리 뒤편의 하북보가 있는 곳이었다. 이 저수지는 여름에는 물놀이 겨울에는 썰매장으로 이용되었다. 수문이 있는 곳이 매우 깊어서 아이들이 수영을 하거나 썰매를 타다가 빠져 죽는 일도 발생하였다. 하북 2리에서는 철도가 지나가는 다리 서편의 진위천이 아이들의 물놀이 장소였다. 때로는 철도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며 물놀이를 즐겼다. 가끔 지나가는 기차에서 음식물을 던져주면 맛있게 먹는 일도 있었다. 대정촌 권병덕씨는 지나가는 기차에서 과자나 사탕 같은 것을 던져주면 주워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을 갖고 있다. 한번은 말고기를 던져줘서 생전 처음 말고기 맛도 봤다고 했다. 또 다른 여름 놀이로는 고기잡이였다. 진위천에 다양한 고기 종류가 많아 주로 족대를 갖고 고기를 잡았다. 대정촌 이장인 송명규(1964년생)씨는 지금의 송탄농협산지유통센터 자리에 있었던 마름웅덩이에서도 물놀이를 했다고 했다.

겨울놀이로는 연날리기와 썰매타기가 있다. 아랫성뒤 마을 아이들은 하북보나 황새기들에 있는 웅덩이에서 썰매를 탔고, 이 마을에는 겨울에 주로 서풍이 불었기 때문에 연날리기도 주로 황새기들에서 많이 하였다. 대정촌 아이들은 진위천과 오산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들판에서 연을 날렸다. 이곳은 들판이 넓고 바람이 많아 연날리기에 적절한 장소가 되었다. 연은 지게에 매다는 바수걸이의 싸리나무를 얇게 깎아서 밥풀을 이용하여 한지에다 붙여가지고 만들었다. 대정촌 아이들은 겨울이면 얼어붙은 진위천을 따라 썰매를 타고 봉남리까지 가서 등교하였다. 썰매를 타고 가면 걸어가는 것보다 빨리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학교에 갈 때 썰매는 수수깡을 묶어서 세워놓은 수수깡 더미 사이에 숨겼다. 마을 공터에서는 자치기나 팽이치기도 하였다.

5) 전설

■ 쪽박산 - 옛날에 큰 홍수가 졌을 때 떠내려 오다가 멈춰섰다.
■ 은행나무 - 마을 안에 수백 년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은행나무가 있었다. 아주 옛날에 이곳에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이 나무는 뱃사람들이 이 나무에 배를 매어놨었다고 전해진다. 이 나무는 1982년 평택시의 보호수로 지정되었는데 2013년 무렵에 말라죽었다.
■ 황새기들 - 옛날에 바닷물이 마을앞까지 들어왔을 때 이곳에서 황새기 젓갈을 담았다고 구전된다.

6) 보호수

하북리에는 원래 보호수가 2그루 있었다. 그러나 '평택-23'로 지정번호가 부여되었던 은행나무 한 그루가 뿌리가 많이 잘려 2012년에 고사되었다. 진위역 앞 광장에 있는 회화나무는 원래 역의 북쪽에서 광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었는데, 이 진입로를 낼 때 지금의 위치로 옮겨 심었다.

지정 번호	소재지	지정 연월일	수종	본수	수령(년)
평택-24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140-121 (진위역앞)	82.10.15	회화나무	1	200

진위역 광장 보호수_회화나무

옮기기 직전 모습(출처: 이길수)

[제보자] 가나다 순

권병덕(남, 1948년생, 하북2리)
김갑순(남, 1954년생, 하북1리)
우종갑(남, 1939년생, 은산4리)
윤증순(여, 1957년생, 하북3리)
이세영(남, 1958년생, 하북2리)
이정재(남, 1939년생, 하북1리)
정병헌(남, 1958년생, 하북2리)
한승권(남, 1961년생, 하북1리)
황영재(남, 1934년생, 하북2리)
권오일(남, 1961년생, 에바다학교)
송명규(남, 1964년생, 하북2리)
유윤근(남, 1957년생, 하북4리)
이길수(남, 1952년생, 하북1리)
이순님(여, 1943년생, 하북3리)
전인순(여, 1936년생, 하북2리)
조영신(여, 1952년생, 하북1리)
한영국(남, 1951년생, 하북4리)

이길수(남, 1952년생, 하북1리)

일시	2021년 8월 11일	
장소	하북1리 마을회관	
구술자	이길수씨는 매일유업 회사원으로 정년퇴직하고 이 마을에 살고 있다. 어렸을 때의 경험했던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다가 마을 이장을 14년 맡아왔기 때문에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있다.	
면담자	장연환	

이장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 농촌 마을하고 도시 동네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좀 그래요. 저희 동네가 제일 어려운게 뭔가하면 도시라 농사 짓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그래서 면이나 이런 데서도 농사에 관련된 업무는 훨씬 적죠. 근데 인제 차츰 복지쪽으로 가니까, 요새야 뭐 그 생활보호대상자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진위면의 한 1/10쯤 돼요.

의외로 생보자도 굉장히 많고 그러네요?

제가 그, 저 혼자 그냥 왜 우리 동네에 그 (생보자가) 많은가. 왜냐면 본토는 별로 없어요. 외부에서 오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봤어요. 근데 교통. 그 담에 인제 어쨌든 시골 동네잖아요. 방값이 저렴하죠.

여기서 그럼 원룸을 얻는다 그러면 얼마 정도 해요?

원룸을... 아 저게 지은지가 10년 넘었어요. 35만원이라는 것 같애요...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그것도 힘들어서 못 들어가죠. 월 35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냥 옛날 집, 방 하나 있는데, 그런데 가서 사는거죠.

이장님 동기 정도 되면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또는 중학교만 졸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 중학교 가는 비중은 얼마나 됐어요?

그때는... 하나 정도 못간 거 같은데요.

아, 대부분 중학교는 가고요?

예.

이장님 전에는 여기는 중학교를 어디로 갔나요?

오산중학교하고 효명중학교 갔죠... 하북을 포함해서 이쪽, 북쪽은 대부분 오산중학교를 가고,

마산리 이쪽은 효명으로 갔어요.

그러면 다른 생활권도 오산이겠네요?
그렇죠. 그런 건 있죠.

여기서 오산중학교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때... 버스 타야죠 뭐. 버스 정류장 가서... (걸어서) 못 가죠.

그때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정도 다녔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버스비가, 중학교 1학년 때 서울을 가서 어디... 경복궁이나 이런데 갔었나?, 갔다가 점심 먹고 오는데 100원 들었어요... 버스비 왕복...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오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 뭐, 노는 거지 뭐.

산에 나무하러 다닌 기억도 없고요?
예. 저는... 그때 상당히 부자였어요. 우리가... 이 동네에서 두 집, 세 집 꼽을 정도의 부자였어요. 그래갖고 뭐 보릿고개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혀 없었어요. 흰 쌀밥만 먹었어요.

논이 얼마 정도면 그렇게...?
한... 60~70마지기 됐어요. 그리고 밭도 한 3~4천 평 이상 됐었을 거예요. 정확한 기억은 안 돼, 그런데 2천평짜리... (지도를 가리키며)여기 학교 자리도 우리 포도밭이 있고 그랬어요.

이걸 파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날 갑자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나쁜 짓을 하셔서 그런건 아닌데, 남 빚보증 서고 이래가지고 그거 그냥 한 개도 없이 다 날라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어려웠겠네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쉬운 말로 약주 드시고... 그래서 거의 못하신거지. 경제생활은. 거의 엄마가 하셨지.

어머니는 뭘로...?
남의 집 일다니시고. 그때는 두부도 맨들어서 갖다가 팔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덕분에 살은 거예요. 엄청 억척이셔. 일도 보통 잘해시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장사도 좀 하시고 그런거네요? 두부 정도?
아니 그냥 집에서 기계 놓고 했는데, 그게 첨에는 괜찮다가, 점점 나아지니까 보건 계통에서 이게 위생적으로 안 좋다고 해서 못 허게 했죠. 집에서 그냥 허가 없이 하는 거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사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다 파는 거예요?
갖다 배달했어요.

배달은 주로 어디로 했어요?
가곡리, 견산리 이런 데로 가신 거죠.

군대는 몇 살에 가셨는데요?
군대를 조금 늦게 갔어요.... 73년도에 갔나, 4년도에 갔나....

그럼 군대 갔다와서 아까 그 직장 다니신 게 몇 년 정도 하셨어요?
거기 한 2년 다니다가 여기 매일유업 취직해서 왔죠.

매일유업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낙농과라고, 지금은 많이 축소됐지만, 그때는 우리나라가 인제 그 소가 별로 없어, 축산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뉴질랜드나 이런데서 송아지를 회사에서 사다가, 개인은 살 능력이 안되니까... 가격이나 이런 거에서.... 회사에서 수입을 해다가 소를 키워보겠다는 사람들한테 담보를 잡고 송아지를 줬어요. 그래갖고 키워서 우유를 내서 그 돈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유업에서 송아지를 수입해가지고, 송아지를 주는 범위는 전국적이었겠네요?
여기가 인제 평택이니까, 멀리가 인제 서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담보가 있잖아요. 인제 그것도 안 되면 뭐 털어버리던지 하는... 담보 잡었으니깐 그거 갖고 처분하고... 근데 그 업무는 아니고, 저는 그냥 관리하는 업무 하다가... 잘 했어요. 열심히... 저는 그런게 재미가 없고, 기계 쪽에 재미가 있어갖고... 공무과로 갔어요.

그럼 어떤 기계를 만지신 거예요?
아니, 기계를 인제 고치는 거죠... 저기... 지금도 이렇게 종이 팩 요렇게 생긴 우유 있잖아요? 우유 담는 그 기계... 그 기계를 정비했죠.

이 일이 훨씬 더 재미있으셨어요?
예... 그 기술은 일각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계 고치는 거... 완전히 분해했다가 맞추고 그랬었으니까. 혼자서...

하루에 몇 시간이나 근무하셨어요?
기본적으로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일이 있으면 뭐 한 2~3시간씩 더 하는 거죠.

보통 2~3시간씩 연장근무고요?

예. 아주 바쁘면 집에도 못 가고. 언젠가는 보름 동안 집에 안 온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시간외 근무를 많이 쳐주잖아요. 그 당시에도 초과 수당이 정규 근무하는 거에 뭐 1.5배, 2배 정도 되나요?

1.5배죠 뭐... 일요일은 마찬가진데, 추석 뭐 이런 때는 2백프로 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궁금한 게, 홍원제지나 매일유업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 당시에는 서울 주변에도 공장 할 데가 많이 있는데, 그 때 여기가 지금하고 비교한다면 뭐 아주 시골 산골짜 기는 아니지만, 1번국도하고 철도가 있지만, 굳이 왜 여길까?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왜 홍원제지하고 매일유업이 이쪽으로 들어왔죠? 영풍제지도 그렇고요?

땅값이 쌌겠죠 뭐. 하하하... 근데, 홍원제지나 제지 공장은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유업은 아무래도 소를, 그때는 ‘입식’ 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다가 주는 거를 ‘입식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소를 키워야 될 데가 시골인데요. 일로 와야지요.

그때 여기 매일유업 다니는 분 있고, 인제 또 농사 지으신 분 있잖아요. 근데 매일유업을 다니면 매달 봉급을 꼬박꼬박 받으니까 생활은 좀 괜찮으셨겠어요?

그랬겠죠 뭐...

여기에 지금 현재 농사짓는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실제 짓는 사람은 한 여섯 일곱?

그러면 하북리 토박이 중에서... 농사는 안 짓지만, 여기 농지는 있을 거 아녜요? 그런 가구는 몇 가구나 되나요?

한 서너 가구 돼요.

이장님 어렸을 때는 여기 가게가 몇 개나 있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가게요? 하나... 두 개...

가게 자리가 어디였어요.

요기쯤 있었어요. 길 건너에... 아, 버스도 요기서 섰었어요. 옛날에.... 그 담에 한 참 후에는 길 건너 쪽에 하나 생기고...

그러면 그 당시에 어른들이 길 가다가 목마르면 한 잔 하는 술집 같은 것이 있었을텐데...?

요쪽에 하나 있었어요.

우편취급소 앞쪽에요?

예. 고쪽.

여기에 술집이 하나...?
막걸리 파는...

아줌마가 여기 막걸리만 팔은거예요? 음식도 좀 하고요?
음식은 안 팔았을 거 같은데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경제권이 요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담에 요 사리 넘어가는, 지금은 고가가 있지만, 일로 넘어갔어요. 옛날에는... 여기 건널목이 있었어요.

그럼 이 건널목은 언제까지 있었어요?
그것도 70년도쯤 있었나...

이 건널목은 그러면 전철 생기기 전부터 없어진 거네요?
그 전이죠. 기차만 다닐 때.

인제 매일유업은 몇 살 때 퇴직하셨어요?
스물여덟인가...

왜 이렇게 일찍 그만 두셨어요?
가게 하느냐고, 장사할려고... 저거, 모형비행기. 그니까, 그런 데 취미가 있다니까요... 능력있고, 뭐 만들고, 모형 비행기도 이게 뭐 간단한 거지만, 그래도 이게 균형 맞추고 할라면 눈썰미가 있어야 돼요. 손재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담에 그것도 있고, 모다로 가는 자동차도 있고 그래요. 프라모델이라고 하는 거... 그거 장사하러 갔는데, 갔어요. 그만뒀어요.

가게, 어디로 가셨어요? 서울로요?
서울로, 학동... 그때는 뭐 옛날 저긴데, 저는 인제, 인제서 느끼는 건데. 사교성이 없어요.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사람을 만나서 뭐 하는 게 없어요. 지금도 제 생각에 나는 기계가 말을 안 들으면, 기계를 붙들고... 언젠가 요기 매일유업 다닐 때요... 지금은 주유소에 가면 숫자로 기름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당시 그게 막 나올 때거든요. 우유 차에도 그걸 달았었어요. 그거 그때 돈으로 천오백 만원이라고 그런 걸 겁도 없이 뜯었어요.

그 기계를요?
예. 요만한데, 톱니바퀴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

우유 굳지 말라고 이렇게...?
아니 아니, 목장에서 첨에는, 인제 만화나 텔레비에 나오잖아, 우유 통에다가 해가지고 갖고 왔죠. 차에다 싣고 와서 여기서 쏟아부으면서 얼마다 해갖고, 누구네 누구네서 얼마 왔다 해서 통보를 해주는 건데, 한참 돼가지고는 우유를, 그 통을 안 쓰고, 상하니까... 인제 각 목장에다 냉장 탱크를 놨지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다 쏟아 붓고, 인제 짜는 자체가 글로 들어오게 되

어 있으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깡통으로 싣고 오던 걸 회사에서 탱크차가 가갖고 그걸 빨아들여야 될 거 아녜요. 그럼 빨아들일 때 얼마 들어왔나 하는, 계량하는, 주유소에서 이거 숫자 나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막 나왔는데, 겁도 없이 뜯었어요. 그걸... 아 못 맞추겠는거요. 그래서 요렇게(팔장 끼고 앉는 자세) 하고 앉아갖고요. 바닥에. 요기다 그 부품을 다 놓고 보름 동안 아침 아홉시부터 밤 아홉시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거 결국은 맞췄는데, 보름 동안... 기계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집중력이 있고 한데, 사람하고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장사를 했는데, 워낙 돈이 없어서, 더 번화가에다 얻었어야 되는 건데 외진 데다 얻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못 하고. 외지인이니까 누가 오지도 않아요... 거기가 외진 데였어요. 차는 다녔지만, 사람은 거의 안 다녔어요.

그때가 37세였다는 거죠?

나이는 확실히 모르는데, 연도는 확실해요. 88년도 초에 여기를 그만두고, 여기서 ‘야 그만두지 말라’ 고 엄청 말렸는데, 하하하... 기계를 잘 고쳤으니깐... 그래갖고 88년도 봄에 나가갖고 한 열 달쯤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로 그 집에다, 외상으로 갖고 왔으니깐, 다 갖다 주고 매일유업 도로 와가지고요 부장한테 그랬어요. 그때 일년에 두 호봉씩 올라, 한 호봉에 얼마인지는 몰랐는데, 몇 천원 하겠죠. 일년에 두 호봉씩 올라갔는데, 부장한테 가가지고 나 여기 다시 올게요 그랬더니. 부장이 좋아해죠. 기계 잘 고치니깐. ‘조건이 있어요’ 그랬어요. 내가. ‘조건이 뭐냐’ 그래서 ‘10호봉 올려줘요’ 그래갖고 도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갔다가 오는 김에 봉급이 확 오른 거네요?

그때 5만원, 6만원 올랐지.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반발 한 해요?

아이 내 기술을 아는데...

10호봉을 한꺼번에 올려줬으면...?

그때 매일유업에 그 우유를 저장하는 탱크를, 스텐레스로 만드는 그 부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술자도 있고, 저처럼 인제 고치는 기술자도 있는데, 그 기술자 애가 잘 해. 그니까 인제 그때는 매일유업에 그 부분은 천안 애들이 잡고 있었어요. 그 부장들도 다 천안이고, 두 부서에. 천안 애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나보다, 난 낙농과에 있다가 공무과로 갔잖아요. 나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걔는 나보다 10호봉이 높은거야..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내가 걔보다 기술이 좋지. 걔는 두들기고 탱크 만드는 기술인데, 그 자리에 없으니까 우리 부서오 온거지. 근데 들어가면서 “쟤하고 똑같이 맞춰줘요.” 하하. 걔가 나중에 보니까 10호봉이 높은거야.... 부장이 흔쾌히 “그래! 알았어!” 이러이러면서 도로 들어간거야.

10호봉이면 액수로는 얼마나 차이났어요?

한 호봉에 한 5천원, 6천원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한 호봉에 5 · 6천원에, 5 · 6만원이면 꽤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당시 월급으로는 많은 거지요.... 제가 그리고 또 몇 년 다니다가 때려쳤는데, 그때 한 100만 원을 못받았으니까... 월급을...

또 왜 그만두셨어요?

또 사업핼라고, 하하하. 그때 내가 영어공부를 좋아해요.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내 스스로 끊임없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인제, 내가 도로 들어가고나서 영어 공부 하는 놈이 필요한거예요 회사에서. 그래갖고 토익이라고 해죠, 토익. 그 시험을 보라고 그랬는데, 영업부서, 연구부서 얘들은 거의 보구.... 매일유업 전체에서....

그때 영어공부를 하라고...?

그때 분위기에 회사에서 영어 공부 해는 놈이 필요해서, 그때 추세가 또 그랬고. 그니까 회사에서 연구개발부, 그 담에 기획관리부, 이런 얘들은 의무적으로 토익 시험을 보라고 그래고, 나머지 우리 같은 부서는 그냥 '보구싶은 사람 봐라.' 그 대신 비용도 대주구 그날 근무핸 걸로 해주구... 저는 좋아해니까 갔어요. 시험보러.... 가서... 680점 맞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 680점이면 수준급인데요?

대학, 대학원 나온 얘, 매일유업 전체에서 4등을 했대요... 근데 기름쟁이로는...

1등이죠?

1등인 정도가 아니고, 월등핸 거죠. 회사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저놈이 영어를 많이 맞었다고, 그래서 그때 무슨 프로젝트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 그 프로젝트는 안 하는데, 그 애들 이유식. 그 물에 타서 멕이는 거. 물에 잘 녹게 할려고 그래늘로, 이렇게 덩어리로 만드는, 그 기계를 인제 외국에서 수입해서 설치핼라고 그러는데, 외국 가야될 거 아녀. 영어 해는 기름쟁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거지.

어디로 가셨어요?

그 인제 기술제휴 맺은 회사가 독일에 일루파라고 하는 회산데요. 거기 가서 인제... 프랑크푸르트 옆에 있어요. 거기서 그치만 인제 거기두 이유식 만드는 회사일 뿐이지, 기계는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계를 엔진니어링 해가지고, 무슨 기계는 어디서 사고, 무슨 기계는 어디서 사고 해갖고 뭐, 많이 갔다왔어요. 스위스 뭐, 이태리 뭐, 프랑스, 영국까지... 아 호강했어요. 그때.... 그런 회사 다 다니면서, 거저지 뭐, 독일 사람들이 다 엔진니어링 하는 거고... 그래서 기계를 설치했죠.

그러면 독일에는 몇 년...?

아 몇 년은 아니고... 통틀어서 한, 거주했던 건 6개월 정도 될까요.

그때 기계가 몇 대 들어왔어요?

몇 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시스템이니까. 지금 매일유업 가시다 보시면 탑이 두 개가 있어

요. 큰 게, 근데 그 큰 거에 들어가는 기계를 핸 건데, 완전히 시스템이죠. 몇 대가 아니고.

그러면 그거 수리하고 담당하셨겠네요?

그건 엔진니어링만 해주고... 그 탱크 만드는 부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인제 사양길에 들어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탱크 스텐으로 서있는 거, 이거는 용접기 하나하고 두 세 사람만 있으면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탱크는 매일유업에 놓는 탱크가 아니고...?

인제 수도 없이, 산업이 발전돼가지고 그런 탱크가 필요한 데가 많잖아요. 스텐레스가 필요한 데가 많으니까, 얘들이 나가서 안 차리면 여기서 계속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두 세 명만 있으면 만든다니깐요. 그니까 여기서 배우는 애들이 나가갖고 지가 차리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안되잖아요. 관리비가 세니까.

그 탱크를 매일유업에서 만들어서, 매일유업에서 다른 곳에 파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매일유업 자체에 설치핼려고 그 부서를 만들은 건데... 매일유업 다 설치했고, 기술도 됐고, 그러니까 인제 딴 데....

그니까 그 사람들이 이쪽 장치부로 다시 왔겠네요?

두 세 명만 있으면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이제 가격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큰 회사하고 관리비가 틀리니까. 인제 사양길에 들어선 거예요. 인제 절로 쫓겨났어요. 아산으로.... 그 부서가.

그게 더 나았나요? 그 쪽이?

지금은 그게 잘못 된거지. 근데 여기서는 있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생각하면, 원래 제가 있는 부서에 특출나게 전기쪽으로 잘 아는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보다 머리 몇 배 좋고. 걔가 있는 한 내가 거기서는 안 되겠더라구. 그래서 간다고 그랬더니, 여기서는 심지어 ‘너를 위한 부서를 하나 맨들은테니까 가지마라.’ 그러는데 전 약속핸 거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죠. 갔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만뒀어요. 93년도에.

영인면에 가서는 뭐 하셨어요?

생산과장이죠 뭐.

이때 그만두시고 사업하신 거예요?

사업도 해다가...

무슨 사업 하셨어요. 이때는?

쇠 깎는 거. NC라고 컴퓨터로 모양을 깎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그거 9년 했나...

이거는 개인 사업 하신거잖아요?

개인 사업이죠.

이 사업체는 어디에다 두셨어요?

첨에는 의왕에다 했다가, 아 그것 참, 의왕에 했다가 부천에 갔다가, 그담에 요기 병점에 왔다가, 병점에 왔는데 자꾸 있는 데가 삼성전자 짓는다고 나가라구, 뭐 짓는다 나가라고 그러는 바람에, 저 동탄 1신도시 짓는다고 또 나가라고 그러는 바람에 때려치웠어요.

이걸 그만두시게 된 것은... 나가라고 해서 인제....?

그러기도 했구, 기계가 한 1억쯤 가요. 그게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좀 덜덜거리는 그 주물을 깎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이 기계 갖고는 주물은 쇳가루가 많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망가져서 못써요... 주물에 강한 게 있어요. 정밀도는 약간 떨어지구, 덜덜거려도. 그 기계로 바꿨어요. 그 일을 또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기계를 팔고 1억짜리를 사야되는데... 아휴...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다 때려치고 방앗간 했어요. 이 자리서.

그때 여기에 방앗간이 없었나요?

있었는데, 하시던 분이, 아주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고, 그 아들은 안 하고. 그 이제 없어질 위기에 됐는데, 제가 인수핸 건 아니고.... 그냥 없어졌어요. 그 자리에다...

그 방앗간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장님 어렸을 때부터 있었나요?

엄청 오래됐어요.

이 방앗간에서는 뭐 뭐 했어요?

떡 만들고, 고추 빻는 거지 뭐...

그럼 이 동네는 그 방앗간 하나였겠네요?

하나였지. 하나이고, 가곡리에도 없구. 견산리에는 하나 있어요. 지금도 있구. 그건 나중에 생겼지 뭐.

방앗간에 오는 손님들은 어디서 왔어요? 여기 하북리하고....?

하북리, 가곡리... 아니, 진위면 많이 왔죠. 제가 요기 출신이니까는 알어서 전부 다들 알어서 왔어요. 은산리에서도 오구 뭐 마산리에서도 오구....

그때 이 근처에 이런 방앗간이 봉남리에도....?

봉남리에는 없구, 진위면에 좌우지간 견산리하고 여기하고만 있었어요. 견산리에 지금도 있는데....

여기는 벼 방아 찧으러는 어디로 다녔어요? 옛날 어리셨을 때?

어렸을 때는 요기 있었어요. 진위역 자리에... 정미소가 있었어요.

나무는 어디로 갔어요?

절로 갔지요. 은산리나, 가곡리나... 근데 그런 기억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도 반 농촌이라고 보기 어려운 동네잖아요. 그래두 딴, 저런 동네보다도 먼저 연탄이라든가 이런게 빨리 들어왔지.

여기도 땅값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요새...

아까 우체국 자리가 여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이, 국도가, 이렇게 하면 오산이구요. 이게 우체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 뒤에 땅이 이렇게 있었거든. 이 사람들이 건물 짓자니깨 이게 걸리적거리잖아요. 2천 2백만원 줬대요.

언제요?

몇 년 안됐어요. 한 3년...

이 마을회관은 언제 지어진 거예요?

96년인가...

건축비는 얼마 정도나 들었어요?

이게 저기... 그... 평택, 미군부대 일로 이전할 때 그 돈 나온 돈 있었잖아요. 18조인가 얼만가... 의정부 미군부대 이쪽으로 이전할 때... 그 돈으로 지은 거예요. 이게. 3억 8천.... 그때 마을회관 짓는 데 3억 8천인데, 60평이라고 치면 평당 600만원이잖아요. 엄청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니까, 오죽하면 보세요. 저쪽 유리 붙였잖아요. 요기도 유리 붙였고... 하하하...

3억 팔천 받아가지고?

예... 아니 근데, 우리한테 돈 안 줘요. 집행은 다 시에서 하구. 첨에 이 돈 준다고 그래서 갔더니 통장을 하나 맨드는데, 도장을, 우리 도장하구 시장 도장하고 두 개 찍힌 통장을 맨들어가지구, 통장은 줘요. 주면, 백날 주면 뭐 해. 시장 도장이 없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업자 선정 해고 해서 가격 선정하고 해갖고, 누구, A라는 업자한테 뭐 1억을 줘야 된다 그러면 그 은행에서 돈 찾는 그거 주잖아요. 송금하는... 그 용지에다가 다 누구누구 계좌번호 쓰고, 금액 쓰구, 시장 도장 찍어서 갖다 줘요. 그럼 나는 인제 그거 가지고 농협에 가서 우리 도장 찍구 보내는 것 뿐이예요.

마을에서는 하나도, 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 손도 안 대고요?

그니까 뭐...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돈 주면요 자기 집 짓는 이장도 있대요. 하하하... 이게, 이게 맞어요. 이게 주면은 떼 먹을려고 그래요. 공무원이 100프로 정직한지 안 정직한지, 그건 우리 뭐, 우리 상관은 아니지만, 거기서 냉겨먹을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는 게 딱 맞는 방법이예요.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 전에는 마을에다가 주고 마을에서 주관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서는 이장이 지 집을 졌다는 거예요. 그, 이거 짓기 전에도 여 하북 3리. 그 마을회관 수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갖고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그때 돈을 준 거예요. 시에서... 근데, 회계 처리를 잘 못 했는지, 아니면, 그런 돈 주면 어떻게든지 냉겨서 꼭 지가 갖는다기 보다는 마을 재산으로 냉기는, 요 작전을 쓴다니까요.... 감옥 갈뻔 했어요 걔. 이장이....

여기서 회의 하면, 지금은 1년에 한 번 회의 하시나요?

동네 회의는 한 번 하고... 그니까 인제 규정적으로, 그걸 아까 대동회라고 한다고 인제 결산, 결산보고 하는 거죠... 결산하고 인제 기타 토의 이것 저것 하는 거구. 그리고 인제 2년에 한 번 이장 뽑을 때는 이장 선거 하는 거고.

부녀회는 어떤 일을 해요?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놀러가는 거지 뭐.... 전에 저기하면, 그 여기 노인정에 청소하기도 뭐하니깐, 한 달에 한 두어번씩은 와서 싹 청소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뭐 코로나땜에 그런 것도 못하고.... 근데 인제 딴 데는 그 대동회나 이런 거 할 때는 음식 대접하고 해야되니까 막, 그 음식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그거 없앴어요. 그냥 대동회는 식당가서 삼겹살 먹이고 다 보내버려.

이장님 어렸을 때 여기 농지 가진 사람들 많지 않았기 때문에, 두레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노인네들이 해갖구... 정월 대보름이면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런데 정식으루 지금 내가 저기 진위면 풍물단 그 내가 내 스스로 상북인데, 북잽이... 그거 기준으로 보면 노인네들이 다 갖춘 건 아니지. 꽹과리하고 장구하고, 그리고서 그냥 동네 돌아다니면서 용돈 좀 얻어갖고 한잔씩 잡수고 그래신 거 해신 건데...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요?

특히 인제 가게를 돌아다녔지... 그때, 옛날이 오히려 가게가 많었어요. 여기가... 영업이 잘되구. 홍원제지 들어오구 매일유업 들어온 다음에는 여기 상권이 아주 상당히 발달됐어요.

여기 진위역 앞에 4거리 있는데..?

예. 여기... 많이 발달됐지요. 그때는 요기 길 넓히기 전이니까. 가게 많았어요. 장사두 잘 됐어요. 근데, 그 매일유업하고 홍원제지가 통근버스가 생긴 다음부터 죽은 거예요.

통근버스는 언제쯤 생겼어요?

80년도 초일 거예요... 그때 생긴 다음, 다 인제 가니까... 차 타구... 그 다음에는 인제... 80년도 중반 쯤이나 되나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인제 다 자가용 타고... 그래서 이게 상권이 확 죽었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여기 장사 잘 됐어요.

그때 가게들이 주로 무슨 가게였어요?

식당이죠 뭐. 저기 밥 먹고, 삼겹살 구워먹고 소주 먹고.... 잘 됐었어요 그 때는....

진위역 만들면서 이 길(국도 1호선)도 4차선으로 넓힌 건가요?

4차선인데, 진위역 가는 도로를, 그거 인제 진입로를, 4차선이 이렇게 늘은.... 그 전에 이미 4차선이었어요. 진위역 생기면서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걸리니까 옮긴거죠. 옮기면서는 이렇게 세웠어요. 원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옆으로 늘어져서 높이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잘르기 전에는 길을 못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른거지.

나무에 전설같은 거...?

요기에 아까 교회 있다고 하는 데. 거기에 은행나무가 큰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불 나가지고 가운데가 없었어요. 둘레는 뭐 한, 이거보다 직경이 넓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때 도깨비가 나왔니 그랬어요.

옛날에도 거기에 집이 있었나요?

그 앞집은 꽤 오래 됐어요.

아 한 집만 있었고, 나머지는 인제...

그 근방에 집도 없어요. 집도 없는데, 그 은행나무 있던 자리에 갈라고 그랬더니 가는 방법이 없더라구... 홍원제지 안에두 향나무가 큰게 하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거기 올라가서 엄청 놀았는데.

근데, 향나무가 거기 있는 보면 거기가...?

우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향나무가 이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우물도 마을 사람이 먹었나요?

아뇨. 우물은 아니죠. 그냥 웅덩이죠. 우리 어렸을 땐 그 웅덩이, 쪼그마요. 그런데 거기서 썰매 타고 그랬었거든요.

겨울에 썰매는 어디서 타셨어요.

거기하고요. 아까 요 홍원제지 앞에 길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기는 논인데, 겨울에는 항상 물이 고였어요. 그 담에 인제 요쪽....

그 가곡리.

예. 요기가 인제 그 우리 옛날 말로 인제 방죽, 방죽이라고 그래는데. 요기서, 인제 가곡리에서, 산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인제 농사지을 때 쓸라고 여기에 뚝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 있어요.

한 천 평 정도 되나요?

천평, 천평은 논 하나가 천평인데요.

그거보다 더 넓었어요?

예. 아 엄청 넓죠. 논이 몇 개예요, 그게.

그러면 그 둑 가지고 이 밑에 농사 많이 졌겠네요?

그랬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 여름에는 여기도 모를 심고... 그래갖고 여기 물 땜에 썰매 타다가 또 애들 죽고, 사람 죽고, 그 보시면 지금두 수문이 있어요. 인제 거긴 깊잖아요. 거기서도 빠져 죽구. 목욕해다 여름에... 빠져 죽은...

겨울에 연날리기 같은 것도 하셨을텐데요?

그거는 여기(홍원제지 자리)서. 여기는 근본적으로 서풍이 부는 데잖아요. 근데 이쪽(서쪽)은 동네구, 또 집 있구 그러니까 안되구.

팽이치기 같은 거는 팽이를 깎았죠?

깎았죠.

무슨 나무로 깎았어요?

소나무겠지요 뭐.

팽이채는 뭘로 만드셨어요?

막대기에다 뭐 헝겊 묶어갖고... 주로 그래갖고, 여기가 우리집 자리인데 여기가 밭이었거든요. 자치기는 이 밭 쪽에서서 하구, 우리집 앞쪽에서 많이 놀았어요. 연날리기는 여기(홍원제지 자리) 내려가서 논에서 하구.

이정재(남, 1939년생, 하북1리)

일시	2021년 8월 14일
장소	이정재씨 자택 앞
구술자	이정재씨는 하북리 농지정리 때 환지위원장을 맡았고, 하북1리 초대 새마을지도자를 지내며 새마을운동을 주도하였다. 또한 반공연맹 진위면 위원장을 지내면서 강사로도 활동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마을 사정을 가장 잘 알 고 있다며 추천을 하였다.
면담자	장연환

이 동네가, 광릉부원군파가 가장 많이 사나요?

그렇죠. 제일 많이 살죠.

여기 몇 가구나 살아요.

지금 여기 이 동네에서 사는 것만... 한 20여 가구 돼요.

여기 맨 처음에 들어오신 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그거는 잘 모르죠 저도. 옛날에 들어왔으니까. 그게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광주 이씨가 터를 잡은 건데, 광주 이씨 외에는 타성이 안 살었대요. 옛날에는... 타성이 살은 거는, 그때 양반, 상놈 있을 때니까 종들만, 광주 이씨의 종들만 타성이지, 그 외에는 광주 이씨만 살었대요. 근데 여기 다들 떠났거든요. 여기. 그래서 광주 이씨가 얼마 안 남은거요. 여기서 옛날에 전부 광주 이씨였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산소가 제일 오래된 분은 누구예요? 오래 되신 조상님... 산소가 가장 오래되신 분은 몇 대조예요?

광주 이씨 중에 제일 오래되신 분은 ‘병’ 자 항렬이죠.

선산이 어디 있어요? 광주 이씨 선산?

선산이 저기 저 진위면 마산리에 있어요.... 마산리에 선산이, 거기 시제 지내는 산소들이 지금 7분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오래 되신 할아버지는 어르신의 몇 대조 할아버지세요?

나한테, 내가 ‘재’ 자 항렬인데, 재자 항렬로다가 12대죠.

어르신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새마을지도자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는 제가 제일 첫째 번 새마을지도자죠.

어떻게 새마을지도자 되셨어요?

예?... 아니 그때 새마을지도자는요, 그... 군이나, 그때 평택군이었으니까, 군이나 이런 데서 누구누구 이렇게 지명도 했구. 동네서 그냥 누가 저 추천해서 해기도 했구, 그랬어요. 그전에는.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한 30살 쯤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럼 새마을지도자 교육도 받으셨겠네요?

교육 받았죠.

어디 가서 받으셨어요?

저기, 그전에 나는 거기 가서 교육받은 거, 대전 충무체육관, 거기서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 내용은 어땠어요? 어떤 교육을 받으셨어요?

아 그러니깨 지방 발전을 허는데 앞장을 서는 그런 거죠. 말허자면...

아 '마을 좀 잘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어, 마을가꾸기래든가 뭐 저 모든 일을 새마을지도자가 앞장서서 하는 걸 가르킨 거지.

정신교육 같은 걸 많이 받으셨겠네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걸...?

그렇죠. 그런 교육을 받은 거죠. 우리가 지금 못 살고 있으니까, 선진국을 따라갈래면은 새마을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교육을 받은 거지요.

아니 어르신이 인제 교육 받고 새마을지도자를 마을에서 하셨잖아요. 몇 년이나 하셨어요?

한 3년 했나 봐요.

이 3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깨 아까 얘기 핸대로 저, 그 저 상수도 없으니까, 거 불편해니깐 공동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모다 사서 끌어올려가지고 물탱크에다가 저장했다 거기서 내려주는 걸로. 주로 그런 사업이고...

그럼 거기서부터 집집마다 관을 묻었겠네요?

그러믄요. 그 동네 사람 다 그거를 그 땅에다 호스를 묻어야 되니까, 그거를 사람을 사서는 못해니까, 동네 사람 공동으로 해자고 그래서 며칟날을 어디어디 누구누구, 며칟날은 누구네고 내가 이렇게 배당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부역을 해가지고 땅을 파구, 묻구 그러는 걸, 그

렇게 했어요.

정부에서 나온 300만원 갖고요?
그렇죠. 그전에 300만원이면 컸어요. 돈이 컸어요 그래두.

그러면 그거 놓고, 저 우물은 우물대로 쓰고요?
그렇지요. 그랬지요.

새마을운동 할 때 빨래터도 거기 만들었겠네요?
빨래터가 그전엔 큰 돌 같은 거 이런게 그 우물 밑으루 있었어요. 그리고 우물 밑에 쪼끄맣게 연못마냥 맨들어서 그 미나리꽝을 맨들어서 그 미나리를 심구 그랬지. 그 동네 사람들이 뜯어먹었어. 왜냐하면 미나리가 그 나쁜 저기를 정수를 해준다고 해가지구, 그 미나리를 심었었는데, 뭐 주로 빨래는 이 위서는 안 해고 우물 밑에서 주로 돌들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인제 마을 사람들이 미나리도 뜯어먹고요?
그렇죠. 그래고 인제 고기서 내려가는 물이 인저 그 국도, 1번 국도 밑으로 해서 그 철로 밑으로 해서 저 밖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도 그 저, 저 철로에는 옛날에 그 물 내려가게 맨들은, 철로는 그 일본놈들이 놓은 거거든요 그게, 물 내려가는 똘을 만들어 놓은 건 지금도 있어요 거기.

그 물을 길어 나르는 것은 주로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아 그건 각자 다 다르죠.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어르신 댁은 누가 했어요?
나는, 그전에도 저기 저... 그런 건 안 해고 살었어요.

그러면 할머니께서 다 하신 거네요?
아니, 그전에 우리집엔 그 식모가 있었어요.

아 식모를 두셨어요?
예. 그 식모가 했고, 그러고 인저 쪼끔씩 같이 거들어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살었죠.

보통 시골에서 살면서 머슴은 두는데, 식모를 두는 경우는 드문데요?
아이 식모도, 그때는 많이 식모두 있었지요... 밥을 먹기가 어려운 때니까, 저... 식모들이, 밥만 얻어먹고도 식모 노릇 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엔.

아 이 마을에도 식모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고 머슴들도 인저 1년 새경이 쌀 7가마면 최고, 제일 많이 주는 머슴이었고, 1년에...

그러면 머슴은 새경을 주고, 식모는 새경을 안 줬어요?

주긴 약간 줬는데, 얼마 줬는지는 몰라요.

아 보수는 얼마 줬는지 잘 모르시고요?

예. 주긴 약간 줬어, 근데 식모들이, 장기간 있는 식모들이 별루 없구, 있다가 맘 안 맞으면 나가고 다른 사람 또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그래고 그때는 동네서두 못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밥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농사 많이 짓고 그런 사람들이 그 집에 일 해는 날이면 다른 집에 못 사는 사람들이 와서 전부 일을 거들어줘요. 거들어주고 그러면 그냥 그집 식구들이 다 와서 밥을 먹어 그때는. 뭐 식모 아닌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 마을에 식모 말고, 어르신 댁에 두었던 식모는 외지에서 온 식모였어요?

그렇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럼 식모 나이는 어느 정도예요?

아이 식모 나이는 뭐 대중없죠. 그전에 6·25 사변 적에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구 오도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 주로 식모 노릇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그러니깐 뭐 그때 저... 그런 사람들은, 이북서 넘어온 사람들은 좀 젊은 사람들이고, 그 저 식모는 아니지만 동네서 아주 일을 맡아서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와서 매일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 식모는 아니지만...

밥해주고, 일해주고 그냥 먹을 거 정도 주면...?

예. 전부 그랬죠. 그리고 지금은 뭐 농기구가 전부 있으니까 전부 해지만 옛날에는 뭐 전부 모를 심어두 사람 손으루 다 심어야 되구, 벼를 베두 다 사람 손으로 베서, 벼를 다 집 앞, 동네에 다 끌어들여서 거기서 타작을 하여튼, 동네 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뭐 부잣집, 안 부잣집을 알 수 있는게 노적가리가 이렇게 많이 쌓인 집은 부자고, 그거 없는 집은 아무래도 빈약한 집이고 그랬죠. 이 시골이니까 다른 뭐는 없으니까.

어르신 댁은 그래도 식모도 있고, 머슴도 두셨을 거 아녜요?

내가 둔 건 아니죠. 우리 부모들이 두고 사셨지.

머슴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머슴은 주로 한 명이예요. 농사가 우리 크게 많지는 않으니까. 아주 대농이래야 두 사람이지, 저 보통은 1사람 두어요. 그전에 마차도 끌고 소를 부릴 줄 알고, 쟁기질두 할 줄 알고 뭐 그런 걸 하는 사람이래야 머슴을 살거든요... 그런걸 주인이 핼 수 없으니까 일꾼이, 머슴이 그걸 허는 거죠. 인저 쟁기, 논 갈고, 써리고 또 저 마차에다가 벼 싣고 들어오구 뭐 그런 것두. 그러구 잎버 일꾼이 그 저 다른 집에 일을 가면 그집에서 또 머슴이 가서 일핸만큼 또 와서 품앗이를 해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다 옛날엔 다 그런 식으루...

어르신 댁은 논 몇 마지기 정도 지었어요?

많이는 안 졌는데...

부모님께서...?

예. 우리가... 그러니까 20마지기 정도. 그 한 마지기가 1,500평이거든. 아 150평. 그래 그런 정도 해가지고, 그전엔 수리 시설이 잘 돼있지 않어서, 그전에 인저 여기 저 옛날에 저 전쟁터였기 때문에 폭탄이 중간중간 떨어졌어요. 폭탄 떨어진 자리는 웅뎅이가 파져가지고 그건 물 저장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웅덩이를, 폭탄 떨어진 자리는 자연적으로 거기가 웅덩이가 됐지만, 폭탄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웅덩이를 팠겠네요?

아이 파는 거 보다도, 파는 게 힘들죠. 그때는 기계가 없으니까. 그래 여기 보래는 게 있어요 보. 보래는 게 있어가지고 저 진위면 봉남리 우에, 우에 개천에다, 개천에서 물을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진위천을 막아가지고요?

예. 진위천을 막아가지고, 개천에서 이 장안들 가운데로다가 수로가 나 있어요.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로에서 전부 양쪽에 전부 물을 줬죠.

어르신 어렸을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 나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들판은 다 그 물 가지고 댔어요? 요 가곡리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잖아요?

가곡리에서 내려오는 것두 저쪽으로 같이 내려가지요. 그래서 그 물은 이쪽 사람들이 쓰구, 이쪽(가곡리쪽)이 지대가 좀 높고, 이쪽(하북리 남쪽)이 낮거든. 그래 가곡리 쪽에서 내려오는 거는 이 위 사람들이 쓰는 거구.

저거 경지정리는 언제 했어요?

내가 그때 저기 환지위원장을 했거든요... 논을, 땅을, 여기 있던 땅을 이렇게 똑바로 했으니깐, 이건 누구네 땅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를, 내가 환지위원장을 했는데, 몇 년돈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르신이 그럼 몇 살 때셨어요?

글쎄 내가 그때 한.... 40 정도였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좀 건달 노릇을 쪼끔 했거든요 그전에. 건달 노릇을 해고 그래서 이 경지정리를 여기, 저 사리 동네에서 위는 야막 지구라고 그래가지구 야막지구, 야막리에서 그 저기 경지정리를 했는데, 그 여기 누가 저 환지위원장을 했냐면 저... 이종봉이래는 사람이 했어요.... 다 사망허고 없는 사람들이죠. 이종봉이래는 사람이 환지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이 땅을, 내 여기 있던 땅을 주면, 이렇게 이렇게 주다 보면 잘 된 사람두 있구, 못 된 사람두 있구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가지구 저 사리 사는 사람이 이종봉이를 와

서 그냥 땅 다른 데 나쁜 데 줬다고 그냥 두드려 패가지구 많이 맞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 그 후에 경지정리를 이쪽 저 봉남리서부터 이렇게 저쪽 아래까지 전부 경지정리를 핼 적엔 내가 환지위원장을 핸다고, 왜 그랬냐면 환지위원장이 뚝심이 있구 좀 지랄같은 놈이 해야지 누가 맘대로 안 해지, 그렇지 않으면 또 종봉이꼴 나고 얻어맞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동네서 전부 나를 추천해서 내가 환지위원장을 해다보니까 나두 그때 내 땅은 외려 나쁜 데루 가구, 내가 좋은 데를 가져, 내가 환지해면서!

어르신은 여기서 태어나셔서 초등학교는 봉남리 다니셨겠네요?

그렇죠.

진위초등학교 몇 회세요?

그 42회. 왜냐면 연령대로 하니까, 제 나이 애들은 나보다 1~2년 먼저 댕겼어요. 왜냐면 나이가 호적으로 줄어있는 바람에 그랬지.

그럼 호적대로 가신 거예요?

호적대로 그전엔 저 입학통지서를 내보니까, 그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내 나이에 있던 사람들은 왜정 때 그 일본 선생 있을 적에 입학들을 했거든. 나는 그거 지나면서 내가 입학을 했으니까 나는... 내 나이하고 같은 사람들은 왜정 때 입학을 했다고요. 그래 내가 지금도 친구가 적지만 그전에두 친구두 적구, 나이도 줄어있구 그래서 늦게 들어갔어.

그때 여기 일본 사람들 혹시 살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때 많이 들어왔죠. 그때만 해두.

아 그때 어르신 아주 어렸을 땐데...

왜냐면 6·25 사변 이후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변 후로 피난민들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는 바람에, 6·25 사변 전만 해두 광주 이씨들이 많이 살었는데, 자꾸 떠나구 뭐 그러다보니까 광주 이씨들이 차차 없어지는 거지.

왜정 시대에 일본 사람들은 여기 안 살았어요?

이 동네는 살긴 사는 사람두 있지요. 여기 저 밑에 그 내 안 잊어버렸는데 그 하라무라라고...

하라무라...

하라무라라고 그 저 전철역 옆에, 거기 살던 사람 하나 기억이 나고, 그러고 요쪽 여 다쓰라고, 다쓰는 인저 그 후에 태어나, 다쓰 엄마가 일본 사람인데 여 와서, 여기서 살았어요 그 해방되고두.

다쓰는 애였어요?

그때 나보다 아랫니까 다쓰가. 지금은 죽구 없어. 그 어머니두 없구 그 저 다 옛날 사람들이

지 지금 인제 다.

해방됐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뭐 보셨던 거나 아니면....?

그때 저 해방될 때 기억나는 게, 이 1번 국도가 그전부터 있었거든 옛날부터. 그런데 해방됐다고 막 사람들이 태극기를 이렇게 흔들구 막 그러는데 일본놈들이 진짜 그때 말을 타구 죽~ 그냥 그 말을 타고 이리 내려가더라구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데...

일본 군인들이요? 주로?

일본 군인인지 뭔지 하여간 말 타고 가는 거, 순사인지 뭔지 말 타고 가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냥 거기다 돌멩이 집어던지고 그러는 거는 기억이 나요.

돌멩이 집어던지면 그냥 가만있어요? 아니면 욕을 하고 뭐 그랬나요?

말 타고 가는 사람 저 반응을 안해더라구... 그땐 해방된 거니까 막 저기해니까. 내 그거는 기억이 좀 나요.

어르신은 어떻게 반공연맹 가입하셨어요?

아니 인저 나는 그때 많이 돌어댕기구 그러니깐 여기 본토백이고 그러다보니깐 군청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그래 인제 그 사람들이 진위면엔 나를 시켜야 된다구 그 끌어들인 거지 그 사람들이. 그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죠.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반공연맹 내가 일찍 들어갔어요 내가... 한 70년도 정도에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럼 여기 아까 경지정리 할 무렵인가요?

예 다 그때죠. 그때쯤 반공연맹 들어갔지.... 그러면 인저 반공위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위면 내의 사람을 한 50명씩 반공위원을 뒀어요. 그래 교육두 시키구, 그래서 반공 교육을 또 옛날에 구리면으루 갔다고. 반공 교육을 그때 일주일씩 갔는데, 반공 교육이 뭐냐면, 맑스니 레닌이니 해가지구 그 공산주의 이론 사상을 배우는 거여.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끝내고 나오면은 반공 강사가 되는 거라구. 그래서 나도 거 가서, 그래 지금은 구리시가 됐지만 거기가 옛날엔 구리면이었다구. 면 당시에 그 저... 무슨 목사지, 외국에 저기 핸 유명한 목사 있지... 그 목사가 거기 저 공기총 맹그는 그 저기 저 공장을 가지고 있어, 큰 거를. 근데 공기총을 안 맨들고 비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허가를 맡고 반공연맹에서 반공 교육을, 전국에서 전국에서 오는 거니까 거기. 전국에, 반공 강사 교육을 전국에서 거기서 받았다구. 그래 나두 가서 그 저 교육을 받아가지구 반공 강사 자격증을 따구 그랬지.

그 강사는 몇 살까지 하셨어요?

강사라고 그래는 거는 뭐 그 직책이 별거 아닌 직책이지만, 그 반공연맹 그만둘 때까지 한 거지.

새마을운동 할 때 여기다가 물탱크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하실 때, 새마을 사업 다른 일은 뭐 하셨어요?

그전 동네 저기 뭐야, 마을 안 가꾸기라고 해서 동네 사람 전부 모집 해가지구...

마을 안길 가꾸기요?

어. 마을 안길 가꾸기도 그렇구, 그전에 국도두, 국도두 그땐 비가 오면 막 판지구 그럴 때니까 국도두 동네 사람들이 보수허구, 또 진위면에 들어가는 도로 같은 거, 그런 거 인제, 요 하북은 하북 관할 구역이 어디까지다 이렇게 정해가지구 거기까지만 허구, 그 이외에는 저쪽 사람이 허고 그런 거여.

그러면 하북 관할이 어디까지였어요?

하북 관할이 지금 저 홍원제지 정문 쪼끔 더 가서, 거기까지였어요 여기는. 그 나머지는 인저 견산리 구역이니까.

그때 길 포장은 안 한 거죠?

길 포장은 우리가 안 했죠... 길 포장은 전부 저 뭐야 정부에서 다 해줬지. 길 포장은 우리 개인이 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 농사지을 때, 농사를 시작한다 그러면 언제쯤 농사가 시작이 돼요?

그 지금은 못자리라고 그러는 건데. 봄에 인제, 그때 한 4월 정도에 시작을 해서 볍씨를 저 물에다 담궈가지고 소독을 해요. 소독을 해가지고 그거를 못자리다 거 판판하게 이렇게 저기 저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볍씨를 이렇게 골고루 뿌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뿌렸다가 인제 심을 때 되면은, 지금은 5월이 지나가기 전에 모를 거의 다 심어요. 그런데 그때는 6월달까지 심었거든 옛날에는. 기계로 심지 않고 사람이 심는 거기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6월달까지 심는데...

양력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양력으로 6월달이죠. 그리고 그 인저 모쟁이라고 모 찌는 거 이렇게 그걸 쪄서 이렇게 묶었다가 그것만 날러줘가지고 허는 사람 있고, 심는 사람 따로 있구 전부 그랬어요.

모심을 때는 뭐 이렇게 작업반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작업반이래는 건 거의 없는 거구, 품앗이라구 해가지구 내가 저 집이 가서 일해주면 그 집이서 다시 우리집으로 일 해러 오는 거지. 그래니까 그게...

마을 전체에서 하는 거는 없고요?

품앗이 허고 또 인저 그래도 사람이 모자를 적에는 사람을 사는 거지.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저 우리집 일해라 그러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사서 심어.

동네 사람을 사는 거예요 주로?

어. 다 동네 사람이지.

하루에 얼마 정도 했어요 그때... 일꾼 사면?

글쎄 난 지금은 얼만지 그거는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그때는 뭐 거의 쌀이나 보리쌀로 계산을 했거든 전부. 그래서 이 저 머슴을 살아도 쌀 7가마짜린지, 5가마짜린지 해가지구 그걸 허구. 그리고 밤에는 일꾼들은 거의 못 놀어요. 왜냐면 새끼를 꼰대든지, 일꾼들은 새끼를 꼰대든지 멍석을 만대든지, 이 멍석은 다 손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밤에는 낮에도 시간이 날 때는 전부 그런 일을 시키지.

모심고 나면 잡초 매야 되잖아요?

아 매는 거, 논 매는 거... 그 인저 보통 논을 세 번을 매요. 초벌이라고 그래서 초벌 매고, 초벌허고 두 번째 매는 거는 호미로다가 흙을 긁어서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여. 그리고 인저 세 번째는 그 저기 그냥 손으로만, 댕기매 이렇게 풀만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저 뽑어서 그 자리다 그냥, 풀 뽑어서 그 자리다 숙 집어놓고 그 자리다 집어놓고 그러면, 왜냐면 이제 그렇게 허면, 벼가 많이 자랐을 적에니까 벼 땜에 그 밑에서 별로 안자라거든. 그렇게 해는 거죠. 그 인제 매일 뭐 물꼬 보러댕기구 뭐 농사 지면은 밤중에도 물땜에 나가고, 바쁘죠 뭐 맨날.

논매기 할 때는 마을에 두레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아 놀죠. 농악, 농악... 이동네두 그 농악이 있어가지구 그 상쇠 잘 두들기는 사람이 있어요. 북허구 장구허구 다 이렇게 준비가, 다 있어요. 동네마다 그전엔 다 있어요.

징하고, 장구하고...?

징, 상쇠, 북, 장구 이런 것이 있구 인제 깃대를 만들어가지구 저기 깃대를 앞에다 들구 이렇게, 농사 저기서 뭐야 저 이 모심기 핸다든지 하면 모심기가 다 끝나고 그러면, 일찍 끝나고 그러면 그 한바탕씩 놀어요 그냥.

이거는 언제까지 했어요?

이게 농기구 나오기 시작핼 때부터 없어졌어요.

한 80년대 무렵까지 그러니까 한 거네요?

80년대까지는 그냥 한 거 같은데...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영신(여, 1952년생, 하북1리)

일시	2021년 9월 11일
장소	조영신씨가 운영하는 돈까스 가게
구술자	조영신씨는 하북1리 출신으로 송탄에서 '마로예술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이성재씨의 부인이다. 그녀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남편인 이성재씨의 삶의 과정과 철학을 엿볼 수 있다. 현재 평택시 독곡동 라이프아파트 상가에서 돈까스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면담자	장연환

죄송합니다만, 몇 년생이세요?

52년생이요.

이성재 선생님도 52년생인가요?

50년.

그 두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됐어요?

어... 군에 있을 때 제가 방송국에 음악을 신청했는데, 예전에는 주소를 다 불러줬잖아요? 그리고 그냥 예전에는 '하북리 이성재' 해도 다 들어오는,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랬더니 무슨 엽서 같은 오고 그래는데 인제 뭐, 더군다나 뭐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엽서도 보지도 않고 그냥, 아마 그냥 대문에 꽂혀 있는데, 친구가 '야 이사람 멋있는 거 같으다.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야 사람은 뭐 그렇게 사귀냐? 근본 없는 사람을...' 그랬더니, '그럼 내가 서울에서 가서 한 번 연락해보려?' 그래서 '해봐 맘대로 해라.' 그랬더니 친구를 먼저 만났는데, 인제 제가 조영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집에 찾아온 거예요.

아 방송국에 음악신청을 했는데...?

했는데, 그 주소를 가지고 나한테 엽서를 보내고 했는데, 나는 인제 사람을 그렇게 안 사귀니까. 인제 가치관도 보고 사귀어야. 하하하... 그랬는데 친구가 대문에 꽂힌걸 보고서는 '괜찮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 서울 가서 그러면은 연락해서 한 번 만나, 그래서 만났대요. 명동에선가 만났대요. 하하하... 그래서 '나는 조영신은 아니고 친구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찾아온 거예요. 집으로. 그런데 엄마가 다듬이질을 하셨대든가 뭐 이불 호창을 스치, 그걸 봤는데 엄마가 그렇게 맘에 들었대요. 하하하...

장남이세요?

예. 장남. 근데 위에로 누님들이 계세요. 이이가 아버님이 독자신데, 2대 독자신데, 어머니가 위로 딸만 넷을 낳으신 거예요. 계속 낳으시고 아들을 낳으면은 죽고, 막 걸어, 한참 걷고 이쁠

때 죽고. 또 죽고... 그런데 이이도 그렇게 약했대요 몸이. 그래가지고... 하북교회가 탄생한 얘기네요. 인제 그래가지고... 인제 이이가 그렇게 몸이 약해서 있는데, 예전 애들은 왜 막 그 장사하신 분들이 뭐 잘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그러면은 인제 시골에, 인제 우리집이 기와집이었거든요.

그 교회 앞에요?

교회 앞에. 지금도 그 집이지만, ‘그집에 가면 인제 먹고, 잘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장로님이셨을 거 같애. 그래니까 인제 어떤 전도사님인데, 경옥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대요. 근데 이렇게 보시고...

그 하북교회 전도사님이요?

아니요. 어느 지방에서 경옥고를 가지고 인제 동네마다 다니시는 분인데, ‘아이 쟤도 죽겠네’ 그러셨대요. 그니까 ‘이렇게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어떻게 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고 ‘그 죽는 걸 알면, 사는 거를 알겠네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야 된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우리 아버님이 그게 장점이신 거 같애요. 그길로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하북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이성재 선생님 인제 그 얘기 듣고...?

예. 그러고서는, 가곡리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장로교회가. 구가곡이라고 그래죠. 그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다녔는데... 참 재미있는 얘기 많네. 거기를 그냥 다니셨는데, 그 박마리아가 이기붕씨 부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이렇게 외할아버지가, 제가 나중에는 제가 모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가 그 저기 개성에 배참판님의 따님 배명섭이라고 그 저기셨어요.

개성의...?

배참판 댁 그 배 ‘명’자, ‘성’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뭐냐면 이승만 박사의 비서셨어요.

이분이 그러면 그 외할머니의...?

어머니, 우리 어머님의 어머니. 외할아버지의 부인이시지,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를 낳으시지는 않았어요. 재혼하신 케이스예요. 그러는데 그 분이 어... 이승만 박사의, 임영신 박사하고 같이 비서셨어요.

이분이요?... 외할머니가요?

예. 그래서 어... 그 인제, 그 연고로 해서 이기붕씨 부인이 우리집에도 와서 자고, 그리고 지금 교회가 가곡리에 있으니까 음... 하북에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니까 인제 빽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대에 가서 막 그전에 큰 천막, 이제 그거를 해줬대요. 박마리아가... 이기붕씨 부인이.

그 여기 미군부대에 있는?

예. 그래서 교회가 설립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요?

예. 현재 자리에서... 그랬는데, 그 장로교회가 그 밑에 좀 있었대요. 지금 그 은행나무 자리라고 그래는데, 어... 그...

아 그럼 사모님은 그 전에도 교회를...?

저는 가톨릭이었어요. 그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참 나빴어요. 예전에들 전도관, 내 친구가 전도관을 다니는데 막 울고, 박수 치고. 비이성적이다 근데 천주교는 가면 분위기가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주교를 다녔는데, 뭐 고해성사 하고 뭐, 뭐 그러는 게 너무나 이렇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안 나가고 있는데, 이 집은 장로님 댁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으로 시집을 와서. 인제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한테. '돈이 있어야 장로가 되느냐?', '신앙이 좋아야 되느냐?'. '인간....'

결혼은 그래서 몇 살에 하셨어요?

74년에 했으니까. 이이는 25. 저는 23. 그냥 우리나라 나이로... 일찍 했죠. 와가지고 막, 그렇게 부모님들이 내려오시고 막 그래니까. 또 조건도, 조건이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신혼집은 어디다 장만하셨어요?

그냥. 여태 그냥 그 집에서 50년, 지금 보니까 74년도에 결혼해가지고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학교를 연대 국문학과를 다니셨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렇게까지만 제가...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그 취업하신 게 아니고 또 대학원을 바로 가신 거예요?

예. 대학원을 경희대학교 뭐 경영학관가 뭔가, 집에 뭔가 패가 있긴 할텐데... 뭐 그랜 거 같애요. 아 원래 글 쓰고 싶어 했어요. 소설도 쓰구, 시도 쓰구...

그럴려고 인제 국문학과 가신 건데...?

예. 그래서 뭐 신춘문예 그런 거, 아우 내가 괜히... '그거 엄청 어려워! 하는 사람들 보면 맨날 떨어져. 그냥...' '사실은 뭐 시쓰고 과수원 한다고 그래서 시집을 왔지만, 그거 하지마.' 그랬더니 진짜 안 하는 거야. 하하하...

대학 다닐 때부터 신춘문예 응모하고 그러셨어요?

그런 거 준비 많이 했죠.

그리고 뭐 취업을 하셨나요?

취업이라는 건 한 번도 안 핸 거 같애요.

그럼 뭐 하셨어요?

과수원을 했으니까. 그냥 사업을 했어요. 무슨 신세계용역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하고. 기획력이 있어요. 뭐를 하면은 그 마로마켓 같은 것도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녜요. 그 전에도, 이런 거 하기 전에도 뭐 이우재씨 그런 분들 모셔다 연극도 하고, 워낙에 우리는 이쪽에 살아도 생활권은 수원이었어요. 그전에는 차로 뭐, 이웃이잖아요. 지금은 막혀서 뭐. 막혀서 못 가고 이쪽에 그런 문화 혜택이 없으니까 이이가 그거를 시작을 핸 거예요. 그때는 또 돈도 잘 벌었고. 어떻게 해서 그 건축이라는 건 상관이 없는 일인데, 과수원이 팔렸어요.

저 지금 물류센터 있는 데 과수원이요?

예. 그것도 인제 몇 번 가서 인제 거기가 된 거예요. 과수원이 팔렸는데, 인제 그 양도소득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기를 하면은, 그리고 지금 꽃동산, 새꽃동산 있는 자리들이 다 인제 우리 땅이었는데,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예전에는 다 인제 사람이 보증을 서고 막 했잖아요. 뭐 직장에 가든지, 뭐 돈 문제래든지. 더군다나 또 조합장님이시니까. 그래서 부채가 많았던 거 같애요. 아버님이... 그 장만은 할머니가 하신 건데, 그래서 할머니는 72년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구. 그래서 인제 그렇게 국민주택을 지으면은 그게 면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그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전체가 몇 평 정도가 되죠?

지금 거의다 아마... 꽃동산이 처음 시작했거든요. 꽃동산, 새동산, 새꽃동산.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우리 산이었던 거 같애요. 몇 평인지는 모르는데, 그때 새댁이니까 보니까 인제 할머니, 할아버지 그 묘를 인제 그렇게 써야 되니까, 해서 그냥 화장을 하시더라구. 화장을 하셔가지고 아마 어디 묘를 다시 쓰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막내 아들이 서울의대였고, 그때는 막 시신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고모부하고 아버님도 인제 아랫집 할아버지도 시신 기증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제 거기다가 꽃동산부터 지은 거죠.

그게 몇 년에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마... 81년이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인제 이성재 선생님은 그거 해가지고 좀 돈 좀 버셨나요?

그렇게 벌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때 인제 업자들이 우리 집이 인제 6.25 때 지은 집이니까 80년이면 벌써 30년이나 된 낡은 기와집 있잖아요. 그럼 이제 헐구 자재 값만 줘라. 여기 인부들이 인제 이렇게 노는 시간에 와서들... 아이 일을,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싫다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이이는 어려서부터 크리스찬이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인제 깔끔하게 거래는, 거래 관계에 줄 거와 받을 거를 분명하게 구분하셨나 봐요?

예. 그런 음악회 하는 것 같은 것두 무슨 정부 보조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았어. 왜 나오잖아요. 왜 무슨 그런 거. 그런 거 신청도 안 하고 자기가 대고 인제 도움을 청하죠. 있는 분들한테. 그래서 그분들이. 참 뭐 신부님도 막 삼십만 원씩 내고 그랬던 거 같애요. 많이...

그럼 당신 돈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요?

많이 들어가죠. 내가 '미쳤다.' 막 그래. 하하하... '마누라한테 그렇게 해봐라 성공...' 하하하...

아까 인제 돈을 많이 버셨다고 그랬었는데, 그 건축 일을 그 뒤로 계속 하신 건가요?

그 뒤로 계속 했죠. 예. 그 뒤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인제 지금, 지금은 이 회사 이름이 유라테크인가? 새꽃동산 넘어가는 데. 입구에... 그 회사에 옹벽을 쌓아줄 일이 있어요. 옹벽을 쌓아줄 일이 있는데, 인제 옹벽을 인제 쌓는데, 그다음 날 비가 엄청 온 거예요. 엄청...

콘크리트 쳤을 거 아녜요?... 콘크리트 치고 난 다음에 바로 온 거예요?

예. '야 이거 다 다 막 무너졌겠다.' 그러는데 너무나 이렇게. 그니까 그런 거를, 철근이나 이렇게 그 시멘트 농도, 그런 거를 인제 안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튼튼하죠. 그러니까 우관재 씨라고, 이 평택에서 아마 제일 부자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지나다가 본 거예요. '저거를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창진 휴게소로 이름이 바뀌었던데 삼일, 삼일....

거기 만세고개 3.1운동 기념관...?

맞은편에 그 휴게소 건물 질래면은 인제 산이니까 옹벽이 필요했는데, 이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 거기서요?

내가 건축비도 깎지 않고 이렇게 어음 3개월, 3개월이면 현찰이나 마찬가지래요. 해줄 테니까 잘 해줘라

근데 공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났나 봐요?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그니까 제대로, 눈 속임 안 하고...?

이이는 자기가 가서 한 번도 내가 '공사를 달라.', 뭐 어디가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본 적이 없어. 다 와서 '내가 공장을 여기다 이렇게 질 테니까 해달라.' 그렇게 해서 했지, 이이는 건축에 관심두, 그거는 우리 집 생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인제 그 꽃동산 그런 건 핸 거지. 그랬는데 그런 거는...

인제 계속 건축을 하시다가, IMF 직전에 거기 공장을 지은 거는 남의 공사를 해준 게 아니고, 그

거를 인제 직접 거기서 건축자재 생산...?

예. 빠레트라고 인제 그런 거. 그거를 인제 프랑스에서 원료 수입해다가, 그래서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IMF가 와서 그러니까요. 나는 이이가 그때 안 죽은 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유산 물려받은 것도 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집 그런 거죠. 집하고, 그 땅하고... 그 욕심이 없어요. 그니까 이이가 다 예전에들은 군청 들어가면 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안 해요. 알아도 안 해요. ‘내가 빵이나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사야 될 때 비싸게 사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인제 친정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우리도 노후 대책을 해야지.’ 그랬더니 ‘내일은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인제 꽃동산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IMF 직전까지 토목 건축을 하시면서...?

그렇게 건축을 하구, 이렇게 건축해 준 사람들두 돈 속썩이고 그런 일이 없어요. 누구랑 다투고, 돈 때문에 다투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럼 오로지 IMF 때...?

예. 그 IMF 때, 그 지은 공장을 10억에 팔으라고 그랬는데, 나는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내가 이걸 해서 이익을 냉기, 내가 공장을 하려고 산 거지 팔고 그러려고, 근데, 직전에 그렇게 했는데, 3억에 넘어갔어요. 경매로. 빚이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빚이 그냥. 경매로 다 재산은 없어졌는데, 빚만 그냥... 그게 그런 일도 있어... 진짜 이 IMF가...

그 빚이 총 어느 정도 되었어요?

그... 우리가 그때 60만 불인가 하면은 4억 얼마였대요. 몇백 원일 때, 달러 몇백 원일 때였다가 막 거의 2천 원 갔으니까. 그러니까 다 경매 들어왔죠. 다 경매 들어와서, 다 경매 들어왔어다...

그런데 이성재 선생님이 사업하실 때, 사업만 하시지 않고, 그 뒤에 인제 하신 걸 보면 또 다른 것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른 건 그냥 뭐 저기...

시는 안 쓰셨어요?

아 썼죠. 조금씩 조금씩 썼죠. 시는 쓰고 그리고 인제 그런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해는 거죠. 이게 봄, 가을로 하니까 그것도...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면서 문화 사업을 같이 하신거네요?

예. 그리고 수원으로 차가 밀려서 못 가는 저기니까, 그리고 자기가 여기 문예회관을 지었는데, 민방위 훈련장으로 써가지구 너무 막 충격을 받았대요.

아 북부문예회관이 잘 지어져 있는데?

예. 쓰임새가 그렇게 민방위 훈련을 하다니 그래가지구 인제 자기는 그래도 서울에서 공부하고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구 다양한 분들을 모셔왔죠 그 정악이라고, 그 궁중 음악 그런 분들도 왔었어요. 그리고 최현수씨도 왔었구.

그럼 그전에 수원에서 그렇게 활동하시게 된 계기는 뭔가요?

다 같이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 문학, 미술, 음악, 그런 분들이... 와이하우스라는 데가 있었어요.

와이하우스요?

예. 와이하우스라고 목사님이 저기 돌아가셨는데 백도기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크리스찬 문학 소설가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레스토랑을 하면서 주일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와이하우스에서요?

그리고 백도기 목사님 아버님도 인제 독립운동하신 분이고 아마 순교자실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장 권사님이라고 장금진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그분이 직접 운영해 왔기 때문에, 거기 그러니까 박석수 그런 분들도 거기서 다 만난 거예요.

박석수, 이분도 여기서 인제 만나고?

예. 살았을 때 별로 친하지도 않았대요. 하하하... 아 나 저, 그분 때문에 이이가... 병이 있었겠지?,,, 우리가 몰랐지? 본인도 몰랐겠지? 근데 그 박석수 그거 저기 모임 회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성재 선생님을요?

예. 그런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이는 뭐든지 자비(自費)로 했잖아요. 근데 인제 뭐 이렇게 시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총무하고 아마... 그래서 내가 '여보 제발 그것 좀 하지 마' 그랬더니, 응, '묘만 옮겨놓을 때까지 내가 해야 돼'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 박석수 선생님의 묘를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용인 무슨 공동묘지 그런 게 있나 봐요.

용인의 공동묘지에서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인제 옮겼는지 여기 초록도서관 어디 저기로 옮겼대나... 저는 아주 그거 진짜 싫어가지구. 너무 신경을 쓰구 그래가지구... 이상권 교수 아세요? 그분도 잘 알 텐데... 그리고 회장, 지금 회장이 정철학원 원장님이 회장이실 걸요.

그러면 이성재 선생님이 그 기념사업회 초대회장 하셨겠네요?

예. 그렇죠.

몇 년 하셨어요?

한 2년을 했을 것 같은데요. 더 했을까? 시작부터 했으니까?

그게 아까 잠깐 말씀은 하셨는데, 조금 말씀하셨는데 그 스트레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의견이 안 맞어. 이이가 얘기하는 게. 이이는 언제나 자비로 하고 해는데, 뭐 시에다가 뭐를 해야 되고 뭐 그래는 거를...

자꾸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고? 시에?

그러고, 하여튼간 뭐가 다 안 맞어. 다 안 맞었어. 그래가지고 전화하는 거 들어보면은... ‘아 저거를 해? 여보 제발 좀 하지 마’ 그래...

또 수원에서는 그러면 아까 와이하우스를 다니고, 그쪽에서 중심으로 움직이고. 뭐 다른 문화 활동은 안 하셨어요?

그쪽에서는 뭐 안 했죠. 결혼하고도 막 거기 맨날 가더라구.

이 마로 음악회는 언제 처음 했어요?

그것도 어디 자료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어떤...?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궁중음악, 정악 그런 팀들도 모셔왔구, 최은수 씨도 왔었구, 강화자 선생님 뭐 저기 실내 음악 그런 거....

이 마로 음악회는 주로 북부 문화관에서 했나요?

거기서만 했죠. 계속.

그러면 마로 음악회가 시작된 게 ‘문예회관에서 민방위 교육이나 하고 그래야 되겠냐.’ 이런 어떤 불만, 일종의 불만 같은 거에서 좀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네요?... 제 역할을 좀 하게끔?

예. 문예회관인데, 이름이 문예회관인데...

IMF 이후에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그래서 막 술 먹고 다니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날은 보니까는 인제 소주를 다섯 병을, 인제 집에 어르신들 계시니까 안채, 아래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래채에 애들하고 있다가 안채에 가보니까는, 어머니는 인제 아들이 술 먹고 그러니까 작은 아들네로 가셨으니까, 막 소주 병만 다섯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밤새 소주만 먹는 거지.

그러면 마로 축제는 그다음에는 인제 못 하...?

못했쪼.

IMF 되고 난 다음부터?

예. 돈도 없구 또 누가 나서서 그렇게, 그 연날리기 장인두요 의성에서 우리가 가서 얘기하고 인제 와주셨던 거예요...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보통 인제 개인적 취향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지역에 대한 의무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인제 그런 걸 하게 되면?

자기가 벌었으니까 쓴대는 거죠.

사모님께서 또 물어보셨을까요? "당신 왜 그런 힘들고 어려운데 사업이나 계속하지"...?

아 그런 걸 좋아해요. 내가 이이가 인제 2018년도에 병이 났다고 그러고 2019년 한 1년 만에 인제 갔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병원으로 와요. 내가 어려운데 병간호 할 때는 돈 걱정 안 하고 있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막 두 번 세 번 와요. 그래서 돈을 다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이이 아플 때는 진짜 돈 걱정 안 하고 제가 간혹만 했는데, 사람을, 그 지금 인제 백동규 목사님 사모님이 인제 무슨 어려움을 당하신 일이 있는데, 이이 성격이 그래요. 오셔가지고 그래 '나는 일생을 이성재 씨 같은 사람은 본 일이 없다.'고. 그래서 야 진짜 사람을 진심으로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뭐 관계여서 뭐 너와 내가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다 그 사랑을 받고 간 거나 마찬가지죠.

돈을 잘 버셨다고 인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인제 얼마큼 잘 버셨는지를 몰라서...?

그게 나도 그거는 얼마큼 잘 버는지는 모르는데, '아 이 돈을 다 엇다 쌓고 살지? 해마다 이렇게...', 공장을 1년에 한 두 개씩 하면은 그래도 뭐 2~30%는 남잖아요. 그니까 그 공장 규모들이 크니까, 그래서 '이 돈을 다 엇다 쌓고 살지' 그랬더니 IMF가 딱 오더라구.

그러면 거의 문화 사업하실 때 마로 축제 할 때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들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것도...?

그런 인맥도 있고

인맥도 되고...

돈도 되고... 그분들이 깜짝 놀래요. 시골에서 이런 분이 어디 있냐고.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후원받아갖고는 그 돈이 안 나올 거 아녜요?

안 나오죠. 보통 뭐 2~30만 원, 뭐 50만 원, 100만 원 아마 그렇게. 아마 그것도 어디 장부가 다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다 명단을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 돈도...

그러면 그때 공연 오신 분들 혹시 공연료로 얼마, 1인당 얼마 지불하고 그런 거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거는 없고 자발적으로 돈을 내세요. 그러면 그 돈을, 거기에 써 있어요. 무슨 한 몇 개 돼요. 이쪽에 사회복지시설이. 거기에다가 기름을 사줬어요. 그때는. 현찰로 주지 않고 현물로 기름을 다 인제 석유 보일러 이렇게 때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핸 거 같애요.

문화 사업하는데 이렇게 쓴다거나 봉사하는데 그 쓰지 않았으면 IMF 때도 뭐 거뜬히 견딜 수 있는 건 됐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IMF는 못 막았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돈이 없는 거긴 하네. 그래 그거는 누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핼 수가 없었을 거야.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자도 달러로 내야 되고 원금도 달러로 갚아야 되고... 근데 그때는 이미 몇 달 이자만 안 내니까 다 경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었어요.

이성재 선생님은 그다음에, IMF에 그때 인제 그렇게 또 속상하니까 인제 술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술 안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집은 교회 다니니까. 제사를 안 지내니까. 뭐 추도식이라고 해서 그냥 음식 해놓고 그냥 식구들 먹는 거지 뭐 제사 지내고 술 먹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술을 안 먹고 안 좋아했어요. 술 먹는 거 자체를 안 좋아하고 이전에도 인제 건축 그런 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누구를 접대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참 좋다는 거예요. 뭐 대개들 가서 뭐 남자들끼리만 만나서 술집에, 비싼 데 가서 그러잖아요. 이이는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집에 가서 뭐 연탄 보일러면은 석유 보일러로 바꿔준대든지, 뭐 그냥 창이면은 샤시 창으로 바꿔, 그러니까 막 그 사모님들이 늦게까지도 전화해 주고 막 카드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그게 누구를 이렇게 뇌물을 줘야 될 일이... 뇌물이지 그러니까 뭐 서로 도움을 주고 받, 내가 시청에 들어갔는데 뭐 일을 수월하게 해줬으면, 뭐를 답례를 해주면 뇌물은 물...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그 집 가족들하고 애들 데리고 스키장을 한번 데려간대든지 그런 식으로 답례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인제 건전하게 사신 분들이 좀 의지가 굳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인제 사모님한테 이성재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보면 IMF 때도 이렇게 잘 극복하실 정도의 어떤 인생철학이나 의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애요. 그래가지고 당뇨 아버님이 당뇨로 발을 자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이도 보니까 당뇨였는데, 그렇게 술을 먹고, 그냥 술을 안 먹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형 한 잔 해’ 그러잖아요. 다 지나가면. 그거 그렇게 그걸 한 잔 먹는다고 이렇게 나더러 먼저 가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술 좋아도 안 하는데. 그래서 이이는 나중에는 술을 안 먹었어요. 담배는 피웠어도... 그랬는데...

마음만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일을 기획하는 능력도...?

기획 능력이 뛰어나요. 아까운 인재예요. 기획을 잘해. 이렇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 그니까 ‘아 이거 이 일은 이렇게 해서 누가 적임자고 해서 이거를...’ 그래서 일을 잘해요. 돈만 못 모았지. 돈도 잘 벌었죠. 돈이 그냥 막 들어왔던 것 같애.

그러면서도 이렇게 시도 계속 쓰셨던 거예요.

예. 타고난 거 같애요. 이렇게 뭐를 보면은 그렇게 시상이 떠오르는지 그렇게 해.

지금도 집은 거기 그대로 남아 있나요?

예.

그게 그럼 6·25 때 졌다고...?

진 거는 6·25 지나고 짓고, 여기가 6·25 격전지였기 때문에, 뭐 남아나는 게, 그니까 무슨 골동품 이런 건 없는 거 같애요. 다 두고 막 피난 가고 막 그러셔갖구.

오늘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한승권(남, 1961년생, 하북1리)

일시	2021년 10월 30일
장소	용문이발관
구술자	한승권씨는 13세부터 이발관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익혀 자신이 일했던 이발관을 인수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의 삶은 1970년대 이후 하북리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변화와 더불어 이루어졌다. 특히 어리거나 젊은 시절의 기억이 또렷하여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면담자	장연환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원 고향 가곡리... 가곡1리

그러면 가곡리에서 태어나셔 가지고 초등학교는 진위?

초중학교 나오고 6학년 졸업하고 바로 73년도, 73년도 11월 25일 날... 했죠. 배우기 시작했죠. 아버님이 원래 이걸 하셨었어요. 하시다가 아버님이 대를 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그때 인제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배우기 시작한 거죠. 아 그래가지고 칠십삼 년도 2월달에 내 졸업을 하고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게 벌써 한 47년, 50년 가까이 되죠.

오래 하셨네요. 근데 인제 이런 말씀 여쭤보면 죄송하지만, 또 부모님들은 옛날에 이렇게 자식이 교육받기를 바라고 뭐 그랬었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원래 이북이 고향이신데 고지식해가지고 누가 자식이 하나가, 제가 오영제였었어요. 근데 내가 꼭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배우기 시작핸거요.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배우기 시작했죠.

아버님이 이북이 고향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함흥.

함흥에서 6.25 때 일로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요. 6 · 25 전에 농업고등학교 거기서 졸업하시고, 열여덟 살 때 할아버지가 그때 당시 의용군으로, 북한에서 군인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월남을 시키셨대요. 저희 아버님이 열여덟 살 때.

근데 인제 보통 그렇게 월남하시면 이렇게 큰 도시로 가고 그러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로 안 가시고, 이쪽 그때만 해도 굉장히 시골이었을 텐데 이쪽으로 오셨어요?

아 엄청 시골이었어. 근데 아버님이 월남하셨을 때 할아버지가 북한에서도 좀 부유하게 사셨대요. 과수원 뭐 농장도 하시고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소를 팔아가지고, 그때 돈... 한 4~5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었나 봐요. 근데 서울에서 사기꾼을 만나셨어요. 만나셔 가지구, 뭐 사업에 투자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투자하셔가지고 거의 망해, 돈을 다 저기 해셨대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돼서 6·25가 터지구, 군대 가셨다가 군대생활 8년인가? 상사로 제대하셨어요.

그럼 여기 미군 부대에 있는 거 이런 거 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죠. 그건 아니었었구...

아버님은 그러면 인제 군대 제대하고 그때부터 이발소를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요. 다른 데 인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30대 후반 후반쯤에 배우기 시작하셨었나 봐요.

그때 그러면 이발소는 어디다 내셨어요?

아 이발소를 내신 게 아니고, 그냥 남의 종업원으로만 다니시다가...

그러면 사장님은 사장님 아버님은 한 번도 당신 이발관을 가져보신 거는 없고요?

면허증이 없으셨어 그때 당시도. 그래가지고 못 하시구 그냥 나머지 저기만 하셨죠.

그러면 아무래도 종업원으로만 했으면 그 당시 종업원의 보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아 안 좋았죠. 제가 기술 배울 때는, 기술 배울 데도 별로 없었지만, 이런 데는 거의 없었어요. 산업화가 안 돼 있어서 공장 같은 게 없으니까, 기술 배울 데가 없었어요. 서울 같은 데나 가면 어떻게 모를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수도 없었어요 기술 배울 땐...

심부름하고...?

예. 머리 감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가 여기예요?

저 앞에... 길 건너... 이 맞은편 쪽에...24시, 그 자리가 옛날에 협동이발관이라구, 농협에서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협동이발관이요?

예 예. 조합에서 시작하다가, 전 사장님한테, 인제 민간인한테 넘긴 거죠. 조합에서. 그래 내가 그분 밑에서 계속 있다가 제가 인제, 그 사장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저한테 인제 물려주고, 그분은 인제 지금은 쉬시고.

그러면 사장님은 원래 그 자리에서 이발관을 내신 거네요? 그러니까 인수 받으신 거네요?

여기 와서 받았죠. 이게, 이 건물이 82년도에 이쪽으로 이발소가, 인제 그쪽에 있다가 82년도에 이사왔어요.

82년도에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 기술 배울 때는, 그 때 이발 요금이 예 저 기술 배울 때는…

그때 국민학교 막 졸업하고요?

예. 대인이 120원, 아동이 60원 했을 때에요.

그러니까 74년에 졸업을 했는데 73년부터 다니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먹고 자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출퇴근 하신 거예요?

집에서, 가곡리에서…

그러면 여기 몇 시에 도착하셨어요?

7시까진 왔죠.

아침 7시요?

예. 그때 당시 직원들 출근해기 전에 와서, 그때는 조개탄이지, 조개탄으로 인제 날로 피워놓구. 그래야 됐으니까 안 그러면 기술자들한테 막, 막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발소에는 그 기술자들이 몇 분이나 근무하셨어요?

그때 당시 한 네 분 계셨어요. 옛날에 손님이 원래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실제로 이발을 하신 분은 사장님하고 기사분 한 분하고 두 분이 하시고…?

예 예. 그다음에 면도 하시는 분 따로 있었구… 저는 이게 머리 감겨주구, 시다 생활했죠.

머리 감겨주는 것부터 생활하셨어요?

예 예. 그때는 이런 수도도 없었어요. 저 마을 회관이 있는 데, 거기 펌프에서, 아니 펌프가 아니라 옛날 물이요, 두레박 우물, 거기서 물 길어다가 지게로 날러다 썼어요.

물지게로요?

예 에.

그 물 있는 일은 그럼 다 하셨겠네요?

그다음에 인제 나중에 인제 펌프를 박아서 펌프가 있어가지구….

펌프는 언제 박았어요?

저 들어오구 한 1년 뒤에 정도 펌프가 있었어요.

그 뒤로는 많이 편하셨겠어요?

많이 편했죠. 그때는 바케스로 그냥 펌프질 해가지구 바케스에다 그냥 갖다 물통에다 붓기만 했으면 됐으니까.

그때 인제 물 떠다주고 그 머리 감겨주고, 그런 일을 하시다가... 그럼 인제 그 배우는 건 어떻게 배워요? 머리 깎는 거 배우는 거는?

가르쳐주질 않아요 기사분들이. 옆에서 그냥 내가 배워야 돼. 머리 감으면, 한 육 개월 정도를 머리 감으면, 육 개월 뒤에는 인제 칼 가는 걸 가르쳐줘요. 면도칼 가는 걸 가르켜주구, 그 다음에 인제 칼을 좀 어느 정도 갈 줄 알면 면도를 가르켜줘요. 그 다음에 인제 면도가 조금, 면도만 한 1년 이상 좀 해면 좀 약간 익숙해지면 인제 시야기라구 드라이 하는 거를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그럼 바리깡은 얼마 만에 잡으셨어요?

바리깡... 한 3년...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도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실습하기는 좋았겠네요?

아우 여기 학교가 있어가지구 실습하기는 진짜 좋았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집에서 인제 여기 출퇴근해가지고 일하는데 보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1년간은 보수 없었어요.

1년간 보수 없고?

예. 그다음 해부터 한 달에 2,500원씩 받았어요.

그때 2,500원이면 어느 정도 돈이었어요?

보리쌀 1가마니 샀죠... 그때 소주 큰 거 한 병..

대병짜리요?

예. 대평짜리. 그게 250원이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아버님이 원래 술을 좋아하셔서 제 봉급 타면 꼭 그걸 한 병을 사가지구 갔었거든요.

그때는 참 돈 100원도 쓸 만했죠?

아우 엄청 쓸만했죠. 그때 라면땅 하나 10원... 눈깔 사탕 같은 거 10원 주면 다섯 개씩 줬어요. 눈깔 사탕을.

그럼 인제 월급 타면 어렸을 때는, 그때 어렸을 때잖아요... 월급 타면 그거 뭐 어떻게 써요? 지금처럼 은행에 이렇게 저금하는 건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거 몰랐죠. 원래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니까, 다 부모님 갖다 드렸죠.

몇 년 있다가 인수를 하시게 된 거예요?

어... 82년... 한 16년 만인가...

여기 그 당시 영업은 어땠어요? 이쪽으로 이사 올 무렵에? 82년도에...

그땐 영업은 이근처는 진짜 잘 됐어요.

여기가요?

예. 항상 손님이 뭐 줄서있을 정도였으니까.

여기가 인제 머리 감는 장소였나요?

아 저쪽 뒤에는 머리 감는 장소구.

저 뒤쪽으로요?

예 예. 제가 79년도에 면허증을 땄어요. 면허가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9년도에 면허를 따가지구 그냥 여기서 계속 하다가... 79년도, 79년도 10월 26일 날 서울 신당동 한양공업고등학교에서 시험을, 학과시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구 나는 서울을 한 번은 안 가봤기 때문에 하루 전날 저녁에 올라갔었어요. 신당동을. 그래서 서울 신당동에서 인제 한양공업고등학교 앞에 여인숙에서 하루 자구, 그 다음 날 인제 26일 날 한양공업고등학교를 갔더니 그날이 박정희 대통령님 시해 사건날이었었어요... 79년도 10월 26일 날. 그 나 지금도 그 날짜를 안 잊어버리는데, 갔더니 크게 프랭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기 박정희 대통령님 저기 서거하셨다구. 그래가지구 시험이 연기돼가지구 또 다시 내려왔다가...

아 그것 때문에 필기시험이 연기된 거예요?

예. 연기돼가지구 인제 11월인가? 종로, 아 내 고등학교 이름 잊어버렸어요. 종로에 가서 학과, 인제 수험번호 잊어먹지두 않어, 내가 3125번, 3125번이었었는데 거기서 학과시험을 보고, 인제 학과시험이 붙어가지구 실기시험은 저기 남산동 정화고등기술학교라구 있어요... 정화고등기술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구... 그래서 합격을 했죠.

그러면 그전에, 그러니까 73년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발을 완전히 할 수 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큼 걸렸어요.

6년 뒤에 내가 가위를 잡았으니까, 한 7년 돼서 완전히 거의 배웠죠.

6년째 됐을 때 가위를 잡고, 인제 한 1년 더 해서 인제 완전히...?

예.

그 당시에 여기 이발소는 여기 하나밖에 없었나 봐요?

3개가 있었어요. 여기에.

어디 어디 있었어요?

저쪽 뒤에 이장님 댁 있는데, 그 뒤쪽에 하나 있었구, 파출소 앞에도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종업원으로 인제 완전히 자격증 따고 기술자가 돼서 종업원이 되면 보수는 어떻게 돼요?

보수 좀 낫죠.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7만 몇천 원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80년 이 무렵이죠?

예 예.

이 7만 몇천 원이 어느 정도 돈인지 잘 몰라서...?

아 그땐 그 정도면 괜찮았던 거예요... 보수,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는 나았었으니까.

그때 이런 데, 홍원제지나 매인유업 다니는 사람은 얼마 정도 받았어요? 그 무렵에?

80년도... 걔네들 야간해고 뭐 다 해야 돈 십만 원에서 십만 원 조금 넘었었을 거예요.

옛날에 여기는 그 이발하러 온 사람들은 이 진위면 전체에서 다 왔나요?

봉남리는 하나 있었구, 저 은산리도 있었구...

그러면 그때... 여기 이발소 3개 있을 때요... 3개 있을 때 하루에 손님이 몇 명 정도가 왔어요?

아 그때 당시는 뭐 평균적으로 한 3~40명 이상 수가...

하루 평균?

예. 평균. 뭐 주말 같은 데 보통 한 4~50명... 여 회사가 좀 생기는 바람에 주말에는 손님이 많았었어요.

그때는 여기 홍원제지나 매일유업 종업원들이 이 주변에 많이 살았나요?

많이 살았죠. 거의 이 동네 거의 홍원제지나 매일유업 다니시는 분들, 저쪽 야쿠르트 다니시는 분들 다 이쪽에서 많이 살었어요.

그때는 여기 세는 얼마나 했어요?

세는 90년대쯤에는... 한 이삼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90년대요? 그 전에는? 이게 홍원재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게 72년돈가 그때 생겼을 거예요. 나 기술 배우러 다닐 때 막 한참 터 닦고 막 그랬으니까. 막 짓구 그랬으니까.

아 73년, 요 무렵에요?

72년도, 71년도 말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여기 시골에서 저런 큰 건물 지으니까 좀 놀라웠죠?

엄청 다 좋아했죠. 진위면 분들... 그 여기 분들이 거의 여기 많이 들어갔어요. 홍원제지...

그래서 좋아하는 게 뭐 인제 취업할 수 있다고 좋아했나요?

그럼요. 그때 당시만 해도 벌어먹을 데가 없으니깐. 어디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들어가면 그만 해도 큰 돈 번다고 생각해고 그랬으니까. 엄청 좋았드랬죠. 지금은 인제 애물단지지만...

지금은 왜 애물단지예요?

발전이 안 되잖아요.

저 홍원제지가 있어서요?

주거 단지래두 들어와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 같은 게. 그런 게 안 들어오니까, 여기 젊은 분들이 없어요 동네에. 아파트 분양 받아가지구 다 결혼해면 무조건 다 이사 나갔으니까. 그렇게 된 지가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돼가요 여기. 젊은 사람이 없어.

인제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이 동네에...?

거의 없어요... 외국인 애들만 좀 있지, 동네 어린 애들이 없어요. 아예... 옛날 이 골목에, 10년, 한 15년 전만 해두 애들이 바글바글했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근데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 동네에서 인제 위탁 부모가 키우는 애들 둘하구, 한 셋, 넷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용문이발관 들어가는 길)가 옛날에 이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 큰 길이었죠?

아 큰 길이었죠. 엄청 큰 길이었죠. 이 길이...

동네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이쪽 지금 이 앞으로 해서, 이 길 타고 이렇게 죽 들어가나요?

예. 이 길 타고 인제 가곡리 쪽으로 들어가구, 저 롯데(제과) 있는데 그쪽으로두 가구, 그런 길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큰 길이었었죠.

그러면 옛날에 여기 뭐 사람들이 그냥 항시로...?

항상 바글바글했죠. 이 길이.

그럼 이 골목에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도 많았겠네요?

그렇죠. 꽤 다 식당 뭐 저기 주점 같은 거 다 이 길에 있었어요.

그때도 이 지금 2차선 도로, 4차선 도로 이 앞에 길은 있었죠? 이 앞에도?

아 그럼요. 이게 이 길이 옛날, 옛날 길이에요... 면사무소 들어가는 길.

저기, 저 농협 앞길은요?
그건 나중에,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때 어리셨을 때, 여기 처음에 인제 기술 배우기 시작했을 때, 요 길은 넓이가 얼마나 됐어요.
그때 당시 좁았죠 그렇게... 지금에서 넓어진 거지 그때는 버스 한 대, 합승이라고 그래지 옛날에 합승, 고거 한 대 갠신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인제 2차선으로 그다음에 바뀐 거예요?
2차선으로 바뀐 지두... 그렇죠... 그때 여기 나 기술 배우러 다닐 때만 해도 포장도 안 돼 있었어요. 다 흙길이었어요.

포장은 언제쯤 됐어요?
70년도 후반에 됐을 거예요.

그때 홍원제지 생기고, 생기자마자 막 여기 인제 종업원으로 다니셨잖아요. 그때 여기 가게 같은 것들이 인제 홍원제도 생기고 막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나요?
그렇죠. 그래면서 상가도 생기구 막 그래가지구, 장사 잘 됐어요 이 동네.

그게 인제 홍원제지 때문에 그런 거죠?
아 그럼요. 홍원제지. 매일유업, 야쿠르트... 여기, 이리 다 모였으니까. 하북 쪽으루.

아 하북이요. 지금 이발소 요 앞에 이쪽으로요?
예 예. 이쪽으로 다, 거의 다들. 술들 다들 여기서 먹구 버스 타고들 다니구 그랬었으니까.

그때는 막 시끌시끌했겠어요?
아유 저녁이면 버글버글했어요.

가게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었나요?
지금보다 많았다고 봐야죠... 지금 저쪽, 길 건너 쪽으로 다 헐려버렸으니까.

어디 쪽으로요? 아 저 진위역 있는 쪽으로요?
여기 여기 농협 있는 쪽으로.

그럼 그 가게들은 헐리고 이 동네에서 다시 영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외지로...?
다들 외지로 나갔죠.

그 상권이 언제부터 그렇게 죽었어요.
아 그렇게 상권 죽은 지가... 길... 4차선 나가구서부터 아마 그걸, 그런 거 같애요. 그리고 지

금들은 또 다들 자가운전을 해가지구 셔틀버스를 안 타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 젊은 분들이 없으니까, 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다.

그때 상권 좋을 때는 몇 명씩 왔어요? 하루에?
최소한 뭐 한 3~40명.

그러면 요새는 하루에 몇 명 정도 와요?
하루에 한 10명 정도는...

이발료도 옛날하고는 인제 많이 차이가 좀 나죠?
나죠. 지금은 1만 3천 원이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유지가 쉽지 않으시겠는데...?
아우 그럼요... 90년도.. 그래도 내가 이거 98년도 인수핼 때쯤이면, 그때 2,500원 받았었어요... 근데두 아주 괜찮았었어요. 그때만 해두 뭐 물가금 싸구 모든 게 그 정도만 받았어도 손님이 그때는 많았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때도 있었겠어요.
그때는 그래두 괜찮았었어요. 나 인수 받구 나서... 그런데 인제 문화 바뀌면서 미용실로 다니면서 2000년도 초부터 그랬을 거야 아마.

미용실로 먼저 가기 시작한 것은 학생들부터 갔나요?
예. 학생들부터 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인제...

지금은 여기 근처에 이발소 몇 개예요? 이 뒤에도 하나 있던데?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사시기는 어디 사세요?
송탄이요.

그리고 인제 지금도 아침 7시에 오셔가지고...?
아침에 뭐 거기서 보통 6시에 오니까, 어떤 땐 7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좀 일찍 끝나요. 6시에 끝나요.

여기를 몇 살 때까지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손 떨릴 때까지 해겠죠. 저희 친구들 지금 정년 퇴직해구, 명퇴해가지구 집에서 노는 애들 많

아요. 근데 그냥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해고 그랬는데도 우리 친구들 만나보면 부인, 안 식구들한테 구박받고 사는 애들이 많은 것 같더라구. 하하하...

인제 여기 내 공간 하나 이렇게 갖고... 그래도 여기 고향인데 친구분들 오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자주 오죠. 근데 요즘 코로나 땜에 거의 못 만나죠. 지금 못 만난 지 한참 됐어요.

여기서 장기나 바둑 같은 거 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일 끝나고 인제 저녁에 찌개 같은 거 하나 시켜서 여기서 신문지 깔구 버너 놓고 소주도 한 잔씩 하고 그래요. 요즘도... 그걸 못해서 저기해요. 코로나 땜에...

코로나 끝나면 또 인제 친구분들이랑 그런 장소로 사용되겠네요? 여기가?
그렇죠.

워 친구분들 중에 중심 인물이 되셨네요.
마실방이에요 여기. 하하. 오다가다 꼭 다들 들리고 그러니까.

오늘 감사합니다.

권병덕(남, 1948년생, 하북2리)

일시	2021년 8월 15일
장소	하북2리 마을회관 앞 정자
구술자	권병덕씨는 현재 하북2리 노인회장을 맡고 있으며 중학교 때 서울로 전학하여 회사원 생활을 했으나 40대에 다시 고향에 돌아와 정착하였다. 이후 대량으로 시설재배를 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하우스 짓는 일을 하고 있다.
면담자	장연환

그럼 여기서 몇 대 살아오신 거예요?

음.... 여기 스물두 살 때까지 살고 나가서 한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서탄초등학교 다니셨겠네요?

진위, 진위 3학년까지 다니고, 3학년 2학기 때 서탄으로 왔어.

서탄 몇 회 졸업생이세요?

지가 28회 졸업이에요.

진위 초등학교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요?

시간이... 걸어가는 데 그때 한 40분 얼추 1시간을 잡은 거야 예산으로. 근데 너무 인제 초등학교 때니까 그때만 해도 학교 가기 싫으면은 놀다가 그래가지고 빠질 확률이 되게 많았어요.

어디 가서 노셨어요.

저거 옛날에 수수깡 이렇게 해놓은 거, 베어놓으면 그 속에서 도시락도 까먹고, 삐래기도 뽑아 먹고, 이렇게 인제 했는데 너무 인저 그런 세월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요놈들 안 되겠다 싶어서 서탄으로 옮겨준 거야. 3학년 2학기 때 갔어요 제가.

저희 또래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만 논 게 아니고 여기 냇갈이 있으니까 냇가에서도 놀고 그랬겠네요?

냇갈에서는 뭐야 물고기 저 송사리, 그런 거 좀 잡아서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런 세월이, 조개비 조그마한 것도 그 모닥불에 구워 먹고 그런 기억이 나요.

재첩 종류인가요?

재첩 종류보다 커, 이 부단 여기서는 부단 조개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커요. 그걸 인제 구워 먹고, 그 까만 조개, 말조개라고 그러지. 그것도 많았고. 그래서 뭐 먹고 먹을 거는 자기만 꼼지락해면은 그때 구워먹을 거는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인제 하다 보니까 3학년까지 갔는데, 인제 3학년 때 인제 철이 조금씩 들은 거야.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뭐 그게 아니고 뭐 새치기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매도 많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저 이래면 안 되겠다는 인제 그 철이 어딘가 모르게 오더라고. 동시에 인제 서탄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전체 다..

그러면 그때 진위 학교 다닐 때, 지금하고 길이 똑같았나요?

길은 지금 이 냇갈 타고 갔으니까. 아마 길은 비슷했을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는 진위천에 물고기도 많았겠어요?

많았죠. 메기 저기 미꾸라지 비슷한 참기름치라고 있어요. 참기름치인가 뭐 그렇게 있었구, 불거지, 잉어, 그런 거는 많았어요.

그러면 물고기는 1년 내내 잡는 거예요?

여름에는 주식으로 잡아 먹었으니까. 너니나니 핼 거 없이, 물도 깨끗하고, 그냥 갖다 그냥 끓이면 그냥 먹었어. 그것도 맛있고.

그래 조림도 해먹고, 또...?

그림도 해 먹고, 국도 끓여 먹구, 민물은 좌우지간 그게 주식이었었어요. 옛날에는...

주로 반찬이 민물고기...?

그렇지. 저 장마가 지구 물이 많으면 논에서 막 물이 내려가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큰 또랑에서 송사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그러면은 얼레미라고 있어요. 옛날에 치던 거. 얼레미라고 체 치는 거. 그거를 거꾸로 대구, 물 내려가는 데루 넓은 쪽으로 대구, 거꾸로 들고 있으면은 송사리가 손을 대고 있으면 탁탁 쳐 그럼 딱 건지면 한 20마리, 30마리 걸려. 그렇게 해서 옛날에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약을들 더 많이 쳐서 그런가 송사리두 다 없어졌구, 미꾸리도 진짜 보기 힘들고. 인제 방개라고 있어요. 방개두 아마 날아다니는 그런 저긴데도 없어요 그게. 전멸허다시피... 지금 여기 논에 논 쓸으면 청개구리가 옛날에 꽥꽥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한 한 구간을 치면은 한 4~50 마리가 울까. 그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아까 학교 갈 때 수수깡 밑에서 이렇게 놀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제 학교 갔다 오고도 어렸을 때는 뭐 큰 일을 안 하니까, 집안에 인제 어려운 일 안 하니까, 그 아이들끼리 모여서 놀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놀이하고 놀으셨어요?

놀이는 수수깡 치면서 뭐 노는 거 있어요? 우린 저 3학년 그때는 책보을 이렇게(어깨에서 반대편 허리쪽 사선으로 묶고). 이렇게 띠고 다녔잖아요. 그때 필통 뭐 연필 넣고 그래는데, 좀 잘 사는 애들은 도시락 좀 싸갖구 다녔구, 근데 저 반찬두 인제 없는 사람은 보리밥에다가 계란 하나

넣으면 큰~, 반찬 잘 싸서 가는... 그런 거 까먹는 재미. 또 때 되면 또 삐삐리, 뭐 삐래기 뽑어 먹구.

주로 도시락 반찬은 뭐였어요?

옛날에는 잘 사는 사람들은 1년 무우를 무장아찌라고, 아주 맑게 고추장 장아찌가 있더라고. 근데 없는 반찬 저 집에들 반찬 싸오는 거 보면은 그 고추장에 며르치 몇 마리, 다꾸앙, 다꾸앙 하고 계란 프라이 딱 하나 넣으면 그걸로 다 전체 반찬이야.

그 연날리기 같은 경우는 어디서 했어요?

연 날리기는 또, 또 그래요 남이 논에 논 자락에 가면 벼도 다 비잖아요. 그러면 논 끝텅어리 가서 끈 잡어댕겨서 저기서 날려주고...

여기 넓어가지고 뭐 아무 데나 가서 해도....?

연날리기는 그냥 한 사람만 줄을 쫙 끌러서 날리면은 그냥 잡고 있으면 바람에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냥 나무에 뭐, 그때 큰 나무도 별로 없어. 남의 지붕으로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야. 뭐 감을 수도 없고 그러는 거지 뭐. 저런 산골 같은 데 가면 산에서 날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산이 없어가지고...

썰매도 타셨을 거 아녜요?

썰매는 저기 여기서 학교 출발헬 때, 동네에서 봉남리까지 타고 갈 때도 있었어요 흔하게 막. 그래서 새치기를 많이 한 거여.

새치기를 한다는 건 어떤 새치기예요.

가다, 인제 학교 안 가고 중간에서 수수깡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걸어가는 것보다 빨랐어요?

걸어가는 것보다 빨랐죠. 썰매 타고 가면. 얼마나 빠른데요! 가령이 또 이렇게 넣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양쪽 꼬챙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때만 해도 우리네는 막 코 흘리고 그러다 손에다에 이렇게 닦을 때야. 인제 그럴 때인데,..

썰매는 어떻게, 뭘로 만들었어요?

썰매는 그 만들기도 초등학생이면 다 만들어. 네모 반듯한 송판떼기다가 각구목을 대요. 철사를 이렇게 대면은, 꼬부려서. 잘 나가요 이게. 눈에도 잘 나가고. 대부분 뭐...

썰매는 그렇게 인제 나무로 만드는데 연은 여기 대나무가 없잖아요?

연은 저기루, 대나무가 아니라 그 저 옛날에 그 지게 바수벌이라고 있어요. 그거 하나 빼가지구, 남의 거 몰래 빼가지구, 그 발을 쪼개가지구 계속 다듬어. 다듬어서 매끈매끈하게 해서 밥풀, 밥풀 뭍혀갖고, 밥풀두 여기다 이렇게, 저거 종이에다 싸가지구 이 나무를 거다가 붙여 막. 이게

잘 달러붙게. 딱 붙이구 요만한 저 종이를 오려서 붙여, 밀려나지 말라구. 그런 식으로 인저 연을 핸거지.

동네 그때 가게도 없었잖아요?
동네, 그때는 없었죠 가게가.

그러면 가게에 물건 사러 가려면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됐어요?
물건 사러 가려면 여기는 옛날에는 다 송탄으로 갔었지.

그러면 송탄으로 갈 때는 여기 다리가 없잖아요?
다리가 없으니, 이 내갈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다 이래고(바지를 걷는 시늉) 건너갔어. 이래고…

아 그냥 걸어서요? 물을… 뭐 돌다리 같은 것도 없고요
옛날에 돌다리면 장마 한 번이면 다 떠나가. 그러면 인저 그때만 해도 이 동네에서 그때도 참외도 심고 이럴 땐데, 열무 그걸 다 보따리, 광주리에다 해가지구 그래서 시장도 다녔어요. 그때 졸졸졸졸 쫓어도 다녀보구.

참외, 열무 같은 거 심어가지고…?
응. 광주리에다 이고 가서 송탄에서 팔아.

그러면 여기서 요 남쪽으로 해서 저 구장터 쪽으로 넘어가나요?
그냥 도로 여기서 냇갈 건너. 이 큰 게, 그 큰 다리가 있잖아요 지금. 그게 없어요. 여기 이래고 건너가는 거여. 거기루.

그럼 인제 구장터로 해가지고…?
구장터루, 거기는 그냥 직통이여, 송탄까지… 옛날 길, 좁은 길이래두, 그때 마차길은 돼 있었어요 그때두. 그걸 그냥 가는 거여. 냇갈 건너가고 거기서부터는 또…

그러면 마차나 이런 건 못 가나요. 마차, 뭐 리어카…?
마차는 그때만 해두 시장 안에 마차가 들어갈 형편이 안 돼 있었어요.

여기 뭐 이렇게 섶다리 같은 거 안 나놨었어요? 나무로 이렇게…?
나무루, 돌다리 놨다가, 돌다리 놨다가 마을에서 기둥을 세워서 왜 그 한번 해봤는데, 그때 그 우리 어릴 때 최영희, 최영 장군이라구 최영 국회의원이 나왔었나. 최영, 최영 장군이라구 그 양반이 철판 다리를 한번 놔줬어…

이분이 국회의원을 했었어요?

국회의원이지! 맞어, 맞어.

그분을 인제 최영 장군이라고 불렀어요?

예. 최영 장군,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 어렸으니까. 그래 그 양반이 철판 다리를 놔줬는데 장마에 다 때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철판 다리는 딱 한 번 놓은 거네요?

한 번 놨는데, 그리고 그걸 다 떠내려가는 걸 건져다가 다시 또 해마다 져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이제... 그거를. 놓으면 뭐 해. 일년 다음에 떠나가는 걸.

그때도 참외, 열무 이런 걸 동네에서 많이 재배했나요?

아이 많이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배고파서 그런가 되게 맛이 있었고, 열무도, 열무 지금 해는 거 그때는 그려 실상 또 다 맛있어 뭐든지. 하하하...

그때 여기 그러면 논하고 밭의 비율은 어땠어요?

논이, 그때만 해도 밭이 별로 없었어요. 다 논이었었고

여기 농토가 넓은데 그 대부분 다 이렇게 좀 농지 좀 많이 갖고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 농지 옛날에는 농지도 뭐 많이 갖고 있었지 다들.

보통 한 집에 몇 마지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한 집의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천 평 2천 평은 다 갖고 있었을 거야 그때.

산이 없어가지고, 산이 없어서 그 연료 구하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옛날에는 저기 군불 떼느냐고 방바닥 뜨듯하게 해구, 또 여물 쑤고 그랠 때, 남의 논 벼 비고 나면은 그 북대기 있어요. 북대기 갈퀴로 빵둘러 긁어 모아. 한 구간 긁어놓으면 한 지게 나와.

아 북대기...?

벼 비고 나면 그거 저 이 이파리가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거 북대기라고 그러는데, 그거 빵 둘러 다 긁어 모아. 한나절 내

북대기를 한 마지기 긁으면...?

아냐. 한 구간 긁으면은 한 두 지게 나와.

한 구간이라고 그러면 몇 평 정도예요?

1200평 정도. 아침부터 이렇게 긁어, 빵 둘러 가상이루, 가우지로 긁어 계속. 그러면 인저 수북이 쌓이면 그 지게로 막 착착 해고 올려. 그래서 그렇게 때봤구. 남의... 그때는 초가집이 많으니까, 벼(짚) 이거를 1차 벳겨, 그래 새 짚을 올려. 그러면 그게 북대기가 많이 나와. 그 이엉이

라고 그래는데, 그거를 인저 그냥 안 줘. 크게 그 묶어가지고 그거 가서 종일 일해야 그거 하나 줘,

지게로 한 짐 정도 되나요?
아이 아녀, 지게로 한 20짐 되어, 20짐.

일종의 품삯이네요.
이 품삯이지 이게... 그리구 저기, 저기 저 풍년초 담배, 그거 있을 적에 우리는 그 초등학교 좀 지났을 거야, 그리고 수수깡을 비면은 수수깡 뿌리가 불씨가 좋아. 그거를 소시랑 하나 들고 담배, 봉초 담배 큰 거 하나 싣고 조양성냥 하나 싣고, 그리고 캐러 가.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그때 한 20대지 뭐, 20대지.

그때 그러면 풍년초 담배 한 보루하고 조양 성냥 한 통하고...
신문지, 마분지라고 그러지, 마분지. 벽 발르고 남는 거... 그거 해가지구, 저 가는 거지 인제.

리어카 끌고요?
아야 지계에다가. 리어카가 어딨어 그때. 리어카만 있으면 부자지. 어유 그때 당시 리어카 없어!

이게 20대 무렵에 됐으니까, 한 60년대쯤 되네요?
그렇지. 60년대...

그러면 한 짐 캐는 거예요?
한짐 캐, 하루 가면은 하루 종일 한 지게만 해면은 잘 해는 거여.

점심은요?
점심은 해야, 와야 먹는 거지. 그때는 한 사발, 집에 오면 한 사발, 밥 한 그릇 안 냉겨놔. 안 냉겨놔. 그 아침에도, 내 기억이여, 인제 애들 못 먹게 해기 위해서 계란 막 풀어갖고 파 잔뜩 넣어놔. 그럼 애들을 못 먹어. 그래 저 아버지만 먹는 기야 그게. 그 자식들,노인네가 그거 넘어가겄어. 밥도 조금 냉기고, 계란도 냉기고, 인제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여.

지게는 바수걸이로...?
바수걸이에다 그냥 소복이, 또 이뻐. 딱 한 지게 딱 해면은. 그 사진이 없는 게 한이여. 지금 같으면 다 찍어놓는데. 참...

그게 인제 연료로는 굉장히 좋았겠네요?

아 불씨 좋고. 아 그때야 뭐, 뭐가 있어. 불씨 참 좋은 거지.

지게지고 산에 나무 하러 가고 이런 건 없고요?

한 번 해러... 두 번 갔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산천 건너가지고 서탄, 그리로요?

요 서탄에. 그거는 그때만 해두 걸리고 막 그래가지구, 이건 아니올시다여.

그러면 연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네요?

그때는.... 이 지나오니까 재미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 해야 되잖아 안 해면은 뭘 때. 소도 그때 소도 멕이고 그랬는데 여물을 쑤고 그러면은 뭐를 때여? 불을 때야 삶아주지.

지푸라기는 인제 소여물로 많이 썼나요?

여물로 인제 썰어주구. 그 논에, 그때 논에 피가 많아, 옛날엔. 그 피로 이만큼 잘르게, 이만침 밑창에 바짝 잘러서 이만큼(한 아름) 갖고 나오면 다 썰어서. 이 작두라고 있어. 그 썰어서 소밥 해... 그 따로 곳같을 만들어놔. 소밥 곳간을. 그 거다 다 썰어서 집어넣어 놔. 그래 하루에 조금씩 삼태기를 담아 갖고, 여물 쓰는 거지. 거 옛날 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새록새록 나도 생각이 나니까, 하하하... 아~ 고생 고생이 다 너니나니 다 했지 뭐 옛날에...

그때 그러면 반찬은 주로 어떻게 드셨어요?

반찬은 그래두, 뭐야 다른 집은 몰라두 우리는 그래두 꽁치, 그거 조개젓, 새우젓, 그 가정에서 담는 고추장 장아찌, 오이지, 뭐 이런 거는, 묵은 반찬은 많았어요. 참외 장아찌, 이런 거는 많았어. 지금 그런 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 먹고 싶어 진짜.

인제 반찬은 그렇게 되고, 주로 1년 1년에 이렇게 밥 드시는 거는 쌀밥만 매일, 매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녀. 1년에 아마 그때 당시는 쌀밥은 보리 쌀 한 양재기면은 쌀은 한 고쁘 조그만 걸로, 쌀이 보일뚱말뚱, 그렇게 먹은 걸로 알고있어. 부잣집이라고 그래서 쌀만 해먹는 집은 없었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군것질 하고 싶잖아요. 배도 고프고... 그럼 삐래기 말고, 뭐 다른 거 계절별로 먹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다른 거, 그때 당시는 먹을 게 뭐, 아닌 게 아니라 집집마다 다 틀리지마는, 그 저거 조금 있는 애들은 미르꾸래도 사 먹어.

미르꾸요?

미르꾸. 그 동네, 그게 슈퍼가 아니고, 동네 쬐끄만 가게에 사탕 몇 개 놓고 팔구 그런 집이 있는데..

아 동네, 여기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여기. 이 고리술이라고 소주야. 그거 하고 쪼끄맣게 차려놓은 가게가 있었는데, 사탕, 미르꾸, 그런 종류만... 우리도 참 미르꾸를 그 집에서 많이 먹었는데...

그 가게가 어디 있었어요?

여기 요 집의 끄트머리 께요. 요 집에. 요 큰길 끄트머리 께...

아 회관에서 남쪽으로 나가면.... 아 공원 있는데?

공원 앞에. 맞은편에 거기가. 그 집 지금 기억도 나지.

그럼 거기서 뭐 뭐 팔았어요? 미루크하고...?

고리술, 잔술, 잔술... 이렇게 주댕이 이만하고, 이만한 항아리. 이렇게 뭐 꼴깍꼴깍 나오는... 그렇게 나도 먹은 기억도 나고. 그 엄마라고 그러지, 그 엄마 딸이 봉남이야. 이름도 안 잊어버려. 봉남이. 그래도 괜찮아 애가 이뻐. 그 결국은 저기 농아 고아원으로 가가지구... 인제 그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럼 인제 엿 같은 거 사서 먹고...

사서 먹구. 그 돈이 어딨어 그때. 그때는 저기 아이스케키 장사는 이 볏짚, 볏짚. 그때는 이만큼 묶었지, 옛날에 이만큼 묶었는데 좀 들기 좋게 쪼끄맣게 묶어. 그거 한 단이면 아이스크림 두 개 주더라구.

그러면 아이스케키 장사는 리어커 같은 걸 끌고 오겠네요?

저기 저 자전거에다 했는데, 그 뒤에다 두 단, 세 단 껴. 그래 갖다 주고 또 와. 그 사람들은 뭐에다 쓰는지 몰라두,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벼, 볏짚 줘도 아이스크림 주는구나...

그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짚단 가지고 아이스케키를 산 거는요?

아 나두 그때 그거를 그다음에 엿장사가 받으면 받었지 왜 아이스케키 장사가 그걸 받어, 근데 그때. 그때 내가 보면은 참... 그 아이스케키 통 짐차다 이렇게 끈을 매여 고무줄로.

그 짐자전거에다가요?

응. 짐자전거 아이스케키 통 안 떨어지라구. 그거 찍찍 늘어나더라구. 그 한 단, 두 단, 석 단... 한 다섯 단까지 끼는 것 같더라구. 그래 가. 뒤에 고무줄 속에다가 아이스케키 통 뒤에다가 그래서 가.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와. 아이스케키. 아이스케. 그러구. 그래 야 볏짚이,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남의 볏짚을 빼서 못 먹는 거 아녀. 자기네 볏짚이 어딨어 또. 남의 볏짚 빼다 팔아먹은거지.

그때는 볏짚도 귀했죠?

아 귀했지. 그때는. 아유 쌀밥 먹기두 힘들 땐데 무슨...아유... 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까

지 받었구나... 이거 다 못된 짓 핸 거지 뭐. 자기네 볏짚이 어딨어.

그러면 인제 그 군것질 거리는 엿하고 아이스케키 장사 오면 그런 거, 고물 같은 거 주고 사서 드시고...?

그리구 혹 가다 저기 감 장사가 와. 감 장사. 이 광주리에다 딱 보면 바닥에 쫙 깔면, 지금 같으면 얼마, 만 원이면 다 사 먹잖아. 그때는 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지....이게 쪼끔 한 두세 개 사 먹으면은... 한 사람이 하나씩. 그 기억도 나고...

그럼 인제 여기서 정착을...?

정착을 핸 거지.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데 막히면, 인제 다른 데 뚫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 이렇게 딱. 근데 그때 뭐 메리트가 있었나요?

근데 여기, 여기는 다른 마을보다 여기는 그 돈 버는 확률이, 그게 컸어요 여기가. 다른데 하우스가 별로 없었다구. 여기 하우스가 많구 그래니까 그 최고의 학, 또 가락동을 좌우를 했으니까 여기서...

비닐하우스 하기 전에도 배추 농사를 많이 지었나요?

노지, 노지 해다가 머리들 쓰니까 하우스를 해는 거여 인저. 하우스두 크게 안 해, 쪼끄만 하우스. 그걸 많이 해다 보니깨 어~ 머리 쓰구 자꾸 큰 하우스가 자꾸 들어서는 거여 그게. 큰 하우스에서는 인제 배추 같은 거 해면 안 되고 도마도 오이 같은 거. 그래두 이게 시설이 좋으니까 아무래두... 그런 거여.

그래서 그걸 해보겠다고 인제 마음을...?

했는데. 그래두 쪼끄만 하우스에서는 50동을 못 해보구, 49동까지 했어 내가. 최고 많이 했어, 동네에서.

뭐 어떤 작물을 하셨는데요?

그니까, 다 배추 아니면 오이 같은 거를...

여기는 지금 하우스가 150평당 하나씩 있어도 이렇게 전체는 1200평으로 다 잘라져 있는...?

그렇지. 여섯동, 여섯동. 한 구간에 6동 들어가는 거여. 구간 구간, 에지간한 건 1.200평으로 다 짤러놨어.

여기가 그렇게 경지 정리가 된 게 언제예요?

정리된 거는 72년도인가 71년도가 이렇게 아마. 그때 됐을 거야.

어르신께서 40대 초반에 내려오셨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40대 초반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배추하실 때 여기는 주로 작물은 뭐였어요?

여기두 그때두 노지 가지, 노지 오이, 이렇게 삼발이 세워가지구, 그걸들 많이 해더라구. 그래 그 전에 박스가 없구 비니루, 비니루에다 그냥 백 개씩 담어가지구, 대가리 이렇게 묶구. 그래 그런 걸 많이 핸 거 같애. 나두 그런 걸 해봤어.

그러면 인제 중요한 건 판로잖아요?

판로는 가격이 싸든 비싸든 거기다 놓구, 갖다 놓으면은 가락동 가는 차가 있어. 그 실으면 가락동 가지가 경매 가게 쟤들이 다 받아와. '얼마 얼마 받었습니다.' 해구.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다 가르켜주잖아. 인저 그 부조리라는 게 없어졌지.

여기서 인제 작물을 하게 되면, 그 가락동에서 도매상들이 내려 와가지고 이걸 사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어... 그거보구 '오다'라구 그러지, 크게 사는 애덜. 걔들이 몇 명이 와서 누구네 꺼, 누구네 꺼 다 찍어서 사. 그러면은 클 때까지 와서 잔소리를 안 해. 그리구 '뭐 해주슈, 뭐 해주슈' 집구석에서 전화질이지. 그리고 작업할 때 되면 와가지구 인저 일꾼 저 데려오는 사람이 있구, 여기서 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 작업을 해다, 인제 해가지고 인제 가락동이로 보내는 거지 뭐.

그러면 인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농사 짓는 데가 하나가 있으면, '여기 건 내가 사겠다.' 이렇게 해요? 아니면 그때 가격을 정하고 가는 거예요?

가격이 인저 옛날 초반에는 인제 평당이 아니라 어떻게 다 구간이 다 돼 있으니까, 벌써 한 구간에 몇 포기라는 걸 그 사람들 다 알어. 이 차고 다니는 거 있잖아 왜. 평까지 다 알어, 평수까지. 그래 이렇게 해서 한 구간에 얼마. 몇 포기 들어가는 거 다 아니까. 그래서 한 구간에 얼마, 이렇게 해갖고 인저 사는 거야 물건을. 그 주인도 그게 편하고. 그 뭐 옛날에 못 믿어 갖구, 발짝, 발짝으로 뛰어갖고 1m씩 이 했는데, 지금은 이게 다 이거 차고 다녀. 한 바퀴 삥 돌면은...

근데 옛날에는 인제 그렇게까지 계량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오이가 한 100상자 나올 걸로 생각하고 미리 가격을 딱 정했는데...?

아니. 그런 건 밭떼기로 안 팔지, 오이는... 그런 거는, 도마도 같은 건 밭떼기로 안 팔구, 인저 작업을 해지.

어르신 지금 농사는 지으세요?

나는 인제 하우스 그만하구 다 때려치구, 노지 한 천 평밖에 안 해 인제. 힘들어서 못 해.

뭐 하세요?

지금 800평에다 들깨 심어 놨구, 지금 나머지는 저 파 심어놨구... 그거야.

하우스는 안 하시고요?

안 해 인제, 지겨워 지겨워, 아~. 그 대신에 인제 내가 그 젊었을 때부터 하우스를 배웠다고 아까 얘기했나? 그거를 지금도 했는데...

그때 여기 들어오셔서 배우신 거예요?

예. 저기 서울 애들을 여기 트랙타 처음, 여기 저 별로 없었어. 처음 사가지구 그거 부품을 날러야 되니까. 서울 애들하고 해다 보니까, 어디 뭐가 들어가는 줄 알어? 그 부품을 그렇게 많이 갖다 놨는데... 그래 걔네들은 화훼 단지에서 온 애덜이드라구. 그래 잘 하지 뭐여. 그 ‘뭐 갖고 와’ 그래는데 뭔 줄 알어. 써줘도 모르지. 뭐 부품이 뭐 보길 했어 뭐. 그래 하루 이틀 대다 보니까,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어디 들어가는구나, 요령을 빨리 배웠어. 그리고 인저 한 1년 같이 해다가, 인저 난 나대로 떨어졌지. 그 인제 지금두 인제 큰 대형하우스. 아니면 소형하우스, 몇 평, 평당 얼마, 한 동에 얼마. 이렇게 딱딱 맡구 들어가는 거지.

150평 한 동 짓는데 얼마 정도 되나요?

그래 그렇게 물어보면은, 큰 하우스 있구, 쪼끄만 하우스 있잖아. 그러니까 틀리지 평당 다...

파이프가 규격이 어떻게 돼요?

기러기가 지금 10m 나오고...

길이? 그러니까 폭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파이프 기러기가 10m. 10m면은 1.5t, 두께가. 그래야 휘어도 비바람에 견디지, 인제 그게 튼튼하니까. 그게 인저 1m에 하나씩 꽂는 데 있고, 그거는 배추 심는 데는 1m에 하나 가능하고. 오이 같은 거 심는 거는 50에 하나씩

오이는 50에 하나씩이요? 50이라면 50cm?

50cm. 그래야 인저 튼튼하지.

배추하고 오이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배추는 옛날에 보면은 비닐을 한 번 씌우고, 일 년에 한 번씩 벳겨 버렸다구. 근데 관리 잘해면 한 3년도 가 그게.

비니루가요?

응. 비니루가. 근데, 배추 딱 심어놓고 벳겨야 햇빛을 많이 받는다구 해가지구, 다 베껴. 그 일 년에 하나씩 쓰는 거야 비니루를. 그러니까 아껍지 뭐여.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몇 이나 10년 해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어 하니까 인제 조금 두꺼운 걸로 씌워갖구, 인저 거기 오이 같은 거 들어가는 거여. 그런데 이거 1년에 안 갈어도 되는 거 아녀. 오래 쓸수록 좋은 거 아녀. 그 인저 때가 끼잖아. 그래 비닐이 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갈어. 한 3년 쓰고 갈구, 3년 쓰고 갈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제 비니루를 씌워. 두꺼, 저 먼지 안 앉는 거. 한 10년 더 쓴다고 그러

더라구.

오이는 그냥 1년 내내 씌워 놓는 거예요?

그거는 벳길 수가 없잖아. 그거는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벳기면 좋은데, 여름에는 또 문이 다 올라가니까. 지금 문이 다 가운데두 열리고 해니까 벳길 필요가 없지. 그래 시설을 잘 만들면은 뭐 벳길 필요두 없구, 비니루도 오래 쓰구.

그래서 10m짜리 하면 폭이 얼마 정도 나와요?

4m 50 딱 잡으면 돼. 5m 잡으면 조금 얕은 것 같애.

배추동하고 오이동하고 지금도 다르게 만드나요?

아녀. 하우스는 똑같지 높고, 낮음이 틀리지... 지금 요게 10m 갖구 꼬부린 거여. 요 하우스가... 저 보이는 게. 고게 지금 낮다 싶으면은, 지금 경험들을 샀으니까, 아 옆에다 한 50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한쪽에다 1m짜리를 꽂어. 임바리를. 그리고 올리는 거지. 하우스를 이렇게. 그렇게 인제 그렇게 한다고.

여기 농업용수는 지하수 파서 다 쓰나요?

옛날에 다 그랬지, 옛날에. 지금두 저 밭엔 다 논 그 땅에서 나오는 거 쓰는 거지. 지금두.

그냥 파면, 물 다 괜찮아요.

근데 옛날엔 먹었는데, 지금은 좀 조금 찝찌름 해더라고 내가 먹어봐도. 하하.

근데 여기 처음에 시설 재배할 때는 작물이 뭐였어요?

배추야 배추.

그다음에요?

뭐 그 다음에 노지 오이, 배추. 하우스에다 인저 오이 심구, 인저 줄 띠어갖구 호박 심구. 그거 뭐 그거 해다가 인저 지금 도마도, 오이로 다 바뀐 거지.

지금은 인제 토마토, 오이가 대종인가요?

도마도, 오이가 지금 히트 치고 있는 거여.

이게 대정마을만 그런 게 아니고...?

아이 전체 다 그려... 여기 보면은 다 비슷 비슷 해, 다 똑같애.

참 여기가 이렇게 하우스 재배, 그러니까 시설 재배 여기 메카네요. 여기 이 근처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나요?

오래, 최고 오래 됐다고 봐야지 여기가. 여기 뭐 가락동을 좌우를 했구. 여기 보구 다 쫓서서

했구, 강원도도 아마 여기 보구, 와서 다 배운 애들이여. 와서 교육을 받고 가더라구.

여기서요?

그래 우리 집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하우스에서 호박을 심었는데, 기가 맥히지 뭐. 지들 농사법하고는 틀리지. 그래 뭐 몇 월달에 해느니, 그것도 몰르고 또 줘 가르켜줬더니, 어 이놈들이 거기서 히트치지, 우리 호박은 싸잖어... 강원도 호박은 또 원래 비싸 또.

지금은 그쪽이 더 비싸고 이쪽이 더 싼 거예요?

싸진 거지... 배추도 그렇구. 다 그려. 거기보다 다 져. 한 박스에 뭐 오천 원, 8천 원 층하져.

그 사람들이 배워간 게 언제쯤 돼요?

아 오래됐지. 배운 거 가져간 거는...

한 30년 됐어요?

30년 됐지. 30년 됐을 거여. 그 와서 꼬치꼬치 물어서 착실히 다 가르켜 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그 놈들이 다 박사가 된 거여. 아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건 다 좋지. 근데 거기 공기가 좋구 그러니까, 차구 그러니까, 나는 그게 더... 여기두 그려. 우리두 여 산 꼭대기에다 배추 심은 애들 거 보면은 맛이 기가 맥혀, 우리 들판에 심은 거 하고... 그래 꼭대기 가서 사 먹잖어 우리두...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어르신 어렸을 때는 여기 몇 가구 정도나 살았어요?

50가구 고 안팎이여. 넘었다, 줄었다. 그냥

지금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두 거기서. 노인들 노인정 인원 50 몇 명 그 안팎이구.

여기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게 일제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언제쯤 만들어진 거는 혹시 뭐 마을에 내려온 얘기 있나요?

그런 거는, 원래 이렇게 쭉 그냥 살었으면 나도 그 동네 저기하고 이거 많은데, 나간 세월이 살은 세월보다 너무 더 많어가지구, 지금 저쪽에 저 서먹서먹 핸 사람도 있어. 나 역시 지금두. 저 접촉을 많이 안 해는 거지. 옛날만 같으면은 사랑방에 모이면 다 모여서 했는데 지금 없어지다 보니까 저 아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한 두 번 보면 지나쳤다 후딱 지나가면 뭐 그만이여. 뭐 대화가 있어 뭐가 있어

그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분들인가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아 태반이야 여기. 그니까 그냥 자꾸 그 동네라는 게 그렇게

한 2분의 1 정도는 인제 최근에 다시 들어온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인제 그렇다고 봐야지.

그분들은 농사 지으러 들어오신 건가요?

농사. 다 여기 오면 농사지 농사 안 지으면 못 살아, 여 동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이세영(남, 1958년생, 하북2리)

일시	2021년 8월 22일
장소	하북2리 토마토 재배 하우스 내
구술자	이세영씨는 2006년부터 이장을 맡아 10년 동안 마을 일을 보았다. 이장을 지내면서 정보화 마을, 마을 공원 조성, 줄다리기 행사 활성화 등 많은 일을 추진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어 대정촌에 관한 일들은 속속들이 알고 있다.
면담자	장연환

초등학교는 어디로 다니셨어요?

서탄... 우리 아버지들은 저기 진위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는 너무 힘들은 거여 인제. 진위초등학교가.

그러면 서탄초등학교 여기서 갈 때는 어떻게 가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그냥 밭둑, 논둑으로 해서 그냥 갔어.

시멘트 다리는 언제쯤 놨어요?

아이 그건 몰라. 우리 초등학교 때, 내가 너무 기억 그렇게 잘 못해

더러 학교 못 가는 날도 있었겠네요?

아녀. 그렇진 않어. 우리가 빨리 갈라고 그랜거지.

비오면 그 다리 넘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예.

이 둑방은 언제쯤 쌓였을까요?

이거 쌓은 지가 뭐 한... 이거 새로 쌓은 건데, 한 40년 됐나?

40년이면 1980년대 초반 쯤에요?

40년 더 됐겠다. 내가 중학교 때 이게 터졌거든, 72년도 장마.

72년 장마가 굉장했었나 보죠?

비가 많이 왔지요.

동네가 다 잠겼어요?

여기는 안 잠겼고, 저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많이 잠겼지... 여기서 우스운 거 같애도 한 1m 한 50, 거즘 1m 80 정도 나요.

그럼 그 둑 터지고, 72년도 장마 때 터지고 지금처럼 높인 거네요?

좀 높였죠. 여기도 하상 정리 핸 거고. 여기는 한 15년?

이 논들은 지금 경지정리가 다 돼 있잖아요?

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경지정리가 돼 있었어요?

아니요. 한 30년 됐나... 농지정리 된 게... 여긴 안 된 거여, 여긴 안 돼 있어. 이 밑으로다 다 안 된 거여. 된 게 요만침이여, 요만침.

이게 30년이면, 90년대쯤 되나요?

예. 요기는 오정보라고 그래가지고, 오정보니까는 뭐 삼오 십오, 만 오천 평이지.

아 오정보라는 데가 넓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서부터 물 퍼서 쓰고 그랬나봐... 일제 시대 때 뭐...

여기서 물 퍼가지고 이쪽 들판에 물을 댔다고...

그래 오정보여. 여기서 물 푼 건 맞어요.

여기 물은 이동저수지 물이 오나요?

그렇죠. 지금 와도 여기 대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아예 스톱 됐어. 거 필요로 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럼 여기 물은 다 지하수 쓰나요?

그렇죠. 다 지하수, 자기가 알아서 다들 지하수 받아 써.

그러면 그 저쪽 물이 시작한 건, 이동저수지 물이 이쪽에 와갖고 논농사 지을 때는 그....?

쬐끔 졌어요. 우리 동네가 시설채소 원조여, 야막리하고.

어디가 먼저예요?

그건 뭐 모르겠어요. 여기도 오래 됐고, 우리 아버지가 지은 것도 오래 됐고. 이삼용씨라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졌고.

이분은 어떻게 해서 시작을 했대요?

몰라요. 그거는... 그때 그, 그분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했어. 옛날에 저기...

아버님이 몇 년생이세요?

1927년생... 97세 됐을 거여...92세까지 사셨어. 오래 사셨지 뭐.

언제 시작을 하셨나요?

오래됐지요. 나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럼 한 70년대 초?

70년대가 뭐여, 더 됐지.

60년대 말...

그렇지, 그 정도 됐겄지... 비닐 온상 이거 했을 때니까.

그럼 65~6년, 이때쯤 되겠네요? 비닐 처음 나온게?

아 이런 하우스가 아녀 그때는. 그냥 돈네루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씌웠지. 하우스래는 게 없었어.

활대를 뭘로 만들었나요?

대나무, 대나무.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돈네루요?

돈네루라고 그러는데, 몰라. 일본 이름인지, 어쩐지.

대나무 활대는 어디서 가져왔어요?

그 뭐, 옛날 죽제사라고 있어요... 죽제사라고, 옛날에는 그 사람이 대나무 취급을 많이 했지... 무슨 상호 이름이지.

그럼 그분이 대나무를 이쪽으로 인제 대준 거네요?

예. 그러겄죠. 고거 다음에 인제 하우스, 대나무를 휘어가지고 하우스를 해서 비니루를 했지.

아 대나무를 통째로요?

아니지, 두 개. 두 개를 통째로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지푸라기로다가 쫌맺어.

그러면 이 죽제사에서 공급해주는 대나무는 조그맣겠네요. 하나 이렇게 쪼갠 거...?

처음에 60 몇 년도에는 그렇게 했다가 고 후에는 인제 대나무를 갖다가 양쪽에 꽂어가지고 이렇게 휘어가지고 볏짚으로다 묶었지... 그래고 나서 인제 파이프가 나온 거지.

파이프는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스무살이니까 내가, 한 45년 됐을 거여.

20세부터 파이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스물... 그때 나왔을 거여. 그때 귀해가지구 그 저기 대나무 하나 해구, 파이프 하나 해구 이렇게 했걸랑.

아까 이삼용이라는, 이 분은 아버님하고 연세가 비슷하셨나요?

그럼요. 친군데.

처음에 할 때는 작물을 뭐 했어요?

그때는 배추뿐이 몰렀지. 그러다가 나중에 인제 뭐 호박, 호박이 여기서 많이 나갈 때는 엄청 나갔어, 가락동에.

그때 배추 할 때는 계절을 좀 달리 했나요?

그 이거 저 비니루 하우스에다가 해니까는...

좀 늦게 했나요?

아니 일렀지. 요거 비니루보다 더 일르게 했지. 2월 한 20일 경이면 정식이 들어갔으니까.

2월 20일 경이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정식 들어갔지. 지금도 그래요.

그니까 겨울 지나자마자 바로...?

모종 부어놨다가.

그러면 배추 농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지었어요?

아니 그거 끝나면은 호박 심었어 옛날에는... 비니루 걷어내고 거기다 호박 심었어.

하우스 뼈대는 그대로 두고요?

그렇지. 근데 그 소득이 괜찮았었어, 그때.

오이는 안 심고 호박만 주로 했나봐요?

아 뭐 심는 사람도 있었는데, 호박을 많이 심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닐하우스 규모가 다를 거 아녜요. 한 동의 크기가?

아이, 그거는, 면적은 똑 같애요. 그때나 지금이나.

150평이요?

예. 200평 따지는 거여. 바깥 평수까지 따지면.

그당시에 200평 비닐 한 동이면 배추하고 호박하고 심어가지고 연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야 뭐 몰르지 뭐. 그전에 한 돈 100만원씩 받기는 받었는데..

배추 한 동에요?

예. 150평 한 동에 돈 100만원씩 받고, 120만원도 받고, 고기서 왔다갔다 했어. 그것도 농사 잘 지으면은 장사꾼이 또 20만원 더 주는 집이 있고.... 그래고서 호박을 해는데, 그해 그해 다르지 뭐...

그 당시 시세로 말씀하신 거죠?

예. 근데 인제 그래고 나서 차차로다가 안 해게 된 게, 인제 그 시대 사람들이 나이도 먹구, 시세도 없구. 최근에 산성비 내리듯 그게 내리니까 병이 많은 거여. 그래 못 해먹는 거여.

배추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우스로 하고...?

그렇지 3월 저기 2일날 정식해서 5월 5일까지 다 출하를 해요. 대개.

배추 끝나고 인제 비닐 걷어내는 거죠?

아니, 인제 그러구 나서 인제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환기창을... 그래 이제 배추 다 따갔잖어. 그럼 거기다 인제 골 쳐서 호박을 심어. 그랬다가 한 20여 일 지나가지고 그때 비니루 걷는 거여.

호박 심은지 20여 일 지나서요?

예. 호박 정식을 한 5월 20일, 15일, 요때 심지... 그래가지고 6월, 6월 한 10일, 5일 이때 되면 걷는다구. 확착될 때까지.

비닐 걷고... 출하는 언제 해요?

6월 한 15일부터 따요. 그러면 그게 인제 지금까지 따는 거야.

그럼 계속 따서 한 8월 초까지...?

아니 8월 지금까지. 20일까지 따요. 요거 걷고서 또 배추 심지.

그럼 작물을 몇 번 심는 거예요?

세 번.

한겨울에는 안 하고요.

그때는 휴경기지 뭐.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해서 한 번 더 하고싶다 그러면...?

아이, 안 맞어요. 그게. 그때 시금치뿐이 안 돼... 비닐이 한 겹이라 겨울에 잘 자라지도 않구. 배추를 벌써 10월 며칟날 따가는데 뭐... 10월 20일 따가면은 시간도 없어. 시금치 해면, 그 다음에 또 저기 밭 갈고 또 가다리 하고 정리해고 그러면은 시간도 없어.

그럼 배추 정식은 언제 해요?... 지금 가을 배추.

8월 한 27일부터 9월 5일까지 해요... 지금 얼갈이 배추들 많이 해 인제. 요, 요거만한 거, 얼갈이 배추들 해는데, 9월 15일까지 정식 해요.

그리고 인제 출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쯤...?

출하는 1월달에도 해요. 그때 해놨던 게. 그냥 마냥 놔둬 그냥... 속 비니루 하나 덮어놓으면은 1월달에 해도 괜찮어. 그 시기래는 게 없어 그냥.

근데 예전에는 도매상들이 와가지고 밭떼기로 이렇게 하잖아요?

얼갈이는 그런 거 없어요. 잘 안 사.

김장 배추는요?

김장 배추는 심는데... 심는 사람도 없어. 나야 이런 거 심어가지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군납. 계약 해는 거뿐이지.

보통 비닐 하우스 1동에 배추를 몇 포기 정도 심나요?

한 2,200개... 25cm 간격으로다 해면 그렇게 되지... 10줄 해가지고.

오이 같은 경우는 몇 포기 정도나 심습니까?

오이는 한 700포기 심어요.

그리고 인제 지금 토마토 하시는데, 배추하고 오이...

나는 작황이, 그 농사지었던 거 얘기허는 거지. 내 작황 아니예요.

이거는 다른 분들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편적으로다 배추에 대해서 핸 사람들은 그렇게 해는 거구. 내 작황을 얘기허면은 오이를 1월 19일 날, 올해 심었어요. 정식... 아주 일찍 심지는 않었어, 남들보다. 그래가지구 7월 8일까지 출하했구. 그래가지구 저기 인저 조금 휴경기 가졌다가 7월 23일날 이거 토마토 들어간 거여. 토마토 23일날 정식 되면은 요게 1월 5일까지 따요. 5일이니까 또 19일날 심게 되면은 한 14일은 여유가 있어야지 정리해지. 두 자끼...

그러면 오이를 따는 것은, 7월 8일까지 출하라고 그러는데, 따는 기간은 얼마나 되요? 처음에 수확...?

3월 20날 땄나?

방울 토마토는 언제부터 따는 거예요?

요거 9월 20일 정도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더운지 작황은 좋은 편이 아녀, 그렇게. 딴 사람들도 똑 같애.

퇴비 같은 거는 어떻게 줘요?

유박. 화학비료는 한 번도 안 줘요. 그전엔 줬는데, 지금은 안 줘.

옛날에는 어떤 퇴비를 줬어요? 화학비료 주면?

복합 21-17 줬지 뭐. 그래다가 인제 지금은 밑거름을 안 넣어요.

그냥 유박만 넣는 거예요?

아이, 유박 넣구, 붕사 조금 넣구, 석회 넣구... 석회도 뭐 봐가지고 토양검사 해서 인제 낮으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주구... 그리고 요런 비료. 요 10-20-30짜리 있어요. 비료... 멀티비료. 질소-인산-가리 해서 요 가리질이 많은 거를 주는 거요. 알이 들었으니까. 20-20-20이 있구, 며칠 전까지 20-20-20을 줬어요. 질소, 인산 가리 똑 같은 거를. 지금 인제 알이 달렸으니까 인제 알 쪽으로다 가게 가리를 많이 줘요. 10-10-20 줘요.

배추-호박-배추, 이렇게 심잖아요.

지금은 안 심는대니까요. 한 명도 없어... 봄 배추, 가을 배추는 심어두, 놀려 그냥... 아이 들어간 것도 안 나와.

그러면 배추 농사만 지으신 분들도 있나요?

그렇지요. 봄 배추 했다가 가을 배추. 얼갈이, 얼갈이라고 그래. 요 쪼끄만 거, 알백이.

얼갈이 하게되면, 한 동에 얼마 정도 나오나요?

박스로다 300박스. 농사 짓기 다 달러. 300박스면 그런대로 잘 짓는 거구, 200박스 나오는 사람두 있구, 150박스 나오는 사람도 있구, 다 달러 농사 지으면.

그러면 사장님 같은 경우에, 토마토하고 오이하고 하면 한 동에 매출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한 동 따지는 건 아니지. 이게 한 동 따지는 게 아니구...

이게 여러 동 같이 돼 있는 것 같은데...?

50m라 이게... 100m로 따지면 한 7동 되나...

이 전체 넓이가요?

이게 2.200평인데...

그럼 여기서 오이하고 토마토하고 하면 연 매출액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나 될까요?

근데, 그해 그래 달러요. 올핸 이것 저것 빼고 한, 내가 그, 여기서 나온 게, 근데 이거 얘기를 해야되나. 그 저기 에이피시 가면, '야 나 내역서 뽑어줘' 그럼 뽑아준다구. 근데, 올핸 7천 200만원인가 300만원 했어. 근데, 수수로 띠고 뭐 띠고, 운임비 띠고 저 뭐 띠고, 다 해가지고 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게, 적립금 또 띠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들어온 게 6천 400만원 들어왔더라구.

그럼 또 거기서 비료대금 뭐 이런 거 다 제해야 되잖아요?

6천 400만원에 인제 박스값 빼야지, 또 저 품값 빼야지, 또 저 비료 이런거 빼야지, 또 비니루 감가상각 해야지... 비니루도 작년에 보조 있어가지고 내 자부담만 2천 700만원 들어간 건데. 이거 씌우는 데, 작년에, 10월달에.

2,200평 씌우는 데요?

이거 2,200평 아녀. 1,400평, 평수로다가는.

아까 2,200평이라고...?

아니, 평수는 2,200평인데 저 까지.

아 시설은 1,400평이요?

예.

1,400평인데, 비닐 씌우는 데 2,200만원 들어갔어요?

2,700... 2,700이 아녀, 보조가 있잖아요... 내 자부담이 2,700 들어간 거지.

보조는 얼마 정도 했어요?

60%인가?... 나도 잘 몰라....

아 시, 도에서 보조해준 게 60%를 보조해줘요?

예.

파이프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비닐하우스 파이프 한 동 세우는 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한 동이라기 보다도, 내가 1억 4천 들어갔어요. 이거. 5천만원은 융자받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했어.

1억 4천에서요?

그러니까 다 내돈 들어간 거지, 1억 4천. 보조가 없이.

아까 보조 5천 받았다고...?
아 그거, 이거 시설해는 거. 이거 질 적에.

시설은 그러면 파이프만 하나요? 아니면 물 대는...?
아니 뭐 2중까지 다 해서, 다 핸 거여 이게.

커튼은 옆에?
커튼 저거(천정에 있음), 검은 거.

아 차광막이요?
차광막 아녀, 저 검은 거 있잖아, 저 위에... 말아 올린 거여 저거... 추울 때는 이게 모다에 의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래요... 삼중이여, 수막에다가 이거 핸 거여.

수막이라는 거는?
저 위에 물이 겨울이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보온되고 이것두 커텐 또 치면 보온되고 그러지.

커튼, 그 담에 속비닐, 겉비닐 이렇게...?
예.

아 삼중으로 파이프하는 데...
1억 4천.

1,400평에요?
예. 10년 됐어요.

그러면 보통 150평 한 동 짓는데도 비슷하게 드나요? 비례로 따지면?
아 이건 32mm여 이거는. 파이프대로 달르지. mm 수가 있잖아, 이건 32mm...

그러면 150평짜기 기다랗게 치는 거는 몇 mm가 들어가는 거예요?
150평 요새 해는 거는 22mm짜리도 있구, 25mm짜리도 있구. 32mm짜리도 있구, 그런데 다 달르지, 가격이.

겉에는 아무래도 두꺼운 거로 해야되지 않나요?
아 겉에 난 두꺼운 거로 했는데, 남들은 그렇게 안 해드라고. 에이 나는 그냥 해. 돈 더 들여가지고 했어. 여기도 내가, 천 평이 여기 있었던 건데, 3년 전에 태풍에 다 날라갔어. 다 찌그러져버렸어, 완전히.

찌그러지면 그 보험 들어놓은 거 있잖아요. 농어민 보험.

아니 정부에서 저기 나오더라구, 5천만원.

천 평 날아가면, 이거 짓는 식으로 말하면 거의 1억 드는 거잖아요.
그건 1억 6천.

천 평인데요?
응. 그때 질라고 했으면 1억 6천에 지었어. 엄청 싸게 졌어두... 지금은 2억도 더 줘야 돼요. 품값도 올라가고 파이프 값도 다 올라갔어...

시설 한 번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보고 지으신 건가요? 아니면 수명이 뭐 언제까지 이렇게 있나요?
이건 32mm라 뭐 앞으로도 20년을 갈 거 같은데, 몰러. 에이 타산 안 맞으면 나두 다 쳐버리구, 품값이 올 해 들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여기 일꾼들은 주로 어디 사람 써요?
태국 애들인데, 타산이 안 맞으면 그냥 논농사 져야지 뭐.

요새 일당으로 주나요? 아니면 월로 주나요?
아 200만원

한 달에 200만원이요?
예... 옛날에 60만원 했었던 거여. 한 사람당.

옛날이라고 하면 언제쯤...?
한 20, 17년

아 17년 전에요?
예.... 아... 둘이 120만원이면 그냥 끝난 거여.

여기 1,400평 정도면 몇 사람이나 써요?
아니, 내 땅이 여기두, 여기두, 여기두여. 그래서 고거대로 작황을 돌려가며 해는 거여. 얼마, 며칠 전까지 여기 토마토 땄었어. 군납 들어가는 거. 이 로타리 싹 쳐놓고 또 여기 손질 보면서 요 배추 심어놨으니깐 요건...

그 사람들은 어디 거주해요?
아 여 거기...

아 마을에서 공동으로요?

아니, 자기들이 개인, 자기가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해줘요. 시설을... 콘테이너식으로다 이렇게, 판넬로다가.

이 사람들 한 달에 200만원 받으면 그런대로 괜찮겠네요?

아이 200만원이면 솔직히 7만원 꼴인데, 대주구. 이거 쌀 뭐 전기 뭐 다 대주는 거여. 그리고 200만원이면 어디...

그니까 쌀하고 전기 대주고, 숙소 제공하고요?

그렇죠.

사장님 여기 옛날에 새마을운동 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네는 그때는 쪼그맣으니니까 뭐... 마을 진입로 뭐, 모래 펴면 냇갈에 가서 같이 경운기에 다 해가지구, 트랙터 뭐 해가지구...

그때가 그러면 연세가 몇 살쯤 되었나요?

우리 뭐 한 열여덟 살, 고등학교 졸업해고 뭐...

그때 한참 힘 좋을 때라 마을 일 많이 하셨겠네요?

아이그. 그땐 우린 말도 못 붙였지. 그냥 해래는대로 거지. 어른들이 있으니깐...

그러면 여기 인제 그 당시에 주로 초가집이었잖아요?

우리 동네가 지붕개량이 좀 일찍 됐어. 그래 집을 좀 일찍 지었어. 슬라브 집을 일찍 졌어, 다른 동네보담... 그래도 돈이 다른 동네, 다른 동네 논농사 1년에 한 번 짓는데, 여긴 채소 농사 져가지구 지붕개량이 내가 보기에 일찍 됐어.

그 일찍이라고 말하면, 사장님 나이로 따지면 언제쯤 됐을까요?

우리 장가들기 전이니까 뭐 한 35년 전에.

그때는 다른 데도 지붕개량 다 됐죠.

아이, 슬라브 집을 졌대니까... 집을 졌대니까, 다른 데는 그냥 뭐야 저 볏짚 걷어내고서 뭐 골판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잖아.

그게 보통 72~3년도부터 되잖아요?

그거는 그런 집이 아니고 슬라브 집 졌대니까... 우리 것도 한 30년 됐는데 뭐.

여기가 대정촌이잖아요?

대정 원년에 생겼대... 천구백 십일 년인가... 그래서 대정촌이라고 그랬어.

그때 여기 들어온 분들은 어떤 분들이 왔대요?

그 우리 할아버지, 뭐 김민기씨. 뭐 몇 명, 그게 인제 하북리에 속해 있었던 거여 따지면은... 여기 하북리에 속해 있다가 마을이 요렇게 해다보니까, 열 댓집 되니까 인젠 하북1리에서 인제 2리로다가 분가된 거지.

1912년 그때 대정 원년에...

그 전에부터 살은 거 같애, 내 생각에..

그 전에부터 여기 몇 가구가 살았는데...

응. 하북리로 통했다가...

여기가 간척이 됐을 거 아네요?

그렇겄지 인제.

그거에 대한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그 저기 일본 얘들이 그때 일제 시대 때 여기 많이 살었대. 지금 집두 있고, 곳간이라고도 있고 있어.

옛날에 여기 오정보들, 거기서도 발동기를 하고, 여기서도 발동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어디서 잘 들으셨네. 저쪽에 있었어요.

그러면 발동기 두 대 가지고 푼 거예요? 이쪽(오정보뜰) 하나, 이쪽(서쪽) 하나?

그렇지 뭐.

마을회관은 몇 평이나 되요?

27평인가. 나 (이장) 때 핸 건데, 나도 모르겄네, 잘... 27평 정도 될 거여.

건축이 몇 년이예요?

건축이 한... 10년 됐네, 10년.

10년이면 2011년 무렵에요?

예. 김선기 시장 있을 때니까. 이거는 저기유. 내가 힘쓴 것두 아니구, 기지 주변 사업이라구, 미군 부대 그 3km 이내는 마을회관 20년이 지나면 져주게 돼 있어 법적으루.

그러면 저거(현 마을회관) 전에는 거기에 마을회관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 앞에 있었지... 그래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그 뒤로다 밀어놨자.

그 앞이라는 건 마당 있는...?

아니 길 앞으로다가, 길 쪽으로다가... 회관인데, 요기 이렇게 있었다구 옛날에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 뒤로다가 내가 이렇게 물러 놨지, 이게(마을회관 앞 마당) 넓어가지구 좋지.

지금 현재 27평이고, 이전 거?

그 이전에는 저쪽에 있었어요. 뭐 한 열 댓평 되나?

그 연자방아가 원래 어디 있던 거예요?

거기 요기, (옛날) 회관 자리 요기 뒤에 요기 있었대, 요기.

여기에 연자방아가 있었던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내가, 그 땅 속에서 내가 포크레인으로다 막 파헤쳐가지구 찾아가지구 내가 거기다 해놨지.

거기로 옮겨놓은 게 언제예요?

그 저, 글로 옮겨 놓은 게, 그 땅 속에 있었어요. 옛날에 그 앞에 수로 있었어. 그래가지고 수로에 주저앉지 말라고 그거로다 갖다 올려놨더라구. 무너지고 그래니까. 근데 그, 아유 옛날에 딸이 그렇게 깊었어 그래. 내려앉은 건지. 하여간 몇 메타 파가지구 걷어 올렸어. 올려가지구 내가, 그러니까 한 13, 4, 5년 됐겄지 뭐.

어르신 어렸을 때 여기 연료는 뭘 땠어요?

연탄.

연탄 나오기 전에요?

나무지 뭐. 나무두 얼마 없어. 여기는 볏짚. 논농사를 졌으니까, 볏짚 때다가, 산이 없으니까는 아 우리는 그냥 나무 긁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또랑에서 나무 긁어다 주구.

또랑에서 무슨 나무를 긁어요?

아 그래도 검불 같은 거. 그렇게 해다가 그것두 인제 힘드니까는 그냥. 우린 논농사를 안 짓구 채소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일찍 연탄을 놓은 거여.

연탄은 언제쯤 처음 들어왔어요?

아 우리 중학, 중한굔가? 초등학굔가 모르겄어 나두. 그때 일찍 놨어 하여간.

한 70년 무렵 되나요?

예. 그때. 우리가 70년대 경운기가 있었으니까. 70년대 경운기가 저기여. 아부지 그래더라구, ‘얌마 진위면에 두 번째다.’ 그래...

그래요? 첫 번째는 어디예요?

몰러, 그거는 몰르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샀대... 35만원.

연탄 다음에, 기름보일러는 언제쯤 들어왔어요?
기름보일러... 그거 한 10년 후겄지 뭐.

어르신 어렸을 때 이 동네에 가게가 있었어요?
예. 우리집 옆에 옆에... 우리 큰 엄마.... 우리집이 요건데, 요기에 있었어, 요기에. 가게가.... 방앗간 했던 집. 거기도 가게가 있었어.

그게 언제까지 있었어요?
잘 모르겄네, 그게... 거 얼마... 80년? 20년... 30년 전에 없앴을 거여.

아무래도 인제 자동차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런 거죠?
예.

참 마을에 옛날에 줄다리기 행사도 있고 그랬다고 그러던데요?
그게, 그러게 그게 내가 이장보면서 노인네들이....

그러니까 2005년부터 15년까지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5번 연임하신 거죠. 2년씩...?
그렇게 됐나... 내가 이런 얘기 해면 저거허지만 239만원 내가 인수받었어.

걷어서 기금을 마련하신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떡해. 마을 땅은 있어. 마을 땅은 한 1,200평 있는데, 그거 말고는 나오는 돈이 없는 걸.

마을 땅은 어떤 땅인데요?
옛날부터 내려왔던 거여.

그러면 그거는 임대료 같은 거 없고요?
임대료 그거 받어야 얼마 받어, 그까지거...

그런데 그 마을 행사는 어떻게...?
가만 있어봐... 그게 저기여, 대정 원년부터 했대... 격년제로다가, 줄다리기를. 마을 자체에서, 옛날에는 지원도 안 받고 그냥 마차로다 가져다니면서 집에 볏짚들, 볏짚들 저기 인제 잘 사는 집은 좀 몇 단 더 내고, 뭐 못 사는 집은 해고, 없는 집은 할 수 없구 그래가지고 해서 그걸 갖

다 엮어가지구 우리 자체에서 핸 거여 그냥. 그래가지구 떡 갖다...

마을 주민들끼리요?

마을 주민들끼리. 그래서 인제 내가 이장보면서 저기 했더니 너무 힘들구 나이둘구 못 해겠다고 그래서 아 나 이장보는 데까지만 도와달라고, 내가 열심히 핼테니까. 왜 그걸 없애냐구. 그러면서 나 때부터 인젠 지원금이, 시에서 지원금이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니까 이장 처음 시작한 게 2005년도부터면, 그 줄다리기 보조...?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근대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그냥 제사만 지내고 말었어. 줄다리기 못 해고.

대정 원년서부터 줄다리기는 아까 매년 했다고 그랬죠?

아이 격년제로. 격년제로 해다가 시 지원이 나와가지고 매년 핸 거여.

지원금이 얼마 정도 나와요?

뭐 그때 한 400만원 정도 나왔다가 점점 올렀지.

제사는 그러면 마을회관 앞에서 지내세요?

아 그 줄다리기 행사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했다가 지금은 아주 인제, 나때부터 회관 짓고나서 정착을 거기서 해버린 거여.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어디에서 했어요?

저쪽 공원이라고, 저쪽 공원, 공원 앞에 거기서.

아 정자 지어놓은 데요?

예. 저쪽 거기에서 했다가 또 저기 회관 옆에 방앗간 그 옆에, 거기서두 했다가... 뭐 사람들이 뭐 손 없는 쪽으로다 핸다고 그래가지구 그렇게 잡어. 그래가지고 했었지.

몇 시쯤에요?

그냥 대개 7시쯤 (달) 오를 적에, 고때쯤 해요.

지금 행사하는 데는 마을 분들이 전부 다 참여하나요?

뭐 외국인도 참여해고 많이 했는데, 저 마산리 같은 데는 더 오래됐어요. 우리 동네보다. 역사가 오래 됐으니까, 근데 거기도 못 해먹겄다고 인제 손 들었어. 근데 우리는 유지 해긴 했었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작년에도 못해고 올해도 못해고 그랬지.

제사는 그럼 줄다리기 하기 직전에 지내나요?

예.

그 절차는 어떻게 돼요?

그 저기 삼색 과일로, 내내 그거지 뭐.

제물은 삼색 과일이고요...

저기 돼지머리 놓구, 실 이렇게 해구, 떡 해구, 이렇게 놓구. 이장이 초헌관 되가지구. 고 담에 인제 지도자 해구, 시장 오면 시장 해구...

여기 작목반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작목반은 한 40년 됐을 거여.

그러면 옛날에 작목반은 논농사 지을 때...?

아니 채소 작목반.

작목반은 몇 명이나 되요?

지금 20명 뿐이 안돼. 내가 작목반장 봤을 적에 웬만한 사람들 편해게 해줬어. 농사도 안 짓고 그러면서 뭐하러 작목반에 들어 돈 12만원씩 내구.

그럼 작목반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사업 있으면 사업, 에이 그런데 지금들은 우리네처럼, 내가, 내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네처럼 그렇게 열성적이질 않어. 있으면은 그냥 회의도 해고 메시지 보내가지구 요때는 요 사업 있으니깐 올려라 뭐해라 이렇게 해고 정보지 같은 거 있으면 주고 그래는데, 지금은 해는 것도 없어. 그래서 거즘 이장이 다 맡다시피 해고. 코로나땜에 작년에는 한 번도 못 모이구. 올해도 못 모이구....

감사합니다.

윤증순(여, 1957년생, 하북3리)

일시	2021년 8월 14일
장소	하북3리 마을회관
구술자	윤증순씨는 마산에서 1982년 새마을촌으로 이주하였다. 마을의 부녀회장, 진위면부녀회 총회장, 소방소 대장, 송탄소방서 연합대장, 주민자치위원장 등을 지내며 마을과 진위면에서 오랫 동안 봉사활동을 해왔다. 현재 하북3리 새마을촌 이장을 5년째 맡고 있다.
면담자	장연환

경상도 쪽 사투리를 쓰시는데, 그쪽...?

예 예. 마산.

마산에서 태어나셔서 이리로 시집 오신 거예요?

예. 결혼해서 왔어요.

어떻게 이쪽 분을 만나셨어요?

아니 같이 마산에 계시는 우리 신랑이 신문사 근무하고 있었는데,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애기가 많이 아팠어요. 애기가 많이 아팠는데 우연치 않게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몇 년이나 되셨어요? 이쪽에?

4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80년대 초반에 들어오신 거네요?

그렇죠. 80년도 80년, 그때 왔죠. 우리 딸을 낳아서 왔으니까. 우리 딸이 아파서 딸 살릴라고 여기 왔으니까.

따님이 어떻게 아프셨어요?

우리 딸이 어릴 때 하도 많이 아파가지구, 그냥 진짜 못 살 것 같으면 안 살릴라고 했는데, 정말 어디 지명을 잘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지역을 한번 떠봐라고 해서, 그 소리에...

마산을 뜨라고 해서요?

예. 그래서 그 소리에 자식 하나 살릴라고 무작정 이렇게 상경을 했어요. 요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젊었을 때부터, 30대 초반부터 제가 봉사활동을 시작해가지고 한 30년을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에 크고 작은 단체장은 다 해봤어요. 그래서 부녀회장, 부녀회장 총회장, 소방소 대장 저 우리 송탄소방서 연합대장 또 주민자치위원장. 지금 현재는 이 청소년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금 인자 이장을 보고 있으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인제 옛날에는 주민자치위원이지만 지금 자치회로 해갖고 시범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 거기에서 이제 지금 예전에 우리가 자치위원장 하시던 분들이 지금 자치회장을 맡고, 제가 이 부회장을 맡고, 저희 안병무씨 인제 우리 사무국장 맡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또 인자 하고 있어요.

이쪽에 오셔서 그래도 뭐랄까 굉장히 큰 근심을 안고 있었는데, 이쪽에 오셔가지고 뭐 어쨌든 그 따님을 위한 마음으로 하셨는지 천성이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그래서 또 하시는 일도 뭐 막힘없이 돈 번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지역에 좀 애정도 많이 인제 갖게 되셨겠어요?

예. 그래서 인자 지역에, 우리 북부 쪽으로 저기 '송사모'라는 게 있어요. '송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제 제가 거기에도 가입돼 가지고, 이 문화나 역사나 이런 걸 갖다 많이... 뭐 회비도 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이런 일을 하고 또 문화원에 제가 자치위원장을 할 때도 문화원에 하고 제일 처음에 3·1 운동을 핸 게 진위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앞에서 재연하는 첫 번째 행사도 제가 했고 제가 막 안 된다는 거를 많이 했어요.

진위에 꼭 필요하신 분이네요. 그러면 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억지로 떠밀려서 요새는 막 이장님도 막 억지로 떠밀려서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보다는 다년간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도 또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실 것 같은데요?

인제 제가 밖으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인자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도 제가 잠깐 내리고 이랬는데, 근데 밖에 일을 하고, 제가 '잠시 좀 손을 놓고 지역에 일을 안 하고 쉬어야겠다.' 했는데 지역 사람들이 인자 '여태 밖에서만 봉사활동 했으니까 동네를 위해서 일을 좀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구가 나와서 '내가 이장을 하겠어' 하지 않고 당연적으로 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제가 이장을 하게 되어서 지금 인자...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4년하고, 5년 째입니다. 벌써 5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또 이장님 때문에 또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여기 오셔가지고는 이 가계 즉 경제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희들, 저희 남편이 여기 일성제지라고 회사가 있어가지고 일성제지에 다녔었어요. 다니다가 저기 95년도에 저희 신랑이 다쳤어요. 크게 다쳤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인자 농사 일을 시작을 했어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 해본 일도 없이 다 해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제가 '농사를 한 번 지어봐야겠다.' 하고 인자 오토바이 배우고, 트럭 배우고 해가지고 해야겠다 해서 조금 농사를 한 여덟, 하우스 8동을 지었어요.

이제 하우스 뭐 보통 한동, 두동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동은 웬만하면 기본이 150평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래가지고 조금 하다가 인제 부녀 회장을 하면서 그때 젊은 나이부터 부녀 회장을 하면서 인자 그거를 했어요.

그때가 연세가 어떻게 됐었죠?

그때 30대예요. 30대. 제가 봉사활동을 90, 인자 부녀 회장을 96년도에 했어요. 그전부터 봉사활동을 했지만 인자 부녀 회장을 하고 회장 자리를 앉은 게 96년도부터 앉았어요... 부녀회장부터 시작해 갖고 뭐 단체장이라는 단체장을 막 그냥 좀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외지에서 얼마나 진위에서 인재가 없으면, 외지, 객지 사람을 뭐 이런 단체장을 시키냐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했죠. 그래서 1년 후에, ‘내가 1년 동안 봉사를 했지만 진위면을 위해서 했지 내가 마산을 위해서 이런 거 한 거 아니잖아’ 그랬더니 그때사 그 말 핸 사람들도 누가 그런 소리 했냐고 막 그랬었어요. 정말 미친듯이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우리 애들 때문에 봉사는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뭐 저거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어디가 돈이 생기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것도 했는데, 그래서 그중에서도 10 사람 중에서 네 사람만 잘한다 하면 또 잘할 수 있죠 힘 받아서 잘 하잖아. 그래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온 것 같애요.

그때는 이제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 바깥 사장님께서 직장 다니시니까 수입은 그 직장 수입으로만 하시고, 그 이장님은 그냥 계속 지역사회 일을 맡아서 하신 거네요?

예. 지역사회 일을 맡아서 하면서 저게, 그거 했어요. 요기 마트, 수퍼마켓도 3년을 했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라고 준비해갖고 농사도 좀 짓고 그래서...

그때 마을에 수퍼가 있었었어요?

예. 제 가게 말고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마을이라는 게 대부분 서로 알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인제 가게를 해왔는데, 또 하나를 새로 차리게 되면 그분이 싫어하셨을 것 같은데요?

원래 두 개 있었는데, 한 분이 저를 줬어요. 자기는 인자 ‘나이가 많아서 못하겄다. 해라.’ 그렇게 해서 했죠.

몇 년 몇 년 하셨는데. 2년...?

2년 했는데 달래. 3년 계약을 했어요. 그때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했는데, 제가 계약서를 쓰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돈을 주고 복덕방을 쓰냐?’, ‘돈은 내가 낼구마.’ 저거 돈이, 우리 애기가 아파갖고 여기 빈털터리로 와서 월세 방을 살았어요.

얼마에 월세 하셨어요.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월급도 얼마 안 나왔는데, 그때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몇 천 원씩 했어요. 방세가...

보증금 없이요?

예.

30대 아주 청춘 때 오셔가지고...

여기 회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기숙사를 여기 빌라에 있으니까, 퇴근하면서 인자 '사장님 뭐 찌개거리 좀 해놨어요?' 하면, 해 주면은 기숙사 가져가서 다 먹고 하니까. 저는 인자 한 달 외상 줬다가, 예전에는 한 달 돈 받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수입이 괜찮더라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팔아갖고 시장 봐서 장사를 하고, 다 받을 때는 목돈을 받으니까. 그리고 제가 장사를 시작하면서 하루에 그때 돈으로 2만 5천 원씩을 매일 우체국에다가 저축을 했어요.

아까 그 회사라고 하셨는데 그럼 주로 어떤 회사들이었나요? 기숙사가 있는 회사가?

여기가 저 칠성고분자.... 칠성고분자가 있고 솔고라는 의료기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영풍제지가 있고, 일성제지가 있고. 예 이런 4개의 큰 회사의 사람들이 인자 교대, 3교대 근무를 하는데 교대 근무하면 매일 같이 오셨었죠.

그러면 이 회사들이 전부 다 자체 기숙사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기숙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칠성고분자만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 나머지는 직장에서 인자 그냥 출퇴근할 때 저희 집에 들려 식사를 하고 가고 뭐 그랬었어요. 그리고 인자 여기, 여기 기계 놔러 오는 사람들도 밥도 인자 이렇게 해주고. 영풍제지, 일성제지 기계 수리, 기계 교체, 이래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해주고 막, 하여튼 돈 벌려고 열심히 했어요. 하하하...

그때 여기 처음 오셨을 때, 이 동네는 몇 가구나 살았어요? 3리가?

이 동네는 여기 지역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부가, 전라도 사람이 제일 많고, 강원도 사람, 인자 경상도 사람. 이렇게 지역 사람들이 곳곳에서 많은데 주로 제일 많은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 제일 많고...

왜 전라도 사람이 제일 많죠?

이 마을이, 지금 마을의 유래를 이야기하지만, 이 마을이 새마을촌이에요. 이름이. 새마을촌이 왜 새마을촌이고 하면 저게 송탄에 선생님 쪽에서 예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해가 났는데, 수해 나는 이 수재민들을 갖다 여기 집을 지어가지고 두고 살게 만들은 동네라...

이장님 오실 때는 몇 가구 정도 살았어요?

제가 왔을 때는 가구 수가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왜 많았냐면은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다 셋방 살이를 하고 있었으니까. 한 집에 보통 다섯 집 여섯 집을 다 살고 있었어요.

아 세,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지금은 한 가구에 거의 한 집을 사니까 가구 수가 지금 우리가 거의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은 지금 현재 한 90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관리 이렇게 해보면 한 60 정도 돼요. 그런데 그때는 세 사는 사람이 한 집에 많아갖고 지금보다 가구 수가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제 거주하는 가구만 60가구가 거주하는 거예요?

90가구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손 들어 가는 데가 한 60몇 가구, 70가구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기 여기가 저기 역전 뒤에 거기 있는 데까지가 저희가 구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에까지 인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가 저희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중에 1인 가구들이 많죠?

거의가 지금 1인 가구가 많아요.

그러면 옛날부터 여기에 인제 뭐라고 그럴까요. 결혼을 하고... 그니까 1인 가구는 아무래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지 않고 여기에 완전히 정착한 집은 몇 집 정도나 되나요?

이 지역 사람들요?

아니 그러니까 외지에서 왔던 아니면 여기 지역 사람이던, 어쨌든 여기는 처음에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정착한 그 그니까... 작년에 왔다 하더라도 그 완전히 이주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살려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의가 인제 여기에 다 있어요... 3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살고 정착하고 있는 사람. 여기 한 사람 빼고... (숫자를 38가구까지 헤아린 후) 한 40가구 정도 되나 봐요. 여기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오랫동안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땅이 있고 그를 떠나서 농사 일을 하는 집은 몇 집 정도나 되죠?

농사하는 집은요... 한 집, 두 집. 거의 다 넘을 줘갖고 지금, 세 집, 네 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10명 정도, 10가구 정도, 그 정도만 농사를 지어요. 그 나머지는 자기네 텃밭, 자기 먹을 거, 그런 것만 하시고...

주로 시설 재배인가요?

시설 재배도 있고, 논 농사만 전문적으로 짓는 분도 있어요. 몇 만 평을.

참... 마산에서 이쪽에 오실 때 여기 어떤 연고로 들어오셨는지?

여기 언니가 하나 살고 있어요. 친언니가. 그 언니가 마산에서, 회사가 일성제지 회사가 마산에 있었어요. 저희 집 동네에. 근데 형부가 그 회사를 다녔는데 형부가 그 회사 따라 여기 기술

자로 이리 왔었어요. 그 이전에. 근데 우리 신랑은 신문사하고 출판사만 있고 신문을 이거 해서 내는 사람이라, 하는 게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그 종이를 다루다 보니까, 형부가 이쪽에 있으니까는 이제 좀 거짓말하고 저 기술자다, 이렇게 종이를 잘 다루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형부가 소개를 해서 직장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됐어요. 여기는 도농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여기 오갖고 우리 저기 남편분이 다치는 바람에 굉장히 농사 일은 안 해본 것도 없이 다 해보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이 '그래 저기 네가 농사 지으면 우리가 땅 갈아주고 농약 쳐주고 다 할게' 이렇게 해서 인자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 하우스 8동을요?

예. 이게 농사일이라는 게, 호박밭에 예를, 우리 호박 농사를 지었어요. 호박에 병이 하나 딱 오면은 약을 딱 쳐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치고 우리 꺼 약 치면 그 벌레가 다 우리 집에 다 와서 다 안 돼, 안 되더라고. 하하하...

해서...

하우스 8동을 처음에 시작하시면 처음에 너무 크게 벌린 거 아니예요?

여덟 동은 할은 만 해요. 일을...

어유 8동이면 그게 평수로 만 해도 엄청날텐데요?

언니, 언니랑 둘이 했어요.

호박이요?

예. 애호박... 그때가 애호박이 이 동네가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가락동 시장에서도 최고로 알아주고. 그래서 내가 6시 내 고향에도 내가 나와가지고, 6시 내 고향에 내가 인제 부녀회장 할 때니까, 동네분들한테 말 잘하시는 어른들이 전라도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추천을 해갖고 인제 이렇게 이렇게 하게 6시 내고향 촬영을 하겠다 했는데. 하는데 도저히 어르신들이 촬영을 하면 뭐 리허설 하게 해야 되는데, 고것만 죽도록 따니까 PD님이 '어젯밤에 신랑하고 싸웠습니까?', 아니 제가 그때만 해도 경상도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지금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제가 안 나갈라고.. 그래 할 수 없어서 PD님이 '회장님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인제 고 호박 따면서 '호박을 아침에 일찍 따니까 기름이 쪼르르륵 흐르고 이렇게 좋다.'고 인제 이렇게 하니까, 단번에 그냥 딱 해가지고 그 6시 내고향에도 그 촬영을 우리가 하루 종일 해가지고 아침 새복에 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출하하는 것까지를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때 그 여섯 시 내 고향 나가고 나면 매출액의 차이는 좀 있었어요?... 나중에?

크게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요? 그게 뭐 더 주문하고 이런 건 없어요?

예. 워낙에 애호박이 그때도 잘, 우리 여기 애호박은 알아줬었어요. 그런데 인자 워낙에 많이

여기저기 강원도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여기서는 도마도로 많이 바꿨고 자꾸 작물을 바꿨어요.

뒤늦게 오셨지만 여기서 시설재배, 그러니까 시설 재배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쪽 하북에서 시작됐는지 혹시 들으신 거나 뭐...?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고 저희들이 왔을 때 이미 시설 재배 하우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 집에서 다...?

예. 농사짓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그래 저희들이, 저희 남편이 회사서 다쳐 갖고 병원 생활을 1년 정도 서울 이대부속병원에 있고 이랬는데, 할 때 제가 그때 농사 일을 시작했어요. 농사를, 이 내가 농사를 직접 지은 게 아니라 남의 집 일을 나갔었어요. 배추 상차 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배추 상차도 하고, 배추도 심고, 매일매일 농사 일을 다 해봤어요. 정말로 농사짓는 일, 힘든 일 안 할라고 시집을 시골로 안 갔어요. 하하하... 옛날에 선을 봐서 결혼을 했는데 아유 난 저렇게 힘들게 가서 안 살려고 안 했는데 결국은 시골에 와가지고, 그 시골 일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뭐 농사도 옛날 농사하고 다르니까요. 옛날에는 정말 힘들고 소출도 얼마 안 나고 그랬지만 지금 농사하면 사실은 이제 뭐 회사 이렇게 자영업이라고 봐야죠.?제는 농사 짓는 것도...

대농을 하는 사람은 기업이에요. 직원이 몇 명이 있고, 반장이 있고, 월급날이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대농을 짓는 분은, 야막리 같은 데 대농을 짓는 분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이장을 하면서도 마을에 어르신들이 매일 화토 치고 앉아 노는데 나이가 많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마을에서 인자 호박이나 가지나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이런 파지 같은 거 이런 걸 다 버려요. 상품 가치 없으면. 그리고 또 싸면 더 갖다 버리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갖고 한번 인자 그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좀 받아 갖고 한 번 일을 한 번 추진을 한번 해볼까. 이제 그렇게 어르신들이 다른 일을 못 해도 앉아서 하는 일이 있으니까.

재활용 용품, 파지만요?

아니, 그런 거를 가지고 건조를 시켜갖고 소포장해 판매하는 거지.

저는 파지라고 그래서 종이라고 오해했습니다.

하하하. 호박, 가지 이런 걸 갖다가 인저 싸게, 상품 가치가 없는 건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상품 가치가 없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농약을 적게 먹어서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죠.

농약을 잘 먹으면 반듯하게 잘 챙겨요. 근데 농약을 적게 먹고 좀 손이 안 간 데는 꼬구라지기

도 하고, 그렇게 하면 상품 가치가 없어 갖고... 그래서 건조기를 몇 개 이렇게 좀 하고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앉아서 손으로 썰고 이래 하는 건 잘할 수 있으니까... 일어서서 그런 건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하면 수익성을 전부 똑같이 나누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 거냐고 한번 어르신들한테도 한번 하니까, '괜찮다. 한번 해봐. 우리가 이거 고스톱만 맨날 치는 것보다 손 놀릴라고 하는 일이니까 괜찮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획을 못 세웠어요.

앞으로 이제 시행하시려고 하시겠네요?

한번 해볼려구요. 다른 일들을 지금 다 손을, 봉사활동을 워낙 여기저기 많이 하다가 지금 많이 손을 내렸거든요. 시에서 하는 그 재난안전과의 안전 모니터 그런데 인자, 평택시청 쪽으로 나가서 이제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자제하고 줄여야 인자...

여기 지금 마을 조직은 대동회하고 부녀회하고 두 개 있나요?

아니 노인회가 더 있어요.

아 그렇죠.

지도자회도 있는데, 지도자회는 회원이 없고 지도자님만 있어요. 지도자 회장님만. 그래갖고 이자 저희가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지도자님, 부녀회장, 노인회장, 이장, 개발위원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동네 의논을 이야기하고 결과물이 나오면 회의에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인자 그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안 하죠. 그래서 임원들끼리만 그냥 전화상, 그것도 나이가 좀 드시니까, 그것도 안 돼요. 다른 뭐 이런 걸 핼라 해도 안 되니까 내 거부터도 안 되고 하니까, 전화로 하고. 아니면 몇 번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복날, 말복이라서 아 어르신들을 모아갖고 좀 해 먹여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해마다 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복 때도 닭을 두 마리씩, 딱 다 들은 삼계탕을 두 마리씩 포장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마을에 다 돌렸어요. 우리 마을, 마을의 돈 가지고.

마을 기금은 어떻게 마련해요?

저희 마을 기금은요.. 그런 것도 이야기해야 돼요? 하하하...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이장님들이 10년, 20년 해도 마을에 기금이 없었어요. 돈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돈이 없어 갖고 이장 보기가 힘이 들어서 이장을 아무도 안 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인자 한 번 보면은 그 사람 보고 계속 봐라 했으니까 10년씩을 이래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이 나오는 데가 좀 있어요. 그게 우리, 저기 SK나 뭐 저기 LG유플러스나 이런 거기 요게 옥상에 안테나가 3개 정도 있어요. 거게서 1년에 150, 150 뭐 450 정도 나오고, 또 인자 여기 회사에서 또 조금 주는 데도 있고 해서, 한 일 년에 약 1천만원 정도 수익성이 있어요.

이거는 건축한 지 그렇게 오래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래 됐는데, 이게 2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한번 이거 리모델링을, 저기 5500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럼 이게 2000년 무렵에 지어진 건가요?
2천년 정도... 예. 아마 그 정도 좀 지어, 2천년 되기 전에, 그때...

그 전에도 그러면 여기 마을회관이 있었어요?
그 전에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좀 허술하게 좀 있었죠.

이 자리에요?
예 예.

여기가... 대지, 건평이 얼마나 돼요?
여기가 한... 평수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지을 때 제가 안 지어가지고, 저 앞에 하던 이장님이 지어가지고. 그리고 요기는 인제 요기 여자 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고, 저쪽에는 남자 방이라고 인자 여자분들하고 남자들하고 같이 가기 뭐하니까, 저쪽에 사랑은 남자분들, 이 여자분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매일 인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여기서 식사를 하셨잖아요?
점심하고 저녁은 거의 해요.

다른 마을 같은 경우는 점심만 하는 데가 많던데요?
저녁은 못 먹어요. 근데 우리 마을에는 이게 도농 지역이니까 반찬거리가 많아요. 오이, 호박, 토마토, 다 가지고 와서 먹어요. 농사짓는 분들이 상품 가치 없는 걸 다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동네에서 정착하신 분들은 대부분 점심, 저녁을 다 여기서 해결하신 거예요?
직장을 안 다니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 계시면 두 분 다 드셔요. 할머니가 이 곳에 있으면은 식사할 때 되면 전화해서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전화해요.

그럼 1년 내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1년 내내.

보통 다른 마을 같은 경우는 그 겨울하고 한겨울하고 한여름 봄 가을은 농사 때문에 막 일들이 많으니까 또 안 하시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뇨. 없어요 저희들은. 다 열고, ‘들어가서 정말 일을 해서 밥을 그거 할 수 없으면, 여 와서 밥 먹고, 점심시간에 여 와서 밥 먹고 가라.’ 이렇게 해서 또 밥 먹고 가고...

실례지만 시에서 나오는 돈은 얼마 정도 되요?... 시에서 노인정으로. 그러니까 부식비로요?

부식비 같은 경우는 정확한 액수는 저는 몰라요. 우리 노인회하고는 따로 관리하니까. 지금 뭐 이거 관리비, 수리할 수 있는 돈이 20만 원 정도, 21만 원 정도 나오고.

1년에요?

1년에 나오는가... 1년에 나오나 봐요. 그렇게 나오고...

이 건물 관리비요?

예. 저 이런 거 고장 나면 고치라고. 그리고 저기 우리 아줌마들 거기 한 사람을 지정을 해갖고 혼자 사시는 분들 청소하고, 밥하고 하는 사람을 해갖고 한 달에 2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들이 한 사람은 이름을 해고도 이제 이 공동 기금으로 다 써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1년에 마을에 나오는 돈이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60만 원, 90만 원, 이 정도 나온다더라고요. 예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돈 충분히 운영해서 쓰고 있고 그 담에 인제 우리 노인정에서 일 년에 두 번씩 그 관광을 가요. 갈 때 인자 저희들 마을에서는 갈 때는 회사를 안 다니는데, 제가 노인정에서 간다 하면은 노인 회장님 모시고, 노인회 총무 모시고 회사마다 다 가가지고, 우리 노인네들이 이렇게 가시니까 찬조 좀 해라 해갖고 회사 같은 데서 찬조 다 받아갖고 가면, 뭐 갔다 와도 돈이 거의 손해 안 갈 정도 돼요. 제가 다니면서 다 30만 원, 20만 원 다 받아드리고...

한 번 가면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하루 가면은, 하루 당일 치기를 가면 200 정도 드는데, 자고 오는 데 가면 한 4~500 들거예요.

노인회 총 인원이 몇 분 되요?

노인회 인원은 거의 약 40명, 약 40명인데, 안 가시는 분도 있지마는, 그때 되면 뭐 어르신들이 걸음을 못 걸으신 분, 잘 안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인자 저희 이장님 따라가죠. 부녀회장 따라가죠. 뭐 좀 하는, 일할 사람들 좀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저희 그냥 한 차 하면은 충분해요 자리가... 항상...

그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대대로 살아온 마을보다 더 활기 있게 잘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이 정말 각 곳에서 모여가지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곳인데, 정말 이렇게 동네 우애하고, 뭐 이렇게 친하고 잘, 이 먹을 때 불르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다른 동네도 부러워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모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시도는 전혀 안 해보시고요?

우리 딸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딸이 아파가지고 여기를 왔다고 했잖아요. 딸이 아파 가지고 돈 벌 수는 없고 집에서 부업을 했어요. 롯데제과 들어가는 하드 꼬챙이, 인형 만드는 거, 이런

거 부업을 다 집에...

하드 꼬챙이...?

하드를 만들라고 하면은, 아이스크림 만들려면 이 손잡이 나무 꽂는기 문양이 있고 없고 하고 그걸 착착착착 해가지고 하는 작업이, 그 부업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인형을 꿰매가지고 갔다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집에서 부업을 많이 했었어요. 애를 아침에 학교를 데려다 주고, 그때만 해도 차도 없고 뭐 가난하게 애기 하나 살릴라고 왔으니까. 차도 없고 애기 학교 데려다 주고 끝나면 가서 데리고 오고 집에서 부업하고, 이렇게 했죠. 우리 신랑이 또 다쳐서 아팠고 그러니까 다 했는데 ‘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랬나? 봉사를 좀 하고 살자’ 그래서 우리 딸이 학교 가면서 제가 봉사활동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일찍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집은 장만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땅을 사가지고 그래도 그때만 해도 욕심이 없었어요. 너무 돈이 겁이 났고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땅을 많이 살 수, 기회도 있었는데, 이제 달달이 2만 5천 원 저축했으니까 3년이면 돈이 얼마겠어요. 돈이 좀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인자 뭐 이렇게 저렇게 돈을 조금, 10원도 없이 살다가 돈을 조금 벌었어요. 근데 ‘인자 내가 집을 짓고 살아야겠다.’ 생각을 그때 인자 장사를 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한테 땅을 삼백 평만 저한테 팔아라고 했어요. 그 어르신이 땅이 1,500평을 가지고 있는데, ‘300평을 팔아라 잘라서 팔아라.’ 하면 안 팔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집을 짓고 살려고 그런다.’ 그때 땅 시세가 6만 원인데.. 내가 내가 10만 원 줄게. 내거 만들라면 비싸게 주고 내 거를 만들어야지, 싸게 해가 내 거 안 되잖아요. 또 짤라주는 땅인데. 그랬더니 ‘정말 그게 절대 농지인데 니가 집을 짓겠냐?’ ‘네. 지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 그 아저씨가 쾌히 돈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300평 주더라고요. 그래 300평을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 300백 평을 구입을 했는데, 친한 친구가 객지에서 두 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니네들 100평씩 줄 테니까, 니네들도 집 짓고 같이 살자. 늙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외롭게 객지 생활했는데, 같이 살자.’ 해갖고 100평씩을 인자 돈을 받고 줬어요. 줘가지고는 인자 제가 집을 먼저 지었죠. 근데 절대 농지에서 집을 여 짓는 거 보자고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농사를 좀 짓고 하니까 인자 그렇게 해서 농가 주택을 지었어요. 그래서 인자 내 친구도 인자 집을 지을라 하니까, 직장을 다니니까, 농가 주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친구 신랑이 인자 농사를 조금 해가지고, 거도 한 채를 더 지었어요.

우리 집 옆에다가. 그 옆에 친구는 인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파트 살다가 보니까, 여기에 집을 못 짓고 지금 땅을 비워놨는데, 그 땅이 지금 집을 짓기가 좀 힘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자 땅을 사서 집을 제가 지었어요. 그 집을 절대 농지에 집을 짓고 수도를 그까지 끌어가고 그러니깨는 전부 다 ‘수도를 어떻게 오고 네가 뭐를 어떻게 해 오는 거 보자.’ 했는데, 수도도 고 끌고 오고, 하수도도 하고. 하여튼 어쨌든 어떤 사람이 도와줬든 다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인자 저희 집 옆에, 그 허허벌판에 우리 집 한 채만 있었는데, 지금은 집이 한 다섯 여섯 채가 있어요. 그거 다 갖춰져 있으니까 허가가 나잖아요. 그게 없으면 지금도 조금 떨어지면 허가가 안 나요.

도시가스는 몇 년에 들어왔어요?

작년에 완공을 했어요. 제가 도시가스를 였는데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3~4년. 작년에 완공했나? 재작년에 했나? 이게 돈을 한꺼번에 돈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돈을, 예산을 도에 가서 받았을 때 최호 도의원님이 이제 좀 도와주시긴 했는데, 돈이 예산이 하니까 또 1년 되니까, 자재값이 오르고 이라는 게 또 안 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러다가 가스를 못 였었겄다 싶어가지고, 저기 가스를 우리 마을 공원 있는 데를, 일단 동네꺼정 끌어땡기는 작업부터 1년 동안 했어요.

그게 할 때, 인제 비용 부담은 어떻게 돼요?

저게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어요.

전액이요?

아니, 전액은 아니죠. 그 우리 가정집에 한 사람씩 들어오는 데가 400 한 3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구당 43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예. 도에서 제가 2억 받고, 다른 동네 들어가는데 다른 마을에서 안 하겠다 하는, 또 고덕(면)에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해주는 데도 있고 이라니깨네 돈이 좀 남았어요. 그래 제가 거기 가서 또 2억을 이렇게 해가 왔어요. 얼른 그것도 안 하면 반납시키는 돈이니까는. 그렇게 해서 저희 동네가 단번에 못 들어와갖고 2년, 공사로는 2년 만에 끝이 났어요. 근데 저희 집까지는 여주겠다고 했는데, 저희 공사를 시작하면서 저희 집까지는 돈이 많이 들어서 못 넣는다고 해갖고, '아니 거기까지 하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우리 집에 있는 데 다섯 여섯 가구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안 돼가지고 그래 일단 마을은 여야 되겠다. '뭐 내 안 들어가면 어때' 그래갖고... 우리 집만 빼고 요 동네만 공사를 해서 였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지금은 편안하게, 이거 마을 회관에서도 가스를 편안하게 쓰고 다 그렇게 있어요.

그때 그러면 430을 모든 가구가 또 동일하게...?

아니예요. 내가 집이 길에서 몇 m 이상 먼 사람은 조금 더 내고...

보통 한, 대체로 한 430만원?

430만원.

그 부녀회장님은 언제 하셨어요?

96년도부터...

그때는 부녀회가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때는 활동이 많았죠.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하는 일이 좀 솔직히 좀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경로 잔치 하면은, 마을에서 경로 잔치를, 마을에서도 해줘요. 면에서도 하지만 네마을에서도 갱도 잔치를 인자 아침부터 음악 그 민요 틀어놓고 부녀회장들 전부 다 한 복 한 벌씩 이

렇게 개량 한복 맞춰서 입히고,

부녀회원들이요?

예. 부녀회원들이 전부 다 똑같은 한복을 한벌씩 입고, 그래가지고 저기 어르신들 반찬 만들고 하루 종일 먹고, 동네에서 놀고, 그렇게 하고 윷놀이도 하고, 그전에는 관광도 모시고 많이 다니고 폐품도 하고, 마을 청소도 하고, 예전에는 새마을 진짜 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인자 쫌...

그러면 경로 잔치는 주로 어떤 날 하세요? 날짜를...

5월 8일 날이 어버이날인데 아들 딸들이 많이 오니까, 땡겨서 해, 당겨서. 항상 땡겨서.

지금은 부녀회가 어떤 거 하나요?

지금은 동네에 일단은 기금이 없어요. 예전에는 판매 사업도 인자 많이 했어요. 젓갈, 김, 이런 판매 사업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폐품 같은 거 해가 돈이 많이 생기고, 또 부녀회서 경로잔치를 하면은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찬조하라고 제가 전화해서 불러요. 농협에도 오라 그러고 누구 또 오라 그러고 다 불르면은 찬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경로잔치 하면 돈이 적자가 안 났었어요. 그 돈 갖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자 했는데 지금은 돈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딱 회비 2만 원 걷는데, 예를 들어서 25명이라 하면 1년에 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자 동네한테, 내 제가 이장이니까, ‘이장님 우리 노인회만 돈을 다 주지 말고 부녀회도 좀 돈을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돈은 한 군데로 모아야지 계속 이렇게 되면 돈이 안 모친다. 내가 가정에 살림을 살 때 한 군데 모아야지 아들 딸 이렇게 다 모으면 돈 안 모인다. 동네에 돈을 크게 하나 막 일억이라도 하나 탁 뭉쳐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고 인제 이렇게 하는데, 노인회를 돈을 150을 주니까, 그걸 반을 뚝 잘라거 분회를 주라고 노인회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인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채소 파지 이렇게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예. 그런 거 한번 진행해 볼라고요.

뭐 다른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다른 사업은, 원래는 마을 만들기를 할려고 했어요. 마을에 인자 꽃길 좀 가꾸고, 지금 우리가 저기에 있는 공원이, 공원이 있지마는 공원이 실제적으로 공원도 아니더라고요. 나 저거 몰랐었어요.

어디가 공원이 있죠?

여기 나가면은 바로 하북마트가 있는데 하북마트 바로 옆에 그 길 쪽으로 가면 저희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가스를 넣으면서 가스 저압기를 거기에다가 놨는데, 아니 공원에다가 놓으면 된다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딱 하니까 공원이 아니래요 그 시설 자체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스를 정확히 놓을 곳이 없어서 가스를 못 놓는다 하니까, 그러면 지하로 여야 된다. 지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는 거야. 그럼 지하를 여라 일단은 내가... 그래서 그 땅을 파서 지하

를, 저압기를 지하에 묻었어요. 공원이 위에 있으면은 위험 그거 하고 이라니까, 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압기를 그 공원에 지하를 파서 묻고, 다시 공원을 복개를 시켰어요.

오늘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이순님(여, 1943년생, 하북3리)

일시	2021년 8월 29일
장소	이순님씨 주택 마당
구술자	이순님씨는 1973년 새마을촌이 처음 조성되었을 때 서정리에서 이 마을로 이주하였다. 이후 다른 이주민들의 출신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을 이주민들의 삶의 과정을 고스란히 밟고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면담자	장연환

할머니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디서 사셨어요.
서정리요.

서정리 어디서 사셨어요?
갈평 입구 그 건널목 있는데.

지금 고가도로 있는 데요?
예 옛날에 그 대장간이 있었지요.

거기 대장간이 있었어요?
예.

네. 아 거기 그 육교(갈평 마을 넘어가는 고가교) 나기 전에, 거기 건널목 있을 때요?
예.

거기서는 농사 지으셨어요?
아니요... 구멍가게 조그맣게 이렇게.

그 대장간 옆에서요?
예.

근데 왜 이쪽으로 오셨어요?
철거돼가지고.

대장간 옆에 인제 구멍가게를 했는데... 구멍가게 왜 철거됐어요?

불량 주택 그 때 집들 뜯으라는 바람에...

그러니까 무허가 주택이요?
예. 몰라 우리가 거그 샀는데, 그게 인제 불량 주택이라고 도로가에 헌 집들 막 뜯어가지고 그 때 이 동네에다 다 몰은 거요.

그러면 그때 여기 같이 그 근처에 사신 분들이 몇 분 들어오셨겠네요?
이사 와서 막 팔고 가고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 갈평 있는데 거기 분들이 여기 처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거그서도 오고 뭐 하북서도 오고 사방데서 왔지요.

그냥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나오기만 한 거예요?
여그다가 인제 그때 집 조그맣게 오두막살이 집들 지 줬지... 터 해...

터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예요?
예

요 자리에. 집은 방 몇 개였어요?
그때는 방 두 개. 두 개짜리 있고, 세 개짜리 있고 근데 우리는 두 개, 부엌 하나 그렇지.

부엌 하나요. 그러면 시멘트로 지었어요.
보로쿠로...

마루 같은 건 없고요?
마루 조그맣게 하나 있고.

마루 조그맣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수는 몇 평 정도 됐을까요?
12평이라고 허든가 몇 평이라든가. 나도 모르겄네 잘...

그러면 서정리에서 돈도 못 받았는데, 그 집은 얼마에 사셨었어요?
그 집은 그 때에 얼마에 샀나? 좀 싸게 사기는 샀는데 얼마에 샀는가 확실한 건 모르겄네

그럼 여기 들어올 때 그 집은 뭐 돈을 냈어요?
돈도 안 내고 그냥 뜯었지 인자. 철거된 거지.

네 철거되고 여기 그럼 들어와서 사는 집은 돈 내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 당시는 안 냈지 인자.

공짜로 준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인자 터만 그때 얼마씩 주고 샀을걸요.

집은 그냥 그대로 시에서 지어주고요?
예.

터를 몇 평을 사셨어요? 그때?
이게 100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잘...

그럼 이 터도 맨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정도 터예요?
예.

그럼 터는 꽤 넓게 줬네요 시에서. 100평 정도...?
100평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께서 처음 여기 들어온 입주민이시네요?
그렇지요.

여기 들어왔을 때, 인제 이사 오시니까 여기 몇 가구나 살고 있었어요?
그때 저 앞에 드문드문 있는 집만 있었어요.

여기가 마을회관이잖아요.
예. 여기가 마을회관.

그 앞으로? 길가로 지금 길가....?
응. 길 너머로. 요쪽으로는 없었어. 요쪽으로 저 뒷집이 하나, 두 개 있었나?

아 2개 있고, 저기 서탄 가는 길 너머로만 드문드문...?
너머로만 몇 개, 저기 있고, 몇 집 있었어요.

그러면 요 길 북쪽으로는 세 번째 들어오셨네요? 할머니가?
우리가 세 번째 들어온 게 아니라, 그때 집을 짓고 6월 몇칠 날 왔는데... 인자 거득거득 막 이사들 들어왔지 그때

그러면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할머니처럼 그렇게 막 집 강제로 철거되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신 건가요?
예.

이 터는 그러면 몇 년 뒤에 매입을 했어요?... 한 10년쯤 있다가 땅을 사게 됐나요?
10년 안 돼서 샀나? 10년 돼서 샀나? 나도 그런 거 확실히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유 고생만 많이 하셨겠네?
우리 아무것도 없이 와갖고, 여기 와서 고생 많이 했어요.

살림살이만 들고 들어오신 거예요?
살림이나 있어요. 그때. 하하하...

항아리, 냄비 이런 걸 가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집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그때는 농사도 땅도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남에 일 댕겼죠.

무슨 일을 다니셨어요? 그때?
밭일... 배추 심구고 뭐 오이 심고 뭐 그런거 심고... 심은 데 일 댕기고 뭐... 비니루도, 그런 거 걷으러 댕기고, 별 거 다 했지 뭐. 모심으로도 당기고.

일은 주로 어디로 다니셨어요?
이 동네 한 사람이 농사 많이 지어요. 2리 사람들이 농사도 많이 짓고.

주로 2리 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거그도 가고 막 안 간 데 없어요. 하하.

그러면 오자마자 그냥 남의 일 다니셨겠네?
올 때는, 처음에는 애가 있으니까 인제 못 다녔죠. 한 3년은.

한 3년은 못 다니시다가...?
인자 막내 키워놓고.

막내가 지금 몇 살인데요?
걔가 지금 마흔아홉인가...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할아버지는 … 와갖고 그냥 남의 일 댕겼죠 뭐. 없으니까 모숭그로도 같이 댕기고 뭐. 별 것 다 했죠.

할아버지는 뭐 이 근처 회사도, 공장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인제 할아버지도 그러면 남의 농사일 해주고 얼마 받으시고?
예.

그때 처음에 오자마자 할아버지가 하루에 그럼 얼마나 받으셨어요?
품값... 그때 1,500원인가? 우리 여자들. 남자나 여자나 뭐 같애요. 그런데 남자들은 잘 안 써.

그러면 할머니도 처음에 일 가셨을 때 1,500원 받으셨어요?
예. 1500원도 받다가 인제 2500원도 받다, 인제 3천 원도 받다 그랬지. 그래갖고 지금은 인자 많이 올랐지.

지금은 얼마나 가요?
지금 보면 6~7만 원 간다고 근 거 같대.

그러면 할아버지도 그러면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일자리 알아봐가지고 그날 그날 가시고 그랬어요?
예. 겨울에는 없어요. 우리들은 꺼죽 덮으러도 가고 그랬는데, 남자들 일은 없어갖고... 놀고.

그거는 야막리나요. 대정촌으로 가시겠어요?
신리.

신리 쪽으로요?
예... 신리, 야막리 그런 데.

그러면 겨울에는 아무래도 살기가 좀 어려웠겠어요?
겨울에 힘들었지요. 그 때... 밥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애들 키우기도...

그럼 반찬은 뭐 뭐 해서 드셨어요?
뭐 주로 야채지 뭐. 야채밭에 일 댕기니까 그런 거, 오이랄지 뭐 그런 것도 그냥... 호박. 대충 그런 거지 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인제 그런 건 아무래도 일 다니시면 그 집에서 이렇게 좀 파지 같은 거...?
응. 쪼끔씩 파지 그런거.

그런 거 좀 얻어오시고, 아이고 힘들게 생활하셨네요. 여기 장은 어디로 다니셨어요?
우리는 서정리에서 살다 왔으니까 그때는 서정리로 많이 가고, 그러않으면 송탄.

그렇게 일 다니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인제 농지도 좀 마련하셨어요?
저기여... 그래갖고 남의 농사 인자 막 얻어갖고 인자 벼도 심고 뭐, 뭐도 심고 그랬지.

그래서 몇 마지기나 농사지었어요?
그때 우리 아저씨 있을 때는 남의 논이라도 꽤 많이 지었어요.

한 50마지씩 짓고 그러셨나요?
그렇게 기어가지고 막 비가 와서 다 버려불고, 하하... 그 해 같으면 진짜 농사 못 지어요. 비가 어떻게 왔는지. 가을에. 우리 농사 지을 때 벼를 비어가지고 깔아놨는데, 이리 뒤집어 놓으면 비가 오고 또 여리 뒤집, 줄가리 쳐놨는데 그것도 다 썩었어요. 그 해, 한 해는.

87년도인가 그때 가을에 가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여기 비가 하여튼 세 번이 여기 물난리가 났어요.

할머니 들어오시고 나서?
예. 막 바닥에 이 마당에 물이 허리 찼어. 그러고 다 떠내려가고, 방에까지 물 들고. 그때는 집이 얕으니까.

그러면 그 세 번이 비슷비슷했어요? 물 양은, 들어온 양이?
그 정도 들어왔을걸요. 처음에는 언제가 제일로 많이 들어왔는데. 처음인지 나중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그때 어디 뭐 이렇게...?
우리 막 일성제지로 피란 가고 하북으로도 가고 그랬어. 하하하...

하북으로는 어디로 가요?
하북은 저, 저기... 뭐 교회로도 가고 그 사람들은 그랬대. 우리는 그리 안 가서 모르겄는데.

물은 보통 한 번 들어오면 인제 며칠 그렇게 피난을 가야 돼요?
아니 하루만 피난 가면 돼요. 비만 안 오면 빠지는데...

그럼 피난 갔다 오시고 나면 가재 도구들이 전부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예. 가재도구들도 많이 버리고 그랬지요.

농사지을 때 농기구는 뭐 뭐 있었어요?
농기구는 인제 막 트랙타, 그 때는 경운기. 경운기 갖고 다 했제.

그럼 인제 경기 갖고 갈고 노타리 치고 다 하셨겠네요?
네

경운기 한 대 가지고요?
경운기 한 대 가지고도 인제 몇 년 허다가 인제 트랙터 사고.

경운기 살 때 기분 좋으셨겠네요?
몰라요. 좋은지 어떤지도 몰라. 만날 일만 막...

그렇게 해서 인제 농지도 마련하셨겠네요?
아이고 농지도 못 마련했어요.

그럼 이 집만 있으신 거예요?
예.

지금 텃밭 하시는 것 같은데...?
텃밭 저그 조그맣게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장만하신 거잖아요. 다?
예

할아버지께서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한 10년 됐어요.

그래도 같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생각나시겠어요?
그렇지요.

서정리 쪽에서 구멍 가게 한 거 하고, 여기서 이렇게 일 해 준 거 하고는 수입이 어디가 나았어요?
그때 구멍가게만 길게 했으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애요. 근데 우리가 인제 와부러서 그러지. 방 같은 거, 그런 게 학생들이 있으니까 잘 팔렸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막 집 철거되고 그럴 때는 막 하늘 무너진 줄 알았겠네요?
응. 근데 애들이 많으니까 너무(남의) 집을 못 사니까, 그냥 온 거지 이리. 그래갖고 팔고 나중에 나갈라고 했는디 인자 한 번 와 놓으니까 안 되대요.

그러면 그쪽에서 집이 헐릴 때 헐리기 전에 ‘이쪽으로, 공짜로 줄 테니까 가라.’ 이런 얘기를

먼저 듣고 헐린 거예요?
집은 그냥... 집값은 안 준 것 같애. 그래갖고 언제까지 비우라고 막...

비우라고만 하고?
응.

그럼 여기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로 인자 해가지고 자리를 다 해줬지요.

아 시에서요?
예.

그러니까 시에서 그럼 헐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 준 거네요?
인자 자리 다 됐지. 그래갖고 터는 노놔 놀 때도 와서 봤어.

그때는 안 지었었어요? 집 헐릴 때는?
응. 이사 올 때 그때는, 집 짓고 헐렸지. 그러니까 이사를 왔지 바로.

서정리 쪽에서는 그럼 몇 분이나 오셨어요?
우리 있는 데서는 우리 하고 장단(장당동)인가 거그서도 온 사람들 있고, 어디서 온지도 몰라요. 막 여그저그 왔어.

할머니 젊으셨을 때는, 여기 그 일 다니고 이럴 때는 여기 몇 가구나 살았어요?
여기 저쪽에... 저쪽 집 말고 요렇게 쪽쪽 진 집만 그때는 지었었는데. 우리 올 때.

쪽쪽 진 집이라는 게 그때 인제...?
요렇게 줄이 앞줄(마을회관 앞 동서로 난 골목) 있고, 뒷줄(마을회관 뒤 동서로 난 골목) 요렇게 있고 그러잖아요? 저가 한 집... 앞으로가...

요 회관에 있는 데로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집이?
예. 요렇게 쪽 진 집만 기여.

그럼 요 뒤로도, 뒤로도 죽 졌고...?
예. 뒤로도 한 줄.

한 줄 짓고, 요 앞으로도 한... 회관 앞이에요?
회관 앞에 말고, 회관 바로, 회관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여기가 몇 집이나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쭉 지은 집이. 두 줄로...?
요집까지 네 집, 다섯, 여섯, 여섯 집인갑다 뒷줄이

뒷줄이 여섯 집이고...
여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운데 쪽은 일곱. 근디 저쪽에는 땅을 안 사갖고 지금.

여기가 가운데 줄이고, 그럼 앞줄이 또 있어요?
앞줄은 인자 여그 세 개. 요쪽으로도 세 집

앞줄은 세 집이고요?
예.

그때도 회관이 여기였었어요? 마을 회관이?
예.

아 그때 들어오실 때부터 여기 마을회관이 있었어요?
인제 마을회관을 지었지.

아 막내 49살 먹은 막내... 낳아가지고, 그 소띠 막내... 일주일 됐는데 집도 뜯으러.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때...
3일. 일주일이 아니라 3일 되니까 집 뜯을라고 왔어.

3일. 낳은지 3일 됐는데...?
4월에 낳았는데, 그래갖고 우리가 6월달에 이사 왔어.

아 그러니까 4월달에 낳는데, 집 뜯는다고 와. 3개월 되...
일주일 된 거를 그래갖고 여기 집 짓는 데 한번 와봤지... 일주일 된 거라

그러니까 난 지 3일 됐는데 집을 뜯는다고 인제 통보가 오고 일주일 돼가지고 여기를 한 번 와보고 그 다음에 인제 6월에, 4월에 낳는데 6월에 이사로 오신 거예요?
예.

그러면 어쨌든 맨 처음에 왔을 때 16집 정도 있었네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저 앞에 한 집 가게 안에, 여그 여그 가게집. 그 집이 있었어 두 집.

아 가게집이요?
가게집하고 여그 지금 교회 헌 데하고 그 뒷집하고는 있드라고.

그러니까 세 집이 원래, 그때도 가게였어요? 거기가?
예 가게 여 교회 헌 데다 가게였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는 농사 지으셨어요?
예.

그럼 인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농사 안 지으시고... 요즘은 인제 밭일 조금씩 하시면서... 뭐 뭐 키우세요?
그냥 놀고 있어요.... 이런 것(토란 대공 손질 중이었음)만 쪼금 허고.

토란하고 고추하고...?
고추는 안 심어요. 약을 못 해갖고... 뭐 인제 깨 같은 거 심었더니 벌레가 다 먹고. 하하.

(옛날에는) 텃밭들도 못 하셨겠네 일 다니시느라고...?
그렇지요.

그때 텃밭을 못 해서 지금 텃밭 하시는 게 좀 힘드셔도 재밌지 않으세요?
못해겠어요. 이것도... 힘들어... 뭐 먹을 거 인제 조금씩 배추도 쪼끔 심고, 무우도 쪼끔 심고...

그렇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인자 식구들 먹는 거지 뭐.

전부 다 자식들 다 주시는 거잖아요?
김장 때 인자 김장해야지요.

그러면 4남매 김장 다 해주세요? 할머니가?
인제 지들 보고 해 가라고 그래야지. 인자 와서...

작년까지 다 해주셨잖아요? 미리 양념 준비하시고...
해줬지. 와서 해가요... (준비를) 다 해놓으면.

그래도 그때마다 인제 손주 보고 그러면 좋으시죠? 힘은 드시지만?
손주들... 하하...

할머니 감사합니다.

권오일(남, 1961년생, 에바다학교)

일시	2021년 12월 19일	
장소	에바다학교 교무실	
구술자	에바다 교사로 재직했던 권오일씨는 1996년 동료교사 11명과 재단측의 비리에 맞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2003년 에바다학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 주도적으로 싸웠다. 그래서 에바다학교가 정상화 되기까지의 과정을 잘 기억하고 있다.	
면담자	장연환	

에바다학교가 1970년에 맥신 스트로빗지 선교사가 세웠다고 그러는데, 어떤 과정에서 이게 설립되었는지 여쭤봅니다.[1)]

말 그대로 인제 옛날에 인제 전쟁 고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선교 목적으로 맥신 스토로비치 선교사에 의해서 인제 세워졌는데, 세워지고 쭉 그대로 운영해 오다가 처음에 설립할 때는 지금 에바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팽성의 노와리 거기에서 하다가 82년도에 현재 이 하북 이 위치로 옮겨와서 인제 그때 82년도에 법인 설립을 한 거죠. 그 이전에는 인제 법인이 아니었고...

1982년에요?

예. 법인을 설립하고 인제 학교는 86년도에 개교를 했거든요. 에바다학교

맥신 스트로빗지 이분은 미국에서 오시는 선교사인가요?

예. 미국 선교사

그러면 선교사는 교파 같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장로교인가요?

그 교파는 지금 모르겠고 어쨌든 인제 선교사로만 알려져 있고... 여기서는 그동안 우리가 최 씨 일가라고 부르던 그 이전에 이 법인 비리 주범들, 이 사람들은 기하성. 그 순복음 교회 계열, 그 기독교 대한하나님의성회인가 그 기하성이라고 부르는데...

최 씨 일가라고, 이분 성함은?

최성창. 인제 이 사태 당시에 대표이사 겸 학교 교장이었고 그 다음에 누나 최실자가 상임이사 겸 복지관 관장, 에바다 농아원 원장, 학교 행정실장 이걸 4개를 겸하고 있었죠.

---

1) 에바다복지회는 1964년 한국에서 활동 중이던 미국인 선교사 더글라스 크래이머에 의해 세워졌는데, 에바다복지회에 관련된 미국 선교사 중 맥신 스트로빗지가 1982년 귀국할 때까지 마지막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잘 못 알려진 것(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 2014, 245쪽.)을 인용하였다.

근데 선교사가 세운 시설이 최씨 일가 쪽으로 넘어가게 된 건 어떤 과정에서인가요?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이 최씨 일가들한테 넘긴 게 아니고 그 인제 '에바다농아선교회'라고 있어요. 인제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 농아인들인데 최성창 이 사람이 인제 쉽게 하면 사기를 친 거죠. 요즘도 뭐 그 법인 설립하려고 그러면 절차가 복잡할 건데 그 옛날에 82년도 당시이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이게. 그러니까 인제 농아인들이 어차피 뭐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 자기가 대신 하겠다. 그래 가지고 설립 과정을 최성창한테 일임을 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자기...

그 과정은 법인 설립 과정을 말한 거죠?

예. 법인 설립 과정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자기가 설립자로 둔갑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회 측에다 계속 거짓말을 해 온 거죠. 보고도 하고 총회 하면은. 그리고 인제 그 농아인들이, 그 농아인 목사님들이 이사로 들어올라고 그러면 '법적으로 농아는 이사가 안 된다.' 이렇게 인제 계속 사기 치고 자기는 학교의 교장이지만 봉급 받지 않고 봉사활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96년 11월 27일날 이 농성이 시작되고 난 뒤에 그때 전국의 농아인, 에바다 농아 선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속았다는 걸 안 거죠.

에바다 농아선교회에 소속된 농아인 목사님들은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정확히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한 한 30~40명 정도 됐을 거예요. 부산, 제주도, 뭐 전주 할 것 없이 전국에 다 산재해 있었으니까.

그럼 아까 왜 맥스 스트로빗지 선교사가 미국으로 귀국하시면서 에바다 농아 선교회라는 걸 이렇게 만든 건가요?

그전에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거기다가 인제 이게 당신들이 인제 운영하라고 그러고 자기네 미국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에바다 농아 선교회가 있었는데...

농아의 시설이니까..

농아인 시설이니까, 이분이 설립해 놓은 이 시설을 이 회로 넘기는 거..?

회로 넘기고 인제 자기는 간 거죠.

그게 인제 한 85년쯤 되나요?

82년.

1982년 자리 이 자리에 오면서?

예.

그러면 이쪽으로 오고 노와리 쪽에서는 계속 운영을 했나요? 아니면 거기 빈터로 남겨놓은 건가요?

거기는 인제 계속 그냥 그 최신향이라고 최실자의 언니 최선창의 제일 큰 누나죠. 거기 인제 거기는 구원사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냥 지내고 있었던 거죠.

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다가 95년도에 그 에바다복지관을 설립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다가요?

예. 현재 있는 거기 지금...

그러니까 인제 선생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70년에 맥신 스트로빗지 선교사, 이분이 농아인 시설을 설립을 했는데... 그때는 에바다하고 관련이 없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 뭐 에바다 관계 없죠. 자기가 그 설립해서 하는 과정에서 인제 어떤 농아인 시설 농아들 주로 인제 저걸 하는 거니까 인제 농아인 목사님들이나 농아인 교회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거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고..?

공식적으로 관계 있었던 건 아니고...

82년도부터 인제 넘겨서 그때부터...?

예.

그러면 “평택시사”에 나온, ‘에바다 농아인 시설을 설립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거네요? 그냥 농아인 시설을 설립한 건데?

아 그거는, 학교는 86년도에 개교했는데, 그 뭐 농아원,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저 건물인데 그 에바다 농아원이 지금은 인제 이름은 ‘에바다마을’이라고 바뀌어, 성인 시설로 바뀌었는데, 거기는 인제 학교는 교육부 소속이고 복지관이나 농아원은 인제 시청이나 복지부 소속인 거고... 거기서 시설은 농아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970년에 설립할 때는 에바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에바다의 농아선교회하고는 관련이 없이 그냥 이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설립을 했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70년에 설립되면서 에바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바다라는 이름을 넣은 거죠.

맨 처음에요?

예. 그런데 이 에바다 선교회 쪽하고 관계있는 건 아니고. 그니까 인제 그게 에바다선교회라는 게, 에바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인데 '귀하고 입이 열려라' 는 이야기거든요. 농아인들이 이게 예수님이 농아인에게 '귀하고 입이 열려 열려라', '열려라' 라는 말이 인제 그 히브리어로 에바다거든요. 정확히는 '에파타' 인데... 노래도 보면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이런 복음성가도, 찬송가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농아 관련 시설에는 많이 쓸 수 있는 이름이네요?

특히 농아 쪽에 많죠. 왜냐하면 농아인에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라라고 하는 거여서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그래서 인제 85년에 설립 인가를 내는...?

예.

그 작업이 그러면 82년부터 시작이 됐겠네요? 법인 설립이 된 다음부터?

그렇죠. 그 85년이면 농아원이 생겨난 그 핸데..

참 그러면 82년에 이쪽으로, 하북 쪽으로 옮아오게 된 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때 뭐 김형순재단이라고, 그 등기부를 떼보면 김형순재단과 합병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김형순이라는 사람 아들이 몇 년 전에 찾아와가지고 뭐 재단 내놓으라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그니까 어쨌든 그때는 인제 고아원이었던 것 같아요.

김형순 재단이요?

예. 어린이동산인가 뭐 해가지고, 거기하고 인제 합병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돈 주고 샀다고 봐야 되죠. 말이 합병인 거고 그래서 인제 이리로, 화북으로...

그러면 이 김형순 재단, 그러니까 어린이 동산에 있는 고아들도 같이 여기서 보살핀 건가요?

그래서 그게 여기... 아, 그 기록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농아인 시설이니까, 여기 농아들만 있었거든, 농아인들만 있었거든요.

김형순 재단도요?

아니 김형순 재단은 농아가 아니고. 그니까 그 과정에서 그게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아마 이 사람이 여기를 팔고 다른 데로 간 것 같아요. 정확히 그 세세한 기록은 우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농아인들 시설이라는 거는 전혀 없어. 기록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형순 재단 어린이 동산은 그냥 고아들만 있다는 것만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거네요?

그 비장애 고아들이 뭐 시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제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앞에 어떤 애들이, 그 애들이 합병하면서 어떻게 갔는지 이런 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으니까... 아마 저희 생각에는 그냥 여기다 이거 어쨌든 말이 합병이지 그냥 해놓고 이사 명단에 김형순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는데, 그냥 손 털고 나가지는 않았을 거고, 뭐 어쨌든 거래를 하고, 그 애들 데리고

어딘가 갔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합병 보면 실제적으로 합병이 아니네요? 그냥 여기는 옮겨 간 거고, 그 자리만...?
예. 땅을 샀던지 뭐 어쨌든 뭔가 돈을 지불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인제 명의가 넘어간 것만 나오지 돈 지불한 게 등기부 등 물이 안 나오니까, 옛날에는...
그 돈 지불한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 사고 파는 자체가 불법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돈을 주고 이사 명단만 그냥 뭐 회의할 때 정말 훌륭한 분이 최성창이 훌륭한데 이게 최성창을 추천합니다. 그러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이게 돈 주고 산 게 해버리면 이게 불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런 거 사고 팔 때 사학재단도 그렇고 이게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돈 거래 핸 게 나오면은 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에바다 이사장인데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100억에 팔았어. 이 돈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사회 할 때 내가 인제 ‘내가 대표이사로서 그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이 A라는 분이 정말 훌륭하다. 이분을 우리 대표이사로 추천한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사도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서류상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저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예. 이게 법적으로 이게 불법이라..

그러면 그 이전의 기록은 있을 수가 없겠네요?
예.

그 당시에, 처음에 학교 출발할 때 초등부 12학급 중등부 3학급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건가요?
그건 맞고 그다음에 인제 지금 현재에는 인제 그게 여기 뒤에 현황판 나와 있는데, 제일 위에 두 번째 위에 학생 현황, 교직원 저기 있잖아요.

그때 인제 1996년에 학생들의 농성이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농성 배경에는 아무래도 인제 학생들이 받은 불이익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학생들이 그동안 쌓여온 불만들이 좀 있었겠죠?
이제 96년도 11월 27일날 학생들이 농성을 시작해서 7년을 싸웠는데, 인제는 그 96년도 발생한 이 농성이 처음이 아니고 이게 여섯 번째 농성이었어요. 에바다에서. 그 앞에 이제 학생들 3번 더 있었고, 학생들끼리 농성 3 번이 더 있었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한번 했었고, 89년도인가 그때. 그리고 90년도에는 저기 농아원의 보육사 선생님들이 또 농성을 했었고. 그니까 이 농성이 인제 제가 오고는 처음인데, 에바다 역사로 보면 총 6번째 농성이었고, 그래서 인제 7년을.. 그 이전에 농성들은 최성창이라는 사람이 최씨 일가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농아인들을 그 이용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그 능력은 우리가 농담 삼아 ‘그 사람의 경지가 아니고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로 진짜 농아인들의 심리를 잘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항상 주동했던 사람을

통해서 다 깨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왔는데 인제 6번째인 이 농성에서 지금 흔히 하는 제대로 걸린 거죠. 제가 와서는 어쨌든 제가 93년도 9월에 왔으니까, 그 이전에 5번 농성은 학교 다닐 때 교사들이, 에바다학교 교사들이 농성한다고 소문은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93년도에 9월에 와가지고 3년 정도 뒤에 인제 이 농성이 발생한 건데, 이게 인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 비리 내용이 비리 종합백화점이기는 한데,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 정부 지원금, 쉽게 얘기하면 그게 아이들한테 가야 될 지원금을 다 빼먹은 거고 후원금이나 정부 지원금이나 예산 빼먹은 거... 그다음에 여기 제본 공장이 있었거든요. 장애인 보호 작업장 그래가지고, 책 만드는... 거기에서 이제 애들 새벽까지 막 강제 노동 시키고, 시에 그 2580 보도된 거 보면은 평택시에 보고할 때는 뭐 60만 원씩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 애들은 돈 구경도 못하고. 애들 명의로 통장, 도장 다 있는데, 그 애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농아 애들 한 70명을 인신매매한 거죠. 미국으로 돈 받고 팔아넘긴 사건. 그 한 70명인데, 그 미국에서, 한국에서 팔려가가지고 미국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인제 그걸 폭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알려지고 이랬는데, 지금 한국농아인협회장하고 있는 변승일 회장이 인제 직접 목격한 증인이죠. 옛날에 팽성 노와리 지금 복지관 자리에 있을 때... 인제 이분이 그 자기가 옆에 같이 있어서 다 봤다. 그 애들 1인당 만 달러씩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넘겼다. 그리고 인제 실제 우리 부모들 중에서도 미국으로 보낸 애 있어요. 그래 인제 흔히 하는 말로 인제 뭐 이 최씨가들은 '병신 새끼 데리고 뭐 할 거냐? 미국 가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 가지고 지들이 돈 받는 이런 건 이야기 안 하고, 그래서 한 70명을 인신매매 한 사건....

그럼 이 아이들은 가서 뭐 무슨 양자로 입양...?

입양되는 거죠. 이제 그 사건이 미국의 아들 부시 대통령 때 그 백악관 보좌관이 이걸 미국 정부 차원에서 한번 조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미국 NBC 유명한 TV 방송에서도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인제 뭐 강제 노동 시키고 뭐 폭행 이 정도가 아니고, 인제 사망, 실종, 변사체 발견 이것만 한 여섯 건이 되거든요. 사망, 실종 뭐 아직 실종돼서 찾지 못한 애들도 있고... 그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말 그대로 비리 백화점이었죠.

정말 이렇게 보통 사람이 상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 저도 뭐 여기가 그냥 비리가 많다라는 얘기는 그 당시 듣고 교문 앞에 밤에 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렇게 사망, 실종 변사체... 이 건은...

그 실제로 한 번 최미선이라고 사태 이후에 여자애 하나가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이 진위천에서. 발견 당시에 그 조두성 씨라고 그 피디 수첩하곤가, 조두성이라고 오산 분인데, 이분이 인제 거기 낚시하러 갔다가 인제 발견을 해가지고 그 직접 인제 시신을 꺼낸 사람인데, 그 사람 이야기도 '분명히 가슴하고 이쪽에 멍 자국이 큰 게 세 개가 있었다.' 그래 했는데 평택경찰서... 그 싹 덮어버리고 그 방송 보면서, 저도 방송 보면서 저는, 우리는 끝까지 타살이다. 타살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그 인제 SBS에서 취재해가지고 뉴스 추적이라는 그 프로에서 방송하는데 보니까, 수사 종결 보고서 그게 화면에 딱 나오는데 보니까, stop 시켜서 봤지. 그러니까 권오일 교사 측에서도 익사 처리하는 데 동의했으므로 이렇게 해서... 저는 그때, 지금도 타살로 얘기해는데... 그래 그때 막 보도 자료 내고 막 떠들어대니까, 다시 조사하러, 받으러 왔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뭐 어쨌든 사태 이후에도 그 걔를 그냥 단순 익사 처리를 해버린 거죠.

이 과정에서 96년도 이후의 투쟁 과정에, 한 7년간의 투쟁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면 해임만 여섯 번 당했었고, 테러 당해서 119에 한 일곱 번 실려 다녔고...

파면 해임만 6번이요?

예. 그다음에 인제 그 우리 집사람이 그 당시에 같이 에바다에 근무했었는데, 지금은 여기 지산초등학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우리 딸내미가 인제 올해 지금 4학년 졸업, 대학 4학년 졸업하는데, 얘가 임신 6개월 배 속에서 최성창 그 처남한테 1월 10일 그 추운 겨울에 교문 앞에서 주먹하고 팔꿈치로 배하고 가슴 맞아가지고 한 20분간 집사람이 실신해 있었는데, 그걸 쟤들이 검사들하고 짝짝꿍해가지고 무고죄로, 자기가 자기 배 때려놓고 인제 무고했다. 결국은 인제 1, 2, 3심 다 인제 무죄 받은 거죠. 1심 재판에서 19차까지 재판했고, 판사가 3명째 바뀌었고... 하하... 1, 2, 3심 다 인제 무죄 나왔던 건데. 그니까 그 임신한 그 선생님을 그 때려서 실신시킬 정도니까. 그래 뭐, 우리야 뭐 교실에서 똥오줌을 뒤집어쓰고 뭐 실제로 교무실 안에 커피포트에 펄펄 끓고 있는 물을 지금 우리 교무부장 하고 있는 그 신연실 선생님, 여선생님 목덜미에 막 쏟아 붓기도 하고 뭐... 그럴 정도니까. 뭐 그냥 학교에, 그렇다고 우리가 학교에 안 들어오면은 근무지 이탈이 되잖아요. 학교 들어오는 게 실제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들어오면 계속 두들겨 맞고, 얻어 터지고. 그 국정감사, 국회 국정감사를 2년 연속 했었는데 에바다 문제 가지고... 그때 그 이성재 의원이 이거 막, 제가 학교에서 맞아가고 피투성이 된 사진을 들고 흔들면서, 평택시장 그때 김선기였잖아, 김선기한테 이게 백주 대낮에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그거 할 때마다 경찰을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어

국회의원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이성재. 검사 출신 장애인 의원인데... 그때 인제, 그래서 김홍신 의원하고 이성재 의원, 김명섭 의원이라고 세 명이 에바다 이사로 들어와가지고, 이성재가 이사장을 하고 이렇게 관선 이사 형태로 하는 그런 적도 있었고... 국회의원 3명이 인제 그 이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이때가 몇 년도쯤 되나요?

99년도죠 그때가.

선생님은 아까 그 테러 당한 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조금 자세히 좀 이렇게 나열을 해 주시면?

그냥 이 주동자니 뭐니 해가지고 모든 걸 인제 제가 했다고 쟤들은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저는 더 편했어요. 맞아도 나만 집중적으로 맞으면 되니까... 하하... 근데 인제, 주로 인제, 한 번은 집단 폭행, 15명한테 한 20분간 여기 1번 국도 옆에, 여기에서 집단 폭행 당해서 그게 MBC PD 수첩에서 2주 연속 방송했어요. 제가 그 병원에 실려가 있는 걸... 그... 어쨌든 뭐 그걸 비롯

해가지고 학교 안에서 뭐 그냥 그 교실에 들어가면 뒤에 칠판 앞에, 칠판 뒤에 학습란이 있잖아요. 거기고 칠판이고 뭐 아 입에도 담기도 그런데 씨팔놈, 개새끼부터 시작해서 막 쓰고, 어떤 날은 풀을 쒀와가지고 풀을 만들어 와가지고 바케스에 담아와가지고 숨겨놨다가 여선생님고 남선생님이고 뭐 온 옷에, 얼굴에 막 풀을 떡칠 하기도 하고... 커피포트에 끓고 있는 걸 쏟아부을 정도니까. 그냥 막 두들겨 맞고, 학교에서 수시로 보면 이래 터지고 저래 끌려 다니면서 맞다 보면은 어떤 날은 막 양말도 벗겨져 있고 막, 벗겨진 줄도 모르죠. 나중에 보면 양말이 벗겨져 있어. 인제 우리가 농담 삼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잡히면 엄청 맞았지만,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 맨날 맞아가면서 하지는 않았을 건데, 우리는 맨날 맞아가면서 했거든요. 그걸...

그러면 무슨 뭐 이를테면 구사대 같은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 구사대 처음에 인제 외부에서 동원해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하다가 인제 우리가 고소 고발하고 이러니까, 이 문제가 되니까, 그다음에 그 애들을, 자기 인제 학생들 중에 인제 농성하는 애들도 있고, 인제 주로 인제 부모가 없거나 인제 부모들한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동안 당신 자식 키우느라고 한 5천만 원, 아 4천만 원 정도 돈이 들었는데, 얘 농성하면은 이거 다 청구하겠다.' 그니까 부모들이 뭐 좀 이래 생각이 좀 깊이 있는 분들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거 아는데, 그 부모들이 와서 애 막 두들겨 펴고 끌고 가, 이래가지고 거기다 다 맡긴 거예요. 그니까 얘들을 시켜, 제자들을 동원해서 교사를 폭행하는 거죠. 그니까 우리가 얘들을 고소를 할 수가 있냐고... 그니까 처음에는 인제 외부에서 사 와 가지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인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인제 애들을 동원해가지고 애들이 저게, 자기들은 막 말리는데 학생들이 교사들한테 저렇게 막 반발을 해서 자기들 잘못 가르친다고 저렇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니까 얘들이 자기들끼리 딱 무슨 북한의 5호담당제 식으로 서로가 감시를 하도록 해요. 그래 가지고 일단 막 그렇게 막 발로, 주먹질하고 막 욕하고 이러다가도 어디 학교 화장실 가는 쪽이나 가다가 보고 딱 마주쳤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막 미안하다고 그러고 가요. 근데 쪼만한 애라도 하나 있으면 막 욕하고 가거든... 자기들끼리 그렇게 다 인제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거죠.

그 정도였으면 선생님들이 인제 참여, 여기에 싸우는데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 거기에 참여하는 게...?

그때 인제 교장 교감, 빼고 21명이었는데 교사가... 그중에 인제 11명이 참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11명 교사가 7년 투쟁하면서도 한 명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전교조나 민주노총 운동하는 분들이 우리보고 도깨비라고 그랬는데, 보통 하면은 뭐 한 달, 두 달 뭐 견디기도 어렵지만, 한두 달 지나면 슬슬 빠지고 뭐 결국은 인제 흔히 하는 말로 인제 변절도 하고 인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는 그 11명이 7년 동안 한 사람도 변질하는 거 없이 계속 싸웠거든요.

그럼 인제 한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2003년에 결국 인제 해결이 됐잖아요. 정상화가 됐잖아요. 정상화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이거는 인제 말 그대로 기적인데, 어느 뭐 예를 들어서 인제 외부 잘,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인제 뭐 저나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내부에서 버텨주는 역할은 했고 이게 인제 한마디로 전국의 양심들이 연대한 결과죠. 이게 단순히 재단 비리 같으면 뭐 우리끼리 싸워도 혹시 이길지도 모르죠. 근데 그 재단 비리라는 게, 뒤에 경찰, 검찰 이게 뭐 시청, 도청할 것 없이 거대한 관청들이나 이런 쪽하고 권력기관들하고 같이 끼고 짝짝꿍 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비리가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증을 그 이중으로 만든 것만, 확인한 것만 그때 그 86명인가 그랬는데….

그… 누가?

한 사람을 2명 만드는 거죠.

학생들이요?

학생들을. 장애 애들을. 그니까 한 사람을 한문 이름을 바꾸든가 설병석이라는 애는 이호영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 더 만든다든가… 이런게 지원금을 더 받아 먹고. 이게 같이 짝짝꿍 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비리가 아니거든요.

그니까 학생 주민등록증 위조가…?

86명. 그때 우리가 확인한 것만. 뭐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럼 가공 인물이 86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만들어진 인물…?

애는 있어요. 근데 두 개를 만든 거지 주민등록을… 그니까 설병석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계속 이호영이었거든. 사태 터지고 보니까 얘가, 설병석이라는 얘가 또 있어. 그 애들이 그전에 사태 터지기 전에 뭐 주민등록증이 두 개다 어쩌고 하길래 우리는 인제 주민등록 분실했다가 다시 만들었겠지. 당연히 그리 생각했는데. 그니까 이중 지원을 받기 위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있는 애를 뭐 어디에서 기아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또 그 건으로 또 주민등록 하나 발급, 만들어내고 계속 이런 식이었던 거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최성창, 이 사람은 평택 사람인가요?

아니요. 원래 출신은 저기 포항 옆에 기계면이라고 있는데, 거기 출신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면서 인제 서울 서대문구에 에바다농아교회라고… 지금도 있어요. 거기 인제 목사죠. 최 실장, 최성창, 그 동생 최성호 비리 주범들 다 자기들끼리 그 목사 목사 목사 다 있는데…

그럼 그쪽에 있다가 인제 이게 에바다 농아 선교회로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하고 연결돼가지고 이때 처음 내려왔겠네요?

그니까 그전부터 맥신 스트로빗지와 관계들이 깊었던 거죠. 농아선교회 하는 사람들이 최성창이를 비롯해서 해서 또 목사님들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제 미국 가면서 인제 이 사

람들한테, 에바다선교회라는 쪽에 넘긴 거고, 그때 엉뚱하게 유탄 맞은 데가 송탄에, 그 당시에 이 에바다하고 아무 관계없는 에바다선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쪽은 에바다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그 2580 방송되고 난 뒤에, 그 뭐 욕을 엄청 먹었대. 거긴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그래서 없어졌다 머 해체됐다 너무 인제 그거 많이 막 공격들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엉뚱하니까, 그니까 유탄 맞은 거고...

송탄에 있는 건 명칭이 송탄에바다...?

아니 그냥 에바다선교회라는 곳이 송탄에 있었다더라고요. 저희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학교에 비리가 있다는 거는 들어오기 전에도 좀 아신 거죠? 그러니까 96년 11월 27일 날 그 전에도 좀 아신 거죠?

비리가 있다는 건 당연히 알죠. 뭐 워낙 비리 덩어리 학교였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 애들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 우리가 11명의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격론을 벌이면서, 우리가 이거를 개입을 하게 되면... 개입하느냐 마느냐를 격론을 벌이면서, 개입 안 하면 일단 우리 몸 온전히 지킨다. 뭐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이뻐하겠지 인제. 근데 개입하게 되면은 문제는 파면 해임은 기본이고, 이 정도의 비리면은 사법행정기관들 다 끼고 하는 거다. 그렇다면은 파면 해임은 기본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법적 구속까지도 각오를 해야 나설 수가 있지, 어설프게 나섰다가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다가 인제 막 최종적으로 개입하자라고 결정됐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에바다학교에 있든 아니면 나중에 다른 학교 옮겨가든, 이게 앞으로 제2, 제3의 에바다 사태 같은 비리는 곳곳에서 터져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내 목 지키려고 그냥 빠졌을 때, 나중에 다른 곳에서 이런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내 목아지 지키려고 제자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외면했다. 그게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느니, 파면 해임되고 구속이 되더라도 법정에 서가지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이러이러 해서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섰노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학생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한 거다. 그러고 두 번째 학생들을 위한 거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11명이 만장일치로, 그럼 개입하자. 애들이 저렇게 두들겨 맞고 이랬는데, 일단 항의단 구성하자 해가지고 인제 성명서를 그 자리에서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 대자보로 해가지고 하나 붙였는데 제목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정의로운 요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제 학교 걸치고 나니까 재단에서는 인제...

그걸 인제 학교 안에....?

요 현관 안에 인제 저희가 붙인 거죠. 학생들지지. 그리고 인제 애들한테 일단 흩어져 있으니까 계속 자꾸 이쪽 저쪽 걸어가니까, 모여 있으라고... 그러면서 인제 그 언론에 알리고 하니까, 한동안, 거의 몇 달 동안 학교에 기자 반, 학생 반이었거든요. 매일 뭐 방송이고 신문사고 할 것이 아예 뭐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뭐가....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희가 개입을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떤...?

교사로 이제 이런 정도의 비리가 있으면 물론 이거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 비리가 많을 거다고 인제 막연하게만 생각했는 데다가, 이걸, 우리가 그걸, 교사가 이걸 나서서 어떤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 장애를 가진 제자들이, 제자들이 이거를 용기 있게 들고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교사로서 이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애들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진정한 사랑은 용기를 낼 때 용기를 내야 되고 행동할 때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뭐 교사라고 선생이라고 그냥 봉급이나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애들한테 힘만 주고 했던 게 굉장히 부끄러웠던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게 그 나중에 우리가 두고두고, 여기에서 발을 빼버리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 건데, 그냥 여기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하더라도 우리가 당당한 길을 택하자 인제 그게 서로가 인제 일어나게 된 계기였죠.

11월 27일 날 26명 학생들이 인제 농성을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학생이 몇 명이었나요? 전체 학생은?

그 당시에 120여 명 정도 됐을 거예요. 인제 유치부 애들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게 인제 특수학교는 다 있으니까. 그 당시에 유치부도 있었거든요. 그중에 이제 좀 큰 애들이 다 잡혀간 거죠.

주로 고등학교 정도에 해당되는 아이들...?

그렇죠. 예.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유치부부터 고3까지 한 126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26명이 이제...?

예.

여기는 학생들이 여기서 아예 숙식을 하는 건가요?

아니, 그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인제 통학하는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기숙사에서 다니는 애들도 있고...

기숙사에 있는 학생은 인원이...?

그 당시에 기숙사가 한 80명 정도 됐을 거예요.

현재도 그러면 통합하고 기숙사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가요?

예. 여기 한옥 이게 기숙사인데... 저기 인제 여기에 기숙사 있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통학하는 애들 있고...

현재 기숙사는 몇 명 정도 있어요?

현재 기숙사가... 20명 정도.

감사합니다.

유윤근(남, 1957년생, 하북4리)

일시	2021년 8월 29일	
장소	하북4리 마을회관	
구술자	1987년 하북4리로 이주한 유윤근씨는 현재 하북4리 이장을 맡고 있다. 대부분 이주민인 하북4리에 주민 중에서도 그는 일찍 이주한 편에 속하고 평소에도 마을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면담자	장연환	

여기 이장을 언제부터 맡으셨어요?

여기 이장을, 애... 지금 몇 년이여... 2010년부터요.

2010년부터요. 그럼 11년째 지금 하시네요?

저 앞전에 약 2년간을 내 그만두겠다 해서 그 양반을 시켰는데, 또 허다 보니까, 내가 좀 해야 되겠다. 동네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선임이 돼서 이장을 지금 한 9년 차 지금. 정확하게 하면 9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장님 여기 이장님을 뽑을 때는 뭐 경쟁이 좀 있나요?

셌지요. 옛날에는 셌어요.

죄송합니다만 후보가 몇 명 정도 나오나요?

내가 계속 할 때는 고정적인 3명은 항상 있었어요 3명.

그럼 대체로 요새는 또 이장님을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합의해가지고 추대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많이 하시려고 좀 하는 모양이네요?

아니 지금은, 처음에 인제 한 8년 동안은 계속 2년마다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인제 그 양반들이 워낙 헐라고 허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자꾸 허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또 그렇게 또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저기는 없고 이번에도 인제 추대 쪽으로 주로 했지

마을 총회는 12월에 하죠? 날짜가 정해진 건가요?

보편적으로 이장 선출할 때, 인제 그런 때 허고, 또 총회라는 거는 인제 동네 마을에 뭐 긴급한 현황 사항이라든가, 어떤 뭐 사업성이 있는 그런 거잖아요. 동네 어쨌든 개발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다 회의를 이루어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거죠. 개인적인 아니고...

이 총회에 참석하는 가구 수, 주민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어쨌든 동네 인제 개발위원, 뭐 또 어쨌든 임원들, 또 마을 부락 돈, 이렇게 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여기가 다세대주택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세대주택 사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별로 인제 없는데 여기 전원주택 단지가, 개인주택 단지가 여기 쭉 올라오다 보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의 내가 이장되기 전에는, 거의 이 사람들이 여기 마을에 주도권을 장악했던 사람이걸랑요.

그러니까 인제 결국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 그래도 입김이 좀 세신 거네요?

그렇죠. 연세도 있구...

그래서 인제 참석하는 분, 뭐 대체로 총회는 몇 분 정도, 해마다 다르겠지만, 몇 분 정도나 나오실까요?

보편적으로 뭐 어떤 때는 뭐 4~50명... 그렇게 나와요

이장님이 여기 들어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여기 온 지가, 87년도에 이 동네에 와 있었어요.

1987년도에는 여기가 1리였잖아요?

87년도는 그때는 아니지, 그때는 여기가 4리였어요... 그때 나는 인제 이사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저쪽 마을 주택단지에 관리장으로 내가 또 일을 했었어요.

마을 주택 다니면 저 꽃동산아파트?

꽃동산, 예 그쪽 깨로, 하다 보니까 인제, 인제 좀 일처리 같은 게, 제가 저도 성격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하면 그게 딱 결정을 담는 스타일이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여기서 계속, 여기 전원주택 단지에서 이장을 계속 한 사람이 보다 보니까, 인제 여기 인제 지금은 시의원도 그렇지만 나보고 여기 봐라. 일을 봐야 할 사람은 나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한 번 나왔다가 여기 이장님이 그걸 내놓지를 않아서 저는 또 남이 그런 데 가서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걸랑,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내놓지 않는 거 억지로 뺏을 의향 없다. 나 그만둔다는데, 후차에 또 인제 이장 선출은, 내가 끌려 나와서 뭐 하여튼 선출해서 거의 뭐 제가 이장에 선출됐던 거예요.

새동산, 꽃동산, 새꽃동산 3개 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관리를 하나요?

아니에요. 거기는 인제 저... 세동산, 새꽃동산, 꽃동산, 거기가 34, 34, 72. 이렇게 가구가 있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이게 통합돼서 관리 되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관리하나요?

예. 거기다 인제 이장을 보면, 요 동네마다 인제 그 반장을 하나씩 세워요.

이분들은 인제 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새꽃동산에 입주하신 분들은 대체로 어디에서 왔나요?

거의 인제 그... 보면 옛날에 홍원제지라는 데가 있었걸랑요. 여기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올 때만 해도 홍원제지 매일유업 때문에 여기가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가 많았었어요 인구 밀도가...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데 인제 보면 다세대주택 같은 데 있잖아요. 집집마다 비둘기처럼 다 세 들었던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인제 거기 짓고 그러니까 분양받아서 거기서 살았던 거고. 지금 이렇게 보면 또 그때 분양받은 사람들은 다 좀 떠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제 와서 지금 주거하고 있고, 또 세를 주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입주민이 한번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거의 다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옛날 같지가 않고, 모든 동네가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처음에 87년도 처음 오셨을 때 가구 수는 뭐 얼마인지는 인제 잘 모르시죠?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동이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가 뭐 개발되고 저기허는 게 아니고, 그때 있는 그 가구가 큰 변동이 없어요 지금 여기는. 1리 같은 경우는 그 파출소 뒤에 뭐 원룸 이런 거 짓고 뭐 이렇게 했지만 4리는 큰 변동은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특별히 들어선 것도 없고, 재개발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해봤지만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재개발을 하려고 시도를 여기도 하셨었어요?

했었죠.

4리 전체를?

그렇죠

언제 재개발 시도를 하셨어요?

그 한... 그때도 설명회도 듣고 요 진위고등학교에서도 설명회 한번 헌 적 있고, 교회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랬걸랑요. 그때 당시 한 80, 가만있어봐 80, 90년 초반인가 아마 그때 그랬을 거 같애.

이거는 그러면 이 마을분들이 서두르셨나요? 아니면 뭐 어디 주택업자들이, 건축업자들이 서둘서 시작을 했나요?

마을분들이 서두른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인저 건설 회사에서 와가지구 동네에도 지금도 저 뭐야 재개발업자, 지금 우리 마을에서 살지만 그분이 인제 주축이 돼가지고, 한번 여기 재개발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동네 주민들이 다 저 뭐 통쾌허게 저기 않고 반대를 많이 해가지구. 그러니까 그 양반들도 그 사람을, 추진하는 사람을 별로 이렇게 저 달갑게 생각을 안 했기 땜에 몇몇 사람들이 강력하게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막 하다가 흐지부지 이렇게 됐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저도 면사무소 다니고 그러지만 재개발, 재건축 이게 쉬운 건 아니걸랑요 실제로. 서류부터 허는 게 그렇고 지금 서희스타일 같은 거,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오

산 요기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큰 지역에서도...

고향이 어디 있었다고 그랬죠?
충남 청양이요.

그럼 이쪽으로 취업해가지고 인제 오신 거예요?
예. 전선 공장, 삼원 전선이라는.

삼원전선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롯데제과 뒤에. 옛날에 인제 그쪽에 광성정밀, 신하교역, 뭐 삼릉전기 뭐 그쪽에 다 있었었지 옛날에,

그러면 여기 삼원전선에 오시면서 이 하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오면서 여기 저 애들 큰 애를 데리고 여기를 왔어요. 그래 갖고 처음에 들어온 데가 여기 지금.

재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지원이 평택시 지원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지원인가요?
그 경기도 지원 사업이겠지... 이게 인제 저 시골 재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 같은 거 이렇게. 지금도 여기가 지금 도로가 일으켜서 가곡리로 지금, 이길수 이장네 거기서 끝났죠? 여기서 지금 끝났잖아요. 길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 단지가 계획돼 있다고...?
여기 여기 가곡...

지금 여기가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잖아요. 회관이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아파트 단지가 계획돼 있어서 이리로, 여기로, 그러면 여기 구길 따라서 길이 계획돼 있나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 홍원제지, 홍원재지 그 담치인데. 그걸 해서, 이게 도로가 지금 이렇게 가곡리로 연결됐걸랑요. 이게 지금 이렇게 뚫린다고 그랬걸랑. 그래서 지금 요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상이 됐다고 그랬어요.

아 회관 앞에 집이요?
예, 회관 앞에 이영학 씨 땅도 그게 보상을 받었다구 그러더라구.

아까 87년에 삼원전선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때가 만으로 30살 되셨을 때네요? 57년인데 57년생이신데 87년에 오셨으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31살 정도에요?

여기요?... 그러니까 정확허게 지금 제가... 그렇지요 예 가만있어봐봐, 벌써 내가 여기 온 지 그렇게 됐네...

오래되셨네요?

예. 그러네...

31살에 오셨는데, 결혼해 갖고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 와서...?

큰 애... 100일 지나서 왔던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때 삼원전선 월급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됐어요?

아이고 뭐... 그래도 나 거기서 꽤 저긴 했는데 그렇게... 그렇게....

한 2~30만 원?

2~30만 원은 아니죠. 아이, 그거 갖고는 안 되고, 그때 100얼마인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87년에 100 얼마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요? 100얼마가 아닐 거예요. 그 당시 공무원들 공급이 초봉이 뭐 한 30만 원 정도 될 때거든요.

30년 저긴데...

87년이면 공무원들이 한 30여만 원 탈 때인데요. 그 당시가...

지금은 참 억, 억 그려도 난 진짜 엊그저께 저거 허면서, 집 이렇게 먹으면서 억 왔다가, 통장으로 왔다가, 보내고 뭐, 이러고 어쩌고 그러니까 숫자 개념이 없어가지구.

그러면 이때 사모님께서는 살림만 하셨어요. 아니면 직장을 다니셨어요?

그때 인제 애기 있었기 땜에 집에 있고, 그때 당시에는 인제 그... 또 인제 부엌이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리고 또 해서 인제 집에서 부업 같은 거...

어떤 부업을 하셨어요?

그 여기 와서 그 전선 같은 거 이렇게 저 테이블 이만씩 한거... 납땜 뭐 허는 것도 있구, 뭐 햐튼 뭐 봉툰가 뭣 같은 것도 있거, 여기 그때 당시에는 부업거리가 꽤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업거리들이 요 주변의 공장들에서 나온 부업거리들인가요?

그건 모르겠고, 그 차를 실어 오더라고요. 이쪽 그러다가 인제 거기 요기 유라테크 있죠. 거기 있다가 거기가 옛날에, 인제 지금은 유라테크지만, 기아전자였었걸랑요.

아 유라테크가요?

예. 유라테크가 인제 그 전에...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나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렇게 크지 않고, 기아전자 전에, 거기가 뭐라고 그랬더라... 그 기아전자 때 인저 거기 들어가서 했지

그러니까 삼원전선에서... 그러면 이장님은 원래 기술이 뭐예요?

제가 원래 인제 기계 같은 거 고치고, 만들고... 선반, 밀링 뭐 이런 거 깎고 뭐 허고 허는 것도 했었고, 제가 직장 생활 했었고 와이프는 인제 그 부업 허다가 바로 옆에 인제 주변 사람들 기아전자 들어가서 거기서 직장생활을 했던 거지 집사람은.

아까 사모님께서는 부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저것 인제 부업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 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때 뭐 봉급... 그때도 그 양반 한 60여만 원, 이렇게는 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경력직이고 또 이렇게 굉장히...

아 그 양반이 경력직보다두...

아니 사모님이 부업했을 때요?

그거 인제 부업이고 인제 저 기아전자 들어갈 때는 인제 신입사원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지 그때 당시는 비정규직이 없잖아요. 지금이니까 비정규직이구...

그때가 몇 년쯤이었어요?

그때가 저, 우리 아들이 저기니깐...

87년에 오셨으니까...

87년도에 왔으니, 그러니까 한 90 한 3~4년 정도 저기 했을 거예요. 애들 유치원 가고 뭐 할 때 그러니까.

그럼 요때 봉급이 60만 원 정도?

원래 돈의 개념을 없구,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됐지. 지금도 뭐 계산은, 돈에 대한 그런 소리를...

그때 87년에 여기 들어오실 때, 마을 분위기는 지금이랑 비슷한가요 아니면...?

아이 그때는 그렇지는 않지요.

그때 마을회관도 있었어요?

그때는 마을회관이 없었고, 이 홍원제지에서 주택 있잖아요. 주택을 하나 이렇게 저 마을회관으로 이렇게 쓰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위치가 어디쯤 돼요?

거기가 지금 요기(현재 마을회관에서 동쪽으로 50m 정도 떨어진 자리) 같은데, 여기요... 그래서 인제 그 보면, 지금 옆에 요 집(일반 주택)처럼 그런 식으로 됐던 거예요.

회관 바로 옆에 집이요?

예. 슬라브 집으로 이렇게 해서 했던 데라, 그때 내가 왔을 때두 인제 이렇게 보면, 동네 나는 막 그때 한참 등산 좋아할 때 내 이 가보면 이장 공적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내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걸랑요. 아니 마을이 이게 가정집이지 뭐냐. 안방, 웃방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회의도 할 수 없는 그런 저기 같더라고. 처음에 요기 저 보면, 이 창고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가 마을 회관으로 썼다고 그러더라고. 초창기 때는 그랬다가 인제 홍원제지가 어쨌든 동네에서 허구 그러니까, 하북4리 마을회관으로 해서 그 개인 단독주택으로 해서 그 마을회관으로 썼다, 그걸 부시고 여기다 인제 증축을 헌 거지.

이건 몇 년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인제 저... 2009년. 2010년부터 내가 이장 했으니까. 내가 인제 허면서 이것도 그때 사회도 내가 보고 그랬어. 이상허게 이장이 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때 인제 마을에 인제 사회 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기 이장이...

사회요?...이 이거 건축하는 거 총괄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인제 여기 회관 짓고, 인저 저 시장들 다 오고 그러면 거서 사회자로...?

아 준공...?

예. 준공 허고, 사회자로 인제 오픈할 때 인제, 그때 인제 볼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래서 나헌테 얘기를 허길래,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사회를 보고, 그때도 엄청 쳤걸랑요. 그래서 시장 두고 얘기도 듣고 하도 쳐가지구 그래서, 그때부터 인제 얘기했더니, '이장 할 만한 분이 왔네요.' 인제 면사무소에서 그 얘기 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제 헌거여. 그래서 전 이장은 요 마을회관까지 짓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대지도 홍원제지에서 준 대지겠네요?

그렇죠. 홍원제지에서 예.

이장님이 여기 오셨을 때는 이미 그게(현재 마을회관 자리에 있던 주택) 마을 회관이었나요?

그렇지, 예.

그러면 홍원재 제에서 언제 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시겠네요? 그 전이니까?

그렇지 예. 그 전 이장이 한 9년인가 혼자, 아니야 9년이 아니라 그 앞에도 또 있었구나 이장이. 그 앞에는 인제 전 이장이 홍원제지 다니다가, 제사 인제 그만두구 뭐 허니까 인제... 처음에 왔을 때는 저 이장이 어디 양복점 저긴가, 그때 당시에 잘 모르겠어. 저쪽 동네 새꽃동산인가 거

기서 사던 분이더라고. 그 양반이 인저 2년인가 몇 년 보다가 ○○○씨가 계속 보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인제 내가 또 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기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이거 지을 때?

글쎄 나 그 비용은..... 그것두 인제 허는게, 동네에서 지은 게 아니라, 마을회관두 부지만 있으면, 시에서 다 이렇게 해 주는 거걸랑요.

건축비는요?

예 예. 거기서 다 이렇게 턱을 나, 지금도 저, 뭐야 저 신리 같은 경우도 마을 회관을 지긴 졌는데, 거기가 또 노인 수가 많다,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고령화되다 보니까, 또 개축허니 어쩌니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다 지금 터만 있으면 그때 당시도 터만 있으면 시에서 다 이렇게...

이장님 여기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이 새꽃동산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인제 워낙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 외지인이라고 현지 원래 살았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갈등도 뭐 크지 않고 그랬지만 이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때만 허더라도 아주 옛날이잖아요.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어땠어요. 그 아파트하고, 초창기인데 아파트 만들어진 지...?

몰라, 내가 인제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인제 사람들이 인제 원 여기가 주민들 있잖아요. 올해 살았던, 홍원제지 다녔던 사람들이 중심축이 됐어요. 매일유업 허던 사람들허고 거의 다 인제 그 아는 사람이라는 게 아무래도 친허게 되다보면, 고 사람과 고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임도 갖고 투잡도 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아니게 인제 우리가 비춰질 때는 끼리끼리 논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해코지허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홍원제지 사람들이 중심축이 돼서 우리 아파트 관리도 그쪽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이철수 씨라고 처음에 초대 뭐 저 지으면서 관리소장 허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는 훨씬 더 전부터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주민들허고 갈등은 크지 않았겠네요?

예 예. 그리고 지금도 여기가 이렇게 있지만, 자연 부락으로 이렇게 있지만, 원래 여기 본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기가... 홍원제에 다녔던 사람들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

매일유업 다닌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했던 사람들이 요기 저기했고, 실제 원주민은 별로 여기 없다 이거지.

그래도 홍원제지 같은 경우는 들어온 지가 워낙 오래돼서, 거기 초창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서 토박이 같은 느낌이 나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뭐 실제로 그 홍원제지 다니든, 뭐 옛날 노조위원장 이화수씨 같은 분은 인제 지금 저 안산 그리 가서 인제 국회의원도 허고, 거의 다 이렇게 보면

여기 노조위원장 했던 분들이, 내가 이렇게 지역사회 다녀서 보면, 그 모임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다 알게 되더라고요.

인제... 옛날에 인제 농사 짓고 그럴 때는 저 집은 참 부자야, 부자 아니야, 저 집은 좀 어려워,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인제 홍원제지 다닌다 그러면 그래도 마을에서 좀 경제적으로 괜찮은 편에 들어갔나요?

홍원제지 다닌다면, 모르겠어요 나는 청양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내가 지금 아무리 그때 못 살았어도, 강남으로 가든 서울로 가든 갔었으면 내가 지금 아파트를 잡든 뭘 허면 지금 이렇게 됐을 텐데, 어쨌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에서 홍원제지허고 매일유업이라는 그래도 튼튼한, 지금이야 저 제지공장 사양길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지역을 먹고 살렸던 그 기업 아니예요. 저 야쿠르트도 있고, 저쪽 께로, 그러면 이쪽 진위면 쪽에서는 그래도 이 기업들이 그래도 이쪽 진위면 쪽을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많은 공헌을 했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것 땜에 재개발이 안 된다 헐지라도, 지금은 어렵다 허더래도, 다 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때 인제 이장님네도 농사를 안 지으시니까 채소 같은 거 인제 사다가 이렇게... 어디 가서 주로 여기서 샀어요? 시장을 어디로 다니셨어요?

그렇죠, 예. 여기는 뭐 시장이 저기 저 송탄. 송탄 그렇지요 뭐.

이장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뭐 비료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지만, 이 또 도시는 좀... 여기는 뭐 아주 대도시는 아니지만 농민들이 얼마 안 되니까?

이장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시골이니까 이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저 시면은 통장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장은, 이장이나 통장이나 어쨌든 간에 심부름꾼 아니여? 어떤 행정상 모든 거를 이장이 이제 왔다 갔다 허면서 허는 거지만, 여그도 시골이기 때문에 지금 영농회가 있고 허니까, 지금도 영농철에는 다 이제 영농자재라든가 뭐 다 지금 똑같이 지금 허고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5~6명 밖에 안되니까...

5~6명이래두 지금 여기 아닌 딴 데 또 32명이 있어요 지금, 저 조합원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제 뭐 논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밭 또 이렇게 또 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비료, 영농 자재 뭐 신청 할 때는 허고 뭐, 모든 거 허는 건 다 허는 거지. 이렇게 조합원이 구성되고 농사 짓는 데가 영농회장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세워서 저 농협일까지 같이 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장님이 영농 회장을 같이 겸하는 거예요?

예. 영농회가 있는 마을이 있잖아.

여기도 영농회가 있겠죠.

그렇지. 하북4리 영농회지. 32명이라는 조합원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그리고 인제 농협일 이외에는 뭐 어떤 역할 하시나요.

어쨌든 뭐 그 일이고 또 마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뭐 어디 불편한 사항 같은 게 있으면, 항상 그런걸 보면서, 가서 이제 면사무소 개발팀이나 거기에 필요한 데면 거기에 가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 조치해달라, 이렇게 허고. 또 동네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가서 이제 또 처리를 해 놓고...

사무소에 전달하고요?

예. 뭐 다 그런 거지. 또 면사무소에서 또 주민한테 전달 사항 같은 거 있으면 또 그런 것도 허고. 그러니까 늘 필요허면 인제 방송을 통해서라든가, 또 이렇게 다 또 문자를 통해서, 지금은 인저 다 그런 식으로 허는 거지 인저.

지금 마을에, 여기 기금이 있어요?

기금이 있지요 있기는...

죄송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지금 이게 창피스러워가지고... 다른 데 비허면 저기한데, 지금 여기가 내가 저 정기 예금으로 해놓은 것이 600 정도로 정기 예금을 해놔 놓고, 또 인제 그 보통 예금,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허지만 인제 봄, 가을로 이렇게 야유회를 가고 그러걸랑요. 또 인제 어디 허다 보면 또 진위면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마을에서 또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찬조도 해야 되고 허기 때문에 항상 보통 예금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한 300 가까이 그렇게 있고 들랑날랑허고, 여기 어쨌든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에서 항상 빠져야 되고 허기 땜에... 고렇게 허고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 마을 행사도 못 하지만, 코로나 전에는 어떤 마을 행사가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봄, 가을로 어쨌든 저 뭐 관광차 이렇게... 어쨌든 피크닉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도, 그런 식으로 갔다 왔어.

노인에서 가는 게 아니고 마을 주민 전체가 가나요?

원래는 인제 마을 기금이 없다 보니까, 인제 그렇게는 못 했는데, 그래도 이제 노인회 보다도 동네 화합 차원에서 같이 좀 이렇게 허면 좋겠다. 노인이라도 버스 한 대 타면 한 45명이나 타야 잖아요. 그러니까 노인회라고 그래도 한 20~30명도 안 되구 또 못 가는 분도 있구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마을 이렇게 해서, 찬조를 조금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족 부분은 그쪽에다 해서 이렇게 가걸랑요. 동네 지금 한 100만 원, 100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허고

찬조는 주로 어디서 받으세요?

찬조는 인제 홍원제지에서 보편적으로 인제 놀러 간다 그러면 30만 원씩은 해줬어요. 그리고 인제 요기 저 치과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부녀회장이 '놀러 가니까 좀 찬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지금은 시대가 또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애서, 저는 그런 걸 원치를 않아요. 근데 꼭 전에 놀러갈 때까지도 그렇게 해줬어요.

어디 치과요?

네 요기 저 하북치과.

거기서는 얼마 정도 해줬어요?

거기서 뭐... 거기서 20만 원인가 이렇게 해졌을 테고, 뭐 또 나름대로 이장, 또 회원들 이렇게 해서 뭐...

이장님은 얼마나...?

인저 보통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해.

이장님 말고 이제 뜻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조금씩 내는 거예요?

그렇지. 뭐 어쨌든 3만 원, 5만 원 요선에서 이렇게... 허고 싶은 분 내고 또 노인에서 얼마 내고, 또 우리 마을회에서 얼마 이렇게 내고 그러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여기, 그전에는 원래 마을 회관이라는 거는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뭐... 무슨 세를 준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되되걸랑요. 마을회관이고 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사람이 꼭 어떤 뭐 악의적은 아니지만 어려우니까, 내가 꼭 필요허다 허면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헐 때만 해도 조금씩 이렇게 해서, 살아가면서 조금씩 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네요.

노인회는 기금을 어떻게 조성을 해요?

노인회 기금은, 제가 인제제 이장 되면서 헐 때는, 어쨌든 간에 내가 허면서도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가 놀러를 갔다 오면, 돈이 이제 몇 십만 원씩 이렇게 또 남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저 노인회한테 이렇게 해지, 마을로 허지 않고 노인네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예금도 허고, 그리고 옛날부터 그렇게 이렇게 했던 것이...

마을에서 이렇게 마을 기금 쓰다가 조금 이렇게...?

남으면 그렇게 해서 해줬고 했던 것이, 그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는 정기 예금으로 들어간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천만 원 있는 걸로 있고, 돈이 그게 또 있으니까 또 그게 문제가 되고 또 인제 이게 여기가 또 인제 보면, 시에서 노인회 그 연료비 같은 거 이런 거 지원 나오잖아요. 근데 연료비 같은 거도 홍원제지 같은 데서 연료비를 지원해 주걸랑요. 인제 그런 거도 아끼고, 또 여기 어쨌든 뭐 시에서 다 먹거리가, 쌀 같은 건 다 여기 해주잖아요.

홍원제지에서는 그러면 이게 매월 얼마씩 주나요? 1년에 얼마를 한꺼번에 주나요?

여기가 저기 심야 보일러예요. 심야 보일러니까, 인제 보일러가 이제 허면 전기요금이 나오잖

아요. 그거를 인제 홍원제지에서... 근데 인제 저... 시에서도 마을 회관으로 인제 연료비 같은 게 이렇게 좀 나오는 거더라고. 인제 고런 거는 인제...

감사합니다.

여 백

2021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VI.

진위면 야막리 마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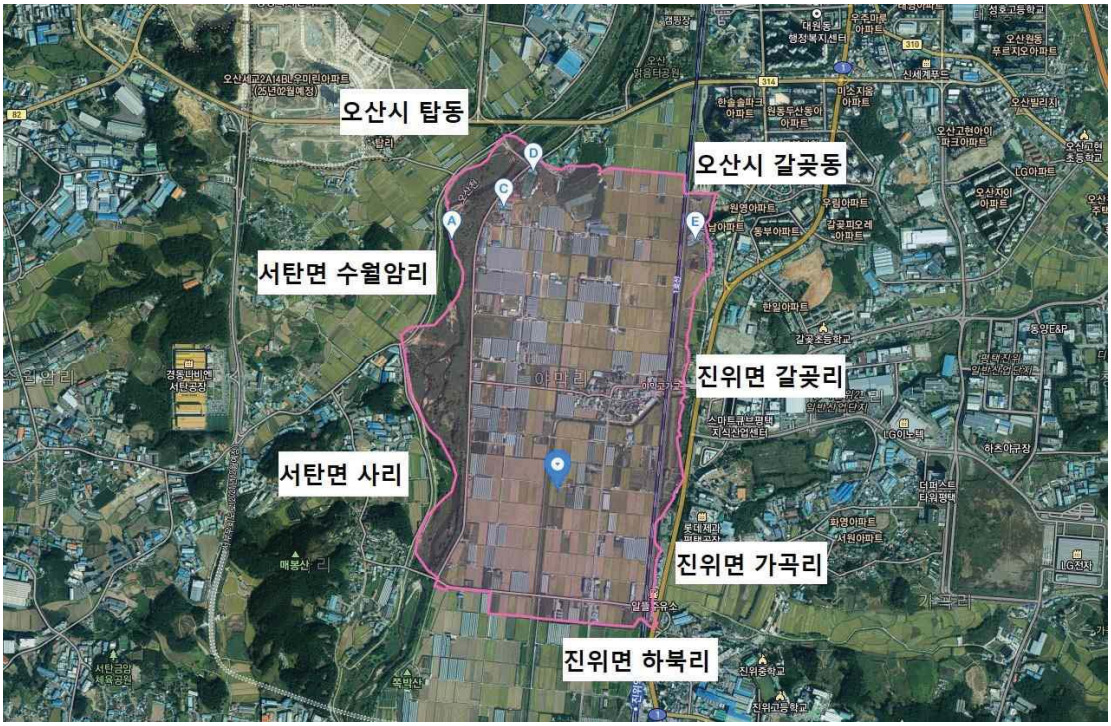
장연환

여 백

Ⅳ. 야막리 마을조사

1. 지리적 환경

1)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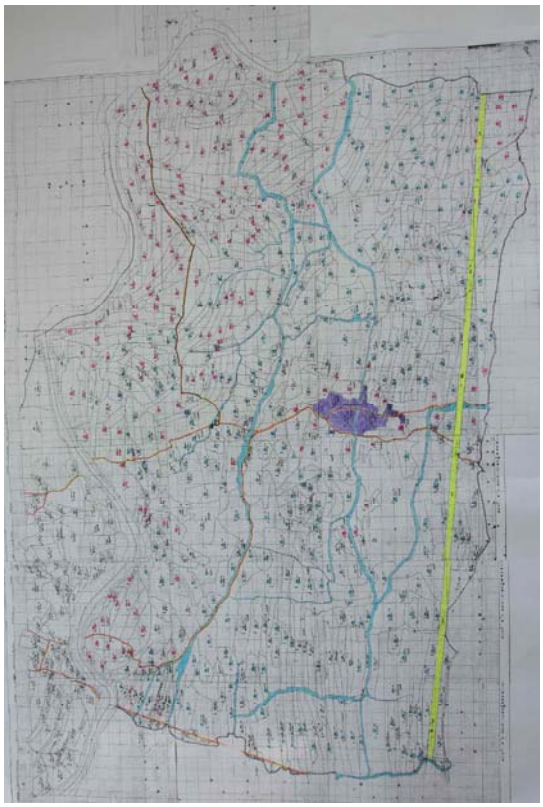
진위면 야막리와 주변 마을

야막리는 남동쪽으로는 진위면 하북리와 가곡리, 서쪽으로는 서탄면 사리와 수월암리, 북쪽으로는 오산시 탑동과 갈곶동과 접하고 있다. 야막리는 오산천 동쪽으로 펼쳐진 들판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북쪽 야막리에서 시작된 벌판은 남쪽으로 하북2리 대정촌까지 막힘없이 이어진다. 『조선지지자료』에 야막리의 한글 표기가 ‘들막’으로 되어 있다. 들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었을 것이다. 실제로 야막리는 해발 11m 정도[1]로 어느 정도 높낮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산뿐만 아니라 작은 구릉조차 없는 마을이다. 야막리 동쪽의 갈곶리, 가곡리, 하북리 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뻗어내린 산줄기도 야막리 동쪽 철길 동편에서 모두 멈추어버렸다. 그래서 건물이나 구조물이 아니라면 야막리 전체를 막힘없이 한 눈에 볼 수 있을 만큼 평면에 굴곡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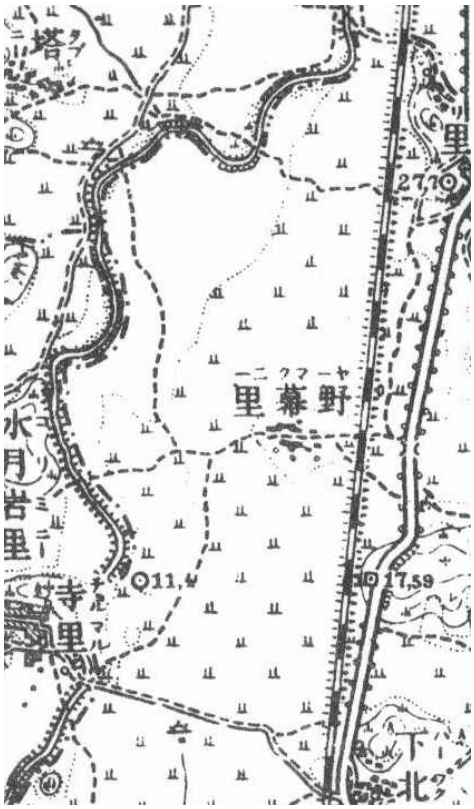
야막리의 지형을 언급할 때 오산천을 빼놓을 수 없다. 오산천은 용인시 동백동 보개산에서 발원하여 기흥과 오산시를 거쳐 야막리와 수월암리, 사리를 지나 남쪽 하북리와 금암리 사이를 거쳐 하북2리 대정촌과 적봉리 사이에서 진위천에 합류한다. 옛 문헌에는 토현천(兎峴川)으로 표기되었다.[2] 이 하천이 지금은 야막리 서쪽을 남북으로 안정되게 흐르고 있지만, 옛날에 큰 홍수가

1) 1914년에 실측하고 1922년에 발행된 지도의 서남쪽 오산천 옆의 해발고도가 11m로 표시되어 있다.
2) 『여지도서』, 『대동여지도』, 『팔도군현지도』, 『진위현읍지』(1843) 등

나면 야막리 벌판을 동서로 오가며 물길이 바뀌곤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 과정에서 많은 토사가 야막들과 하북들에 쌓였을 것이다. 세월의 흐름 속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그 실상을 알 수 있는 기록이나 구전된 내용이 없다.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1912년 작성된 지적도와 1922년 발행된 지도가 과거 야막리 마을과 그 주변 지형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이다.



1911년 작성된 야막리 지적도



1922년 발행된 지도상의 야막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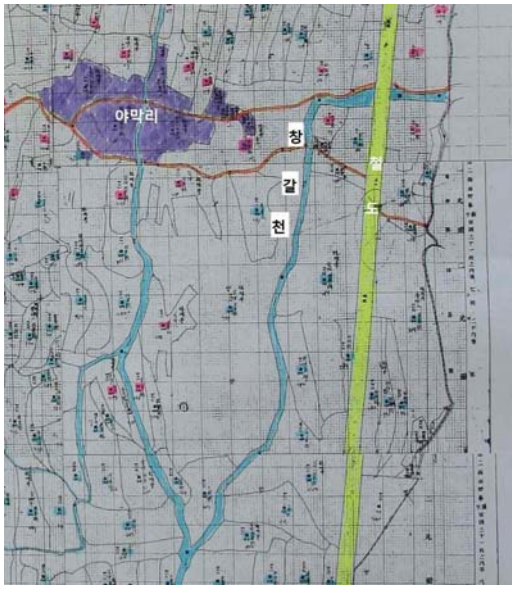
야막리 전체 지표면에 굴곡이 거의 없는 모양이 된 것은 1969년 경지정리 이후일 것이다. 1912년 작성된 지적도를 보면 대체로 이 마을의 서쪽 지역이 높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지금이야 야막들이라고 한꺼번에 말할 정도로 편평한 지대위에 마을이 있지만, 경지정리 이전에는 오산천을 따라 그 동쪽, 즉 야막리 서쪽으로는 하천 범람에 의한 자연제방이 남북으로 늘어져 있고, 지금 마을의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보다 낮은 지형이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큰 홍수가 몰아쳤을 때 물길이 동쪽의 저지대를 흘렀을 가능성은 충분히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 서고동저형의 지형적 특징 때문에 서쪽으로 오산천과 접하는 곳의 자연제방 대부분은 오산천이나 봇도랑보다 고도가 높았다. 따라서 서쪽 지역은 관개가 어려워 밭으로 경작되었고, 서쪽 자연제방과 동쪽 산 능선이 끝나는 부분 사이의 저지대는 논으로 경작되었다. 이러한 경작지 이용에 대한 내용은 1922년 지도에서도 파악된다. 마을 서북쪽 지역은 아무런 표시가 없지만, 1912년의 지적도를 참조하면 이 지역의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어 밭농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금의 경부선 철도와 오산천변 사이에 동서로 약간 높은 부분이 있다. 이곳은 가곡리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 토사가 쌓여 지대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오산천으로 부터 멀

리 떨어지고 주변보다 지대가 높은 이곳에 마을이 들어선 것이다. 1912년 지적도에서는 지금의 야막리 마을과 경부선 철도 사이에 동서로 길게 밭으로 경작된 농지가 이어져 있고, 용주사 소유의 대지 6필지가 자리 잡고 있다. 그 남쪽과 북쪽은 대부분 논으로 경작되었다.

이처럼 야막리 들판은 서쪽의 지대가 높은 곳과 동쪽의 낮은 곳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던 편이다. 지적도에 의하면 오산천변 대부분의 자연제방은 늦어도 1912년 지적도가 작성되기 직전까지는 밭으로 개간이 되었다. 반면에 동쪽의 낮은 지대는 일찍이 논농사 지역으로 개간이 되었다. 그러다가 1969년 경지정리가 되면서 지표면의 높이가 일정하게 되었고, 대부분 논농사 지역으로 바뀌었다.

야막 들판에 물을 대는 물줄기는 크게 세 개가 있다. 두 줄기는 오산천에서 흘러내리는 사리보와 야막보 도랑이고, 한 줄기는 가곡리에서 내려오는 창갈천이다. 야막리에 사는 이부순(남, 1943년생)씨는 야막리 서쪽 들판에 사리 사람들 농지가 많아 '사리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또한 야막보와 사리보 사이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야막보에서 사리보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도랑을 만들었고, 이것을 '샛개보'라고 하였다. 창갈천은 진위면 가곡리에서 서편인 야막리 쪽으로 흐르다가 철길을 건서 남쪽으로 꺾어진다. 창갈천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짧아서 수량이 야막보나 사리보에 비하여 적었다고 한다. 우기가 아니면 물이 마르기 일쑤였고 비가 올 때만 흘렀다. 이 하천은 원래 마을 초입에서 남쪽으로 꺾여 흘렀는데, 1969년 경지정리 때 마을 남쪽을 흘러 들판의 가운데를 지나도록 물길을 바꾸었다. 또한 농업용수의 배수로가 되어 '창갈 배수로'라고 불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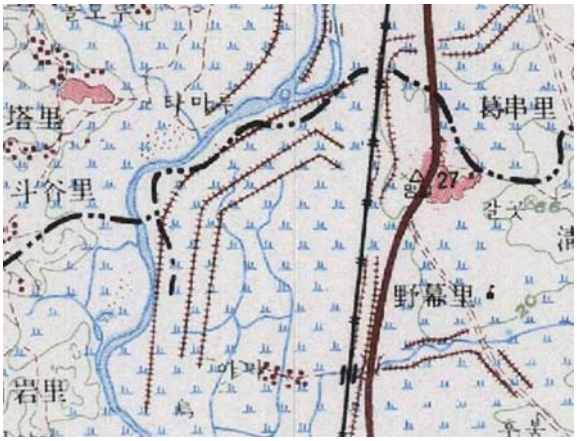


경지정리 이전의 창갈천(1912년 지적도)

현재의 창갈천(창갈 배수로)

야막리는 오산천변에 있었기 때문에 홍수 때는 침수의 위험이 잦았다. 특히 북쪽에서 오산천 둑이 터지면 마을 사람들은 동쪽 높은 곳에 있는 갈곶리나 가곡리로 피난을 가야 했다. 공경렬(남, 1942년생)씨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의 위험이 있을 때는 어른들이 밭이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 망을 보다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방송을 해서 사람들을 이웃 마을로 피신하도록 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부순(남, 1941년생)씨는 침수가 되더라도 마당이 잠길 정도였으며 크게 위험하지

는 않았다고 했다. 야막리 들판의 경지정리가 되기 전인 1960년대의 지도에는 마을 홍수 예방을 위해 북쪽에 쌓은 세 겹의 제방이 표시되어 있다. 이부순씨는 홍수 예방을 위해 쌓은 제방이 북쪽에서부터 서탄면 사리 앞까지만 있었고, 그 남쪽으로는 없었는데 경지정리 때 모두 쌓게 되었다고 했다. 경지정리 후에도 침수의 위험은 그치지 않았다. 마을 남쪽을 지나는 창갈천이 있는데, 폭우로 인해 배수가 어렵게 되면 이 하천의 물이 넘쳐서 침수가 되는 일도 발생하였던 것이다. 임성남(남, 1969년생) 이장에 따르면 1990년 무렵 470mm의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는 창갈천 물이 빠지지 않아서 마을에 자동차가 다지지 못할 정도로 물이 찼다.



야막리 북쪽의 제방 시설

예전에는 야막리에서 다른 마을로 가는 길은 세 갈래가 있었다. 서북쪽의 자연제방을 따라 지금의 오산시 탑동으로 이어지는 길, 서쪽으로 직진하여 수월암리로 이어지는 길, 남쪽으로 내려가 서탄면 사리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 동쪽으로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북쪽 길은 국도 1호선쯤에서 꺾여 북쪽 갈곶리로 이어지고, 남쪽 길은 가곡리 쪽으로 이어졌다.

1969년 경지정리가 되면서 마을과 국도 1호선 사이의 길을 제외한 길들이 사라지고 새로 난 농로로 대체되었다. 1980년대 국도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포장한 이후 시멘트 포장이 확대되었고, 2001년 야막 고가교가 개설되고 2015년에는 야막리에서 대정촌으로 이어지는 2차선 도로가 개설되는 등 현재와 같은 도로망을 갖추게 되었다.

야막리와 마을 남쪽의 전경

2) 성씨와 인구

야막리에 처음으로 입한 사람들도 밀양 박씨로 알려져 있다. 마을에 구전되는 이야기 또한 그러하다.[3] 밀양 박씨들이 언제 이 마을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Ⅲ’ 이 유일하다. 여기에는 2006년 당시 이 마을에 생존해 있던 박종구(남, 당시 92세)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다.[4] 박종구씨는 자신의 집안이 4대 이상 야막리에서 살아왔는데, 그의 조부 때부터 천도교를 믿어왔다고 했다. 4대 정도면 1세대를 30년을 잡는다 해도 120년 정도이다. 그런데 야막리가 처음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영조 때인 1757년~1765년 무렵에 편찬된『여지도서』이다. 여기에 근거한다면 이 마을은『평택군지』가 편찬되었던 1984년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야막리의 토박이인 공경렬(남, 1942년생)씨는 그가 어렸을 때 밀양 박씨가 당시 30여 가구 중 6가구가 살았다고 했다. 물론 후손들이 타지로 이주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밀양 박씨는 300여 년 전에 입향 했던 집안으로 보기에는 가구 수가 너무 적다. 박종구씨의 구술대로 밀양 박씨의 가구수는 4대 정도 살아온 집안의 규모 정도이다. 즉, 야막리에 마을이 형성될 때 밀양 박씨가 처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마을이 300여 년 전에 형성되었으나

3) 야막리의 토박이로 3대를 살아온 임계춘(여, 1929년생)을 비롯하여 공경렬(남, 1942년생)씨나 이부순(남, 1943년생)씨 등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부터 젊은 임성남(남, 1969년생)씨까지 모두 밀양 박씨가 처음 들어온 집안이라고 말하였다.

4)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Ⅲ, 2008, 104쪽.

어떤 연유로 하여 거주민들이 계속 바뀌게 되어 120여년 전 이후 거주했던 집안 중에서는 밀양 박씨가 가장 이른 시기에 들어온 집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임계춘(여, 1929년생)씨에 의하면 밀양 박씨 집안은 장리쌀을 놓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떠나고 1가구가 살고 있다.

『광무양안』에는 야막리에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 14명이 나오는데, 이씨가 5명이고 박씨가 4명으로 이씨가 1가구 많다. 그 외 김씨, 정씨, 최씨, 한씨, 홍씨가 각각 1명씩이다. 공경렬(남, 1942년생)씨에 의하면 이 마을에는 공씨, 김씨, 이씨, 최씨, 임씨, 홍씨, 윤씨 등 다양한 성씨들이 토박이로 살고 있는 집안들이다. 1950~60년대 30 가구 정도 살았던 마을이 지금은 주민등록상 13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니 성씨 또한 옛날보다 다양해졌다.

2021년 현재 주민등록상으로는 13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마을 이장인 임성남(남, 1969년생)씨가 파악하고 있는 세대수는 105가구이다. 임성남씨는 105가구 중에서도 실제 마을에 거주하지 않고 오산이나 송탄의 시내 아파트에 살면서 출퇴근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임성남씨는 그 중 토박이[5]가 40가구 정도 된다고 하였다.

1962년부터 2021년까지의 인구 변동은 아래 표와 같다.

야막리의 호(戶)와 인구 변화[6]

연도 (12/31기준)	호 수 (戶 數)			인 구 수			진위면 합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호수	인구수
1963	30	8	38	101	128	229	1,375	8,404
1971	41	5	46	116	113	229	1,421	8,011
1976	43	4	47	130	121	251	1,898	9.757
1984	49	18	67	151	162	313	2,722	12,398
2006			129	176	149	325	5,476	13,805
2010			145	189	150	339	5,934	13,773
2014			140	174	140	314	5,652	12,699
2018			144	175	137	312	5,840	11,944
2019			134	169	127	296	5,757	11,464
2020			136	147	126	273	5,927	11,401

위의 표에 의하면 2006년에는 1984년에 비해 호수(戶數)는 92.54%가 늘었고, 인구는 3.83%가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진위면 전체로는 호수와 인구가 각각 101.18%와 11.35%가 늘어났다. 호수의 증가율은 진위면 전체와 비슷하지만, 인구는 진위면 전체 인구 증가율에 비하여 적은 수치이다. 마을 인근에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인 1인 가구가 늘었고, 노인층의 사망자 수가 점차 늘었기 때문이다. 또한 호수가 2010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오산이나 송탄 쪽에 아파트와 원룸 건축이 늘고, 자가용 승용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회사원들이 아파트나 원룸이 있는 지역으로 이주해 간 것이 원인이다.

5) 30~40년 이상 이 마을에 거주하면서 자식 결혼까지 시킨 정도의 사람들(임성남 이장 인터뷰)
6) 1963~1984년은 평택군 통계연보 / 2006년 이후는 진위면행정복지센터 제공 마을별 인구 통계

3)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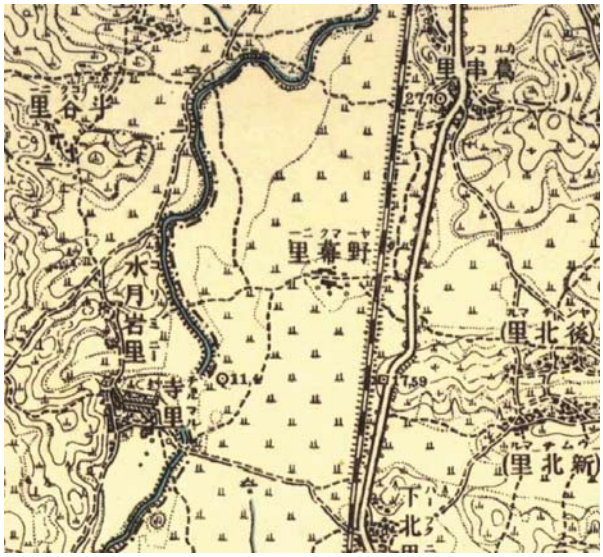
2001년에 준공된 야막고가교

야막고가교 옆에 설치된 마을 입구 표지석

야막고가교에서 서쪽으로 바라본 야막리

마을을 남북으로 통과하는 2차선 도로 남쪽에서 바라본 야막리

야막리 마을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옛 길은 1911년에 작성된 지적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 나타난 길은 1922년 지도에 잘 반영되어 있다. 국도 1호선이 개설되기 전 야막리에서는 네 방향의 길만 있었다. 동쪽으로 갈곶리와 가곡리로 이어지는 길, 서쪽 서탄면 사리와 수월암으로 이어지는 길이 각각 있었다. 북쪽으로는 현재의 오산시 탑동으로 향하는 길이 있었다. 이 길들은 모두 소로였으며, 새마을사업 농지정리가 되기 이전까지만 마을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마을 안길만 마차가 겨우 다닐 정도의 길이었다. 조선시대 진위현의 읍치였던 봉남리로 가는 길은 가곡리 쪽으로 난 길을 이용했다. 국도 1호선이 개설된 뒤부터는 야막리에서 외부로 나가는 주요 통로가 되었다. 북쪽 탑동으로 가는 길이나 수월암리로 가는 길은 사람이 걸어 다닐 정도의 소로(小路)로 오산천을 건너는 다리도 없었다. 2000년대에 오산천을 건너 탑동으로 이어지는 잠수교가 개설되었다. 서탄면 사리로 가는 길은 농지정리 후 농로로 대체되었다. 진위역에서 사리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지만, 사리로 건너가는 길이 놓인 것은 이 마을 주민인 이부순(남, 1941년생)씨가 10대 후반 때라고 하니 1950년대 후반이 된다. 나무로 교각을 세우고 교각 위를 나무로 교각 사이를 서로 연결하여 만든 형태의 다리였다.



1922년 지도에 나타난 교통로

1960년대 지도

1922년 지도와는 달리 1960년대 지도에서 길이 표현되지 않은 이유는 이전의 길이 한 사람이 걸어 다닐 정도로 좁은 소로였기 때문일 것이다. 1969년 농지정리 후 이러한 소로들이 모두 없어지고 농로로 대체되었다. 즉 마을에서 국도 1호선으로 이어지는 길을 제외하고는 직선으로 된 농로를 따라 남쪽이나 서쪽 마을을 오갔다. 국도1호선으로 나가는 길은 지금의 야막 고가교 바로 남쪽이며, 2001년 고가교가 설치된 후 건널목은 폐쇄되었으나 국도 1호선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건널목을 건너 국도 1호선을 만나는 지점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야막 고가교를 설치하면서 약간 남쪽으로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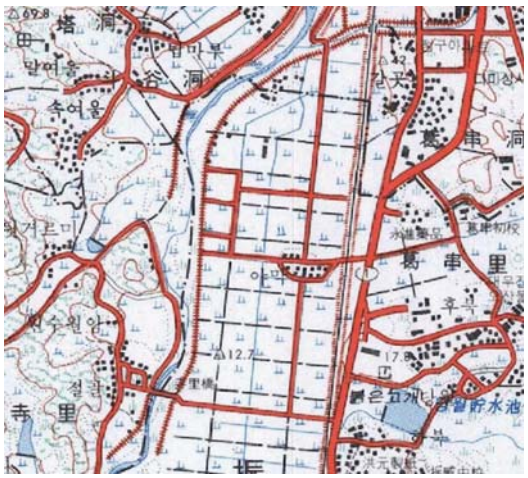
경지정리 후인 1970년대 지도

마을 진입로가 포장된 1980년대 지도

국도 1호선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1차로 새마을운동 때 확장되었다. 그러나 비가 와서 길이 젖으면 질컥거리고 차량 통행이 있으면 파이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오산천에 가서 모래를 퍼서 마차로 실어다 길에 깔았다. 그러다가 1980년대 쯤 마을에서 국도 1호선으로 나가는 길이 포

장되었으며, 1996년 무렵에는 주요 농로가 포장되고 오산으로 이어지는 길에도 다리가 놓였다. 포장된 농로는 대략 3m쯤 되었다.

야막리의 교통 여건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것은 2001년도이다. 이 해에 야막 고가교가 개설되었기 때문이다. 이 고가교가 개설되면서 큰 차들도 자유로이 마을에 드나들 수가 있었다. 이것은 이후 야막리에 여러 공장들이 들어서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남쪽 대정촌으로 이어지는 길이 농로로 3m 정도 넓이였는데, 2010년도 초반에는 2차선으로 확장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농로가 포장되기 시작한 19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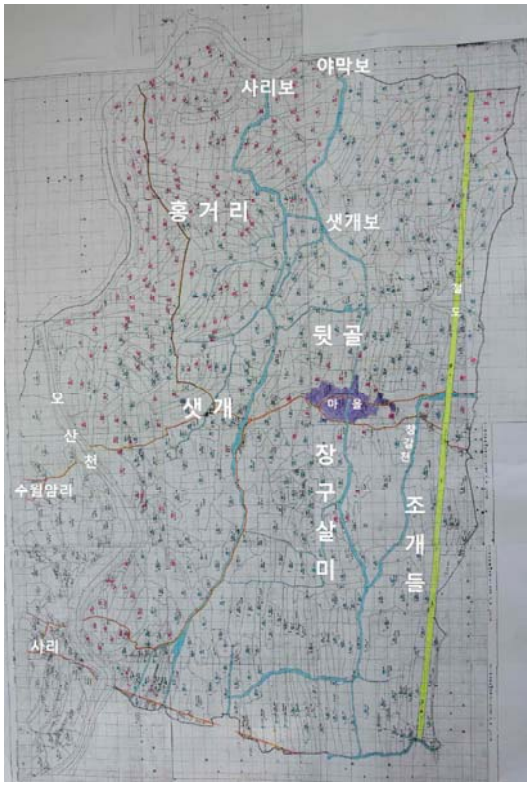
농로 포장이 확대된 2000년대

2015년 지도의 야막리 주변 도로망

남쪽 하북리에서 야막리로 이어지는 2차선 도로

4) 지명

야막리의 지명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사된 내용이 거의 없다. 그래서 야막리 전체의 들판을 한꺼번에 칭하는 말로 '야막들'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도 야막리의 지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마을 토박이인 이부순(남, 1941년생)씨는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야막리 들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렸을 때 들었던 지명이라 들판명이 어느 지점을 가리키는 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고 마을을 중심으로 방향에 따라 들판의 이름을 달리했다고 하였다.



야막리의 지명

지역 명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옛지명	자연마을	야막리 [野幕里]	야막리 마을명으로 '들막' 에서 유래했다. '약 300년 전 유민들이 모여 전답(田畓)을 개간하기 위하여 막(幕)을 치고 살았다.' 고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넓은 벌판에 전답을 개간할 때 더위와 소나기를 피하기 위하여 원두막을 지어놓고 이용하였던 것이 자연 집을 세우게 되어 차차 마을이 형성되면서 들 가운데 막(幕)을 쳤다.' 하여 '들막[野幕]' 이라고 이름하였다.
		동쪽 모탱이	야막봇물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야막리 마을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이 도랑을 중심으로 동쪽 마을이다. 도랑에는 다리가 있어 마을의 두 지역을 연결하였다.
		서쪽 모탱이	야막리 마을 중 야막보 도랑 서쪽 지역을 부르는 명칭이다.
	들	창 갈	국도 1호선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의 들판으로 창갈천이 지나는 곳이어서 '창갈' 로 이름이 붙여졌다.

지역 명	분류	지명	위치 및 유래
		조개들	마을 남동쪽의 들판 이름이다.
		장구살미	마을의 정 남쪽 방향의 들판 이름이다. 장구살미 안에는 동서로 길게 둑을 쌓아 물을 가두는 일종의 보(洑) 시설이 있었는데, 경지정리 때 없어졌다.
		샛개	마을 서쪽 들판의 이름이다. 이곳에는 논과 밭이 혼재 되어 있었다.
		뒷골	마을 바로 뒤쪽의 들판 이름이다.
		홍거리	마을 서북쪽의 들판인데, 주로 밭으로 경작되었다.
	하천	오산천	오산천은 마을의 서쪽을 흐르는데, 마을에서는 보통 ‘냇갈’ 이라고 불렀다.
		창갈천	가곡리에서 야막리 마을 쪽으로 흐르다가 마을을과 철도 사이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도랑이었다. 경지정리 때 물길을 돌려서 마을 남쪽 들판 가운데을 지나 하북리 서쪽, 금암교 바로 남쪽에서 오산천에 합류된다. 경지정리 후 농업용수가 빠져나가는 배수로 역할을 하여 ‘창갈 배수로’ 로 불린다.
	보	야막보	북쪽 오산천을 막아 남쪽 경작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쌓은 보로 마을 가운데를 통과하여 남쪽 하북리에서 창갈천과 합류한다.
		사리보	오산천을 막아 남쪽으로 농업용수를 흘려보내려 조성한 보로 야막보의 서쪽에 있다. 서탄면 사리 사람들의 논이 많이 있어서 사리보로 부르게 되었다.
		샛개보	샛개들로 농업용수를 흘려보내기 위해 야막보를 막았던 시설이다.
	광무양안에 등장하는 하북리 들판 지명		야막전평(野幕前坪) : 야막리 남쪽 들판을 가리킨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지명	도로	야막고가교	국도 1호선에서 야막리로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고가도로로 2001년에 준공되었다.
	교차로	야막리입구 사거리	국도 1호선상의 야막리 입구에 있는 사거리 명칭이다.

2. 역사적 환경

1) 행정구역의 변화

야막리가 자리잡은 진위면 지역은 백제의 영역이었다가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 따라 고구려의 영역에 들어갔다. 이후 신라 진흥왕 때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면서 신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신라 경덕왕 때 '진위현(振威縣)'으로 고을 이름이 붙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라 때 진위현은 지금의 수원시가 되는 수성군(水城郡)의 영현(領縣)이 되었고, 고려 시대에는 5도의 하나인 양광도에 포함되었고 수주(水州)에 속현이었다.[7] 고려 시대의 특수 행정구역에 해당되는 천장부곡(현 서탄면), 송장부곡(현 서정동, 이충동), 종덕장(현 고덕면) 등이 주변에 설치되었다.

조선 건국 후 본래 충청도에 속했던 진위현을 태조 7년(1398)에 경기좌도로 옮겼다가 경기좌우도가 경기도로 개편된 뒤에는 경기도에 속하여 현재에 이른다. 세종 6년(1424)에는 수원 관내의 송장부곡 87호(戶), 부산(釜山)과 청호역의 59호, 용인현과 의신현의 6호를 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라 하여 진위현에 붙였다.[8] 그리고 세종 15년(1433)에는 수원부의 속현인 영신현을 같은 이유로 진위현에 편입시켰다.[9] 이렇게 하여 전체적인 골격이 갖추어진 진위현은 1914년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조선 시대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 되고 국가의 지배력이 확장되면서 면리제(面里制)가 실시되었다. 즉 각 군현의 읍치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면(面)이 편성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영조 때 편찬된『여지도서』의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는 마산면(馬山面), 성북면(城北面), 서면(西面), 탄현면(炭峴面), 송장면(松庄面), 여방면(餘方面), 병파면(丙坡面), 성남면(城南面), 고두면(古頭面), 현내면(縣內面) 등 10개의 면이 있다. 야막리가 속한 서면(西面)에는 궁리(宮里), 신리(新里), 금암리(金岩里), 마두리(馬頭里), 내천리(奈川里)가 있다. 마을명의 대부분이 같은 입장이지만 '야막리'라는 지명도 기록상으로는 이때 처음 등장한다. 야막리의 역사가 3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근거이다. 그런데 정조 때인 1789년에 편찬된『호구총수』에는 성북면이 일북면과 이북면으로, 서면이 일서면과 이서면으로, 탄현면이 일탄면과 이탄면으로 나누어서 기록하였다. 그래서 진위현의 면이 모두 13개 면이 되었다. 이전에 서면에 속했던 마을 중, 궁리, 금암리, 신리, 마두리가 일서면에 편성되었고, 야막리, 걸호리, 내천리는 이서면에 속하였다.

1895년 23부제가 실시되면서 진위현의 명칭이 진위군으로 바뀌었고, 현내면은 군내면이 되었다. 1914년에는 지방 행정구역이 대폭 통폐합되면서 진위군 전체와 평택군, 양성군 및 수원군의 일부가 진위군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군내면(현내면), 일북면과 이북면 전체와 이서면·이서면·마산리의 일부 지역이 합쳐져서 북면(北面)이 되었다. 1948년 지역 주민들의 발의로 북면의 명칭이 진위면으로 바뀌게 되어 야막리는 비로소 진위면 야막리가 되었다.

---

7)『고려사』권56, 지 권제10, 지리
8)『세종실록』24권, 세종 6년 4월 21일.
9)『세종실록』60권, 세종 15년 6월 23일.

2) 마을의 형성과 변화

야막리 마을과 들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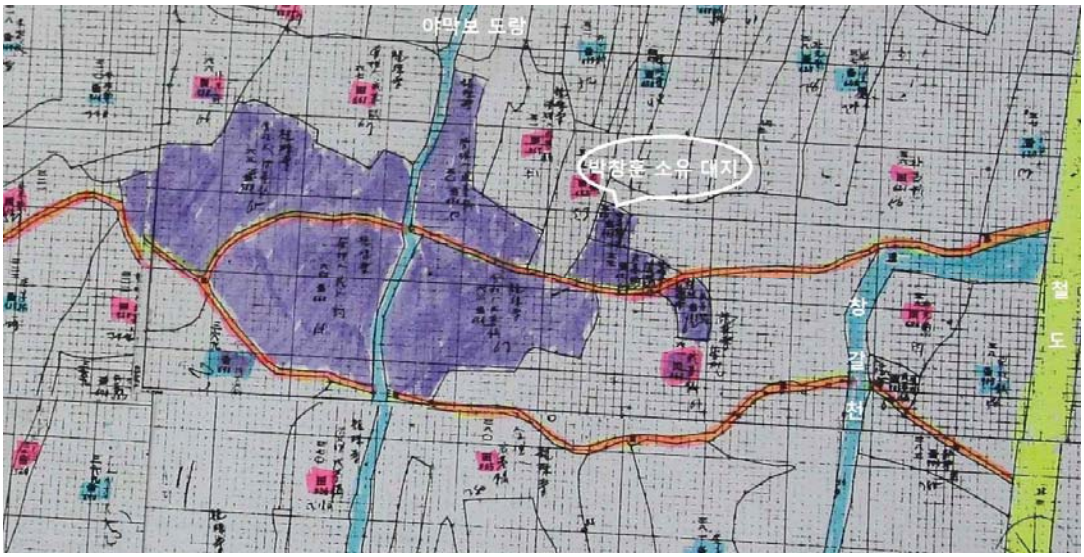
야막리는 우리 말 표현으로는 '들막'이다. 여기서 '막(幕)'이 '임시 거처' 또는 '대강 지은 집'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민들이 임시로 살았던 마을에서 출발한 것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1984년에 편찬된『평택군지』의 야막리 마을의 유래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옛날 약 300년 전 어느 나라 유민들인지는 모르나 유민들이 모여 전답(田畓)을 개간하기 위하여 막(幕)을 치고 살았다 하며 한편, 넓은 벌판에 전답을 개간하자니 더위와 소나기를 피하기 위하여 원두막을 지어놓고 이용하였던 것이 자연 집을 세우게 되어 차차 마을이 형성되면서 들 가운데 막(幕)을 쳤다하여 야막(野幕)이라고 이름하였다.

2001년의『평택시사』에는 "예전에 유민이 이곳에서 전답을 개간하기 위해 넓은 들판[野] 가운데 막[幕]을 치고 살았다 하여 유래했다고 한다."고 서술하였다.[10] 이어 2014년에 발행된『평택시사』에도 "옛날 유민들이 들막을 치고 야막들에 정착하면서 유래됐다."고 기록되었다.[11] 1984년『평택군지』의 야막리 유래에 대한 이야기의 원형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12] 그런데 1857~1865년 사이에 편찬된『여지도서』에는 진위현 서면(西面)의 마을로 궁리(宮里, 미

10) 평택시사편찬위원회,『평택시사』, 2001, 1310쪽.
11) 평택시사편찬위원회,『평택시사』, 2014, 425쪽.
12) 이러한 내용은 실제 마을에도 그렇게 구전되어 내려왔으며, 평택의 지명에 관한 출판물에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김해규,『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Ⅲ, 2008, 103쪽.)

상), 신리(新里, 금암3리 새말), 금암리, 마무리, 내천리와 더불어 야막리가 있다. 특히 야막리에는 120호(戶)가 거주한 것으로 나온다. 1950~60년대 무렵에 30호 정도인 야막리가 이때 120호가 있었다는 기록은 명백한 오류이거나 주변 마을을 아우르는 지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1902년에 작성된 『광무양안』에도 야막리는 등장하고 있지만 오산천 건너 서탄면 '사리(사동)'이라는 지명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로 보아 정확히 어떤 연유인지는 추정하기 어려우나 야막리가 현재의 야막리 뿐만 아니라 서탄면 사리를 비롯한 넓은 범위로 파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박종구씨의 조카가 되는 박기석(남, 1972년생)씨는 자신의 큰 아버지인 박종구씨로부터 '야막리가 먼저 생기고 난 다음 나중에 사리에 사람이 살았다.' 든가 '야막리에 처음에는 3~4집이 살았는데, 나중에 늘어나게 되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사리와 야막리의 마을 형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911년 지적도에 표시된 야막리 대지: 모두 7필지 중 6필지가 용주사 소유였다

1967년 야막리 모습(항공사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2021년 현재의 마을 모습

야막리에 처음 들어온 성씨가 박씨로 알려져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밀양 박씨는 120년 전 무렵에 입향한 것으로 보인다.[13] 1902년에 작성된 『광무양안』에 야막리와 야막리전평(野幕里前坪)에 주택이 있는 7개 성씨 중 박씨가 4호(戶)가 있으며, 이씨가 5호 있다. 이 외에 임씨, 정씨, 최씨, 한씨, 홍씨가 각각 1호씩 기록되었다. 『광무양안』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오는 7개 성씨 중 1912년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있는 토지 소유주와 겹치는 성씨는 박씨(6명), 이씨(5명), 한씨(1명)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야막리와 야막리전평에 사는 14호 가운데 토지를 소유한 인물은 박금단(朴今丹)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작인이다. 박금단 또한 밭을 2부(負) 3속(束) 즉 68.51평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1911년 작성된 지적도 및 1912년 토지조사부에는 야막리의 대지가 총 7필지인데, 그중 1필지만 박창훈의 소유이고 나머지는 모두 용주사 땅이다. 용주사 소유의 6필지를 합치면 4,754평에 이른다. 박창훈 소유의 대지는 73평이다. 당시 박창훈은 전(田) 8,745평, 답(畓) 45,995평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였다. 그러한 그가 살고 있는 집의 대지가 73평에 지나지 않았다면, 용주사 소유의 대지는 여러 민가들이 들어설 수 있는 넓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야막리는 다른 지주 또는 용주사가 중심이 되어 간척과 개간을 주도하고 실제 거주자들은 소작인들이 중심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용주사 소유의 대지 중 마지막 남은 토지는 2018년 현재 해당 토지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이 평당 140~150만원에 매입하였다. 특히 야막리와 하북리, 사리 등지에 많은 토지를 소유했던 용주사 땅의 소작에 종사했던 농민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자신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연유로든 이주가 잦았을 것이고, 따라서 집안의 교체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야막리에서 1950~6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당시 마을에 30여 호가 거주했다고 말한다. 공경렬(9142년생)씨는 토박이로 이 마을에 살았던 성씨가 박씨를 비롯하여 공씨, 이씨, 김씨, 최씨, 임씨, 홍씨, 윤씨라고 하였다. 거주했던 가구 수에 비해 성씨는 매우 다양한 편이다. 이 역시 이주민이 많았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3) 박기석씨는 자신이 야막리에 처음 들어온 밀양 박씨로 부터 5대째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다.

임성남(남, 1969년생)씨는 마을 가운데로 도랑이 지나고 있어서 이 도랑을 기준으로 서쪽은 서쪽 모탱이(서쪽 말), 동쪽은 동쪽 모탱이(동쪽 말)로 불렀다고 했다. 오래 전부터 마을 가운데로 야막보 도랑이 지났고, 경지정리 후에도 이곳으로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도랑이 흘렀다. 그래서 마을 가운데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을 구분하였던 것이다. 도랑으로는 나무 다리를 놓아 건너다녔다. 우물은 동쪽 마을과 서쪽 마을에 한 군데씩 있었다.

2018년 주민들이 용주사로부터 매입한 토지

야막리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 1912년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밭이 191,707평, 논이 455,704평으로 밭과 논의 비율이 7:3 정도 되었다. 그런데 1969년 경지정리로 대부분 논으로 바뀌어 수도작 중심의 농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경지정리가 되던 1969년 김형주씨에 의해 시설채소 재배가 시작되었고, 이후 시설 재배가 확산되어 현재는 26가구 정도가 시설채소를, 9가구 정도가 화훼 시설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결혼하여 서울에서 살다가 2000년 남편의 고향 마을인 야막리로 이주한 박정숙(여, 1967년생)씨가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야막리에 공장이 거의 없었다. 야막리가 들판은 넓지만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이어서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큰 공장이나 창고가 들어오기가 힘들기도 하지만,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았던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2001년 야막고가교가 개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야막안길이 2차선으로 나게 되면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후 공장과 창고들이 계속 들어서서 지금은 24개 정도의 회사가 마을에 있다. 창고로 건축하여도 그 안에 회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체로 회사는 마을 안에 있으며, 일부가 야막리 들판 북서쪽 끝, 오산시 원동으로 넘어가는 잠수교 남동쪽에 있다. 화사들이 들어오고 큰 트럭들이 운행되면서 소음이라든가 전기 줄을 끊어먹는 일이 생겨서 마을 주민들의 불편도 커졌다.

야막리의 현재 마을 경관 : 마을 안에 창고와 공장들이 많아 전통 마을의 경관이 사라지고 있다.

회사가 들어오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타지로 이주한 사람이 대지를 팔면 새로 매입한 사람들이 공장을 지어 입주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마을의 토지 소유주가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것이다. 법률적으로도 공장들의 입주를 막기가 어렵지만, 마을 주민이 건물을 지어 임대를 주기 때문에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 마을에 들어온 24개의 회사들 중 마을 주민과의 유대 관계를 맺으려 하는 회사는 3~4개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은 면민체육대회나 마을 행사 때 회사당 10~30만원 정도의 찬조금도 희사하고 있다. 그 외 나머지 회사들은 마을 주민과의 교류가 거의 없다.

박정숙(여, 1967년생)씨가 이장을 맡으면서 2016년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창조적 마을만들기(경관, 생태 분야)' 사업에 '야막리 창조적 마을만들기(하얀무지개마을)'라는 계획으로 응모하여 경기도에서 5억을 지원받아 2017~2019년 사이에 마을 환경을 개선하였다. 이때 나이 40대부터 70대까지 20명으로 구성된 '마을가꾸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진 마을들을 견학하며 마을 가꾸기에 주력하였다. 그래서 창갈천 남쪽으로 1km 길이의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뿐 아니라 마을 여러 곳에서 운영하는 농장 체험 활동과 연계하도록 하였다. 또한 마을 동쪽과 마을회관 뒤 2곳에 쉼터를 만들고,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안에 무인카메라 5대를 설치하여 가동 중이다. 이 예산의 일부로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은 마을 홍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하얀무지개 야막마을 안내판

마을 남쪽 창갈천 옆으로 조성된 산책로

마을회관 뒤 쉼터

마을 동쪽 쉼터

현재 하북리의 서탄로 북쪽에서부터 야막리 남쪽으로 산업단지(테크노벨리) 개발 계획이 있다. 이 계획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입장은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전에 '제2산업단지

계획’ 때는 마을 사람들이 지가가 너무 낮아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반대가 심했었다. 국도 1호선 너머 갈곶리와 야막리는 지가가 7:2 정도 된다. 즉 갈곶리가 평당 700만원이면 야막리는 200만원 정도이다. 그래서 아직은 산업단지 개발에 대응한 큰 움직임이 없지만, 지가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2) 역사적 경험

(1) 3·1 운동

평택 지역에서 3·1 만세 시위는 3월 9일 현덕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3월 11일 평택역 광장, 3월 31일 북면 봉남리의 면사무소 등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어 4월 10일까지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21명이 형을 선고받았고, 10명이 피살되었다.[14] 평택 지역에서 전개된 3·1 운동 전개 과정에서 일어난 3월 31일의 봉남리 만세 시위는 200~500명이 참여하여 17명이 검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삼일운동비사』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북면 야막리는 천도교구가 있고 교인이 많이 있는 곳인데 3월 31일 봉남리와 합세한 500여 명이 태극기를 들고 면사무소를 습격한 후 면장을 앞세우고 만시를 부를 때 경찰과 수비대가 자동차로 달려가서 해산을 시키고 주모자 박창훈을 체포했다.[15]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야막리에 천도교구가 있고, 교인이 많다.’는 사실과 ‘주모자 박창훈’이다. 3월 31일 봉남리의 면사무소에서 일어난 만세시위의 주도 세력이 야막리의 천도교인이었다는 점과 주모자가 박창훈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박창훈은 체포되기는 했으나 형을 받지는 않았다.

야막리에는 당시 약 30가구 정도가 살았는데, 천도교 진위교당이 설치되었고 주민들 대부분이 천도교를 믿고 있었다. 2006년에 김해규가 인터뷰 했던 박종구(남, 당시 92세)씨는 자신의 조부 때부터 천도교를 믿었으며, 조부 박창순과 부친 박규영이 3·1 운동에도 참가하였다고 했다.[16] 그 또한 6세의 어린 나이에 서탄면 사리와 야막리 일대에서 만세 부르던 광경과 일본 헌병들이 들이닥쳐 집을 뒤지고 마을 사람들을 잡아갔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조부와 부친도 오산경찰서에 잡혀가서 고문을 심하게 받아 손가락이 잘리고 뒤틀려서 일을 못할 정도였다.

야막리에 천도교 진위교당이 설치되고 천도교도인 주민들이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야막리의 주민들은 이 마을과 관련된 천도교와 3·1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야막리에서 3대를 살았다는 임계춘(여, 1929년생)씨는 3·1 운동이나 천도교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한 이부순(남, 1941년생)씨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이들보다 훨씬 젊은 임성남(남, 1969년생)씨는 어렸을 적에 박종구씨로 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고 목격한 마을에서 그 내용이 잘 전승되지 못하고 있는 대목이라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14) 진주환,「평택지역 3·1운동의 검토와 과제」,『한국민족운동사연구』98, 2019, 134-137쪽.
15) 이병헌,『삼일운동비사』, 진주환,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16) 김해규,『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Ⅲ, 평택문화원, 2008, 103-105쪽.

(2) 6·25 전쟁과 피난

야막리는 국도 1호선 바로 옆에 있어서 6·25 전쟁을 피해 갈 수 없었다. 이부순(남, 1941년생)씨는 진위국민학교 3학년 때 6·25 전쟁을 맞았다. 어린 나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지만 어른들 사이에 전쟁이 났다는 얘기가 오가는 것을 듣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 인민군이 마을 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목격한 그의 큰형님은 겁에 질려 소를 끌고 서탄면 사리로 뛰어 갔다. 당시에는 큰 재산으로 간주되었던 소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인민군들이 내려올 때마다 옆 마을로 피난을 갔다. 당시 부모님은 집에 계시고 형제들만 피난을 했는데, 서탄면 사리 쪽이나 오산의 어느 마을, 진위면 동천리의 동쪽인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등 3~4회 정도 인근 마을로 갔다. 이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인민군들을 마주치지 않으려 그런 식으로 피난을 갔었다.

인민군들은 주로 새벽에 도착하여 낮 동안은 민가에서 잠을 자며 지내고 해가 지고 어둑해지면 남쪽으로 출발하였다. 미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인민군들은 무기와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마차에 싣고 왔다. 당시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이라 창갈천이 말라 있었고 창갈천 옆으로는 수양버드나무가 있었는데, 버드나무 아래에 말을 매어놓았다.

이부순씨 집 사랑방에도 인민군 20~30명이 들어와 묵어갔다. 인민군들은 자루에 쌀을 차고 다녔는데, 그 쌀을 그의 어머니한테 주면서 밥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밥을 해줄 때 옆에 있던 이부순씨는 밥을 얻어먹기도 했다. 그는 야막리에서 생산되는 쌀보다는 밥 맛이 못하다는 기억을 갖고 있다. 반찬은 따로 가져오지 않아 집에 있던 것으로 해줬다. 더러 부잣집에서는 자기네 쌀로 밥을 해줬다는 얘기도 들었다. 밤에는 부잣집 사랑방 툇마루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북한 노래를 가르쳤다. 그렇게 인민군들은 한 여름 계속해서 북에서 남으로 새벽에 내려왔다가 저녁에 떠났다. 집에 들어와 방을 차지하고 밥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 외에 인민군들이 주민들에게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것은 없었다.

주민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지역에 살았던 좌익들이었다. 이들은 당시 경찰관이었던 이주을씨 집 사랑방에 인공사무실을 차려놓고 활동하였다. 빨간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호통을 치고 특히 군경 가족 등을 괴롭혔다. 인공사무실을 차려놓은 집에 사는 이주을씨가 경찰관이었는데, 날마다 그 모친과 부인에게 숨은 그 경찰관이 숨은 곳을 말하라고 호통을 쳤다. 그럴 때마다 그의 모친과 부인은 땅을 치며 통곡을 했다. 이부순씨 둘째 매형도 경찰관인데, 당시 둘째 누님이 친정으로 오자 부모님께서 쫓다시피 해서 안성 집으로 돌려보냈다. 수복 후에 부산으로 피신했던 이주을씨가 돌아왔고, 이후 가족을 괴롭혔던 좌익들도 잡혀서 죽음을 당하였다. 진위초등학교 여교사 하나는 아이들을 사랑방에 모아놓고 노래를 가르치기도 했는데, 수복 후에 죽임을 당하였다.

이부순씨(1941년생)

6·25 전쟁 직후에는 옆 마을로 피난을 가느라 피난민을 거의 보지를 못했다. 그런데 1·4 후퇴 때는 엄청나게 많은 피난민이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난민들이 경부선 철도를 따라 끝도 없는 행

렬을 지어 내려왔다. 피난민이 워낙 많아 집집마다 방이 꽉 차게 되자 피난민들은 마당에서 짚으로 불을 놓고 밤을 새울 정도였다. 이때는 마을 사람들도 멀리 피난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부순씨네도 공주로 피난을 갔다. 먹을거리로 쌀 5말 정도와 쌀로 만든 엿을 준비했다. 쌀로 고아서 두께 2cm 정도로 납작하게 만든 엿은 어린 이부순씨가 짊어졌다. 광목으로 솜버선을 만들어 신고 고깔 비슷하게 만든 모자(이부순씨는 이것을 '땅깨비 모자'라고 하였음)를 모두 쓰고 길을 떠났다. 당시 부친은 60세 정도 되셨는데, 그때만 해도 연로하다고 해서 피난을 가지 않고 집에 남고, 나머지 식구들만 피난을 떠나게 되었다.

낮에는 길을 걸으면서 점심을 해먹기가 어려워 엿을 탁구공 크기로 떼어서 먹었다. 그렇게 어렵게 공주에 가서는 짧게 이틀을 묵고 다시 돌아왔다. 가는 데는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데, 돌아오는 데는 열흘 정도가 걸렸다. 어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길로 왔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작은 배로 바다를 건너야 하는 곳에 도착하여 1주일 정도를 묵었다. 건너려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1주일 정도를 나루가 있는 마을 민가에서 지내게 됐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방에서도 눕지 못하고 앉아 있어야 했다. 그나마 이부순씨 가족은 방을 얻지 못해서 헛간에서 보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다시피 했다. 겨우 배를 얻어 타고 고덕면 두릉리 계루지 마을에서 마지막 남은 쌀을 털어서 밥을 해먹고 집으로 왔다. 집을 떠난 지 보름 정도가 걸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2) 새마을 운동

이부순씨는 32살인 1972년 마을 어른들의 추천으로 야막리 초대 새마을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이곳 국도 1호선 가에 있는 마을들을 대상으로 1차로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시켰다고 했다. 그래서 1972년 1월 1주일 동안 낮에는 교육받고 밤에는 시내 여관에서 자면서 수원 경기도청 옆 시민회관에서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받았다. 교육 내용은 새마을사업 기초사업, 즉 농로 5m 확장, 울타리 개량, 지붕 개량, 변소 개량 등이었다. 교육을 마치고 그 해 봄부터 새마을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마을길 넓히기부터 시작하여 마을 사람들이 날마다 부역을 했다. 당시 마을 북쪽에 동서로 난 길은 마차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넓이였고, 남쪽 길은 '아편길[17]'이라고 불리었으며, 사람이 걸어다닐 정도의 좁은 길이었다. 이런 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어린 새마을지도자한테 가장 어려운 일은 길을 넓히는 데 필요한 땅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개인 땅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희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면 마을 어른들을 찾아 '이거 이러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마을 어른들이 잘 협조를 해주어서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현재 마을을 동서로 가로지는 두 개의 길이 그때 새마을사업으로 넓힌 길이다. 길은 이때 새마을사업으로 넓혔지만, 마을 진입로의 시멘트 포장은 1980년대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요즘 들어서 새마을운동 당시 희사했던 땅을 거두어들이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마을길 넓히기와 더불어 지붕개량을 추진하였다. 지붕개량 주로 슬레이트로 하려 했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응하여 그는 이장과 협의하여 집집마다 주택의 크기를 헤아려서 그 크기에 알맞은 양의 슬레이트를 무조건 그

17) 이부순씨는 '아편길'을 '(마을)앞 행길'의 발음이 변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하였다.

집 마당에 쌓아놓았다. 주택의 한 칸[間]당 7장 정도의 슬레이트가 들어가는 것을 계산하여 수량을 맞췄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한 집이 지붕개량을 해놓자 다른 집도 따라하기 시작하여 결국은 모두 지붕개량을 마칠 수 있었다. 슬레이트 대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 식으로 갚아나갔다. 지붕에 슬레이트를 얹는 일은 기술자가 했고, 그들의 하루 일당으로는 쌀 두말 값 정도를 지불했다.

이부순씨는 새마을지도자를 1년 하고 1973년도 1년은 이장을 봤다. 이때는 퇴비증산운동이 한창일 때였다. 동네에 종을 걸어두고 매일 아침 면직원이 새벽같이 와서 퇴비증산을 독촉하는 종을 쳤다. 국도 옆에 큰 퇴비장을 만들어서 쌓아야 했다. 당시 야막리 들판은 죄다 논이어서 마땅히 풀을 벨 수 있는 데가 없었다. 소를 먹일 풀도 4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청호리까지 가기도 했던 때였다. 그래서 한 번은 미 공군 트럭의 협조를 받아 노인들 3~4명을 제외한 마을 사람들 모두 동원하여 팽성읍 K-6 미군기지의 비행장까지 가서 풀을 베 오기도 했다.

1972년 새마을사업으로 넓힌 마을길

위 지도에 ‘O’ 표시된 골목의 현재 모습

새마을운동을 할 때는 면이나 군청의 공무원들이 수시로 마을에 왔다. 당시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32~33살의 젊은 나이에 군수가 된 이재창 군수는 1973년 봄 야막리에 16번을 왔다. 어떤 날은 이장이 일어나기도 전에 올 정도였다. 공무원들이 오면 점심 대접을 해야 하는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부순씨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이장 1년을 보고 도저히 더 할 수가 없어 그만두게 되었다.

(3) 야막리 시설 채소 재배의 선구

김형주씨는 야막리에서 1942년 7남매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진위국민학교 1학년 때 6·25 전쟁이 일어나 학교를 그만두고 5년 정도 뒤에 4학년으로 편입하여 46회로 졸업을 하였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오산중학교를 다녔는데, 집안의 경제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농사를 지었다. 그가 군에 복무하는 동안 부친이 재산을 모두 날려서 형편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때부터 집안의 살림을 맡아야 했던 그는 살기 위해 품팔이도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대로 일을 하였다. 그런데 겨울에는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농한기를 없애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1968년에는 노지에다 배추를 심었고, 이듬해인 1969년부터 비닐하우스를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대나무로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터널형 비닐하우스를 만들었다. 대나무는 전남 담양에서 사가지고 직접 베서 왔다. 그 당시 비닐하우스는 보통 3월 파종을 하기 전에 지었다. 양쪽에 대나무를 세우고 짚을 빻아 부드럽게 한 다음 돌려 꼬아서 대나무를 묶었다. 철사를 3줄을 띠어서 대나무의 높이를 맞췄다. 4월 중순 경이 되어 작물이 조금씩 커지면 비닐은 다 찢어서 없애버리고 비료를 주며 채소를 길렀다. 수확 후에는 대나무를 뽑아내고 바로 모를 심는다. 뽑아낸 대나무는 한곳에 쌓아두었다가 이듬해에 다시 짓는 방식이었다. 대나무는 대개 10~15년 정도를 사용했다. 이렇게 대나무를 사용하다가 도금이 안 된 철제 파이프가 나와서 3천평을 지었다. 이때부터는 파이프를 고정으로 설치가 되었지만, 비닐은 2년에 한 번씩 갈아 씌웠다.

이삼용씨의 대구농장을 비롯한 대정촌 사람들은 배추를 심었고, 김형주씨는 무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그 역시 처음에는 배추를 심었으나 그의 농장 토양이 사질토였던 것이 이유가 되었다. 배추는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무는 거름을 배추보다 적게 줘도 되기 때문에 사리토인 그의 농장은 무 재배가 더 좋았다.

대체로 가을에 수확하여 저장한 무는 4월이 되면 모두 소비가 되어 5월이 되면 시장에 무가 나오지 않았다. 이때 비닐하우스에 재배하여 5월에 출하를 하니까 무 1개에 쌀 1되 값이 나갔다. 무를 1평에 30개 심었으니 평당 쌀 3말에 해당되는 소득을 올린 것이다. 그렇게 해서 1970년대 돈을 많이 벌었고, 74년도에 진위면에서 제일 좋을 정도의 슬라브 주택을 지었다. 김형주씨는 자신의 조카들한테 시설재배를 권하였다. 그 후에는 농장에 와서 일 하던 사람들도 따라서 하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었다. 일꾼들은 주변 동네 사람들 20~30명씩 고용하였다. 그의 기억으로 1970년대 말 하루 일당은 3천원, 4~5천원이었다. 당시에는 마을이나 주변에 지금처럼 공장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일하는 게 야막리와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일종의 부업이 되었다.

그는 처음에 무를 주로 재배하다가 나중에는 배추, 상추, 시금치, 쑥갓, 오이, 토마토, 고추 등 다양하게 재배를 해보았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에는 오이, 애호박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그 무렵 하북리, 야막리, 신리 등에서 애호박이 많이 생산되었다. 그래서 강원도 춘천 사람들이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에 애호박 재배 기술을 배워갔다. 이후 김형주씨가 작목회장을 할 때는 애호박 값이 1박스에 500~600원으로 폭락하면 춘천 사람들하고 연락을 해서 좋지 않은 것을 모두 폐기 처분하고 좋은 것만 시장으로 내보냈다. 그러면 애호박의 시장 가격을 금새 올랐다.

그는 점점 하우스의 규모를 늘렸고 나중에는 12,000평까지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연 매출액이 7~8억 원에 이르렀는데, 비용을 빼면 3~4억 원 정도의 수익이 되었다. 나이가 들어 야막리의 농사는 아들과 딸에게 각각 6천 평씩 나누어주고 은퇴하여 한 동안 쉬다가 다시 2020년 마두리에 1만 평의 비닐하우스를 지었다. 비닐 한 겹을 씌우는 이 하우스를 짓는 데 15억이 들어갔으니, 평당 15만원 꼴이다. 2021년에는 자재값이 폭등하여 이 하우스처럼 골격과 비닐 및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 일체를 갖추려면 평당 25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비닐을 한 겹으로 하는 것과 두 겹으로 하는 것은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는 한 겹으로 해도 경제성을 갖고 농사지을 수 있는 노하우를 개발했다고 하였다. 내부 난방은 석유로 하고 있는데, 1만 평에 이르는 시설 전체에 한 겨울 난방비가 3천만 원 정도 든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 10명을 고용하고 있다. 일하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일당 7만원 또는 8만원을 주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인당 200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토요일 한 달에 두 번 쉬고 일한다.

김형주씨의 시설 채소를 재배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고, 송탄농협 연합작목회장, 평택시 새농민회장 등을 역임하며 자신의 경험을 다른 농민들과 나누었다. 이러한 그의 공로로 '평택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3. 경제생활

1) 농업

조선 후기 이래 야막리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 오른쪽 [표]와 같이 1960~70년대 까지 농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다가 1970년대 말~1980년대부터 비농가의 숫자가 점점 늘게 되었다.

야막리의 농가와 비농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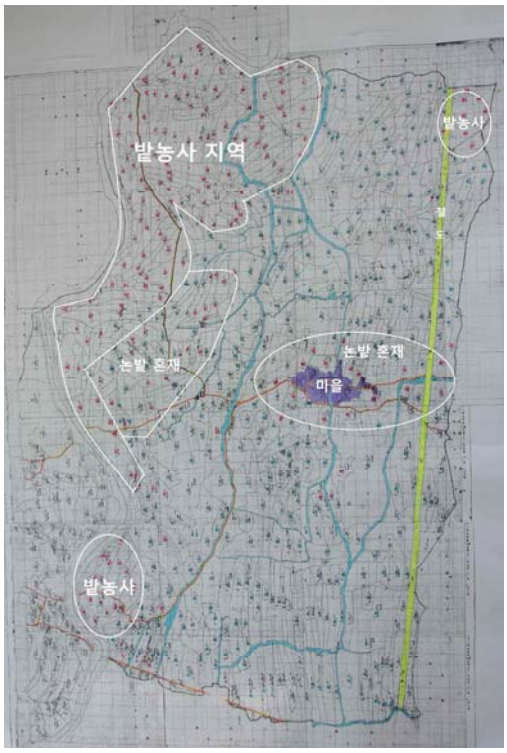
연도 (12/31기준)	호 수 (戶 數)		
	농가	비농가	계
1963	30	8	38
1971	41	5	46
1976	43	4	47
1984	49	18	67

현재 마을 이장인 임성남씨에 의하면 마을에 거주하는 105가구 중 농가수는 44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41.90%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자(136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농가는 전체 가구수의 32.35%에 지나지 않는다. 농사에 종사하는 44가구 중 수도작은 10가구 정도이며, 그중 2가구만이 규모가 큰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다. 시설 재배에 종사하는 집은 34가구이고, 그중 화훼가 8가구, 시설 채소가 26가구이다.

(1) 농지 확보와 관개 시설

야막리는 벌판 한 가운데 있는 마을이다. 조선 후기부터 소작인으로 들어온 농민들이 개간과

관개 시설을 확보하고 농지를 일구며 살아온 마을이다. 하북4리 사리교차로에서 서탄면 사리로 들어가는 방꼬지길 바로 남쪽에서 야막리 마을을 지나 북쪽 오산시 갈곶동까지 펼쳐진 들판은 임야가 없어 건축물이 들어선 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농지일 정도로 들판이 넓다. 1912년 토지조사부에도 야막리 전체 토지 656,913평의 토지 중 임야 405평, 잡종지 2,011평, 대지 5,498평을 제외한 647,411평이 농지로, 농지비율이 전체 토지 면적의 98.55%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18] 이렇게 농지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지대가 편평하여 개간에 큰 어려운 난관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농지는 밭이 191,707평, 논이 455,704평으로 밭과 논의 비율이 7:3 정도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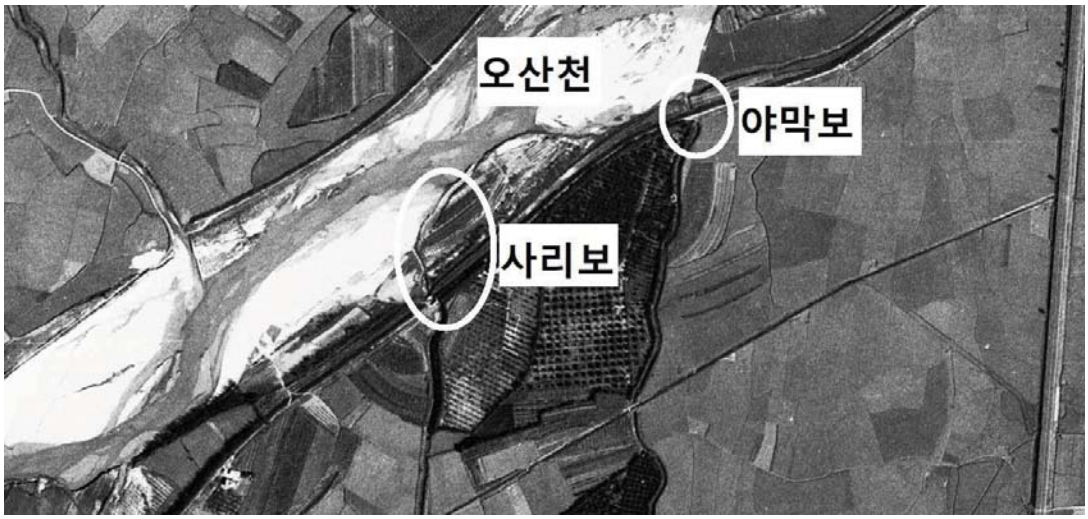
1911년 지적도로 본 야막리의 경지 이용

1969년 경지정리로 현재의 모습과 같은 들판이 조성되기 전에는 지대가 낮은 동쪽에 주로 벼농사를 짓고, 동쪽에 비해 지대가 40~50cm가 높은 서북쪽에는 밭농사를 지었다. 이러한 농지 이용 내용은 1911년의 지적도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경지정리 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공경렬(남, 1942년생)에 의하면 서북쪽의 밭농사 지역은 논농사 지역보다 40~50cm 정도 높았다고 하였다. 대체로 편평한 땅이지만 약간의 높낮이가 존재하였던 것이다. 또한 밭농사 지역은 모래가 많아 배수도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야막리 북쪽 들판의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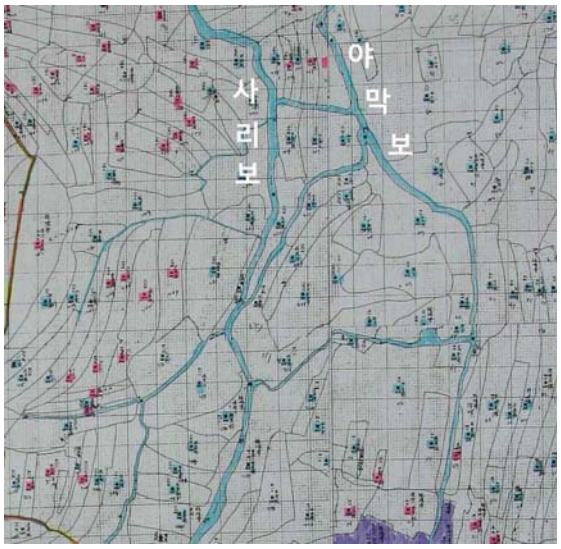
18) 이 통계치는 야막리 토지조사부에 있는 통계치이다. 각 번지수별 토지 목록에는 오산천 건너 서탄면 사리쪽 들판이 포함되어 있어서 목록에 나온 토지를 모두 합치면 토지조사부의 통계치를 초과하게 된다. 이후 서술된 토지 소유 관계 통계치들은 모두 번지수별 토지목록의 합계에 의한 것이다.

야막리 남쪽 들판의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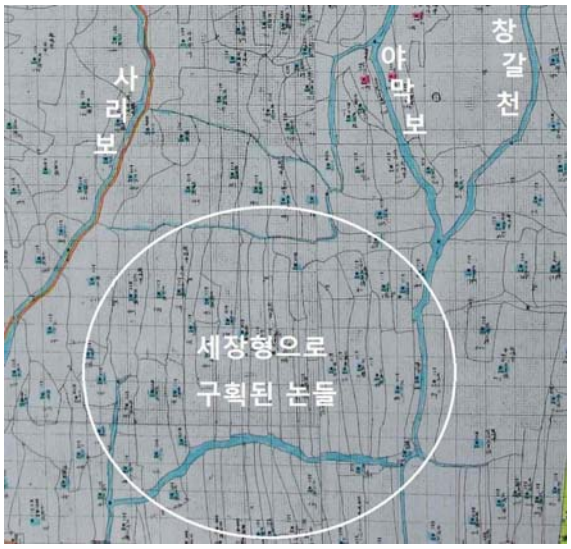


사리보와 야막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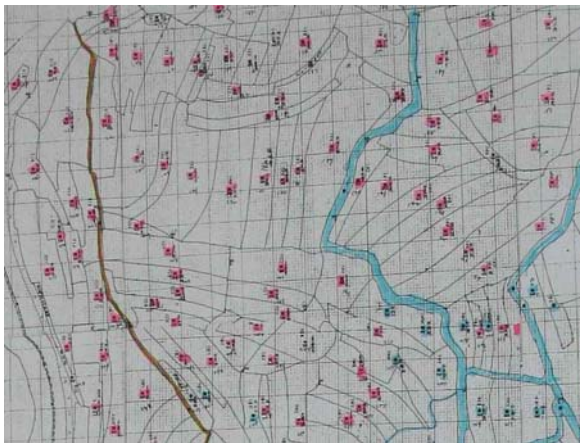
넓은 야막리 들판에 자연적으로 흐르는 하천은 창갈천이 유일했다. 그러나 가곡리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창갈천은 마을 동편에 치우쳐 있고 수량이 매우 적었다. 큰 비가 내리는 때가 아니면 거의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마르다시피 했다. 그래서 오산천의 물을 끌어들이는 보 시설이 필요했다. 보는 북쪽 오산천을 막아 모두 남쪽으로 흐르게 하면서 논에 물을 댔다. 동·서로 나란하게 두 개의 보가 만들어졌는데, 서쪽을 ‘사리보’, 동쪽을 ‘야막보’라 하였다. 조성된 마을 사람들은 3~4월에 가마니에 흙을 담아 보를 쌓았다. 보다 많은 논에 물을 원활하게 대기 위해 두 보 사이를 연결하였으며, 중간 중간 옆으로 흐르게고 하였다. 이것은 모두 이 들판이 편평하여 도랑을 파는 데 장애될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또한 야막리에서 하북리까지 이어진 들판에서 특이한 점은 논과 밭이 가늘고 긴 모양[細長型]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논의 경우에는 관개의 필요성과 연관지을 수 있겠지만, 밭 또한 그러한 모양 으로 구획을 짓고 있는 모습이 특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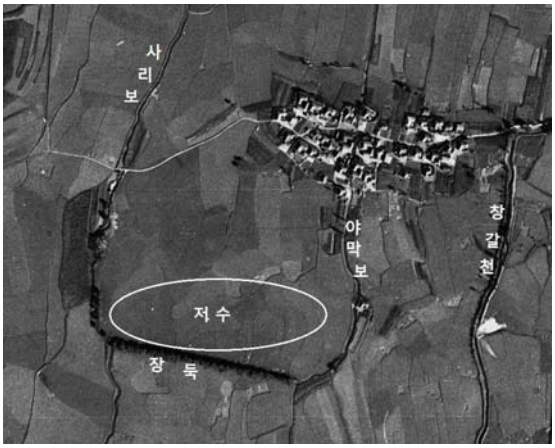
봇도랑을 서로 연결시킨 모습



봇도랑이 가늘게 연결된 모습 / 세장형 논



세장형으로 구획된 밭



장구살미 들판의 저수지와 장둑

창갈천과 두 개의 보에 의지하여 농사를 짓기에는 물이 풍족하지 못하였다. 공경렬씨는 샛개들에 샘이 세 개 정도 있었고, 샘에서 새우를 잡았던 기억을 갖고 있다. 농민들이 용두레와 고리두레로 샘물을 퍼서 농사지었으며, 마을 뒤에도 작은 방죽이 있어 물을 퍼서 농사짓는 모습을 보았다. 또한 마을 남쪽에는 사리보와 야막보 도랑을 서로 연결하는 장둑을 쌓고 가을부터 봄까지 물을 가두어 농업용수로 이용했다.

야막리 들판의 관개 문제는 경지정리와 더불어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기흥호수에서 농업용수가 공급되면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기흥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은 야막리 들판 뿐만 아니라 하북리 들판 북쪽의 일부와 서타면 금암리까지 공급되고 있다.

기흥호수와 이동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

(2) 농지 소유 관계

1912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부(이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야막리의 토지는 주변 마을 거주민 뿐만 아니라 일본인 및 타지역의 인물들이 다수 있다. 토지조사부의 내용을 소유자의 거주지별로 재구성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19]

1912년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야막리의 토지 소유 현황

소유자	주소	지목	필지 수	소유면적
간학모	야막리	답	1	712
		전	3	3,314
간흥모	야막리	답	2	2,048
김경호	야막리	전	2	2,223
김대희	야막리	답	5	4,321
		전	2	841
김동희	야막리	전	1	282
김만희	야막리	답	1	941
		전	3	1,871
김상국	야막리	답	1	895
김상주외2인	야막리	답	4	1,760
김석희	야막리	답	1	466
		전	1	810
김선식	야막리	전	1	1,172
김성선	야막리	전	2	168
김영희	야막리	답	2	2,332
김영희	야막리	전	1	1,626
김재규	야막리	전	1	1,548
김재근	야막리	답	1	1,335
		전	1	495

19) 토지조사부에서는 서탄면 사리 거주자의 주소를 야막리로 기입하였다. 따라서 야막리와 사리에 거주하는 소유주를 이 문서만으로 구분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여기에는 야막리 들판뿐 아니라 사리 동쪽의 오산천변의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소유자	주소	지목	필지 수	소유면적
김재순	야막리	전	2	654
김재원	야막리	답	2	1,837
		전	2	482
김준희	야막리	답	1	817
		전	1	2,214
김태흥	야막리	답	3	1410
김태희외3인	야막리	답	1	624
박경재	야막리	답	5	7,900
		전	1	1,712
박귀영	야막리	답	2	3,246
박원훈	야막리	답	4	6,342
		전	3	679
박인훈	야막리	답	5	5,869
박주훈	야막리	답	5	4,314
		전	2	945
박창훈	야막리	답	29	45,995
	야막리	대	1	73
	야막리	전	6	8,745
야막리	야막리	잡종지	1	329
원지상	야막리	전	1	174
유기선	야막리	답	1	52
윤교석	야막리	답	1	1,786
		전	3	3,417
윤교영	야막리	답	1	1,121
		전	1	393
윤대선	야막리	전	1	1,511
윤명흠	야막리	답	2	1,282
윤영오	야막리	전	1	1,325
윤하선	야막리	답	3	6,045
		전	1	580
이객규	야막리	답	1	280
이병규	야막리	전	2	1,939
이용국	야막리	전	1	350
이용규	야막리	답	1	544
		전	2	2,344
이태영	야막리	답	3	2,833
		전	4	3,242
장재근	야막리	답	18	20,531
		전	19	23,807
최기식	야막리	답	1	617
최익신	야막리	전	1	910
한경선	야막리	답	1	677
고제항	가곡리	답	1	737
박주석	가곡리	답	2	1,488
신우식	가곡리	답	1	1,287
양귀환	가곡리	답	7	6,455
양주현	가곡리	답	2	2,175
양필수	가곡리	답	1	824
정계근	가곡리	답	2	2,832
정규계	가곡리	답	2	807

소유자	주소	지목	필지 수	소유면적
정성조	가곡리	답	1	384
정성집	가곡리	답	1	1,560
		임야	1	123
강선택	갈곶리	답	3	1,539
강영호	갈곶리	답	5	3,262
		전	2	1,945
공석원	갈곶리	전	1	529
김유주	갈곶리	답	1	667
김현수	갈곶리	전	1	831
송익수	갈곶리	답	1	769
최화경	갈곶리	답	1	1,701
김상익	경성부	답	1	970
김성칠	경성부	답	2	1,877
		전	2	461
박대혁	경성부	답	16	27,724
		전	3	3,910
박제원	경성부	답	11	10,026
		전	2	1,803
신홍식	경성부	답	9	10,058
		전	4	5,309
안홍선	경성부	답	3	4,291
윤용구	경성부	답	1	541
이근목	경성부	답	2	506
이근배	경성부	답	4	3,638
이병묵	경성부	답	10	9,414
		전	3	4,219
이용문	경성부	답	5	6,080
		전	2	1,005
조동순	경성부	답	8	12,469
천극식	경성부	답	3	4,239
한규설	경성부	답	5	5,804
		전	1	2,448
한세현	경성부	답	1	706
		전	1	1,716
홍순우	경성부	답	29	28,016
		잡종지	1	349
		전	5	2,604
송달호	남양군	답	1	384
		전	1	238
이유면	마산리	전	1	2,027
이희철	마산리	임야	1	452
윤두혁	병남면 합정리	답	1	1,389
김명현	수원군	답	1	111
		전	2	2,988
백경수	수원군	전	2	1,502
용주사	수원군	답	43	76,021
		대	6	4,754
		전	16	19,796
윤교덕	수원군	답	1	3,414
윤태형	수원군	답	3	2,836

소유자	주소	지목	필지 수	소유면적
이광삼	수원군	전	3	760
이정규	수원군	답	3	3,078
조봉천	수원군	전	1	1,730
차재형	수원군	답	1	1,051
최승우	수원군	전	5	5,146
최승진	수원군	전	1	707
최승한	수원군	전	1	699
최재산	수원군	전	1	571
최중화	수원군	전	1	695
최진화	수원군	답	1	936
		전	2	1,440
최춘근	수원군	전	1	355
한형리	수원군	답	9	10,780
		전	1	541
윤도의	수월암리	전	2	2,408
윤영상	수월암리	답	1	1,276
윤재덕	수월암리	답	1	1,645
		잡종지	1	1,311
		전	3	5,210
윤재청	수월암리	답	2	2,349
		전	1	1,715
이선규	수월암리	답	1	882
최승순	수월암리	전	2	1,291
최찬호	수월암리	답	1	506
최찬호	수월암리	전	1	627
이만영	양평군	답	10	10,668
		전	1	824
유진규	죽산군	답	1	1,543
정인경	진천군 만승면	답	1	972
김상현	탑동	전	1	745
김중선	탑동	전	2	331
박낙용	탑동	전	2	1556
백낙룡	탑동	전	1	1,182
백백만	탑동	전	1	236
백성삼	탑동	전	1	150
백성진	탑동	전	1	93
백의서	탑동	전	2	1,542
윤명오	탑동	전	1	2,178
윤병오	탑동	전	1	950
윤응삼	탑동	전	2	1,431
이영수	탑동	전	2	1,267
이재성	탑동	전	1	882
이재하	탑동	전	5	3,423
최공열	탑동	전	1	1,672
최관순	탑동	전	1	1,762
최기순	탑동	전	3	2,287
최명순	탑동	전	1	1,425
최봉순	탑동	전	1	259
최상순	탑동	전	1	453
최성래	탑동	전	1	1,544

소유자	주소	지목	필지 수	소유면적
최영순	탑동	전	1	197
최은필	탑동	전	2	1,684
최재순	탑동	전	1	680
최화실	탑동	전	1	607
한여극	탑동	전	1	795
이백래	하북리	임야	1	282
이백래외3인	하북리	답	1	1,500
이용은	하북리	답	2	1,305
이용준	하북리	답	1	1,643
이용하	하북리	답	5	7,163
능등국차랑	금암리	답	1	538
암기구미	동경시	답	26	32,375
암기구미	동경시	전	4	7,578
서정융흥	수원군	답	2	411
평생팔삼랑	인천부	답	3	5,077

소유주의 거주지별 토지 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1912년 토지조사부의 거주지별 토지 소유 현황[20]

거주지	전			답			잡종지			임야			대지		
	인원	필지	면적	인원	필지	면적	인원	필지	면적	인원	필지	면적	인원	필지	면적
야막리	31	72	69,773	30	108	128,932	1	1	329				1	1	73
가곡리				10	20	18,549				1	1	123			
갈곶리	3	4	3,305	5	11	7,938									
금암리				5	36	45,979									
마산리	1	1	2,027							1	1	452			
수월암리	5	9	11,251	5	6	6,658	1	1	1,311						
탑동	26	38	29,331												
하북리				4	9	11,611				1	1	282			
합정리				1	1	1,389									
경성부	9	2	31,746	16	110	126,359	1	1	349						
남양군	1	1	238	1	1	384									
수원군	12	21	17,134	7	19	22,206									
양평군	1	1	824	1	10	10,668									
용주사	1	16	19,796	1	43	76,021							1	6	4,754
죽산군				1	1	1,543									
진천군				1	1	972									
일본인	1	4	7,578	5	36	45,979									
합계	91	169	193,003	93	412	505,188	3	3	1,989	3	3	857	2	7	4,827

전체 토지 중 야막리 거주민, 인근 마을 거주민, 일본인, 서울 거주민, 원거리 거주민 및 용주사의 토지 소유 비율은 아래와 같다.

20) 공동명의로 소유하였거나 소유자가 마을명으로 기재된 경우도 인원수를 각각 1로 계산하였으며, 합계는 국유지를 제외한 수치이다.

야막리 주민이 소유한 토지의 비율

지목	전	답	잡종지	임야	대지
비율(%)	36.15	25.52	16.54	·	1.51

인근 마을(탑리 포함) 주민이 소유한 토지의 비율

지목	전	답	잡종지	임야	대지
비율(%)	23.79	18.24	65.91	100	·

서울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의 비율

지목	전	답	잡종지	임야	대지
비율(%)	16.45	25.01	17.55	·	·

서울 이외의 원거리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의 비율

지목	전	답	잡종지	임야	대지
비율(%)	9.43	6.89	·	·	·

용주사가 소유한 토지의 비율

지목	전	답	잡종지	임야	대지
비율(%)	10.26	15.05	·	·	98.49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비율

지목	전	답	잡종지	임야	대지
비율(%)	3.93	9.10	·	·	·

1902년 작성된 광무양안의 내용을 1912년 작성된 토지조사부와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이 나타난다. 첫째 광무양안에는 야막리와 야막리전평에 총 14호가 있는데, 토지조사부의 대지는 모두 7건이며 그 중 7건이 용주사 소유의 토지이다. 다만 용주사 소유의 대지의 면적을 합하면 4,754평이 되기 때문에 같은 필지 안에 여러 채의 민가가 들어설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둘째, 토지 소유주 명단의 차이이다. 광무양안에 야막리와 야막리전평에 전답의 일부만이라도 소유한 인물이 용주사와 국유지를 제외하고 24명이 있다. 이에 반해 토지조사부에는139명의 명단이 있다. 그리고 두 문서에 서로 겹쳐서 등장하는 인물이 전혀 없다. 국유지를 제외하고는 용주사만 양쪽 문서에 모두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광무양안에서 야막리와 야막리평만을 비교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명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9년이라는 짧은 시기 사이의 차이이기 때문에 두 문서 사이에 서로 겹치는 인물이 전혀 없는 이유는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인 한국흥업주식회사를 제외한 일본인 8명이 하북리 일대에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특히 전(田)의 소유는 49.2%로 절반 정도이며 잡종지는 무려 96.7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심전여삼병위가 소유한 잡종지154,613평은 대정촌 근처의 진위천과 오산천변의 배후습지였다. 그는 대정촌 주변의 잡종지를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전 전체의 36.33%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전여삼병위가 ‘조선인 지주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이들 일본인들의 진출 과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야막리에 전(田) 4,219평, 답(畓) 9.414평을 소한 서울 지주 이병묵(李丙默)은 일제 강점기 진위군에 전 59정보, 답 15정보를 포함하여 광주, 용인, 안성, 수원에 모두 529정보(1,587,000평)를 소유한 대지주였다.[21] 또한 일본인 4명이 전 7,578평, 답 45,979평을 소유하였는데, 답의 경우에는 야막리 전체 토지의 9.10%로 결코 적지 않은 면적이다. 광무양안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병묵이나 일본인 지주들이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이 지역에 진출하게 되었는지도 규명이 필요하다.

(3) 시설 채소 재배

야막리 벌판의 하우스 시설

하북2리와 더불어 야막리는 시설 채소로 유명한 곳이다. 노지 채소는 하북2리 대정촌에서 출발이 되었지만, 비닐하우스 재배의 시작은 야막리에서 출발하였다. 야막리에서 처음으로 비닐하우스 재배를 시작한 김형주(남, 1942년생)씨는 대정촌의 이삼용씨가 노지에서 배추농사를 처음 시작했고, 그는 1968년 노지 배추를 재배하고 1969년부터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시작했다고 하였다. 대정촌의 정병헌(남, 1958년생)씨도 1972년 그의 부친을 포함한 5명이 처음으로 비닐하우스를 짓고 배추를 심었다고 얘기했다. 대정촌보다는 야막리의 시절 재배가 대략 3년 정도 앞선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재 3천 평에 달하는 ‘들막농원’을 운영하며 토마토와 오이를 재배를 하고 있는 임성남(남, 1969년생)씨에 의하면 대정촌은 배추, 쑥갓, 얼갈이 배추 등 엽채류 농사를 많이 짓는 반면, 야막리는 일찍이 1980년대에 오이나 토마토 같은 과채류로 전환을 했다.

21) 김성호,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108쪽.

야막리 마을 북쪽 어귀에 있는 시설채소 관련 안내판

안내판의 문구

야막리에서 처음으로 시설재배를 시작한 김형주씨는 처음에는 배추를 재배했다가, 그의 밭이 사질토라는 점을 고려하여 무를 주로 재배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임성남씨도 자신이 어렸을 때는 하우스에서 단무지 담는 기다란 무와 배추를 주로 재배하다가 나중에 오이하고 호박으로 전환되었다고 했다. 야막리가 모래가 많은 땅이어서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무가 잘 되었다.

임성남씨는 어렸을 때 대나무로 엮어서 하우스 세우고 농사짓는 것을 목격하며 자랐다. 뿐만 아니라 용돈벌이를 위해 모종을 만들기 위해 비닐에다 흙을 담는 일도 해봤다. 7~8세쯤 됐을 때 비닐에다 거름을 섞은 흙을 비닐에 담으면 지름이 7cm, 높이가 12~15cm쯤되었다. 당시 비닐에 흙을 하나 담으면 50전을 받았다. 초등학교 3~4학년 쯤 되어서는 한 봉지당 2원씩을 받았다. 그가 처음 비닐봉지에 흙을 담을 때가 1976~1977년쯤 되는데 당시 이 마을에서 2~3집 정도가 하우스 재배를 했다. 임성남씨가 처음으로 하우스를 짓고 시설재배를 시작했던 1986년에는 시설재배 농가가 10집 정도로 늘어났다. 지금은 26가구가 시설채소 재배를 하고 있다. 그가 얘기한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2021년 현재 야막리에 80대가 1명, 70대가 3~4명, 60대 10명, 50대 5명, 40대 3명, 30대가 1명이다.

지금 야막리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은 오이와 애호박, 토마토이며 일부 양배추와 샐러리 같은 양채류 농사도 짓고 있다.[22] 과채류는 하우스 1동당 1년에 두 번을 심는다. 보통은 1월과 8월에 심지만, 시장의 흐름을 봐가면서 단가가 많이 나오게끔 심는 시기를 조정하기도 한다. 가령 토마토의 경우 시장 가격이 가장 좋을 때가 8월 말~9월 초이다. 이때는 무더위가 심하여 착과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열매가 나올 확률이 적다. 하지만 정상적인 열매 수확이 워낙 적어서 경제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엽채류는 수확하는 기간이 짧아 '샐러리-토마토-샐러리' 순서로 세 번을 농사짓기도 한다. 심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수확 시기도 다른데, 오이 같은 경우는 보통 12월에 수확이 끝나고, 일부는 1월에 수확한다. 토마토의 경우는 2월초에 따고, 좀 더 늦게 하는 사람들은 3월 중순까지도 수확한다.

22) 채소류는 몇 가지 대표적인 품목이 있으나, 화훼류는 종류가 워낙 많고 농사짓는 사람마다 품목이 달라서 이 마을의 대표적인 상품을 꼽을 수가 없다.

야막리 비닐하우스(연동하우스) 외관 1

야막리 비닐하우스(연동하우스) 외관 2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 내부 1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 내부 2

옛날에는 모종을 직접 했는데 2000년대 초부터는 점차 육묘장에 맡기기 시작하다가 요즘은 모종의 대부분을 육묘장에 맡긴다. 육묘장은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평택에는 포승읍과 진위면 신리의 평택육묘장이 있다. 농장주가 원하는 모종을 주문하는데,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의 육묘장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주문을 한다. 2021년도의 경우 오이모종은 하나에 540원, 토마토 모종은 850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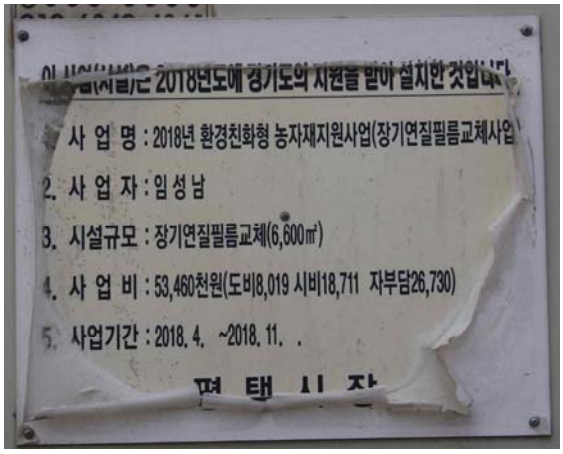
단동 하우스 하나의 크기는 200평, 150평, 100평 규모로 크기가 각각 다르다.[23] 임성남씨의 경우에 200평의 규모로 지었다.

과채류의 열매 수확은 봄과 가을이 각각 다른데, 대체로 봄이 가을보다 수확량이 많다. 가령 봄일 경우 200평 양액 시설에 오이는 1,500포기를 심어 50개 들이 1,000박스를 수확한다. 모종을 심고 40~45일 후에 수확을 시작하여 120일 간을 계속 수확한다. 그냥 흙에다 심는 토경일 경우에는 토마토 1,500포기를 심어 700박스를 수확한다. 수입은 700만원 정도 된다. 토마토는 정식 후 80일만에 첫 수확을 하고 90일 정도 수확이 계속된다. 양액 재배는 2,000포기를 심어서 3kg 들이 1,700박스을 수확하여 1,2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토경재배는 1,500포기를 심어 700만원의 정도의 수입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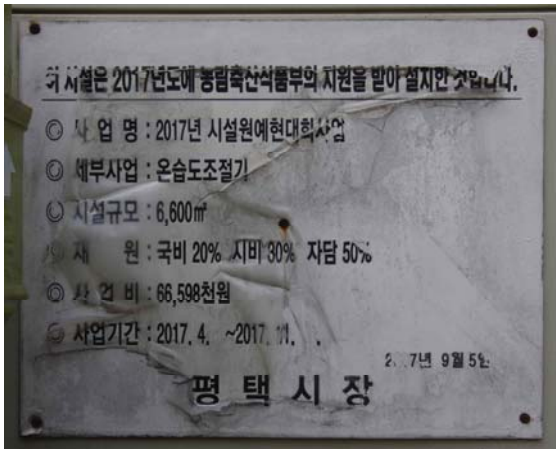
23) 대정촌에서는 1동의 크기가 150평이라고 했는데, 야막리의 임성남씨는 대정촌의 150평 크기가 실제로는 조금 더 작다고 하였다.

순익은 총 매출액에서 비용과 공적 수수료(오이는 10%, 토마토는 25%[24])를 빼고 나면 33~35% 정도가 된다. 여기에 하우스 감가상각율까지 산입하면 마진이 10%대로 떨어질 수 있다. 주요 비용으로는 비료대, 농약값, 인건비, 박스비가 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인근 마을뿐만 아니라 오산이나 평택에서도 여자들이 많이 왔다. 당시 인건비는 일당 4~5천원이었다. 지금은 외국인 일당이 8만원, 내국인 7만원 정도이다. 외국인은 대체로 나이가 50대 미만으로 일하는 양이 많고, 내국인은 50~60대 여자들로 일하는 능률이 젊은 외국인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외국인 인건비를 월급제로 할 때는 2021년도 기준으로 1달에 180~200만원 선이다. 2020년에 비해 40만원 이상 올랐다. 이는 코로나로 인하여 입국한 외국인의 인원이 적기 때문이다.

비닐하우스 시설을 하는 것은 그 소유주에 따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설치 비용을 일괄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 보통 하우스에는 급수, 난방, 커튼 시설이 기본으로 갖추어지는데, 비닐을 한 겹으로 하고 이러한 기본 시설을 갖추는 데는 200평 한 동에 4~5천만 원이 들어간다. 비닐을 2중으로 할 경우 5백만 원이 추가되며, 거기다가 제습기, 포구(온습도를 조절하는 장치), 양액시설을 포함하면 다시 4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려면 200평 한 동에 거의 1억원 가까지 들어가는 셈이다. 하우스 시설을 세우는 데는 시도의 지원이 없지만, 비닐 교체나 시설비용은 50%의 지원을 받고 있다.



농자재지원사업 비용(비닐교체, 2018년)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비용(2017년)

시설재배를 하는 데는 물이 많이 들어간다. 특히 비닐을 2중으로 하고 겨울에 안쪽 비닐에 물을 뿌려서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수막재배에는 많은 물이 필요하다. 수돗물만 쓰면 그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돗물을 동파 등에 대비하여 비상용으로 갖추어놓고 평소에는 지하수를 쓴다. 보통 지하 7~8m 정도면 물이 나오는데, 만일 뻘물이 나오는 등 수질이 안 좋을 때는 지하 150m까지도 뚫는다. 임성남씨의 경우 지하수를 300m 밖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

야막리 시설채소 작목반은 1980년대 중반에 조직되었다. 이후 작목반연합회가 만들어졌고, 2006년 연합출하회(송탄농협산지유통센터 시설채소출하회)로 개편되었다. 현재 야막리의 시설채소 농가 26명이 회원으로 있다. 이들은 모종을 심을 때 서로 품앗이를 하고, 운송비 책정 갖은 일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일 외에 마을에 기부금을 내거나 마을일에 협조하고 봉사하는 일도 하고

24) 토마토의 공적 수수료가 많은 이유는 송탄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선별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있다.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가 높아 아래쪽은 30~40℃ 위로는 50~60℃에 이른다. 지금은 일꾼을 많이 써서 농장주의 노동 시간이 과다하게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보통 하루 14시간 정도 일을 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일을 하다보면 같은 나이에 비해 건강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 게다가 최근에 인건비가 올라 경제성이 낮아지게 되니까 채소 재배를 그만두고 과수농업으로 전환해 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야막리의 경우 4가구가 사과대추나 체리 등 과수농업으로 전환하였다. 과수재배는 가족노동만으로도 할 수 있고, 매년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시설채소 재배에서 사과대추 재배로 전환한 이부순씨와 하우스 내부

(4) 체험 농장

열린체험농원 입구

현재 야막리에서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숙(여, 1967년생)씨에 의하면 평택시 전체에 체험 농장이 20여 군데 있고, 그 중 6군데가 야막리에 있다. 그녀는 2013년에 '열린체험농원'

을 열었는데, 이 마을의 다른 체험농장들은 2017~8년 이후에 생겨난 것이다.

야막리에 소재한 체험농장

농장명	주요 품목	농장명	주요 품목
열린농원	블루베리	청학체리농장	체리
야막농원	토마토, 오이	킹콩이농장	블루베리, 포도
평화농원	사과. 사과대추	희망농원	체리, 포도

박정숙(여, 1967년생)씨는 2013년 야막리에 처음으로 '열린체험농원'을 열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4H 활동을 했었고 졸업 후에도 계속 관련 동호회 모임을 했었다. 2000년 남편의 고향인 야막리로 내려와서 아이들을 키우고 난 후 도시와 농촌을 연계해보겠다는 체험농원을 시작하였다. 농원 부지는 1천평 규모이며 시댁에서 물려받았다. 체험농원을 시작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교육을 받았다. 당시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내용은 주로 도시농업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다니며 체험농장을 계속 운영해 나갔다.

체험 고객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복지관 또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지인들이었다. 처음에는 고구마, 옥수수, 고추 등을 심어서 손님들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유지되기가 어려웠다. 농사일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지금은 블루베리와 약간의 사과대추를 재배하며 닭을 키운다. 농장에서 생산되는 품목과 양이 적으니 마을 주민들이 생산한 채소류나 과일을 팔기도 했다. 잠깐 농장에서 체험을 하고 진열해 놓은 상품을 파는 식으로 운영했지만 성과가 별로 없었다.

현재는 음식 만들기 체험을 주로 하고 있다. 보리 강정, 보리 고추장 만들기를 해보고 식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은 보통 학급 단위로 와서 1~2시간 체험한다. 강정을 만든다든가 블루베리로 또띠아 같은 음식을 만드는 것을 아이들도 좋아한다. 코로나가 퍼지기 전에는 매주 목요일에 '로컬 밥상'이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봤다. 자신의 지인들 10여 명씩 초대해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뷔페식으로 식사를 하는 식이다. 이 외에 외부 어른 손님들은 주말에만 받았는데, 많을 때는 4~5팀이 왔고 1달 평균은 10팀 정도였다. 체험 비용은 1만원에서 2만 5천원까지이다. 1만원 코스는 가장 기본적인 보리 강정 만드는 체험이며, 체험 후 직접 만든 강정을 조그만 비닐봉지에 포장해 준다. 2만 5천원 코스는 강정 만들기 같은 체험에 식사 일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박정숙씨는 체험 농장을 8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수익보다는 들어간 비용이 더 많았다고 했다. 앞으로 팜 파티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모색중이다.

2) 제조업

2001년 야막교가교가 준공된 이후 마을로 드나드는 교통 사정이 좋아지자 마을에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이 마을에 살다 타지로 이주한 사람들이 매각한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짓거나 마을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서 세를 놓는 경우도 있었다. 주택이 있는 마을을 제외한 지역은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워 큰 공장들이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소규모의 공장들이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서 자연마을의 경관이 크게 변하고 있다. 마을에

입주한 공장들은 주로 기계나 조립 및 설비, 판매 업체들이 주종을 이룬다. 이 마을의 부녀회장과 이장을 역임했던 박정숙(여, 1967년생)에 의하면 현재 마을 내에만 24개 정도의 공장 및 회사들이 있다고 했다. 그 가운데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는 4곳에 불과하였다. 또한 마을의 서북쪽 끝, 오산시 탑동으로 넘어가는 잠수교가 있는 곳에도 회사 3곳이 있고, 4층 건물(장명빌딩)이 들어서 있다. 이곳은 옛날 축사가 있었고, 옆으로 지목이 잡종지인 곳이어서 건축이 가능하였다.

야막리 서북쪽 끝, 회사와 장명빌딩이 있는 곳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회사와 업종은 아래와 같다.[25)]

야막리에 위치한 기업체

회사명(상호)	주 소	품 목	비 고
경원유통	야막길 59-8	낙농품, 동식물성 유지 도매	
SH대성	야막길 59-8	창호 제작	
유니세라	야막길 59-7	공구, 공작 기계	
늘찬고춧가루	야막길 59-8	식품판매	
연테크	야막안길 65-3	반도체 부품	
현진정밀	야막안길 65-3	플라스틱 사출	
장수ENG	야막안길 65-3	금형 제조	
대흥기업	야막안길 65-9	알미늄 샤시	
유한크린텍	야막길 53-5	유한킴벌리 대리점	
와이에이치전력	야막길 35	일반 전기 공사	
아이케이앤씨	야막길 3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	
효성충전기	야막길 16	충전기 제조	
한국냉동설비	야막길 19	냉난방기 시공	
쇼핑존	야막길 14 B	생활용품 판매	
동남에스엘	야막길 108-98	철판 판금 제조	
신명유통	야막길 108-104	농산물 유통	
㈜성현	야막안길 19	동관	
㈜동남에스엘	야막길 108-98	구조용 금속판 제품	
솔라캠이피니티(주)	야막길 38	지면부착 타일, 도로표지병	
한올섬유	야막길 108-90	망사, 스판 제조	

25) 이중 마을 안쪽에 자리 잡은 회사가 16곳인데, 이 외에는 창고형 회사여서 파악이 어려웠다.

3) 상업

야막리 마을안에는 현재 야막수퍼라는 가게 1곳이 있다. 박점순(여, 1939년생)씨가 13년 전인 2008년에 이 가게를 열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남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가게세를 내고 있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는 매월 10만원의 임대로를 지금했는데, 현재는 150만원으로 올랐다. 가게에서는 일반 수퍼와 같은 품목을 취급한다. 야막수퍼 바로 동쪽(현재는 공터로 남아 있음.)에도 노인 부부가 운영하는 조그만 가게가 1곳 있었는데, 2021년 5월에 헐었다고 한다.

야막리 가게와 카페 위치

야막수퍼

카페(컨트리사이드)

마을 가운데로 난 2차선 도로 옆에는 2021년 9월에 카페가 들어섰다. 이 카페는 이곳에 살았다가 2차선 도로가 나면서 외지로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와 건물을 짓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마을 서북쪽 끝에는 4층 건물이 장명빌딩이 있고, 이곳에는 부동산 소개업소, 스크린골프장, 카페, 식당, 유통업체 등이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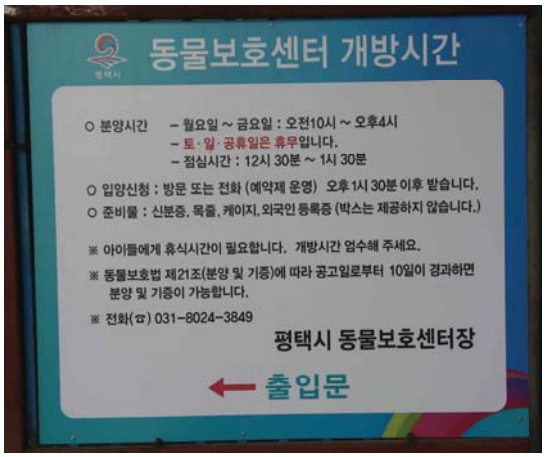
야막리 서북쪽 끝에 있는 골프연습장과 장명빌딩

섰다. 건물 옆으로는 골프연습장이 있다. 골프연습장은 25년 전인 1996년 무렵에 들어섰고, 장명빌딩은 2006년 무렵에 건축되었다.

4. 사회생활

1) 공공시설

(1) 평택시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센터 안내판

평택시동물보호센터는 야막리 서북쪽 끝 복명빌딩 남쪽에 있다. 이 시설은 원래 방꼬지길 근처에 있었는데, 평택시가 이전에 체결했던 계약이 끝나고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곳은 현 소장인 최정민(남, 1974년생)씨가 소를 키우는 축산업을 했던 자리였다. 그가 평택시와 계약을 맺고 2018년부터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직원은 소장을 비롯하여 3명이 있다.

입구에 사무실이 있고, 안쪽으로 개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300평 규모의 건물이 있다. 안에는 개 8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견사 시설을 갖추고 있다. 평택시내에서 시민들이 유기견을 신고하면 가서 인수받아온 개들이 대부분이다. 또는 들판이나 창고 등 외진 곳을 배회하는 개도 구조해 오기도 한다. 방문 또는 전화로 예약을 받아 일반 시민들에게 보호하고 있는 동물을 분양하고 있다. 2021년 11월 현재 개 90마리와 어린 새끼 고양이 1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평택시 동물보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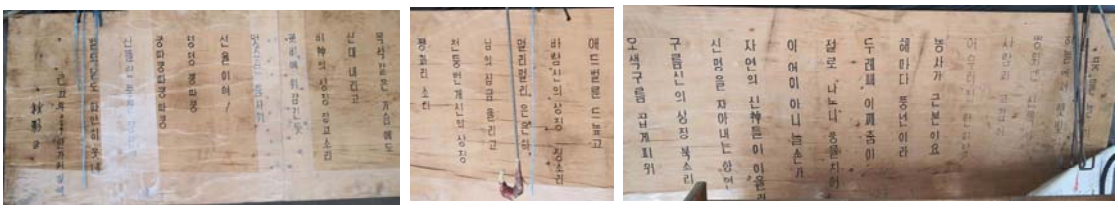
2) 마을조직

(1) 두레

야막리에서는 새마을사업을 하기 전인 1970년 무렵까지 두레 조직이 있었다. 모내기를 하고 보름 후에 애벌매기를 하고, 다시 열흘 정도 지나 두벌매기를 했다. 두레는 대부분 두벌매기 할 때만 쳤다. 50cm쯤 되는 꿩의 깃털이 맨 위에 있고, 광목으로 '농자천하지대본야, 평택군 진위면 야막리' 라고 한문으로 써서 매단 낭대를 앞세우고 상쇠, 징잽이, 북잽이, 장구잽이가 풍물을 치면서 가면, 그 뒤로 일꾼들이 호미를 허리춤에 차고 도랭이(도롱이)이를 하나씩 메고 죽 따라갔다. 도랭이는 비가 올 때 비옷처럼 걸치고, 평소에는 쉴 때 바닥에 깔개 역할을 했다. 해가 질 때쯤이면 일을 끝내고 다시 낭대를 앞세우고 풍물을 치면서 마을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그날 일을 했던 집에 가서 자정까지 놀았다. 술과 음식은 그날 일을 시킨 주인집에서 냈다. 가난한 집은 일꾼이 없거나 적어서 두레를 안 치고 일만 했다. 일꾼이 15~20명 정도는 돼야 두레를 쳤다.

이부순(남, 1941년생)씨는 야막리의 마지막 상쇠였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두레 소리를 듣고 자랐다. 어른들이 두레를 치고 논매러 나갈 때는 어린 이부순씨가 초등학교 등교하는 시간이었다. 여름이면 두레 치는 소리를 거의 날마다 들어서 귀에 박혔기 때문에 장단이 자동으로 머리에 기억이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꽹과리를 좋아하여, 그 장단을 따라 입으로 소리를 내고(입장단), 막대기와 깡통을 가지고 입장단을 하면서 꽹과리 치는 연습을 했다.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혼자 듣고 연습해서 5~6개의 장단을 익혔다. 18~19세부터 본격적으로 꽹과리를 치는 상쇠가 되었다.

1970년대 초반부터 논매기 때의 두레는 그만두게 되었고, 풍물놀이는 계속 이어졌지만 10여 년 전부터 악기를 다룰 사람이 없어져서 풍물놀이도 그만두게 되었다. 이제는 장단도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 기억을 더듬으며 시(詩)를 써서 그가 일하는 사과대추 하우스에 걸어두었다.



이부순씨의 시(詩) 풍물놀이

풍물놀이

하늘에선 햇빛이 / 땅위에선 신록이 / 사람과 교감이 / 어우러진 한마당 / 농사가 근본이요 / 해마다 풍년이라 / 두레패 어깨춤이 / 절로 나노니 풍물치며 / 이 어이 아니 놀손가 / 자연의 신神들이 어울려 / 신명을 자아내는 향연 / 구름의 상징 북소리 / 오색구름 곱게 피워 / 애드벌룬 드높고 / 바람신의 상징 징소리 / 멀리멀리 은은히 / 님의 심금 울리고 / 천둥번개 신의 상징 / 꽹과리 소리 / 목석같은 가슴에도 / 신대 내리고 / 비神의 상징 장고소리 / 꽃비에 휘감긴 듯 / 멋스런 춤사위/ 선율이여! / 덩덩 쿵따쿵 / 궁따쿵따쿵 따쿵 / 신들린 풍물장단에 / 별도 달도 화안히 웃네

乙丑年 2009 한가위 밤에

秋影 글

(2) 대동회

대동회는 12월 중에 날짜를 잡아서 개최하며 마을 주민 105가구 중 보통 50~60가구가 참석한다. 대옹회에서는 한 해 결산과 사업 보고, 다음 해 숙원 사업을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안건을 대동회에 올리기 전에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마을 개발위원 11명 등이 모여 주요 사업을 논의 한다. 작은 일들은 여기서 결정을 하기도 하고 마을의 주요 사업은 마을 총회인 대동회에 안건을 올려서 결정하고 있다. 코로나가 유행한 후부터는 개발위원들이 매달 모여서 마을의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마을 기금은 2천 여 만원이 있으며, 논에 객토를 하면 큰 트럭이 지나다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의 이유로 논 주인이 한 구간(1,200평)당 50만원을 마을 기금으로 내놓고 있다.

(2) 부녀회

야막리 부녀회는 나이 40대부터 80대까지 약 4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마을에서는 부녀회와 노인회를 중복 가입할 수 있다. 부녀회원들은 연 2만원의 회비를 내며, 마을 대동회와 진위면민 체육대회 같은 행사 때 식사 준비를 한다. 부녀회 자체로 대보름 때 부녀회원들끼리 윷놀이 행사를 하고 연 1회 회의를 통해 결정해서 견학을 하고 있다. 견학에는 특정한 방향과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있다.

(3) 노인회

노인회는 약 4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회에서는 매일 마을회관에서 점심을 먹었지만,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회관을 노인정으로 쓰는 대신 마을회관 관리는 노인회에서 맡고 있다. 매년 1회 정도 야유회를 다닌다.

2) 공동시설과 근대시설

(1) 마을회관

마을회관 위치

마을회관

야막리 마을회관은 약 30여 평으로 마을 사람들이 성금을 걷어서 지었다. 원래는 현 마을회관 뒤 쉼터 자리에 있던 것을 1980년대 초 신축하면서 약간 북쪽으로 당겨서 현재 자리가 되었다.

2016년 '야막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하얀무지개마을)' 사업의 지원금 중 5천만 원으로 실내를 리모델링 했다. 마을회관 앞에는 정자를 만들었고, 2017년에는 뒤편에 쉼터를 조성하였다.

(2) 방앗간

야막리에 디딜방아나 연자방아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토박이는 없었다. 다만 1966년 무렵에 수월암리에 거주하는 윤영찬씨가 야막리에 방앗간을 열었다. 방앗간 자리는 옛 천도교 교당이 있던 터였다. 이곳에서 방앗간을 1990년대 후반까지 운영했다. 2003년 이곳에 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이병균(남, 1969년생)은 방앗간이 1998년 헐렸고, 자신이 이곳을 매입하여 지금의 주택을 지었다고 했다. 방앗간은 지금 주택의 마당 자리에 있었다.

야막리 방앗간 자리

야막리에서 2차선으로 난 야막안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방꼬지길과 만나는 사거리 바로 북쪽에 '라라그린팜 정미소'가 있다 약 천여 평의 대지 위에 큰 규모로 세워진 이 정미소는 은산5리에 있었다가 2020년에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라라그린팜 정미소 위치

라라그린팜 정미소 모습

3) 의식주

(1) 식수

옛날에 야막보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동쪽 모탱이', '서쪽 모탱이'로 나뉘었다. 이때 양쪽에 두레박 우물이 하나씩 있었다. 마을에서는 두 우물을 동쪽 우물, 서쪽 우물로 서로 구분지어 불렀다.

공동 우물 / 공동 식수를 위한 물탱크

야막수퍼를 운영하고 있는 박점순(여, 1939년생)씨는 24세인 1962년에 시집을 왔는데 시집온 지 2년 지나서 펌프 우물을 설치했다고 하였다. 이후 거의 집집마다 펌프 우물을 설치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1980년대 중반 마을회관 뒤 회관 위에 물탱크 설치하여 집집마다 계량기를 달아 물을 공급하고 사용료를 받았다. 물은 마을회관 아래 300m 지점에 지하 80~100m 정도 깊이의 암반수를 뚫어서 끌어왔다. 매달 받은 요금은 전기세와 수중 모터 교체비용에 충당하였다. 그런데 건수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지 관리를 꼼꼼하게 해도 시커먼 물이 나오는 등 수질이 안 좋아져서 할 수 없이 광역상수도를 끌어들였다. 광역상수도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왔다.

(2) 연료 사용

1942년생인 김형주씨는 짚을 때거나 논에서 검불을 긁어다 땠다고 했다. 이것은 남쪽 대정촌에서도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억이다. 나무는 갈곶리의 무봉산 기슭으로 다녔다. 그런데 1967년생인 임성남씨는 나무하러 다닌 이야기는 윗세대한테만 들었다고 했다. 그가 어렸을 때는 들판이 경지정리 되고 난 다음이었다. 그래서 나무하러 다닌 것은 보지 못했고, 벼를 수확하면 모두 집 앞까지 끌어들여 타작을 한 후 볏짚을 쌓아놓고 연료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 시기에는 주로 볏짚이 연료가 되었다. 그러다가 연탄이 들어오자 볏짚은 군불 때는 데만 쓰고, 평소 난방은 연탄으로 바꿨다. 이렇게 되면서 볏짚을 처리하기 곤란해져서 타작을 아예 들판에서 하고 볏짚은 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썼다.

연탄에서 기름보일러나 심야전기 보일러로 바뀌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도 이 마을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3) 전기, 전화

박점순씨 시집온 지 3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다고 하니 그 해가 1965년이다. 전기가 들어오고 마을에 TV를 들여오는 집이 있었는데, TV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한다. 당시 TV 한 대 가격이 쌀 10가마였다.

전화는 1970년대 이장 집에 놓았고, 1980년대 초반에 각 가정집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5. 문화생활

1) 교육

야막리 사람들은 진위국민학교를 다녔다. 1941년생인 이부순씨는 진위초등학교 42회 졸업생으로 가곡리 '신북 - 당월 - 가야실'을 걸어서 다녔다. 6·25 전쟁 전후해서 전염병이 심해지자 마을을 피해서 하북리와 견산리 사이의 기슭으로 간 적도 있었다. 학교까지는 당시 아이들 걸음으로 대략 1시간 정도가 걸렸다. 저학년인 1.2.3학년 때는 교실이 모자라서 아침에 운동장으로 등교해서 배우는 둥 마는 둥 하고 온 적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봉남리 동부 마을에 있는 금릉학원[26] 건물에서 수업을 받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이곳을 '동교사'라고 불렀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진위고등공민학교를 다녔다. 중학교 과정인 진위고등공민학교는 한 학년당 1개 학급이 있었다. 이 학교는 중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지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다녔다. 당시 가난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등공민학교도 못 가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 학교를 마치고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효명고등학교에 1회로 입학하게 되었다. 부모님이 차비를 주면 버스를 타고 갔으나, 차비가 없으면 가방을 옆에 끼고 철길로 뛰어서 등교하였다. 그렇게 뛰면 학교까지 30~40분 정도가 걸렸다. 이부순씨 자신은 경제적 사정으로 대학 진학은 포기했으나 야막리가 비교적 부촌이었기 때문에 대학나온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

1942년생인 김형주씨도 진위초등학교를 다녔다. 그는 초등학교 1학년 때 6·25 전쟁을 만나 학교를 그만 두었다가 5년 후에 4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동기들보다 3년 늦은 46회로 졸업했다. 졸업 후에는 오산중학교에 진학했다. 야막리는 평택 쪽보다는 오산이 가깝고 생활권도 오산에 속하였기 때문에 대개 오산중학교를 갔다. 중학교까지는 걸어서 1시간 정도가 걸렸다. 김형주씨는 당시 초등학교를 졸업생 중 20% 정도만이 중학교 진학을 했다고 하였다. 그는 중학교까지는 마쳤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농사를 짓게 되었다.

1959년 4월 갈곶초등학교가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갈곶리, 고현리, 청호리, 가곡리, 야막리 아이들이 다녔다. 1969년생인 임성남씨도 갈곶초등학교를 졸업했다. 당시 그의 동기는 남녀 모두 5~6명이었는데, 창갈천을 따라 철길과 국도 1호선을 건너 학교까지는 천천히 걸어서 20분이 걸렸다. 학교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1년간 오전반과 오후반을 나누어 교대로 다녔다. 학교가 가까웠기 때문에 오후반일 경우에는 가는 길에 수리조합 물이 내려오는 도랑에서 수영을 하기도 하고, 점심밥을 먹으러 집에 왔다 가는길에도 수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교길에는 영진약품에 들러 고물을 몰래 주워서 엿을 바꿔먹기도 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마치고 오산중학교에 입학했다. 오산중학교까지는 버스 타고 내려서 걸으면 시간이 40분 정도 걸렸다. 당시에도 90% 정도는 오산중학교를 다니고, 10% 정도만 진위중학교를 선택했다. 오산중학교 졸업 후에는 보통 오산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다만 공부를 잘 해서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수원의 수원고나 유신고, 수성고 쪽으로, 또는 평택고로 진학했다. 수원으로 다닌 학생들도 대개 버스로 통학했고, 특별히 서울대를 진학할 정도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수원의 학교 근처에서 자취나 하숙을 했다.

---

26) 금릉학원은 고종 때 영의정을 지냈던 심순택의 부인 구택희가 세운 학교로 해방 후 정부가 수립되고 의무교육제도가 실시되면서 진위초등학교에 통합되었다.(평택문화원, 『2019 평택의 사라져 가는 마을조사 보고서』, 2019, 116쪽.)

2) 종교

(1) 개신교

약 15년 전에 야막고가교에서 마을로 들어오다가 'ㄱ' 자로 꺾어지는 곳의 길가에다 컨테이너를 놓고 개척교회를 세웠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갔다.

(2) 천도교

평택 지역에서 처음으로 동학교도가 되었던 인물은 현덕면 권관리 출신의 이민도(李敏道)로 1879년에 입도하였다. 또 다른 인물인 김내현(金來鉉)은 1884년에 입도하였다. 이민도와 김내현이 포교로 평택지역의 동학교도들은 수원지역과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발전했다.[27] 동학이 1905년 천도교로 개칭되고 1906년 근대적 조직으로 전환될 때 진위교구가 설립되었다. 1911년에 발행된 『천도교회월보』2호에는 교구장 박창훈(朴昌勳)이 사임하고 장건후(張建厚)를 선임하는 내용이 있다. 이후 1914년 그는 다시 진위교구장에 선임되었다.[28] 박창훈은 야막리 출신으로 야막리 일대에 전답 46,940평을 소유한 지주였다. 그가 진위교구의 초대 교구장을 맡았던 것이다.

천도교 진위교당 터 위치

천도교 진위교당 터

박창훈의 출신지인 야막리는 밀양 박씨들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대부분이 천도교인이었고 마을 안에 천도교당도 있었다. 집회가 있는 날에는 봉남리, 회화리, 화성시 양감면에서 교인들이 모여들었다. 천도교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1919년 3월 31일 봉남리에서 일어난 만세시위도 야막리의 천도교도들이 주축이 되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4일 후 4월 3일자 『매일신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진위군 북면 봉남리는 천도교의 근거지라 할만한 곳인데, 과연 31일 5백명의 일대가 면사무소로 몰려가서 면장을 끌어가서 자못 위험한 때문에 수비병 경관의 일대가 자동차를 몰아 현장에 급행하였다더라.

27) 평택시사편찬위원회, 『평택시사』4, 2014, 136-137.
28) 『천도교월보』48호, 1914.

여기서는 봉남리를 천도교의 근거지라 했지만, 봉남리는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던 곳이고 실제로는 야막리였다. 이 기록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때의 만세시위를 천도교도들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 천도교의 중심 마을은 진위교당이 설치된 야막리였다.

그런데 야막리에서는 토박이라 할지라도 야막리에 천도교도들이 많았고, 진위교당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1929년생으로 야막리에서 3대를 살았다는 임계춘(여, 1929년생)씨도 전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고, 1941년생인 이부순씨도 생소한 얘기라 했다. 다만 밀양박씨 입향조로부터 4대손이며 조부와 부친이 천도교 신자였던 박종구씨가 천도교와 3·1 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29] 박종구씨에게 어렸을 때부터 옛 이야기를 들었던 1969년생인 임성남씨는 천도교도가 많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천도교 및 진위교당과 관련된 이야기가 마을에 제대로 전승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당터에는 1966년 무렵에 방앗간이 들어섰다가 1998년 철거되었고 2003년에 주택이 신축되었다.

2) 마을신앙

(1) 당제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큰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 밑에서 제사를 지냈다. 공경렬(남, 1942년생)은 어렸을 때 제물을 얻어먹는 재미에 제사 지내는 날 어른들을 따라가곤 했다. 제물은 돼지머리와 과일, 떡이었다. 그는 중학교를 다니다가 외지로 갔었는데, 그때까지는 제사 지내는 것을 봤다. 그런데 1969년생인 임성남씨는 자신이 7~8세 될 때까지도 제사 지내는 것을 봤다고 했다. 그는 당나무가 매우 커서 그 나무에 매어놓은 그네를 타고 놀았던 기억을 갖고 있다. 그런데 수령이 오래되어서 그런지 자연히 죽었다고 했다.

(2) 우물제

우물제는 날을 잡아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설이 지나 지신밟기를 시작하기 전에 동쪽 우물과 서쪽 우물에 가서 우물고사를 먼저 지내고 지신밟기를 시작하였다.

당나무가 있던 자리

29)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 이야기』 Ⅲ, 2008, 103쪽.

3) 민속놀이

(1) 지신밟기

이부순씨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지신밟기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설이 지나고 대보름 때까지 마을 어른들은 사랑방에 모여서 놀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 되면 사랑방에 앉아서 풍물을 치다가 밖으로 나와 지신밟기를 시작했다. 먼저 마을 공동 우물 두 군데에 들러 우물고사를 지내고 마을의 민가를 돌며 지신밟기를 했다. 집에 들어가서 우물이 있는 집은 첫 번째로 우물고사를 지내고 오른쪽으로 돌아 뒤란으로 가서 장독대에 고사를 지낸다. 다시 빙 돌아서 앞마당으로 나왔다. 앞마당에서 풍물을 치며 신나게 놀면 그 집에서 술상이 나온다. 술상이 나오면 거기서 다시 고사를 지냈다. 그런 식으로 며칠동안 집집마다 돌기는 하지만 아주 가난하여 막걸리 한 됫박이라도 내오기 버거운 집은 가지 않았다.

(2) 거북놀이

야막리에서 거북놀이는 이부순씨가 군대 가기 전까지 행해졌다. 거북놀이를 위해 먼저 동그란 멧방석을 준비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시켜서 수숫잎을 따오도록 하였다. 어른들이 수숫잎을 촘촘하게 멧방석에 엮은 것을 사람이 뒤집어 쓰게 거북이처럼 보이게 한다. 볏짚을 베개보다 조금 크게 뭉쳐서 작대기에 꽂는다. 이것이 거북이 머리이다. 놀이는 추석날 오후 새참 먹을 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 시각이 되면 어른들이 사물을 치며 나오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든다. 입담이 좋은 사람들이 거북이를 끌고 가면 사물놀이 치는 사람들이 뒤따르며 집으로 들어간다. 거북이를 끌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재미있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즐거움도 커진다. 거북놀이 역시 주로 부자집을 위주로 다닌다. 거북놀이를 하는 집은 송편과 술을 꺼내 놓아 마을 사람들이 먹도록 했다.

거북놀이는 추석날 밤에 한 번만 했다. 또한 이 마을에서 거북놀이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40~50대의 어른들이었다.

[제보자] 가나다 순

공경렬(남, 1942년생, 야막리)	김형주(남, 1942년생, 야막리)
박기석(남, 1972년생, 야막리)	박점순(여, 1939년생, 야막리)
박정숙(여, 1967년생, 야막리)	이병균(남, 1969년생, 야막리)
이부순(남, 1941년생, 야막리)	임계춘(여, 1929년생, 야막리)
임성남(남, 1969년생, 야막리)	최정민(남, 1974년생, 야막리)

김형주(남, 1942년생, 야막리)

일시	2021년 10월 31일
장소	서탄면 마두리 김형주씨 시설농장 내
구술자	김형주씨는 야막리에서 1969년 처음으로 비닐하우스에다 채소를 재배하였다. 그가 큰 성공을 거주자 야막리의 시설채소 재배가 점차 확산된 것이다. 그는 진위면 작목회연합회장, 평택시 새농민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평태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국무총리 상 등을 수상하였다. 현재까지도 서탄면 마무리에서 1만 평의 비닐하우스를 짓고 채소 농사를 짓고 있다.
면담자	장연환

4년 야막리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러면 야막리면 진위 초등학교 다니셨겠네요. 진위 초등학교 몇 회세요?

46회... 원래는 43회인데,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6 · 25가 발생을 했어. 그래가지고 6 · 25 때문에 인제 그 끝나고 나서 학교를 못 들어가고 가난하고 그냥 뭘 모르니까 학교를 못 들어가고 그냥, 3년 있다가 늦게, 한 5년 있다가 늦게, 그 4학년인가 편입을 해서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졸업하시고 중학교는?

오산중학교 갔어.

여기는 주로 오산중학교로 많이 갔나 봐요?

아 야막리 쪽에는 오산이 가차웠구, 요 서탄면 쪽은 그래두 요 송탄이 가찹잖아요. 그 생활권이 야막리는 오산이었었구, 여기는 생활권이 송탄이었어요. 그래서 효명가 더러 그랬어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는 거의 100% 그때 갔었나요?

아니요. 시험 봐서 갔어요.

근데 인제 시험도 안 되는 학생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가는 학생들도 많았죠?

많았죠. 그니깐 중학교 가는 저기가 한 20%...

그럼 인제 나머지는 농사짓거나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인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어디로 가셨어요?

고등학교는 못 갔죠. 가난해 가지구..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신 게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가요?

아 경제적인게, 시골서 농사지어서 뭐 저 여섯, 일곱 명, 이렇게 뭐 저기, 먹이고 저거 할래면 우리 부모님들 고생 많으셨죠 뭐.

부모님도 농사 지으셨어요?

그럼 농사지셨죠.

몇 평이나 지으셨어요?

한 2천 한 500평.

그때 2,500평 소유면 마을에서 경제 생활 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중간 정도

그러면 1년 식량 할 정도는 되나요? 2,500평 농사 지으면...

그렇죠... 그럼.

2,500평 정도면 쌀 몇 가마 정도나 1년에 수확하나요?

그니까 지금처럼 저 수확량을 많이 뽑지 못했어. 그래서 인제 2,500평이면은 한 열여덟 마지기 열일곱 마지기 정도 되거든요. 쌀로 한 사십 가마 정도.

이 정도면 꽤 농촌에서는 살 만한 거 아닌가요?

글쎄 밥 먹고는 산다고 그랬었지.

그럼 9식구가 사셨겠네요. 7남매 부모님하고 그렇게 사셨으면?

그렇죠. 아홉 식구, 거기다가 인제 할머니도 계셨구.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농사지으신 거예요?

뭐 할 거 없으니까 농사 일 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설을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것은 몇 년부터예요? 어르신 몇 살 때부터?

처음에는 원래 가난하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아버님도 인제 또 나가서 돌아대니시구, 내 26에 결혼 했는데 가장 아니에요? 거기서 다섯 살, 여섯 살, 아홉 살, 뭐 이렇게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 거야. 그래 농사는 인제 그때 당시에 그 새어머니 뭐 이렇게 모시고 우짜구 저짜구 하니까, 군대 내가 있을 동안에 재산을 아버지가 다 없앴어. 그래 가난하구 어렵구 살림을 할 수가 없구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날 아버지가 장가들려가지구 ‘니가 살림을 해라.’ 구 해서 나한테 떠맡긴 거여.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 젊은 놈이 먹고 살 것두 없구, 아무것두 없어 품팔이해서 먹구 살구 별짓 다 했는데, 힘들으니까 겨울에 놀지 않으라구 이 비닐하우스 조금씩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던 거야

그때 비닐하우스 시작한 게 몇 년도인가요?
에... 70년도 초반?... 아 69년도 후반!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겨울에 농사짓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하신 건가요?
여름에는 품이라두 팔아서 먹잖아요. 일이 있으니까.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농한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비니루 가지구 씌워서 뭘 가꿔서 팔아야 먹고 살 거 아녀. 그래 그 바람에 그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비닐하우스는 야막리가 먼저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대정촌이 먼저 시작한 건가요?
비닐 하우스? 하우스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쪼끄만 터널, 처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작게 이렇게 쪼끔씩 했어요. 그런데 인제 대정촌 이삼용 씨의 대구농장, 그 양반들은 이 밭에다가 배추를 이렇게 심어가지구 그걸 팔구, 나는 그 논에다가 재산이 없으니까 저기 무우를 심구, 배추를 심구 해다가 보니까 인제 무우가 적성이 맞아서 무우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무우를 비닐하우스로 하지 않고 그냥 논에다가 이렇게 심는 걸로요?
아 처음에두 비닐하우스를 했어요. 대나무로 해서 사람 들어가게끔 해서, 이렇게 해서..

이삼용이요. 이분은 대정촌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아 그양반은 다 돌아가셨지.

그럼 이분이, 이삼용 씨 이분이 이 비닐하우스 농사를 처음 시작한 걸로 봐야 되나요?
그 양반... 노지 터널을 처음 했다고 봐야 되겠지.

그럼 대나무로 이렇게 뼈대 해가지고요?
그럼요.... 아니 그때는 밖에다 그냥 심었던 거지. 그때는...

아 노지에다가 그냥
으응. 비니루 안 씌우고. 그 인제 나는 조금 빨리하기 위해서 저기 저 비닐도 씌우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삼용 씨 이분은 밭에 그냥 배추를 심은 거고 어르신은 인제 무우하고 배추를 심었는데 무우가 잘 돼서 인제 돈도 벌고 그래서 이렇게 인제 터널 같은 걸 처음으로 만드신 거네요?
응.

그러면 그 터널 처음 만든 데는 대정촌이 아니고 그 어르신이 먼저 하셨다고 봐도...?
그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 내가 먼저 한 건지 그쪽에서... 내가 먼저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이삼용 씨 이분도 처음에는 인제 배추를 밭에, 노지에다 심다가 나중에 인제, 나중에 가서 저 비닐을, 터널을 하신 거예요?

그 양반들은 비닐을 가지구 별로 안 했을걸. 썼던 터널 조그맣게만 해서 했었지.

그럼 어르신이 이렇게 무, 배추를 논에다가 심는 것은 아까 69년도 후반에 비닐하우스를 시작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니, 69년도, 68년도 이때.

그러면 68년도에 먼저 인제 노지에다 심으시고 그다음 해 정도에 인제 비닐을 하 시작하신 거네요?

응... 그래서 70년대 가가지구 돈을 많이 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74년도에 돈을 많이 벌어 가지구 진위면에서 제일 좋은 집을 지었다고 봐야지. 그땐 다 초가집이었었는데, 우린 슬라브 집을 지었으니까.

옛날에는 인제 시골에서 자기네가 먹으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상업적으로 이렇게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어르신이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신 거네요?

음... 무우를 옛날에는 이 노는 땅이 그쪽에, 그... 우리 지금 현재 농장 있는 쪽이, 그 땅이 푸실푸실한 땅이야 보명제 땅이라고...

보명제 땅이요?

보명제, 그 사질토라고 해서... 그런 토양이었었는데, 거기는 무우 같은 거, 배추 같은 거를 심으면 잘 돼요. 물 빠짐이 좋고. 그래서 처음에 배추하고 무우하고 막 심어봤는데, 배추는 거름을 많이 요해. 근데 무는 거름을 작게 해줘두 잘 돼. 그래서 무우를 심었던 거지, 무를...

그럼 이렇게 어르신께서 ‘야 이걸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이런 어떤 그 무나 배추를 그러니까 채소를 심어서 돈을 번다는 것을 다른 데서 이렇게 딱 뭐 누구한테 조언을 들었다든가 아니면 힌트를 얻었나요?

그러니깐 내 혼자 생각으로 먹고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무를 심어보니까, 우리 지금 그때는 저장무야. 가을 무우를 저장해서 4월 말 그때쯤, 4월 초순이면 그 묻어놨던 거 다 캐서 먹고 나면 무우가 없어요. 그래 5월달 가면 무우가 없거든. 그 5달에 무우를 만들어내니까 무우 하나에 쌀 한 되 값이야. 그러면 한 평에 무우가 몇 개가 심기냐면은 한 30개 심겨요. 그럼 쌀 서말이 나오는 거야 한 평에. 그러니까 대단한 돈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인제 이거를 하려고 비닐하우스를 해야 되나요?

그럼요. 그래 돈을 거기서 기선을 잡아서 땅두 사구 이렇게 해서 그냥 부자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돈 많이 벌었어요. 그 자식들한테두 돈 다 지금...

어르신 별명 제가 들었거든요.

별명이 무슨 별명?

그 하우스계의 삼성이라고...

어... 그래서 이 근처에서, 내가 똑똑하고 잘라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으니까 다들 인정을 해준 거여. 그래서 그 송탄 농협에 그 총작목회장두 허구, 또 새농민 그 수상두 평택시에서 받아 가지구 새농민들 그 회의에 초대 회장두 하구. 그 작목회도 연합작목회라구 처음 거기서 회장을 2년, 4년, 8년 동안을 봐서 농민들을 다 규합시킨 거죠... 그리구 시에서 그 자랑스러운 시민상이라고 해 가지구 상을 줬는데, 농업 분야에서는 인제 내가 탄 거지.

그러면 기술 전수도 많이 하시고 그랬겠네요?

많이 했죠. 야막리가 단지가 된 게, 거기에 인제 나의 조카들이 있어. 그 인제 아들, 딸은 하기 전에 그 조카들이 '너들 이거 하면 돈 번다 너 인마 대학 가려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매양 떨어져 그래. 이거 해!' 그래서 그거 하라구 시켰더니, 그거 해서 밥 먹고 잘 살고 또 다른 놈, 조카 놈도 또 그렇게 해서 시켜서 해놓구, 그 다음에 인제, 그래 걔네들이 자꾸 하다가 보니까 다 일하던 사람, 농장에 와서 일해주던 사람, 옛날에 근로자들이 한국 사람들이 다 했었거든.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외국 근로자들이 다 하고...

그 당시에도 일을 할 때 인제 한국 근로자들을 사 와야 됐잖아요.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했나요?

그렇죠

그분들을 어디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거기 저 동네 동네.

아 옆에 동네 동네요?

응. 그래 한 2~30명씩 그냥 데리고 썼어요.

그때 70년대 초반 그때요?

그렇지. 70년대 초반, 80년대 이때 후반까지

이분들은 그러면 하루 일당이 얼마였어요?

음 일당은 뭐 4만원서부터, 3만 원서부터, 2만원서부터 쭉~ 올라갔죠 뭐. 월급 올려달라는 소리는, 직원들이 20명이 넘어두, '월급 많이 주시오.' 한 사람이 하나두 없어. 내가 그때쯤 되면 조금 더 올려주구, 또 올려주구, 올려주구. 또 자식들두 음 아버지더러 '재산 주시오.', '땅 주시오.', '뭐 주시오.' 하는 새끼, 한 번도 안 했어. 너 요때쯤이면 요거 주구, 요때쯤면 요거 주구, 요때 되면 다 줬던 거야. 거 여기 지금 외국 근로자들두 월급을 내가 요때 주구, 요때 주구, 요때 주구, 자꾸 올려주는 거야.

그 처음에 인제 아주머니들을 쓰셨을 때, 맨 첫 기억은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되나요?

5천 원, 4천 원...

그때가 인제 한 70년 정도 되나요? 69년?

아 70년 말 정도 됐나... 잘 기억은 안 나두, 70년도 말 정도에 4천원, 5천원... 3천원 뭐 몇백 원씩 했어요. 옛날에는... 그리구 공장이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두,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하우스에서 저 벌어 가는 게 부업이구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무우하고 배추를 계속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무우 하다가 인제 배추두 허구, 배추하다가 인제 또 상추두 하구, 시금치두 하구, 쑥갓두 하구, 인제 그 다음에 오이두 하구, 토마토두 하구, 인제 뭐 각종 저기를 다 허기 시작을 헌 거죠. 고추두 하구, 별짓을 다 했죠 뭐.

그래도 여기 그러면 인제 무우, 배추보다도 오이 같은 거, 오이 애호박 이런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오이, 애호박은 언제부터 했어요?

오이, 애호박 같은 거는... 80년도 초.

1980년대 초요?

어. 그래 여기 송탄 애호박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저 하북리, 야막리, 신리 이쪽에서 애호박이 엄청 나왔거든요. 그런데 인제 강원도 사람들이 와서, 춘천 사람들이 이걸 우리 여기서 애호박 하는 걸 모방을 따 가지고 갔어. 그래서 내가 작목회장하고 있었을 때 그 춘천하구... 애호박 값이 한 박스에 오백 원 육백 원두 가. 그랬을 때는 인제 좋지 않은 건 다 폐기처분허구, 이 좋은 것만 시장으로 내보내면 또 금세 값이 올라가구. 그 춘천하고 연락하구 이렇게 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 춘천 사람들이 여기서 배워가지고 춘천에도 인제...?

그 호박이 많이 나왔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인제 그 뒤에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겠네요?

그렇죠.

춘천 사람들이 여기서 배워간 게 몇 년쯤 되나요?

80년대 후반...

아까 어르신께서 작목회장 하셨다고 그랬는데, 작목회장은 언제 하신 거예요?

음... 90년도... 90년도, 80년도 후반인가? 그때쯤 했을 거예요.

대정촌에서 어떤 분은 인제 하우스를, 하우스를 아까 대구의 그분이 여기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들으니까 어르신이 먼저 하신 것 같네요?

거 몰라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나는, 내가 알고 있기에는 거기 이삼용씨하구, 임종 누구야? 종선이 아버님하고 그 몇몇이...

처음에 대나무로, 이렇게 69년도부터 대나무로 인제 비닐 터널을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대나무는 어디서 사 왔어요?

저기 저 거기 대나무 많이 나는 데가 어디야?

담양이요?

예. 거기 가서 직접 비어가지구. 우리 또 저쪽에 아는 사람이 거기 처갓집이 있어. 그 처갓집 동네 가서 그 싸게 핸다고 비어서 가져와서...

이때 대나무 가격은 어느 정도 했나요? 어떻게 계산을 했나요? 그냥 대강 면적으로 계산해서 해 갖고 싣고 왔나요? 아니면...

아니 개당... 을 다발로 해서 한 다발에 얼마씩 해서 한 차 이빠이 실어다가 지으니까, 그땐 내 땅도 없어가지구 남의 땅 빌려가지구 그냥 이렇게. 겨울에 지어놓구 봄에 이렇게 지어가지구, 바람만 가려서 비니루만 씌워서 보충해 놓으면은, 그래 잘 되더라고요 그게.

새끼를 꽈가지고 묶은 거예요?

아니 새끼루 아니구, 짚 있잖아요? 짚을 빻아 이렇게 빻아서. 꼬아지잖아 그럼 꼬아서 이렇게 해서 묶구, 싹 묶구...

그러면 그거 짚으로 묶으면, 이게 금방 삭아가지고 오래 못 갈 텐데요?

그거 저기 한 달이나 두 달만 있으면 다 헐어 또 치워버려

그러면 다 버려야 돼요

아 풀러서 또 갖다 쌓아놓고 또 이듬해 또 짓구 그래요

그럼 그 대나무는 몇 년 정도 썼어요? 한 번 가져오면?

비 안 맞으면 꽤 오래 쓰죠. 한 10년, 15년 이렇게 썼지.

이것도 오래 쓰네요?

예. 이렇게 지어서 비닐을 씌워서, 모종해서 활착이 되잖아 이렇게 딱. 커서 이렇게 조금씩 커지면은 비니루 다 찢어서 다 없애버리구, 걷어 내버리구 인제 그냥 뭐 자라고. 비료 그런 거 거기다 주고 나서 그냥 뽑어내버리면은, 뽑어내구 바로 모심는 거예요.

겨울에 무 배추를 하고 봄에 출하를 하고 나서 거기다가 인제 또 모내기 하고...?

응.

그러면 파종은 언제 했어요.

파종은 그... 3월달, 2월달, 3월달, 3월달에 해는 거지.

그러니까 한 2월~3월에서 4월 정도까지만 그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지. 4월 중순 말 이 정도까지 필요한 거지.

그러면 그때는 매년 그 작업을 해야됐네요?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때는 인건비가 안 비쌌어요.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일해주는데, 돈 얼마 안 줘도 했어. 밥만 얻어 먹어도 했는데 뭐. 그마만치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서 그냥 또 허틀어서 또 갖다 쌓아놓구. 또 그렇게 해서 또. 그때는 트랙터도 없어서 그저 소로 갈던가 아니면 저 경운기 있잖아요? 그런 걸로다 갈고 그랬어요.

그렇게 인제 비니루로 하다가 이렇게 파이프가 나오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몇 년돈가... 파이프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구로파이프, 그니깐 지금처럼 도금이 안 되구 그냥 뻘건 색깔이야. 그거로다 페인트 칠해가지구 쓰는 건데, 그걸 다 하우스에 3,000평을 지으니까, 참 세상 다 가진 것 같더라고.

그거 인제 쇠로 해놓으면 매년 인제 비닐만 다시 씌우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외람됩니다만 6천 평 ,이게 보통 6천 평을 농사 지으셨어요.

육천 평. 저 야막리서 12,000천 평을 졌대니까.... 그래서 고희연하고 나서, 아들 놈이 진흥청에 다니는데, 진흥청이 저 전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 그쪽 못 내려가겠다구 농사 지으면 안 되냐 그래서, 그래 지어랴 그랬어. 아들 육천 평 주구, 딸 육천 평 주구,.... 그냥

아드님은 인제 그런 과정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따님은 또 사위분이 다른 직장을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직장 다녔다, 정년하고 나서 인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러면 직장 다닐 때보다 지금 수입이 낫겠네요.

그렇죠. 부자들 됐지, 다...

이 1만 2천 평 그때 하시면 뭐 해마다 이렇게 작황이나 가격에 따라서 들락날락하지만 매출액이 평균 어느 정도나 됐나요?

한 7~8억은 됐죠. 7~8억이면은 한 3~4억 농자금 들어가구 3~4억 버는 거지 뭐.

한 3~4억, 순익이요?

응... 그런데 내가 새농민상을 타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때 당시 93년도였었는데 새농민 본

상을 타는데, 나는 일 년에 2억을 순수익을 냈는데, 칠천만 원 순수익 낸 사람이 대통령상을 타구, 나는 국무총리상을 밲이 못 탔어. 항의를 하고 원인 조사를 했더니, 나는 학벌이 중학교구, 그 7천만 원 한 사람은, 대통령상을 받는 사람은 저기 저 대학을 졸업했다 이거야. 그래서 배운 사람이 그 상을 타야 된다고 해가지구 저거 해서, 우리 아들은 유학까지두 가르켰어.

그때 자괴감이 좀 느껴지셨겠어요... 화가 좀 나셨겠어요?

그럼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몇 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따지고... 인제 아드님하고 따님한테 물려주시고 쉬시지 또 왜 이쪽(서탄면 마무리)으로 오셔서...?

이게 1년, 2년을 쉬었는데, 일이 없으니까 못 살겠드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마누라 몰래 또 이걸, 땅을 좀 샀더니, 아이고 마누라가 이혼하자고 야단해가지구 싹싹 빌었어.

다른 거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하고 돈 버시는 거 하시는데, 사모님께서는 여행 다니고 싶으셨나요?

근데 그 양반은 인제 많이 벌리고 나이도 막 있고 고희연 지나구 나서 인제 뭐 또 이거 하니까, 그냥 그럴 수밲이 없지. 그리구 그 양반은 땅만 사면 이혼하자고 그랬어 나더러... 그래서 난 공장도 지금 땅 사서 맨 공장 지어놓구, 벌어가지고 해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 노후가 인제 편안한데, 그래 이런 것두 못하게 하는데 그냥...

이것도 땅 조금이 아닌데요. 엄청 큰데요.

만 평이예요. 만 평... 근데 요거 3천5백 평 농사 지었었는데, 작년에 옆에 땅을 판대. 저짝 옆에 땅하구. 그래 6,500평을 사가지구 하우스를 지은 거야 저걸 또. 왜? 우리 집사람이 그 전에 돌아갔어. 2년 전에... 그 안 계시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여. 그래서 이혼하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사가지구 농사 짓는데...

지금은 토마토 하시나요?

예.

토마토 저 정도면 매출액이 얼마 정도예요? 1만 평 지으면?

만 평 지으면, 1년에 한 10억 정도... 그래서 한 5억 정도는 남겄지.

그럼 1년에 두 번 짓는 거죠?

응.

이거 지금 비닐하우스 이 정도 하시면...시설비는 어느 정도 되요?

이거요?

예. 평당으로 계산하나요?
그 평당으루... 지금은 비싸요 한 25만 원 정도 가는데.

평당이요?
예. 요거 지을 때는 한 15만 원 정도 줬으니까. 15억 정도 들어간 거죠.

이게 지금 비닐을 이중으로 친 건가요?
한 겹.

비닐 이중으로 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중으로 치면 인제 시설비가 아무래도 그 하우스를 두 개를 져야 하는 거죠? 겉에 하고 속에 하고... 그렇게 짓는 거는 또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겠어요?
많이 드는데, 한 겹이 더 있는 건 겨울 땜에 있는 거거든요. 그 한 겹의 차이가 온도가 2도 차이밖에 안 나죠. 근데 그거 필요 없어서 우린 다 내가 또 개발을 한 거예요. 이게 다... 한 겹으로.

한 겹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다 한 겹으루 허잖아. 그래서 여기 그 송탄출장소장 하던 한준우라고 있어요. 그 양반도 여기 와서 농사져. 내가 그 컨트롤 해줘서 여기 와서 농사 짓거든. 또 저쪽에 또 한 아들 친구놈이 와서 또 거기 와서 또 해서 해주주. 또 우리 친구 저기 저 진위면장하다 정년한 친구 여기서 지금 하우스 하게끔 해주구...

여기 겨울에 그러면 난방을 하는 거죠?
그럼요. 난방 없으면 못지지.

난방은 뭐 석유?
응 석유. 면세유 나오는 거 가지구.

이 정도면 난방비가 겨울에 얼마 정도 듭니까? 만 평이면?
한 3천만 원.

그럼 이것도 난방비도 보통 인제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하나요? 인제 나중에 비용 계산할 때?
아니에요. 그냥 한 3천만 원 정도 기름 넣어서, 저 날 추우면 많이 들어가구, 날 더우면 덜들어가고 그러죠 뭐.

지금 아까 이렇게 이거 지금 하면 평당 25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파이프하고, 비닐하고, 뭐 이렇게 물 주는 시설 스프링클러 시설 같은 것도 같이 포함되나요?

골격하구 이거 재배할 수 있는 그 저 이런 시스템 같은 거 전부 다 그렇게 하구.

그러니까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 일체를 갖추는 데 한 평당 25만 원 정도요?
예.

어르신은 이 하우스 하다가 맨 처음에 농사짓는 거는 뭐 특별한 기술 없이 그냥 경험으로만 지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근데 공부를 많이 했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뭐 독학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교육을 받으러 주고 다니셨나요?
아 교육도 받구 뭐 남이 좋대는 거 가서 보고두 배우구, 또 실제 밭에 들어가서 토마토가 자라는 환경에서 배우기도 하구. 그러는 거예요. 다 이게 이 밭에서도 잘 되는 데가 있어, 안 되는 데 있어 ,그 잘 되는 데는 왜 잘 된 거냐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맞춰서 잘 기르는 거지

그럼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서 하신 거네요?
그럼. 기록하구, 경험하구, 다 이렇게 해서 허는 거죠.

그 노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성공하셔서, 그 다른 분들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인제 이쪽에서는 다들 참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대단한 것보다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그리구 돈을 별로 호화판으로 써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없이 살았기 때문에 먹는 것두 옛날에 그 아무거나 막 먹고 살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지.

여기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쓰죠?
응. 다 방마다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거여.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금 뭐 한 달로 임금을 계산하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 한 달에 그 일요일 날 하루 쉬고 온 건가요?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날...
토요일날, 한 달에 두 번 쉬어요.

그리고 얼마 정도...?
그 한 사람 앞에 하루에 8만원, 7만원, 한 200만 원 정도 준다고 보면 돼. 그래 열 사람이니까 2천만 원 정도.

1달에 임금만 2천만 원이요. 아 그 액수도 크네요?
그럼요. 그래두 한국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없어. 에이 공짜로 나라에서 돈 주구 하는 거 그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10명이면 이 만 평을 1년 동안 농사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인제 이렇게 해서 다....

그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인가요? 이렇게 따는 거는 물론 하겠고요.
따구 뭐 순치구 다 이렇게 가꾸는 거 다 얘네들이 하죠. 나는 인제 이게 바람두 들어와야 되고 온도두 맞아야 되구 다 그런 거 준비하고, 물도 줘야 되구, 비료두 줘야 되구. 그 인제 기계시스템에서 전부 다 이렇게 줘가면서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비니루 덮을 시간이고 그래요

오늘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숙(여, 1967년생, 야막리)

일시	2021년 9월 4일	
장소	열린농원	
구술자	박정숙씨는 2000년 서울에서 남편의 고향인 야막리로 이주하였다. 이후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야막리 마을 남쪽에서 열린농원은 운영하고 있다.	
면담자	장연환	

원래 고향은...?

경기도 양평이요.

그러면 이 동네는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어?.

일단 남편 회사 출퇴근하기가 좋았고요. 시부모, 시아버님이 인제 퇴직하시고 아프시기 시작하셔갖구, 그것도 됐구, 아이들 인제 너무 인제, 큰 아이 때문에 들어오게 됐어요.

큰아이 때문이라면...?

어떻게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요. 학교생활을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그렇고... 둘째도 학구열이 너무 엄마들이 높아갖고, 그 경쟁도 싫고...

자녀분 때문에 여기 오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몇 년에 오셨어요?

여기 2천년에 왔어요.

그때 아이들은 몇 살이었나요?

저희가 하나는 인제 2학년 다녔으니까요. 둘째가 8살에 인제 이 취약할라고 들어온 거예요. 하하하... 취학 할 때쯤 온 거죠. 취학할 때쯤.

여기 와가지고는 인제 초등학교는 어디로 다녔어요?

초등학교는 갈곶초등학교 다녔어요.

그때 그 자녀들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마을에 학생이 몇 명이나 됐어요? 초등학생이 요?

초등학생 한 20명 정도 됐었어요. 그때 당시로는... 많았어요.

그 20명이... 그러면 한 집에 2명씩 잡고 한 10가구 정도 되네요?

예 예. 꽤 많았어요.

인제 아드님 둘은 초등학교 일찍 끝나는데, 갔다 와서는 어떻게 지냈어요?

한 시간 정도는 인제 학원도 다니긴 했고요. 취미 활동 식으루. 그리고 집에 와서 인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친구들하고는 주로 뭘 하고...?

거의 공 찾죠 남자애들이다... 공 차고, 뭐 휴일에 인제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이렇게 썰매 타기, 겨울이면 썰매 타기 하고 눈싸움도 하고 그런 기본적인 걸로 했어요 여기서 노는 거는.

인제 여기 오셔갖고 주부 생활하시면서 다른 활동은 안 하셨어요? 살림만 하시고?

살림 하고, 아이들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학부모회 일 좀 하고

그때 학부모에는 어떤 거 하셨어요?

학부모회 활동하면 뭐 선생님하고 같이 뭐 친목도 하고, 아니 학부모 말 그대로 딴 건 아니잖아요. 학부모 역할을 하는 거죠. 부모 역할 하는 거고, 도와서 학교 일을 일부분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학보모회에서...?

그때는 아이들 뭐 책 읽어주는 것도 했고, 동아리 활동을 좀, 엄마들끼리 동아리 활동을 좀 만들었었어요.

여기 체험 농장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2013년부터 했었어요.

이 마을에 체험 농장이 좀 있나요?

지금은, 현재는 있어요. 현재는 많아요.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한 5~6개 정도 있어요.

이 농장들이 언제 주로 생겼어요?

지금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정도...

여기가 최초예요?

예. 제가 최초로 시작을 했어요. 농사는 못 지니 연계를 한다 이거죠. 농업인들하고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이 터는 시부모님이 가졌던 터예요?
예.

여기 여기가 몇 평이에요?
한 천 평 돼요.

농업기술센터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체험 농장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설계를 그때 하셨나요?
그렇죠. 근데 저기 센터에서도 체험이라는 그 단어가 정말 설었어요. 낯설은 거였어요. 그때는 도시농업만 시작을 했어요 제가.

도시 농업이요?
예. 도시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도시의 농업, 쉽게 얘기하면 도시 분들이 농업을 하는 건데, 그거를 가르키더라고요 가니까요.

그 당시에 평택 지역이 인제 도시화가 돼 가니까 아무래도 인제 시내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끌어들였어요.

저도 인제 도시 농업에 대해서는 딱 거기까지만 알거든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는 걸로... 근데 인제 아까 농촌하고 도시하고 연계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가까운 게 뭔가 심어야 되잖아요. 제가 심는 거는 잘 못하겠는,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먹거리, 먹어보는 거, 저희 마을에 있는 거, 특산물들이 있거든요. 오이, 뭐 토마토 이런 게 있어요.

그걸로 처음에 출발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예. 일단은 많이 심어봤는데, 그게 어유 너무 어려워 가지고... 그 유치하는 것도 쉽지도 않지...

어쨌든 그러면 거기서 인제 교육 받고 여기 부모님 땅 천 평에다가... 저도 인제 체험 농장은 체험하겠거니 하는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니까는... 제가 인제 뭐야 유치하는 게 제일 힘들어서, 센터를 어쨌든 이용, 활용을 하거든요. 센터에서 인제 접촉할 수 있게끔 학교, 유치원 이런 데를 연계를 시켜줘요. 근데 기본적인 교육 받은 우리 사람들 때문에 인제 혜택 하나를 주는데, 인제 강사로 먼저 뛰어야 돼요. 강사 교육받으면... 자격들은 돼야 되잖아요. 어떤 기본 교육은 해야 되잖아요.

예. 농업에 대한...?
농업도 그렇고, 강사 스킬 같은 거, 그런 것도 계속 배워가면서 하면서, 일단 어떤 사업을 주는 거예요. 저희 농가들한테, 체험하는 농가들한테 사업 아닌 사업을 줘가지고 해볼 수 있게끔...

체험인은 각자 유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인제 그 사업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 사업도 많이 받았죠 저는. 그 체험 연구회래는 데가 있어요. 센터 속에 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표들이. 그분들이 같이 인제 그런 사업, 그러니까 아이템을 만드는 거죠. 이런 팜파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구... 그니까 하나 갖고는 재미없잖아요. 한 가지 체험 갖고는 재미없으니까, 각자의 특히 각자의 주 종목이 있어요. 체험 종목이 있어요. 저희 같으면 말 그대로 보리밥 시식 체험을 한다. 점심 대체로 하구요. 아니면 뭐 저희가 인제 강정도 만들거든요. 뭐 강정 만드는 체험을 한다든가, 옆에서는 뭐 진짜 말 그대로 화분도 만들고, 아니면 염색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다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를 순서대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그걸 동시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순서대로 할 때도 있구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그것도 하시고 블루베리 했다가 그다음에 보리밥 했다가 강정했다가 이러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 그것을 한 해에 동시에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처음에는 농산물 판매만 했었죠... 처음에는 농산물 판매로도 인제 사업자를 냈으니까, 판매도 하다가, 판매하는 것도 판매를 하려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뭐 판매하셨어요?

옥수수도 해보구...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예. 다 해봤어요... 고구마도 캐봤구...

그런데 옥수수나 고구마는 이 동네 주 종목은 아니잖아요?

주 종목 아닌데 저기 다 심어본 거죠. 다 해본 거죠 제가.

그때 판매하시고, 요거 농사 지어서 판매하신 거고. 그러면 인제...?

예. 판매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게 작잖아요. 조금이잖아요 소량이잖아요.

고구마 캐기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걸 사가는 거예요? 당신들이 캔 거를?

예. 아니면 그 체험비에 그 고구마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고구마 들고 가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판매까지...

처음에 인제 그러니까 이런 옥수수 고구마 고추 이런 걸 해보시고? 그때 해보시니까 인제 물론 재미나 또 재미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수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익은 어땠어요?

아이 수익은 별로 안 좋아요. 재미가 더 커요.

재미요.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유치원에서도 오구, 뭐 복지관 이런 데서도 오구, 학생들...

그리고 또 다른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다른 체험 활동, 제가 학교로 가는 체험으로...

학교로 가는... 어떤 학교로?
학교로, 인제 1년 프로그램 짜가지고요.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제 텃밭 쪽을 했어요. 학교 요새 다시 텃밭 인제 살리기 해가지구, 텃밭 같이 아이들하고 심기부터 시작해 가지구. 설계부터 시작해서 심고, 가꾸구, 수확하구 이런 거를...

텃밭은 중고등학교는 잘 안 하죠?
있어요. 해요. 근데 많지는 않죠.

평택 내에 이런 체험장이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한 20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가, 평택 전체가 한 20개인데 여기가 6개 있으면 최대 밀집 지역이네요?
예. 잘 돼 있어요. 지금은...

몇 명 단위로 와요? 보통?
저희는 10명 10명 기본 단위예요.

그런데 인제 그분들이 10명을 맞춰서 오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10명 올 때는 서로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죠. 같이 모임이대든가 이런 식으로.

여기 인제 체험 오신 분들은 주로 송탄 분들이신가요?
송탄 분들 그쪽이 많죠.

서울이나 뭐 오산 쪽...?
거기도 인제 제 지인분들이 많이 오는 거고, 거의 송탄 분들이죠.

이게 그러면 인제 잘 되려면, 체험이 잘 되려면, 사실은 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도 알려져 가지고 오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게 인제 제대로 인제 가동이 되는 건 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좀 어려우신 가요?
제가 오래 그 콘셉을 잡느냐고, 그 콘셉 잡는 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지금 인제 이게 2013년부터 했으니까 한 8년 째, 9년째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제가 먹는 거 안 할라고, 안 할라고 버팅기다가 계속 연기까지 되더라고요. 먹는 거를 힘들어해요. 먹는 거 만드는 거를...

힘들게 오셨는데... 수입이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남편이... 그 남편의 수입이 그래도 든든하게 있어서 그거를 하는데 지금은 많이 까먹었어요. 제가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전 재밌어요. 이 일이 괜찮은 일이에요. 제가 막 ‘아유 뭐 돈도 안 된다.’ 막 그랬는데도, 이 일이 할 만한 일이예요. 재밌어요.

어떤 점이 재미있으세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일단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재밌고요.

그거 또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딱 하면, 끝나면 완전 녹초 되죠. 아이들 한번 왔다 가면 거기다가 온 힘을 다해갖고 하고 나면은 가면을 완전 녹초 돼서 아무것도 안 해요. 하하하...

체험비는 얼른 1인당...?

어른이요?... 어른은 2만원.

체험비 2만원, 2만원이면 어떤...?

식사까지 다해요. 식사까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2만원. 2만원에서 2만 5천원.

그러면 인제 2만 원을 냈다. 그러면 인제 어떤, 자기가 원하는 체험을 할 수 있나요?

아니예요. 그게 다 틀려요. 종목마다... 그러니까 만 원부터 시작해서 2만 5천 원인 거예요. 식사 빼고.

1만 원짜리는 어떤 체험이예요?

말 그대로 보리강정 체험이 제일 기본적인...

그럼 보리 강정을 만들고...?

가져가는 것까지.

얼마 정도를 가져갈 수 있나요?

그람 수로 따지기는, 그래도 한 봉지라고 해야 돼요

보리 강정 체험하고 한 봉지 같이 가는 거... 또 봉지도 요만한 거 있고, 이만한 거 있고... 한 20cm(가로) 20cm(세로) 이렇게?

더 돼요. 그거보다는요.

2만 5천 원짜리 하면, 인제 식사하고?

식사까지. 강정을 친다면 식사까지 하구요. 말 그대로 뭐 김치찌개는, 김치찌개, 저희는, 김치찌개는 좀 저렴하다... 비빔밥까지 해요 저희... 비빔밥은 보리 비빔밥.

그러면 요새 인제 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시내 가서 회식하는 것보다 여기 좀 한적한 데 나와서 농촌 분위기 나고 그리고 또 인제 또 안 만들어봤던 거 이렇게 잠깐 만들어보고 그러면 풀코스로 가면 굉장히 좋은 회식 장소로도 이렇게 홍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는 있어요. 팜파티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여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음악 연주도 하고, 자기들끼리 놀도 하 고...?

예. 쉬었다 가는 거죠. 예.

이렇게 공간 대여하면 그 사람들은 1박 2일 정도 있겠네요?

거의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런 분도 계셔요.

모닥불도 피고 뭐 도시 사람들은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그니까 말 그대로 이게 먹는 게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음식이 있어야 돼요. 앞에는 음식이 있구, 같이 무대도 쪼끄만 하게 만들어서 놀고, 같이 뭐...

그러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뭐 일종의 펜션의 형태라고 할까요. 그렇게 운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제 생각은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워낙 저희 마을의 체험 마을을 준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체험 마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개인, 인제 개성이 강한 친구들이 많아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 중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이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이 동네 이렇게 체험 농장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여자 분들이세요?

여자분이... 저희가 더 많아요. 6:5 정도 이렇게 치면... 저희가 60%고 남자분이 40%. 반반 정도 돼요. 부부가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인제 뭐 바깥 분들하고 이렇게 동네 전체에서 한다면, 그거 체험을 위한 뭐 예를 들어서 산책 코스라든가 이렇게 마을 환경 같은 경우에도...?

아 그거 지금 만들었어요. 한 3년, 4년에 걸쳐서 지금 저기 산책로, 조그마한 산책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산책로 있고, 저쪽에 공원도 조그맣게 이렇게...
예. 그거 했어요.

그거 언제 만들었어요?
그거... 16년부터 만들었어요.

산책길도 2016년에 만들었어요?
지금 그거는 작년... 재작년에 만들었죠. 재작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미루어져가지구...

산책길이 그러니까 2019년에 만들고요... 그 분리 수거장 있고, 그거는 언제...?
같이 한 거예요. 다 같은 사업으로 제가 했어요.

2016년에 예산을 받아서요?
17, 18, 19, 20... 어유. 하하하...

그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5억, 5억 받았어요. 5억

5억 받아가지고요. 이건 시에서 받은 거예요?
아뇨. 도,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건데, 도에서 핸 거예요.

경기도에서요... 5억 받아가지고 산책로 만들고 하천 변에 산책로 만든....?
네 네... 하천 만들고, 소공원 만들고, 저희 인제 회관이 좀 노후 돼서...

하천 옆에 길 만들고, 하천 길 만들고...
산책로죠.

산책길 만들고 소공원?
예. 소공원 2개... 회관 좀 안 좋아서 노후 돼서 리모델링 했어요.

그러면 인제 지금 거의 5년 동안 2016년에 인제 확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해오시면서 이 마을에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 구상해 둔 것도 있나요? 체험마을로서?
아이디어는 엄청 많은데, 혼자는 못하겠더라고요. 혼자는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도 같이 인제 그 팀이 있거든요 같은. 이 마을가꾸기라고 해가지구서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 분들이 그래도 동조를 해주니까.

아 그니까 그 모임 명칭이 마을가꾸기인가요?

마을가꾸기추진위원회예요.

마을가꾸추진위원회... 이건 언제 결성이 됐어요?

그거는... 2015년도부터... 16년. 15, 16년 이렇게 했어요... 같이 한 거예요. 16년도에서 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동네 마을기금이 많아요?

없어요...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정말 여기는 저기 뭐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전에는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장세라고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했잖아요. 그거는 뭐 이장이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기금은 어디서 나와요?

저희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상토 작업하잖아요. 흙. 그거를 갖다 지금은 저희는 저기 발전 기금으로 받아요.

그니까 뭐 깊숙한 물을 메꾼다든가 이런 거 할 때요?

예. 그 작업할 때 저희가 발전 기금을 받아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그분, 하시는 분들.

발전 기금은 얼마를 받아요?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뭐 한 구간 하면 저희 1200평이거든요.

그러면 그 논 주인이 인제 객토를 하면 네 트럭이 오잖아요. 그러면 1,200평 그...?

한 구간 하면 한 기준 50만원.

아 그분이 그냥 마을분들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그랬으니까, 그냥 내가 한 50만원...?

그렇죠. 농로도 그냥 깨지고, 보수 차원으로 받는 건데 그냥 발전기금으로 받아요.

다른 돈은 없고 그냥 그런 돈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니까 체육대회 같을 때, 그럴 때는 인제 기분이잖아요. 옛날부터 이렇게 봉투, 이렇게 써붙여갖구 얼마 얼마 얼마 찬조금, 그 정도 받아요.

이장은 인제 대동에서 뽑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장을, 그때 젊으신데 이장을 하시게 됐어요?

누가 안 하잖아요. 누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이장감, 이렇게 찍어 놓으셨나요?
아뇨. 반대로 제가 ‘저 지목해 주세요.’ 그랬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좀 답답하셨구나? 그전에 하시는 걸 보고?
예. 너무... 일을 안 하신 건 아닌데, 주민들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소통이 안 되니까. 그리고 가지도 못하고 집도 못 가고... 저흰 완전히 완전히, 저희 농원 이름이 열린 농원이잖아요.

여기?
네. 열린농원이예요. 엄청 왔어요. 저 이장 할 때. 하하하...

지금 마을에 보니까 카페도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개업할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전.

카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저희 그니까 우리 주민인데 잠깐 나갔어요. 길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중간에. 그 길 때문에 집이 없어진 친구예요. 저희 아들보다는 연배인데 조금 33살인가 지금. 33살이 먼저 왔구요. 다시 들어온 거예요. 동네로. 나갔다가. 집이 없어지니까 여기 바깥에, 오산 시내로 나갔다가 다시 인제 터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마을에 카페가 생기면 손님들이 매출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도 같이 지금 저거 시작할 때 같이 좀 시작을 해야지 그러고 있어요... 같이 윈윈 하자고요.

여기 동네 공장, 공장 내지 뭐 회사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혹시 뭐 몇 개 이렇게 마을에서 통계 잡고 있는 게 있나요?
24개 정도 있어요.

24개요?
많아요. 근데 좀 작아요 다. 여기는... 소규모예요.

처음에 오셨을 때, 여기 2천년에 오셨을 때도 마을에 공장이 있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저희 들어오고부터 이 고가 생기고부터...

그럼 이 고가도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인제 공장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 공장 들어온 게 한 10여 년밖에 안 되네요?
얼마 안 되요.

동네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지금 집이 안 보이잖아요. 공장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동네에서는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는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는 거죠?
생각도 안 했구요. 일단 주민이 만들은 거니까..

주로 어떤 업종들이에요? 뭐 기계도 있고....?
기계... 있고, 그냥 이렇게 뭐랄까 조립한다 그럴까요. 그런 거예요.

갔다가 이렇게 부품 다른 데서...
조립도 하구, 조그마한 소품들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테크라고 뭐 이렇게 해면서...

근데 그렇게 공장들이 있으면 인제 경관도 경문제지만, 인제 이게 큰 차들이 자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것 땜에도 많이 힘들었어요. 전기줄도 많이 끊어 먹구...

그래도 인제 그분들도 여기 인제 마을이니까, 뭐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어울리려는 노력 같은 거는...?
그런 분은 몇 분 안 돼요. 한 셋, 넷.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어울리려고...?
뭐 어떻게 하면 찬조금, 인제 체육대회 할 때 뭐 이럴 때 같이 참여 이렇게 하셔서 찬조금 내고 그렇게 얼굴 보일 정도지 뭐.

찬조금은 실례지만 또 어느 정도나 주시나요? 뭐 한 10만원, 20만원, 그 정도 주시나요?
그죠. 10만원 내외. 조금 많이 주면 한 30만 원, 큰 기업이 없대니까요. 여기는.

동네 뭐 큰 기업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또 할 수도 없잖아요. 여기요. (농업) 진흥 지역이다 보니까,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큰 기업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큰 기업 오려면 여기 논을 논 위에 들어서야 하는데, 저쪽 마을 안에 인제 대지로 돼 있는 데, 그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큰 거는 없는 거죠?
좁으니까, 어디 들어설 데도 없었던 거죠.

이쪽에 야막리 이쪽으로 테크노밸리 지금 계획돼 있잖아요. 그럼 언제 추진될지는 인제 추진돼 봐야 알겠지만요.

저희 동네분들한테 저번에도 몇 분 모여 있다가 물어봤더니만, ‘보류’ 이러더라... 하하하...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마을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찬성 쪽이에요. 어떻게 보면 찬성 쪽인데, 그전에도 한 번 제2산업단지 땜에 저희가 인제 막 왈가왈부 했었는데, 힘도 안 되고 ‘그때 아예 해지!’ 인제는 어르신들이 그러는 거야. 그때는 반대했다가 ‘그때 그냥 하지 왜 못하게 했냐.’고 막 또...

그때 LG들어온다고 그럴 때 말씀하신 거죠?

예. 저희가 반대했죠. 젊은 사람들이 좀 반대를 해가지구....

그때는 왜 반대하셨어요?

너무 낮았던 거죠. 지가가.

그때 얼마 정도 보상가가 정해졌어요.

완전히 건너하고는 여기는 천지였어요. 저기 천(天이)고 여기는 지(地)래니까요... 이게 철길 따라서...

저기가 1만 원이면 여기 얼마 정도?... 아까 지가처럼 뭐 저쪽에 700이면 여기 200, 이렇게?

예. 맞아요.

그럼 그 당시에도 그 차이가 좀 심했어요?

차이 많았어요. 그니까 저희가 준비 아닌 준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공시지가라도 좀 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대책위원회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터무니없는 거죠. 그렇게 넘길 바에야... 이제는... 아유... 테크노밸리 어차피 되는 거...

지금 마을하고 협상이나 이런 건 아직 전혀 없죠?

그런 거 없어요. 발표도 안 난 상태라...

그렇죠. 그 뭐 아직 계획만 있지 확정된 것도...

저희 딴으로 ‘그냥 한번 움직여보자.’ 얘기는 해요. 뭔가 또 우리가 요구할 게 있잖아요. 그럼 얘기하래면 누가 나서냐고요. 자꾸만 얘기만 나오죠. 누군가 나서야 되잖아요... 아니 난 무서워. 하하하... 저도 그런 거는 무서워 해요.

사장님이 나서셔야 될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무섭드라구요. 한번 저도 대책위원회 같이 했었거든요.

아 LG 그때요?

네 네. 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일단 소속은 돼 있었죠. 어쨌든 저희 여기가 있었으니까... 겁나더라구요. 그런 행위하는 것들이... 또 뭐 지식이 뭐 많은 것도 아니구.

그때 여기 마을은 안 들어가죠.

마을 빼고 여까지만 했었어요. 요 냇갈 창갈천까지만

창갈천까지만요?

예. 계획이 있었어요. 그니까 저희가 들어갈 때.

지금 계획은 정확한 경계선이 어디예요?

저쪽 신리 들어가는 저 길에서 네 구간까지... 그니까 논 네 개. 저기서부터, 저 길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아 저 사리 들어가는 길에서부터요?

예 예. 논 네 개예요.

그럼 여기는 안 들어가는 거죠?

저흰 안 들어가요. 근데 언젠간 들어간다는 말은 하는데, 뭐 언젠가는 뭐...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부순(남, 1941년생, 야막리)

일시	2021년 9월 17일	
장소	하북1리 마을회관	
구술자	이부순씨는 야막리 초대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을 지내면 이 마을에서 새마을사업의 시작을 주도했다. 젊어서는 두레의 상쇠를 하는 등 평생 마을을 지키며 살고 있다. 현재는 사과대추 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면담자	장연환	

초등학교는 어디 다니셨어요?

진위국민학교 42회.

여기서 진위국민학교는 어떻게 갔어요. 길을?

여기서 하북으로 해서 견산리로 해서 간 적두 있구. 요기 저 뒷성재라고, 여기서는 어른들이 그러는데, 가곡리, 가곡리 신북, 당월 그쪽으로 해서 개실 쪽으로 간 적도 있구.

그래서 고개 넘어가겠네요?

응. 그담에는 6·25 전인지... 또 요리 해가지고, 고개로 해가지고 뒷성재하구 이 하북리, 견산리 그 사이에 논두렁 그 산 아래 기슭으루 그렇게 가더라구요. 그 나중에 인제 커가지고 알었는데, 옛날에 그 전염병이 심해가지구 어른들이 그리 가라고 해가지고 아마 동네 피해가지구 그 새로...

그렇게 가시면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뭐 애덜적이니까 1시간 잡었을 거야 아마.

보통 몇 명이서 다녔어요?

아침반 핼 적에는 우리 누님들 쫓아가던지, 형님들 쫓아가던지 댕겼구. 옛날에는 오후반이 많었어요. 옛날에는 학교 교실이 모자라가지구. 그래가지고 저 운동장에서 그럭저럭 그냥 배우는둥 마는둥 그래다 보내주면 오구, 그런 기억이 나요.

아 그래서 운동장에서 수업하고...?

응. 수업두, 그런 적두 많어. 맨날 그런 건 아니구. 고 담에는 진위국민학교 위에 가면은 동교사라고 있어요. 동교사. 초가집으로 이렇게 지은 거.

절인가요?

아니. 학교. 근데 그게 아마 조선시댄지 왜정땐지 잘 몰라두, 부자가 거기다 지어줬대요. 학교를... 학교를 지어줘서... 교실이 모자라니까 조회는 진위국민학교 본교에서 보구 그리 또 갔다고, 교실을...

아 동교사라는 데로요?

응. 동교사가 있어. 그게 인저 안 쓰다가 6·25 다 끝나고, 그 몇 년돈가, 그게 진위중·고등학교 전신 거기 고등공민학교로 거기서 고등공민학교...

이 동교사에서요?

예. 고등공민학교가 거기서 탄생핸 거여.

아 봉남리 면사무소 오른 쪽 있는 데, 거기...

여기서 가자면 면사무소 지나서...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이 얘기허기를, 내가 거기 다녔어요. 고등공민학교.

여기 고등공민학교는 국민학교 졸업하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학교 졸업해고 고등공민학교 들어간 거지.

거기 학급은 몇 학급이었어요?

한 클라스씩이지 뭐.

학년당 한 클라스씩이요?

저기 저 1학년 한 클라스, 2학년 한 반, 3학년 한 클라스... 그 당시에는 거기두 못 가는 애들이 많았어. 장례쌀 먹던 시절, 이 형님은 잘 알지. 나보다 세 살 위. 장례쌀 먹던 시절이여.

장례쌀 이자는 얼마나 됐어요?

첨에는, 내 기억으로는 1·4후퇴 때 그 당시까지만 해두 쌀 1가마 가지고 오면은, 그 장례쌀이라고 그랬어, 농사 지어서, 농사나 제대로 지을 수 있어? 전투시에, 전쟁 일어났는데. 고 담에 농사, 어떻게 농사라고 개떡같이 짓는 거지, 속된 표현으루. 그럼 두 가마 갖다 줘야 돼.

6·25 때 기억나세요?

눈으루 봤으니까 알지요. 그 무슨 상황 같은 거는 커가면서 어른들 말씀허는 거 귀동냥 해서 '아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됐구나' 눈으로 다 봤으니까. 피난 가구... 1·4후퇴 때 피난 가구, 이 철로 뚝으로, 경부선 철로 뚝으로 1·4후퇴 때 피난민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쫘~악~

철도 타고 내려왔어요? 걸어서요?

예. 그래 우리집이 저 야막리 중앙 정도, 거 우물, 거기 농사져서 짚을, 여기 들녘이니까 짚을

때느라고 쌓아놓으면.... 그러면 그냥, 방이 없잖아요. 피난민이 하도 많이 동네에 들어오니까. 잘 방이 없으니까 마당에, 옛날에는 마당 있잖아요. 타작해는 마당, 집집마다 마당이 다 있죠. 농사짓는 농촌이니까. 거기다 그냥 그 짚불을 놓고 밤을 새우구...

그게 6·25 때인가요?

1·4후퇴 때... 6·25 때는 피난민 내려오는 걸 못 보구, 우리가 외래 저 옆동네, 저 사리니 뭐 저 옆동네로 잠깐잠깐 갔다왔지. 그리고 한번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 큰 형님, 부모 또래여, 내가 막내니까. 7남매 중 내가 막내라, 이 근데, 우리 형님은 그때 젊었겄지. 소를 그때 멕였는데, 그냥 뛰어 들어오시더니 그 여기온다고 여기온다고... 무슨 소린지. 하하.

아 인민군 온다고요?

그 소리여 그게. 그러더니 그냥 소를 가지고 저 사리로다 그냥 냅다 뛰는 거여. 소만 끌구.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어땠어요? 피난 가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별로 뭐, 가야 저 옆에 동네, 고기나 갔다오구...

저 옆동네 사리요?

어. 사리 정도. 그 담에 난 동쪽으로도 갔다왔지. 거 친척 있어서. 남사... 삼거리. 거기 4촌 누님이 사는데, 거기로도 식구들이 피난 갔다오구.

남사 3거리가 진위하고 남사하고 경계점 있는 데죠?

그렇죠. 동천리 지나서 거기... 그리고선 1·4후퇴 때도 우리 피난 갔었죠. 피난민들이 하두 가니까 겁에 질려가지구. 우리 식구가, 큰누님이 영등포 살으셨는데, 큰누님 식구들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합쳐서 그때, 얼추 20명 되나봐. 그때 몇 명이나 갔는지 잘 모르겄네. 열 몇 명이라고 그랬는데, 한 20명 되요.

아 식구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집단으루

어디로 가셨어요?

지금 생각나는 게 저기 저 공주쪽으루 갔는데, 온양온천까지 갔어, 온양온천... 온양온천까지 갔는데, 거길 이렇게, 그 저 뭐여 도시지, 쪼끄만 도시지, 읍내 같은 데루. 근데 그 냇갈 같은 게 있어. 근데 거길 건널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멈추구, 우리 큰매형님하구 우리 형님, 우리 형님은 저기 제1국민병 못 나갔어, 이 발을 다쳐가지구 안성까지 갔다가 거기서 ‘당신은 그냥 오셔’ 그래가지구 제1국민병이라고 그랬지. 젊은 사람들 다 뽑어서 내려갔는데, 우리 형님은 되돌아 왔다구. 17살까지 그때 갔어. 발이 아퍼가지구 지팽이 짚고 이렇게 해구 가니까 안성 무슨 학관가 거기루 집합해가지구 심사해서 거기루 갔대요. 근데 우리 형님은 왔어. 그러니까 온양온천서 우리 큰 매형하고 우리 형님하고 찔뚝은 해두 인민군한테 잡히면 안되니까. 형님하고

우리 또 셋째 누님이여, 그때 처녀지, 큰 처녀. 얼추 20살 된 큰 처녀. 그 셋만 피난은 가구, 온양온천 그 무슨 학꾄지, 국민학꾄지 중학꾄지, 국민학괄 거여. 그 교실에서 잤어.

그러면 많이 있었겠네요. 사람들이?
아 피난민들 많죠. 그 방이 없으니까 교실에서 잤대니까.

뭐뭐 가져갔어요?
쌀만 가져가구, 엿은 우리 어머니가 쌀로다 고운 거 내 기억 나.

쌀은 얼마나 가져가셨어요?
쌀은 이구지구 해서 한 댓 말 내기는 가져갔겄지, 댓 말...

그럼 모자랐겠네요. 쌀이, 나중에?
그니까 죽 쑤어먹구 그랬지. 그거 가지구... 오다가, 오다가. 갈 땐 밥 해먹었는데, 올적엔 달랑달랑 해니까 죽을 쒀서 먹구, 거기서 고생했어, 내가 볼 적에... 그러면 생전 씻지도 못해구, 그때는 바지 저고리. 광목으로 바지 저고리. 양말도 무슨 버선으로, 광목으로 버선 해서 해구. 땅깨비 모자라고 해서 피난 나간다고 죄 해서 씌우고 이렇게 맨 거.

땅깨비 모자요?
이렇게 자루 같은 데다 이렇게이렇게 꾸겨넣으면 왜 있는거 있잖아. 그 식이지. 그 지금 고깔비슷해게 맨들은 거지... 그거 광목으로다 전부 피난 나갈 준비해서 이거 쓰구, 그 버선을 맨글어서 우리 신기구, 어른들도 시구 그러고. 솜 넣어서 버선을 맨들은 거여.

며칠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그니까 한 보름은 걸렸을 거야 아마. 피난 갔다 온 기간이.

그러면 6·25 때는 피난을 몇 번 가신 거예요? 아까...
살짝 갔다 오는 거여. 요 옆에만. 살짝 살짝... 요거 지나가, 요거 국도니까. 살짝 살짝...

아 인민군들이 지나갈 것 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갔다가, 인민군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마을에 인민군들 안 들어왔었어요?
그리구 6·25 때. 6·25 때는....

아까 오산 가신 게 6·25 때 아니었어요?
그것두 6·25 때구. 그 인제 거기 갈 때는 인민군이 쳐내려올 때구. 인제 쳐내려왔어. 낙동강

까지 갔나봐. 나중에 보니까 갔어. 근데 아침이면은 얼만지, 얼만큼인지 인민군들이 말에다가 말마차 끌구 이 동네로 들어와. 아침이면...

저 1번 국도 따라 내려가다가?

응. 거 가다가. 말마차에다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사랑방, 빈 방이구 무슨 방이구 그 식구들 쓰는 방만 놔두구 낮에는 그냥 꽉꽉 차 있어. 나두 인민군 밤 먹어봤어 그래서. 우리 사랑방에도 인민군들이 그때 스무 명이래나 서른 명인가. 한 칸짜리 방인데. 그렇게 잔뜩 있더라구. 방이 없으니까. 낮에는 쳐백혀 있는 거여.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기에 고거, 쌀을 우리 어머니가 받어가지구 그 사람들 밥을 해준 거여.

아 인민군들이 쌀을 가져왔어요?

응. 가져왔어. 근데 여기 쌀밥만 못 해. 우리 부엌에서 그 밥은 한 거여. 그래서 밥해는 사람이니까 우리 배고프대니까 주어서 먹어봤어. 근데...

(동네 어르신) 이렇게 자루마냥 해가지구 쌀을 차고 댕겼어.

동물 같은 거 잡아먹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아 그런 거 없었어.

그럼 폐는 전혀 안 끼친 거네요?

아 폐 안줬어 걔네. 저기 그리구 인저 여기 저 대현네 사랑, 사랑말네 그 저 옛날 그 앞에, 부잣집이니까 한 두어 칸 되구 방이, 툇마루처럼 바깥 마당 쪽으루 있어 마루가. 거긴 우리는 놀러 가서 거기 마루에 죽 이렇게 앉어서 놀구 그랬어. 그러면, 우리 앞집이니까, 우린 뒷집이구, 쬐끄마니까 아 어디서 노래소리가 막 난단말여. 그 애들이니까 막 뛰어가봤지. 아 그랬더니 애들을 거기다 죽 앉혀놓구, 밤인데 인민군이 노래를 가르키는 거여.

그때 열 살 되셨잖아요. 열한 살.

그래두 나는 거기 못 끼구. 하하하. 그담에 또 그 선생 중에도 빨갱이라고 그랬어. 6·25 때 뭐 애국가라고 인민군 애국가라고 뭘 그걸 사랑방에서 가르키구, 애들이 못 부르니깨...

진위국민학교 선생님이요?

어. 이름두 잊어먹었어 그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데, 그때 애 낳고 그런 거 같애. 그런데 나중에 빨갱이라구 죽었다구 그러더라구. 죽였다구.

그래서 며칠이나 이렇게... 밤마다 들어왔어요?

그의 밤마다...

아침마다 참...

낮에는 있구, 밤이면 떠나는 거여.

그리고 또 오늘 가면 그 다음날 오고...?

응. 계속 오다시피 했어, 계속

(동네 어르신) 걸어서 그 말마차 끌구 걸어서 다 왔어.

그리고 요게 창갈천이걸랑. 실개천식으루 돼 있는 게 이게... 창갈천이 그전에 철로, 요 경부선 철로 발로 넘어서 야막리가 인제 집이 시작되는데, 남쪽으로 이렇게 꺾어졌걸랑. 요 창갈천이... 철로 넘어서 남쪽 방향으로 틀었어 죽-.

철로 옆으로..?

철로에서 좀... 얼마나 떨어졌을까? 철로에서 한 50m는 떨어졌겠지. 4~50m. 근데 지금은 이리, 농지정리 해는 바람에 마을 앞으로 인제 똘을 돌린 거지... 근데 창갈천에 그전에 어른들이 그걸 숲이라고 그러드라구, 숲. 수양버들 아무를 심었어. 근데 좁은 실개천 비슷해니까 낮에는 거기 인민군들이 거기다, 물은 없어 거기, 물 없을 때여. 거기다 말을 매어놓은 거여.

그렇게 해서 며칠이나, 지금 생각하시기에...

한 여름 내 그런 거여. 한 여름 내.

쌀을 그사람들이 가져왔는데, 반찬은 어떻게 했어요?

반찬은 여기 있는 거 해줬지. 있는 거.

해달라고 그 사람들이...

아 뭐 해달라고 해. 알어서 그냥 쌀만 주면은. 내 기억에 그거여... 근데 어떤 때는 이 부잣집에서는 그냥 자기네 쌀로다 해주고 그랬다구, 그런 소린 들었어. 우리는 가난하니까 우리 쌀을 못해주지.

아까 그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오가는 데 장난도 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장난 치 셨어요?

가다가 장남 뭐, 무슨 장난했던가 그때? 하여간 뭐 앉어서 뭐 얘기허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새치기도 헌 일이 있어. 안간거여 놀다가. 그때 뭐 해다, 한 번 그런 거 기억나. 그때 앉어서 하여간 뭐 놀다가, 뭐 해다가 아 보니까는 벌써 학교 갔다 오잖어. 하하하....

마을에서는 몇 명이서 같이 다녔어요?

그니까 아침에는 많이들 같이 가요... 고학년두 있구 거기 다 있구 같이 가구 그래. 오후반일적에, 그때는 지금으루 얘기허면 여기서 한 10시쯤이면 출발해지. 시간이 많으니까 괜히 이런거 저런거 그냥, 뭐 이상핸 거 있으면, 여름에도 저기 저 보리밭에 뭐 메뚜기 있으면 거기 쫓아가구 뭐 하구. 시간 감각을... 그러다 보면은 어 고학년들 사람들이 와요. 놀다보면, 정신 팔려서. 철없지 그러니까는. 그런 적두 있었다 그런 거여.

아침반은 몇 시까지 갔어요?

지금으로 해면 9시까지겄죠 뭐.

오후반은요?

우리 시계도 없었어. 시간 관념두 없었어. 오후반은 하여간 오후니까, 점심시간 지나면 그때니까 여기서 한 10시경에, 그때는 그냥 아침 샛밥이라고 그랬어, 아침 샛밥 때. 그래면 한 10시쯤이여, 아침 샛밥 때.

아침 샛밥이 새참 먹을 시간이잖아요?

응. 그랬어. 그리고 먹는 거 보고선 여기서 출발해 학교를. 그래 시간이 많지.

그럼 점심은 건너뛰시는 거 아녜요?

건너뛰는 거지요. 그러니 이렇게 약하게 자란 거야. 먹질 못해서.

그러면 아침 새참 먹고 그 담에 학교 가시는 거예요?

갔지요. 그러다 인저 일철에는, 거 공부 해는둥 마는둥 그전엔 그랬어. 선생님들 욕해는 거 아녀. 공부 해는둥 마는둥 그냥 한 두어 서너 시간 했나? 운동장에서 해다 뭐, 교실에서 해다가, 뭐 어떤 때는 이렇게 오다가 보면은 저녁 샛밥이라고 어른들이 잡숴, 그러면 막 뛰어가는 거야 밥 얻어먹으러.

그때는 반찬은 어떻게 해서 먹었어요?

반찬 뭐 김치, 깎뚜기 뭐 된장 뭐, 그런 거죠 뭐. 그담에 인저 지금 생각해는 게 꽁치 한 토막씩, 1인당 한 토막꼴. 일꾼들, 일해는 사람들. 그건 기억이 나네요.

밥 얻어먹는 애들은 꽁치 같은 것도..?

우리는 그건 못 얻어먹죠. 없지. 그건 특식이니까, 하하 우린 없지.

보리는 논에다 심었나요? 밭에다 심었나요?

아 밭에다 심었어.

여기 2모작이 됐나요?

여기 안 됐어요.

2모작이 안 됐어요?

응. 그 한 번 심은 기억은 나네. 저기 우리 논에다 한 번 심어가지구, 심긴 심었네. 심어가지구 그걸 비고, 여기가 높아가지구 봇물이 안 닿아서 장마때 ‘마냥모’라고 그러드라구 어른들이. 마냥모.

마냥모라고 그래요?

응. 마냥모 심었어. 그냥 비 맞아가면서 소로다가 소로다가 보리 그 비어낸 데 거기 갈구, 써리구... 물 있는 논에서 못자리 해놓으면 그 모 쪄다가. 그 우리 큰 형님이 고생 많이 했지. 비오는데 그걸, 바수걸이에다가 모를 갖다가 다 던져, 써려논 논에다. 그러면 줄두 안띠구, 못줄도 안띠구 그냥 마냥모라고 그래. 그냥 심는 거여 막...

다른 데서는 그걸 호미모라고 그러던데요?
호미모? 여기는 마냥모라고 그래는 거여.

호미로 심는 거예요? 손으로 심는 거예요?
아 손으루 심었지.

장마 때니까 인제 비가 오니까?
비가 와서.

그럼 소출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 마냥모는?
마냥모도 잘 났죠.

좀 늦게 심어가지고...
좀 늦게 심었지... 보리 심은 적도 있었어. 우리는 쪼끔 심었었어. 2모작은 못 해고...

여기는 지대가 높아가지고 마냥모를 심으신가 보네요?
그 자리 있었어, 한 자리.

퇴비는 겨울에 다 내요?
봄에, 농사 짓기 전에. 그니까 정월 보름 쉬면은, 내 기억으로는요, 인저 일 본격적으로 슬슬 시작해는 거예요.

정월 보름...
어. 보름 지나면은 그 지게로다 퇴비 져 내고 그냥 시작이여, 농사일 시작 해는 거여. 그러니까 우리 어려서만 해두 정월 보름까지는, 그때는 농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는데, 그 사물 놀이 뭐 이런 거, 풍물놀이를 어른들이 잘 했어요. 집집마다 돌아댕기면서.

언제부터요?
정월 초에, 보름까지.

대보름날까지 그냥 거의 매일 하시다시피 하시는 거예요?
아 매일은 아니라두 그때 많이들 놀으셨어.

그리고 인제 정월 대보름 하면 딱 끝이예요?

응. 그리고 일 시작을 허지.

그럼 일할 때도 농악 쳤겠네요?

일할 때는 언제냐면은 모심구 한 보름쯤 있으면은 논을 매요. 호미 가지구. 그땐 남자들만 해여. 논을 매, 애벌이라고 그랬어, 어른들은. 그 담에 열흘인가 있다가 두벌 매. 그때 가지구 나가. 낭대라고 그래서 대나무 이렇게 된 거 큰 데가 해가지구, 그거 저 위에다 깃털을 꿩털이더라구. 그담에 광목이지 그게, 광목에다, 폭이 한...

50cm 정도요?

어. 이렇게 된 데다가 길어. 길어가지구, 한 서너 발 되나봐. 거다 한문으로 ‘농자천하지대본야, 평택군 진위면 야막리’ 한문으로 그렇게 써가지구. 그 낭대라고 그랬어, 낭대. 그 제일 앞에 가자면 상쇠 뭐 징잽이 뭐 북잽이, 장구잽이 치면, 그 뒤에 죽~ 일꾼들이, 일해는 사람들이 죽~~ 따라 나가. 일터로다가. 그 도랭이래는 거 하나씩 메고.

도랭이요?

도랭이는 뭐냐면, 우장이지. 비올 때 쓰는 거 하며 그 쉴 때 또 깔고앉구. 혹시 또 긴참이라고 있어, 길게 쉬는 참이면 펴구서 눕기도 해구.

그러니까 비올 때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맑을 때도 가지고 가네요?

암, 맑을 때도 가지고 나가지.

그럴 도랭이라고 그래요?

안 가지구 나가는 사람두 있지만, 쉴래면 그게 필요해요. 깔아야 되니까. 그면 그 호미 거기다 딱 꽂고. 짚으로 엮은 거예요. 멜빵 있구, 비오면은 여기다 입지. 입으면 거북이처럼 보이지 거. 비오면 그거 입구. 나갈때는 그걸 어깨에다 메고, 호미 거기다 꽂구, 죽~ 따라 나가.

아 일하실 분들이요?

어. 그담에 인제 해가 인저 떨어지면은 막 들어와 또. 낭대 앞세우고 꽹맥이 치면서 어른들이 또 들어와. 그러면 그 집이서 뭐 자정까지 놀어, 자정까지.

하루종일 일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저녁에 또...?

어. 그게 낙이여. 농부들의 낙.

애벌매기 할 때는 그럼 안 했어요?

안 해고 두벌 핼 때만. 고때만 인제 핸 거여.

훔치기 할 때는요? 세 번째 맬 때는...?

세 번째는 안 해... 근데 세 번 맬 때도 해기는 해는데, 잘 안 해. 부잣집 일 헬 때는 가지구 나가. 그 가난한 집은 안 가지구 나가... 부잣집은 그 얻어먹어야 하잖어. 배고프던 시절이니깐.

그러면 그때는 날마다 치잖아요? 날마다 매야 하니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매야 할 거 아녜요?
가난한 집은 일꾼 없어 못해구. 인저 일꾼들 한 열댓 명, 이십 명 돼야지. 그래야 그 가지고 나가지. 세명, 네명 얻은 집은 안 해.

잽이꾼도 인제 할 때는 기 꽃아놓고 일 하잖아요?
응.

일 하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합판에 적어 벽에 걸어놓 은 것을 가리키며) 이게 풍물놀이, 풍물놀이.

이거는 누가 쓰신 거예요?
제가 썼어요.

그러면 저 풍물놀이는 어르신이 쓰신...?
아 제가 직접 창작물이여.

아 풍물농이, 옛날에 한 거 보고 저 글을 쓰신 거예요?
내가 상쇠요.

언제부터 상쇠 하셨어요? 몇 살 때부터?
하하하, 아 젊어서, 애들서부터... 이거는 하도 집사람 내가 고생을 시켜서... '감자꽃 당신'이라고 해가지구

상쇠는 몇 살때부터 하셨어요?
아까 논 두벌 맬 때 저기 어른들이 치구 나간다구 그랬죠! 풍물... 그럼 그때 학교갈 시간이여 우리두. 밥 먹고. 그러면 하하 그 소리가, 들로 나가는 풍물 소리가 그 하두 들어서 우리 귀에 백혔어, 백혔어. 어서 배운 게 아니구. 그리구 아까 말씀드렸지. 부잣집에서 그냥 자정까지 그냥 논다구. 그럼 그놈의 소리가 귀에 와서 백힌 거여 그냥, 은연중에 그냥.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 가사가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덩덩 덩더쿵, 쿵딱쿵딱쿵, 쿵딱쿵, 그냥 자동으로 여기 머리 속에 입력이 된 거여. 그래가지구 그담에는 인저 그대로 그게 악보여, 농악은. 그담에 인제 꽹과리, 내가 꽹과리를 제일 선호했는데, 길가락이라구 그래, 어른들이, 길가락. 그거 해구 나갈 때 길가락을 치구 나가요. 길가락이라구 그랬어.

그거는 리듬이 어떻게 되요?

갱거러갱, 갱거러갱, 갱거러 갱거러 갱거러갱, 갱거러갱, 갱갱거러 갱갱갱.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치는 거지. 이렇게 자동으루 입력이 된 거여. 그래 이것만 실지로 해면 돼. 그럼 어려서 이거는 자동으로 내가 갱거러갱 갱거러갱, 그게 그렇게 들리니까. 그건 핼 줄 안단말여. 입장단이라구 그러지... 구음, 유식한 말로 구음. 입장단이라구 그래. 입장단을 칠줄 알아야 이걸 치는 거여. 입장단이 악보여, 농악의 악보. 이거 못해면 못 치는 거여. 그담에 어떻게 연습했냐. 깡통, 그리구 인저 막대기 깎어서, 어렸을 적이니까, 어려서부터 쳤으니까.

그 어렸을 때라는 게 몇 살 정도요? 어른들 따라서 깡통 가지고 인제 연습을 한 거예요?

여덟아홉 살서부터 친 거여. 열 살 아래서부터. 어른들 해는 거 보구. 그래 내 깡통 가지구 입장단 이걸 속으루 해구선 이걸 그대로 친 거지. 꽹과리하고 저 채허구 저 창고 속에 들어있어. 갱거러갱 갱거러갱 갱거러 갱거러 갱거러갱 갱거러갱 갱갱거러 갱갱갱, 길가락.

그담에...

삼색가락 있는데, 덩더덩더 덩더덩 덩더덩더 쿵. 이거는 저 북. 덩더덩더 덩더덩 덩더덩더 덩더덩, 이렇게 치는 거여.

그럼 인제 나갈 때는 길가락을 치시고...

몇 가락 되지 인제...

몇 가락 정도 되요?

하하. 나야 우리 어른들이 치는 거 한 대여섯 가락백이 못쳐. 근데 딴데서도 보면은 뭐, 거 그전에 인터넷에 그전에, 지금은 인제 우떻게 해는지 다 잊어먹었어 인터넷두. 그전에 애들한테 배워가지구 했는데, 인제 그걸 안 해니까, 나이 먹구 인저, 그것두 안 해니까 다 잊어먹었어. 어떻게 들어가서 찾아보는 것까지 다 잊어먹었어. 저기 저 경상도 그거 저기 가락 있더라구. 그게 좋은데, 그것두 핼 주 았았는데, 잊어먹었어, 안 해서.

그러면 이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치고 나가고.. 또 동네에서 고사 같은 거는 안 했어요?

그런 것두 첨에 조금 흉내 냈었는데, 다 까먹었어. 그담에 아까 얘기 핸 거, 인저 정월달에, 정월 초, 다 인제 차례지내고 뭐 세배 댕기구 뭐 해고, 사나흘 후에서부터는 심심해걸랑. 뭘 좀 먹어야 될 거 아녀, 사랑방에. 옛날에 사랑방에 죄들 어른들 모이시잖어. 그러면 첨에는 방에 앉어서 꽹맥꽹맥 어른들이 치셔. 그러다가 인저 시원찮지, 좀 먹어야 할 거 아녀. 그럼 집집마다 댕기는 거여. 그게 가만 생각허니까 그게 지신놀인가, 지신밟긴가 그거.

그러면 어떻게, 다니면...?

첨에는 어른들이 저 동쪽 우물, 서쪽 우물 그랬다구. 저 공동우물 옛날에. 옛날에 그거 떠다가 먹었지.

마을에 우물이 두 개 있었어요?

우물고사를 먼저 지내, 그담에 집에 들어가서 뒤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가서 뒤란, 뒤란으로 들어가더라구. 어떤 집에, A래는 집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으로 먼저 돌어요. 돌어가지구 장꽝으로 가, 장꽝에 가서 인제 고사 지내여. 그리구 빙 돌어서 나와가지구 앞마당에서 인저 신나게 놀어. 그러면 인저 술상이 나와, 나오지. 술상이 나오면 거기서 인저 고사를 지내는 거여. 근데, 이동네 어른들은 그렇게 입담 좋은 어르신은 못봐서 못 배우구. 그런 분이 있으면은 그걸 배웠을텐데.

어르신도 했을 거 아녜요. 고사소리 같은 거?

아 잘 못해요. 그런 거 안 했어. 못 배웠어 그거는.

그러면 인제 순서를 보면,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뒤란으로 갔다가, 그담에 장독에 가서...

우물 있으면 우물고사.

아 우물부터요?

응. 우물고사. 우물 없는 집은 그냥 장독은 다 있걸랑. 거 가서 지내구. 그리고 이렇게 도는 거여.

그리고 마당으로 나와서...

마당으로 나와서 놀면은 술상 나오면 인저 거서 고사 지내구, 먹구 놀다가 또 딴 집으루 이동...

그러면 하루에 몇 집 정도 돌아요?

몰르지 몇 집이나 해는지. 하여간 그렇게 해구....

집집마다 다 돌거 아녜요?

거의 집집마다 돌지. 아주 가난한 집은 안 가. 저 집이 막걸리 한 됫박이라두 내오기 참 버거운 집이다 해면 안 가구. 거의 다 가죠.

그니까 그 집에는 부담을 주기도 하는 거네요?

몰러. 하여간 아주 가난한 집은 안 가더라구, 어른들이. 그러면 추석 때는 옛날에 거북이 놀이 두 해는 거 내가 봤구.

거북이 놀이도요?

응. 거북이 놀이.

직접 하시지는 않았어요. 거북이 놀이?

한두번은 해봤지요. 옛날에 저, 그때만 해도 젊어서지, 애덜적에. 군인 가기 전에 그 흉내 내봤지. 그리구 그 후로는 점점점점 이게 소멸돼버리더라구.

거북이 놀이는 어떻게 했어요? 맨 첨에 준비할 때, 준비물이요?

이 저기 둥그렇게 엮은 멧방석이 있어요.

멧방석이요?

응. 동그랗게 멍석처럼, 동그라.

짚으로 만든 거요?

응. 짚으로 엮은 거. 거기다가 인저 저녁 샛밥 때쯤 되면은, 추석날 저녁 샛밥 때쯤 되면은 사물놀이만 치구 어른들이 나와. 그러면, 소리가 나면 인제, 나두 많이 했지 그거. 그전에 그 옥수수대라구 저기 저 수수. 수수를 많이 심었어요. 콩 심구, 수수 심구. 그 수숫대 잎을 애들 보러 따오라구 그래. 그래 수북허게 따다가 놓면은 둥그런 멍석 같은 거, 거다가 어른들이 촘촘히 엮어 그걸. 이 만큼 길죠, 그 이파리. 그걸 죽~ 엮어. 그래가지구 그걸 왜냐면 사람이 뒤집어 쓰는 거여, 그거를. 그담에 앞에다 인제 새끼줄로다 이렇게 해서 꽁꽁묶으면 엎드리는 거여 거북이처럼. 그리구 작대기에다가 볏짚을 이만큼, 벼개나 벼개보다 쪼끔 크게 해서 그걸 인저 작대기를 꼽지 거기다가. 머리여 그게. 이렇게 그거 뒤집어 쓰구...

수수깡 엮은 거 뒤집어 쓰고...

거북이지 그게... 그 입담이 좋은 사람들이 인저 거북이 끌구 가. 딴 사람들은 인저 사물놀이 치구 인저 들어가지 그 집으루. 그러면서 “거북아 아프냐?” 그럼 “안 아프다.” 그러고, 그 말 시키기에 달린 거여. “너 왜 안 노냐? 힘이 없냐? 배가 고파서 그러냐?” 그러면 “아 그렇다.” 그러고 ‘싫다.’ 그러면 이렁이렁 흔들구. 그러면 인저 얼릉 술 상 안 내오면 자꾸 거북이 보러 인제 독촉해게 맨들지. 그 마부가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해는 거여. 거북이가 배가 고파서 쓰러졌다 그러구, 의사 뭐 불르구, 뭐 해구 인저 자꾸 우스개 소리로 그렇게 해는 거여. 그게 거북이 놀이.

그럼 그 오가는 얘기들이 참 재미있어야 되겠네요?

아 그니깐 우린 못 해고 그 해, 또 마부가 해는 사람이, 잘 해는 사람이 있어. 웃기는 사람. 유머스럽게 인제 잘 해는 사람이 그거 해지.

그리고 주로 부잣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두 주로 부잣집 위주로 댕기지. 그래고 그 추석이니까 송편하구 술하구, 그런 거 내놔.

그거는 추석날 하지는 않을 거 아네요?

추석날 밤에 해.

아 저녁에 인제 해 지면?

바쁜 시기니까 그날은 놀어요. 추석날은... 그 이튿날부터 일해야 되니까.

추석날 하루만 딱 하는 거예요?
에. 하루 저녁만 딱 해.

그 준비를 그러면 인제 애들이...
그날 해는 거여. 저녁 샛밥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때쯤 어른들이 치구 나와 꽹과리 뭐 징, 장구 치구. 그러면 애들이 인제, 그 명절이니까 때때옷 입구 다 인제 있잖어. 그러면 그거 따오라고 해. 수숫잎, 그거 따로라고 그래. 그거 수북허게 쌓아놓구 어른들이 거기다...

짚으로 엮는 거예요?
매 다는 거지. 찍어 매 다는 거지.

아 새끼 꽈가지고요?
이렇게 한 움큼씩 해서 찍어 달어. 뒤집어 쓰는 거여 그걸.

뒤집어 쓰고 그 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연령대는 어떻게 되요?
그 아주 노인네들은 아니구, 중늙은이들. 쉽게 얘기해서. 50대 보통. 지금 얘기로 허면 한 50대. 40대서부터 50대.

젊은 사람들은 안 해요? 애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그 애들은 안 해구, 그래두 한 40대, 50대... 그 사람들이 중추를 이루지.

그럼 추석날은 거북이놀이 하고, 그 농악은 거기서만 하는 거네요? 거북이 놀이 할 때만?
예.

그리고 이제 설날은...?
여러 날 놀어.

보름까지 그렇게 계속 지신밟기 하는 거예요?
예... 윷놀이두 해구. 척사대회라고 그래가지구, 척사대회두 해구. 매년 해는 게 아니라 또 그것두 서둘러서 해는 사람들이 있어.

아이들은 뭐 하고 놀아요?
아이들은 별로 해는 거 없었지.

추석에는...
응. 추석에두... 어른들이 다 해는 거지.

거북이 놀이 하면 이렇게 구경 다니고 그랬겠네요?

구뎡 대니면서 얻어먹지. 송편 이런 거 얻어먹지. 어른들이 그 집집마다 댕기면서 다 먹어요? 못 먹지. 그러니까 애들, 애들 차지지 인저.

그럼 거북이 놀이하고 이럴 때 동네 사람 거의 다 따라다니겠네요?

많이 따라댕겼어요.

그때는 이 동네 몇 가구 정도나 살았었어요?

그때 한 50가구 되나?... 50집... 나 다 잊어먹었어. 몇 채 되는 거 내가 전부 알구 차트까지, 그때는 글씨두 좀, 차트사는 아니었는데 그래두 곧잘 했었어. 그것까지 쁘리삥, 저 도지사 오구 했을 때 내가. 72년도 초대 새마을지도자, 어들들이 해라고, 그때 32살 적이여. 어른들이 자네가 해라 그래서 내가 해봤는데,

72년도에...

초대 새마을지도자. 여기 고속도로변, 국도변서 마을만 1차로다가 새마을사업 시작핸 거여. 교육을, 수원 가서 교육을 시켜. 그땐 연수원이 없었어요. 가보니까, 그니까 국도변 마을하고, 여 국도변 마을 사람들. 1차로다가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72년도였어요?

72년도. 겨울에. 저기 수원 가니까 그 도청 그 옆에 시민회관이라고 강당이 있더라구. 거기서 교육을 받구, 밤에는 수원 시내에 여관 있어. 우리 진위면 사람들은 거기 여관 정해줘서 그 여관에서 자구 아침이면 그리 또 출근, 출퇴근 허는 거여 시민회관으루. 교육 받으러, 새마을지도자 교육.

주로 교육내용은 뭐였어요?

그때는 처음인데 기초 사업해라고 그러더라구. 저 새마을사업 기초 사업, 저 농로 5m로 확장, 울타리 개량, 지붕 개량 뭐 변소 개량, 뭐 뭐 이런 거. 지금 생각해면 그건 거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아 농로가 5m였어요?

어. 그때 5m로 해라고 그래. 그래가지구 한국스레트인가 그리구 그건 비쌌구, 금강스레트가 좀 저렴했나봐. 그때는 그 도 직원까지 와서 상주했으니까.

면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아 면 뭐 이 군청은, 그때 군청이니까 당연지사고, 뭐 한두 사람만 나오는 게 안녀. 면사무소 들어가도 없어 자리에. 다 나갔지. 저 군청 직원들도 두명, 세명 그냥 노상 오구. 도에서 하여간 상주해다시피 계속 와 있었으니까는...

그때가 72년도예요?

72년도. 내가 초대 새마을지도자였지. 그래가지구 어른들이 해라고 해서 했는데, 전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 아유 못 해겠드라고, 거기서 교육 받는 거는 못해, 내가 부자구 돈이 있으면은 베풀면 되는데, 아 돈두 없는 사람이 뭐, 젊은 사람이 뭐. 이 마을을 봉사 정신으로 이끌어 나가는 건데, 근면, 자조, 협동인데, 새마을 정신이. 그걸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애들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 힘들지. 그래 어른들이 시켰으니깨 어른들, 시킨 어른들한테 가서 의논을 해는 수밖에 없지. 어느 어른이, 터줏 대감이지, 인제 다들 돌아가셨어. 자네가 해야된다구, 자네가 해야된다구. 그 어른한테 주로 가서 의논을 핸 거여. 도움을 청핸 거지. '이거 이러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해는 식으루. 그렇게 해서...

그럼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지금 제일 힘들었던 게 지붕개량.

지붕개량하고 길 넓히기...

길도 넓히긴 넓히는데, 그 참 어려워요. 땅을 내놔야 되는데, 이걸 사는 게 아니구. 내 '희사' 래는 소리 그때 처음 들었어. 희사를 받으래는 소리 아녀. 거저 달라래는 얘기지.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붕개량을 먼저 하셨어요? 길을 먼저 하셨어요?

길 먼저 했지, 길 먼저 해면서, 그 봄에 그냥 일덜두 못해구 그냥 계속 그런 거 했어요. 계속 매일 그냥 부역했어, 맨날 부역.

72년도에 새마을교육 받았으면, 73년도부터 시작했겠네요?

아이 그 해서부터 다 핸 거여... 아 교육 받고 와서 그냥 즉박 핸 거여. 운제 뭐 며칠 받었다구 있다가 내년에 해. 그때 바로 핸 거지.

72년 몇 월달 정도에 가셨어요?

그때가... 한겨울인데... 1월달인가 언제 그렇게 됐을 거야.

봄에요?

1주일 교육받고 와서 바로.

그래서 인제 길 넓히기하고 지붕개량을 같이 하신 거예요?

어. 지붕개량 핼 때는, 그때 알었는데, 집이 한칸, 두칸, 세칸, 촌집 그렇게 돼 있잖어. 한칸 그때 7장이 들어가던가 몇 장이 들어가.

슬레이트가요?

그거 새마을지도자가 이장님하고만 그냥 의논해구, 뭐 군청 직원, 면 직원, 도청 직원까지 다 있으니까. 이걸 가서 해라고 그러면 안 해요. 돈이 들어가니까. 뭐 안 핸다구 다들... 안핸다구

그러지. 그래 그걸 파악을 했잖아요. 안 헌다. 나쁜놈이 돼야 돼, 그때는.

강요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가지구 이집은, 동네 고향이니까 저 집은 몇 칸 집인지 눈에 선하니까. 열칸 집이여, 일곱칸 집이여. 그럼 스레트가 한 칸에 몇 장 들어가니까 마당에 갖다 쌓아놓는 거여, 덮어놓고 해라구.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 돈은 누가 줘요? 스레트 값은?

나중에 갚는 거여. 우선은 해구. 그니까 한 집 해니까. 어 해놓으니까 좋걸랑. 하하하. 죄 알어서, 알어서 다 알어서.

그럼 슬레트는...

그 나중에 갚는 거여. 그때두 3년 거치 뭐 그 있었지. 한꺼번에 그냥 몽땅 값는 거. 박정희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여. 3년 거치 그 몇 년, 5년 상환인가 뭐 그런식으루 갚았어.

그럼 그 일은 인제 동네 사람이 같이 가서 해주는 거예요?

아이. 저 사서 해야지, 기술자.

그 일당이 얼마 정도나 됐어요? 그 사람들은?

몰르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 그때는 아마 그 사람들 한 쌀 두말 값 받었나 모르겄네 그때.

아 하루 일해서요?

응. 쌌지요 인건비도. 지금은 뭐 한 30만원 그렇게 달래지만. 쌀 한 가마 넘겨 달래지만, 그때는 한 말, 두 말 정도면 사서 썼어.

그때는 새마을지도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거는, 안 할려고 그래가지고 힘들었던 거네요?

안 해지요. 아이 돈 없어 죽겄는데, 보릿고개 시절인데. 장례쌀 먹고 그러던 시절이여 그때가. 뭐 일해구 싶어두 일 헬 데가 없어, 공사판두. 그때가 그런 저기유. 그런 시절에. 박정희가 대단하 사람이지.

길은 그때 같이 넓혔는데, 그럼 길이 그때...

5m로 못 넓혔어.

지금 마을 길이 굉장히 넓던데요?

그때 좀 넓혀 놓은 거여.

그때 넓혀 놓은 게 지금 마을 길이 된 거예요?

응. 근데 도로 저 찾어 들거가고, 아유 골치 아퍼요. 그때 어른들이 그렇게 해놨으면 가만 놔

둬야 되는데, 지땅이라구 또 깎어들이구. 에이 그런 사람들, 또 여러 가지잖아유.

아 그 새마을사업 때 넓혀놓은 거를...
아 도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

이장은 언제 보셨어요?
72년도 동네분이 있었는데, 부자여. 부잔데 동네 돈 바닥이 나니까 안 해는 거여. 그러니까 어른들이 또 나보고 해래 그걸.

그러면 새마을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장 하신 거예요?
그러지. 어른들이 해라고 그래서.

몇 년 하셨어요. 이장?
아유 1년 해고. 그 2년 봤다고 그랬잖아. 그거 1년, 그거 1년.

그럼 길은, 길 포장은 그때 했어요? 새마을사업 할 때?
그때 못했죠. 그 해 못했지. 후에 핸 거요. 몇 해 후에... 우리나라 가난 해서 안 됐대니까.

여기 새마을사업 할 때 시멘트만 나라에서 나왔지요?
포장 그 몇 해 후에 했지. 아이 그 저 그 얘기 핼라고 그러는 거여, 지금. 봄에 이재창 군수님이었어 그때. 그 전에 윤석범 군수님이었는데, 우떻게 돼서 사임해구, 그때 뭐 32살인가 33살 행정고시 패스했다구 이재창이라구 내가 기억을 해는데, 젊은 사람이여. 그 양반이 군순데, 한 봄에, 이장 볼 적엔데, 봄에 16번을 오더라구. 나, 어떤 땐 나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와... 16번을 여기 왔더라구.

식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그 뭐 어떻게 혀. 내가 일일이 매일같이 어떻게 대접을 혀. 가난핸 사람이.

보통 집에서 이렇게 해서 주지 않나요?
그렇게 대접해면 좋은데, 그걸 못해니까, 미안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 부자 사람은 아예 모든 걸 포기해고서 이장 내놓은 거 아녀. 부자인데도 내놓은 거 아녀.

아 마을 기금이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거 애로가 많더라구. 그래서 1년 봤어요. 1년 보구선 어른들 보고 그랬지. 저 못허겄다구.

홍원제지는 몇 년 다니셨어요?
근 한 20년 가깝게 댕겼죠.

처음에 들어갈 때가 그러면 어르신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서른 네 살 적인가. 서른 둘 지도자, 서른 셋 이장, 서른 네 살.

들어가서 무슨 일 하셨어요?
일로 치면 서무과에 근무...

그때 처음에 총무과에 다니실 때는, 그때 홍원제지가 직원이 몇 명 정도나 됐어요?
그때 한 400여 명, 한 500명 가깝게 됐어요.

홍원제지 처음 들어가셨을 때 월급은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첫 월급?
그때 아마... 쌀
(할머니) 2만원인가 얼마였어.
쌀로다가 한 두 가마 미만. 저기 저 면서기들도 그것밖이 안 됐어.

그러까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9급 공무원 정도를 받으셨네요?
응. 그담에 인제 따 놓기 시작했지. 사기업체가 공무원보다 더 받지. 그래서 그 나 이장 볼 때 그 담당 면직원이 있어, 안치환이라구 저 서정리 사람.... 공무원, 그 성남고등학교 출신이라고 그랬었는데. 공무원 때려치고 여기 여 영진약품 취직해. 그 사람은 그래두 똑똑해가지구 부장까지 해먹었어. 재작년이여? 그 정을 못 잊구 날 오라구, 집사람하구 오라고 해갖고 점심 대접해구, 그 잘 살더라구.

그러면, 그 정도 받으면 농사지으면 몇 마지기 정도 지은 거 택이나 되나요? 수입으로 따지 면?
그 뭐 두 가마라고 치면은 쌀로 그냥, 돈으로는 생각 안 하구 쌀로는 대략 두 가만데, 초봉이 그런 거지.

그때 1년에 인제 24가마 정도, 연봉이...?
24가마.

여기 150평이 한 마지기인가요?
예.

그럼 한 마지기에 쌀 한 두 가마 정도 났나요?
비용 다 빼면은 열 가마나 될라나. 직접 농사지었으니까...

아니 쌀로요...
쌀로. 아니 다 빼고. 우리 첨에 농사 질 때는 양석. 한 마지기 두 가마.

쌀 두 가마요?

그래 나중에 인제 보니까는 인제 아끼바레라고 나오더라구, 나 이장 볼 적에. 아끼바레 그, 그게 일본 종자거든. 지금 추청 벼가 그 원조여. 그걸 첨에 이 동네서 내가 먼저 심었더니, 쌀 그대 19가만가 20가마가 나오더라구.

몇 마지기에서요?

8마지기에서. 고것두 사실대로 얘기허니까, "임마 거짓말 허지마" 윗 사람들이. 19가마, 20가마가 새끼야 어디서 나오느냐구... 거짓말이래여,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양석 빼먹기 힘들었던 시절이여.

그러면 3배출도 안 되네요? 그때도.

첨엔 그랬죠. 나중에 인제 종자 개량이 많이 되구.

양석도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였어요?

첨에는 잘 나왔지유. 인제 종자 개량이 된 후로...

그니까 아끼바리 나오기 전에 그 양석 정도면 굉장히 농사를 잘 지은 거나요?

그렇지. 그것두 잘 지은 거지. 그러다 고 몇 해 있다가 인제 3배출. 삼 팔에 이십 사, 스물 네 가마. 거기서 뭐 빼고, 뭐 빼고 허면 한 10가마 남으면 잘 남는 거여.

그러면 홍원제지 다니면 논 농사 10마지기 짓는 거랑 수입이 비슷했겠네요?

그렇게는 됐겄죠.

그러면 할머니께서 농사지으시고, 어르신은 회사다니시고?

그럼. 그 인제 부자는 아니어두, 얘들 대학교 가르칠 능력은 된 거여 인저. 쪼끔은.

시설농도 하셨겠어요? 나중에...

이거 여기다 그러게 오이 해고, 저 도마도 해구.

(할머니) 여태 도마도 작년꺼지 작년까지 했어요.

인제 몸 아프구, 힘들구, 나이 먹으니깨 못 허겄드라구. 그래서 인터넷 뒤적뒤적 해니까 이게 제일 쉬워. 일이 제일 작어.

사과대추요?

어. 대추가 제일 작은데, 이게 또 사과대추여. 그 뭣 모르고 했는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러. 일은 없는데 까다로워 이게.

어떤 점이 까다로워요?

병두 심해구, 잘 쏟어. 그래 여기저기 싸이트 들어가서 쪼금쪼금 나온 거 읽어보면은 잘 못 허면 몽땅 쏟는대. 한 나무에 댓 알 따기가 힘들대, 다섯 알. 이게 쏟어지면, 잘 못 되면.

이거는 굳이 하우스 안이 아니라 그냥 노지에다가 해도 되죠?

노지에다 해면 더 안 되지. 재수없으면, 태풍 한 번 지나가면은 그냥 왕창 다 쏟어지지. 하우스에다 허면은 인저 비 오면 닫구, 바람 불면 닫구, 그렇게 해래.

여기 야막리에 하우스농 처음 하시는 분이...?

김형주씨, 박대현씨, 그 사람들 부자 됐지.

그분들이 그럼, 대정촌하고 여기하고 어디가 먼저 했어요?

대정촌 쪽이, 그런 데가 먼저 했지요... 그쪽에가 먼저 했지. 그쪽이 먼저 핸 걸로 난 기억해고 있어.

그러면 그분들은 대정촌에서 배워서 하신 건가요?

모르지. 어디서 배웠는지.

김형...?

김형주, 지금은 여기는 아들, 딸 주구, 지금 저기 저 마무리 쪽인가 거기 가서. 만 평 하우스 농사져.

그분은 그럼 하우스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성공핸 거여.

그 전에는 그렇게...

가난했지. 그러니깨 쉽게 얘기해서 헝그리 정신으로 핸 거지. 지금은 대단히 부자가 된 거지.

그분하고, 김형주씨하고 또 한 분은?

박대현씨.

그분도 살아계세요?

그럼. 여기 맨날 오는데, 오늘은 안 오네. 골프치러 갔나봐. 그 담에 저기 저 남서울 농장 김형섭씨. 김형주씨 동생이여. 저 사람도 돈 많이 벌었어. 그리고 돈 벌은 사람 없나봐. 성공핸 사람 별루.

김형주씨, 박대현씨. 이분 중에 어느 분이 먼저 했다고는...?

저 김형주씨... 그 다음 뒤따라서 박대현씨.

그럼 이분들은 초창기에 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선구자야 아주. 배가 고팠으니깐 농사 지은게 맞어 떨어진 거여. 이 사회 구조상 맞어 떨어졌어. 노력도 엄청 했지만은 그 맞어들어간 거여. 지금은 안 되어.

초창기에는 주로 뭐 했었어요?

그전에 저 불함 대형 봄무라고... 그걸로 시작했다가...

단무지 담는 그 무우인가요?

그런 종류죠. 그게 그 당시에는, 옛날이지 그게 몇 년도라고 그래야 되나. 그때가 60년도 말, 70년도 초 그때. 그때쯤 될 거여. 그거 한 차 뽑어가지고 가면은 뭐 돈이 거짓말 보태서 돈 한 차 싣고 내려온다고 그랬어. 그리구 그때는 일꾼이 풍부했어. 이동네 아줌마들, 저 물건너 동네 뭐 사리, 아 사리는 아니구 두곡리, 탑리 그 아줌마들,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두 일 핼라구, 배고펐으니까, 많었어요. 저임금 받어가지구 전부 일을 해주구. 일꾼들이 돈 벌어 주는 거여. 주인네가 투자는 해구.

그때는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됐을까요?

(할머니) 200원, 300뭔 했어요.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때요?

(할머니) 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시간이 아녀, 그냥 아침에 가면 어두어야 오는 거지.

날 새면 가서...

시간 관념두 없었지.

(할머니) 예. 어두우면 오는 거지.

하루에 막 12시간도 하고 그랬겠네요?

(할머니) 그렇죠.

그때 아유 그 시절에, 배고펐던 시절이래니까.

여기 몇 평이나 돼요?

여 하우스 면적만, 저기까지 800평이여.

이 하우스 시설은 몇 년에 하셨어요?

이것이... 그때가 내가 허리 아프구 다리 아픈 걸 대비해서 면허증은 안 따다가 그때 딴 건데... 연습해고 있는데, 작목반장이 전화왔더라구, 면허 따가지구 이제 막 연습해. 그때가 내가 68살이여. 한 번에 땄어, 68살에.

그럼 68세에...

그때 지은 거여. 그때 지으라고 참 왔어....

(할머니) 한 14~5년 됐네. 90 몇 년도여 그때가.

요 정도 시설하는 데, 그때 얼마 주셨어요?

그때 이거 보조받은 거여. 그때 이거 한 평당 10만원꼴 들어간 거여. 이렇게 하우스만 있는 거. 근데 그때는 온풍기 사고 뭐 사고 그런것까지 계산허면 한 15만원.

그 당시에요?

응. 요게 저 양액 재배, 저 염류 집적 있어가지구. 염류 집적 있으면 안 돼요. 작물이.., 그래서 양액재배를 한 거여. 양액 재배두 저 부자들, 박사들도 겁을 내는 걸 내가 제일 스타트로 핸 거여. 퍼스트로 이거 핸 거 아녀.

아 수경재배를 그 당시에...

아 그럼요. 첨에. 이 동네에서. 경력두 없는 놈이. 저기 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물검사 아니면 이런 것두 안 해주던 시절이여. 아 그래두 내가 핸 거 아녀.

그럼 염류 집적은 토질이 안 좋아서 그러나요?

아니 땅이 안 좋아진 거지. 거름이 세니까 너무. 독해, 거름이. 그래 이런 거 심으면 뿌리가 잘 못 내려요. 독해서.

그동안 거름은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물 빠짐이 좋으면은 쑥쑥 빠져나가는데, 여긴 물 빠짐이 좋지를 않죠. 그 하천 부지 땅 같은 데. 그 모래가 그냥 저기 저 야막리로 저쪽에 보면 그전에 하천 부지라고 그래, 거기를 보구. 거 보면 땅 한 길, 두 길씩 모래가 있어. 그리구 위에는 이만큼, 한 50cm나 얼만큼 보명재로다 덮혔어요. 그런 데 이런 나무 심고 그러면, 오이 심은 사람들 그냥 쏟어져, 쏟어져 오이가. 거 눈 감고 막 비료 주고 그래두 너무 물 많이 줘두 쓱 빠져 나가니까. 그 맨날 새 땅이죠.

지금은 요거 시설하면 평당 얼마 정도 들어요? 현재는?

모르지. 지금 저 많이 올렀다고 그러대요. 아 20만원은 잡어야 될 거 같애.

임성남(남, 1969년생, 야막리)

일시	2021년 8월 28일	
장소	들막농원 사무실	
구술자	임성남씨는 야막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고 군 제대 후 지금까지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1986년부터 비닐하우스 재배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시설채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야막리 이장을 맡고 있다.	
면담자	장연환	

초등학교는 어디로 다녀요?

갈곶초등학교라고, 옛번에는 갈곶리 뭐 고현리 다 오산으로 편입한 우리 동창들이 있었는데, 행정구역이 나뉘면서 또 반이 나눠서 저희 동네는 인제 평택으로 남어있고 3분 2는 다 오산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20분... 어리니까 천천히 걸어가니깨.

가면서 뭐 장난치는 거 없었나요? 보통 초등학교 때는 한 번에 죽 가지 않잖아요?

여기가 지금은 포장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 인제 그때 경지 정리 해고나서 그 창갈 하천 옆으로 길이 있었는데, 옛날에 뭐 다니면서 끈 묶어놓고, 넘어지고, 구뎅이 파고... 오전, 오후가 있어갖고 오후 때는 점심 때 여기서 수영을 해구 학교를 가는 식으루.

하교길에는 노는 거 없었어요? 일찍 끝나고 오면 또 수영하고 오고 그러겠네요?

저 영진약품에 고물 같은 게 있었어요... 고물들이 있어갖고 그걸 주워다가 뭐 엿장수한테 팔어먹든가... 훔쳐가는 거죠 뭐, 도둑질이지 솔직히....

어디 가서 팔어요?

지나가는 리어카, 고물상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인제 해면은 뭐 엿이나 조금 주구...

주로 남학생들이 하죠.

그렇죠. 남학생들이.

여기서 등굣길이...?

인제 고가도로가 없었으니까, 동네에서 철도길을 넘어가요. 예전엔 딸랑딸랑 해는 그, 그게 있

었으니까.

동네에서 노는 거는 뭐 있었어요. 아이들, 어리면 일도 안 시키잖아요?

놀면 뭐... 글쎄요... 그때는 뭐 하고 놀았냐... 뭐 자치기도 해구, 권총 가지고 권총싸움 해기도 해구, 돌맹이 넣어서 총 쏘잖아요. 맞추느라고.... 돌 넣으면 나가잖아요. 또 그것두 있구, 동네에도 수영해는 데가 있었어요.

어디요?

동네 중간에... 빨래터 자리인데, 빨래터 자리 거기 낙수가 떨어져갖고 좀 깊은데, 거기서...

빨래터 자리가 뭐 수영 할 만큼 되나요?

아 위에는 빨래터 하느라고 좁게 했는데, 밑에는 거기 한 7~8m 됐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 오산중학교로 갔나요?

예. 요기서는 거의 한 90프로는 오산으로 가구, 10프로나 한 5프로 정도는 진위 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진위가 더 가깝잖아요?

거리는 비슷해요.

얼마나 걸려요. 오산 중학교까지?

버스 타고 10분, 내려서 걸어서 20분. 넉넉 잡아 한 40분 잡는 거죠.

그리고 인제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러시지는 않았어요?

여긴 거의 자전거 안 탔어요.

그럼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다 오산으로 다녔어요?

예. 같이 오산고등학교로... 인제 거기서부터 뿔뿔이 흩어지니까. 거기 가든지, 인제 수원쪽으로 많이들 가구.

수원으로 가면, 두 가지가 되잖아요. 남들보다 공부 잘 할 경우에...

수원으로 가면 공부 다 잘한 사람만 갔지요. 거기를 안 좋은데 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수원까지 통학이 돼요?

당연히 뭐 버스가 가니까. 그래구 공부를 더 잘해면은 자취 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수원, 수성, 유신 세 군데가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뭐, 기계 이런데는 요기선 잘 안 다녔어. 그런데는 인제 평, 평택으로나 가구... 뭐 전교 몇 등 안에 들어야 가니까....

그러면 수원으로 가는 학생들은 거기서 공부하고, 자취하고...

아니 그 중에서도 서울대 갈 사람들은 그렇게 했구, 어중간 해면은 여시거 그냥 버스타고 다녀두, 다니긴 다 다녔어요.

부모님께서 농토가 많으셨나요?

지금보다 작지... 여자분 혼자서 많이 할 수가 있나...

그때 농지 넓이가 얼마나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농사지으실 때...

응.... 2,300평?

2,300평이 논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논은 700평이었고, 나머지 저기가 1,600평이 인제 하우스였지.

그때 하우스에 뭐 기르셨어요?

오이하고 호박이죠.

하우스는 그럼 언제 들어온 거예요?

동네 전체로요?.... 그때가... 제가 어렸을 때 가서 포트를 담고 그랬으니까, 70년대 중반인가, 후반인 거 같은데....

어렸을 때는 기억이 좀 더 선명하잖아요. 이 동네에서 처음 하우스 할 때 혹시 보신 장면이나 이런 거 기억 나시나요?... 그러니까 최초....

그때는 뭐 대나무로 이렇게 묶는 거... 그리고 비니루를, 우리가 용돈벌이를 비니루를, 왜 흙 담는 거. 상토를 만들려면 포트가 없으니까 비닐을 지져놓은 것에다 흙을 담는 거, 한 봉다리에 1원인가 50전인가 했어요.

그럼 일반 흙을 담나요?

거기에 인제 그 사람들이 퇴비랑 이렇게 섞은.... 뭐라고 그래야 돼, 모조흙이라 그래는데, 그냥 흙 가지고 허면 영양분이 없으니까 배합을 해지요.

혹시 기억 안나세요? 한 개당 얼마씩 했는지?

내가 다닐 때는 50전이었고요.

봉지가 얼마나 해요?

이거보다는 크고 이만한 것 같은데....

높이가 한 15센티 정도 되고 지름이 한... 8~9센티 정도요?

지름?... 7센티 정도 되겠다 지름이. 높이가 한 10이나 12센티 되겠다...

50전 받았을 때가 이장님이 몇 살 정도 됐을 때예요?

글쎄요... 7~8살 됐던 거 같은데....

그때 그러면 50전 받고, 7~8살 됐을 때 이 동네에 한 분이 하셨나요? 아니면 여러 분이 하셨나요?

그때 한 두어 집 했을 거요... 내가 다닐 때는 두 집인가 세 집 정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인제 2원 정도 했을 때는 언제쯤 됐나요?

그때 초등학교 한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될 거예요.

그럼 요 시기에는 비닐하우스에 호박하고 오이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우를 핸 거 아닌가... 무, 배추 해다가... 저희집이 무, 배추 해다가 나중에 오이 호박으로 바꾼 거 같애요.

무, 배추를 했으면, 이거는 노지에서도 잘 자라는 거니까, 시기를 좀 앞당긴다든가 좀 뒤로 한다든가...

아 여기는 다쿠앙 무라고, 긴 무를 했어요.

단무지 만드는 무하고 배추하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오이하고 호박으로 넘어온 것은 언제쯤 될까요?

가만있어봐.... 80년대 초 정도 되는 거 같애요.... 80년대 말인가, 햇갈린다 그거는.... 다 그렇게 핸 게 아니라 빨리 올라온 집이 있었어요.

처음 여기서 하우스를 시작하신 분은 혹시 동네분들 사이에서 이름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나 요?

여기서 핸 사람이 김형주씨라고 있어요. 거기나 아니면 저 최기복... 그 분은 돌아가셨는데....

어떤 분은 하우스 시작이, 진위면에서 시작인 대정촌, 하북2리라는 얘기도 있고, 야막리라는 얘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가 먼저예요?

글쎄요.... 그게... 그쪽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하우스 해면서 방향이 우리쪽하고는 좀 틀렸던게, 우리는 과채류 위주로 많이 하구... 빨리 과채류로 전환했구...

과채류라고 하시면...?

열매채소요... 그쪽은 엽채류 쪽을 주로 했는데,... 대정촌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때... 크게들 안 했고, 규모화 되기 시작핸 거는 여기서 규모화가 됐죠.

지금 야막리가 전체 몇 가구 정도 돼요?

한 105 가구?....

많네요.

이게 저, 저기가 많어서 그래요. 정식적인 집이 아닌 데가 굉장히 많아요.... 살림은 여기서 다 해고 사는데, 이게 인제 진흥지역이 되니까 집을 못 지어요. 이런 거는 관리사라고 그래고, 이걸 좀 낫게 해갖고 여기서 주거해면서 밥도 해먹구 아예 생활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이고, 주가 되면 집이잖아요.

그러면 이장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는 몇 가구 살았어요?

50가구?... 그때는 외곽 지역에 집이 별로 없었죠... 정식적인 집들이 대부분이었지. 이렇게 관리사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지요.

여기 마을 몇 년이나 됐다 이런 얘기는, 전해 내려오는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그건 예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150년 전엔가 언제쯤에 그 천도교도들이 여기 들어와서.... 그때는 움막을 짓고 살았대, 움막. 그때는 경지정리가 안 되고 여기 하천이었거든요.

그러면 천도교도 중에서도 어느 성씨가 먼저 들어왔다. 이런 거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직까지 여기 제일 오래된 집으로 따질 때, 박씨네를 따져요.

박씨네가 가장 오래됐다라고...?

예. 집안들이, 식구들도 제일 많었구.

아까 150년 전에 천도교도들이 들어오면서 움막 짓고 살면서 마을이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장님이 어렸을 때부터 들으셨던 말씀인가요?

제일 오래된 분이 돌아가실 때 인제 마지막 얘기를 인제 그 집에서 인제 많이 놀다보니까 인제 그런 얘기두 많이 해셨구.... 그분 기록도 있구, 위에 대 분들 이렇게 해 온게, 그때 인제, 어떤 사람은 말 조심해더라구, 왜냐면 그게 또 그렇게 좋아해는 사람두 있지만, 옛날 우리가 일제 시대하고 6·25 겪으면서 그분들한테 못핼 짓을 많이 했나봐요. 그분들이 인제 개혁 세력이잖아요.

아 천도교도들이 많고, 천도교도들 중심으로 3·1 운동 가담자들이 많으니까 일제 시대에 인제 탄압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예. 그 후로도 인제 일대시대 끝나면서 잔뿌리들은... 6·25 겪으면서 또... 똘똘한 분들이 많이 남어야 되는데 다 숙청당해거나 뭐 이런, 자식들한테 그런 걸 못 해게 이렇게 카트카트... 왜냐면 이 앞쪽에 사리래는 동네도 있잖아요. 거기 한 400명, 500명 되잖아요? 거기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게 보이지 않게 뿌리가 있어갖고 남 앞에서도 이렇게 잘난척 이런 거 못해게, 다 거 그게 있더라구....

아 옛날 어른들이 '어디가서 입바른 소리 하지 말어라.' 이런 소리 하시고?

예.

여기 천도교 교당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혹시 자리 알고 계세요?

아휴... 몰라요. 그런 거 핼라면은 아마 그래두... 지금은 그분들 세대들이 인제 90 먹은 노인네들은 저기구... 지금 저희동네서 제일 나이 많은 분이 구십 한 일곱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인제 북에서 넘어와갖고 인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은 인제 20년이래는 세월을 몰르는 세월이 있잖아요. 차라리 저기 인제 80 노인네들, 그래서 그 박종구씨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인제 중간이 어중간하게 인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마을 분들한테 옛날 천도교당이 어디 있다라는 거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거네요? 잊혀진 거네요?

그러게 저희두 그래서 저희가 마을 환경 사업을 신청해서 했는데,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마을을 이렇게 역사 찾기나 뭐 계속해서 동네 전체 모여서 이렇게 자리도 마련해고, 우물 지금 없는데도 찾어내고 했는데, 천도교 교당이 있었다고... 그 얘기는 잘 못 들었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했었는데, 교당은 만약에 있었어두 경지정리 해면서 다 없어졌겠죠.

아까 거주민이 105가구 정도 된다고 그려셨잖아요?

예. 세대로요.

이중에 옛날부터 살아온 토박이는 몇 가구나 되나요?

굉장히 많이 줄어갖고, 지금은... 한 40가구 정도나 될까... 아무래도 여기 뿌리좀 내린 분들 해면....

비닐하우스 안 하고 수도작 하신 분들은 몇 가구나 돼요?

수도작만 하는 집은 한 두어 집 있나... 왜냐면은 수도작은 조금씩은 해구 있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어짜피 천 평이고 이천 평이고 해잖아요. 그런 집까지 하면 한 10점 정도.

여기서 채소는, 현재 주로 나오는 건 뭐예요?

계절마다 틀린데, 인제 뭐 오이, 토마토....

계절별로 하면, 봄에는?

오이하고 토마토.

여름에는요?

여름에는 토마토, 토마토, 오이구나. 그리고 기타 엽채류들이 좀 나오고요. 셀러리다 뭐다 뭐.... 엽채류 종류는 너무 많으니까.

엽채류는 셀러리, 얼갈이 이런 거요?

얼갈이 이쪽은 안 해요... 그 양채류라고 그래요 그런 건. 왜냐면 우리가 엽채류래는 건 옛날부터 해오는 저기고, 양채류는 인제 외국에서 들어온 종류 해서, 양배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런 것들을 양채류라고 그래요.

아 양채류는 안 해요. 여기는?
그런 거 핸대니까, 샐러리 이런 거 다 양채류예요.

그러면 이장님은 어떤 거 하세요?
저는 과채류.

그럼 (농사)짓는 과정을 한번 여쭤볼게요. 오이를 먼저 심나요? 토마토를 먼저 심나요?
아니 밭이 틀려갖고 각자 재배가 틀려요. 시기가 다... 밭이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세 군데 해는데, 인제 두 군데가 주로 해는데....

이걸 다르게 한다는 거는, 출하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르게 하는 건가요?
아니 그것두 있을 수 있구... 작물의 그 심는 시기가 우리 수확을 위해서도 그렇구, 단가 뭐 이렇게 시장 흐름 이런 걸 따져서 심는 거예요. 뭐 그냥 내가 심고싶다고 심어서 뭐 소비자가 원해지 않으시거나 해면 안 되잖아요. 다 이거는 각자 다 틀려요.

이 모종들은 여기서 씨앗을 뿌려서 모종을 만드나요?
아니요. 예전에는 직접 했었는데, 요즘에는 육묘장에 가갖고 맽겨요.

육묘장이 어디 있어요?
전국에 다 있어요.

평택에서는 포승에 있나요?
포승하고 요 평택육묘장 두 군데 있구...

평택육묘장은 어디예요?
요기.... 거기가 신리로 들어가나?.... 신리 그쪽 앞에...

이렇게 육묘장을 이용하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그게... 언제까지더라... 2000년대... 그렇지... 1990년대 말이던지, 2000년대 초? 조금씩 그렇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초부터 쪼끔쪼끔 바뀌기 시작해더니 지금은 인제 아예 다 맽기면서 됐죠.

그럼 인제 가격이라는 게 다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오이 모종 하나에는 대체로 얼마 정도 해요?
올해 540원이었나?...

토마토는요?
요번에 오는 건 850원이더라고요.

오이하고 토마토는 올해 심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우스 하나에 오이가 몇 포기 들어가요? 한 동이 150평이죠?
아니요. 그것도 다 틀려요... 그렇게 해면은 안 맞어요... 어느 집 같은 경우는 200평이구, 어느 집은 150평, 100평 뭐, 동으로 따지면 안되구... 사이즈대로...

근데, 저쪽 대정촌 갔더니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
그기 그냥 단동 150평이라고 그래는데, 실제 150평도 안 나와요.

그럼 이장님은 몇 평이예요? 하우스 한 동이...?
저희 같은 경우는 200평이요.

그럼 여기에 몇 포기 정도 심어요?
오이, 토마토 다 틀려요.

오이가 몇 포기요?
오이는 한 1,500 포기.

토마토는?
2,000 포기

그럼 오이 1,500 포기 심으면, 여기서 평년작이다 그랬을 때는 몇 박스 정도 출하를 하나요?
박스도 인제 요즘에는 100개냐, 50개냐 다 틀리기 때문에, 박스로 해지 말고 50개 들이면 50개 들이....

예. 50개 들이요...?
50개 들이 허면 1,000개?

1,000 박스요?
예. 좋고, 안 좋고 다 합쳐서...

100개 들이 500박스 만드는 거네요?
예. 예전에 100개를 쓰다가 인제 소포장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그게 바뀌어요. 몇 년 주기로 소비자가 원하는 타입으로.

그러면 소득은 어느 정도 돼요? 그니까 종 매출...?
그것두 매출이라고 해야 다 틀려갖고.... 한 7천?... 아 저기에서...

200평 한 동에서요?
1,500 정도 되겠다...

오이를 심어서 수확을 하려면 식재하고, 정식이라고 그러나요, 정식을 해서 수확하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수확 시작하는 거...?
40일에서 45일.

수확을 시작해서 끝물까지, 거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120일.

120일 정도는 수확을 하는 거예요?
예.

토마토는 2천 포기 심으면, 이건 kg으로 달잖아요. 주로 방울토마토죠?
대추 방울.

이거는 4kg 단위로 나가나요? 포장, 박스가...?
3kg

3kg짜리 몇 박스 정도 나와요?
글쎄, 올 걸로 따지면은... 한 1,700 박스.

그러면 이거는 정식 후에 첫 수확인 언젠가요? 며칠 정도 걸리나요?
80일.

그리고 수확 기간은요?
90일...

겨울에도 오이가 수확이 되잖아요. 여기도 겨울에 오이를 하나요?
해는 집두 있고, 안 해는 집두 있구. 근데 점점 안 해는 추세로 가요. 그래서 인제 1월달까지 수확해다 말구...

아 보통 1월달...?
대부분 12월달 끝내는데, 좀 더 해는 사람은 1월달까지 해구. 토마토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2월 초고, 좀 더 해는 사람은 3월 중순까지두 따구 그래요... 늦게 심는 거지.

아무래도 겨울에가 단가가 좋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봄부터 가을까지는 온도가 좀 있으니까 연료비도 좀 덜 들어가고, 겨울에는 연료비가 들어가지만 수확이 적어서 단가가 좀 높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균은 그럴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요맘 때(8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아 8월 말에서부터 9월 초요?

예. 9월 중순 내지... 이때가 제일 가격이 좋구... 수확을 해는 게 어려운 시기예요. 악조건이기 때문에.

8월 말에서 9월 초가요? 왜 수확하기 악조건이죠?

그거는 인제 무더위하고 장마 때 수확이 안돼요. 착과가 안되니까.

그럼 8월말 9월초, 요 시기에 수확을 잘 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겠네요?

기술인데, 거의 힘들더라구요. 아무리 인공으로 맞춰놔도.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아까 1,50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토마토는 1,700박스 출하하면 매출액이 얼마 정도 돼요?

한 1,200

인력 소요되는 것은 주로, 외국인들은 요새 구하기 어렵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이렇게 같이.

저희가 생각할 때 외국인이 좀 쌀 거 같은데?

아뇨. 외국인이 돈이 더 비싼 데도 많아요. 내국인이 싸고.... 일량에 따라서 틀리니까... 내국인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돈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고...

더 숙련됐으니까요?

숙련되는 것도 그렇구, 내국인은, 저희는 그렇지는 않은데, 딴집들은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게 요령이랠까, 요령을 너무 핀다고 그럴까 뭐... 그래서 거의 잘 안쓸라고 그래요.

내국인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와요?

주로 아주머니들이죠 뭐. 아주머니라고 그래야 되나, 할머니라고 그래야 되겠죠.

5~60대요?

5~60대 잡어야죠... 70대는 못해죠. 밭일도 못해시는데.

외국인들은 보통 숙소에 있으면서 인건비가 1달 단위로 계산 되는 거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구, 그 알바 다니는 얘들 있어요. 걔들은 뭐 당일치기 달라고 그러고.

일당은 얼마씩이예요? 외국인들은?
걔들 요즘 8만원 달라고 그러던데.

5~60대 아주머니들은요?
그분들은 7만원.

그러면 8만원 받는 외국인들은 좀 젊은 축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걔들은 다 50 미만이죠 뭐.

일당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1달로 쓰게 되면 얼마씩 계산하나요?
1달은 뭐 180에서 200선.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죠?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1인당 한 월급이 40만원 이상 오른 거 같은데.

비닐하우스 1동 짓는 데는 재료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200평이요?

비닐은 몇 중으로 하는 거예요? 이중?
다 틀려요. 1중 해는 사람 있구, 2중 해는 사람 있구.

1중으로 하면 얼마 정도나 소요돼요?
우리 걸로 해니까... 한... 200평이면 4천에서 5천 들어가겠는데요... 커텐이 좀 틀리고 그래니까.

2중으로 하면요?
2중으로 해면은... 그게 한 500만원 더 들어가겠죠... 고거는 일부고, 고 안에다 또 시설 갖추는 게 있으니까... 그 안에다 뭐 제습기다, 포구[1], 거기에다가 양액시설[2]....

제습기, 포구, 양액시설은 별도로 두는데, 이것도 가격이 꽤 나가나 봐요?
그거 세 개 합치면 한... 그게 건물값 정도는 나와요... 그것도 한 평당, 200평에 해면은 4천만원 정도 들어가겠다.

1) 온습도 조절하는 장치
2) 화분처럼 땅 위로 작물을 심는 시설

그러면 200평 하나 하고, 이중으로 하고, 이런 시설까지 다 갖추면 한 1억 잡아야 하겠네요?
그렇죠. 어쩌면 더 들어가고, 좀 덜 들어가면 그렇구요. 토양에다 해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시설 다 해면 그렇죠.

그러면 200평 하나 1억 들여서 오이 1,500만원, 토마토 1,200만원이면 2,700만원 정도, 1년에 매출액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지. 아니 1년이 아니라 한 자끼... 두 자끼를 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오이, 토마토 두 번하고 끝나는 거 아녜요?
아... 그러니까 땅에는, 토경에는 오이-토마토를 해구요. 양액에는 토마토-토마토를 해요... 그거는 정석은 없는데, 토마토-오이 해는 사람도 있구 다 틀린데, 저희 같은 예를 했을 때는 그렇게 해요.

이게 1년에 두 번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땅에는 오이-토마토를 하니까 매출액이 1년에 2,700 정도....?
아니, 그쪽은 더 안 나와요.

아까... 1,500만원, 1,200만원...?
여기는 양액으루 잡었잖아요.

그러면, 토경이면 토마토도 1,500포기 정도밖에 안 되나요?
예.

만약에 토경에 1,500포기를 심으면 몇 박스나 나와요.
그거는 얼마 안 나와요... 한 700박스?

그러면 토경했을 때 여기 1,500만원이고, 700박스 하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그건 700만원?

그럼 토경했을 때는 한 2,200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순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계산...?
순익은 우리가 감가상각비 뺐을 때... 투자핸 비용을 뺐을 때, 한 30%...

총 매출액의 30%요?
예... 아니 총 매출액이 아니라, 총 매출액에서 저기를 빼야 되요. 인제 공적 수수료를 빼요.

공적 수수료는 뭐예요?

가락동에 저기 판매허면 수수료 이런 거 나가야 될 거 아네요. 그거를 빼고 실제 내가 수령한 금이락고 그래죠. 거기 인제 30%. 한 40%, 50% 됐었는데, 인건비 올라가면서...

그니까 총 매출액에서 공적 수수료를 제하면 인제 어떤 금액이 나올 거 아네요. 이거의 40% 정도가 순이익이...?

40%가 인제 안 되드라구. 35%? 33%?

아 35% 정도... 공적 수수료는 몇 % 정도나 떼요?

그게 한... 오이 같은 경우는 10% 떼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공손까지 해면 25%...

토마토는 왜 이리 많이 떼요?

여기서 인제 우리가 선별을 안 해니까, 선별을 다 해요. 거기서 아예... 거기서 한 번 수수료 나가, 저기에서 또 수수료 나가... 그렇게 되죠. 맽겨버렸으니까... 공손비 이런 거 다 따지다 보면 전체 금액이 그 정도 들어오는 거여 하여튼.

오이하고 토마토하고 애호박하고, 세 종류 주로 하고요. 화훼는 뭐 해요?

화훼는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 천가지가 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사람들이 아는 건 뭐 다육이다 뭐, 장미다 뭐, 이렇게 만 알고 있는데, 아니드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라고 꼽기도 애매해요.

여기 물은, 농업용수는 어떻게 확보를 해요?

지하수하고 수돗물 사용해요.

수돗물은 가격이 많이 나가잖아요? 지하수에 비해서.

비상용으로 인제... 대부분 저기로 해는데, 겨울에 인제 동파가 나거나 뭐 핼 때는 비상용으로 수돗물을... 수돗물 계속 주면은 감당 못해죠.

야막리에는 뻘물 나오는 데는 없고요?

요기도 있어요... 그런데는 이렇게 300m를 끌어다 쓰는 거지.

혹시 여기 작목반 있나요?

인제 작목반이 있는데, 저희는 인제 작목반 폐지되면서 '연합출하회'로 바뀌었어요.

그 작목반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그거는... 80년도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작목반이 회원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것이 한 명, 두 명 있어갖고는 안 했을 거구, 제가 그때 핸 거는 그래도 86년도에 하우스 지었으니까…

처음으로요?

예… 그때 당시 해면… 그래도 한 10집 안 됐었나? 그때는 많지 않었어요.

그럼 지금 굉장히 많이 한 거네요? 그때 비해서…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한 이십 오륙명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그 하우스를 그만 두시고, 거기 하우스는 있으니까 과수로 전환해는 분들이 벌써 네 집이 생겼어요.

고령화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고령화로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세 분은 경제성이 안 맞는다, 인건비 뭐 아까 마진률 해두 감가상각율까지 해면 10%대로 떨어질텐데…

그럼 과수는 사과대추하고 체리….

예. 지금 현재 그런 집들이 늘었어요. 인제 포도도 생길 거 같구 계속 늘어요… 그니까 하우스는 있으니까, 하우스 이용해서 핼 수 있는, 왜냐면 그거는 가족 노동력 가지고 가능해니까. 차후 투자비가 덜 들어간다구요.

작목반에서는 어떤 일을 했어요? 작목반에서 공동 작업, 이런 것은 없나요?

공동작업… 뭐 품앗이로 해서 서로 심어주고, 정식해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거는 뭐 이웃집끼리도 품앗이를 해고.

작목반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는 거요?

운송비나 뭐 이런 거 공동 대응을 해죠… 혼자 있으면 안 올 거 아녜요. 운송 비용을 결정해는 것도 작목반에서 해고 그리고 마을에 기여해는 게 꽤 많죠. 주민들이 해니까, 마을에 뭐 협력핼 일이나 봉사핼 일이 있으면 그런 거.

마을에, 이장님이 기억하실 때 마을 제사 같은 거 있었어요?

마을제사요? 저때는 못 본 거 같애요. 마을제사는… 아 있었다. 마을에 제일 오래된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거기 좀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 나무가.

그 나무가 있던 자리는 기억하시죠. 그 나무 밑에서 제사를 언제까지 지냈어요?

그게… 어렸을 때 거기서 그네도 타고… 한 7~8살까지 했었나?… 그 나무가 없어졌어요. 썩구, 불이 났나, 거기다 불도 질르고, 태우고 그래서… 그 그네 있던 자린데, 오래 되니까 죽더라구.

우물제 같은 거는 안 지냈어요?

제가 그거 지내는 거는 못 봤어요.

참 여기 하우스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요?

지금은 인제 80세 되는 분인 인제 1명 남었구, 70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서너 집 있구, 그 다음에 30대 하나 있구, 40대 세명, 50대 한 다섯 명, 60대 한 열 명. 이렇게 되겠네. 보이지 않게 하우스병이 있어요.

원인은 잘 모르지만요?

예전에 하우스 이게, 여기는 한 60도 50도 되는 데서 머리는 돼 있구, 이런 데서 일을 해다보니까...

60도, 50도라는 거는...?

이 하우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밑에는 30도, 40도 나와도 여기(위)는 5~60도가 나와요. 그런데서 일 해구, 그 텁텁한 데에서, 옛날 거적대기도 해갖고 해니까 막 겨울에 두 시에 닫으면 막 40도 되는 데에서 거적으로, 그때 안 덮으면은 보온을 못 해다보니까, 그때 했던 분들이 몸도 되게 안 좋아지더라구 확. 그래갖고 지금 그만두는 분들이 보면 대체로 몸이 그 같은 나이에 비해서 좀 안 좋아서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뭐, 일이 과핸 거지.

아 노동량이 많은 거예요?

예. 지금은 좀 노동자를 써서 그러는데, 그때 했던 사람들이나 저기 핸 사람들 보면은 하루에 보면은 한 14시간씩 매일 해다보면은...

매일 14시간요?

그거는 평균 그렇고, 대해는 사람은 후라쉬도 끼고 4시에 나갔다가 뭐 밤에도 10시까지 하는 게 뭐 사람이 핼 게 아니지.

지금 노동자들 사는 데, 외부 사람들, 일꾼들 사잖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도 외부에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나요?

옛날에 없을 때는 인제 그 아주머니들, 그때는 그래두.... 언제까지냐... 90년대에는 이렇게 쓰면은 사람이 좀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일당이 얼마나 됐나요?

얼마냐 진짜. 몇 천원이었는데....

90년대요?

예.

한 4~5천원 됐나요?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품앗이, 이런 건 상상도 못 하겠네요?

시설 채소에서는 정식 시기 이 외에는 품앗이를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수확해는데, 사람이 다 같이 딸리는 시긴데...

여 백

2021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VII.

토지대장을 통한 변화양상 분석과 해석

윤한택

여 백

20세기 초 진위군 견산리 · 하북리 · 신리 · 야막리의 토지 소유 양상을 통해서 본 사회 구성 변화의 일단

1. 들어가며.

평택문화원은 2014년부터 ‘평택의 사라지는 마을 조사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급격하게 변화해가고 있는 마을의 자연, 역사, 인문 상황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모색해보기 위한 작업이다. 2021년 올해는 경기도 ‘지역균형 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진위테크노밸리’와 그 배후의 ‘시가화’ 예정지로서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見山里), 하북리(下北里), 신리(新里), 야막리(野幕里)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글에서는 조사 목적의 범주인 공간 구성, 생활양식, 사회 구성 중 사회 구성 변화의 일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 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인류의 역사는 신석기 농업혁명 이후 근대 산업사회를 거쳐 ‘지능화’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 현대를 경과하고 있다. 사회 구성의 바탕에는 생산양식이 놓여 있고, 이 생산양식의 축을 이루는 것은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우선 현대사회 지능화의 바탕을 이루었던 근대, 특히 기존 농업 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의 이행 시기 사회 구성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조선후기 사회 내부의 자생적인 변화, 개항 이후 외세에 의해 중첩된 변화 모습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광무양안’을 그 기초 데이터로 삼았다.

조사 대상 지역은 이 시기 경기도 진위군 이북면 견산리, 하북리, 신리, 이서면 야막리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자연동으로 견산리에는 견산리와 함께 견산리 전평(見山里前坪), 견산전평(見山前坪), 장호평(長澔坪), 하북리에는 하북리와 함께 방평(防坪), 선가리(先加里), 건봉수평(乾逢水坪), 금심평(金尋坪), 두남리평(斗南里坪), 목장동(木長洞), 은야평(銀夜坪), 녹장평(鹿場坪), 서전평(西田坪), 신리에는 신리동(新里洞)과 함께 신리 전후평(新里前後坪), 장안평(長安坪), 신장리후 월천 성북전평(新場里後越川城北前坪), 궁평(宮坪), 석교평(石橋坪), 선산평(善山坪), 통미하평(通味下坪), 또 비월지로서 일서면 금암전평 이북전(一西面琴巖前坪二北田), 토고개(土古介), 야막리에는 야막리와 함께 야막 전평(野幕前坪) 등의 명칭이 보인다.

2. 자연동별 현황[1)]

2-1. 이북면[2)] 견산리 전평

총결수는 전 149.8부, 답 167.3부이다.

성씨는 강(姜), 고(高), 김(金), 남(南), 박(朴), 유(柳), 유(兪), 윤(尹), 이(李)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3)] 전 10.9부, 시작[4)] 전 10.9결이다.

---

1) 부록 표1, 표2

2) 이북면은 전답 전 6,442.2부, 답 8204.5부, 도합 14,646.7부이고, 호구 186호로, 호당 평균 전 34.6부, 답 44.1부 도합 78.7부이며, 와가가 25간, 초가가 702간이다.

고씨는 시주 답 6.4부, 시작 답 4.3부이다.
김씨는 시주 답 23.1부, 시작 전 22.6부, 답 21.5부이다.
남씨는 시주 답 14.9부이다.
박씨는 시작 전 9.8부, 답 20.7부이다.
유(柳)씨는 시주 전 34.9부, 답 40.9부, 시작 전 34.9부, 답 68.7부이다.
유(兪)씨는 시작 전 5.7부이다.
윤씨는 시주 전 2.7부, 답 8.2부, 시작 전 2.7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86부, 답 78.2부, 시작 전 53.6부, 답 45.4부이다.

2-2. 견산 전평

총결수는 전 13.5부, 답 171.2결이다.
성씨는 강(姜), 고(高), 김(金), 엄(嚴), 유(柳), 윤(尹), 이(李), 정(鄭). 조(趙)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답 22.2부이다.
고씨는 시주 답 13.8부이다.
김씨는 시주 답 1.3부이다.
엄씨는 시작 답 8.5부이다.
유씨는 시주 전 13.4부, 답 39.1부, 시작 전 13.4부, 답 83.7부이다.
윤씨는 시주 답 65.8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16.8부, 시작 답 79부이다.
정씨는 시주 답 7.3부이다.
조씨는 시주 답 4.9부이다.

2-3. 견산리

총결수는 전 254.7부, 답 32.3부이고, 대지[5] 106부, 초가 164간이다.
성씨는 강, 고, 김, 남, 서(徐), 안(安), 엄, 유, 이, 정, 조, 최(崔), 한(韓), 홍(洪)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건릉향탄(健陵香炭)[6], 관둔(官屯)[7], 내수사(內需司)[8]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답 0.3부, 시작 전 0.8부, 답 0.3부이다.

---

3) 토지소유자이다.
4) 경작자이다.
5) 자기 소유 대지이다.
6) 정조와 효의왕후 김씨의 능인 건릉의 제수를 관장하던 관청으로 건릉향탄봉안소(健陵香炭奉安所)가 있었고, 여기에 소속된 위토(位土)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 말기에 이르면 양안(量案)은 그저 빈장부일 뿐 세납(稅納)의 실제 숫자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민영달(閔泳達)이 고종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실제 건릉령 홍혁주(洪赫周)가 건릉 소관 향탄둔토를 독성산성(禿城山城) 거주민이 탁지부에 솟장을 보내어 취득하도록 한 것을 예전대로 되돌리도록 보고한 사례도 있다. (영암 죽정리 '건릉향탄봉안소 사표내 금호지지(健陵香炭奉安所四標內禁護之地)' 금표,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 2월 7일 경신 이조판서 민영달의 보고, 奎 17882 궁내부거래문첩(宮內府去來文牒) 제1책 독성(禿城) 모민(募民)이 탁지부에 공소(控訴)한 건릉 향탄토(香炭土)를 잉존(仍存)케 하라는 조회(照會) 제 100호)
7) 고려와 조선 시대 지방관청의 운영경비 조달처.
8) 조선시대 왕실 재정의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고씨는 시주 전 4.7부, 대지 5.7부, 시작 전 2.5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20부, 대지 21.6부, 답 15.8부, 시작 전 27.3부, 답 15.8부, 임차지[9] 28.5부에 초가 45간이다.

남씨는 시주 전 39.5부, 대지 2.7부이다.

서씨는 시작 전 19.4부, 임차지 2부에 초가 3간이다.

안씨는 시주 전 9부, 시작 전 9부이다.

엄씨는 시주 전 1.8부, 시작 전 27.8부, 임차지 8.2부에 초가 11간, 답 7.1부이다.

유씨는 시주 전 19.1부, 대지 9.4부, 시작 전 25.9부, 임차지 14.2부에 초가 34간이다.

이씨는 시주 전 115.2부, 대지 52.1부, 답 1부, 시작 전 122.4부, 임차지 38.5부에 초가 55간이다.

정씨는 시주 전 32부, 대지 1.3부, 답 7.1부이다.

조씨는 시주 전 4.1부, 대지 13.3부, 답 1부이다.

최씨는 시주 2.8부, 시작 5.4부, 임차지 3.6부에 초가 4간이다.

한씨는 시작 전 6.6부, 임차지 1.8부에 초가 4간이다.

홍씨는 시작 전 2.1부, 임차지 1.3부에 초가 2간이다.

2-4. 장호평

총결수는 전 524부, 답 1,190.9부이다.

성씨는 강, 고, 김, 남, 박, 변, 서, 손(孫), 송(宋), 안, 양(梁), 엄, 우(禹), 유, 윤, 이, 임(林), 장(張), 정, 조, 최, 한, 현(玄), 홍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건릉향탄, 관둔, 내수사, 작청(作廳)[10]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답 148.5부, 시작 전 4.6이다.

고씨는 시주 전 6.6부, 답 7.2부, 시작 답 16.8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153.9부, 답 130.1부, 시작 전 175.9부, 답 375.75부이다.

남씨는 시주 답 61.3부이다.

박씨는 시주 답 12.7부, 전 1.8부, 시작 전 7.4부, 답 23부이다.

변씨는 시작 답 22.5부이다.

서씨는 시주 답 5.7부이다.

손씨는 시주 전 8.9부, 시작 전 8.9부이다.

송씨는 시주 전 9.1부, 답 19.8부, 시작 전 9.1부, 답 36부이다.

안씨는 시주 답 13.3부이다.

양씨는 시주 답 79부이다.

엄씨는 시작 답 23.8부이다.

우씨는 시주 전 13부, 시작 전 13부이다.

유씨는 시주 전 7.2부, 답 38.5부, 시작 전 27.7부, 답 75부이다.

윤씨는 시주 전 13.4부, 답 141부, 시작 답 15.15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157.8부, 답 107.4부, 시작 전 136.55부, 답 217.15부이다.

---

9) 빌린 대지이다.

10) 군아(郡衙)에서 아전이 일을 보던 곳.

임씨는 시작 전 13.15부, 답 57.8부이다.
장씨는 시작 전 1.34부, 답 30.8부이다.
정씨는 시주 전 14.6부, 시작 전 14.6부, 답 13.5부이다.
조씨는 시주 전 18부, 답 102부, 시작 전 15.5부이다.
최씨는 시주 전 26.8부, 시작 전 34.1부, 답 75.5부이다.
한씨는 시주 전 8.2부, 시작 전 39.3부, 답 66.35부이다.
현씨는 시작 전 15.2부, 답 10.75부이다.
홍씨는 시작 답 30.3부이다.
건릉향탄전답은 전 26.3부, 답 125.3부이다.
관둔전답은 전 25.5부, 답 81.6부이다.
내수사전답은 전 10.5부, 답 14.3부이다.
작청전답은 전 3.2부, 답 13.9부이다.

2-5. 하북리

총결수는 전 170부, 대지 83.8부에 와가 15간과 초가 117간, 답 282.7부이다.
성씨는 권(權), 박, 신(申), 안, 양, 오(吳), 윤, 이, 임, 정, 한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권씨는 임차지 1.8부에 초가 3간이다.
박씨는 시작 전 17.6부, 임차지 6.6부에 초가 8간, 답 31.6부이다.
신씨는 임차지 2.8부에 초가 2간, 시작 답 24부이다.
안씨는 시주 답 7.3부이다.
양씨는 시주 답 10.9부이다.
오씨는 임차지 1.5부에 초가 4간이다.
윤씨는 시주 전 2.6부, 대지 8.4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167.4부, 대지 75.4부, 답 259.5부, 시작 전 152.4부, 임차지 61.7부에 와가 15간과 초가 105간, 답 204.7부이다.
임씨는 임차지 3.1부에 초 3간이다.
정씨는 임차지 3.5부에 초3간이다.
한씨는 임차지 2.5부에 초 5간, 시주 전 22.4부이다.

2-6. 방평

총결수는 답 351.9부이다.
성씨는 김, 박, 안, 유, 윤, 이, 한, 홍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주 답 51.5부이다.
박씨는 시주 답 11.5부, 시작 답 74.9부이다.
안씨는 시주 답 5.6부, 시작 답 5.6부이다.
유씨는 시작 답 4.8부이다.
윤씨는 시주 답 188.3부, 시작 답 37.8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155.5부, 시작 답 153.7부이다.
한씨는 시주 답 1결, 시작 답 8.8부이다.
홍씨는 시작 답 16.2부이다.

2-7. 선가리

총결수는 답 172.6부이다.
성씨는 박, 엄, 유, 윤, 이, 한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박씨는 시작 답 42.4부이다.
엄씨는 시작 답 14.5부이다.
유씨는 시작 답 5.2부이다.
윤씨는 시주 답 64.6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108부, 시작 답 94.6부이다.
한씨는 시작 답 15.9부이다.

2-8. 건봉수평

총결수는 전 2부, 답 148.6부이다.
성씨는 박, 송, 신, 안, 엄, 유, 윤, 이, 최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박씨는 시작 답 4.1부이다.
송씨는 시작 답 16.2부이다.
신씨는 시작 답 8.2부이다.
안씨는 시주 답 9.8부이다.
유씨는 시작 답 54부이다.
윤씨는 시주 답 82.7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53.8부, 시작 답 40.3부이다.
최씨는 시작 답 26부이다.

2-9. 금심평

총결수는 답 458.5부이다.
성씨는 김, 남, 박, 엄, 유, 윤, 이, 한, 황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건릉향탄, 수어둔[11] 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작 답 29.7부이다.
남씨는 시주 답 8.7부이다.
박씨는 시작 답 69.1부이다.
엄씨는 시작 답 17.3부이다.
유씨는 시작 답 8.7부이다.

11) 수어청. 정묘호란 이후 광주부의 남한산성 방어를 담당하던 중앙 군영.

윤씨는 시주 답 47.1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337.8부, 시작 답 265.3부이다.
한씨는 시작 답 12.6부이다.
황씨는 시작 답 29.2부이다.
건릉향탄답은 37.2부이다.
수어둔답은 10.4부이다.

2-10. 두남리평

총결수는 전 22.5부, 답 487.8부이다.
성씨는 고, 김, 남, 박, 송, 안, 양, 엄, 유, 윤, 이, 황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건릉향탄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고씨는 시주 답 4.8부이다.
김씨는 시주 답 27.1부, 시작 답 37.8부이다.
남씨는 시주 답 19.1부이다.
박씨는 시주 답 11부, 시작 답 59.7부이다.
송씨는 시주 답 11.1부, 시작 답 11.1부이다.
안씨는 시주 답 23.4부이다.
양씨는 시작 답 35.2부이다.
엄씨는 시작 답 81.5부이다.
유씨는 시주 전 6.4부, 답 74.6부, 시작 전 6.4부, 답 141.4부이다.
윤씨는 시주 답 52.6부, 시작 답 16.1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5.9부, 답 239.2부, 시작 2.9부, 답 109.9부이다.
황씨는 시작 전 3부이다.
건릉향탄답은 12.6부이다.

2-11. 목장동

총결수는 답 57.4결이다.
성씨는 안, 유, 윤, 이, 지(池)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안씨는 시주 답 4.3부이다.
유씨는 시주 답 16부, 시작 답 31부이다.
윤씨는 시주 답 26.4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10.7부이다.
지씨는 시작 26.4부이다.

2-12. 은야평

총결수는 전 151.1부, 답 226.9부이다.

성씨는 강, 고, 권, 김, 남, 안, 엄, 유, 윤, 이, 임, 최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건릉향탄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답 7부이다.

고씨는 시작 답 4.6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38.5부, 답 20부, 시작 전 38.5부, 답 49부이다.

남씨는 시주 답 16.9부이다.

안씨는 시주 답 8.8부이다.

엄씨는 시주 답 12.8부, 시작 답 21.5부이다 .

유씨는 시주 전 40.7부, 답 66.1부, 시작 전 40.7부, 답 87.2부이다.

윤씨는 시주 답 8부, 시작 답 4.6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51.4부, 답 77.6부, 시작 전 51.4부, 답 24.7부이다.

임씨는 시작 답 7.9부이다.

최씨는 시작 11.5부이다.

건릉향탄답은 7.9부이다.

2-13. 녹장평

총결수는 전 228.6부, 답 56.7부이다.

성씨는 김, 박, 신, 안, 엄, 유, 윤, 이, 장, 전(全), 정, 채(蔡), 최, 한, 홍, 황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수어둔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주 전 19.9부, 시작 전 19.9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29.5부, 답 0.5부, 시작 전 39.6부, 답 20.1부이다.

신씨는 시주 전 1.6부, 시작 전 1.6부이다.

안씨는 시주 전 4.2부, 시작 전 4.2부이다.

엄씨는 시주 전 10.2부, 시작 전 10.2b이다.

유씨는 시작 전 4.8부이다.

윤씨는 시주 전 4.8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127.9부, 답 6.2부, 시작 전 120.6부, 답 4.6부이다.

장씨는 시주 답 8.3부, 시작 답 8.3부이다.

전씨는 시주 전 1.7부, 시작 전 1.7부이다.

정씨는 시주 전 1.9부, 시작 전 1.9부이다.

채씨는 시주 답 4.4부, 시작 답 4.4부이다.

최씨는 시작 답 5.4부이다.

한씨는 시주 전 10.6부, 답 0.6부, 시작 전 10.6부, 답 7.5부이다.

홍씨는 시주 전 2부, 시작 전 2부이다.

황씨는 시주 전 9.3부, 시작 전 15.6부이다.

수어둔전답은 전 10.1부, 답 30.2부이다.

2-14. 석전평

총결수는 전 167.1부, 답 145.5부이다.
성씨는 강, 김, 남, 박, 서, 송, 안, 엄, 유, 이, 정(丁), 조, 최, 한, 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전 25.7부, 시작 전 25.7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2.8부, 답 19.9부, 시작 전 2.8부, 답 43.2부이다.
남씨는 시주 전 3.8부, 답 58.7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18.1부, 시작 전 18.1부이다.
서씨는 시작 답 15.7부이다.
송씨는 시작 답 12.6부이다.
안씨는 시주 답 14.1부이다.
엄씨는 시주 전 23.4부, 답 2부, 시작 전 27.2부, 답 2부이다.
유씨는 시주 전 46.4부, 답 15부, 시작 전 46.4부, 답 41.3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30.5부, 답 22.8부, 시작 전 30.5부, 답 12.9부이다.
전씨는 시작 전 1.4부이다.
정씨는 시주 전 6.4부이다.
조씨는 시주 답 12.8부, 시작 답 4.1부이다.
최씨는 시작 답 13.8부이다.
한씨는 시주 전 3부이다.
홍씨는 시주 전 7부, 시작 전 7부이다.

2-15. 신리전후평

총결수는 전 507.2부, 답 100.1부이다.
성씨는 권, 김, 남, 박, 변, 송, 안, 우, 유, 윤, 이, 임, 장, 전, 최, 한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권씨는 시주 전 22.8부, 시작 전 33.8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65.8부, 시작 전 65.8부이다.
남씨는 시주 전 33.6부, 시작 전 33.6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109.6부, 답 26.7부, 시작 전 85.2부, 답 26.7부이다.
변씨는 시주 전 25.2부, 시작 전 25.2부이다.
송씨는 시작 전 9.2부이다.
안씨는 시주 전 9.5부, 시작 전 9.5부이다.
우씨는 시주 전 55.6부, 시작 전 46.8부이다.
유씨는 시주 전 8.1부, 시작 전 26.3부, 답 64.5부이다.
윤씨는 시주 전 2.3부, 시작 전 2.3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128.9부, 답 64.5부, 시작 전 140.9부이다.
임씨는 시주 전 20.6부이다.
장씨는 시주 전 2.6부이다.
전씨는 시작 전 8.8부이다.

최씨는 시주 전 2.5부, 답 8.9부, 시작 전 2.5부, 답 8.9부이다.
한씨는 시주 전 4.1부, 시작 전 18.4부이다.

2-16. 신리동

총결수는 전 1,264.5부, 대지 25.3부에 초가 31간, 답 54.6부이다.
성씨는 강, 고, 권, 김, 박, 방(方), 송, 안, 엄, 용(龍), 우, 유(柳), 유(兪), 윤, 이, 임, 조, 최, 한, 현(玄), 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전 5.5부, 시작 전 5.5부이다.
고씨는 시주 전 15.1부, 시작 전 15.1부이다.
권씨는 시주 전 48부, 시작 전 48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108.9부, 대지 8.8부, 답 1.2부, 시작 전 89.3부, 임차지 6.3부에 초가 4간, 답 1.2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40.9부, 시작 전 15.7부이다.
방씨는 시주 전 42부, 시작 전 45.5부이다.
송씨는 시주 전 77.5부, 시작 전 78.8부, 임차지 5.6부에 초가 8간이다.
안씨는 시주 전 24.4부, 시작 전 24.4부이다.
엄씨는 시주 전 15부, 시작 전 15부이다.
용씨는 시주 전 5.5부, 시작 전 5.5부, 임차지 3.3부에 초가 5간이다.
우씨는 시주 전 137.4부, 시작 전 130.2부이다.
유(柳)씨는 시주 전 204.6부, 답 4.6부, 시작 전 202.7부, 임차지 9.4부에 초가 11간이다.
유(兪)씨는 시주 전 0.5부, 시작 전 0.5부이다.
윤씨는 시주 전 50.9부, 대지 5.2부, 시작 전 9.9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151부, 대지 4.8부, 시작 전 158.6부, 답 1.6부이다.
임씨는 시주 전 8.7부, 시작 전 8.7부이다.
조씨는 시작 전 42.9부이다.
최씨는 시주 전 281부, 대지 0.7부에 초가 3간, 답 17.6부, 시작 전 296.1부, 답 17.6부이다.
한씨는 시주 전 15.1부, 시작 전 15.1부이다.
현씨는 시주 답 10.8부, 시작 답 10.8부이다.
홍씨는 대지 3.3부, 시작 전 26.7부이다.

2-17. 장안평

총결수는 전 345부, 답 340.1부이다.
성씨는 김, 남, 노(盧), 박, 방, 송, 엄, 우, 유(柳), 유(劉), 윤, 이, 임, 정, 조, 진(陳), 최, 한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작청, 향탄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주 전 14.9부, 답 59.4부, 시작 전 14.9부, 답 11부이다.
남씨는 시주 전 0.9부, 답 23.9부, 시작 전 0.9부, 답 11.9부이다.
노씨는 시주 답 9.6부, 시작 답 9.6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56.9부, 답 41.4부, 시작 전 56.9부 답 101부이다.
방씨는 시주 답 7.7부, 시작 답 7.7부이다.
송씨는 시주 답 14.3부, 시작 답 14.3부이다.
엄씨는 시주 전 33.4부, 시작 전 33.4부, 답 26.9부이다.
우씨는 시주 전 8.4부, 시작 전 8.4부이다.
유(柳)씨는 시주 전 12.2부, 답 8.3부, 시작 전 12.2부, 답 30부이다.
유(劉)씨는 시작 답 17.1부이다.
윤씨는 시주 답 2부, 시작 답 2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21.4부, 답 17부, 시작 전 21.4부, 답 8.8부이다.
임씨는 시주 답 6.4부이다.
정씨는 시작 전 3.6부, 답 6.2부이다.
조씨는 시주 답 54.5부, 시작 답 14.7부이다.
진씨는 시주 전 1.1부, 시작 전 1.1부이다.
최씨는 시주 전 183.2부, 답 46.6부, 시작 전 183.2부, 답 58.3부이다.
한씨는 시주 전 9부, 시작 전 9부이다.
작청전은 3.6부이다.
향탄답은 21.2부이다.

2-18. 신장리후 월천 성북전평

총결수는 전 25.7부이다.
성씨는 김, 박, 이, 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주 전 10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7.7부, 시작 전 7.7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5부, 시작 5부이다.
임씨는 시작 전 10부이다.

2-19. 궁평

총결수는 전 18.1부, 답 18.6부이다.
성씨는 박, 이, 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어둔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박씨는 시작 전 13.6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13.6부, 답 16.2부, 시작 답 18.6부이다.
임씨는 시주 전 4.5부, 시작 전 4.5부이다.
수어둔답은 2.4부이다.

2-20. 석교평

총결수는 전 1.4부, 답 147부이다.

성씨는 김, 박, 유, 윤, 이, 정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은 수어둔, 용주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작 답 4부이다.
박씨는 시작 답 11.2부이다.
유씨는 시작 답 10.4부이다.
윤씨는 시주 답 54.4부, 시작 답 31.6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1.4부, 답 30.3부, 시작 전 1.4부, 답 79.9부이다.
정씨는 시주 답 9.9부, 시작 답 9.9부이다.
수어둔답은 30부이다.
용주사답은 22.4부이다.

2-21. 선산평

총결수는 전 114부, 답 1018.4부이다.
성씨는 김, 신, 안, 양, 윤, 이, 장, 정, 최, 한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은 내수사, 수어둔, 용주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김씨는 시주 전 26.2부, 답 110.6부, 시작 전 33,2부, 답 256.20부이다.
신씨는 시주 전 4.8부, 시작 전 4.8부, 답 12.45부이다.
안씨는 시주 전 13.5부, 시작 전 13.5부이다.
양씨는 시작 전 14부, 답 56.1부이다.
윤씨는 시주 전 23.3부, 답 443.7부, 시작 전 31.4부, 답 459.7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5.2부, 답 128.9부, 시작 전 5.2부, 답 118.7부이다.
장씨는 시주 전 4.9부, 답 52.4부, 시작 전 4.9부, 답 52.4부이다.
정씨는 시주 답 33.4부, 시작 답 16.6부이다.
최씨는 시주 답 5.7부, 시작 답 11.7부이다.
한씨는 시주 답 14부, 시작 답 14부이다.
내수사답은 8.6부이다.
수어둔답은 11.5부이다.
용주사전답은 전 36.1부, 답 203.3부이다.

2-22. 통미하평

총결수는 전 1.1부, 답 192.4부이다.
성씨는 강, 김, 백(白), 양, 오, 윤, 이, 장, 정, 조, 최씨이고, 법인은 용주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답 5부, 시작 답 5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1.1부, 시작 전 1.1부, 답 22.7부이다.
백씨는 시주 답 6부, 시작 답 15.8부이다.
양씨는 시주 답 25.9부, 시작 답 38.6부이다.
오씨는 시주 답 7.3부이다.
윤씨는 시주 답 44.4부, 시작 답 12.45부이다.

이씨는 시주 답 28.1부, 시작 답 13.9부이다.
장씨는 시주 답 24.7부, 시작 답 34.3부이다.
정씨는 시주 답 9.8부, 시작 답 9.8부이다.
조씨는 시작 답 14.05부이다.
최씨는 시주 답 8.7부, 시작 답 13.8부이다.
용주사답은 30부이다.

2-23. 일서면 금암전평 이북전
총결수는 전 207.5부이다.
성씨는 강, 김, 양, 유(劉), 윤, 이, 장, 정(丁), 조, 최씨이고, 법인은 수어둔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강씨는 시주 전 2.6부, 시작 전 4.2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75.7부, 시작 전 100.65부이다.
양씨는 시주 전 3.4부, 시작 전 15.4부이다.
유씨는 시작 전 8.25부이다.
윤씨는 시주 전 32.5부, 시작 전 20.5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13.7부, 시작 전 28.5부이다.
장씨는 시주 전 12.1부, 시작 전 7.9부이다.
정씨는 시주 전 12.6부이다.
조씨는 시주 전 23.3부, 시작 전 9.4부이다.
최씨는 시주 전 7.2부, 시작 전 11.7부이다.
수어둔전은 24.4부이다.

2-24. 토고개

총결수는 전 13.5부이다.
성씨는 김씨로 구성되어 있고, 시주 전 13.5부, 시작 전 13.5부이다.

2-25. 이서면[12] 야막리

총결수는 전 285.7부, 대지 7.9부, 답 628.8부, 초가 18간이다.
성씨는 권, 김, 박, 백, 안, 원(元), 유, 윤, 이, 임, 장, 정, 최, 한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수어둔, 용주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권씨는 시주 전 8.6부, 시작 전 25.1부이다.
김씨는 시주 전 0.7부, 답 42.6부, 시작 전 19.1부, 답 134.4부이다.
박씨는 시주 전 10.8부, 답 113.6부, 시작 전 19.3부, 임차지 1.2부에 초가 3간, 답 116.4부이다.
백씨는 시주 전 10부, 답 17.5부, 시작 전 10부, 답 17.5부이다.
안씨는 시주 답 14.2부이다.

12) 총결수는 전 4,676.8부, 답 14,661.6부, 도합 19,338.4부에 초가 711간이고, 호당 평균은 전 23.5부, 답 73.7부, 도합 97.2부이다.

원씨는 시작 답 14.2부이다.
유씨는 시작 답 18.5부이다.
윤씨는 시주 전 78.3부, 답 87.5부, 시작 전 50.25부, 답 83.7부이다.
이씨는 시주 전 75.7부, 답 75.7부, 시작 전 93.6부, 임차지 3.8부에 초가 11간, 답 102.2부이다.
임씨는 시작 답 53.5부이다.
장씨는 시주 전 25.9부, 답 28부, 시작 전 25.9부, 답 21.8부이다.
정씨는 시주 전 3.6부, 답 45.5부, 시작 전 3.6부, 답 17.3부이다.
조씨는 시주 답 18.1부이다.
최씨는 시작 전 35.85부, 임차지 1.4부에 초가 4간, 답 7.2부이다.
한씨는 시주 답 24.1부, 시작 답 12.1부이다.
수어둔답은 3.3부이다.
용주사전답대는 전 72.1부, 대지 7.9부, 답 158.7부이다.

2-26. 야막전평

총결수는 전 83.5부, 대지 15.5부, 답 42.3부, 초가 27간이다.
성씨는 박, 윤, 이, 임, 정, 한, 홍씨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으로 용주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박씨는 시주 전 2.3부, 시작 전 11.8부, 임차지 4부에 초가 9간이다.
윤씨는 시작 전 0.5부이다.
이씨는 시작 전 46.2부, 임차지 2.6부에 초가 6간, 답 40.9부이다.
임씨는 시작 답 1.4부이다.
정씨는 임차지 1부에 초가 2간이다.
한씨는 임차지 1.7부에 초가 4간이다.
홍씨는 임차지 2.4부에 초가 3간이다.
용주사전답대는 전 81.2부, 대지 15.5부, 답 42.3부이다.

3. 주요 성씨별, 호주(법인)[13]별 현황[14]

3-1. 이북면 견산리, 하북리, 신리

3-1-1. 강씨

총결수는 전 44.7부, 답 183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강창성이 장호평, 서전평, 견산전평에 전 25.7부, 답 166.1부를 소유하며, 이 중 전은 자작하고, 답은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13) 이북면의 경우 호당 평균 전 34.6부, 답 44.1부, 도합 78.7부, 이서면의 경우 전 23.5부, 답 73.7부, 도합 97.2부이다. 호주(법인)는 이 면 평균을 상당정도 상회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14) 부록 표3, 표4

3-1-2. 김씨

총결수는 전 604.5부, 답 433.5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김봉돌이 두남리평, 금심평, 견산리전평, 은야평, 서전평, 신리전후평, 장호평, 견산리에 전 51.7부, 답 136.6부를 소유하고, 이 중 전 36.4부, 답 10.9부를 자작하며 나머지를 임대하는 병주지주이다.

3-1-3. 남씨

총결수는 전 77.8부, 답 203.7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남복흥이 견산리, 견산리전평, 금심평, 두남리평, 서전평, 은야평, 장안평, 장호평에 전 44.2부, 대지 2.7부, 답 186.8부를 소유하고, 이 중 전 0.9부, 답 14.7부를 자작하며, 나머지를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3-1-4. 양씨

총결수는 전 3.4부, 답 128.3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양점손이 장호평, 통미하평에 전 111.7결을 소유하여, 전부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3-1-5. 윤씨

총결수는 전 141.2부, 답 1,625.9부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별로는 윤계손이 신리동, 은야평, 장호평에 전 54.4부, 답 160.6부를 소유하여, 전부를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윤만흥은 건봉수평, 견산리전평, 견산전평, 금심평, 녹장평, 두남리평, 수장동, 방평, 석교평, 선가리, 은야평, 하북리에 답 373부를 소유하여, 이 중 35.9부를 자작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윤유덕은 건봉수평, 방평, 선가리, 선산평에 답 349.9부를 소유하여, 이 중 면 호당 평균의 3배 가량에 해당하는 224.8부를 경영하며, 나머지를 임대하고 있는 '경영형 지주'[15]에 해당한다.

3-1-6. 이씨

총결수는 전 1,153.2부, 답 1,929.3부이다.

호주별로는 이분단이 건봉수평, 견산리전평, 궁평, 금심평, 녹장평, 두남리평, 방평, 서전평, 선가리, 선산평, 신리동, 통미하평, 하북리에 전 26.7부, 답 127.7부를 소유하여, 이 중 전 19.1부, 답 55.4부를 자작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이상준은 견산리, 견산리전평, 금심평, 녹장평, 두남리평, 방평, 하북리에 전 38.8부, 답 85.8부를 소유하여, 이 중 전 19.3부, 답 62.4부를 자작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며, 대지 27부를 임대하는 임대주이기도 하다.

이성옥은 궁평, 금심평, 녹장평, 서전평, 하북리에 전 107.6부, 답 258.8부를 소유하여, 이중 전 94부, 답 194.1부를 경영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는 경영형 지주이다. 또한 이북면에 단 두채뿐인 와가 중 한 채인 10간을 소유하고 있다.

---

15) 국사편찬위원회, 『신편한국사』,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5.2)지주제의 유형과 동향」

이준복은 견산리, 견산리전평, 금심평, 두남리평, 목장동, 은야평, 장호평, 하북리에 전 60.9부, 답 171.3부를 소유하여 전부를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이흥길은 금심평, 두남리평, 하북리에 전 28.8부, 답 30부를 소유하여 자작하고 있지만, 이북면에 단 두채뿐이 와가 중 하나인 5간을 하북리에 소유하고 있다.

이흥대는 건봉수평, 견산리, 견산리전평, 금심평, 녹장평, 두남리평, 방평, 선가리, 장안평, 장호평, 하북리에 전 15.6부, 답 272.9부를 소유하여, 이 중 전 1.5부, 답 18.6부를 자작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3-1-7. 조씨

총결수는 전 45.2부, 답 174.3부이다.

호주별로는 조순득이 전 11부, 답 106.9부를 소유하여, 이 중 전 7.9부를 자작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는 병작지주이다.

3-1-8. 건릉향탄

장호평, 금심평, 두남리평, 은야평, 견산리에 전 26.3부, 답 185.9부를 소유하고 있다.

3-1-9. 관둔

장호평, 견산리에 전 30.9부, 답 81.6부를 소유하고 있다.

3-1-10. 내수사

견산리, 선산평, 장호평에 전 16.6부, 답 22.9부를 소유하고 있다.

3-1-11. 수어둔

궁평, 금심평, 녹장평, 석교평, 선산평, 일서면 금암전평 이북전에 전 34.5부, 답 84.5부를 소유하고 있다.

3-1-12. 용주사

석교평, 선산평, 통미하평에 전 36.1부, 답 255.7부를 소유하고 있다.

3-1-13. 작청

통미하평, 선산평에 전 6.8부, 답 13.9부를 소유하고 있다.

3-2. 이서면 야막리

3-2-1. 박씨

총결수는 전 13.1부, 답 113.6부이다.

호주별로는 박금단이 야막전평과 야막리에 전 13.1부, 답 113.6부를 소유하고, 전 29.8부, 답

전부를 경영하는 경영형 지주에 가깝다.

3-2-2. 용주사

야막전평과 야막리에 전 153.3부, 대지 23.4부, 답 201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야막리 전체 전의 0.42%, 답의 0.3%, 도합 0.33%에 해당한다.

4. 나가며

이상에서 경기도 진위군 이북면 견산리, 하북리, 신리와 이서면 야막리의 1901년 광무양안을 바탕으로 자연동별, 성씨별, 호주(법인)별로 나누어서 그 소유, 경영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세인 조선후기를 거쳐, 근대인 개항기로 변화해가고 있던 당시 사회 구성의 변화도 엿볼 수 있었다.

첫째, 강창성, 김봉돌, 남복흥, 양점손, 윤계손, 윤만흥, 이분단, 이상준, 이준복, 이흥대, 조순득 등은 서민 지주[16]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윤유덕, 이성옥, 박금단 등은 경영형 지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건릉향탄전, 관둔전, 내수사전, 수어둔전, 용주사전, 작청전 등이 일관되게 존재하며, 특히 용주사전은 야막리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기존의 고려 전시과, 조선 과전법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오던 중세 신분적 토지소유관계가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그 내부에서 신분적 외피를 탈각하고 순수한 경제적 관계로 전환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 경기도 진위군 이북면, 이서면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 구성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능화를 지향하는 현대로의 사회 변화의 역사적 계기를 자연스럽게 연관시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록

표1. 이북면 견산리 · 하북리 · 신리(동별)

표2. 이북면 견산리 · 하북리 · 신리(성별)

표3. 이서면 야막리(동별)

표4. 이서면 야막리(성별)

16) 허종호, 『조선봉건말기의 소작제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표1. 이북면 견산리 · 하북리 · 신리(동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二北面上							東接郡內
二北面上							西接二西
二北面上							南接一炭
二北面上							北接一北
二北面上下	金~鱗29字	186戶 (원157)	6442.2	8204.5			14646.7(原13332.4) 瓦家25間, 草家702間
이북평균			34.6	44.1			78.7
견하신			4202 (210.1)	5821.5			10023.5 와15간 초301간
見山里前坪	姜乭成	姜	10.9	0	10.9	0	
	高業禮	高	0	6.4	0	0	
	高永化	高	0	0	0	4.3	
	金奉乭	金	0	12.6+ 2.7	0	0	
	金奉辰	金	0	0	1.9	7.6	
	金元善	金	0	4.8+3	20.7	6.1+ 4.8+3	
	南卜興	南	0	9.8+ 5.1	0	0	
	朴永實	朴	0	0	9.8	0	
	朴元實	朴	0	0	0	7.5	
	朴喜千	朴	0	0	0	13.2	
	柳癸花	柳	11.3	0	11.3	0	
	柳德仲	柳	7.8+3+4.2 +9.7	11.2+0.4	7.8+3+4.2 +9.7	11.2+0.4	
	柳聖九	柳	10.2	11.8+7.1+ 6.5	10.2	11.8+7.1+ 6.5+6.4	
	柳聖友	柳	0	0	0	6.5	
	柳聖七	柳	0	3.9	0	3.9	
	柳汝煥	柳	0	0	0	5.1	
	柳春實	柳	0	0	0	9.8	
	兪汝弘	兪	0	0	0	5.7	
	尹萬興	尹	0	8.2	0	0	
	尹忠卜	尹	2.7	0	2.7	0	
	李莫乭	李	0	14.8	0	14.8	
	李㦷奉	李	13.8	0	13.8	0	
	李卜成	李	3.7	1	3.7	1	
	李分丹	李	4.8	0	4.8	0	서蓮池
	李相俊	李	0	13.2	0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李承億	李	4	0	4	0	지심인
	李永云	李	0	0	0	12.6+2.7	
	李永浩	李	0	0	0	8.2	
	李玉同	李	0	6.5	0	0	
	李元實	李	2.2+8.1+ 6.6	7.1	2.2+ 14.4+8.1+ 6.6	7.1	
	李俊卜	李	14.4+1.9+ 9.8	5.4+5.7+ 4.3+7.6	0	0	
	李興大	李	20.7	7.5+6.1	0	0	
	계		149.8	167.3	149.8	167.3	
下北里	權召史	權	0	0	(1.8)	0	초3간
	朴永實	朴	0	0	0	10.9	
	朴元實	朴	0	0	(1.9)	0	초3간
	朴元心	朴	0	0	0	13	
	朴元五	朴	0	0	(1.2)	0	초2간
	朴昌實	朴	0	0	0	7.7	
	朴喜千	朴	0	0	17.6 (1.7)	0	초3간
	申化京	申	0	0	(2.8)	24	초2간
	安貴乭	安	0	7.3	0	0	
	梁成業	梁	0	10.9	0	0	
	吳召史	吳	0	0	(0.8)+(0.7)	0	초2간+초2간
	尹萬興	尹	0	3	0	0	
	尹忠卜	尹	2.6+ (1.9)+(2.1) +(1.7)+ (2.7)	0	0	0	
	李寬業	李	0	0	(1.5)	0	초3간
	李莫乭	李	8.8+ 5.3+ (3.2)+(1.2)	13.1	8.8+ 5.3+ (3.2)	13.1	초10간
	李㐂奉	李	1.2+ 5.4+ (1.7)+(1.5) +(3.1)+(2)	0	1.2+ 5.4+ (2)	0	초5간
	李卜成	李	0	0	(1.2)	0	초3간
	李分丹	李	14.1+1.2+ 5.2+ (2)+ (1.8)+(1.2) +(4.6)+(2) + (2.3)+(3.7) +(2.3)+ (2.8)	6.3+ 13.9	14.1+5.2+ (4.6)	13.9	초8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李成玉	李	10.1+11.8+ 6.3+ 1+ 25.8+4.9+ (2.5)+(0.7) +(6.8)+ (3.5)	16.2+ 7.7+ 41.3+ 26.7+ 40.3+ 15.3+ 8.9+ 20.8+ 12	10.1+11.8+ 6.3+ 1+ 25.8+4.9+ (6.8)	16.2+41.3 +26.7+40. 3+15.3+ 8.9	초5간 · 와10간
	李小乭伊	李	3.4	0	3.4+(1.7)	0	초3간
	李召史	李	0	0	(1.2)	0	초3간
	李小興伊	李	0	0	0	10.4+7. 3+6.3	
	李承抑	李	0	0	(2.4)	0	초3간
	李新丹	李	0	0	(1.7)	0	초2간
	李元得	李	0	0	(3.7)+(2.3)	0	초3간+초3간
	李有乭	李	0	0	(2)	0	초3간
	李有實	李	0	0	(0.7)	0	초2간
	李銀分	李	0	0	(2.7)	0	초3간
	李宗吉	李	0	0	(2.1)	0	초3간
	李俊卜	李	0	0	(2.1)	0	초6간
	李春大	李	0	0	2.6+(2.1)	0	초3간
	李春乭	李	0	0	(2.4)	0	초3간
	李判今	李	0.7	0	0.7+ (2)	0	초2간
	李判孫	李	18.7+(2.4) +(0.8)+(2. 4)+(0.5)+ (4.9)+(1.2) +(2.1)+ (1.7)+(0.7) +(2.1)	0	18.7+(4.9)	0	초6간
	李興吉	李	9.9+ 16+ (7.7)	0	9.9+ 16+ (7.7)	0	와5간 · 초8간
	李興大	李	17.6	13+24			
	李興卜	李	0	0	(0.5)	0	초2간
	李興成	李	0	2	1.2+ (2.3)	2+3	초3간
	林召史	林	0	0	(3.1)	0	초3간
	鄭召史	鄭	0	0	(3.5)	0	초3간
	韓萬水	韓	0	0	(2.5)	10.4+12	초5간
	계		170 (83.8)	282.7	170 (83.8)	282.7	와15간 초117간
防坪	金奉用	金	0	0	0	8.2	
	金元石	金	0	0	0	32+ 7.7	
	金學西	金	0	0	0	3.6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朴元實	朴	0	11.5	0	11.5+6.5	
	朴元心	朴	0	0	0	3.2+ 11.8	
	朴俊伊	朴	0	0	0	19.2+3.7	
	朴喜天(千)	朴	0	0	0	15.8+4.2	
	安云先	安	0	5.6	0	5.6	
	柳性西	柳	0	0	0	4.8	
	尹萬興	尹	0	3.2+7+11.6+ 11.8+4.8	0	0	
	尹有德	尹	0	24+3+15.8+ 7.7+11+32+ 8.4	0	24+3	
	尹允丹	尹	0	10.8	0	10.8	
	尹二月	尹	0	2.2	0	0	
	尹忠卜	尹	0	22.9+8.3+3.8	0	0	
	李寬業	李	0	8.2	0	0	
	李德三	李	0	0	0	2.2	
	李莫乭	李	0	13.8	0	13.8	
	李卜萬	李	0	0	0	7	
	李卜成	李	0	6.5+9.4	0	6.5+ 9.4	
	李分丹	李	0	5.4+12.5+12.3+2.4	0	12.5+12.3+2.4	지심인
	李相俊	李	0	5.2+6.5	0	5.2	
	李小興	李	0	0	0	22.9+8.3+3.8	
	李元潤	李	0	0	0	11	
	李有乭	李	0	4.4	0	0	
	李銀分	李	0	0	0	4.4	
	李且奉	李	0	3.6	0	0	
	李判今	李	0	0	0	8.4	
	李興大	李	0	4.2+19.2+5+18.6+4.6+3.7	0	5+ 18.6	
	韓萬守	韓	0	1	0	1+2.4+5.4	
	洪德化	洪	0	0	0	11.6+4.6	
	계		0	351.9	0	351.9	
先加里	朴相玄	朴	0	0	0	6	
	朴元心	朴	0	0	0	19.2	
	朴希千	朴	0	0	0	17.2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嚴性文	嚴	0	0	0	14.5	
	柳白元	柳	0	0	0	5.2	
	尹萬興	尹	0	7.5+ 14.5+6+ 19.3	0	0	
	尹有德	尹	0	6.7+ 10.6	0	0	
	李丹伊	李	0	0	0	7.5	
	李卜萬	李	0	0	0	6.7	
	李卜成	李	0	16.8	0	16.8	
	李分丹	李	0	10.2+ 5.8+12.2	0	10.2+5.8+ 12.2	
	李小興伊	李	0	0	0	10.6	
	李申丹	李	0	15.9	0	0	
	李元得	李	0	0	0	5.5	
	李元實	李	0	0	0	19.3	
	李有乭	李	0	5.2	0	0	
	李興大	李	0	5.5+ 17.2+19.2	0	0	
	韓萬守	韓	0	0	0	15.9	
	계		0	172.6	0	172.6	
乾逢水坪	朴元心	朴	0	0	0	4.1	
	宋石男	宋	0	0	0	16.2	
	申性白	申	0	0	0	8.2	
	安云先	安	0	3.8+6	0	0	
	嚴性文	嚴	0	0	0	6+3.8	
	柳桂花	柳	0	0	0	24.2+4.2	
	柳德三	柳	0	0	0	15.6	
	尹萬興	尹	0	15.6+ 16.2+26	0	0	
	尹有德	尹	0	8.2	0	0	
	尹二月	尹	0	4.1	0	0	
	尹忠卜	尹	0	12.6	0	0	
	李壵奉	李	0	6.5	0	6.5	
	李分丹	李	0	9.4	0	0	
	李石辰	李	0	9.2	0	9.2	
	李有乭	李	0	0	0	12.6+2.6	
	李春乭	李	0	0	0	9.4	
	李興大	李	0	24.2+4.2	0	0	
	李興成	李	2	0	2	0	
	崔治三	崔	0	0	0	26	
	계		2	148.6	2	148.6	
金尋坪	健陵香炭畓		0	16.2+21	0	0	
	金奉乭	金	0	17.3	0	0	
	金永順	金	0	0	0	5.1	
	金元先	金	0	0	0	3.7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金學西	金	0	0	0	20.9	
	南卜興	南	0	8.7	0	0	
	朴尙年	朴	0	0	0	24.2	
	朴永實	朴	0	0	0	9.3	
	朴元實	朴	0	0	0	13.5	
	朴元五	朴	0	0	0	13.2	
	朴希千	朴	0	0	0	8.9	
	守禦屯畓		0	10.4	0	0	
	嚴寬西	嚴	0	0	0	17.3	
	柳性九	柳	0	0	0	8.7	
	尹萬興	尹	0	14.6+ 13.2+6.7	0	0	
	尹忠卜	尹	0	12.6	0	0	
	李莫乭	李	0	0	0	10.4	
	李㦷奉	李	0	20.1+9.1+ 9.7+5.1+ 20.9+ 8.8+5	0	9.7+ 8.8+5	
	李卜成	李	0	11.2	0	11.2	
	李分丹	李	0	2.5	0	0	
	李尙俊	李	0	25.9+ 5.5+3.7	0	25.9	
	李石俊	李	0	0	0	14.6	
	李成玉	李	0	24.2+ 9.6+35.8	0	9.6+35.8	
	李元實	李	0	0	0	16.2	
	李有乭	李	0	7.2	0	7.2	
	李宗卜	李	0	7.5+ 12.4+ 18.6+1.4+ 10.6+21.3	0	7.5+ 12.4+18.6 +1.4+10.6	
	李俊卜	李	0	9.3	0	0	
	李春男	李	0	0	0	2.5+ 6.7	
	李興吉	李	0	10.1+7.6+ 6.4+5.9	0	10.1+7.6+ 6.4+5.9	
	李興大	李	0	13.5+8.9	0	0	
	李興卜	李	0	0	0	21	
	李興成	李	0	0	0	21.3	
	韓萬守	韓	0	0	0	12.6	
	黃士元	黃	0	0	0	9.1+20.1	
	계		0	458.5	0	458.5	
斗南里坪	健陵香炭畓		0	12.6	0	0	
	高業禮	高	0	4.8	0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金奉乭	金	0	6.3+10.9	0	10.9	
	金順元	金	0	0	0	10.4	
	金元先	金	0	10.2	0	10.2+6.3	
	南卜興	南	0	8.3+3.4+7.4	0	0	
	朴元實	朴	0	11	0	11+15.2	
	朴元心	朴	0	0	0	6.2	
	朴元五	朴	0	0	0	8.3	
	朴昌實	朴	0	0	0	15	
	朴喜天	朴	0	0	0	4	
	宋建五	宋	0	0	0	6.5	
	宋秀男	宋	0	4.6+6.5	0	4.6	
	安云先	安	0	8.6+14.8	0	0	
	梁性又	梁	0	0	0	20.4	
	梁永先	梁	0	0	0	14.8	
	嚴官西	嚴	0	0	0	8.7	
	嚴觀水	嚴	0	0	0	7.1	
	嚴聖文	嚴	0	0	0	7.1	
	嚴承文	嚴	0	0	0	17.8+3.4	
	嚴汝實	嚴	0	0	0	8.6+9.1	
	嚴昌實	嚴	0	0	0	6.3	
	嚴昌在	嚴	0	6.3	0	6.3	
	柳季化	柳	0	0	0	0.9	
	柳德山	柳	0	8.4	0	8.4+6.7	
	柳德仲	柳	0	9.2+2.6+14.4+4.5	0	9.2+2.6+14.4+4.5	
	柳伯元	柳	0	0	0	4.8	
	柳承九	柳	6.4	4.2+4.4+6.3	6.4	4.2+4.4+6.3	
	柳承禹	柳	0	4.2	0	7.7+7.4+8.6+4.2	
	柳承肖	柳	0	6.4	0	6.4	
	柳承煥	柳	0	0	0	16	
	柳永煥	柳	0	0	0	12.6	
	柳春實	柳	0	9	0	9	
	柳化甫	柳	0	0	0	3.1	
	尹萬興	尹	0	16.1+6.3+4.4+11.6+9.1+5.1	0	16.1	
	李莫乭	李	0	12.6+8.5	0	12.6+8.5	
	李㐂奉	李	0	1.3+7+7.1	0	1.3+7+7.1	
	李分丹	李	3	15.2+3.9+ 5.3	0	0	
	李尙俊	李	0	4.1+ 7.8	0	4.1+ 7.8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李順男	李	0	20.4	0	0	
	李永佑(又,友)	李	0	0	0	11.6+4.4+5.1	
	李玉同	李	0	7.7+2.2	0	0	
	李元實	李	0	6.9+1.3+11.3+2.7	0	6.9+1.3+11.3+2.7	
	李有乭	李	0	4	0	0	
	李俊卜	李	0	3.1+14.2+8.7+17.8+8.6+10.4	0	0	
	李中完	李	0	2.6	0	2.6	
	李判今	李	0	0	0	3.9+5.3	
	李判孫	李	0	4.4+2	0	4.4+2	
	李興吉	李	0.5+1.3+1.1	0	0.5+1.3+1.1	0	
	李興大	李	0	15+16+0.9+6.2	0	0	
	李興成	李	6+4.2	0	6+4.2	0	
	黃士元	黃	0	0	3	0	
	계		22.5	487.8	22.5	487.8	
木長洞	安云先	安	0	4.3	0	0	
	柳承九	柳	0	11+5	0	11+5	
	柳承禹	柳	0	0	0	4.3	
	柳在云	柳	0	0	0	5.1	
	柳化甫	柳	0	0	0	5.6	
	尹萬興	尹	0	26.4	0	0	
	李俊卜	李	0	5.1+5.6	0	0	
	池元白	池	0	0	0	26.4	
	계		0	57.4	0	57.4	
銀夜坪	姜乭釗	姜	0	7	0	7	
	健陵香炭畓		0	7.9	0	0	
	高永化	高	0	0	0	4.6	
	權大塾	權	20.5	0	20.5	0	
	金奉乭	金	36.4	10.4	36.4	0	
	金順元	金	0	0	0	4.8	
	金永順	金	2.1	0	2.1	0	
	金元先	金	0	9.6	0	9.6+17.4+15.4+1.8	
	南卜興	南	0	9.9+4.2+2.8	0	0	
	安卜實	安	0	8.8	0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嚴觀承	嚴	0	6.4	0	6.4	
	嚴承又	嚴	0	0	0	4.2	
	嚴汝實	嚴	0	0	0	4.8	
	嚴昌實	嚴	0	2.1	0	2.1	
	嚴昌在	嚴	0	4.3	0	4.3	
	柳季化	柳	8.4	2.7	8.4	2.7	
	柳成七	柳	0	6.1+1.3	0	6.1+1.3	
	柳順明	柳	0	0	0	9.9	
	柳承九	柳	0	4.2+11.7	0	4.2+11.7	지심인
	柳承禹	柳	31.2+1.1	0.8+ 16.2+1.3	31.2+1.1	0.8+2.4+ 16.2+1.3	
	柳承七	柳	0	6.6+7.5	0	6.6+7.5	
	柳在云	柳	0	7.7	0	7.7+10.4	
	柳化甫	柳	0	0	0	8.8	
	尹季孫	尹	0	3.4	0	0	
	尹萬興	尹	0	4.6	0	4.6	
	李莫乭	李	20.2	0	20.2	0	
	李石眞	李	5	2.1	5	2.1	
	李成五	李	0	0	0	3.4	
	李小中安	李	0	3.8	0	3.8	
	李順男	李	0	4.8+4.8	0	0	
	李玉同	李	0	2.4	0	0	
	李元實	李	0	10.8	0	10.8	
	李俊卜	李	0	4.6+ 15.4+ 17.4+11.5	0	0	
	李中安	李	11.8+10.2	0	11.8+10.2	0	
	李春男	李	4.2	0	4.2	0	
	林在謙	林	0	0	0	7.9	
	崔汝三	崔	0	0	0	11.5	
	계		151.1	226.9	151.1	226.9	
鹿場坪	金明順	金	0.8+ 3.1+ 16	0	0.8+ 3.1+1+16	0	
	金元先	金	0	0	0	4.8+ 1.6	
	朴基天	朴	0	0	0	11	
	朴尙年	朴	0	0.5	0	0.5	
	朴成年	朴	5.3	0	5.3	0	
	朴元根	朴	0.3	0	0.3	0	
	朴元實	朴	1.6+4.3	0	1.6+4.3	0	
	朴元五	朴	0.9+1.5+ 3.1	0	0.9+1.5+ 3.1+10.1	6.9	
	朴昌實	朴	4.4+1+0.9	0	4.4+1+0.9	0	
	朴喜天	朴	6.2	1.7	6.2	1.7	
	守禦屯田畓		10.1	13.8+	0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11+5.4			
	申化京	申	1.6	0	1.6	0	
	安云西	安	4.2	0	4.2	0	
	嚴汝深	嚴	10.2	0	10.2	0	
	柳化甫	柳	0	0	4.8	0	
	尹萬興	尹	0	4.8	0	0	
	李觀業	李	13.8	0	13.8	0	
	李局曲	李	1.5	0	1.5	0	
	李㦷奉	李	4.8	0	0	0	
	李卜萬	李	4.3+0.8	0	4.3+0.8	0	
	李卜成	李	0.4+2+2.5	0	0.4+2+2.5	0	
	李分丹	李	2.9+1	1.6	2.9+1	0	
	李尙俊	李	6.3	0	0	0	
	李成玉	李	26.4	0	26.4	0	
	李小從吉	李	2.6	0	2.6	0	
	李承乭	李	0.5	0	0.5	0	
	李時每	李	6.1	0	6.1	0	
	李永祚	李	0	4	0	0	
	李又成	李	2.2	0	2.2	0	
	李元得	李	3.5+6	0.6	3.5+6	0.6	
	李元實	李	0	0	0	4	
	李有乭	李	0.5	0	0.5	0	
	李從吉	李	3.7	0	3.7	0	
	李竹乭	李	1.6+ 0.6	0	1.6+ 0.6	0	
	李春乭	李	2.1	0	2.1	0	
	李台成	李	4.3	0	4.3	0	
	李判今	李	3.5+7.7+ 1.4	0	3.5+7.7+ 1.1	0	
	李判潗	李	1.1	0	1.1	0	
	李判孫	李	3.1+2.6	0	3.1+2.6	0	
	李畢乭	李	5.6	0	5.6	0	
	李弘禮	李	1	0	0	0	
	李興大	李	1.5	0	1.5	0	
	張致壽	張	0	8.3	0	8.3	
	全學西	全	1.7	0	1.7	0	
	鄭基石	鄭	1.9	0	1.9	0	
	蔡永眞	蔡	0	4.4	0	4.4	
	崔大興	崔	0	0	0	5.4	
	韓萬壽(水)	韓	1.2+9.4	0.6	1.2+9.4	0.6+6.9	지심인
	洪德化	洪	2	0	2	0	
	黃士元	黃	9.3	0	9.3+6.3	0	
	계		228.6	56.7	228.6	56.7	
西田坪	姜昌成	姜	15.6+10.1	0	15.6+10.1	0	
	金奉乭	金	0	7.3	0	0	
	金永元	金	0	0	0	11.8	
	金永俊	金	0	0	0	13.3+5.4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金元先	金	0.8	0	0.8	0	
	金在卜	金	0	12.6	0	0	
	金從西	金	2	0	2	0	
	金致云	金	0	0	0	12.7	
	南卜興	南	3.8	11.8+ 10.3+8.4+ 15.7+12.7	0	0	
	朴四月	朴	2.8	0	2.8	0	
	朴元實	朴	0.5+1+2.9	0	0.5+1+2.9	0	
	朴元心(深)	朴	9+0.5	0	9+0.5	0	
	朴昌實	朴	0.5	0	0.5	0	
	朴喜天	朴	0.9	0	0.9	0	
	徐相玉	徐	0	0	0	15.7	
	宋萬一	宋	0	0	0	12.6	
	安卜實	安	0	8.7+ 5.4	0	0	
	嚴寬西	嚴	7.3	0	7.3	0	
	嚴寬水	嚴	3.6	2	3.6	2	
	嚴承禹	嚴	0	0	3.8	0	
	嚴昌實	嚴	12.5	0	12.5	0	
	柳季化	柳	10.6	0	10.6	0	
	柳德中	柳	4.4	0	4.4	0	
	柳白元	柳	0	7.4	0	7.4+7.3	
	柳善明	柳	1.6	0	1.6	0	
	柳性七	柳	5	0	5	0	
	柳承禹	柳	7.2+0.8	0	7.2+0.8	0	
	柳承七	柳	0	4.7+2.9	0	4.7+2.9	
	柳承桓	柳	15.5	0	15.5	0	
	柳在元	柳	1.3	0	1.3	0	
	柳化甫	柳	0	0	0	10.3+8.7	
	李德昌	李	1.5	0	1.5	0	
	李唜奉	李	0.7+5.7+ 1.4	0	0.7+5.7+ 1.4	0	
	李分丹	李	8	0	8	0	지심인
	李成玉	李	7.7	0	7.7	0	
	李小吉	李	1.8	0	1.8	0	
	李順男	李	0	13.3+4.8	0	4.8	
	李承詹	李	0	0	0	3.3	
	李元實	李	1.4	4.7	1.4	4.7	
	李有實	李	1.9	0	1.9	0	
	李太弘	李	0.4	0	0.4	0	
	全學西	全	0	0	1.4	0	
	丁善益	丁	6.4	0	6.4	0	
	趙善得	趙	0	5.4+3.3+ 4.1	0	4.1	
	崔承敎	崔	0	0	0	8.4+5.4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韓萬水	韓	3	0	3	0	
	洪德化	洪	5.8+1.2	0	5.8+1.2	0	
	계		167.1	145.5	167.1	145.5	
見山前坪	姜昌成	姜	0	22.2	0	0	
	高業禮	高	0	13.8	0	0	
	金在卜	金	0	1.3	0	0	
	嚴汝實	嚴	0	0	0	6.3	
	嚴昌實	嚴	0	0	0	2.2	
	柳德仲	柳	0	8.3	0	8.3	
	柳乭男	柳	0	30.8	0	30.8	
	柳伯元	柳	10.4+3.1	0	10.4+3.1	0	
	柳性九	柳	0	0	0	13.8	
	柳性玄	柳	0	0	0	22.2	
	柳永實	柳	0	0	0	7.3	
	柳永桓	柳	0	0	0	1.3	
	尹萬興	尹	0	8+44.6+11 + 2.2	0	0	
	李聖愈	李	0	0	0	4.9	
	李順男	李	0	6.3	0	0	
	李永云	李	0	0	0	9.7+8+44. 6+11	
	李永祚	李	0	0.8	0	0.8	지심인
	李興大	李	0	9.7	0	0	
	鄭道學	鄭	0	7.3	0	0	
	趙順得	趙	0	4.9	0	0	
	계		13.5	171.2	13.5	171.2	
見山里	姜乭成	姜	0	0.3	0	0.3	
	姜召史	姜	0	0	0.8	0	
	健陵香炭畓		0	2.9	0	0	
	高業禮	高	4.7+(2.6)	0	0	0	
	高永化	高	0	0	2.5	0	
	高邑禮	高	(3.1)	0	0	0	
	官屯田		5.4	0	0	0	
	金寬汝	金	0	0	4.5+(3.4)	0	초4간
	金奇順	金	1	0	1+(2.3)	0	초3간
	金萬有	金	0	0	0	2.9	
	金奉乭	金	7.5	0	0	0	
	金順元	金	0	0	2.2+(2.4)	0	초3간
	金永先	金	0	0	1.1+(1.1)	0	초3간
	金永順	金	1.9+1.5+ 4.3+ (2.9)+(2.9) +(2.3)+(1. 8)+(1.1)+	15.8	1.9+4.3+ (3.7)	15.8	초7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2)+ (2.6)+(2.3) +(3.7)				
	金永元	金	0	0	(2)	0	초5간
	金永俊	金	2.7	0	2.7+(2.9)	0	초4간
	金元先	金	0	0	(4.1)	0	초3간
	金元俊	金	1.1	0	1.1+ (3.1)	0	초5간
	金元七	金	0	0	(2.9)	0	초4간
	金治云	金	0	0	3.1+5.4+ (2.6)	0	초4간
	南卜興	南	2.1+6.9+ 1.5+9.6+ 19.4+(2.7)	0	0	0	
	內需司田		1.1	0	0	0	
	徐上玉	徐	0	0	19.4+(2)	0	초3간
	安卜實	安	9	0	9	0	
	嚴寬西	嚴	0	0	7.5+(1.7)	0	초3간
	嚴寬水	嚴	0	0	5.8+(1.3)	0	초3간
	嚴性文	嚴	0.9	0	1.5+0.9	7.1	
	嚴召史	嚴	0	0	1.5	0	
	嚴順業	嚴	0.9	0	0.9	0	
	嚴承文	嚴	0	0	(2.7)	0	초3간
	嚴汝實	嚴	0	0	8.3+2.3+ (2.5)	0	초2간
	柳德中	柳	3.3+ (2.7)+(1.1)	0	0	0	
	柳性九	柳	10.1	0	2.8+ 10.1+(2)	0	초5간
	柳性慕	柳	1.9+(3.3)	0	1.9+(3.3)	0	초8간
	柳性西	柳	0	0	(2.1)	0	초3간
	柳性又	柳	0	0	4.7+ (2.6)	0	초4간
	柳成七	柳	(2.3)	0	(2.3)	0	초6간
	柳順七	柳	3.8	0	3.8	0	
	柳寧實	柳	0	0	(1.8)	0	초5간
	柳用順	柳	0	0	2.6	0	
	柳化甫	柳	0	0	(1.1)	0	초3간
	李季化	李	0	0	(2.6)	0	초6간
	李莫乭	李	2.6+(2.4)	0	0	0	
	李上俊	李	2.5+ 9.5+ (1.7)+(1.3) +(1.3)	0	0	0	
	李石兆	李	1.5	0	1.5+(2.4)	0	초4간
	李錫辰	李	0	0	(2.3)	0	초3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李成五	李	0	0	(1.9)	0	초3간
	李性七	李	7.2+ 2.6	0	7.2+2.6	0	
	李順男	李	6.6+2.8+ 0.8+8.3+ (2.1)+(7.3) +(2.4)	0	6.6	0	
	李元實	李	3.5	0	3.5+ (7.3)	0	초5간
	李應雨	李	0	0	(3.1)	0	초7간
	李俊卜	李	2.3+4.5+ 2.2+ (3.8)+(2.5) +(3.1)+ (3.4)+(3.1) +(2.6)	0	0	0	
	李俊伊	李	0	0	9.5+(1.8)	0	초3간
	李仲安	李	20.6+20.8 +9.4+ (5.1)	1	20.6+20.8 +9.4+ (5.1)	1	초4간
	李春斤	李	0	0	(3.4)	0	초4간
	李春男	李	1.7+ (1.8)	0	9.6+ 1.7+ (3.8)	0	초8간
	李治弘	李	0	0	(3.1)	0	초3간
	李太弘	李	0	0	(2.4)	0	초3간
	李興大	李	5.8+(2)+ (2)+(4.1)	0	0	0	
	李興孫	李	0	0	1.2+ 28.2+(2.7)	0	초3간
	鄭道學	鄭	1.2+ 28.2+2.6+ (1.3)	7.1	0	0	
	趙奉九	趙	1	0	1	0	
	趙順得	趙	3.1+ (1.8)+(1.9) +(1.5)+(3. 4)+(2.4)+ (2.3)	0	0	0	
	崔性敎(交)	崔	0	5.2	(1.5)	5.2	초5간
	崔汝三	崔	0	0	2.6+(1.3)	0	초2간
	崔春先	崔	2.8	0	2.8+(2.3)	0	초2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韓順兆	韓	0	0	6.9+(1.8)	0	초4간
	洪德寬	洪	0	0	(1.3)	0	초2간
	洪德化	洪	0	0	2.1	0	
	계		254.7(106)	32.3	254.7(106)	32.3	초164간
長澔坪	姜乭成	姜	0	3.8+ 0.8+	0	3.8+0.8	
	姜昌成	姜	0	27.2+ 4.9+12.6+ 10.1+ 22.5+ 21.5+ 4.5+ 40.6	0	0	
	健陵香炭田 畓		26.3	41+ 16.8+7+ 33.6+16.4 +10.5	0	0	
	高性九	高	0	0	0	16.8	
	高業禮	高	6.6	7.2	0	0	
	官屯田畓		18.2+7.3	36.2+ 30.8+14.6	0	0	
	金基順	金	0	2.5	0	2.5	
	金德吉	金	0	0	0	13.9	
	金萬奉	金	0	0	0	13.6	
	金奉乭	金	0	12.3+ 20.2+ 6.6+ 10.2+ 2.8+3.5+ 13.5	0	0	
	金上男	金	0	0	0	11.9	
	金善良	金	6.6+ 15.6+18.7	0	6.6+ 15.6+18.7	0	
	金成乭	金	13.4	0	13.4	0	
	金順吉	金	0	0	0	16.4	
	金順元	金	0	0	11.2	0	
	金永先	金	0	0	0	17.1+2.4	
	金永順	金	2.8+ 16.3+10.6	11.3+20.4	2.8+ 16.3+10.3	11.3+20.4	
	金永完	金	0	0	0	2.6	
	金永元	金	2.6	0	2.6	10.3+10.1 +4.5+4.9	
	金永俊	金	0	4.9	0	4.9+12.7	
	金元先	金	0	0	0	5.7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金元俊	金	26.6+21.8	12.1	26.6+21.8	13.4+12.1 +24.2+7.2 + 12.6	
	金元七	金	0	2.1	0	2.1	서로 · 북로
	金元七	金	10.3	0	10.3	11.4	
	金元八	金	0	0	0	26.2+2.4	
	金鍾成	金	0	0	2.3	16.9	
	金昌卜	金	0	0	0	6.6+3.5+ 10.2	
	金春日	金	8.6	0	8.6	0	
	金致五	金	0	0	3.2	0	
	金治(致)云	金	0	0	5.3	15.7+15.15 +1.8+15.6 +13.5	
	金學甫	金	0	7.7	0	7.7	
	南卜興	南	0	3.3+ 16.3+ 20.9+3.9	0	0	
	南雙今	南	0	16.9	0	0	
	內需司田畓		10.5	2.4+11.9	0	0	
	朴根實	朴	0	0	0	20.2+2.8	
	朴大成	朴	0	1.8	0	0	
	朴大興	朴	5.3	0	0	0	
	朴上云	朴	7.4	0	7.4	0	
	邊性化	邊	0	0	0	22.5	
	徐寬乭	徐	0	5.7	0	0	
	孫意寬	孫	8.9	0	8.9	0	
	宋明先	宋	0	0	0	10.5	
	宋成男	宋	9.1	19.8	9.1	16.2+19.8	
	安德辰	安	0	0	0	10.75	
	安卜實	安	0	6.4+6.9	0	0	
	梁成業	梁	0	0	0	14.6+36.2	
	梁占孫	梁	0	11.4+ 24.2+ 16.2+11+ 26.2	0	0	
	嚴寬西	嚴	0	0	5	4.3	
	嚴順業	嚴	0	0	0	3.9+3.3	
	嚴昌實	嚴	0	0	0	12.3	
	禹世分	禹	3.5	0	3.5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禹有禮	禹	9.5	0	9.5	0	
	柳光必	柳	0	11	0	11	
	柳寧實	柳	7.2	0	7.2	0	
	柳石熙	柳	0	0	18.2	10.3+13.6 +12.6	
	柳性七	柳	0	4.7	0	4.7	
	柳寧實	柳	0	9.2+6+ 9.6+9	0	9.2+6+9.6 +9	
	柳永七	柳	2.5	0	2.5	0	
	尹季孫	尹	13.4	20.6+ 2.6+17.1+ 10.5+18+ 14.5+ 5.4+2.4+ 11.9+ 17.6+ 12.7+ 7.2+16.7	0	0	
	尹月奉	尹	0	0	0	15.15	
	李今甫	李	16.1	0	16.1	0	
	李洛仁	李	0	0	0	10.5	
	李德順	李	0	0	0	18	
	李密今	李	17.8	0	17.8	0	
	李奉基	李	0	16	0	16	
	李石兆	李	0	0	6.6	9.35	
	李成五	李	0	11	0	11+ 17.6	
	李所回	李	24.7	0	24.7	0	
	李水男	李	35.9	0	35.9	0	
	李水億	李	8.6+6.6	0	0	0	
	李良孫	李	0	41.6	0	41.6	
	李永雨	李	0	0	0	12.7	
	李永元	李	0	0	0	11	
	李元西	李	0	0	0	7	
	李元實	李	8.8	7	8.8	7	
	李應雨	李	0	0	0	9.5	
	李俊卜	李	11.2+14.6	4.3+ 12.7+5	0	0	
	李仲安	李	0	6.3	0	6.3	
	李春男	李	0	0	13.15	20.9+6.6+ 12.1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李治寧	李	13.5	0	13.5	0	
	李興大	李	0	9.5	0	0	
	林敬實	林	0	0	13.15	20.5	
	林士年	林	0	0	0	20.5+16.8	
	作廳田畓		3.2	13.9	0	0	
	張永先	張	0	0	13.4	30.8	
	鄭道學	鄭	0	6.6+ 13.6+ 12.6+24.2	0	0	
	鄭十月	鄭	14.6	0	14.6	0	
	鄭元在	鄭	0	0	0	13.5	
	趙奉九	趙	7.6+ 2.3	0	7.6	0	
	趙順得	趙	0	8.3+15.6+ 30.3+ 18.7+ 13.4+15.7	0	0	
	趙仁奉	趙	1.5+6.4	0	1.5+6.4	0	
	崔性寬	崔	22.9	0	22.9	0	
	崔性交	崔	3.9	0	3.9	6.4+7.2+ 6.9	
	崔汝三	崔	0	0	0	13.6	
	崔春先	崔	0	0	0	16.3+11.9	
	崔春化	崔	0	0	0	13.6	
	崔治德	崔	0	0	7.3	0	
	韓順交	韓	0	0	0	12.1+8.3	
	韓順祖	韓	8.2	0	8.2+6+14. 6+10.5	5.4+ 9.35+14.5 +16.7	
	玄敬叔	玄	0	0	8.6+ 6.6	0	
	玄興祿	玄	0	0	0	10.75	
	洪成玉	洪	0	0	0	13.5	
	洪義成	洪	0	0	0	16.8	
	계		524	1190.9	524	1190.9	
新里前後坪	權南伊	權	0	0	11	0	
	權順得	權	22.8	0	22.8	0	
	金甫京	金	16.9+2.4	0	16.9+2.4	0	
	金奉乭	金	7.8	0	0	0	
	金成乭	金	32.9	0	32.9	0	
	金春元	金	5.8	0	5.8	0	
	金春日	金	7	0	7	0	
	南性文	南	29.9	0	29.9	0	
	南雙今	南	3.7	0	3.7	0	
	朴啓玄	朴	0	0	20.6	0	
	朴根實	朴	14.3+5.2	25.9+ 0.8	5.2	25.9+0.8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朴基日	朴	1.1+ 6.1+ 2.4	0	1.1+ 6.1+ 2.4	0	
	朴大興	朴	30.7	0	0	0	
	朴上云	朴	34	0	34	0	
	朴昌玄	朴	15.8	0	15.8	0	
	邊性三	邊	0	0	25.2	0	
	邊春日	邊	25.2	0	0	0	
	宋萬一	宋	0	0	6.6	0	
	宋明先	宋	0	0	2.6	0	
	安成得	安	1.6+7.9	0	1.6+7.9	0	
	禹禮化	禹	1.4	0	1.4	0	
	禹伊男	禹	2.3	0	2.3	0	
	禹井山	禹	8.8	0	0	0	
	禹太山	禹	14.7	0	14.7	0	
	禹興禮	禹	11.8+6.4+ 10.2	0	11.8+6.4+ 10.2	0	
	柳德三	柳	0	0	5.5	0	
	柳成實	柳	8.1	0	8.1	0	
	柳性安	柳	0	0	7.8	0	
	柳性儀	柳	2	0	2	0	
	柳學汝	柳	0	0	2.9	64.5	
	尹月奉	尹	15+0.8	0	15+0.8	0	
	李德有	李	5.5+6.6+ 2.9	64.5	0	0	
	李士兼	李	4.2	0	4.2	0	
	李成甫	李	17.6+11.6	0	17.6	0	
	李小水億	李	8.8	0	0	0	
	李順禮	李	32.2	0	32.2+8.8	0	
	李元西	李	0	0	30.7	0	
	李日先	李	11	0	0	0	
	李宗釗	李	16.1+10	0	16.1+10	0	
	李春得	李	0	0	11.6	0	
	李興山	李	7.9	0	9.7	0	
	林元俊	林	20.6	0	0	0	
	張永先	張	2.6	0	0	0	
	全今奉	全	0	0	8.8	0	
	崔乭奉	崔	2.5	0	2.5	0	
	崔成乭	崔	0	8.9	0	8.9	
	韓萬甫	韓	0	0	14.3	0	
	韓順兆	韓	4.1	0	0	0	
	韓元三	韓	0	0	4.1	0	
	계		507.2	100.1	507.2	100.1	
新里洞	姜乭成	姜	5.5	0	5.5	0	
	高君實	高	2.3+5.5+	0	1.2+2.3+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3.2+2.1		5.5+3.2+ 2.1		
	高永化	高	2	0	2	0	
	權貴孚	權	2.9	0	2.9	0	
	權今禮	權	9.8	0	9.8	0	
	權大成	權	9.4+4	0	9.4+4	0	
	權小宗今	權	2.8	0	2.8	0	
	權順成	權	5.4+1.8	0	5.4+1.8	0	
	權五男	權	9.9	0	9.9	0	
	金明先	金	7.2	0	7.2	0	
	金明伊	金	5.7	0	0	0	
	金成孚	金	(2.5)+ (2.5)+(3.8)	0	(3.8)	0	초2간
	金水每	金	10.1	0	10.1	0	
	金永先	金	2.2	0	2.2	0	
	金永俊	金	2.1	0	2.1	0	
	金元先	金	11.7+11	0	11.7+11	0	
	金元七	金	8.8+4.5+ 4.9	0	8.8+4.5+ 4.9	0	
	金元八	金	0	1.2	(2.5)	1.2	초2간
	金伊分	金	14	0	14	0	
	金春日	金	0	0	12.8	0	
	金學成	金	26.7	0	0	0	
	朴順吉	朴	9.2	0	9.2	0	
	朴元白	朴	0.8+ 10.4+4.5	0	0.8+ 10.4+4.5	0	
	朴浩辰	朴	10.5+14.7	0	0	0	
	方基寧	方	26.3+11.7 +4	0	26.3+11.7 +4	0	
	方基浩	方	0	0	3.3	0	
	方德海	方	0	6.7	0	6.7	
	宋根必	宋	0	0	(2.5)	0	초3간
	宋萬一	宋	0	0	1.3+(2.3)	0	초3간
	宋明先	宋	0	0	(0.8)	0	초2간
	宋成男	宋	12+ 11.3+2+ 15.4+2.2+ 3.3+ 1.6	0	12+ 11.3+2+ 15.4+2.2+ 1.6	0	
	宋水男	宋	26.4+8.3+ 5.9	2.2	26.4+8.3+ 5.9	2.2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安卜實	安	24.4	0	24.4	0	
	嚴寬水	嚴	5.9	0	5.9	0	
	嚴性文	嚴	4.4+0.5	0	4.4+0.5	0	
	嚴如實	嚴	6.4+1.4	0	6.4+1.4	0	
	嚴昌實	嚴	2.2	0	2.2	0	
	龍成白	龍	5.5	0	5.5+(3.3)	0	초5간
	禹九今	禹	16.1	0	16.1	0	
	禹萬今	禹	2	0	2	0	
	禹世化	禹	11.8+7.6	0	11.8+7.6	0	
	禹小禮化	禹	3+ 12.9	0	3	0	
	禹小次今	禹	1.8	0	1.8	0	
	禹禮化	禹	9.2	0	9.2+5.7	0	
	禹有禮	禹	19.2+11.9 +7.4+ 11.2+11.2	0	19.2+11.9 +7.4+ 11.2+11.2	0	
	禹伊男	禹	3.6+ 8.5	0	3.6+ 8.5	0	
	柳德三	柳	24.2	0	24.2+11.1 +(1.9)	0	초2간
	柳德重	柳	10.4+6.2	0	10.4+6.2	0	
	柳白元	柳	11.4	0	11.4	0	
	柳性九	柳	5+5.4+1.1 +2.2+6.8	0	1.1+2.2+ 6.8	0	
	柳性儀(義)	柳	10.6+2.6+ 13.8+7.2+ 4.8+(2.5)	4.6	10.6+2.6+ 13.8+7.2+ 14.7+4.8+ (2.5)	0	초4간
	柳性熙	柳	0	0	5+5.4	0	
	柳順禮	柳	2.3	0	2.3	0	
	柳承七	柳	0.7	0	0.7	0	
	柳汝弘	柳	0	0	(2.5)	0	초2간
	柳永煥	柳	3.5	0	3.5	0	
	柳日基	柳	42.9+10.1 +2.9	0	10.1+2.9	0	
	柳俊吉	柳	12.8	0	12.8	0	
	柳春實	柳	16.7	0	16.7	0	
	柳學汝(如)	柳	1	0	4.9+ 10.3+1+ (2.5)	0	초3간
	兪如弘	兪	0.5	0	0.5	0	
	尹季孫	尹	4.9+ 12.8+1.9+ 11.1+10.3+	0	0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1.9)+(0.8) +(2.5)				
	尹七星	尹	9.9	0	9.9	0	
	李德有	李	1.3+ (2.5)+(2.3)	0	0	0	
	李敏甫	李	2.1	0	2.1	0	
	李分丹	李	3.4+ 1.2+ 2.4	0	2.4	0	
	李性德	李	5+1.2	0	5	0	
	李性僉	李	0	0	12.9	0	
	李小尙今	李	7.9	0	7.9	0	
	李順得	李	10.4	0	10.4	0	
	李順禮	李	14.8	0	14.8	0	
	李順任	李	15.7	0	15.7	0	
	李五石	李	2.9	0	2.9	0	
	李玉占	李	4.9	0	4.9	0	
	李用五	李	1	0	1	0	
	李元實	李	19	0	19	0	
	李坐用	李	1.3	1.6	1.3+ 1.9	1.6	
	李仲安	李	4	0	4	0	
	李春男	李	3	0	3	0	
	李春得	李	9.2	0	9.2	0	
	李判今	李	14.2+13.4	0	14.2+13.4	0	
	李化順	李	4.5+8.2	0	4.5+8.2	0	
	林士年	林	8.7	0	8.7	0	
	趙化西	趙	0	0	42.9	0	
	崔敬申	崔	11	0	11	0	
	崔寬叔	崔	0	0	10.5+1.2	0	
	崔寬植	崔	0	0	3.4	0	
	崔得卜	崔	15.8	0	15.8	0	
	崔萬釗	崔	4.5+8.4	0	4.5+8.4	0	
	崔卜萬	崔	10.4+26.6 +6.4+ (0.7)	0	10.4+26.6 +6.4+ (0.7)	0	초3간
	崔三每	崔	0	12.4	0	12.4	
	崔成乭	崔	35.2+2.7+ 9.6	0	35.2+2.7+ 9.6	0	
	崔成七	崔	4.9	0	4.9	0	
	崔小卜同	崔	5	0	5	0	
	崔小分	崔	10.9	0	10.9	0	
	崔小詮釗	崔	10.2+1.2	0	10.2+1.2	0	
	崔水甲	崔	20.8	0	20.8	0	
	崔水先	崔	13.9	0	13.9	0	
	崔水釗	崔	23	0	23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崔順潯	崔	5.9	0	5.9	0	
	崔順西	崔	18	0	18	0	
	崔順辰	崔	6+3.7	0	6+3.7	0	
	崔申潯	崔	9.6+9.9	0	9.6+9.9	0	
	崔雄先	崔	7.4	0	7.4	0	
	崔在今	崔	0	5.2	0	5.2	
	韓啓分	韓	15.1	0	15.1	0	
	玄石兆	玄	0	10.8	0	10.8	
	洪卜仁	洪	0	0	26.7	0	
	洪學成	洪	(3.3)	0	0	0	
	계		1264.5 (25.3)	54.6	1264.5 (25.3)	54.6	초31간
長安坪	金九西	金	5.5	0	5.5	0	
	金萬用	金	9.4	0	9.4	0	
	金才卜	金	0	7.7+18+ 12.8+2.7+ 7.2	0	0	
	金化三	金	0	11	0	11	
	南卜興	南	0.9	12+ 11.9	0.9	11.9	
	盧興西	盧	0	9.6	0	9.6	
	朴京云	朴	0	0	0	18+7.2+ 1.3+1.7	
	朴京才	朴	10.8	10.5	10.8	10.5	
	朴京直	朴	6.6	0	6.6	0	
	朴順吉	朴	6.8	8.8+2.6	6.8	8.8+2.6	
	朴順孫	朴	7	8.1+3+8.4	7	8.1+3+8.4	
	朴云先	朴	11.4	0	11.4	0	
	朴云集	朴	14.3	14.4	14.3	14.4	
	朴元得	朴	0	5+12	0	5+12	
	方德亥	方	0	7.7	0	7.7	
	宋萬一	宋	0	0	0	14.2	
	宋成男	宋	0	6.7	0	6.7	
	宋水男	宋	0	7.6	0	7.6	
	嚴汝心	嚴	33.4	0	33.4	6.4+7.7+ 12.8	
	禹時化	禹	8.4	0	8.4	0	
	柳寬甫	柳	5.4	4.3	5.4	4.3	
	柳德三	柳	0	0	0	7	
	柳中吉	柳	6.8	0	6.8	14.7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柳學汝	柳	0	4	0	4	
	劉建一	劉	0	0	0	6+2.7+8.4	
	尹七星	尹	0	2	0	2	
	李京三	李	0	0	0	6.4	
	李萬北	李	10.8+4.8	0	10.8+4.8	0	
	李彿乭	李	5.8	0	5.8	0	
	李興大	李	0	2.4+6.2+ 8.4	0	2.4	
	林京順	林	0	0	0	6.4	
	作廳田		3.6	0	0	0	
	鄭九連	鄭	0	0	0	6.2	
	鄭德京	鄭	0	0	3.6	0	
	趙今孫	趙	0	13.6+ 19.2+1+6	0	13.6+0.1 +1	
	趙三釗	趙	0	14.7	0	0	
	陳治云	陳	1.1	0	1.1	0	
	崔甲得	崔	5.4	0	5.4	0	
	崔京中	崔	12.2	0	12.2	0	
	崔得卜	崔	13.2	4.2+3.6	13.2	4.2+3.6	
	崔萬釗	崔	5.6	0	5.6	0	
	崔士允	崔	12.8	0	12.8	0	
	崔三每	崔	12	0	12	0	
	崔先今	崔	7.2	0	7.2	0	
	崔成乭	崔	3.4	0	3.4	0	
	崔小潣	崔	7.2	0	7.2	0	
	崔小得卜	崔	5.4+13	5.4	5.4+13	5.4	
	崔小三每	崔	9	0	9	0	
	崔水甲	崔	12+9.4	0	12+9.4	0	
	崔水德	崔	11.4	0	11.4	0	
	崔水孫	崔	0	0	0	12	
	崔順得	崔	0	3.4	0	3.4	
	崔申得	崔	11.9	0	11.9	0	
	崔申每	崔	13.2	0	13.2	0	
	崔雄先	崔	9.1+2	3.9	9.1+2	3.9	
	崔才信	崔	0	12.2	0	12.2	
	崔致德	崔	0	13.6	0	13.6	
	崔興玉	崔	7.8	0	7.8	0	
	韓萬北	韓	9	0	9	0	
	香炭畓		0	14.2+7	0	0	
	계		345	340.1	345	340.1	
新場里後越川城	金才卜	金	10	0	0	0	
北前坪	朴京才	朴	3.6	0	3.6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朴順吉	朴	4.1	0	4.1	0	
	朴元得	朴	3	0	3	0	
	李治水	李	5	0	5	0	
	林京順	林	0	0	10	0	
	계		25.7	0	25.7	0	
宮坪	朴化實	朴	0	0	13.6	0	
	守禦屯畓		0	2.4	0	0	
	李莫乭	李	0	2	0	2	
	李分丹	李	0	0	0	2.4	
	李成玉	李	13.6	0	0	0	
	李判孫	李	0	7	0	7	
	李必乭	李	0	7.2	0	7.2	
	林石甫	林	4.5	0	4.5	0	
	계		18.1	18.6	18.1	18.6	
石橋坪	金元先	金	0	0	0	4	
	朴元五	朴	0	0	0	11.2	
	守禦屯畓		0	11.2+5.8+13	0	0	
	龍珠寺畓		0	22.4	0	0	
	柳性西	柳	0	0	0	10.4	
	尹萬興	尹	0	4+10.4+2.2+13	0	2.2+13	
	尹忠卜	尹	0	13.5+2.9+8.4	0	13.5+2.9	
	李丹伊	李	1.4	0	1.4	0	
	李有乭	李	0	0	0	8.4	
	李乙禮	李	0	7.8	0	7.8+13	
	李春乭	李	0	1.7	0	22.4+1.7	
	李太星	李	0	0	0	5.8	
	李判孫	李	0	20.8	0	20.8	
	鄭季德	鄭	0	1.6+8.3	0	1.6+8.3	
	계		1.4	147	1.4	147	
	金京順	金	0	19.8	0	19.8	
	金今禮	金	0	0	0	12.5	
	金卜三	金	0	0	0	5.5	
	金小元石	金	0	0	7	3.15	
	金小漢卜	金	5	0	5	0	
	金水山	金	0	2.5	0	2.5	
	金順岳	金	0	7	0	7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善山坪	金氏禮	金	0.5	0	0.5	3.1	
	金汝白	金	0	0	0	4.7	
	金元石	金	7.2	0	7+7.2	18+8.2	
	金元植	金	0	0	0	14.95	
	金二今	金	1.5	0	1.5	6.8+8.2+ 19.8	
	金二禮	金	0	8.8	0	8.8+5.4	
	金昌云	金	0	13.6	0	13.6	
	金春同	金	5	0	5	5.5+4+8.8	
	金春愛	金	0	9.6	0	9.6	
	金致公	金	0	0	0	8.6	
	金七星	金	2.5	9.6	2.5	9.6	
	金漢今	金	3.5	11+4+10+ 8.7+6	3.5	11+4+10+ 8.7+6+4.4	
	金漢卜	金	1	0	1	4	
	金弘淑	金	0	5.6	0	5.6	
	內需司畓		0	8.6	0	0	
	守禦屯畓		0	6.8+4.7	0	0	
	申季孫	申	4.8	0	4.8	3.15	
	申季順	申	0	0	0	9.3	
	安云先	安	7.8+5.7	0	7.8+5.7	0	
	梁九必	梁	0	0	0	11.2	
	梁四卜	梁	0	0	7	0	
	梁三卜	梁	0	0	0	10.8+4.6+ 6.4	
	梁順必	梁	0	0	0	23.1	
	梁五卜	梁	0	0	7	0	
	龍珠寺田畓		4.9+ 3.2+ 28	5.5+ 16.4+ 4.6+ 23.1+3.1+ 7.7+6.3+ 10.8+ 19.7+ 29.9+ 12.5+ 39.6+ 6.4+3.8+ 4.4+ 5.5+4	0	0	
	尹丹伊	尹	0	0	4.9	0	
	尹乭明	尹	0	10.6+6.7	0	10.6+6.7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尹凡丹	尹	0	13.6	0	13.6	
	尹三德	尹	0	20+18.9+11.1+6.5+13.1+9.6	0	20+18.9+11.1+6.5+13.1+9.6	
	尹三禮	尹	3.8	0	3.8	0	
	尹性根	尹	0	13.1+ 5.8+5.4+6	0	13.1+5.5+5.4	
	尹小八卜	尹	0	4.4	0	4.4	
	尹月今	尹	0	6.4	0	6.4	
	尹有德	尹	0	10.4+4.2+5+7+26.4+9.3+4.6+6+16.8+22+25.4+15.4+31.4+16.8+12.8+9	0	10.4+4.2+5+7+26.4+4.6+6+16.8+22+25.4+31.4+16.8+12.8+9	
	尹有乭	尹	0	3.9	0	3.9	
	尹允丹	尹	0	0	0	19.7+3.8+7.7	
	尹二德	尹	6+10+3.5	8.2+14.1+14.7	6+10+3.5	8.2+14.1+14.7	
	尹二月	尹	0	6.3+4	0	6.3	
	尹一(日)禮	尹	0	8.8+ 6.4	0	8.8+6.4	
	尹太奉	尹	0	3.6	3.2	3.6	
	尹八卜	尹	0	0	0	19.8	
	李道也之	李	5.2	7.5	5.2	7.5	
	李萬釗	李	0	6.2	0	6.2	
	李卜萬	李	0	18	0	18	
	李卜汝	李	0	5.3+8.4+46.8	0	5.3+8.4+46.8	
	李分丹	李	0	11.2	0	0	
	李士俊	李	0	6.8	0	6.8	
	李彷禮	李	0	4.7	0	4.7	
	李化先	李	0	15	0	15	
	張凡伊	張	4.9	9.6+3.4+23+12+4.4	4.9	9.6+3.4+23+12+4.4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鄭順乭	鄭	0	1.2+5.4+ 8.8+18	0	1.2	
	鄭汝先	鄭	0	0	0	15.4	
	崔玉先	崔	0	5.7	0	5.7	
	崔用卜	崔	0	0	0	6	
	韓季同	韓	0		0	14.95	
	韓季分	韓	0	14	0	14	
	계		114	1018.4	114	1018.4	
通味下坪	姜卜男	姜	0	5	0	5	
	金元得	金	1.1	0	1.1	0	
	金七星	金	0	0	0	5.7+9.2+ 7.8	
	白宗結	白	0	6	0	6+9.8	
	申性文	申	0	0	0	12	
	梁九必	梁	0	0	0	5.4+ 6.1	
	梁三卜	梁	0	3.2	0	3.2	
	梁五卜	梁	0	0	0	11.4+10+ 2.5	
	梁占孫	梁	0	9.2+7.8+ 5.7	0	0	
	吳明卜	吳	0	7.3	0	0	
	龍珠寺畓		0	11.4+9.1+ 9.5	0	0	
	尹伊德	尹	0	12+7.9	0	7.9	
	尹八卜	尹	0	0	0	4.55	
	尹興石	尹	0	9.6+5.1+ 9.8	0	0	
	李奉吉	李	0	6.6	0	6.6	
	李分丹	李	0	6.1+5.4	0	0	
	李有卜	李	0	0	0	7.3	
	李自斤釗	李	0	10	0	0	
	張凡伊	張	0	12	0	12	
	張汝丹	張	0	0	0	9.6	
	張在平	張	0	12.7	0	12.7	
	鄭其得	鄭	0	9.8	0	9.8	
	趙士交	趙	0	0	0	9.5	
	趙善明	趙	0	0	0	4.55	
	崔其孫	崔	0	0	0	5.1	
	崔玉先	崔	0	8.7	0	8.7	
	계		1.1	192.4	1.1	192.4	
一西面琴巖前坪 二北田	姜卜男	姜	2.6	0	2.6+ 2.6	0	
	金九月	金	24.3+4.5	0	24.3+4.5	0	
	金四月	金	0	0	8.25+9.4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金石山	金	3.9	0	3.9	0	
	金玉乭	金	0	0	4.7+2.6	0	
	金定順	金	21+7.2	0	21+7.2	0	
	金治良	金	7.6	0	7.6	0	
	金判丹	金	7.2	0	7.2	0	
	守禦屯田		7.9+16.5	0	0	0	
	梁三卜	梁	3.4	0	3.4+12	0	
	劉仁業	劉	0	0	8.25	0	
	尹性根	尹	12	0	0	0	
	尹小八卜	尹	10.8	0	10.8	0	
	尹有乭	尹	9.7	0	9.7	0	
	李德元	李	2.5	0	2.5	0	
	李卜吉	李	0	0	2.7	0	
	李奉吉	李	11.2	0	11.2	0	
	李順乭	李	0	0	12.1	0	
	張少今	張	0	0	7.9	0	
	張在平	張	12.1	0	0	0	
	丁上京	丁	4.7+7.9	0	0	0	
	趙士圭	趙	0	0	9.4	0	
	趙喆釗	趙	18.8+4.5	0	0	0	
	崔水德	崔	0	0	4.5	0	
	崔玉乭	崔	7.2	0	7.2	0	
	계		207.5	0	207.5		
土古介	金昌云	金	10.8	0	10.8	0	
	金判丹	金	2.7	0	2.7	0	
	계		13.5	0	13.5	0	

표2. 이북면 견산리 · 하북리 · 신리(성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二北面上							東接郡內
二北面上							西接二西
二北面上							南接一炭
二北面上							北接一北
二北面上下	金~鱗29字	186戶 (원157)	6442.2	8204.5			14646.7 (原13332.4) 瓦家25間, 草家702間
평균			34.6	44.1			78.7
견하산			4202 (210.1)	5821.5			10023.5 와15간 초301간
新里洞	姜乭成	姜	5.5	0	5.5	0	
見山里前坪			10.9	0	10.9	0	
見山里			0	0.3	0	0.3	
長澔坪			0	3.8+0.8	0	3.8+0.8	
銀夜坪	姜乭釗	姜	0	7	0	7	
通味下坪	姜卜男	姜	0	5	0	5	
一西面琴巖前坪 二北田			2.6	0	2.6+2.6	0	
見山里	姜召史	姜	0	0	0.8	0	
長澔坪	姜昌成	姜	0	10.1+12.6+ 40.6+4.5+ 21.5+22.5 +4.9+ 27.2	0	0	
西田坪			10.1+15.6	0	10.1+15.6	0	
見山前坪			0	22.2	0	0	
계			25.7	166.1			191.8
長澔坪	健陵香炭田 畓		26.3	16.8+33.6 +41+ 10.5+16.4+ 7	0	0	
金尋坪			0	16.2+21	0	0	
斗南里坪			0	12.6	0	0	
銀夜坪			0	7.9	0	0	
見山里			0	2.9	0	0	
계			26.3	185.9			212.2
新里洞	高君實	高	2.3+2.1+ 5.5+3.2	0	1.2+2.3+ 2.1+5.5+ 3.2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長澮坪	高性九	高	0	0	0	16.8	
長澮坪	高業禮	高	6.6	7.2	0	0	
見山里			4.7+(2.6)	0	0	0	
見山前坪			0	13.8	0	0	
見山里前坪			0	6.4	0	0	
斗南里坪			0	4.8	0	0	
見山里前坪	高永化	高	0	0	0	4.3	
見山里			0	0	2.5	0	
新里洞			2	0	2	0	
銀夜坪			0	0	0	4.6	
見山里	高邑禮	高	(3.1)	0	0	0	
長澮坪	官屯田畓		18.2+7.3	36.2+30.8 +14.6	0	0	
見山里			5.4	0	0	0	
계			30.9	81.6			112.5
新里洞	權貴乭	權	2.9	0	2.9	0	
新里洞	權今禮	權	9.8	0	9.8	0	
新里前後坪	權南伊	權	0	0	11	0	
新里洞	權大成	權	9.4+4	0	9.4+4	0	
銀夜坪	權大塾	權	20.5	0	20.5	0	
下北里	權召史	權	0	0	(1.8)	0	초3간
新里洞	權小宗今	權	2.8	0	2.8	0	
新里前後坪	權順得	權	22.8	0	22.8	0	
新里洞	權順成	權	5.4+1.8	0	5.4+1.8	0	
新里洞	權五男	權	9.9	0	9.9	0	
善山坪	金京順	金	0	19.8	0	19.8	
見山里	金寬汝	金	0	0	4.5+(3.4)	0	초4간
長安坪	金九西	金	5.5	0	5.5	0	
一西面琴巖前坪 二北田	金九月	金	24.3+4.5	0	24.3+4.5	0	
善山坪	金今禮	金	0	0	0	12.5	
長澮坪	金基順	金	0	2.5	0	2.5	
見山里	金奇順	金	1	0	1+(2.3)	0	초3간
長澮坪	金德吉	金	0	0	0	13.9	
長澮坪	金萬奉	金	0	0	0	13.6	
長安坪	金萬用	金	9.4	0	9.4	0	
見山里	金萬有	金	0	0	0	2.9	
新里洞	金明先	金	7.2	0	7.2	0	
鹿場坪	金明順	金	0.8+3.1	0	0.8+3.1	0	
新里洞	金明伊	金	5.7	0	0	0	
新里前後坪	金甫京	金	16.9+2.4	0	16.9+2.4	0	
善山坪	金卜三	金	0	0	0	5.5	
斗南里坪	金奉乭	金	0	6.3+10.9	0	10.9	
金尋坪			0	17.3	0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見山里前坪			0	2.7+12.6	0	0	
銀夜坪			36.4	10.4	36.4	0	
西田坪			0	7.3	0	0	
新里前後坪			7.8	0	0	0	
長澮坪			0	12.3+20.2 +6.6+ 13.5+10.2+ 2.8+3.5	0	0	
見山里			7.5	0	0	0	
계			51.7	136.6			188.3
防坪	金奉用	金	0	0	0	8.2	
見山里前坪	金奉辰	金	0	0	1.9	7.6	
一西面琴巖前坪 二北田	金四月	金	0	0	8.25+9.4	0	
長澮坪	金上男	金	0	0	0	11.9	
一西面琴巖前坪 二北田	金石山	金	3.9	0	3.9	0	
長澮坪	金善良	金	18.7+15.6 +6.6	0	18.7+15.6 +6.6	0	
新里洞	金成乭	金	(2.5)+(2.5) +(3.8)	0	(3.8)	0	초2간
新里前後坪			32.9	0	32.9	0	
長澮坪			13.4	0	13.4	0	
계			46.3+ (8.8)		46.3+(3.8)		
善山坪	金小元石	金	0	0	7	3.15	
善山坪	金小漢卜	金	5	0	5	0	
新里洞	金水每	金	10.1	0	10.1	0	
善山坪	金水山	金	0	2.5	0	2.5	
長澮坪	金順吉	金	0	0	0	16.4	
善山坪	金順岳	金	0	7	0	7	
銀夜坪	金順元	金	0	0	0	4.8	
斗南里坪			0	0	0	10.4	
長澮坪			0	0	11.2	0	
見山里			0	0	2.2+(2.4)	0	초3간
善山坪	金氏禮	金	0.5	0	0.5	3.1	
善山坪	金汝白	金	0	0	0	4.7	
長澮坪	金永先	金	0	0	0	17.1+2.4	
新里洞			2.2	0	2.2	0	
見山里			0	0	1.1+(1.1)	0	초3간
見山里	金永順	金	1.5+1.9+ 4.3+ (1.1)+(3.7)	15.8	1.9+4.3+ (3.7)	15.8	초7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2.3)+(2.9)+(2)+(1.8)+(2.6)+(2.9)+(2.3)				
銀夜坪			2.1	0	2.1	0	
長澮坪			2.8+10.6+16.3	20.4+11.3	2.8+10.6+16.3	20.4+11.3	
金尋坪			0	0	0	5.1	
鹿場坪			16	0	16+1	0	
계			55.5+(20.5)	47.5	55+(3.7)	52.6	103+(20.5)
長澮坪	金永完	金	0	0	0	2.6	
西田坪	金永元	金	0	0	0	11.8	
長澮坪			2.6	0	2.6	10.3+4.5+4.9+10.1	
見山里			0	0	(2)	0	초5간
見山里	金永俊	金	2.7	0	2.7+(2.9)	0	초4간
西田坪			0	0	0	13.3+5.4	
新里洞			2.1	0	2.1	0	
長澮坪			0	4.9	0	4.9+12.7	
一西面琴巖前坪二北田	金玉乭	金	0	0	2.6+4.7	0	
通味下坪	金元得	金	1.1	0	1.1	0	
防坪	金元石	金	0	0	0	32+7.7	
善山坪			0	0	0	8.2+18	
善山坪			7.2	0	7+7.2	18	
見山里	金元先	金	0	0	(4.1)	0	초3간
金尋坪			0	0	0	3.7	
鹿場坪			0	0	0	1.6+4.8	
斗南里坪			0	10.2	0	10.2+6.3	
西田坪			0.8	0	0.8	0	
石橋坪			0	0	0	4	
新里洞			11.7+11	0	11.7+11	0	
銀夜坪			0	9.6+ 1.8	0	9.6+1.8+15.4	
長澮坪			0	0	0	5.7	
見山里前坪	金元善	金	0	3+4.8	20.7	3+6.1+4.8	
善山坪	金元植	金	0	0	0	14.95	
長澮坪	金元俊	金	21.8+26.6	12.1	21.8+26.6	12.1+12.6+7.2+13.4+24.2	
見山里			1.1	0	1.1+(3.1)	0	초5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見山里	金元七	金	0	0	(2.9)	0	초4간
新里洞			4.9+8.8+ 4.5+10.3	0	4.9+ 8.8+ 4.5+ 10.3	0	
長澮坪			0	2.1	0	2.1+ 11.4	
新里洞	金元八	金	0	1.2	(2.5)	1.2	초2간
長澮坪			0	0	0	26.2+2.4	
善山坪	金二今	金	1.5	0	1.5	8.2+ 6.8+ 19.8	
善山坪	金二禮	金	0	8.8	0	8.8+ 5.4	
新里洞	金伊分	金	14	0	14	0	
見山前坪	金在(才)卜	金	0	1.3	0	0	
西田坪			0	12.6	0	0	
新場里後越川城 北前坪			10	0	0	0	
長安坪			0	18+7.2+ 7.7+ 12.8+2.7	0	0	
一西面琴巖前坪 二北田	金定順	金	7.2+21	0	7.2+21	0	
西田坪	金從西	金	2	0	2	0	
長澮坪	金鍾成	金	0	0	2.3	16.9	
長澮坪	金昌卜	金	0	0	0	6.6+ 10.2+3.5	
善山坪	金昌云	金	0	13.6	0	13.6	
土古介			10.8	0	10.8	0	
善山坪	金春同	金	5	0	5	8.8+5.5+4	
善山坪	金春愛	金	0	9.6	0	9.6	
新里前後坪	金春元	金	5.8	0	5.8	0	
新里洞	金春日	金	0	0	12.8	0	
長澮坪			8.6	0	8.6	0	
新里前後坪			7	0	7	0	
善山坪	金致公	金	0	0	0	8.6	
一西面琴巖前坪 二北田	金治良	金	7.6	0	7.6	0	북로
長澮坪	金致五	金	0	0	3.2	0	
見山里	金治云	金	0	0	3.1+5.4+ (2.6)	0	초4간
西田坪			0	0	0	12.7	
長澮坪			0	0	5.3	15.15+15.7 +1.8+15.6 +13.5	
善山坪	金七星	金	2.5	9.6	2.5	9.6	
通味下坪			0	0	0	5.7+9.2+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7.8	
土古介	金判丹	金	2.7	0	2.7	0	
一西面琴巖前坪 二北田			7.2	0	7.2	0	
長澮坪	金學甫	金	0	7.7	0	7.7	
防坪	金學西	金	0	0	0	3.6	
金尋坪			0	0	0	20.9	
新里洞	金學成	金	26.7	0	0	0	
善山坪	金漢今	金	3.5	10+6+8.7+ 11+4	3.5	10+6+4.4+ 8.7+11+4	
善山坪	金漢卜	金	1	0	1	4	
善山坪	金弘淑	金	0	5.6	0	5.6	
長安坪	金化三	金	0	11	0	11	
見山里	南卜興	南	9.6+6.9+ 2.1+1.5+ 19.4+(2.7)	0	0	0	
見山里前坪			0	9.8+5.1	0	0	
金尋坪			0	8.7	0	0	
斗南里坪			0	7.4+3.4+ 8.3	0	0	
西田坪			3.8	12.7+8.4+ 15.7+11.8+ 10.3	0	0	
銀夜坪			0	2.8+ 9.9+ 4.2	0	2.8	
長安坪			0.9	12+ 11.9	0.9	11.9	
長澮坪			0	3.3+ 16.3+20.9 +3.9	0	0	
계			44.2+(2.7)	186.8	0.9	14.7	
新里前後坪	南性文	南	29.9	0	29.9	0	
新里前後坪	南雙今	南	3.7	0	3.7	0	
長澮坪			0	16.9	0	0	
見山里	內需司田畓		1.1	0	0	0	
善山坪			0	8.6	0	0	
長澮坪			10.5	2.4+ 11.9	0	0	
계			16.6	22.9			
長安坪	盧興西	盧	0	9.6	0	9.6	
長安坪	朴京云	朴	0	1.3+ 1.7	0	7.2+1.3+ 18+1.7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長安坪	朴京才	朴	10.8	10.5	10.8	10.5	
新場里後越川城北前坪			3.6	0	3.6	0	
長安坪	朴京直	朴	6.6	0	6.6	0	
新里前後坪	朴啓玄	朴	0	0	20.6	0	
新里前後坪	朴根實	朴	5.2+14.3	25.9+0.8	5.2	25.9+0.8	
長澔坪			0	0	0	20.2+2.8	
新里前後坪	朴基日	朴	2.4+6.1+1.1	0	2.4+6.1+1.1	0	
鹿場坪	朴基天	朴	0	0	0	11	
長澔坪	朴大成	朴	0	1.8	0	0	
新里前後坪	朴大興	朴	30.7	0	0	0	
長澔坪			5.3	0	0	0	
西田坪	朴四月	朴	2.8	0	2.8	0	
鹿場坪	朴尙年	朴	0	0.5	0	0.5	
金尋坪			0	0	0	24.2	
新里前後坪	朴上云	朴	34	0	34	0	
長澔坪			7.4	0	7.4	0	
先加里	朴相玄	朴	0	0	0	6	
鹿場坪	朴成年	朴	5.3	0	5.3	0	
新里洞	朴順吉	朴	9.2	0	9.2	0	
新場里後越川城北前坪			4.1	0	4.1	0	
長安坪			6.8	2.6+8.8	6.8	2.6+8.8	
長安坪	朴順孫	朴	7	3+8.1+8.4	7	3+8.1+8.4	
下北里	朴永實	朴	0	0	0	10.9	
見山里前坪			0	0	9.8	0	
防坪			0	0	0	6.5	
金尋坪			0	0	0	9.3	
長安坪	朴云先	朴	11.4	0	11.4	0	
長安坪	朴云集	朴	14.3	14.4	14.3	14.4	
鹿場坪	朴元根	朴	0.3	0	0.3	0	
長安坪	朴元得	朴	0	5+12	0	5+12	
新場里後越川城北前坪			3	0	3	0	
新里洞	朴元白	朴	0.8	0	0.8	0	
見山里前坪	朴元實	朴	0	0	0	7.5	
金尋坪			0	0	0	13.5	
鹿場坪			1.6+4.3	0	1.6+4.3	0	
斗南里坪			0	11	0	15.2+11	
防坪			0	11.5	0	11.5	
西田坪			0.5+1+2.9	0	0.5+1+2.9	0	
下北里			0	0	(1.9)	0	초3간
乾逢水坪	朴元心(深)	朴	0	0	0	4.1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斗南里坪			0	0	0	6.2	
防坪			0	0	0	11.8+3.2	
西田坪			9	0	9	13.2	
先加里			0	0	0	19.2	
下北里			0	0	0	13	
西田坪			0.5	0	0.5	0	
鹿場坪	朴元五	朴	3.1+0.9+1.5	0	3.1+0.9+1.5+10.1	6.9	
斗南里坪			0	0	0	8.3	
石橋坪			0	0	0	11.2	
下北里			0	0	(1.2)	0	초2간
新里洞	朴允白	朴	10.4+4.5	0	10.4+4.5	0	
防坪	朴俊伊	朴	0	0	0	19.2+3.7	
鹿場坪	朴昌實	朴	0.9+1+4.4	0	0.9+1+4.4	0	
斗南里坪			0	0	0	15	
西田坪			0.5	0	0.5	0	
下北里			0	0	0	7.7	
新里前後坪	朴昌玄	朴	15.8	0	15.8	0	
新里洞	朴浩辰	朴	10.5+14.7	0	0	0	
宮坪	朴化實	朴	0	0	13.6	0	
見山里前坪	朴喜千(希天)	朴	0	0	0	13.2	
金尋坪			0	0	0	8.9	
鹿場坪			6.2	1.7	6.2	1.7	
斗南里坪			0	0	0	4	
防坪			0	0	0	15.8+4.2	
西田坪			0.9	0	0.9	0	
先加里			0	0	0	17.2	
下北里			0	0	17.6+(1.7)	0	초3간
新里洞	方基寧	方	26.3+11.7+4	0	26.3+11.7+4	0	
新里洞	方基浩	方	0	0	3.3	0	
長安坪	方德亥(海)	方	0	7.7	0	7.7	
新里洞			0	6.7	0	6.7	
通味下坪	白宗結	白	0	6	0	6+9.8	
新里前後坪	邊性三	邊	0	0	25.2	0	
長澔坪	邊性化	邊	0	0	0	22.5	
新里前後坪	邊春日	邊	25.2	0	0	0	
長澔坪	徐寬乭	徐	0	5.7	0	0	
見山里	徐上(相)玉	徐	0	0	19.4+(2)	0	초3간
西田坪			0	0	0	15.7	
長澔坪	孫意寬	孫	8.9	0	8.9	0	
斗南里坪	宋建五	宋	0	0	0	6.5	
新里洞	宋根必	宋	0	0	(2.5)	0	초3간
新里洞	宋萬一	宋	0	0	1.3+(2.3)	0	초3간
新里前後坪			0	0	6.6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西田坪			0	0	0	12.6	
長安坪			0	0	0	14.2	
新里前後坪	宋明先	宋	0	0	2.6	0	
新里洞			0	0	(0.8)	0	초2간
長澮坪			0	0	0	10.5	
乾逢水坪	宋石男	宋	0	0	0	16.2	
新里洞	宋成男	宋	3.3+ 11.3+2+1. 6+2.2+12 + 15.4	0	11.3+2+1. 6+2.2+12 + 15.4	0	
長安坪		宋	0	6.7	0	6.7	
長澮坪		宋	0	0	0	16.2	
新里洞	宋水(秀)男	宋	8.3+ 26.4+5.9	2.2	8.3+ 26.4+5.9	2.2	
長安坪			0	7.6	0	7.6	
長澮坪			9.1	0	9.1	0	
斗南里坪			0	6.5+4.6	0	4.6	
長澮坪	宋順男	宋	0	19.8	0	19.8	
宮坪	守禦屯田畓		0	2.4	0	0	
金尋坪			0	10.4	0	0	
鹿場坪			10.1	11+5.4+ 13.8	0	0	
石橋坪			0	13+ 11.2+5.8	0	0	
善山坪			0	4.7+ 6.8	0	0	
一西面琴巖前坪 二北田			16.5+7.9	0	0	0	
계			34.5	84.5			
善山坪	申季孫	申	4.8	0	4.8	3.15	
善山坪	申季順	申	0	0	0	9.3	
通味下坪	申性文	申	0	0	0	12	
乾逢水坪	申性白	申	0	0	0	8.2	
鹿場坪	申化京	申	1.6	0	1.6	0	
下北里			0	7.3	(2.8)	24	초2간
長澮坪	安德辰	安	0	6.9+6.4	0	10.75	
新里洞	安卜實	安	24.4	0	24.4	0	
西田坪			0	8.7+5.4	0	0	
見山里			9	0	9	0	
銀夜坪			0	8.8	0	0	
新里前後坪	安成得	安	1.6+7.9	0	1.6+7.9	0	
鹿場坪	安云西	安	4.2	0	4.2	0	
乾逢水坪	安云先	安	0	3.8+6	0	0	
斗南里坪			0	8.6+14.8	0	0	
木長洞			0	4.3	0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防坪			0	5.6	0	5.6	
善山坪			7.8+5.7	0	7.8+5.7	0	
通味下坪	梁九必	梁	0	0	0	6.1+5.4	
善山坪			0	0	0	11.2	
善山坪	梁四卜	梁	0	0	7	0	
善山坪	梁三卜	梁	0	0	0	10.8+4.6+6.4	
一西面琴巖前坪二北田			3.4	0	3.4+12	0	1
通味下坪			0	3.2	0	3.2	
下北里	梁成業	梁	0	10.9	0	0	
長澮坪	梁成業	梁	0	0	0	14.6+36.2	
斗南里坪	梁性又	梁	0	0	0	20.4	
善山坪	梁順必	梁	0	0	0	23.1	
斗南里坪	梁永先	梁	0	0	0	14.8	
善山坪	梁五卜	梁	0	0	7	0	
通味下坪			0	2.5	0	10+11.4+2.5	
長澮坪	梁占孫	梁	0	24.2+16.2+11+11.4+26.2	0	0	
通味下坪			0	5.7+7.8+9.2	0	0	
계			0	111.7	0	0	
斗南里坪	嚴官(寬)西	嚴	0	0	0	8.7	
長澮坪			0	0	5	4.3	
西田坪			7.3	0	7.3	0	
見山里			0	0	7.5+(1.7)	0	초3간
金尋坪			0	0	0	17.3	
新里洞	嚴寬(觀)水	嚴	5.9	0	5.9	0	
見山里			0	0	5.8+(1.3)	0	초3간
西田坪			3.6	2	3.6	2	
斗南里坪			0	0	0	7.1	
銀夜坪	嚴觀承	嚴	0	6.4	0	6.4	
先加里	嚴性(聖)文	嚴	0	0	0	14.5	
乾逢水坪			0	0	0	3.8+6	
見山里			0.9	0	1.5+0.9	7.1	
新里洞			4.4	0	4.4+0.5	0	
斗南里坪			0	0	0	7.1	
見山里	嚴召史	嚴	0	0	1.5	0	
見山里	嚴順業	嚴	0.9	0	0.9	0	
長澮坪			0	0	0	3.9+3.3	
見山里	嚴承文	嚴	0	0	(2.7)	0	초3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斗南里坪			0	0	0	17.8+3.4	
銀夜坪	嚴承又(禹)	嚴	0	0	0	4.2	
西田坪			0	0	3.8	0	
新里洞	嚴汝(如)實	嚴	1.4+6.4	0	1.4+ 6.4	0	
見山里			0	0	8.3+2.3+ (2.5)	0	초2간
見山前坪			0	0	0	6.3	
斗南里坪			0	0	0	9.1+8.6	
銀夜坪			0	0	0	4.8	
長安坪	嚴汝心(深)	嚴	33.4	0	33.4	7.7+ 12.8+6.4	
鹿場坪			10.2	0	10.2	0	
新里洞	嚴昌實	嚴	2.2	0	2.2	0	
斗南里坪			0	0	0	6.3	
見山前坪			0	0	0	2.2	
西田坪			12.5	0	12.5	0	
長澔坪			0	0	0	12.3	
銀夜坪			0	2.1	0	2.1	
銀夜坪	嚴昌在	嚴	0	4.3	0	4.3	
斗南里坪			0	6.3	0	6.3	
通味下坪	吳明卜	吳	0	7.3	0	0	
下北里	吳召史	吳	0	0	(0.7)+(0.8)	0	초2간+초2간
新里洞	龍成白	龍	5.5	0	5.5+ (3.3)	0	초5간
石橋坪	龍珠寺田畓		0	22.4	0	0	
善山坪			4.9+28+ 3.2	23.1+12.5+ 4.4+ 19.7+10.8+ 5.5+ 6.3+ 5.5+ 16.4+4.6+ 29.9+7.7+ 39.6+3.8+ 6.4+3.1+4	0	0	
通味下坪			0	11.4+9.1+ 9.5	0	0	
계			36.1	255.7			
新里洞	禹九今	禹	16.1	0	16.1	0	
新里洞	禹萬今	禹	2	0	2	0	
長澔坪	禹世分	禹	3.5	0	3.5	0	
新里洞	禹世化	禹	11.8+7.6	0	11.8+7.6	0	
新里洞	禹小禮化	禹	12.9+3	0	3	0	
新里洞	禹小次今	禹	1.8	0	1.8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長安坪	禹時化	禹	8.4	0	8.4	0	
新里洞	禹禮化	禹	9.2	0	9.2+5.7	0	
新里前後坪			1.4	0	1.4	0	
新里洞	禹有禮	禹	19.2+11.2 +7.4+ 11.2+11.9	0	19.2+11.2 +7.4+ 11.2+11.9	0	
長澔坪	禹有禮	禹	9.5	0	9.5	0	
新里洞	禹伊男	禹	3.6+8.5	0	3.6+8.5	0	
新里前後坪			2.3	0	2.3	0	
新里前後坪	禹井山	禹	8.8	0	0	0	
新里前後坪	禹太山	禹	14.7	0	14.7	0	
新里前後坪	禹興禮	禹	11.8+10.2 +6.4	0	11.8+10.2 +6.4	0	
銀夜坪	柳季(桂,癸)化(花)	柳	8.4	2.7	8.4	2.7	
西田坪			10.6	0	10.6	0	
斗南里坪			0	0	0	0.9	
乾逢水坪			0	0	0	24.2+4.2	
見山里前坪			11.3	0	11.3	0	
長安坪	柳寬甫	柳	5.4	4.3	5.4	4.3	
長澔坪	柳光必	柳	0	11	0	11	
長澔坪	柳寧實	柳	7.2	0	7.2	0	
斗南里坪	柳德山	柳	0	6.7+8.4	0	6.7+8.4	
乾逢水坪	柳德三	柳	0	0	0	15.6	
新里洞			24.2	0	24.2+11.1 +(1.9)	0	초2간
新里前後坪			0	0	5.5	0	
長安坪			0	0	0	7	
見山里	柳德仲(中, 重)	柳	3.3+ (1.1)+(2.7)	0	3.3	0	
見山里前坪			4.2+3+9.7 +7.8	11.2+0.4	4.2+3+9.7 +7.8	11.2+0.4	
見山前坪			0	8.3	0	8.3	
斗南里坪			0	4.5+2.6+ 14.4+9.2	0	4.5+2.6+ 14.4+9.2	
西田坪			4.4	0	4.4	0	
新里洞			6.2+ 10.4	0	6.2+10.4	0	
계			49+(3.8)	50.6	49	50.6	
見山前坪	柳乭男	柳	0	30.8	0	30.8	
見山前坪	柳白(伯)元	柳	10.4+3.1	0	10.4+3.1	0	
斗南里坪			0	0	0	4.8	
西田坪			0	7.4	0	7.4+7.3	
先加里			0	0	0	5.2	
新里洞			11.4	0	11.4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長澔坪	柳石熙	柳	0	0	18.2	13.6+10.3+12.6	
西田坪	柳善明	柳	1.6	0	1.6	0	
見山前坪	柳性(聖)九	柳	0	0	0	13.8	
金尋坪			0	0	0	8.7	
新里洞			2.2+1.1+5.4+6.8+5	0	2.2+1.1+6.8	0	
見山里			10.1	0	10.1+2.8+(2)	0	초5간
見山里前坪			10.2	6.5+11.8+7.1	10.2	6.5+11.8+7.1+6.4	
계			40.8	25.4	33.2+(2)	54.3	
見山里	柳性慕	柳	1.9+(3.3)	0	1.9+(3.3)	0	초8간
防坪	柳性西	柳	0	0	0	4.8	
見山里			0	0	(2.1)	0	초3간
石橋坪			0	0	0	10.4	
新里前後坪	柳成實	柳	8.1	0	8.1	0	
新里前後坪	柳性安	柳	0	0	7.8	0	
見山里	柳性又(聖友)	柳	0	0	4.7+(2.6)	0	초4간
見山里前坪			0	0	0	6.5	
新里洞	柳性(成)儀(義)	柳	2.6+13.8+10.6+4.8+7.2+(2.5)	4.6	2.6+13.8+10.6+4.8+7.2+14.7+(2.5)	4.6	초4간
新里前後坪			2	0	2	0	
見山里	柳成(性,聖)七	柳	(2.3)	0	(2.3)	0	초6간
見山里前坪			0	3.9	0	3.9	
西田坪			5	0	5	0	
銀夜坪			0	1.3+6.1	0	1.3+6.1	
長澔坪			0	4.7	0	4.7	
見山前坪	柳性玄	柳	0	0	0	22.2	
新里洞	柳性熙	柳	0	0	5.4+5	0	
新里洞	柳順禮	柳	2.3	0	2.3	0	
銀夜坪	柳順明	柳	0	0	0	9.9	
見山里	柳順七	柳	3.8	0	3.8	0	
斗南里坪	柳承九	柳	6.4	4.2+4.4+6.3	6.4	4.2+4.4+6.3	
木長洞			0	5+11	0	5+11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銀夜坪			0	11.7+4.2	0	11.7+4.2	
斗南里坪	柳承禹	柳	0	4.2	0	4.2+7.7+ 8.6+7.4	
木長洞			0	0	0	4.3	
西田坪			0.8+7.2	0	0.8+7.2	0	
銀夜坪			1.1+31.2	0.8+ 16.2+1.3	1.1+31.2	0.8+ 16.2+2.4+ 1.3	
斗南里坪	柳承肖	柳	0	6.4	0	6.4	
西田坪	柳承七	柳	0	4.7+2.9	0	4.7+2.9	
新里洞			0.7	0	0.7	0	
銀夜坪			0	6.6+7.5	0	6.6+7.5	
西田坪	柳承桓(煥)	柳	15.5	0	15.5	0	
斗南里坪			0	0	0	16	
新里洞	柳汝弘	柳	0	0	(2.5)	0	초2간
見山里前坪	柳汝煥	柳	0	0	0	5.1	
長澔坪	柳寧(永)實	柳	0	9.2+9+9.6 +6	0	9.2+9+9.6 +6	
見山里			0	0	(1.8)	0	초5간
見山前坪			0	0	0	7.3	
長澔坪	柳永七	柳	2.5	0	2.5	0	
見山前坪	柳永煥(桓)	柳	0	0	0	1.3	
斗南里坪			0	0	0	12.6	
新里洞			3.5	0	3.5	0	
見山里	柳用順	柳	0	0	2.6	0	
新里洞	柳日基	柳	42.9+10.1 +2.9	0	10.1+2.9	0	
銀夜坪	柳在云	柳	0	7.7	0	7.7	
木長洞			0	0	0	5.1	
銀夜坪	柳在元	柳	0	0	0	10.4	
西田坪			1.3	0	1.3	0	
新里洞	柳俊吉	柳	12.8	0	12.8	0	
長安坪	柳中吉	柳	6.8	0	6.8	14.7	
新里洞	柳春實	柳	16.7	0	16.7	0	
斗南里坪			0	9	0	9	
見山里前坪			0	0	0	9.8	
新里洞	柳學汝(如)	柳	1	0	4.9+1+ 10.3+(2.5)	0	초3간
新里前後坪			0	0	2.9	64.5	
長安坪			0	4	0	4	
見山里	柳化甫	柳	0	0	(1.1)	0	초3간
鹿場坪			0	0	4.8	0	
斗南里坪			0	0	0	3.1	
木長洞			0	0	0	5.6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西田坪			0	0	0	10.3+8.7	
銀夜坪			0	0	0	8.8	
新里洞	兪如(汝)弘	兪	0.5	0	0.5	0	
見山里前坪			0	0	0	5.7	
長安坪	劉建一	劉	0	0	0	8.4+2.7+6	
一西面琴巖前坪 二北田	劉仁業	劉	0	0	8.25	0	
新里洞	尹季孫	尹	10.3+1.9+ 11.1+4.9+ 12.8+(2.5) +(0.8)+ (1.9)	0	0	0	
銀夜坪			0	3.4	0	0	
長澔坪			13.4	2.6+ 18+ 10.5+2.4+ 11.9+17.1+ 17.6+20.6 +12.7+5.4 + 7.2+ 16.7+14.5	0	0	
계			54.4+(5.2)	160.6	0	0	215(5.2)
善山坪	尹丹伊	尹	0	0	4.9	0	
善山坪	尹亘明	尹	0	10.6+6.7	0	10.6+6.7	
乾逢水坪	尹萬興	尹	0	26+ 15.6+16.2	0	0	
見山里前坪			0	8.2	0	0	
見山前坪			0	2.2+8+44. 6+11	0	0	
金尋坪			0	6.7+ 13.2+14.6	0	0	
鹿場坪			0	4.8	0	0	
斗南里坪			0	11.6+16.1+ 9.1+4.4+ 6.3+5.1	0	16.1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木長洞			0	26.4	0	0	
防坪			0	3.2+11.8+11.6+7+4.8	0	0	
石橋坪			0	4+10.4+2.2+13	0	2.2+13	
先加里			0	7.5+6+19.3+14.5	0	0	
銀夜坪			0	4.6	0	4.6	
下北里			0	3	0	0	
계			0	373	0	35.9	
善山坪	尹凡丹	尹	0	13.6	0	13.6	
善山坪	尹三德	尹	3.8	9.6+13.1+6.5+11.1+18.9+20	3.8	9.6+13.1+6.5+11.1+18.9+20	
善山坪	尹性根	尹	0	5.4+6+13.1+5.5	0	5.4+13.1+5.5	
一西面琴巖前坪二北田			12	0	0	0	
善山坪	尹小八卜	尹	0	4.4	0	4.4	
一西面琴巖前坪二北田			10.8	0	10.8	0	
善山坪	尹月今	尹	0	6.4	0	6.4	
新里前後坪	尹月奉	尹	0.8+15	0	0.8+15	0	
長澔坪			0	0	0	15.15	
乾逢水坪	尹有德	尹	0	8.2	0	0	
防坪			0	7.7+15.8+32+11+8.4+24+3	0	24+3	
先加里			0	10.6+6.7	0	0	
善山坪			0	4.6+26.4+5+4.2+16.8+7+10.4+6+22+16.8+9.3+31.4+25.4+15.4+12.8+9	0	4.6+26.4+5+4.2+16.8+7+10.4+6+22+16.8+31.4+25.4+12.8+9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계			0	349.9	0	224.8	349.9-224.8= 125.1
一西面琴巖前坪 二北田	尹有乭	尹	9.7	0	9.7	0	
善山坪			0	3.9	0	3.9	
防坪	尹允丹	尹	0	10.8	0	10.8	
善山坪			0	0	0	7.7+ 3.8+ 19.7	
善山坪	尹二(伊)德	尹	10+6+3.5	14.1+14.7+ 8.2	10+6+3.5	14.1+14.7+ 8.2	
通味下坪			0	7.9+ 12	0	7.9	
善山坪	尹二月	尹	0	6.3+4	0	6.3	
乾逢水坪			0	4.1	0	0	
防坪			0	2.2	0	0	
善山坪	尹一(日)禮	尹	0	8.8+6.4	0	8.8+6.4	
乾逢水坪	尹忠卜	尹	0	12.6	0	0	
見山里前坪			2.7	0	2.7	0	
金尋坪			0	12.6	0	0	
防坪			0	22.9+3.8+ 8.3	0	0	
石橋坪			0	13.5+2.9+ 8.4	0	13.5+2.9	
下北里		尹	2.6+ (1.7)+(2.7) +(1.9)+ (2.1)	0	0	0	
新里洞	尹七星	尹	9.9	0	9.9	0	
長安坪			0	2	0	2	
善山坪	尹太奉	尹	0	3.6	3.2	3.6	
通味下坪	尹八卜	尹	0	0	0	4.55	
善山坪			0	0	0	19.8	
通味下坪	尹興石	尹	0	9.8+9.6+ 5.1	0	0	
長安坪	李京三	李	0	0	0	6.4	
見山里	李季化	李	0	0	(2.6)	0	초6간
下北里	李寬(觀)業	李	0	0	(1.5)	0	초3간
防坪			0	8.2	0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鹿場坪			13.8	0	13.8	0	
鹿場坪	李局曲	李	1.5	0	1.5	0	
長澔坪	李今甫	李	16.1	0	16.1	0	
長澔坪	李洛仁	李	0	0	0	10.5	
石橋坪	李丹伊	李	1.4	0	1.4	0	
先加里			0	0	0	7.5	
防坪	李德三	李	0	0	0	2.2	
長澔坪	李德順	李	0	0	0	18	
一西面琴巖前坪 二北田	李德元	李	2.5	0	2.5	0	
新里洞	李德有	李	1.3+(2.3)	0	0	0	
新里前後坪			6.6+5.5+ 2.9	64.5	0	0	
新里洞			(2.5)	0	0	0	
西田坪	李德昌	李	1.5	0	1.5	0	
善山坪	李道也之	李	5.2	7.5	5.2	7.5	
見山里	李莫乭	李	2.6+(2.4)	0	0	0	
見山里前坪			0	14.8	0	14.8	
宮坪			0	2	0	2	
金尋坪			0	0	0	10.4	
斗南里坪			0	12.6+8.5	0	12.6+8.5	
防坪			0	13.8	0	13.8	
銀夜坪			20.2	0	20.2	0	
下北里			5.3+ 8.8+ (3.2)+(1.2)	13.1	5.3+ 8.8+ (3.2)	13.1	초10간
계			36.9+(6.8)	64.8	34.3+(3.2)	75.2	
長安坪	李萬北	李	10.8+4.8	0	10.8+4.8	0	
善山坪	李萬釗	李	0	6.2	0	6.2	
乾逢水坪	李唜奉	李	0	6.5	0	6.5	
見山里前坪			13.8	0	13.8	0	
金尋坪			0	5+ 20.9+5.1+ 9.1+ 20.1+8.8+ 9.7	0	5+8.8+9.7	
鹿場坪			4.8	0	0	0	
斗南里坪			0	7+7.1+1.3	0	7+7.1+1.3	
西田坪			0.7+5.7+ 1.4	0	0.7+5.7	0	
下北里			1.2+5.4+ (1.7)+(3.1)	0	1.2+5.4+ (2)	0	초5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2)+ (1.5)				
新里洞	李敏甫	李	2.1	0	2.1	0	
長澔坪	李密今	李	17.8	0	17.8	0	
一西面琴巖前坪 二北田	李卜吉	李	0	0	2.7	0	
鹿場坪	李卜萬	李	4.3+0.8	0	4.3+0.8	0	
防坪			0	0	0	7	
先加里			0	0	0	6.7	
善山坪			0	18	0	18	
見山里前坪	李卜成	李	3.7	1	3.7	1	
金尋坪			0	11.2	0	11.2	
鹿場坪			0.4+2+2.5	0	0.4+2+2.5	0	
防坪			0	6.5+9.4	0	6.5+9.4	
先加里			0	16.8	0	16.8	
下北里			0	0	(1.2)	0	초3간
善山坪	李卜汝	李	0	5.3+ 46.8+8.4	0	5.3+ 46.8+8.4	
長澔坪	李奉基	李	0	16	0	16	
通味下坪	李奉吉	李	0	6.6	0	6.6	
一西面琴巖前坪 二北田			11.2	0	11.2	0	
乾逢水坪	李分丹	李	0	9.4	0	0	
見山里前坪			4.8	0	4.8	0	
宮坪			0	0	0	2.4	
金尋坪			0	2.5	0	0	
鹿場坪			2.9+1	1.6	2.9+1	0	
斗南里坪			3	3.9+5.3+ 15.2	0	0	
防坪			0	2.4+ 5.4+ 12.3+12.5	0	12.3+12.5	
西田坪			8	0	8	0	
先加里			0	10.2+5.8+ 12.2	0	10.2+5.8+ 12.2	
善山坪			0	11.2	0	0	
新里洞			1.2+2.4+ 3.4	0	2.4	0	
通味下坪			0	6.1+5.4	0	0	
下北里			0	6.3	(4.6)	0	초8간
계			26.7	127.7	19.1+(4.6)	55.4	
新里前後坪	李士兼	李	4.2	0	4.2	0	
善山坪	李士俊	李	0	6.8	0	6.8	
見山里	李尙	李	9.5+2.5+	0	0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上,相)俊		(1.7)+(1.3) +(1.3)				
見山里前坪			0	13.2	0	0	
金尋坪			0	5.5+ 25.9+3.7	0	5.5+25.9	
鹿場坪			6.3	0	0	0	
斗南里坪			0	4.1+7.8	0	4.1+7.8	
防坪			0	5.2+6.5	0	5.2	
下北里			14.1+1.2+ 5.2+ (2)+ (2)+ (4.6)+(2.8) +(2.3)+ (1.8)+(3.7) +(1.2)+ (2.3)	13.9	14.1+5.2	13.9	
계			38.8+(27)	85.8	19.3	62.4	
見山里	李石兆	李	1.5	0	1,5+(2.4)	0	초4간
長澔坪			0	0	6.6	9.35	
金尋坪	李石俊	李	0	0	0	14.6	
銀夜坪	李石(錫) 辰(眞)	李	5	2.1	5	2.1	
乾逢水坪			0	9.2	0	9.2	
見山里			0	0	(2.3)	0	초3간
新里洞	李性德	李	5+1.2	0	5	0	
新里前後坪	李成甫	李	17.6+11.6	0	17.6	0	
見山里	李成五	李	0	0	(1.9)	0	초3간
長澔坪			0	11	0	11+17.6	
銀夜坪			0	0	0	3.4	
宮坪	李成玉	李	13.6	0	0	0	
金尋坪			0	35.8+24.2 +9.6	0	35.8+9.6	
鹿場坪			26.4	0	26.4	0	
西田坪			7.7	0	7.7	0	
下北里			6.3+4.9+ 11.8+10.1 +1+ 25.8+(0.7)	7.7+ 15.3+41.3+ 16.2+26.7 +8.9+ 12+	6.3+4.9+ 11.8+10.1 +1+ 25.8+(6.8)	15.3+41.3+ 16.2+26.7 +8.9 +40.3	초5간 · 와10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3.5)+ (2.5)+ (6.8)	40.3+20.8			
계			107.6+ (13.5)	258.8	94+ (6.8)	194.1	364.4-288.1=76.3
見山前坪	李聖愈	李	0	0	0	4.9	
新里洞	李性僉	李	0	0	12.9	0	
見山里	李性七	李	7.2+2.6	0	7.2+2.6	0	
西田坪	李小吉	李	1.8	0	1.8	0	
下北里	李小乭伊	李	3.4	0	3.4+(1.7)	0	초3간
下北里	李召史	李	0	0	(1.2)	0	초3간
新里洞	李小尙今	李	7.9	0	7.9	0	
新里前後坪	李小水億	李	8.8	0	0	0	
鹿場坪	李小從吉	李	2.6	0	2.6	0	
銀夜坪	李小中安	李	0	3.8	0	3.8	
長澮坪	李所回	李	24.7	0	24.7	0	
防坪	李小興	李	0	0	0	22.9+3.8+ 8.3	
下北里	李小興伊	李	0	0	0	10.4+7.3+ 6.3	
先加里			0	0	0	10.6	
長澮坪	李水男	李	35.9	0	35.9	0	
長澮坪	李水億	李	6.6+ 8.6	0	0	0	
見山里	李順男	李	2.8+0.8+ 6.6+8.3+ (2.4)+(7.3) +(2.1)	0	6.6	0	
見山前坪			0	6.3	0	0	
斗南里坪			0	20.4	0	0	
西田坪			0	13.3+4.8	0	0	
銀夜坪			0	4.8+4.8	0	0	
一西面琴巖前坪 二北田	李順乭	李	0	0	12.1	0	
新里洞	李順潣	李	10.4	0	10.4	0	
新里前後坪	李順禮	李	32.2	0	32.2+8.8	0	
新里洞			14.8	0	14.8	0	
新里洞	李順任	李	15.7	0	15.7	0	
鹿場坪	李承乭	李	0.5	0	0.5	0	
見山里前坪	李承億(抑)	李	4	0	4	0	
下北里			0	0	(2.4)	0	초3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西田坪	李承詹	李	0	0	0	3.3	
鹿場坪	李時每	李	6.1	0	6.1	0	
下北里	李新(申)丹	李	0	0	(1.7)	0	초2간
先加里		李	0	15.9	0	0	
長澮坪	李良孫	李	0	41.6	0	41.6	
斗南里坪	李永佑(又, 友)	李	0	0	0	11.6+4.4+5.1	
長澮坪	李永雨	李	0	0	0	12.7	
見山前坪	李永云	李	0	0	0	11+44.6+9.7+8	
見山里前坪			0	0	0	12.6+2.7	
長澮坪	李永元	李	0	0	0	11	
見山前坪	李永祚	李	0	0.8	0	0.8	
鹿場坪			0	4	0	0	
見山里前坪	李永浩	李	0	0	0	8.2	
新里洞	李五石	李	2.9	0	2.9	0	
銀夜坪	李玉同	李	0	2.4	0	0	
斗南里坪			0	2.2+7.7	0	2.2	
見山里前坪			0	6.5	0	0	
新里洞	李玉占	李	4.9	0	4.9	0	
新里洞	李用五	李	1	0	1	0	
鹿場坪	李又成	李	2.2+6+3.5	0.6	2.2+6+3.5	0.6	
先加里	李元得(得)	李	0	0	0	5.5	
下北里			0	0	(2.3)+(3.7)	0	초3간+초3간
防坪			0	0	0	11	
長澮坪	李元西	李	0	0	0	7	
新里前後坪			0	0	30.7	0	
見山里	李元實	李	3.5	0	3.5+(7.3)	0	초5간
見山里前坪			2.2+6.6+8.1	7.1	14.4+2.2+6.6+8.1	7.1	
金尋坪			0	0	0	16.2	
鹿場坪			0	0	0	4	
斗南里坪			0	2.7+1.3+6.9+11.3	0	2.7+1.3+6.9+11.3	
西田坪			1.4	4.7	1.4	4.7	
先加里			0	0	0	19.3	
新里洞			19	0	19	0	
銀夜坪			0	10.8	0	10.8	
長澮坪			8.8	7	8.8	7	
石橋坪	李有乭	李	0	0	0	8.4	
斗南里坪			0	4	0	0	
鹿場坪			0.5	0	0.5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防坪			0	4.4	0	0	
先加里			0	5.2	0	0	
下北里			0	0	(2)	0	초3간
乾逢水坪			0	2.6	0	2.6+12.6	
金尋坪			0	7.2	0	7.2	
通味下坪	李有卜	李	0	0	0	7.3	
西田坪	李有實	李	1.9	0	1.9	0	
下北里			0	0	(0.7)	0	초2간
防坪	李銀分	李	0	0	0	4.4	
下北里			0	0	(2.7)	0	초3간
石橋坪	李乙禮	李	0	7.8	0	7.8+13	
長澔坪	李應雨	李	0	0	0	9.5	
見山里			0	0	(3.1)	0	초7간
新里前後坪	李日先	李	11	0	0	0	
長安坪	李彷乭	李	5.8	0	5.8	0	
善山坪	李彷禮	李	0	4.7	0	4.7	
通味下坪	李自斤釗	李	0	10	0	0	
下北里	李宗(從)吉	李	0	0	(2.1)	0	초3간
鹿場坪			3.7	0	3.7	0	
金尋坪	李宗卜	李	0	12.4+7.5+ 18.6+21.3+ 1.4+10.6	0	12.4+7.5+ 18.6+21.3+ 1.4+10.6	
新里前後坪	李宗釗	李	10	0	10	0	
新里前後坪			16.1	0	16.1	0	
新里洞	李坐用	李	1.3	1.6	1.3+1.9	1.6	
鹿場坪	李竹乭	李	1.6+0.6	0	1.6+0.6	0	
見山里	李俊卜	李	2.3+4.5+ 2.2+ (3.1)+(2.5) +(3.4)+(3. 8)+(2.6)+ (3.1)	0	0	0	
見山里前坪			14.4+1.9+ 9.8	5.7+7.6+ 4.3	0	0	
金尋坪			0	9.3	0	0	
斗南里坪			0	10.4+3.1+ 14.2+17.8+ 8.7+8.6	0	0	
木長洞			0	5.1+5.6	0	0	
銀夜坪			0	15.4+4.6+ 11.5+17.4	0	0	
長澔坪			11.2+14.6	4.3+ 12.7+5	0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下北里			0	0	(2.1)	0	초6간
계			60.9+(18.5)	171.3	(2.1)		232.2
見山里	李俊伊	李	0	0	9.5+(1.8)	0	초3간
見山里	李仲(中)安	李	9.4+20.6+20.8+(5.1)	1	9.4+20.6+20.8+(5.1)	1	초4간
新里洞			4	0	4	0	
銀夜坪			11.8+10.2	0	11.8+10.2	0	
長澔坪			0	6.3	0	6.3	
斗南里坪	李中完	李	0	2.6	0	2.6	
防坪	李且奉	李	0	3.6	0	0	
見山里	李春斤	李	0	0	(3.4)	0	초4간
銀夜坪	李春男	李	4.2	0	4.2	0	
見山里			1.7+(1.8)	0	9.6+1.7+(3.8)	0	초8간
金尋坪			0	0	0	6.7+2.5	
新里洞			3	0	3	0	
長澔坪			0	0	13.15	12.1+6.6+20.9	
下北里	李春大	李	0	0	2.6+(2.1)	0	초3간
下北里	李春乭	李	0	0	(2.4)	0	초3간
乾逢水坪			0	0	0	9.4	
石橋坪			0	1.7	0	1.7+22.4	
鹿場坪			2.1	0	2.1	0	
新里前後坪	李春得(淂)	李	0	0	11.6	0	
新里洞		李	9.2	0	9.2	0	
長澔坪	李治寧	李	13.5	0	13.5	0	
新場里後越川城北前坪	李治水	李	5	0	5	0	
見山里	李治弘	李	0	0	(3.1)	0	초3간
鹿場坪	李台成(太星)	李	4.3	0	4.3	0	
石橋坪		李	0	0	0	5.8	
見山里	李太弘	李	0	0	(2.4)	0	초3간
西田坪			0.4	0	0.4	0	
鹿場坪	李判今	李	7.7+3.5+1.1	0	7.7+3.5+1.1	0	
斗南里坪			0	0	0	3.9+5.3	
防坪			0	0	0	8.4	
新里洞			14.2+13.4	0	14.2+13.4	0	
下北里			0.7	0	0.7+(2)	0	초2간
鹿場坪	李判淂	李	1.1	0	1.1	0	
宮坪	李判孫	李	0	7	0	7	
鹿場坪			2.6+3.1	0	2.6+3.1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斗南里坪			0	2+4.4	0	2+4.4	
石橋坪			0	20.8	0	20.8	
下北里			18.7+(1.2)+(0.7)+(0.5)+(0.8)+(2.1)+(4.9)+(1.7)+(2.1)+(2.4)+(2.4)	0	18.7+(4.9)	0	초6간
宮坪	李必(畢)亨	李	0	7.2	0	7.2	
鹿場坪			5.6	0	5.6	0	
鹿場坪	李弘禮	李	1	0	0	0	
善山坪	李化先	李	0	15	0	15	
新里洞	李化順	李	8.2+4.5	0	8.2+4.5	0	
金尋坪	李興吉	李	0	6.4+10.1+7.6+5.9	0	6.4+10.1+7.6+5.9	
斗南里坪			1.3+1.1+0.5	0	1.3+1.1+0.5	0	
下北里			16+9.9+(7.7)	0	16+9.9+(7.7)	0	와5간 · 초8간
계			28.8+(7.7)	30	28.8+(7.7)	30	
乾逢水坪	李興大	李	0	24.2+4.2	0	0	
見山里			5.8+(4.1)+(2)+(2)	0	0	0	
見山里前坪			20.7	7.5+ 6.1	0	0	
見山前坪			0	9.7	0	0	
金尋坪			0	13.5+8.9	0	0	
鹿場坪			1.5	0	1.5	0	
斗南里坪			0	16+0.9+6.2+15	0	0	
防坪			0	18.6+19.2+4.2+4.6+3.7+5	0	18.6	
先加里			0	17.2+19.2+5.5	0	0	
長安坪			0	6.2+2.4+8.4	0	0	
長澔坪			0	9.5	0	0	
下北里			17.6	24+13	(0.5)	0	초2간
계			15.6+(8.1)	272.9	1.5+(0.5)	18.6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金尋坪	李興卜	李	0	0	0	21	
新里前後坪	李興山	李	7.9	0	9.7	0	
乾逢水坪	李興成	李	2	0	2	0	
金尋坪			0	0	0	21.3	
斗南里坪			4.2	0	4.2+6	0	
下北里			0	2	1.2+(2.3)	2+3	초3간
見山里	李興孫	李	0	0	1.2+ 28.2+(2.7)	0	초3간
新場里後越川城北前坪	林京順	林	0	0	10	0	
長安坪			0	0	0	6.4	
長澔坪	林敬實	林	0	0	13.15	20.5	
長澔坪	林士年	林	0	0	0	20.5	
新里洞			8.7	0	8.7	0	
長澔坪	林士玄	林	0	0	0	16.8	
宮坪	林石甫	林	4.5	0	4.5	0	
下北里	林召史	林	0	0	(3.1)	0	초3간
新里前後坪	林元俊	林	20.6	0	0	0	
銀夜坪	林在謙	林	0	0	0	7.9	
長澔坪	作廳田畓		3.2	13.9	0	0	
長安坪			3.6	0	0	0	
계			6.8	13.9			
通味下坪	張凡伊	張	0	12	0	12	
善山坪			4.9	9.6+3.4+ 4.4+ 12+23	4.9	9.6+3.4+ 4.4+ 12+23	
一西面琴巖前坪二北田	張少今	張	0	0	7.9	0	
通味下坪	張汝丹	張	0	0	0	9.6	
長澔坪	張永先	張	0	0	13.4	30.8	
新里前後坪			2.6	0	0	0	
通味下坪	張在平	張	0	12.7	0	12.7	
一西面琴巖前坪二北田			12.1	0	0	0	
鹿場坪	張致壽	張	0	8.3	0	8.3	
新里前後坪	全今奉	全	0	0	8.8	0	
西田坪	全學西	全	0	0	1.4	0	
鹿場坪			1.7	0	1.7	0	
石橋坪	鄭季德	鄭	0	1.6+8.3	0	1.6+8.3	
長安坪	鄭九連	鄭	0	0	0	6.2	
通味下坪	鄭其得	鄭	0	9.8	0	9.8	
鹿場坪	鄭基石	鄭	1.9	0	1.9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長安坪	鄭德京	鄭	0	0	3.6	0	
見山里	鄭道學	鄭	2.6+ 28.2+1.2+ (1.3)	7.1	0	0	
見山前坪			0	7.3	0	0	
長澔坪			0	13.6+24.2 +12.6+6.6	0	0	
下北里	鄭召史	鄭	0	0	(3.5)	0	초3간
善山坪	鄭順乭	鄭	0	1.2+5.4+ 18+8.8	0	1.2	
長澔坪	鄭十月	鄭	14.6	0	14.6	0	
善山坪	鄭汝先	鄭	0	0	0	15.4	
長澔坪	鄭元在	鄭	0	0	0	13.5	
一西面琴巖前坪 二北田	丁上京	丁	4.7+7.9	0	0	0	
西田坪	丁善益	丁	6.4	0	6.4	0	
長安坪	趙今孫	趙	0	13.6+6+ 19.2+1+0.1	0	13.6+0.1	
長澔坪	趙奉九	趙	7.6	0	7.6	0	
長澔坪			2.3	0	0	0	
見山里			1	0	1	0	
通味下坪	趙士交	趙	0	0	0	9.5	
一西面琴巖前坪 二北田	趙士圭	趙	0	0	9.4	0	
長安坪	趙三釗	趙	0	14.7	0	0	
西田坪	趙善得(淂)	趙	0	5.4+4.1+ 3.3	0	4.1	
通味下坪	趙善明	趙	0	0	0	4.55	
見山里	趙順得	趙	3.1+ (3.4)+(1.8) +(2.3)+ (1.5)+(2.4) +(1.9)	0	0	0	
見山前坪			0	4.9	0	0	
長澔坪			1.5+6.4	13.4+18.7+ 8.3+ 15.6+30.3 +15.7	1.5+6.4	0	
계			11+(13.2)	106.9	7.9		
一西面琴巖前坪	趙喆釗	趙	18.8+4.5	0	0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二北田							
新里洞	趙化西	趙	0	0	42.9	0	
木長洞	池元白	池	0	0	0	26.4	
長安坪	陳治云	陳	1.1	0	1.1	0	
鹿場坪	蔡永眞	蔡	0	4.4	0	4.4	
長安坪	崔甲得	崔	5.4	0	5.4	0	
新里洞	崔敬申	崔	11	0	11	0	
長安坪	崔京中	崔	12.2	0	12.2	0	
新里洞	崔寬叔	崔	0	0	10.5+1.2	0	
新里洞	崔寬植	崔	0	0	3.4	0	
通味下坪	崔其孫	崔	0	0	0	5.1	
鹿場坪	崔大興	崔	0	0	0	5.4	
新里前後坪	崔乭奉	崔	2.5	0	2.5	0	
新里洞	崔得(淂)卜	崔	15.8	0	15.8	0	
長安坪			13.2	4.2+3.6	13.2	4.2+3.6	
長安坪			13.2	0	13.2	0	
新里洞	崔萬釗	崔	8.4+4.5	0	8.4+ 4.5	0	
長安坪			5.6	0	5.6	0	
新里洞	崔卜吉	崔	26.6+10.4 +6.4+ (0.7)	0	26.6+10.4 +6.4	0	
新里洞	崔卜萬	崔	0	0	(0.7)	0	초3간
長安坪	崔士允	崔	12.8	0	12.8	0	
長安坪	崔三每	崔	12	0	12	0	
新里洞			0	12.4	0	12.4	
長安坪	崔先今	崔	7.2	0	7.2	0	
長澔坪	崔性寬	崔	22.9	0	22.9	0	
見山里	崔性敎(交)	崔	0	5.2	(1.5)	5.2	초5간
長澔坪			3.9	0	3.9	7.2+6.9+ 6.4	
長安坪	崔成乭	崔	3.4	0	3.4	0	
新里洞			9.6+2.7+ 35.2	0	9.6+2.7+ 35.2	0	
新里前後坪			0	8.9	0	8.9	
新里洞	崔成七	崔	4.9	0	4.9	0	
長安坪	崔小淂	崔	7.2	0	7.2	0	
長安坪	崔小得卜	崔	5.4	0	5.4	0	
新里洞			7.6	9.9	7.6	9.9	
長安坪			13	5.4	13	5.4	
新里洞	崔小卜同	崔	5	0	5	0	
新里洞	崔小分	崔	10.9	0	10.9	0	
長安坪	崔小三每	崔	9	0	9	0	
新里洞	崔小叾釗	崔	10.2+1.2	0	10.2+1.2	0	
長安坪	崔水甲	崔	12+9.4	0	12+9.4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新里洞			20.8	0	20.8	0	
一西面琴巖前坪 二北田	崔水德	崔	0	0	4.5	0	
長安坪			11.4	0	11.4	0	
新里洞	崔水先	崔	13.9	0	13.9	0	
長安坪	崔水孫	崔	0	0	0	12	
新里洞	崔水釗	崔	23	0	23	0	
長安坪	崔順得(淂)	崔	0	3.4	0	3.4	
新里洞			5.9	0	5.9	0	
新里洞	崔順西	崔	18	0	18	0	
新里洞	崔順辰	崔	3.7	0	3.7+6	0	
西田坪	崔承敎	崔	0	0	0	5.4+8.4	
長安坪	崔申得(淂)	崔	11.9	0	11.9	0	
新里洞			9.9+9.6	0	9.9+9.6	0	
長安坪	崔申每	崔	13.2	0	13.2	0	
見山里	崔汝三	崔	0	0	2.6+(1.3)	0	초2간
長澔坪			0	0	0	13.6	
銀夜坪			0	0	0	11.5	
一西面琴巖前坪 二北田	崔玉乭	崔	7.2	0	7.2	0	
善山坪	崔玉先	崔	0	5.7	0	5.7	
通味下坪			0	8.7	0	8.7	
善山坪	崔用卜	崔	0	0	0	6	
新里洞	崔雄先	崔	7.4	0	7.4	0	
長安坪			2+9.1	3.9	2+9.1	3.9	
新里洞	崔在今	崔	0	5.2	0	5.2	
長安坪	崔才信	崔	0	12.2	0	12.2	
長澔坪	崔春先	崔	0	0	0	11.9+16.3	
見山里			2.8	0	2.8+(2.3)	0	초2간
長澔坪	崔春化	崔	0	0	0	13.6	
長澔坪	崔治(致)德	崔	0	0	7.3	0	
長安坪			0	13.6	0	13.6	
乾逢水坪	崔治三	崔	0	0	0	26	
長安坪	崔興玉	崔	7.8	0	7.8	0	
善山坪	韓季同	韓	0	0	0	14.95	
新里洞	韓啓(季)分	韓	15.1	0	15.1	0	
善山坪			0	14	0	14	
新里前後坪	韓萬甫	韓	0	0	14.3	0	
長安坪	韓萬北	韓	9	0	9	0	
金尋坪	韓萬守(水, 壽)	韓	0	0	0	12.6	
鹿場坪			1.2+9.4	0.6	1.2+ 9.4	0.6+6.9	
防坪			0	1	0	1+5.4+2.4	
西田坪			3	0	3	0	
先加里			0	0	0	15.9	
下北里			0	0	(2.5)	12+10.4	초5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長澮坪	韓順交	韓	0	0	0	12.1+8.3	
見山里	韓順兆(祖)	韓	0	0	6.9+(1.8)	0	초4간
新里前後坪			4.1	0	0	0	
長澮坪			6+8.2	0	6+ 10.5+14.6 +8.2	9.35+16.7 +14.5+5.4	
新里前後坪	韓元三	韓	0	0	4.1	0	
長安坪	香炭畓		0	7+14.2	0	0	
長澮坪	玄敬叔	玄	0	0	8.6+6.6	0	
新里洞	玄石兆	玄	0	10.8	0	10.8	
長澮坪	玄興祿	玄	0	0	0	10.75	
見山里	洪德寬	洪	0	0	2.1+(1.3)	0	초2간
鹿場坪	洪德化	洪	2	0	2	0	
防坪			0	0	0	11.6+4.6	
西田坪			1.2+5.8	0	1.2+5.8	0	
新里洞	洪卜仁	洪	0	0	26.7	0	
長澮坪	洪成玉	洪	0	0	0	13.5	
長澮坪	洪義成	洪	0	0	0	16.8	
新里洞	洪學成	洪	(3.3)	0	0	0	
金尋坪	黃士元	黃	0	0	0	20.1+9.1	
鹿場坪			9.3	0	9.3+6.3	0	
斗南里坪			0	0	3	0	

표3. 이서면 야막리(동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二西面上下(부)	潛~問 38자	199호 (원204호)	4676.8	14661.6			19338.4(원 15870.8) 초가711간
이서면/호(부)			23.5	73.7			97.2
野幕里	權春興	權	8.6	0	8.6+ 16.5	0	
	金今艾	金	0	0	1.3	0.9+ 7.9+ 11+5.6	
	金德一	金	0	0	0	10.5	
	金卜得	金	0	11.4+ 18.5+ 2.8+9.9	0	11.4	
	金夫全	金	0	0	0	15.0	
	金尙眞	金	0.7	0	0.7	0	
	金性年	金	0	0	0	7.5+2+ 2.6	
	金性一	金	0	0	0	9.9	
	金小今禮	金	0	0	0	4.6	
	金順分	金	0	0	0	9.4	
	金昌云	金	0	0	17.1	0	
	金治行	金	0	0	0	8.8	
	金漢卜	金	0	0	0	27.3	
		김	0.7	42.6	19.1	134.4	
	朴景順	朴	0	0	0	2.8	
	朴公汝	朴	0	0	(1.2)	0	초3간
	朴今丹	朴	3+2+ 5.8	6.3+ 6.9+ 8.8+ 6.5+ 16.5+ 11.7+ 26.4+ 3.5+27	3+2+ 6.6+ 0.6+ 5.8	6.3+ 6.9+ 8.8+ 6.5+ 16.5+ 11.7+ 26.4+ 3.5+27	
	박금단계		10.8	113.6	18	113.6	
	朴小今丹	朴	0	0	1.3	0	
		박	10.8	113.6	19.3+ (1.2)	116.4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白順乭	白	1.4+8.6	11.2+6.3	1.4+8.6	11.2+6.3	
	守禦屯畓		0	3.3	0	0	
	安云先	安	0	14.2	0	0	
	龍珠寺田畓垈		0.4+6.6+0.6+5.2+1.3+1.2+12.5+34.2+1.4+4.4+1.3+3+(1.5)+(1.2)+(2.3)+(1.5)+(1.4)	7.9+33+4.6+13.7+24+2.4+44.9+27.3+0.9	0	0	
	용주사계		72.1+(7.9)	158.7			230.8+(7.9)
	元氏同	元	0	0	0	14.2	
	柳春今	柳	0	0	0	18.5	
	尹德禮	尹	0	0	11.55	13.7	
	尹卜德	尹	0	0	0	15.0	
	尹卜得	尹	21	0	21	0	
	尹分禮	尹	16.5	17.5+15.7	0	17.5+15.7	
	尹三德	尹	23.1	0	0	0	
	尹順三	尹	2.6	0	2.6	0	
	尹月今	尹	0	0	0	14.9	
	尹有乭	尹	0	6.9	0	6.9	
	尹二月	尹	0	35.4+4.8+7.2	0	0	
	尹太奉	尹	15.1	0	15.1	0	
		윤	78.3	87.5	50.25	83.7	
	李德三	李	0	0	0	4.8	
	李乭伊	李	6.2	16.7+9	0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6.3+9. 2+1.6			
	李萬乭	李	21.3	0	21.3	0	
	李上文	李	0	0	(1.5)	0	초2간
	李性來	李	0	0	(1.5)+ 0.4	11	초4간
	李成文	李	0	0	0	24	
	李性培	李	0	0	(2.3)+ 17.1	0	초5간
	李小萬乭	李	0	0	1.4	0	
	李小順今	李	0	0	0	16.7+ 9.2	
	李小春每	李	0	0	0	3.3	
	李順男	李	0	4.8	0	0	
	李永每	李	23.6	2.8	23.6	2.8	
	李自斤禮	李	0	7.5	0	0	
	李自斤釗	李	0	3+8.8	0	3	
	李春每	李	5.8+ 11+7.8	6	5.2+ 5.8+ 11+7.8	6	
	李治順	李	0	0	3	6.2+9	
	李七丹	李	0	0	0	11	
		이	75.7	75.7	93.6+ (3.8)	102.2	
	林昌實	林	0	0	0	35.4+ 18.1	
	張才平	張	5.9+ 16.3+ 3.7	4.1+ 6.2+ 2.6+ 15.1	5.9+ 16.3+ 3.7	4.1+ 2.6+ 15.1	
	장재평계		25.9	28	25.9	21.8	
	鄭順乭	鄭	3.6	17.3+ 5.6+ 22.6	3.6	17.3	
	정순돌계		3.6	45.5	3.6	17.3	
	趙順得	趙	0	18.1	0	0	
	崔明順	崔	0	0	(1.4)+ 11.55	2.4	초4간
	崔明七	崔	0	0	1.2+ 12.5	0	
	崔上吉	崔	0	0	6.2	0	
	崔元汝	崔	0	0	4.4	0	
	崔仁西	崔	0	0	0	4.8	
		최	0	0	35.85+	7.2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1.4)		
	韓癸同	韓	0	4.2	0	6.3+ 4.2+ 1.6	
	韓癸分	韓	0	9.4+ 10.5	0	0	
		한		24.1	0	12.1	
	계		285.7+ (7.9)	628.8			914.5+(7.9), 초가18간
野幕前坪	朴公西	朴	0	0	(1.8)	0	초2간
	朴今丹	朴	2.3	0	(3)+ 7.7+ 1.8+ 2.3	0	초5간
	朴汝化	朴	0	0	(1)	0	초2간
		박	2.3	0	11.8+(4)	0	
	龍珠寺田畓垈		25+7+ 5.5+ 0.5+ 5+11+ 7.4+ 1.8+ 7.7+ 10.3+ (3)+ (2.4)+ (2)+ (1)+ (1.7)+ (1.8)+ (1.7)+ (0.9)+ (1)	29.3+ 11.6+ 1.4	0	0	
	용주사계		81.2+ (15.5)	42.3			123.5+(15.5)
	尹德汝	尹	0	0	0.5	0	
	李敬尙	李	0	0	(1.7)	0	초4간
	李上文	李	0	0	11	0	
	李性培	李	0	0	25+ 5.5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답	
	李元實	李	0	0	(0.9)+ 10.3+7	29.3+ 11.6	초2간
	李致順	李	0	0	7.4	0	
		이	0	0	46.2+ (2.6)	40.9	
	林今丹	林	0	0	0	1.4	
	林昌實	林	0	0	(2)+5	0	초3간
	鄭順一	鄭	0	0	(1)	0	초2간/지심인
	韓敬實	韓	0	0	(1.7)	0	초4간
	洪敬先	洪	0	0	(2.4)	0	초3간
	계		83.5+ (15.5)	42.3			125.8+(15.5), 초가27간
야막계			369.2+ (23.4)	671.1			1063.6
	용주사/ 야막(%)		0.42	0.30			0.33

표4. 이서면 야막리(성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전	
二西面上下	潛~問 38자	199호 (원204호)	4676.8	14661.6			19338.4(원 15870.8) 초가711간
평균			23.5	73.7			97.2
野幕里+ 野幕前坪			369.2+ (23.4)	671.1			1063.6
野幕里	權春興	權	8.6	0	8.6+ 16.5	0	
野幕里	金今艾	金	0	0	1.3	0.9+ 7.9+ 1.1+5.6	
	金德一	金	0	0	0	10.5	
	金卜得	金	0	11.4+ 18.5+ 2.8+ 9.9	0	11.4	
	金夫全	金	0	0	0	15.0	
	金尙眞	金	0.7	0	0.7	0	
	金性年	金	0	0	0	7.5+2+ 2.6	
	金性一	金	0	0	0	9.9	
	金小今禮	金	0	0	0	4.6	
	金順分	金	0	0	0	9.4	
	金昌云	金	0	0	17.1	0	
	金治行	金	0	0	0	8.8	
	金漢卜	金	0	0	0	27.3	
	계		0.7	42.6	13.1	124.5	
野幕里	朴景順	朴	0	0	0	2.8	
野幕前坪	朴公西	朴	0	0	(1.8)	0	초2간
野幕里	朴公汝	朴	0	0	(1.2)	0	초3간
野幕前坪	朴今丹	朴	2.3	0	(3)+ 7.7+ 1.8+ 2.3	0	초5간
野幕里			3+2+ 5.8	6.3+ 6.9+ 8.8+ 6.5+ 16.5+ 11.7+ 26.4+3.	3+2+ 6.6+ 0.6+ 5.8	6.3+ 6.9+ 8.8+ 6.5+ 16.5+ 11.7+ 26.4+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전	
				5+27		3.5+27	
		계	13.1	113.6	29.8+ (3)	113.6	
野幕里	朴小今丹	朴	0	0	1.3	0	
野幕前坪	朴汝化	朴	0	0	(1)	0	초2간
	계		13.1	113.6	31.1+(7)	116.4	
野幕里	白順乭	白	1.4+ 8.6	11.2+ 6.3	1.4+ 8.6	11.2+ 6.3	
野幕里	守禦屯畓		0	3.3	0	0	
野幕里	安云先	安	0	14.2	0	0	
野幕前坪			25+7+ 5.5+ 0.5+ 5+11+ 7.4+1.8 +7.7+ 10.3+ (3)+ (2.4)+ (2)+ (1)+ (1.7)+ (1.8)+ (1.7)+ (0.9)+ (1)	29.3+ 11.6+ 1.4	0	0	
野幕里	龍珠寺田 畓垈		0.4+ 6.6+ 0.6+ 5.2+ 1.3+ 1.2+ 12.5+ 34.2+ 1.4+ 4.4+ 1.3+3+ (1.5)+	7.9+ 33+ 4.6+ 13.7+24 +2.4+ 44.9+ 27.3+ 0.9	0	0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전	
			(1.2)+(2.3)+(1.5)+(1.4)				
	계		153.3+(23.4)	201			354.3+(23.4)
	용주/야막(%)		0.42	0.3			0.33
野幕里	元氏同	元	0	0	0	14.2	
野幕里	柳春今	柳	0	0	0	18.5	
野幕里	尹德禮	尹	0	0	11.55	13.7	
野幕前坪	尹德汝	尹	0	0	0.5	0	
野幕里	尹卜德	尹	0	0	0	15.0	
野幕里	尹卜得	尹	21	0	21	0	
野幕里	尹分禮	尹	16.5	17.5+15.7	0	17.5+15.7	
野幕里	尹三德	尹	23.1	0	0	0	
野幕里	尹順三	尹	2.6	0	2.6	0	
野幕里	尹月今	尹	0	0	0	14.9	
野幕里	尹有乭	尹	0	6.9	0	6.9	
野幕里	尹二月	尹	0	35.4+4.8+7.2	0	0	
野幕里	尹太奉	尹	15.1	0	15.1	0	
		계	78.3	87.5	50.75	83.7	
野幕前坪	李敬尙	李	0	0	(1.7)	0	초4간
野幕里	李德三	李	0	0	0	4.8	
野幕里	李乭伊	李	6.2	16.7+9+6.3+9.2+1.6	0	0	
野幕里	李萬乭	李	21.3	0	21.3	0	
野幕前坪	李上文	李	0	0	11	0	
野幕里	李上文	李	0	0	(1.5)	0	초2간
野幕里	李性來	李	0	0	(1.5)+0.4	11	초4간
野幕里	李成文	李	0	0	0	24	
野幕里	李性培	李	0	0	(2.3)+1	0	초5간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전	
					7.1		
野幕前坪	李性培	李	0	0	25+5.5	0	
野幕里	李小萬乭	李	0	0	1.4	0	
野幕里	李小順今	李	0	0	0	16.7+ 9.2	
野幕里	李小春每	李	0	0	0	3.3	
野幕里	李順男	李	0	4.8	0	0	
野幕里	李永每	李	23.6	2.8	23.6	2.8	
野幕前坪	李元實	李	0	0	(0.9)+ 10.3+7	29.3+ 11.6	초2간
野幕里	李自斤禮	李	0	7.5	0	0	
野幕里	李自斤釗	李	0	3+8.8	0	3	
野幕里	李春每	李	5.8+ 11+7.8	6	5.2+ 5.8+ 11+7.8	6	
野幕里	李治順	李	0	0	3	6.2+9	
野幕前坪	李致順	李	0	0	7.4	0	
野幕里	李七丹	李	0	0	0	11	
		계	75.7	75.7	162.8+ (5.6)	147.9	
野幕前坪	林今丹	林	0	0	0	1.4	
野幕前坪	林昌實	林	0	0	(2)+5	0	초3간
野幕里	林昌實	林	0	0	0	35.4+ 18.1	
野幕里	張才平	張	5.9+ 16.3+ 3.7	4.1+ 6.2+ 2.6+ 15.1	5.9+ 16.3+ 3.7	4.1+ 2.6+ 15.1	
野幕里	鄭順乭	鄭	3.6	17.3+5. 6+22.6	3.6	17.3	
野幕前坪	鄭順一	鄭	0	0	(1)	0	초2간
野幕里	趙順得	趙	0	18.1	0	0	
野幕里	崔明順	崔	0	0	(1.4)+ 11.55	2.4	초4간
野幕里	崔明七	崔	0	0	1.2+ 12.5	0	
野幕里	崔上吉	崔	0	0	6.2	0	
野幕里	崔元汝	崔	0	0	4.4	0	
野幕里	崔仁西	崔	0	0	0	4.8	
		계	0	0	35.85+	7.2	

동명	성명 (법인)	성 씨 (가문)	시주(대주)		시작(가주)		비고
			전	답	전	전	
					(1.4)		
野幕前坪	韓敬實	韓	0	0	(1.7)	0	초4간
野幕里	韓癸同	韓	0	4.2	0	6.3+ 4.2+ 1.6	
野幕里	韓癸分	韓	0	9.4+ 10.5	0	0	
野幕前坪	洪敬先	洪	0	0	(2.4)	0	초3간

평택지역 마을조사 및 아카이브구축 사업

마을은 짧게는 수 십 년, 길게는 수백 년 이상 존속되어온 공동체다. 마을의 기억과 문화유산은 지역사 연구의 기초 자료다. 근대 이후 도시화와 공업화는 마을을 사라지게 하고 마을공동체의 기억과 문화를 파괴했다. 이렇게 사라지는 마을의 기억과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전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평택지역은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전통의 경관과 마을이 사라지고 있다. 마을의 변형 왜곡도 심하고 전통의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마을의 전통문화유산은 주민들이 흩어지고 기억에서 사라지고 나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구술, 각종 사료 및 유물수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해야한다.

첫째, 지역사 이해에 가장 필요한 마을, 사라지는 마을을 우선 조사한다.
둘째, 조사를 할 때는 지역에 이해가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조사경험이 있는 연구자를 활용한다.
셋째, 조사연구는 장기적 계획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넷째, 조사 후 아카이브 구축방안을 갖고 추진한다.
다섯째, 구축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추진한다.
활용방안으로는 마을지 편찬, 문화축제, 마을역사만들기사업 등이다.

■ 주제 별 조사대상 마을

① 도시개발과 산업화로 사라지는 마을(2014년~)
② 미군기지 주둔과 관련된 기지촌마을(2018년)
③ 전통의 읍치(邑治) 또는 지방통치조직과 관련된 마을(2019년)
④ 전통의 수로교통이나 어업과 관련된 포구마을
⑤ 구릉지대에 위치한 전통마을
⑥ 해방 전후 간척지에 형성된 들판마을
⑦ 상업이 발달한 시장마을

■ 연도 별 조사 마을

2014년 포승읍 | 희곡리(3), 신영리(4)
이충동 | 동령마을
세교동 | 은실마을 등 9개마을

2015년 용이동(2), 소사동(3), 동삭동(3), 칠원동(3), 합정동(1배미)
안중읍 | 현화리(2)
현덕면 | 화양리(2), 운정리(3) 등 19개마을

2016년 현덕면 | 권관리(5), 기산리(3), 대안리(4), 신왕리(2)
진위면 | 가곡리(7–5)), 마산리(4) 등 23개마을

2017년 현덕면 | 장수리(1)
포승읍 | 내기리(6–4), 도곡리(11–5), 원정리(10–5), 홍원리(7), 석정리(9–6) 등 27개마을

2018년 현덕면 | 방축리(2), 도대리(3), 인광리(7–5), 황산리(3), 덕목리(5) 등 18개마을
미군기지 관련마을 팽성읍 | 대추리, 도두리, 함정리, 본정리, 안정리
서탄면 | 적봉리, 장등1리, 신리, 야리, 황구지리, 금각리
신장동 | 구장터

2019년 진위면 봉남리, 팽성읍 객사리, 원평동

2020년 송탄동 브레인시티 개발구역 | 도일동, 장안동, 칠괴동, 가재동, 모곡동

2021년 진위면 '진위테크노밸리(진위4산업단지)' 개발구역 및 인근지역 | 야막리, 하북리, 견산리, 신리

2021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평택마을기록사업 ❽

진위면 진위테크노밸리 개발구역 및 인근지역(야막리, 하북리, 견산리, 신리)

조사 · 집필진

김해규(평택인문연구소장)

윤한택(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장수아(도시건축연구소 디트라스 소장)

장연환(효명고등학교 교사)

진행 · 편집 및 사진

최치선(평택문화원/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

---

*구술 중 일부 내용은 이 보고서에 다 수록하지 못했다. 원문은 평택문화원 홈페이지 마을 아카이브에 게제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제보자의 초상권, 개인신상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책에 실리는 것을 거부하였거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수록하지 않았다.

평택마을기록사업 ❽

진위면 진위테크노밸리 개발구역 및 인근지역(야막리, 하북리, 견산리, 신리)

2021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발행일	2021년 12월 27일
발행인	이보선(평택문화원장)
기획	오민영, 최치선
저자	김해규, 윤한택, 장수아, 장연환
발행처	평택문화원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비전동)
전화	031-655-2002
팩시밀리	031-654-8807
인쇄	(주)이다
저작권자	평택문화원, 2021
ISBN	ISBN 978-89-93983-58-6 : 비매품/무료

※ 이 책의 저작권은 평택문화원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내용 및 사진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이 책은 평택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